

ETHER LIBRARY

0027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Fyodor Dostoevsky · 1880

문학 ·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Роман в четырех частях с эпилогом

지은이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1821~1881)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879~1880년 잡지 『러시아 통보』에 연재, 1880년 두 권짜리 단행본으로 펴냈다. 이 책은 러시아어 위키문헌의 현대 철자본을 러시아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을 **러시아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소설은 1879년부터 1880년까지 모스크바의 잡지 『 러시아 통보 』에 연재되었고, 1880년 말 두 권짜리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듬해 초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 장편입니다.

이 책의 저본은 러시아어 위키문헌(ru.wikisource.org)에 실린 **현대 철자본**입니다. 1918년 철자 개혁 뒤의 맞춤법으로 옮겨 적은 본문이라 옛 글자(ѣ, і 같은 것)가 없습니다. 위키문헌 편집자가 본문의 프랑스어·라틴어 구절에 붙인 뜻풀이 각주는 번역하지 않고 참고만 했습니다.

영어권에서 오래 읽혀 온 콘스탄스 가넷의 1912년 영역본은 **뜻이 갈리는 자리를 확인하는 대조용으로만** 보았습니다. 그것도 제12권 제4장까지입니다. 저희가 가진 영역본 사본이 그 장 중간에서 끊겨 있어서, 제12권 제5장부터 에필로그 끝까지는 러시아어만 보고 옮겼습니다. 가넷이 영국식으로 바꾼 화폐와 호칭, 줄여 버린 애칭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헌사와 「작가로부터」, 네 부 열두 권 아흔세 장과 에필로그 세 장, 원문 5,063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러시아어 정본의 문단은 영역본보다 훨씬 길어서 한 문단이 몇 쪽에 이르기도 합니다(대심문관의 독백, 법정의 논고와 변론). 그 호흡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책의 짜임

원문은 **부(部)** → **권(卷)** → **장(章)**의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 제1~3권, 제2부에 제4~6권, 제3부에 제7~9권, 제4부에 제10~12권이 들고, 끝에 세 장짜리 에필로그가 붙습니다. 장 번호는 권마다 제1장부터 다시 매깁니다. 이 책은 부와 권이 바뀌는 자리마다 구분 쪽을 넣어 「제1부」, 「제1권 어느 집안의 내력」처럼 표시했습니다. 권의 제목도 원문의 제목을 옮긴 것입니다. 제4권 「파열」과 제5권 「프로와 콘트라」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름에 관하여

러시아 사람은 한 사람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셋째 아들은 서술에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이름과 부칭)이기도 하고 「알료샤」(짧은 이름)이기도 하며, 아버지와 맏형에게는 「알료시카」, 그루셴카에게는 「알료셴카」입니다. 맏아들 드미트리는 「미탸」, 「미텐카」, 「미치카」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카탸」, 「카텐카」로 불립니다. 어느 이름을 고르느냐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이고 온도이므로, **이 책은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원문이 그 자리에서 쓴 꼴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붙인 「등장인물」에 한 사람이 불리는 여러 이름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러시아어 이름은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습니다(미탸, 카탸, 스메르댜코프, 도스토옙스키).

부칭은 남자 「-오비치/-예비치」, 여자 「-오브나/-예브나」로 적고, 서민이 줄여 부르는 부칭(트리폰 보리시치, 미하일 마카리치)은 줄인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자의 성은 원문대로 여성형으로 적었습니다(호흘라코바, 스베틀로바, 크라솟키나).

호흘라코바 부인의 딸은 원문이 프랑스식 라틴 글자 「Lise」와 러시아식 「Лиза」를 갈라 쓰므로 「리즈」와 「리자」로 갈라 옮겼습니다.

반말과 존댓말

러시아어에는 가까운 사이에 쓰는 「ты」와 거리를 두는 「вы」가 있습니다. 이 책은 **ты를 반말로, вы를 존댓말로** 옮기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한국어의 나이와 위계 감각이 꼭 필요한 자리만 고쳤습니다. 이를테면 아낙들이 조시마 장로에게 쓰는 ты는 무례가 아니라 민중의 친근함이라 해요체로 옮겼고, 알료샤가 소년들에게 쓰는 вы는 아이들을 대등하게 대하는 그의 태도 그 자체라서 끝까지 존댓말로 두었습니다.

원문에서 인물이 вы에서 ты로, 또는 그 반대로 넘어가는 순간은 이 소설에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문이 바꾼 바로 그 문장에서 한국어 말투도 바꾸었습니다.** 그루셴카와 알료샤가 서로 반말을 트는 순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이반에게 갑자기 반말을 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원문이 이 대명사를 기울여 강조한 자리(「감히 나한테 *반말*하지 마」)는 「반말」, 「존댓말」이라는 낱말로 옮겼습니다.

인물마다 말투도 정해 두었습니다. 하인 스메르댜코프가 주인들에게 붙이는 비굴한 말끝 「-с」는 「-습죠」로, 퇴역 2등 대위 스네기료프의 같은 말끝은 「-습지요」로 갈라 옮겼습니다.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은 수도사들에게 하는 설교라 하오체로, 대심문관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독백은 해라체로, 법정의 논고와 변론은 배심원에게 하는 하십시오체로 옮겼습니다. 스메르댜코프와 몇몇 인물이 틀리게 쓰는 말은 틀린 채로 두었습니다.

서술자의 목소리

이 소설의 서술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작가가 아니라, 「우리 군」에 사는 이름 없는 연대기 작가입니다. 사건은 「열세 해 전」에 일어났고, 그는 소문과 전해 들은 말과 제 짐작을 섞어 기록합니다. 이 책은 서술을 해라체 과거형으로 옮기되, 서술자가 지금 독자에게 말을 거는 대목은 현재형으로 두었습니다.

서술자는 자주 머뭇거립니다. 「…인 듯하다」, 「어쩌면」, 「…라고들 한다」, 「하기야」, 「말하자면」 같은 말이 그의 문장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

머뭇거림이 이 책의 신빙성 장치이므로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같은 낱말을 한 문장에 두세 번 쓰고 문장을 「그리고…… 그리고……」로 끝없이 잇는 도스토옙스키의 버릇도 다듬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낱말

장로(старец) · 수도원에서 제자의 영혼을 맡아 이끄는 영적 스승입니다. 같은 노인이라도 「노인」(старик)과는 갈라 적었습니다. 장로가 사는 수도원 담 밖의 거처는 「은수처(隱修處)」, 수도사의 방은 「수방(修房)」입니다.

파열(надрыв) · 제4권의 제목입니다. 마음을 일부러 찢듯 감정을 부풀리고 그 아픔에 매달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딱 맞는 한국어가 없어 「파열」로 옮기고 처음 크게 나오는 자리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응접실의 파열」, 「오두막의 파열」처럼 장 제목에서도 같은 글자를 썼습니다.

프로와 콘트라(Pro и contra) · 제5권의 제목입니다. 원문이 라틴 낱말 그대로 썼으므로 소리대로 옮겼습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뜻입니다.

이 소설을 꿰뚫는 말들은 책 전체에서 같은 글자로 고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두가 모두에게 죄가 있다」, 「실행하는 사랑」, 「호색」과 「호색한」, 「어릿광대」, 「양파 한 뿌리」, 「아기」, 그리고 「3천 루블」과 「부적 주머니」, 「구리 절굿공이」가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이 원문에서 조금 다른 꼴로 나오는 자리는 원문의 꼴을 따랐습니다.

법정 장면의 말도 한 가지로 정했습니다. 아펙트(аффект)는 「격정」, 마니야(мания)는 「편집증」, 그 병을 앓는 사람은 「편집광」입니다.

성경 구절은 개역한글 성경의 문어체 투로 새로 옮겼고, 성경의 사람 이름과 땅 이름은 개역 성경의 표기를 따랐습니다(갈릴리 가나, 나사로, 욥). 정교회 용어는 한국 정교회와 그리스도교에서 쓰는 말을 따랐습니다.

각주

옮긴이의 각주는 **책 전체에 30개**이고, 각 장의 끝에 두었습니다. 각주는 러시아의 도량형과 관등이 처음 나올 때, 낱말의 뿌리에 걸린 농담(「스메르댜샤야」, 「스코토프리고니옙스크」)이 본문만으로는 살지 않을 때, 그리고 실제 사람과 작품을 들먹이는 대목이 본문만으로 통하지 않을 때에만 달았습니다. 인물의 속마음이나 상징을 풀이하거나 줄거리를 미리 알려 주는 각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루블과 코페이카는 오늘의 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것

인물이 섞어 쓰는 프랑스어·라틴어·독일어·폴란드어는 한국어로 옮기고, 처음 나오는 몇 자리에만 원문 철자를 괄호 안에 두었습니다. 같은 구절이 다시 나오면 한국어만 적었습니다.

돈과 연도, 거리와 무게는 「3천 루블」, 「1천 5백 루블」, 「25루블」, 「1866년」, 「20베르스타」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나이와 햇수, 시각, 사람 수는 「스무 살」, 「열세 해 전」, 「두 시」처럼 한글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대사 줄표는 큰따옴표로 바꾸었고, 인용 속 인용은 작은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여러 문단에 걸친 긴 연설과 편지는 이어지는 문단마다 여는 따옴표를 두고 마지막 문단에서만 닫았습니다.

원문의 기울임 강조는 대부분 강조 표시로 살렸습니다. 시와 노래는 각운은 버리고 행 수와 리듬을 살려 옮겼습니다.

인물들이 내뱉는 거친 말과 다른 민족을 낮추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 주는 자리이므로 순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질 끌지 않겠다」는 뜻으로 굳은 관용구 한 곳(제3권 제3장)은 뜻만 옮겼습니다.

원문에서 어긋나는 날짜와 나이, 인물이 잘못 기억한 인용은 바로잡지 않고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등장인물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의 모습만 적었습니다. 괄호 안은 그 사람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러시아 사람은 같은 사람을 이름과 부칭(아버지 이름에서 온 가운데 이름), 짧은 이름, 다정한 애칭, 낮춰 부르는 이름으로 번갈아 부르고, 어느 이름을 고르느냐가 곧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입니다. 이 책은 원문이 그 자리에서 쓴 이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카라마조프 집안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 쉰 줄의 지주. 맨손으로 시작해 돈을 모은 호색한이자 스스로 「늙은 어릿광대」를 자처하는 사람. 두 번 결혼해 아들 셋을 두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 (드미트리, 미탸, 미텐카, 미치카) · 맏아들, 스물여덟 살. 첫 아내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바에게서 났다. 퇴역 장교로, 성미가 뜨겁고 씀씀이가 헤프다. 어머니 몫의 유산을 두고 아버지와 다툰다.

이반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 (이반, 바냐, 바네치카) · 둘째 아들, 스물네 살. 둘째 아내 소피야 이바노브나에게서 났다. 대학을 마친 문필가로, 교회 재판에 관한 논문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 (알렉세이, 알료샤, 알료시카, 알료셴카, 료샤) · 셋째 아들, 스무 살. 이반의 친동생. 이 책의 「주인공」으로, 고장 수도원에서 조시마 장로를 모시는 수련 수사다.

파벨 표도로비치 스메르댜코프 · 표도르 파블로비치 집의 하인이자 요리사, 스물네 살. 고장의 성 바보 처녀 「 냄새나는 리자베타 」 (리자베타

스메르댜샤야)가 낳은 아이로, 늙은 하인 부부가 길렀다. 간질을 앓는다.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쿠투조프 ·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늙은 하인. 무뚝뚝하고 경건하다. 아내는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

두 여인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베르호프체바 (카탸, 카텐카) · 대령의 딸. 드미트리의 약혼녀로, 자존심이 높고 기품이 있다.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스베틀로바 (그루셴카, 그루샤) · 스물두 살. 늙은 상인 삼소노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아름다운 여인.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드미트리가 함께 마음을 둔다.

수도원

조시마 장로 · 예순다섯 살. 은수처(隱 修 處)에 사는 장로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축복을 청한다.

파이시 신부, 이오시프 신부 · 장로를 따르는 수도사제들.

페라폰트 신부 · 장로 제도를 미워하는 늙은 금욕 수도사.

미하일 오시포비치 라키틴 (라키틴, 미샤, 라키트카) · 수도원에 드나드는 신학생. 알료샤의 친구로, 영리하고 빈정대기를 좋아한다.

고장 사람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 · 드미트리의 어머니 쪽 친척. 파리에서 오래 산 서구파 자유주의자.

호흘라코바 부인 (카테리나 오시포브나) · 부유한 과부. 숨 가쁘게 말하고 화제를 이리저리 건너뛴다. 딸 **리즈**(리자)는 열네 살로 다리를 쓰지 못해 의자에 앉아 지낸다.

쿠지마 쿠지미치 삼소노프 · 늙은 부자 상인. 그루셴카의 후견인.

표트르 일리치 페르호틴 · 젊은 관리. 드미트리와 아는 사이다.

니콜라이 일리치 스네기료프 · 가난한 퇴역 2등 대위. 병든 아내와 딸들, 아들 **일류샤**(일류셰치카, 아홉 살)와 함께 오두막에 산다.

막시모프 · 이 집 저 집 얹혀사는 늙은 지주. 손님들 앞에서 우스갯감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칼가노프 · 미우소프의 먼 친척인 스무 살 남짓의 청년.

페냐 · 그루셴카의 하녀.

트리폰 보리시치 (트리폰 보리소비치) · 고장에서 20베르스타 남짓 떨어진 큰 마을 모크로예의 여관 주인.

소년들

콜랴 크라솟킨 (니콜라이 크라솟킨) · 열세 살을 넘긴 김나지움 학생. 어른 흉내를 내며 아는 체하기를 좋아하는 대장 노릇의 소년. 개 **페레즈본**을 기른다.

스무로프, 카르타쇼프 · 콜랴와 일류샤의 학교 친구들.

법정

이폴리트 키릴로비치 · 고장의 검사.

페튜코비치 · 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이름난 변호사.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넬류도프 · 예심판사.

미하일 마카로비치 마카로프 · 군 경찰서장.

게르첸시투베, 바르빈스키 · 의사들.

차례

헌사 17

작가로부터 18

제1부 21

제1권 어느 집안의 내력 22

제1장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23

제2장 맏아들을 떼어 보내다 28

제3장 두 번째 결혼과 두 번째 아이들 33

제4장 셋째 아들 알료샤 42

제5장 장로들 54

제2권 부적절한 모임 67

제1장 수도원에 도착하다 68

제2장 늙은 어릿광대 76

제3장 믿음 깊은 아낙들 90

제4장 믿음이 적은 부인 101

제5장 그리 되소서, 그리 되소서! 113

제6장 저런 인간이 왜 사는가! 126

제7장 출세주의자 신학생 141

제8장 추문 154

제3권 호색한들 167

제1장 하인 방에서 168
제2장 냄새나는 리자베타 176
제3장 뜨거운 마음의 고백. 시로 182
제4장 뜨거운 마음의 고백. 일화로 195
제5장 뜨거운 마음의 고백. "곤두박질" 206
제6장 스메르댜코프 218
제7장 논쟁 226
제8장 코냑을 마시며 234
제9장 호색한들 245
제10장 두 여자가 함께 254
제11장 또 하나의 무너진 평판 272

제2부 283

제4권 파열 284
제1장 페라폰트 신부 285
제2장 아버지 집에서 300
제3장 학생들과 엮이다 308
제4장 호흘라코바 부인 댁에서 316
제5장 응접실의 파열 326
제6장 오두막의 파열 344
제7장 그리고 맑은 공기 속에서 357

제5권 프로와 콘트라 373
제1장 언약 374
제2장 기타를 든 스메르댜코프 391
제3장 형제가 서로 알게 되다 402
제4장 반역 416
제5장 대심문관 433

제6장 아직은 몹시 모호한 장 463
제7장 "똑똑한 사람과는 이야기만 나눠도 재미있다" 480

제6권 러시아의 수도사 492
제1장 조시마 장로와 그의 손님들 493
제2장 하느님 품에 잠든 스키마 수도사제 조시마 장로의 생애에서. 500
장로 자신의 말을 받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가 엮음
제3장 조시마 장로의 담화와 가르침에서 541

제3부 560

제7권 알료샤 561
제1장 썩는 냄새 562
제2장 그런 한순간 579
제3장 양파 한 뿌리 588
제4장 갈릴리 가나 614

제8권 미탸 621
제1장 쿠지마 삼소노프 622
제2장 랴가비 638
제3장 금광 648
제4장 어둠 속에서 665
제5장 갑작스러운 결심 673
제6장 내가 간다! 696
제7장 예전의, 다툴 여지 없는 그 사람 708
제8장 헛소리 734

제9권 예심 755
제1장 관리 페르호틴의 출세 첫걸음 756
제2장 경보 766
제3장 영혼이 시련의 관문을 지나다. 첫째 관문 775

제4장 둘째 관문 788
제5장 셋째 관문 799
제6장 검사가 미탸를 붙잡다 816
제7장 미탸의 크나큰 비밀. 야유를 받다 828
제8장 증인들의 진술. 아기 845
제9장 미탸를 데려가다 859

제4부 865

제10권 소년들 866
제1장 콜랴 크라솟킨 867
제2장 꼬마들 874
제3장 학생 883
제4장 주치카 895
제5장 일류샤의 침대 곁에서 906
제6장 조숙 929
제7장 일류샤 940

제11권 형 이반 표도로비치 946
제1장 그루셴카의 집에서 947
제2장 아픈 발 961
제3장 꼬마 악마 976
제4장 찬가와 비밀 987
제5장 형이 아니야, 형이 아니야! 1007
제6장 스메르댜코프와 처음 만나다 1017
제7장 스메르댜코프를 두 번째로 찾아가다 1031
제8장 스메르댜코프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다 1045
제9장 악마. 이반 표도로비치의 악몽 1069
제10장 "그놈이 그렇게 말했어!" 1096

제12권 오심 1105

제1장 운명의 날 1106

제2장 위험한 증인들 1116

제3장 의학 감정과 호두 1푼트 1129

제4장 행운이 미탸에게 미소 짓다 1137

제5장 갑작스러운 파국 1151

제6장 검사의 논고. 인물 묘사 1166

제7장 역사적 개관 1181

제8장 스메르댜코프론 1189

제9장 전속력의 심리학. 질주하는 트로이카. 검사 논고의 끝 1204

제10장 변호인의 변론. 양날의 칼 1221

제11장 돈은 없었다. 강도도 없었다 1227

제12장 살인도 없었다 1236

제13장 사상의 간음자 1248

제14장 농군들이 제 뜻을 지켰다 1260

에필로그 1270

제1장 미탸를 구할 계획 1271

제2장 한순간 거짓이 진실이 되다 1279

제3장 일류셰치카의 장례식. 돌 곁의 연설 1290

헌사

안나 그리고리예브나 도스토옙스카야에게 바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작가로부터

내 주인공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일대기를 시작하려니 어딘지 난처하다. 다름 아니라, 나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를 내 주인공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가 결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피할 수 없이 나오리라는 것도 미리 내다보고 있다. 당신의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는 대체 무엇이 그리 뛰어나기에 당신이 그를 주인공으로 골랐소? 그가 무슨 일을 했소? 누구에게, 무엇으로 이름이 났소? 독자인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에 있었던 사실들을 연구하느라 시간을 써야 하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치명적이다. 거기에는 "어쩌면 소설을 읽으면서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라는 데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어쩌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서글프게도 미리 보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는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독자에게 증명해 낼 수 있을지는 몹시 의심스럽다. 사실 그는 어쩌면 행동하는 사람이기는 하되, 뚜렷하지 않은,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행동가다. 하기야 우리 시대 같은 때에 사람들에게 뚜렷함을 요구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노릇일 것이다. 한 가지만은 아마 꽤 분명하다. 그는 이상한 사람, 아니 괴짜다. 그러나 이상함과 괴벽은 주목받을 권리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쉽다. 특히 모두가 낱낱의 것들을 하나로

묶어, 이 온통 갈피 없는 뒤죽박죽 속에서 무엇이든 공통된 갈피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때에는 더욱 그렇다. 괴짜란 대개 낱낱의 것, 따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마지막 명제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거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한다면, 나는 내 주인공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의 의미에 대해 어쩌면 기운을 좀 차릴 수 있을 것이다. 괴짜가 "언제나" 낱낱의 것,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바로 그 괴짜가 전체의 고갱이를 제 안에 품고 있고, 그 시대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어디선가 밀려든 바람에 휩쓸려 무슨 까닭에선지 한동안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나는 이렇게 전혀 흥미롭지도 않고 흐릿한 설명에 나서지 않고, 서문 없이 그냥 대뜸 시작했을 수도 있다. 마음에 들면 어떻게든 읽어 줄 테니까. 그런데 곤란한 것은 내게 일대기는 하나인데 소설은 둘이라는 점이다. 주된 소설은 두 번째 것으로, 이미 우리 시대, 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에 내 주인공이 벌이는 활동이다. 첫 번째 소설은 벌써 열세 해 전에 일어난 일이고, 거의 소설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내 주인공의 이른 젊은 시절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소설을 빼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소설의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음의 내 곤란은 더욱 복잡해진다. 나 자신, 그러니까 전기 작가인 나부터가 이렇게 수수하고 뚜렷하지 않은 주인공에게는 소설 하나도 어쩌면 넘친다고 여기는 판에, 둘씩이나 들고 나타난다는 게 무슨 꼴이며, 내 쪽의 이런 주제넘음을 무엇으로 해명한단 말인가?

이 물음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다가, 나는 아무 해결 없이 그냥 비켜 가기로 마음먹는다. 물론 눈치 빠른 독자는 내가 처음부터 바로 그쪽으로 말을 끌고 왔다는 것을 벌써 오래전에

알아차렸고, 왜 쓸데없는 말과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느냐며 나를 못마땅해했을 뿐이다. 여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대답하겠다. 내가 쓸데없는 말과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쓴 것은 첫째로 예의 때문이고, 둘째로 꾀를 부린 탓이다. 어쨌든 미리 무언가 귀띔은 해 둔 셈이라는 거다. 그렇지만 나는 내 소설이 "전체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지닌 채" 저절로 두 이야기로 나뉜 것이 오히려 기쁘기까지 하다.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나면 독자가 두 번째 이야기에 손을 댈 만한지 아닌지 스스로 정할 테니까. 물론 누구도 무엇에 매여 있지 않다. 첫 번째 이야기를 두 쪽만 읽고 책을 덮어 버린 뒤 다시는 펼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정한 판단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끝까지 다 읽고야 마는 섬세한 독자들도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비평가들이 모두 그렇다. 바로 그런 분들 앞에서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볍다. 그분들의 그 모든 꼼꼼함과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들에게 소설의 첫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던져 버릴 더없이 정당한 구실을 드리는 셈이니까. 자, 서문은 이게 전부다. 이 서문이 군더더기라는 데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미 써 버렸으니 그냥 남겨 두련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제1부

제1권 어느 집안의 내력

제1장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는 우리 군(郡)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꼭 열세 해 전에 일어난 비극적이고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한때 꽤 이름이 났던 사람인데(지금도 우리 고장에서는 그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적당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이 "지주"에 대해(우리 고장에서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평생 제 영지에서 산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이것만 말해 두겠다. 그는 이상한 유형의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꽤 자주 마주치는 유형, 바로 추잡하고 방탕할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분별없는 인간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 재산에 얽힌 잇속만은 기막히게 챙길 줄 아는, 그리고 아무래도 오직 그것만은 할 줄 아는 그런 분별없는 부류에 속했다. 이를테면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거의 맨손으로 시작했다. 그는 지주라고 해도 가장 보잘것없는 축이었고, 남의 집 식탁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얻어먹고 식객 자리를 노렸다. 그런데도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현금만 10만 루블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평생 우리 군을 통틀어 가장 분별없이 제멋대로 구는 인간 가운데 하나로 지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구는 인간들은 대부분 꽤 영리하고 교활하다. 이것은 바로 분별없음이고, 그것도 무언가 특별한, 민족적인 분별없음이다.

그는 두 번 결혼해서 아들 셋을 두었다. 맏아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첫 아내에게서, 나머지 둘, 이반과 알렉세이는 둘째 아내에게서 얻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아내는 꽤 부유하고 이름난 귀족 가문인 미우소프 집안 출신이었는데, 그 집안 역시 우리 군의 지주였다. 지참금이 있는 처녀가, 게다가 아름답고, 그 위에 요즘 우리 세대에는 그리 드물지 않지만 지난 세대에도 이미 나타나던 똑똑하고 당찬 여자 축에 드는 처녀가, 어쩌다가 그 무렵 모두가 부르던 대로 그런 하찮은 "약골"에게 시집가게 되었는지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나는 지지난 "낭만주의" 세대에 속한 어느 처녀를 알고 있었다. 그 처녀는 한 신사를 여러 해 동안 수수께끼처럼 사랑했고, 하기야 언제든 아무 탈 없이 그에게 시집갈 수 있었는데도, 끝내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을 제 손으로 잔뜩 지어낸 끝에, 폭풍우 치는 밤에 절벽 같은 높은 기슭에서 꽤 깊고 물살 빠른 강으로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그것도 순전히 제 변덕 때문이었고, 오로지 셰익스피어의 오필리아를 닮고 싶어서였다. 어찌나 그랬던지, 그 처녀가 오래전부터 점찍어 두고 아끼던 그 절벽이 그다지 그림 같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그저 산문적인 밋밋한 기슭밖에 없었다면, 자살은 어쩌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참말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 러시아의 삶에서 지난 두세 세대 동안 이런 일이나 이와 같은 부류의 일이 적잖이 일어났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바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남의 바람이 불어온 메아리였고, 역시 갇힌 생각이 부린 안달이었다.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어쩌면 여자의 자립을 내세우고, 사회의 관습에 맞서고, 친척과 집안의 횡포에 맞서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잘 거들어 주는 상상력이, 이를테면 단 한순간이나마,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식객의 신분이기는 해도 모든 것이 더 나은 쪽으로 넘어가던 그 과도기에 가장 대담하고 가장 비꼬기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그 여자를 설득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심술궂은 어릿광대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슬아슬한 맛은 일이 신부를 몰래 데리고 달아나는 혼례로 치러졌다는 데에도 있었고, 그것이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의 마음을 무척 끌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로 말하자면 그 무렵에는 사회적 처지로 보아도 이런 종류의 일에 아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엇으로든 출세의 길을 닦고 싶어 안달이었기 때문이다. 좋은 집안에 들러붙어 지참금을 챙긴다는 것은 무척 솔깃한 일이었다. 서로의 사랑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은 아예 없었던 듯하다.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아름다웠는데도 신부 쪽에도, 그 사람 쪽에도. 그러니 이 일은 어쩌면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생애에서 하나뿐인 경우였을 것이다. 그는 평생을 더없는 호색한으로 산 사람이었고, 어떤 치맛자락이든 저를 부르기만 하면 한순간에 들러붙을 채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자만은 정욕의 측면에서 그에게 아무런 특별한 인상도 남기지 못했다.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는 달아나자마자 곧바로 자기가 남편을 경멸할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결혼의 결과는 놀랄 만큼 빨리 드러났다. 친정에서도 꽤 금세 이 일과 화해하고 달아난 딸에게 지참금을 떼어 주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더없이 난잡한 생활과 끝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때 젊은 아내가 표도르 파블로비치보다 비할 데 없이 고결하고 의젓하게 처신했다고 한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제는 다 알려진 일이지만, 아내가 돈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2만 5천 루블에 이르는 돈을 몽땅 슬쩍해 버렸고, 그 뒤로 그 수천 루블은 아내에게서 그야말로 물에 빠진 듯 자취를 감추었다. 역시 지참금으로 딸려 온 작은 마을 하나와 꽤 괜찮은 시내의 저택도 그는 오랫동안 온 힘을 다해 무슨 적당한 증서를 꾸며서라도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려 애썼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해냈을 것이다. 순전히, 말하자면, 그가 염치없이 뜯어내고 졸라 대는 짓으로 시시각각 아내의 마음에 불러일으킨 저 자신에 대한 경멸과 혐오 때문에, 그저 떨어져 나가 주기만 바라던 아내의 마음의 피로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친정이 끼어들어 이 날강도를 막아 냈다. 부부 사이에 자주 주먹다짐이 오갔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진 일인데, 전해 오는 말로는 때린 쪽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아니라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였다고 한다. 성미가 불같고, 대담하고, 살결이 거무스름하고, 참을성이 없고, 남다른 완력을 타고난 부인이었다. 마침내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집을 버리고, 가난에 허덕이며 무너져 가던 신학교 출신 교사 하나와 함께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서 달아났고, 세 살배기 미탸를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손에 남겨 두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곧장 집 안에 하렘을 통째로 차려 놓고 더없이 흥청망청 술을 퍼마셨고, 그 막간에는 거의 온 현(縣)을 돌아다니며 저를 버린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남편으로서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울 만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늘어놓았다. 무엇보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당한 남편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역을 연기하고, 제가 당한 모욕을 덧칠까지 해 가며 시시콜콜 늘어놓는 것이 즐겁고 우쭐하기까지 한 모양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무슨 관등이라도 받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슬프신데도 아주 흡족해하시는 걸 보니." 비웃는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덧붙이기를, 그는 새로 단장한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기쁜 데다, 웃음을 더 키우려고 일부러 제 우스운 처지를 모르는 척한다고 했다. 하기야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것은 그의 순진함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달아난 아내의 행방을 찾아냈다. 가엾은 여자는 페테르부르크에 있었다. 신학교

출신 교사와 함께 그리로 옮겨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더없이 완전한 해방에 몸을 던져 살고 있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곧바로 부산을 떨며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채비를 했다. 무엇 때문에? 그 자신도 물론 몰랐다. 정말이지, 어쩌면 그는 그때 정말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먹자마자 그는 길을 떠나기 전에 기운을 내겠다며 다시 끝도 없는 술판에 뛰어들 특별한 권리가 제게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아내의 친정에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 여자는 어쩐지 갑자기, 어느 다락방에서 죽었는데, 어떤 이야기로는 티푸스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굶어 죽었다고도 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취한 채로 들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가 거리로 뛰쳐나가 기쁨에 겨워 두 손을 하늘로 쳐들며 "이제는 놓아 주시는도다"[1] 하고 외쳤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는데, 그에게 품은 온갖 혐오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딱할 정도였다고 한다. 둘 다 있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제 해방을 기뻐하면서 저를 해방해 준 여자를 위해 울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악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개 그들을 두고 내리는 결론보다 훨씬 순진하고 단순하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

1.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노인 시므온의 기도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누가복음 2장 29절)의 첫마디. 정교회 만과에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다.

제2장 맏아들을 떼어 보내다

물론 이런 사람이 어떤 양육자, 어떤 아버지일 수 있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버지로서 그에게는 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 그는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와의 사이에서 얻은 제 아이를 아예, 완전히 내팽개쳤다. 아이에게 앙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모욕당한 남편으로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눈물과 하소연으로 모든 사람을 귀찮게 하고 제 집을 방탕한 소굴로 만드는 동안, 세 살배기 사내아이 미탸는 이 집의 충직한 하인 그리고리가 맡아 돌보았다. 그때 그리고리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이의 셔츠 한 벌 갈아입혀 줄 사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처음 한동안은 아이의 외가 쪽 친척들도 아이를 잊어버린 듯했다. 아이의 외할아버지, 즉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아버지인 미우소프 씨 본인은 그때 이미 세상에 없었다. 홀로 된 그의 아내, 미탸의 외할머니는 모스크바로 옮겨 가서 몹시 앓아누웠고, 이모들은 저마다 시집을 가 버렸다. 그래서 미탸는 거의 한 해 동안 하인 그리고리의 집에서, 마당 한쪽의 하인 오두막에서 지내야 했다. 하기야 아빠가 아이를 기억해 냈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아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지 않은가) 그 역시 아이를 다시 오두막으로 쫓아 보냈을 것이다.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방탕한 짓에 방해가 되었을 테니까. 그런데 마침 고(故)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사촌 오빠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파리에서

돌아왔다. 그는 그 뒤로 여러 해 내리 외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는 아직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미우소프 집안에서는 남다른 사람이었다. 교양 있고, 수도의 물을 먹었고, 외국 물을 먹었으며, 게다가 평생 유럽인이었고, 말년에는 1840년대와 50년대식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는 러시아에서도 외국에서도 그 시대의 가장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여럿과 사귀었고, 프루동도 바쿠닌도 직접 알았으며, 특히 방랑이 끝나 갈 무렵에는 1848년 2월 파리 혁명의 사흘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도 바리케이드에 올라 거의 그 혁명에 가담했던 것처럼 넌지시 비추었다. 그것은 그의 젊은 날의 추억 가운데 가장 흐뭇한 것이었다. 그는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재산을 가졌는데, 옛 셈법으로 치면 농노가 천 명쯤 딸린 영지였다. 그의 훌륭한 영지는 우리 읍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곳에 있었고, 우리 고장의 이름난 수도원 땅과 맞닿아 있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직 아주 젊었을 때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곧바로 이 수도원을 상대로 끝없는 소송을 걸었는데, 강에서 고기 잡을 권리였는지 숲에서 나무 벨 권리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직자 놈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을 시민이자 교양인의 의무로까지 여겼다.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물론 그는 그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고 한때는 눈여겨보기까지 했다) 미탸가 남았다는 것을 알자,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품은 젊은이다운 분노와 경멸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 그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처음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는 아이의 양육을 자기가 맡고 싶다고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대놓고 밝혔다. 그 뒤로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그 사람됨을 보여 주는 일화로 이야기했다. 그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미탸 이야기를 꺼내자, 상대는 한동안 대체 무슨 아이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더니, 제 집 어딘가에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까지 하는 듯했다는 것이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의 이야기에 부풀린 데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진실 비슷한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평생 연극하기를 좋아했다. 남 앞에서 갑자기 무슨 뜻밖의 역을 해 보이기를 좋아했고, 무엇보다 때로는 아무 필요도 없이, 심지어 제게 대놓고 손해가 되는데도 그랬다. 지금 이 경우처럼 말이다. 하기야 이런 기질은 무척 많은 사람에게 있고,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영리한 사람에게도 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열을 올려 일을 밀고 나갔고,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함께)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재산, 즉 집과 영지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이다. 미탸는 정말로 이 외당숙에게로 옮겨 갔다. 그러나 외당숙에게는 제 가족이 없었고, 그 자신은 제 영지에서 들어올 돈 문제를 정리해 확보해 두자마자 곧바로 다시 오래 머물 작정으로 파리로 서둘러 떠났으므로, 아이를 제 사촌 이모뻘 되는 모스크바의 한 마님에게 맡겼다. 그런데 파리에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 그 역시 아이를 잊어버렸다. 특히 그의 상상력을 그토록 뒤흔들었고 평생 잊을 수 없게 된 바로 그 2월 혁명이 일어나자 더욱 그랬다. 그러는 사이 모스크바의 마님이 죽었고, 미탸는 그 마님의 시집간 딸 하나에게로 넘어갔다. 그 뒤에도 그는 둥지를 한 번 더, 그러니까 네 번째로 옮긴 듯하다. 이 이야기는 지금 길게 늘어놓지 않겠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이 맏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으니 더욱 그렇다. 지금은 그를 두고 꼭 필요한 정보, 그것 없이는 소설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정보만 말해 두는 데 그치겠다.

첫째로, 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세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에게는 그래도 얼마간 재산이 있고 성년이 되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 믿으며 자란 아들이었다. 그의 소년기와 청년기는 어수선하게 흘러갔다. 그는 김나지움을 마치지 못했고, 그다음에는 어느 군사 학교에 들어갔으며, 그다음에는 캅카스에 가 있었고, 진급하고, 결투를 하고, 강등되고, 다시 진급하고, 실컷 놀아나며 상대적으로 꽤 많은 돈을 써 버렸다. 그런데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은 성년이 되고 나서였고, 그때까지는 빚을 졌다. 그는 제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성년이 된 뒤에야 처음으로 알게 되고 처음으로 보았다. 제 재산 문제로 아버지와 담판을 지으려고 일부러 우리 고장을 찾아왔을 때였다. 그때도 그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하다. 그는 아버지 집에 오래 머물지 않고 서둘러 떠났는데, 그사이 아버지에게서 얼마간의 돈을 받아 내고, 앞으로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받는 일을 두고 아버지와 무슨 거래를 맺었을 뿐이었다. 그 영지가 수입을 얼마나 내는지,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는(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때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서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이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미탸가 제 재산에 대해 부풀려진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것이 무척 흐뭇했다. 그에게는 그 나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얻은 결론은 이것뿐이었다. 이 젊은이는 경박하고, 난폭하고, 정열에 휘둘리고, 참을성이 없고, 술과 놀이에 빠진 사람이라, 무엇이든 당장 얼마쯤 손에 쥐여 주기만 하면, 물론 잠시뿐이겠지만, 곧바로 잠잠해진다. 바로 이 점을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적은 돈을 던져 주고 그때그때 조금씩 부쳐 주며 넘어갔다. 그러다 결국, 벌써 네 해쯤 지나서 미탸가 참다못해 아버지와 일을 아주 끝장내려고 두 번째로 우리 읍에 나타났을 때, 그는 몹시 놀랍게도 자기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었다. 셈하기조차

어렵지만, 그는 제 재산의 값어치를 이미 돈으로 몽땅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서 받아 썼고, 어쩌면 오히려 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가 이러저러한 때에 스스로 원해서 맺은 이러저러한 거래에 따라 그는 더는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 등등, 등등이었다. 젊은이는 충격을 받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의심했으며, 거의 제정신을 잃었고 이성을 놓아 버린 듯했다. 바로 이 사정이 파국으로 이어졌고, 그 파국을 서술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서두 소설의 내용,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바깥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소설로 넘어가기 전에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나머지 두 아들, 미탸의 동생들 이야기도 해야 하고, 그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제3장 두 번째 결혼과 두 번째 아이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네 살배기 미탸를 손에서 떼어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로 결혼했다. 이 두 번째 결혼은 여덟 해쯤 이어졌다. 이 두 번째 아내 소피야 이바노브나 역시 아주 어린 처녀였는데, 그는 어떤 유대 녀석과 손잡고 하던 자잘한 청부 일로 들렀던 다른 현에서 그 처녀를 데려왔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놀아나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기는 했어도 제 돈을 굴리는 일만은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었고, 제 잇속을 언제나 잘 챙겼다. 물론 거의 언제나 좀 비열하게였지만. 소피야 이바노브나는 "고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의지할 친척 하나 없었다. 이름 없는 어느 보제의 딸로, 은인이자 양육자이자 괴롭히는 사람이던 지체 높은 늙은 장군 부인, 보로호프 장군의 미망인의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만은 들었다. 온순하고 악의 없고 대꾸 한마디 못하던 이 양녀를 한번은 사람들이 올가미에서 끌어 내렸다고 한다. 양녀는 광 안의 못에 그 올가미를 걸어 놓았던 것이다. 보아하니 심술궂지는 않았으나 할 일이 없어 그저 더없이 견디기 힘든 제멋대로의 폭군이 되어 버린 이 노파의 변덕과 끝없는 잔소리를 견디기가 그토록 괴로웠던 모양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청혼했더니,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알아보고는 그를 쫓아냈다. 그러자 바로 이때 그는 첫 번째 결혼 때처럼 다시 고아 처녀에게 도주를 제안했다. 그 처녀도 그에 대해 제때 자세한 사정을 좀 더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시집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크다. 그러나 일은 다른 현에서 벌어졌다. 게다가 열여섯 살 계집아이가 은인 곁에 남느니 강물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는 것 말고 무엇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가엾은 처녀는 은인 마님을 은인 나리와 맞바꾸었다. 이번에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장군 부인이 성이 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을 다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돈을 받을 셈도 하지 않았고, 다만 순진한 계집아이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무엇보다 그 순진한 모습에 홀렸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그때까지 거칠고 육감적인 여자의 아름다움만을 탐하던 이 호색한, 이 타락한 사내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 순진한 눈동자가 그때 내 넋을 면도칼로 쓱 그어 놓더라니까." 그는 나중에 저 나름의 추잡한 낄낄거림을 섞어 가며 곧잘 그렇게 말했다. 하기야 방탕한 인간에게는 그것 역시 호색의 끌림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아내를 함부로 대했고, 아내가 말하자면 제 앞에 "죄를 지은" 처지이고 제가 그 여자를 거의 "올가미에서 끌어 내려 준" 셈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게다가 그 여자의 놀라운 온순함과 대꾸 한마디 못 하는 성품을 이용해서, 더없이 평범한 부부의 예의조차 발로 짓밟았다. 아내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집으로 몹쓸 여자들이 몰려들었고 난잡한 술잔치가 벌어졌다. 그 사람됨을 보여 주는 대목으로 말해 두자면, 음울하고 어리석고 고집 센 훈계쟁이로 예전 마님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를 미워하던 하인 그리고리가 이번에는 새 마님 편을 들었다. 그는 새 마님을 감싸며 하인으로서는 거의 용납되지 않을 만큼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다투었고, 한번은 술잔치를 해산시키고 몰려온 추한 여자들을 모두 완력으로 쫓아내기까지 했다. 나중에 이 불행한, 어려서부터 겁에 질려 살아온 젊은 여자에게 일종의 여자 신경병 같은 것이 생겼다. 대개 서민층의 시골 아낙들에게서 볼 수 있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린 아낙들을 클리쿠샤, 곧 발작하는 여자라고 부른다. 무서운 히스테리 발작이 따르는 이 병 때문에 환자는 때때로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그래도 소피야 이바노브나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두 아들 이반과 알렉세이를 낳아 주었는데, 큰아들은 결혼한 첫해에, 작은아들은 세 해 뒤에 낳았다. 그 여자가 죽었을 때 사내아이 알렉세이는 네 살째 되던 해였다. 이상한 일이지만, 나는 그가 그 뒤로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물론 꿈결처럼 아련하게. 어머니가 죽은 뒤 두 사내아이에게는 맏아들 미탸에게 일어났던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잊히고 버려져, 역시 그 그리고리에게, 역시 그의 오두막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들의 어머니를 거두어 기른 은인이자 제멋대로인 늙은 장군 부인은 바로 그 오두막에서 아이들을 찾아냈다. 장군 부인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그 여덟 해 내내 제가 당한 모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장군 부인은 여덟 해 내내 제 "소피야"가 어떻게 지내는지 남몰래 더없이 정확한 소식을 받아 보고 있었고, 그 애가 얼마나 앓고 있는지, 어떤 추태에 둘러싸여 있는지 듣고는 두세 번 제 식객 여자들 앞에서 소리 내어 말했다. "꼴좋다. 은혜를 모른 벌로 하느님이 내리신 거야."

소피야 이바노브나가 죽은 지 꼭 석 달 만에 장군 부인은 몸소 우리 읍에 불쑥 나타나 곧장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으로 갔다. 읍에 머문 것은 고작 반 시간쯤이었지만, 그사이 많은 일을 해냈다. 저녁 무렵이었다. 장군 부인이 여덟 해 동안 보지 못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거나하게 취한 채 그 앞에 나왔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장군 부인이 그를 보자마자 아무 해명도 없이 단숨에 그의 뺨을 두 번 철썩철썩 요란하게 갈기고, 앞머리 한 줌을 위에서 아래로 세 번 잡아당긴 다음,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곧장 두 사내아이가 있는 오두막으로 갔다고 한다. 아이들이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속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장군 부인은 곧바로 그리고리 자신의 뺨까지 한 대 갈기고, 두 아이를 다 데려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입은 그대로 데리고 나와 격자무늬 숄로 감싸 마차에 태우고 제 고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리는 이 따귀를 충직한 종처럼 견뎌 냈고, 무례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늙은 마님을 마차까지 배웅하면서 허리를 깊이 숙여 절하고는 마님에게 "고아들을 위해 하느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도 넌 얼간이야!" 장군 부인은 떠나면서 그에게 소리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일의 전모를 헤아려 보고는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고, 장군 부인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관해서는 그 뒤로 어느 한 조항에서도 형식상의 동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제가 맞은 따귀 이야기는 몸소 온 읍을 돌아다니며 떠벌렸다.

그런데 장군 부인도 그 뒤 얼마 안 가 죽었다. 다만 유언장에 두 꼬마에게 각각 1천 루블씩 남겼는데, "그 애들의 공부를 위해, 이 돈은 반드시 모두 그 애들에게 쓰되 성년이 될 때까지 넉넉히 버티도록 쓸 것. 이런 애들에게는 이만한 선심으로도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누구든 더 주고 싶은 사람은 제 주머니를 털면 될 일" 등등, 등등이었다. 유언장을 내가 직접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런 투의 무언가 이상한 말이 지나치게 별스럽게 적혀 있었다고 들었다. 노파의 주된 상속자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 그 현의 귀족 회장 예핌 페트로비치 폴레노프였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편지를 주고받아 보고는, 그에게서 그의 친자식들을 기를 돈을 짜낼 수는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대놓고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런 경우에는 늘 시간만 질질 끌었으며, 때로는 감상에 젖어 넋두리까지 늘어놓았다) 예핌 페트로비치는 몸소 고아들을 돌보기로 했고, 특히 그 가운데 작은아이 알렉세이를 무척 아껴서 알렉세이는 오랫동안 그의 집안에서 자라기까지 했다. 독자에게 이 점을 처음부터 눈여겨보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두 젊은이가 평생에 걸친 양육과 교육을 누구에게 빚졌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예핌 페트로비치,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부류에 속하는 더없이 고결하고 더없이 인정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장군 부인이 남긴 꼬마들의 1천 루블씩을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지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무렵에는 이자가 붙어 각각 2천 루블로 불어났다. 아이들은 제 돈으로 길렀고, 물론 한 아이에게 1천 루블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다. 그들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일에도 나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정만 짚어 두겠다. 하기야 형인 이반에 대해서는 이것만 말해 두자. 그는 어쩐지 음울하고 제 안에 틀어박힌 소년으로 자랐는데, 결코 겁이 많지는 않았지만 벌써 열 살 무렵부터, 저희가 어쨌든 남의 집에서 남의 은혜로 자라고 있다는 것, 저희 아버지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 등등, 등등을 꿰뚫어 알아 버린 듯했다. 이 소년은 아주 일찍, 거의 갓난아기 때부터(적어도 사람들이 전하는 바로는) 무언가 남다르고 빛나는 학습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쩌다 보니 그는 열세 살이 될까 말까 할 때 예핌 페트로비치의 집을 떠나, 모스크바의 어느 김나지움에 들어가서, 예핌 페트로비치의 어릴 적 친구이자 그 무렵 이름난 노련한 교육자의 집에 기숙하게 되었다. 이반은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말하자면 예핌 페트로비치의 "선행을 향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아이는 천재적인 교육자에게서 길러져야 한다는 생각에 예핌 페트로비치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기야 젊은이가 김나지움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예핌 페트로비치도, 그 천재적인 교육자도 이미 세상에 없었다. 예핌 페트로비치가 일을 잘못 처리한 탓에, 제멋대로인 장군 부인이 유언으로 남긴, 이자가 붙어 1천 루블에서 이미 2천 루블로 불어난 아이들 몫의 돈을 받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온갖

형식 절차와 지연 때문에 늦어졌다. 그래서 젊은이는 대학의 첫 두 해 동안 몹시 고생해야 했다. 그 내내 제 손으로 먹고살면서 동시에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짚어 두어야 할 것은, 그가 그때 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아 볼 시도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쩌면 자존심 때문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경멸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빠에게서는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리라고 일러 준 냉철하고 건전한 판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젊은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고 기어이 일거리를 얻어 냈다. 처음에는 한 번에 20코페이카짜리 과외로, 그다음에는 신문사 편집실들을 뛰어다니며 "목격자"라는 서명으로 거리의 사건을 다룬 열 줄짜리 짧은 기사를 갖다 주었다. 사람들 말로는 이 짧은 기사들이 언제나 어찌나 흥미롭고 톡 쏘게 쓰였는지 금세 잘 팔려 나갔다고 한다. 바로 이 한 가지에서 젊은이는, 수도에서 늘 그렇듯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 신문사와 잡지사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프랑스어 번역이나 필사 일거리를 달라는 똑같은 부탁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 말고는 더 나은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 늘 궁하고 불행한 우리 남녀 학생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에 비해 제가 실무에서나 머리에서나 얼마나 뛰어난지를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편집실들과 안면을 튼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 뒤로 내내 그곳들과 연을 끊지 않았고, 대학의 마지막 몇 해 동안에는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무척 재기 넘치는 서평을 싣기 시작해 문학 동아리에서 꽤 이름이 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가 우연히 훨씬 더 넓은 독자층의 주목을 갑자기 특별히 끌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 일이었고, 그때 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를 눈여겨보고 기억하게 되었다. 꽤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미 대학을 마치고 제 2천 루블로 외국에 다녀올 채비를 하던 중에 별안간 어느 큰 신문에 이상한 논문 한 편을 실었다. 그 논문은 비전문가들의 눈길마저

끌었는데, 무엇보다 그가 보기에 전혀 모르는 분야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 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마쳤던 것이다. 논문은 그 무렵 곳곳에서 일어난 교회 재판 문제를 다루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미 나온 몇몇 의견을 따져 보면서 그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다. 핵심은 그 어조와 결론의 놀라운 뜻밖에 있었다. 그런데도 교회 쪽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필자를 영락없이 제 편으로 여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과 나란히 세속 시민권 옹호론자들뿐 아니라 무신론자들까지 저희 쪽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몇몇 눈치 빠른 사람들은 논문 전체가 대담한 익살극이자 조롱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내가 이 일을 특히 언급하는 것은 이 논문이 때맞추어 우리 읍 근교의 이름난 수도원에도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새로 떠오른 교회 재판 문제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논문은 흘러 들어가서 완전한 어리둥절함을 불러일으켰다. 필자의 이름을 알고 나서는 그가 우리 읍 태생이고 "바로 그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아들이라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필자 본인이 갑자기 우리 고장에 나타났다.

그때 이반 표도로비치가 무엇 때문에 우리 고장에 왔는지, 기억하기로 나는 그때 이미 무언가 거의 불안한 마음으로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토록 숙명적이고 그토록 많은 결과의 시작이 된 이 방문은 나에게 그 뒤로도 오랫동안, 거의 언제나 분명치 않은 일로 남아 있었다. 대체로 보아, 그토록 학식 있고, 그토록 자존심 강하고 겉보기에 조심스러운 젊은이가 갑자기 그런 추한 집에, 그런 아버지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 아버지는 평생 그를 무시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았으며, 아들이 부탁해도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돈을 주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평생 아들들, 이반과 알렉세이마저 언젠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런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아버지와 한 달, 또 한 달을 지내고, 둘이 더할 나위 없이 사이좋게 어울려 지낸다. 이 마지막 사실은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특히 놀라게 했다. 앞서 이미 말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아내 쪽 먼 친척인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아예 눌러살게 된 파리에서 와서 그때 마침 다시 우리 고장, 읍 근교의 제 영지에 머물고 있었다. 기억하기로, 누구보다 놀라워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는 제 관심을 몹시 끄는 이 젊은이와 알게 되었고, 속으로 적잖이 쓰라려하며 때때로 그와 학식을 겨루었다. "자존심이 세지요." 그는 그때 우리에게 그 젊은이를 두고 말했다. "언제나 제 밥벌이는 해낼 사람이에요. 지금도 외국에 갈 돈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얼 바라는 걸까요? 아버지한테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지요. 아버지는 어떻든 돈을 안 줄 테니까. 술 마시고 계집질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노인이 그 젊은이 없이는 못 살 지경이 되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둘이 사이좋게 지낸다고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노인은 때때로 몹시, 심지어 악의에 찰 만큼 제멋대로였는데도 거의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한 듯한 때도 있었다. 이따금은 몸가짐도 전보다 점잖아졌다……

나중에야 밝혀진 일이지만, 이반 표도로비치가 온 것은 어느 정도는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부탁과 그의 일 때문이었다. 그는 이 형도 거의 같은 무렵, 바로 이번 방문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되고 처음으로 보았지만, 주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일로 모스크바에서 오기 전부터 이미 형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독자가 때가 되면 자세히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 특별한 사정을 이미 알게 된 뒤에도, 이반

표도로비치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아 보였고 그의 방문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로 보였다.

덧붙이자면,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때 아버지와, 그 무렵 아버지를 상대로 큰 싸움을 벌이고 정식 소송까지 걸었던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사이에서 중재자이자 화해시키는 사람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집안은 그때 난생처음으로 다 함께 모였고, 그 식구들 가운데 몇은 난생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오직 막내아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만은 그보다 한 해 전부터 이미 우리 고장에 살고 있었으니, 형들 가운데 누구보다 먼저 우리 고장에 온 셈이었다. 그런데 이 알렉세이를 소설의 무대에 올리기 전에 지금 이 서두 이야기에서 그에 대해 말하기가 나에게는 가장 어렵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서문을 써야 할 것이다. 적어도 아주 이상한 한 가지 점을 미리 밝혀 두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것이다. 나는 내 장래의 주인공을 그의 소설 첫 장면부터 수련 수사의 수도복 차림으로 독자에게 내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는 그때 이미 한 해째 우리 수도원에 살고 있었고, 평생 그곳에 들어앉을 채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제4장 셋째 아들 알료샤

그때 그는 겨우 스무 살이었다(형 이반은 그때 스물네 살째, 맏형 드미트리는 스물여덟 살째였다). 무엇보다 먼저 밝혀 두지만, 이 젊은이 알료샤는 결코 광신자가 아니었고,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신비주의자도 전혀 아니었다. 내 생각을 미리 다 말해 두겠다. 그는 그저 일찍 깨어난 박애주의자였을 뿐이고, 그가 수도원의 길로 뛰어들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무렵 그 길만이 그를 사로잡았고, 말하자면 세상의 악의 어둠을 뚫고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려 몸부림치던 그의 영혼에 출구의 이상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를 사로잡은 것도 오직 그가 그 길에서, 그의 생각으로는 범상치 않은 존재를, 우리 수도원의 이름난 장로 조시마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채워질 줄 모르는 제 마음의 뜨거운 첫사랑을 다해 그 장로에게 매달렸다. 하기야 그가 그때 이미 몹시 이상했다는 것, 그것도 요람에서부터 그랬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그를 두고 이미 말했지만, 그는 겨우 네 살째에 어머니를 여의었는데도 그 뒤로 평생 어머니를, 그 얼굴과 그 손길을 "마치 살아 있는 어머니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억했다. 이런 기억은(이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더 어린 나이에서도, 두 살 때부터도 남을 수 있다. 다만 평생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점들처럼, 다 꺼지고 사라져 버린 거대한 그림에서 찢겨 나와 그 한 귀퉁이만 남은 것처럼 떠오를 뿐이다. 그에게도 꼭 그랬다. 그는 어느 저녁을 기억했다. 여름이었고, 고요했고, 창문이 열려 있었고, 지는 해의

비스듬한 빛줄기가 비쳐 들었다(무엇보다 그 비스듬한 빛줄기가 기억에 남았다). 방 한구석에 성상이 있었고, 그 앞에 성상 등잔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성상 앞에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히스테리라도 일으킨 듯 비명과 외침을 섞어 가며 흐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두 팔로 움켜잡고 아플 만큼 꽉 끌어안은 채 그를 위해 성모께 기도하면서, 마치 성모의 보호 아래 맡기려는 듯 품에 안았던 그를 두 손으로 성상 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모가 뛰어 들어와 겁에 질려 어머니에게서 그를 빼앗아 간다. 이런 그림이다! 알료샤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했다. 그가 떠올릴 수 있는 만큼으로 보아 그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지만 아름다웠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억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그는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다. 그렇다고 남을 믿지 못해서도, 겁이 많거나 음울하게 사람을 피해서도 아니었고,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데서, 이를테면 무슨 속마음의 근심 같은 데서 비롯되었다. 오로지 저 혼자만의, 남과는 상관없는 근심이었지만 그에게는 어찌나 중요했던지 그 때문에 그는 남들을 잊어버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온 것 같았는데도, 그를 숙맥이나 순진한 사람으로 여긴 이는 아무도,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는 그가 사람의 심판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남을 단죄하는 짐을 떠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단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그리고 평생 그랬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자주 몹시 쓰라리게 슬퍼하면서도 조금도 단죄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이런 뜻에서 그는 아무도 그를 놀라게 하거나 겁먹게 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것도 아주 이른 젊은 시절부터 그랬다. 스무 살째에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더러운 방탕의 소굴로 들어온 그는,

순결하고 깨끗한 젊은이였건만 차마 볼 수 없을 때면 말없이 자리를 피할 뿐, 누구에게도 경멸이나 단죄의 기색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때 식객이었던 만큼 모욕에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라, 처음에는 미덥지 않은 듯 음울하게 그를 맞았지만("말이 너무 없고 혼자 생각이 너무 많단 말이야"), 얼마 안 가, 고작 두 주일쯤 지나서는 끔찍하게 자주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사실 취한 눈물을 흘리며 술기운에 젖은 감상 속에서 그랬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깊이, 물론 그런 사람이 일찍이 누구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어디에 나타나든 모두에게 사랑받았고, 그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은인이자 양육자인 예핌 페트로비치 폴레노프의 집에 들어가자, 그는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어찌나 제게 정들게 했던지 그 집에서는 그를 영락없이 친자식처럼 여겼다. 그런데 그가 이 집에 들어간 것은 아이에게서 계산된 꾀나 약삭빠름이나 비위를 맞추어 마음에 들려는 재주, 남들이 저를 사랑하게 만드는 솜씨 따위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갓난아기 같은 나이였다. 그러니 남에게 특별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재능을 그는, 말하자면 타고난 본성 속에, 꾸밈없이 곧바로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는 바로 친구들의 불신을, 때로는 조롱을, 어쩌면 미움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이에 속했을 듯도 하다. 이를테면 그는 생각에 잠기곤 했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구석으로 가서 책을 읽기를 좋아했는데, 그런데도 친구들이 그를 어찌나 좋아했던지 학교에 다니는 내내 그를 영락없이 모두의 귀염둥이라고 부를 만했다. 그는 좀처럼 장난을 치지 않았고 좀처럼 명랑하지도 않았지만,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음울함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가 차분하고 맑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보았다. 또래들 사이에서 그는 한 번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바로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누구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년들은 그가 제 겁 없음을 조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마치 제가 용감하고 겁이 없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모욕을 마음에 담아 두는 법이 없었다. 모욕을 당하고 한 시간쯤 지나서 그가 모욕한 아이에게 대답을 하거나 스스로 말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토록 믿음 어린 맑은 얼굴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그럴 때 모욕을 어쩌다 잊어버린 척하거나 일부러 용서한 척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영락없이 사로잡고 굴복시켰다. 그에게는 김나지움의 모든 학년에서, 가장 낮은 학년부터 가장 높은 학년까지 친구들이 늘 그를 놀려 대고 싶게 만드는 기질이 딱 하나 있었다. 심술궂게 비웃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이들에게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질이란 거칠고 지나칠 만큼의 수줍음과 순결함이었다. 그는 어떤 말들, 여자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다. 이 "어떤" 말과 이야기는 불행히도 학교에서 뿌리 뽑을 수가 없다.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소년들, 아직 거의 어린아이인 아이들이 교실에서 저희끼리, 심지어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일, 그런 장면과 모습은 병사들조차 늘 입에 올리지는 않을 것들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지식층과 상류 사회의 그토록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방면에서 이미 익숙한 많은 것을 병사들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여기에는 아마 아직 도덕적 타락은 없을 것이다. 냉소도, 진짜 방탕하고 속 깊은 냉소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냉소는 있고, 바로 그것을 아이들은 흔히 무언가 섬세하고 세련되고 사내다운, 본받을 만한 것으로까지 여긴다. "알료시카 카라마조프"가 "그 이야기"만 나오면 손가락으로 재빨리 귀를

틀어막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이따금 일부러 그의 곁에 우르르 몰려서서 억지로 그의 손을 귀에서 떼어 내고는 양쪽 귀에 대고 더러운 말을 소리쳐 댔다. 그러면 그는 몸부림치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드러누워서 얼굴을 가렸고, 그러는 내내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말없이 모욕을 견뎌 냈다. 그래도 끝내는 아이들도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고, 더는 "계집애"라고 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점에서는 오히려 그를 딱하게 여기며 바라보았다. 덧붙이자면, 학급에서 그는 공부로는 늘 가장 잘하는 축에 들었지만 한 번도 일등으로 꼽힌 적은 없었다.

예핌 페트로비치가 죽은 뒤 알료샤는 현의 김나지움에서 두 해를 더 보냈다. 예핌 페트로비치의 슬픔을 달랠 길 없는 아내는 남편이 죽자마자 거의 곧바로, 모두 여자들뿐인 온 가족을 데리고 오래 머물 작정으로 이탈리아로 떠났다. 알료샤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두 부인, 예핌 페트로비치의 무슨 먼 친척 여자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떤 조건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그 자신도 몰랐다. 그가 누구의 돈으로 사는지 한 번도 마음 쓰지 않았다는 것 역시 그를 잘 보여 주는, 그것도 아주 잘 보여 주는 기질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형 이반 표도로비치와 완전히 정반대였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대학의 처음 두 해를 제 힘으로 먹고살며 몹시 고생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은인 집에서 남의 빵을 먹으며 산다는 것을 쓰라리게 느꼈다. 그러나 알렉세이의 성격에 있는 이 이상한 기질은 그다지 엄하게 탓할 수 없을 듯했다. 그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알렉세이가 틀림없이 일종의 성 바보 같은 젊은이에 속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젊은이는 갑자기 큰 재산이 통째로 굴러들어 와도, 처음 달라는 사람에게, 좋은 일에든, 어쩌면 그저 약삭빠른 사기꾼이 달라고 해도 그 사기꾼에게든 서슴없이 내주고 말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말해서, 그는 돈의 값어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물론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그가 한 번도 달라고 한 적 없는 용돈을 받으면, 그는 몇 주일씩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몹시 헤프게 굴어 돈이 금세 사라져 버렸다. 돈 문제와 부르주아적 정직함에서 무척 까다로운 사람인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나중에 한번 알렉세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나서 그를 두고 이런 경구를 남겼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을 갑자기 돈 한 푼 없이 인구 백만의 낯선 도시 광장에 혼자 남겨 두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테고 굶어 죽지도 얼어 죽지도 않을 겁니다. 곧바로 누군가 먹여 주고, 곧바로 누군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요. 만약 아무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곧바로 자리를 잡을 텐데, 그게 그에게는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굴욕도 들지 않을 테고,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에게도 아무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지도 모르지요."

그는 김나지움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아직 한 해가 꼬박 남아 있었는데, 그는 느닷없이 제 부인들에게 문득 마음에 떠오른 어떤 일로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밝혔다. 부인들은 그를 무척 안쓰러워하며 보내 주려 하지 않았다. 차비는 아주 싸게 들었고, 부인들은 그가 제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지 못하게 했다. 그 시계는 은인 집안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준 선물이었다. 부인들은 그에게 넉넉하게 돈을 마련해 주었고, 새 옷과 속옷까지 챙겨 주었다. 그러나 그는 꼭 삼등칸에 타겠다면서 돈의 절반을 부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읍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처음 꼬치꼬치 묻는 "과정도 다 마치지 않고 대체 뭣 하러 납셨느냐?"라는 물음에 그는 아무 대답도 똑바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 말로는 여느 때와 달리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때 그는 바로 그 때문에 왔다고

스스로 털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방문의 까닭이 그것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때 저 자신도 몰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체 무엇이 갑자기 제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더니, 그를 무슨 새롭고 알 수 없으나 이미 피할 수 없게 된 길로 거스를 수 없이 이끌었는지.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둘째 아내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들에게 알려 줄 수 없었다. 관 위에 흙을 덮은 뒤로 그 무덤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고,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그때 아내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는 그전에 오랫동안 우리 읍에 살지 않았다. 둘째 아내가 죽은 지 서너 해쯤 지나서 그는 러시아 남부로 떠났고, 결국 오데사에 자리 잡고 몇 해를 내리 살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 자신의 말로는 "수많은 유대 놈, 유대 녀석, 유대 꼬마, 유대 새끼"와 사귀었다가, 끝내는 "유대 놈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다. 아마 그는 바로 이 시기에 돈을 긁어모으고 쥐어짜는 특별한 재주를 제 안에 길렀을 것이다. 그가 우리 읍으로 아주 돌아온 것은 알료샤가 오기 겨우 세 해쯤 전이었다.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그가 무섭도록 늙어 버렸다고 보았지만, 그는 아직 그렇게 늙은 나이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몸가짐이 전보다 점잖아졌다기보다 어쩐지 더 뻔뻔해졌다. 이를테면 예전의 어릿광대에게, 남들을 어릿광대로 만들고 싶다는 뻔뻔한 욕구가 생겼다. 여자들과 추잡하게 노는 것도 예전처럼 좋아했을 뿐 아니라 어쩐지 더 역겹게 좋아하게 된 듯했다. 얼마 안 가 그는 군 곳곳에 새 선술집을 여럿 차렸다. 그에게 어쩌면 10만 루블쯤, 아니면 그보다 조금 모자라는 돈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읍과 군의 많은 주민이 곧바로 그에게 빚을 졌다. 물론 더없이 확실한 담보를 잡히고서였다. 그런데 아주 최근 들어 그는 어쩐지 몸이 퉁퉁 붓고, 어쩐지 침착함과 자기 분별을 잃기

시작했으며, 무슨 경솔함에까지 빠져서 한 가지를 시작해 놓고 다른 것으로 끝내는가 하면, 어쩐지 이것저것 흩어 놓고 점점 더 자주 술에 곯아떨어졌다. 그 무렵 꽤 늙어 버린 바로 그 하인 그리고리가 때로는 거의 가정 교사처럼 그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어쩌면 큰 탈 없이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알료샤가 온 것은 그에게 도덕적인 면에서까지 효과를 낸 것 같았다. 때 이르게 늙어 버린 이 노인의 영혼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 버린 것들 가운데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너 알고 있니?" 그는 알료샤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자주 말하기 시작했다. "네가 그 여자를 닮았다는 걸, 그 클리쿠샤를 말이야."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 알료샤의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다. "클리쿠샤"의 무덤은 결국 하인 그리고리가 알료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알료샤를 우리 읍의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저 먼 구석에 있는, 비싸지는 않지만 말끔한 무쇠 묘비를 가리켜 보였다. 묘비에는 고인의 이름과 신분과 나이와 죽은 해가 새겨진 비문까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중간층 사람들의 무덤에 흔히 쓰이는 옛 묘지 시구에서 따온 넉 줄짜리 시 같은 것까지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이 묘비는 그리고리가 한 일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이 무덤 이야기를 수없이 꺼내 성가시게 했는데,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무덤뿐 아니라 제 모든 추억까지 내팽개치고 마침내 오데사로 떠나 버렸고, 그 뒤에 그리고리가 제 돈을 들여 가엾은 "클리쿠샤"의 무덤 위에 손수 세운 것이었다. 알료샤는 어머니의 무덤에서 무슨 특별한 감상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묘비를 세운 일에 대한 그리고리의 근엄하고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서 있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다. 그 뒤로 그는 어쩌면 그 한 해 내내 묘지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도 이 작은 일화는 나름의, 그것도 아주 별난 효과를 냈다. 그는 별안간 1천 루블을 들고 우리 수도원으로 가서 아내의 영혼을

위한 추도를 부탁했다. 그런데 그것은 둘째 아내, 알료샤의 어머니, "클리쿠샤"가 아니라 그를 두들겨 패던 첫 아내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위해서였다. 그날 저녁 그는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알료샤 앞에서 수도사들을 욕했다. 그 자신은 신앙심 깊은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쩌면 평생 성상 앞에 5코페이카짜리 초 한 자루 세워 본 적이 없는 인간이었다. 이런 부류의 인간에게는 별안간의 감정과 별안간의 생각이 이상하게 치솟는 일이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는 몸이 몹시 퉁퉁 부어 있었다. 그 무렵 그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삶 전체의 성격과 본질을 날카롭게 증언하는 무언가를 보여 주었다. 늘 뻔뻔하고, 의심스럽고, 비웃는 듯한 그의 작은 눈 밑에 길고 살찐 주머니가 처져 있고, 작지만 기름진 그 얼굴에 깊은 주름이 수없이 패어 있는 데다, 뾰족한 턱 밑으로는 커다란 목젖 살이 지갑처럼 살찌고 길쭉하게 매달려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어쩐지 역겨울 만큼 호색한 모습을 주었다. 거기에 두툼한 입술이 달린, 고기를 탐하는 듯한 기다란 입을 보태 보라. 그 입술 사이로 거의 다 썩은 검은 이의 작은 동강들이 보였다. 그는 말을 시작할 때마다 침을 튀겼다. 하기야 그 자신도 제 얼굴을 두고 농담하기를 좋아했고, 그러면서도 제 얼굴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는 특히 제 코를 가리켰는데, 그리 크지는 않지만 몹시 가늘고 콧등의 혹이 불룩 튀어나온 코였다. "진짜 로마 코라고." 그는 말했다. "목젖 살까지 합치면 몰락기의 고대 로마 귀족 얼굴이 따로 없지." 그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료샤가 별안간 아버지에게,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고 수도사들도 자기를 수련 수사로 받아 줄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며, 아버지로서 엄숙히 허락해 주기를 청한다고 설명했다. 노인은

수도원의 은수처(隱修處)에서 구원의 길을 닦고 있는 조시마 장로가 제 "얌전한 아이"에게 남다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장로야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정직한 수도사지." 그는 알료샤의 말을 말없이 생각에 잠겨 듣고 나서 입을 열었는데, 아들의 부탁에 거의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흠,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데가 거기란 말이지, 내 얌전한 아이야!" 그는 반쯤 취해 있었고, 별안간 그 기다랗고 반쯤 취했지만 꾀와 취한 교활함이 없지 않은 웃음을 지었다. "흠, 그런데 나는 네가 이런 걸로 끝장을 보리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단다, 상상이 가니? 넌 바로 그쪽으로 가려고 별러 왔잖니. 그래 뭐, 좋겠지. 너한테는 네 몫의 2천 루블이 있으니 그게 네 지참금이다. 그리고 내 천사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지금도 거기서 내야 할 게 있다면 내가 대신 내 주마, 달라고 하면 말이다. 달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설 건 없겠지, 안 그러냐? 넌 돈을 카나리아처럼 쓰잖니. 한 주에 낟알 두 알씩…… 흠. 너 아니? 어느 수도원에는 근교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엔 '수도원 아내들'만 산다는 걸 다들 안단다. 거기서 그렇게들 부르지. 아내가 서른 마리쯤은 될 거다, 내 생각엔…… 내가 거기 가 봤는데, 너 알지, 재미있더라. 물론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골라 보는 맛으로 말이다. 고약한 건 하나뿐이야. 끔찍하게 러시아 것뿐이라 프랑스 여자는 아직 하나도 없더라.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돈은 넉넉하거든. 소문이 나면 오겠지.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엔 수도원 아내는 없고 수도사만 이백 마리쯤 있지. 정직하단 말이야.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인정하마…… 흠. 그래, 너는 수도사들한테 가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네가 가엾구나, 알료샤. 정말이지, 믿겠니,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됐단다…… 하기야 마침 잘됐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다오. 여기 들어앉아 너무 많이 죄를 지었거든. 나는 늘 그 생각을 했단다. 언젠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귀여운 녀석, 나는 이 문제에서는 끔찍하게 어리석단다. 너는 어쩌면 안 믿겠지? 끔찍하게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단다. 나는 어리석기는 해도 이 일을 줄곧 생각하고 또 생각한단다. 물론 이따금이지, 늘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죽을 때 악마들이 갈고리로 나를 저희한테 끌고 가는 걸 잊어버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다. 그래서 생각하지. 갈고리라? 그런데 그놈들은 그걸 어디서 구하지? 무엇으로 만들지? 쇠로? 그럼 어디서 벼리지? 거기에 무슨 공장이라도 있나? 저기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아마 지옥에 이를테면 천장이 있다고 여기겠지. 그런데 나는 천장만 없다면 지옥을 믿어 줄 용의가 있다. 그쪽이 어쩐지 더 점잖고 더 개화된 것 같거든, 루터파식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천장이 있든 없든 매한가지 아니냐? 바로 그 빌어먹을 물음의 핵심이 거기 있단 말이다! 그래, 천장이 없으면 갈고리도 없는 거다. 갈고리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 또 믿을 수가 없지. 그럼 누가 나를 갈고리로 끌고 가지?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에 정의는 어디 있단 말이냐? 만들어 내야 할 판이다(Il faudrait les inventer),[1] 그 갈고리 말이다. 일부러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알료샤, 내가 얼마나 낯 두꺼운 인간인지 네가 알기만 한다면!……"

"네, 거기엔 갈고리가 없어요." 알료샤가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며 조용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그래, 갈고리의 그림자들만 있겠지. 안다, 알아. 어떤 프랑스 사람이 지옥을 그렇게 그렸지. '나는 마부의 그림자가 솔의 그림자로 마차의 그림자를 닦는 것을 보았다(J'ai vu l'ombre d'un cocher, qui avec l'ombre d'une brosse frottait l'ombre d'un carrosse).' 얘야, 너는 갈고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아니? 수도사들 곁에서 좀 지내 봐라,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거라. 거기 가서 진실에

닿거든 와서 이야기해 다오. 저세상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면 그래도 저세상으로 가기가 한결 쉬울 테니까. 게다가 너는 나하고, 술 취한 늙은이하고 계집애들하고 있는 것보다 수도사들 곁에 있는 게 더 어울리겠지…… 너는 천사 같아서 무엇 하나 너한테 들러붙지 않겠지만. 그래, 거기서도 아마 무엇 하나 너한테 들러붙지 않을 거다. 바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 주는 거란다. 그 마지막 것에 기대를 걸고 말이다. 너도 머리가 모자란 녀석은 아니니까. 타오르다 꺼지고, 병이 나으면 돌아오겠지. 그럼 나는 너를 기다리마. 나는 느끼거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단죄하지 않은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는 걸. 귀여운 내 아이야, 나는 그걸 느낀단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고는 훌쩍훌쩍 울기까지 했다. 그는 감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심술궂고 감상적인 사람이었다.

---

1. 볼테르의 시구 「신이 없다면 신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Si Dieu n'existait pas, il faudrait l'inventer)」를 비튼 말.

제5장 장로들

독자 가운데 누군가는 어쩌면 내 젊은이가 병적이고 황홀경에 잘 빠지는, 덜 자란 기질의 인간, 창백한 몽상가, 비쩍 마르고 핏기 없는 꼬마 인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알료샤는 그 무렵 늠름하고 뺨이 발그레하고 눈빛이 맑으며 건강이 넘쳐흐르는 열아홉 살 젊은이였다. 그는 그 무렵 무척 잘생기기까지 했다. 날씬하고, 키는 보통보다 조금 컸고, 머리는 짙은 갈색이었으며, 얼굴은 조금 길기는 해도 반듯한 달걀꼴이었고, 반짝이는 짙은 회색 눈은 사이가 넓게 벌어져 있었다. 그는 무척 생각이 깊었고, 보기에는 무척 차분했다. 붉은 뺨이 광신에도 신비주의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알료샤는 누구보다도 오히려 현실주의자였다. 오, 물론 수도원에서 그는 기적을 온전히 믿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기적은 현실주의자를 결코 당황하게 하지 못한다. 현실주의자를 믿음으로 기울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참된 현실주의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적마저 믿지 않을 힘과 능력을 늘 제 안에서 찾아낼 것이고, 기적이 거스를 수 없는 사실로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제 감각을 믿지 않을 것이다.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자연스러운 사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현실주의자에게서는 믿음이 기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믿음에서 태어난다. 현실주의자가 한번 믿게 되면, 그는 바로 제 현실주의 때문에 기적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사도 도마는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보고 나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하고 말했다. 기적이 그를 믿게 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그가 믿게 된 것은 오직 믿고 싶었기 때문이고, 어쩌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때도 이미 제 존재의 은밀한 곳에서는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알료샤가 둔하고 덜 자랐고 학교도 마치지 못했다는 등등의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가 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가 둔하다거나 어리석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부당함일 것이다. 앞서 이미 한 말을 그저 되풀이하겠다. 그가 이 길에 들어선 것은 오로지 그 무렵 그 길만이 그를 사로잡았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려 몸부림치던 그의 영혼에 출구의 이상을 한꺼번에 온전히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가 어느 정도는 이미 우리 시대의 젊은이였다는 것을 보태 보라. 즉 그는 본디 정직했고, 진리를 요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믿었으며, 일단 믿고 나면 영혼의 온 힘을 다해 그 진리에 당장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서둘러 위업을 이루기를 요구하며, 그 위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반드시의 소망을 품은 젊은이였다. 다만 불행히도 이런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많은 경우에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어쩌면 모든 희생 가운데 가장 쉬운 희생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테면 끓어오르는 제 젊은 삶에서 대여섯 해를 떼어 어렵고 고된 공부에, 학문에 바치는 일, 그것도 오직 제가 사랑하게 되어 이루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진리와 바로 그 위업을 섬기는 데 쓸 힘을 제 안에서 열 배로 불리기 위해 바치는 일, 이런 희생은 그들 가운데 많은 이에게 거의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료샤는 다만 모두와 정반대인 길을 골랐을 뿐, 서둘러 위업을 이루려는 갈망은 똑같았다. 그는 진지하게 생각에 잠기자마자 불멸과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혔고, 그러자 곧바로,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불멸을 위해 살고 싶다. 반쪽짜리 타협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가 불멸도 신도 없다고 결론지었다면 곧바로 무신론자가 되고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사회주의란 노동 문제, 이른바 제4계급의 문제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무신론의 문제, 무신론이 오늘날 몸을 입은 문제, 바로 신 없이 세워지는 바벨탑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땅에서 하늘에 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바벨탑 말이다). 알료샤에게는 예전처럼 사는 것이 이상하고 불가능하게까지 여겨졌다. "온전하고자 하거든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알료샤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것' 대신 2루블을 내주고, '나를 따르라' 대신 성찬 예배에만 다닐 수는 없다." 어쩌면 그의 갓난아기 적 기억 속에 우리 읍 근교의 수도원에 대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그곳 성찬 예배에 다녔을 수도 있다. 어쩌면 클리쿠샤였던 어머니가 그를 내밀던 성상 앞의 그 지는 해의 비스듬한 빛줄기가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때 생각에 잠긴 채 우리 고장에 왔다. 어쩌면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도 2루블밖에 없는지 그저 보러 왔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이 장로를 만났다……

이 장로는 앞서 이미 밝혔듯 조시마 장로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도원들의 "장로(старец)"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이 길에서 나는 그리 정통하지도 확고하지도 못하다고 느낀다. 그래도 몇 마디로, 겉핥기로나마 전해 보겠다. 우선, 전문가와 정통한 사람들은 장로와 장로 제도가 우리나라, 우리 러시아 수도원들에 생긴 지 아주 얼마 되지 않았다고, 채 백 년도 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정교회의 동방 전역, 특히 시나이와 아토스에서는 벌써 천 년이 훨씬 넘게 이어져 왔다. 우리 러시아에도 아주 먼 옛날에는

장로 제도가 있었다고, 아니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겪은 재난들, 타타르의 지배와 동란 시대, 콘스탄티노플이 정복된 뒤 동방과의 예전 교류가 끊긴 탓에 이 제도는 우리에게서 잊혔고 장로의 맥도 끊겼다. 그것이 다시 살아난 것은 지난 세기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위대한 수행자 가운데 한 사람인 파이시 벨리치콥스키와 그 제자들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거의 백 년이 지났는데도 장로 제도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수도원에만 있고, 러시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새것이라 하여 때로는 거의 박해에 가까운 대접까지 받았다. 우리 러시아에서 이 제도가 특히 꽃피운 곳은 이름난 수도원 하나, 코젤스크의 옵티나 수도원이었다. 우리 읍 근교의 수도원에는 언제 누가 이 제도를 심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장로의 세 번째 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여겨졌고, 조시마 장로가 그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쇠약과 병으로 이미 거의 죽어 가고 있었고, 그의 뒤를 누가 이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 수도원에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 수도원은 그때까지 이렇다 하게 이름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인의 성해(聖骸)도 없었고, 기적을 일으키며 나타난 성상도 없었고, 우리 역사와 이어진 영광스러운 전설조차 없었고, 역사에 남은 공적이나 조국을 위한 공로도 없었다. 이 수도원이 꽃피고 온 러시아에 이름을 떨친 것은 바로 장로들 덕분이었고, 장로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순례자들이 수천 베르스타[1] 밖에서, 온 러시아에서 떼를 지어 우리 고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렇다면 장로란 대체 무엇인가? 장로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의지를 제 영혼과 제 의지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장로를 택하고 나면 여러분은 제 의지를 버리고, 온전히 자기를 버린 채 그 의지를 장로에게 바쳐 온전히 순종한다. 스스로를 이 길에 바치는 사람은 이 고된 시험을, 이 무서운 삶의 학교를 자원해서 받아들인다. 오랜 시련

끝에 자기를 이기고, 평생의 순종을 거쳐 마침내 완전한 자유, 즉 자기 자신에게서 풀려나는 자유에 이를 만큼 자기를 다스리게 되기를, 평생을 살고도 제 안에서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피하기를 바라면서. 이 고안, 즉 장로 제도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이제는 천 년에 이른 실천에서 끌어낸 것이다. 장로에 대한 의무는 우리 러시아 수도원에도 늘 있어 온 평범한 "순종"과는 다르다. 여기에서는 수행하는 모든 이가 장로에게 끊임없이 고해하고, 묶은 사람과 묶인 사람 사이에 풀 수 없는 매듭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주 먼 옛날, 그리스도교 초기에 그런 수련 수사 하나가 제 장로가 지운 어떤 순종의 과업을 이행하지 않고 장로를 떠나 수도원을 나와서 다른 나라로,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갔다. 거기서 오랫동안 위대한 수행을 쌓은 끝에 그는 마침내 신앙을 위해 고문과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은총을 입었다. 그런데 교회가 이미 그를 성인으로 공경하며 그 시신을 장사 지내려 할 때, 보제가 "예비 신자들은 물러가시오!" 하고 외치자 갑자기 순교자의 시신이 누운 관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성당 밖으로 내던져졌고,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이 거룩한 수난자가 순종을 어기고 제 장로를 떠났으며, 그러니 그 위대한 수행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허락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려 온 장로가 그를 순종에서 풀어 준 뒤에야 비로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옛날 전설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 최근의 실화가 있다. 우리 시대의 어느 수사가 아토스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장로가 그에게 아토스를 떠나라고 명했다. 그가 성지로서, 고요한 안식처로서 영혼 깊은 곳까지 사랑하게 된 아토스였다. 그리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지를 참배한 다음, 러시아로, 북쪽으로, 시베리아로 돌아가라고 했다.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다." 충격을

받고 슬픔에 짓눌린 수사는 콘스탄티노플의 세계 총대주교를 찾아가 순종에서 풀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세계의 주교는 그에게 대답했다. 세계 총대주교인 자기도 그를 풀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로가 일단 지운 순종에서 그를 풀어 줄 수 있는 권세는 온 땅 위에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그것을 지운 바로 그 장로 자신의 권세 말고는. 이처럼 장로 제도는 어떤 경우에는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권세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수도원에서 장로 제도는 처음에 거의 박해를 받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곧바로 장로들을 높이 공경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우리 수도원의 장로들에게는 평민들도, 가장 지체 높은 사람들도 몰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제 의심과 제 죄와 제 고통을 고백하고 조언과 가르침을 구했다. 그것을 본 장로 제도의 반대자들은 다른 비난들과 함께, 여기서 고해 성사가 제멋대로 경솔하게 깎아내려지고 있다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수련 수사나 세속 사람이 장로에게 제 영혼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결코 성사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결국 장로 제도는 버텨 냈고, 조금씩 러시아 수도원들에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하기야 이것도 사실일 것이다. 인간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와 도덕적 완성으로 도덕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시험을 거친 이 천 년 된 도구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겸손과 궁극의 자기 극복 대신 오히려 더없이 사탄 같은 교만으로, 즉 자유가 아니라 쇠사슬로 이끌려 갈지도 모른다는 것.

조시마 장로는 예순다섯 살쯤이었고, 지주 집안 출신이었으며, 아주 젊었을 때 한때 군인이 되어 캅카스에서 위관 장교로 복무했다. 틀림없이 그는 제 영혼의 무슨 남다른 성품으로 알료샤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알료샤는 장로의 수방(修房)에서 함께 살았고, 장로는 그를 무척 아껴서 곁에 두었다. 짚어 두어야 할 것은, 알료샤가 그때 수도원에 살고 있기는 했어도 아직 아무것에도 매여 있지 않아서, 며칠씩이라도 어디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가 수도복 안옷을 입은 것도 수도원에서 누구와도 달라 보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원해서였다. 물론 그 자신도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어쩌면 알료샤의 젊은 상상력에는 그의 장로를 끊임없이 에워싸던 그 힘과 명성이 강하게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조시마 장로를 두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가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제 마음을 고백하고 그에게서 조언과 치유의 말을 목마르게 구하러 오는 모든 이를 받아들이는 사이에, 어찌나 많은 계시와 통회와 고백을 제 영혼에 받아들였던지, 끝내는 더없이 섬세한 통찰력을 얻게 되어, 저를 찾아온 낯선 이의 얼굴을 한 번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들고 왔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심지어 어떤 고통이 그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는지까지 알아맞힐 수 있었고, 찾아온 사람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 비밀을 이렇게 알고 있음으로써 그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때로는 거의 겁먹게까지 했다고. 그런데 알료샤는 장로와 처음으로 단둘이 이야기하러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두렵고 불안한 얼굴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거의 언제나 밝고 기쁜 얼굴이 되고, 더없이 어두운 얼굴도 행복한 얼굴로 바뀐다는 것을 거의 언제나 눈여겨보았다. 알료샤는 장로가 전혀 엄하지 않다는 것에도 남다르게 놀랐다. 오히려 장로는 사람을 대할 때 거의 언제나 명랑했다. 수도사들은 그를 두고, 그가 바로 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며, 누구보다 죄 많은 사람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수도사들 가운데는 장로의 생애가 거의 끝나 갈 무렵까지도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수는 적어졌고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기야 그 가운데에는 수도원에서 무척 이름나고 중요한 인물 몇 사람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가장 나이 많은 수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위대한 침묵 수행자이자 남다른 금식 수행자인 이가 그랬다.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는 이미 틀림없이 조시마 장로 편에 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 무척 많은 이가 온 마음을 다해 뜨겁고 진실하게 그를 사랑하기까지 했다. 어떤 이들은 거의 광신에 가까울 만큼 그에게 매달렸다. 그런 이들은 대놓고, 하기야 아주 큰 소리로는 아니었지만, 그가 성인이며 이제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고, 그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내다보며 그가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머지않아 수도원에 큰 영광이 오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알료샤 역시 장로의 기적을 행하는 힘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다. 성당에서 날아오른 관 이야기를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은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는 병든 아이나 다 큰 친척을 데리고 와서 장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읽어 주기를 애원하던 많은 사람이 곧, 어떤 이는 바로 이튿날 다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장로 앞에 엎드려 병자를 고쳐 준 데 감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정말 치유였는지, 아니면 병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히 나아진 것뿐이었는지, 알료샤에게 그런 물음은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제 스승의 영적인 힘을 온전히 믿고 있었고, 스승의 영광이 바로 제 자신의 승리인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특히 장로를 보고 그에게서 축복을 받으려고 온 러시아에서 몰려와 은수처 문 앞에서 장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평민 순례자 무리에게 장로가 나갈 때면, 그의 가슴은 떨렸고 그는 온몸이 환히 빛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장로 앞에 엎드려 울었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가 서 있는 땅에 입을 맞추고, 울부짖었다. 아낙들은 제 아이들을 그에게 내밀었고, 병든 클리쿠샤들을 데려왔다. 장로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 위에 짧은 기도를 읽어 주고, 축복하고 돌려보냈다. 요즘 들어 장로는 병의 발작 때문에 때로는 수방을 나설 기운조차 겨우 낼 만큼 쇠약해져서, 순례자들은 이따금 장로가 나오기를 수도원에서 며칠씩 기다리기도 했다. 알료샤에게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장로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지가 조금도 물음거리가 되지 않았다. 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노동과 슬픔에, 무엇보다 늘 겪는 불의와 늘 짓는 죄에, 제 죄와 온 세상의 죄에 지친 러시아 평민의 겸손한 영혼에게는 성물이나 성인을 찾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보다 더 강한 갈망도 더 큰 위안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죄와 불의와 유혹이 있다 해도 상관없다. 그래도 이 땅 어딘가에, 어디엔가 성인이, 더 높은 이가 있다. 그 대신 그분에게는 진리가 있고, 그 대신 그분은 진리를 안다. 그러니 진리는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와서 약속된 대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알료샤는 백성이 바로 그렇게 느끼고 심지어 그렇게 따지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장로가 바로 그 성인, 백성의 눈에 비친 하느님의 진리의 수호자라는 것만은 그 자신도 울고 있는 이 농군들과, 아이들을 장로에게 내미는 그들의 병든 아낙들과 다름없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장로가 세상을 떠나면 수도원에 남다른 영광을 가져다주리라는 확신은 어쩌면 수도원의 누구보다 알료샤의 영혼 속에서 더 강하게 군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요즘 들어 내내, 무언가 깊고 불타는 듯한 내면의 환희가 그의 가슴속에서 점점 더 세차게 타올랐다. 그래도 이 장로가 그의 앞에 단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은 그를 조금도 당황하게 하지 않았다. "어차피 마찬가지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모두를 새롭게 할 비밀이 있다. 마침내 이 땅에 진리를 세울 힘이 있다. 그러면 모두가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아지는 자도 낮아지는 자도 없이,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처럼 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것이다." 알료샤의 가슴은 바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

알료샤에게는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지내던 두 형이 온 일이 무척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 그는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더 늦게

왔는데도 다른 (어머니가 같은) 형 이반 표도로비치보다 그와 더 빨리, 더 가까워졌다. 그는 이반 형을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이반 형은 벌써 두 달째 이곳에 살고 있었고, 둘은 꽤 자주 만나는데도 아직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았다. 알료샤 자신도 말수가 적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무언가를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이반 형은 처음에는 알료샤가 저를 향한 형의 길고 호기심 어린 눈길을 알아채기도 했지만, 곧 그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 듯했다. 알료샤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얼마간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는 형의 무관심을 두 사람의 나이 차이, 특히 교육의 차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알료샤는 다른 생각도 했다. 이반이 저에게 이토록 호기심도 관심도 없는 것은 어쩌면 알료샤가 전혀 모르는 무엇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어쩐지 자꾸만, 이반이 무언가에, 무언가 내면의 중요한 일에 골몰해 있고, 어쩌면 몹시 어려운 어떤 목표를 향해 애쓰고 있어서 그를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이반이 알료샤를 멍하니 바라보는 단 하나의 이유인 것만 같았다. 알료샤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여기에 학식 있는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수련 수사인 저를 깔보는 마음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는 형이 무신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설령 그런 경멸이 있다 해도 그는 그것에 마음 상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는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불안한 당혹감 속에서 형이 저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다. 드미트리 형은 이반 형을 더없이 깊이 존경하며 이야기했고, 무언가 각별히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를 두고 말했다. 알료샤가 두 형을 최근 들어 놀랍고도 끈끈하게 이어 준 그 중요한 일의 자세한 사정을 모두 알게 된 것도 드미트리 형에게서였다. 이반 형을 두고 드미트리가 쏟아 내는 열광적인 평은 알료샤의 눈에 더욱 의미심장해 보였다. 드미트리 형은 이반에 비하면 거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 놓으면 인물됨으로나 성격으로나 어찌나 뚜렷하게

대조되는지, 이 둘보다 서로 닮지 않은 두 사람은 어쩌면 생각해 낼 수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무렵, 이 조화롭지 못한 집안의 모든 식구가 장로의 수방에서 만나는 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집안 모임이 열렸고, 그것이 알료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모임의 구실은 사실 거짓이었다. 그 무렵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와 그의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사이의 유산과 재산 셈을 둘러싼 불화는 보아하니 더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사이는 험악해졌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아마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맨 먼저, 그것도 아마 농담으로, 모두 조시마 장로의 수방에서 만나, 장로에게 대놓고 중재를 청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좀 더 점잖게 합의를 보자는 생각을 내놓았던 것 같다. 장로의 품계와 인품이 무언가 위엄을 주고 화해를 이끌어 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장로를 찾아간 적도, 본 적도 없었으므로 물론 장로로 저를 겁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최근 아버지와 다투면서 저지른 유난히 거친 행동들을 남몰래 자책하고 있었으므로 도전을 받아들였다. 덧붙여 말해 두자면,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처럼 아버지 집에 살지 않고 읍의 다른 끝에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우리 고장에 머물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이 생각에 유난히 달려들었다. 1840년대와 50년대식 자유주의자이자 자유사상가이며 무신론자인 그는 어쩌면 따분해서, 어쩌면 경박한 재밋거리로 이 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갑자기 수도원과 "성인"을 구경하고 싶어졌다. 수도원과의 해묵은 다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두 쪽 땅의 경계를 두고, 숲에서 나무를 벨 권리며 개울에서 고기를 잡을 권리 따위를 두고 소송이 여전히 끌고 있었으므로, 그는 이 기회를 서둘러 이용하려 했다. 다툼을 원만하게 끝낼 수는 없겠는지 자기도 수도원장

신부님과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구실을 내세워서였다. 이렇게 좋은 뜻을 품은 방문객이라면 물론 수도원에서도 그저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보다 더 정성껏, 더 친절하게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헤아린 끝에 수도원 안에서 병든 장로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장로는 요즘 들어 수방을 거의 떠나지 않았고, 병 때문에 평범한 방문객까지 거절하고 있었다. 결국 장로는 동의했고 날짜가 정해졌다. "누가 나를 저들 사이에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냐?" 장로는 알료샤에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자 알료샤는 몹시 마음이 어지러웠다. 이 소송하고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모임을 진지하게 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드미트리 형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경박한 목적으로, 어쩌면 장로에게 모욕이 될 목적으로 올 것이다. 알료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반 형과 미우소프는 호기심, 어쩌면 아주 무례한 호기심으로 올 것이고, 아버지는 어쩌면 무슨 어릿광대 같은 연극 장면을 벌이려고 올 것이다. 오, 알료샤는 말이 없었어도 제 아버지를 이미 꽤 깊이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젊은이는 모두가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순박하지는 결코 않았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해진 날을 기다렸다. 틀림없이 그는 속으로, 마음 깊이, 이 모든 집안 불화가 어떻게든 끝나기를 무척 바랐다. 그래도 그의 가장 큰 근심은 장로였다. 그는 장로를 위해, 장로의 명성을 위해 떨었고, 장로가 모욕당할까 봐, 특히 미우소프의 섬세하고 정중한 조롱과 학식 있는 이반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에두른 말에 모욕당할까 봐 두려웠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그려졌다. 그는 장로에게 미리 귀띔해 볼까, 올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 무어라도 말해 볼까 하다가, 생각 끝에 입을 다물었다. 다만 정해진 날 하루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 드미트리 형에게, 형을 무척 사랑하며 형이 약속한 것을 지켜 주기를 기다린다고 전했을 뿐이다.

드미트리는 생각에 잠겼다. 동생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편지로, "비열함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참겠으며, 장로와 이반 동생을 깊이 존경하지만 여기에는 틀림없이 저를 노리는 무슨 함정이나 하잘것없는 희극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네가 그토록 존경하는 성자께 결례를 범하느니 차라리 내 혀를 삼켜 버리겠다." 드미트리는 짧은 편지를 그렇게 맺었다. 알료샤는 그 편지로 그다지 힘을 얻지 못했다.

---

1. 러시아의 거리 단위. 1베르스타는 약 1.07킬로미터.

제2권 부적절한 모임

제1장 수도원에 도착하다

날씨가 기막히게 좋았다. 따뜻하고 맑은 날이었다. 8월 말이었다. 장로와의 만남은 늦은 성찬 예배가 끝난 직후, 대략 열한 시 반으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수도원 방문객들은 성찬 예배에는 오지 않고 꼭 파장 무렵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차 두 대로 왔다. 첫 번째 마차, 값비싼 말 두 필이 끄는 멋들어진 사륜마차에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먼 친척인 아주 젊은 사람, 스무 살쯤 된 표트르 포미치 칼가노프와 함께 타고 왔다. 이 젊은이는 대학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선지 그 무렵 이 젊은이를 제 집에 데리고 있던 미우소프는 함께 외국으로 가서 취리히나 예나에서 대학에 들어가 과정을 마치자고 그를 꾀고 있었다. 젊은이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딘가 멍한 듯했다. 얼굴은 호감이 갔고, 몸은 다부졌으며, 키는 꽤 컸다. 그의 눈길에는 이따금 이상하게 움직임이 없는 데가 있었다. 몹시 멍한 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는 때때로 여러분을 오래도록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여러분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좀 서툴렀지만, 이따금, 하기야 누구와 단둘이 있을 때만 그랬지만, 갑자기 끔찍하게 수다스러워지고 성급해지고 잘 웃어서, 때로는 무엇 때문에 웃는지 하느님이나 아실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들뜸은 생겨날 때처럼 빠르고 느닷없이 사그라졌다. 그는 늘 옷을 잘, 아니 세련되게까지 차려입었다. 그에게는 이미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재산이 얼마간 있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터였다. 그는 알료샤와 친구 사이였다.

몹시 낡아 덜컹거리지만 널찍한 삯마차에 늙은 회색빛 도는 분홍 털의 말 두 필을 매고, 미우소프의 마차보다 한참 뒤처져서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그 잘난 아들 이반 표도로비치와 함께 도착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도 전날 시각과 날짜를 알려 두었지만 그는 늦었다. 방문객들은 담장 곁의 객사에 마차를 세워 두고 걸어서 수도원 문으로 들어갔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빼고 나머지 셋은 아마 수도원이라는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미우소프는 어쩌면 서른 해쯤 성당에도 가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얼마간 호기심을 품고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 호기심에는 짐짓 꾸며 낸 거리낌 없는 태도가 얼마간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관찰력 있는 눈에는 하기야 아주 평범한 성당 건물과 살림 건물 말고는 수도원 안에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성당에서 마지막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평민들 사이로 좀 더 높은 사회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다. 부인 두세 명과 아주 늙은 장군 한 사람이었는데, 모두 객사에 묵고 있었다. 거지들이 곧바로 우리 방문객들을 에워쌌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페트루샤 칼가노프만이 지갑에서 10코페이카 은화 하나를 꺼내, 무엇 때문인지 하느님이나 아실 일이지만 서두르고 쩔쩔매며, 어느 아낙에게 얼른 쥐여 주면서 "똑같이 나누어요" 하고 빠르게 말했다. 일행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두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쩔쩔맬 까닭이 없었는데,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자 더욱 쩔쩔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사실대로라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고, 어쩌면 얼마간 예우까지 갖추어 맞았어야 했다. 한 사람은 얼마 전에 1천 루블을 기부했고, 다른 한 사람은 더없이 부유한 지주인 데다 말하자면 더없이 교양 있는 사람이었으며, 소송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강에서 고기 잡는 문제로 이곳 사람들이 모두 얼마쯤 그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식적인 사람은 아무도 그들을 맞으러 나오지 않는다. 미우소프는 성당 둘레의 묘석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 무덤들은 이렇게 "거룩한" 곳에 묻힐 권리를 얻느라 묻은 사람들에게 꽤 비싸게 먹혔겠다고 한마디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의 안에서 그저 자유주의자다운 빈정거림이 이미 거의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제기랄, 그런데 이 뒤죽박죽 속에서 누구한테 물어야 하지…… 이건 정해야겠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 그는 혼잣말하듯 별안간 내뱉었다.

갑자기 넓은 여름 외투를 걸치고 달콤한 눈매를 한, 머리가 좀 벗어진 나이 지긋한 신사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고 꿀처럼 혀 짧은 소리를 내며 모두에게 대뜸 툴라의 지주 막시모프라고 제 소개를 했다. 그는 단숨에 우리 길손들의 근심을 제 일처럼 떠맡았다.

"조시마 장로님은 은수처에 사십니다. 은수처에 꼭 틀어박혀 계시지요. 수도원에서 400걸음쯤, 숲을 지나서, 숲을 지나서……"

"숲을 지나서라는 건 저도 압죠."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런데 길이 잘 기억나지 않는군요. 오래 안 와 봤으니."

"자, 이 문으로 나가서 곧장 숲으로…… 숲으로. 가시지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몸소…… 제가 직접…… 이리로, 이리로……"

그들은 문을 나서 숲으로 향했다. 예순 살쯤 된 지주 막시모프는 걸었다기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의 뛰다시피 그들 곁을 따라오며, 발작에 가까운, 거의 있을 수 없을 만큼의 호기심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툭 튀어나온 데가 있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일로 이 장로를 뵈러 가는 겁니다." 미우소프가 엄하게 말했다. "말하자면 '이분'께 알현을 허락받은

셈이지요. 그러니 길을 안내해 주신 건 고맙지만 함께 들어가시자고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가 봤습니다, 가 봤어요, 벌써 가 봤지요…… 완벽한 기사(Un chevalier parfait)시지요!" 그러면서 지주는 손가락을 허공에 대고 딱 튕겼다.

"누가 기사라는 겁니까?" 미우소프가 물었다.

"장로님이요, 훌륭하신 장로님, 장로님 말입니다. 수도원의 영예요 영광이시지요, 조시마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은……"

그러나 그의 두서없는 말은 일행을 쫓아온 키 작은 젊은 수도사 하나가 끊었다. 수도사 두건을 쓴 그 수도사는 몹시 창백하고 핼쑥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미우소프가 걸음을 멈추었다. 수도사가 허리가 거의 꺾일 만큼 더없이 정중하게 절하며 말했다.

"수도원장 신부님께서 여러분이 은수처를 다녀가신 뒤에 모두 와서 식사를 함께해 주십사 삼가 청하십니다. 한 시에, 늦어도 한 시까지는요. 손님께서도요." 그는 막시모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거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초대에 끔찍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꼭 가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여기서 점잖게 굴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도 가시렵니까?"

"안 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게 바로 이곳의 온갖 풍습을 보려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걸리는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거지요, 표도르 파블로비치……"

"그래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군요."

"그 사람이 빠져 주면 오히려 잘된 일이지요. 이 모든 당신네 지저분한 일이 제게 즐거울 것 같습니까, 게다가 덤으로 당신까지? 그럼 식사 때

가겠습니다. 수도원장 신부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는 젊은 수도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장로님께까지 모셔 가야 합니다." 수도사가 대답했다.

"그럼 저는 그동안 수도원장 신부님께, 곧장 수도원장 신부님께 가 있겠습니다." 지주 막시모프가 재잘거렸다.

"수도원장 신부님은 지금 바쁘십니다만, 좋으실 대로……" 수도사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지독하게 귀찮은 늙은이로군." 지주 막시모프가 수도원 쪽으로 도로 뛰어가자 미우소프가 소리 내어 말했다.

"폰 존을 닮았군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별안간 말했다.

"당신이 아는 거라곤 그런 것뿐이지요…… 그가 어디가 폰 존을 닮았다는 겁니까? 당신이 폰 존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사진은 봤지요. 얼굴 생김새는 아니어도 무언가 말로 할 수 없는 데가 닮았어요. 폰 존의 두 번째 판본이 따로 없어요. 저는 이런 건 언제나 얼굴만 보고도 알아본다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 방면에는 당신이 전문가니까. 그런데 표도르 파블로비치, 방금 당신 입으로 우리가 점잖게 굴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셨지요,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말해 두는데 참으십시오. 어릿광대짓을 시작하면, 저는 여기서 당신과 한통속으로 취급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이런 사람과 함께 점잖은 분들께 들어가기가 겁납니다."

젊은 수도사의 창백하고 핏기 없는 입술에 가느다란 침묵의 미소가, 저 나름의 꾀가 없지 않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 품위를 지키려고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미우소프는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오, 다들 악마한테나 잡혀가라지. 몇 백 년에 걸쳐 다듬어 낸 겉모양일 뿐, 속은 사기와 헛소리야!" 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자, 은수처다, 다 왔어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담장에다 문은 잠겨 있고."

그러고는 문 위와 문 옆에 그려진 성인들 앞에서 크게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남의 수도원에 제 규칙을 들고 가지는 않는 법이지요." 그가 말했다. "여기 은수처에서는 모두 스물다섯 분의 성인이 구원을 닦으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양배추를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는 여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지요. 바로 그게 특히 놀라운 점이고. 그리고 이건 정말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부인들을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갑자기 젊은 수도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평민 여자들은 지금도 여기, 저기 회랑 곁에 누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높은 부인들을 위해서는 바로 여기 회랑에, 다만 담장 밖으로 방 두 칸을 덧지어 두었습니다. 바로 저 창문들이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건강하실 때 안쪽 통로로 그 부인들에게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담장 밖으로 나가시는 거지요. 지금도 하리코프의 지주 부인 호흘라코바 부인이 몸이 마비된 따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께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하기야 요즘 들어 몹시 쇠약해지셔서 사람들 앞에도 겨우 나오십니다만."

"그러니까 은수처에서 부인들한테로 빠지는 쪽문은 그래도 하나 뚫어 놓으셨군요. 거룩하신 신부님, 제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해 본 말입니다. 아시지요, 아토스에서는, 이건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가 찾아오는 것만 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자는 물론이고 암컷이라고는 무엇 하나, 암탉도, 암칠면조도, 암송아지도……"

"표도르 파블로비치,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을 여기 혼자 버려두고요. 그러면 제가 없으니 당신은 팔을 붙들려 여기서 끌려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당신한테 무슨 방해가 된다고 그러십니까,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보세요." 그가 은수처 담장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별안간 소리쳤다. "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장미의 골짜기에서 사시는지!"

정말로 지금은 장미가 없었지만, 꽃을 심을 수 있는 자리마다 드물고 아름다운 가을꽃이 가득했다. 보아하니 노련한 손이 그 꽃들을 가꾸고 있었다. 성당 울타리 안에도, 무덤 사이에도 꽃밭이 꾸며져 있었다. 장로의 수방이 있는, 입구 앞에 회랑이 달린 단층 목조 집도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앞의 장로님, 바르소노피 장로님 때도 이랬습니까? 그분은 우아한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벌떡 일어나 부인네들까지 지팡이로 때리셨다던데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현관 층계를 오르며 말했다.

"바르소노피 장로님은 정말로 때로는 성 바보처럼 보이셨습니다만, 어리석은 이야기도 많이들 합니다. 지팡이로 누구를 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대답했다.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셨다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들으셨지요. 점잖게 구십시오. 안 그러면 갚아 드리겠습니다." 미우소프가 그 틈에 다시 한 번 중얼거렸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동요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면 자잘한 죄라도 들킬까 무서우십니까? 그분은 눈만 보고도 누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 아신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들 의견을 그렇게 높이 치시다니, 당신 같은 파리 사람이자 앞서가는 신사분이,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이지!"

그러나 미우소프가 이 빈정거림에 대꾸할 새도 없이 그들에게 들어오라는 청이 왔다. 그는 얼마간 짜증이 난 채 들어갔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안다. 짜증이 나 있으니 말다툼을 하고, 열을 올리기 시작할 테고, 그러면 나 자신도 내 사상도 깎아내리게 되겠지." 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번쩍 스쳤다.

제2장 늙은 어릿광대

그들은 장로와 거의 동시에 방으로 들어섰다. 장로는 그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작은 침실에서 나왔다. 수방에는 그들보다 먼저 은수처의 수도사제 두 사람이 장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도서관 담당 신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파이시 신부였는데, 늙지는 않았지만 병약한 사람으로, 사람들 말로는 무척 학식이 깊었다. 그 밖에 구석에 서서(그리고 그 뒤로도 내내 서 있었다) 기다리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다. 보기에 스물두 살쯤 되었고, 평상복 프록코트를 입었으며, 신학생이자 장래의 신학자로, 무슨 까닭에선지 수도원과 수도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는 키가 꽤 컸고, 얼굴은 생기가 돌았으며, 광대뼈가 넓었고, 영리하고 주의 깊은 가느다란 갈색 눈을 지니고 있었다. 얼굴에는 더없는 공손함이 드러나 있었지만, 그것은 점잖은 공손함이었고 눈에 띄게 비위를 맞추려는 기색은 없었다. 그는 들어온 손님들에게 인사로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들과 대등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랫사람이자 매인 사람으로서.

조시마 장로는 수련 수사 한 사람과 알료샤를 거느리고 나왔다. 수도사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이 땅에 닿도록 더없이 깊이 절하며 그를 맞았고, 그러고 나서 축복을 받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장로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똑같이 손가락이 땅에 닿도록 깊이 절하여 답했고, 그들 각자에게 자기에게도 축복을 내려 달라고 청했다. 이 의식은 모두 무척 진지하게 치러졌다. 날마다 하는

무슨 의례 같지 않고 거의 무언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미우소프에게는 모든 것이 일부러 무언가를 심어 주려고 하는 짓으로 보였다. 그는 함께 들어온 일행 가운데 맨 앞에 서 있었다. 어떤 사상을 품었든 상관없이, 오로지 단순한 예의로(여기 풍습이 그러하니) 장로에게 다가가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했다. 손에 입은 맞추지 않더라도 적어도 축복이라도 받아야 했다. 그는 바로 어젯밤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두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 수도사제들의 이 모든 절과 입맞춤을 보자 그는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위엄 있고 진지하게, 세속의 예법대로 꽤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의자 쪽으로 물러섰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도 꼭 그렇게 했다. 이번에는 원숭이처럼 미우소프를 고스란히 흉내 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무척 위엄 있고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역시 두 손을 바지 솔기에 붙이고 있었고, 칼가노프는 어찌나 쩔쩔맸던지 아예 인사도 하지 않았다. 장로는 축복하려고 들었던 손을 내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인 다음 모두 앉으라고 청했다. 알료샤의 두 뺨에 피가 확 몰렸다. 그는 부끄러웠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고 있었다.

장로는 아주 오래된 마호가니로 만든 가죽 소파에 앉았고, 수도사제 둘을 뺀 손님 넷은 맞은편 벽에, 검은 가죽을 씌웠으나 몹시 닳아 버린 마호가니 의자 넷에 나란히 앉혔다. 수도사제들은 양옆에, 한 사람은 문 곁에, 한 사람은 창가에 앉았다. 신학생과 알료샤와 수련 수사는 서 있었다. 수방은 아주 좁았고, 어딘지 시들한 모습이었다. 물건과 가구는 투박하고 초라했으며 꼭 있어야 할 것뿐이었다. 창가에 화분 두 개가 있었고, 한구석에는 성상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아주 커다란 성모 성상으로 아마 분리파가 생기기 훨씬 전에 그려진 것 같았다. 그 앞에 성상 등잔이 가물가물 타고 있었다. 그 곁에 반짝이는 금속 덮개를 씌운 다른 성상 두 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만들어 붙인 작은 아기

천사들, 사기로 된 달걀, 슬픔의 성모(Mater dolorosa)가 끌어안고 있는 상아 가톨릭 십자가, 지난 몇 세기의 위대한 이탈리아 화가들의 그림을 옮긴 외국 판화 몇 장이 있었다. 이 우아하고 값비싼 판화 그림들 곁에는 장터마다 몇 코페이카에 파는, 더없이 서민적인 러시아 석판화 몇 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인, 순교자, 주교 따위를 그린 것이었다. 그 밖의 벽에는 오늘날과 예전의 러시아 주교들을 그린 석판 초상화 몇 장이 걸려 있었다. 미우소프는 이 모든 "관청 냄새 나는 것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장로에게 눈길을 박았다. 그는 제 눈을 높이 쳤다.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에게는 용서할 만한 약점이었다. 그가 벌써 쉰 살이라는 것을 헤아려 보면 말이다. 영리하고 사교계에 드나들며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 그 나이가 되면 늘 저를 더 존중하게 되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도 한다.

첫 순간부터 장로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실 장로의 얼굴에는 미우소프 말고도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다리가 몹시 약하고 등이 굽은 키 작은 사람이었다. 나이는 고작 예순다섯이었지만 병 때문에 훨씬, 적어도 열 살은 더 늙어 보였다. 하기야 몹시 바싹 마른 그 얼굴 전체에 잔주름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특히 눈가에 주름이 많았다. 눈은 작고 밝은 빛이었으며, 재빠르고 반짝여서 마치 반짝이는 두 점 같았다. 허연 머리카락은 관자놀이에만 조금 남아 있었고, 턱수염은 아주 작고 성기게 쐐기 모양으로 나 있었으며, 자주 엷은 웃음을 띠는 입술은 두 가닥 노끈처럼 가늘었다. 코는 길다기보다 마치 작은 새처럼 뾰족했다.

"보나마나 심술궂고 좀스럽게 거만한 영혼이로군." 미우소프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휙 지나갔다. 대체로 그는 저 자신이 몹시 못마땅했다.

시계 치는 소리가 대화를 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추가 달린 값싼 작은 벽시계가 빠르게 울리며 꼭 열두 시를 쳤다.

"딱 정각이군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그런데 제 아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아직도 안 왔군요. 그 녀석 대신 사과드립니다, 거룩하신 장로님!(알료샤는 이 "거룩하신 장로님"이라는 말에 온몸을 움찔 떨었다.) 저 자신은 언제나 1분도 어기지 않고 시간을 지킵니다. 정확함은 왕들의 예의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적어도 왕은 아니잖습니까." 미우소프가 대뜸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그래요, 그렇지요, 왕은 아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이건 저도 알고 있었답니다, 하느님께 맹세코! 그러니 저는 늘 이렇게 엉뚱한 때에 엉뚱한 말을 한다니까요! 신부님!" 그는 별안간 무슨 순간의 열정에 사로잡혀 외쳤다. "신부님 앞에 있는 건 어릿광대입니다. 진실로 어릿광대지요! 그렇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래된 버릇입니다, 아아! 그리고 때때로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일부러, 웃기고 남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겁니다. 남의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일곱 해 전에 어느 작은 읍에 갔지요. 거기 자잘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몇몇 장사꾼 나부랭이들과 작은 동업을 하나 맺어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군 경찰서장을 찾아갔지요. 그에게 이것저것 부탁할 것도 있었고 식사에도 모셔야 했으니까요. 경찰서장이 나왔는데, 키가 크고 뚱뚱하고 머리가 희멀건 음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때는 그런 위인들이 제일 위험하지요. 간이요, 간에 탈이 있거든요. 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갔지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사교계 인사다운 거리낌 없는 태도로요. '이스프라브니크 나리, 우리의, 말하자면 나프라브니크가 되어 주십쇼!'[1] 했지요. 그랬더니 '나프라브니크라니, 그게 뭐요?' 하더군요. 저는 첫 반 초 만에 일이

틀렸다는 걸 알아봤지요. 그 사람이 진지하게 서서 버티더군요. '저는 그저 다 같이 즐겁자고 농담을 좀 해 본 겁니다. 나프라브니크 씨는 우리 러시아의 이름난 악장이시고, 우리 사업의 조화를 위해서는 바로 악장 같은 분이 필요하니까요……' 했지요. 사리에 맞게 풀어서 견주어 보인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실례지만, 나는 이스프라브니크요. 내 직함으로 말장난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소' 하더군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가며 소리쳤지요. '그래요, 그래요, 당신은 이스프라브니크지 나프라브니크가 아니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게 말했으니 나는 나프라브니크요' 하더군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은 틀어져 버렸지요! 저는 늘 이 모양이라니까요, 늘 이렇다니까요. 반드시 제 상냥함으로 제 발등을 찍고 만단 말입니다! 한번은, 벌써 여러 해 전 일입니다만, 힘깨나 쓰는 분에게 말했지요. '부인께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시더군요.' 명예라는 뜻에서, 말하자면 도덕적 품성이라는 뜻에서 한 말입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당신이 건드려 보았소?' 하는 겁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갑자기, 어디 상냥하게 굴어 보자 싶었지요. '예, 건드려 봤습죠' 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실컷 건드려 주더군요. 다만 이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 이야기해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제 발등을 찍는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습니까." 미우소프가 역겨워하며 중얼거렸다.

장로는 말없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번갈아 살폈다.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아시다시피, 당신이 맨 먼저 그 점을 지적하리라는 것도 예감하고 있었답니다. 신부님, 농담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면 제 두 볼이 아래 잇몸에 들러붙기 시작하는데, 거의 경련처럼 됩니다. 이건 제가 젊은 시절, 귀족 집에 식객으로 얹혀 그 덕으로 빵을

벌어먹던 때부터 생긴 겁니다. 저는 뼛속까지, 태어날 때부터 어릿광대랍니다. 신부님, 성 바보나 다를 바 없지요. 제 안에 더러운 귀신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기야 그다지 큰 놈은 아니고요. 좀 더 대단한 놈이라면 다른 집을 골랐겠지요. 다만 당신 집은 아니겠지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도 대단한 집은 못 되니까요. 그 대신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야 좀 의심이 들었지만, 그 대신 지금은 앉아서 위대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요. 신부님, 저는 철학자 디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신부님, 철학자 디드로가 예카테리나 여제 시절에 플라톤 수도대주교를 찾아간 이야기를 아십니까? 들어가자마자 대뜸 '신은 없습니다' 했다지요. 그러자 위대한 성직자께서 손가락을 들어 대답하셨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느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서 있던 그대로 발아래 엎드려 '믿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외쳤다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다시코바 공작 부인이 대모였고, 포툠킨이 대부였지요……"

"표도르 파블로비치, 정말 참을 수가 없군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어리석은 일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신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꼴사납게 구는 겁니까?" 미우소프가 이제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사실이 아니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지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신이 나서 외쳤다. "그 대신 여러분께 진실을 다 말씀드리지요. 위대하신 장로님! 용서하십시오, 마지막 대목, 디드로의 세례 이야기는 제가 방금 지어낸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야기하면서 지어냈지, 전에는 머리에 떠오른 적도 없습니다. 맛을 내려고 지어냈지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제가 꼴사납게 구는 것도 더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기야 무엇 때문인지 저 자신도 모를 때가 있지만요.

디드로로 말하자면, 저는 그 '어리석은 자' 이야기를 젊은 시절 이곳 지주들 집에 얹혀살 때 바로 그 지주들한테서 스무 번은 들었습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 이모님 마브라 포미니시나한테서도 들었지요. 그 사람들은 다들 지금까지도 무신론자 디드로가 신을 두고 논쟁하려고 플라톤 수도 대주교를 찾아갔다고 믿고 있답니다……"

미우소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참을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거의 정신이 나간 듯했다. 그는 미칠 듯이 화가 나 있었고, 그 때문에 제가 우스워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실 수방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이 수방에는 어쩌면 벌써 사오십 년 전부터, 예전 장로들 때부터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지만, 늘 더없이 깊은 경외심을 품고 왔지 결코 다른 마음으로 온 적이 없었다. 들어오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거의 모두 수방에 들어서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고, 머무는 내내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지체 높은" 사람들,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도, 그뿐 아니라 호기심이나 다른 무슨 까닭으로 찾아온 자유사상가들 가운데 몇몇도, 모두와 함께 수방에 들어오든 단둘이 만나든, 만나는 내내 더없이 깊은 공손함과 조심스러움을 지키는 것을 하나같이 가장 첫째가는 의무로 삼았다. 게다가 여기서는 돈이 오가지 않았다. 한쪽에는 사랑과 자비만 있었고, 다른 쪽에는 참회와 영혼의 어떤 어려운 물음을, 제 마음이 겪는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을 풀고 싶다는 갈망만 있었다. 그러니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드러낸 이런 어릿광대짓은, 그것도 그가 있는 자리를 업신여기는 어릿광대짓은 갑자기 목격자들에게, 적어도 그 가운데 몇몇에게는 어리둥절함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하기야 수도사제들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장로가 무슨 말을 할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미우소프처럼 이미 일어설 채비를 하는 것 같았다. 알료샤는 울 것만 같아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하게 여겨진 것은 그의 형 이반 표도로비치였다. 알료샤가 오직 그에게만 기대를 걸었고, 아버지에게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뿐이라 아버지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지금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눈을 내리깐 채, 보아하니 마치 자기는 여기서 전혀 남인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무언가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마저 품고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알료샤가 잘 알고 거의 가깝게 지내는 라키틴(신학생)은 알료샤가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알료샤는 그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하기야 수도원을 통틀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료샤 하나뿐이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우소프가 장로에게 말을 꺼냈다. "제가 어쩌면 이 볼썽사나운 장난에 한몫 끼는 사람으로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존경받는 분을 뵈러 와서는 제 도리를 알려 하리라고 믿은 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과 함께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사과를 드려야 하리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몹시 쩔쩔매며 방을 나가려 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부탁이오." 장로가 별안간 그 연약한 다리로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의 두 손을 잡고 그를 다시 안락의자에 앉혔다. "마음을 놓으시오, 부탁이오. 특별히 부탁하니 내 손님이 되어 주시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절하고 돌아서서 다시 제 작은 소파에 앉았다.

"위대하신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촐랑대서 장로님께 모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별안간 두 손으로 안락의자 팔걸이를 움켜잡고, 대답에 따라 당장이라도 거기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소리쳤다.

"당신에게도 간곡히 부탁하니, 걱정하지도 거북해하지도 마시오." 장로가 무게 있게 그에게 말했다…… "거북해하지 말고 아주 제 집에 있는 것처럼 지내시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그토록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니까."

"아주 제 집처럼이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생긴 그대로 말씀입니까? 오, 그건 과분합니다, 너무나 과분합니다만, 감격하여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되신 신부님, 저더러 타고난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부추기지 마십시오, 모험하지 마십시오…… 타고난 모습까지는 저 자신도 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신부님을 지켜 드리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밖의 것은 다 아직 알 수 없는 어둠에 싸여 있지요. 저를 멋대로 그려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건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여, 당신께는 이것을 드립니다. 환희를 쏟아 드립니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키고 두 손을 위로 쳐들며 말했다.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젖이 특히요! 신부님은 방금 '자기 자신을 그토록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니까' 하신 그 말씀으로 저를 꿰뚫어 속까지 읽어 내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들어설 때면 저는 늘 제가 누구보다 비열하고 다들 저를 어릿광대로 여긴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 정말로 어릿광대 노릇을 해 주마. 너희 생각 따위는 무섭지 않다. 너희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보다 비열하니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어릿광대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릿광대가 된 겁니다, 위대하신 장로님, 부끄러워서. 의심이 많아서 그저 소란을 피우는 거지요. 제가 들어설 때 다들 저를 곧바로 더없이 사랑스럽고 더없이 영리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리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주님! 그러면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는 별안간 무릎을 꿇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번에도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감격한 것인지 가려내기 어려웠다.

장로는 그를 향해 눈을 들고 미소를 띠며 말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당신 스스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소. 당신에게는 지혜가 넉넉하오. 술 취하는 것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빠지지 마시오. 호색에 빠지지 말고, 특히 돈을 숭배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의 술집들을 닫으시오. 다 닫을 수 없거든 두세 곳만이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디드로 이야기 말씀입니까?"

"아니오, 디드로 이야기만이 아니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마침내 제 안에서도 둘레에서도 아무런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남도 존중하지 않게 되오. 아무도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하기를 그치게 되고, 사랑이 없으니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고 즐기려고 정욕과 거친 쾌락에 빠져, 끝내는 그 악덕 속에서 아주 짐승처럼 되고 마오.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모욕을 느낄 수도 있소. 모욕을 느끼는 게 때로는 무척 즐거운 일이니까, 그렇지 않소? 사람은 아무도 저를 모욕하지 않았고, 모욕은 제가 스스로 지어내고 보기 좋으라고 꾸며 댄 것이며, 그림을 만들려고 제가 부풀렸고, 말꼬리를 잡아 콩알만 한 것을 산더미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알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모욕을 느끼오. 즐거워질 만큼, 큰 기쁨을 느낄 만큼 모욕을 느끼고, 그러다가 마침내 참된 적의에까지 이르오…… 자, 일어나시오, 앉으시오, 간곡히 부탁하오. 이 모든 것도 거짓 몸짓이니까……"

"복되신 분이시여! 그 손에 입을 맞추게 해 주십시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벌떡 다가가더니 장로의 여윈 손에 재빨리 쪽 입을 맞추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요. 모욕을 느끼는 건 즐겁지요. 어찌나 잘 말씀하셨는지 저는 그런 말씀은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즐거워질 만큼 모욕을 느꼈습니다. 미학을 위해 모욕을 느꼈지요. 모욕당한 처지가 되는 건 즐거울 뿐 아니라 때로는 아름답기까지 하니까요. 위대하신 장로님, 장로님이 잊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아름답다는 것 말입니다! 이건 수첩에 적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지요. 평생을, 날마다 시간마다 줄곧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로소이다! 하기야 거짓의 아비는 아닌 것 같군요. 저는 늘 성경 구절을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요, 거짓의 아들쯤은 되겠지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만…… 내 천사 같은 분이시여…… 디드로 이야기는 가끔 해도 되겠지요! 디드로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가 되는 건 다른 말이지요. 위대하신 장로님, 그런데 하마터면 잊을 뻔했습니다. 벌써 재작년부터 여기 와서 꼭 알아보리라 마음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들러서 간곡히 알아보고 여쭈어 보리라 했지요. 다만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더러 말을 끊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여쭐 것은 이겁니다. 위대하신 신부님, 성인전 『체티 미네이(Четьи-Минеи)』 어딘가에 신앙 때문에 고문당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성인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마지막에 목을 잘리자 그 성인이 일어나 제 머리를 집어 들고 '그 머리에 다정하게 입 맞추었도다' 하고, 그 머리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걸어가며 '그 머리에 다정하게 입 맞추었도다' 했다는데요. 그게 참말입니까, 아닙니까, 존경하는 신부님들?"

"아니오, 참말이 아니오." 장로가 말했다.

"『체티 미네이』를 다 뒤져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느 성인 이야기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까?" 도서관 담당 신부인 수도사제가 물었다.

"어느 성인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속았다고들 하더군요. 들은 이야기인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입니다. 방금 디드로 이야기에 화를 낸 바로 이분이 이야기했지요."

"나는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하고는 아예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저한테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끼어 있던 자리에서 이야기하셨잖습니까. 재작년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이 그 우스운 이야기로 제 믿음을 뒤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걸 모르셨지요, 알지도 못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흔들린 채로 집에 돌아왔고, 그 뒤로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은 크나큰 타락의 원인이셨습니다! 이건 디드로 이야기가 아닙니다요!"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비장하게 열을 올렸지만, 그가 또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했다. 그런데도 미우소프는 아프게 상처를 입었다.

"무슨 헛소리, 모두 헛소리입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로 어쩌면 언젠가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한테는 아닙니다. 나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파리에서 어떤 프랑스 사람한테 들었지요. 러시아에서는 성찬 예배 때 『체티 미네이』에서 그런 대목을 읽는다고…… 무척 학식 있는 사람인데, 러시아 통계를 전문으로 연구했고…… 러시아에 오래 살았지요…… 나 자신은 『체티 미네이』

를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읽을 생각도 없고요…… 식사 자리에서 별별 이야기가 다 오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식사하고 있었지요……"

"그래요, 당신은 그때 식사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저는 믿음을 잃었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약을 올렸다.

"당신 믿음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미우소프가 소리치려다가 별안간 자제하고 경멸하듯 말했다. "당신은 손대는 것마다 그야말로 더럽혀 놓는군요."

장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잠깐, 몇 분만 자리를 비우게 되어 미안하오." 그는 모든 방문객에게 말했다. "여러분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소. 그래도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그는 밝은 얼굴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그는 수방을 나섰다. 알료샤와 수련 수사가 그를 부축해 층계를 내려가려고 달려갔다. 알료샤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자리를 뜨게 되어 기뻤지만, 장로가 모욕을 느끼지 않고 밝다는 것도 기뻤다. 장로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러 회랑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수방 문간에서 기어이 그를 붙잡았다.

"더없이 복되신 분이시여!" 그가 감격에 겨워 외쳤다. "그 손에 한 번 더 입 맞추게 해 주십시오! 아니, 신부님하고는 아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릿광대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저는 내내 신부님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연극을 한 겁니다. 내내 신부님을 더듬어 보고 있었지요. 이분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신부님의 그 교만 곁에 제 겸손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 신부님께 상장을 드립니다. 신부님하고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내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안락의자에 앉아서 입을 다물지요. 이제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이제 당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남으셨습니다. 10분 동안은요."

---

1. 「이스프라브니크(исправник)」는 군 경찰서장을 뜻하는 러시아어 직함이고, 「나프라브니크」는 그 무렵 페테르부르크에서 이름을 떨친 체코 출신 지휘자 에두아르트 나프라브니크다. 두 말의 소리가 비슷한 데서 나온 말장난이다.

제3장 믿음 깊은 아낙들

담장 바깥벽에 덧붙여 지은 나무 회랑 아래에는 이번에는 온통 여자들만, 아낙 스무 명쯤이 모여 있었다. 장로가 드디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기다리며 모여 있었다. 지주 집안의 호흘라코바 모녀도 회랑으로 나왔다. 그들 역시 장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귀한 신분의 여자 방문객들에게 따로 내준 방에서였다. 두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딸이었다. 어머니 호흘라코바 부인은 부유하고 늘 맵시 있게 차려입는 부인으로, 아직 꽤 젊고 무척 어여쁜 사람이었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고, 무척 생기 있는 눈은 거의 새까맸다. 나이는 서른셋을 넘지 않았고, 과부가 된 지 벌써 다섯 해쯤 되었다. 열네 살 난 딸은 다리가 마비되어 있었다. 가엾은 아이는 벌써 반년쯤 걷지 못해서 길고 편안한 바퀴 달린 의자에 실려 다녔다. 병 때문에 조금 여위었지만 명랑한, 사랑스러운 얼굴이었다. 속눈썹이 긴 그 크고 검은 눈에는 무언가 장난기 어린 것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봄부터 딸을 외국으로 데려갈 작정이었지만, 여름에 영지 일을 정리하느라 때를 놓쳤다. 모녀는 벌써 한 주일쯤 우리 읍에 머물고 있었는데, 순례보다는 볼일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미 한 번, 사흘 전에 장로를 찾아왔었다. 그런데 장로가 이제 거의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시 불쑥 찾아와서, "위대한 치유자를 뵙는 행복"을 한 번 더 누리게 해 달라고 간곡히 애원하며 청했다.

장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딸의 의자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여자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늙은 수도사 하나가 서

있었다. 이곳 수도원 사람이 아니라 북쪽 먼 곳의 잘 알려지지 않은 수도원에서 찾아온 길손이었다. 그 역시 장로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회랑에 나타난 장로는 먼저 곧장 백성들에게로 갔다. 사람들은 나지막한 회랑과 들판을 잇는 세 계단짜리 층계로 밀려들었다. 장로는 맨 위 계단에 서서 영대(領 帶)를 두르고, 제게로 밀려드는 여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클리쿠샤 하나를 두 팔을 잡아 그에게로 끌어왔다. 그 여자는 장로를 보자마자 어쩐지 터무니없이 끽끽거리며 딸꾹질을 하더니, 경기라도 일으킨 듯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장로가 그 여자의 머리에 영대를 얹고 짧은 기도를 읽어 주자 여자는 곧바로 잠잠해지고 가라앉았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어린 시절에는 시골이나 수도원에서 이런 클리쿠샤들을 보고 듣는 일이 자주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성찬 예배에 데려왔고, 그들은 온 성당이 떠나가게 끽끽거리거나 개처럼 짖어 댔다. 그런데 성체를 모시고 나와 그들을 성체 앞으로 데려가면, "귀신 들린 발작"은 곧바로 멈추었고 환자들은 늘 한동안 잠잠해졌다. 어린 나는 이것을 보고 무척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때 이미 나는 어떤 지주들에게서, 특히 읍에 사는 내 선생님들에게서, 내가 꼬치꼬치 묻자 이런 대답을 들었다. 그것은 다 일하기 싫어서 꾸민 연극이며 마땅히 엄하게 다스리면 언제든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갖가지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전문 의사들에게서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는 아무런 꾸밈도 없고, 이것은 무서운 여자의 병이며, 아무래도 주로 우리 러시아에 있는 병인 듯한데, 우리 시골 여자의 고된 운명을 증언하는 병이라고 했다. 아무런 의학의 도움도 없이 힘들고 잘못된 해산을 치르고 나서 너무 일찍 고된 일을 하는 데서 생기는 병이고, 그 밖에도 빠져나갈 길 없는 슬픔, 매질 따위에서도 생기는데, 어떤 여자의 몸은 흔히들 견디는 일이라 해도 끝내 견뎌 내지 못한다고 했다.

발작하며 몸부림치던 여자가 성체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순식간에 낫는 일을 사람들은 나에게 꾸민 연극이라고, 게다가 거의 "성직자 놈들"이 직접 꾸며 낸 속임수라고 설명했지만, 그 일 역시 아마 더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이다. 여자를 성체 앞으로 데려가는 아낙들도, 무엇보다 환자 자신도, 환자를 사로잡은 더러운 귀신은 환자를 성체 앞으로 데려가 그 앞에 몸을 굽히게 하면 결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굳어진 진리로 온전히 믿고 있었다. 그러니 신경이 예민하고, 물론 정신도 병든 여자에게는 성체 앞에 몸을 굽히는 순간 반드시 온몸이 뒤흔들리는 듯한 일이 늘 일어났고(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뒤흔들림은 반드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기대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더없이 온전한 믿음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 1분 동안이라도 이루어졌다. 지금도 장로가 환자를 영대로 덮자마자 꼭 그렇게 이루어졌다.

장로에게 밀려드는 여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그 순간이 빚어낸 감동과 환희로 눈물을 쏟았다. 어떤 이들은 그의 옷자락 끝에라도 입을 맞추려고 몸부림쳤고, 어떤 이들은 무언가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모두를 축복했고, 몇몇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클리쿠샤는 그가 이미 아는 여자였다. 멀지 않은 곳, 수도원에서 고작 6베르스타쯤 떨어진 마을에서 데려온 여자로, 전에도 그에게 데려온 적이 있었다.

"저기 먼 데서 온 사람이 있구나!" 장로가 아직 결코 늙지는 않았지만 몹시 여위고 핼쑥한 여자 하나를 가리켰다. 햇볕에 그을렸다기보다 얼굴이 온통 새까맣게 타 버린 듯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꼼짝 않는 눈길로 장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길에는 무언가 넋이 나간 듯한 데가 있었다.

"먼 데서요, 신부님, 먼 데서 왔어요. 여기서 300베르스타나 되는 데서요. 먼 데서요, 아버님, 먼 데서요." 여자는 뺨을 손바닥으로 괴고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어쩐지 천천히 흔들며 노래하듯 말했다. 그 여자는 넋두리를 늘어놓듯 말했다. 백성 가운데에는 말없이 오래 참는 슬픔이 있다. 그 슬픔은 제 안으로 파고들어 입을 다문다. 그러나 터져 버린 슬픔도 있다. 그 슬픔은 한번 눈물로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넋두리가 된다. 특히 여자들에게서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말없는 슬픔보다 가벼운 것은 아니다. 넋두리는 마음을 더 쑤시고 더 찢어 놓음으로써만 위안이 된다. 이런 슬픔은 위안조차 바라지 않고, 제가 달랠 길 없다는 느낌을 먹고 산다. 넋두리란 상처를 끊임없이 덧나게 하고 싶은 갈망일 뿐이다.

"읍내 사람 같구나?" 장로가 여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읍에 살아요, 아버님, 읍에 살아요. 신분은 농사꾼인데 읍에 살아요, 읍에서 지내요. 아버님을 뵈러 왔어요. 아버님 소문을 들었어요, 신부님, 들었어요. 젖먹이 아들을 묻고 하느님께 빌러 나섰어요. 수도원을 세 군데 돌았는데, 사람들이 일러 주더라고요. '나스타슈시카, 거기도 가 봐요.' 여기 말이에요, 아버님, 여기요. 그래서 왔어요. 어제는 철야 예배에 섰고, 오늘은 아버님께 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 우느냐?"

"아들이 불쌍해서요, 신부님. 세 살배기였어요. 석 달만 더 있었으면 꼭 세 살이 됐을 거예요. 아들 때문에 괴로워요, 아버님, 아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어요. 니키투시카하고 저 사이에 넷이 있었는데, 우리 집엔 애들이 붙어 있질 않아요, 붙어 있질 않아요, 아버님, 붙어 있질 않아요. 첫 셋은 묻고도 그렇게 서럽진 않았는데, 이 마지막 녀석은 묻고 나니 잊을 수가 없어요. 꼭 여기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떠나질 않아요. 제 넋을 다 말려 놨어요. 그 애 속옷이며 작은 셔츠며 장화를 보면 울부짖게 돼요. 그 애가 남긴 걸, 그 애 물건을 하나하나 늘어놓고 보면서 울부짖어요. 남편 니키투시카한테 그랬어요. 여보, 순례 좀

다녀오게 보내 줘요. 그이는 마부예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아버님, 가난하지 않아요. 남의 밑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마차 일을 해요. 말도 마차도 다 우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깟 살림이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없으니 그이가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니키투시카가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잠깐 눈만 돌려도 금세 무너지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이 생각도 안 해요. 집을 나온 지 벌써 석 달째예요.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이하고 같이 있어 봤자 무얼 하겠어요? 그이하곤 끝났어요, 끝났어요, 모두하고 다 끝냈어요. 이제는 제 집도 제 살림도 쳐다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아예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보게, 어미야." 장로가 말했다. "옛날에 어느 위대한 성인이 성당에서 너와 꼭 같이 우는 어머니를 보았다. 역시 하나뿐인 어린 자식을 주님께서 불러 가셨기 때문이었지. 성인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 어린것들이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얼마나 대담한지 모르는가? 하늘나라에서 이들보다 대담한 이는 아무도 없다. 이들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한다.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자마자 도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대담하게 청하고 묻는지 주님은 곧바로 이들에게 천사의 품계를 내리신다. 그러니'" 성인이 말했다. "'여인이여, 그대도 울지 말고 기뻐하라. 그대의 어린것도 지금 주님 곁에서 그분의 천사 무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성인은 옛날에 우는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분은 위대한 성인이셨으니 그 여인에게 거짓을 말씀하셨을 리 없다. 그러니 너도 알아 두어라, 어미야. 네 어린것도 틀림없이 지금 주님의 옥좌 앞에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너를 위해 하느님께 빌고 있다. 그러니 너도 울되 기뻐하여라."

여자는 손으로 뺨을 괴고 눈을 내리깐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니키투시카도 바로 그렇게 저를 위로했어요. 꼭 아버님처럼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말했어요. '이 철없는 사람아, 왜 울어. 우리 아들은 틀림없이 지금 주 하느님 곁에서 천사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있을 거야.' 그이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울어요. 저처럼 울고 있는 걸 저는 봐요. '알아요, 니키투시카.' 제가 그러지요. '주 하느님 곁 말고 그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곁에는 지금 그 애가 없잖아요, 니키투시카. 예전처럼 곁에 앉아 있지 않잖아요!' 그 애를 딱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딱 한 번만 그 애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다가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구석에 숨어 있을게요. 그저 딱 한순간만 보고, 그 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요. 그 애가 마당에서 노는 소리를. 그 애는 들어와서 그 작은 목소리로 소리치곤 했어요. '엄마, 어디 있어?' 그 애가 그 작은 발로 방을 한 번 걸어가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작은 발로 콩콩, 그렇게 잦게, 잦게요. 기억나요, 그 애가 저한테 뛰어오면서 소리치고 웃던 게. 그 애 발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들으면 알아볼 텐데! 그런데 그 애가 없어요, 신부님,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애 소리를 못 들어요! 여기 그 애 허리띠가 있는데, 그 애는 없어요. 이제 다시는 그 애를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여자는 품에서 사내아이가 매던, 금실로 수놓은 작은 허리띠를 꺼냈고, 그것을 보자마자 흐느끼며 온몸을 떨었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눈을 가렸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갑자기 눈물이 줄기줄기 쏟아졌다.

"그것은" 장로가 말했다. "옛날의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울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마다하였다'는 그 울음이다. 너희 어머니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런 몫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 위로받으려 하지 마라. 위로받을 필요도 없다.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울어라. 다만

울 때마다, 네 아들이 하느님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저기서 너를 내려다보고, 너를 보고, 네 눈물을 기뻐하며, 그 눈물을 주 하느님께 가리켜 보인다는 것을 한결같이 떠올려라. 이 크나큰 어머니의 울음은 아직도 오래 너와 함께 있겠지만, 끝내는 조용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네 쓰라린 눈물은 그저 조용한 감동의 눈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마음의 정화의 눈물이 될 것이다. 네 어린것의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마.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알렉세이예요, 신부님."

"고운 이름이구나. 하느님의 사람 알렉세이 성인의 이름을 땄느냐?"

"하느님의 사람이요, 신부님,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느님의 사람 알렉세이 성인이요!"

"참으로 거룩한 성인이시지! 기도해 주마, 어미야, 기도해 주마. 네 슬픔도 기도 속에 떠올리고, 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마. 다만 남편을 버려두는 것은 죄다. 남편에게 가서 그를 돌보아라. 네 아이가 저기서 네가 제 아비를 버린 것을 보면 너희를 위해 울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 아이의 복된 안식을 깨뜨리려 하느냐? 그 아이는 살아 있다, 살아 있다.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집에는 없어도 그 아이는 보이지 않게 너희 곁에 있다. 네가 제 집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집으로 오겠느냐? 아비와 어미를 함께 찾지 못하면 누구에게로 오겠느냐? 지금은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 네가 괴로워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아이가 너에게 온화한 꿈을 보내 줄 것이다. 남편에게 가거라, 어미야. 바로 오늘 가거라."

"갈게요, 아버님, 아버님 말씀대로 갈게요. 제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셨어요. 니키투시카, 우리 니키투시카, 날 기다리고 있지, 여보, 기다리고 있지!" 아낙이 또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장로는 이미 순례자 차림이 아니라 읍내 차림을 한 조그만 할멈에게로 돌아섰다. 그

할멈의 눈을 보니 무슨 볼일이 있어서 무언가 알리러 온 것이 분명했다. 할멈은 하사관의 과부라고 제 소개를 했는데,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읍에서 왔다고 했다. 할멈에게는 바센카라는 아들이 있는데, 어디 병참 관청에서 일하다가 시베리아로, 이르쿠츠크로 갔다고 했다. 거기서 두 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벌써 한 해째 편지가 끊겼다고 했다. 할멈은 아들 소식을 알아보았지만, 사실 어디에 알아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요전에 스테파니다 일리니시나 베드랴기나, 부자 상인 마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프로호로브나, 아들 이름을 추도 명부에 적어서 교회에 갖다 내고, 죽은 사람처럼 영혼의 안식을 빌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영혼이 갑갑해져서 아들이 편지를 쓸 거라고요. '그건 정말 틀림없어요, 여러 번 해 봤어요.' 스테파니다 일리니시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미심쩍어서요…… 우리 등불 같은 신부님, 그게 참말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런 것은 묻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살아 있는 영혼을, 그것도 친어머니가 죽은 사람처럼 안식을 빌어 달라고 하다니 그게 어떻게 될 법한 일이냐! 그것은 큰 죄다. 요술이나 다름없다. 네가 몰라서 한 일이니 그저 용서받을 뿐이다. 차라리 하늘의 여왕님, 재빨리 감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께 아들의 건강을 빌고, 네 그릇된 생각도 용서해 주십사 빌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마디 더 해 주마, 프로호로브나. 네 아들은 곧 너에게 직접 돌아오든지, 아니면 틀림없이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알아 두어라. 가거라, 이제부터는 마음 놓아라. 네 아들은 살아 있다. 내가 말해 주마."

"우리 고마우신 분, 하느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우리 은인이시여,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빌어 주시는 분이시여……"

그런데 장로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서 제게로 쏠린 불타는 두 눈길을 알아보았다. 아직 젊기는 하지만 몹시 지치고 보기에 폐병을 앓는 듯한 농가 여자의 눈길이었다. 그 여자는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눈은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지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얘야?"

"제 영혼을 풀어 주세요, 아버님." 여자는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말하고는 무릎을 꿇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죄를 지었어요, 아버님. 제 죄가 무서워요."

장로는 맨 아래 계단에 앉았고, 여자는 무릎을 꿇은 채 그에게 다가갔다.

"과부가 된 지 세 해째예요." 여자가 몸을 떠는 듯하며 반쯤 속삭이는 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어요. 그이는 늙었고, 저를 몹시 때렸어요. 그이가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이를 보면서요. 이 사람이 나아서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그러자 그때 바로 그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잠깐." 장로가 말하고는 귀를 여자의 입술 바로 앞에 갖다 댔다. 여자는 거의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속삭임으로 말을 이었다. 여자는 곧 말을 마쳤다.

"세 해째라고?" 장로가 물었다.

"세 해째예요.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앓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이 들러붙었어요."

"먼 데서 왔느냐?"

"여기서 500베르스타 떨어진 데서요."

"고해 때 말했느냐?"

"말했어요. 두 번이나 말했어요."

"영성체는 허락받았느냐?"

"허락받았어요.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우울해하지도 마라. 네 안에서 참회만 마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참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죄는 온 땅 위에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사람이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 써 버릴 만큼 큰 죄를 저지를 수는 결코 없다. 하느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죄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저 쉼 없는 참회만 마음에 두고, 두려움은 아주 쫓아 버려라. 하느님께서 너를 네가 생각조차 못 할 만큼 사랑하신다고 믿어라. 네 죄와 함께, 네 죄 가운데 있는 너를 사랑하신다. 뉘우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는 열 의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 오래전에 있었다. 그러니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 때문에 서러워하지 말고, 모욕당했다고 성내지 마라. 죽은 사람이 너를 괴롭힌 일은 마음속에서 모두 용서하고, 참으로 그와 화해하여라. 뉘우친다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이미 하느님의 사람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구원받는다. 너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인 내가 너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너를 가엾게 여겼으니, 하물며 하느님이시겠느냐. 사랑은 더없이 값진 보물이라 그것으로 온 세상을 살 수 있고, 제 죄뿐 아니라 남의 죄까지 대신 갚을 수 있다.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여자에게 세 번 성호를 그어 주고, 제 목에서 작은 성상을 벗어 여자의 목에 걸어 주었다. 여자는 말없이 땅에 닿도록 절했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키고, 젖먹이를 품에 안은 건강한 아낙 하나를 밝은 얼굴로 바라보았다.

"비셰고리예에서 왔어요, 아버님."

"여기서 6베르스타나 되는데, 아기를 안고 고생했겠구나. 무엇을 바라느냐?"

"아버님 얼굴 보러 왔어요. 전에도 아버님한테 왔었는데, 잊으셨어요? 저를 다 잊으셨다면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 동네에서 아버님이 앓으신다고들 하기에, 그럼 내가 가서 직접 뵈어야지 싶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뵙는데, 이게 어디가 앓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스무 해는 더 사시겠어요, 정말이지, 하느님이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비는 사람이 좀 많아요? 아버님이 앓으실 리가 있나요?"

"모든 것이 고맙구나, 얘야."

"그런데 마침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60코페이카가 있는데, 아버님, 이걸 저보다 가난한 여자한테 주세요. 여기 오면서 생각했지요. 아버님을 통해 주는 게 낫겠다. 그분은 누구한테 줘야 할지 아실 테니까."

"고맙다, 얘야, 고맙다, 착한 사람아. 내가 너를 아낀다. 꼭 그렇게 해 주마. 안고 있는 건 계집아이냐?"

"계집아이예요, 아버님. 리자베타예요."

"주님께서 너희 둘을, 너와 아기 리자베타를 축복해 주시기를.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구나, 어미야. 잘 가거라, 사랑하는 이들아, 잘 가거라, 소중하고 정다운 이들아."

그는 모두를 축복하고 모두에게 깊이 절했다.

제4장 믿음이 적은 부인

먼 데서 온 지주 부인은 장로가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내내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교계 부인으로, 여러모로 진심으로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장로가 마침내 그 부인에게도 다가오자 부인은 열광하며 그를 맞았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다 보고 있자니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부인은 흥분한 나머지 말을 맺지 못했다. "오, 백성들이 왜 장로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백성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위대함 속에서도 순박한 우리 훌륭한 러시아 백성을요!"

"따님은 좀 어떠시오? 또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소?"

"오, 간곡히 청했어요, 애원했어요. 장로님이 들여보내 주실 때까지 장로님 창문 앞에서 사흘이라도 무릎 꿇고 있을 각오였어요. 위대한 치유자님, 저희는 저희의 열광에 찬 감사를 모두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장로님이 우리 리자를 낫게 해 주셨잖아요, 완전히 낫게 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목요일에 그 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애에게 손을 얹어 주신 것으로요. 저희는 그 손에 입 맞추고, 저희의 감정과 경외심을 쏟아 놓으려고 서둘러 왔어요!"

"낫게 해 주었다니 어떻게 말이오? 따님은 아직도 의자에 누워 있지 않소?"

"그렇지만 밤마다 나던 열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벌써 이틀째예요, 바로 목요일부터요." 부인이 신경질적으로 서둘러 말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붙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건강하게 일어났고, 밤새 푹 잤어요. 이 애 볼에 도는 혈색이며 반짝이는 눈을 좀 보세요. 전에는 줄곧 울기만 하더니 이제는 웃고, 명랑하고, 기뻐해요. 오늘은 저를 일으켜 세워 달라고 기어이 졸라서, 1분을 꼬박 아무 부축도 없이 혼자 서 있었어요. 두 주일 뒤에는 카드리유를 출 거라고 저하고 내기를 한답니다. 이곳 의사 게르첸시투베를 불렀는데, 어깨를 으쓱하며 '놀랍군요, 어리둥절합니다' 하더군요. 그런데도 저희더러 장로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리로 날아오지도 말고 감사도 드리지 말라고 하실 셈인가요? 리즈, 감사드려라, 어서 감사드려라!"

리즈의 귀엽고 웃음 띤 얼굴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리즈는 의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몸을 일으켜 장로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작은 두 손을 모았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요!" 리즈는 참지 못하고 웃어 버린 저 자신이 아이처럼 분해서 알료샤를 가리켰다. 장로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던 알료샤를 누가 보았다면, 그의 얼굴에 순식간에 두 뺨을 덮어 버린 홍조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의 눈이 번득이더니 아래로 떨구어졌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 애가 당신한테 전할 심부름이 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알료샤를 돌아보며, 장갑을 예쁘게 낀 작은 손을 그에게 내밀며 말을 이었다. 장로가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알료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알료샤는 리자에게 다가가, 어쩐지 이상하고 어색하게 웃음 지으며 리자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리즈가 점잔 빼는 얼굴을 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저를 통해 당신한테 이걸 보냈어요." 리즈가 작은 편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꼭 들러 주기를 특별히 부탁한대요. 어서, 어서요. 그리고 속이지 말고 꼭 와 달래요."

"그분이 저더러 들르라고요? 저를 그분한테…… 대체 무엇 때문에요?" 알료샤가 몹시 놀라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근심으로 가득 찼다.

"오, 그건 모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하고…… 요즘 일어난 그 모든 일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재빨리 설명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이제 어떤 결심을 굳혔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꼭 당신을 만나야 한대요…… 무엇 때문이냐고요? 물론 저는 모르지요.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도 그래야 하는 일이에요."

"그분을 뵌 건 딱 한 번뿐인데요." 알료샤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말을 이었다.

"오, 그분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닿을 수 없는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겪은 고통만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무엇을 견뎌 냈는지,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 끔찍해요, 끔찍해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알료샤가 짧고 수수께끼 같은 쪽지를 훑어보고 나서 결정했다. 쪽지에는 꼭 와 달라는 간곡한 부탁 말고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아, 그러시면 정말 다정하고 멋진 일이 될 거예요." 리즈가 갑자기 온통 생기를 띠며 소리쳤다. "저는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갈 거라고, 구원의 길을 닦는 중이니까. 어쩜, 어쩜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저는 늘 당신이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당신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리즈!" 어머니가 엄하게 말했지만, 곧바로 웃음 지었다.

"당신은 저희도 잊으셨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희 집에는 아예 오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그런데 리즈는 저한테 두 번이나 당신하고 있을 때만 즐겁다고 했답니다." 알료샤가 떨구었던 눈을 들더니, 다시 갑자기 얼굴을 붉히고, 다시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웃음 지었다. 하기야 장로는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장로는 앞서 말했듯 리즈의 의자 곁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길손 수도사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아하니 가장 소박한 수도사, 즉 평민 출신으로, 짧고 흔들림 없는 세계관을 지녔지만 믿음이 있고 저 나름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그는 저 먼 북쪽, 오브도르스크의 성 실베스트르 수도원, 수도사가 겨우 아홉 명뿐인 어느 가난한 수도원에서 왔다고 했다. 장로는 그를 축복하고 언제든 좋을 때 수방으로 찾아오라고 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십니까?" 수도사가 갑자기 엄숙하고 무게 있게 리즈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는 리즈의 "치유"를 넌지시 가리킨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물론 아직 이르오. 조금 나아진 것이 아직 완전한 치유는 아니고, 다른 까닭으로 나아졌을 수도 있소. 그러나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다른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오. 신부님, 나를 찾아오시오." 그는 수도사에게 덧붙였다. "아무 때나 만날 수는 없소. 나는 앓고 있고,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장로님을 저희에게서 데려가시지 않을 거예요. 장로님은 아직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리고 어디가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명랑하고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몸이 가볍소. 그러나 그것이 잠깐뿐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소. 나는 이제 내 병을 틀림없이 알고 있소. 그런데 내가 그토록 명랑해 보인다면, 당신이 그 말을 해 준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결코 없었을 것이오. 사람은 행복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오. 온전히 행복한 사람은 '나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언약을 이루었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할 자격을 곧바로 얻은 사람이오. 모든 의인, 모든 성인, 모든 거룩한 순교자는 모두 행복했소."

"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대담하고 드높은 말씀인지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꼭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 행복이라니, 그게 어디 있나요? 누가 저 자신을 두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 오늘 저희가 한 번 더 장로님을 뵙도록 허락해 주실 만큼 친절하셨으니,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 감히 하지 못한 이야기, 제가 그토록 오래, 오래 괴로워해 온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저는 괴로워요, 용서하세요, 저는 괴로워요……" 그러고는 무슨 뜨겁고 북받치는 감정에 사로잡혀 그 앞에 두 손을 모았다.

"무엇이 특히 괴로우시오?"

"저는 괴로워요…… 믿음이 없어서요……"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오?"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감히 생각도 못 해요. 그렇지만 내세라는 건 얼마나 수수께끼인지요! 그리고 아무도, 정말 아무도 거기에 대답해 주지 않아요! 들어 보세요, 장로님은 치유자시고, 사람의 영혼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물론 저는 장로님이 저를 온전히 믿어 주시기를 감히 바랄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맹세로 장담하는데, 저는

지금 경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 너머의 내세에 대한 이 생각이 괴로울 만큼, 무섭고 겁날 만큼 저를 뒤흔들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감히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히 장로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오, 하느님, 이제 저를 어떤 여자로 보시겠어요!" 부인은 두 손을 맞부딪쳤다.

"내 생각은 걱정하지 마시오." 장로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괴로움이 진심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소."

"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세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해요. 모두가 믿는다면 그건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게 처음에는 무서운 자연 현상 앞에서 느낀 두려움에서 생겨났을 뿐이라고, 그런 건 모두 없다고 단언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평생 믿어 왔는데 죽고 나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고, 어느 작가 책에서 읽은 대로 '무덤 위에 우엉만 자라고' 만다면. 끔찍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기야 저는 어린아이였을 때만,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믿었을 뿐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걸 증명하지요? 저는 이제 장로님 앞에 엎드려 그걸 여쭈려고 왔어요.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평생 아무도 저한테 대답해 주지 않을 테니까요.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확신하지요? 오, 저는 불행해요! 둘러보면 모두가, 거의 모두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얼굴이고, 이제 아무도 그런 걸로 마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저 혼자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죽을 것 같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소. 그래도 확신할 수는 있소."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실행하는 사랑을 겪어 봄으로써 그렇소. 당신의 이웃을 실행으로, 쉬지 않고 사랑하도록 애써 보시오. 사랑에서 나아가는 만큼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도, 당신 영혼의 불멸도 확신하게 될 것이오.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완전한 자기 버림에까지 이른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믿게 될 것이고, 어떤 의심도 당신 영혼에 들어올 수조차 없을 것이오. 이것은 시험을 거친 일이오, 틀림없소."

"실행하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또 물음이 생겨요. 그런 물음, 정말 그런 물음이요! 보세요, 저는 인류를 너무나 사랑해서, 믿으시겠어요, 때로는 가진 것을 다, 다 버리고 리즈도 두고 자선 간호사가 되러 갈까 꿈꾸기도 해요. 눈을 감고 생각하고 꿈꾸면 그 순간 제 안에서 이길 수 없는 힘이 느껴져요. 어떤 상처도, 어떤 고름 나는 종기도 저를 겁먹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제 손으로 붕대를 감고 씻어 줄 거예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간병인이 될 거예요. 그 종기에 입 맞출 각오도 되어 있어요……"

"당신의 머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꿈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고 좋은 일이오. 언젠가는 뜻하지 않게 정말로 무슨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생활을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부인은 뜨겁게, 거의 넋이 나간 듯 말을 이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제 물음 가운데 가장 괴로운 물음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요. 너는 이 길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겠니? 네가 종기를 씻어 주는 환자가 곧바로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네 인정 어린 봉사를 알아주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변덕을 부려 너를 괴롭히고, 너한테 소리 지르고, 거칠게 요구하고, 심지어 무슨 윗사람한테 너를 고자질하기까지 한다면(몹시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그때는 어떡하지? 네 사랑이 이어질까, 아닐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몸서리치며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인류를 향한 제 '실행하는' 사랑을 곧바로 식혀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배은망덕뿐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에요. 저는 곧바로 품삯을, 그러니까 저에 대한 칭찬을 요구하고, 사랑에 대한 품삯으로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부인은 더없이 진심 어린 자기 채찍질의 발작에 사로잡혀 있었고, 말을 마치자 도전하듯 결연하게 장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느 의사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과 꼭 같소. 하기야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장로가 말했다. "이미 나이가 지긋하고 틀림없이 영리한 사람이었소. 그 사람도 당신처럼 솔직하게, 농담조이기는 했지만 슬프게 농담하며 말했소. 나는 인류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에게 놀란다고. 인류 전체를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들 하나하나를, 즉 따로따로 낱낱의 인물로서는 덜 사랑하게 된다고. 공상 속에서는 인류를 섬기겠다는 뜨거운 생각에까지 이른 일이 드물지 않고, 어쩌면 갑자기 어떻게 해서든 그래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를지도 모르지만, 그런데도 누구하고든 한 방에서 이틀도 함께 지내지 못한다고, 그것은 겪어 봐서 안다고. 누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내 자존심을 짓누르고 내 자유를 옥죈다고. 하루 만에 가장 훌륭한 사람마저 미워하게 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식사 때 오래 먹는다고, 어떤 사람은 코감기에 걸려 끊임없이 코를 푼다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사람들의 원수가 된다고 했소. 그 대신 늘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오. 사람들 하나하나를 미워하면 할수록 인류 전체를 향한 내 사랑은 더 뜨거워지더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오. 당신이 그것을 두고 애통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오. 할 수 있는 것을 하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몫으로

헤아려질 것이오.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했소. 그토록 깊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당신이 지금 나와 이토록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나에게서처럼 그 솔직함을 칭찬받기 위해서였다면, 물론 실행하는 사랑의 위업에서는 아무 데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오. 모든 것이 당신의 공상 속에만 남고, 온 생애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오. 그렇게 되면 물론 내세도 잊어버리고, 끝내는 어떻게든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게 될 것이오."

"장로님이 저를 짓눌러 버리셨어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알았어요. 배은망덕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로 제 솔직함에 대한 장로님의 칭찬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장로님은 저에게 저를 일러 주셨어요. 저를 붙잡아서 저에게 저를 풀어 보여 주셨어요!"

"참말로 하는 말이오? 그래, 그렇게 털어놓았으니 이제 나는 당신이 진실하고 마음이 착하다고 믿소. 행복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좋은 길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시오. 무엇보다 거짓을 피하시오. 모든 거짓을,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을. 당신의 거짓을 지켜보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것을 들여다보시오. 혐오도 피하시오. 남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당신 안에서 추하게 여겨지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제 안에서 알아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깨끗해지오. 두려움도 피하시오. 하기야 두려움이란 모든 거짓의 결과일 뿐이지만. 사랑에 이르려는 길에서 당신 자신의 소심함을 결코 겁내지 마시오. 그러는 동안 저지르는 나쁜 행동마저 너무 겁내지 마시오. 더 기쁜 말을 해 줄 수 없어 안타깝소. 실행하는 사랑은 공상하는 사랑에 비하면 가혹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오. 공상하는 사랑은 재빨리, 금세 채워지는 위업을, 모두가 그것을 지켜보는 위업을 갈망하오. 거기서는 정말로 목숨까지 내놓는 데에

이르기도 하오. 다만 오래 끌지 않고 어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무대 위에서처럼, 모두가 지켜보며 칭찬하기만 한다면 말이오. 그러나 실행하는 사랑은 노동이고 참을성이며, 어떤 이에게는 아마 하나의 학문이기까지 하오. 그러나 미리 말해 두겠소. 당신이 온갖 애를 썼는데도 목표에 다가가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서 멀어진 것처럼 보여 겁에 질려 바라보게 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미리 말해 두는데, 당신은 갑자기 목표에 이를 것이고, 당신을 내내 사랑하시고 내내 신비롭게 이끌어 오신 주님의 기적의 힘을 당신 위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없어 미안하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소. 안녕히 가시오."

부인은 울고 있었다.

"리즈, 리즈, 저 애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부인이 갑자기 온몸을 파드득 일으켰다.

"저 아이는 사랑할 것도 없소. 내내 장난치는 것을 보았소." 장로가 농담 삼아 말했다. "무엇 때문에 내내 알렉세이를 놀렸느냐?"

리즈는 정말로 내내 이 장난에 빠져 있었다. 리즈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난번부터, 알료샤가 저 때문에 쩔쩔매며 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바로 그것이 몹시 재미있어졌다. 리즈는 그의 눈길을 뚫어지게 기다리며 붙잡으려 했다. 끈질기게 저를 향하는 눈길을 견디지 못하고 알료샤는 이따금 갑자기, 저도 모르게, 거스를 수 없는 힘에 끌려 리즈를 쳐다보았고, 그러면 리즈는 곧바로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겼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알료샤는 더욱 쩔쩔매고 더욱 분해했다. 마침내 그는 아예 리즈에게서 돌아서서 장로의 등 뒤로 숨었다. 몇 분 뒤 그는 다시 같은 거스를 수 없는 힘에 끌려, 누가 저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보려고 돌아섰다. 그러자 리즈가 의자에서 거의 아주 몸을 늘어뜨린 채 옆에서 그를 내다보며, 그가 언제 쳐다볼지 온

힘을 다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길을 붙잡자 리즈가 어찌나 깔깔대며 웃었던지 장로마저 참지 못했다.

"이 말괄량이야,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리즈는 갑자기, 전혀 뜻밖에 얼굴을 붉히더니 눈을 번득였다. 그 얼굴이 무섭도록 진지해졌고, 리즈는 뜨겁고 분개한 하소연을 갑자기 빠르게, 신경질적으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다 잊어버렸대요? 저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안고 다녔고, 우리는 같이 놀았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글을 가르치러 다녔다고요, 그거 아세요? 두 해 전에 헤어질 때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우리는 영원한 친구라고, 영원히, 영원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를 무서워해요. 제가 잡아먹기라도 한대요? 왜 가까이 오려고도 안 하고, 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든 다 돌아다닌다는 건 저희도 알거든요. 제가 저 사람을 부르는 건 점잖지 못한 일이에요. 잊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먼저 기억해 냈어야지요.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이제 구원의 길을 닦는 중이시래요! 왜 저 사람한테 저 치렁치렁한 수도복을 입히셨어요…… 뛰다가 넘어지겠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길고 신경질적이고 온몸이 들썩이는 소리 없는 웃음으로 무섭게, 걷잡을 수 없이 웃어 댔다. 장로는 미소 지으며 리즈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다정하게 축복해 주었다. 그런데 리즈는 장로의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손을 제 눈에 갖다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저는 바보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애예요…… 그리고 알료샤가 저처럼 우스운 애한테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어쩌면 옳아요, 아주 옳아요."

"꼭 보내 주마." 장로가 결정했다.

제5장 그리 되소서, 그리 되소서!

장로가 수방을 비운 시간은 25분쯤이었다. 이미 열두 시 반이 지났는데, 모두가 모인 까닭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의 잊어버린 듯했고, 장로가 다시 수방에 들어섰을 때는 손님들 사이에 더없이 활기찬 대화가 한창이었다. 대화에 끼어든 사람은 무엇보다 이반 표도로비치와 두 수도사제였다. 미우소프도 보아하니 무척 열을 올리며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이번에도 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는 눈에 띄게 뒷전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은 그에게 대꾸조차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정은 차곡차곡 쌓여 가던 그의 짜증을 더 키울 뿐이었다. 실은 그가 전부터 이반 표도로비치와 학식을 두고 얼마간 겨루어 왔는데, 저를 대하는 상대의 어딘지 무심한 태도를 그는 태연하게 견뎌 내지 못했던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앞서간다는 모든 것의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 이 새 세대는 우리를 영락없이 무시한단 말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의자에 앉아 입을 다물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정말로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비웃는 엷은 미소를 띠고 옆자리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를 지켜보며 그의 짜증을 보란 듯이 즐기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것저것 그에게 앙갚음하려고 별러 왔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옆 사람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 번 약을 올렸다.

"아까 '다정하게 입 맞추었도다' 다음에 왜 가지 않고, 이렇게 점잖지 못한 무리 속에 남아 있기로 하셨는지 압니까? 굴욕과 모욕을 느끼셔서, 설욕 삼아 머리 좋은 걸 보여 주려고 남으신 거지요. 이제 당신은 저 사람들에게 머리 좋은 걸 내보이기 전에는 안 가실 겁니다."

"또 그러십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누구보다 나중에 떠나실 겁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다시 한 번 콕 찔렀다. 장로가 돌아온 것은 거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논쟁은 잠깐 잦아들었지만, 장로는 원래 자리에 앉더니 계속하라고 다정하게 권하듯 모두를 둘러보았다. 장로의 얼굴에 떠오르는 거의 모든 표정을 익혀 둔 알료샤는, 장로가 몹시 지쳐서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요즘 들어 장로는 기운이 다해 정신을 잃는 일이 있었다. 지금도 정신을 잃기 직전과 거의 같은 창백함이 얼굴에 번져 가고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장로는 분명 모임을 해산할 생각이 없었고, 게다가 무언가 저 나름의 목적이 있는 듯했다. 그게 대체 무엇일까? 알료샤는 뚫어지게 장로를 지켜보았다.

"이분의 무척 흥미로운 논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담당 수도사제 이오시프 신부가 장로에게 이반 표도로비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새로운 것을 많이 끌어내시는데, 그 생각이 양끝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교회·사회 재판과 그 권한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두고, 이 문제로 책을 한 권 쓴 어느 성직자에게 잡지 논문으로 답하셨지요……"

"아쉽게도 당신 논문은 읽지 못했소. 그러나 이야기는 들었소." 장로가 이반 표도로비치를 뚫어지게, 날카롭게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이분은 무척 흥미로운 입장에 서 계십니다." 도서관 담당 신부가 말을 이었다. "교회·사회 재판 문제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아예 거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흥미롭구려. 그런데 어떤 뜻에서 그렇소?" 장로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물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러나 알료샤가 전날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며 정중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절제 있게, 눈에 띄게 상대를 배려하며, 보아하니 조금도 속셈 없이 대답했다.

"저는 이런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요소들의 뒤섞임, 즉 따로 떼어 본 교회의 본질과 국가의 본질이 뒤섞인 상태는 물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뒤섞임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상태는커녕 어느 정도 합의할 만한 상태로조차 결코 만들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일의 바탕 자체에 거짓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재판 같은 문제에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타협은, 제 생각으로는, 그 완전하고 순수한 본질에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반박한 성직자는 교회가 국가 안에서 정확하고 확정된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에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국가 전체를 제 안에 품어야 하며, 국가 안의 한구석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까닭으로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물의 본질에서 그것을 그리스도교 사회가 앞으로 발전해 가는 모든 과정의 곧고 가장 중요한 목표로 틀림없이 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오!" 말이 없고 학식 깊은 수도사제 파이시 신부가 단호하게, 신경을 곤두세운 채 말했다.

"순전한 울트라몬타니즘, 산 너머 교황 숭배로군요!" 미우소프가 참지 못하고 다리를 바꾸어 꼬며 소리쳤다.

"에, 우리 고장엔 산이라곤 없는데요!" 이오시프 신부가 외치고는 장로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분은 상대방인 성직자의, 잘 들어 보십시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명제들에 답하시는 겁니다. 첫째,

'어떤 사회 단체도 그 구성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좌우할 권력을 제것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삼아서도 안 된다.' 둘째, '형사 및 민사 재판권력은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되며, 하느님이 세우신 제도인 교회의 본성과도,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연합인 교회의 본성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성직자로서 더없이 부끄러운 말장난입니다!" 파이시 신부가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끊었다. "나는 당신이 반박한 그 책을 읽었소."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성직자의 말에 놀랐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예 땅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되오. 거룩한 복음서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이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소. 그런 말을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땅 위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소. 하늘나라는 물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있지만, 땅 위에 세워지고 마련된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거기 들어갈 수 없소. 그러니 이런 뜻으로 세속의 말장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끄러운 일이오. 교회는 참으로 나라이고, 다스리도록 정해져 있으며,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온 땅 위의 나라로 나타나야 하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소……"

그는 마치 스스로를 억누르듯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공손하고 주의 깊게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더없이 침착하게, 그러나 여전히 기꺼이 꾸밈없이 장로를 향해 말을 이었다.

"제 논문의 생각은 모두 이렇습니다. 옛날, 그리스도교 첫 세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땅 위에서 교회로서만 나타났고, 교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나라였던 로마가 그리스도교 나라가 되기를 바랐을 때, 그 나라는 그리스도교 나라가 되면서 교회를 제 안에

받아들였을 뿐, 그 자신은 그 많은 기능에서 예전처럼 여전히 이교도 국가로 남는 일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국가인 로마에는 이교도의 문명과 지혜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의 목적과 토대 자체부터가 그랬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국가에 들어가면서, 틀림없이 제 토대 가운데 아무것도, 제가 서 있던 그 반석에서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었고, 주님께서 친히 확고하게 세우시고 가리켜 주신 제 목적만을 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온 세상을, 그러니 옛 이교도 국가 전체도 교회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즉 앞날의 목적에서 보면) 교회가 '모든 사회 단체'처럼, 혹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사람들의 연합'처럼(제가 반박하는 필자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국가 안에서 정해진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위의 모든 국가가 나중에는 온전히 교회로 바뀌어 교회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하고,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제 목적은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조금도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위대한 국가의 명예도 영광도, 그 다스리는 이들의 영광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되고 아직 이교도적이며 잘못된 길에서, 영원한 목적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길, 바르고 참된 길로 국가를 옮겨 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사회 재판의 원칙』이라는 책의 필자가 이 원칙들을 찾아 내놓으면서 그것을 아직 우리의 죄 많고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필요한 일시적인 타협으로만 보았다면 바르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원칙들을 지은 이가, 자기가 지금 내놓은 원칙들, 방금 이오시프 신부님께서 그 일부를 늘어놓으신 그 원칙들이 흔들림 없고 본연적이고 영원한 원칙이라고 감히 선언하는 순간, 그는 곧바로 교회와 교회의 거룩하고 영원하며 흔들림 없는 사명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논문의 전부, 그 온전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이시 신부가 낱말마다 힘주어 다시 말했다. "우리 19세기에 너무나 뚜렷해진 어떤 이론들에 따르면, 교회는 마치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 가듯 국가로 거듭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학문과 시대정신과 문명에 자리를 내주며 그 안에서 사라져야 하오. 교회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맞서면 그 대가로 국가 안에 이를테면 한구석만 내주고, 그것도 감시 아래 두는 것이오. 우리 시대에는 오늘날의 유럽 나라들 어디서나 그렇소. 그러나 러시아의 이해와 소망으로는, 교회가 낮은 유형에서 높은 유형으로 가듯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마침내 오직 교회가 되는 은총을 입어 그 밖의 아무것도 되지 않는 데에 이르러야 하오. 그리 되소서, 그리 되소서!"

"자, 고백하자면 이제 저도 얼마간 기운이 나는군요." 미우소프가 다시 다리를 바꾸어 꼬며 엷게 웃었다. "제가 이해하는 한,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나 있을, 끝없이 먼 무슨 이상을 실현한다는 거군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전쟁도 외교관도 은행도 따위도 사라진다는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꿈이지요. 무언가 사회주의 비슷하기까지 하군요. 저는 이 모든 게 진지한 이야기인 줄 알았지 뭡니까. 이를테면 이제 교회가 형사 사건을 재판하고 태형과 유형을, 어쩌면 사형까지 선고하게 되는 줄로요."

"설령 지금 오직 교회·사회 재판만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지금도 사람을 유형지로도 사형대로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와 범죄를 보는 눈이 틀림없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갑자기도 당장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빨리……" 이반 표도로비치가 차분하게,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말했다.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미우소프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범죄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제게서 파문할 뿐 그때는 목을 베지 않을 것입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말을 이었다. "여쭙겠습니다. 파문당한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는 지금처럼 사람들에게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도 떠나야 할 테니까요. 그는 제 범죄로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맞서 일어선 것이 될 테니까요. 물론 엄밀한 뜻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선포되지는 않았고, 오늘날 범죄자의 양심은 무척, 무척 자주 저 자신과 흥정을 합니다. '훔치기는 했지만 교회에 맞서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아니다.' 오늘날의 범죄자는 흔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국가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온 땅 위의 교회를 통째로 부정한다면 모를까요. '다들 틀렸다, 다들 빗나갔다, 다들 가짜 교회다. 살인자이자 도둑인 나 하나만이 의로운 그리스도교 교회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엄청난 조건과,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정이 필요하니까요.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교회 자신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도 지금의 거의 이교도적인 눈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를 지키려고 하듯 병든 팔다리를 기계적으로 잘라 내는 데서, 그때는 온전히, 거짓 없이, 사람을 새로 거듭나게 하고 그를 부활시키고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체 뭡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미우소프가 말을 끊었다. "또 무슨 꿈 이야기로군요. 형체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무엇이군요. 그 파문이란 게 어떤 겁니까, 무슨 파문이란 말입니까? 이반 표도로비치, 당신은 그저 우리를 놀리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요." 장로가 갑자기 말을 꺼내자 모두가 한꺼번에 그를 돌아보았다.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다면 범죄자에게는 악행을 막을 아무런 제동도, 나중에 그 악행에 내릴 벌조차 없을 것이오. 즉 참된 벌, 방금 이분이 말한 기계적인 벌, 대부분의 경우 마음을 덧나게 할 뿐인 그런 벌이 아니라 참된 벌, 유일하게 실제로 듣는 벌, 유일하게 두렵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벌, 제 양심의 깨달음 속에 깃든 벌 말이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미우소프가 더없이 생생한 호기심을 품고 물었다.

"이렇소." 장로가 말을 시작했다. "강제 노동형으로 보내는 그 모든 유형도, 예전에는 매질까지 곁들였지만, 누구도 바로잡지 못하오. 무엇보다 거의 어떤 범죄자도 두렵게 하지 못하오. 범죄의 수는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오. 당신도 이 점에는 동의해야 할 것이오.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사회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오. 해로운 팔다리를 기계적으로 잘라 내어 멀리, 눈에 안 보이는 데로 유배 보내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곧바로 다른 범죄자가, 어쩌면 둘이 나타나니까. 우리 시대에도 사회를 지켜 주고 범죄자 자신마저 바로잡아 딴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오직 제 양심의 깨달음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법뿐이오. 그리스도의 사회, 즉 교회의 아들로서 제 죄를 깨달을 때에야 그는 사회 자체 앞에서, 즉 교회 앞에서 제 죄를 깨닫게 되오. 그러니 오늘날의 범죄자는 오직 교회 앞에서만 제 죄를 깨달을 수 있지, 국가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오. 재판이 교회가 된 사회에 속해 있다면, 그때 사회는 누구를 파문에서 돌려받아 다시 제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것이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실제로 행하는 재판이 없고 그저 도덕적으로 꾸짖을 수 있을 뿐이니, 범죄자에게 실제 벌을 내리는 일에서 스스로 물러나 있소. 교회는 그를

파문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다운 가르침으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을 뿐이오. 그뿐 아니라 범죄자와 그리스도교 교회의 사귐을 모두 지키려고까지 애쓰오. 교회 예배에, 거룩한 성체에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를 죄인이라기보다 사로잡힌 사람처럼 대하오. 그런데 오, 주님! 그리스도교 사회, 즉 교회마저 국가의 법이 그를 물리치고 잘라 내듯 그를 물리친다면 범죄자는 어떻게 되겠소? 국가의 법이 벌할 때마다 교회마저 곧바로 그 뒤를 따라 파문으로 그를 벌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있을 수 없을 것이오. 적어도 러시아의 범죄자에게는 그렇소. 러시아의 범죄자는 아직 믿으니까. 하기야 누가 알겠소. 어쩌면 그때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오. 절망한 범죄자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믿음이 사라질지도 모르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소? 그러나 교회는 다정하고 사랑 많은 어머니처럼 실제 벌을 내리는 일에서 스스로 물러나 있소. 교회가 벌하지 않아도 죄지은 사람은 국가의 재판으로 너무나 아프게 벌을 받았으니, 누구 하나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기 때문이오. 무엇보다 교회가 물러나 있는 까닭은, 교회의 재판이 진리를 오롯이 품은 유일한 재판이라서, 그 때문에 다른 어떤 재판과도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시적인 타협으로조차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오. 여기서는 흥정을 할 수 없소. 외국의 범죄자는 좀처럼 뉘우치지 않는다고들 하오. 가장 새로운 학설들마저 그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부당하게 억누르는 힘에 맞선 반란일 뿐이라는 생각을 굳혀 주기 때문이라고 하오. 사회는 그를 이긴 힘으로 그를 아주 기계적으로 제게서 잘라 내고, 이 파문에 증오를 곁들이오(적어도 유럽에서는 저희 스스로 저희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오). 증오와 함께, 제 형제인 그의 앞날의 운명에 대한 더없는 무관심과 망각을 곁들이오. 그리하여 모든 일이 교회의 조금의 연민도 없이 벌어지오. 많은 경우 거기에는 이미 교회가 아예 없고, 성직자들과

화려한 성당 건물만 남아 있으며, 교회들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라는 낮은 형태에서 국가라는 높은 형태로 넘어가 그 안에서 아주 사라지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오. 적어도 루터교 나라들에서는 그런 듯하오.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미 천 년 전부터 교회 대신 국가가 선포되었소. 그러니 범죄자 자신은 이미 제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파문당한 채 절망 속에 머무르오.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흔히 어찌나 큰 증오를 품고 오는지, 이제는 사회가 오히려 그에게서 파문당하는 꼴이 되오.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당신들 스스로 헤아려 보시오. 많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이오. 우리에게는 정해진 법정들 말고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오. 교회는 범죄자를 사랑스럽고 여전히 소중한 제 아들로 여겨 결코 그와 사귐을 끊지 않소. 그뿐 아니라 생각으로만일지언정 교회의 재판도 있고, 지켜지고 있소. 지금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앞날을 위해, 꿈속에서일지언정 살아 있고, 범죄자 자신도 그 영혼의 본능으로 틀림없이 인정하는 재판이오. 방금 여기서 나온 말도 옳소. 정말로 교회의 재판이 온 힘을 다해 시작된다면, 즉 사회 전체가 오직 교회로 바뀐다면, 교회의 재판이 지금은 결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범죄자를 바로잡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범죄 자체가 믿기 어려울 만큼 줄어들지도 모르오. 그리고 교회는 틀림없이 앞날의 범죄자와 앞날의 범죄를 많은 경우 지금과는 아주 다르게 이해할 것이고, 파문당한 자를 돌려받고, 꾀하는 자를 미리 막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알 것이오. 사실," 장로가 엷게 웃었다. "지금 그리스도교 사회는 아직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일곱 의인에 기대어 서 있을 뿐이오. 그러나 그 의인들이 줄어들지 않으니 사회는 그래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소. 거의 아직 이교도적인 연합인 사회에서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다스리는 교회로 온전히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리 되소서, 그리 되소서. 세상 끝날에라도 그리 되소서. 오직 그것만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때와 기한 때문에 마음을 어지럽힐 것은 없소. 때와 기한의 비밀은 하느님의 지혜 안에, 그분의 예견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사람의 셈으로는 아직 무척 멀리 있을 수도 있는 일이 하느님의 예정으로는 어쩌면 이미 나타나기 바로 전날에, 문 앞에 와 있을지도 모르오. 이 마지막 일이 그리 되소서, 그리 되소서."

"그리 되소서! 그리 되소서!" 파이시 신부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맞장구쳤다.

"이상하군요, 더없이 이상합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열을 올렸다기보다 무언가 감추어 둔 분개를 품은 듯했다.

"무엇이 그리 이상해 보이십니까?" 이오시프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이게 정말 무슨 일입니까?" 미우소프가 갑자기 터져 나오듯 외쳤다. "땅 위에서 국가는 없어지고 교회가 국가의 자리로 올라선다니요! 이건 울트라몬타니즘 정도가 아니라 대(大) 울트라몬타니즘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도 이런 건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정반대로 알아들으셨군요!" 파이시 신부가 엄하게 말했다. "교회가 국가로 바뀌는 게 아니오, 그걸 아셔야 하오. 그건 로마요, 로마의 꿈이오. 그건 악마의 세 번째 유혹이오! 오히려 국가가 교회로 바뀌고, 교회에까지 올라서서 온 땅 위의 교회가 되는 것이오. 그것은 울트라몬타니즘과도, 로마와도, 당신의 해석과도 완전히 정반대이고, 오직 땅 위에서 정교회가 지닌 위대한 사명일 뿐이오. 동방에서 이 별이 빛나리라."

미우소프는 무게를 잡고 입을 다물었다. 그의 온몸에 남다른 자부심이 드러났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너그러이 봐주는 듯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떠올랐다. 알료샤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채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 대화 전체가 그의 마음을 밑바닥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우연히 라키틴을 쳐다보았다. 라키틴은 문 곁 원래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눈을 내리깔고 있기는 했지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 뺨에 생기 있게 도는 홍조를 보고 알료샤는 라키틴도 아마 저 못지않게 흥분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알료샤는 그가 무엇 때문에 흥분해 있는지 알고 있었다.

"여러분, 작은 일화 하나를 들려 드리지요." 미우소프가 갑자기 무게를 잡고 무언가 유난히 위엄 있는 모습으로 말했다. "몇 해 전 파리에서, 12월 정변이 있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번은 안면이 있어서 그 무렵 나라를 다스리던 아주, 아주 중요한 인물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더없이 흥미로운 신사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그냥 밀정이 아니라 정치 밀정 부대 전체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었지요. 저 나름으로는 꽤 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다른 호기심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안면이 있어서 그 집에 온 게 아니라 무슨 보고를 하러 온 하급 관리로서 받아들여진 것이었는데, 저 쪽에서는 제가 그의 상관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고는 저에게 얼마간 솔직하게 대해 주더군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솔직하다기보다 정중했지요. 프랑스 사람들이 정중할 줄 아는 바로 그만큼이요. 제가 외국인으로 보였으니 더욱 그랬지요. 그래도 저는 그의 속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무렵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야기의 요점은 빼고, 그 꼬마 신사가 갑자기 내뱉은 더없이 흥미로운 말 한마디만 옮기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사회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 무신론자, 혁명가들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고, 그들의 수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많지는 않아도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그리스도교도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인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족속이지요!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는 무신론자 사회주의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은 그때도 저를 놀라게 했지만,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서 어쩐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에게 갖다 대시고, 우리에게서 사회주의자를 보신다는 겁니까?" 파이시 신부가 에두르지 않고 곧바로 물었다. 그러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대답할 말을 찾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그토록 늦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들어왔다. 정말로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기를 그만둔 듯했고, 그가 갑자기 나타나자 첫 순간에는 얼마간 놀라기까지 했다.

제6장 저런 인간이 왜 사는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스물여덟 살 젊은이로,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호감이 갔지만,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는 근육이 단단했고 상당한 완력을 지녔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얼굴에는 무언가 병든 듯한 데가 드러나 있었다. 얼굴은 여위었고, 두 뺨은 움푹 꺼졌으며, 뺨의 빛깔은 어딘지 건강하지 못한 누런빛을 띠고 있었다. 꽤 크고 툭 불거진 검은 눈은 보기에는 굳은 고집을 품고 바라보는 듯했지만 어쩐지 초점이 없었다. 흥분해서 짜증스럽게 말할 때조차 그의 눈길은 속마음을 따르지 않는 듯했고, 무언가 다른 것을, 때로는 지금 이 순간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드러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이따금 이렇게 평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음울한 것을 보던 어떤 이들은, 그가 갑자기 터뜨리는 웃음에 놀라곤 했다. 그 웃음은 그가 그렇게 음울하게 바라보던 바로 그때 그의 안에 즐겁고 장난스러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다. 하기야 지금 그의 얼굴에 얼마간 병색이 도는 것은 이해할 만했다. 그가 바로 요즘 들어 우리 고장에서 빠져 있던 몹시 어지럽고 "흥청망청한" 생활을 모두가 알고 있거나 들어 알고 있었고, 다툼이 붙은 돈 문제로 아버지와 싸우다가 그가 이른 엄청난 흥분 상태도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읍내에는 이미 그것을 두고 일화가 몇 가지 떠돌고 있었다. 사실 그는 본디 성미가 급했고, 우리 고장의 치안 판사 세묜 이바노비치 카찰니코프가 어느 모임에서 그를 두고 그럴싸하게

표현했듯 "머리가 툭툭 끊기고 엇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무랄 데 없이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들어왔다. 단추를 채운 프록코트에 검은 장갑을 끼고, 손에는 실크해트를 들고 있었다. 얼마 전 퇴역한 군인답게 콧수염을 기르고 턱수염은 아직 밀고 있었다. 짙은 갈색 머리는 짧게 깎아 어쩐지 관자놀이 쪽 머리를 앞으로 빗어 넘겼다. 그는 열병식에서처럼 성큼성큼 단호하게 걸었다. 그는 문턱에서 잠깐 멈춰서서 모두를 한눈에 둘러보더니, 장로가 이 방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곧장 그에게로 갔다. 그는 장로에게 깊이 절하고 축복을 청했다. 장로가 몸을 반쯤 일으켜 그를 축복하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공손하게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남다르게 흥분한 채, 거의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한 것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낸 하인 스메르댜코프가, 제가 시각을 집요하게 물었더니 두 번이나 더없이 단호한 말투로 한 시로 정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알고 보니……"

"걱정하지 마시오." 장로가 말을 끊었다. "괜찮소, 조금 늦었을 뿐이니 탈 날 것 없소……"

"더없이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너그러우심에서 그보다 못한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절하더니, 갑자기 제 "아버지" 쪽으로 돌아서서 그에게도 똑같이 공손하고 깊게 절했다. 그가 이 절을 미리 생각해 두었고, 그것으로 제 공손함과 선한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의무로 여겨 진심으로 궁리해 냈다는 것이 보였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허를 찔리기는 했지만 곧바로 저 나름대로 응수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절에 답해 그는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꼭 그만큼 깊이 절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근엄하고 위엄 있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영락없이 심술궂은 모습을 주었다. 그다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말없이 두루 고개 숙여 인사하고, 크고 단호한 걸음으로 창가로 가서 파이시 신부 곁에 하나 남은 의자에 앉더니, 의자에서 온몸을 앞으로 내밀고 제가 끊어 놓은 대화가 이어지기를 곧바로 기다렸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나타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분쯤이었고, 대화는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이시 신부의 집요하고 거의 짜증 섞인 물음에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이 주제는 그만두게 해 주십시오." 그는 사교계 사람다운 얼마간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게다가 까다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보십시오, 이반 표도로비치가 우리를 보고 엷게 웃고 있군요. 틀림없이 이 일에도 무언가 흥미로운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뿐입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곧바로 대답했다. "대체로 유럽의 자유주의, 그리고 우리 러시아의 자유주의적인 딜레탕티즘마저 오래전부터 자주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결과를 그리스도교의 결과와 뒤섞는다는 의견이지요. 이 엉뚱한 결론은 물론 특징적인 것입니다. 하기야 알고 보니 사회주의와 그리스도교를 뒤섞는 것은 자유주의자와 딜레탕트만이 아니고, 많은 경우 그들과 함께 헌병들도 그렇더군요. 물론 외국 헌병 말입니다. 당신의 파리 일화는 꽤 특징적입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대체로 이 주제는 다시 한 번 그만두게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되풀이했다. "그 대신 여러분, 이반 표도로비치 본인에 관한 다른 일화를 들려 드리지요. 더없이 흥미롭고 더없이 특징적인 일화입니다. 바로 닷새쯤 전에, 이곳의 주로 부인들이 모이는 어느 모임에서 이분은 논쟁 끝에 엄숙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온 땅 위에 사람들로 하여금 제 동족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단연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자연 법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땅 위에 사랑이 있고 있었다면 그것은 자연 법칙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이 제 불멸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때 괄호를 치듯 이렇게 덧붙였지요. 바로 거기에 자연 법칙의 전부가 있다, 그러니 인류에게서 제 불멸에 대한 믿음을 없애 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뿐 아니라 세상의 삶을 이어 갈 모든 살아 있는 힘이 곧바로 말라 버릴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때는 부도덕한 것이 이미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며,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허용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분은 이렇게 단언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우리처럼 신도 제 불멸도 믿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는 자연의 도덕 법칙이 이전의 종교적인 법칙과 완전히 정반대로 곧바로 바뀌어야 하며, 악행에 이르기까지의 이기주의가 사람에게 허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처지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거의 가장 고결한 출구로 인정되기까지 해야 한다고요. 이런 역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랑스러운 괴짜이자 역설가인 이반 표도로비치께서 선포하시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선포하실 그 밖의 모든 것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뜻밖에 소리쳤다. "잘못 듣지 않게 확인하겠습니다. '악행은 허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무신론자의 처지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영리한 출구로 인정되기까지 해야 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꼭 그렇소." 파이시 신부가 말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대화에 갑자기 뛰어들었던 것만큼이나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서 말라 버리면 그런 결과가 온다고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시오?" 장로가 갑자기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물었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불멸이 없으면 덕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복된 사람이오. 아니면 몹시 불행한 사람이거나!"

"왜 불행하다는 겁니까?" 이반 표도로비치가 미소 지었다.

"아마 당신 자신은 당신 영혼의 불멸도, 당신이 교회와 교회 문제를 두고 쓴 것조차 믿지 않을 테니까."

"어쩌면 장로님 말씀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아주 농담만 한 건 아닙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이상하게 털어놓았다. 하기야 금세 얼굴을 붉혔다.

"아주 농담만 한 것은 아니오. 그것은 참말이오. 이 생각은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았고,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소. 그러나 괴로워하는 사람도 때로는 제 절망을 가지고 장난치기를 좋아하오. 마치 그것도 절망 때문인 것처럼. 당신도 지금으로서는 절망 때문에 잡지 논문으로, 사교계의 논쟁으로 장난을 치고 있소. 제 변증법을 스스로 믿지 않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속으로 그것을 비웃으면서…… 당신 안에서 이 물음은 풀리지 않았소. 그것이 당신의 큰 슬픔이오. 이 물음은 풀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그런데 그 물음이 제 안에서 풀릴 수 있을까요? 긍정하는 쪽으로 풀릴 수 있을까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여전히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장로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계속 물었다.

"긍정하는 쪽으로 풀릴 수 없다면 부정하는 쪽으로도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오. 당신 스스로 당신 마음의 이런 성질을 알고 있소. 그 마음의 괴로움은 모두 거기 있소. 그러나 그런 괴로움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드높은 마음을 당신에게 주신 창조주께 감사하시오. '위엣 것을 생각하고 위엣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시민 됨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마음의 해답이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당신에게 찾아오도록 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장로는 손을 들어 앉은 자리에서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성호를 그어 주려 했다. 그러자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장로에게 다가가 축복을 받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말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굳건하고 진지했다. 이반 표도로비치에게서 뜻밖이었던 이 행동은, 그리고 그에 앞서 장로와 나눈 대화 전체는 그 수수께끼 같은 데에서, 그리고 무언가 엄숙하기까지 한 데에서 어쩐지 모두를 놀라게 해서, 모두가 잠깐 입을 다물었고 알료샤의 얼굴에는 거의 두려움이 떠올랐다. 그러나 미우소프가 갑자기 어깨를 으쓱했고, 바로 그 순간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령하시고 더없이 거룩하신 장로님!" 그가 이반 표도로비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애는 제 아들입니다. 제 살 중의 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살이지요! 이 애는 말하자면 더없이 공손한 카를 모어이고, 방금 들어온 이 아들, 제가 장로님께 해결을 청하러 온 상대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더없이 불손한 프란츠 모어입니다. 둘 다 실러의 『군도』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저 자신은 통치하시는 모어 백작(Regierender Graf von Moor)이로군요! 판가름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장로님의 기도뿐 아니라 예언도 필요합니다."

"성 바보 흉내를 내지 말고 말하시오. 그리고 집안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지 마시오." 장로가 힘없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지쳐 갔고, 눈에 띄게 기운을 잃어 갔다.

"여기 오면서부터 예감했던 볼썽사나운 희극이군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분개하며 그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용서하십시오, 신부님." 그는 장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장로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속으셨습니다. 저희가 장로님 댁에 모이도록 허락해 주시다니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추문뿐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그분의 계산이지요. 그분에게는 늘 제 나름의 계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다들 저를 비난합니다, 다들요!" 이번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도 비난하시고요. 비난하셨지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비난하셨잖습니까!" 그는 갑자기 미우소프를 돌아보았다. 미우소프는 그의 말을 끊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아이들 돈을 장화 속에 숨기고 꿀꺽했다고 비난들 하지요. 그렇지만 실례지만, 법정이라는 게 없습니까? 거기 가면 당신의 바로 그 영수증과 편지와 계약서로, 당신한테 얼마가 있었고, 얼마를 써 없앴고, 얼마가 남았는지 셈해 줄 겁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왜 판단을 내리기를 피하시는 겁니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분한테 남도 아닌데요. 모두가 제 탓으로 돌리는데, 결국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오히려 저한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몇 푼이 아니라 몇천 루블입죠. 저한테는 그 증서가 다 있습니다요! 이 사람이 흥청망청 놀아나는 통에 온 읍내가 들썩들썩하고 우르릉거립니다! 그리고 전에 복무하던 곳에서는 정숙한 처녀들을 꾀어낸 값으로 1천 루블씩, 2천 루블씩 치렀지요. 이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저희도 다 압니다요. 더없이 은밀한 세부까지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요…… 거룩하신 신부님,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더없이 고결한 처녀, 좋은 집안에 재산도 있는 처녀, 예전 상관이던 용감한 대령, 목에 칼 장식이 달린 안나 훈장을 건 공훈 높은 대령의 딸을 저한테 반하게 만들어 놓고, 청혼으로 그 처녀의 체면을 망쳐 놓았답니다. 지금 그 처녀는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고아가 된 그 처녀가 이 사람의 약혼녀인데, 이 사람은 그 처녀가 보는 앞에서 이곳의 어느 요부한테 드나든답니다. 그 요부가 말하자면 어느 점잖은 분과 사실혼으로 살기는 했어도, 성품이 남에게 매이지 않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요새이고, 정식 아내나 다름없습니다. 정숙하니까요. 그렇습니다요! 거룩하신 신부님들, 그 여자는 정숙합니다! 그런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이 요새를 금 열쇠로 열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큰소리를 치며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 요부한테 몇천 루블을 날렸습지요. 그 때문에 쉴 새 없이 돈을 빌리는데, 그것도 누구한테서 빌리는지 아십니까? 말할까, 말까, 미탸?"

"입 닥치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고함쳤다. "제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있는 데서 감히 더없이 고결한 처녀를 더럽히지 마세요…… 당신이 감히 그 처녀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처녀에게는 치욕입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숨이 막혔다.

"미탸! 미탸!"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신경이 약한 사람처럼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소리쳤다. "그럼 아비의 축복은 다 무엇에 쓰는 거냐? 내가 저주라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인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미친 듯이 으르렁거렸다.

"아비한테, 아비한테 이러는군요! 그러니 남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가난하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퇴역 대위인데, 불행을 당해서 군에서 쫓겨났지만 공개적으로도 아니고 재판으로도 아니라서 제 명예를 고스란히 지켰고, 식구가 많아 허덕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세 주일 전에 우리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술집에서 그 사람의 턱수염을 움켜잡고, 바로 그 턱수염을 잡아 거리로 끌어내더니 사람들이 다 보는 거리에서 두들겨 팼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제 자잘한 일 하나를 남몰래 대신 맡아 보고 있다는 까닭만으로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겉은 참말이지만 속은 거짓말입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아버지! 저는 제 행동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그 대위에게 짐승처럼 굴었고, 지금은 그 짐승 같은 분노를 뉘우치며 저 자신이 역겹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대위, 당신의 대리인은 당신이 요부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부인을 찾아가서, 당신 이름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 어음을 넘겨받아 저를 고소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재산 셈 문제로 당신을 너무 졸라 대면 그 어음으로 저를 감옥에 처넣으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은 제가 그 부인에게 약하다고 저를 나무라시는군요. 그 부인더러 저를 꾀어내라고 가르친 사람은 바로 당신이면서! 그 부인은 대놓고 다 이야기한답니다. 저한테 직접, 당신을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감옥에 처넣으려는 건 오직 그 여자를 두고 저를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 여자에게 사랑을 들이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여자가 웃으며, 들으셨습니까, 당신을 비웃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거룩한 분들이시여, 여기 이 사람, 방탕한 아들을 나무라는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증인이 되신 여러분, 제 분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교활한 늙은이가 추문을 벌이려고 여러분을 모두 여기 불러 모았다는 걸 예감했습니다. 저는 그가 손을 내밀면 용서하려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금 저뿐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마음에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더없이 고결한 처녀까지 모욕했으니, 그가 제 아버지라 해도 그의 수작을 모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이 번득였고, 그는 힘겹게 숨을 쉬었다. 그러나 수방 안의 모든 사람도 흥분해 있었다. 장로를 빼고 모두가 불안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도사제 신부들은 엄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장로의 뜻을 기다렸다. 장로는 이미 아주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흥분해서가 아니라 병으로 기운이 다했기 때문이었다. 애원하는 듯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미쳐 날뛰는 이들을 멈추게 하려는 듯 이따금 손을 들었다. 물론 그의 손짓 하나면 이 장면을 끝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무언가를 더 기다리는 듯, 무언가를 더 이해하려는 듯, 아직 무언가가 분명해지지 않은 듯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완전히 굴욕과 치욕을 느꼈다.

"벌어진 추문에는 우리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그가 열을 올려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고는 있었어도, 여기 오면서 이런 일은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당장 끝내야 합니다! 신부님, 믿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드러난 사정들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고, 믿고 싶지도 않았으며, 지금에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행실 나쁜 여자를 두고 아들을 질투하고, 바로 그 계집과 짜고 아들을 감옥에 처넣으려 하다니…… 그런데 이런 무리에 섞여 저는 억지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모든 분께 밝힙니다, 저도 다른 분들 못지않게 속았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갑자기 무언가 제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당신이 내 아들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당장 결투를 신청하겠소…… 권총으로, 세 걸음 거리에서…… 손수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손수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는 두 발을 구르며 말을 맺었다.

평생 연극을 하며 살아온 늙은 거짓말쟁이에게는, 연기에 어찌나 깊이 빠져드는지 정말로 흥분해서 몸을 떨고 우는 순간이 있다. 바로 그 순간에도(아니면 겨우 1초 뒤에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으면서도 말이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이 파렴치한 늙은이야. 그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도 배우잖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무섭게 얼굴을 찌푸리고 말할 수 없는 경멸을 담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쩐지 조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영혼의 천사인 약혼녀를 데리고 고향에 와서 그분의 노년을 돌보아 드리리라고. 그런데 보이는 건 방탕한 호색한과 더없이 비열한 광대뿐이군요!"

"결투요!" 늙은이가 숨이 막혀 낱말마다 침을 튀기며 다시 울부짖었다. "그리고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 당신은 알아 두시오. 어쩌면 당신네 온 집안에도, 당신이 방금 감히 계집이라고 부른 그 여자보다 더 고귀하고 더 정직한, 들으셨소, 더 정직한 여자는 없고 있었던 적도 없을 거요! 그리고 당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당신은 바로 그 '계집'과 당신 약혼녀를 바꾸었소. 그러니 당신 스스로 당신 약혼녀가 그 여자의 발바닥만도 못하다고 판정한 셈이오. 그 계집이 그런 여자란 말이오!"

"부끄러운 일이오!" 이오시프 신부의 입에서 갑자기 그 말이 튀어나왔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내내 말이 없던 칼가노프가 흥분으로 떨리는 소년 같은 목소리로 온 얼굴을 붉히며 갑자기 소리쳤다.

"저런 인간이 왜 사는가!" 분노로 거의 넋이 나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어깨를 어쩐지 유난히 치켜올려 그 때문에 거의 등이 굽은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니, 말해 보십시오. 저런 인간이 제 몸으로 땅을 더럽히도록 아직도 내버려 두어도 됩니까?" 그는 손으로 노인을 가리키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들었소, 들었소, 수도사 양반들, 아비 죽일 놈의 말을?"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이오시프 신부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당신의 '부끄러운 일'에 대한 대답이오! 무엇이 부끄럽다는 거요? 그 '계집', 그 '행실 나쁜 여자'가 어쩌면 당신들보다 더 거룩할지도 모르오, 구원의 길을 닦으시는 수도사제 양반들! 그 여자는 젊어서 환경에 짓밟혀 넘어졌는지도 모르지만, '많이 사랑하였소'. 그리고 많이 사랑한 여자를 그리스도께서도 용서하셨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랑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오……" 온화한 이오시프 신부의 입에서 참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아니오, 그런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이오, 수도사 양반들, 바로 그 사랑 때문이란 말이오! 당신들은 여기서 양배추나 먹으며 구원받는다면서 제가 의인인 줄 알지요! 모래무지를 드시지요, 하루에 모래무지 한 마리씩. 그리고 모래무지로 하느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수방 안 사방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추태로까지 치달은 이 장면은 더없이 뜻밖에 끝났다. 갑자기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로와 모든 사람 걱정에 거의 넋을 잃은 알료샤가 그래도 장로의 팔을 붙들어 부축했다. 장로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쪽으로 걸음을 옮겨 그의 바로 앞까지 가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알료샤는 장로가 기운이 다해 쓰러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무릎을 꿇은 장로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발 앞에 온전하고 또렷하게, 의식하고서 엎드려 절했고, 이마를 땅에 대기까지 했다. 알료샤는 어찌나 놀랐던지 장로가 일어날 때 부축할 새도 없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가물가물 빛났다.

"용서하시오! 모두 용서하시오!" 그는 사방의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얼마 동안 벼락을 맞은 듯 서 있었다. 저한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마침내 그는 갑자기 "오, 하느님!" 하고 외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 뒤를 따라 모든 손님이 얼마나 당황했던지 주인에게 작별 인사도, 고개 숙여 인사도 하지 않고 우르르 몰려 나갔다. 수도사제들만 다시 다가가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저 양반은 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요? 무슨 상징 같은 거요?" 무슨 까닭에선지 갑자기 얌전해진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하기야 누구에게도 감히 대놓고 말을 걸지는 못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은수처 담장을 나서고 있었다.

"나는 정신 병원과 미치광이들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미우소프가 곧바로 악에 받쳐 대답했다. "그 대신 당신과 어울리는 일에서는 벗어나겠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믿으십시오, 영원히요. 아까 그 수도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그 수도사", 즉 아까 그들을 수도원장의 식사에 초대한 그 수도사는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장로의 수방 현관 층계를 내려오자마자 그는 곧바로 그들을 맞았다. 마치 내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신부님, 부디 수도원장 신부님께 제 깊은 존경을 전해 주시고, 저 미우소프 개인을 위해 그분께 사과해 주십시오. 뜻하지 않게 생긴 예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데도, 그분의 식탁에 함께하는 영광을 도무지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짜증스럽게 수도사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바로 저로군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곧바로 받아쳤다. "들으셨지요, 신부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저와 함께 있기 싫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가실 텐데요. 그럼 가십시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수도원장 신부님께 납시지요. 그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빠지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 저라는 걸 알아 두십시오. 집으로, 집으로 가서 집에서 먹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럴 기운이 없군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내 더없이 다정한 친척이여."

"나는 당신 친척이 아니오. 그런 적도 없소. 이 비열한 인간 같으니!"

"당신을 약 올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친척이기를 피하시니까요. 어떻게 빠져나가시든 당신은 그래도 친척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증명해 보이지요. 이반 표도로비치, 너한테는 때가 되면 말을 보내 주마. 원하면 너도 남아 있어라. 그리고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은 이제 체면을 보아서라도 수도원장 신부님께 가셔야 합니다. 우리 둘이 저기서 벌인 난장판을 사과드려야지요……"

"정말로 떠나시는 겁니까? 거짓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만 휩쓸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휩쓸렸습니다! 게다가 충격도 받았고요!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은 마음을 지녔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 피델카 같은 마음을 지녔지요. 제 마음은 강아지 피델카 같은 마음입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이런 소동을 벌여 놓고 어떻게 식사까지

가서 수도원 소스를 먹어 치우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악마나 알겠지, 이자가 속이는 거라면 어쩌지!" 미우소프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 멀어져 가는 어릿광대를 어리둥절한 눈길로 쫓았다. 어릿광대는 뒤를 돌아보고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저를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리자 손으로 입맞춤을 날려 보냈다.

"당신은 수도원장 신부님께 가십니까?" 미우소프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게다가 저는 어제부터 수도원장 신부님께 특별히 초대를 받았는데요."

"불행히도 저는 정말로 이 빌어먹을 식사에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군요." 미우소프는 젊은 수도사가 듣고 있다는 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쓰라린 짜증을 품고 말을 이었다. "적어도 거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저지른 일을 사과하고, 그게 우리가 한 짓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한 짓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야겠지요. 게다가 아버지도 안 계실 테고요." 이반 표도로비치가 말했다.

"당신 아버님까지 계셨다면야! 빌어먹을 식사 같으니!"

그래도 모두 걸어갔다. 젊은 수도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숲을 지나는 길에 그는 수도원장 신부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며 벌써 반 시간도 넘게 늦었다고 딱 한 번 말했을 뿐이다. 아무도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미우소프는 증오를 담아 이반 표도로비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하러 가는군! 낯가죽은 놋쇠요, 양심은 카라마조프 것이로군." 그는 생각했다.

제7장 출세주의자 신학생

알료샤는 장로를 침실로 모셔다 침대에 앉혔다. 꼭 있어야 할 가구만 놓인 아주 작은 방이었다. 침대는 좁다란 쇠 침대였고, 그 위에는 요 대신 펠트 한 장만 깔려 있었다. 한구석 성상들 곁에 성경대가 서 있었고, 그 위에 십자가와 복음서가 놓여 있었다. 장로는 기운이 다한 듯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이 번득였고 숨을 힘겹게 쉬었다. 자리에 앉자 장로는 무언가를 곰곰이 헤아리는 듯 알료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거라, 얘야, 가거라. 나는 포르피리만 있으면 된다. 너는 서둘러라. 너는 거기 있어야 한다. 수도원장 신부께 가서 식사 시중을 들어라."

"여기 남아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알료샤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거기서 더 쓸모가 있다. 거기는 평화가 없다. 시중을 들다 보면 쓸모가 있을 게다. 귀신들이 일어나거든 기도문을 외워라. 그리고 알아두어라, 아들아(장로는 그를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 앞으로도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젊은이. 하느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시면 곧바로 수도원을 떠나거라. 아주 떠나거라."

알료샤는 몸을 떨었다.

"왜 그러느냐? 아직은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세상 속의 큰 순종을 하라고 너를 축복한다. 너는 아직 많이 떠돌아다녀야 한다. 장가도 들어야 할 게다, 들어야 하고말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견뎌야 할 게다. 할 일도 많을 게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를 보낸다.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을 지켜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지켜 주실 게다. 너는 큰 슬픔을 보겠지만, 그 슬픔 속에서 행복할 게다. 너에게 주는 유언은 이것이다. 슬픔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일하여라, 쉬지 말고 일하여라. 이제부터 내 말을 기억해 두어라. 내가 아직 너와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겠지만, 내 날뿐 아니라 내 시간도 이미 헤아려져 있으니."

알료샤의 얼굴에 다시 격한 감정이 드러났다. 입꼬리가 떨렸다.

"또 왜 그러느냐?" 장로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눈물로 제 죽은 이들을 떠나보내라지. 우리는 여기서 떠나가는 신부를 두고 기뻐한다. 기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기도해야겠다. 가서 서둘러라. 형들 곁에 있어라. 한 사람 곁만이 아니라 두 사람 곁에 다 있어라."

장로는 축복하려고 손을 들었다. 알료샤는 몹시 남아 있고 싶었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또 묻고 싶었고, 질문이 혀끝에서 튀어나올 뻔하기까지 했다. "드미트리 형에게 땅에 엎드려 하신 그 절은 무엇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감히 묻지 못했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장로가 묻지 않아도 손수 설명해 주었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로에게 그럴 뜻이 없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절은 알료샤를 무섭도록 놀라게 했다. 그는 그 절에 신비로운 뜻이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었다. 신비로운, 그리고 어쩌면 무서운 뜻이. 수도원장의 식사가 시작될 때에 맞춰 수도원에 닿으려고(물론 식탁 시중만 들려고) 은수처 담장 밖으로 나섰을 때, 그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게 죄어들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토록 가까운 제 임종을 예언하던 장로의 말이 그의 앞에서 다시 울리는 것 같았다. 장로가 예언한 것은, 그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한 것은 틀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알료샤는 그것을 거룩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분 없이 그는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그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울지 말고 수도원을 떠나라고 하시다니, 주님! 알료샤는 오래도록 이런 슬픔을 겪어 보지 못했다. 그는 은수처와 수도원 사이를 가르는 숲속을 서둘러 걸었고, 생각들이 그를 너무나 짓눌러서 그 생각을 견딜 수조차 없었기에, 숲길 양쪽에 늘어선 몇백 년 묵은 소나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가는 길은 길지 않아서 오백 걸음쯤, 그 이상은 아니었고, 이 시각에는 누구와 마주칠 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길의 첫 굽이에서 그는 라키틴을 보았다. 라키틴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는 거야?" 알료샤가 그와 나란히 서며 물었다.

"바로 너야." 라키틴이 씩 웃었다. "수도원장 신부한테 서둘러 가는 길이지. 알아. 거기 상이 차려졌지. 주교와 파하토프 장군을 맞았던 그때 이후로, 기억나지, 그런 상은 아직 없었어. 나는 안 갈 거니까 너나 가서 소스나 날라. 그런데 알렉세이, 하나만 말해 줘. 이 꿈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

"무슨 꿈?"

"네 형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한테 땅에 엎드려 한 그 절 말이야. 그것도 이마를 쿵 찧으면서!"

"조시마 신부님 얘기야?"

"그래, 조시마 신부 얘기."

"이마를?"

"아, 불경스럽게 말했군! 뭐, 불경스러우면 어때. 그래서, 이 꿈은 무엇을 뜻하는가?"

"모르겠어, 미샤, 무슨 뜻인지."

"그가 너한테 설명해 주지 않을 줄 알았어. 물론 여기엔 어려울 것 하나 없어. 늘 하는 그 거룩한 헛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재주는

일부러 부린 거야. 이제 읍내의 경건한 척하는 무리가 다 떠들어 대고 온 현에 퍼뜨릴 거라고. '이 꿈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서. 내 생각엔 그 영감이 정말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 형사 사건 냄새를 맡은 거지. 너희 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

"무슨 형사 사건?"

라키틴은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다.

"너희 집안에서 일어날 거야, 그 형사 사건. 네 형님들과 돈 많은 네 아버님 사이에서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조시마 신부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마를 찧은 거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 그건 거룩한 장로님이 미리 말씀하셨지, 예언하셨지' 할 테니까. 이마를 찧은 게 무슨 예언이라고? 아니, 그건 상징이었다, 비유였다, 하고 귀신도 모를 소리를 하겠지! 소문을 내고 기억해 두겠지. 범죄를 미리 알아맞혔다, 범인을 점찍어 두었다 하면서. 성 바보들은 다 그래. 선술집을 보고 성호를 긋고 성당에는 돌을 던지지. 네 장로도 그래. 의인은 몽둥이로 내쫓고 살인자에게는 발치에 엎드려 절을 하지."

"무슨 범죄? 어떤 살인자? 무슨 소리야?" 알료샤는 땅에 박힌 듯 멈춰 섰고, 라키틴도 멈춰 섰다.

"어떤 살인자냐고? 모르는 척하기는. 내기해도 좋아, 너도 벌써 그 생각을 했을걸. 그런데 이거 재미있군. 들어 봐, 알료샤, 너는 늘 두 의자 사이에 엉거주춤 앉기는 해도 늘 바른말을 하잖아. 그 생각을 했어, 안 했어? 대답해 봐."

"했어." 알료샤가 조용히 대답했다. 라키틴마저 당황했다.

"뭐라고? 정말 너도 벌써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가 소리쳤다.

"나…… 나는 딱히 생각했다기보다는." 알료샤가 중얼거렸다. "네가 방금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상하게 꺼내니까, 나도 그걸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봤지(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 봤지? 오늘 아버지 양반과 미텐카 형님을 보면서 범죄를 생각했지? 그러니 내가 틀리지 않았잖아?"

"잠깐, 잠깐만." 알료샤가 불안하게 말을 끊었다. "넌 대체 무엇을 보고 그걸 다 아는 거야?…… 무엇보다, 왜 그게 너한테 그렇게 관심거리야?"

"질문이 두 개군. 따로따로지만 자연스러운 질문이야. 하나씩 따로 대답하지. 왜 보이느냐? 오늘 네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갑자기, 있는 그대로 온통, 단번에 느닷없이, 그 사람 생긴 그대로 다 알아보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야. 어떤 한 가지 특징으로 그를 단번에 통째로 붙잡았지. 더없이 정직하지만 색을 밝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빠까지 칼로 찔러 버릴 거야. 그런데 아빠는 술주정뱅이에 절제를 모르는 난봉꾼이라 평생 무엇에서도 한도를 몰랐지. 둘 다 버티지 못하고, 둘 다 쿵 하고 도랑에 처박히는 거야……"

"아니야, 미샤, 아니야. 그것뿐이라면 네가 오히려 나를 안심시켜 주었어.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온몸을 떨어? 너 그거 알아?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치자, 미텐카 말이야(그는 어리석지만 정직해). 하지만 그는 호색한이야. 그게 그의 정의이고 속의 본질 전부야. 아버지가 제 비열한 호색을 그에게 물려준 거야. 알료샤, 나는 너한테만은 놀라. 넌 어떻게 숫총각이야? 너도 카라마조프잖아! 너희 집안에서는 호색이 염증이 날 지경까지 갔잖아. 그래서 그 호색한 셋이 지금 서로를 지켜보고 있지…… 장화 목에 칼을 꽂고서. 셋이 이마를 맞부딪쳤는데, 너는 어쩌면 넷째일지도 몰라."

"그 여자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드미트리 형은 그 여자를 경멸해." 알료샤가 어쩐지 몸을 떨며 말했다.

"그루셴카를? 아니야, 친구, 경멸하지 않아. 제 약혼녀를 대놓고 그 여자와 바꾸었으면 경멸하는 게 아니지. 여기에는…… 여기에는, 친구,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어. 사람이 어떤 아름다움에, 여자의 몸에, 아니 여자 몸의 한 부분에라도 반하면(이건 호색한이라야 이해할 수 있지), 그것을 위해 제 자식도 내주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러시아와 조국도 팔아넘겨. 정직한 사람이 가서 도둑질을 하고, 온순한 사람이 목을 따고, 충직한 사람이 배신을 하지. 여자의 작은 발을 노래한 시인 푸시킨은 시로 그 발을 찬미했어. 다른 사람들은 찬미하지는 않아도 그 발을 보면 경련을 일으키지 않고는 못 배기지. 하지만 발만이 아니야…… 여기서는, 친구, 경멸도 소용이 없어. 그가 그루셴카를 경멸한다 해도 말이야. 경멸은 하는데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지."

"그건 나도 알아." 알료샤가 갑자기 불쑥 말했다.

"그래? 그렇게 첫마디부터 안다고 불쑥 말했다면 정말 아는 모양이군." 라키틴이 고소하다는 듯 말했다. "넌 그 말을 무심코 불쑥 내뱉었어, 튀어나온 거지. 그러니 그 고백은 더 값져. 그러니까 너한테는 벌써 익숙한 주제란 말이지, 벌써 그걸 생각해 봤다는 거야, 호색 말이야. 아, 이 숫총각! 너, 알료시카, 너는 얌전한 고양이야. 너는 성자야, 그건 인정해. 하지만 너는 얌전한 고양이고, 무슨 생각을 이미 안 해 봤는지,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지 귀신이나 알겠지! 숫총각인데 벌써 그런 깊이를 다 지나왔다니.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봤어. 너 자신이 카라마조프야, 완전히 카라마조프야. 그러니 핏줄과 씨내림이란 게 무언가 뜻이 있기는 한가 봐. 아버지 쪽으로는 호색한, 어머니 쪽으로는 성 바보. 왜 떨어? 내 말이 맞아? 있잖아, 그루셴카가 나한테 부탁했어. '그 사람(너 말이야)을 데려와. 내가 그 수도복을 벗겨 줄 테니.' 그것도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데려와, 데려와! 나는 그저

생각했지. 대체 네가 뭐가 그렇게 그 여자 호기심을 끄는 걸까? 있잖아,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야!"

"안부나 전해 줘. 안 간다고." 알료샤가 일그러진 웃음을 지었다. "미하일, 하던 얘기나 끝까지 해. 내 생각은 나중에 말할게."

"끝까지 할 게 뭐 있어, 다 뻔한데. 이건 다, 친구, 묵은 가락이야. 너마저 제 속에 호색한을 품고 있다면, 한 배에서 난 네 형 이반은 어떻겠어? 그도 카라마조프잖아. 너희 카라마조프 집안의 문제가 모두 여기에 있어. 호색한, 돈벌레, 성 바보! 네 형 이반은 지금 무슨 지독히 어리석은, 알 수 없는 속셈으로 신학 쪽 글 나부랭이를 아직은 장난으로 찍어 내고 있어, 저 자신은 무신론자이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 비열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네 형 말이야, 그 이반이. 게다가 미탸 형님한테서 약혼녀를 가로채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룰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미텐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미텐카가 약혼녀를 떼어 내고 한시라도 빨리 그루셴카한테 가려고 제 약혼녀를 그에게 양보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그 대단한 고결함과 사심 없음을 지닌 채로 말이야. 이걸 명심해 둬.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숙명적이라니까! 이러고 나면 너희를 누가 알아먹겠어. 제 비열함을 알면서 제 발로 비열함 속으로 기어들어 가니! 더 들어 봐. 지금 미텐카의 길을 늙다리 아버지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영감이 그루셴카 때문에 갑자기 미쳐 버려서 그 여자를 보기만 해도 침을 질질 흘린다고. 방금 수방에서 그런 추문을 일으킨 것도 오로지 그 여자 하나 때문이야, 미우소프가 감히 그 여자를 방탕한 계집이라고 불렀다는 것 하나 때문에. 고양이보다 더 지독하게 반했어. 전에는 그 여자가 무슨 컴컴한 선술집 잡일에서나 삯을 받고 그 영감 심부름을 해 주었는데, 이제 갑자기 눈치를 채고 알아보더니, 미쳐 날뛰며 제안을 들이밀고 있어. 물론 정직한 제안은 아니지. 그러니 그 길에서 부딪치고 말 거야, 아빠와 아드님이. 그런데 그루셴카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안 가. 아직은 꼬리를 치며 둘 다 약 올리면서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살피고 있어. 아버지 양반한테서는 큰돈을 뜯어낼 수 있겠지만, 그 대신 그 영감은 결혼하지 않을 테고, 어쩌면 끝내는 유대 놈처럼 인색해져서 돈주머니를 잠가 버릴지도 모르거든. 그런 경우라면 미텐카도 제값이 있지. 돈은 없지만 그 대신 결혼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습죠, 결혼할 수 있다고요! 비할 데 없는 미인이자 부자에 귀족이고 대령의 딸인 약혼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버리고, 늙은 상인 나부랭이이자 방탕한 농군이자 읍장인 삼소노프의 첩이었던 그루셴카와 결혼할 수 있다고. 이 모든 것에서 정말로 형사 사건이 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네 형 이반은 바로 그걸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 그는 꿀단지에 빠져서 애태우며 그리워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도 얻고 그 여자의 지참금 6만 루블도 챙길 테니까. 그 사람처럼 하찮고 빈털터리인 사람한테는 첫걸음으로 아주 솔깃한 일이지. 그리고 잘 들어 둬. 그는 미탸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미탸가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입게 해 줄 거야. 확실히 아는데, 미텐카는 바로 지난주에 선술집에서 집시 여자들을 끼고 취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 자기는 약혼녀 카텐카에게 어울리지 않고, 이반 형, 그 사람이야말로 어울린다고. 그리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도 물론 이반 표도로비치 같은 매혹적인 사람을 끝내 마다하지는 않겠지, 그 여자는 지금도 벌써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반은 대체 무엇으로 너희를 모두 홀렸기에 너희가 다 그를 우러러보는 거야? 그는 오히려 너희를 비웃는데. 꿀단지에 앉아서 너희 덕에 군것질을 즐기고 있다고 말이야."

"넌 그걸 다 어떻게 알아? 왜 그렇게 단정해서 말해?" 알료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는 넌 왜 지금 물으면서 내 대답을 미리 겁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

"넌 이반 형을 좋아하지 않아. 이반 형은 돈에 넘어가지 않아."

"그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미모는? 여기엔 돈만 있는 게 아니야. 6만이 솔깃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반 형은 더 높은 데를 봐. 이반 형은 몇천 루블에도 넘어가지 않아. 이반 형이 찾는 건 돈도 안락도 아니야. 어쩌면 고통을 찾는지도 몰라."

"이건 또 무슨 꿈이야? 아, 너희…… 귀족들이란!"

"아, 미샤, 형의 영혼은 폭풍 같아. 형의 지성은 사로잡혀 있어. 형 안에는 위대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생각이 있어. 형은 수백만 루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풀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야."

"문학 도둑질이야, 알료시카. 네 장로 말을 바꿔 말했군. 이반이 너희한테 대단한 수수께끼를 냈구먼!" 라키틴이 노골적인 악의를 품고 소리쳤다. 그는 얼굴빛까지 달라졌고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 수수께끼도 어리석어. 풀 것도 없어. 머리를 좀 굴려 봐, 알게 될 테니. 그의 논문은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어. 아까 그 어리석은 이론을 들었지. '영혼의 불멸이 없으면 선행도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이 허용된다.'(그런데 미텐카 형님이, 기억나지, 뭐라고 소리쳤는지. '기억해 두겠습니다!') 비열한 놈들에게는 솔깃한 이론이지…… 내가 욕을 하는군, 어리석은 짓이야…… 비열한 놈들이 아니라 '풀 수 없는 생각의 깊이'를 지녔다는 학생 허풍쟁이들에게 솔깃한 이론이지. 허풍선이야. 그 본질은 다 이거야.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이론은 전부 비열함이야! 인류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고서도 선행을 위해 살 힘을 제 안에서 찾아낼 거야! 자유에 대한, 평등에 대한, 형제애에 대한 사랑 속에서 찾아낼 거라고……"

라키틴은 흥분해서 자신을 거의 억누르지 못했다. 그러나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을 멈추었다.

"자, 그만하자." 그는 아까보다 더 일그러지게 웃었다. "왜 웃어? 내가 속물이라고 생각해?"

"아니, 네가 속물이라고 생각할 생각도 없었어. 너는 영리해. 하지만…… 그만두자. 내가 멍청하게 웃었어. 네가 흥분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해, 미샤. 네가 열을 올리는 걸 보고 너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무심하지 않다는 걸 짐작했어. 나는, 친구, 오래전부터 그렇게 의심했어. 그래서 이반 형을 좋아하지 않는 거지. 형을 질투하는 거야?"

"그 여자 돈도 질투한다고? 그것도 덧붙이지 그래?"

"아니,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을게. 너를 모욕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믿지. 그래도 너도 네 형 이반도 다 귀신이나 잡아가라지! 너희는 아무도 몰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없어도 그를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제기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좋아해야 해! 그 사람도 손수 나를 욕해 주시잖아. 그런데 왜 나는 그를 욕할 권리가 없어?"

"형이 너에 대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무엇 하나라도 하는 걸 나는 들은 적이 없어. 형은 너에 대해 아예 말을 안 해."

"나는 들었는데. 그저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집에서 그가 나를 아주 박살을 냈다더라. 이 몸, 여러분의 충복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 친구, 이러고 나면 누가 누구를 질투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분께서 이런 생각을 피력하셨대. 내가 머지않아 대수도원장이 되는 출세 길에 동의하지 않고 삭발할 결심도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두툼한 잡지에, 틀림없이 비평란에 붙어서 한 십 년쯤 글을 쓰다가, 끝내는 그 잡지를 내 것으로 넘겨받을 거라고. 그다음에는 다시 그 잡지를 펴낼 텐데, 틀림없이 자유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방향으로, 사회주의의 색조를 띠고, 사회주의의 광택까지

살짝 내면서, 하지만 눈치는 바짝 세우고, 그러니까 사실상 양쪽 편에 다 붙어서 바보들 눈을 속이면서 펴낼 거라고. 네 형님 해석으로는 내 출세의 끝이 이래. 사회주의의 색조가 있어도 나는 구독료를 당좌예금에 쌓아 두고, 기회가 오면 어느 유대 꼬마 놈의 지도를 받아 그 돈을 굴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고, 그러다 마침내 페테르부르크에 번듯한 석조 건물을 한 채 지어 편집실도 거기로 옮기고 나머지 층에는 세입자를 들일 거라고. 집 지을 자리까지 정해 주셨어. 리테이나야 거리에서 비보르크 쪽으로 네바강을 건너는, 페테르부르크에 놓을 계획이라고들 하는 새 돌다리 곁이래……"

"아, 미샤, 그거 어쩌면 정말 마지막 한 마디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지도 몰라!" 알료샤가 참지 못하고 즐겁게 웃으며 갑자기 소리쳤다.

"당신까지 빈정거리시는군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아니, 아니, 농담이야, 미안해.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잠깐. 누가 너한테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었을까, 누구한테서 그걸 들을 수 있었을까? 형이 네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집에 직접 있었을 리는 없잖아?"

"나는 없었지. 그 대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있었고, 나는 그걸 내 귀로 들었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한테서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가 나한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엿들은 거지. 물론 어쩔 수 없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옆방에 있는 동안 내내 나는 그루셴카의 침실에 앉아서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아, 그렇지, 깜빡했네. 그 여자가 네 친척이지……"

"친척? 그루셴카가 내 친척이라고?" 라키틴이 얼굴이 새빨개지며 갑자기 소리쳤다. "너 미쳤어?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왜? 친척 아니야?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걸 들었어? 그래, 너희 카라마조프 나리들은 무슨 위대하고 유서 깊은 귀족인 척하지만, 네 아버지는 어릿광대 노릇을 하며 남의 식탁을 쫓아다녔고 남의 덕으로 부엌 식구 신세였잖아. 그래, 나는 신부 아들일 뿐이고 너희 귀족들 앞에서는 하찮은 벌레야. 하지만 그렇게 신이 나서 함부로 나를 모욕하지는 마십시오. 나도 체면이란 게 있습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는 몸 파는 계집 그루셴카의 친척일 수가 없습니다.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요!"

라키틴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제발 용서해 줘. 정말 그렇게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어째서 몸 파는 여자야? 정말 그 여자가…… 그런 여자야?" 알료샤가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친척이라고 그렇게 들었어. 너는 그 여자 집에 자주 가잖아. 그리고 그 여자와 연애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나한테 직접 말했잖아…… 네가 그 여자를 그렇게까지 경멸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 정말 그 여자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야?"

"내가 그 여자 집에 드나든다면 거기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그거면 됐지. 친척으로 말하자면, 그 여자를 친척으로 떠안길 건 오히려 네 형님이나 네 아버님일 거야. 나한테가 아니라 너한테. 자, 다 왔다. 너는 부엌으로나 가 보는 게 낫겠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 늦은 건가? 그렇게 빨리 식사를 끝냈을 리는 없는데? 아니면 카라마조프 사람들이 또 무슨 말썽을 부렸나? 틀림없이 그렇군. 저기 네 아버님이 있고, 그 뒤에 이반 표도로비치도 있어. 수도원장한테서 뛰쳐나온 거야. 저기 이시도르 신부가 현관 계단에서 그들 등 뒤에 대고 뭐라고 소리치는군. 네 아버님도 소리치며 팔을 휘두르네. 틀림없이 욕을 하는 거야. 어, 저기 미우소프도 마차를 타고 떠났잖아, 봐, 가고 있어. 저기 지주 막시모프도 뛰어가고. 추문이 났구먼. 그러니 식사는

없었던 거야! 설마 수도원장을 두들겨 팬 건 아니겠지? 아니면 어쩌면 저 사람들이 얻어맞았나? 그랬으면 볼 만했을 텐데!……"

라키틴이 괜히 소리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추문이, 전대미문의 뜻밖의 추문이 일어났다. 모든 일이 "영감에 따라" 일어났다.

제8장 추문

미우소프와 이반 표도로비치가 이미 수도원장에게 들어서고 있을 때, 진심으로 점잖고 섬세한 사람인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의 마음속에서는 나름대로 섬세한 어떤 과정이 재빨리 일어났다. 그는 화를 내는 것이 부끄러워졌다. 그 형편없는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사실 장로의 수방에서 냉정을 잃고 그 꼴이 되도록 제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조차 없을 만큼 업신여겼어야 마땅했다고 그는 속으로 느꼈다. "적어도 수도사들이야 여기서 아무 잘못도 없지." 그는 수도원장 집 현관 계단에서 갑자기 마음먹었다. "그리고 여기도 점잖은 사람들이라면(이 니콜라이 신부라는 수도원장도 귀족 출신인 듯하니까), 그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굴지 못할 까닭이 뭐란 말인가?…… 따지지 않겠다, 맞장구까지 쳐 주겠다, 친절로 마음을 사고 그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보여 주겠다. 나는 그 이솝 같은 놈, 그 어릿광대, 그 피에로와 한패가 아니며, 그들 모두와 꼭 마찬가지로 곤경에 빠졌을 뿐이라고……"

그리고 다툼이 붙은 숲의 벌목과 그 고기잡이 문제는(그 모든 것이 어디 있는지 그 자신도 몰랐다) 오늘 당장 완전히, 단번에 영영 그들에게 양보하고, 수도원을 상대로 한 소송도 모두 거두기로 마음먹었다. 그 모든 것이 값어치가 아주 보잘것없었기에 더욱 그랬다.

이 모든 선한 뜻은 그들이 수도원장 신부의 식당에 들어섰을 때 한층 더 굳어졌다. 하기야 그에게 식당이랄 것은 없었는데, 그의 거처 전체에 제대로 된 방이라고는, 사실 장로의 방보다 훨씬 넓고 훨씬 편리하기는

했지만, 모두 두 칸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의 꾸밈새도 딱히 안락하다고 할 것은 없어서, 가구는 1820년대의 낡은 유행을 따른 마호가니에 가죽을 씌운 것이었고, 마룻바닥은 칠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빛났고, 창가에는 값비싼 꽃이 많았지만, 이 순간 무엇보다 큰 사치는 당연히 호사스럽게 차려진 식탁이었다. 하기야 이것도 견주어 하는 말이다. 식탁보는 깨끗했고 그릇은 반짝였다. 기막히게 잘 구운 세 가지 빵, 포도주 두 병, 훌륭한 수도원 꿀술 두 병, 그리고 이 근방에 이름난 수도원 크바스가 담긴 커다란 유리 주전자가 있었다. 보드카는 아예 없었다. 라키틴이 나중에 이야기한 바로는, 이번 식사는 다섯 가지 요리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철갑상어 수프에 생선 파이를 곁들였고, 다음은 어쩐지 남다르게 특별히 조리한 삶은 생선, 다음은 연어 커틀릿, 아이스크림과 과일 설탕 조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라망제 비슷한 키셀이었다. 라키틴은 참지 못하고 일부러 수도원장의 부엌을 들여다보아 이 모든 것을 냄새 맡아 알아냈는데, 그 부엌에도 그는 연줄이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연줄이 있었고 어디서나 소식을 캐냈다. 그는 몹시 불안하고 시기심 많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제 상당한 재능을 스스로 똑똑히 알고 있었지만, 자부심 속에서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부풀렸고, 제 나름대로 한몫하는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몹시 정이 든 알료샤를 괴롭힌 것은, 그의 친구 라키틴이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라키틴은 제가 탁자 위의 돈을 훔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더없이 정직한 사람으로 단단히 여기고 있었다. 이 점에서는 알료샤뿐 아니라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키틴은 하찮은 사람이라 식사에 초대받을 수 없었다. 그 대신 이오시프 신부와 파이시 신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도사제 한 사람이

더 초대되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와 칼가노프와 이반 표도로비치가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미 수도원장의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주 막시모프도 한쪽에 비켜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도원장 신부는 손님들을 맞으려고 방 한가운데로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여위었지만 아직도 정정한 노인으로, 머리는 검었지만 희끗희끗한 빛이 많이 섞였고, 길쭉한 얼굴은 금욕적이고 위엄이 있었다. 그는 손님들과 말없이 인사를 나누었지만, 이번에는 손님들이 축복을 받으러 다가갔다. 미우소프는 손에 입을 맞추는 모험까지 하려 했지만, 수도원장이 어쩐지 때맞춰 손을 거두는 바람에 입맞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이반 표도로비치와 칼가노프는 이번에는 제대로 축복을 받았다. 다시 말해 더없이 소박하고 서민다운, 쪽 소리 나는 입맞춤을 손에 했다.

"저희가 크게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존귀하신 신부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상냥하게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그래도 엄숙하고 공손한 말투로 말을 꺼냈다. "신부님께서 초대하신 저희 길동무 표도르 파블로비치 없이 저희만 왔으니 사과를 드려야지요. 그는 신부님의 식사를 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조시마 신부님의 수방에서 그는 아들과의 불행한 집안싸움에 휩쓸려 몇 마디 아주 엉뚱한 말을…… 한마디로 아주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보기에(그는 수도사제들을 힐끗 보았다) 존귀하신 신부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저와 그의 아들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신부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 어린 유감과 비통과 참회를 모두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나중에 모든 것을 갚기를 바라고 또 그러고 싶어 하며, 지금은 신부님의 축복을 빌면서 일어난 일을 잊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우소프는 입을 다물었다. 장광설의 마지막 말을 끝내고 나자 그는 제 자신에게 아주 흡족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 전의 짜증이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는 다시 온전하고 진실하게 인류를 사랑했다. 수도원장은 위엄 있게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대답했다.

"자리를 뜨신 분께 깊은 유감을 느끼오. 어쩌면 우리 식탁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처럼. 여러분, 어서 드시지요."

그는 성상 앞에 서서 소리 내어 기도를 시작했다. 모두 공손히 고개를 숙였고, 지주 막시모프는 남다른 경건함으로 두 손바닥을 앞에 모으고 유난히 앞으로 나서기까지 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마지막 재주를 부렸다. 짚어 두어야 할 것은, 그가 정말로 떠나려 했고, 장로의 수방에서 그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도원장의 식사에 갈 수는 없다고 정말로 느꼈다는 점이다. 그가 제 자신을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하고 탓했다는 말은 아니고, 어쩌면 오히려 정반대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식사를 하러 가는 것만은 이미 점잖지 못하다고 그는 느꼈다. 그런데 객사 현관 앞에 그의 덜컹거리는 마차를 대자마자, 그는 이미 마차에 오르다가 갑자기 멈칫했고, 장로 앞에서 제가 한 말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저는 어디에 들어서든 늘 제가 누구보다 비열하고 모두가 저를 어릿광대로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자, 정말로 어릿광대 노릇을 해 주자, 당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보다 어리석고 비열하니까, 이런 거지요." 그는 제 추잡한 짓에 대한 앙갚음을 모두에게 하고 싶어졌다. 그는 마침 이제 갑자기, 언젠가 예전에 누가 "당신은 어째서 아무개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하고 물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어릿광대다운 뻔뻔함이 발작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이래서지요.

사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내가 그 사람에게 더없이 파렴치하고 추잡한 짓을 하나 했는데, 그 짓을 하자마자 곧바로 그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졌거든요." 그 일을 이제 떠올리자 그는 잠깐 생각에 잠겨 조용하고 심술궂게 히죽 웃었다. 그의 눈이 번득였고 입술까지 떨렸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는 갑자기 마음먹었다. 이 순간 그의 가장 깊은 속마음은 이런 말로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명예를 되찾을 수는 없으니, 자, 저들에게 뻔뻔해질 만큼 침을 더 뱉어 주자. 나는 당신들이 부끄럽지 않다, 하고. 그게 다다!" 그는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이르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수도원으로 되돌아가 곧장 수도원장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잘 몰랐지만, 이미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며, 조금만 떠밀려도 당장에 무슨 추잡한 짓의 마지막 한계까지 가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기야 추잡한 짓일 뿐, 결코 무슨 범죄나 재판에서 벌을 받을 만한 엇나간 짓까지는 아니었으니, 그런 경우에는 그는 늘 자신을 억누를 줄 알았고, 어떤 때는 이 점에서 제 자신에게 놀라기까지 했다. 그는 기도가 끝나고 모두 식탁으로 움직이던 바로 그 순간에 수도원장의 식당에 나타나, 문턱에 멈춰 서서 일동을 둘러보더니, 모두의 눈을 대담하게 들여다보며 길고 뻔뻔하고 심술궂은 웃음을 터뜨렸다.

"다들 내가 떠난 줄 알았겠지만, 나 여기 있소이다!" 그가 방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한순간 모두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고, 갑자기 모두가 이제 무언가 역겹고 터무니없는, 틀림없이 추문이 될 일이 벌어지리라고 느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더없이 너그럽던 기분에서 곧바로 더없이 사나운 기분으로 넘어갔다. 그의 가슴속에서 꺼져 가고 잠잠해졌던 모든 것이 단번에 되살아나 일어섰다. "아니,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소리쳤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그는 말까지 헛갈렸지만, 이미 말을 고를 때가 아니었고, 그는 모자를 움켜쥐었다.

"무엇을 그렇게 견딜 수 없다는 거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절대로 견딜 수 없고 결코 견딜 수 없다'고? 신부님,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함께 식사할 손님을 받아 주시렵니까?"

"진심으로 어서 오시오." 수도원장이 대답했다. "여러분! 감히 부탁드려도 되겠소." 그가 갑자기 덧붙였다. "우연한 다툼일랑 버려두시고, 우리의 소박한 식탁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사랑과 친족의 화목 속에 하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아니,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제정신이 아닌 듯 소리쳤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럴 수 없다면 나도 그럴 수 없으니 남지 않겠습니다. 그러려고 온 겁니다. 나는 이제 어디서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와 함께하겠습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이 떠나면 나도 가고, 당신이 남으면 나도 남겠어요. 친족의 화목이라는 말로 저 사람을 무엇보다 아프게 찌르셨습니다, 수도원장 신부님. 저 사람은 자기가 내 친척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폰 존? 저기 폰 존도 서 있군. 안녕한가, 폰 존."

"저……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요?" 깜짝 놀란 지주 막시모프가 중얼거렸다.

"물론 너한테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그럼 누구겠어? 수도원장 신부님이 폰 존일 리는 없잖나!"

"하지만 저도 폰 존이 아닌데요. 저는 막시모프입니다."

"아니, 너는 폰 존이야. 신부님, 폰 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형사 재판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음란한 집에서 살해당했는데(신부님들은 그런 곳을 이렇게 부르신다지요), 살해당하고 털리고, 그 지긋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자에 처박혀 마개로 막힌 채 번호표를 달고 수하물 칸에 실려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부쳐졌답니다. 그런데 못을 박을 때 음란한 춤꾼 계집들이 노래를 부르고 거문고를 탔대요, 그러니까 포르테피아노를요. 바로 이 사람이 그 폰 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 그렇지, 폰 존?"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수도사제들 무리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갑시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칼가노프에게 돌아서며 소리쳤다.

"아니, 잠깐만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서며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나도 끝을 맺게 해 주십시오. 저기 수방에서 내가 불경하게 굴었다고 소문을 냈지요. 바로 모래무지 얘기를 소리쳤다고요. 내 친척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말에 진실함보다 고상함이 더 많기를(plus de noblesse que de sincérité) 좋아하고, 나는 거꾸로 내 말에 고상함보다 진실함이 더 많기를(plus de sincérité que de noblesse)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상함(noblesse) 따위는 침이나 뱉으라지요! 그렇지, 폰 존? 잠깐만요, 수도원장 신부님. 나는 어릿광대이고 어릿광대 행세를 하지만, 명예를 아는 기사이니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그렇습죠, 나는 명예를 아는 기사이고,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한테 있는 건 꼬집힌 자존심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까 여기 온 것도 어쩌면 구경하고 할 말을 하려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내 아들 알렉세이가 구원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아비라 그 애의 앞날을 걱정하고, 걱정해야 마땅합니다. 나는 내내 듣고 시늉만 하며 슬그머니 지켜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막까지 공연해 보여 드리고 싶군요. 우리네는 어떻습니까? 우리네는 쓰러진 것은 그대로 누워 있지요. 한번 쓰러진 것은 영영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천만에요! 나는 일어서고 싶습니다. 거룩한 신부님들, 나는 당신들에게 분개합니다. 고해는 큰 성사이고, 나도 그 앞에서는 경건해져서 땅에 엎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저기 수방에서는 갑자기 모두 무릎을 꿇고 소리 내어 고해를 하더군요. 소리 내어 고해해도 된단 말입니까? 거룩한 교부들께서는 귀에 대고 하는 고해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고해가 성사가 되지요.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두 앞에서 그분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런저런 짓을 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입에 올리기도 점잖지 못한데. 그러니 이건 추문이지요! 아니, 신부님들, 여기서 당신들과 지내다가는 흘리스트파 같은 이단에 끌려들어 가겠습니다…… 나는 기회가 오는 대로 곧 종무원에 편지를 쓰고, 내 아들 알렉세이는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어디서 종이 울리는지 들은 바가 있었다. 언젠가 고약한 소문이 돌아 주교에게까지 이른 적이 있었다(우리 수도원뿐 아니라 장로 제도가 자리 잡은 다른 수도원에서도). 장로들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아 수도원장의 직위마저 손상될 지경이고, 무엇보다 장로들이 고해 성사를 남용한다는 등등의 소문이었다. 터무니없는 비난이었고, 그것은 때가 되자 우리 고장에서도 다른 모든 곳에서도 저절로 사라졌다. 그러나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낚아채어 그 자신의 신경을 타고 어딘가 수치의 깊은 곳으로 자꾸만 더 멀리 몰고 가던 어리석은 악마가, 한때 있었던 그 비난을 그에게 귀띔해 주었다. 그 비난에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첫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게다가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고, 더구나 이번에는 장로의

수방에서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았고 소리 내어 고해하지도 않았으니,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그저 어렴풋이 떠올린 묵은 풍문과 소문을 따라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나자 그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지껄였다는 것을 느꼈고, 갑자기 듣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제가 한 말이 전혀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당장 증명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한마디 할 때마다 이미 한 헛소리에 그만한 헛소리를 점점 더 터무니없이 보태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자신을 억누를 수 없어 산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달렸다.

"이 무슨 비열한 짓입니까!"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소리쳤다.

"용서하시오." 수도원장이 갑자기 말했다. "옛날부터 이런 말씀이 있소. '그가 나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하여 더러운 일에 이르기까지 하였도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속으로 말하였노라. 이는 예수의 약이니, 그분께서 내 헛된 영혼을 고치시려고 보내셨도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하게 당신에게 감사드리오, 귀한 손님이시여!"

그리고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허리 굽혀 절했다.

"쯧쯧쯧! 위선에 낡은 문구로군! 낡은 문구에 낡은 몸짓! 낡은 거짓말에 판에 박힌 큰절! 그런 절은 우리도 압니다! 실러의 『군도』에 나오는 '입술엔 입맞춤, 심장엔 비수'지요. 신부님들, 나는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래무지에 있지 않으니, 나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수도사 신부님들, 왜 금식합니까? 왜 그 대가로 하늘에서 상을 바랍니까? 그런 상이라면 나도 가서 금식하겠소! 아니, 거룩한 수도사여, 너는 삶 속에서 덕을 쌓아라, 수도원에 틀어박혀 차려 주는 밥이나 먹지 말고, 저 위에서 상을 바라지도 말고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해 보아라. 그게 좀 더 어려울 거다. 나도 말이죠, 수도원장 신부님, 말을 그럴싸하게 할 줄 압니다. 여기 무엇이 차려져 있나?" 그는

식탁으로 다가갔다. "팩토리 상표의 묵은 포트와인에 옐리세예프 형제 상회에서 병에 담은 메도크라, 이거 참 신부님들! 모래무지와는 딴판이군요. 신부님들이 술병을 이렇게나 늘어놓으셨네, 헤헤헤! 그런데 누가 이걸 다 여기로 날라 왔을까요? 러시아 농군이, 일꾼이 굳은살 박인 손으로 번 푼돈을, 제 식구와 나라의 쓸 데에서 떼어 여기로 가져오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님들, 당신들은 백성의 피를 빨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당신답지 못한 말씀이오." 이오시프 신부가 말했다. 파이시 신부는 끈질기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미우소프가 방에서 뛰쳐나갔고, 칼가노프가 그 뒤를 따랐다.

"자, 신부님들, 나도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를 따라가겠습니다! 다시는 당신들한테 오지 않겠어요. 무릎 꿇고 빌어도 안 오겠습니다. 내가 1천 루블을 보내 드렸더니 또 눈을 반짝이시는군, 헤헤헤! 아니, 더는 보태지 않겠소. 나는 지나간 내 젊음에, 내가 당한 모든 굴욕에 앙갚음을 하는 거요!" 그는 꾸며 낸 감정이 발작하여 주먹으로 식탁을 쾅쾅 쳤다. "이 수도원 나부랭이가 내 인생에서 많은 걸 뜻했지요! 이것 때문에 쓰디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당신들은 클리쿠샤인 내 아내를 부추겨 나한테 대들게 했소. 당신들은 일곱 공의회에서 나를 저주하고 온 근방에 소문을 퍼뜨렸소! 됐습니다, 신부님들. 지금은 자유주의 시대, 기선과 철도의 시대요. 1천 루블도, 백 루블도, 백 코페이카도, 나한테서는 아무것도 못 받을 거요!"

다시 주의할 점. 우리 수도원은 그의 인생에서 그런 특별한 것을 단 한 번도 뜻한 적이 없었고, 그는 수도원 때문에 쓰디쓴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꾸며 낸 제 눈물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한순간 제 말을 스스로 믿을 뻔했다.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릴 뻔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제 발길을 돌릴 때라고 느꼈다.

수도원장은 그의 심술궂은 거짓말에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무게 있게 말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소. '뜻하지 않게 네게 닥치는 모욕을 기쁨으로 삼가 견디어라. 마음이 어지럽지도 말고 너를 욕보이는 자를 미워하지도 말지니라.' 우리도 그리하겠소."

"쯧쯧쯧, '헤아렸도다'라니! 그 밖의 허튼소리들! 실컷 헤아리시구려, 신부님들, 나는 가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알렉세이는 어버이의 권한으로 여기서 영영 데려가겠소. 이반 표도로비치, 더없이 공손한 내 아들이여, 나를 따라오라고 명해도 되겠습니까! 폰 존, 너는 여기 남아 뭘 하겠나! 지금 당장 읍내 우리 집으로 오게. 우리 집은 즐겁다네. 고작 1베르스타 남짓이야. 식물성 기름 대신 메밀죽을 채운 새끼 돼지를 내지. 같이 식사하자고. 코냑도 내고, 그다음엔 리큐어도 내고. 들딸기 술도 있어…… 이봐, 폰 존, 굴러온 복을 놓치지 말게!"

그는 소리치고 손짓 발짓을 하며 나갔다. 바로 이 순간에 라키틴이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알료샤에게 가리켰다.

"알렉세이!" 아버지가 그를 보자 멀리서 소리쳤다. "오늘 당장 아주 우리 집으로 옮겨 와라. 베개도 요도 다 끌고 와. 여기엔 네 냄새도 남지 않게 해라."

알료샤는 땅에 박힌 듯 멈춰 서서 말없이 주의 깊게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사이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마차에 올라탔고, 그 뒤를 이어 이반 표도로비치가 알료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돌아보지도 않고 말없이 침울하게 마차에 오르려 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의 믿기지 않는 어릿광대짓 같은 장면이 하나 더 벌어졌다. 갑자기 마차 발판 곁에 지주 막시모프가 나타났다. 그는 늦지 않으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라키틴과 알료샤는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찌나 서둘렀는지, 안달이 나서 이반 표도로비치의

왼발이 아직 올라 있는 발판에 벌써 발을 올리고는, 마차 차체를 붙잡고 마차 안으로 뛰어오르려 했다.

"저도, 저도 함께 가요!" 그는 뛰어오르며 잘게 즐거운 웃음을 웃으며 외쳤다. 얼굴에는 더없는 행복이 떠올랐고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자, 내가 말하지 않았나."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신이 나서 소리쳤다. "이게 폰 존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진짜 폰 존이라고! 그런데 너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나? 거기서 무슨 폰존 짓을 했기에 식사를 두고 나올 수 있었어? 정말 낯가죽이 놋쇠라야 하겠군! 나도 낯가죽이 두껍지만, 친구, 자네 낯가죽엔 놀라겠네! 뛰어, 어서 뛰어올라! 태워 줘라, 바냐, 재미있을 거다. 발치 어디에 눕혀 두면 되지. 누워 있겠나, 폰 존? 아니면 마부석에 마부와 같이 앉힐까?…… 마부석으로 뛰어올라, 폰 존!……"

그러나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말없이 있는 힘을 다해 막시모프의 가슴을 떠밀었고, 막시모프는 한 사젠[1]이나 나가떨어졌다. 넘어지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가자!" 이반 표도로비치가 마부에게 사납게 소리쳤다.

"아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냐?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펄쩍 뛰었지만 마차는 이미 출발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거 참 너도!" 2분쯤 잠자코 있다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아들을 곁눈질하며 다시 말했다. "이 수도원 일은 다 네가 꾸민 거잖아. 네가 부추기고 네가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화를 내?"

"헛소리 좀 그만 지껄이시고, 이제라도 좀 쉬세요." 이반 표도로비치가 쌀쌀맞게 잘랐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다시 2분쯤 잠자코 있었다.

"지금 코냑이나 한잔하면 좋겠는데." 그가 격언이라도 읊듯 말했다. 그러나 이반 표도로비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가면 너도 한잔하거라."

이반 표도로비치는 내내 말이 없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2분쯤 더 기다렸다.

"그래도 알료시카는 수도원에서 데려올 거요. 당신은 그게 아주 못마땅하겠지만 말이오, 더없이 공손한 카를 폰 모어 나리."

이반 표도로비치는 경멸하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고개를 돌려 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뒤로 집에 닿을 때까지 그들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

1. 러시아의 길이 단위. 1사젠은 약 2.13미터.

제3권 호색한들

제1장 하인 방에서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집은 읍내 한복판과는 거리가 꽤 멀었지만 아주 변두리도 아닌 곳에 서 있었다. 집은 꽤 낡았지만 겉모양은 보기 좋았다. 다락방이 딸린 단층집으로, 잿빛 칠을 하고 붉은 철판 지붕을 얹었다. 하기야 아직도 아주 오래 버틸 수 있었고, 넓고 아늑했다. 집 안에는 갖가지 작은 골방과 갖가지 숨을 곳과 뜻밖의 작은 계단이 많았다. 쥐가 들끓었지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쥐들에게 딱히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도 저녁에 혼자 남았을 때 그리 심심하지는 않거든." 실제로 그는 밤이면 하인들을 별채로 보내고 혼자 집 안에 밤새 틀어박히는 버릇이 있었다. 그 별채는 마당에 서 있었는데 넓고 튼튼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집에도 부엌이 있었는데도 그 별채에 부엌을 두기로 정했는데, 그는 부엌 냄새를 싫어해서 음식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마당을 가로질러 날라 왔다. 대체로 집은 대가족이 살도록 지어져서, 주인도 하인도 다섯 배는 더 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가 벌어지던 무렵 집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이반 표도로비치만 살고 있었고, 하인들이 사는 별채에는 하인이 모두 세 사람뿐이었다. 늙은 그리고리, 그의 아내인 늙은 마르파, 그리고 아직 젊은이인 하인 스메르댜코프였다. 이 세 하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해 두어야겠다. 하기야 늙은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쿠투조프에 대해서는 이미 꽤 이야기했다. 그는 굳세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고, 어떤 점이 어떤 까닭으로(흔히 놀랄 만큼 논리에 맞지 않는 까닭으로)

그의 앞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서기만 하면 그 점을 향해 끈질기게 곧장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대체로 말하자면 그는 정직했고 매수되지 않았다. 그의 아내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평생 남편의 뜻 앞에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를테면 농노 해방 직후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 곁을 떠나 모스크바로 가서 무슨 장사라도 시작하자고(그들에게는 얼마간 모아 둔 푼돈이 있었다) 남편을 지독하게 졸라 댔다. 그러나 그리고리는 그때 당장 단번에 영영, 아낙이 헛소리를 한다고 결정했다. "아낙이란 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전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그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게 이제 그분들 의무니까."

"의무가 뭔지 알기나 하나?" 그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에게 말했다.

"의무야 알지요,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할 무슨 의무가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몰라도 그렇게 될 거다. 앞으로는 입 다물어라."

과연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들에게 많지는 않은 품삯을 정해 주고 꼬박꼬박 치렀는데, 게다가 그리고리는 자기가 주인에게 다툴 여지 없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은 옳았다. 교활하고 고집센 어릿광대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자신의 표현대로 "삶의 어떤 일들"에서는 성격이 아주 굳셌지만, 다른 어떤 "삶의 일들"에서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성격이 꽤 무른 편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에서 그런지 스스로 알고 있었고, 알았기에 많은 것을 두려워했는데, 삶의 어떤 일들에서는 바짝 경계해야 했는데, 그럴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힘들었다. 그리고리는 더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살아오는 동안 여러 번 얻어맞을 수도 있었고 그것도 아프게 얻어맞을 뻔한 일까지 있었는데, 늘 그리고리가 구해 주었지만,

물론 그때마다 그리고리는 나중에 그에게 훈계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매질만이라면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겁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 높은 경우들이 있었고, 그것도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경우들이었다. 그럴 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따금 갑자기 순식간에, 알 수 없게 제 안에서 믿을 만하고 가까운 사람이 몹시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남다른 필요를 그 자신도 어쩌면 정의하지 못했을 것이다. 거의 병적인 경우들이었다. 더없이 방탕하고 호색에 빠지면 흔히 고약한 벌레처럼 잔인해지는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따금 술에 취한 순간에 갑자기 제 안에서 영적인 두려움과 도덕적인 진동을 느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의 영혼 속에서 거의 몸으로까지 울려 왔다. "이럴 때면 내 영혼이 꼭 목구멍에서 파닥거리는 것 같아." 그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그는 곁에, 가까이에, 어쩌면 같은 방은 아니더라도 별채에라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랐다. 헌신적이고 굳세고 자기와는 전혀 다른, 방탕하지 않은 사람, 벌어지는 이 모든 난봉을 다 보고 모든 비밀을 다 알더라도 헌신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거스르지 않으며, 무엇보다 나무라지 않고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아무것으로도 위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필요하면 그를 지켜 줄 사람이었다. 누구에게서? 누군지 모르지만 무섭고 위험한 누군가에게서.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다정한 사람이 꼭 있어서, 마음이 아픈 순간에 그를 불러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도 한마디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졌고, 화를 내면 그때는 더 서글퍼졌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밤중에 별채로 가서 그리고리를 깨워 잠깐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하기야 아주 드물었다), 그리고리가 오면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더없이 하찮은 이야기를 꺼내다가 곧 돌려보냈고, 때로는 비웃음과 농담까지 곁들였다.

그러고는 침을 탁 뱉고 누워서 이번에는 의인처럼 단잠을 잤다. 알료샤가 왔을 때도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알료샤는 "살면서 모든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뿐 아니라 알료샤는 전에 없던 것을 함께 가져왔다. 노인인 그를 조금도 경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거의 없는 그에게 늘 다정했으며, 아주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애정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늙은 난봉꾼이자 집안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뜻밖의 선물이었고, 지금까지 오직 "더러운 것"만 사랑해 온 그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알료샤가 떠난 뒤 그는 지금까지 이해하려 하지 않던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나는 이야기 첫머리에서 이미 말했다. 그리고리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아내이자 맏아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어머니인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의 둘째 아내인 클리쿠샤 소피야 이바노브나를 제 주인에게서까지, 그리고 그 부인을 두고 나쁜 말이나 경솔한 말을 할 생각을 품는 모든 이에게서 얼마나 감쌌는지. 그 불행한 여자에 대한 그의 연민은 무언가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서, 스무 해가 지난 뒤에도 그는 누구에게서 나왔든 그 부인에 대한 나쁜 암시조차 참지 못하고 당장 모욕한 자에게 반박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리는 차갑고 근엄한 사람으로, 말수가 적고 무게 있고 경솔하지 않은 말만 내뱉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대꾸 한 번 하지 않는 순종하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도 첫눈에 알아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고, 아내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어리석기는커녕 어쩌면 남편보다 영리했고, 적어도 세상살이에서는 남편보다 분별이 있었다. 그런데도 아내는 결혼 첫날부터 남편에게

군소리 없이, 대꾸 없이 따랐고, 남편의 정신적인 우위를 들어 그를 의심할 여지 없이 존경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평생 서로 말을 아주 적게 나누었다. 기껏해야 가장 필요한 일상의 일들뿐이었다. 근엄하고 위풍당당한 그리고리는 제 모든 일과 걱정을 늘 혼자 궁리했으므로,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남편이 자기 조언 따위는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단번에 영영 깨달았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의 침묵을 귀하게 여기고 그 때문에 자기를 영리하다고 인정한다고 느꼈다. 남편은 아내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딱 한 번, 그것도 살짝 때렸을 뿐이다.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결혼한 첫해에, 한번은 시골에서 아직 농노였던 마을 처녀들과 아낙들이 노래하고 춤추라고 주인집 마당에 불려 모였다. 그들이 「풀밭에서」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때만 해도 젊은 여자였던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합창단 앞으로 뛰쳐나와 러시아 춤을 남다르게 추었다. 아낙들처럼 시골 투로가 아니라, 부유한 미우소프 집안에서 하녀로 있을 때 그 집 지주 저택의 가정 극장에서, 모스크바에서 불러온 무용 교사가 배우들에게 춤을 가르치던 그곳에서 추던 대로 추었다. 그리고리는 아내가 그렇게 추는 것을 보았고, 한 시간 뒤 제 오두막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조금 끌어당기며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매질은 그것으로 영영 끝났고 평생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며,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도 그 뒤로는 다시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그 아이마저 죽었다. 그런데 그리고리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고, 그것을 숨기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가 달아났을 때 그는 세 살배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제 품에 받아 거의 한 해 동안 돌보았고, 손수 빗으로 머리를 빗기고 손수 함지박에서 씻기기까지 했다. 그 뒤로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와 알료샤도 돌보느라 애썼고, 그 때문에 뺨까지 맞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 이미 했다. 그런데 그의 친자식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아직 아이를 배고 있을 때 그에게 오직 희망 하나로만 기쁨을 주었지만, 막상 태어나자 아이는 그의 가슴을 슬픔과 공포로 내리쳤다. 다름 아니라 그 사내아이는 손가락이 여섯 개인 채로 태어났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리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세례를 받는 날까지 입을 다물었을 뿐 아니라 입을 다물려고 일부러 정원으로 나가기까지 했다. 봄이었고, 그는 사흘 내내 정원 안 텃밭에서 이랑을 팠다. 사흘째 되는 날 아기에게 세례를 주어야 했다. 그리고리는 그때쯤 이미 무언가를 궁리해 두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손님들이 오고 마지막으로 대부 자격으로 몸소 나타난 표도르 파블로비치까지 와 있는 오두막에 들어서자, 그는 갑자기 아이에게 "세례를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았고 말을 늘어놓지도 않았으며 한 마디씩 겨우 짜내듯 말했고, 그러는 동안 사제를 멍하니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왜 그렇소?" 사제가 즐겁게 놀라며 물었다.

"왜냐하면 이건…… 용이라서요……" 그리고리가 중얼거렸다.

"용이라니, 무슨 용 말이오?"

그리고리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자연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몹시 알아듣기 어렵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중얼거렸고, 더는 말을 늘어놓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웃었고, 물론 그 가엾은 아기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리는 세례반 곁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갓난아이에 대한 제 의견은 바꾸지 않았다. 하기야 아무것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병약한 사내아이가 살아 있던 두 주 내내 아이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알은척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대개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 있었다. 그러나 두 주 뒤

아이가 아구창으로 죽자 그는 손수 아이를 작은 관에 눕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아이를 바라보았으며, 얕고 작은 무덤에 흙을 덮을 때는 무릎을 꿇고 그 무덤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그는 제 아이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도 남편 앞에서는 제 아이를 한 번도 떠올려 말하지 않았다. 누구와 제 "아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가 없어도 속삭이듯 말했다.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짚은 대로라면, 그는 바로 그 무덤 이후로 주로 "하느님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해서 『체티미네이』를 읽었는데, 대개 말없이 혼자서, 그때마다 커다랗고 둥근 은테 안경을 끼고 읽었다. 소리 내어 읽는 일은 드물었고, 기껏해야 대재 때뿐이었다. 그는 용기를 좋아했고, 어디선가 "하느님을 모신 우리의 교부 시리아인 이삭"의 말씀과 설교를 베낀 책을 구해 와 여러 해 동안 끈질기게 읽었다. 그 책에서 거의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그 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아주 최근에는 이웃에 마침 기회가 있어서 흘리스트파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크게 흔들린 것이 분명했지만 새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겼다. "하느님의 일"에서 얻은 많은 읽을거리는 물론 그의 얼굴에 한층 더한 근엄함을 더해 주었다.

어쩌면 그는 신비주의에 기우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침 일부러 그런 듯, 손가락이 여섯 개인 아기가 세상에 나오고 죽은 일이 다른 아주 이상하고 뜻밖의 기이한 일과 꼭 겹쳤고, 그 일은 언젠가 그 자신이 나중에 표현한 대로 그의 영혼에 "낙인"을 남겼다. 공교롭게도 손가락이 여섯 개인 그 아기를 묻은 바로 그날,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밤중에 깨어나 갓난아이의 울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아내는 겁이 나서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귀를 기울이더니, 오히려 누가 신음하는 소리 같다고, "여자 같다"고 했다. 그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꽤

따뜻한 5월의 밤이었다. 현관 계단으로 나서자 그는 신음이 정원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들었다. 그러나 정원은 밤이면 마당 쪽에서 자물쇠로 잠가 두었고, 정원 둘레를 튼튼하고 높은 울타리가 빙 둘러싸고 있어서 그 문 말고는 정원에 들어갈 길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리고리는 등불을 켜고 정원 열쇠를 집어 들고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틀림없이 우리 아이가 울면서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여전히 우기는 아내의 발작 같은 공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정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신음이 정원 안 쪽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선 그들의 작은 목욕간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여자가 신음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차렸다. 목욕간 문을 열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 거리를 떠돌아 온 읍내가 다 아는 성 바보 여자, 리자베타 스메르댜샤야(냄새나는 리자베타)[1]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자가 그들의 목욕간에 기어들어 와 막 아기를 낳은 참이었다. 아기는 여자 곁에 누워 있었고, 여자는 아기 곁에서 죽어 가고 있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줄을 몰랐으니 그것만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따로 설명해야겠다.

---

1. 스메르댜샤야(Смердящая)는 '냄새를 풍기다, 악취가 나다'라는 뜻의 러시아어 동사(смердеть)에서 나온 말로, '냄새나는 여자'라는 뜻이다. 뒤에 나오는 스메르댜코프라는 성도 이 말에서 나왔다.

제2장 냄새나는 리자베타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고리를 깊이 뒤흔들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쾌하고 역겨운 예전 의심 하나를 끝내 굳혀 주었다. 이 리자베타 스메르댜샤야는 키가 아주 작은 처녀로, 그 여자가 죽은 뒤 우리 고장의 신앙심 깊은 노파들 여럿이 감동에 젖어 회상하던 말로는 "2아르신[1]하고 조금"이었다. 스무 살 난 그 얼굴은 건강하고 넓적하고 불그레했지만 완전한 백치의 얼굴이었다. 눈길은 온순하기는 해도 움직임이 없고 불쾌했다. 그 여자는 평생 여름이고 겨울이고 맨발에 삼베 속옷 한 벌만 걸치고 다녔다. 거의 검은 머리털은 몹시 숱이 많고 숫양처럼 곱슬곱슬해서, 머리 위에 무슨 커다란 털모자처럼 얹혀 있었다. 게다가 머리털은 늘 흙과 진창에 더럽혀져 있었고, 작은 잎사귀며 나뭇조각이며 대팻밥이 들러붙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늘 땅바닥과 진창에서 잤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일리야는 집도 없고 쫄딱 망한 병든 읍민으로, 술을 지독히 마셨고, 역시 우리 고장 읍민인 어느 넉넉한 집에 벌써 여러 해째 일꾼 비슷하게 얹혀살았다. 리자베타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죽었다. 늘 병을 달고 사는 심술궂은 일리야는 리자베타가 집에 오면 사람 같지 않게 두들겨 패곤 했지만, 리자베타는 하느님의 성 바보로서 읍내 곳곳에 얹혀 지냈기에 집에 오는 일이 드물었다. 일리야의 주인들도, 일리야 자신도, 심지어 읍내의 동정심 많은 사람들 여럿도, 주로 상인과 상인의 아내들이, 리자베타에게 속옷 한 벌보다는 점잖은 옷을 입혀 보려고 여러 번

애썼고, 겨울이 다가오면 늘 양가죽 외투를 입히고 발에는 장화를 신겨 주었다. 그러나 리자베타는 대개 무엇이든 군말 없이 입혀 주는 대로 입고 나가서는, 어딘가에서, 주로 대성당 입구 층계에서 얻은 것을 틀림없이 모두 벗어 버렸다. 수건이든 치마든 양가죽 외투든 장화든 모두 그 자리에 두고, 전처럼 맨발에 속옷 한 벌 차림으로 떠나갔다. 한번은 우리 현의 새 지사가 우리 읍내를 잠깐 둘러보러 왔다가 리자베타를 보고 가장 고상한 감정이 몹시 상한 일이 있었다. 지사는 보고받은 대로 그 여자가 "성 바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속옷 한 벌만 걸치고 떠도는 젊은 처녀는 풍기를 어지럽히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사는 떠났고, 리자베타는 있던 그대로 남겨졌는데, 마침내 아버지가 죽자 그 여자는 고아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읍내의 모든 신앙심 깊은 이들에게 한층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모두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 같았고, 사내아이들조차 그 여자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았는데, 우리 고장 사내아이들은, 특히 학교 아이들은 장난이 심한 족속이다. 그 여자는 낯선 집에도 들어갔는데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나 쓰다듬어 주고 동전 한 닢이라도 주었고, 동전을 주면 그 여자는 받아서 곧바로 가져가 교회 헌금함이든 감옥 헌금함이든 아무 데나 넣었다. 장터에서 둥근 빵이나 흰 빵을 주면 틀림없이 가서 처음 만나는 아이에게 그 빵을 주었고, 아니면 우리 고장에서 제일가는 부잣집 마님을 붙잡아 세우고 그 마님에게 주었다. 그러면 마님들은 기뻐하며 받기까지 했다. 그 여자 자신은 오직 검은 빵과 물로만 끼니를 이었다. 그 여자가 부유한 가게에 들어가 앉곤 하면, 거기에는 비싼 물건도 놓여 있고 돈도 있었지만 주인들은 결코 그 여자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 여자 앞에 몇천 루블을 늘어놓고 잊어버려도 1코페이카도 가져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드물게 들어갔고, 잠은

교회 입구 층계에서 자거나 누군가의 바자울을 넘어가(우리 고장에는 지금까지도 판자 울타리 대신 바자울이 많다) 누군가의 텃밭에서 잤다. 집에는, 다시 말해 죽은 아버지가 얹혀살던 그 주인들 집에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났고, 겨울에는 날마다 오기도 했지만 오직 잠만 자러 왔으며, 현관 마루에서 자거나 외양간에서 잤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런 삶을 견디는 것에 놀랐지만, 그 여자는 이미 그렇게 길이 들어 있었다. 키는 작아도 체격은 남달리 튼튼했다. 우리 고장 나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여자가 그 모든 것을 오직 교만해서 한다고 우기기도 했지만, 어쩐지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 여자는 말 한마디 할 줄 몰랐고 이따금 혀를 무엇인가 놀리며 웅얼거릴 뿐이었으니, 무슨 교만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한번은(꽤 오래전 일이다) 보름달이 뜬 9월의 맑고 따뜻한 밤, 우리 고장 기준으로는 이미 몹시 늦은 시각에, 흥청망청 놀던 우리 고장 나리들의 술 취한 무리, 젊은 사내 대여섯이 클럽에서 "뒷길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골목 양쪽으로 바자울이 이어졌고, 그 너머로 이웃 집들의 텃밭이 뻗어 있었고, 골목은 우리 고장에서 이따금 시내라고 부르는 버릇이 있는, 길고 냄새나는 웅덩이에 걸친 널다리로 이어졌다. 바자울 곁 쐐기풀과 우엉 덤불 속에서 우리 일행은 잠든 리자베타를 보았고, 거나하게 취한 나리들은 그 여자 위에 멈춰 서서 껄껄 웃으며 할 수 있는 한 거리낌 없이 농을 지껄이기 시작했다. 한 도련님의 머리에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주제를 두고 아주 엉뚱한 물음이 떠올랐다. "누구든 이런 짐승을 여자로 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지금이라도 말이야, 등등." 모두가 오만한 혐오를 품고 그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무리 속에 마침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끼어 있었고, 그는 순식간에 튀어나와 여자로 칠 수 있다고, 아주 칠 수 있다고, 여기에는 오히려 무언가 특별한 종류의 짜릿함이 있다고, 등등, 등등 결론을 내렸다. 사실 그 무렵 그는 우리

고장에서 어릿광대 역을 너무나 꾸며 낸 티가 나게 자청했고, 튀어나와 나리들을 즐겁게 해 주기를 좋아했는데, 물론 겉으로는 대등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 앞에서 완전한 하인 근성을 보였다. 바로 그때가 그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첫 아내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모자에 상장(喪章)을 두른 채 술을 마시며 추태를 부리던 무렵이었는데, 그 꼴을 보면 읍내의 몇몇 사람들은, 가장 방탕한 축들조차 진저리를 쳤다. 무리는 물론 그 뜻밖의 의견에 박장대소했다. 무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부추기기까지 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지나치게 즐거워하면서도 한층 더 침을 뱉어 대더니, 마침내 모두 제 갈 길로 가 버렸다. 나중에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때 자기도 모두와 함께 떠났다고 맹세까지 하며 우겼다.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알았던 적도 없다. 그러나 대여섯 달쯤 지나자 읍내 사람들 모두가 리자베타가 아이를 밴 채 돌아다닌다고 진심으로 몹시 분개하며 떠들기 시작했고, 누구의 죄냐, 누가 몹쓸 짓을 했느냐고 묻고 캐고 다녔다. 바로 그때 갑자기 몹쓸 짓을 한 자가 다름 아닌 그 표도르 파블로비치라는 이상한 소문이 온 읍내에 퍼졌다. 이 소문은 어디서 나왔을까? 흥청거리던 나리들 무리 가운데 그 무렵 읍내에 남아 있던 이는 딱 한 사람뿐이었고, 그것도 가족과 장성한 딸들을 둔 지긋하고 존경받는 5등 문관[2]이었다. 그는 설령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결코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 아니었다. 나머지 무리, 다섯 사람쯤은 그때 이미 뿔뿔이 떠나고 없었다. 그러나 소문은 곧바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가리켰고 계속 가리켰다. 물론 그는 딱히 그 소문에 항변할 생각도 없었다. 무슨 상인 나부랭이나 읍민들에게라면 대꾸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때 그는 오만해서, 자기가 그토록 즐겁게 해 주던 관리와 귀족 패거리하고만 말을 섞었다. 바로 이 무렵 그리고리가 힘차게, 온 힘을 다해 제 주인 편에 섰고, 그

모든 중상에 맞서 주인을 감쌌을 뿐 아니라 주인을 위해 욕설과 말다툼까지 벌이며 많은 사람의 생각을 돌려놓았다. "그 천한 계집이 잘못한 거야." 그는 단정해서 말했다. 몹쓸 짓을 한 자는 다름 아닌 "나사못 카르프"라고 했다(그 무렵 읍내에 이름난 무서운 죄수로, 그때는 현의 감옥에서 달아나 우리 읍내에 몰래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이 짐작은 그럴듯해 보였으니, 사람들은 카르프를 기억했고, 바로 그 무렵, 가을이 다가오던 그 밤들에 그가 읍내를 어슬렁거리며 세 사람을 털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소문은 가엾은 성 바보 여자에게서 사람들의 동정을 거두어 가기는커녕, 모두가 그 여자를 한층 더 감싸고 보살피게 했다. 넉넉한 과부인 상인의 아내 콘드라티예바는 4월 말에 리자베타를 제 집으로 데려가 해산할 때까지 밖에 내보내지 않기로 손을 쓰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켰지만, 그렇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는데도 리자베타는 바로 마지막 날 저녁에 갑자기 몰래 콘드라티예바 집을 빠져나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정원에 나타났다. 그런 몸으로 높고 튼튼한 정원 울타리를 어떻게 넘었는지는 일종의 수수께끼로 남았는데, 어떤 이들은 누가 그 여자를 "옮겨다 주었다"고 우겼고, 다른 이들은 무엇이 그 여자를 "옮겨다 놓았다"고 우겼다. 아마 모든 일은 몹시 까다롭기는 해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이고, 밤을 지내려고 바자울을 넘어 남의 텃밭에 기어들어 갈 줄 알던 리자베타가 어떻게든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울타리에도 기어올랐다가, 그런 몸인데도, 그리고 몸을 다치면서도 정원으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리고리는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에게 달려가 리자베타를 도우라고 보내고, 저는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읍민 노파 산파를 부르러 뛰어갔다. 아기는 살렸지만 리자베타는 새벽녘에 죽었고, 그리고리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와서 아내를 앉히고 아기를 아내의 무릎 위에, 바로 가슴께에 내려놓았다. "하느님의 아이, 고아는 모두의 친척이고, 우리

둘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죽은 아이가 이 애를 보낸 거야. 이 애는 악마의 아들과 의로운 여자 사이에서 났어. 젖을 먹이고 앞으로는 울지 마라." 그렇게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아이를 길렀고, 세례를 주고 이름을 파벨이라고 지었는데, 부칭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들 저절로 표도로비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재미있다고까지 여겼지만,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계속 부인했다. 읍내 사람들은 그가 업둥이를 거둔 것을 좋게 보았다. 나중에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업둥이에게 성까지 지어 주었다. 그 애 어머니 리자베타 스메르댜샤야의 별명을 따서 스메르댜코프라고 불렀다. 바로 이 스메르댜코프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둘째 하인이 되어, 우리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 늙은 그리고리와 늙은 마르파와 함께 별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요리사로 일했다. 그에 대해서도 따로 꼭 몇 마디 덧붙여야 하겠지만, 이토록 평범한 하인들에게 독자의 주의를 이토록 오래 돌려놓는 것이 나는 송구스럽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로 넘어가며, 스메르댜코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어떻게든 저절로 말이 나오리라 믿는다.

---

1. 러시아의 길이 단위. 1아르신은 약 71센티미터로, 2아르신은 142센티미터쯤 된다.

2. 표트르 대제가 정한 관등표 14등급 가운데 5등에 해당하는 문관 관등.

제3장 뜨거운 마음의 고백. 시로

알료샤는 아버지가 수도원을 떠나며 마차에서 소리쳐 내린 명령을 듣고, 한동안 몹시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렇다고 기둥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몹시 불안한 가운데서도 곧바로 수도원장의 부엌에 들러 제 아버지가 위층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볼 겨를을 냈고, 그러고 나서 읍내로 가는 길에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풀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길을 떠났다. 미리 말해 두지만, 그는 아버지의 고함도, "베개와 요를 가지고" 집으로 옮겨 오라는 명령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소리 내어, 그렇게 보란 듯이 소리치며 내린 이사 명령은 "흥분해서", 말하자면 멋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다. 얼마 전 바로 그들의 읍내에서 흥청망청 술을 마신 어느 읍민이 제 명명일에 손님들 앞에서, 보드카를 더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갑자기 제 그릇을 깨부수고, 제 옷과 아내의 옷을 찢고, 제 가구를 부수고, 마침내 집 유리창까지 깼는데, 그것도 또 멋으로 그런 것과 비슷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아버지에게도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튿날 그 흥청거리던 읍민은 물론 술이 깨자 깨진 찻잔과 접시를 아까워했다. 알료샤는 노인도 이튿날이면 틀림없이 그를 다시 수도원으로 보내 주리라는 것을, 어쩌면 오늘 당장이라도 보내 주리라는 것을 알았고, 게다가 아버지가 다른 누구라면 몰라도 자기만은 모욕하려 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다. 알료샤는 온 세상 누구도 언제든 자기를

모욕하려 하지 않으리라고, 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공리였고, 따질 것 없이 단번에 영영 주어진 것이었으며, 그는 이런 뜻에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순간 그의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자신도 그것을 정의할 수 없었기에 그 두려움은 더욱 괴로웠다. 바로 여자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바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그 여자는 아까 호흘라코바 부인이 전해 준 쪽지에서 무엇 때문인지 자기에게 와 달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애원했다. 이 요청과 꼭 가야 한다는 필연은 곧바로 그의 가슴에 무언가 괴로운 감정을 심어 놓았고, 그 감정은 그 뒤 수도원에서 일어난 온갖 장면과 사건들에도, 방금 수도원장에게서 있었던 일 등등에도 불구하고, 아침 내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더욱 아프게 그의 안에서 쑤셔 왔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자기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는 점이 아니었고, 그가 그 여자에게서 두려워한 것은 여자 일반도 아니었다. 그는 물론 여자를 잘 몰랐지만, 그래도 평생, 갓난아기 때부터 수도원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여자들하고만 살았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여자, 바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그 여자를 본 그때부터 그 여자를 두려워했다. 그가 그 여자를 본 것은 모두 한두 번, 어쩌면 세 번쯤뿐이었고, 한번은 우연히 몇 마디를 나누기까지 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은 아름답고 오만하고 위엄 있는 처녀로 그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고, 바로 자기 두려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그 두려움을 더욱 키웠다. 그 처녀의 목적은 더없이 고결했고 그는 그것을 알았으니, 그 여자는 이미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의 형 드미트리를

구하려 애썼고, 그것도 오로지 너그러움에서 그러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답고 너그러운 감정을 알고 그 감정들에 마땅히 바쳐야 할 공정한 평가를 바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도, 그 여자의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등줄기에는 오싹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 여자와 그토록 가까운 이반 표도로비치 형은 그 여자 집에서 만나지 못하리라고 헤아렸다. 이반 형은 틀림없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다. 드미트리 형은 더더욱 만나지 못할 터였고, 그는 그 까닭을 예감했다. 그러니 그들의 대화는 단둘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숙명적인 대화에 앞서 드미트리 형을 먼저 만나 형에게 잠깐 들르고 싶은 마음이 몹시 들었다. 편지는 보여 주지 않고도 형과 무언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드미트리 형은 멀리 살았고, 틀림없이 지금은 집에 없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던 그는 마침내 단단히 마음을 정했다. 그는 익숙한 손짓으로 서둘러 성호를 긋고, 곧바로 무엇 때문인지 미소를 짓고는, 무서운 그 부인에게로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 여자의 집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로로 나갔다가 광장을 지나는 등등의 길로 가자면 꽤 멀었는데, 우리의 작은 읍내는 몹시 흩어져 있어서 거리가 꽤 먼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어쩌면 아버지는 아직 제 명령을 잊지 않았을 테고 변덕을 부릴 수도 있었으니, 이쪽저쪽 다 때맞춰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이 모든 생각 끝에 그는 뒷길로 질러가 길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읍내의 그런 샛길이라면 그는 다섯 손가락처럼 훤히 알고 있었다. 뒷길로 간다는 것은 길이랄 것도 거의 없이, 인적 없는 울타리를 따라, 때로는 남의 바자울을 넘고 남의 마당을 지나간다는 뜻이었는데, 하기야 그런 마당에서도 누구나 그를 알았고 모두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길로 가면 대로에 절반 거리로 닿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군데서는 아버지 집

바로 곁을, 다름 아니라 아버지 집과 이웃한 정원 곁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정원은 창이 넷 달린, 낡고 작고 기우뚱한 오두막에 딸린 것이었다. 알료샤가 알기로 그 오두막의 주인은 읍내의 한 읍민 여자로, 다리를 못 쓰는 노파였다. 노파는 딸과 함께 살았는데, 딸은 수도에서 세련된 하녀 노릇을 하며 얼마 전까지도 줄곧 장군 댁들을 옮겨 다니다가, 노파가 병이 나는 바람에 한 해쯤 전에 집으로 돌아와 멋들어진 옷을 뽐내고 다녔다. 그러나 이 노파와 딸은 지독한 가난에 빠져서, 이웃인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부엌으로 날마다 수프와 빵을 얻으러 다니기까지 했고,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수프를 떠 주었다. 그러나 딸은 수프를 얻으러 다니면서도 제 옷을 한 벌도 팔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한 벌에는 아주 긴 옷자락까지 달려 있었다. 이 마지막 사정을 알료샤는 물론 전혀 우연히, 그 읍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연코 다 알고 있는 친구 라키틴에게서 들었는데, 듣고 나서는 물론 곧바로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이웃 여자의 정원과 나란히 이르자, 그는 갑자기 바로 그 옷자락을 떠올리고는 생각에 잠겨 숙이고 있던 고개를 재빨리 들었다가…… 갑자기 더없이 뜻밖의 만남과 맞닥뜨렸다.

이웃집 정원의 바자울 너머에 그의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무엇인가를 딛고 올라서서 가슴까지 몸을 내밀고, 온 힘을 다해 그에게 손짓을 하며 그를 부르고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누가 들을까 봐 소리치기는커녕 소리 내어 말 한마디 하기도 겁내는 것이 분명했다. 알료샤는 곧바로 바자울로 달려갔다.

"네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너를 소리쳐 부를 뻔했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기쁘게, 다급하게 그에게 속삭였다. "이리 넘어와! 어서! 아, 네가 와서 정말 잘됐다. 막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료샤도 기뻤고, 다만 바자울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미탸"가 장사 같은 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붙잡아 뛰어넘는 것을 도왔다. 알료샤는 수도복 안옷 자락을 걷어 올리고, 맨발로 다니는 읍내 사내아이처럼 날렵하게 뛰어넘었다.

"자, 신나게 가자, 가자고!" 미탸의 입에서 열광에 찬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어디로?" 알료샤도 속삭이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자기들 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완전히 텅 빈 정원이었다. 정원은 작았지만 그래도 주인의 오두막은 그들에게서 적어도 쉰 걸음은 떨어져 있었다. "여기엔 아무도 없잖아. 왜 속삭여?"

"왜 속삭이냐고? 아, 제기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있는 대로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그래, 내가 왜 속삭이고 있지? 봐라, 자연이 이렇게 갑자기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니까. 나는 여기서 잠복하며 비밀을 지키고 있어. 설명은 나중에 하지. 그런데 비밀이라는 걸 아니까 말까지 갑자기 비밀스럽게 하게 되어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바보처럼 속삭이고 있구나. 가자! 저쪽으로!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 너한테 입 맞추고 싶다!

세상에 계신 지고하신 분께 영광,
내 안에 계신 지고하신 분께 영광!……

"방금 여기 앉아서 네가 오기 전에 이걸 되뇌고 있었어……"

정원은 넓이가 1데샤티나[1]이거나 그보다 조금 넓었지만, 나무는 네 울타리를 따라 빙 둘러서만 심겨 있었는데, 사과나무, 단풍나무, 보리수, 자작나무였다. 정원 한가운데는 비어 있었고 풀밭이었는데, 여름이면 거기서 건초를 몇 푸드쯤 베었다. 여주인은 봄이면 몇 루블을 받고 정원을 세놓았다. 산딸기와 구스베리와 까치밥나무 이랑도 있었는데,

그것들도 모두 울타리 곁에 있었고, 집 바로 곁에는 채소 이랑이 있었는데, 하기야 얼마 전에 일군 것이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손님을 정원에서 집과 가장 멀리 떨어진 한구석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빽빽이 선 보리수들과 묵은 까치밥나무 덤불, 딱총나무, 가막살나무, 라일락 사이로 갑자기 무언가 아주 오래된 초록 정자의 폐허 같은 것이 드러났다. 거무스름하게 바래고 기우뚱해진 정자로, 벽은 격자였지만 지붕은 덮여 있어서 아직 비를 피할 수는 있었다. 정자는 언제 지어졌는지 하느님이나 아실 일이었지만, 전해 오는 말로는 쉰 해쯤 전에 그 무렵 이 오두막의 주인이던 퇴역 중령 알렉산드르 카를로비치 폰 시미트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마루는 삭았고 마룻널은 모두 흔들렸으며 나무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났고, 정자 안에는 땅에 박아 세운 초록빛 나무 탁자가 있었고, 둘레에는 역시 초록빛인 걸상들이 놓여 있었는데 아직은 앉을 만했다. 알료샤는 곧바로 형이 열광에 들떠 있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정자에 들어서자 작은 탁자 위에 코냑 반병과 작은 술잔 하나가 보였다.

"코냑이야!" 미탸가 껄껄 웃었다. "그런데 너는 벌써 '또 술을 퍼마시는군' 하는 눈으로 보는구나? 허깨비를 믿지 마라.

공허하고 거짓된 무리를 믿지 마라,
네 의심일랑 잊어라……

"나는 퍼마시는 게 아니라 그저 '군것질'을 할 뿐이야. 네 돼지 같은 라키틴 말대로지. 그놈은 5등 문관이 될 거고, 평생 '군것질'이라는 말을 쓰겠지. 앉아라. 알료시카, 너를 붙잡아 가슴에 꽉 껴안고 싶다, 으스러지도록. 왜냐하면 온 세상에서…… 정말로…… 정, 말, 로…… (새겨들어! 새겨들어!) 나는 오직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

그는 마지막 줄을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내뱉었다.

"너 하나, 그리고 또 '비열한' 여자 하나. 그 여자한테 반해서 그 길로 끝장이 났지. 하지만 반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 반하는 건 미워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 기억해 둬! 지금은 신이 나니까 말하는 거야! 여기 탁자 앞에 앉아라. 나는 옆에 비껴 앉아 너를 보면서 다 말할 테니. 너는 내내 잠자코 있고 나는 내내 말할 거야. 때가 왔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생각해 보니 정말 조용히 말해야겠어. 여기는…… 여기는…… 더없이 뜻밖의 귀가 열릴 수 있으니까. 다 설명할게. 말했잖아,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왜 너한테 달려가고 싶었는지, 왜 지금 너를 갈망했는지, 요 며칠 내내, 그리고 지금도? (나는 벌써 닷새째 여기 닻을 내리고 있어.) 요 며칠 내내? 너한테만 다 말할 테니까, 그래야 하니까, 네가 필요하니까, 내일 내가 구름 위에서 떨어지니까, 내일 삶이 끝나고 또 시작되니까. 산에서 구덩이로 떨어지는 걸 겪어 본 적 있어, 꿈에서 본 적 있어? 그래, 나는 지금 꿈이 아니라 정말로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무섭지 않아. 너도 무서워하지 마. 아니, 무섭기는 한데 달콤해. 아니, 달콤한 게 아니라 환희야…… 에이, 제기랄, 무엇이든 상관없어. 센 기운이든, 약한 기운이든, 계집 같은 기운이든, 무엇이든! 자연을 찬양하자. 봐라, 햇빛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은 또 얼마나 맑은지, 잎사귀는 모두 푸르고, 아직 한여름이야. 오후 네 시, 이 고요함! 어디 가던 길이었어?"

"아버지한테 가는 길이었어. 그 전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댁에 들르려고 했고."

"그 여자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우와! 우연의 일치로군! 내가 왜 너를 불렀는데, 왜 너를 바랐는데, 왜 영혼의 굽이굽이로, 갈비뼈로까지 너를 목마르게 갈망했는데? 바로 너를 내 대신 아버지한테 보내고, 그다음엔 그 여자한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보내서, 그것으로 그 여자하고도 아버지하고도 끝장을 내려고. 천사를 보내려고. 아무나 보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천사를 보내야 했어. 그런데 너는 제 발로 그 여자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는구나."

"정말 나를 보내려고 했어?" 알료샤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얼굴과 함께 말이 터져 나왔다.

"잠깐, 너는 그걸 알고 있었어. 너는 모든 걸 단번에 알아차렸구나. 하지만 입 다물어, 지금은 입 다물어.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울지도 마!"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일어나 생각에 잠기더니 손가락을 이마에 댔다.

"그 여자가 너를 직접 불렀구나, 너한테 편지를 썼거나 뭔가를 해서.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는 거지. 아니면 네가 갔겠어?"

"여기 쪽지가 있어." 알료샤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미탸는 재빨리 쪽지를 훑어보았다.

"그런데 너는 뒷길로 왔구나! 오, 신들이여! 이 애를 뒷길로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옛이야기에서 늙은 바보 어부에게 걸린 금붕어처럼 이 애가 나한테 걸려들었구나. 들어 봐, 알료샤, 들어 봐, 동생아. 이제 나는 다 말할 작정이야. 누구에게든 말을 하기는 해야 하니까. 하늘의 천사에게는 이미 말했지만, 땅의 천사에게도 말해야 해. 너는 땅의 천사야. 너는 다 들어 줄 거고, 판단해 줄 거고,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야. 누군가 더 높은 이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것. 들어 봐. 두 존재가 갑자기 땅의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가 남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면, 아니면 적어도 그중 하나가 그렇다면, 그리고 그가 날아가기 전에, 또는 죽기 전에 다른 하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해 다오, 아무도 결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는, 오직 임종 자리에서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다오, 한다면, 정말 그는 들어주지 않겠어…… 친구라면, 형제라면?"

"들어줄게.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말해 줘, 어서 말해 줘." 알료샤가 말했다.

"어서라…… 흠. 서두르지 마, 알료샤. 너는 서두르고 불안해하는구나. 이제 서두를 것 없어. 이제 세상은 새 거리로 나섰어. 에이, 알료샤, 네가 환희에까지 생각이 미친 적이 없다니 안타깝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네가 생각이 미친 적이 없다니! 이 멍청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이여, 고결하라!

이건 누구 시지?"

알료샤는 기다리기로 했다. 어쩌면 정말로 지금 자기의 모든 일이 오직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깨달았다. 미탸는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손바닥에 고개를 기댄 채 잠깐 생각에 잠겼다. 둘 다 잠시 말이 없었다.

"료샤." 미탸가 말했다. "너만은 웃지 않을 거야! 나는 시작하고 싶어…… 내 고백을…… 실러의 「환희의 송가」로. 「환희에게(An die Freude)」! 하지만 나는 독일어를 몰라. 아는 거라곤 '환희에게'라는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취해서 지껄인다고 생각하지도 마. 전혀 취하지 않았어. 코냑은 코냑이지만, 나는 두 병은 마셔야 취해.

얼굴 불콰한 실레노스가
비틀거리는 나귀를 타고,

"그런데 나는 4분의 1병도 안 마셨고, 실레노스도 아니야. 실레노스가 아니라 실팍한 놈이지. 영원한 결심을 했으니까. 말장난은 용서해 줘. 너는 오늘 말장난뿐 아니라 많은 걸 나를 용서해야 해. 걱정 마, 나는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는 거고, 금방 요점으로 갈 거야. 질질 끌지는 않을게. 잠깐, 그게 어떻게 되더라……"

그는 고개를 들고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열광에 차서 읊기 시작했다.

겁에 질려 벌거벗은 채 사납게
혈거인은 바위 동굴에 숨어 살았고,
유목민은 들판을 떠돌며
들판을 황폐하게 했다.
창과 화살을 든 사냥꾼은
무섭게 숲을 내달렸다……
파도에 휩쓸려 반겨 줄 이 없는
기슭에 내던져진 자들에게 화 있으라!
올림포스의 봉우리에서
어머니 케레스가 내려온다,
빼앗긴 프로세르피나의 뒤를 좇아.
그 앞에 세상은 거칠게 누워 있다.
여신에게 몸 둘 곳도 대접도
그곳 어디에도 없고,
신을 섬기는 마음을
어느 신전도 증언하지 않는다.
들의 열매도 달콤한 포도송이도
잔칫상에서 빛나지 않고,
피 묻은 제단 위에서
주검의 남은 살만 연기를 피운다.
그곳에서 케레스가
슬픈 눈으로 어디를 둘러보아도
깊은 굴욕에 빠진
사람만 어디서나 보인다!

미탸의 가슴에서 갑자기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알료샤의 손을 붙잡았다.

"친구야, 친구야, 굴욕 속에, 지금도 굴욕 속에 있어. 사람이 땅 위에서 견뎌야 할 것이 무섭도록 많고,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이 무섭도록 많아! 내가 코냑이나 마시고 방탕하게 노는, 장교 계급을 단 상놈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 동생아, 나는 거의 이것만 생각해. 굴욕을 당한 이 사람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하느님, 이제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 자랑을 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사람이 비천함에서
영혼을 일으켜 세우려면
오랜 어머니 대지와
영원한 동맹을 맺어야 하리.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어떻게 대지와 영원한 동맹을 맺지? 나는 대지에 입 맞추지도 않고 대지의 가슴을 갈아엎지도 않아. 그럼 농군이나 목동이 되란 말이야? 나는 가면서도 모르겠어. 내가 악취와 치욕 속에 빠진 건지, 빛과 기쁨 속에 들어선 건지. 바로 그게 탈이야. 세상 모든 게 수수께끼니까! 그리고 내가 방탕의 가장, 가장 깊은 치욕 속에 빠져들 때마다(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일만 있었지) 나는 늘 케레스와 사람에 관한 이 시를 읊었어. 그 시가 나를 고쳐 주었냐고? 단 한 번도! 나는 카라마조프니까. 나는 심연으로 날아들 거라면 곧장, 거꾸로 곤두박질쳐 떨어지니까, 그것도 바로 이런 굴욕스러운 꼴로 떨어지는 게 흡족하기까지 하고, 그걸 나한테 어울리는 아름다움으로 여기니까. 그리고 바로 그 치욕 속에서 나는 갑자기 찬가를 시작해. 내가 저주받았어도, 내가 천하고 비열해도, 나도 내 하느님이 두르신 옷자락

끝에 입 맞추게 해 다오, 내가 그와 동시에 악마의 뒤를 따라간다 해도, 나는 그래도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기쁨 없이는 세상이 서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없지요.

하느님이 지으신 것의 영혼을
영원한 기쁨이 적셔 주고,
발효의 신비한 힘으로
생명의 잔을 불태운다.
기쁨은 풀잎을 빛으로 꾀어내고,
혼돈을 펼쳐 태양들을 이루어
별 보는 이의 눈이 닿지 않는
허공에 흩뿌렸다.
자애로운 자연의 젖가슴에서
숨 쉬는 모든 것이 기쁨을 마시고,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을
기쁨은 제 뒤로 이끈다.
불행 속에서 우리에게 벗을 주고,
포도즙과 카리스 여신들의 화관을 주었으며,
벌레에게는 호색을……
천사는 하느님 앞에 선다.

"하지만 시는 그만! 나는 눈물을 쏟았으니 너도 나를 울게 내버려 둬. 모두가 비웃을 어리석은 짓이라 해도, 너만은 비웃지 않겠지. 봐라, 네 눈도 반짝이잖아. 시는 그만. 이제 '벌레'에 대해, 하느님이 호색을 선물로 주신 그 벌레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벌레에게는 호색을!

"동생아, 내가 바로 그 벌레야. 이건 특별히 나를 두고 한 말이야. 그리고 우리 카라마조프 사람들은 모두 그래. 천사인 네 안에도 그

벌레가 살면서 네 핏속에 폭풍을 일으켜. 이건 폭풍이야, 호색은 폭풍이니까, 폭풍보다 더하니까! 아름다움은 무섭고 끔찍한 것이야! 무서운 건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고, 정의할 수 없는 건 하느님이 수수께끼만 내놓으셨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양쪽 기슭이 맞닿고, 여기서는 모든 모순이 함께 살아. 동생아, 나는 배운 게 정말 없지만 이걸 두고는 많이 생각했어, 비밀이 무섭도록 많고 너무 많은 수수께끼가 땅 위에서 사람을 짓누르지. 알아서 풀어 보고, 물에서 젖지 않고 빠져나와 봐라. 아름다움! 게다가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 마음까지 고결하고 높은 지성을 지닌 어떤 사람이 마돈나의 이상에서 시작해서 소돔의 이상으로 끝난다는 거. 더 무서운 건, 이미 영혼에 소돔의 이상을 품은 사람이 마돈나의 이상도 부정하지 않고, 그 이상 때문에 그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참으로, 참으로 불타오른다는 거야. 티 없던 젊은 시절처럼. 아니, 사람은 넓어, 너무나 넓어. 나라면 좁히겠어. 이게 대체 뭔지 귀신이나 알겠지, 바로 그거야! 이성에는 치욕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에는 온통 아름다움이야. 소돔에 아름다움이 있을까? 믿어 둬,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바로 그 소돔에 들어앉아 있어. 너는 이 비밀을 알았어, 몰랐어? 끔찍한 건 아름다움이 무서울 뿐 아니라 신비롭기까지 하다는 거야. 여기서 악마가 하느님과 싸우고, 그 싸움터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하기야 아픈 사람이 아픈 데 얘기를 하는 법이지. 들어 봐, 이제 본론으로 가자."

---

1. 러시아의 넓이 단위. 1데샤티나는 약 1.09헥타르. 뒤에 나오는 푸드는 무게 단위로, 1푸드는 약 16.4킬로그램이다.

제4장 뜨거운 마음의 고백. 일화로

"나는 거기서 흥청망청 놀았어. 아까 아버지는 내가 처녀들을 꾀느라 몇천 루블씩 썼다고 했지. 그건 돼지 같은 허깨비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있었던 일에는 사실 '그것'에 돈이 들지 않았어. 나한테 돈은 장식품이고 영혼의 열기이고 배경이야. 오늘은 이 여자가 내 귀부인이고, 내일은 그 자리에 거리의 계집애가 있지.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즐겁게 해 주고 돈을 한 줌씩 뿌리지. 음악, 떠들썩한 소리, 집시 여자들. 필요하면 그 여자한테도 주지. 다들 받거든, 아주 신이 나서 받아. 그건 인정해야 해. 그리고 만족하고 고마워해. 귀부인들도 나를 좋아했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있었지. 하지만 나는 늘 골목을, 광장 뒤의 외지고 어두운 뒷골목을 좋아했는데, 거기엔 모험이 있고, 뜻밖의 일이 있고, 진창 속에 금덩이가 있거든. 동생아, 나는 비유로 말하는 거야. 우리 읍내에는 그런 진짜 골목은 없었지만, 정신의 골목은 있었어. 네가 나 같은 놈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텐데. 나는 방탕을 좋아했고, 방탕의 치욕도 좋아했어. 잔인함을 좋아했지. 내가 빈대가, 고약한 벌레가 아니고 뭐겠어? 카라마조프라고 했잖아! 한번은 온 읍내가 소풍을 갔어. 트로이카 일곱 대에 나눠 타고 갔는데, 겨울에 어둠 속에서 썰매를 타고 가다가 나는 옆에 앉은 처녀의 손을 꼭 쥐기 시작했고, 그 애한테 억지로 입맞춤을 받아 냈어. 관리의 딸로, 가난하고 귀엽고 온순하고 대꾸 한 번 못 하는 애였지. 그 애는 허락했어, 어둠 속에서 많은 걸 허락했지. 가엾게도 그 애는 내가 내일 찾아와 청혼할 줄

알았지만(무엇보다 나는 신랑감으로 쳐주던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 뒤로 그 애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다섯 달 동안 반 마디도. 춤출 때면 (우리 고장에서는 걸핏하면 춤을 추거든) 그 애의 작은 눈이 홀 구석에서 나를 좇는 걸 보았고, 그 눈이 작은 불꽃으로, 온순한 분노의 작은 불꽃으로 타오르는 걸 보았어. 이 장난은 내가 내 안에서 길러 온 벌레의 호색만 즐겁게 해 주었지. 다섯 달 뒤 그 애는 어느 관리한테 시집가서 떠났어…… 화가 난 채로,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잘 봐 둬, 나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소문을 내서 망신을 주지도 않았어, 나는 욕망이 천하고 천한 걸 좋아하기는 해도 파렴치하지는 않아. 너 얼굴이 붉어지는구나, 눈이 번쩍했어. 이 진창 얘기는 너한테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이건 다 아직 그저 폴 드 코크 소설 같은 꽃봉오리일 뿐이었어, 잔인한 벌레가 이미 자라고 있었고 이미 영혼 속에서 무성해지고 있기는 했지만. 동생아, 여기엔 추억이 앨범 한 권이야. 하느님께서 그 귀여운 것들에게 건강을 내려 주시기를. 나는 헤어질 때 싸우지 않는 쪽을 좋아했고, 결코 배신하지 않았고, 결코 한 사람도 소문을 내서 망신시키지 않았어. 하지만 그만하자. 정말 내가 이런 쓰레기 얘기나 하려고 너를 여기로 불렀다고 생각했어? 아니, 더 흥미로운 걸 얘기해 줄게. 그런데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아도 놀라지 마."

"그건 내가 얼굴을 붉혀서 하는 말이구나." 알료샤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형의 말 때문에 붉어진 것도 아니고 형이 한 짓 때문에 붉어진 것도 아니야. 나도 형과 똑같은 사람이라서 붉어졌어."

"네가? 이거 좀 지나쳤구나."

"아니, 지나치지 않아." 알료샤가 열을 띠고 말했다(그 생각은 분명 오래전부터 그의 안에 있었다). "다 같은 계단이야. 나는 맨 아래 칸에 있고, 형은 위에, 열세 번째 칸쯤 어딘가에 있어. 나는 이 일을 그렇게

봐. 하지만 다 매한가지고 완전히 같은 성질이야. 아래 칸에 발을 디딘 사람은 어차피 틀림없이 위 칸에도 발을 디디게 돼."

"그러니까 아예 발을 디디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디디지 말아야지."

"그럼 너는, 할 수 있어?"

"못 할 것 같아."

"입 다물어, 알료샤, 입 다물어, 귀여운 녀석. 네 손에 입 맞추고 싶구나, 그냥 감동해서. 그 그루셴카라는 요망한 계집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데, 언젠가 나한테 그러더라. 언젠가 너를 잡아먹을 거라고. 입 다물게, 입 다물게! 파리 떼가 더럽혀 놓은 들판 같은 추잡한 얘기에서, 역시 파리 떼가, 그러니까 온갖 비열함이 더럽혀 놓은 들판인 내 비극으로 넘어가자. 실은 그 늙다리가 순진한 처녀를 꾀었다는 건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내 비극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거든. 딱 한 번뿐이었고, 그나마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나를 터무니없는 얘기로 나무란 그 영감은 정작 이 일은 몰라.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 지금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반은 빼고. 이반은 다 알아. 너보다 훨씬 전부터 알고 있어. 하지만 이반은 무덤이야."

"이반 형이 무덤이라고?"

"그래."

알료샤는 몹시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나는 그 대대에, 전선 대대에 소위로 있기는 했지만, 무슨 유형수처럼 감시를 받는 거나 다름없었어. 그런데 그 읍내는 나를 무섭도록 잘 받아 주었지. 나는 돈을 많이 뿌렸고, 다들 내가 부자라고 믿었어. 나 자신도 그렇게 믿었고. 하기야 다른 무언가로도 그 사람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야.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는 했어도 정말로 나를 좋아했어. 그런데 이미 노인이던 우리 중령이 갑자기 나를 싫어하게 되어서 나한테

트집을 잡았지만, 나한테는 뒷배가 있었고 게다가 온 읍내가 내 편이라 그리 마음대로 트집을 잡을 수도 없었어. 나도 잘못은 있었어. 마땅히 바쳐야 할 경의를 일부러 바치지 않았거든. 우쭐해서. 그 늙은 고집쟁이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손님 대접을 더없이 후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아내가 둘 있었다가 둘 다 죽었고, 첫째 아내는 무슨 평민 출신으로 역시 평민 같은 딸을 하나 남겼어. 내가 있을 때 그 딸은 벌써 스물네 살쯤 된 처녀였고, 아버지와 함께, 죽은 어머니의 언니인 이모와 같이 살았어. 이모는 말 한마디 못 하는 순박함이었고, 조카딸, 그러니까 중령의 맏딸은 활달한 순박함이었지. 나는 추억하며 좋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해. 이봐, 나는 그 처녀보다 더 사랑스러운 여자의 성품을 본 적이 없어. 이름은 아가피야였어, 생각해 봐, 아가피야 이바노브나. 게다가 생김새도 러시아 사람 취향으로 전혀 나쁘지 않아서 키가 크고 풍만하고 살집이 좋았고 눈이 아름다웠어, 얼굴은 좀 투박했다고 치더라도. 청혼한 사람이 둘이나 있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고 거절했고, 그래도 쾌활함을 잃지 않았어. 나는 그 처녀와 가까워졌어. 그런 쪽으로가 아니야, 아니, 거기엔 깨끗한 것만 있었어, 그냥 친구로. 나는 사실 여자들과 아주 죄 없이, 친구로 가까워진 적이 많아. 그 처녀한테 어찌나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지껄였는지, 와! 그런데도 그 처녀는 웃기만 했어. 잘 봐 둬, 많은 여자들이 터놓고 하는 얘기를 좋아해. 게다가 그 처녀는 숫처녀였으니, 그게 나를 몹시 즐겁게 했지.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었어. 그 처녀는 도저히 아가씨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게,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이모와 함께 살면서 어쩐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교계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았거든. 모두가 그 처녀를 좋아하고 필요로 했어. 솜씨 좋은 재봉사여서 재주가 있었고, 일을 해 주고도 돈을 요구하지 않고 호의로 해 주었지만, 선물을 주면 마다하지 않고 받았거든. 그런데 중령은, 그

사람은 어디 그랬나! 중령은 우리 고장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어. 살림을 크게 벌이고 온 읍내 사람을 대접했지. 만찬, 무도회. 내가 와서 대대에 들어갔을 때, 미인 중의 미인이고 수도의 어느 귀족 여학교를 막 졸업했다는 중령의 둘째 딸이 머지않아 수도에서 우리 고장에 온다고 온 읍내에 소문이 났어. 이 둘째 딸이 바로 그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야. 중령의 둘째 아내에게서 난 딸이지. 이미 죽은 그 둘째 아내는 이름 있는 집안, 무슨 대단한 장군 집안 출신이었는데, 하기야 내가 확실히 알기로는 그 여자도 중령에게 돈은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친척은 있었지만 그게 다였고, 무슨 기대 같은 것은 있었을지 몰라도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도 그 여학생이 오자(아주 오는 게 아니라 다니러 온 거였는데) 우리 읍내가 온통 새로워진 것 같았어. 우리 고장에서 가장 이름난 부인들이, 각하 부인 두 사람, 대령 부인 한 사람,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모두, 모두가 곧바로 나서서 그 처녀를 서로 모셔 가고 즐겁게 해 주기 시작했어. 무도회의 여왕, 소풍의 여왕이었지. 무슨 가정교사들을 돕는다며 활인화도 꾸며 냈어. 나는 잠자코 있었어. 나는 흥청망청 놀았고, 바로 그때 온 읍내가 떠들썩해질 만한 짓을 하나 저질렀지. 보니까 한번은 그 처녀가 눈으로 나를 훑어보더군. 포병 중대장 집에서였어. 그런데 그때 나는 다가가지 않았어. 인사를 나누는 것 따위는 깔본다는 뜻이었지. 그 처녀에게 다가간 건 얼마 지나서, 역시 어느 야회에서였는데, 내가 말을 걸자 그 처녀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경멸하듯 입술을 오므리더군.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기다려 봐라, 앙갚음해 줄 테니! 나는 그 무렵 대개 지독하게 막돼먹은 놈이었고, 스스로도 그걸 느꼈어. 무엇보다 내가 느낀 건, '카텐카'가 그냥 순진한 여학생 같은 게 아니라 성격이 있고 오만하고 정말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과 교양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 둘 다 없다는 거였어. 내가 청혼하려 했다고

생각해? 천만에. 그저 내가 이렇게 멋진 놈인데 그 처녀가 그걸 몰라주니까 앙갚음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사이 나는 흥청망청 놀고 난장판을 벌였어. 마침내 중령이 나를 사흘 동안 영창에 가뒀지. 바로 이 무렵, 내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포기한다는 정식 문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셈이 끝났다', 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낸 뒤에 아버지가 나한테 6천 루블을 보냈어.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동생아,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 아니 바로 요 며칠 전까지, 아니 어쩌면 오늘까지도 아버지와 나 사이의 이 모든 돈 다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그건 집어치우자, 그건 나중에. 아무튼 그때 그 6천 루블을 받고 나서, 나는 친구가 보낸 편지 한 통으로 갑자기 나한테 몹시 흥미로운 일 하나를 확실히 알게 됐어. 바로 우리 중령이 윗사람들 눈밖에 났다는 것, 무언가 질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그의 적들이 그에게 한 상 차려 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 과연 사단장이 와서 그를 호되게 꾸짖었어. 그러고 얼마 뒤에 퇴역 원서를 내라는 명령이 내려왔지.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을게. 그에게는 정말로 적들이 있었는데, 다만 갑자기 읍내에서 그와 그 집안 전체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차가워졌고, 모두가 갑자기 썰물처럼 물러났어. 그때 내 첫 번째 짓이 나왔어. 늘 우정을 지켜 온 아가피야 이바노브나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아버님한테 공금 4천 5백 루블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얼마 전에 장군님이 오셨을 때 다 있었는데……'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 처녀는 몹시 겁을 먹었어. '제발 겁주지 마세요, 누구한테서 들으셨어요?' 나는 말했지.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이 일이라면 내가 무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 말하자면, 이를테면 '혹시 몰라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님한테 그 4천 5백 루블을 내놓으라는데 아버님한테 그 돈이 없으면, 재판을

받고 늘그막에 졸병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그때 그 여학생을 나한테 몰래 보내세요. 마침 나한테 돈이 왔으니, 그 4천 루블쯤이야 어쩌면 덥석 내줄 수도 있고, 비밀은 거룩하게 지킬게요.' 그 처녀가 말하더군. '아, 당신은 정말 비열한 사람이에요(그대로 이렇게 말했어)! 정말 심술궂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 처녀는 몹시 분개해서 가버렸고, 나는 그 뒤에 대고 비밀은 거룩하고 굳게 지키겠다고 한 번 더 소리쳤어. 미리 말해 두지만, 이 두 여자, 그러니까 아가피야와 그 이모는 이 모든 일에서 순결한 천사들이었어. 그리고 그 오만한 동생 카탸를 정말로 숭배했고, 그 처녀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하녀 노릇을 했지…… 그런데 아가피야가 바로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그 대화를 그때 동생한테 전해 버렸어. 나는 나중에 그걸 다 손바닥 보듯 알게 됐어. 숨기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물론 나한테는 바로 그게 필요했지.

"그런데 갑자기 새 소령이 대대를 인수하러 와서 인수를 시작했는데, 늙은 중령은 갑자기 병이 나서 꼼짝도 못 하고 이틀 동안 집에 들어앉아 공금을 넘기지 않았어. 우리 군의관 크랍첸코는 정말로 병이 났다고 장담했어. 그런데 나는 그 돈이 상관들의 검열을 받고 나면 그때마다, 그것도 벌써 네 해째 줄곧, 한동안 사라졌다는 걸 비밀로, 그것도 오래전부터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 중령은 그 돈을 더없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빌려주었어. 우리 고장의 상인으로, 홀아비 노인이고, 금테 안경을 쓴 턱수염쟁이 트리포노프였지. 그 사람은 장에 가서 필요한 장사를 한 바퀴 돌리고, 곧바로 돈을 고스란히 중령에게 돌려주었고, 그러면서 장에서 선물도 가져오고, 선물과 함께 이자도 조금 얹어 주었지. 그런데 이번에는(나는 그때 이 모든 걸 전혀 우연히, 트리포노프의 침 흘리는 어린 아들이자 상속자, 세상에 나온 가장 방탕한 사내아이 녀석한테서 알아냈어) 이번에는 말이야, 트리포노프가

장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어. 중령이 그에게 달려갔지. '나는 당신한테서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고 받을 수도 없었소.' 이게 대답이었어. 그래서 우리 중령은 그렇게 집에 들어앉아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있었고, 그 세 여자가 모두 그의 정수리에 얼음을 대 주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장부와 명령서를 들고 왔어. '공금을 넘길 것, 당장, 지체 없이, 두 시간 안에.' 그는 서명을 했어. 나는 나중에 장부에서 그 서명을 보았어. 그러고는 일어나서 제복을 입으러 간다고 하더니, 제 침실로 달려가서 쌍발 사냥총을 집어 들고 장전하고 군용 탄환을 밀어 넣고, 오른발에서 장화를 벗고, 총구를 가슴에 대고 발로 방아쇠를 더듬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가피야는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이미 의심하고 있었기에, 살금살금 다가가 때맞춰 엿보고는 뛰어 들어가 뒤에서 그에게 달려들어 끌어안았어. 총은 위로, 천장으로 발사됐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뛰어 들어와 그를 붙잡고 총을 빼앗고 팔을 붙들었지…… 이 모든 걸 나는 나중에 하나하나 다 알아냈어. 그때 나는 집에 있었고, 땅거미가 지고 있었어. 막 나가려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손수건에 향수를 뿌리고 군모를 집어 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내 앞에, 내 하숙방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서 있었어.

"이상한 일도 다 있지. 그때 그 처녀가 나한테 오는 걸 거리에서 아무도 보지 못해서, 읍내에서는 그 일이 그대로 묻혀 버렸어. 나는 관리의 아내였던 늙디늙은 할멈 둘한테서 방을 빌렸는데, 그 할멈들이 내 시중도 들었어. 공손한 아낙들이라 무엇이든 내 말을 들었고, 나중에 내 명령대로 둘 다 무쇠 기둥처럼 입을 다물었지. 물론 나는 모든 걸 곧바로 알아차렸어. 그 처녀는 들어와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 검은 눈은 단호하게, 대담하기까지 하게 바라보았지만, 입술에, 입술 언저리에 망설임이 보였어.

'"언니가 그러는데, 제가 직접…… 당신에게 오면 4천 5백 루블을 주신다고요. 제가 왔어요…… 돈을 주세요!……' 그 처녀는 견디지 못하고 숨이 막혔어. 겁에 질렸고, 목소리가 끊겼고, 입꼬리와 입술 둘레의 선들이 떨렸어. 알료시카, 듣고 있어, 아니면 자고 있어?"

"미탸 형, 형이 진실을 다 말하리라는 걸 알아." 알료샤가 흥분해서 말했다.

"바로 그 진실을 말할 거야. 진실을 다 말한다면, 일은 이렇게 됐어. 나를 봐주지 않을게. 처음 든 생각은 카라마조프다운 생각이었어. 동생아, 한번은 팔랑가 독거미한테 물려서 두 주 동안 열에 들떠 누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심장을 팔랑가가, 그 고약한 벌레가 무는 게 느껴졌어. 알겠어? 나는 그 처녀를 눈으로 훑어보았어. 너 그 처녀 본 적 있지? 정말 미인이야. 그런데 그때 그 처녀가 아름다웠던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 그 순간 그 처녀가 아름다웠던 건, 그 처녀는 고결하고 나는 비열한 놈이기 때문이었어. 그 처녀는 너그러움과 아버지를 위한 희생의 위대함 속에 있고, 나는 빈대이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 처녀가 빈대이자 비열한 놈인 나한테 온통 매여 있었어. 온통, 온통 다, 영혼도 몸도. 꼼짝없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지. 솔직히 말할게. 그 생각이, 팔랑가의 생각이 내 심장을 어찌나 사로잡았는지, 심장이 애타는 것만으로도 피를 다 쏟을 뻔했어. 이젠 아무 싸움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어. 바로 빈대처럼, 고약한 타란툴라처럼 아무 동정도 없이 행동하면 되는 거였어…… 숨까지 막혔어. 들어 봐. 나는 물론 바로 이튿날 청혼하러 찾아갔을 거야, 이 모든 걸 말하자면 가장 고결하게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일을 모르게, 알 수도 없게 하려고. 나는 욕망은 천해도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1초 사이에 누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 '이런 여자라면 내일 네가 청혼하러 가도 나오지도 않고 마부를 시켜 너를 마당에서 내쫓을 거야.

온 읍내에 소문을 내 보시지, 당신 따위 무섭지 않으니까, 하고!' 그 처녀를 보니 내 속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물론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목덜미를 잡혀 쫓겨날 거야. 지금 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지. 내 안에서 악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더없이 비열하고 돼지 같은, 상인 나부랭이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싶어졌어. 비웃음을 띠고 그 처녀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처녀가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상인 나부랭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투로 그 처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어.

"'4천 루블이라고요! 아니, 농담이었습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쉽게 믿고 셈을 하셨군요, 아씨. 200루블쯤이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4천 루블은 그런 경솔한 일에 내던질 돈이 아니올시다, 아가씨. 공연히 수고만 하셨습니다요.'

"알겠어, 그랬다면 나는 물론 모든 걸 잃었을 거고 그 처녀는 달아났겠지만, 그 대신 지옥처럼, 복수하듯 통쾌했을 테고, 나머지 모든 걸 잃어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을 거야. 나중에 평생 뉘우치며 울부짖더라도, 지금 이 장난 하나만 쳐 볼 수 있다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어떤 여자와도, 단 한 여자와도, 그런 순간에 그 여자를 미움을 품고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때 그 처녀를 3초인가 5초 동안 무시무시한 미움을 품고 바라보았어. 바로 그런 미움, 사랑까지, 더없이 미친 사랑까지 머리카락 한 올 차이밖에 안 되는 그런 미움을! 나는 창가로 가서 꽁꽁 언 유리에 이마를 댔는데, 얼음이 불처럼 이마를 데게 한 걸 기억해. 오래 끌지는 않았으니 걱정 마, 돌아서서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5천 루블짜리 5퍼센트 무기명 채권을 꺼냈어(프랑스어 사전 속에 끼워 두었지). 그러고는 말없이 그 처녀에게 보여 주고, 접어서 건네주고, 손수 현관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 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처녀에게 허리 굽혀 절했어. 더없이 공손하고 더없이 마음을 담은 절이었어, 믿어 줘! 그 처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1초 동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식탁보처럼 무섭도록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역시 한마디 말도 없이,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깊이, 조용히 온몸을 숙여 곧장 내 발치에 엎드렸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여학생처럼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답게!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달려 나갔어. 그 처녀가 뛰어나갔을 때 나는 군도를 차고 있었어. 나는 군도를 뽑아 그 자리에서 나를 찔러 죽이려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몰라, 물론 무섭도록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아마 환희 때문이었을 거야. 너는 알겠어? 어떤 환희는 사람을 자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러나 나는 나를 찌르지 않고 군도에 입만 맞추고 다시 칼집에 꽂았어. 하기야 이 얘기는 너한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리고 아무래도 나는 지금 그 모든 싸움 얘기를 하면서 나를 자랑하려고 조금 늘어놓은 것 같아. 하지만 그러라지, 그대로 두라지. 사람 마음을 엿보는 염탐꾼들은 다 귀신이나 잡아가라지! 이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있었던 그 '일'의 전부야. 이제 이 일을 아는 건 이반하고 너뿐이야, 그게 다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일어나서 흥분한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더니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닦고는 다시 앉았다. 그러나 아까 앉았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 맞은편 벽 쪽 걸상에 앉았으므로 알료샤는 그에게로 완전히 몸을 돌려야 했다.

제5장 뜨거운 마음의 고백. "곤두박질"

"이제," 알료샤가 말했다. "이 일의 앞쪽 절반은 알겠어."

"앞쪽 절반은 너도 이해하겠지. 그건 드라마고, 거기서 일어났어. 그런데 뒤쪽 절반은 비극이고, 여기서 일어날 거야."

"뒤쪽 절반은 아직 하나도 모르겠어." 알료샤가 말했다.

"그럼 나는? 나는 뭐 알고 있는 줄 알아?"

"잠깐, 드미트리 형, 여기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 말해 줘. 형은 약혼자잖아, 지금도 약혼자지?"

"약혼자가 된 건 그 일 직후가 아니라 그 일이 있고 꼭 석 달이 지나서였어. 그 일이 있던 바로 이튿날 나는 이 일은 바닥까지 다 끝났다, 이어질 일은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청혼하러 가는 건 비열한 짓 같았지. 그 처녀 쪽에서도 그 뒤 우리 읍내에서 지낸 여섯 주 내내 한마디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 정말로, 딱 한 번 말고는. 그 처녀가 찾아온 이튿날 그 집 하녀가 나한테 살그머니 와서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넸는데, 봉투에는 받는 사람, 아무개라고 적혀 있었지. 뜯어 보니 5천 루블짜리 채권의 거스름돈이었는데, 필요한 건 4천 5백 루블뿐이었지만 5천 루블짜리 채권을 파느라 200루블 남짓 손해가 났거든. 그 처녀는 나한테 모두 260루블쯤 보냈어. 잘 기억은 안 나. 그리고 돈만 보냈어. 쪽지도, 한마디 말도, 설명도 없이. 나는 봉투에서 연필로 쓴 무슨 표시라도 있나 찾아보았지. 아, 아무것도 없더군! 그래서 나는 그사이에 남은 돈으로 흥청망청 놀았고, 그 바람에 새 소령도 끝내 나한테 견책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어. 그런데 중령은 공금을 넘겼어. 무사히, 그리고 모두가 놀라게. 그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리라고는 이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 돈을 넘기고는 병이 나서 몸져누웠는데, 세 주쯤 누워 있다가 갑자기 뇌연화증이 와서 닷새 만에 죽었고, 퇴역 명령을 받기도 전이라 군장(軍葬)으로 묻혔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언니와 이모는 아버지를 묻고 열흘쯤 지나 모스크바로 떠났어. 그런데 떠나기 직전, 바로 그들이 떠나던 날(나는 그들을 보지도 배웅하지도 않았어), 나는 아주 작은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파란 봉투에 레이스 무늬 종이였고, 거기 연필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 '편지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K.' 그게 다야.

"이제 두 마디로 설명해 줄게. 모스크바에서 그들의 일은 번개처럼 빠르게, 아라비안나이트처럼 뜻밖으로 돌아갔어. 그 처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그 장군 부인이 갑자기 한꺼번에 가장 가까운 상속인 둘을, 가장 가까운 조카딸 둘을 잃었어, 둘이 같은 주에 천연두로 죽고 만 거야. 충격을 받은 노부인은 카탸를 친딸처럼, 구원의 별처럼 반기며 덥석 달려들었고, 곧바로 유언장을 그 처녀에게 이롭게 고쳤지만, 그건 앞날의 일이고, 우선 지금은 손에 바로 8만 루블을 쥐여 주었지. 자, 이게 네 지참금이다, 마음대로 써라, 하면서. 신경질적인 여자야. 나중에 모스크바에서 지켜보았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한테 우편으로 4천 5백 루블이 왔어. 물론 나는 어리둥절해서 말 못 하는 짐승처럼 놀랐지. 사흘 뒤 약속한 편지도 왔어. 그 편지는 지금도 나한테 있어. 늘 몸에 지니고 있고, 그걸 지닌 채 죽을 거야. 보여 줄까? 꼭 읽어 봐. 신부가 되겠다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내놓는 거야. '미치도록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저 내 남편이 되어 주세요. 겁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당신을 거북하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의 가구가 될게요, 당신이 밟고 다니는 그 양탄자가 될게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구하고 싶어요……' 알료샤, 나는 이 구절들을 내 비열한 말로, 내 비열한 말투로, 평생 한 번도 고치지 못한 늘 그 비열한 말투로 옮길 자격조차 없어! 그 편지는 오늘까지 나를 꿰뚫고 있어. 그러니 지금 내가 편하겠어, 오늘 내가 편하겠어? 나는 그때 곧바로 답장을 썼어(나는 도저히 직접 모스크바로 갈 수가 없었거든). 눈물로 썼지. 딱 한 가지가 영원히 부끄러워. 그 처녀는 이제 부자이고 지참금도 있는데 나는 거지 같은 막돼먹은 놈일 뿐이라고 썼거든. 돈 얘기를 꺼낸 거야! 참았어야 했는데 펜 끝에서 미끄러져 나왔어. 그때 곧바로 모스크바에 있는 이반에게도 편지를 써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설명했고(여섯 장이나 되는 편지였지), 이반을 그 처녀에게 보냈어. 왜 그렇게 봐,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그래, 이반은 그 처녀에게 반했어. 지금도 반해 있어. 나는 알아. 너희 말로, 사교계 말로 하면 나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어리석은 짓 하나가 이제 우리 모두를 구할지도 몰라! 아! 그 처녀가 이반을 얼마나 우러르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너는 안 보여? 우리 둘을 견주어 보고도 그 처녀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할 수 있겠어? 게다가 여기서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그 여자가 형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이반 형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

"그 여자는 제 덕을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러나 거의 독기를 품고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웃었지만, 1초 뒤에 그의 눈이 번득였고 얼굴이 온통 새빨개지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맹세해, 알료샤." 그가 자기 자신에게 무섭고도 진실한 분노를 터뜨리며 외쳤다. "믿든 말든,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처럼 맹세하는데, 나는 방금 그 여자의 고상한 감정을

비웃었지만, 내가 영혼으로 그 여자보다 백만 배는 보잘것없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의 그 고운 감정이 하늘의 천사처럼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 비극은 바로 내가 그걸 확실히 안다는 데 있어. 사람이 조금 연설조로 떠든다고 그게 뭐 어때? 나는 연설조로 떠들지 않나? 그래도 나는 진실해, 진실하다고. 이반으로 말하자면, 이반이 지금 어떤 저주를 품고 자연을 바라보아야 할지 나는 알아. 게다가 그런 지성을 지녔으니! 누구에게, 무엇에게 그 여자의 선택이 돌아갔지? 여기서 이미 약혼자가 되어서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것도 약혼녀가 보는 앞에서, 약혼녀가 보는 앞에서 제 난봉을 참지 못한 괴물에게 돌아갔어! 그런데 나 같은 놈이 선택되고 이반은 버림받아. 그런데 무엇 때문이지? 그 처녀가 고마운 마음에서 제 삶과 운명을 억지로 짓밟으려 하기 때문이야! 터무니없는 일이지! 나는 이 일을 두고 이반에게 한 번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이반도 물론 나한테 한 번도 반 마디도, 털끝만 한 암시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운명은 이루어질 테고, 자격 있는 자는 제자리에 서고, 자격 없는 자는 영영 골목으로 숨어들 거야, 제 더러운 골목으로, 제가 사랑하고 제게 걸맞은 골목으로. 그리고 거기 진창과 악취 속에서 제 발로 즐거워하며 망할 거야. 내가 뭔가 헛소리를 하는군. 말이 다 닳아 빠져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정한 대로 될 거야. 나는 골목에 빠져 죽고, 그 여자는 이반에게 시집갈 거야."

"형, 잠깐." 알료샤가 몹시 불안해하며 다시 말을 끊었다. "그래도 여기엔 형이 아직 나한테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형은 약혼자잖아, 그래도 형은 약혼자잖아? 약혼녀가 원하지 않는데 형은 어떻게 끊겠다는 거야?"

"나는 약혼자야. 축복까지 받은 정식 약혼자. 모든 건 내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거기서 이루어졌어. 성대하게, 성상을 모시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장군 부인이 축복해 주었고, 믿겠어? 카탸한테 축하까지 해

주었어. 얘야, 잘 골랐다, 나는 저 사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본다, 하면서. 그리고 믿겠어? 이반은 싫어하고 축하해 주지 않았어. 모스크바에서 나는 카탸와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 나 자신을 고결하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다 그려 보였지. 그 처녀는 다 들었어.

사랑스러운 수줍음이 있었고,
다정한 말들이 있었네……

"그래, 말은 오만하기도 했어. 그 처녀는 그때 나한테서 행실을 고치겠다는 큰 약속을 억지로 받아 냈어. 나는 약속했지.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나는 오늘, 오늘 이날에(기억해 둬!) 너를 불러 여기로 끌고 왔어. 너를 보내려고. 그것도 또 오늘 당장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그리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 말하라고. 나는 다시는 결코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안부를 전하라더라고."

"정말 그게 될 일이야?"

"그게 될 일이 아니니까 내 대신 너를 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걸 어떻게 말해?"

"그럼 형은 어디로 갈 건데?"

"골목으로."

"그러니까 그루셴카한테!" 알료샤가 두 손을 마주 치며 비통하게 외쳤다. "그럼 정말 라키틴이 사실을 말한 거야? 나는 형이 그 여자 집에 그냥 몇 번 다니다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약혼자가 그런 데를 드나들어? 그게 될 말이야? 게다가 그런 약혼녀를 두고, 사람들 눈앞에서? 나도 체면은 있잖아. 그루셴카한테

드나들기 시작한 그 순간 나는 곧바로 약혼자도, 정직한 사람도 아니게 됐어. 그건 나도 알아. 왜 그렇게 봐? 실은 말이야, 처음에 나는 그 여자를 두들겨 패러 갔어. 나는 알아냈고 지금은 확실히 아는데, 그 2등 대위, 아버지의 대리인이 내 앞으로 된 어음을 그루셴카한테 넘겼어, 그 여자가 돈을 받아 내게 해서 내가 잠잠해지고 끝장나게 하려고. 겁을 주려던 거지. 그래서 나는 그루셴카를 패러 나섰어. 그 여자는 전에도 얼핏 본 적이 있었어. 사람을 놀라게 할 여자는 아니야. 늙은 상인 얘기도 알고 있었는데, 그 영감은 지금 게다가 병까지 들어서 기운 없이 누워 있지만 그래도 그 여자한테 상당한 몫을 남길 거야. 그 여자가 돈 모으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어. 돈을 모으고, 지독한 이자로 돈을 놓고, 교활하고 요망하고 인정사정없지. 나는 그 여자를 패러 갔다가 그 여자 집에 그만 눌러앉고 말았어. 뇌우가 몰아쳤고 역병이 덮쳤어. 나는 병이 옮았고 지금까지도 앓고 있어. 이제 다 끝났다는 것, 다른 일은 아무것도 결코 없으리라는 걸 알아. 시대의 순환이 끝났어. 이게 내 사정이야. 그런데 그때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거지인 내 주머니에 갑자기 3천 루블이 생겼어. 우리는 그 여자와 여기서 25베르스타 떨어진 모크로예로 갔고, 나는 거기로 집시들을, 집시 여자들을 데려오고 샴페인을 구해 왔고, 거기 농군들을 모두 샴페인으로 잔뜩 먹이고, 아낙과 처녀들을 모두 먹였어. 몇천 루블을 뿌렸지. 사흘 뒤 나는 알거지가 됐지만 매처럼 의기양양했어. 그 매가 무얼 얻었다고 생각해? 멀리서도 보여 주지 않았어. 너한테 말하는데, 굽이야. 그 요망한 그루셴카한테는 몸에 그런 굽이가 하나 있어. 그게 그 여자의 발에도 비치고, 왼발 새끼발가락에까지 울려 퍼져 있어. 나는 그걸 보았고 입 맞추었어. 하지만 그게 다야, 맹세해! 그 여자가 그래. '원하면 시집갈게, 당신은 거지니까. 나를 때리지 않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해 봐. 그러면 어쩌면 시집갈지도 몰라.' 그러면서 웃어. 지금도 웃고 있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거의 무슨 광기 어린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눈에 갑자기 핏발이 섰다.

"그럼 정말로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야?"

"그 여자가 원하면 당장,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거야. 그 여자 집 마당지기가 되겠어. 너…… 너, 알료샤……" 그는 갑자기 알료샤 앞에 멈춰 서더니 그의 두 어깨를 붙잡고 갑자기 세게 흔들기 시작했다. "너 알아, 이 순진한 녀석아, 이건 다 헛소리야, 있을 수 없는 헛소리야. 여기엔 비극이 있으니까! 알아 둬, 알렉세이. 나는 천한 사람일 수 있고, 천하고 타락한 욕정을 지닐 수 있지만, 도둑, 소매치기, 남의 집 현관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은,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결코 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알아 둬. 나는 좀도둑이야, 소매치기에 현관 좀도둑이야! 내가 그루셴카를 패러 가기 바로 전, 바로 그날 아침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나를 불렀어. 그러고는 무시무시한 비밀로, 당분간 아무도 모르게(무엇 때문인지는 몰라, 그래야 했던 모양이야) 현청 소재지에 가서 거기서 우편으로 3천 루블을 모스크바의 아가피야 이바노브나에게 부쳐 달라고 부탁했어. 현청 소재지로 가라고 한 건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였지. 바로 그 3천 루블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나는 그때 그루셴카 집에 있게 됐고, 그 돈으로 모크로예에 갔고, 그러고 나서 나는 현청 소재지에 다녀온 척했지만 우편 영수증은 내보이지 않았어. 부쳤다고, 영수증은 가져오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안 가져가고 있지. 잊었습죠. 자, 이제 네 생각은 어때. 네가 오늘 가서 그 여자한테 '안부를 전하라더군요' 하고 말하면, 그 여자는 너한테 '그럼 돈은요?' 할 거야. 너는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 '그 사람은 천한

호색한이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비열한 존재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당신 돈을 부치지 않고 써 버렸습니다. 짐승처럼 참지 못해서요.' 하지만 그래도 너는 이렇게 덧붙일 수 있었을 거야. '그 대신 그 사람은 도둑은 아닙니다. 여기 당신의 3천 루블이 있습니다. 돌려보냈으니 직접 아가피야 이바노브나에게 부치십시오. 그리고 안부를 전하라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그 여자가 '그럼 돈은 어디 있어요?' 하겠지."

"미탸 형, 형은 불행해, 그래! 하지만 형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야. 절망으로 자신을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그럼 넌 내가 갚을 3천 루블을 못 구하면 권총으로 자살할 거라고 생각해? 문제는 바로 자살하지 않으리라는 거야.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 나중에는 모르지만, 지금 나는 그루셴카한테 갈 거야…… 될 대로 되라지!"

"그 여자한테 가서는?"

"그 여자 남편이 될 거야. 배우자로 대접받을 거야. 그리고 정부가 오면 다른 방으로 나가 있을 거야. 그 여자 친구들의 진흙 묻은 덧신을 닦아 주고, 사모바르에 불을 불어 넣고, 심부름을 다니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다 이해할 거야." 알료샤가 갑자기 엄숙하게 말했다. "이 모든 슬픔의 깊이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야. 그 사람은 지성이 높으니까. 형보다 더 불행할 수는 없다는 걸 그 사람도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 여자는 모든 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미탸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동생아, 여기엔 어떤 여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뭔데?"

"그 여자한테 3천 루블을 돌려주는 거야."

"어디서 구해? 들어 봐, 나한테 2천 루블이 있어. 이반 형도 1천 루블을 줄 거야. 그럼 3천이잖아. 그걸 받아서 돌려줘."

"그런데 네 3천 루블은 언제 들어오는데? 게다가 너는 아직 미성년자야. 그런데 너는 꼭, 꼭 오늘 그 여자한테 작별 인사를 해야 해.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더는 끌 수가 없어. 일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 내일이면 이미 늦어, 늦어. 너를 아버지한테 보낼 거야."

"아버지한테?"

"그래, 그 여자한테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3천 루블을 달라고 해."

"하지만 미탸 형, 아버지는 주지 않을 거야."

"주기는커녕, 안 줄 줄 알아. 알렉세이, 절망이 무엇인지 너 알아?"

"알아."

"들어 봐. 법으로 따지면 아버지는 나한테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버지한테서 다 받아 갔어, 다.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도덕으로 따지면 아버지는 나한테 빚이 있어. 그렇지, 안 그래? 아버지는 어머니의 2만 8천 루블로 시작해서 10만 루블을 모았잖아. 2만 8천 루블 가운데 고작 3천 루블만, 고작 3천 루블만 나한테 주면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는 거고, 그건 아버지의 많은 죄를 갚는 셈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3천 루블로, 너한테 굳게 약속하는데, 다 끝내고 아버지는 다시는 내 소식을 아예 듣지 않게 될 거야. 아버지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하느님께서 몸소 아버지에게 이 기회를 보내신다고 말해 줘."

"미탸 형, 아버지는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안 줄 줄 알아, 완벽하게 알아. 지금은 더더욱. 그뿐 아니라 나는 이런 것도 알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바로 어쩌면 어제, 아버지는 그루셴카가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어쩌면 나한테 시집오려고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걸 처음으로 진지하게(밑줄 쳐 둬, 진지하게) 알게 됐어. 아버지는 그 성미를 알아, 그 고양이를 알아. 그러니 제가 그 여자한테 정신이 나가 있는데, 그런 일을 거들라고 나한테 돈까지 주겠어?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모자라. 더 많은 걸 너한테 내놓을 수 있어. 나는 알아. 아버지가 벌써 닷새쯤 전에 3천 루블을 꺼내서 백 루블짜리 지폐로 바꾸어, 커다란 봉투에 넣고 봉인을 다섯 개 찍고, 그 위를 빨간 끈으로 열십자로 묶어 두었다는 걸. 봐라, 내가 얼마나 자세히 아는지! 봉투에는 '내 천사 그루셴카에게, 오겠다면'이라고 적혀 있어. 혼자 조용히, 몰래 휘갈겨 썼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돈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 하인 스메르댜코프 말고는. 아버지는 그놈의 정직함을 제 자신처럼 믿거든. 아버지는 벌써 사흘째인가 나흘째 그루셴카를 기다리고 있어. 그 여자가 봉투를 가지러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기별을 했고, 그 여자는 '어쩌면 갈지도 모른다'고 기별을 했어. 그러니 그 여자가 영감한테 가면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어?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여기 잠복해 앉아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자를?"

"그 여자를. 이 집 여주인들, 그 매춘부들한테 포마가 작은 골방을 하나 빌려 살아. 포마는 우리 고장 사람이고, 예전에 우리 부대 병사였어. 그 여자들 집에서 잡일을 해 주고 밤에는 집을 지키고 낮에는 멧닭을 쏘러 다니며 그렇게 먹고살아. 나는 여기 그 사람 방에 눌러앉았어. 그 사람도 여주인들도 비밀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다는 걸."

"스메르댜코프만 알아?"

"그놈 하나만. 그 여자가 영감한테 오면 그놈이 나한테 알려 주기로 했어."

"봉투 얘기도 그 사람이 형한테 해 준 거야?"

"그놈이지. 더없이 큰 비밀이야. 이반조차 돈에 대해서도, 그 무엇에 대해서도 몰라. 그런데 영감은 이반을 체르마시냐로 이틀이나 사흘쯤 한 바퀴 다녀오라고 보내려 해. 그 숲을 8천 루블에 베어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거든. 그래서 영감이 이반한테 사정하는 거야. 좀 도와 다오, 네가 직접 다녀와 다오, 하고. 이틀이나 사흘쯤. 이반이 없을 때 그루셴카가 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럼 오늘도 아버지는 그루셴카를 기다리는 거야?"

"아니, 오늘은 그 여자가 오지 않을 거야. 징조가 있어. 틀림없이 안 와!" 미탸가 갑자기 소리쳤다. "스메르댜코프도 그렇게 봐. 아버지는 지금 술을 퍼마시며 이반 형과 식탁에 앉아 있어. 가 봐, 알렉세이, 아버지한테 그 3천 루블을 달라고 해……"

"미탸 형, 형 왜 그래!" 알료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넋이 나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들여다보며 외쳤다. 한순간 그는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왜? 나는 미치지 않았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뚫어지게, 어쩐지 엄숙하기까지 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 나는 너를 아버지한테 보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나는 기적을 믿어."

"기적을?"

"하느님 섭리의 기적을. 하느님은 내 마음을 아셔. 내 절망을 다 보고 계셔. 이 그림 전체를 보고 계셔. 정말 하느님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알료샤, 나는 기적을 믿어. 가!"

"갈게. 말해 줘, 형은 여기서 기다릴 거야?"

"기다릴게. 금방은 안 되리라는 거, 그렇게 가서 곧바로 쿵 하고 내밀 수는 없다는 거 알아! 아버지는 지금 취했어.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일곱 시간이고 기다릴게. 하지만 이것만 알아 둬.

오늘, 설령 한밤중이 되더라도 너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가서, 돈이 있든 없든, '안부를 전하라더군요' 하고 말해야 해. 나는 네가 바로 이 구절을 말해 주기를 바라. '안부를 전하라더군요.'"

"미탸 형! 그런데 만약 그루셴카가 오늘 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오면?"

"그루셴카가? 엿보고 있다가 뛰어들어 막을 거야……"

"그런데 만약……"

"만약 그러면, 죽일 거야. 그것만은 견딜 수 없어."

"누구를 죽여?"

"영감을. 그 여자는 안 죽여."

"형,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몰라, 몰라…… 어쩌면 안 죽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일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미워질까 봐 두려워. 나는 아버지의 그 목젖이, 그 코가, 그 눈이, 그 뻔뻔한 비웃음이 미워. 몸서리쳐지는 혐오를 느껴. 바로 그게 두려워. 그러면 참지 못할 거야……"

"갈게, 미탸 형. 하느님께서 가장 좋다고 아시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끔찍한 일이 없으리라고 믿어."

"그럼 나는 앉아서 기적을 기다릴게. 하지만 만약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알료샤는 생각에 잠겨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제6장 스메르댜코프

정말로 그는 아버지가 아직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들어섰다. 식탁은 늘 하던 대로 홀에 차려져 있었다. 집에는 제대로 된 식당도 있었는데 말이다. 이 홀은 집에서 가장 큰 방으로, 무언가 고풍스러운 허세를 부려 가구를 들여놓았고, 가구는 아주 오래된 흰 가구였고, 붉은 반견(半絹) 천을 씌웠는데 낡아 있었다. 창과 창 사이 벽에는 옛 솜씨로 조각한, 역시 흰 바탕에 금칠을 한 화려한 틀의 거울들이 끼워져 있었다. 흰 종이 벽지를 바른 벽은 이미 여러 군데 금이 가 있었는데, 거기 커다란 초상화 두 점이 걸려 뽐내고 있었다. 하나는 서른 해쯤 전에 이 고장의 총독이었던 어느 공작의 초상이었고, 하나는 역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느 주교의 초상이었다. 앞쪽 구석에는 성상이 몇 점 모셔져 있었고, 그 앞에는 밤이면 성상 등잔을 켰다…… 경건해서라기보다는 밤에 방을 밝히려고 켰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밤이면 아주 늦게, 새벽 세 시나 네 시쯤 잠자리에 들었고, 그때까지는 늘 방 안을 서성이거나 안락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런 버릇이 들었다. 그는 하인들을 별채로 보내고 집에서 아주 혼자 밤을 지내는 일도 드물지 않았지만, 대개는 하인 스메르댜코프가 밤에 그와 함께 남아 현관방 궤짝 위에서 잤다. 알료샤가 들어섰을 때 식사는 이미 다 끝났지만, 잼과 커피가 나와 있었는데,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식사 뒤에 코냑을 곁들여 단것을 먹기를 좋아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도 그 자리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인 그리고리와 스메르댜코프는 식탁 곁에 서 있었다.

주인들도 하인들도 눈에 띄게, 남달리 즐겁게 들떠 있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큰 소리로 껄껄거리며 웃고 있었다. 알료샤는 현관에서부터 전에 그토록 귀에 익었던 그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들었고, 그 웃음소리로 미루어 아버지가 아직 취하려면 멀었고 지금은 그저 기분이 좋을 뿐이라고 곧바로 판단했다.

"저기 왔다, 저기 왔어!"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갑자기 알료샤를 보고 무섭도록 반가워하며 고함쳤다. "우리와 같이하자, 앉아라, 커피 한잔 해라. 금식 음식이야, 금식 음식이고말고, 그리고 뜨겁고 훌륭하지! 코냑은 권하지 않으마, 너는 금식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마시고 싶으냐, 마시고 싶어? 아니, 차라리 리큐어를 주마, 근사한 거야! 스메르댜코프, 찬장에 가 봐라, 둘째 칸 오른쪽이다. 여기 열쇠, 얼른!"

알료샤는 리큐어를 사양하려 했다.

"어차피 내올 거다. 너 마시라고가 아니면 우리 마시라고."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싱글벙글했다. "그런데 잠깐, 너 식사는 했느냐, 안 했느냐?"

"했어요." 알료샤가 말했다. 사실은 수도원장의 부엌에서 빵 한 조각을 먹고 크바스 한 잔을 마셨을 뿐이었다. "뜨거운 커피라면 기꺼이 마실게요."

"귀여운 녀석! 장하다! 이 애가 커피를 마시겠단다. 데워 줄까? 아니, 지금도 펄펄 끓는군. 근사한 커피야, 스메르댜코프 커피지. 커피와 쿨레뱌카라면 우리 스메르댜코프는 예술가야. 그리고 생선 수프도 그렇지, 정말이야. 언제 생선 수프 먹으러 와라, 미리 알려 주고…… 그런데 잠깐, 잠깐, 아까 내가 너한테 오늘 당장 요와 베개를 가지고 아주 옮겨 오라고 했지? 요는 끌고 왔느냐? 헤헤헤!……"

"아뇨, 안 가져왔어요." 알료샤도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겁먹었지, 아까 그래도 겁먹었지, 겁먹었어? 아, 이 귀여운 녀석, 내가 어떻게 너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봐, 이반, 이 애가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며 웃는 걸 나는 못 보겠다, 못 보겠어. 이 애를 보면 내 뱃속이 온통 웃기 시작한단다. 나는 이 애가 좋아! 알료시카, 아비의 축복을 내려 주마."

알료샤가 일어났지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새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니, 아니, 지금은 성호만 그어 주마. 이렇게. 앉아라. 자, 이제 네가 즐거워할 일이 있다. 바로 네 주제야. 실컷 웃을 거다. 우리 집 발람의 나귀가 말을 했거든. 그런데 그 말하는 꼴이라니, 그 말하는 꼴이!"

발람의 나귀는 하인 스메르댜코프였다. 아직 젊은이로, 고작 스물네 살쯤 되었는데, 지독하게 사람을 꺼리고 말이 없었지만, 수줍음을 타거나 무언가를 부끄러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는 오히려 성격이 오만했고, 모두를 경멸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에 대해 단 두어 마디라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것도 바로 지금. 그를 기른 것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와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였지만, 그 사내아이는 그리고리가 그를 두고 말한 대로 "고마운 줄을 전혀 모르고" 자랐다. 사람을 꺼리는 아이로 자라 구석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그는 고양이를 목매달고 나서 의식을 갖추어 묻어 주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러려고 그는 홑이불을 둘렀는데, 그것이 제의 같은 구실을 했다. 그리고 죽은 고양이 위에서 무언가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마치 향로를 흔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그는 살그머니, 더없이 은밀하게 했다. 한번은 그리고리가 이 연습을 하는 그를 붙잡아 회초리로 아프게 벌을 주었다. 아이는 구석으로 가서 한 주쯤 거기서 곁눈질을 했다. "저 괴물은 우리 둘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리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에게 말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 네가 사람이냐." 그는 갑자기 스메르댜코프에게 대놓고 말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목욕간 습기에서 생겨났어. 너는 그런 놈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스메르댜코프는 그 말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리는 그에게 글을 가르쳤고, 열두 살쯤 되자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일은 곧바로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언젠가 한번, 고작 둘째인가 셋째 수업에서 아이가 갑자기 히죽 웃었다.

"왜 그러느냐?" 그리고리가 안경 너머로 그를 무섭게 내다보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주 하느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지으셨잖아요. 그럼 첫째 날에 빛은 어디서 비쳤습니까요?"

그리고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는 비웃듯 선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길에는 무언가 거만한 것마저 있었다. 그리고리는 참지 못했다. "여기서 비쳤다!" 그는 소리치며 제자의 뺨을 사납게 후려쳤다. 아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뺨을 맞았지만, 다시 며칠 동안 구석에 틀어박혔다. 공교롭게도 한 주 뒤 아이에게 난생처음으로 간질이 나타났고, 그 병은 그 뒤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자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갑자기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았다. 전에는 어쩐지 무심하게 아이를 바라보았다. 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마주치면 늘 1코페이카씩 주기는 했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이따금 식탁에서 단것을 조금 아이에게 보내 주었다. 그런데 병 소식을 듣자 그는 단연코 아이를 보살피기 시작했다. 의사를 불러 치료를 시켜 보았지만,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작은 평균 한 달에 한 번쯤, 그것도 날짜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고, 발작의 세기도 갖가지여서 가벼운 것도 있었고 몹시 지독한 것도 있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리고리에게 아이에게 매질하는 것을 더없이 엄하게 금하고, 아이를 위층 자기 방에 드나들게 했고, 아이에게 무엇이든 가르치는 것도

당분간 금했다. 그런데 한번은 아이가 벌써 열다섯 살쯤 되었을 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아이가 책장 곁을 서성이며 유리 너머로 책 제목을 읽는 것을 보았는데,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는 책이 꽤 있었다. 백 권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스메르댜코프에게 책장 열쇠를 넘겨주었다. "그래, 읽어라. 사서가 되거라. 마당이나 쏘다니느니 앉아서 읽어. 자, 이걸 읽어 봐라." 그리고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화』를 꺼내 주었다.

녀석은 다 읽었지만 마뜩잖아했다. 한 번도 웃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을 찌푸린 채 다 읽었다.

"어떠냐? 우습지 않으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물었다.

스메르댜코프는 잠자코 있었다.

"대답해라, 바보야."

"다 거짓말을 써 놓은 겁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히죽거리며 우물우물 말했다.

"그럼 꺼져 버려라, 이 하인 근성아. 잠깐, 여기 스마라그도프의 『세계사』가 있다. 여기엔 다 진실이 있어. 읽어라."

그러나 스메르댜코프는 스마라그도프를 열 쪽도 읽지 못했다. 지루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책장은 다시 닫혔다. 얼마 안 가 마르파와 그리고리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스메르댜코프에게 조금씩 갑자기 무언가 지독한 결벽증이 나타났다고 아뢰었다. 수프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는 수프 속을 찾고 또 찾고, 몸을 숙여 들여다보고, 한 숟가락 떠서 빛에 비추어 들어 본다고 했다.

"바퀴벌레라도 있냐?" 그리고리가 묻곤 했다.

"파리겠지요." 마르파가 거들었다.

깔끔한 젊은이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빵이며 고기며 모든 음식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포크에 꽂은 한 조각을 빛에 비추어 들고는 꼭 현미경으로 보듯 살펴보다가, 오래 망설인 끝에 마침내 입에 넣기로 마음먹곤 했다. "봐라, 도련님이 다 나셨군." 그를 보며 그리고리가 중얼거렸다. 스메르댜코프의 새 성질을 듣자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곧바로 그를 요리사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모스크바로 보내 일을 배우게 했다. 그는 몇 해 동안 배우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몹시 달라져 있었다. 그는 갑자기 어쩐지 남달리 늙어 버렸다. 나이와는 전혀 걸맞지 않게 쭈글쭈글해지고 누레져서 거세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속은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과 거의 그대로 돌아왔다. 여전히 사람을 꺼렸고, 누구와 어울려야 할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나중에 전해진 말로는 그는 모스크바에서도 내내 말이 없었다고 한다. 모스크바라는 도시 자체도 어쩐지 그의 흥미를 몹시 조금밖에 끌지 못해서, 그는 거기서 겨우 몇 가지를 알았을 뿐 나머지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한번은 극장에도 갔지만, 말없이 마뜩잖은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 대신 그는 모스크바에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프록코트와 속옷을 입고 우리 고장에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어김없이 손수 솔로 제 옷을 아주 꼼꼼하게 털었으며, 멋쟁이 송아지 가죽 장화를 거울처럼 번쩍이도록 특제 영국 구두약으로 닦기를 지독하게 좋아했다. 그는 뛰어난 요리사였고,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에게 품삯을 정해 주었는데, 스메르댜코프는 그 품삯을 거의 고스란히 옷과 포마드와 향수 따위에 썼다. 그러나 그는 남자들을 경멸하듯 여자들도 경멸하는 것 같았고, 여자들 앞에서 점잖게, 거의 다가갈 수 없게 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어떤 다른 관점에서도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다름 아니라 그의 간질 발작이 잦아졌고, 그런 날이면 음식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았다.

"어째서 너는 발작이 잦아졌느냐?" 그는 이따금 새 요리사를 곁눈질하며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무 여자하고라도 결혼하면 좋으련만. 장가보내 줄까?……"

그러나 스메르댜코프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분해서 하얗게 질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손을 내젓고 물러났다. 무엇보다 그는 그의 정직함을 믿었다. 그것도 단번에 영영, 그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훔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한번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거나하게 취해서 막 받은 무지갯빛 백 루블짜리 지폐 세 장을 제 집 마당 진창에 떨어뜨리고, 이튿날에야 그것을 찾은 일이 있었다. 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무지갯빛 지폐 세 장이 모두 이미 그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어디서 났을까? 스메르댜코프가 주워서 어제 이미 가져다 놓았다. "이봐,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그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딱 잘라 말하고 그에게 10루블을 주었다.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그가 스메르댜코프의 정직함을 믿었을 뿐 아니라 어쩐 일인지 그를 사랑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녀석은 다른 사람들을 보듯 그를 보아도 곁눈질을 했고, 내내 말이 없었는데도. 그는 말을 꺼내는 일이 드물었다. 그 무렵 누군가 그를 보며 이 녀석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 가장 자주 머릿속에 들어 있을까 하고 물을 생각이 들었다 해도, 정말이지 그를 보아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따금 집 안에서, 아니면 마당에서, 또는 거리에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긴 채 그렇게 10분씩이나 서 있곤 했다. 관상가라면 그를 들여다보고, 거기에는 궁리도 생각도 없고 그저 무언가 관조 같은 것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화가 크람스코이에게 「관조하는 사람」이라는 훌륭한 그림이 한 점 있는데, 겨울 숲이 그려져 있고, 숲속 길

위에 다 해진 카프탄을 걸치고 짚신을 신은 초라한 농군이 깊디깊은 외로움 속에 헤매어 들어와 홀로 서 있다. 서서 생각에 잠긴 것 같지만, 그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관조"하고 있다. 그를 떠밀면 그는 흠칫 놀라 잠에서 깬 듯,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당신을 바라볼 것이고, 사실 그는 곧 정신을 차리겠지만, 그렇게 서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면 틀림없이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그는 관조하는 동안 사로잡혀 있던 그 인상을 틀림없이 제 안에 감추어 둘 것인데, 그 인상들은 그에게 소중하고, 그는 틀림없이 그것들을 쌓아 둔다. 남몰래,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러는지는 물론 그 자신도 모른다. 어쩌면 여러 해 동안 인상을 쌓아 두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떠돌며 구원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떠날지도 모르고, 어쩌면 갑자기 고향 마을에 불을 지를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둘이 한꺼번에 일어날지도 모른다. 민중 가운데는 관조하는 사람이 꽤 많다. 스메르댜코프도 틀림없이 그런 관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그 역시 틀림없이 무엇 때문인지 저 자신도 거의 모른 채 제 인상들을 탐욕스럽게 쌓아 두고 있었다.

제7장 논쟁

그런데 발람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했다. 주제가 묘했다. 그리고리가 아침에 상인 루키야노프의 가게에서 물건을 받아 오다가 그에게서 어느 러시아 병사 이야기를 들었다. 그 병사는 어딘가 먼 국경에서 아시아 놈들에게 포로로 잡혀, 당장 고문으로 죽이겠다는 위협 아래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강요받았지만, 제 신앙을 배반하지 않겠다며 고문을 받아들였고,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내맡긴 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리며 죽었다는 것이다. 그 공훈 이야기가 마침 그날 받은 신문에 실려 있었다. 그리고리가 식탁에서 꺼낸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였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전에도 식사를 마칠 때마다 디저트를 들면서 그리고리하고라도 웃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가볍고 기분 좋게 풀어진 상태였다. 그는 코냑을 홀짝이며 전해 들은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그런 병사는 당장 성인으로 올리고 벗겨진 살가죽은 어느 수도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사람이며 돈이며 몰려들겠지." 그리고리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조금도 감동하지 않고 늘 하던 버릇대로 신성 모독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는데, 바로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스메르댜코프가 갑자기 히죽 웃었다. 스메르댜코프는 전에도 꽤 자주 식탁 곁에 서 있도록, 다시 말해 식사가 끝나 갈 무렵에 서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이반 표도로비치가 우리 읍내에 온 뒤로는 거의 식사 때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는 왜 그러느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그 웃음을 순식간에 알아채고 물었다. 물론 그 웃음이 그리고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도 알아차렸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입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뜻밖에 말을 꺼냈다. "그 칭찬받을 병사의 공훈이 아주 위대하기는 했습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또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제가 받은 세례를 버린다 해도, 그래서 그걸로 제 목숨을 구해 착한 일을 하고 여러 해 동안 그 착한 일로 비겁함을 갚는다 해도, 아무 죄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어째서 죄가 안 된다는 거냐? 거짓말 마라. 그랬다간 곧장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양고기처럼 구워질 거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받았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알료샤가 들어왔다. 우리가 본 대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알료샤를 보고 무섭도록 반가워했다.

"네 주제다, 네 주제야!" 그는 알료샤를 앉혀 듣게 하며 즐겁게 킬킬거렸다.

"양고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요. 그 일로 거기서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요. 공정하게 따지자면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요." 스메르댜코프가 점잖게 말했다.

"공정하게 따지자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무릎으로 알료샤를 쿡 찌르며 더욱 즐겁게 소리쳤다.

"저놈은 비열한 놈이야, 저놈은 그런 놈이야!" 그리고리의 입에서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화가 나서 스메르댜코프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비열한 놈이라는 말씀은 잠깐 미뤄 두십쇼,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스메르댜코프가 침착하게, 자제하며 맞받았다. "그보다는 스스로 따져

보십쇼. 제가 그리스도교 족속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그자들이 저더러 하느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거룩한 세례를 버리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제 이성으로 그 일을 할 온전한 권한이 있습죠. 거기엔 아무 죄도 없을 테니까요."

"그건 벌써 말했잖아. 늘어놓지 말고 증명을 해 봐라!"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국물쟁이 놈!" 그리고리가 경멸하듯 속삭였다.

"국물쟁이라는 말씀도 잠깐 미뤄 두십쇼. 욕하지 마시고 스스로 따져 보십쇼,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제가 고문하는 자들에게 '아니, 나는 그리스도교도가 아니다, 나는 내 참된 하느님을 저주한다' 하고 말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하느님의 가장 높은 심판으로 당장, 그리고 특별히 파문으로 저주받고, 꼭 이방인처럼 거룩한 교회에서 완전히 떨려 나는 겁니다요. 그것도 바로 그 순간에, 입 밖에 내자마자가 아니라 입 밖에 내려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4분의 1초도 지나지 않아 떨려 나는 겁니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그는 눈에 띄게 흡족해하며 그리고리에게 말을 걸었다. 사실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질문에만 대답하고 있었고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 질문을 그리고리가 던지는 것처럼 꾸몄다.

"이반!"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갑자기 소리쳤다. "내 귀에 바짝 대고 몸을 숙여 봐라. 저놈이 이걸 다 너를 위해 꾸민 거다. 네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칭찬해 줘라."

이반 표도로비치는 아버지 양반의 열광에 찬 귓속말을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잠깐, 스메르댜코프, 잠시 입 다물고 있어라."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다시 소리쳤다. "이반, 다시 내 귀에 바짝 대고 몸을 숙여 봐라."

이반 표도로비치는 다시 더없이 진지한 얼굴로 몸을 숙였다.

"나는 알료시카를 사랑하듯 너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코냑 한잔할 테냐?"

"주세요. '그나저나 영감, 꽤 퍼마셨군.'" 이반 표도로비치는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스메르댜코프를 그는 남다른 호기심을 품고 지켜보았다.

"너는 지금도 파문으로 저주받은 놈이야." 그리고리가 갑자기 터뜨렸다. "그런데 그러고도 이 비열한 놈아, 감히 따지고 들다니, 만약……"

"욕하지 마라, 그리고리, 욕하지 마!"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을 끊었다.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아주 잠깐이라도 기다리셔서 더 들어보십쇼. 제가 아직 다 끝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께 당장 저주받는 바로 그때, 바로 그 가장 높은 순간에, 저는 이미 이방인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제 세례는 저한테서 벗겨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쳐집니다요. 그것만이라도 맞습죠?"

"결론을 내라, 이 친구야, 어서 결론을 내."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술잔에서 맛있게 한 모금 들이켜며 재촉했다.

"제가 이미 그리스도교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자들이 '너는 그리스도교도냐, 아니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고문하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죠. 저는 생각 하나만으로, 고문하는 자들에게 제 말을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이미 하느님 손수 제 그리스도교를 벗겨 내셨으니까요. 제가 이미 계급을 박탈당했다면, 무슨 수로, 무슨 공정함으로 저승에서 그리스도를 저버렸다고 저를 그리스도교도처럼 다스리겠습니까? 저는 생각 하나만으로, 저버리기도 전에 이미 세례를 벗겨 냈는데요? 제가 이미 그리스도교도가 아니라면 저는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도 없습죠. 그때는 저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더러운 타타르 놈한테,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설령 하늘에서라도 그리스도교도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누가 따지겠습니까요? 소 한 마리에서 가죽 두 장은 못 벗긴다고 따져 보면, 누가 그 일로 그놈을 벌하겠습니까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도 그 타타르 놈이 죽었을 때 따지신다 해도, 제 생각에는 무슨 아주 가벼운 벌을 주실 겁니다(아예 벌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더러운 부모한테서 더러운 놈으로 세상에 나왔다면 그건 그놈 잘못이 아니라고 헤아리셔서요. 주 하느님께서 억지로 타타르 놈을 붙잡고 그놈도 그리스도교도였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는 셈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전능하신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요, 단 한 마디 말에서라도요?"

그리고리는 얼어붙은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연설가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슨 말이 오가는지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허튼소리에서 무언가를 갑자기 알아듣고는, 갑자기 이마를 벽에 부딪친 사람 같은 얼굴로 멈춰 섰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술잔을 비우고 날카롭게 웃음을 터뜨렸다.

"알료시카, 알료시카, 어떠냐! 아, 이 궤변가 녀석! 이반, 이놈은 어디서 예수회 놈들한테 있었던 게로구나. 아, 이 냄새나는 예수회 놈아, 누가 너한테 이런 걸 가르쳤느냐? 하지만 너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궤변가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울지 마라, 그리고리, 우리가 이놈을 이 자리에서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 줄 테니. 자, 이걸 말해 봐라, 나귀야. 고문하는 자들 앞에서는 네가 옳다고 치자. 하지만 너는 네 속으로는 그래도 제 신앙을 저버렸고, 그 순간 파문으로 저주받았다고 네 입으로 말하잖느냐, 그런데 한번 파문을 당했으면 그 파문 때문에 지옥에서 너를 쓰다듬어 주지는 않을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훌륭한 예수회 양반?"

"제 속으로 저버린 건 으심할 것 없습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특별히 무슨 죄는 없었습니다요. 죄가 좀 있었다 해도 아주 예사로운 죄였습죠."

"아주 예사로운 죄였습죠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거짓말이야, 이 저주받을 놈아." 그리고리가 이를 갈며 내뱉었다.

"스스로 따져 보십쇼,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스메르댜코프는 승리를 의식하면서도 패한 적수에게 너그러움을 베풀듯 고르고 점잖게 말을 이었다. "스스로 따져 보십쇼,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습니까. 아주 작은 낟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로 옮겨 가라 하면 조금도 지체 없이 첫 명령에 옮겨 간다고요. 그런데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제가 믿지 않는 놈이고, 나리는 저를 쉴 새 없이 욕하실 만큼 믿음이 깊으시다면, 나리가 몸소 이 산더러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여기서 바다는 멀거든요), 저 정원 뒤로 흐르는 우리 고장 냄새나는 시내로라도 옮겨 가라고 말씀해 보십쇼. 그러면 아무리 소리를 지르셔도 아무것도 옮겨 가지 않고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리라는 걸 바로 그 순간 몸소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건 나리도 마땅히 믿어야 할 만큼은 믿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요,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그저 남들을 그 일로 온갖 말로 욕하실 뿐이지요. 또 그걸 쳐 놓고 보면, 요즘 세상에는 나리뿐 아니라 단연코 아무도, 가장 높으신 분들부터 맨 끝 농군까지, 산을 바다로 밀어낼 수 없습죠. 온 땅에 기껏해야 한 사람, 많아야 두 사람쯤 있을까요, 그나마 어딘가 이집트 사막에서 몰래 구원을 구하고 있어서 아예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요. 그렇다면 말입니다요, 나머지가 모두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난다면, 그 사막의 은수자 두 사람 말고 나머지 모두를, 그러니까 온 땅의 백성을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그토록 이름난 그 자비로도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의심했더라도 뉘우침의 눈물을 쏟으면 용서받으리라고 바라는 겁니다요."

"잠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환희의 절정에서 날카롭게 외쳤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은 그래도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로구나? 이반, 이걸 새겨 둬라, 적어 둬. 러시아 사람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건 민중의 신앙에 있는 특징이지요." 이반 표도로비치가 찬성하는 미소를 띠고 동의했다.

"네가 동의하는구나! 네가 동의하니 그렇다는 거지! 알료시카, 정말 그렇지? 정말 그게 완전히 러시아식 믿음이지?"

"아뇨, 스메르댜코프의 믿음은 전혀 러시아식 믿음이 아니에요." 알료샤가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놈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특징을, 그 두 은수자를, 그 작은 특징 하나만을 말하는 거야. 그건 정말 러시아다운 거지, 러시아다운 거?"

"네, 그 특징은 아주 러시아다워요." 알료샤가 미소 지었다.

"네 말은 금화 한 닢 값어치가 있다, 나귀야. 오늘 당장 그걸 보내 주마. 하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알아 둬라, 바보야. 우리가 여기서 다들 믿지 않는 건 오로지 경솔해서야. 시간이 없거든. 첫째로 일에 치이고, 둘째로 하느님이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셨거든. 하루에 고작 스물네 시간만 정해 주셨으니 실컷 잘 틈도 없는데 뉘우칠 틈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거기서 고문하는 자들 앞에서 저버렸잖느냐. 신앙 말고는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제 신앙을 보여 주어야 할 때 말이다! 그러니까 이봐,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되기는 되지요. 하지만 스스로 따져 보십쇼,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그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요. 제가 그때 마땅히 믿어야 할 대로 참으로 믿었다면, 제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지 않고 더러운 마호메트의 신앙으로 넘어갔다면 정말로 죄가 되었을 겁니다요. 하지만 그랬다면 고문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요. 그 순간 이 산더러 움직여서 고문하는 자를 짓눌러라 하고 말하기만 하면, 산이 움직여서 그 순간 그자를 바퀴벌레처럼 짓눌렀을 테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느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떠나갔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순간에 그걸 다 시험해 보고, 일부러 이 산더러 이 고문하는 자들을 짓눌러라 하고 소리쳤는데 산이 짓누르지 않았다면, 말씀해 보십쇼, 그때 제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요. 그것도 죽음의 큰 공포가 덮치는 그런 무서운 순간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하늘나라에 온전히 이르지는 못하리라는 걸 압니다요(제 말에 산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거기서는 제 믿음을 그리 믿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저승에서 그리 큰 상이 저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위에 또, 이제는 아무 득도 없이 제 살가죽을 벗기라고 내맡기겠습니까요? 제 등에서 살가죽을 벌써 절반쯤 벗겨 냈다 해도, 그때도 제 말이나 외침에 이 산은 움직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순간에는 의심이 덮칠 뿐 아니라 무서워서 이성까지 잃을 수 있으니, 따지는 것조차 아예 할 수 없게 될 겁니다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제 이득도 상도 보이지 않는데 적어도 제 살가죽이라도 지킨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특별히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 되겠습니까요? 그러니 주님의 자비에 크게 기대어, 저는 완전히 용서받으리라는 희망으로 버팁니다요……"

제8장 코냑을 마시며

논쟁은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토록 신이 났던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끝에 가서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얼굴을 찌푸리고는 코냑을 한 잔 털어 넣었는데, 그것은 이미 아주 쓸데없는 한 잔이었다.

"이 예수회 놈들아, 썩 나가거라." 그가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꺼져라, 스메르댜코프. 약속한 금화는 오늘 보내 주마. 그러니 너는 꺼져. 울지 마라, 그리고리, 마르파한테 가라. 마르파가 달래서 재워 줄 거다. 이 망할 놈들이 식사 뒤에 조용히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하는군." 하인들이 그의 명령에 곧바로 물러가자 그는 갑자기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스메르댜코프 놈이 요새는 식사 때마다 여기로 기어든단 말이야. 저놈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게 너다. 너는 무엇으로 저놈을 그렇게 길들였느냐?" 그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덧붙였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반이 대답했다. "저놈이 저를 존경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지요. 하인이고 상놈입니다. 하기야 때가 오면 선봉에 설 고깃덩이지요."

"선봉?"

"다른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도 나오겠지만, 이런 자들도 나올 겁니다. 먼저 이런 자들이 나오고, 그 뒤에 더 나은 자들이 나오겠지요."

"그 때는 언제 오느냐?"

"불꽃이 타오르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다 타지는 못할 겁니다. 민중은 아직 이런 국물쟁이들 말에 그리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래, 이봐, 바로 저런 발람의 나귀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에까지 이를지 귀신이나 알겠지."

"생각을 쌓아 두겠지요." 이반이 빙그레 웃었다.

"봐라, 나는 안다. 저놈은 나도 못 견뎌 한다. 모든 사람을 그렇듯이. 너도 똑같아. 너는 저놈이 너를 '존경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알료시카는 더하지. 알료시카는 경멸해. 그래도 저놈은 훔치지는 않아, 그게 중요하지. 수다쟁이도 아니고, 입이 무거워서 집 안의 허물을 밖에 내돌리지 않고, 쿨레뱌카를 근사하게 구워. 게다가 무엇보다, 사실 귀신이나 잡아가라지, 저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그럴 필요 없지요."

"그리고 저놈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대체로 말해서 러시아 농군은 매질을 해야 해. 나는 늘 그렇게 주장해 왔다. 우리 농군은 사기꾼이라 불쌍히 여길 것 없어. 지금도 이따금 매를 맞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러시아 땅은 자작나무 회초리로 굳건해. 숲을 베어 없애면 러시아 땅이 망할 거다. 나는 영리한 사람들 편이야. 우리는 아주 영리하게도 농군들한테 매질을 그만두었지만, 그놈들은 제 손으로 저희끼리 계속 매질을 하고 있어. 잘하는 짓이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던가, 뭐 그렇게 되던가…… 한마디로 되받는 거지. 그리고 러시아는 돼지우리야. 이 사람아, 내가 러시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너는 알았으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라 이 모든 악덕을…… 아니, 어쩌면 러시아도. 그건 다 돼지 같은 짓이야(Tout cela c'est de la cochonnerie).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느냐? 나는 재치를 좋아한다."

"또 한 잔 드셨군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기다려라,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하고 끝내마. 아니, 잠깐, 네가 내 말을 끊었구나. 모크로예를 지나다가 한 노인한테 물었더니 이러더라.

'저희는요, 처녀들을 마을 회의 판결로 매질하는 걸 무엇보다 좋아합지요. 매질은 다 총각들한테 맡기고요. 그러면 오늘 매질한 바로 그 처녀를 내일 그 총각이 신붓감으로 데려가니, 저희 마을 처녀들도 그게 썩 익숙하답니다요.' 사드 후작 같은 놈들 아니냐, 응? 어쨌거나 재치가 있지. 우리도 한번 구경하러 가 볼까, 응? 알료시카, 얼굴이 빨개졌구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가. 아까 수도원장 식탁에 앉아 수도사들한테 모크로예 처녀들 얘기를 못 해 준 게 아쉽구나. 알료시카, 아까 네 수도원장을 모욕했다고 화내지 마라. 얘야, 나는 화가 치민다. 하느님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물론 그때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하느님이 아예 없다면, 그런 네 신부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는 그놈들 목을 베어도 모자라지. 발전을 가로막으니까. 이반, 믿겠느냐, 이게 내 감정을 들볶는다는 걸. 아니, 너는 믿지 않는구나. 네 눈을 보면 알아. 너는 내가 그저 어릿광대일 뿐이라는 사람들 말을 믿지. 알료샤, 너는 내가 그저 어릿광대만은 아니라고 믿느냐?"

"그저 어릿광대만은 아니라고 믿어요."

"네가 믿는다는 걸 나도 믿고, 네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도 믿는다. 진심으로 보고 진심으로 말하지. 그런데 이반은 아니야. 이반은 거만해…… 그래도 나라면 네 수도원 나부랭이를 끝장내 버릴 텐데. 그 신비주의를 몽땅 가져다가 온 러시아 땅에서 한꺼번에 없애 버려서 바보들 정신이 확실히 번쩍 들게 해야 해. 그러면 은이며 금이며 얼마나 많이 조폐국으로 들어오겠느냐!"

"무엇 때문에 없앱니까?" 이반이 말했다.

"진리가 어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이지."

"그런데 그 진리가 빛을 발하면, 맨 먼저 아버지부터 털고, 그다음에…… 없애 버릴 겁니다."

"어럽쇼! 그런데 어쩌면 네 말이 맞구나. 아, 내가 나귀로군."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갑자기 펄쩍 뛰더니 제 이마를 가볍게 쳤다. "그럼 그렇다면 네 수도원 나부랭이는 그대로 두자꾸나, 알료시카. 그리고 우리 영리한 사람들은 따뜻한 데 앉아서 코냑이나 즐기자. 이반, 너는 아느냐, 이건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손수 일부러 그렇게 마련하신 거라는 걸? 이반, 말해 봐라.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잠깐, 확실히 말해라, 진지하게 말해! 왜 또 웃느냐?"

"아까 스메르댜코프가 산을 옮길 수 있는 장로 두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을 두고 아버지가 하신 재치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웃습니다."

"그럼 지금이 그거하고 비슷하냐?"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러시아 사람이고 나한테도 러시아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철학자인 너도 그와 같은 꼴로 네 특징을 붙잡힐 수 있다는 거고. 붙잡아 줄까? 내기하자, 내일 당장 붙잡아 줄 테니. 그래도 말해 봐라.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진지하게만! 나는 지금 진지해야 해."

"아니요, 하느님은 없습니다."

"알료시카, 하느님이 있느냐?"

"하느님은 계세요."

"이반, 그럼 불멸은 있느냐? 무슨 불멸이든, 조그만, 아주 조그만 거라도?"

"불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완전한 0이냐, 아니면 무언가가 있느냐? 어쩌면 무슨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으냐.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않으냐!"

"완전한 0입니다."

"알료시카, 불멸이 있느냐?"

"있어요."

"하느님도, 불멸도?"

"하느님도, 불멸도요. 하느님 안에 불멸도 있어요."

"흠. 이반 말이 맞을 공산이 크구나. 주님, 생각해 보라지. 사람이 이 꿈에 믿음을 얼마나 바쳤는지, 온갖 힘을 얼마나 헛되이 바쳤는지, 그것도 벌써 몇천 년 동안! 대체 누가 이렇게 사람을 비웃는 거냐? 이반? 마지막으로 딱 잘라 말해 봐라.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사람을 비웃는 거냐, 이반?"

"악마겠지요." 이반 표도로비치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악마는 있느냐?"

"아니요, 악마도 없습니다."

"안됐구나. 제기랄, 그렇다면 처음으로 하느님을 지어낸 놈을 내가 어떻게 해 줄까! 쓰디쓴 사시나무에 목을 매달아도 모자라지."

"하느님을 지어내지 않았다면 문명이란 게 아예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라고? 하느님이 없으면?"

"네. 그리고 코냑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코냑은 아무래도 치워야겠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 얘야, 한 잔만 더. 내가 알료샤를 모욕했구나. 화나지 않았느냐, 알렉세이? 내 귀여운 알렉세이치크, 알렉세이치크야!"

"아뇨, 화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생각은 알아요. 아버지는 머리보다 마음이 더 좋으세요."

"내가 머리보다 마음이 더 좋다고? 주님,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좀 보라지! 이반, 너는 알료시카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해라(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몹시 취해 가고 있었다). 들어라, 알료샤, 아까 내가 네 장로한테 무례한 짓을 했다. 하지만 흥분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 장로한테는 재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반?"

"그럴지도 모르지요."

"있어, 있다고. 거기엔 피롱 같은 데가 있어(il y a du Piron là-dedans). 그 사람은 예수회 놈이야, 러시아 예수회 놈 말이다. 고결한 사람이 다 그렇듯, 그 사람 안에서는 시늉을 해야 한다는 것에…… 거룩함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에 숨은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래도 그분은 하느님을 믿으시는데요."

"한 푼어치도 안 믿어. 몰랐느냐? 그 사람이 다들한테 직접 그렇게 말하는걸. 그러니까 다들한테가 아니라 찾아오는 영리한 사람들 모두한테. 지사 슐츠한테는 대놓고 잘라 말했지. 크레도(credo),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마요?"

"바로 그렇다니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한테는 무언가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데가 있어. 아니, 차라리 『우리 시대의 영웅』에 나오는…… 아르베닌이던가, 뭐던가…… 그러니까, 알겠느냐, 그 사람은 호색한이야. 어찌나 호색한인지, 내 딸이나 아내가 그 사람한테 고해하러 간다면 나는 지금도 걱정스러울 거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말이지…… 재작년에 그 사람이 우리를 차 한잔하자고 불렀는데, 리큐어까지 곁들였지(마님들이 그 사람한테 리큐어를 보내 주거든). 그런데 옛날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니 우리는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다…… 특히 마비된 여자를 고친 이야기를 할 때. '다리만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께 춤을 한 곡 춰 보일 텐데' 하더라. 어떠냐? '제 평생 장난질도 꽤 쳤지요' 하더라고. 그 사람은 상인 데미도프한테서 6만 루블을 슬쩍했어."

"네, 훔쳤다고요?"

"그 상인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믿고 가져다주었지. '맡아 주시오, 형제여, 내일 우리 집에 가택 수색이 있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대로 맡아 두고 말았어. '당신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소' 하더란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지. 당신은 비열한 사람이오, 하고. 그러니까 아니오, 비열한 게 아니라 나는 넓은 사람이오, 하더라……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 헛갈렸어…… 그런 줄도 몰랐구나. 자, 한 잔만 더 하고 그만두자. 술병을 치워라, 이반.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너는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이반…… 왜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스스로 멈추실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너는 나한테 앙심을 품어서 그런 거야. 오로지 앙심으로. 너는 나를 경멸해. 내 집에 와서 내 집에서 나를 경멸하는 거야."

"그럼 떠나지요. 코냑이 아버지를 사로잡았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체르마시냐에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잖느냐…… 하루나 이틀만. 그런데 너는 안 가는구나."

"그렇게 우기시면 내일 가겠습니다."

"안 갈 거다. 너는 여기서 나를 엿보고 싶은 거지. 네가 바라는 게 그거야, 이 심술궂은 놈아.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노인은 진정하지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그 선까지 이르러 있었다. 그때까지 얌전하던 어떤 술꾼들이 갑자기 꼭 화를 내며 저를 드러내고 싶어지는 그 선까지.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네 눈이 어떠냐? 네 눈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 술 취한 상판대기야.' 의심 많은 네 눈, 경멸하는 네 눈…… 너는 속셈이 있어서 온 거야. 저기 알료시카는 보는 눈이 빛나는구나. 알료샤는 나를 경멸하지 않아. 알렉세이, 이반을 좋아하지 마라……"

"형한테 화내지 마세요! 형을 모욕하지 마세요." 알료샤가 갑자기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러지 뭐. 아이고, 머리야. 코냑을 치워라, 이반, 세 번째 말하는 거다." 그는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길고 교활하게 웃었다. "이반, 이 늙은 쭉정이한테 화내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안다. 그래도 화내지는 마. 나는 사랑받을 구석도 없으니까. 체르마시냐에 다녀오너라. 내가 몸소 너한테 가서 선물을 갖다주마. 거기서 계집애 하나를 짚어 주마. 거기서 오래전부터 점찍어 둔 애야. 아직은 맨발로 다니는 계집애지. 맨발 계집애라고 겁내지 마라, 깔보지 마라, 진주들이니까!……"

그러고는 제 손에 쪽 입을 맞추었다.

"나한테는……" 그는 좋아하는 주제에 들어서자마자 한순간 술이 깬 듯 갑자기 온통 생기가 돌았다. "나한테는…… 에이, 너희 녀석들! 꼬맹이들, 너희 조그만 새끼 돼지들아, 나한테는…… 평생 못생긴 여자란 없었다. 그게 내 원칙이야!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아직 핏줄에 피 대신 젖이 흐르고, 아직 알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내 원칙으로는, 어떤 여자한테서든 다른 어느

여자한테서도 찾을 수 없는, 제기랄, 몹시 흥미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지만, 다만 찾아낼 줄 알아야 해. 그게 요령이야! 그게 재능이란 말이다! 나한테는 못난이란 없었다. 여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벌써 모든 것의 절반이야……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노처녀들한테서도, 그런 여자들한테서도 이따금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 그러면 다른 바보들이 어떻게 그 여자를 늙게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저 놀랄 따름이다! 맨발 계집애와 못난이는 맨 먼저 놀라게 해 주어야 해. 그런 여자는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 거야. 몰랐느냐? 그 여자가 황홀해질 만큼, 가슴이 꿰뚫릴 만큼, 자기 같은 거무튀튀한 계집에게 이런 나리가 반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놀라게 해 주어야 해. 세상에 상놈과 나리가 늘 있고 또 있으리라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이야, 그러면 늘 그런 마루 닦는 계집애도 있고 늘 그 애의 주인도 있을 테니, 삶의 행복에 필요한 건 그것뿐이야! 잠깐…… 들어 봐라, 알료시카, 나는 돌아가신 네 어머니를 늘 놀라게 했다. 다만 다른 꼴로 그렇게 되었지. 평소에는 결코 그 여자를 어루만져 주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순간이 오면 그 여자 앞에서 갑자기 온통 녹아내려서 무릎으로 기고 발에 입을 맞추었어. 그러면 늘, 늘 그 여자를,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조그마한 웃음에 이르게 했지, 부서지듯 쨍쨍 울리는, 크지 않은, 신경질적인, 남다른 웃음이었어. 그 여자한테만 있는 웃음이었지. 나는 그 여자의 발작이 늘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알았고, 내일이면 클리쿠샤처럼 소리를 질러 대기 시작하리라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조그만 웃음이 아무 환희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 그래도 속임수였어도 환희는 환희야. 이게 바로 무엇에서든 제 특징을 찾아낼 줄 안다는 거다! 한번은 벨랍스키라고, 여기 있던 잘생기고 돈 많은 녀석인데, 그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갑자기 바로 우리 집에서 내 뺨을 때렸어. 그것도 그 여자

앞에서.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양 같은 여자가…… 나는 그 여자가 그 따귀 때문에 나를 두들겨 패는 줄 알았다. 어찌나 덤벼드는지. '당신은 이제 맞은 사람이야, 맞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저 사람한테 따귀를 맞았어! 당신이 나를 저 사람한테 팔아넘기려 했지……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당신을 때려!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절대로, 절대로! 당장 달려가서 저 사람한테 결투를 신청해……' 그래서 그때 나는 그 여자를 다스리려고 수도원에 데려갔고, 거룩한 신부들이 그 여자에게 기도문을 읽어 주었지. 하지만 하느님께 맹세코, 알료샤, 나는 내 클리쿠샤를 결코 모욕한 적이 없다! 딱 한 번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첫해였는데, 그 여자는 그때 기도를 아주 많이 했고, 특히 성모 축일을 지켰는데, 그럴 때면 나를 제 곁에서 서재로 내쫓았지. 나는 생각했어. 자, 이 신비주의를 그 여자한테서 털어 내 주자! '봐라, 봐라, 여기 네 성상이 있지, 여기 있지, 내가 이걸 떼어 내마. 봐라, 너는 이걸 기적을 행하는 성상으로 여기지만, 나는 지금 네 앞에서 여기에 침을 뱉을 거고, 그래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 여자가 그걸 보았을 때, 주님, 나는 생각했지. 이 여자가 이제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그 여자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마주 치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떨다가 바닥에 쓰러졌어…… 그렇게 주저앉고 말았지…… 알료샤, 알료샤! 너 왜 그러느냐, 왜 그래!" 노인은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알료샤는 아버지가 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그때부터 조금씩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타오르고 입술이 떨렸다…… 술 취한 늙다리는 침을 튀기며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다가, 바로 그 순간 알료샤에게 무언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다름 아니라 방금 노인이 "클리쿠샤"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일이 갑자기 알료샤에게서 고스란히 되풀이되었다. 알료샤는 이야기 속 어머니와 똑같이 갑자기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마주 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베어진 풀처럼 의자에 쓰러졌고, 갑작스럽고 온몸을 뒤흔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터지는 발작에 갑자기 온몸을 떨었다. 어머니와 너무나 닮은 그 모습이 노인을 유난히 놀라게 했다.

"이반, 이반! 어서 이 애한테 물을 다오. 그 여자와 같구나, 꼭 그 여자와 같아, 그때 이 애 어머니와 같아! 입으로 물을 머금었다가 이 애한테 뿜어 줘라. 나는 그 여자한테 그렇게 했다. 이 애가 제 어머니 때문에, 제 어머니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가 이반에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 애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반이 갑자기 억누를 수 없이 분노어린 경멸을 터뜨렸다. 노인은 번득이는 그의 눈길에 흠칫 몸을 떨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아주 이상한 일이, 비록 1초 동안이었지만 일어났다. 알료샤의 어머니가 이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노인의 머릿속에서 정말로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았다……

"어째서 네 어머니라는 거냐?"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느 어머니를 말하는 거냐?…… 그 여자가 정말…… 아, 제기랄! 그 여자는 네 어머니이기도 하지! 아, 제기랄! 이건, 이봐, 전에 없이 정신이 흐려졌구나, 용서해라. 나는 이반이…… 헤헤헤!" 그는 멈추었다. 길고 취한, 반쯤 넋 나간 웃음이 그의 얼굴을 벌려 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현관에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우당탕 소리가 나고 미친 듯한 고함이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홀로 뛰어들었다. 노인은 겁에 질려 이반에게 달려들었다.

"죽인다, 죽인다! 나를 넘기지 마라, 넘기지 마!"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의 프록코트 자락에 매달려 외쳐 댔다.

제9장 호색한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바로 뒤를 따라 그리고리와 스메르댜코프도 홀로 뛰어 들어왔다. 현관에서 그와 실랑이를 벌이며 그를 들여보내지 않으려 한 것도 그들이었다(벌써 며칠 전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손수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홀에 뛰어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둘러보려고 잠깐 멈춰 선 틈을 타서, 그리고리는 식탁을 돌아 달려가 들어오는 문 맞은편에 있는, 안채로 통하는 홀의 문을 양쪽 문짝 모두 닫고, 닫힌 문 앞에 두 팔을 십자가처럼 벌리고 서서 말하자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입구를 지킬 태세를 갖추었다. 그것을 보자 드미트리는 소리를 질렀다기보다 거의 비명을 지르며 그리고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기 있구나! 저기 숨겼구나! 비켜, 이 비열한 놈아!" 그는 그리고리를 확 잡아끌었지만 그리고리가 그를 떠밀었다. 격분해서 제정신을 잃은 드미트리는 팔을 휘둘러 온 힘을 다해 그리고리를 쳤고, 노인은 베어진 풀처럼 쓰러졌고, 드미트리는 그를 뛰어넘어 문을 부수듯 밀고 들어갔다. 스메르댜코프는 홀의 다른 쪽 끝에 하얗게 질려 떨면서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바짝 붙어 있었다.

"그 여자가 여기 있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소리쳤다. "방금 그 여자가 집 쪽으로 꺾어 드는 걸 내 눈으로 보았어. 다만 따라잡지 못했지. 그 여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 여자가 여기 있다!"는 이 외침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알 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그에게서 두려움이 싹 가셨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그는 고함을 지르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뒤를 쫓아 내달렸다. 그사이 그리고리는 바닥에서 일어났지만 아직 넋이 나간 것 같았다. 이반 표도로비치와 알료샤는 아버지를 뒤쫓아 달려갔다. 세 번째 방에서 갑자기 무엇인가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쨍그랑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지나가다 건드린, 대리석 받침대 위의 커다란 유리 꽃병(비싼 것은 아니었다)이었다.

"물어라!" 노인이 고함을 질렀다. "사람 살려!"

이반 표도로비치와 알료샤는 끝내 노인을 따라잡아 억지로 홀로 데려왔다.

"왜 저놈을 쫓아가세요! 저기서 정말로 아버지를 죽일 겁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소리쳤다.

"바네치카, 료셰치카, 그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 있단다. 그루셴카가 여기 있어. 달려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보았다잖니……"

그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다. 이번에는 그루셴카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여기 있다는 소식이 단번에 그의 넋을 빼놓아서, 그는 온몸을 떨었고 미친 사람 같았다.

"그 여자가 오지 않은 걸 아버지가 직접 보셨잖아요!" 이반이 소리쳤다.

"그럼 혹시 저쪽 입구로?"

"그 입구는 잠겨 있잖아요. 열쇠는 아버지한테 있고……"

드미트리가 갑자기 다시 홀에 나타났다. 물론 그는 저쪽 입구가 잠겨 있는 것을 보았고, 정말로 잠긴 입구의 열쇠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주머니에 있었다. 모든 방의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그러니 그루셴카는 어디로도 들어올 수 없었고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잡아라!" 다시 드미트리를 보자마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놈이 저기 내 침실에서 돈을 훔쳤다!" 그러고는 이반에게서

몸을 빼내 다시 드미트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두 손을 들어 갑자기 노인의 관자놀이에 남아 있는 마지막 두 머리채를 움켜쥐고 확 잡아당기더니 쿵 소리가 나게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는 쓰러진 노인의 얼굴을 두세 번 더 구둣발 뒤축으로 짓밟았다. 노인이 날카롭게 신음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드미트리 형만큼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두 팔로 그를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해 노인에게서 떼어 냈다. 알료샤도 작은 힘을 다해 형을 앞에서 끌어안아 그를 거들었다.

"미치광이, 형이 아버지를 죽였어!" 이반이 소리쳤다.

"그래도 싸지!" 드미트리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죽지 않았다면 또 죽이러 오겠어. 너희가 지키지 못할걸!"

"드미트리 형! 당장 여기서 나가!" 알료샤가 위엄 있게 소리쳤다.

"알렉세이! 너 하나만 말해 줘. 너 하나만은 믿을게. 그 여자가 방금 여기 있었어, 없었어? 그 여자가 방금 골목에서 바자울을 지나 이쪽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걸 내 눈으로 보았어. 내가 소리치니까 달아났어……"

"맹세해, 그 여자는 여기 없었고, 여기서 그 여자를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나는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알아낼 거야…… 잘 있어, 알렉세이! 이제 이솝한테는 돈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마. 그리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는 지금 당장 꼭 가. '안부를 전하라더군요, 안부를 전하라더군요, 안부를! 바로 안부를 전하고 하직 인사를 했다고!' 이 장면을 그 여자한테 그려 보여 줘."

그사이 이반과 그리고리는 노인을 일으켜 안락의자에 앉혔다. 노인의 얼굴은 피투성이였지만 정신은 멀쩡해서 드미트리의 고함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그루셴카가 정말로 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나가면서 증오에 차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을 뉘우치지 않아!" 그가 외쳤다. "조심해, 영감, 꿈을 지켜. 나한테도 꿈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과 아주 의절하겠어……"

그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 여자가 여기 있다, 틀림없이 여기 있어! 스메르댜코프, 스메르댜코프." 노인이 손가락으로 스메르댜코프를 까딱까딱 부르며 겨우 들릴 만큼 쉰 소리를 냈다.

"여기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 미친 노인네야." 이반이 그에게 사납게 소리쳤다. "아, 기절했군! 물, 수건! 얼른 움직여, 스메르댜코프!"

스메르댜코프가 물을 가지러 달려갔다. 마침내 노인의 옷을 벗기고 침실로 옮겨 침대에 눕혔다. 머리에 젖은 수건을 동여매 주었다. 코냑과 격한 감정과 매질로 기운이 빠진 노인은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눈을 까뒤집고 정신을 잃었다. 이반 표도로비치와 알료샤는 홀로 돌아왔는데, 스메르댜코프는 깨진 꽃병 조각을 내가고 있었고, 그리고리는 침울하게 고개를 숙인 채 식탁 곁에 서 있었다.

"너도 머리를 적시고 자리에 눕는 게 어때?" 알료샤가 그리고리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를 지켜볼게. 형이 너를 아주 지독하게 때렸으니까…… 머리를."

"그분이 감히 나한테 덤볐어요!" 그리고리가 침울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그분은 아버지한테도 '감히 덤볐지', 너한테만이 아니라!" 이반 표도로비치가 입을 비죽이며 말했다.

"내가 그분을 함지박에서 씻겨 드렸는데…… 그분이 감히 나한테 덤볐어요!" 그리고리가 되풀이했다.

"제기랄, 내가 떼어 내지 않았다면 정말 그대로 죽였을지도 몰라. 이솝한테 많이 필요하겠어?" 이반 표도로비치가 알료샤에게 속삭였다.

"하느님, 지켜 주소서!" 알료샤가 외쳤다.

"무엇 때문에 '지켜 주소서'야?" 이반은 여전히 속삭이며 심술궂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말을 이었다. "독사 한 마리가 다른 독사를 잡아먹는 거지. 둘 다 그렇게 되어도 싸!"

알료샤는 몸을 떨었다.

"물론 나는 살인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방금도 내버려 두지 않았듯이. 여기 남아 있어, 알료샤. 나는 마당에 나가 좀 걸어야겠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

알료샤는 침실로 아버지에게 가서 칸막이 뒤 머리맡에 한 시간쯤 앉아 있었는데, 노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오랫동안 말없이 알료샤를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떠올리고 헤아리는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남다른 흥분이 떠올랐다.

"알료샤." 그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이반은 어디 있느냐?"

"마당에요. 머리가 아프대요.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거울 좀 다오. 저기 있는 거, 다오!"

알료샤는 서랍장 위에 놓인 작고 둥근 접이식 거울을 건네주었다. 노인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코가 꽤 심하게 부어올랐고, 이마 왼쪽 눈썹 위에 큼직한 검붉은 멍이 들어 있었다.

"이반이 뭐라고 하더냐? 알료샤, 귀여운 녀석, 하나뿐인 내 아들아, 나는 이반이 무섭다. 나는 저놈보다 이반이 더 무서워. 나는 너 하나만 무섭지 않아……"

"이반 형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반 형은 화를 내지만 아버지를 지켜 줄 거예요."

"알료샤, 그런데 저놈은? 그루셴카한테 달려갔지! 귀여운 천사야, 바른대로 말해 다오. 아까 그루셴카가 왔었느냐, 안 왔었느냐?"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지 않았어요!"

"미치카 놈이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잖느냐, 결혼을!"

"그 여자는 형한테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고말고, 절대로 안 가지!……" 노인은 이 순간 그보다 더 기쁜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듯 온몸에 생기가 돌며 기뻐했다. 그는 환희에 차서 알료샤의 손을 붙잡아 제 가슴에 꼭 눌렀다. 그의 눈에 눈물까지 반짝였다. "그 성상, 성모님 성상,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거, 그건 네가 가져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도 좋다…… 아까는 농담이었어, 화내지 마라. 머리가 아프구나, 알료샤…… 료샤, 내 마음을 달래 다오, 천사가 되어 다오, 바른대로 말해 다오!"

"아버지는 내내 그 얘기시군요. 그 여자가 왔었느냐, 안 왔었느냐?" 알료샤가 슬프게 말했다.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이거다. 네가 직접 그루셴카한테 가 보든지 어떻게든 그 여자를 만나 보아라. 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어서 그 여자한테 물어보고, 네 눈으로 직접 알아맞혀 봐라. 그 여자가 누구한테 가려는지, 나한테인지 저놈한테인지. 응? 어떠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자를 만나면 물어볼게요." 알료샤가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아니, 그 여자는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다." 노인이 말을 끊었다. "그 여자는 촐랑이야. 너한테 입을 맞추기 시작하고는 너한테 시집가고 싶다고 할 거다. 그 여자는 거짓말쟁이고 뻔뻔한 계집이야. 아니, 너는 그 여자한테 가면 안 된다, 안 돼!"

"그건 좋지도 않을 거예요, 아버지, 전혀 좋지 않아요."

"아까 저놈이 달아나면서 '가 봐' 하고 소리쳤을 때 너를 어디로 보내더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댁으로요."

"돈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러?"

"아뇨,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놈은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지. 들어 봐라, 알료샤, 나는 하룻밤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 너는 일단 가거라. 어쩌면 그 여자도 만날지 모르지…… 다만 내일 아침에 꼭 나한테 들러라, 꼭. 내일 너한테 한마디 해 줄 말이 있다. 들르겠느냐?"

"들를게요."

"오거든 네가 스스로 왔다는 듯이, 문병하러 왔다는 듯이 해라. 내가 불렀다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알았어요."

"잘 가라, 천사야. 아까 네가 나를 감싸 주었지. 평생 잊지 않으마. 내일 너한테 한마디 해 주마…… 다만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은 몸이 좀 어떠세요?"

"내일, 내일이면 일어나 다닐 거다. 아주 멀쩡하다, 아주 멀쩡해, 아주 멀쩡해!……"

마당을 지나다가 알료샤는 대문 곁 걸상에 앉아 있는 이반 형과 마주쳤다. 이반은 앉아서 수첩에 연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알료샤는 이반에게 노인이 깨어나 정신이 멀쩡하며, 자기는 수도원에 가서 자라고 보내 주었다고 전했다.

"알료샤, 내일 아침에 너와 만나면 무척 기쁘겠다." 이반이 몸을 반쯤 일으키며 상냥하게 말했다. 알료샤로서는 전혀 뜻밖의 상냥함이었다.

"나는 내일 호흘라코바 부인 댁에 있을 거야." 알료샤가 대답했다. "지금 만나지 못하면 내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댁에도 갈지 몰라……"

"그래도 지금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댁에 가는구나! 그 '안부를 전하고 하직 인사' 하러?" 이반이 갑자기 미소 지었다. 알료샤는 당황했다.

"아까 그 외침들과 그 전의 이런저런 일로 다 알아들은 것 같아. 드미트리가 틀림없이 너한테 그 여자한테 가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직한다'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겠지?"

"형! 아버지와 드미트리 형 사이의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어떻게 끝날까?" 알료샤가 외쳤다.

"확실히 알아맞힐 수는 없지.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을지 몰라. 흐지부지될지도. 그 여자는 짐승이야. 아무튼 노인은 집 안에 붙잡아 두고 드미트리는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해."

"형, 하나만 더 물어볼게. 정말 아무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가운데 누가 살 자격이 있고 누가 더 자격이 없는지 정할 권리가 있을까?"

"여기에 왜 자격에 따른 판정을 끌어들이지? 이 문제는 대개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다른 까닭으로 정해져. 권리로 말하자면, 바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남의 죽음을 바랄 권리는 아니겠지?"

"죽음을 바란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어쩌면 달리는 살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제 자신 앞에서 거짓말을 해? 너는 아까 내가 '독사 두 마리가 서로 잡아먹는다'고 한 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너는 나도 드미트리처럼 이솝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야, 응?"

"무슨 소리야, 이반 형! 나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 그리고 드미트리 형도 그렇게 여기지 않아……"

"그것만이라도 고맙구나." 이반이 빙그레 웃었다. "알아 둬,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지킬 거야. 하지만 이번 경우 내 바람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남겨 두겠어. 내일 보자. 나를 비난하지 말고, 악당 보듯 보지 마." 그가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그들은 전에 없이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알료샤는 형이 먼저 자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형이 무엇 때문인지, 틀림없이 어떤 속셈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느꼈다.

제10장 두 여자가 함께

아버지의 집을 나서는 알료샤의 마음은 아까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보다 한층 더 부서지고 짓눌려 있었다. 머릿속도 어쩐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린 것만 같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아 이날 겪은 그 모든 괴로운 모순에서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건져 올리기가 두렵다는 것을 느꼈다. 알료샤의 마음에 일찍이 없던, 거의 절망에 닿은 무언가가 있었다. 모든 것 위에 산처럼 솟아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숙명적이며 풀 길 없는 물음 하나였다. 그 무서운 여자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드미트리 형의 일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제 그는 직접 증인이 되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선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다. 하기야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 완전히 그리고 끔찍하게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은 드미트리 형 하나뿐이었다. 틀림없는 재앙이 형을 지키고 서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도 드러났는데, 그 닿음은 어쩌면 알료샤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무언가 수수께끼 같은 일마저 벌어지고 있었다. 이반 형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알료샤가 그토록 오래 바라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는 어쩐 일인지 그 다가옴의 한 걸음이 저를 겁먹게 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이상한 일이었다. 아까 그는 몹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갔는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서 무슨 가르침이라도 얻으려는 듯 그 여자에게로 서둘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탁받은 말을 전하기는 아까보다 분명 더 힘들어졌다. 3천 루블 문제는 완전히 결판이 났고, 이제 제가 파렴치한이 되었으며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낀 드미트리 형은 물론 앞으로 어떤 타락 앞에서도 멈추지 않을 터였다. 게다가 형은 방금 아버지 집에서 벌어진 그 소동까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전하라고 했다.

벌써 일곱 시가 되어 날이 저물 무렵 알료샤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갔는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볼샤야 거리에 있는 아주 넓고 편안한 집 한 채를 통째로 쓰고 있었다. 알료샤는 그 여자가 이모 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기야 그중 한 사람은 언니 아가피야 이바노브나에게만 이모였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여학교를 마치고 그곳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언니와 함께 그 여자를 보살펴 준, 아버지 집의 그 말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이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기는 해도 격식을 차리는 거만한 모스크바 마님이었다. 들리는 말로는 두 사람 다 모든 일에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따랐고 오로지 체면 때문에 곁에 붙어 있다고 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자신은 오직 은인인 장군 부인만을 따랐는데, 장군 부인은 병 때문에 모스크바에 남아 있었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분에게 매주 두 통씩 자기 소식을 자세히 적은 편지를 보내야 했다.

알료샤가 현관에 들어서서 문을 열어 준 하녀에게 자기가 왔다고 알려 달라고 했을 때, 응접실에서는 분명 벌써 그가 온 것을 알고 있었다(어쩌면 창문으로 그를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알료샤의 귀에 갑자기 무슨 소란이 들렸고, 누군가의 달려가는 여자 발소리와 사락거리는 옷자락 소리가 들려왔는데, 어쩌면 여자 두셋이 뛰어나갔는지도 몰랐다. 자기가 왔다는 것만으로 그런 소동이 일 수 있다는 것이 알료샤에게는 이상해 보였다. 그렇지만 그는 곧바로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큰 방이었는데, 우아하고 넉넉한 가구가 전혀

시골답지 않게 들어차 있었다. 크고 작은 소파와 긴 의자, 작은 소파, 크고 작은 탁자가 많았고, 벽에는 그림이, 탁자 위에는 꽃병과 등잔이 있었으며, 꽃이 많았고, 창가에는 어항까지 있었다. 해 질 녘이라 방안은 조금 어둑했다. 알료샤는 방금 누가 앉아 있던 게 분명한 소파 위에 비단 망토가 던져져 있는 것을 알아보았고, 소파 앞 탁자에는 다 마시지 않은 코코아 두 잔과 비스킷, 검은 건포도를 담은 크리스털 접시, 그리고 사탕을 담은 접시가 하나 더 있었다. 누군가를 대접하던 참이었다. 알료샤는 손님이 와 있는 때에 왔다는 것을 짐작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 순간 휘장이 걷히더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빠르고 서두르는 걸음으로 들어와 기쁨에 넘쳐 황홀한 미소를 지으며 알료샤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하녀가 불 켠 초 두 자루를 들여와 탁자 위에 놓았다.

"다행이에요, 드디어 오셨군요! 저는 온종일 당신 한 분만 오시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빌었어요! 앉으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아름다움은 3주쯤 전에 드미트리 형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자신의 각별한 바람에 따라 그를 처음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키고 서로 알게 해 주었을 때 이미 알료샤를 놀라게 했다. 하기야 그때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는 잘 이어지지 않았다. 알료샤가 몹시 쑥스러워한다고 여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를 아껴 주려는 듯 그때 내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하고만 이야기했다. 알료샤는 말이 없었지만 많은 것을 아주 잘 눈여겨보았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오만한 아가씨의 위압하는 기세, 거리낌 없는 거만함, 자신만만함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틀림없었다. 알료샤는 자기가 부풀리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그 여자의 크고 까맣게 타는 듯한 눈이 아름답고, 창백하다 못해 조금 누르스름하기까지 한 갸름한 얼굴에 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눈에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입술 선에도, 물론 형이 끔찍이 반할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오래 사랑할 수는 없을 무언가가 있었다. 방문을 마친 뒤 드미트리가 약혼녀를 본 인상이 어떠냐고, 숨기지 말고 말해 달라고 애원하며 그에게 졸라 댔을 때, 그는 자기 생각을 거의 그대로 털어놓았다.

"형은 그분과 함께 행복할 거야. 하지만 어쩌면…… 편안하지 않은 행복일지도 몰라."

"바로 그거야, 동생아. 그런 여자들은 그런 채로 남는 거야. 운명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 여자를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 어쩌면 형은 그분을 영원히 사랑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쩌면 그분과 늘 행복하지는 않을지도 몰라……"

알료샤는 그때 얼굴을 붉히며 제 의견을 말했고, 형이 조르는 바람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털어놓은 자신에게 화가 났다. 제 의견을 말하자마자 그 자신에게도 그 의견이 끔찍하게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자에 대해 그렇게 단정하듯 의견을 내놓은 것이 부끄러워졌다. 그런 만큼 지금 자기에게로 달려 나온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처음 본 순간, 어쩌면 그때 자기가 크게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고 느끼자 그는 더욱 놀랐다. 이번에 그 여자의 얼굴은 꾸밈없고 순박한 선량함, 곧고 뜨거운 진심으로 빛났다. 그때 알료샤를 그토록 놀라게 한 예전의 그 모든 "자존심과 오만" 가운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은 대담하고 고결한 기운 하나, 그리고 어떤 맑고 굳센 자기 믿음뿐이었다. 알료샤는 그 여자를 처음 보자마자, 첫마디를 듣자마자, 그 여자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극적인지가 그 여자에게는 전혀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그 여자가 이미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그토록 많은 빛이, 미래에 대한 그토록 많은

믿음이 있었다. 알료샤는 갑자기 그 여자 앞에서 자기가 진지하게, 그리고 일부러 저지른 잘못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단번에 지고 말았고 단번에 끌려 들어갔다. 그 모든 것 말고도 그는 그 여자의 첫마디에서부터 그 여자가 무언가 강한 흥분, 어쩌면 그 여자에게는 아주 드문 흥분, 거의 무슨 환희와도 비슷한 흥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가 이렇게 당신을 기다린 건, 지금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당신 한 분뿐이라서예요. 다른 누구에게서도 안 돼요!"

"제가 온 건……" 알료샤는 갈팡질팡하며 중얼거렸다. "저는…… 형이 저를 보냈어요……"

"아, 그이가 당신을 보냈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알겠어요, 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눈을 번득이며 외쳤다. "잠깐만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제가 왜 이렇게 당신을 기다렸는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어쩌면 당신 자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니, 저한테 필요한 건 당신이 가져온 소식이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그이에 대한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가장 최근의 인상을 알아야 하고, 당신이 오늘 그이를 만나고 난 지금, 그이와 그이의 처지를 당신 스스로 어떻게 보는지, 가장 솔직하게, 꾸미지 않고, 거칠게라도(아, 얼마든지 거칠게라도 좋아요!)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게, 그이가 더는 찾아오려 하지 않는 제가 직접 그이와 담판을 짓는 것보다 어쩌면 나을 거예요. 제가 당신께 무얼 바라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이가 무슨 말을 들려서 당신을 저한테 보냈나요(그이가 당신을 보낼 줄 알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맨 마지막 말을 말씀해 주세요!……"

"형이 아가씨께…… 안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그러니 안부를 전하라고요."

"안부를 전하라고요? 그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지나가는 말로, 어쩌면 무심코, 말을 잘못해서, 써야 할 말 대신 엉뚱한 말을 쓴 건 아니고요?"

"아니요, 형은 바로 그 말을, '안부를 전하라'는 그 말을 꼭 전하라고 했어요. 잊지 말고 전하라고 세 번쯤 부탁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제 저를 도와주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 당신은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들어 보세요, 만약 그이가 그 말을 꼭 전하라고 고집하지 않고, 그 말에 힘을 주지 않고, 지나가는 말로 안부를 전하라고 했다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그럼 끝장이에요! 그런데 그이가 유독 그 말을 고집했다면, 유독 그 인사를 잊지 말고 전하라고 당신께 당부했다면, 그렇다면 그이는 흥분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심을 하고 나서 제 결심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이는 굳은 걸음으로 저를 떠나간 게 아니라 비탈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준 건 허세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알료샤가 뜨겁게 맞장구쳤다.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이는 아직 끝장나지 않았어요! 그이는 절망에 빠져 있을 뿐이고, 저는 아직 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이가 돈에 대해, 3천 루블에 대해 무슨 말을 전하지는 않았나요?"

"말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게 형을 가장 괴롭혔을 거예요. 형은 이제 자기가 명예를 잃었다고, 이제는 다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알료샤는 희망이 제 가슴에 흘러드는 것을, 정말로 어쩌면 형에게

출구와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열을 띠고 대답했다. "그런데 정말 아가씨는…… 그 돈 일을 알고 계세요?" 그는 이렇게 덧붙이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요. 모스크바에 전보로 물어보았고, 돈이 오지 않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이는 돈을 부치지 않았지만 저는 잠자코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는 그이에게 돈이 더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모든 일에서 그이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하는지, 누가 그이의 가장 충실한 친구인지 그이가 알게 하는 것 한 가지만을 목표로 삼았어요. 아니에요, 그이는 제가 그이의 가장 충실한 친구라는 걸 믿으려 하지 않고, 저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저를 그저 여자로만 봐요. 저는 한 주 내내, 그이가 3천 루블을 써 버린 일로 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무서운 걱정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는 부끄러워해도 좋지만 저한테만은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는 그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이는 제가 그이를 위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왜, 왜 저를 모르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히 저를 모를 수 있죠? 저는 그이를 영원히 구하고 싶어요. 그이가 저를 자기 약혼녀로서는 잊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이는 제 앞에서 자기 명예 때문에 겁을 내고 있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이는 당신한테는 겁내지 않고 털어놓았잖아요? 왜 저는 아직도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마지막 말을 할 때 그 여자는 울고 있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가씨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알료샤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형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장면을 다 이야기했다. 자기가 돈을 얻으러 심부름을 갔다는 것,

형이 뛰어들어 아버지를 때렸다는 것,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알료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하라"고 유독 다짐하듯 한 번 더 일렀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형은 그 여자에게 갔어요……" 알료샤가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은 제가 그 여자를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이는 제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이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카라마조프가 정말 그런 정념으로 영원히 타오를 수 있겠어요? 그건 정념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이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가 그이에게 시집가지 않을 테니까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다시 이상하게 갑자기 피식 웃었다.

"형은 어쩌면 결혼할지도 몰라요." 알료샤가 눈을 내리깔고 서글프게 말했다.

"그이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 아가씨는, 그 아가씨는 천사예요.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시냐고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유난히 열을 띠며 외쳤다. "그 사람은 환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도 가장 환상적인 존재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홀리는지 저도 알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굳세고 고결한지도 알아요.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어쩌면 제 말에 놀라셨나요, 어쩌면 제 말을 믿지 못하시나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나의 천사!" 그 여자는 갑자기 다른 방 쪽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소리쳤다. "이리 오세요, 좋은 분이에요, 알료샤예요. 이분은 우리 일을 다 알아요. 이분께 얼굴을 보여 주세요!"

"저는 휘장 뒤에서 부르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걸요." 부드럽고, 어딘지 달착지근하기까지 한 여자 목소리가 말했다.

휘장이 걷히더니…… 그루셴카가 몸소, 웃으며 기뻐하며 탁자로 다가왔다. 알료샤의 속에서 무언가가 움찔한 것 같았다. 그의 눈길이 그 여자에게 붙박여 떨어질 줄 몰랐다. 바로 이 여자였다, 반 시간 전에 이반 형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무서운 여자, 그 "짐승". 그런데도 그의 앞에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꾸밈없는 사람이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착하고 귀여운 여자, 아름답다고 해 두자, 그러나 다른 모든 아름답지만 "평범한" 여자들과 너무나 닮은 여자! 사실 그 여자는 아름다웠다, 아주,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미칠 듯이 사랑하는 러시아의 아름다움이었다. 꽤 큰 키였지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보다는 조금 작았고(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주 키가 컸다), 몸이 풍만했으며, 몸놀림이 부드럽고 소리마저 없는 듯했는데, 그 몸놀림도 그 목소리처럼 무언가 남다르게 달착지근한 솜씨로 길들여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처럼 힘차고 씩씩한 걸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소리 없이 다가왔다. 마룻바닥에서 그 여자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탐스러운 검은 비단 옷을 부드럽게 사락거리며 안락의자에 부드럽게 앉더니, 거품처럼 하얀 통통한 목과 넓은 어깨를 값비싼 검은 모직 숄로 나른하게 감쌌다. 그 여자는 스물두 살이었고, 얼굴도 꼭 그 나이로 보였다. 얼굴이 아주 희었고, 뺨에는 엷은 분홍빛 홍조가 높이 돌았다. 얼굴 윤곽은 조금 지나치게 넓은 듯했고, 아래턱은 아주 조금 앞으로 나와 있기까지 했다. 윗입술은 얇았고, 조금 도드라진 아랫입술은 그 두 배는 도톰해서 부어오른 것 같았다. 그러나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풍성한 짙은 아마빛 머리칼, 검은담비 털 같은 짙은 눈썹, 속눈썹이 긴 사랑스러운 회청색 눈은 아무리 무심하고 넋 나간 사람이라도, 어디 군중 속에서든, 산책길에서든, 북새통 속에서든 반드시 이 얼굴 앞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이 얼굴을 오래 기억하게 할 것이었다. 알료샤를 무엇보다

놀라게 한 것은 이 얼굴의 아이 같은 순박한 표정이었다. 그 여자는 아이처럼 바라보았고, 무언가를 아이처럼 기뻐했으며, 바로 그렇게 "기뻐하며", 무언가를 당장이라도 기다리는 듯이, 더없이 아이답게 조바심 나고 믿음 가득한 호기심을 품고 탁자로 다가왔다. 그 여자의 눈길은 영혼을 즐겁게 했고, 알료샤는 그것을 느꼈다. 그 여자에게는 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거나 설명할 줄 몰랐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에게도 무의식중에 전해졌을 것이다. 바로 다시 이 부드러움, 몸놀림의 이 나긋함, 이 몸놀림의 고양이 같은 소리 없음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힘차고 풍만한 몸이었다. 솔 아래로 넓고 풍만한 어깨와 높고 아직 아주 앳된 가슴이 드러났다. 이 몸은 어쩌면 밀로의 비너스 같은 몸매를 약속하는지도 몰랐다. 물론 지금도 벌써 조금 과장된 비례이기는 했는데, 그것이 예감되었다. 러시아 여자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루셴카를 보고, 이 싱싱하고 아직 앳된 아름다움은 서른 살이 될 무렵이면 조화를 잃고, 퍼지고, 얼굴 자체가 늘어지고, 눈가와 이마에 아주 빠르게 잔주름이 생기고, 살갗이 거칠어지고, 어쩌면 검붉어지리라고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순간의 아름다움, 덧없는 아름다움, 바로 러시아 여자에게서 그토록 자주 만나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알료샤는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넋을 빼앗기면서도 어쩐지 불쾌한 느낌으로, 안타까워하듯,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말을 길게 끌고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여자는 분명 이렇게 말을 끄는 데에, 그리고 음절과 소리에 일부러 달착지근한 빛깔을 입히는 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했다. 물론 그것은 고상하지 못한 데서 온 나쁜 버릇일 뿐이었고, 천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속되게 익힌 예의범절의 관념을 드러내 주었다. 그런데도 이 말투와 억양은 알료샤에게 이 아이같이 순박하고 기쁨에 찬 얼굴 표정, 갓난아기처럼

고요하고 행복한 이 눈빛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슨 모순처럼 보였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순식간에 그 여자를 알료샤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히고는 웃고 있는 그 작은 입술에 황홀해하며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정말로 그 여자에게 반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도취하여 말했다. "저는 이분을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이분께 찾아가려 했는데, 이분이 제가 바라자마자 몸소 와 주셨어요. 저는 우리 둘이 모든 걸, 모든 걸 결판낼 줄 알았어요! 마음이 그렇게 예감했어요…… 사람들은 저더러 그런 걸음은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저는 결말을 예감했고 틀리지 않았어요. 그루셴카가 저에게 모든 걸,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밝혀 주었어요. 이분은 착한 천사처럼 이리로 날아 내려와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었어요……"

"저 같은 걸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귀엽고 훌륭하신 아가씨." 그루셴카가 여전히 그 귀엽고 기쁜 미소를 띤 채 노래하듯 말꼬리를 늘였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매혹하는 분, 마법사 같은 분! 당신을 마다하다니요? 자, 당신의 아랫입술에 한 번 더 입을 맞출게요. 정말 부어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부어오르게 해 드릴게요, 또, 또…… 이분이 웃는 것 좀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 천사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알료샤는 얼굴을 붉히며 눈에 띄지 않게 가늘게 떨었다.

"너무 귀여워해 주시네요, 귀여운 아가씨. 저는 어쩌면 아가씨가 이렇게 귀여워해 주실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다시 아까처럼 열을 띠며 외쳤다. "알아 두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우리는 공상에 빠진 작은 머리예요, 우리는 제멋대로지만 자존심이 세고 또 센 작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고결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우리는 너그러워요, 그걸 아세요? 우리는 그저 불행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자격 없는, 아니면 경박한 사람에게 너무 성급하게 온갖 희생을 바치려 했어요. 한 사람이, 역시 장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바쳤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다섯 해 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잊고 결혼해 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은 홀아비가 되었고, 편지를 보냈고, 이리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 두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 하나만을, 오직 그 사람 하나만을 사랑하고 있고 평생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오면 그루셴카는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이 다섯 해 내내 이분은 불행했지만요. 하지만 누가 이분을 나무랄 수 있겠어요? 누가 이분의 호의를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다리를 못 쓰는 그 상인 노인 한 사람뿐인데, 그 노인은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보호자였어요. 노인은 그때 우리가 절망에 빠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있는 걸 보았어요…… 아니, 이분은 그때 물에 빠져 죽으려 했는데, 그 노인이 이분을 구해 주었어요, 이분을 구해 주었다고요!"

"너무 감싸 주시네요, 귀여운 아가씨. 아가씨는 무슨 일이든 너무 서두르세요." 그루셴카가 또다시 말꼬리를 늘였다.

"감싸 준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싸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히 여기서 감싸 줄 수나 있겠어요? 그루셴카, 천사님, 손을 좀 주세요. 이 통통하고 작고 사랑스러운 손을 좀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보이세요? 이 손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고 저를 되살렸어요. 이제 저는 이 손에 입을 맞출 거예요, 손등에도 손바닥에도, 자, 자, 그리고 자!" 그러고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도취한 듯 정말로 사랑스러운,

어쩌면 지나치게 통통한 그루셴카의 손에 세 번 입을 맞추었다. 그루셴카는 그 손을 내민 채 신경질적이고 낭랑하고 사랑스러운 웃음을 짧게 흘리며 "귀여운 아가씨"를 지켜보았고, 제 손에 그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 싫지 않은 눈치였다. "어쩌면 너무 지나친 환희인지도 몰라." 알료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의 마음은 내내 어쩐지 유난히 불안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앞에서 제 손에 이렇게 입을 맞추셨으니, 저를 창피 주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귀여운 아가씨."

"제가 그걸로 당신을 창피 주려 했다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조금 놀라서 말했다. "아, 이를 어째, 저를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아가씨도 어쩌면 저를 전혀 잘못 알고 계실지 몰라요, 귀여운 아가씨. 저는 어쩌면 아가씨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여자예요. 저는 마음이 나빠요, 제멋대로예요. 저는 그때 그저 놀려 주려고 가엾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그이를 구해 주실 거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이 그이를 깨우쳐 주실 거잖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오래전부터 사랑해 왔고 이제 당신에게 청혼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이에게 밝혀 주실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약속을 드린 적 없어요. 그건 아가씨가 혼자 다 말씀하신 거고, 저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당신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보네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조금 창백해진 듯이 말했다. "당신은 약속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천사 같은 아가씨, 저는 아무 약속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루셴카가 여전히 그 즐겁고 순진한 표정으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을 가로챘다. "이제 보시니 아시겠지요, 훌륭하신 아가씨, 아가씨 앞에서

제가 얼마나 못되고 제멋대로인지. 저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대로 해 버려요. 아까는 어쩌면 아가씨께 무슨 약속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이가, 미탸가 갑자기 또 제 마음에 들면 어쩌지? 한때는 정말 그이가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거의 한 시간 내내 마음에 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어쩌면 지금 가서 그이한테 바로 오늘부터 제 곁에 있으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여자예요……"

"아까는 당신이 말씀하신 건……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간신히 말했다.

"아, 아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여리고 어리석어요. 생각만 해 보세요, 그이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집에 돌아가서 갑자기 그이가 가여워지면, 그땐 어쩌지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에이, 아가씨, 제 앞에서 아가씨는 정말 착하고 고결한 분으로 보이시네요. 이제 어쩌면 아가씨는 이런 바보 같은 저를 제 성미 때문에 싫어하게 되시겠지요. 그 귀여운 손을 좀 주세요, 천사 같은 아가씨." 그루셴카는 다정하게 부탁하더니 경건하기라도 한 듯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손을 잡았다. "자, 귀여운 아가씨, 아가씨의 손을 잡고 아가씨가 저한테 해 주신 것처럼 입을 맞출게요. 아가씨는 저한테 세 번 입을 맞추셨지만, 셈을 맞추려면 저는 그 대신 아가씨께 삼백 번은 입을 맞춰야겠지요. 어쨌든 그러지요, 그다음은 하느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고요. 어쩌면 저는 아가씨의 온전한 종이 되어 무슨 일에서든 종처럼 아가씨 마음에 들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하느님이 정하시는 대로, 서로 아무 약조도 약속도 없이 그렇게 되라지요. 손이, 손이 참 귀여우세요, 이 손이! 귀여운 아가씨, 말도 못 하게 어여쁜 내 아가씨!"

그루셴카는 그 손을 천천히 제 입술로 가져갔다. 사실은 입맞춤으로 "셈을 맞추겠다"는 이상한 목적을 품고서였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여자는 "종처럼" 자기 마음에 들겠다는, 역시 아주 이상하게 표현된 그루셴카의 마지막 약속을 소심한 희망을 품고 끝까지 들었다. 그 여자는 긴장한 채 그루셴카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눈에서 여전히 그 순박하고 믿음 가득한 표정을, 여전히 그 맑은 명랑함을 보았다…… "이 사람은 어쩌면 너무 순진한지도 몰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마음에 희망이 스쳤다. 그사이 그루셴카는 "귀여운 손"에 홀린 듯이 그 손을 천천히 제 입술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바로 입술 앞에서 그 여자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갑자기 두 순간, 세 순간 손을 멈추었다.

"그런데 있잖아요, 천사 같은 아가씨." 그 여자가 갑자기 더없이 다정하고 더없이 달착지근한 목소리로 말꼬리를 늘였다. "있잖아요, 저는 아가씨 손에 입을 안 맞출래요." 그러고는 아주 신이 난 듯 작게 웃었다.

"좋으실 대로…… 왜 그러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그러니까 이걸 기념으로 간직하고 계세요. 아가씨는 제 손에 입을 맞추셨는데 저는 아가씨 손에 입을 안 맞췄다는 걸요." 그 여자의 눈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번득였다. 그 여자는 무섭도록 뚫어지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쳐다보았다.

"뻔뻔한 것!"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하더니, 얼굴이 온통 달아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루셴카도 서두르지 않고 일어섰다.

"그럼 저는 지금 미탸한테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가씨는 제 손에 입을 맞췄는데 저는 아가씨 손에 전혀 입을 안 맞췄다고요. 그이가

얼마나 웃을까요!"

"더러운 것, 나가!"

"어머나 창피해라, 아가씨, 어머나 창피해라. 그런 말은 아가씨한테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요, 귀여운 아가씨."

"나가, 돈에 팔리는 것!"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울부짖었다. 완전히 일그러진 그 여자의 얼굴에서 하나하나의 선이 모두 떨렸다.

"뭐, 돈에 팔린다고요. 아가씨야말로 처녀 몸으로 해 질 녘에 돈을 얻으러 사내들한테 찾아가서 제 아름다움을 팔러 가지 않았나요. 저도 다 알아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여자에게 덤벼들려 했지만 알료샤가 온 힘을 다해 붙들었다.

"한 걸음도, 한마디도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아무 대꾸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갈 거예요, 금방 갈 거예요!"

그 순간 고함 소리를 듣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두 친척 여자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고, 하녀도 뛰어 들어왔다. 모두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달려갔다.

"그래요, 가지요." 그루셴카가 소파에서 망토를 집어 들며 말했다. "알료샤, 귀여운 사람, 나 좀 바래다줘!"

"가세요, 어서 가세요!" 알료샤가 그 여자 앞에서 애원하듯 두 손을 모았다.

"귀여운 알료셴카, 바래다줘! 가는 길에 너한테 예쁘고 예쁜 말 한마디 해 줄게! 이 소동은 너를 위해서 벌인 거야, 알료셴카. 바래다줘, 착하지, 나중에 마음에 들 거야."

알료샤는 두 손을 비틀며 돌아섰다. 그루셴카는 낭랑하게 웃으며 집에서 뛰어나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발작이 일어났다. 그 여자는 흐느껴 울었고, 경련이 숨통을 조였다. 모두가 그 여자 곁에서 허둥거렸다.

"내가 미리 말했잖아요." 큰 이모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말했다. "그런 걸음은 하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당신은 너무 열정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음을 할 생각을 다 해요! 당신은 저런 것들을 몰라요. 게다가 저 여자는 그중에서도 가장 고약하다고들 하는데…… 아니, 당신은 너무 제멋대로예요!"

"저건 호랑이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울부짖었다. "왜 저를 붙드셨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는 저 여자를 때려 주었을 거예요, 때려 주었을 거예요!"

그 여자는 알료샤 앞에서 자기를 억누를 힘이 없었다. 어쩌면 억누르고 싶지도 않았는지 모른다.

"저 여자는 채찍으로 맞아야 해요, 처형대 위에서, 망나니 손으로, 사람들 앞에서!……"

알료샤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 하느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손뼉을 치며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이가! 그이가 그렇게 비열할 수 있다니, 그렇게 사람의 도리가 없을 수 있다니! 그이가 그 더러운 것한테 거기서, 그 운명의, 영원히 저주받은, 저주받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움을 팔러 오셨잖아요, 귀여운 아가씨!' 저 여자는 알고 있어요! 당신 형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알료샤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찾지 못했다. 그의 가슴이 아파서 죄어들었다.

"가 주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부끄러워요, 끔찍해요! 내일…… 무릎 꿇고 빌게요, 내일 와 주세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알료샤는 비틀거리듯이 거리로 나왔다. 그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처럼 울고 싶었다. 갑자기 하녀가 그를 뒤쫓아 왔다.

"아가씨께서 호흘라코바 부인이 보낸 이 편지를 전해 드리는 걸 잊으셨대요. 점심때부터 여기 놓여 있었어요."

알료샤는 기계적으로 작은 분홍빛 봉투를 받아 거의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제11장 또 하나의 무너진 평판

읍내에서 수도원까지는 1베르스타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알료샤는 이 시각이면 인적이 끊기는 길을 서둘러 걸었다. 벌써 거의 밤이 되어 서른 걸음만 떨어져도 물체를 가려보기 어려웠다. 길 한중간쯤에 네거리가 있었다. 네거리의 외따로 선 버드나무 아래에 웬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알료샤가 네거리에 들어서자마자 그림자가 자리에서 튀어나와 그에게 달려들더니 미친 듯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돈이냐 목숨이냐!"

"뭐야, 미탸 형이구나!" 알료샤가 놀라 외쳤지만, 그래도 몸을 몹시 떨었다.

"하하하! 생각도 못 했지? 나는 생각했어. 어디서 너를 기다릴까? 그 여자 집 앞에서? 거기서는 길이 세 갈래라서 너를 놓칠 수도 있어. 그래서 결국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지. 여기라면 틀림없이 지나갈 테니까. 수도원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거든. 자, 사실대로 털어놔, 나를 바퀴벌레처럼 짓밟아 줘…… 그런데 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형…… 그냥 놀라서 그래. 아, 드미트리 형! 아까 아버지가 흘린 그 피…… " 알료샤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울고 싶었는데,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형은 아버지를 거의 죽일 뻔했어…… 아버지를 저주했어…… 그런데 이제…… 지금…… 형은 농담을 하고 있어…… '돈이냐 목숨이냐'라니!"

"아, 그게 뭐 어때서? 점잖지 못하다는 거냐? 처지에 안 어울린다는 거냐?"

"아니…… 그냥……"

"잠깐. 밤을 좀 봐. 얼마나 음산한 밤인지 보이지? 저 구름하며, 바람이 얼마나 세게 일어났는지! 나는 여기 버드나무 아래 숨어서 너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생각했어(하느님께 맹세하지!), 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겠어, 무엇을 기다리겠어, 여기 버드나무가 있고, 손수건도 있고, 셔츠도 있으니 당장 밧줄을 꼴 수 있고, 멜빵까지 보태면 되지, 그리고 더는 땅에 짐이 되지 말자, 내 비천한 몸뚱이로 땅을 더럽히지 말자! 그런데 네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 주여, 무언가가 갑자기 나에게 내려앉은 것 같았어,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바로 저기 그 사람이, 그 꼬마가,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가 오직 하나 사랑하는 내 귀여운 동생이 오는구나! 그 순간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하게 되어서, 그토록 사랑해서, 당장 달려가 네 목에 매달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리석은 생각이 떠오르더군. '저 애를 좀 웃겨 주자, 놀래 주자.' 그래서 바보처럼 '돈이냐!' 하고 소리친 거야. 바보짓을 용서해 줘. 그건 그냥 헛짓이고, 내 마음속은…… 역시 점잖아…… 에이, 빌어먹을, 그건 그렇고 말해 봐, 거기서 어떻게 됐어? 그 여자가 뭐래? 나를 짓밟아, 나를 쳐, 봐주지 마! 미친 듯이 날뛰었어?"

"아니, 그게 아니야…… 거기서는 전혀 다른 일이 있었어, 미탸 형. 거기서…… 나는 거기서 방금 두 사람을 함께 만났어."

"두 사람이라니 누구?"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댁에 그루셴카가 와 있었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그가 외쳤다. "너 헛소리하는구나! 그루셴카가 그 여자 집에?"

알료샤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에 들어선 바로 그 순간부터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는 10분쯤 이야기했는데, 술술 조리 있게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말과 가장 중요한 몸짓을 붙잡아 또렷하게 전했고, 자기 자신의 느낌도 흔히 단 한 획으로 생생하게 전한 듯하다. 드미트리 형은 말없이 들으며 무섭도록 꼼짝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알료샤는 형이 이미 모든 것을 알아듣고 그 사실 전체를 헤아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나아갈수록 형의 얼굴은 음울해졌다기보다 오히려 무시무시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고 이를 악물었으며, 움직이지 않던 그의 눈길은 한층 더 움직임이 없어지고, 더 끈질기고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았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성나고 사납던 그의 얼굴 전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한꺼번에 바뀌더니, 꽉 다물었던 입술이 벌어지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더없이 걷잡을 수 없는, 더없이 꾸밈없는 웃음을 터뜨린 것은 더욱 뜻밖이었다. 그는 말 그대로 웃음을 쏟아 냈고, 오랫동안 웃느라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끝내 손에 입을 안 맞췄다고! 끝내 안 맞추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그는 무언가 병적인 환희에 들떠 소리쳤다. 이 환희가 그토록 꾸밈없지 않았더라면 뻔뻔한 환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이 저건 호랑이라고 소리쳤다고! 호랑이가 맞지! 그래서 그 여자를 처형대에 세워야 한다고? 그래,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해, 나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야, 진작 그랬어야 해! 알겠냐, 동생아, 처형대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병부터 나아야 해. 뻔뻔함의 여왕이 어떤지 알겠어. 그 여자가 다 거기 있어, 그 여자가 다 그 손 하나에서 드러났어, 지옥 같은 여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옥 같은 여자들의 여왕이야! 나름대로 기막힌 여자야! 그래서 그 여자는 집으로 달려갔다고? 나

지금…… 아…… 그 여자한테 달려가 봐야겠다! 알료시카, 나를 탓하지 마. 그 여자를 목 졸라 죽여도 모자란다는 건 나도 인정하니까……"

"그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알료샤가 슬프게 외쳤다.

"그 여자도 보여, 속속들이 그 여자도 보여, 이렇게 똑똑히 보인 적이 없을 만큼 보여! 이건 동서남북 네 방위, 아니 다섯 방위를 통째로 발견한 거야! 그런 걸음을 하다니! 바로 그 카텐카야, 그 여학교 아가씨야.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너그러운 생각에서, 끔찍하게 모욕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얼빠지고 막돼먹은 장교에게 겁 없이 달려왔던 그 카텐카라고!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란, 위험을 무릅쓰려는 욕구란, 운명에 대한 도전이란, 끝없는 데로 던지는 도전이란! 너는 그 이모가 말렸다고 했지? 그 이모는 말이야, 그 자신도 제멋대로인 사람인데, 바로 그 모스크바 장군 부인의 친동생으로 그 장군 부인보다 더 콧대가 높았지만, 남편이 나랏돈을 빼돌리다 들통이 나서 영지고 뭐고 다 잃었고, 그 오만한 아내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그 뒤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이모가 카탸를 말렸는데 카탸가 듣지 않았던 거야. '나는 무엇이든 이길 수 있어, 모든 것이 내 뜻대로야. 마음만 먹으면 그루셴카도 홀릴 수 있어' 하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자기도 그걸 믿었고, 혼자서 제 앞에서 허세를 부렸으니 누구 탓이겠어? 너는 그 여자가 일부러, 교활한 속셈으로 먼저 그루셴카의 손에 입을 맞췄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 여자는 정말로, 정말로 그루셴카에게 반한 거야. 아니, 그루셴카에게가 아니라 제 꿈에, 제 헛소리에 반한 거지, 이건 내 꿈이니까, 내 헛소리니까, 이거야! 귀여운 알료샤, 그런데 너는 그런 여자들한테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수도복 안옷 자락을 걷어쥐고 달아났냐? 하하하!"

"형, 형은 그날 일을 그루셴카한테 이야기해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그루셴카는 방금 그분

면전에 대고 '아가씨야말로 남몰래 사내들한테 아름다움을 팔러 갔잖아요!' 하고 내던졌어. 형,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어?" 알료샤를 무엇보다 괴롭힌 것은 형이 정말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모욕당한 것을 기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었지만.

"아니!"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무섭게 얼굴을 찌푸리더니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쳤다. 알료샤가 아까 모욕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당신 형은 비열한 사람이에요!"라는 외침도 한꺼번에 다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제야 겨우 거기에 마음이 갔다. "그래, 정말 어쩌면 내가 그루셴카한테 카탸가 말하는 그 '운명의 날'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 그래, 맞아, 이야기했어, 생각난다! 바로 그때, 모크로예에서였어. 나는 취해 있었고, 집시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지…… 하지만 나는 울었어, 그때 나 스스로 흐느껴 울었어. 나는 무릎을 꿇고 카탸의 모습을 성상처럼 우러르며 빌었고, 그루셴카는 그걸 알아주었어. 그 여자는 그때 다 알아들었어, 생각나, 그 여자도 울었어…… 아, 빌어먹을! 그런데 지금 달리 될 수가 있었겠어? 그때는 울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가슴에 비수'라니! 여자들이란 그래."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생각에 잠겼다.

"그래, 나는 비열한 놈이야! 틀림없는 비열한 놈이야." 그가 갑자기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울었든 안 울었든 마찬가지야, 아무튼 비열한 놈이야! 거기 가서 전해 줘, 그게 위로가 된다면 그 이름을 받아들이겠다고. 자, 이제 됐다, 잘 가, 수다는 떨어 뭐 해! 즐거운 일은 없어. 너는 네 길로, 나는 내 길로 가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무슨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잘 가라, 알렉세이!" 그는 알료샤의 손을 꽉 쥐더니, 여전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얼굴도 들지 않은 채, 무엇에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한 듯 읍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알료샤는 형이 정말 그렇게 갑자기 아주 가 버리리라고는 믿지 못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잠깐, 알렉세이,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 너한테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되돌아왔다. "나를 봐, 똑바로 봐, 보이지, 바로 여기, 바로 여기서 무서운 치욕이 준비되고 있어." ("바로 여기"라고 말하면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는데, 그 모습이 몹시 이상해서 마치 치욕이 바로 여기 그의 가슴에, 어딘가 한 자리에, 어쩌면 주머니 속에, 아니면 무엇에 꿰매어 목에 걸린 채 놓여 간직되어 있는 것 같았다.) "너는 이제 나를 알아. 비열한 놈, 스스로 인정한 비열한 놈이지! 하지만 알아 둬. 내가 전에 무슨 짓을 했든, 지금 하든, 앞으로 하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비열함에서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여기 내 가슴에, 바로 여기, 여기에 지니고 다니는 그 치욕에 견줄 수 없어, 그 치욕은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멈추는 것도 내 마음대로라서 나는 그걸 멈출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어, 이걸 잘 새겨 둬! 그런데 알아 둬, 나는 그걸 멈추지 않고 이룰 거야. 나는 아까 너한테 다 이야기했지만 이건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럴 만한 놋쇠 낯가죽이 나한테도 없었으니까! 나는 아직 멈출 수 있어, 멈추면 당장 내일이라도 잃어버린 명예의 절반을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 비열한 계획을 이룰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미리, 알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앞으로 증언해 줘! 파멸과 어둠이다! 설명할 건 없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악취 나는 골목과 지옥 같은 여자! 잘 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 나는 그럴 만한 놈이 아니고, 전혀 필요 없어, 전혀 필요 없어…… 나는 조금도 바라지 않아! 저리 가!……"

그러고는 그는 갑자기 떠나 버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주 가 버렸다. 알료샤는 수도원으로 향했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형을 다시는 못

본다는 거지, 형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그에게 거칠게 떠올랐다. "내일 당장 꼭 형을 만나고 찾아낼 거야, 일부러 찾아낼 거야. 형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수도원을 빙 돌아 소나무 숲을 지나 곧장 은수처로 갔다. 이 시각에는 벌써 아무도 들이지 않았는데도 그에게는 문을 열어 주었다. 장로의 수방에 들어설 때 그의 가슴이 떨렸다. "왜, 왜 나는 밖으로 나갔을까, 왜 그분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을까? 여기는 고요하고, 여기는 거룩한데, 저기는 혼란이고, 저기는 어둠이어서 대번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데……"

수방에는 수련 수사 포르피리와, 온종일 한 시간마다 들러 조시마 신부의 건강을 살피던 수도사제 파이시 신부가 있었는데, 알료샤가 겁에 질려 알게 된 바로는, 조시마 신부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형제 수도사들과 나누던 저녁마다의 담화조차 열 수가 없었다. 여느 때는 저녁에 예배가 끝나면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도원 형제들이 장로의 수방으로 모여들었고, 저마다 소리 내어 그날 지은 죄, 죄스러운 몽상, 생각, 유혹, 서로 다툰 일이 있으면 그 다툼까지 장로에게 고백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 장로는 죄를 풀어 주고, 화해시키고, 가르치고, 참회를 지우고, 축복하고, 돌려보냈다. 바로 이 형제들의 "고백"에 맞서 장로 제도의 반대자들이 들고일어났는데, 그들은 이것이 성사인 고해를 더럽히는 일이고 거의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교구 당국에 이런 고백이 좋은 목적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일부러 사람을 죄와 유혹으로 끌어들인다고 내세우기까지 했다.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장로에게 가기를 버거워하면서도, 모두가 가니까, 교만하다거나 생각으로 반역한다고 여겨지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간다고 했다. 들리는 말로는 형제들 가운데 몇몇은 저녁 고백을 하러 가면서 미리 서로

짜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아침에 자네한테 화를 냈다고 말할 테니 자네가 그렇다고 해 주게." 말할 거리가 있게, 그저 그 자리를 넘기려고 그런다고 했다. 알료샤는 실제로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 형제들 가운데 관례에 따라 은수처 수도사들이 받는 친척의 편지조차 먼저 장로에게 가져가서, 받는 사람보다 앞서 장로가 뜯어 보게 하는 일에 몹시 분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자유롭고 진실하게, 온 마음으로, 자발적인 겸손과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드러난 바와 같이 때로 몹시 진실하지 못하게, 오히려 꾸며 내어 거짓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 연장자이고 가장 경험 많은 이들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헤아렸다. "구원받으려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담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이 모든 순종과 수행이 틀림없이 구원이 되고 큰 유익을 가져다줄 것이오. 반대로 버거워하고 투덜대는 이는 어차피 수사가 아닌 것과 같고 공연히 수도원에 들어온 것이니, 그런 이가 있을 자리는 세상이오. 죄와 악마로부터는 세상에서뿐 아니라 성전에서도 몸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니, 그렇다면 죄를 너그러이 봐줄 까닭도 없소."

"기력이 떨어지시고 잠이 쏟아지셨다." 파이시 신부가 알료샤에게 축복해 준 뒤 속삭이며 알려 주었다. "깨우기조차 어렵구나. 하지만 깨울 필요도 없다. 5분쯤 깨어 계셨는데, 형제들에게 축복을 전해 달라 하시고, 형제들에게는 당신을 위해 밤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내일 아침 한 번 더 영성체를 하실 생각이시다. 너를 떠올리셨다, 알렉세이. 네가 떠났느냐고 물으셔서 읍내에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라고 내가 그 애를 축복했소. 그 애 자리는 거기요. 아직은 여기가 아니오.' 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사랑을 담아, 걱정하며 떠올리셨다. 네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알겠느냐? 그런데 그분은

어찌하여 너에게 당분간 세상에 있을 기한을 정하셨을까? 네 운명에서 무언가를 내다보신다는 뜻이다! 알렉세이, 알아 두어라. 네가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네 장로께서 너에게 지우신 순종을 위해서이지, 허황한 경솔함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다……"

파이시 신부가 나갔다. 하루 이틀은 더 사실 수 있다 해도 장로가 숨을 거두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료샤는 의심하지 않았다. 알료샤는 아버지와 호흘라코바 부인 댁 사람들과 형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만나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데도, 내일은 수도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자기 장로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굳고 뜨겁게 마음먹었다. 그의 가슴은 사랑으로 불타올랐고, 그는 저기 읍내에서 한순간이나마 수도원에 임종의 자리에 두고 온 분을, 세상 누구보다 공경하는 분을 잊을 수 있었던 자신을 쓰라리게 나무랐다. 그는 장로의 작은 침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잠든 분에게 땅에 엎드려 절했다. 장로는 고요히, 꼼짝 않고, 고르게 그리고 거의 알아챌 수 없게 가늘게 숨 쉬며 자고 있었다. 그 얼굴은 평온했다.

다른 방으로, 아침에 장로가 손님들을 맞던 바로 그 방으로 돌아온 알료샤는 옷도 거의 벗지 않고 장화만 벗은 채 가죽을 씌운 딱딱하고 좁은 작은 소파에 누웠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밤마다 늘 베개만 가져다 놓고 바로 그 소파에서 잤다. 아까 아버지가 소리치던 요는 깔지 않은 지 이미 오래였다. 그는 수도복 안옷만 벗어서 이불 대신 덮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했다. 뜨거운 기도 속에서 그는 하느님께 자기의 혼란을 풀어 달라고 빌지 않았고, 다만 기쁜 감동을,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뒤면 언제나 그의 영혼을 찾아오던 예전의 그 감동을 목마르게 바랐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 그의 기도는 대개 그 찬양과 영광이 전부였다. 그를 찾아오는 이 기쁨은 가볍고 평온한 잠을 데려왔다. 지금도 기도하다가 그는 문득 우연히 주머니 속에서 길에서

그를 뒤쫓아 온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하녀가 건네준 그 작은 분홍빛 봉투를 더듬어 찾아냈다. 그는 당황했지만 기도를 끝까지 마쳤다. 그러고 나서 조금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그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서명은 Lise, 곧 아침에 장로 앞에서 그를 그렇게 놀려 대며 웃던 호흘라코바 부인의 바로 그 어린 딸이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리즈는 이렇게 썼다. "모든 사람 몰래, 엄마한테도 몰래 이 편지를 쓰고,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당신께 말하지 않으면 저는 더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때가 될 때까지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나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당신께 말할까요? 종이는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장담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종이도 지금 온몸이 빨개진 저와 똑같이 얼굴을 붉혀요. 귀여운 알료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어릴 때부터, 모스크바에서부터 사랑했고, 평생 사랑할 거예요. 저는 당신과 하나가 되고 늙어서는 함께 우리 삶을 마치려고 제 마음으로 당신을 골랐어요. 물론 당신이 수도원을 나온다는 조건으로요. 우리 나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만큼 기다리기로 해요. 그때가 되면 저는 꼭 나아서 걷고 춤도 출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다 생각해 두었는지.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생각해 낼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늘 웃고 장난만 치고, 아까는 당신을 화나게도 했지만, 장담하는데 지금 펜을 들기 전에 성모님 성상 앞에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울 것만 같아요.

"제 비밀은 당신 손에 있어요. 내일 당신이 오시면 제가 당신을 어떻게 쳐다볼지 모르겠어요. 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제가 또 바보처럼 참지 못하고 아까처럼 당신을 보며 웃어 버리면 어쩌죠? 그러면 당신은 저를

못된 장난꾸러기로 여기고 제 편지를 믿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귀여운 분, 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탁인데, 내일 들어오실 때 제 눈을 너무 똑바로 보지 마세요, 당신 눈과 마주치면 저는 어쩌면 틀림없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릴 테니까요, 게다가 당신은 그 긴 옷을 입고 오실 테고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싸늘해져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한동안은 저를 아예 보지 마시고 엄마나 창문을 보세요……

"이렇게 저는 당신께 연애편지를 썼어요. 맙소사,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알료샤, 저를 경멸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아주 나쁜 짓을 해서 당신을 언짢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 어쩌면 영원히 무너져 버린 제 평판의 비밀은 당신 손에 있어요.

"저는 오늘 틀림없이 울 거예요. 안녕히, *끔찍한* 만남 때까지 안녕히. Lise.

"추신. 알료샤, 꼭, 꼭, 꼭 오셔야 해요! Lise."

알료샤는 놀라며 읽었다. 두 번 읽고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조용히, 달콤하게 웃었다. 그는 흠칫 몸을 떨었는데, 이 웃음이 죄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순간 뒤에 그는 다시 똑같이 조용히, 똑같이 행복하게 웃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성호를 긋고 누웠다. 그의 영혼을 어지럽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졌다. "주여, 오늘 만난 그 사람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불행하고 격한 그들을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께는 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아시는 그 길들로 그들을 구하소서. 주는 사랑이시니, 모두에게 기쁨도 내려 주시리이다!" 알료샤는 성호를 그으며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근심 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제2부

제4권 파열

제1장 페라폰트 신부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알료샤는 잠에서 깨어났다. 장로가 깨어났는데, 몹시 기운이 없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침대에서 안락의자로 옮겨 앉고 싶어 했다. 그는 정신이 아주 또렷했고,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지만 맑았고 거의 기쁜 빛이었으며, 눈길은 즐겁고 다정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했다. "어쩌면 밝아 오는 이 날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알료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고해를 하고 영성체를 받겠다고 했다. 그의 고해 사제는 언제나 파이시 신부였다. 두 성사를 다 마치자 성유 성사가 시작되었다. 수도사제들이 모여들었고, 수방은 차츰 은수처 수도사들로 가득 찼다. 그사이 날이 밝았다. 수도원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예식이 끝나자 장로는 모든 사람과 작별하고 싶어 했고,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다. 수방이 비좁아서 먼저 온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알료샤는 다시 안락의자로 옮겨 앉은 장로 곁에 서 있었다. 장로는 힘닿는 데까지 이야기하고 가르쳤는데, 목소리는 약했지만 아직 꽤 단단했다. "그렇게 여러 해 여러분을 가르쳤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해 소리 내어 말했으니, 말하는 것이, 말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린 듯하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랑하는 신부들, 형제들, 이렇게 기운이 없는 지금도 나에게는 잠자코 있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거의 더 힘들 지경이오." 그는 자기 둘레에 모여든 사람들을 감동하여 바라보며 이렇게 농담을 했다. 알료샤는 나중에 그때 장로가 한 말 가운데 몇

가지를 기억해 냈다. 그러나 장로는 또렷하게, 그리고 꽤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기는 했지만 그의 말은 꽤 두서가 없었다. 그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살면서 다 하지 못한 모든 말을 다 하고 한 번 더 다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가르침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의 기쁨과 환희를 모든 사람, 모든 것과 나누고 살아서 한 번 더 제 마음을 쏟아 내기를 목마르게 바라는 것 같았다……

"신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장로가 가르쳤다(나중에 알료샤가 기억해 낸 만큼 적자면 이렇다).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담 안에 들어앉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곳에 온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 왔다는 바로 그 사실로 자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땅 위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오…… 그리고 수사는 그 담 안에서 오래 살수록 그것을 더 절실히 깨달아야 하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올 까닭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오. 자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의 모든 죄, 세상의 죄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로 모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알아 두시오, 우리 하나하나는 틀림없이 땅 위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죄가 있는데, 세상 전체의 공통된 죄로만이 아니라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누구 하나하나에 대해 죄가 있소. 이 깨달음이 수사의 길의 면류관이고, 땅 위의 모든 사람의 길의 면류관이기도 하오. 수사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할 바로 그런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오. 그때에야 우리 마음은 끝없고 온 우주를 품으며 물릴 줄 모르는 사랑으로 감동하여 녹아들 것이오. 그때에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얻고 자기 눈물로 세상의 죄를 씻어 낼 힘을 얻을 것이오…… 저마다 제 마음 곁을 거닐며, 저마다 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시오. 자기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죄를 깨달았더라도 뉘우침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되, 하느님과 흥정하지는 마시오. 다시 말하오. 교만하지 마시오. 작은 이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큰 이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마시오. 여러분을 물리치고, 욕되게 하고, 헐뜯고, 여러분을 모함하는 자들도 미워하지 마시오. 무신론자들, 악한 가르침을 펴는 자들, 유물론자들을, 그들 가운데 착한 이들뿐 아니라 악한 이들도 미워하지 마시오, 그들 가운데에도 착한 이가 많고, 우리 시대에는 더욱 그렇기 때문이오. 기도할 때 그들을 이렇게 기억하시오. '주여, 기도해 줄 이 없는 모든 이를 구하시고, 주께 기도하려 하지 않는 이들도 구하소서.' 그리고 바로 이렇게 덧붙이시오. '주여, 제가 이것을 비는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옵니다. 저 자신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보다 더 추악하기 때문이옵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오, 낯선 자들에게 양 떼를 빼앗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게으름과 남을 꺼리는 교만에, 무엇보다 재물 욕심에 빠져 잠들면, 사방에서 그들이 와서 여러분의 양 떼를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오. 백성에게 쉬지 말고 복음을 풀어 주시오…… 고리를 탐하지 마시오…… 은과 금을 사랑하지 말고 지니지도 마시오…… 믿고 깃발을 지키시오. 그 깃발을 높이 드시오……"

하기야 장로는 여기 적은 것보다, 그리고 나중에 알료샤가 받아 적은 것보다 더 띄엄띄엄 말했다. 그는 때로 힘을 모으려는 듯 아예 말을 끊기도 했고, 숨을 헐떡였지만 무슨 환희에 차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감동하여 그의 말을 들었지만, 많은 이가 그의 말에 의아해하며 그 말에서 어두운 데를 보았다…… 나중에 모두 이 말들을 떠올렸다. 알료샤가 잠깐 수방을 비우게 되었을 때, 그는 수방 안과 수방 둘레에

모여든 형제들 사이에 퍼진 술렁임과 기대에 깜짝 놀랐다. 어떤 이들의 기대는 거의 불안에 가까웠고, 다른 이들의 기대는 엄숙했다. 모두가 장로가 영면하자마자 곧바로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이 기대는 한편으로 보면 거의 경솔하다고 할 만했지만, 가장 엄격한 장로들조차 거기에 휩쓸렸다. 누구보다 엄격한 얼굴을 한 사람은 수도사제인 파이시 장로였다. 알료샤가 수방을 비운 것은 다만 읍내에서 온 라키틴이 수도사 한 사람을 시켜 남몰래 그를 불러냈기 때문인데, 라키틴은 호흘라코바 부인이 알료샤에게 보내는 이상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부인은 알료샤에게 흥미로운, 그리고 더없이 때맞춰 들어온 소식 하나를 알렸다. 내용인즉 어제 장로에게 절하고 축복을 받으러 온 믿음 깊은 서민 아낙들 가운데 읍내에 사는 프로호로브나라는 노파가 있었는데, 하사관의 과부였다. 노파는 장로에게, 군 복무로 멀리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까지 가서 벌써 1년이나 아무 소식이 없는 아들 바센카를 교회에서 죽은 사람처럼 위령 기도에 올려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장로는 엄하게 대답하며 그것을 금했고, 그런 위령 기도는 주술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다음에 노파가 몰라서 그런 것이라 용서해 주고, "마치 미래의 책을 들여다보듯"(호흘라코바 부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 "아들 바샤는 틀림없이 살아 있고, 곧 몸소 어머니에게 돌아오거나 편지를 보낼 테니, 집에 가서 그것을 기다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호흘라코바 부인은 환희에 차서 이렇게 덧붙였다.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노파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미 노파를 기다리고 있던 시베리아에서 온 편지가 곧바로 노파 손에 건네졌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으니, 오는 길에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쓴 그 편지에서 바샤는 자기가 직접 러시아로 가고 있으며 어느 관리와 함께 돌아가는 중이고, 이 편지를 받고 3주쯤 뒤에는 "어머니를

껴안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호흘라코바 부인은 다시 이루어진 이 "예언의 기적"을 당장 수도원장과 모든 형제에게 전해 달라고 알료샤에게 간곡하고 뜨겁게 애원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부인은 편지를 맺으며 이렇게 외쳤다. 부인의 편지는 급히 서둘러 쓴 것이어서 쓴 사람의 흥분이 한 줄 한 줄마다 묻어났다. 그러나 알료샤가 형제들에게 전할 것은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벌써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키틴은 알료샤를 부르러 수도사를 보내면서, 그 수도사에게 그 밖에도 이런 말을 맡겼다. "파이시 신부님께도 지극히 공손하게 아뢰어 주십시오. 저 라키틴이 신부님께 드릴 일이 있는데, 아주 중대한 일이라 신부님께 알리는 것을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례를 저지른 것을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젊은 수도사가 라키틴의 부탁을 알료샤보다 먼저 파이시 신부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알료샤에게 남은 일은 그 편지를 읽고 곧바로 파이시 신부에게 그저 증거 서류로 건네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 엄격하고 의심 많은 사람조차 얼굴을 찌푸리고 "기적"에 대한 소식을 읽고 나서는 어떤 속마음을 다 억누르지 못했다. 그의 눈이 번득였고, 입술이 갑자기 엄숙하고 감동 어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될까?" 그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될까, 그런 것을 보게 될까!" 둘레의 수도사들이 되풀이했다. 그러나 파이시 신부는 다시 얼굴을 찌푸리며, 적어도 당분간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소리 내어 알리지 말아 달라고 모두에게 부탁했다.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러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솔함이 많고,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 말이오." 그는 양심을 씻어 두려는 듯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였지만, 자기가 붙인 단서를 자기도 거의 믿지 않았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아주 잘 알아보았다. 물론 바로 그 시각에 "기적"은 온 수도원에, 그리고 성찬 예배에 온 많은 세상 사람에게까지 알려졌다. 이루어진 기적에 누구보다 놀란 것 같은 사람은 어제 수도원에 들른, 저 먼 북쪽 오브도르스크의 작은 수도원 "성 실베스트르 수도원"에서 온 젊은 수도사였다. 그는 어제 호흘라코바 부인 곁에 서서 장로에게 절했고, 부인의 "병이 나은" 딸을 가리키며 장로에게 감동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십니까?"

실은 그는 지금 얼마쯤 어리둥절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거의 몰랐다. 어제저녁만 해도 그는 수도원의 페라폰트 신부를 양봉장 너머 그의 외딴 수방으로 찾아갔고, 그 만남에 깜짝 놀랐는데, 그 만남은 그에게 엄청나고 소름 끼치는 인상을 남겼다. 이 노인, 페라폰트 신부는 우리가 이미 조시마 장로의 반대자로, 무엇보다 그가 해롭고 경솔한 새 풍습으로 여긴 장로 제도의 반대자로 언급한, 대단한 금식 수행자이자 침묵 수행자인 바로 그 아주 늙은 수도사였다. 이 반대자는 침묵 수행자라서 누구와도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몹시 위험했다. 그가 위험했던 것은 무엇보다 많은 형제가 그에게 온전히 동조했고, 찾아오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은 이가 그에게서 틀림없는 성 바보를 보면서도 그를 위대한 의인이자 수행자로 공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성 바보 짓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이 페라폰트 신부는 한 번도 조시마 장로를 찾아간 적이 없었다. 그는 은수처에 살기는 했지만, 은수처의 규칙으로 그를 그리 귀찮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가 영락없는 성 바보처럼 처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흔다섯 살쯤, 어쩌면 그보다 더 되었고, 은수처 양봉장 너머 담 모퉁이에 있는, 거의 무너져 가는 낡은 나무 수방에 살았다. 그 수방은 아주 옛날, 지난 세기에 역시 더없이 위대한 금식 수행자이자 침묵 수행자였던 요나 신부를 위해 지은 것인데, 요나 신부는 백다섯 살까지

살았고, 그의 수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도원과 그 근방에 흥미롭기 짝이 없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다. 페라폰트 신부는 끝내 뜻을 이루어 일곱 해쯤 전에 이 외딴 작은 수방에 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냥 오두막이었지만 작은 예배당과 몹시 닮았는데, 바친 성상이 아주 많았고 그 앞에 바친 성상 등잔들이 늘 꺼지지 않고 가물거렸으며, 페라폰트 신부는 마치 그것들을 지키고 불을 밝히라고 거기 놓인 사람 같았다. 사람들 말로는(실제로도 그랬다) 그는 사흘에 고작 빵 2푼트[1]만 먹었고 그 이상은 먹지 않았고, 바로 그 양봉장에 사는 양봉 수도사가 사흘마다 빵을 가져다주었지만, 페라폰트 신부는 자기 시중을 드는 그 양봉 수도사와도 좀처럼 말을 나누지 않았다. 이 빵 4푼트와, 늦은 성찬 예배가 끝나면 수도원장이 이 복된 분에게 어김없이 보내는 일요일의 작은 제병이 그의 한 주 먹을거리의 전부였다. 잔에 담긴 물은 날마다 갈아 주었다. 그는 성찬 예배에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찾아온 순례자들은 그가 때로 무릎을 꿇은 채 일어서지도 둘러보지도 않고 온종일 기도하며 서 있다시피 하는 것을 보았다. 혹시 그들과 말을 나눌 때도 그는 짧고 툭툭 끊어지고 이상했고, 거의 언제나 거칠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는 그도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지만, 대개는 무언가 이상한 한마디만 내뱉었고, 그 말은 늘 찾아온 사람에게 큰 수수께끼를 던졌으며, 그다음에는 아무리 졸라도 풀이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제 품을 받지 않은 그냥 수도사였다. 하기야 몹시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서지만, 페라폰트 신부가 하늘의 영들과 통하며 그 영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오브도르스크에서 온 젊은 수도사는 역시 몹시 말이 없고 음울한 수도사인 양봉 수도사가 가르쳐 준 대로 양봉장으로 숨어들어 페라폰트 신부의 작은 수방이 있는 구석으로 갔다. "어쩌면 낯선 사람이라고 말을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무것도 얻어 내지 못할지도 모르오." 양봉 수도사가 그에게 미리 일러 주었다. 나중에 그 자신이 전한 대로, 젊은 수도사는 더없이 두려워하며 다가갔다. 시각은 이미 꽤 늦었다. 페라폰트 신부는 이번에는 작은 수방 문간의 나지막한 걸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늙은 느릅나무가 가볍게 술렁였다. 저녁 냉기가 스며들었다. 오브도르스크의 젊은 수도사는 복된 분 앞에 엎드려 축복을 청했다.

"수도사여, 나도 네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느냐?" 페라폰트 신부가 말했다. "일어나라!"

젊은 수도사는 일어섰다.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곁에 앉아라. 어디서 흘러왔느냐?"

가엾은 젊은 수도사를 무엇보다 놀라게 한 것은 페라폰트 신부가 틀림없는 대단한 금식 수행자인 데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겉보기에는 아직 키가 크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몸을 가누며, 얼굴은 여위었지만 싱싱하고 튼튼한 힘센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그에게는 틀림없이 아직도 꽤 큰 힘이 남아 있었다. 몸집은 장사 같았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머리가 다 세지도 않았고, 머리털과 수염은 아직도 아주 숱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새까맸다. 눈은 회색이고 크고 번득였지만 놀랄 만큼 툭 불거져 있었다. 그는 '오' 소리에 몹시 힘을 주어 말했다. 옷차림은 예전에 죄수 옷감이라 부르던 거친 천으로 지은 불그스름한 긴 농민 외투였고, 굵은 밧줄로 허리를 묶었다. 목과 가슴은 드러나 있었다. 몇 달씩 벗지 않아 거의 새까매진, 더없이 두꺼운 삼베 셔츠가 외투 밑으로 비죽 나와 있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는 외투 밑에 30푼트짜리 쇠사슬을 차고 다닌다고 했다. 발에는 맨발에 다 떨어져 가는 낡은 신을 신고 있었다.

"오브도르스크의 작은 수도원, 성 셀리베스트르 수도원에서 왔습니다." 낯선 젊은 수도사는 재빠르고 호기심 어린, 그러나 얼마쯤

겁먹은 작은 눈으로 은자를 살피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셀리베스트르에게 가 본 적이 있다. 거기서 산 적도 있지. 셀리베스트르는 잘 있느냐?"

젊은 수도사는 머뭇거렸다.

"분별없는 인간들 같으니! 금식은 어떻게 지키느냐?"

"저희 식당은 은수처의 옛 법도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재기간에는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식탁을 차리지 않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형제들에게 흰 빵, 꿀을 넣은 과일 달인 물, 진들딸기나 소금에 절인 양배추, 그리고 물에 갠 귀리 가루를 냅니다. 토요일에는 고기 없는 양배추 국, 완두 국수, 삼씨즙 죽을 내는데 모두 기름을 칩니다. 일요일에는 양배추 국에 마른 생선과 죽을 곁들입니다. 그러나 수난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엿새 동안 빵과 물만, 그리고 익히지 않은 채소만 먹되 이것도 삼가며 먹사옵고, 날마다 먹지 않아도 되오니, 앞서 이른 대로 첫 주간과 같사옵니다. 거룩하고 큰 금요일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큰 토요일에도 제3시까지 금식하다가 그때 빵을 물과 함께 조금 맛보고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옵니다. 거룩하고 큰 목요일에는 기름 없이 익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 밖에는 마른 음식을 먹사옵니다. 라오디게아 공의회가 큰 목요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르기 때문이옵니다. '대재 마지막 주간의 목요일에 금식을 풀어 대재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신부님, 신부님께 견주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수도사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덧붙였다. "신부님께서는 한 해 내내, 거룩한 부활절에도 빵과 물만 드시고, 저희가 이틀에 먹을 빵으로 신부님은 한 주를 나시니까요. 신부님의 이 크나큰 절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젖버섯은?" 페라폰트 신부가 갑자기 물었다. 그는 'ㄱ' 소리를 숨을 섞어 거의 'ㅎ'처럼 냈다.

"젖버섯이요?" 놀란 젊은 수도사가 되물었다.

"바로 그거다. 나는 저들의 빵 없이도 떠날 수 있다. 조금도 아쉽지 않아. 숲으로라도 가서 젖버섯이나 산딸기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저들은 여기서 제 빵을 두고 떠나지 못하니, 그러니까 악마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요즘 더러운 놈들은 그렇게까지 금식할 것 없다고 지껄인다. 그놈들의 생각이란 오만하고 더러운 것이다."

"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젊은 수도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저들한테 붙은 악마들을 보았느냐?" 페라폰트 신부가 물었다.

"저들이라니 누구 말씀이신지요?" 젊은 수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작년 거룩한 오순절에 수도원장한테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가지 않았다. 보았지. 어떤 놈에게는 가슴팍에 앉아 수도복 밑에 숨어 있는데 뿔만 비죽 나와 있더라. 어떤 놈에게는 주머니에서 내다보는데 눈알이 재빠르고 나를 무서워하더라. 어떤 놈에게는 뱃속에, 바로 그 더러운 배 속에 들어가 살고 있고, 또 어떤 놈에게는 목에 매달려 꽉 붙어서는 그렇게 업혀 다니는데 그놈은 그걸 보지 못하더라."

"신부님께서는…… 보십니까?" 젊은 수도사가 물었다.

"본다고 하지 않느냐, 속속들이 본다. 수도원장한테서 나오려는데 보니까 한 놈이 문 뒤에 숨어서 나를 피하더라. 그것도 엄청나게 큰 놈이었지. 키가 1아르신 반은 되거나 그보다 더 크고, 꼬리는 굵고 누렇고 길쭉한데, 그 꼬리 끝이 문틈에 끼었단 말이다. 나도 바보가 아니라서 문을 갑자기 쾅 닫아 그놈 꼬리를 꽉 끼워 버렸지. 그놈이 꽥꽥거리며 버둥대기 시작하길래 나는 그놈에게 성호를, 그것도 세 번 그어서 성호로 눌러 버렸다. 그러자 짓눌린 거미처럼 뻗어 버리더라. 이제 그 구석에서 썩고 있어서 고약한 냄새가 날 텐데, 저들은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다. 나는 한 해 동안 가지 않았다. 너는 낯선 사람이니까 너한테만 털어놓는 거다."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위대하고 복되신 신부님." 젊은 수도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신부님에 대해 먼 나라에까지 큰 소문이 났는데, 신부님께서 성령과 끊임없이 통하신다는 게 정말입니까?"

"날아 내려온다. 그런 일이 있지."

"어떻게 날아 내려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새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요?"

"성령은 성령이고, 성신은 또 딴 것이다. 성신은 다른 새로도 내려올 수 있다. 제비로도, 방울새로도, 박새로도 내려온다."

"그럼 박새와 그분을 어떻게 가려보십니까?"

"말을 한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무슨 말로요?"

"사람의 말로."

"그럼 그분이 신부님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은 바보가 찾아와서 쓸데없는 것을 물을 거라고 알려 주었다. 수사여, 너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구나."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지극히 복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신부님." 젊은 수도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겁먹은 그의 작은 눈에는 의심의 빛도 어른거렸다.

"그런데 이 나무가 보이느냐?" 페라폰트 신부가 잠자코 있다가 물었다.

"보입니다, 지극히 복되신 신부님."

"네 눈에는 느릅나무겠지만, 내 눈에는 다른 그림이다."

"어떤 그림입니까?" 젊은 수도사는 잠자코 기다렸지만 헛일이었다.

"밤에 그렇다. 이 두 가지가 보이느냐? 밤이면 보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두 손을 뻗으시고 그 손으로 나를 찾으신다. 똑똑히 보이고, 나는 떤다. 무섭다, 오, 무섭다!"

"그리스도 몸소라면 무엇이 무섭습니까?"

"나를 붙잡아 들어 올리실 테니까."

"산 채로요?"

"엘리야의 영과 영광 속에서 말이다. 못 들었느냐? 끌어안아 데려가실 것이다……"

오브도르스크의 젊은 수도사는 이 대화를 마치고 형제 한 사람의 수방, 자기에게 정해 준 작은 수방으로 돌아갔을 때 꽤 크게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틀림없이 조시마 신부보다 페라폰트 신부 쪽으로 더 기울었다. 오브도르스크의 젊은 수도사는 무엇보다 금식을 중히 여겼고, 페라폰트 신부처럼 대단한 금식 수행자라면 "기이한 것을 보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물론 어찌 보면 엉터리 같았지만, 그 말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주님이 아시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성 바보들은 모두 이보다 더한 말과 짓도 하기 마련이었다. 문에 끼인 악마의 꼬리라면 그는 비유로서뿐 아니라 글자 그대로도 기꺼이 진심으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그는 전부터, 수도원에 오기 전부터 장로 제도에 대해 큰 편견을 품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장로 제도를 이야기로만 알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따라 그것을 해로운 새 풍습이라고 단정했다. 수도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는 장로 제도에 동의하지 않는 몇몇 경솔한 형제들의 은밀한 불평도 이미 눈여겨보았다. 게다가 그는 타고나기를 여기저기 쏘다니는 날쌘 수사였고, 무엇에나 엄청난 호기심을 품었다. 그래서 조시마 장로가 이룬 새 "기적"에 대한 큰 소식은 그를 엄청나게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알료샤는 나중에, 장로 곁과 장로의 수방 둘레에 몰려든 수사들 가운데 모든 무리 사이를 쏘다니며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에게 묻던 호기심 많은 오브도르스크 손님의 작은 모습이 여러 번 눈앞에 어른거렸던 것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때는 그에게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야 모든 것을 떠올렸다…… 게다가 그에게는 그럴 겨를도 없었으니, 다시 피로를 느껴 도로 침대에 누운 조시마 장로가 벌써 눈을 감으려다가 갑자기 그를 떠올리고 불러오게 했기 때문이다. 알료샤는 곧바로 달려왔다. 그때 장로 곁에는 파이시 신부와 수도사제 이오시프 신부, 수련 수사 포르피리뿐이었다. 장로는 지친 눈을 뜨고 알료샤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에게 물었다.

"얘야, 네 식구들이 너를 기다리느냐?"

알료샤는 머뭇거렸다.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어제 누구에게 오늘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께…… 형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아라. 꼭 가거라. 슬퍼하지 마라. 네 앞에서 이 땅에서 하는 내 마지막 말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 두어라. 그 말은 너에게 할 것이다, 얘야, 너에게 그 말을 남길 것이다. 너에게, 사랑하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단 약속한 사람들에게 가거라."

알료샤는 떠나기가 괴로웠지만 곧바로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는 장로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되리라는 약속, 무엇보다 그 말이 그에게, 알료샤에게 남겨지리라는 약속이 그의 영혼을 환희로 뒤흔들었다. 그는 읍내에서 일을 다 마치고 얼른 돌아오려고 서둘렀다.

마침 파이시 신부도 그에게 길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말을 해 주었는데, 그 말은 그에게 몹시 강하고 뜻밖의 인상을 남겼다. 그들 둘이 장로의 수방에서 이미 나온 뒤였다.

"젊은이여, 쉬지 말고 기억하여라." 파이시 신부는 아무 머리말도 없이 곧바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세상의 학문은 큰 힘으로 뭉쳐서, 특히 지난 세기에, 거룩한 책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하늘의 것을 모조리 낱낱이 뜯어 보았고, 이 세상 학자들의 가혹한 분석이 끝나자 예전의 그 모든 성스러운 것 가운데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분부분 뜯어 보았을 뿐 전체는 보지 못했는데, 그 눈먼 정도가 놀라울 지경이다. 전체는 그들의 눈앞에 예전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고,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인데도 말이다. 그것은 열아홉 세기를 살아오지 않았느냐,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움직임 속에, 민중 대중의 움직임 속에 살아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무너뜨린 바로 그 무신론자들의 영혼의 움직임 속에서조차 그것은 예전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 있다! 그리스도교를 버린 자들도, 그리스도교에 맞서 반역하는 자들도 그 본바탕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여전히 그런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마음의 열정도 그리스도가 예로부터 보여 준 모습보다 더 높은 다른 모습을, 사람과 사람의 존엄에 걸맞은 모습을 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나온 것은 흉측한 것들뿐이었다. 젊은이여, 이것을 특히 기억하여라. 너는 세상을 떠나시는 네 장로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위대한 날을 떠올리면서 너에게 마음을 다해 길을 떠나보내며 주는 내 말도 잊지 않겠지, 너는 아직 어리고, 세상의 유혹은 무거워서 네 힘으로는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가거라, 고아야."

이 말과 함께 파이시 신부는 그를 축복했다. 수도원을 나서며 이 모든 뜻밖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던 알료샤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엄하고 냉정하던 이 수도사에게서 자기가 이제 뜻밖의 새 친구를,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새 인도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는데, 마치 조시마 장로가 죽어 가면서 그에게 알료샤를 맡기기라도 한 것 같았다. "어쩌면 정말로 두 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알료샤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방금 들은 뜻밖의 학구적인 이야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 이야기는 다만 파이시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 줄 뿐이었으니, 파이시 신부는 벌써 어서 빨리 그 젊은 지성을 유혹과 싸우도록 무장시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젊은 영혼을 자기로서도 그보다 더 튼튼한 것은 떠올릴 수 없을 울타리로 둘러싸 주려고 서둘렀다.

---

1. 러시아의 무게 단위. 1푼트는 약 409그램이다.

제2장 아버지 집에서

알료샤는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에게 갔다. 집에 다가가다가 그는 어제 아버지가 어떻게든 이반 형 몰래 살그머니 들어오라고 몹시 다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왜 그러셨을까?" 알료샤는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나 혼자에게만 몰래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다면, 왜 내가 몰래 들어가야 하지? 틀림없이 어제는 흥분하셔서 무언가 다른 말을 하려다 미처 못 하셨을 거야."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그는 쪽문을 열어 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알고 보니 그리고리는 앓아누워 별채에 누워 있었다) 그가 묻는 말에 이반 표도로비치는 벌써 두 시간 전에 나가셨다고 알려 주자 몹시 기뻤다.

"아버지는요?"

"일어나셔서 커피를 드시고 계세요."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어쩐지 쌀쌀하게 대답했다.

알료샤는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슬리퍼를 신고 낡은 짧은 외투를 걸친 채 혼자 식탁에 앉아 심심풀이로, 하지만 별로 마음을 쏟지 않고 무슨 계산서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온 집에 혼자였다(스메르댜코프도 점심거리를 사러 나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계산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침대에서 일어나 기운을 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치고 기운 없어 보였다. 밤사이 커다란 검붉은 멍이 퍼진 이마는 붉은 손수건으로 동여매여 있었다. 코도 밤사이 몹시 부어올랐고, 거기에도 크지는 않아도 얼룩덜룩 멍이

몇 군데 생겼는데, 그 멍들이 얼굴 전체에 무언가 유난히 독살스럽고 신경질적인 기색을 단단히 더해 주었다. 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들어오는 알료샤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커피는 식었다." 그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대접은 안 한다. 얘야, 나는 오늘 고기 없는 생선국 하나로 버티는 중이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무슨 일로 납셨냐?"

"아버지 건강이 어떠신지 알아보려고요." 알료샤가 말했다.

"그래. 게다가 어제 내가 직접 너더러 오라고 했지. 다 쓸데없는 짓이다. 괜히 걱정하셨구먼. 하기야 네가 당장 끌려오다시피 올 줄은 알았다……"

그는 몹시 못마땅한 기색으로 이 말을 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걱정스럽게 거울에 제 코를 비춰 보았고(어쩌면 아침부터 마흔 번째였을지도 모른다), 이마에 동인 붉은 손수건도 좀 더 보기 좋게 매만지기 시작했다.

"붉은 게 낫지. 흰 걸 매면 병원 같거든." 그가 격언이라도 읊듯 말했다. "그래, 너는 어떠냐? 네 장로는 어떠냐?"

"몹시 안 좋으세요. 어쩌면 오늘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알료샤가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제가 한 질문도 곧 잊어버렸다.

"이반은 나갔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놈은 미치카한테서 약혼녀를 빼앗으려고 기를 쓰고 있어. 그러려고 여기 사는 거다." 그는 독살스럽게 덧붙이고는 입을 비틀며 알료샤를 쳐다보았다.

"설마 이반 형이 아버지께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알료샤가 물었다.

"그래, 벌써 오래전에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3주쯤 전에 말했다. 설마 그놈도 나를 몰래 칼로 찔러 죽이려고 여기 온 건 아니겠지? 무언가 때문에 오긴 왔을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료샤가 몹시 당황했다.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건 맞아, 하지만 아무튼 나한테서는 땡전 한 푼 못 받을 거다. 나는 말이다, 더없이 사랑스러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세상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 작정이란 말씀이야,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니 나한테는 코페이카 한 닢 한 닢이 다 필요하고, 오래 살수록 더 필요해질 거다." 그는 노랗고 얇은 여름 무명천으로 지은, 품이 넓고 기름때 묻은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방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서성거리며 말을 이었다. "지금은 아직 그래도 사내다, 고작 쉰다섯이니까. 그런데 나는 앞으로도 스무 해쯤은 더 사내 축에 끼고 싶은데, 늙으면 더러워질 테고, 그러면 그 여자들이 제 발로 나한테 오지 않을 테니, 바로 그때 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오로지 나 하나를 위해 자꾸자꾸 더 모아 두는 겁니다요, 사랑하는 내 아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알아 두시라고요, 나는 끝까지 내 더러움 속에서 살고 싶으니까, 알아 두시라고요. 더러움 속이 더 달콤하거든, 다들 그걸 욕하지만 다들 그 속에서 사는데, 다만 다들 몰래 살고 나는 드러내 놓고 살지. 바로 내 이 순진함 때문에 더러운 놈들이 다 나한테 달려든 거다. 그런데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는 네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다, 알아 둬라, 점잖은 사람에게는 네 천국에 가는 것도 점잖지 못한 일이야, 설령 천국이 거기 있다 해도 말이다. 내 생각에는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원하면 나를 추도해 주고, 원하지 않으면 빌어먹을, 마음대로들 해라. 이게 내 철학이다. 어제 이반이 여기서 말을 잘했지, 우리가 다들 취해 있기는 했지만. 이반은 허풍쟁이야, 그놈한테는 그런 학식 같은 것도 없고…… 특별한 교양도 아무것도 없어, 잠자코 있다가 잠자코 너를 보고 피식 웃지, 그것 하나로 행세하는 거다."

알료샤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말이 없었다.

"그놈은 왜 나하고 말을 안 하냐? 말을 해도 거드름을 피우지. 네 이반은 비열한 놈이야! 그리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그루시카와 결혼할 거다. 돈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다 이루어지지. 이반은 바로 그게 무서워서 내가 결혼하지 못하게 나를 지키고 있고, 그러려고 미치카를 부추겨서 그루시카와 결혼하게 하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도 그루시카한테서 떼어 놓고 (내가 그루시카와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돈을 남겨 주기라도 할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 미치카가 그루시카와 결혼하면 이반이 그놈의 부자 약혼녀를 차지하는 거지. 그놈 속셈이 바로 그렇다! 네 이반은 비열한 놈이야!"

"참 신경이 날카로우시네요. 어제 일 때문이에요. 가서 좀 누우시지 그러세요." 알료샤가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말이다." 노인이 갑자기 이제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온 듯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너한테는 화가 안 난다. 그런데 이반이 나한테 바로 그 말을 했다면 나는 화를 냈을 거다. 너하고만 나한테 착한 순간들이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독한 인간이다."

"아버지는 독한 사람이 아니라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알료샤가 미소를 지었다.

"들어 봐라, 나는 오늘 그 강도 같은 미치카를 감옥에 처넣으려고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다. 물론 요즘 유행하는 시대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편견으로 여기는 게 통례지만, 그래도 법으로는 요즘에도 늙은 아버지를 제 집에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쓰러뜨려 낯짝을 구둣발로 차고, 다시 와서 아주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것 같거든, 그것도 다 증인들

앞에서 말씀입니다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그놈을 꽁꽁 묶어서 어제 일로 당장 처넣을 수 있다."

"그럼 고소하지 않으실 거죠, 네?"

"이반이 말렸다. 이반 따위는 무시해 버리겠지만, 나 나름대로 알고 있는 수가 하나 있지……"

그러고는 그는 알료샤에게로 몸을 숙이고 은밀하게 반쯤 속삭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 비열한 놈을 처넣으면, 그 여자는 내가 그놈을 처넣었다는 말을 듣고 당장 그놈한테 달려갈 거다. 그런데 만약 오늘 그놈이 나를, 기운 없는 늙은이를 반쯤 죽도록 때렸다는 말을 들으면, 그 여자는 어쩌면 그놈을 버리고 병문안이라도 하러 나한테 올 거다…… 우리는 그런 성미를 타고났거든. 오로지 거꾸로만 하려는 성미 말이다. 나는 그 여자를 속속들이 안다! 그런데 코냑 한잔 안 하겠냐? 식은 커피를 좀 받아라, 내가 거기에 코냑을 4분의 1잔쯤 따라 주마. 얘야, 맛이 좋아진다."

"아니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주시면 이 빵이나 가져갈게요." 알료샤는 이렇게 말하며 3코페이카짜리 프랑스 빵을 집어 수도복 안옷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버지도 코냑은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노인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권했다.

"네 말이 맞다. 신경을 긁고 편안하게 두지를 않지. 하지만 딱 한 잔만…… 찬장에서 꺼내는 거니까……"

그는 열쇠로 "찬장"을 열어 한 잔 따라 마시고는 찬장을 잠그고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면 됐다. 한 잔으로 뻗지는 않아."

"이제 좀 너그러워지셨네요." 알료샤가 미소를 지었다.

"흠! 나는 코냑이 없어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비열한 놈들 앞에서는 나도 비열한 놈이다. 반카는 체르마시냐에 안 가. 왜겠냐? 염탐을 해야 하거든. 그루셴카가 오면 내가 얼마나 줄지 말이다. 다 비열한 놈들이야! 그리고 나는 이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놈이 어디서 나왔지? 전혀 우리 핏줄 같은 영혼이 아니야. 내가 정말 그놈한테 무얼 남겨 줄 것 같냐? 나는 유언장도 남기지 않을 거다, 알아 두시라고요. 그리고 미치카는 바퀴벌레처럼 짓눌러 버릴 거다. 나는 밤에 검은 바퀴벌레를 슬리퍼로 짓누르지, 밟으면 톡 하고 터진다. 네 미치카도 톡 하고 터질 거다. 네 미치카라고 하는 건 네가 그놈을 사랑하니까. 너는 그놈을 사랑하지만, 나는 네가 그놈을 사랑하는 게 무섭지 않다. 그런데 만약 이반이 그놈을 사랑한다면, 나는 이반이 그놈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 몸이 걱정될 거다. 하지만 이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이반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반 같은 이런 인간들은 말이다, 얘야,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건 일어난 먼지야…… 바람이 불면 먼지는 지나가 버린다…… 어제 너더러 오늘 오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는데, 너를 통해 미치카 일을 알아보려고 했지, 내가 지금 그놈한테 1천 루블, 아니 2천 루블을 세어 준다면, 그 거지 같은 망나니가 여기서 아주, 다섯 해쯤, 아니 서른다섯 해쯤이면 더 좋고, 그루시카 없이 그 여자를 아주 단념하고 떠나 줄지 말이다. 어떠냐?"

"저…… 저는 형한테 물어볼게요……" 알료샤가 중얼거렸다. "3천 루블을 다 주신다면 어쩌면 형은……"

"거짓말 마라! 이제는 물어볼 것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생각이 바뀌었다. 어제 바보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대가리에 들어왔던 거다. 아무것도 안 준다, 한 푼도 안 줘, 내 돈은 나한테 필요하다." 노인이 손을 내저었다. "그러지 않아도 그놈을 바퀴벌레처럼 짓눌러 버릴 거다. 그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또 기대를 할 테니까.

그리고 너도 여기서 할 일이 전혀 없다. 어서 가 봐라. 그 약혼녀, 그놈이 그동안 내 눈에서 그렇게 꼼꼼히 숨겨 온 그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놈한테 시집간다더냐, 안 간다더냐? 너 어제 그 여자한테 갔었지?"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놈들을, 난봉꾼과 비열한 놈들을 그런 연약한 아가씨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내 말하지만 그런 창백한 아가씨들은 쓰레기다. 그거야말로…… 어휴! 나한테 그놈만 한 젊음과 그때의 내 얼굴이 있다면(스물여덟 살 때는 내가 그놈보다 잘생겼으니까) 나도 그놈과 꼭 마찬가지로 여자들을 휘어잡았을 거다. 그놈은 악당이야! 하지만 그루셴카만은 그래도 못 가질 겁니다요, 못 가질 겁니다요…… 진창에 처박아 줄 테다!"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다시 사납게 성을 냈다.

"너도 가 봐라. 오늘은 여기서 할 일이 없다." 그가 날카롭게 잘라 말했다.

알료샤는 작별 인사를 하러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너 왜 그러냐?" 노인이 조금 놀랐다. "또 볼 텐데. 아니면 다시 못 볼 것 같으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나도 그냥……" 노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얘, 얘야." 그가 알료샤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언제 한번 와라, 어서, 생선국 먹으러. 생선국을 끓여 주마. 오늘 것 말고 특별한 걸로. 꼭 와라! 그래, 내일, 알겠냐, 내일 와라!"

알료샤가 문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다시 찬장으로 가서 반 잔을 더 들이켰다.

"더는 안 마신다!" 그는 크흠 하고 목을 가다듬으며 중얼거리고는 다시 찬장을 잠그고 다시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뒤, 침실로 가서 기진하여

침대에 눕더니 순식간에 잠들어 버렸다.

제3장 학생들과 엮이다

"아버지가 그루셴카 일을 묻지 않으셔서 다행이야." 아버지 집을 나와 호흘라코바 부인 댁으로 향하던 알료샤도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쩌면 어제 그루셴카를 만난 일을 이야기해야 했을 거야." 알료샤는 밤사이 싸우는 사람들이 새 힘을 모았고, 날이 밝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처럼 굳어 버렸다는 것을 아프게 느꼈다. "아버지는 신경이 곤두서고 독이 올라 있어. 무언가를 생각해 내고 거기서 버티고 계셔. 그럼 드미트리 형은? 형도 밤사이 마음을 굳혔겠지, 틀림없이 형도 신경이 곤두서고 독이 올랐을 테고, 물론 형도 무언가를 생각해 냈을 거야……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꼭 형을 찾아내야 해……"

그러나 알료샤는 오래 생각에 잠길 수 없었다. 길에서 갑자기 그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겉보기에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를 몹시 놀라게 했다. 그는 광장을 지나, 볼샤야 거리와 나란히 뻗어 있지만 그 거리와는 도랑 하나로만 갈라진 미하일롭스카야 거리로 나가려고 골목으로 꺾어 들었는데(우리 읍은 온통 도랑으로 얽혀 있다), 그러자마자 아래쪽 작은 다리 앞에 학생 아이들이 작게 무리 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 아홉 살에서 열두 살쯤, 그보다 더 많지는 않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흩어져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작은 배낭을 메고, 다른 아이들은 가죽 가방을 끈으로 어깨에 비스듬히 메고 있었으며, 어떤 아이는 짧은

웃옷을, 다른 아이는 작은 외투를 입었고, 또 어떤 아이는 넉넉한 아버지가 응석을 받아 주는 어린아이들이 특히 뽐내기 좋아하는, 목에 주름이 잡힌 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무리 전체가 무언가를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의논을 하는 것 같았다. 알료샤는 한 번도 아이들 곁을 무심히 지나친 적이 없었고, 모스크바에서도 그랬는데, 그는 무엇보다 세 살쯤 된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열 살, 열한 살쯤 된 학생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근심에 싸여 있어도 그는 갑자기 그 아이들에게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다가가면서 그는 아이들의 발그레하고 생기 도는 작은 얼굴들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사내아이들 모두 손에 돌을 하나씩, 어떤 아이들은 둘씩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도랑 건너편, 무리에서 서른 걸음쯤 떨어진 울타리 곁에 사내아이가 하나 더 서 있었는데, 그 아이도 학생이었고, 역시 옆구리에 가방을 차고 있었으며, 키로 보아 열 살, 그보다 더는 아니고 어쩌면 그보다 어린, 창백하고 병약해 보이는 아이였는데 까만 작은 눈이 번득이고 있었다. 아이는 분명 방금 학교에서 함께 나온 같은 반 아이들이지만 사이가 틀어진 모양인 학생 여섯의 무리를 주의 깊게 캐묻듯 지켜보고 있었다. 알료샤는 다가가서 검은 웃옷을 입은, 고수머리에 금발이고 볼이 발그레한 한 아이에게 몸을 돌려 그 아이를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을 건넸다.

"나도 이렇게 생긴 가방을 메고 다닐 때는, 우리는 오른손으로 바로 꺼낼 수 있게 왼쪽 옆구리에 찼어요. 그런데 이 가방은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있으니 꺼내기가 불편하겠어요."

알료샤는 아무런 미리 꾸민 꾀도 없이 곧바로 이 실속 있는 지적으로 말을 꺼냈지만, 어른이 아이의, 특히 아이들 한 무리의 믿음을 단번에 얻어야 할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바로 진지하고 실속 있게,

아주 대등한 처지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알료샤는 이것을 본능으로 알았다.

"쟤는 왼손잡이예요." 열한 살쯤 되어 보이는 씩씩하고 튼튼한 다른 아이가 곧바로 대답했다. 나머지 다섯 아이가 모두 알료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쟤는 돌도 왼손으로 던져요." 세 번째 아이가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무리 한가운데로 돌이 날아들어 왼손잡이 아이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솜씨 좋고 힘차게 던진 돌이었다. 던진 것은 도랑 건너편의 아이였다.

"갈겨, 맞혀 버려, 스무로프!" 모두가 소리쳤다. 그러나 스무로프(왼손잡이)는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곧바로 되갚았다. 그는 도랑 건너편 아이에게 돌을 던졌지만 빗나가서 돌은 땅에 맞았다. 도랑 건너편 아이는 곧바로 무리를 향해 또 돌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바로 알료샤를 겨누어 그의 어깨를 꽤 아프게 맞혔다. 도랑 건너편 녀석의 주머니에는 미리 장만해 둔 돌이 가득했다. 작은 외투 주머니가 불룩한 것이 서른 걸음 밖에서도 보였다.

"쟤가 아저씨한테 던진 거예요, 아저씨한테요. 일부러 아저씨를 겨눈 거예요. 아저씨 카라마조프죠, 카라마조프 맞죠?"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소리쳤다. "자, 다 같이 한꺼번에, 쏴라!"

그러자 무리에서 돌 여섯 개가 한꺼번에 날아갔다. 하나가 그 아이의 머리에 맞았고, 아이는 넘어졌지만 금세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무리를 향해 돌을 되던지기 시작했다. 양쪽에서 끊임없이 돌팔매질이 시작되었고, 무리 가운데 많은 아이의 주머니에도 미리 장만한 돌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섯이 하나를 상대로, 그러다 저 아이를 죽이겠어요!" 알료샤가 소리쳤다.

그는 뛰어나가 도랑 건너편 아이를 제 몸으로 막아 주려고 날아오는 돌 앞을 가로막고 섰다. 셋인가 넷이 잠깐 손을 멈추었다.

"쟤가 먼저 시작했어요!" 빨간 셔츠를 입은 아이가 신경질 난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쟤는 비열한 놈이에요. 아까 교실에서 크라솟킨을 주머니칼로 찔렀어요, 피가 흘렀어요. 크라솟킨은 고자질을 안 하려고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 저놈은 두들겨 패야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저 아이를 놀렸겠죠?"

"저 봐요, 쟤가 또 아저씨 등에 돌을 보냈어요. 쟤는 아저씨를 알아요." 아이들이 소리쳤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아저씨한테 던지는 거예요. 자, 다들, 다시 저놈한테, 빗맞히지 마, 스무로프!"

그러자 다시 돌팔매질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독했다. 도랑 건너편 아이가 가슴에 돌을 맞았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비탈길 위쪽, 미하일롭스카야 거리로 달아났다. 무리에서 왁자하게 떠들었다. "하하, 겁먹었다, 달아났다, 수세미야!"

"카라마조프, 아저씨는 쟤가 얼마나 비열한지 아직 몰라요. 쟤는 죽여도 모자라요." 짧은 웃옷을 입은 아이가 작은 눈을 번득이며 되풀이했다. 그 아이가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 애가 어떤데요?" 알료샤가 물었다. "고자질쟁이인가요?"

아이들은 피식 웃는 듯 서로 눈을 맞추었다.

"아저씨도 그쪽으로, 미하일롭스카야 거리로 가세요?" 같은 아이가 말을 이었다. "그럼 쟤를 따라잡아 보세요…… 저기 보세요, 또 멈춰 서서 기다리면서 아저씨를 보고 있어요."

"아저씨를 보고 있어요, 아저씨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맞장구쳤다.

"그럼 쟤한테 물어보세요, 목욕탕 수세미를, 털이 다 헝클어진 수세미를 좋아하느냐고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모두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알료샤는 아이들을 보았고, 아이들은 그를 보았다.

"가지 마세요, 쟤가 아저씨를 다치게 할 거예요." 스무로프가 주의를 주듯 소리쳤다.

"여러분, 나는 그 아이에게 수세미 이야기는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걸로 무언가 그 아이를 놀리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미워하는지는 그 아이에게 알아볼게요……"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아이들이 웃었다.

알료샤는 작은 다리를 건너 울타리를 따라 비탈길을 올라 따돌림당하는 아이에게로 곧장 갔다.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그의 뒤에 대고 주의를 주듯 소리쳤다. "쟤는 아저씨를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몰래 찌를 거예요…… 크라솟킨한테처럼요."

아이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를 기다렸다. 바짝 다가간 알료샤는 제 앞에 선 아이가 아홉 살도 안 된, 약하고 키 작은 축에 드는 아이로, 창백하고 여윈 갸름한 작은 얼굴에 크고 거무스름한 눈으로 자기를 독살스럽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몸이 자라 흉하게 작아진, 꽤 해진 낡은 작은 외투를 입고 있었다. 맨팔이 소매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다. 바지 오른쪽 무릎에는 큰 헝겊 조각이 덧대어 있었고, 오른쪽 장화 코끝 엄지발가락 자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는데, 잉크를 잔뜩 칠해 감춘 것이 보였다. 외투의 불룩한 작은 주머니 둘에는 돌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알료샤는 아이 앞 두 걸음쯤에 멈춰 서서 묻는 듯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알료샤의 눈빛을 보고 그가 자기를 때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는 기세를 조금 누그러뜨렸고, 제 쪽에서 말을 꺼내기까지 했다.

"나는 혼자고 저쪽은 여섯이에요…… 나 혼자서 저놈들을 다 때려눕힐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눈을 번득이며 말했다.

"돌 하나에 꽤 아프게 맞은 것 같던데요." 알료샤가 말했다.

"그래도 나는 스무로프 머리를 맞혔어요!" 아이가 소리쳤다.

"저쪽 아이들이 그러던데, 내가 그쪽을 알고, 그쪽이 무엇 때문인지 나한테 돌을 던졌다고요?" 알료샤가 물었다.

아이는 음울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쪽을 몰라요. 그쪽은 나를 알아요?" 알료샤가 캐물었다.

"귀찮게 하지 마요!" 아이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만,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작은 눈을 다시 독살스럽게 번득였다.

"좋아요, 갈게요." 알료샤가 말했다. "다만 나는 그쪽을 모르고 놀리지도 않아요. 저 아이들이 그쪽을 어떻게 놀리는지 말해 주었지만, 나는 그쪽을 놀리고 싶지 않아요. 잘 있어요!"

"수도사 나리, 무명 바지 나리!" 아이가 여전히 독살스럽고 도발하는 눈길로 알료샤를 쫓으며 소리쳤다. 게다가 알료샤가 이제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덤벼들리라 셈하고 자세까지 잡았다. 그러나 알료샤는 돌아서서 아이를 한 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가 세 걸음도 떼기 전에, 아이가 주머니에 가진 것 가운데 가장 큰 자갈돌이 날아와 그의 등을 아프게 때렸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러는군요? 그럼 그쪽이 몰래 공격한다고 한 저 아이들 말이 사실이네요?" 알료샤가 다시 돌아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녀석이 미친 듯이 다시 알료샤에게 돌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바로 얼굴을 겨누었다. 그러나 알료샤가 제때 막아서, 돌은 그의 팔꿈치에 맞았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그쪽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요?" 그가 외쳤다.

아이는 말없이, 싸우려 들며 이제는 알료샤가 틀림없이 자기에게 덤벼들리라는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알료샤가 이제도 덤벼들지 않는 것을 보자 아이는 새끼 짐승처럼 완전히 독이 올랐다. 아이는 자리에서 튀어나와 제 쪽에서 알료샤에게 덤벼들었고, 알료샤가 몸을 움직일 새도 없이 그 독한 녀석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알료샤의 왼손을 붙잡더니 그 가운뎃손가락을 아프게 물었다. 아이는 손가락에 이를 박고 10초쯤 놓지 않았다. 알료샤는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빼내려 했다. 아이는 마침내 손가락을 놓고 아까 거리만큼 뒤로 물러섰다. 손가락은 손톱 바로 옆이 뼈에 닿도록 깊이 아프게 물려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다. 알료샤는 손수건을 꺼내 다친 손을 꽉 감쌌다. 그는 거의 1분 내내 손수건을 감았다. 그동안 녀석은 내내 서서 기다렸다. 마침내 알료샤가 조용한 눈길을 들어 아이를 보았다.

"자, 좋아요." 그가 말했다. "보세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물었으니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해 봐요, 내가 그쪽한테 무슨 짓을 했나요?"

아이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쪽을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 보지만," 알료샤가 여전히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그쪽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어요. 공연히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그쪽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 줘요."

대답 대신 아이는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알료샤에게서 달아났다. 알료샤는 아이를 따라 천천히 미하일롭스카야 거리로 걸어갔고, 아이가 걸음을 늦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틀림없이 여전히 소리 내어 울며 멀리 달려가는 모습이 오래도록 보였다. 그는 시간이 나는 대로 꼭 그 아이를 찾아내어 자기를 몹시 놀라게 한 이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

제4장 호흘라코바 부인 댁에서

그는 곧 호흘라코바 부인의 집에, 우리 읍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집인 부인 소유의 이층 석조 저택에 다다랐다. 호흘라코바 부인은 대개 영지가 있는 다른 현이나 자기 집이 있는 모스크바에서 살았지만, 우리 읍에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부터 물려받은 자기 집이 있었다. 게다가 부인이 우리 군에 가진 영지는 부인의 세 영지 가운데 가장 컸는데, 그런데도 부인은 지금까지 우리 현에 좀처럼 오지 않았다. 부인은 현관까지 알료샤를 맞으러 뛰어나왔다.

"받으셨어요, 새 기적 이야기를 적은 편지 받으셨어요?" 부인이 빠르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꺼냈다.

"네, 받았습니다."

"널리 알리셨어요, 모두에게 보여 주셨어요? 장로님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장로님은 오늘 돌아가실 거예요." 알료샤가 말했다.

"들었어요, 알아요. 아, 당신과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당신하고든 누구하고든 이 모든 일에 대해서요. 아니에요, 당신하고요, 당신하고요! 그런데 그분을 도저히 뵐 수 없다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온 읍이 들떠 있고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 집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와 있다는 거 아세요?"

"아, 잘됐네요!" 알료샤가 외쳤다. "그럼 여기서 그분을 만나면 되겠어요. 그분이 어제 오늘 꼭 와 달라고 했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제 그 아가씨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한 데까지 다 들었어요…… 그 더러운 것과 벌어진 그 끔찍한 일들도 다요. 비극이에요(C'est tragique), 내가 그 아가씨 처지였다면, 내가 그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 형도, 당신의 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도 참, 오, 하느님!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제가 말이 헷갈리네요. 생각 좀 해 보세요. 지금 거기 당신 형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 말고, 어제의 그 끔찍한 형 말고 다른 형, 이반 표도로비치가 앉아서 그 아가씨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엄숙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이 믿어 주기만 한다면요. 끔찍해요, 이건, 제 말씀이지만, 파열(надрыв)[1]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동화예요, 두 사람 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게 자기를 망치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걸 알면서 그걸 즐기고 있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목마르게 기다렸어요! 무엇보다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금방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말해 주세요, 리즈가 왜 히스테리를 일으켰을까요? 당신이 오고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애가 곧바로 히스테리를 일으켰어요!"

"엄마(Maman), 지금 히스테리를 일으킨 건 제가 아니라 엄마예요." 옆방에서 갑자기 문틈으로 리즈의 작은 목소리가 재잘거렸다. 문틈은 아주 작았고, 작은 목소리는 웃음이 몹시 터지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참을 때와 꼭 같이 파열하듯 갈라져 있었다. 알료샤는 곧바로 그 문틈을 알아보았고, 틀림없이 리즈는 안락의자에 앉아 그 틈으로 그를 내다보고 있었겠지만, 그것까지는 그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럴 만도 하지, 리즈, 그럴 만도 해…… 네 변덕 때문에 나도 히스테리를 일으키겠다. 하기야 이 애가 몹시 아파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밤새 몹시 아팠어요. 열이 나고 끙끙 앓았어요! 저는 아침이 오고 게르첸시투베가 오기를 겨우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좀 두고 봐야 한다고 해요. 그 게르첸시투베는 늘 와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해요. 당신이 집에 다가오자마자 이 애가 비명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더니, 예전에 쓰던 이 방으로 자기를 옮겨 달라고 했어요……"

"엄마, 저는 그분이 오시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그분 때문에 이 방으로 옮기고 싶었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다, 리즈. 율리야가 너한테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가 오신다고 알리러 뛰어갔잖니. 율리야가 너를 위해 망을 보고 있었잖아."

"귀엽고 착한 엄마, 그건 엄마답지 않게 몹시 재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회하시고 지금 무언가 아주 재치 있는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귀여운 엄마, 방금 들어오신 존귀하신 나리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두가 자기를 비웃는데도 오늘 우리 집에 올 생각을 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재치가 없다는 걸 증명하셨다고요."

"리즈, 너는 너무 제멋대로 구는구나. 정말이지 나도 끝내는 엄한 수를 쓸 거다. 누가 이분을 비웃는다고 그러니. 나는 이분이 와 주셔서 얼마나 기쁜데. 나한테는 이분이 필요하다, 꼭 필요해. 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는 말할 수 없이 불행해요!"

"아니, 엄마는 대체 왜 그러세요, 착한 엄마?"

"아, 네 그 변덕들, 리즈, 그 갈피 없는 성미, 네 병, 열이 나던 그 끔찍한 밤, 그 끔찍하고 영원한 게르첸시투베, 무엇보다 영원한, 영원하고 또 영원한 게르첸시투베 말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게, 모든 게…… 그리고 결국 그 기적까지도! 아, 그 기적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하고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몰라요, 귀여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리고

지금 저기 응접실에서는 그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쩌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인지도 모르지만요. 말해 주세요, 조시마 장로님은 내일까지 살아 계실까요, 살아 계실까요? 오, 하느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쉴 새 없이 눈을 감는데, 그러면 모든 게 헛소리로, 모든 게 헛소리로 보여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알료샤가 갑자기 말을 가로막았다. "손가락을 동일 깨끗한 헝겊 조각을 하나 주세요. 손가락을 많이 다쳐서 지금 몹시 아파요."

알료샤는 물린 손가락을 풀어 보였다. 손수건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호흘라코바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세상에, 무슨 상처가 이래요, 끔찍해요!"

그런데 리즈는 문틈으로 알료샤의 손가락을 보자마자 곧바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들어오세요, 이리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리즈가 고집스럽게, 명령하듯 소리쳤다. "이제는 바보짓은 그만이에요! 오, 주여, 그렇게 오래 왜 말없이 서 계셨어요? 피를 다 흘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엄마! 어디서 그러셨어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물, 물이요! 상처를 씻어야 해요, 아픔이 가라앉게 그냥 찬물에 담그고, 담그고 있어야 해요, 계속 담그고 있어야 해요…… 어서, 어서 물을, 엄마, 헹굼 그릇에요. 어서요." 리즈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맺었다. 리즈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는데, 알료샤의 상처가 리즈를 몹시 놀라게 했던 것이다.

"게르첸시투베를 부르러 보낼까?" 호흘라코바 부인이 외치려 했다.

"엄마, 저를 죽이실 셈이에요. 엄마의 게르첸시투베가 와서는 알 수 없다고 할 거예요! 물, 물이요! 엄마, 제발 직접 가셔서 율리야를 재촉해

주세요. 어디서 꾸물거리는지 언제나 빨리 오는 법이 없어요! 어서요, 엄마,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료샤가 두 사람이 겁먹은 것에 겁을 먹고 외쳤다.

율리야가 물을 들고 뛰어왔다. 알료샤는 손가락을 물에 담갔다.

"엄마, 제발 붕대 솜을 가져다주세요. 붕대 솜하고 베인 데 바르는 그 따끔하고 뿌연 물, 아, 그걸 뭐라고 하더라! 우리 집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엄마, 그 병이 어디 있는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엄마 침실 찬장 오른쪽에 있어요. 거기 큰 병하고 붕대 솜이 있어요……"

"당장 다 가져오마, 리즈. 그러니 소리 지르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보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는 자기 불행을 얼마나 굳세게 견디시는지.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끔찍하게 다치셨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호흘라코바 부인은 서둘러 나갔다. 리즈가 기다리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질문에 대답하세요." 리즈가 알료샤에게 빠르게 말을 꺼냈다. "어디서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서요!"

알료샤는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시간이 리즈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본능으로 느끼고, 많은 것을 빼고 줄였지만 그래도 정확하고 또렷하게, 학생 아이들과 맞닥뜨린 수수께끼 같은 일을 서둘러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리즈는 두 손을 마주쳤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그것도 그런 옷을 입고서 사내아이들과 엮일 수가 있어요!" 리즈는 마치 그에게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화를 내며 외쳤다. "그러니 당신 자신이 사내아이예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어린 사내아이요! 그래도 그 고약한 녀석에 대해서는 꼭 어떻게든 알아보고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엔 무슨 비밀이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일인데, 그 전에 물어볼게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아파서 괴로우시더라도 아주 하찮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리에 맞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요. 게다가 지금은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그건 손가락이 물에 담겨 있어서 그래요. 물을 당장 갈아야 해요. 금방 미지근해질 테니까요. 율리야, 지하실에서 얼음 한 덩이하고 물을 담은 새 헹굼 그릇을 얼른 가져와. 자, 이제 율리야가 나갔으니 본론이에요. 어서, 귀여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제가 어제 보내 드린 제 편지를 돌려주세요. 어서요, 지금 곧 엄마가 올지도 모르는데 저는……"

"편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 편지는 그 주머니에 들어 있어요. 저는 밤새 그 어리석은 장난을 얼마나 뉘우쳤는지 몰라요. 그러니 당장 편지를 돌려주세요, 주세요!"

"거기 두고 왔어요."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장난을 친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저를 계집아이로, 아주 어리고 어린 계집아이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장난을 친 건 용서를 빌게요. 하지만 정말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편지는 꼭 가져다주세요. 오늘 꼭, 꼭 가져다주세요!"

"오늘은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이틀, 사흘, 어쩌면 나흘은 오지 못할 거예요. 조시마 장로님이……"

"나흘이라니, 무슨 헛소리예요! 그런데 저기요, 저를 많이 비웃으셨어요?"

"조금도 비웃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걸 그대로 믿었으니까요."

"저를 모욕하시는군요!"

"전혀요. 저는 편지를 읽자마자 곧 모든 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조시마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곧 수도원을 나와야 하니까요. 그다음에 공부를 계속해서 시험을 치를 거고, 법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아직 생각할 겨를은 없었지만, 당신보다 나은 아내는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저더러 결혼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불구예요, 남이 의자에 태워 밀고 다녀야 하는 몸이에요!" 리자가 두 볼을 붉히며 웃었다.

"제가 직접 당신을 의자에 태워 밀고 다닐게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당신이 나으리라고 믿어요."

"당신 미쳤군요." 리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런 장난에서 갑자기 그런 헛소리를 끌어내시다니!…… 아, 엄마가 오시네요, 어쩌면 아주 때마침이에요. 엄마, 엄마는 언제나 늦으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마침 율리야도 얼음을 가져오네요!"

"아, 리즈, 소리 지르지 마라, 무엇보다 소리 지르지 마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나는…… 어쩌겠니, 네가 직접 붕대 솜을 다른 데 쑤셔 넣었으니…… 찾고 또 찾았단다…… 네가 일부러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그분이 손가락을 물려서 오실 줄은 제가 알 수 없었잖아요. 알았더라면 어쩌면 정말 일부러 그랬을지도 몰라요. 천사 같은 엄마, 엄마가 아주 재치 있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네요."

"재치가 있든 말든, 리즈,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의 손가락이며 이 모든 일을 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아, 귀여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를 죽이는 건 자잘한 일들이 아니에요, 게르첸시투베 따위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한꺼번에, 모든 게 통째로 저를 죽여요. 바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됐어요, 엄마, 게르첸시투베 이야기는 됐어요." 리자가 즐겁게 웃었다. "어서 붕대 솜하고 물을 주세요, 엄마. 이건 그냥 납찜질약이에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제 이름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아주 좋은 찜질약이에요. 엄마,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길에서 사내아이들하고 싸웠는데, 그 사내아이가 이분을 물었대요, 그러니 이분 자신이 어린, 어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이러고도 이분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결혼하고 싶어 해요. 이분이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습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즈는 알료샤를 짓궂게 쳐다보며 신경질적인 잔웃음을 줄곧 웃었다.

"아니, 결혼이라니, 리즈,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을 하니. 너한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다…… 그 사내아이가 미친 아이일지도 모르는데."

"아, 엄마! 미친 사내아이가 어디 있어요?"

"왜 없겠니, 리즈. 내가 무슨 어리석은 말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는구나. 당신을 문 그 사내아이가 미친개한테 물려서 미친 사내아이가 되었고, 이제 제 차례로 곁에 있는 누군가를 무는 거지요. 이 애가 붕대를 참 잘 감아 드렸네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 해요. 지금은 아프세요?"

"이제는 아주 조금요."

"물이 무섭지는 않으세요?" 리즈가 물었다.

"자, 그만해라, 리즈. 내가 미친 사내아이 이야기를 정말 너무 성급하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너는 금세 거기서 엉뚱한 걸 끌어내는구나.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당신이 오셨다는 걸 방금 알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당신을 목마르게, 목마르게 기다려요."

"아, 엄마! 엄마 혼자 거기 가세요. 이분은 지금 갈 수 없어요. 너무 괴로워하시잖아요."

"전혀 괴롭지 않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알료샤가 말했다.

"뭐라고요! 가시겠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 일을 마치면 다시 올 테니, 그때 당신이 원하는 만큼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어서 만나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요."

"엄마, 이분을 데려가세요, 어서 데려가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만난 뒤에 굳이 제 방에 들르실 것 없어요. 곧장 당신 수도원으로 가세요, 그게 당신이 갈 길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고 싶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 리즈, 그건 그저 네가 하는 농담이겠지만, 정말 네가 잠이라도 들면 얼마나 좋겠니!" 호흘라코바 부인이 외쳤다.

"제가 무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3분쯤 더 있을게요, 5분이라도요." 알료샤가 중얼거렸다.

"5분이라도라니! 어서 이분을 데려가세요, 엄마. 이분은 괴물이에요!"

"리즈, 너 미쳤구나. 가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 애가 오늘은 너무 변덕을 부려서 성나게 할까 봐 겁이 나요. 아, 신경 예민한 여자란 골칫거리예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런데 정말로 이 애가 당신 앞에서 졸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금세 이 애한테 잠을 불러오셨을까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 엄마, 말씀을 참 귀엽게 하시게 됐네요. 그래서 엄마한테 입 맞춰 드릴게요, 엄마."

"나도 너한테 입 맞춰 주마, 리즈. 들어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호흘라코바 부인이 알료샤와 함께 나가면서 비밀스럽고 엄숙하게 빠른

속삭임으로 말을 꺼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불어넣고 싶지 않고, 이 장막을 걷고 싶지도 않지만,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다 보실 거예요, 끔찍해요, 그건 더없이 환상적인 희극이에요, 그 아가씨는 당신 형 이반 표도로비치를 사랑하면서, 당신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사랑한다고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믿게 하고 있어요. 끔찍해요! 저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

1. 러시아어 나드리프(надрыв)는 '찢어짐, 금이 감, 무리하게 힘을 써서 터짐'을 뜻하는 낱말로, 이 책에서는 제 마음을 억지로 찢어 감정을 한껏 부풀리는 일을 가리킨다. 제4권의 제목 「파열」이 이 말이다.

제5장 응접실의 파열

그러나 응접실에서는 이야기가 이미 끝나 가고 있었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단호한 얼굴이기는 했지만 몹시 흥분해 있었다. 알료샤와 호흘라코바 부인이 들어간 순간, 이반 표도로비치는 가려고 일어서던 참이었다. 그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서 알료샤는 불안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실은 이 자리에서 이제 알료샤의 의혹 하나가, 얼마 전부터 그를 괴롭혀 온 불안한 수수께끼 하나가 풀리려 하고 있었다. 벌써 한 달쯤 전부터 그는 여러 번, 여러 쪽에서, 이반 형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정말로 미탸에게서 그 여자를 "빼앗을" 작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것은 알료샤에게 해괴한 일로 여겨졌지만, 그래도 그를 몹시 불안하게 했다. 그는 두 형을 다 사랑했고, 두 형 사이에 그런 경쟁이 벌어질까 두려웠다. 그런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자신이 어제 갑자기 대놓고, 이반의 경쟁이 오히려 기쁘고 그것이 자기, 드미트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걸까? 그루셴카와 결혼하는 데? 그러나 알료샤는 그 일을 절망적이고 막다른 일로 여겼다. 그 모든 것 말고도 알료샤는 바로 어제저녁까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자신이 드미트리 형을 미칠 듯이, 끈질기게 사랑한다고 틀림없이 믿었는데, 그렇게 믿은 것은 어제저녁까지뿐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어쩐지 줄곧 그 여자가 이반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형 드미트리를, 그것도 그런 사랑이 아무리 해괴하더라도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드미트리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어른거렸다. 그런데 어제 그루셴카와 벌어진 장면에서 그에게는 갑자기 무언가 다른 것이 어른거린 듯했다. 방금 호흘라코바 부인이 입에 올린 "파열"이라는 말에 그는 하마터면 몸을 떨 뻔했는데, 바로 지난밤 새벽녘에 반쯤 잠이 깨었을 때, 그는 아마 꿈에 대답하느라 그랬겠지만 갑자기 "파열, 파열!"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밤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에서 어제 벌어진 장면을 꿈꾸었다. 그런데 이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실은 이반 형을 사랑하면서 다만 일부러, 무슨 장난으로, "파열"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무슨 고마움 같은 것 때문에 드미트리에게 꾸며 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호흘라코바 부인의 대놓고 끈질긴 장담이 알료샤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래, 어쩌면 정말로 바로 그 말에 온전한 진실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다면 이반 형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알료샤는 무슨 본능으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같은 성격에게는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여자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미트리 같은 사람뿐이지 결코 이반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느꼈다. 드미트리라면(설령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해도) 마침내 그 여자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행복이 될" 것이지만(알료샤는 그러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이반은 아니었으니, 이반은 그 여자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을 것이고, 고개를 숙인다 해도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할 것이었다. 알료샤는 어쩐 일인지 저도 모르게 이반에 대해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응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 모든 흔들림과 헤아림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생각이 하나 더,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스쳐 갔다. "만약 그 여자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쪽도 저쪽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해 두지만 알료샤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자기 생각을 부끄러워하는 듯했고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을 나무랐다. "내가 사랑에 대해, 여자에 대해 무얼 안다고,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는 그런 생각이나 짐작이 들 때마다 자신을 나무라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본능으로, 이를테면 지금 이 경쟁이 두 형의 운명에서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고 너무나 많은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독사 한 마리가 다른 독사를 잡아먹는 거지." 어제 이반 형은 아버지와 드미트리 형 이야기를 하다가 신경질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드미트리 형은 이반 형의 눈에 독사이고, 어쩌면 벌써 오래전부터 독사였던 걸까? 이반 형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알게 된 그때부터가 아닐까? 물론 그 말은 어제 이반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것이지만, 무심코 튀어나왔기에 더욱 중대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들 집안에 미움과 반목이 생길 새로운 까닭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알료샤는 누구를 가엾게 여겨야 하는가? 그리고 저마다에게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그는 두 형을 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모순 속에서 저마다에게 무엇을 바라야 한단 말인가? 이 뒤죽박죽 속에서는 완전히 길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알료샤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실행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동적으로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랑하게 되면 곧바로 돕는 일에 나섰다. 그런데 그러려면 목표를 세워야 했고, 저마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필요한지 굳게 알아야 했으며, 목표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면 자연히 저마다를 도와야 했다. 그러나 굳은 목표 대신 모든 것에 흐릿함과 뒤죽박죽뿐이었다. 이제 "파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그 파열에서조차 그가 무엇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 모든 뒤죽박죽 속에서 그는 첫마디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알료샤를 보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가려고 벌써 자리에서 일어선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빠르게, 기뻐하며 말했다.

"잠깐만요! 1분만 더 있어 주세요. 저는 제가 온 존재로 믿는 이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카테리나 오시포브나, 부인도 가지 마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호흘라코바 부인을 돌아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알료샤를 자기 곁에 앉혔고, 호흘라코바 부인은 맞은편 이반 표도로비치 옆에 앉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제 친구들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진 전부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진심 어린 고통의 눈물이 떨리는 목소리로 뜨겁게 말을 꺼냈고, 알료샤의 마음은 다시 단번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섰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은 어제 그…… 끔찍한 일의 증인이었고, 제가 어땠는지 보셨어요. 이반 표도로비치, 당신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이분은 보셨어요. 이분이 어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단 하나, 오늘, 지금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저는 어제와 똑같은 감정을,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말, 똑같은 몸짓을 드러내리라는 것뿐이에요. 제 몸짓을 기억하시죠,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 몸짓 가운데 하나에서 당신이 직접 저를 붙드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얼굴을 붉혔고, 그 눈이 번득였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것과도 타협할 수 없어요. 들어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는 지금 제가 그이를 사랑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이가 가여워졌어요, 그건 사랑의 나쁜 증거예요. 제가 그이를 사랑한다면, 계속 사랑하고 있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 그이를 가여워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할 거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목소리가 떨렸고, 속눈썹에 작은 눈물방울이 반짝였다. 알료샤는 속으로 몸을 떨었다. "이 아가씨는 거짓이 없고 진실해."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드미트리 형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요! 그래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외치려 했다.

"잠깐만요, 귀여운 카테리나 오시포브나,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오늘 밤 결심한 마지막 말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제 결심이 어쩌면 끔찍한 것인지도 몰라요. 저에게는요.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 결심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바꾸지 않으리라는 걸, 그렇게 되리라는 걸 예감해요. 저의 다정하고 착한, 늘 곁에 있어 주는 너그러운 조언자,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아는 분, 제가 세상에서 가진 오직 하나뿐인 친구 이반 표도로비치는 무엇에서든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제 결심을 칭찬해 주세요…… 이분은 제 결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요, 나는 그 결심에 찬성합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알료샤도(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냥 알료샤라고 불러서 죄송해요), 저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도 지금 바로 제 두 친구 앞에서 제가 옳은지 그른지 말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본능으로 예감해요. 알료샤, 사랑하는 내 동생(당신은 사랑하는 내 동생이니까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뜨거운 손으로 알료샤의 차가운 손을 붙잡으며 다시 열광하여 말했다. "저는 예감해요, 제가 아무리 괴로워도 당신의 판단이, 당신의 찬성이 저에게 평온을 주리라는 걸요. 당신의 말을 들으면 저는 가라앉고 받아들일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예감해요!"

"무엇을 물으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료샤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가 아는 건 다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 순간 당신이 저 자신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서둘러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일에서는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런 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명예와 의무예요. 그리고 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높은 무언가예요. 어쩌면 의무 자체보다도 더 높은 무언가예요. 제 마음이 저에게 이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일러 주고, 그 감정이 저를 억누를 수 없이 끌어당겨요. 하기야 두 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설령 그이가 그…… 더러운 것과 결혼한다 해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엄숙하게 말을 꺼냈다. "제가 결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여자와 결혼한다 해도, 저는 그래도 그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결코, 결코 그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무언가 창백하고 억지로 짜낸 환희의 어떤 파열에 들떠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이를 쫓아다니고, 쉴 새 없이 그이 눈에 띄고, 그이를 괴롭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 아니에요, 저는 다른 도시로, 어디든 좋은 곳으로 떠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평생, 제 평생 지치지 않고 그이를 지켜볼 거예요. 그이가 그 여자와 살면서 불행해지면, 그건 틀림없이, 그것도 곧 그렇게 될 텐데, 그때 그이가 저에게 오면 친구를, 누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물론 누이일 뿐이고 그건 영원히 그럴 테지만, 그이도 마침내 이 누이가 정말로 자기 누이라는 걸, 자기를 사랑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 희생한 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낼 거예요. 마침내 그이가 저를 알아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도록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미친 듯이 외쳤다. "저는 그이가 기도하는 그이의 신이 될 거예요, 그건 적어도 그이가 배신한 대가로, 어제 그이 때문에 제가 겪은 일의 대가로 저에게 빚진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저를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렸는데도 제가 평생 그이에게, 그이에게 한 번 준 제 약속에 충실하리라는 것을 그이가 평생 보게 하겠어요. 저는…… 저는 그이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거예요(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이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기계가 될 거예요, 그것도 평생, 평생이요, 그리고 그이가 앞으로 평생 그걸 보게 하겠어요! 이게 제 결심의 전부예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저를 더없이 지지해 주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숨을 헐떡였다. 어쩌면 그 여자는 자기 생각을 훨씬 더 품위 있게, 훨씬 더 솜씨 있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었겠지만, 너무 서둘러, 너무 드러나게 나와 버렸다. 젊은 혈기로 참지 못한 데가 많았고, 많은 부분이 그저 어제의 신경질과 뽐내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는데, 그 여자도 그것을 스스로 느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어쩐지 갑자기 어두워졌고, 눈빛이 좋지 않게 바뀌었다. 알료샤는 곧바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그의 마음에 연민이 꿈틀거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반 형이 거들고 나섰다.

"나는 내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다른 여자라면 이 모든 것이 금 가고 억지로 짜낸 것이 되었겠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다른 여자라면 옳지 않겠지만, 당신은 옳습니다. 이걸 어떻게 근거를 대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더없이 진실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옳은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 순간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이란 게 뭐예요? 그저 어제 받은 모욕일 뿐이에요. 이 순간이란 그런 거예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갑자기 참지 못하고 말했다. 분명 끼어들 생각은 없었지만 참지 못하고 갑자기 아주 옳은 말을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요." 이반이 갑자기 무언가에 열이 오른 듯, 그리고 말을 가로막힌 것에 눈에 띄게 성이 나서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요, 하지만 다른 여자라면 이 순간은 그저 어제의 인상일 뿐이고 그저 한순간일 뿐이지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성격이라면 이 순간이 평생 이어질 겁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약속인 것이 이분에게는 영원하고 무겁고, 어쩌면 음울하기까지 하지만 쉼 없는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의무를 다했다는 감정을 먹고 살아갈 겁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당신의 삶은 이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위업과 자기 자신의 슬픔을 괴로워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흘러갈 테지만, 나중에는 그 괴로움이 누그러지고, 당신의 삶은 한 번 영원히 이루어 낸 굳고 자랑스러운 뜻을 달콤하게 바라보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그 뜻은 나름대로 정말로 자랑스럽고, 어쨌든 절망적이지만 당신이 이겨 낸 뜻이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마침내 당신에게 더없이 온전한 만족을 주고 당신을 나머지 모든 것과 화해시켜 줄 겁니다……"

그는 무언가 독기를 품고, 분명 일부러, 어쩌면 자기 의도를, 그러니까 일부러, 비웃으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숨기고 싶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이 말을 했다.

"오, 하느님, 이게 다 얼마나 틀렸는지!" 호흘라코바 부인이 다시 외쳤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할지 저는 괴롭도록 알아야 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치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알료샤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울면서 말을 이었다.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래요, 오늘 밤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과 당신 형 같은 두 친구가 곁에 있으니 저는 아직 굳세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두 분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걸요……"

"안타깝게도 나는 어쩌면 당장 내일 모스크바로 떠나서 오래 당신 곁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타깝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말했다.

"내일, 모스크바로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얼굴 전체가 갑자기 일그러졌다. "하지만…… 하지만 하느님, 얼마나 다행인지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순식간에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외치더니, 순식간에

눈물을 흔적도 없이 걷어 냈다. 정말로 한순간에 그 여자에게 알료샤를 몹시 놀라게 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방금까지 자기 감정의 무슨 파열에 빠져 울던 가엾은 모욕당한 아가씨 대신, 갑자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고 무언가에 몹시 만족하기까지 한, 마치 갑자기 무엇에 기뻐하기라도 한 듯한 여자가 나타났다.

"오, 당신을 떠나보내는 게 다행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니지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사교계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말을 고치듯 했다. "당신 같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실 리 없지요, 오히려 저는 당신을 잃게 되어 너무나 불행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갑자기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달려들어 두 손을 붙잡고 뜨거운 감정을 담아 꼭 쥐었다.) "다행인 건 이거예요, 이제 당신이 모스크바에서 이모님과 아가샤에게 제 처지를, 지금 제가 겪는 이 끔찍한 일을 직접, 몸소 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샤에게는 완전히 솔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모님은 아껴 드리면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대로요.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 그 끔찍한 편지를 어떻게 쓸지 몰라 얼마나 불행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편지로는 그걸 도저히, 무슨 수를 써도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편지 쓰기가 쉬워질 거예요. 당신이 거기 그분들 곁에 계시면서 다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오, 얼마나 기쁜지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 기쁜 거예요. 다시 한 번 믿어 주세요. 당신은 물론 저에게 누구로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편지를 쓰겠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맺더니 방을 나가려고 벌써 한 걸음 내딛기까지 했다.

"그럼 알료샤는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의 의견을 그렇게나 꼭 듣고 싶어 하셨잖아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외쳤다. 그 말에는 신랄하고 성난 가락이 울렸다.

"그건 잊지 않았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왜 이런 순간에 저에게 그렇게 적의를 보이세요, 카테리나 오시포브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쓰라리고 뜨겁게 나무랐다. "제가 한 말은 그대로 지켜요. 저에게는 이분의 의견이 꼭 필요해요. 그뿐 아니라 이분의 판정이 필요해요! 이분이 말하는 대로 될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이나 저는 당신의 말을 목마르게 기다려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런데 왜 그러세요?"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알료샤가 갑자기 서글프게 외쳤다.

"무얼요, 무얼요?"

"형은 모스크바로 떠나는데 당신은 기쁘다고 외쳤어요. 그건 일부러 외친 거예요! 그러고는 곧바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를…… 잃게 되어 안타깝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일부러 연기한 거예요…… 극장에서 희극을 연기하듯 연기한 거예요!……"

"극장에서요? 어떻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온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썹을 찌푸리며 몹시 놀라 외쳤다.

"아무리 형한테 친구를 잃게 되어 아깝다고 장담해도, 형이 떠나는 게 행복이라고 형의 면전에서 끝내 우기고 있잖아요……" 알료샤가 이제 완전히 숨이 막힌 듯 말했다. 그는 탁자 곁에 서서 앉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갑자기 무슨 깨달음 같은 게 왔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다 말할게요." 알료샤는 여전히 떨리고 끊기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깨달은 건, 당신은 어쩌면 드미트리 형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리고 드미트리 형도 어쩌면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요…… 처음부터요…… 그저 존경할 뿐이에요…… 정말이지

제가 지금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진실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쳤고, 그 목소리에 무언가 히스테릭한 것이 쨍하고 울렸다.

"이런 진실이에요." 알료샤는 마치 지붕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지금 드미트리 형을 부르세요, 제가 찾아올게요, 그래서 형이 여기 와서 당신의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반 형의 손을 잡아서 두 분의 손을 맞잡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반 형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그건 다만 당신이 이반 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괴롭히는 건 당신이 드미트리 형을 파열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지 않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믿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알료샤는 말을 뚝 끊고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당신은…… 당신은 꼬마 성 바보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벌써 창백해진 얼굴로, 독기로 일그러진 입술로 갑자기 잘라 말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자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네가 잘못 안 거야, 착한 알료샤." 그가 말했다. 알료샤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무언가 젊은 진심과 걷잡을 수 없이 솔직한 강한 감정이 담긴 표정이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내가 내 사랑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내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어. 나는 이 사람의 친구였던 적도 한 번도, 단 하루도 없었어, 오만한 여자에게는 내 우정이 필요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복수하려고 나를 곁에 두었어. 이 사람은 그동안 내내

드미트리에게서 끊임없이, 순간마다 받은 모든 모욕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받은 모욕을 나에게, 나를 통해 복수했어…… 두 사람의 맨 처음 만남조차 이 사람의 가슴에는 모욕으로 남았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래! 나는 내내 이 사람이 그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 이제 나는 떠나요. 하지만 알아 두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욕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랑합니다. 바로 그게 당신의 파열입니다. 당신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당신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행실을 고친다면 당신은 당장 그 사람을 내팽개치고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당신의 정절이라는 위업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사람의 부정을 나무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당신의 오만에서 나옵니다. 오, 여기에는 자기를 낮추고 굴욕을 당하는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건 오만에서 나옵니다…… 나는 너무 젊고 당신을 너무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런 말은 당신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냥 당신 곁을 떠나는 편이 내 쪽에서 더 품위 있었으리라는 것을, 당신에게도 그리 모욕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멀리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나는 파열 곁에 앉아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기야 나는 이제 말을 할 줄 모르겠군요. 다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당신은 나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백 배는 더 벌을 받았으니까요,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벌을 받은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의식하고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순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용서하겠지만, 지금은 손은 필요 없습니다.

"부인, 감사는 바라지 않소(Den Dank, Dame, begehr ich nicht)."[1]

그는 일그러진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로써 그도 실러를 외울 만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뜻밖에 드러냈다. 전 같으면 알료샤는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 집 안주인인 호흘라코바 부인에게도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알료샤는 두 손을 마주쳤다.

"이반 형." 그가 넋을 잃은 사람처럼 형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돌아와, 이반 형! 아니야, 아니야, 형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는 다시 서글픈 깨달음 속에서 외쳤다. "하지만 내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시작했어! 이반 형은 독기를 품고 나쁘게 말했어. 부당하게, 독기를 품고……" 알료샤는 반쯤 넋 나간 사람처럼 외쳤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다른 방으로 나갔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천사처럼 아름답게 행동하셨어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서글퍼하는 알료샤에게 빠르게, 열광하여 속삭였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떠나지 않도록 제가 온 힘을 다할게요……"

부인의 얼굴에 기쁨이 빛났고, 그것이 알료샤를 더없이 서글프게 했다. 그런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돌아왔다. 그 여자의 손에는 무지갯빛 지폐 두 장이 들려 있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께 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알료샤에게 곧바로 몸을 돌려, 마치 정말 방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보기에는 차분하고 고른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한 주 전에, 그래요, 한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성급하고 부당한 짓을, 아주 추한 짓을 저질렀어요. 이곳에 좋지 않은 곳이, 선술집이 하나 있어요. 그이가 거기서 그 퇴역 장교를, 당신 아버님이

무슨 볼일에 부리시던 그 2등 대위를 만났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무엇 때문인지 그 2등 대위에게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수염을 움켜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굴욕스러운 꼴로 거리로 끌고 나가서 거리에서도 한참을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2등 대위의 아들, 이곳 학교에 다니는 아직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줄곧 곁에서 달리면서 소리 내어 울고 아버지를 위해 빌고,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지켜 달라고 빌었는데, 모두가 웃었다고들 해요. 용서하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는 그이의 그 수치스러운 짓을 분노 없이는 떠올릴 수가 없어요…… 화가 나면…… 그리고 정념에 휩쓸리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짓들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그 일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말이 헷갈려요. 저는 그 모욕당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의 성은 스네기료프예요. 무엇 때문인지 근무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쫓겨났는데, 이건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병든 아이들과 아내, 그것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아내와 함께 사는 불행한 가족과 함께 끔찍한 가난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읍에 살면서 무언가 일을 했고, 어디서 서기로 일하기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대요. 저는 당신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쩐지 헷갈리네요. 보세요, 저는 당신께 부탁하고 싶었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더없이 착한 나의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 사람에게 가서, 구실을 찾아서 그 집에, 그러니까 그 2등 대위의 집에 들어가서, 오, 하느님! 제가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바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대로(알료샤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이 도움을, 자, 200루블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도록 설득해 주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말하지?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고소하지 않도록(그 사람이 고소하려 했던 것 같거든요) 화해의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그저 동정이에요,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에게서, 저에게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약혼녀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당신은 해내실 거예요…… 제가 직접 가도 되겠지만,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해내실 거예요. 그 사람은 오제르나야 거리, 소시민 칼미코바의 집에 살아요…… 제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 일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제가 좀…… 지쳤어요. 안녕히 가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갑자기 몸을 홱 돌려 다시 휘장 뒤로 사라져 버려서, 알료샤는 한마디도 할 틈이 없었는데, 그는 말하고 싶었다. 그는 용서를 빌고, 자기를 탓하고, 아무튼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그의 가슴은 벅차 있었고, 그 말을 하지 않고는 정말로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호흘라코바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아 몸소 그를 데리고 나갔다. 현관에서 부인은 아까처럼 다시 그를 붙잡아 세웠다.

"오만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지만, 착하고, 사랑스럽고, 너그러워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반쯤 속삭이며 외쳤다. "오, 저는 그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특히 가끔은요, 그리고 지금 저는 모든 게, 모든 게 다시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귀여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은 이걸 모르셨지요, 그럼 알아 두세요. 우리 모두가, 모두가, 저도, 그 아가씨의 두 이모도, 그래요, 모두가, 리즈까지도, 벌써 한 달 내내 그 아가씨가 당신이 아끼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그 아가씨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그 아가씨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양 있고 훌륭한 젊은이 이반 표도로비치와 결혼하기를,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빌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예

음모를 꾸민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울었잖아요, 또 모욕을 당해서요!" 알료샤가 외쳤다.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럴 때 저는 언제나 여자들 편이 아니라 남자들 편이에요."

"엄마, 엄마가 그분을 망치고 계세요, 버려 놓고 계세요." 문 뒤에서 리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저는 끔찍하게 잘못했어요!" 위로받을 길 없는 알료샤는 자기가 저지른 짓이 괴롭도록 부끄러워 북받치는 마음에 이렇게 되풀이하며, 부끄러워서 두 손으로 얼굴까지 가렸다.

"오히려 당신은 천사처럼, 천사처럼 행동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천 번의 천 번이라도 되풀이할 수 있어요."

"엄마, 왜 그분이 천사처럼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리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걸 보고 있자니 어쩐지 갑자기," 알료샤는 리자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말을 이었다. "그분이 이반 형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누가요, 누구하고요?" 리즈가 외쳤다. "엄마, 엄마는 틀림없이 저를 죽이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묻는데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때 하녀가 뛰어 들어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아가씨가 안 좋으세요…… 울고 계세요…… 히스테리예요, 몸부림을 치세요."

"무슨 일이에요?" 리즈가 이제는 불안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히스테리를 일으킬 건 그분이 아니라 저예요!"

"리즈, 제발 소리 지르지 마라, 나를 죽이지 마라. 너는 아직 어른들이 아는 걸 다 알아서는 안 될 나이니, 다녀와서 너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건 다 이야기해 주마. 오, 하느님! 가요, 가요…… 히스테리는 좋은 징조예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 아가씨가 히스테리를 일으켰다니 아주 잘된 일이에요. 바로 그래야 해요. 이럴 때 저는 언제나 여자들 편이 아니에요, 그런 히스테리며 여자의 눈물이며 그런 것들 편이 아니에요. 율리야, 달려가서 내가 날아간다고 전해라.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렇게 나가 버린 건 그 아가씨 탓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리즈, 제발 소리 지르지 마라! 아, 그래, 너는 소리 지르지 않는구나, 소리 지르는 건 나로구나. 엄마를 용서해라. 하지만 나는 기뻐, 기뻐, 기뻐 죽겠다! 그런데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아까 이반 표도로비치가 얼마나 젊은이답게 나갔는지 보셨어요? 그 말을 다 하고 나가 버렸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학식 있는, 학자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뜨겁게, 뜨겁게, 솔직하고 젊게, 서툴고 젊게, 그게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꼭 당신 같아요…… 그리고 그 독일 시 구절을 읊었잖아요. 꼭 당신 같아요! 하지만 가요, 가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어서 그 심부름을 서둘러 다녀오세요, 그리고 어서 돌아오세요. 리즈, 뭐 필요한 건 없니? 제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를 한순간도 붙잡지 마라. 이분은 곧 너한테 돌아오실 거다……"

호흘라코바 부인은 마침내 달려 나갔다. 알료샤는 떠나기 전에 리즈의 방문을 열려고 했다.

"절대 안 돼요!" 리즈가 외쳤다. "이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문 너머로 말하세요. 왜 당신이 천사가 되었어요? 저는 그것 하나만 알고 싶어요."

"끔찍하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요, 리즈!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가 버리시면 안 돼요!" 리즈가 외치려 했다.

"리즈, 저한테 심각한 슬픔이 있어요!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저한테 크고, 큰 슬픔이 있어요!"

그러고는 그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

1. 실러의 담시 「장갑(Der Handschuh)」 마지막 구절. 귀부인이 일부러 사자 우리에 떨어뜨린 장갑을 주워 온 기사가 그 장갑을 귀부인의 얼굴에 던지며 하는 말이다.

제6장 오두막의 파열

그에게는 정말로 지금까지 좀처럼 겪어 보지 못한 그런 심각한 슬픔이 있었다. 그는 불쑥 튀어나가 "바보짓을 했다". 그것도 무슨 일에서? 사랑의 감정에서! "내가 이런 일을 무얼 안다고, 이런 일에서 내가 무얼 가려낼 수 있다고?"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 백 번째 되풀이했다. "아,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러움은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일 뿐이고, 문제는 이제 틀림없이 내가 새로운 불행의 원인이 되리라는 거야…… 장로님은 화해시키고 하나로 이어 주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이어 주는 거야?" 이때 그는 자기가 어떻게 "두 손을 맞잡게 하려" 했는지 다시 떠올렸고, 다시 끔찍하게 부끄러워졌다. "나는 그 모든 걸 진심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더 슬기로워져야 해." 그는 갑자기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자기가 내린 결론에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심부름은 오제르나야 거리로 가는 것이었는데, 드미트리 형은 마침 그 가는 길에, 오제르나야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살았다. 알료샤는 형을 만나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어쨌든 2등 대위에게 가기 전에 형에게 들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형이 어쩌면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 일부러 자기를 피해 숨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을 찾아내야 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수도원을 나선 그 시각부터 숨을 거두어 가는 장로에 대한 생각이 단 1분도, 단 1초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심부름에는 그의 마음을 몹시 끈 사정이 하나 스쳐 지나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 2등 대위의 아들, 아버지 곁에서 소리 내어 울며 달리던 어린 학생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알료샤의 머리에는 그때 이미 그 아이가 틀림없이 아까 그 학생, 그가, 알료샤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캐묻자 그의 손가락을 문 그 아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쳤다. 이제 알료샤는 아직 왜인지도 모르면서 거의 그렇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다른 생각에 빠져들다 보니 그는 마음이 풀렸고, 방금 자기가 저지른 "불행"을 "생각하지" 않기로, 뉘우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할 일을 하고 그다음은 될 대로 되게 두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완전히 기운이 났다. 그러다 드미트리 형에게 가려고 골목으로 꺾어 들면서 배가 고파진 그는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빵을 주머니에서 꺼내 길을 가며 먹었다. 그러자 힘이 났다.

드미트리는 집에 없었다. 그 작은 집의 주인들, 늙은 목수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인 노파는 알료샤를 의심스럽게까지 쳐다보았다. "벌써 사흘째 집에서 자지 않았으니 어디로 떠났는지도 모르지요." 알료샤가 애써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알료샤는 그가 시킨 대로 대답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루셴카 집에 있는 건 아닌가요, 또 포마 집에 숨어 있는 건 아닌가요?"(알료샤는 일부러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가 이렇게 묻자 주인들은 모두 겁먹은 듯이 그를 쳐다보기까지 했다. "형을 아끼는구나. 그러니까 형 편을 드는 거야." 알료샤는 생각했다. "다행이야."

마침내 그는 오제르나야 거리에서, 거리 쪽으로 창이 셋뿐이고 지저분한 마당 한가운데에 암소 한 마리가 외로이 서 있는, 기울어진 낡은 작은 집인 소시민 칼미코바의 집을 찾아냈다. 입구는 마당에서 현관방으로 나 있었고, 현관방 왼쪽에는 늙은 안주인이 늙은 딸과 함께

살았는데, 둘 다 귀가 먹은 듯했다. 그가 2등 대위에 대해 여러 번 되풀이해 묻자, 둘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세 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듣고 현관방 건너편, 깨끗한 쪽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손가락으로 쿡 가리켰다. 2등 대위의 거처는 정말로 그냥 오두막일 뿐이었다. 알료샤는 문을 열려고 쇠고리를 손에 쥐려다가, 문 너머가 유난히 조용한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말로 퇴역 2등 대위가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들 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온 걸 듣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다시 한 번 노크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그는 노크했다. 대답이 들렸지만 곧바로가 아니라 어쩌면 10초쯤 지나서였다.

"누구요?" 누군가가 크고 일부러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자 알료샤는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는 오두막 안에 들어섰는데, 꽤 넓기는 했지만 사람들과 온갖 세간으로 몹시 비좁았다. 왼쪽에 커다란 러시아 화덕이 있었다. 화덕에서 왼쪽 창까지 방을 가로질러 밧줄이 매여 있었고, 거기에 갖가지 헌 옷가지가 걸려 있었다. 왼쪽과 오른쪽 두 벽에 침대가 하나씩 놓여 있었고, 둘 다 뜨개 이불이 덮여 있었다. 그 가운데 왼쪽 침대에는 무명 베개 넷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작게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른쪽의 다른 침대에는 아주 작은 베개 하나만 보였다. 그리고 앞 구석에는 커튼인지 홑이불인지로 가린 작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구석을 가로질러 맨 밧줄에 걸쳐 놓은 것이었다. 그 커튼 뒤에도 옆쪽으로 걸상과 거기 붙여 놓은 의자 위에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무로만 된 네모난 투박한 농가 식탁은 앞 구석에서 가운데 창 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창 셋은 모두 하나에 작고 푸르스름하고 곰팡이 슨 유리가 넷씩 끼워져 있었는데, 몹시 흐렸고 꼭꼭 닫혀 있어서 방 안은 꽤 숨이 막히고 그리 밝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달걀 프라이가 조금 남은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고,

먹다 만 빵 한 조각이 있었으며, 그 밖에 반 병들이 술병이 있었는데 바닥에만 지상의 축복이 조금 남아 있었다. 왼쪽 침대 곁 의자에는 무명옷을 입은, 귀부인처럼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이 몹시 여위고 누렇게 떠 있었으며, 몹시 움푹 꺼진 뺨이 첫눈에 그 여자가 병든 몸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알료샤를 놀라게 한 것은 그 가엾은 부인의 눈길이었다. 몹시 무언가를 묻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하게 거만한 눈길이었다. 그리고 부인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알료샤가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내 부인은 똑같이 거만하고 묻는 듯이 커다란 갈색 눈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겼다. 이 부인 곁 왼쪽 창가에는 꽤 못생긴 얼굴에 붉고 숱 적은 머리를 한, 가난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아가씨가 서 있었다. 아가씨는 들어온 알료샤를 꺼림칙하다는 듯 훑어보았다. 오른쪽에도 역시 침대 곁에 여자가 하나 더 앉아 있었다. 몹시 가엾은 사람이었는데, 역시 스무 살쯤 된 젊은 아가씨였지만 곱사등이에 다리를 못 썼고, 나중에 알료샤가 들은 바로는 다리가 말라 버렸다고 했다. 아가씨의 목발은 곁에, 침대와 벽 사이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그 가엾은 아가씨의 유난히 아름답고 착한 눈이 무언가 차분하고 온순하게 알료샤를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키가 작고, 깡마르고, 몸이 약하고, 머리털이 불그스름한 마흔다섯 살쯤 된 남자가 앉아 달걀 프라이를 마저 먹고 있었는데, 불그스름하고 성긴 턱수염이 털이 헝클어진 수세미를 꼭 닮았다(이 비유, 특히 "수세미"라는 말이 어쩐지 첫눈에 알료샤의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는데, 그는 나중에 그것을 기억해 냈다). 방 안에 다른 남자가 없었으니 분명 바로 이 남자가 문 너머에서 "누구요" 하고 소리친 것이었다. 그런데 알료샤가 들어서자 그는 식탁에 앉아 있던 걸상에서 튀어 오르듯 일어나더니, 구멍 난 냅킨으로 서둘러 입을 닦으며 알료샤에게 날듯이 달려왔다.

"수도사가 수도원 짓는다고 시주를 받으러 왔네. 찾아올 데를 잘도 알았군!" 그사이 왼쪽 구석에 서 있던 아가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알료샤에게 달려온 남자는 순식간에 발뒤꿈치로 홱 돌아서서 그 아가씨에게 흥분해 무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지요, 바르바라 니콜라브나, 그게 아닙지요, 잘못 짚으셨습지요! 저도 여쭈어보지요." 그는 갑자기 다시 알료샤에게로 돌아섰다. "무엇이 당신을 이…… 이런 깊은 구렁까지 찾아오시게 했습지요?"

알료샤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람을 처음 보았다. 그에게는 무언가 모나고, 허둥대고, 신경질적인 데가 있었다. 그는 분명 방금 술을 마셨지만 취해 있지는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 극도의 뻔뻔함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도, 눈에 띄는 비겁함을 드러냈다. 그는 오랫동안 남에게 굽히고 온갖 일을 참아 오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진 사람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을 끔찍이 때리고 싶으면서도 당신이 자기를 때릴까 봐 끔찍이 겁내는 사람 같았다. 그의 말과 꽤 날카로운 목소리의 억양에서는 독기를 품었다가 주눅이 들었다가 하며 가락을 지키지 못하고 갈라지는, 무언가 성 바보 같은 익살이 들렸다. 그는 "구렁"에 대한 질문을 온몸을 떨듯이, 눈을 부릅뜨고, 알료샤에게 바짝 다가붙어서 던졌기 때문에 알료샤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이 남자는 기운 데가 있고 얼룩진, 몹시 허름한 어두운 빛깔의 무명 외투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바지는 이제는 아무도 입지 않는 그런 체크무늬에 아주 얇은 천으로 지은, 무언가 몹시 밝은 빛깔이었는데, 아래쪽이 구겨져서 그 때문에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는데, 마치 그가 어린 사내아이처럼 그 바지가 작아질 만큼 자라 버린 것 같았다.

"저는…… 알렉세이 카라마조프라고……" 알료샤가 대답하려 했다.

"훌륭히 알아들을 줄 압지요." 남자가 곧바로 잘라 말하며, 그러지 않아도 알료샤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을 내비쳤다. "저는 저대로 2등 대위 스네기료프입지요. 그런데도 무엇이 당신을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냥 들렀을 뿐이에요. 사실은 제 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어서요……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렇다면 여기 의자가 있습지요, 자리에 앉으십쇼. 옛날 희극에서 그렇게들 말했지요. '자리에 앉으십쇼'……" 그러고는 2등 대위는 빠른 몸짓으로 빈 의자(나무로만 되고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투박한 농가 의자)를 붙잡아 거의 방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같은 의자를 하나 더 붙잡아 자기 몫으로 놓고는 알료샤 맞은편에, 아까처럼 그에게 바짝 붙어서 두 사람의 무릎이 거의 닿을 만큼 앉았다.

"니콜라이 일리치 스네기료프입지요. 러시아 보병대의 전 2등 대위입지요. 제 악덕으로 망신을 당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2등 대위입지요. 스네기료프가 아니라 '습지요프' 2등 대위라고 해야 옳겠습지요. 인생의 후반부터야 비로소 말끝마다 '습지요'를 붙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습지요'는 굴욕 속에서 얻어지는 겁지요."

"정말 그렇겠네요." 알료샤가 피식 웃었다. "그런데 그건 저도 모르게 얻어지나요, 아니면 일부러 얻나요?"

"하느님이 보고 계십지요, 저도 모르게 얻어집지요. 평생 안 썼습지요, 평생 '습지요'를 안 붙이고 말했는데, 갑자기 넘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습지요'를 붙이고 있더란 말씀입지요. 이건 더 높은 힘이 하는 일입지요. 보아하니 현대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수도 없는 형편에서 사는 제가 어떻게 그토록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요."

"저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왔어요……"

"바로 그 일이라니요?" 2등 대위가 조바심을 내며 말을 끊었다.

"제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와 만나셨던 그 일 때문에요." 알료샤가 어색하게 잘라 말했다.

"그 만남이라니 무슨 만남 말씀입지요? 설마 바로 그 만남 말씀입지요? 그러니까 수세미 일로, 목욕탕 수세미 일로요?" 그가 갑자기 바짝 다가붙는 바람에 이번에는 무릎이 알료샤에게 영락없이 부딪쳤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유난히 실처럼 가늘게 꽉 다물렸다.

"수세미라니요?" 알료샤가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아빠한테 나를 이르러 온 거야!" 구석의 커튼 뒤에서 알료샤에게 벌써 낯익은, 아까 그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소리쳤다. "아까 내가 이 사람 손가락을 물었거든!"

커튼이 걷히자 알료샤는 아까의 그 적을 보았다. 아이는 구석, 성상들 아래, 걸상과 의자에 맞춰 놓은 작은 잠자리에 있었다. 아이는 작은 외투와 낡은 솜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몸이 아픈 게 분명했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보아 열에 들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아까와 달리 겁 없이 알료샤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는 집이니까 이제는 나를 어쩌지 못할걸" 하는 듯했다.

"무슨 손가락을 물었다는 거냐?" 2등 대위가 의자에서 반쯤 튀어 올랐다. "그 녀석이 당신 손가락을 물었습지요?"

"네, 저를요. 아까 거리에서 아이들하고 돌을 던지며 싸우고 있었어요. 저쪽은 여섯이서 던지고 이 아이는 혼자였어요. 제가 다가갔더니 저한테도 돌을 던지고, 그다음엔 또 하나를 제 머리에 던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제 손가락을 아프게 물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장 매질하겠습지요! 이 자리에서 매질하겠습지요." 2등 대위가 이제는 아예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니, 저는 이르러 온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저는 아드님이 매를 맞기를 전혀 바라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아픈 것 같은데요……"

"제가 매질할 줄 아셨습지요? 제가 일류셰치카를 붙잡아 당장 당신 앞에서 매질해서 당신을 흡족하게 해 드릴 줄 아셨습지요? 그게 그렇게 빨리 필요하십니까요?" 2등 대위는 갑자기 알료샤에게 덤벼들기라도 할 듯한 몸짓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나리, 손가락이 안됐습니다만, 일류셰치카를 매질하기 전에 당신이 마땅히 흡족하시도록 제 손가락 넷을 지금 당장 당신 눈앞에서 바로 이 칼로 잘라 버리면 어떻겠습지요? 손가락 넷이면 복수하고 싶은 목마름을 채우시기에 충분하겠지요, 다섯째까지는 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는 갑자기 멈추더니 숨이 막힌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하나의 선이 모두 움직이고 실룩거렸고, 그는 몹시 도발하듯 쳐다보았다. 그는 미친 듯이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알료샤가 그대로 앉은 채 조용하고 슬프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아드님은 착한 아이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저를 아버님을 모욕한 사람의 동생으로 보고 덤벼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는 생각에 잠겨 되풀이했다. "하지만 제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자기가 한 짓을 뉘우치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형이 이 댁에 올 수만 있다면, 아니 무엇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형은 모든 사람 앞에서 용서를 빌 거예요…… 원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수염을 쥐어뜯어 놓고 사과를 하겠다…… 그걸로 다 마무리 짓고 흡족하게 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지요?"

"오, 아니에요. 오히려 형은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나리께 바로 그 선술집에서, '수도'라는 이름의 선술집입지요, 아니면 광장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어 달라고 하면 꿇으실 거란 말씀입지요?"

"네, 무릎이라도 꿇을 거예요."

"찌르셨습지요. 저를 울리시고 찌르셨습지요. 제가 너무 느끼기를 잘해서요. 그럼 저를 제대로 소개해 드리지요. 이게 제 가족입지요, 제 두 딸과 제 아들, 제 새끼들입지요. 제가 죽으면 누가 이것들을 사랑해 줄까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안에는 이것들 말고 누가 이 못난 저를 사랑해 줄까요? 주님은 저 같은 부류의 사람 하나하나에게 이런 큰일을 마련해 주셨습지요. 저 같은 부류의 사람도 누군가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 정말 그 말씀이 옳아요!" 알료샤가 외쳤다.

"제발 이제 그만 어릿광대짓 좀 해요. 어떤 바보가 오기만 하면 망신을 시키시네!" 창가의 아가씨가 꺼림칙하고 경멸하는 얼굴로 아버지에게 몸을 돌리며 뜻밖에 소리쳤다.

"좀 기다리세요, 바르바라 니콜라브나, 이야기의 방향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십쇼." 아버지는 명령하는 투로 그 아가씨에게 소리쳤지만, 몹시 흐뭇한 눈으로 딸을 쳐다보았다. "우리 집은 다 이런 성격입지요." 그는 다시 알료샤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온 자연 가운데 무엇 하나
축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 쪽으로 바꿔 말해야겠습지요. 그 여자는 축복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도 소개해 드리지요, 여기 아리나 페트로브나입지요, 다리 없는 부인인데, 마흔셋쯤 되었고, 다리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조금밖에 못 움직입지요. 서민 출신입지요. 아리나

페트로브나, 얼굴 좀 펴 보세요. 이분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요. 일어나십쇼,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는 알료샤의 손을 붙잡더니 그에게서 기대할 수도 없었던 힘으로 갑자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부인께 인사를 드리시는 거니까 일어나셔야 합지요. 여보, 그…… 흠, 기타 등등의 그 카라마조프가 아니라 겸손한 덕으로 빛나는 그 동생이오. 실례하오, 아리나 페트로브나, 실례하오, 여보, 먼저 당신 손에 입을 맞추게 해 주오."

그러고는 그는 공손하게, 다정하게까지 아내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창가의 아가씨는 분개하여 이 장면에 등을 돌렸고, 거만하게 묻는 듯하던 아내의 얼굴에는 갑자기 남다른 상냥함이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체르노마조프 씨[1]." 부인이 말했다.

"카라마조프요, 여보, 카라마조프(우리는 서민 출신입지요)." 그가 다시 속삭여 일러 주었다.

"아이, 카라마조프든 뭐든, 나한테는 언제나 체르노마조프예요…… 앉으세요, 그런데 저이는 왜 당신을 일으켜 세웠을까요? 다리 없는 부인이라고 하지만 다리는 있어요. 다만 양동이처럼 부어올랐고, 몸은 바짝 말라 버렸지요. 전에는 내가 얼마나 뚱뚱했는데, 이제는 바늘이라도 삼킨 것 같아요……"

"우리는 서민 출신입지요, 서민 출신입지요." 대위가 한 번 더 귀띔했다.

"아빠, 아, 아빠!" 지금까지 자기 의자에 말없이 앉아 있던 곱사등이 아가씨가 갑자기 말하더니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어릿광대!" 창가의 아가씨가 툭 내뱉었다.

"보세요, 우리 집에는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딸들을 가리키며 두 팔을 벌렸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우리 음악이 시작돼요. 전에 우리가 군인이었을 때는 이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지요. 나리, 나는 이걸 일에 견주려는 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지요. 그때 보제 부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는 더없이 훌륭한 영혼을 가진 분인데, 나스타시야 페트로브나는 지옥에서 나온 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요. '그야 누가 누구를 떠받드느냐에 달린 거지. 너는 쬐끄만 게 냄새는 고약하구나.' 그랬더니 보제 부인이 '당신 같은 사람은 고분고분하게 붙들어 두어야 해요' 하길래, 내가 '아이고, 이 시커먼 칼 같은 것아, 누구를 가르치러 왔어?' 했지요. 그러니까 보제 부인이 '나는 깨끗한 공기를 들여보내는데, 당신은 더러운 공기를 들여보내요'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요. '장교 나리들한테 다 물어봐라, 내 안에 든 공기가 더러운지 아니면 무슨 다른 공기인지.' 그 뒤로 그게 이렇게 내 가슴에 얹혀 있어서, 지난번에 지금처럼 여기 앉아 있는데 부활절 주간에 여기 왔던 바로 그 장군이 들어오는 게 보이길래 내가 말했지요. '각하, 귀족 부인이 자유로운 공기를 들여보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 집은 공기가 신선하지 않으니 환기창이나 문을 열어야겠소' 하고 대답하더군요. 아무튼 다들 그래요! 내 공기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상관이래요? 죽은 사람한테서는 그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나는 당신네 공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신발이나 맞춰 신고 떠날 거예요.' 여보세요들, 착한 양반들, 친어미를 나무라지 말아요! 니콜라이 일리치, 여보, 내가 당신 마음에 안 들었나요,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일류셰치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뿐인데. 어제는 사과를 가져왔어요. 용서해 줘요, 여보세요들, 용서해 줘요, 착한 양반들, 친어미를 용서해 줘요, 아주 외톨이인 나를 용서해 줘요. 그런데 내 공기가 왜 그렇게 당신들한테 역겨워졌어요!"

그러고는 가엾은 부인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눈물이 줄줄 쏟아졌다. 2등 대위가 쏜살같이 부인에게 달려갔다.

"여보, 여보, 착하지, 그만, 그만해! 당신은 외톨이가 아니야. 다들 당신을 사랑하고, 다들 떠받들어!" 그러고는 그는 다시 아내의 두 손에 입을 맞추고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을 다정하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러다 냅킨을 붙잡더니 갑자기 아내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기 시작했다. 알료샤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번득이는 것 같았다. "자, 보셨습지요? 들으셨습지요?" 그는 갑자기 무언가 사납게 알료샤에게 돌아서며 가엾은 정신 나간 여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보고, 듣고 있어요." 알료샤가 중얼거렸다.

"아빠, 아빠! 설마 아빠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내버려 둬, 아빠!" 아이가 작은 잠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이글거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소리쳤다.

"제발 이제 그만 어릿광대짓 좀 해요. 아무 데도 쓸모없는 그 어리석은 재주 좀 그만 부려요!"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가 여전히 그 구석에서 이제는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치며 발까지 굴렀다.

"이번에는 화를 내시는 게 아주 옳습지요, 바르바라 니콜라브나. 당장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지요. 모자를 쓰십쇼,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도 모자를 쓸 테니 가십시다요. 진지하게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이 담 밖에서만 드릴 수 있습지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아가씨는 제 딸입지요, 니나 니콜라예브나입지요. 소개해 드리는 걸 잊었습지요. 살아 있는 하느님의 천사입지요…… 사람들에게 날아 내려온…… 그걸 알아들으실 수만 있다면……"

"온몸을 저렇게 떨잖아요, 경련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가 분개하여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발을 구르고 아까 저를 어릿광대라고 꾸짖은 이 아이도 살아 있는 하느님의 천사입지요. 저를 그렇게 부른 것도 옳습지요. 가십시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끝을 내야 합지요……"

그러고는 그는 알료샤의 손을 붙잡고 방에서 곧장 거리로 데리고 나갔다.

---

1. 체르노마조프는 '얼굴이 거무튀튀한'이라는 뜻의 러시아어(черномазый)에서 나온 말이다. 카라마조프의 '카라'도 튀르크어로 '검다'는 뜻이라 부인은 소리와 뜻을 함께 비틀어 부른 셈이다.

제7장 그리고 맑은 공기 속에서

"공기가 맑습지요. 그런데 제 대궐 안은 정말로 신선하지 못합지요, 온갖 뜻에서 말입지요. 나리, 천천히 걸어가십시다요. 당신이 꼭 흥미를 가지셨으면 합니다요."

"저도 대위님께 아주 중요한 볼일이 하나 있어요……" 알료샤가 말했다. "다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볼일이 있으시다는 걸 어찌 모르겠습지요? 볼일이 없으셨다면 저한테 들르실 리가 없지요.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를 이르러만 오셨습지요?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입지요. 그런데 그 아이 말이 나온 김에, 저기서는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장면을 그려 보여 드리지요. 보십쇼, 수세미가 바로 한 주 전만 해도 더 숱이 많았습지요. 제 턱수염 말씀인데, 제 턱수염을 수세미라고 부르게 된 겁지요, 무엇보다 학생 녀석들이요. 자, 그런데 말씀입지요, 그때 당신 형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제 턱수염을 잡아끌고 선술집에서 광장으로 끌어냈는데, 마침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일류샤도 있었습지요. 그 애가 그런 꼴을 한 저를 보더니 '아빠, 아빠!' 하고 소리치며 저한테 달려왔습지요. 저를 붙잡고, 껴안고, 저를 빼내려고 하면서 저를 모욕한 사람한테 소리쳤습지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습지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그 작은 손으로 그분까지 붙잡고,

그분 손을, 바로 그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습지요…… 그 순간 그 애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합지요, 잊지 않았고 잊지 않을 겁지요!……"

"맹세해요." 알료샤가 외쳤다. "형은 대위님께 더없이 진심으로, 더없이 온전히 뉘우치는 마음을 보일 거예요. 바로 그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요…… 제가 형한테 그렇게 시키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형은 제 형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아직 계획에 지나지 않는군요. 그분한테서 곧바로 나온 게 아니라 당신의 뜨거운 마음의 고결함에서만 나온 겁지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닙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때 드러내신 당신 형님의 더없이 높은 기사다운, 장교다운 고결함에 대해서도 마저 말씀드리게 해 주십쇼. 그분은 저를 수세미째 끌고 다니기를 마치고 저를 놓아주시더니 이러셨습지요. '너는 장교고 나도 장교다. 점잖은 사람을 입회인으로 찾을 수 있으면 보내라. 결투로 명예를 갚아 주마. 네가 비열한 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습지요. 참으로 기사의 정신입지요! 그때 우리는 일류샤와 함께 물러났는데, 그 가문의 족보 그림이 일류샤의 영혼 속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습지요. 아닙지요,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귀족으로 남아 있겠습지요. 그리고 직접 판단해 보십쇼, 방금 제 대궐에 몸소 와 보셨는데 무얼 보셨습지요? 부인 셋이 앉아 있습지요. 하나는 다리를 못 쓰는 정신 나간 여자고, 하나는 다리를 못 쓰는 곱사등이고, 셋째는 다리는 멀쩡한데 너무 똑똑한 여자 강습생으로,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네바강 기슭에서 러시아 여자의 권리를 찾겠다고 안달입지요. 일류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지요, 고작 아홉 살에 손가락처럼 외톨이인데, 제가 죽으면 이 모든 구렁이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것 하나만 여쭙겠습지요. 그렇다면 제가 그분에게 결투를 청했다가 그분이 저를 곧바로 죽여 버리면 그땐 어떻게 됩니까? 그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저를 죽이지

않고 불구로 만들기만 한다면 그건 더 나쁩지요, 일은 할 수 없는데 입은 그래도 남아 있으니, 그땐 누가 그 입을, 제 입을 먹여 주고, 그땐 누가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주겠습지요? 아니면 일류샤를 학교 대신 날마다 동냥하러 내보낼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에게 결투를 청한다는 건 그런 뜻이고, 그건 어리석은 말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지요."

"형은 대위님께 용서를 빌 거예요. 광장 한가운데서 대위님 발밑에 엎드려 절할 거예요." 알료샤가 눈을 반짝이며 다시 외쳤다.

"그분을 법정에 고소하려고 했습지요." 2등 대위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우리 법전을 펼쳐 보십쇼, 제가 당한 개인적인 모욕에 대해 모욕한 사람한테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지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저를 불러서 소리치는 겁지요. '생각도 하지 마! 그 사람을 고소하면 그 사람이 너를 때린 건 네 사기 때문이라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꾸며 줄 테다. 그러면 너야말로 재판에 넘겨질 거다.' 그런데 그 사기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제가 누구의 명령으로 하찮은 졸개로서 움직였는지는 주님 한 분만 아십지요. 바로 그 여자 자신과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지시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그 여자가 덧붙이는 겁지요, '너를 영원히 쫓아낼 테니 앞으로 나한테서는 한 푼도 벌지 못할 거다. 내 상인한테도 말할 테니(그 여자는 그 노인을 그렇게 부릅지요. 내 상인이라고요) 그분도 너를 쫓아낼 거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그 상인까지 저를 쫓아내면 그땐 어떻게 하나, 누구한테서 벌어먹나? 당신 아버님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무슨 다른 까닭으로 저를 믿지 않게 되셨을 뿐 아니라 제 차용증을 손에 쥐고 저를 직접 법정에 끌고 가시려고까지 하니, 저한테 남은 건 그 두 사람뿐이거든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저는 잠자코 있게 되었고, 그 구렁은 보셨습지요. 그런데 이제 여쭈어보겠는데, 아까 그 녀석이, 일류샤가

손가락을 아프게 물었습지요? 대궐 안에서는 그 애 앞이라 이 자세한 이야기를 감히 꺼내지 못했습지요."

"네, 아주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몹시 성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카라마조프 사람이라고 해서 대위님 대신 저한테 복수한 거예요, 이제 저한테는 그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학교 친구들하고 돌을 던지며 싸우는 걸 보셨다면요? 그건 아주 위험해요. 그 애들이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라 어리석어서 돌이 날아가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벌써 맞았습지요. 머리는 아니지만 가슴을, 심장 바로 위를요. 오늘 돌에 맞아 멍이 들었습지요. 와서 울고 끙끙대더니 저렇게 앓아누웠습지요."

"그리고 아세요, 거기서는 그 아이가 먼저 모두에게 덤벼들어요. 대위님 일로 독이 오른 거예요. 아이들 말로는 아까 크라솟킨이라는 아이의 옆구리를 주머니칼로 찔렀대요……"

"그 이야기도 들었습지요. 위험합지요. 크라솟킨은 이곳 관리 집안이라 어쩌면 또 성가신 일이 생길지도 모릅지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알료샤가 열을 띠며 말을 이었다. "한동안은 그 아이를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라앉을 때까지요…… 그리고 그 아이 속의 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요……"

"분노입지요!" 2등 대위가 말을 받았다. "바로 분노입지요. 작은 몸에 큰 분노입지요. 당신은 이 모든 걸 모르십지요. 이 이야기를 특별히 풀어 드리게 해 주십쇼. 실은 그 일이 있은 뒤로 학교의 학생 녀석들이 모두 그 애를 수세미라고 놀리기 시작했습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란 무자비한 족속이라,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천사인데 모이면, 특히 학교에서는 아주 자주 무자비하지요. 그놈들이 그 애를 놀리기 시작하자 일류샤 속에서 고결한 정신이 일어났습지요. 평범한 아이, 약한

아들이라면 굴복해서 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 애는 혼자서 모두에게 맞서 아버지를 위해 일어섰습지요. 아버지를 위해,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서요. 그 애가 당신 형님의 손에 입을 맞추며 '우리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소리칠 때 무엇을 견뎠는지는 하느님 한 분과 저만 압지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당신네 아이들 말고 우리 아이들, 멸시받지만 고결한 거지들의 아이들은 아홉 살에 벌써 이 땅의 진실을 알게 됩지요. 부자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그런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 일류시카는 광장에서 바로 그 순간, 그분 손에 입을 맞추던 바로 그 순간에 진리를 다 통째로 겪어 냈습지요. 그 진리가 그 애 안에 들어가 그 애를 영원히 짓눌러 버렸습지요." 2등 대위는 뜨겁게, 다시 미친 듯이 흥분하여 말하며, "진리"가 자기 일류샤를 어떻게 짓눌렀는지 눈앞에 보여 주려는 듯 오른 주먹으로 왼 손바닥을 쳤다. "바로 그날 그 애는 열이 났습지요, 밤새 헛소리를 했습지요. 그날 하루 내내 저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다만 제가 눈여겨보니 구석에서 저를 보고 또 보다가, 자꾸만 창가에 붙어서 숙제를 하는 척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숙제는 머릿속에 없었습지요. 이튿날 저는 술을 마셔서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합지요, 죄 많은 인간이라 슬퍼서 그랬습지요. 아내도 그때 울기 시작했지요, 저는 아내를 무척 사랑합지요, 그래서 슬퍼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한잔 걸쳤습지요. 나리, 저를 경멸하지 마십쇼. 러시아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가장 착합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들이 가장 술에 취해 있지요. 그렇게 누워 있었으니 그날 일류샤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바로 그날 아침부터 학교에서 녀석들이 그 애를 비웃으며 '수세미야, 네 아버지가 수세미째 선술집에서 끌려 나왔는데, 너는 곁에서 뛰어다니며 용서를 빌었지' 하고 소리쳤습지요. 사흘째 되는 날 그 애가 다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고 창백했습지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지요. 대궐 안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지요, 그러면 금세 아내와 딸들이 끼어들 테니까요. 게다가 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지요, 첫날부터요. 바르바라 니콜라브나는 벌써 투덜대기 시작했지요. '어릿광대들, 광대들, 당신들한테 무슨 분별 있는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바로 그렇습지요, 바르바라 니콜라브나, 우리한테 무슨 분별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걸로 넘어갔습지요. 그래서 저녁 무렵 그 애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지요. 그런데 알아 두셔야 할 게, 저는 그 애하고 그 전에도 저녁마다, 지금 당신과 함께 가는 바로 이 길로, 우리 쪽문에서 저기 길가에 바자울 곁에 고아처럼 외따로 놓여 있는, 읍의 목초지가 시작되는 저 커다란 바위까지 산책을 나갔습지요. 호젓하고 아름다운 곳입지요. 일류샤와 저는 늘 그렇듯 그 애 손을 제 손에 쥐고 걸었는데, 그 애 손은 쪼그맣고 손가락은 가늘고 차갑습지요, 그 애는 가슴이 약하거든요. '아빠' 하고 그 애가 말했습지요, '아빠!' '왜?' 하고 물으며 보니 그 애 작은 눈이 번득이고 있었습지요. '아빠, 그 사람이 그때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 '어쩌겠니, 일류샤' 하고 말했지요.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마, 아빠, 화해하지 마. 애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빠한테 그 대가로 10루블을 줬대.' '아니다, 일류샤' 하고 말했지요, '이제 그 사람한테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자 그 애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제 손을 제 두 손으로 붙잡고 또 입을 맞추었습지요. '아빠' 하고 말했지요, '아빠, 그 사람한테 결투를 청해. 학교에서 애들이 아빠는 겁쟁이라서 결투도 못 청하고 그 사람한테서 10루블을 받을 거라고 놀려.' '일류샤, 나는 그 사람한테 결투를 청할 수가 없단다' 하고 대답하고, 이 일에 대해 방금 당신께 말씀드린 걸 다 간추려서 일러 주었습지요. 그 애는 끝까지 들었습지요. '아빠' 하고 말했지요, '아빠,

그래도 화해하지 마. 내가 커서 그 사람한테 결투를 청해서 죽여 버릴 거야!' 작은 눈이 번득이며 이글거렸습지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아버지니 그 애한테 진실의 말을 해 줘야 했습지요. '죽이는 건 죄란다' 하고 말했지요, '결투에서라도.' '아빠' 하고 말했지요, '아빠, 내가 크면 그 사람을 쓰러뜨릴 거야. 내 칼로 그 사람 칼을 쳐서 떨어뜨리고,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 쓰러뜨리고, 그 사람한테 칼을 쳐들고 이렇게 말할 거야.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용서해 주마, 자, 어때!' 보십쇼, 보십쇼, 나리, 이 이틀 동안 그 애 작은 머릿속에서 무슨 작은 과정이 벌어졌는지요, 그 애는 밤낮으로 바로 이 칼로 하는 복수를 생각했고, 밤에는 아마 그걸로 헛소리를 했겠지요. 다만 그 애가 학교에서 몹시 얻어맞고 오기 시작했는데, 그저께 그걸 다 알았는데, 당신 말씀이 옳습지요, 이제 그 학교에는 더 보내지 않을 겁지요. 그 애가 혼자서 반 전체에 맞서고 제 쪽에서 모두에게 싸움을 건다는 걸, 독이 오르고 가슴에 불이 붙었다는 걸 알고 나니 그때 그 애 때문에 겁이 났습지요. 우리는 또 산책을 나갔습지요. '아빠' 하고 묻더군요, '아빠, 세상에서는 부자가 누구보다 세지?' '그래, 일류샤' 하고 말했지요, '세상에 부자보다 센 사람은 없단다.' '아빠' 하고 말했지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장교가 되어서 모두를 쳐부술 거야. 황제가 나한테 상을 주실 거고, 나는 돌아올 거야. 그러면 아무도 감히……' 그러더니 잠자코 있다가, 작은 입술이 여전히 바르르 떨리는 채로 말하더군요. '아빠, 우리 읍은 참 나쁜 읍이야, 아빠!' '그래, 일류셰치카' 하고 말했지요, '우리 읍은 그리 좋은 읍이 아니지.' '아빠, 다른 읍으로 이사 가자, 좋은 읍으로,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읍으로.' '이사 가자, 이사 가자, 일류샤' 하고 말했지요, '돈만 좀 모으면 말이다.' 그 애를 어두운 생각에서 떼어 놓을 기회가 생겨서 저는 기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읍으로 이사 가서 우리 말과 짐마차를 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지요. 엄마와 누나들을 태우고 덮개를 씌워 주고,

우리는 곁에서 걸어가자, 가끔은 너를 태워 주고 나는 곁에서 걸어가마, 우리 말을 아껴야 하니까 모두 다 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떠나자고요. 그 애는 그 생각에, 무엇보다 자기 말이 생기고 자기가 그 말을 몰고 간다는 데에 넋을 빼앗겼습지요. 러시아 사내아이는 말과 함께 태어난다는 건 다들 아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오래 재잘거렸고, 하느님 고맙습니다, 그 애 마음을 딴 데로 돌리고 위로해 주었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게 그저께 저녁이었는데, 어제저녁에는 벌써 다른 일이 드러났습지요. 그 애는 아침에 또 그 학교에 갔다가 음울해져서 돌아왔는데, 정말 몹시 음울했습지요. 저녁에 그 애 손을 잡고 산책을 데리고 나갔는데, 말이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지요.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해가 가려졌고, 가을 기운이 돌았고, 날도 벌써 어둑해졌는데, 우리는 둘 다 서글퍼하며 걸었습지요. '자, 얘야, 우리 둘이 어떻게 길 떠날 채비를 할까?' 하고 어제 나눈 이야기로 이끌어 가 보려고 말했지요. 대답이 없었습지요. 다만 제 손 안에서 그 애 손가락이 바르르 떠는 게 느껴졌습지요. '에, 나쁘구나, 무슨 새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우리는 지금처럼 바로 이 바위까지 왔고, 저는 이 바위에 앉았는데, 하늘에는 연들이 잔뜩 떠서 윙윙거리고 펄럭이고 있었습지요. 연이 서른 개쯤 보였는데, 지금이 연 날리는 철이거든요. '자, 일류샤' 하고 말했지요, '우리도 작년 연을 날릴 때가 됐구나. 내가 고쳐 주마, 너 그거 어디다 숨겨 두었니?' 우리 아이는 대답이 없고, 옆을 보며 저한테 몸을 비스듬히 하고 서 있었습지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바람이 윙 하고 불더니 모래가 날렸습지요…… 그 애가 갑자기 온몸으로 저한테 달려들어 두 작은 손으로 제 목을 끌어안고 꽉 껴안았습지요. 아시겠지만 말없고 자존심 센 아이들이 오랫동안 속으로 눈물을 참다가, 큰 슬픔이 닥쳐 갑자기 터져 버리면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냇물처럼 쏟아집지요. 그 따뜻한 눈물로 그 애가 갑자기 제 얼굴을 온통 적셔

버렸습지요. 그 애는 경련이라도 일으킨 듯 흐느끼고, 몸을 떨면서 저를 꼭 끌어안았고, 저는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 하고 그 애가 소리쳤습지요, '아빠, 사랑하는 아빠, 그 사람이 아빠를 얼마나 욕보였는데!' 그때 저도 흐느껴 울었고, 우리는 앉아서 서로 끌어안고 몸을 떨었습지요. '아빠' 하고 그 애가 말했지요, '아빠!' '일류샤' 하고 제가 말했지요, '일류셰치카!' 그때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고 하느님 한 분만 보셨으니, 어쩌면 제 근무 기록부에 적어 주시겠지요. 당신 형님께 고맙다고 전해 주십쇼,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아닙지요, 저는 당신을 흡족하게 해 드리려고 제 아이를 매질하지는 않을 겁지요!"

그는 다시 아까의 그 독살스럽고 성 바보 같은 비꼼으로 말을 맺었다. 그러나 알료샤는 그가 이제 자기를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과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방금 자기에게 털어놓은 것을 털어놓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눈물로 영혼이 떨리던 알료샤에게 힘을 주었다.

"아, 아드님과 화해하고 싶어요!" 그가 외쳤다. "대위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요."

"그렇습지요." 2등 대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어 보세요." 알료샤가 계속 외쳤다. "들어 보세요. 저는 대위님께 전할 심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제 그 형, 그 드미트리가 자기 약혼녀도, 아마 이야기는 들으셨을 더없이 고결한 아가씨도 모욕했어요. 저는 그분이 당한 모욕을 대위님께 털어놓을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기까지 해요. 그분은 대위님이 당한 모욕을 알고, 대위님의 불행한 처지를 다 알고 나서, 방금…… 아까…… 그분이 드리는 이 도움을 대위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저에게 맡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분 한 사람에게서만이에요. 그분까지 버린 드미트리에게서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생인 저에게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서도 아니고, 그분에게서, 오직 그분 한 사람에게서요! 그분은 대위님이 자기 도움을 받아 주시기를 간청해요…… 두 분은 똑같은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분은 대위님이 그 사람에게 당한 것과 똑같은 모욕을 (모욕의 크기로 보아서요) 그 사람에게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위님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오빠에게 도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이 200루블을 누이에게서 받듯이 받아 주시도록 대위님을 설득하라고 저에게 맡겼어요.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거고, 부당한 뒷말은 하나도 생길 수 없어요. 여기 이 200루블이에요, 맹세하는데 대위님은 이걸 받으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대위님은 고결한 영혼을 지니셨으니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이해하셔야 해요!"

그러고는 알료샤는 그에게 빳빳한 무지갯빛 100루블짜리 새 지폐 두 장을 내밀었다. 그때 두 사람은 바로 그 커다란 바위 곁, 울타리 곁에 서 있었고, 둘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폐는 2등 대위에게 무서운 인상을 준 것 같았다. 그는 몸을 떨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놀라서 그런 것 같았다. 그는 그런 일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그런 결말은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그것도 이렇게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는 꿈속에서조차 바라지 않았다. 그는 지폐를 받아 들고 거의 1분 동안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이게 저한테, 저한테 주시는 겁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200루블을! 세상에! 저는 벌써 네 해 동안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습지요, 주여! 그리고 누이라고 하셨지요…… 정말입지요, 정말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사실이라고 맹세해요!" 알료샤가 외쳤다. 2등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들어 보십쇼, 착한 분, 들어 보십쇼. 제가 이걸 받는다고 해서 제가 비열한 놈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당신 눈에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비열한 놈이 되지는 않겠지요, 않겠지요? 아닙지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들어 보십쇼, 끝까지 들어 보십쇼." 그는 쉴 새 없이 두 손으로 알료샤를 만지며 서둘렀다. "당신은 '누이'가 보내는 거라면서 받으라고 저를 설득하시는데, 속으로는, 혼자서는, 제가 이걸 받으면 저를 경멸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지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구원을 걸고 맹세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리만, 저와 대위님과 그분과, 그리고 그분과 아주 친한 부인 한 분만 알 거예요……"

"부인이 무슨 상관입지요! 들어 보십쇼,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끝까지 들어 보십쇼.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할 순간이 왔습지요. 당신은 지금 이 200루블이 저한테 무슨 뜻이 될 수 있는지 짐작조차 못 하실 테니까요." 가엾은 사람은 차츰 무언가 무질서하고 거의 사나운 환희에 빠져들며 말을 이었다. 그는 갈피를 잃은 것 같았고, 다 말하지 못하게 할까 봐 두려운 듯 몹시 서둘러 다급하게 말했다. "이게 그토록 존경스럽고 거룩한 '누이'께서 주신, 떳떳하게 얻은 돈이라는 것 말고도, 아시겠습지요, 이제 제가 아내와 니노치카를, 제 곱사등이 천사를, 제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걸요? 게르첸시투베 의사가 착한 마음에서 저한테 와서 꼬박 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을 진찰하고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그래도 이곳 약국에 있는 광천수가(그걸 처방해 주었습지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약을 탄 발 목욕도 처방해 주었습지요. 광천수는 30코페이카인데, 어쩌면 마흔 병은 마셔야 할 겁지요. 그래서 저는 처방전을 받아서 성상 아래 선반에 올려놓았고,

지금도 거기 놓여 있습지요. 그리고 니노치카는 무슨 용액에, 그런 뜨거운 목욕물에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씻기라고 처방했는데, 우리가, 우리 대궐에서, 하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릇도 물도 없이 어떻게 그런 치료를 꾸며 낼 수 있었겠습지요? 그런데 니노치카는 온몸이 류머티즘입지요, 이건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밤마다 오른쪽 반신이 다 쑤셔서 괴로워하면서도, 믿으시겠습지요, 하느님의 천사라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참고, 우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신음도 하지 않습지요. 우리는 손에 들어오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데, 그 애는 개한테나 던져 줄 맨 마지막 조각을 집습지요. '나는 이 조각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식구들 것을 빼앗고 있어요, 짐이 되어 앉아 있어요' 하는 거지요. 그 애의 천사 같은 눈길은 그걸 말하려 합지요. 우리가 그 애 시중을 드는데 그 애는 그게 괴로워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쓸모없는 못난 불구예요' 하는데, 그 애가 자격이 없다니요, 그 애는 천사 같은 온순함으로 하느님께 우리 모두를 빌어 얻어 냈고, 그 애가 없었다면, 그 애의 조용한 말이 없었다면 우리 집은 지옥이었을 겁지요, 바랴까지도 누그러뜨렸습지요. 그리고 바르바라 니콜라브나도 탓하지 마십쇼, 그 애도 천사고 그 애도 상처받은 아이입지요. 그 애는 여름에 우리한테 왔는데, 그때 가정교사 일로 벌어서 9월에, 그러니까 지금 그 돈으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려고 모아 둔 16루블을 가지고 있었습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애 돈을 가져다 다 써 버려서 이제 그 애는 돌아갈 돈이 없습지요, 그렇게 됐습지요. 게다가 돌아갈 수도 없습지요, 우리를 위해 죄수처럼 일하니까요. 우리가 그 애를 늙은 말처럼 마구를 채우고 안장을 얹어 놓아서 모두의 시중을 들고, 옷을 깁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쓸고, 아내를 침대에 눕히는데, 아내는 변덕스럽습지요, 아내는 눈물이 많습지요, 아내는 정신이 나갔습지요!…… 그런데 이제 이 200루블로 하녀를 둘 수 있고,

아시겠습지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사랑스러운 사람들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여자 강습생을 페테르부르크로 보낼 수 있고, 쇠고기를 살 수 있고, 새 식단을 차릴 수 있습지요. 주여, 이건 정말 꿈입니다요!"

알료샤는 자기가 그토록 큰 행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 그리고 가엾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끔찍이 기뻤다.

"잠깐만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잠깐만요." 2등 대위는 갑자기 떠오른 새 꿈을 다시 붙잡고는 또 미친 듯이 빠르게 재잘거렸다. "아시겠습지요, 일류시카와 저는 어쩌면 이제 정말로 꿈을 이룰지도 모릅니다요. 말과 포장마차를 사서, 말은 꼭 검정말이어야 한다고 그 애가 그랬으니 검정말로 사서, 그저께 그려 본 대로 떠나는 겁지요. K현에 어릴 때부터 친구인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전해 온 말로는, 제가 오면 자기 사무실에 서기 자리를 줄 것 같다고 합지요. 그러니 누가 압니까, 어쩌면 줄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아내를 태우고, 니노치카를 태우고, 일류셰치카에게는 고삐를 쥐여 주고, 저는 걸어서, 걸어서 모두를 데려가는 겁지요. 주여, 여기서 떼인 빚 하나만 받아 낼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까지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요!"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알료샤가 외쳤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얼마든지 더 보내 줄 거예요. 그리고 아세요, 저한테도 돈이 있으니 형에게서, 친구에게서 받듯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부자가 되실 거예요, 부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세요, 다른 현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은 결코 해내지 못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위님의 구원이 있어요. 무엇보다 아드님에게요. 그리고 아세요, 되도록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추위가 오기 전에 떠나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주시면, 우리는 형제로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알료샤는 그를 껴안으려 했다. 그만큼 기뻤던 것이다. 그러나 그를 쳐다보다가 알료샤는 갑자기 멈춰 섰다. 2등 대위는 목을 길게 빼고 입술을 쭉 내민 채 미친 듯하고 창백해진 얼굴로 서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는데도 그는 줄곧 입술로 속삭이고 있었고, 어쩐지 이상했다.

"왜 그러세요!" 알료샤가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몸을 떨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는…… 당신은……" 2등 대위는 비탈에서 몸을 던지기로 결심한 사람 같은 얼굴로 그를 바짝 이상하고 사납게 쳐다보며, 동시에 입술로는 미소를 짓는 듯하면서 중얼거리다가 말이 끊어졌다. "저는…… 당신은…… 그런데 제가 지금 작은 재주 하나를 보여 드리면 어떻겠습지요!" 그가 갑자기 빠르고 단단하게 속삭였다. 이제는 말이 더 끊어지지 않았다.

"무슨 재주요?"

"작은 재주, 그런 요술이요." 2등 대위는 줄곧 속삭였다. 그의 입이 왼쪽으로 일그러졌고, 왼쪽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알료샤에게 붙박이기라도 한 듯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재주요?" 알료샤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런 재주입지요, 보십쇼!" 2등 대위가 갑자기 꽥 소리쳤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두 장을 함께 귀퉁이를 쥐고 있던 무지갯빛 지폐 두 장을 알료샤에게 보여 주더니, 그는 갑자기 무언가 미친 듯이 그것을 움켜쥐고 구겨서 오른손 주먹 안에 꽉 쥐었다.

"보셨습지요, 보셨습지요!" 그는 창백하고 미친 듯한 얼굴로 알료샤에게 꽥 소리치더니, 갑자기 주먹을 쳐들고 힘껏 구겨진 지폐 두

장을 모래 위에 내던졌다. "보셨습지요?" 그는 손가락으로 지폐를 가리키며 다시 꽥 소리쳤다. "자, 이렇게입지요!……"

그러고는 갑자기 오른발을 들더니 사나운 독기를 품고 발뒤꿈치로 지폐를 짓밟기 시작했다. 발을 내리칠 때마다 그는 외치며 숨을 헐떡였다.

"이게 당신네 돈입지요! 이게 당신네 돈입지요! 이게 당신네 돈입지요! 이게 당신네 돈입지요!" 갑자기 그는 뒤로 펄쩍 물러서더니 알료샤 앞에서 허리를 곧게 폈다. 그의 온 모습이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당신을 보낸 분들께 아뢰십쇼. 수세미는 제 명예를 팔지 않는다고 말씀입지요!" 그는 허공으로 손을 뻗으며 외쳤다. 그러고는 재빨리 돌아서서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다섯 걸음도 못 가서 다시 온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알료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나 또 다섯 걸음도 못 가서 그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얼굴에 일그러진 웃음이 없었고, 오히려 얼굴 전체가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며, 목이 메어 끊어지는 빠른 말로 소리쳤다.

"당신한테서 우리가 당한 치욕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제가 제 아이한테 무어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 알료샤는 말할 수 없이 슬퍼하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 그는 2등 대위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지폐를 구겨서 내던지리라는 것을 스스로도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 달려가는 사람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알료샤는 그가 돌아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를 쫓아가거나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왜인지 알았다. 2등 대위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알료샤는 지폐 두 장을 주워 들었다. 지폐는 몹시 구겨지고 짓눌려 모래에 박혀 있었을 뿐 아주 멀쩡했고, 알료샤가 펴서 반듯하게 고를 때 새 지폐처럼

바스락거리기까지 했다. 반듯하게 편 뒤 그는 지폐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심부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리러 갔다.

제5권 프로와 콘트라

제1장 언약

이번에도 호흘라코바 부인이 먼저 알료샤를 맞았다. 부인은 서두르고 있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히스테리가 결국 기절로 끝나더니 "끔찍하고 무서운 기운 빠짐이 와서, 누워서 눈을 뒤집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열이 나요. 게르첸시투베를 부르러 보냈고, 이모님들을 모시러도 보냈어요. 이모님들은 벌써 와 계신데 게르첸시투베는 아직 안 왔어요. 다들 그 애 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 애는 정신이 없어요. 이러다 열병이라도 나면 어쩌죠!"

이렇게 외치는 호흘라코바 부인은 정말로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요!" 부인은 말끝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마치 전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심각하지 않았다는 듯했다. 알료샤는 서글픈 마음으로 부인의 말을 들었고, 자기가 겪은 일도 이야기하려 했지만, 부인은 첫마디부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부인은 틈이 없었고, 리즈에게 가서 앉아 있다가 리즈 방에서 자기를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리즈가요, 정말 좋은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부인은 그의 귀에 거의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리즈가 방금 저를 이상하게 놀라게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짠하게도 해서, 제 마음은 그 애를 다 용서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가시자마자 그 애가 갑자기 어제랑 오늘 당신을 비웃은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애는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거의 울 지경으로 뉘우쳐서 저는 놀랐어요. 그 애는 전에는 저를 비웃고 나서 한 번도 심각하게 뉘우친 적이 없고, 늘 장난으로 넘겼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애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비웃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각해요, 이제는 모든 게 심각해졌어요. 그 애는 당신 의견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그 애한테 서운해하지 마시고 언짢게 여기지도 마세요. 저도 그저 그 애를 감싸 주기만 해요, 그 애가 아주 영리하거든요, 믿으시겠어요? 그 애가 방금 당신이 자기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심각한 친구'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심각한 친구라니, 그럼 저는요? 그 애는 그런 일에는 아주 심각한 감정이 있고 추억까지 있고, 무엇보다 그 말투하고 낱말들 말이에요, 그 생각지도 못한 낱말들이요, 도무지 예상도 못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얼마 전에는 소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애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 뜰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도 서 있을지 모르니 지난 일처럼 말할 것도 없겠네요. 소나무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잖아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엄마, 그 솔이 솔솔 꿈결처럼 기억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이 솔솔 꿈결처럼'이라고요, 그 애는 무언가 다르게 말했는데 여기서 뒤죽박죽이 됐어요, '솔'이란 말이 바보 같은 말이라서요, 아무튼 그 애가 거기에 대해 저한테 무언가 아주 독창적인 말을 늘어놓았는데, 저는 그걸 도저히 옮길 엄두가 안 나요. 게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안녕히, 저는 몹시 충격을 받아서 아마 미쳐 가나 봐요. 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는 살면서 두 번 미친 적이 있어서 치료도 받았어요. 리즈한테 가세요. 그 애 기운을 북돋아 주세요, 당신은 늘 그걸 기막히게 잘하시잖아요. 리즈." 부인은 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쳤다. "자, 네가 그렇게 모욕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를

모셔 왔다. 이분은 조금도 화나지 않으셨어, 정말이야, 오히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놀라고 계셔!"

"고마워요, 엄마(Merci, maman). 들어오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알료샤가 들어갔다. 리즈는 어딘지 쑥스러워하는 눈치더니 갑자기 얼굴이 온통 빨개졌다. 무언가를 부끄러워하는 게 분명했고, 그럴 때 늘 그렇듯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빠르게 빠르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엉뚱한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듯했다.

"엄마가 방금 갑자기 다 이야기해 줬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 200루블 이야기하고, 당신이 맡은 그 심부름 이야기…… 그 가엾은 장교한테 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엄마는 이야기를 아주 두서없이 하는데도…… 이리저리 건너뛰기만 하는데도…… 저는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은 주셨어요? 그 불쌍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게, 주지 못했어요. 거기에 사연이 한가득 있어요." 알료샤가 대답했다. 그 역시 무엇보다도 돈을 주지 못한 일이 걱정인 듯했지만, 리즈는 그도 딴 데를 보며 역시 엉뚱한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챘다. 알료샤는 탁자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첫마디부터 쑥스러움은 말끔히 사라졌고, 이번에는 그가 리즈를 이야기로 끌어들였다. 그는 강한 감정과 방금 받은 엄청난 인상에 휩싸여 이야기했고, 그 덕에 이야기를 훌륭하고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었다. 그는 전에도, 아직 모스크바에 있을 때, 리즈가 아직 어렸을 때도, 그 애에게 와서 방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나 책에서 읽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려 들려주기를 좋아했다. 때로는 둘이서 함께 꿈을 꾸고 이야기를 통째로 지어내기까지 했는데,

대개는 즐겁고 우스운 이야기였다. 이제 두 사람은 마치 별안간 두 해쯤 전 모스크바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리즈는 그의 이야기에 몹시 마음이 움직였다. 알료샤는 뜨거운 감정을 담아 그 애 앞에 "일류셰치카"의 모습을 그려 보일 줄 알았다. 그 불행한 사람이 돈을 짓밟던 장면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자, 리즈는 두 손을 마주치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차서 소리쳤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달아나게 두셨군요! 맙소사, 하다못해 당신이 직접 쫓아가서 따라잡기라도 하시지……"

"아니에요, 리즈, 내가 쫓아가지 않은 게 이편이 더 나아요." 알료샤는 이렇게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근심스러운 얼굴로 방 안을 거닐었다.

"어떻게 더 나아요, 뭐가 더 나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빵도 없이 죽게 생겼는데요!"

"죽지 않아요. 그 200루블은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어차피 내일 그 돈을 받을 거예요. 내일이면 틀림없이 받을 거예요." 알료샤가 생각에 잠겨 걸으며 말했다. "보세요, 리즈." 그는 갑자기 그 애 앞에 멈춰 서서 말을 이었다. "나는 거기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조차 좋은 쪽으로 됐어요."

"무슨 실수요, 그리고 왜 좋은 쪽으로요?"

"그건 이래요, 그 사람은 겁이 많고 성격이 약한 사람이에요. 몹시 시달렸고 아주 착해요. 나는 지금도 계속 생각해요, 그 사람이 대체 무엇에 그렇게 갑자기 모욕을 느껴서 돈을 짓밟았을까 하고요, 정말이지 그 사람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그 돈을 짓밟으리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여기서 여러 가지에 모욕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사람 처지로서는 달리 될 수가 없었겠지요…… 첫째로,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돈을 보고 너무 기뻐했고 그걸 내 앞에서

감추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벌써 모욕을 느꼈어요. 기뻐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게, 그걸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 하듯 점잔을 빼고 거드름을 피웠다면, 그럼 아직은 참고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정직하게 기뻐했고, 바로 그게 모욕이 됐어요. 아, 리즈, 그 사람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게 모든 불행의 뿌리예요! 그 사람은 그때 이야기하는 내내 목소리가 그렇게 힘없고 기운이 빠져 있었고, 말을 아주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줄곧 무슨 웃음 같은 걸 킬킬거리거나 아니면 벌써 울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은 울었어요. 그만큼 감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딸들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읍에서 얻게 될 일자리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속을 털어놓자마자 갑자기 그렇게 제 속을 다 내보인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지독하게 부끄럼을 타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너무 빨리 나를 제 친구로 여기고 너무 빨리 나한테 넘어왔다는 것 때문에 모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나한테 덤벼들고 겁을 주더니, 돈을 보자마자 갑자기 나를 껴안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껴안았고, 줄곧 손으로 나를 만졌어요. 바로 그런 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굴욕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 그때 내가 그 실수를,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다른 읍으로 옮겨 갈 돈이 모자라면 또 줄 거라고, 나도 내 돈에서 얼마든지 주겠다고 불쑥 말해 버렸어요. 바로 그게 갑자기 그 사람을 찔렀어요, 왜 너까지 튀어나와서 나를 돕겠다는 거냐, 하고요. 있잖아요, 리즈, 모욕당한 사람한테는 모두가 자기를 은인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지독히도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런 걸 자주 봤어요. 게다가 나 자신도 꼭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비록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지폐를 짓밟으리라는 걸 몰랐다고 해도, 그래도 그걸 예감은 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예감했기 때문에 감격도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게 그렇게 고약하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쪽으로 된 거예요. 나는 심지어 가장 좋은 쪽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게 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리즈가 몹시 놀라서 알료샤를 바라보며 외쳤다.

"왜냐하면요, 리즈, 그 사람이 돈을 짓밟지 않고 받았다면, 집에 가서 한 시간쯤 뒤에는 자기가 당한 굴욕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울고 나서 어쩌면 내일 날이 밝자마자 나한테 와서, 어쩌면 지폐를 내던지고 아까처럼 짓밟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비록 '제 신세를 망쳤다'는 걸 알면서도 지독히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떠나갔어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한테 바로 그 200루블을 늦어도 내일까지 받게 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은 벌써 자기 명예를 증명했으니까요, 돈을 내던지고 짓밟았으니까요…… 짓밟을 때 내가 내일 그 돈을 다시 가져가리라는 걸 그 사람이 알 리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 돈이 정말 지독하게 필요해요. 지금은 자랑스러워도, 오늘만 해도 자기가 무슨 도움을 놓쳤는지 생각할 거예요. 밤에는 더 깊이 생각하고, 꿈에서도 볼 거고, 내일 아침이면 어쩌면 나한테 달려와서 용서를 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그걸 증명했어요, 그러니 이제 받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은 받을 거예요!"

알료샤는 무언가 도취된 듯이 "바로 그때 그 사람은 받을 거예요!" 하고 말했다. 리즈는 손뼉을 쳤다.

"아, 그건 맞아요. 아, 나 갑자기 그걸 지독하게 잘 알게 됐어요! 아, 알료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젊은데 벌써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다니…… 나라면 그런 건 절대로 생각해 내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은 그 사람한테 이걸 납득시켜야 해요. 우리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모두와 대등한 자리에 있다는 걸요." 알료샤는 도취된 채 말을 이었다. "대등한 자리일 뿐 아니라 심지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더 높은 자리'라니, 근사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런데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더 높은 자리라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론 괜찮아요! 미안해요, 알료샤, 다정한 사람……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거의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경은 했는데 대등한 자리에서 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높은 자리에서 존경할게요…… 다정한 사람, 내가 '재치를 부린다고' 화내지 마세요." 리즈는 곧바로 강한 감정을 담아 말을 받았다. "나는 우스운 꼬마지만, 당신은, 당신은…… 들어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우리의 이 모든 생각에,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 아니, 그래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사람을, 그 불행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꼭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낱낱이 따지고 있는 게요, 네? 그 사람이 돈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 버린 게요, 네?"

"아니에요, 리즈, 업신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알료샤는 이미 그 물음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도 여기 오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데, 모두가

그 사람과 똑같은데 업신여기는 마음이라니요.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더 나을 게 없어요. 설령 더 낫다 해도 그 사람 처지가 되면 역시 똑같아졌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리즈, 나는 속으로 내 영혼이 여러 가지로 옹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옹졸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섬세해요…… 아니에요, 리즈,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있잖아요, 리즈, 우리 장로님이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이 돌보듯 돌봐야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의 환자 돌보듯 돌봐야 한다고요……"

"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아, 내 사랑, 우리 사람들을 환자 돌보듯 돌봐요!"

"그래요, 리즈, 나는 그럴 준비가 됐어요. 다만 나 자신이 아직 다 준비가 되지는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는 몹시 참을성이 없고, 또 어떤 때는 보는 눈이 없어요. 당신은 다르지요."

"아, 못 믿겠어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 주니 참 좋아요, 리즈."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은 놀랄 만큼 좋은 사람인데, 가끔은 꼭 고지식한 선생님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 전혀 고지식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문 쪽에 가서 보세요. 살그머니 열고, 엄마가 엿듣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리즈가 갑자기 어딘지 신경질적이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료샤가 가서 문을 조금 열어 보고는 아무도 엿듣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리 오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리즈는 점점 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손을 주세요, 이렇게요. 들어 보세요, 나 당신한테 큰 고백을 해야 해요. 어제 그 편지는 장난으로 쓴 게 아니라 진심으로 썼어요……"

그러고는 한 손으로 제 눈을 가렸다. 그 고백을 하기가 몹시 부끄러운 게 눈에 보였다. 갑자기 리즈는 그의 손을 잡더니 재빨리 세 번 입을 맞추었다.

"아, 리즈, 그거 참 잘됐어요." 알료샤가 기쁘게 외쳤다.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썼다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했대요, 글쎄!" 리즈는 갑자기 그의 손을 밀어냈지만, 그러면서도 제 손에서 놓지는 않았다. 얼굴이 무섭게 붉어졌고, 작고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내가 이 사람 손에 입을 맞췄는데 이 사람은 '그거 참 잘됐어요' 한대요." 그러나 리즈의 나무람은 부당했다. 알료샤도 몹시 허둥대고 있었다.

"나는 늘 당신 마음에 들고 싶은데, 리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얼굴을 붉히며 겨우겨우 중얼거렸다.

"알료샤, 다정한 사람, 당신은 차갑고 뻔뻔해요. 보시라고요, 네. 이분께서 황송하게도 저를 배필로 골라 주시고는 그걸로 마음을 놓으셨대요! 이분은 내가 진심으로 썼다고 벌써 확신하고 계셨대요, 어때요! 그런데 이건 뻔뻔함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확신했다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알료샤가 갑자기 웃었다.

"아, 알료샤, 그 반대예요, 지독하게 좋아요." 리즈가 다정하고 행복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알료샤는 여전히 제 손을 그 애 손에 맡긴 채 서 있었다. 갑자기 그는 몸을 숙여 그 애의 입술 한가운데에 입을 맞추었다.

"이건 또 뭐예요? 왜 이러세요?" 리즈가 소리쳤다. 알료샤는 완전히 어쩔 줄을 몰랐다.

"저, 잘못했으면 용서해요…… 어쩌면 내가 지독하게 바보짓을 했나 봐요…… 당신이 내가 차갑다고 해서, 그래서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보짓이 됐네요……"

리즈는 웃음을 터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것도 그 옷을 입고서!" 웃음 사이로 이 말이 튀어나왔지만, 리즈는 갑자기 웃음을 그치더니 온통 진지해졌다. 거의 엄격해 보일 정도였다.

"그러니까요, 알료샤, 입맞춤은 좀 더 기다려요. 우리 둘 다 아직 그걸 할 줄 모르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아직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해요." 리즈가 갑자기 결론을 내렸다. "그보다 말해 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영리하고, 그렇게 생각이 깊고, 그렇게 눈이 밝은데, 왜 나 같은 바보를, 병든 바보 꼬마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아, 알료샤, 나는 지독하게 행복해요.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어울려요, 리즈. 나는 며칠 안에 수도원을 아주 나올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결혼을 해야 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분도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르셨어요. 당신보다 나은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그리고 당신 말고 누가 나를 데려가겠어요? 나는 벌써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당신은 어릴 때부터 나를 알고, 둘째로, 당신한테는 나한테 전혀 없는 재능이 아주 많아요. 당신 영혼은 나보다 더 밝아요. 무엇보다 당신은 나보다 더 순결해요. 나는 벌써 많은 것에, 많은 것에 손을 대 봤거든요…… 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도 카라마조프예요! 당신이 웃고 장난치는 게, 나를 놀리기까지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웃어요, 나는 그게 정말 기뻐요…… 그런데 당신은 작은 소녀처럼 웃지만, 속으로는 수난자처럼 생각해요……"

"수난자처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리즈, 아까 당신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그 불행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해부하는 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 있지 않느냐고. 그건 수난자의 물음이에요…… 보세요, 나는 이걸 도무지 말로 나타낼 줄을 모르겠지만, 그런 물음이 떠오르는 사람은 자기도

고통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락의자에 앉아서 당신은 지금까지도 벌써 많은 것을 곱씹어 생각했겠지요……"

"알료샤, 손을 주세요. 왜 손을 빼요?" 리즈가 행복에 겨워 기운이 빠진, 어딘지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 보세요, 알료샤, 수도원에서 나오면 무얼 입을 거예요, 어떤 옷을요? 웃지 마세요, 화내지도 마세요. 이건 나한테 아주, 아주 중요해요."

"옷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리즈.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옷이면 그걸 입을게요."

"나는 당신이 짙푸른 벨벳 재킷에 흰 피케 조끼를 입고, 부드러운 회색 펠트 모자를 쓰면 좋겠어요…… 말해 보세요, 내가 어제 편지를 없던 일로 했을 때, 당신은 아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대로 믿었어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오, 못 말리는 사람, 구제 불능이에요!"

"보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걸 알았지만, 당신 말을 믿는 척했어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요. 당신이…… 편하라고요……"

"그건 더 나빠요! 가장 나쁘고 가장 좋아요. 알료샤, 나는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해요. 아까 당신이 오기 직전에 나는 점을 쳤어요. 그 사람한테 어제 편지를 달라고 해야지. 그 사람이 태연하게 편지를 꺼내서 돌려주면(그 사람한테서는 늘 그런 일을 기대할 만하니까), 그럼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어리석고 하찮은 소년이라는 뜻이고, 나는 끝장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편지를 수방에 두고 왔다고 했고, 그 말에 나는 기운이 났어요. 그렇죠, 내가 편지를 돌려 달라고 할 걸 예감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수방에 두고 온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리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편지는 지금도 나한테 있고, 아까도 있었어요. 바로 여기, 이 호주머니에요. 여기 있어요."

알료샤는 웃으며 편지를 꺼내 멀찍이서 보여 주었다.

"다만 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내 손에 든 채로 보세요."

"뭐라고요? 그럼 아까 거짓말을 했군요. 수도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셈이지요, 거짓말을 했어요." 알료샤도 웃고 있었다. "편지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건 나한테 아주 소중해요." 그는 갑자기 강한 감정을 담아, 그리고 다시 얼굴을 붉히며 덧붙였다. "이건 영원히 그래요. 나는 이걸 아무한테도 절대로 주지 않을 거예요!"

리즈는 황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알료샤." 리즈가 다시 재잘거렸다. "문 쪽을 보세요. 엄마가 엿듣고 있지 않아요?"

"좋아요, 리즈, 볼게요. 그렇지만 보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왜 당신 어머니가 그런 비열한 짓을 한다고 의심해요?"

"비열한 짓이라니요? 무슨 비열한 짓이요? 엄마가 딸을 엿듣는 건 엄마 권리지, 비열한 짓이 아니에요." 리즈가 발끈했다. "두고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도 엄마가 되어서 나 같은 딸이 생기면 나도 꼭 그 애를 엿들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리즈? 그건 좋지 않아요."

"아, 맙소사, 여기에 무슨 비열한 짓이 있어요? 무슨 흔한 사교계 대화를 내가 엿듣는다면 그건 비열한 짓이지만, 이건 친딸이 젊은 남자하고 방에 틀어박혔잖아요…… 들어 보세요, 알료샤, 알아 두세요, 나도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당신을 엿볼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 두세요, 나는 당신 편지를 다 뜯어서 다 읽을 거예요…… 이건 미리 알려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면……" 알료샤가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그건 좋지 않아요……"

"아, 이런 경멸이라니! 알료샤, 다정한 사람, 맨 처음부터 다투지는 말아요. 그보다 내가 진실을 다 말할게요. 엿듣는 건 물론 아주 나쁜 짓이고, 물론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아요. 그래도 나는 엿들을 거예요."

"그러세요. 나한테서 그런 건 아무것도 엿보지 못할 거예요." 알료샤가 웃었다.

"알료샤, 그럼 당신은 나한테 복종할 거예요? 이것도 미리 정해 둬야 해요."

"아주 기꺼이요, 리즈, 그리고 꼭 그럴게요. 다만 가장 중요한 일에서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에서는 당신이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는 의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야지요. 그럼 알아 두세요. 나는 반대로 가장 중요한 일에서 복종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당신한테 양보할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맹세할게요. 모든 일에서, 평생토록요." 리즈가 뜨겁게 외쳤다. "그것도 행복하게요, 행복하게요! 그뿐 아니라 맹세할게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엿듣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절대로요. 당신 편지는 한 통도 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으니까요. 엿듣고 싶어서 지독하게 몸이 달겠지만, 나는 그걸 알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걸 고상하지 못한 짓으로 여기니까요. 당신은 이제 나한테 하느님의 섭리 같아요…… 들어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왜 요며칠 내내,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슬퍼요? 당신한테 근심거리,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밖에도 당신한테 무슨 특별한 슬픔이, 어쩌면 남모를 슬픔이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요, 리즈, 남모를 슬픔도 있어요." 알료샤가 슬프게 말했다. "그걸 알아맞힌 걸 보니 나를 사랑하는군요."

"무슨 슬픔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말해 줄 수 있어요?" 리즈가 조심스럽게 애원하며 말했다.

"나중에 말할게요, 리즈…… 나중에……" 알료샤가 당황했다. "지금은 어쩌면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나 자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 밖에도 알아요. 당신 형들하고 아버지가 당신을 괴롭히죠?"

"네, 형들도요." 알료샤가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다.

"나는 당신 형 이반 표도로비치가 싫어요, 알료샤." 리즈가 갑자기 한마디 했다.

알료샤는 이 말을 조금 놀라며 마음에 새겼지만, 그 말을 붙잡지는 않았다.

"형들은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도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고 있어요. 여기에는 파이시 신부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땅에 붙은 카라마조프의 힘'이 있어요. 땅에 붙은, 미쳐 날뛰는, 다듬어지지 않은 힘이요…… 그 힘 위로 하느님의 영이 운행하시는지조차 나는 몰라요. 다만 나도 카라마조프라는 것만 알아요…… 내가 수도사예요, 수도사? 내가 수도사예요, 리즈? 당신이 방금 무슨 말끝에 내가 수도사라고 했지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어쩌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리즈가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알료샤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에는 무언가 너무나 비밀스럽고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 있었다. 어쩌면 그 자신에게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미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더해, 내 벗이 떠나가요.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요.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리즈, 내가 그분과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 영혼으로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는지! 그러면 나는 혼자 남게 돼요…… 당신한테 올게요, 리즈…… 앞으로는 함께 있어요……"

"그래요, 함께요, 함께! 이제부터는 늘 평생 함께예요. 들어 보세요, 나한테 입 맞춰요. 허락할게요."

알료샤는 리즈에게 입을 맞추었다.

"자, 이제 가세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기를!(그리고 리즈는 그에게 성호를 그어 주었다.)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어서 그분께 가세요. 내가 당신을 모질게 붙잡아 둔 걸 알아요. 오늘 나는 그분과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알료샤,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우리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리즈."

리즈의 방에서 나온 알료샤는 호흘라코바 부인에게 들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지 않았고,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서려 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층계참으로 나서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의 앞에 바로 호흘라코바 부인이 서 있었다. 첫마디에 알료샤는 부인이 일부러 여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건 끔찍해요. 이건 어린애 장난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당신이 설마 꿈을 꾸시지는 않겠지요……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짓이에요!" 부인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다만 그 말을 따님에게는 하지 마세요." 알료샤가 말했다. "그러면 따님이 흥분할 테고, 그건 지금 따님 몸에 해로우니까요."

"분별 있는 젊은이의 분별 있는 말씀을 듣는군요. 그럼 이렇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당신은 그 애의 병든 처지가 딱해서, 반대하다가 그

애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그 애 말에 맞장구를 쳤을 뿐이라고요?"

"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아주 진지하게 따님과 이야기했어요." 알료샤가 단호하게 밝혔다.

"여기서 진지함이란 있을 수 없어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첫째로, 이제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집에 들이지 않을 거예요. 둘째로, 저는 떠날 거고 그 애도 데려갈 거예요. 알아 두세요."

"하지만 왜요." 알료샤가 말했다. "그건 아직 먼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아직 한 해 반은 기다려야 할 거예요."

"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건 물론 맞아요. 그리고 한 해 반이면 당신은 그 애와 천 번은 다투고 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 해도, 이 일이 저를 쓰러뜨렸어요. 지금 저는 마지막 장면의 파무소프 같고, 당신은 차츠키, 그 애는 소피야예요.[1]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신을 만나려고 일부러 이 층계로 달려 나왔는데, 거기서도 그 운명의 일이 모두 계단에서 일어났잖아요. 저는 다 들었어요. 겨우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밤의 그 모든 끔찍한 일과 아까의 그 모든 히스테리는 이걸로 설명이 되는군요! 딸에게는 사랑, 어미에게는 죽음이에요. 관 속에나 들어가 누우라는 거지요. 이제 둘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할게요. 그 애가 당신한테 쓴 그 편지는 대체 뭐예요? 그걸 저한테 지금 보여 주세요, 지금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몸은 어떤가요? 꼭 알아야겠어요."

"여전히 헛소리를 하며 누워 있어요.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모님들이 와 계신데 그저 아이고 소리만 내면서 저한테 거만하게 굴어요. 게르첸시투베는 와서는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서 의사를 부르러 보낼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 사람은 제 마차에 실려 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갑자기 당신이 그 편지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그건 다 한 해 반 뒤의 일이지만요. 위대하고 거룩한 모든 것의 이름으로, 돌아가시려는 당신 장로님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보여 주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한테요, 어미한테요! 원하시면 손가락으로 쥐고 계세요. 저는 당신 손에 든 채로 읽을게요."

"아니요, 보여 드리지 않을 거예요, 카테리나 오시포브나. 설령 따님이 허락한다 해도 보여 드리지 않을 거예요. 내일 오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요. 지금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알료샤는 층계를 뛰어 내려가 거리로 나갔다.

---

1. 그리보예도프(1795~1829)의 희극 『지혜의 슬픔』의 인물들.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 파무소프가 큰 계단이 있는 현관에서 딸 소피야와 차츠키를 맞닥뜨린다.

제2장 기타를 든 스메르댜코프

게다가 그에게는 틈이 없었다. 리즈와 작별할 때 벌써 그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득였다. 분명히 자기를 피해 숨어 있는 드미트리 형을 어떻게 하면 가장 교묘하게 지금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미 이른 시각이 아니었다. 오후 세 시쯤이었다. 알료샤는 온 존재를 다해 수도원으로, 죽어 가는 자기의 "위대한" 분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드미트리 형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모든 것을 눌렀다.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파국이 금방이라도 일어나려 한다는 확신이 알료샤의 머릿속에서 시간마다 자라나고 있었다. 그 파국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형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어쩌면 그 자신도 딱 잘라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은인이 나 없이 돌아가신다 해도, 적어도 나는 어쩌면 무언가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제집으로 서둘러 갔다고 평생 나 자신을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위대한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의 계획은 드미트리 형을 불시에 붙잡는 것, 곧 어제처럼 그 바자울을 넘어 뜰로 들어가서 그 정자에 들어앉는 데 있었다. "형이 거기 없으면," 알료샤는 생각했다. "포마에게도 집주인 여자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정자에 숨어서 저녁때까지라도 기다리자. 형이 전처럼 그루셴카가 오는지 지키고 있다면 정자로 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기야 알료샤는 계획의 자세한 부분까지 너무 많이 따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수도원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계획을 해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일이 거침없이 이루어졌다. 그는 어제와 거의 같은 자리에서 바자울을 넘어 몰래 정자로 숨어들었다. 그는 들키고 싶지 않았다. 집주인 여자도 포마도(포마가 여기 있다면) 형 편을 들고 형의 지시를 따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알료샤를 뜰에 들이지 않거나, 누가 형을 찾고 묻고 다닌다고 제때 형에게 귀띔해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자에는 아무도 없었다. 알료샤는 어제 앉았던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정자를 둘러보니 웬일인지 어제보다 훨씬 더 낡아 보였고, 이번에는 아주 형편없이 초라해 보였다. 하기야 날씨는 어제처럼 맑았다. 초록 탁자 위에는 아마도 어제 코냑 잔이 넘쳐흘러 생긴 듯한 동그란 자국이 찍혀 있었다. 지루하게 기다릴 때면 늘 그렇듯, 쓸데없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기어들었다. 이를테면 지금 이곳에 들어오면서 왜 하필 어제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꼭 그대로 앉았을까, 왜 다른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마침내 그는 몹시 서글퍼졌다.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서글퍼졌다. 그런데 15분도 채 앉아 있지 않았을 때, 갑자기 어딘가 아주 가까운 데서 기타 화음 소리가 들렸다. 그에게서 스무 걸음쯤, 결코 그보다 멀지 않은 덤불 어딘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거나 방금 막 앉은 모양이었다. 어제 정자에서 형과 헤어져 나올 때, 왼쪽 담장 곁 덤불 사이에 낮고 낡은 초록색 정원 벤치가 하나 보였다는, 또는 눈앞에 언뜻 스쳤다는 기억이 알료샤에게 갑자기 떠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손님들이 바로 그 벤치에 앉은 것이었다. 대체 누구일까? 남자 목소리 하나가 갑자기 기타를 퉁기며 달콤한 가성으로 한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길 수 없는 힘으로
나는 임에게 매였네.
주여, 불쌍히 여기-이-소서
그 임과 나를!
그 임과 나를!
그 임과 나를!

목소리가 멈췄다. 하인 투의 높은 목소리였고, 노래를 꺾는 솜씨도 하인 투였다. 다른 목소리가,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가 갑자기 살갑게, 어딘지 수줍은 듯하면서도 몹시 새침을 떨며 말했다.

"왜 그렇게 오래 우리 집에 안 오셨어요, 파벨 표도로비치, 왜 우리를 늘 업신여기세요?"

"천만에요."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공손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끈질기고 단단한 위엄이 담겨 있었다. 남자가 우위에 서 있고 여자가 아양을 떠는 게 분명했다. "남자는 아무래도 스메르댜코프 같다." 알료샤는 생각했다. "적어도 목소리로는 그렇다. 여자는 아마 이 작은 집 주인의 딸일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왔다는, 옷자락을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에게 수프를 얻으러 다닌다는 그 딸……"

"저는 운이 맞기만 하면 어떤 시든 지독하게 좋아해요." 여자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왜 계속하지 않으세요?"

목소리가 다시 노래를 불렀다.
임금님 왕관이 무어랴,
내 임만 무사하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이-소서
그 임과 나를!
그 임과 나를!
그 임과 나를!

"지난번에는 더 좋았어요." 여자 목소리가 한마디 했다. "왕관 대목에서 '내 귀염둥이만 무사하다면'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게 더 다정했어요. 오늘은 잊어버리셨나 봐요."

"시는 헛소리입죠." 스메르댜코프가 딱 잘라 말했다.

"어머, 아니에요, 저는 시가 정말 좋아요."

"시라는 건 말씀입죠, 본질적인 헛소리입죠. 스스로 따져 보십쇼. 세상에 누가 운을 맞춰 말합니까? 우리가 모두 운을 맞춰 말하기 시작한다면, 설령 윗분들 명령으로 그런다 해도, 우리가 말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요? 시는 쓸모 있는 일이 아닙니다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

"어쩜 그렇게 모든 일에 똑똑하세요, 어떻게 모든 일에 그렇게 되셨어요?" 여자 목소리가 점점 더 아양을 떨었다.

"저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요, 그보다 더한 것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요, 제 팔자가 바로 저의 어릴 쩍부터 그렇지만 않았다면요. 아비 없이 냄새나는 년한테서 났으니 비열한 놈이라고 저한테 말하는 놈이 있으면, 저는 결투를 해서 권총으로 그놈을 죽였을 겁니다요. 그분들은 모스크바에서도 그걸로 제 눈앞에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게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덕분에 여기서부터 기어 올라간 겁죠.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는 제가 태어난 것에 반역한다고 나무랍니다, '네가 그 여자의 태를 열었다'는 겁죠. 태는 태라 칩시다만, 저는 아예 세상에 나오지만 않을 수 있다면 배 속에 있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도 허락했을 겁니다요. 장터에서들 그러던데, 당신 어머님도 워낙 섬세하지 못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는데, 그 여자는 머리가 엉겨 붙은 채로 다녔고 키가 두 아르신하고도 쬐끔밖에 안 됐다고요. 그냥 남들 다 말하듯 '조금'이라고 하면 될 걸 왜 '쬐끔'이랍니까? 눈물겹게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만, 그건 농군의,

말하자면 농군의 눈물입죠, 농군 그대로의 감정입죠. 러시아 농군이 교육받은 사람에 견줄 만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식해서 아무 감정도 가질 수 없습죠. 저는 어릴 쩍부터 '쬐끔'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정말이지 벽에라도 몸을 내던지고 싶었습니다요. 저는 온 러시아를 미워합니다,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

"당신이 귀여운 사관생도나 앳된 경기병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군도를 뽑아 들고 온 러시아를 지키셨을 거예요."

"저는 경기병이 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 오히려 군인을 모조리 없애 버리고 싶습니다요."

"그럼 적이 쳐들어오면 누가 우리를 지켜 줘요?"

"그럴 필요가 아예 없습죠. 1812년에 러시아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 지금 황제의 아버지가 크게 쳐들어왔는데, 그때 바로 그 프랑스 놈들이 우리를 정복했다면 좋았을 겁니다요. 똑똑한 민족이 아주 어리석은 민족을 정복해서 제 땅에 붙였을 테니까요. 질서가 아주 딴판이 됐을 겁니다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보다 그렇게 낫겠어요? 저는 우리네 멋쟁이 한 사람을 아무리 젊은 영국 사람 셋하고도 안 바꿔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상냥하게 말했다. 아마 그 순간 그 말에 더없이 나른한 눈길을 곁들였을 것이다.

"그거야 누가 무엇을 숭배하느냐에 달렸죠."

"그런데 당신도 꼭 외국 사람 같아요, 꼭 아주 고귀한 외국 사람 같아요. 이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말이에요."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지만, 방탕한 걸로는 거기 놈들이나 우리 놈들이나 다 비슷합니다요. 다 사기꾼입죠. 다만 거기 놈은 에나멜 장화를 신고 다니고, 우리 비열한 놈은 제 가난 속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그게 조금도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다를 뿐입죠. 러시아 백성은

매로 다스려야 합죠. 어제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옳게 말씀하셨듯이요. 그분이 자식들까지 몽땅 미친 사람이긴 하지만 말씀입죠."

"이반 표도로비치는 무척 존경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두고 냄새나는 하인이라고 하셨습죠. 그분은 제가 반역을 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데, 그건 그분이 잘못 아시는 겁니다요. 제 주머니에 그만한 돈이 있었다면 저는 벌써 여기 없었을 겁니다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행실로나 머리로나 가난으로나 어떤 하인보다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도 오히려 모두한테서 대접을 받습니다요. 저야 이를테면 국물쟁이에 지나지 않지만, 운만 따르면 모스크바 페트롭카 거리에 카페 겸 레스토랑을 차릴 수 있습죠. 저는 특별하게 요리를 하는데, 모스크바에서 외국 사람들 말고는 그 누구도 특별하게 내놓을 줄을 모르거든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바지도 못 걸친 알거지인데, 그분이 백작 집안의 으뜸가는 아들한테 결투를 신청해도 그 아들은 그분하고 결투를 하러 나설 겁니다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나은 게 뭡니까요? 그분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어리석은데요. 아무 쓸 데도 없이 돈을 얼마나 날려 버렸습니까요."

"결투는 아주 멋질 것 같아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갑자기 한마디 했다.

"뭐가 말씀입니까요?"

"그렇게 무섭고 용감하잖아요. 특히 젊은 장교들이 어떤 아가씨 때문에 권총을 손에 들고 서로 쏘아 댈 때요. 그야말로 그림 같아요. 아, 아가씨들한테도 구경을 시켜 주면 좋을 텐데. 저는 지독하게 보고 싶어요."

"제가 겨눌 때야 좋습죠. 그런데 바로 제 낯짝에 대고 남이 겨누면, 그땐 그게 가장 어리석은 기분입죠. 그 자리에서 달아나실 겁니다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

"설마 당신이 달아나시겠어요?"

그러나 스메르댜코프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대꾸하지 않았다. 잠깐 말이 없더니 다시 화음이 울렸고, 가성이 마지막 소절을 뽑아냈다.

아무리 애써 봐도
나는 멀리 떠나리,
삶을 즐기-이-이며
수도에서 살리라!
슬퍼하지 않으리.
조금도 슬퍼하지 않으리,
슬퍼할 생각은 아예 없다네!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알료샤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다. 벤치 쪽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알료샤는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다. 정말로 스메르댜코프였다. 한껏 차려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거의 곱슬곱슬하게 지지기까지 했으며,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기타는 벤치 위에 놓여 있었다. 여자는 집주인의 딸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였다. 그 처녀는 옅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옷자락이 2아르신이나 끌렸다. 아직 아주 앳되고 생김새도 밉지 않을 법했지만, 얼굴이 너무 둥글고 주근깨가 지독하게 많았다.

"드미트리 형은 곧 돌아오나요?" 알료샤가 되도록 침착하게 물었다.

스메르댜코프가 천천히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다.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도 일어섰다.

"제가 무슨 수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 관해 알려져 있겠습니까요. 제가 그분 곁에 파수꾼으로 붙어 있다면 또 모를까요?" 스메르댜코프가 조용히, 또박또박, 깔보듯이 대답했다.

"그냥 혹시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알료샤가 해명했다.

"저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요."

"그런데 형은 바로 당신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오면 알려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스메르댜코프가 천천히, 태연하게 그를 향해 눈을 치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요? 여기 대문은 벌써 한 시간 전부터 빗장을 질러 놓았는데요?" 그가 알료샤를 뚫어지게 보며 물었다.

"골목에서 울타리를 넘어 곧장 정자로 들어왔어요. 이 일은 용서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에게 말했다. "형을 서둘러 붙잡아야 했거든요."

"어머, 저희가 어떻게 당신한테 서운해할 수 있겠어요." 알료샤의 사과에 우쭐해진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말을 길게 뺐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도 자주 그렇게 정자로 들어오시거든요. 저희는 모르고 있는데 그분은 벌써 정자에 앉아 계세요."

"나는 지금 형을 몹시 찾고 있어요. 형을 꼭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형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당신들한테서라도 알고 싶어요. 정말이지 형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일 때문이에요."

"그분은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더듬거렸다.

"제가 여기 오는 건 아는 사이라서 오는 거지만요." 스메르댜코프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분은 여기서도 저를 무자비하게 들볶으십니다요. 나리에 대해 쉴 새 없이 물어보시면서요. 이를테면 거기는 어떠냐, 누가 오고 누가 나가느냐, 무슨 다른 소식은 없느냐 하시는 겁니다요. 두 번이나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하셨습죠."

"죽이겠다니요?" 알료샤가 놀랐다.

"그분 성미로 보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요. 어제 직접 보셨잖습니까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를 들여보내서 그 여자가 여기서 밤을 지내기라도 하면, 네가 먼저 살아남지 못할 줄 알라고 하십니다요. 저는 그분이 몹시 무섭습니다요. 그보다 더 무섭지만 않았다면 그분을 읍 관청에 고발해야 할 판입죠. 정말이지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하느님만 아십니다요."

"요전에는 그분이 이분한테 '절구에 넣고 너를 빻아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거들었다.

"그래요, 절구 이야기라면 그건 어쩌면 그냥 하는 말일 뿐인지도 몰라요……" 알료샤가 한마디 했다. "지금 형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형한테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 텐데……"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는 건 이것 하나뿐입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갑자기 마음을 정한 듯이 말했다. "저는 늘 이웃으로 알고 지내서 여기 오는 거니, 어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반 표도로비치께서 오늘 날이 밝자마자 저를 그분 하숙으로, 그분이 계시는 오제르나야 거리로 보내셨습니다요. 편지도 없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 말로 전해서 꼭 광장에 있는 이곳 선술집으로 함께 점심을 드시러 오시게 하라고요. 저는 갔습니다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하숙에서 뵙지 못했습니다요. 벌써 여덟 시였는데요. '계셨는데 몽땅 나가셨다'고, 바로 이 말 그대로 그 집 주인들이 알려 주더군요. 꼭 두 분 사이에 무슨 짜고 하는 일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요, 서로 짜고 하는 일 말씀입죠. 그러니 지금 어쩌면 바로 이 순간 그분이 그 선술집에 형님 이반 표도로비치와 함께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요. 이반 표도로비치께서 점심을 드시러 집에 오지 않으셨거든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께서는 한 시간 전에 혼자 점심을 드시고 지금 주무시러 누우셨습니다요. 그렇지만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 드린 것에 대해서도 그분께 아무 말씀 마십쇼. 그분이 기어이 저를 죽이실 테니까요."

"이반 형이 오늘 드미트리 형을 선술집으로 불렀다고요?" 알료샤가 재빨리 되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요."

"광장에 있는 '수도'라는 선술집으로요?"

"바로 그곳입죠."

"그럴 법한 일이에요!" 알료샤가 몹시 흥분해서 외쳤다. "고마워요, 스메르댜코프, 중요한 소식이에요. 당장 그리로 가겠어요."

"저를 팔지는 마십쇼." 스메르댜코프가 그의 뒤에 대고 말했다.

"오, 아니에요, 나는 선술집에 우연인 것처럼 나타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어디로 가세요, 쪽문을 열어 드릴게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이쪽이 더 가까워요. 다시 바자울을 넘어갈게요."

그 소식은 알료샤를 무섭게 뒤흔들었다. 그는 선술집으로 달려갔다. 그런 옷차림으로 선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점잖지 못했지만, 층계에서 물어보고 형들을 불러내는 것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선술집에 다가가자마자 갑자기 창문 하나가 열리더니 이반 형이 몸소 창문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알료샤, 지금 이리 들어올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 주면 정말 고맙겠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어떨지 모르겠어."

"마침 따로 떨어진 방에 있어. 현관 층계로 와. 내가 마중하러 뛰어내려갈게……"

1분 뒤 알료샤는 형 옆에 앉아 있었다. 이반은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제3장 형제가 서로 알게 되다

그런데 이반이 앉아 있는 곳은 따로 떨어진 방이 아니었다. 창가 자리 하나를 칸막이로 막아 놓았을 뿐이었지만, 그래도 칸막이 뒤에 앉은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 그 방은 들어서자마자 나오는 첫 방이었고, 옆벽에 술 진열장이 있었다. 그 방을 심부름꾼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손님이라고는 퇴역 군인인 노인 하나뿐이었는데, 구석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대신 선술집의 다른 방들에서는 선술집에 흔한 온갖 법석이 벌어지고 있었고, 사람을 부르는 고함, 맥주병 따는 소리, 당구공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으며, 오르간이 웅웅거렸다. 알료샤는 이반이 이 선술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대체로 선술집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직 약속대로 드미트리 형을 만나려고 여기 와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도 드미트리 형은 없었다.

"생선국이나 무어든 시켜 줄까? 설마 차만 마시고 살지는 않겠지." 이반이 소리쳤다. 알료샤를 붙잡은 것이 지독하게 흐뭇한 모양이었다. 그 자신은 벌써 점심을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생선국 줘, 그다음에 차도 줘. 나 배고파." 알료샤가 즐겁게 말했다.

"버찌 잼은? 여기 있어. 기억나? 너 어렸을 때 폴레노프네 집에서 버찌 잼을 좋아했잖아."

"그걸 기억해? 잼도 줘. 지금도 좋아해."

이반은 종을 울려 심부름꾼을 부르고 생선국과 차와 잼을 시켰다.

"나는 다 기억해, 알료샤. 네가 열한 살 때까지의 너를 기억해. 나는 그때 열다섯 살째였어. 열다섯하고 열하나는 차이가 커서 그 나이 때 형제는 결코 동무가 되지 못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모스크바로 떠난 뒤 처음 몇 해 동안은 너를 아예 떠올리지도 않았어. 그 뒤에 너도 모스크바에 오게 됐을 때, 우리는 아마 딱 한 번 어디선가 만났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는 벌써 넉 달째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하고 나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 나는 내일 떠나. 그래서 방금 여기 앉아서 생각했지. 작별 인사를 하게 어떻게든 그 애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네가 마침 지나가는 거야."

"나를 몹시 보고 싶었어?"

"몹시, 나는 너하고 한 번에 영원히 서로 알고 싶고, 너한테 나를 알려 주고 싶어. 그러고 나서 작별하고 싶어. 내 생각에 서로를 알기에는 헤어지기 직전이 가장 좋아. 나는 지난 석 달 내내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봤어, 네 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 기다리는 빛이 있었는데, 나는 바로 그걸 참지 못해서, 너한테 다가가지 않았어.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너를 존경하게 됐어, 이 꼬마가 굳건하게 서 있구나, 하고. 알아 둬, 나는 지금 웃고 있지만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너는 굳건하게 서 있잖아, 그렇지? 나는 그렇게 굳건한 사람들을 좋아해, 그 사람들이 무엇 위에 서 있든, 너처럼 이렇게 작은 꼬마라 해도 말이야. 무언가 기다리는 네 눈길이 끝에 가서는 전혀 싫지 않게 됐어, 오히려 나는 마침내 무언가 기다리는 네 눈길을 사랑하게 됐어…… 너는 웬일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알료샤?"

"사랑해, 이반. 드미트리 형은 형을 두고 이반은 무덤이라고 해. 나는 형을 두고 이반은 수수께끼라고 해. 형은 지금도 나한테 수수께끼야. 그렇지만 나는 형한테서 벌써 무언가를 깨달았어. 그것도 오늘 아침부터야!"

"그게 뭔데?" 이반이 웃었다.

"화내지 않을 거야?" 알료샤도 웃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도 다른 스물세 살 젊은이들하고 꼭 똑같은 젊은이라는 거야. 똑같이 젊고, 앳되고, 싱싱하고, 멋진 소년, 그래, 결국 부리가 노란 애송이 소년이라는 거야! 어때, 너무 기분 상했어?"

"오히려 기막히게 들어맞아서 깜짝 놀랐어!" 이반이 즐겁고 뜨겁게 외쳤다. "믿을 수 있겠어, 아까 그 여자 집에서 우리가 만나고 나서 나는 속으로 줄곧 그것만, 내가 스물세 살 부리 노란 애송이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네가 갑자기 꼭 알아맞힌 듯이 바로 그 얘기부터 꺼내는 거야. 나는 방금 여기 앉아서 나 자신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내가 삶을 믿지 않는다 해도, 소중한 여자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 해도, 사물의 질서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 해도, 오히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저주받은, 어쩌면 악마 같은 혼돈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해도, 인간이 겪는 환멸의 온갖 끔찍한 일이 나를 덮친다 해도, 그래도 나는 살고 싶을 테고, 일단 이 잔에 입을 댄 이상 다 마셔 버릴 때까지는 입을 떼지 않을 거라고! 하기야 서른 살쯤 되면 아마 다 마시지 않았더라도 잔을 내던지고 떠나겠지…… 어디로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내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는, 이건 똑똑히 알아, 내 젊음이 모든 걸 이길 거야, 온갖 환멸도, 삶에 대한 온갖 혐오도. 나는 몇 번이고 나 자신한테 물었어, 내 안에 있는 이 미친 듯한, 어쩌면 점잖지 못한 삶에 대한 갈증을 이길 만한 절망이 세상에 있을까 하고. 그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서른 살까지는 말이야, 그다음에는 나 스스로 바라지 않게 될 것 같아. 이 삶에 대한 갈증을 어떤 폐병쟁이 코흘리개 도덕가들은 비열하다고들 하지, 특히 시인들이. 이건 어느 정도는 카라마조프의 특성이야, 그건 맞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고 싶은 이 갈증 말이야, 너한테도 틀림없이 들어 있어, 그런데 그게 왜 비열해? 우리 행성에는 아직도 구심력이 지독하게 많아, 알료샤. 살고 싶어서 나는 살아, 설령 논리를 거슬러서라도. 내가 사물의 질서를 믿지 않는다 해도, 나한테는 봄에 피어나는 끈적끈적한 새잎이 소중하고, 파란 하늘이 소중하고, 어떤 사람이 소중해, 믿겠어, 가끔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리고 인간이 이룬 어떤 위업이 소중해, 어쩌면 오래전에 믿지 않게 됐는데도 옛 기억 때문에 그래도 마음으로 우러르는 위업 말이야. 자, 생선국이 나왔으니 맛있게 먹어. 생선국이 훌륭해, 여기 요리를 잘해. 나는 유럽에 다녀오고 싶어, 알료샤, 여기서 곧장 떠날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그저 묘지일 뿐이라는 걸 나는 알지만, 더없이, 더없이 소중한 묘지야, 바로 그거야! 거기에는 소중한 망자들이 누워 있고, 그 위의 돌 하나하나가 그토록 뜨거웠던 지난 삶을, 자기의 위업과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싸움과 자기의 학문을 향한 그토록 열렬한 믿음을 말해 주고 있어서, 나는 미리 알지만, 땅에 엎드려 그 돌들에 입을 맞추고 그 위에서 울 거야,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묘지가 되었을 뿐 그 이상은 결코 아니라는 걸 온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나는 절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행복해서 울 거야. 내 감격에 내가 취하는 거지. 끈적끈적한 봄의 새잎을, 파란 하늘을 나는 사랑해, 바로 그거야! 여기에는 지성도 없고 논리도 없어, 여기서는 뱃속으로, 창자로 사랑하는 거야, 자기의 첫 젊은 힘을 사랑하는 거야…… 내 허튼소리를 조금이라도 알아듣겠어, 알료시카, 못 알아듣겠어?" 이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잘 알아듣겠어, 이반. 뱃속으로, 창자로 사랑하고 싶다니, 정말 멋지게 말했어. 형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니 나는 지독하게 기뻐."

알료샤가 외쳤다. "나는 누구나 세상에서 무엇보다 먼저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삶의 의미보다 삶을 더 사랑하라고?"

"꼭 그래야 해. 형 말대로 논리보다 먼저 사랑하는 거야. 꼭 논리보다 먼저여야 해. 그래야만 의미도 알게 될 거야.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어. 형 일의 절반은 이루어졌어, 이반. 형은 얻었어. 형은 사는 걸 사랑해. 이제 형은 나머지 절반을 위해 애쓰면 돼. 그러면 형은 구원받아."

"벌써 구원해 주시는군. 나는 어쩌면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나머지 절반이라는 건 뭐야?"

"형의 망자들을 되살리는 거야. 어쩌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망자들을. 자, 차 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니 기뻐, 이반."

"보아하니 너는 무슨 영감에 차 있구나. 나는 이런 수련 수사들이 하는 이런 신앙 고백(professions de foi)을 지독하게 좋아해. 너는 굳건한 사람이야, 알렉세이. 수도원에서 나오려 한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우리 장로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

"그럼 세상에서 또 보겠구나. 서른 살 전에, 내가 잔에서 입을 떼기 시작할 무렵에 만나겠지. 아버지는 일흔 살까지는 자기 잔에서 입을 떼려 하지 않아. 여든 살까지라고도 꿈을 꿔. 직접 그렇게 말했어. 그 양반한테 이건 너무나 진지한 일이야. 어릿광대이긴 하지만. 자기 호색 위에 섰어. 그것도 꼭 반석 위에 선 것처럼…… 하기야 서른 살이 넘으면 사실 그것 말고는 딛고 설 것이 아마 없겠지…… 그렇지만 일흔까지는 비열해. 서른까지가 나아. 자기를 속이면서 '고결함의 기미'를 지킬 수 있으니까. 오늘 드미트리를 못 봤어?"

"응, 못 봤어. 그런데 스메르댜코프를 봤어." 그러고는 알료샤는 스메르댜코프와 만난 일을 서둘러, 그러나 자세하게 형에게 이야기했다.

이반은 갑자기 몹시 근심스러운 얼굴로 듣기 시작했고, 몇 가지는 되묻기까지 했다.

"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드미트리 형에 대해 한 말을 형한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 알료샤가 덧붙였다.

이반은 얼굴을 찌푸리고 생각에 잠겼다.

"스메르댜코프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거야?" 알료샤가 물었다.

"그래, 그놈 때문이야. 그놈은 악마한테나 가라지. 드미트리는 정말 만나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 이반이 마지못해 말했다.

"형은 정말 그렇게 빨리 떠나, 형?"

"그래."

"그럼 드미트리 형하고 아버지는? 그 사람들 일은 어떻게 끝날까?" 알료샤가 불안하게 말했다.

"너는 또 그 지긋지긋한 소리구나! 내가 여기서 뭘 어쩌겠어? 내가 내 형 드미트리를 지키는 자란 말이야?" 이반은 짜증스럽게 잘라 말하려다가 갑자기 어딘지 씁쓸하게 웃었다. "죽인 아우를 두고 가인이 하느님께 한 대답이지, 응?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너는 그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렇지만 젠장, 정말로 내가 여기 그 사람들 곁에 파수꾼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 볼일을 마쳤으니 떠나는 거야. 설마 내가 드미트리를 질투한다고, 지난 석 달 내내 그 녀석의 미인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가로채려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젠장, 나는 내 볼일이 있었어. 볼일을 마쳤으니 떠나는 거야. 볼일은 아까 마쳤어. 네가 증인이었잖아."

"아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집에서 말이야?"

"그래, 그 여자 집에서. 단번에 풀려났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드미트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드미트리는 여기에 아무 관계도 없어. 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하고 내 일만 있었을 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오히려 드미트리는 꼭 나하고 짜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어. 나는 그 녀석한테 조금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 녀석이 제 발로 그 여자를 엄숙하게 나한테 넘겨주고 축복까지 했어. 이건 다 웃음거리야. 아니야, 알료샤,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네가 안다면! 나는 여기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믿겠어? 내 자유의 첫 시간을 축하하려고 샴페인을 시킬까 했어. 퉤, 거의 반년이었는데, 갑자기 단번에, 모든 걸 단번에 벗어 던졌어. 그래, 마음만 먹으면 이걸 끝내는 데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는 걸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짐작이라도 했던가!"

"형은 형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반?"

"사랑이라고 하고 싶으면 사랑이라고 해. 그래, 나는 아가씨한테, 귀족 여학교를 나온 아가씨한테 반했어. 그 여자 때문에 괴로웠고, 그 여자도 나를 괴롭혔어. 그 여자 곁을 지키고 앉아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날아가 버렸어. 아까는 영감에 차서 말했는데, 밖으로 나오자 웃음이 터졌어. 믿을 수 있겠어? 아니, 나는 말 그대로 하는 말이야."

"형은 지금도 그 얘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네." 알료샤가 정말로 갑자기 밝아진 형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한마디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헤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 여자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들었는데! 아까 내가 연설을 늘어놓을 때도 그 여자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있잖아, 지금도 지독하게 마음에 들어. 그런데도 그 여자를 두고 떠나기가 이렇게 쉬워. 내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해?"

"아니. 다만 그건 어쩌면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알료시카." 이반이 웃었다. "사랑에 대해 따지려 들지 마!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아까, 아까 네가 불쑥 끼어들었지, 아이고! 나는 그 일로

너한테 입을 맞춰 주는 것도 잊었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참말이지 나는 파열 곁에 앉아 있었어. 오, 그 여자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그 여자는 드미트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했어." 이반이 즐겁게 우겼다. "드미트리는 파열일 뿐이야. 내가 아까 그 여자한테 한 말은 모두 참된 진실이야.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자기는 드미트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괴롭히는 나만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데 어쩌면 열다섯 해나 스무 해가 걸릴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 어쩌면 오늘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끝내 깨닫지 못할 거야. 그래, 그편이 더 나아. 일어나서 영원히 떠나 버렸으니까. 그건 그렇고, 그 여자는 지금 어때? 내가 나간 뒤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알료샤는 히스테리 이야기를 해 주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지금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흘라코바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아닌 것 같아."

"알아봐야겠군. 하기야 히스테리로 죽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 히스테리면 어때, 하느님이 여자를 사랑하셔서 히스테리를 보내 주신 거야. 나는 거기 아예 안 갈 거야. 뭣 하러 또 끼어들어."

"그런데 형은 아까 그분한테 그분이 형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건 일부러 그런 거야. 알료시카, 샴페인을 시킬까. 내 자유를 위해 마시자. 아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네가 안다면!"

"아니야, 형, 마시지 않는 게 좋겠어." 알료샤가 갑자기 말했다. "게다가 나는 어쩐지 슬퍼."

"그래, 너는 오래전부터 슬퍼해. 나는 오래전부터 그걸 봤어."

"그럼 형은 내일 아침에 꼭 떠나?"

"아침에? 아침이라고는 안 했는데…… 하기야 어쩌면 아침일지도 몰라. 믿겠어? 나는 오늘 오직 그 영감하고 점심을 먹지 않으려고 여기서 점심을 먹었어. 그만큼 그 영감이 역겨워졌어. 그 영감 하나 때문에라도 나는 벌써 떠났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떠나는 걸 왜 그렇게 걱정해. 너하고 나한테는 떠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느님만 알아. 시간이 영원만큼 남았어, 불멸만큼이야!"

"형이 내일 떠나는데 무슨 영원이야?"

"그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반이 웃었다.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인 우리 이야기는 어쨌든 다 나눌 수 있잖아. 왜 그렇게 놀라서 쳐다봐? 대답해 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만났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영감하고 드미트리 이야기를 하려고? 외국 이야기를 하려고? 러시아의 숙명적인 처지를 이야기하려고? 나폴레옹 황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이야?"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야."

"그럼 무엇 때문인지 너도 알겠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일이 있지만, 우리 같은 부리 노란 애송이들한테는 다른 일이 있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영원 전부터의 물음들을 풀어야 해. 그게 우리 걱정거리야. 젊은 러시아는 온통 지금 영원한 물음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 하필 지금, 늙은이들이 갑자기 모두 실제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한 때에 말이야. 너는 무엇 때문에 석 달 내내 무언가를 기다리며 나를 쳐다봤어? '그대는 어찌 믿느뇨, 아니면 아예 믿지 아니하느뇨?' 하고 나를 캐물으려고 그런 거지. 석 달 동안의 당신 눈길은 결국 그리로 모아졌던 거지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셈이야." 알료샤가 미소 지었다. "형은 지금 나를 놀리는 건 아니지, 형?"

"내가 놀린다고? 석 달 동안 그렇게 무언가를 기다리며 나를 쳐다본 내 동생을 나는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알료샤, 똑바로 봐. 나도 수련 수사가 아니라는 것만 빼면 너하고 꼭 같은 꼬마야. 러시아 소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들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어떤 소년들 말이야. 이를테면 여기 이 냄새나는 선술집에서 만나 구석에 틀어박혀 앉아. 전에는 평생 서로 몰랐고, 선술집을 나가면 또 마흔 해 동안 서로 모를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때, 선술집에서 잠깐 틈을 얻은 동안 그 사람들이 무엇을 논하겠어? 세계의 물음들이지, 다른 게 아니야. 신은 있는가, 불멸은 있는가? 신을 믿지 않는 소년들은 사회주의니 무정부주의니, 온 인류를 새 규정에 따라 뜯어고치는 일이니 하는 이야기를 꺼내겠지. 그런데 그래 봐야 결국 같은 악마가 나와. 다 같은 물음이고, 다만 다른 끝에서 시작할 뿐이야. 그리고 수많은, 수많은 가장 독창적인 러시아 소년들이 우리 시대에 영원한 물음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그래, 참된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신이 있는가, 불멸이 있는가 하는 물음이, 또는 형 말대로 다른 끝에서 시작하는 물음이 물론 첫째가는 물음이고 무엇보다 먼저야. 또 그래야 마땅해." 알료샤가 여전히 조용하고 무언가를 살피는 미소를 띤 채 형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알료샤, 러시아 사람이라는 건 가끔 전혀 영리한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요즘 러시아 소년들이 매달리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러시아 소년 하나, 알료시카를 지독하게 사랑해."

"참 멋지게도 끌어갔네." 알료샤가 갑자기 웃었다.

"자, 말해 봐. 무엇부터 시작할까, 네가 정해. 신부터? 신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부터?"

"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다른 끝'에서라도. 형은 어제 아버지 집에서 신은 없다고 선언했잖아." 알료샤가 캐묻듯이 형을 바라보았다.

"어제 영감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는 일부러 그걸로 너를 약 올린 거야. 네 눈이 반짝 불타오르는 걸 봤지. 그렇지만 지금은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이건 아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나는 너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알료샤. 나한테는 친구가 없으니까, 한번 해 보고 싶어. 자, 상상해 봐. 어쩌면 나도 신을 받아들이는지 몰라." 이반이 웃었다. "너한테는 뜻밖이지, 응?"

"응, 물론이지. 형이 지금도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면."

"'농담'이라. 어제 장로 곁에서 사람들이 내가 농담을 한다고 했지. 봐, 친구야, 18세기에 늙은 죄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이 없다면 신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s'il n'existait pas Dieu il faudrait l'inventer). 그리고 정말로 인간은 신을 만들어 냈어. 그런데 이상한 건, 놀라운 건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그런 생각이,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인간처럼 그렇게 사납고 사악한 짐승의 머리에 기어들 수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그 생각은 거룩하고, 그만큼 감동적이고,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인간을 영예롭게 해. 나로 말하자면, 인간이 신을 지었느냐, 신이 인간을 지었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오래전에 정했어. 물론 나는 거기에 대해 러시아 소년들이 내세우는 요즘의 온갖 공리를, 하나같이 유럽의 가설에서 끌어낸 그 공리들을 일일이 늘어놓지는 않을 거야, 거기서 가설인 것이 러시아 소년한테 오면 곧바로 공리가 되거든, 소년들뿐 아니라 어쩌면 그 소년들의 교수들한테도 그래, 러시아 교수들도 요즘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자주 똑같은 러시아 소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설은 모두 비켜 가겠어. 지금 너하고 나한테 무슨 과제가 있지? 과제는 내가 되도록 빨리 너한테 내 본질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는지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선언하는데, 나는 신을 곧바로, 그리고 단순하게 받아들여. 그렇지만 짚어 둘 게

있는데, 신이 있고 신이 정말로 땅을 창조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신은 땅을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라 창조했고, 인간의 지성은 공간의 3차원밖에 모르게 창조했어. 그런데 기하학자와 철학자 가운데 우주 전체가, 아니 더 넓게 말해 모든 존재가 오직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라서만 창조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 그것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클리드에 따르면 땅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 두 개가 어쩌면 무한 속 어딘가에서는 만날지도 모른다고 감히 꿈꾸기까지 해. 친구야,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나는 그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데 신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나한테는 그런 물음을 풀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겸손하게 고백해, 내 지성은 유클리드적이고 땅에 속한 지성이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 너한테도 그런 건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어, 내 친구 알료샤, 무엇보다 신에 대해서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런 건 모두 오직 3차원만 알도록 창조된 지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물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신을 받아들여, 기꺼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으로도 모자라 우리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의 지혜도, 신의 목적도 받아들여, 질서를 믿고 삶의 의미를 믿어, 우리가 모두 그 안에서 하나로 녹아든다는 영원한 조화를 믿어, 우주가 지향하는 말씀을, 스스로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스스로 하느님이신 그 말씀을 믿어, 그리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렇게 끝없이. 이 일에 관해서는 말이 참 많이도 지어졌지. 이제 내가 좋은 길에 들어선 것 같지, 응? 그런데 상상해 봐, 마지막 결론에서 나는 이 하느님의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세상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신이 아니야, 이걸 알아들어야 해, 나는 신이 창조한 세상을, 바로 하느님의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동의할 수도 없어. 한 가지 단서를 달겠는데, 나는 갓난아기처럼 확신해, 고통은 아물고 매끈해질 것이고, 인간의 모순이 빚는 모욕적인 희극은 모두 비참한 신기루처럼, 원자처럼 힘없고 작은 인간의 유클리드적 지성이 지어낸 비열한 꾸며 낸 이야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마침내 세계의 대단원에서, 영원한 조화의 순간에, 무언가 너무나 귀한 것이 일어나고 나타나서, 그것이 모든 마음에 넉넉히 미치고, 모든 분노를 달래고, 사람들의 모든 악행과 그들이 흘린 모든 피를 속죄하기에 넉넉하고,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화하기에도 넉넉하리라고. 그래, 그래, 그 모든 게 그렇게 되고 나타난다 해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설령 평행선이 만나고 내가 그걸 직접 본다 해도, 나는 보고 나서 만났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게 내 본질이야, 알료샤, 이게 내 명제야. 이건 진지하게 너한테 털어놓은 거야. 나는 일부러 너하고의 이 이야기를 더 어리석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게 시작했지만, 내 고백에 이르기까지 끌고 왔어,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것뿐이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형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는 것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말했어."

이반은 갑자기 무언가 각별하고 뜻밖의 감정을 담아 긴 열변을 맺었다.

"그런데 왜 '더 어리석을 수 없을 만큼' 시작했어?" 알료샤가 생각에 잠겨 형을 바라보며 물었다.

"첫째로는 러시아식 습관을 살리려고 그랬지. 이런 주제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대화는 모두 더 어리석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게 흘러가거든. 그리고 둘째로는 다시 말하지만, 어리석을수록 핵심에 가까워. 어리석을수록 더 분명해져. 어리석음은 짧고 꾀가 없지만,

지성은 이리저리 빠지고 숨어. 지성은 비열한 놈이고, 어리석음은 곧고 정직해. 나는 이야기를 내 절망까지 끌고 왔는데, 그걸 어리석게 내보일수록 나한테는 더 이로워."

"형은 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나한테 설명해 줄 거지?" 알료샤가 말했다.

"물론이지, 설명해 줄게. 비밀도 아니고, 바로 그걸 말하려고 끌고 온 거야. 내 동생아, 나는 너를 타락시키거나 네가 딛고 선 바탕에서 너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야. 나는 어쩌면 너로 나 자신을 고치고 싶은지도 몰라." 이반이 갑자기 꼭 어린 순한 소년처럼 미소를 지었다. 알료샤는 형에게서 그런 미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제4장 반역

"너한테 털어놓을 게 하나 있어." 이반이 말을 꺼냈다. "나는 어떻게 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한 번도 이해할 수 없었어. 내 생각에는 바로 이웃이야말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있다면 기껏해야 먼 사람들이야. 언젠가 어디선가 '자비로운 요한'(어떤 성인이야)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굶주리고 꽁꽁 언 나그네가 찾아와 몸을 녹이게 해 달라고 하자, 그 성인은 그 나그네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 그를 껴안고, 무슨 끔찍한 병 때문에 고름이 흐르고 악취가 나는 그의 입에 대고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대. 나는 그 성인이 거짓의 파열로, 의무가 시킨 사랑 때문에, 스스로 뒤집어쓴 참회의 고행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확신해.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숨어 있어야 해. 그 사람이 얼굴을 내밀기만 하면 사랑은 사라져 버려."

"그 이야기는 조시마 장로님이 여러 번 하셨어." 알료샤가 한마디 했다. "장로님도 사람의 얼굴이 사랑에 아직 서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방해할 때가 많다고 하셨어. 그렇지만 인류 안에는 사랑도 많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의 닮은 사랑도. 그건 내가 직접 알아, 이반……"

"그래, 나는 아직 그걸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나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래. 문제는 이게 사람들의 나쁜 자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래서 나오느냐 하는 거야. 내 생각에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나름으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기적이야. 사실 그는 신이었어. 그렇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야. 이를테면

내가 깊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쳐도,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결코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내가 아니니까, 게다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 좀처럼 동의하지 않아(마치 그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동의하지 않을까, 네 생각엔 어때? 이를테면 나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내 얼굴이 멍청해서, 내가 언젠가 한 번 그 사람 발을 밟아서 그러는 거야. 게다가 고통에도 고통 나름이 있어. 나를 비굴하게 하는 굴욕적인 고통, 이를테면 굶주림 같은 건 내 은인도 내게 허락해 주겠지만, 조금 더 높은 고통, 이를테면 사상을 위한 고통이라면, 아니야, 은인은 그걸 아주 드문 경우에나 허락할 거야. 이를테면 은인이 나를 보다가, 그런저런 사상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그의 공상으로는 마땅히 이런 얼굴이어야 할 텐데 내 얼굴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갑자기 알아차리거든. 그러면 은인은 곧바로 나한테서 자기 은혜를 거두어 버리는데, 그것도 전혀 나쁜 마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야. 거지들은, 특히 점잖은 거지들은 바깥에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신문을 통해 동냥을 청해야 할 거야. 추상적으로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끔은 멀리서도 사랑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는 거의 결코 사랑할 수 없어. 모든 게 무대 위에서처럼, 발레에서처럼 된다면, 거지들이 나올 때 비단 누더기와 찢어진 레이스를 걸치고 나와서 우아하게 춤을 추며 동냥을 청한다면, 그럼 그때는 아직 그들을 넋 놓고 바라볼 수는 있겠지. 넋 놓고 바라볼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 얘기는 이만하자. 나는 그저 너를 내 관점에 세워 놓아야 했을 뿐이야. 나는 인류의 고통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보다는 아이들의 고통 하나에만 머무르는 게 낫겠어. 그러면 내 논증의 크기가 열 배쯤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만 하는 게 낫겠어. 그만큼 나한테는 물론 불리하지. 그렇지만 첫째로, 아이들은 가까이서도 사랑할 수 있어, 더러워도, 얼굴이

못생겼어도(그런데 나는 아이들이 얼굴이 못생긴 일은 결코 없는 것 같아). 둘째로, 내가 어른들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건, 어른들이 역겹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 말고도, 그들한테는 응보도 있기 때문이야. 그들은 사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신들과 같이' 되었어. 지금도 계속 그걸 먹고 있어.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직 아무 죄도 없어. 너는 아이들을 사랑해, 알료샤?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 내가 왜 지금 아이들 이야기만 하려는지 너는 알아들을 거야. 아이들도 이 땅에서 지독하게 고통받는다면, 그건 물론 제 아비들 때문이고, 사과를 먹은 제 아비들 대신 벌을 받는 거겠지만, 그건 다른 세상의 논리이고, 이 땅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어. 죄 없는 자가 남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돼, 그것도 그렇게 죄 없는 자가! 나를 보고 놀라 봐, 알료샤, 나도 아이들을 지독하게 사랑해. 그리고 알아 둬, 잔인한 사람들, 정열적이고 육욕에 굶주린 사람들, 카라마조프 같은 인간들이 가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해. 아이들은 아이인 동안에는, 이를테면 일곱 살까지는 사람들과 무섭게 동떨어져 있어, 꼭 전혀 다른 존재, 다른 본성을 지닌 존재 같아. 나는 감옥에 있는 강도를 하나 알았는데, 그자는 한창 그 짓을 할 때 밤마다 도둑질하러 숨어든 집에서 온 식구를 몰살하면서 아이도 몇 명 함께 찔러 죽인 적이 있었어. 그런데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그자는 이상하리만큼 아이들을 사랑했어. 감옥 창문에서 그자는 감옥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어. 어린 사내아이 하나를 길들여 자기 창문 밑으로 오게 했는데, 그 애는 그자하고 아주 친해졌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다 하는지 모르겠지, 알료샤? 나는 어쩐지 머리가 아프고 슬퍼."

"형은 이상한 얼굴로 말하고 있어." 알료샤가 불안하게 한마디 했다. "꼭 무슨 광기에 빠진 사람 같아."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서 어떤 불가리아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 이반 표도로비치는 동생의 말을 듣지도 않는 듯 말을 이었다. "자기네 불가리아에서 튀르크 놈들과 체르케스 놈들이 슬라브인들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곳곳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칼로 베고, 여자와 아이를 겁탈하고, 죄수들의 귀를 울타리에 못으로 박아 아침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목을 매달고, 그 밖에도 그래, 다 상상할 수도 없어. 정말이지 사람들은 가끔 인간의 '짐승 같은' 잔인함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짐승한테 끔찍하게 부당하고 모욕적인 말이야. 짐승은 결코 인간만큼 잔인할 수 없어. 인간처럼 그렇게 기교를 부려, 그렇게 예술적으로 잔인할 수는 없어. 호랑이는 그저 물어뜯고 찢을 뿐이고 그것밖에 할 줄 몰라. 설령 할 수 있다 해도 사람의 귀를 밤새 못으로 박아 두겠다는 생각은 호랑이 머리에 들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이 튀르크 놈들은 아이들까지도 호색에 차서 괴롭혔어. 단검으로 어미 배 속에서 아기를 도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젖먹이를 위로 던져 올렸다가 어미들 눈앞에서 총검으로 받아 꿰는 것까지. 어미들 눈앞에서라는 게 바로 가장 큰 단맛이었어. 그런데 나한테 몹시 흥미로웠던 장면이 하나 있어. 상상해 봐. 벌벌 떠는 어미 품에 젖먹이 아기가 안겨 있고, 둘레에 튀르크 놈들이 들어와 있어. 놈들한테 즐거운 장난이 하나 떠올랐어. 놈들은 아기를 어르고, 아기를 웃기려고 웃어 줘. 그게 성공해서 아기가 웃음을 터뜨려. 그 순간 튀르크 놈 하나가 아기 얼굴에서 4베르쇼크[1] 떨어진 곳에서 아기한테 권총을 겨눠. 사내아기는 기뻐서 깔깔 웃으며 권총을 잡으려고 작은 손을 뻗어. 그러자 갑자기 그 예술가가 아기 얼굴에 대고 곧장 방아쇠를 당겨 작은 머리를 박살 내. 예술적이지, 안 그래? 그건 그렇고, 튀르크 놈들은 단것을 무척 좋아한다더라."

"형,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알료샤가 물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악마를 지어냈다면, 인간은 악마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거야."

"그렇다면 신도 마찬가지겠지."

"너는 놀랍게도 말을 뒤집을 줄 아는구나. 『햄릿』의 폴로니어스 말마따나." 이반이 웃었다. "너는 내 말꼬리를 잡았어, 좋아, 나는 기뻐. 인간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면 네 신도 참 훌륭하겠구나. 너는 방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다 하는지 물었는데, 있잖아, 나는 어떤 자잘한 사실들을 좋아하고 모으는 사람이라서, 믿겠어? 신문에서, 남들 이야기에서, 아무 데서나 그런 종류의 일화들을 적어 두고 모으는데, 벌써 꽤 훌륭한 수집품이 됐어. 튀르크 놈들도 물론 수집품에 들어갔지만, 그건 다 외국 놈들이야. 나한테는 우리 고장 물건도 있고, 튀르크 놈들 것보다 더 나은 것까지 있지. 있잖아, 우리한테는 매질이 더 많아, 회초리와 채찍이 더 많아, 그리고 그건 민족적이야. 우리 나라에서 귀를 못으로 박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래도 유럽 사람이지만, 회초리, 채찍은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한테서 빼앗아 갈 수 없어. 외국에서는 지금, 풍속이 깨끗해졌는지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감히 매질할 수 없게끔 법이 그렇게 마련되었는지 몰라도, 마치 전혀 매질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대신 그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벌충을 했는데, 그것 역시 우리처럼 순전히 민족적이고, 어찌나 민족적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야. 하기야 특히 우리 상류 사회에 종교 운동이 일어난 뒤로 우리 나라에도 뿌리를 내리는 것 같긴 해. 나한테 프랑스어에서 옮긴 아주 멋진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제네바에서 아주 최근에, 겨우 다섯 해쯤 전에 리샤르라는 악당이자 살인자를 처형한 이야기인데, 스물세 살쯤 되는 녀석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처형대 앞에서 뉘우치고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섰어. 이 리샤르는 누군가의 사생아였는데, 부모가 아직 여섯 살쯤 된 어린 그를 스위스

산골의 어떤 양치기들한테 선물로 줘 버렸고, 양치기들은 그를 일꾼으로 부리려고 키웠어. 그는 그 사람들 손에서 들짐승 새끼처럼 자랐고, 양치기들은 그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일곱 살 때부터 벌써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이나 거의 옷도 입히지 않고 거의 먹이지도 않은 채 가축 떼를 치러 내보냈어.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생각에 잠기거나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한테 온전한 권리가 있다고 여겼는데, 리샤르는 물건처럼 그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어졌고 그 사람들은 그를 먹여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야. 리샤르 자신이 증언하기를, 그 시절 그는 복음서의 탕자처럼 팔려고 살찌우는 돼지들한테 주던 그 죽 같은 먹이라도 먹고 싶어서 지독하게 애가 탔지만, 사람들은 그것조차 주지 않았고, 그가 돼지들한테서 먹이를 훔치면 때렸다는데, 그렇게 그는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내다가, 마침내 자라서 기운이 세지자 제 발로 도둑질을 하러 나섰어. 그 야만인은 제네바에서 날품을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고, 번 돈은 술로 마셔 없애고, 괴물처럼 살다가, 끝내 어떤 노인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았어. 그는 붙잡혀 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 거기서는 감상 따위는 부리지 않거든. 그런데 감옥에서 곧바로 목사들과 온갖 그리스도 형제회 회원들과 자선가 부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그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복음서를 풀이해 주기 시작했고, 양심에 호소하고, 설득하고, 몰아붙이고, 들볶고, 짓눌렀고, 그러자 마침내 그는 스스로 엄숙하게 자기 범죄를 자백해. 그는 회개했고, 자기는 괴물인데 마침내 주님께서 자기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는 영광을 입었다고 법정에 직접 편지를 썼어. 제네바가 온통, 자선을 베풀고 신앙심 깊은 제네바가 온통 들썩였어. 지체 높고 교양 있는 것은 모두 감옥으로 그에게 몰려갔고, 사람들은 리샤르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껴안아. '너는 우리 형제다, 너에게 은총이 내렸다!' 그러면 리샤르는 그저 감격해서 울어. '네, 저에게 은총이 내렸습니다! 전에는 어린 시절 내내, 젊은 시절 내내 돼지 먹이라도 감지덕지했는데, 이제 저에게도 은총이 내렸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 그래, 리샤르, 주 안에서 죽어라. 너는 피를 흘렸으니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 네가 돼지 먹이를 부러워할 때, 돼지한테서 먹이를 훔쳤다고(훔치는 건 허용되지 않으니 너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다) 너를 때릴 때, 네가 주님을 전혀 몰랐던 것은 네 죄가 아니라 해도, 너는 피를 흘렸으니 죽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이 와. 기운이 다 빠진 리샤르는 울면서 그저 시시각각 같은 말만 되풀이해. '오늘이 제 생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저는 주님께 갑니다!' '그래.' 목사들과 재판관들과 자선가 부인들이 외쳐. '오늘이 너의 가장 행복한 날이다. 너는 주님께 가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리샤르를 싣고 가는 치욕의 수레를 따라 마차를 타고, 걸어서 처형대로 움직여. 마침내 처형대에 이르렀어. '죽어라, 우리 형제여.' 사람들이 리샤르에게 외쳐. '주 안에서 죽어라, 너에게도 은총이 내렸으니!' 그리고 형제들의 입맞춤을 뒤집어쓴 형제 리샤르를 처형대로 끌어 올려 단두대에 눕히고는, 그에게도 은총이 내렸다는 이유로 형제답게 머리를 기어이 싹둑 잘라 버렸어. 아니야, 이건 특징적이야. 이 소책자는 상류 사회의 루터교에 물든 어떤 러시아 자선가들이 러시아어로 옮겨서 러시아 백성을 계몽하려고 신문이나 다른 간행물에 끼워 공짜로 돌렸어. 리샤르 이야기가 훌륭한 건 그게 민족적이기 때문이야. 우리 나라에서는 그저 우리 형제가 되었다고, 그에게 은총이 내렸다고 형제의 목을 자르는 게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것보다 거의 못하지 않은 우리 것이 있어. 우리한테는 매질로 고문하는 역사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장 가까운 쾌락이 있어. 네크라소프의 시에 농군이 말의 눈을, '온순한 눈을' 채찍으로 후려치는

대목이 있어. 그걸 누가 못 봤겠어, 그건 러시아다운 거야. 시인은 짐을 너무 많이 실은 힘없는 말이 짐수레와 함께 수렁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 농군은 말을 때려, 미친 듯이 때리고, 마침내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때리고, 매질에 취해서 아프게, 수도 없이 후려쳐. '힘에 부쳐도 끌어라, 죽더라도 끌어라!' 늙은 말은 몸부림치고, 그러자 농군은 아무 방어도 못 하는 말을, 우는 눈을, '온순한 눈을' 후려치기 시작해. 말은 넋이 나가서 홱 잡아당겨 수레를 빼내고는, 온몸을 떨며, 숨도 쉬지 못하고, 어딘지 옆으로 비틀비틀, 어딘지 깡충깡충 뛰듯이, 어딘지 부자연스럽고 수치스럽게 걸어가는데, 네크라소프의 그 대목은 끔찍해. 그렇지만 그건 고작 말일 뿐이고, 말은 하느님이 몸소 때리라고 주신 거니까. 타타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깨우쳐 주고 기념으로 채찍까지 선물했지. 그런데 사람도 때릴 수 있잖아. 그래서 지성 있고 교양 있는 신사와 그 부인이 자기 친딸을, 일곱 살 어린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는데, 이건 내가 자세하게 적어 두었어. 아빠는 회초리에 옹이가 붙어 있어서 기뻐하며 '더 따끔할 거다' 하고 말하고는 친딸한테 '따끔하게 먹이기' 시작해. 나는 확실히 아는데, 때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대 칠 때마다 달아올라서 호색에 이르는, 말 그대로 호색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 한 대 한 대 칠수록 점점 더, 점점 더 나아가. 1분을 때리고, 마침내 5분을 때리고, 10분을 때려, 더 오래, 더 많이, 더 자주, 더 따끔하게. 아이는 비명을 지르다가, 마침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숨이 막혀. '아빠, 아빠, 아빠, 우리 아빠!' 이 일이 무슨 빌어먹을 망측한 우연으로 재판까지 가. 변호사를 사. 러시아 백성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 변호사를 '벤호사, 곧 돈으로 산 양심'이라고 불렀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느라 소리를 질러. '이 사건은 이를테면 아주 단순하고 집안의, 흔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좀 때렸는데, 우리 시대의 수치로 그것이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설득당한 배심원들은 물러갔다가 무죄 평결을 내려. 방청객들은 고문한 놈이 무죄가 되어 행복에 겨워 고함을 질러. 에이, 내가 거기 없었다니, 있었다면 그 고문한 놈의 이름을 기려 장학금을 만들자고 고함을 질렀을 텐데! 멋진 장면들이지. 그렇지만 아이들 이야기라면 나한테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 나는 러시아 아이들 이야기를 아주, 아주 많이 모았거든, 알료샤. 어린 계집아이를, 다섯 살짜리 계집아이를 '더없이 존경받는 관리들이고, 교양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워하게 됐어. 봐, 나는 다시 한 번 단언하는데,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한테는 특별한 성질이, 아이들을, 그것도 아이들만 고문하는 걸 사랑하는 성질이 있어. 인류의 다른 모든 개체한테는 바로 그 고문하는 자들이 교양 있고 인도적인 유럽 사람답게 오히려 너그럽고 온순하게 대하는데, 아이들은 괴롭히기를 무척 좋아하고, 그런 뜻에서 아이들 자체를 사랑하기까지 해. 여기서는 바로 그 조그만 생명들이 아무 방어도 못 한다는 게 고문하는 자를 꾀는데,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 아기의 천사 같은 믿음, 바로 그게 고문하는 자의 더러운 피를 달궈. 물론 모든 인간 안에는 짐승이 숨어 있어. 분노의 짐승, 고문당하는 희생자의 비명에 호색으로 달아오르는 짐승, 사슬에서 풀려나 고삐 없는 짐승, 방탕으로 얻은 병들, 통풍, 병든 간 따위의 짐승 말이야. 그 가엾은 다섯 살 계집아이를 그 교양 있는 부모는 온갖 고문에 내맡겼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면서 때리고, 회초리로 갈기고, 발로 걷어차서 아이의 온몸을 멍투성이로 만들었고, 마침내 가장 정교한 데까지 이르렀어. 추운 날, 얼어붙는 날에 아이를 밤새 변소에 가두었고, 아이가 밤에 뒤가 마렵다고 말하지 않았다고(천사처럼 깊은 잠에 빠진 다섯 살 아이가 그 나이에 그런 걸 말할 줄 알게 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벌로 아이의 얼굴에 온통 똥을 바르고 그 똥을 먹게 했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어머니가 먹게 했어!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 더러운

곳에 갇힌 가엾은 아기의 신음이 밤에 들려오는데도 잠을 잘 수 있었어! 너는 이해하겠어,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헤아릴 줄도 모르는 조그만 존재가 그 더러운 곳에서, 어둠과 추위 속에서, 그 조그만 주먹으로 찢어진 가슴을 치며, '하느님'한테 지켜 달라고 피 섞인, 원망할 줄 모르는, 온순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걸, 너는 이 허튼소리를 이해하겠어, 내 친구야, 내 동생아, 하느님의 겸손한 수련 수사야, 너는 이 허튼소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지 이해하겠어! 그게 없으면 인간은 선과 악을 알지 못했을 테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거라고들 하지. 그렇게 큰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 빌어먹을 선과 악은 무엇 때문에 알아야 해? 그렇다면 앎의 세계 전체도 '하느님'한테 흘린 이 아기의 눈물만 한 값어치가 없어. 나는 어른들의 고통은 말하지 않아, 그들은 사과를 먹었으니 악마한테나 가라지, 악마가 그들을 모두 데려가도 좋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내가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알료시카, 너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원하면 그만둘게."

"괜찮아, 나도 괴로워하고 싶어." 알료샤가 중얼거렸다.

"하나만, 딱 하나만 더 들려줄게. 그것도 호기심에서야. 너무나 특징적이거든. 무엇보다 방금 우리 옛일을 모은 어떤 잡지에서 읽었어. 『 문서고 』 였나, 『 옛 시절 』 이었나, 확인해 봐야겠어. 어디서 읽었는지도 잊어버렸어. 그건 농노제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 아직 이 세기 초의 일이었어. 백성의 해방자 만세! 그때, 이 세기 초에 어떤 장군이 있었어. 연줄이 든든한 장군이고 대단한 부자 지주였는데, 관직에서 물러나 쉴 때 자기 신하들의 삶과 죽음을 좌우할 권리를 근무로 얻어 냈다고 거의 확신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류였어(사실 그때도 그런 부류는 이미 아주 드물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장군은 농노 이천 명이 딸린 자기 영지에 살면서

거들먹거리고, 자잘한 이웃 지주들을 제 식객이나 어릿광대처럼 다뤄. 개 사육장에는 개가 수백 마리, 개 치는 사람이 거의 백 명, 모두 제복을 입고 모두 말을 타. 그런데 하인 집 사내아이 하나가, 겨우 여덟 살 된 어린 사내아이가 놀다가 어쩌다 돌을 던져서 장군이 아끼는 사냥개의 다리를 다치게 했어. '내가 아끼는 개가 왜 다리를 저느냐?' 장군에게 보고가 올라가. 바로 이 사내아이가 개한테 돌을 던져 다리를 다치게 했다고. '아, 네놈이구나.' 장군이 아이를 훑어봐. '잡아라!' 사람들이 아이를 잡았어. 어미한테서 잡아 왔어. 아이는 밤새 유치장에 갇혀 있었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장군은 위풍당당하게 사냥을 나서. 말에 오르고, 둘레에는 식객들, 개들, 개 치는 사람들, 몰이꾼들, 모두 말을 탔어. 둘레에는 교훈을 주려고 하인들을 모아 놓았고, 맨 앞에 잘못을 저지른 사내아이의 어미가 있어. 아이를 유치장에서 끌어내. 사냥하기에 그만인, 어둡고 춥고 안개 낀 가을날이야. 장군은 아이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해. 아기를 홀랑 알몸으로 벗겨. 아이는 떨고, 무서워서 넋이 나갔고, 찍소리도 못 해…… '몰아라!' 장군이 명령해. '뛰어, 뛰어!' 개 치는 사람들이 아이에게 소리쳐. 아이가 뛰어…… '쉭, 물어라!' 장군이 울부짖으며 사냥개 떼를 모조리 아이한테 풀어놓아. 어미 눈앞에서 아이를 사냥했고, 개들이 아이를 갈가리 찢어 버렸어!…… 장군은 후견 처분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 그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총살해야 할까? 도덕 감정을 채우려고 총살해야 할까? 말해 봐, 알료시카!"

"총살해야 해!" 알료샤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어딘지 일그러진 창백한 미소를 띠고 형을 향해 눈을 들었다.

"브라보!" 이반이 무슨 환희에 차서 울부짖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이야, 이 스키마 수도사 좀 봐라! 그러니까 네 작은 가슴속에는 이런 꼬마 악마가 들어앉아 있구나, 알료시카 카라마조프!"

"내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어. 그렇지만……"

"바로 그거야, 그 '그렇지만'이……" 이반이 소리쳤다. "알아 둬, 수련수사야, 이 땅에는 터무니없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 세상은 터무니없는 것 위에 서 있어. 그게 없으면 어쩌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걸 알아!"

"형은 뭘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이반은 헛소리를 하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사실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 나는 오래전에 이해하지 않기로 정했어. 무언가를 이해하려 들면 나는 곧바로 사실을 배반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사실 곁에 머물러 있기로 정했어……"

"형은 왜 나를 시험해?" 알료샤가 파열하는 듯 비통하게 외쳤다. "이제는 말해 줄 거야?"

"물론 말해 줄게. 말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너는 나한테 소중해.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고, 네 조시마한테 내주지도 않을 거야."

이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몹시 슬퍼졌다.

"내 말을 들어 봐. 나는 더 분명해지라고 아이들만 골랐어. 땅껍질부터 중심까지 온 땅을 적시고 있는 인간의 다른 눈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어, 나는 일부러 내 주제를 좁혔으니까. 나는 빈대고, 왜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한껏 몸을 낮추어 인정해. 그러니까 사람들 자신이 잘못한 거야, 그들에게는 낙원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자기들이 불행해지리라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하늘에서 불을 훔쳤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 없어. 오, 내 생각으로는, 내 비참하고 땅에 속한 유클리드적 지성으로는, 나는 그저 고통이 있다는 것, 죄 있는 자는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곧바로, 단순하게 나온다는 것, 모든 것이 흘러가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만 알아. 그렇지만 그건 유클리드적인 헛소리일 뿐이고, 나도 그걸 알고, 그 헛소리대로 사는 데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죄 있는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안다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는 응보가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없애 버릴 거야. 그리고 그 응보는 무한 속 어딘가에서, 언젠가가 아니라 여기, 이미 이 땅에서 있어야 하고, 내가 그걸 직접 봐야 해. 나는 믿었고, 나는 직접 보고 싶어, 그때 내가 이미 죽어 있다면 나를 되살려 내야 해, 모든 게 나 없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억울할 테니까. 내가 고통받은 건 나 자신으로, 내 악행과 고통으로 누군가의 미래의 조화에 거름을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 나는 암사슴이 사자 곁에 눕고, 칼에 찔려 죽은 자가 일어나 자기를 죽인 자와 껴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모든 사람이 왜 모든 것이 그러했는지 갑자기 알게 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 바람 위에 세워져 있고, 나는 믿어. 그런데 아이들은, 그때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물음이야. 백 번째로 되풀이하는데, 물음은 수없이 많지만, 나는 아이들만 골랐어, 여기서는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반박할 수 없이 분명하니까. 들어 봐, 모두가 고통으로 영원한 조화를 사들이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면, 거기에 아이들이 왜 끼는지 제발 말해 줘. 왜 아이들까지 고통받아야 했는지, 왜 아이들이 고통으로 조화를 사들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왜 아이들까지 재료가 되어 누군가의 미래의 조화에 제 몸으로 거름을 주었을까? 나는 사람들 사이에 죄의 연대가 있다는 건 이해하고, 응보의 연대도 이해해, 그렇지만 아이들과 죄의 연대라니, 그건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도 제 아비들의 모든 악행에서 아비들과 연대한다는 게 정말로 진리라면, 그 진리는 물론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어떤 익살꾼은 아마 어차피 아이도 자라서 죄를 지을 테니 마찬가지라고 하겠지만, 바로 그 아이는

자라지 못했어, 여덟 살에 개들한테 사냥당했어. 오, 알료샤, 나는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니야! 하늘 위와 땅 아래의 모든 것이 하나의 찬양하는 소리로 녹아들고, 살아 있는 모든 것과 살았던 모든 것이 '주여, 주는 의로우시도다. 주의 길이 드러났음이로다!' 하고 외칠 때 우주가 얼마나 뒤흔들릴지 나도 이해해. 어미가 제 아들을 개들로 갈가리 찢게 한 고문자와 껴안고, 셋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고 외칠 때면, 그때는 물론 앎의 면류관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이 설명될 거야. 그런데 바로 여기가 걸리는 데야, 바로 그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는 서둘러 내 대책을 세우는 거야. 봐, 알료샤,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 내가 그 순간까지 살아 있거나 그 순간을 보려고 되살아난다면, 나 자신도 아마 제 아이를 괴롭힌 자와 껴안은 어미를 바라보며 모두와 함께 '주여,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고 외치겠지만, 나는 그때 외치고 싶지 않아.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나는 서둘러 나를 지키려 하고, 그래서 더 높은 조화를 완전히 거절하는 거야. 그 조화는 고작 그 고문당한 아이 하나의, 조그만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고 악취 나는 개집 같은 곳에서 속죄받지 못한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한테 기도한 바로 그 아이 하나의 눈물 한 방울만한 값어치도 없어! 값어치가 없는 건 그 아이의 눈물이 속죄받지 못한 채 남았기 때문이야. 그 눈물은 속죄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조화도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 눈물을 속죄할 거야? 그게 가능하기나 해? 정말로 그 눈물에 대한 복수로? 그렇지만 나한테 그 복수가 무슨 소용이야, 고문한 자들을 위한 지옥이 무슨 소용이야, 아이들이 이미 고문을 당했는데 지옥이 여기서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어?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 무슨 조화가 있겠어, 나는 용서하고 싶고 껴안고 싶어, 더는 아무도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 그리고 진리를 사들이는 데 필요했던 고통의 총액을 채우는 데 아이들의 고통이

쓰였다면, 나는 미리 단언하는데, 진리 전체도 그만한 값어치는 없어. 결국 나는 어미가 제 아들을 개들로 갈가리 찢게 한 고문자와 껴안기를 바라지 않아! 어미는 감히 그자를 용서해서는 안 돼! 원한다면 자기 몫은 용서하라지, 어미로서 겪은 끝없는 제 고통은 고문자를 용서하라지. 그렇지만 갈가리 찢긴 제 아이의 고통은 용서할 권리가 없고, 설령 아이 자신이 그자를 용서했다 해도, 어미는 감히 고문자를 용서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 그들이 감히 용서할 수 없다면, 조화는 어디 있어? 온 세상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권리가 있는 존재가 있기나 해? 나는 조화를 원하지 않아,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 나는 차라리 복수받지 못한 고통과 함께 남아 있고 싶어. 설령 내가 틀렸다 해도 차라리 복수받지 못한 내 고통과 풀리지 않은 내 분노를 안고 남아 있겠어. 게다가 사람들은 조화에 너무 비싼 값을 매겼고, 들어가는 데 그만큼 치르는 건 우리 주머니 사정에 전혀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서둘러 내 입장권을 돌려주는 거야. 내가 정직한 인간이라면 되도록 미리 돌려주어야 해. 나는 바로 그걸 하고 있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신이 아니야, 알료샤, 나는 그저 그분께 입장권을 더없이 공손하게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그건 반역이야." 알료샤가 눈을 내리깐 채 조용히 말했다.

"반역? 너한테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반이 가슴에 스미는 목소리로 말했다. "반역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살고 싶어. 너 스스로 솔직하게 말해 봐. 너를 부르는 거야, 대답해. 상상해 봐. 네가 직접 인간 운명의 건물을 짓는데, 그 목적은 마지막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피할 수 없이 고작 조그만 생명 하나를, 바로 그 조그만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던 그 아기 하나를 고문해서 죽이고, 복수받지 못한 그 아기의 눈물 위에 이 건물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면,

너는 이런 조건으로 건축가가 되는 데 동의하겠어? 말해 봐, 거짓말하지 말고!"

"아니, 동의하지 않을 거야." 알료샤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위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고문당한 어린 것의 정당화되지 않은 피 위에서 자기들의 행복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고, 받아들인 뒤에 영원히 행복하게 남아 있으리라는 생각을 너는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 받아들일 수 없어. 형." 알료샤가 갑자기 눈을 번득이며 말했다. "형은 방금 온 세상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권리가 있는 존재가 있느냐고 했지?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어. 그분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있어. 그분 자신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위해 죄 없는 자기 피를 내주셨으니까. 형은 그분을 잊었어. 그런데 바로 그분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바로 그분께 사람들이 '주여, 주는 의로우시도다. 주의 길이 드러났음이로다' 하고 외칠 거야."

"아, 그 '죄 없는 단 한 분'과 그의 피 말이구나! 아니, 그를 잊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오래 그를 내세우지 않나 줄곧 의아했어. 대개 논쟁에서 너희 쪽 사람들은 모두 무엇보다 먼저 그를 내세우니까. 있잖아, 알료샤, 웃지 마. 나는 언젠가, 한 해쯤 전에 서사시를 하나 지었어. 나하고 10분만 더 버릴 수 있다면 그걸 너한테 이야기해 줄까?"

"형이 서사시를 썼어?"

"오, 아니, 쓰지는 않았어." 이반이 웃었다. "나는 평생 시 두 줄도 지어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이 서사시는 머릿속으로 지어내서 외워 두었어. 뜨겁게 지어냈지. 네가 내 첫 독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청중이지. 정말이지 작가가 무엇 때문에 단 한 명의 청중이라도 놓치겠어." 이반이 빙긋 웃었다. "이야기할까, 말까?"

"열심히 듣고 있어." 알료샤가 말했다.

"내 서사시의 제목은 「대심문관」 이야. 터무니없는 물건이지만, 너한테 들려주고 싶어."

---

1. 러시아의 길이 단위. 1베르쇼크는 약 4.4센티미터.

제5장 대심문관

"그런데 여기서도 머리말 없이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문학적인 머리말 말이야, 퉤!" 이반이 웃었다. "내가 무슨 작가라고! 봐, 내 이야기는 16세기에 벌어져. 그때는, 하기야 이건 너도 학교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그때는 마침 시 작품에서 하늘의 권능들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관습이었어. 단테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 프랑스에서는 법원 서기들이, 그리고 수도원마다 수도사들도 온전한 공연을 벌였는데, 그 공연에서 성모, 천사들, 성인들, 그리스도, 그리고 하느님 자신까지 무대에 내세웠어. 그때는 그 모든 게 아주 소박했지.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에서는 루이 11세 때 파리에서 프랑스 왕세자가 태어난 것을 기려 시청 홀에서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공짜 공연을 하는데, 그 제목이 「 지극히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동정녀 마리아의 선한 심판 」 이고, 거기에 성모가 몸소 나타나 자신의 선한 심판을 내려. 우리 모스크바에서도 표트르 대제 이전 옛 시절에 거의 그와 같은 극 공연이, 특히 구약에서 따온 공연이 때때로 열렸어. 그런데 극 공연 말고도 그때는 성인들, 천사들, 하늘의 모든 권능이 필요에 따라 등장하는 이야기와 '시'가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어. 우리 나라 수도원에서도 그런 서사시를 옮기고, 베껴 쓰고, 심지어 짓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언제였느냐 하면 타타르의 지배를 받던 때였어. 이를테면 수도원에서 나온 짧은 서사시가 하나 있어(물론 그리스어에서 옮긴 거야). 「성모의 지옥 순례 」 라는 건데, 그 장면들이나 대담함이 단테에 못지않아.

성모가 지옥을 찾아가고, 대천사 미카엘이 성모를 '고통 사이로' 이끌어. 성모는 죄인들과 그들의 고통을 봐. 거기에는 무엇보다 불타는 호수에 빠진 아주 흥미로운 죄인들의 무리가 있어. 그들 가운데 이 호수에 너무 깊이 빠져서 다시는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자들은 '이미 하느님께서 잊으신다'는 거야. 엄청나게 깊고 힘 있는 표현이지. 그러자 충격을 받고 울고 있던 성모가 하느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옥에 있는 모든 이를 위해, 거기서 본 모든 이를 위해 가리지 않고 자비를 구해. 성모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는 엄청나게 흥미로워. 성모는 애원하고 물러서지 않아. 하느님이 아들의 못 박힌 손과 발을 가리키며 '내가 어떻게 그를 괴롭힌 자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고 묻자, 성모는 모든 성인들, 모든 순교자들, 모든 천사와 대천사들에게 자기와 함께 엎드려 모든 이를 가리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빌라고 명해. 결국 성모는 하느님께 빌어서 해마다 성금요일부터 성 삼위일체 축일까지 고통을 멈추게 하고, 지옥의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고 외쳐. 그러니까 내 짧은 서사시도 그 시대에 나왔다면 그런 종류였을 거야. 내 무대에는 그가 나타나. 사실 그는 서사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타났다가 지나갈 뿐이야. 그가 자기 나라에 임하러 오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열다섯 세기가 지났어. 그의 예언자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쓴 지 열다섯 세기야. 그가 아직 땅에 있을 때 몸소 말했듯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지만 인류는 예전과 같은 믿음으로, 예전과 같은 감격으로 그를 기다려. 오,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기다려. 하늘이 사람에게 주던 보증이 끊긴 지 벌써 열다섯 세기가 지났으니까.

마음이 일러 주는 것을 믿어라,
하늘에서 오는 보증은 없으니.

"그러니 오직 마음이 일러 주는 것에 대한 믿음뿐이야! 사실 그때는 기적도 많았어. 기적처럼 병을 고치는 성인들이 있었어. 어떤 의인들에게는, 그들의 성인전에 따르면, 하늘의 여왕이 몸소 내려왔어. 그렇지만 악마는 졸지 않고, 인류 안에서는 이미 이 기적들이 참된지 의심이 일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북쪽, 독일에서 무서운 새 이단이 나타났어. '횃불 같은'(곧 교회 같은) 큰 별 하나가 '물샘들에 떨어지니 물이 쓰게 되었다.' 이 이단들은 신을 모독하며 기적을 부정하기 시작했어. 그렇지만 그럴수록 충실하게 남은 자들은 더 뜨겁게 믿어. 인류의 눈물은 예전처럼 그에게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희망을 걸고, 예전처럼 그를 위해 고통받고 죽기를 갈망해. 그렇게 여러 세기 동안 인류는 믿음과 불꽃으로 '주는 하느님이시니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하고 빌었고, 그렇게 여러 세기 동안 그를 소리쳐 불렀기에,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연민으로 비는 이들에게 내려가기를 원했어. 그는 그 전에도 어떤 의인들, 순교자들, 거룩한 은자들이 아직 땅에 있을 때 내려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 그들의 '성인전'에 그렇게 적혀 있지. 우리 나라에서는 튜체프[1]가, 자기 말이 참되다고 깊이 믿으면서 이렇게 알렸어.

십자가 짐에 짓눌린 채
그리운 땅이여, 너의 온 곳을
종의 모습으로 하늘의 임금이
축복하며 두루 거니셨다.

"그게 틀림없이 그랬다는 건 내가 말해 줄게. 그리고 그는 잠깐만이라도 백성에게,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악취가 날 만큼 죄 많지만 아기처럼 그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원했어. 내 이야기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종교 재판이 가장 무섭던 시절에 벌어져.

그때 그 나라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화형의 장작불이 타올랐고,

장엄한 화형식에서
사악한 이단자들을 불태웠다.

"오, 이건 물론 그가 약속한 대로 마지막 때에 하늘의 모든 영광에 싸여 나타날, 그리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갑자기 일어날 그 강림이 아니었어. 아니야, 그는 잠깐만이라도 자기 자녀들을 찾아가기를 원했고, 하필 이단자들의 장작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한 바로 그곳을 찾아가기를 원했어. 그는 끝없는 자비로 열다섯 세기 전 세 해 동안 사람들 사이를 다니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 그는 남쪽 도시의 '뜨거운 광장들'에 내려와. 바로 전날 그 도시에서는 '장엄한 화형식'이 열려, 왕과 궁정, 기사들, 추기경들, 더없이 아름다운 궁정 귀부인들이 지켜보고 온 세비야의 수많은 주민이 모인 가운데, 추기경인 대심문관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ad majorem gloriam Dei) 단번에 거의 백 명에 이르는 이단자를 불태웠어. 그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모두가, 이상한 일이지, 그를 알아봐. 이게 서사시에서 가장 좋은 대목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왜 하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느냐 하는 대목 말이야. 백성은 이길 수 없는 힘에 끌려 그에게 몰려가고, 그를 둘러싸고, 그의 둘레에서 점점 불어나고, 그를 따라가. 그는 끝없는 연민의 조용한 미소를 띠고 말없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 사랑의 태양이 그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빛과 깨우침과 힘의 줄기가 그의 눈에서 흘러나와 사람들 위에 쏟아지며, 그들의 마음을 응답하는 사랑으로 뒤흔들어. 그는 그들에게 두 손을 내밀고 그들을 축복해. 그에게, 아니 그의 옷에만 닿아도 병을 고치는

힘이 흘러나와. 그러자 어려서부터 눈이 먼 노인 하나가 무리 속에서 외쳐.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나도 주를 뵈오리이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듯 눈먼 노인이 그를 보게 돼. 백성은 울며 그가 걸어가는 땅에 입을 맞춰. 아이들은 그의 앞에 꽃을 던지며 노래하고 그를 향해 '호산나!' 하고 외쳐. '그분이다, 그분 자신이다.' 모두가 되풀이해. '그분이 틀림없다,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아니다.' 그는 세비야 대성당 현관 계단에 멈춰 서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울면서 하얀 어린이 관을 뚜껑을 연 채 성당 안으로 들여가고 있어. 관 속에는 어느 이름난 시민의 외동딸인 일곱 살 계집아이가 누워 있어. 죽은 아이는 온통 꽃에 덮여 누워 있어. '그분이 당신 아이를 살리실 거요.' 무리 속에서 울고 있는 어미에게 사람들이 외쳐. 관을 맞으러 나온 대성당 사제가 어리둥절해서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려. 그런데 그때 죽은 아이 어미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와. 어미는 그의 발아래 몸을 던져. '당신이시라면 제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어미가 그에게 두 손을 내밀며 외쳐. 행렬이 멈추고, 사람들은 작은 관을 현관 계단 위 그의 발치에 내려놓아. 그는 연민에 차서 바라보고, 그의 입술이 조용히 다시 한 번 '달리다굼' 하고 말해.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니라.' 계집아이는 관 속에서 몸을 일으켜 앉고는, 놀라서 크게 뜬 눈으로 미소 지으며 주위를 둘러봐. 아이의 손에는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들려 있던 흰 장미 꽃다발이 있어. 백성 사이에 소동이 일고, 고함과 흐느낌이 터져.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대성당 앞 광장을 추기경인 대심문관 자신이 지나가. 아흔 살이 다 된 노인인데, 키가 크고 꼿꼿하고, 얼굴은 바싹 말랐고 눈은 움푹 꺼졌지만, 그 눈에서는 아직 불꽃처럼 빛이 번득여. 오, 그는 어제 로마의 신앙에 맞서는 적들을 불태울 때 백성 앞에서 뽐내던 화려한 추기경 옷차림이 아니야. 아니야, 이 순간 그는 낡고 거친 수도복 차림일 뿐이야. 그의 뒤로 얼마쯤 떨어져 음울한 조수들과 종들,

그리고 '거룩한' 경비대가 따라와. 그는 무리 앞에 멈춰 서서 멀리서 지켜봐. 그는 모든 걸 봤어. 사람들이 관을 그의 발치에 놓는 것도 봤고, 소녀가 되살아나는 것도 봤어.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그는 희고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 그의 눈길은 불길한 불로 번득여. 그는 손가락을 뻗어 경비병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명해. 그러자, 그의 힘은 그토록 크고, 백성은 이미 그토록 길들고 순종하고 벌벌 떨며 그를 따르기에, 무리는 곧바로 경비병들 앞에서 길을 열고, 경비병들은 갑자기 찾아온 무덤 같은 침묵 속에서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끌고 가. 무리는 순식간에, 모두가 한 사람처럼 늙은 심문관 앞에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고, 심문관은 말없이 백성을 축복하고 지나가. 경비대는 포로를 거룩한 종교 재판소의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 좁고 어두운 둥근 천장의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가둬. 하루가 지나고, 어둡고 뜨겁고 '숨결 하나 없는' 세비야의 밤이 와. 공기에서는 '월계수와 레몬 향기가 나.' 깊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감옥의 쇠문이 열리고, 늙은 대심문관 자신이 손에 등불을 들고 천천히 감옥으로 들어와. 그는 혼자이고, 그의 뒤에서 문이 곧바로 닫혀. 그는 입구에 멈춰 서서 오랫동안, 1분이나 2분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봐. 마침내 조용히 다가가 등불을 탁자 위에 놓고 그에게 말해. '너냐? 너란 말이냐?' 그러나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는 재빨리 덧붙여. '대답하지 마라, 잠자코 있어라. 하기야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너무나 잘 안다. 게다가 너는 이미 전에 네가 한 말에 아무것도 보탤 권리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느냐? 너는 우리를 방해하러 왔고, 너 스스로 그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너인지, 아니면 그저 그를 닮은 자인지. 그렇지만 내일 당장 나는 너를 가장 악한 이단자로 심판하여 장작불에 태울 것이고, 오늘 네 발에 입을 맞추던 바로 그 백성이 내일이면 내

손짓 한 번에 네 장작불로 숯불을 긁어모으러 달려들 것이다. 너는 그걸 아느냐? 그래, 너는 어쩌면 그걸 알겠지.' 그는 가슴에 스미는 생각에 잠겨 이렇게 덧붙이며, 한순간도 포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

"잘 모르겠어, 이반, 이게 대체 뭐야?" 줄곧 말없이 듣고 있던 알료샤가 미소를 지었다. "그냥 끝없는 환상이야, 아니면 노인의 무슨 착각, 무슨 있을 수 없는 뒤바뀜(qui pro quo)이야?"

"하다못해 뒤엣것으로 받아들여." 이반이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의 사실주의가 너를 그렇게 버릇없게 만들어서 환상적인 건 아무것도 견딜 수 없다면, 뒤바뀜을 원한다면, 그렇다고 해 두자. 사실이야."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아흔 살이니 오래전에 자기 사상에 빠져 미쳤을 수도 있어. 그리고 포로는 그 생김새로 노인을 놀라게 했을 수도 있어. 마침내는 그저 헛소리, 죽음을 앞둔 아흔 살 노인의 환영일 수도 있어. 게다가 어제 이단자 백 명을 불태운 그 화형 때문에 달아올라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너하고 나한테는 뒤바뀜이든 끝없는 환상이든 매한가지 아니야? 여기서 문제는 오로지 노인이 속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 마침내 아흔 해 만에 그가 속을 털어놓고 아흔 해 내내 입 다물었던 것을 소리 내어 말한다는 것뿐이야."

"그럼 포로도 말이 없어? 노인을 바라보기만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래, 어떤 경우에도 그래야만 해." 이반이 다시 웃었다. "노인 자신이 그에게 너는 이미 전에 한 말에 아무것도 보탤 권리가 없다고 짚어 주잖아. 원한다면, 적어도 내 생각에는 바로 거기에 로마 가톨릭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 '이를테면 너는 모든 것을 교황에게 넘겨주었고,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은 교황에게 있다. 너는 이제 아예 오지 말아라, 적어도 때가 될 때까지는 방해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말할 뿐 아니라 글로 쓰기도 해. 적어도 예수회 사람들은 그래.

이건 내가 그 사람들 신학자들 책에서 직접 읽었어. '너는 네가 떠나온 그 세상의 비밀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에게 알려 줄 권리가 있느냐?' 내 노인이 그에게 묻고는 그를 대신해 스스로 대답해. '아니, 너는 그럴 권리가 없다. 이미 전에 한 말에 무언가를 보태지 않기 위해서, 네가 땅에 있을 때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유를 사람들에게서 빼앗지 않기 위해서다. 네가 새로 알리는 것은 모두 사람들의 믿음의 자유를 침범할 것이다. 그것은 기적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런데 너한테는 이미 그때, 천오백 년 전에 사람들의 믿음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때 너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그토록 자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는 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았다.' 노인이 갑자기 생각에 잠긴 듯 빙긋 웃으며 덧붙여. '그래, 이 일은 우리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했다.' 그는 그를 엄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어. '그렇지만 우리는 마침내 네 이름으로 이 일을 끝냈다. 열다섯 세기 동안 우리는 이 자유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이제 그것은 끝났고, 단단히 끝났다. 단단히 끝났다는 걸 너는 믿지 않느냐? 너는 나를 온순하게 바라보며 나한테 분노조차 베풀지 않느냐? 그렇지만 알아 두어라. 이제, 바로 오늘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전히 자유롭다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한다. 그런데 바로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자유를 가져와 고분고분 우리 발아래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건 우리다. 네가 바란 게 그것이었느냐, 그런 자유였느냐?'"

"또 모르겠어." 알료샤가 말을 가로막았다. "노인이 비꼬는 거야, 비웃는 거야?"

"조금도 아니야. 노인은 마침내 자기와 자기 사람들이 자유를 이겨냈다는 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바로 자기 공으로 내세우는 거야. '이제야 비로소(물론 그는 종교 재판을 두고 하는 말이야) 처음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반역자로 지어졌다. 반역자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너는 경고를 받았다.' 그는 그에게 말해. '너는 경고와 가르침이 모자라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경고를 듣지 않았다. 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물리쳤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너는 떠나면서 일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너는 약속했고, 네 말로 굳혔고, 우리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 물론 이제 와서 우리에게서 이 권세를 빼앗을 생각은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느냐?'"

"그런데 경고와 가르침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알료샤가 물었다.

"바로 거기에 노인이 털어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무섭고 영리한 영, 자기 파멸과 비존재의 영이." 노인이 말을 이었다. "위대한 영이 광야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책은 그 영이 너를 '시험했다'고 우리에게 전한다. 과연 그러냐? 그 영이 세 가지 물음으로 너에게 알린 것, 네가 물리친 것, 책에서 '시험'이라고 일컫는 것보다 더 참된 말을 무엇이든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땅 위에서 언젠가 참으로 천둥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건 바로 그날, 이 세 가지 시험의 날이었다. 바로 이 세 가지 물음이 나타났다는 데 기적이 있었다. 그저 시험 삼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말이다. 무서운 영의 이 세 가지 물음이 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다시 책에 넣으려면 그것을 되살리고 새로 생각해 내고 지어내야 한다고 하자. 그러려고 땅의 모든 현자들을, 다스리는 자들, 대제사장들, 학자들, 철학자들, 시인들을 다 모아 놓고 이런 과제를 낸다고 하자. 세 가지 물음을 생각해 내고 지어내라. 그런데 그 물음은 사건의 크기에 걸맞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세 마디로, 사람의 말 세 구절만으로 세계와 인류가 앞으로 걸어갈 역사 전체를 나타내는 물음이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땅의 모든 지혜가 한데 모여서, 그때 광야에서 힘센 영리한 영이

실제로 너에게 내놓았던 그 세 가지 물음에 힘과 깊이로 견줄 만한 것을 무엇이든 생각해 낼 수 있었으리라고 여기느냐? 그 물음들 하나만으로도, 그 물음들이 나타났다는 기적 하나만으로도, 지금 상대하는 것이 덧없이 흘러가는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지성임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물음 안에는 사람의 그 뒤의 역사 전체가 하나로 합쳐져 예언되어 있고, 온 땅에서 사람의 본성이 지닌 풀 수 없는 역사적 모순이 모조리 모여들 세 가지 형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것이 아직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다. 미래를 알 수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열다섯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 물음 안의 모든 것이 그토록 꿰뚫어 보이고 예언되어 있었고, 또 그토록 들어맞아서, 거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다.

이제 네가 판단해 보아라. 누가 옳았느냐? 너냐, 아니면 그때 너에게 물었던 그자냐? 첫 번째 물음을 떠올려 보아라. 글자 그대로는 아니어도 그 뜻은 이러했다. '너는 세상으로 가려 하는구나. 그것도 빈손으로, 무슨 자유의 약속 하나만 들고 가려 하는구나. 저들은 그 단순함과 타고난 무질서 때문에 그 약속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사람에게도 사람의 사회에도 자유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일찍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헐벗고 불타는 광야의 돌들이 보이느냐? 이것들을 빵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인류가 고마워하며 고분고분 양 떼처럼 네 뒤를 따라 달려갈 것이다. 네가 손을 거두어 네 빵이 끊길까 봐 영원히 떨면서도.' 그러나 너는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아서 그 제안을 물리쳤다. 순종을 빵으로 산다면 그것이 무슨 자유냐고 너는 헤아렸다. 너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바로 이 땅의 빵의 이름으로 땅의 영이 너에게 맞서 일어나 너와 싸우고 너를 이길 것이고, 모두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가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었다!' 하고 외치며 그를 따라가리라는 것을 너는 아느냐? 너는 여러 세기가 지나면 인류가 자기 지혜와 학문의 입으로 범죄는 없고, 그러니 죄도 없으며, 다만 굶주린 자들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리라는 것을 아느냐? '먹여라, 그다음에 그들에게 덕을 요구하라!' 너를 거슬러 세울 깃발, 네 성전을 허물어뜨릴 깃발에는 바로 이렇게 쓰일 것이다. 네 성전 자리에 새 건물이, 무서운 바벨탑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이번 탑도 지난번 탑처럼 끝내 다 지어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는 이 새 탑을 피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천 년은 줄일 수 있었다. 그들은 천 년 동안 자기네 탑에 시달린 끝에 결국 우리에게 올 테니까! 그때 그들은 땅 밑 지하 묘지에 숨어 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낼 것이고(우리는 다시 쫓기고 괴롭힘을 당할 테니까),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울부짖을 것이다.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약속한 자들이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들의 탑을 마저 지을 것이다. 먹이는 자가 탑을 마저 지을 것이고 먹이는 것은 오직 우리뿐이니, 우리는 네 이름으로 먹이고, 네 이름으로 먹인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오, 우리 없이는 그들은 결코, 결코 자기를 먹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채로 있는 한 어떤 학문도 그들에게 빵을 주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자기 자유를 우리 발아래 가져와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차라리 우리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그들은 결코, 결코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질 줄 모를 테니, 자유와 누구에게나 넉넉한 땅의 빵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힘없고, 악덕에 물들고, 보잘것없고, 반역자들이니 자기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하늘의 빵을 약속했지만, 다시 되풀이하건대, 약하고 영원히 악덕에 물들고 영원히 비천한 인간 족속의 눈에 하늘의 빵이 땅의 빵에 견줄 수

있겠느냐? 하늘의 빵의 이름으로 수천, 수만이 너를 따른다 해도, 하늘의 빵을 위해 땅의 빵을 업신여길 힘이 없는 수백만, 수백억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 너에게는 위대하고 강한 수만 명만 소중하고, 바닷모래처럼 수많은 나머지 수백만, 약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그 수백만은 위대하고 강한 자들을 위한 재료가 되는 데 그쳐야 하느냐? 아니다, 우리에게는 약한 자들도 소중하다. 그들은 악덕에 물들었고 반역자들이지만, 마지막에는 바로 그들이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유를 견디고 그들 위에 군림하기로 했다고 우리를 보고 놀라며 우리를 신으로 여길 것이다, 마지막에는 자유로운 것이 그들에게 그토록 무서워질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에게 순종하고 네 이름으로 다스린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속일 것이다. 너를 우리 곁에 다시는 들이지 않을 테니까. 바로 이 속임에 우리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할 테니까. 이것이 광야의 그 첫 번째 물음이 뜻한 것이고, 이것이 네가 무엇보다 높이 둔 자유의 이름으로 물리친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음 안에는 이 세상의 위대한 비밀이 들어 있었다. '빵'을 받아들였다면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서도, 인류 전체로서도 사람이 품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갈망에, 곧 '누구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인가?' 하는 갈망에 답했을 것이다. 자유로운 채로 남은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할 대상을 되도록 빨리 찾아내는 것보다 더 끊임없고 더 괴로운 걱정은 없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다툴 여지가 없는 것,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 앞에 다 함께 경배하는 데 동의할 만큼 다툴 여지가 없는 것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한다. 이 가련한 피조물들의 걱정은 나나 다른 누군가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그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만한 것을, 그것도 반드시 *모두 함께* 경배할 만한 것을 찾아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경배의 *공동성*에 대한 욕구가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인류 전체에게도 가장 큰 괴로움이다. 다 함께 경배하는 일 때문에 그들은 칼로 서로를 죽였다. 그들은 신들을 만들어 내고는 '너희 신들을 버리고 와서 우리 신들에게 경배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신들에게 죽음이 있으리라!' 하고 서로에게 외쳤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에서 신들이 사라진 뒤에도 그럴 것이고, 그래도 그들은 우상들 앞에 엎드릴 것이다. 너는 사람의 본성의 이 근본 비밀을 알았고 모를 수가 없었는데도, 모두를 다툴 여지 없이 네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할, 너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절대적인 깃발을, 땅의 빵이라는 깃발을 물리쳤고, 그것도 자유와 하늘의 빵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자, 그다음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보아라. 그리고 또다시 모든 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했다! 너에게 말하거니와, 사람에게는 이 불행한 존재가 타고나는 자유라는 선물을 되도록 빨리 넘겨줄 상대를 찾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걱정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자유를 손에 넣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달래 주는 자뿐이다. 빵과 함께 너에게는 다툴 여지 없는 깃발이 주어졌으니, 빵보다 다툴 여지 없는 것은 없기에 빵을 주면 사람은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누군가 너를 제쳐 두고 그의 양심을 손에 넣는다면, 오, 그때 그는 네 빵마저 내던지고 자기 양심을 꾀어내는 자를 따라갈 것이다. 이 점에서 너는 옳았다. 사람이 존재하는 비밀은 그저 사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굳건한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사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그의 둘레가 온통 빵이라 해도 땅에 남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를 없애 버릴 것이다. 그건 그렇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너는 사람들의 자유를 손에 넣는 대신 그들에게 자유를 더욱 늘려 주었다! 아니면 너는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서 자유롭게 고르는 것보다 안식이, 심지어 죽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었느냐?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없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도 없다. 그런데 너는 사람의 양심을 단번에 영원히 달래 줄 굳건한 토대 대신에, 비범하고 짐작만 할 수 있고 모호한 것을 모조리 골랐고, 사람들의 힘에 부치는 것을 모조리 골랐으니, 마치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셈이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느냐? 그들을 위해 제 목숨을 내주러 온 자였다! 너는 사람들의 자유를 손에 넣는 대신 그 자유를 늘렸고, 그 자유의 괴로움으로 사람의 영혼의 나라를 영원히 짓눌렀다. 너는 사람이 너에게 끌리고 사로잡혀 자유롭게 너를 따라오도록 사람의 자유로운 사랑을 원했다. 굳건한 옛 율법 대신, 사람은 이제부터 오직 자기 앞에 있는 네 형상만을 길잡이로 삼아 자유로운 마음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정해야 했다. 그러나 고를 자유처럼 그토록 무서운 짐으로 사람을 짓누른다면, 사람은 결국 네 형상과 네 진리마저 물리치고 반박하리라는 것을 너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마침내 진리가 네 안에 없다고 외칠 것인데, 그들에게 그토록 많은 걱정과 풀 수 없는 과제를 남겨 둔 너보다 더 그들을 혼란과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자신이 네 나라를 허물어뜨릴 토대를 놓은 셈이고, 이 일로 다른 누구도 탓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에게 내놓인 것이 그것이었느냐? 땅 위에는 세 가지 힘이, 오직 세 가지 힘이 있어서, 이 힘없는 반역자들의 양심을 그들의 행복을 위해 영원히 이기고 사로잡을 수 있으니, 그 힘은 기적, 신비, 권위다. 너는 이것도, 저것도, 세 번째 것도 물리쳤고, 몸소 그 본을 보였다. 무섭고 지혜로운 영이 너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에게 말했을 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인지 알고 싶거든 아래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데려가니 그는 떨어지지도 다치지도 않으리라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인지 알게 될 것이고, 네 아버지를 향한 네 믿음이 어떠한지 증명하게 되리라' 했을 때, 너는 듣고 나서 그 제안을

물리쳤고, 넘어가지 않았고, 아래로 몸을 던지지 않았다. 오, 물론 너는 그때 신답게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약하고 반역하는 족속은, 그들도 신이란 말이냐? 오, 너는 그때, 한 걸음만, 뛰어내리려는 몸짓 하나만 했어도 곧바로 주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모조리 잃고, 네가 구원하러 온 땅에 부딪쳐 부서질 것이고, 너를 시험한 영리한 영이 기뻐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너 같은 자가 많으냐? 그리고 너는 정말로 한순간이라도 사람들도 그런 시험을 견딜 수 있으리라고 여길 수 있었느냐? 사람의 본성이 기적을 물리치고, 삶의 그토록 무서운 순간에, 가장 무섭고 근본적이고 괴로운 영혼의 물음 앞에 선 순간에 마음의 자유로운 결정 하나만 붙들고 남아 있게끔 지어졌느냐? 오, 너는 네 위업이 책에 남아 시간의 깊은 곳과 땅의 마지막 끝까지 이르리라는 것을 알았고, 너를 따라 사람도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느님 곁에 남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사람이 찾는 것은 하느님이라기보다 기적이기에, 사람은 기적을 물리치자마자 곧바로 하느님마저 물리친다는 것을 너는 몰랐다. 그리고 사람은 기적 없이 남아 있을 힘이 없으므로, 새 기적들을, 이제는 자기 것인 기적들을 잔뜩 지어내고, 설령 백 번이나 반역자이고 이단자이고 무신론자라 해도 무당의 기적과 아낙네의 주술 앞에 엎드릴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약 올리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그것이 너인 줄 믿으리라' 하고 외칠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네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지만, 기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삼고 싶지 않았고 기적에 기댄 믿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믿음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너는 자유로운 사랑을 갈망했지, 단번에 영원히 자기를 겁에 질리게 한 권능 앞에서 노예가 터뜨리는 종의 환호를 갈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자로 지어졌어도 물론 노예이니, 여기서도 너는 사람들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 둘러보고 판단해 보아라, 열다섯 세기가 지났으니 가서 그들을 보아라, 너는 누구를 너에게까지 들어 올렸느냐? 맹세하거니와, 사람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약하고 더 낮게 지어졌다! 사람이, 사람이 너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너는 사람을 그토록 존중했기에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마치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그만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느냐? 그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자였다! 그를 덜 존중했다면 그에게서 덜 요구했을 것이고, 그의 짐이 더 가벼웠을 테니 그것이 사랑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사람은 약하고 비열하다. 그가 지금 곳곳에서 우리의 권력에 맞서 반역하고 자기가 반역한다고 뽐낸들 그게 무슨 대수냐? 그건 아이의, 학생의 자부심이다. 그들은 교실에서 반역을 일으켜 선생을 쫓아낸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나 꼬마들의 환호도 끝날 때가 올 것이고, 그 환호는 그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땅을 피로 적실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이들은 자기들이 반역자이기는 하지만 제 반역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힘없는 반역자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것이다. 어리석은 눈물을 쏟으며 그들은 자기들을 반역자로 지은 자가 틀림없이 자기들을 비웃으려 했다고 마침내 고백할 것이다. 그들은 절망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들이 한 말은 신성 모독이 될 것이며, 그 때문에 그들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신성 모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언제나 스스로 그 앙갚음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안과 혼란과 불행, 이것이 네가 그들의 자유를 위해 그토록 고난을 견딘 뒤에 사람들이 오늘날 받은 몫이다! 너의 위대한 예언자는 환상과 비유로 말하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들이 각 지파에서 만 이천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수가 그만큼이었다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네 십자가를 견뎌 냈고, 메뚜기와 풀뿌리로

연명하며 굶주리고 헐벗은 광야의 수십 년을 견뎌 냈다. 그러니 물론 너는 자유의, 자유로운 사랑의, 네 이름으로 바친 자유롭고 훌륭한 희생의 이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해야 겨우 몇천 명이었고 그것도 신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약한 사람들은 힘센 자들이 견딘 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죄가 있느냐? 약한 영혼은 그토록 무서운 선물을 담을 힘이 없다고 해서 무슨 죄가 있느냐? 정말로 너는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왔느냐? 그렇다면 여기에는 신비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신비라면 우리도 신비를 설교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의 자유로운 결정도 사랑도 아니고 그들이 맹목적으로, 심지어 자기 양심을 거슬러서라도 복종해야 하는 신비라고 그들을 가르칠 권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우리는 너의 위업을 고쳐서 그것을 *기적*과 *신비*와 *권위* 위에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양 떼처럼 이끌리게 된 것을, 그토록 많은 괴로움을 안겨 준 그토록 무서운 선물이 마침내 그들 마음에서 벗겨진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한 우리가 옳았느냐, 말해 보아라. 그토록 겸손하게 인류의 무력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그 짐을 덜어 주고, 그 힘없는 본성에 죄마저도, 다만 우리의 허락 아래 허용해 주었으니, 정말로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런데 이제 무엇 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왔느냐? 그리고 왜 너는 말없이, 가슴에 스미게 그 온순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화를 내라. 나는 네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느냐?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은 모두 너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네 눈에서 읽는다. 내가 너에게 우리의 비밀을 숨기겠느냐? 어쩌면 너는 바로 그것을 내 입으로 듣고 싶은 모양이니 들어라, 우리는 너와 함께 있지 않고 그와

함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와 함께 있지 않고 그와 함께 있다. 벌써 여덟 세기째다. 꼭 여덟 세기 전에 우리는 그에게서 네가 분노하며 물리친 것을, 그가 땅의 모든 나라를 너에게 보여 주며 내놓았던 그 마지막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그에게서 로마와 카이사르의 칼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만이 땅의 왕, 유일한 왕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누구의 탓이냐? 오, 이 일은 아직 시작일 뿐이지만, 시작은 되었다.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오래 기다려야 하고 땅은 아직 많은 고통을 겪겠지만, 우리는 이루어 낼 것이고 카이사르가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온 세상의 행복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때도 카이사르의 칼을 받을 수 있었다. 왜 너는 이 마지막 선물을 물리쳤느냐? 힘센 영의 이 세 번째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너는 사람이 땅에서 찾는 모든 것을, 곧 누구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양심을 맡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침내 모두가 다툴 여지 없는 하나의 공동의, 화목한 개미집으로 합쳐질 것인가를 채워 주었을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려는 욕구가 사람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전체로서 언제나 반드시 온 세상 차원에서 질서를 세우려고 애써 왔다.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민족이 많았지만, 그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이 온 세상 차원에서 합쳐져야 할 필요를 깨달았기에 높을수록 더 불행했다. 위대한 정복자들, 티무르와 칭기즈 칸 같은 자들은 우주를 정복하려고 회오리바람처럼 땅 위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들도 비록 깨닫지 못한 채였어도 온 세상 차원의 보편적인 하나 됨을 향한 인류의 바로 그 위대한 욕구를 드러냈다. 세상과 카이사르의 자줏빛 옷을 받아들였다면, 너는 온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에 안식을 주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양심을 쥐고 그들의 빵을 손에 쥔 자들 말고 누가 사람들을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카이사르의 칼을 받았고, 그 칼을 받으면서 물론 너를 물리치고 그를 따라갔다. 오, 그들은 우리 없이 자기네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해서 결국 식인으로 끝낼 것이기에, 자유로운 지성의, 그들의 학문의, 식인의 무질서가 아직 몇 세기는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짐승이 우리에게 기어 와서 우리 발을 핥고, 제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우리 발에 뿌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 위에 올라앉아 잔을 높이 들 것이고, 그 잔에는 '비밀!'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그때, 오직 그때에야 사람들에게 안식과 행복의 나라가 올 것이다. 너는 네가 택한 자들을 자랑하지만, 너에게는 택함받은 자들만 있을 뿐이고 우리는 모두를 달래 줄 것이다. 그것뿐이냐, 그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있었을 힘센 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가 마침내 너를 기다리다 지쳐, 자기 영의 힘과 자기 마음의 열기를 다른 밭으로 가져갔고 또 가져갈 것이며, 결국 바로 너를 거슬러 *자유로운* 깃발을 세우게 되겠느냐. 그러나 그 깃발은 너 자신이 세웠다. 우리에게서는 모두가 행복할 것이고, 네 자유 속에서처럼 곳곳에서 반역하거나 서로를 죽이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다. 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유를 버리고 우리에게 복종할 때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옳겠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겠느냐? 네 자유가 그들을 얼마나 끔찍한 예속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는지 떠올릴 테니, 그들 스스로 우리가 옳다고 확신할 것이다. 자유와 자유로운 지성과 학문은 그들을 그런 밀림으로 끌고 들어가 그런 기적들과 풀 수 없는 비밀들 앞에 세울 것이니, 그들 가운데 복종하지 않고 사나운 자들은 자기 자신을 없앨 것이고, 복종하지 않지만 힘없는 자들은 서로를 없앨 것이며, 남은 세 번째 무리, 힘없고 불행한 자들은 우리 발아래 기어 와서 우리에게 울부짖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만이 그의 비밀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빵을 받으면서 그들은 물론 우리가 그들의 손으로 얻은 바로 그들의 빵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아무 기적도 없이 그들에게 도로 나누어 줄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참으로 그들은 빵 자체보다도 그 빵을 우리 손에서 받는다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전에 우리 없이는 그들이 얻은 바로 그 빵이 그들 손에서 돌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자 바로 그 돌이 그들 손에서 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기억할 테니까. 단번에 영원히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은 너무나, 너무나 값지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불행할 것이다. 이 깨닫지 못함에 누가 가장 크게 이바지했느냐, 말해 보아라. 누가 양 떼를 흩어 알지 못하는 길들 위로 뿔뿔이 흩어 놓았느냐? 그러나 양 떼는 다시 모일 것이고 다시 복종할 것이며, 이번에는 단번에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조용하고 겸손한 행복을, 원래 그렇게 지어진 힘없는 존재들의 행복을 줄 것이다. 오, 너는 그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 자랑하도록 가르쳤으니, 우리는 마침내 그들이 자랑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고, 그들이 힘없다는 것, 그들이 가련한 아이들일 뿐이라는 것, 그러나 아이의 행복이 무엇보다 달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들은 겁이 많아질 것이고, 병아리가 암탉에게 그러듯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차서 우리에게 바싹 붙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토록 사나운 십억의 양 떼를 길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토록 힘세고 그토록 영리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기운 없이 우리의 분노에 떨 것이고, 그들의 지성은 겁에 질릴 것이며, 그들의 눈은 아이들과 여자들의 눈처럼 눈물에 젖기 쉬워지겠지만, 우리의 손짓

하나에 그만큼 쉽게 즐거움과 웃음으로, 밝은 기쁨과 행복한 아이의 노래로 옮겨 갈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을 시킬 것이지만, 일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에는 그들의 삶을 아이들의 놀이처럼, 아이들의 노래와 합창과 순진한 춤으로 꾸며 줄 것이다. 오, 우리는 그들에게 죄도 허락할 것이고, 그들은 약하고 무력하니 우리가 죄짓는 것을 허락한다고 아이들처럼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죄든 우리의 허락을 받고 지은 것이라면 속죄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죄짓는 것을 허락하는 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벌은, 좋다, 우리가 떠맡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떠맡을 것이고,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짊어진 은인으로 우리를 숭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숨기는 비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들의 순종에 따라 판단해서 그들이 아내나 정부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하고, 아이를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즐겁고 기쁘게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들 양심의 가장 괴로운 비밀들까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풀어 줄 것이며, 그 결정이 그들을 커다란 걱정에서, 혼자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오늘날의 무서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줄 테니 그들은 기쁘게 우리의 결정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십만 명을 뺀 모든 존재, 그 수백만의 존재가 모두 행복할 것이다. 우리만이, 비밀을 지키는 우리만이, 오직 우리만이 불행할 테니까. 행복한 아기가 십억이요, 선과 악을 아는 저주를 스스로 떠맡은 고통받는 자가 십만일 것이다. 그들은 네 이름으로 조용히 죽고 조용히 꺼져 갈 것이며, 무덤 너머에서는 죽음만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지킬 것이고, 바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그들을 꾈 것이다. 설령 저세상에 무엇이 있다 해도 물론 그들 같은 자들을 위한 것은 아닐

테니까. 사람들은 네가 와서 다시 이기리라고, 네가 택한 자들과 함께, 네 자랑스럽고 힘센 자들과 함께 오리라고 말하고 예언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자기 자신만 구원했을 뿐이고 우리는 모두를 구원했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짐승 위에 앉아 제 손에 *비밀*을 든 음녀가 수치를 당하리라고, 힘없는 자들이 다시 반역하여 음녀의 자줏빛 옷을 찢고 그 '가증한' 몸을 벌거벗기리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일어나 너에게 죄를 모르는 행복한 아기 십억을 가리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죄를 떠맡은 우리는 네 앞에 서서 말할 것이다. '할 수 있고 감히 그럴 수 있다면 우리를 심판하라.' 알아 두어라,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알아 두어라, 나도 광야에 있었고, 나도 메뚜기와 풀뿌리로 연명했고, 나도 네가 사람들에게 복으로 내린 자유를 축복했고, 나도 '수를 채우려는' 갈망에 차서 네가 택한 자들 가운데, 힘세고 굳센 자들 가운데 들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나는 깨어났고 광기를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와서 *너의 위업을 고친* 자들의 무리에 들었다. 나는 자랑스러운 자들을 떠나, 겸손한 자들의 행복을 위해 그 겸손한 자들에게 돌아왔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내일 당장 너는 내 첫 손짓에 네 장작불로 뜨거운 숯불을 긁어모으러 달려들이 순종하는 양 떼를 보게 될 것이고, 나는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이유로 그 장작불에 너를 태울 것이다. 누구보다 우리의 장작불을 받아 마땅한 자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너다. 내일 너를 태우겠다. 할 말은 다 했다(Dixi)."

이반은 말을 멈추었다. 그는 이야기하면서 달아올라 열중해서 말했는데, 말을 마치자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줄곧 말없이 듣고 있던 알료샤는, 끝에 가서는 몹시 흥분해서 몇 번이나 형의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애써 참는 게 분명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튕겨 나가듯 말을 꺼냈다.

"그렇지만…… 그건 터무니없어!" 그가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형의 서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비방하는 게 아니야…… 형이 바란 것과는 달리. 그리고 자유에 대한 형의 말을 누가 믿겠어? 자유를 그렇게, 그렇게 이해해야 해? 정교회의 생각이 그런 거야…… 그건 로마야. 그것도 로마 전체가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그건 가톨릭 가운데 가장 나쁜 자들, 종교 재판관들, 예수회 사람들이야!…… 그리고 형의 심문관 같은 환상적인 인물은 아예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의 죄를 떠맡았다니, 그게 무슨 죄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무슨 저주를 떠맡았다는 비밀의 지킴이들이라니, 그게 누구야? 그런 자들을 언제 본 적이 있어? 우리는 예수회 사람들을 알아. 그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형이 그린 그런 사람들이야?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저 앞으로 올 온 세상의 땅의 나라를 위한 로마의 군대일 뿐이야. 로마의 대제사장을 황제로 우두머리에 세운…… 그게 그 사람들의 이상이야.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무 비밀도, 고상한 슬픔도 없어…… 그저 가장 단순한 권력욕, 땅의 더러운 이익, 노예로 삼으려는 욕심이야…… 앞으로 올 농노제 같은 거지. 그 사람들이 지주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야.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하느님도 믿지 않을 거야. 형의 고통받는 심문관은 그저 환상일 뿐이야……"

"아니, 잠깐, 잠깐." 이반이 웃고 있었다. "너 참 달아올랐구나. 환상이라고 했지, 좋아! 물론 환상이지. 그렇지만 이건 좀 묻자. 너는 정말로 지난 몇 세기 동안의 이 가톨릭 운동 전체가 정말로 오직 더러운 이익만을 위한 권력욕일 뿐이라고 생각해? 설마 파이시 신부님이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아니야. 오히려 파이시 신부님은 언젠가 형 이야기와 비슷한 말씀까지 하셨어…… 그렇지만 물론 그건 아니야, 전혀 그게 아니야." 알료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그래도 귀중한 소식인걸. 네가 '전혀 그게 아니야'라고 했어도 말이야. 나는 바로 그걸 묻는 거야. 왜 네 예수회 사람들과 종교 재판관들은 오직 물질적이고 추잡한 이익만을 위해 모였을까? 왜 그들 가운데에는 커다란 슬픔에 시달리며 인류를 사랑하는 고통받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을까? 봐, 이렇게 가정해 봐. 오직 물질적이고 더러운 이익만을 원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늙은 심문관 같은 자가. 자기를 자유롭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광야에서 몸소 풀뿌리를 먹고 자기 육신을 이기느라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평생 인류를 사랑했고, 그러다 갑자기 눈을 떠서 이런 걸 본 자가. 의지의 완전함에 이르는 도덕적 기쁨이란 대단한 게 아니다, 그와 동시에 하느님의 나머지 수백만 피조물이 그저 비웃음거리로 지어진 채 남아 있다는 걸, 그들이 결코 제 자유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걸, 가련한 반역자들 가운데서는 탑을 완성할 거인이 결코 나오지 않으리라는 걸, 위대한 이상주의자가 그런 거위들을 위해 조화를 꿈꾼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말이야. 그 모든 걸 깨닫고 그는 돌아와서 들어간 거야…… 영리한 사람들 쪽으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까?"

"누구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무슨 영리한 사람들 쪽으로?" 알료샤가 거의 흥분해서 외쳤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지혜도, 그런 신비도 비밀도 없어…… 있다면 그저 무신론뿐이야. 그게 그 사람들 비밀의 전부야. 형의 심문관은 하느님을 믿지 않아. 그게 그 사람 비밀의 전부야!"

"그렇다 치자! 드디어 알아맞혔구나. 정말로 그래, 정말로 비밀의 전부는 바로 그것뿐이야, 그렇지만 하다못해 그 사람처럼 광야의 위업에 평생을 바쳤는데도 인류를 향한 사랑이 낫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고통이 아닐까? 생애의 해 질 녘에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돼, 오직 위대하고 무서운 영의 권고만이 힘없는 반역자들을, '비웃음거리로 지어진, 덜 만들어진 시험 삼아 만든 존재들'을 조금이라도 견딜 만한 질서 속에 세울 수 있으리라고. 그리고 그걸 확신하고 나자, 그는 영리한 영의, 죽음과 파괴의 무서운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 그러려면 거짓과 속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알면서 사람들을 죽음과 파괴로 이끌어야 하고, 게다가 그들이 자기들을 어디로 이끄는지 어떻게든 눈치채지 못하게 길 내내 그들을 속여야 해, 하다못해 길을 가는 동안만이라도 그 가련한 눈먼 자들이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도록. 그리고 알아 둬, 그 속임은, 노인이 평생 그토록 뜨겁게 그의 이상을 믿었던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속임이야! 그게 불행이 아닐까? 그리고 '오직 더러운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갈망하는' 이 군대 전체의 우두머리에 그런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게 된다면, 비극이 일어나기에는 그런 사람 하나로 넉넉하지 않을까? 그뿐이 아니야, 우두머리에 선 그런 사람 하나만으로도 넉넉해, 그 모든 군대와 예수회를 거느린 로마의 일 전체를 이끄는 참된 사상이, 이 일의 가장 높은 사상이 마침내 나타나기에는. 너한테 솔직히 말하는데, 나는 운동의 우두머리에 선 자들 가운데 이 단 한 사람이 결코 끊인 적이 없다고 굳게 믿어. 누가 알겠어, 어쩌면 로마 대제사장들 가운데에도 그런 단 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어쩌면 그토록 끈질기게, 그토록 제 나름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이 저주받은 노인이 지금도 그런 단 한 사람의 노인들 여럿이 모인 무리로 존재하는지. 그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합의로, 비밀 동맹으로, 오래전에 짜여서 비밀을 지키는,

그 비밀을 불행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서 지키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동맹으로 존재하는지. 그건 틀림없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해. 나는 프리메이슨에게도 그 토대에 이와 같은 비밀 같은 것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톨릭이 프리메이슨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들 안에서 경쟁자를, 사상의 하나 됨이 쪼개지는 것을 보거든. 한 무리, 한 목자여야 하는데 말이야…… 하기야 내 생각을 이렇게 변호하다 보니 네 비평을 견디지 못한 작가 꼴이 되는구나. 이 얘기는 그만하자."

"형은 어쩌면 형 자신이 프리메이슨인지도 몰라!" 알료샤의 입에서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다. "형은 하느님을 믿지 않아." 그는 덧붙였지만, 이번에는 몹시 비통해했다. 게다가 형이 자기를 비웃으며 바라보는 것 같았다. "형의 서사시는 어떻게 끝나?" 그가 땅바닥을 보며 갑자기 물었다. "아니면 벌써 끝났어?"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 심문관은 입을 다물고 나서 얼마 동안 포로가 자기에게 대답하기를 기다려. 포로의 침묵이 그에게는 괴로워. 그는 포로가 줄곧 자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슴에 스미게, 조용히 자기 말을 듣고 있었고, 아무 반박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봤어. 노인은 상대가 무엇이든, 쓰라리고 무서운 말이라도 해 주기를 바랐어. 그런데 그는 갑자기 말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핏기 없는 아흔 살 노인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춰. 그게 대답의 전부야. 노인은 몸을 부르르 떨어. 그의 입술 끝에서 무언가가 꿈틀했어. 그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그에게 말해.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아예 오지 마라…… 결코, 결코!' 그러고는 그를 '도성의 어두운 광장들'로 내보내. 포로는 떠나가."

"그럼 노인은?"

"입맞춤이 그의 가슴에서 불타지만, 노인은 예전의 사상에 머물러."

"그럼 형도 그 사람과 함께야, 형도?" 알료샤가 비통하게 외쳤다.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다 헛소리야, 알료샤. 이건 그저 시 두 줄도 써 본 적 없는 분별없는 대학생의 분별없는 서사시일 뿐이야. 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설마 내가 이제 곧장 거기로, 예수회 사람들한테 가서 그의 위업을 고치는 사람들 무리에 들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오, 주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 말했잖아. 나는 그저 서른 살까지만 버티면 돼. 그다음에는 잔을 바닥에 내던지는 거야!"

"그럼 끈적끈적한 새잎은, 소중한 무덤들은, 파란 하늘은, 사랑하는 여자는! 대체 어떻게 살 거야, 무엇으로 그걸 사랑할 거야?" 알료샤가 비통하게 외쳤다. "가슴과 머리에 그런 지옥을 품고서 그게 가능해? 아니야, 형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려고 떠나는 거야…… 아니라면 형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야!"

"모든 걸 견뎌 낼 힘이 있어!" 이반이 이제는 차갑게 빙긋 웃으며 말했다.

"무슨 힘?"

"카라마조프의…… 카라마조프다운 비열함의 힘이야."

"방탕에 빠져 죽고, 타락 속에서 영혼을 짓눌러 버린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마 그것도…… 다만 서른 살까지는 어쩌면 피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는……"

"어떻게 피해? 무엇으로 피해? 형 같은 생각을 품고서는 그건 불가능해."

"이번에도 카라마조프답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거야?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반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갑자기 어딘지 이상하게 창백해졌다.

"아, 너는 어제 그 말을 붙잡았구나. 미우소프가 그렇게 기분 나빠했던, 그리고 드미트리 형이 그렇게 순진하게 튀어나와서 되풀이했던 그 말을?" 그가 비뚤어진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일단 그 말이 나왔으니 '모든 것이 허용된다'. 부인하지 않겠어. 게다가 미텐카가 다듬은 문안도 나쁘지 않아."

알료샤는 말없이 형을 바라보았다.

"동생아, 나는 떠나면서 온 세상에 하다못해 너 하나는 있다고 생각했어." 이반이 갑자기 뜻밖의 감정을 담아 말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네 마음속에도 나를 위한 자리는 없구나, 다정한 내 은자야. 나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공식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때, 그 때문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알료샤는 일어나 형에게 다가가서 말없이 조용히 형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문학 도둑질이다!" 이반이 갑자기 무슨 환희에 빠져들며 외쳤다. "그건 네가 내 서사시에서 훔친 거야! 그래도 고맙다. 일어나, 알료샤, 가자. 나도 너도 갈 때가 됐어."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지만 선술집 현관 앞에서 멈춰 섰다.

"이봐, 알료샤." 이반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내가 끈적끈적한 새잎을 사랑할 만큼 버틴다면, 나는 오직 너를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사랑할 거야. 네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한테는 넉넉해. 그러면 나는 아직 살기 싫어지지 않을 거야. 너한테는 이걸로 넉넉해? 원한다면 사랑 고백으로라도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너는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그리고 됐어, 들었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설령 내일 떠나지 않는다 해도(아마 틀림없이 떠나겠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든 다시 만난다 해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더는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 간곡히 부탁해. 드미트리 형 일도 마찬가지야. 특히 부탁하는데, 앞으로는 나한테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 그는 갑자기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다 바닥이 났고, 다 이야기했어, 그렇지? 그 대신 나도 너한테 약속을 하나 할게. 서른 살쯤 되어 내가 '잔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어지면, 네가 어디 있든 나는 기어이 한 번 더 너하고 이야기하러 올 거야…… 설령 아메리카에서라도. 이건 알아 둬. 일부러 올 거야. 그때 너를 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거야. 그때 너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봐, 꽤 엄숙한 약속이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어쩌면 일곱 해, 열 해 동안 헤어지는 건지도 몰라. 자, 이제 네 '세라핌 같은 신부님(Pater Seraphicus)'한테 가. 그분이 돌아가시려 하잖아. 너 없이 돌아가시면 너는 아마 너를 붙잡아 둔 나한테 화를 내겠지. 잘 가. 한 번 더 입 맞춰 줘, 그래, 그렇게. 그리고 가……"

이반은 갑자기 돌아서서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길을 갔다. 어제 드미트리 형이 알료샤를 두고 떠나가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어제는 전혀 다른 식이었지만. 이 이상한 작은 생각이 화살처럼 알료샤의 슬픈 머릿속을, 이 순간 슬프고 비통한 머릿속을 스쳐 갔다. 그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렸다. 웬일인지 그는 이반 형이 어딘지 몸을 흔들며 걷는다는 것, 뒤에서 보면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낮아 보인다는 것을 갑자기 알아차렸다. 전에는 한 번도 그걸 알아차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도 갑자기 돌아서서 수도원 쪽으로 거의 달려갔다. 날은 이미 많이 어두워졌고, 그는 거의 무서웠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그가 무어라 답할 수 없는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제처럼 다시 바람이 일었고, 그가 은수처의 작은 숲에 들어서자 오래 묵은 소나무들이 그의 둘레에서 음산하게 술렁였다. 그는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세라핌 같은 신부님', 형은 이 이름을 어디선가 가져왔는데, 어디서였을까?" 알료샤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반, 가엾은 이반, 이제 언제 다시 형을 보게 될까…… 은수처가 저기 있다, 주여! 그래, 그래, 그분이다, 그분이 '세라핌 같은 신부님'이다.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형에게서, 그리고 영원히!"

그 뒤로 그는 살면서 몇 번이고 몹시 어리둥절해하며 되새겼다. 어떻게 그가 이반과 헤어지고 나서 그토록 드미트리 형을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바로 그날 아침, 겨우 몇 시간 전에 그는 오늘 밤 수도원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형을 찾아내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

1. 표도르 튜체프(1803~1873). 러시아의 시인. 인용한 넉 줄은 시 「이 가난한 마을들」(1855)의 마지막 연이다.

제6장 아직은 몹시 모호한 장

한편 이반 표도로비치는 알료샤와 헤어진 뒤 집으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우울이 그를 덮쳤고, 무엇보다 그 우울은 한 걸음 한 걸음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져 갔다. 이상한 것은 우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 우울이 무엇인지 도무지 짚어 낼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는 전에도 자주 우울에 빠졌고, 내일이면 자기를 이곳에 끌어들였던 모든 것과 갑자기 끊고 다시 방향을 홱 틀어 새로운, 전혀 알 수 없는 길에 들어서려는 참인 이런 때에, 그것도 예전처럼 다시 완전히 혼자서, 많은 것을 바라면서도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삶에서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도 자기의 기대에서도, 심지어 자기의 바람에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짚어 내지 못하는 채로 그 길에 들어서려는 이런 때에 우울이 찾아온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순간, 새롭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우울이 정말로 그의 영혼에 있기는 했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 "설마 아버지 집이 역겨워서일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만큼 넌더리가 났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고약한 문지방을 넘는다 해도 역시 역겹다……" 그러나 아니다, 그것도 아니었다. 설마 알료샤와의 작별과 그와 나눈 이야기 때문일까.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온 세상에 입을 다물고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여겼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허튼소리를 늘어놓다니." 정말로 그것은 젊은 미숙함과 젊은

허영에서 나온 젊은 분함일 수 있었다. 속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는 분함, 그것도 그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알료샤 같은 존재에게 털어놓지 못했다는 분함이었다. 물론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분함도 있었고, 심지어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모두 아니었다. "속이 메스꺼울 만큼 우울한데,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짚어 낼 힘이 없구나. 차라리 생각하지 말까……"

이반 표도로비치는 "생각하지 않으려" 해 보았지만, 그것으로도 어쩔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 우울이 분하고 짜증스러운 것은, 그것이 어딘지 우연한, 전혀 바깥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것이 느껴졌다. 어디선가 어떤 존재나 물건이 서서 툭 튀어나와 있었다. 이를테면 가끔 무언가가 눈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일을 하거나 열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는 오래도록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도 눈에 띄게 짜증이 나고 거의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그 쓸데없는 물건을 치워 버릴 생각이 드는 경우와 같았다. 그 물건은 아주 하찮고 우스운 것일 때가 많다. 제자리에 두지 않고 잊어버린 무슨 물건,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 책장에 꽂지 않은 책,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이다. 마침내 이반 표도로비치는 더없이 고약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아버지 집에 다다랐는데, 쪽문에서 열다섯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대문을 바라보자마자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던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대문 옆 벤치에 하인 스메르댜코프가 앉아 저녁 공기를 쐬며 쉬고 있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를 첫눈에 보자마자, 자기 영혼 속에도 하인 스메르댜코프가 앉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갑자기 환하게 밝혀지고 분명해졌다. 아까, 알료샤가 스메르댜코프와 만난 이야기를 할 때부터 무언가 어둡고 역겨운 것이 갑자기 그의 가슴에 박혔고, 곧바로

그의 안에서 그에 맞서는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그 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스메르댜코프는 잠시 잊혔지만, 그래도 그의 영혼 속에 남아 있었고, 이반 표도로비치가 알료샤와 헤어져 혼자 집으로 걸어가자마자 그 잊혔던 느낌이 갑자기 빠르게 다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 하찮은 악당 놈이 나를 이토록 불안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견딜 수 없는 증오에 차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요즈음, 특히 바로 요 며칠 동안 이 인간이 정말로 몹시 싫어졌다. 그는 이 존재를 향해 커져 가는 거의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증오가 그렇게 날카로워진 것은, 처음에 이반 표도로비치가 막 우리 고장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때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스메르댜코프에게 무언가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그가 아주 독창적이라고까지 여겼다. 그는 스메르댜코프가 자기와 이야기하도록 몸소 길들였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지성의 어떤 분별없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불안을 늘 이상하게 여겼고, 무엇이 "이 관조하는 사람"을 그토록 끊임없이, 끈덕지게 불안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철학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야 지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에 빛이 비쳤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반 표도로비치는 문제가 전혀 해와 달과 별에 있지 않다는 것, 해와 달과 별은 흥미로운 대상이기는 해도 스메르댜코프에게는 전혀 하찮은 세 번째 문제일 뿐이고, 그가 바라는 것은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곧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끝없는 자존심이, 게다가 상처 입은 자존심이 드러나고 폭로되기 시작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것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혐오는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 뒤로 집안에 소란이 일기 시작했고, 그루셴카가 나타났고, 드미트리

형과의 사건들이 시작되었고, 골칫거리들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스메르댜코프는 늘 몹시 흥분해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도, 역시 그 자신이 거기서 무엇을 바라는지는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면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모호한 그의 어떤 바람들은 그 비논리와 무질서에 놀라기까지 할 만했다. 스메르댜코프는 줄곧 캐물었고, 무언가 에두르는, 분명히 머리를 짜내 지어낸 물음들을 던졌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대개 자기가 캐묻던 바로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러나 마침내 이반 표도로비치를 완전히 짜증 나게 하고 그에게 그토록 혐오를 불어넣은 가장 큰 것은 스메르댜코프가 그에게 점점 더 강하게, 갈수록 더 드러내기 시작한 어떤 역겹고 특별한 허물없음이었다. 그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늘 지극히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어쩐지 일이 그렇게 되어, 스메르댜코프는 대체 왜인지 하느님만 아실 일이지만 마침내 무언가에서 이반 표도로비치와 한편이라도 된 듯이 여기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고, 마치 둘 사이에 이미 무언가 약속된, 비밀 같은 것이, 언젠가 양쪽에서 입 밖에 낸, 오직 둘만 알고 둘레에서 꼼지락거리는 다른 인간들은 알아듣지조차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말투로 늘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번에도 오랫동안 커져 가는 자기 혐오의 이 참된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침내 아주 최근에야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챌 수 있었다. 지금 그는 메스껍고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말없이, 스메르댜코프를 쳐다보지도 않고 쪽문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스메르댜코프가 벤치에서 일어섰고, 그 몸짓 하나만으로도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가 자기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를 바라보며 멈춰 섰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멈춰 서서, 1분 전까지만 해도 바랐던 대로 그냥 지나쳐 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를 온몸이 떨릴 만큼 화나게 했다. 그는 분노와 혐오에 차서 빗으로 빗어 넘긴 귀밑머리와 작게 부풀린 앞머리를 한, 거세파 교도 같은 스메르댜코프의 핼쑥한 낯짝을 바라보았다. 살짝 가늘게 뜬 그의 작은 왼쪽 눈이 깜박이며 빙글거렸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왜 가십니까, 그냥은 못 지나가실걸요. 보시다시피 우리 둘, 영리한 사람끼리 나눌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이반 표도로비치는 몸을 떨었다.

"꺼져라, 이 악당 놈아, 내가 무슨 네 동무냐, 이 바보야!" 하는 말이 혀끝에서 튀어나오려 했지만, 그 자신도 몹시 놀랍게도 혀끝에서 튀어나온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다.

"아버지는 주무시냐, 깨셨냐?" 그는 자기도 뜻밖에 조용하고 고분고분하게 말했고, 갑자기 역시 전혀 뜻밖에 벤치에 앉아 버렸다. 한순간 그는 거의 무서워졌다. 그것을 그는 나중에 떠올렸다. 스메르댜코프는 두 손을 뒷짐 진 채 그의 맞은편에 서서 자신만만하게, 거의 엄하게 바라보았다.

"아직 주무십니다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먼저 말을 꺼내신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닙니다요" 하는 듯이.) "저는 나리를 보고 놀랍니다요."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어딘지 새침하게 눈을 내리깔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 에나멜 구두 코를 까딱거리며 덧붙였다.

"뭐가 나를 보고 놀랍다는 거냐?" 이반 표도로비치가 온 힘을 다해 자기를 억누르며 퉁명스럽고 엄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혐오를 느끼며 깨달았다. 자기가 몹시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고, 그 호기심을 채우지 않고서는 결코 여기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리, 왜 체르마시냐에 가지 않으십니까요?" 스메르댜코프가 갑자기 작은 눈을 치뜨더니 허물없이 미소를 지었다. "제가 왜 웃었는지는

영리한 분이시라면 스스로 아셔야 합죠." 가늘게 뜬 그의 작은 왼쪽 눈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왜 체르마시냐에 가야 하지?" 이반 표도로비치가 놀랐다.

스메르댜코프는 다시 말이 없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께서도 몸소 그 일로 나리께 그렇게 간청하셨잖습니까요." 그는 마침내 서두르지 않고, 자기 대답을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이 말했다. 무슨 말이든 하려고 그저 하찮은 세 번째 이유로 얼버무린다는 듯이.

"에이, 젠장, 더 분명하게 말해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이반 표도로비치가 마침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고분고분하던 말투가 거칠어졌다.

스메르댜코프는 오른발을 왼발에 붙이고 몸을 더 꼿꼿이 폈지만, 여전히 똑같이 태연하게, 똑같은 작은 미소를 띠고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그냥 이야기 삼아서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거의 1분 동안 말이 없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자기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화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메르댜코프는 그의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자, 화를 내시나 안 내시나 보겠습니다요." 적어도 이반 표도로비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마침내 그가 일어서려고 몸을 흔들었다. 스메르댜코프가 꼭 그 순간을 붙잡은 듯했다.

"제 처지가 끔찍합니다요, 이반 표도로비치. 어떻게 해야 제가 살아날지조차 모르겠습니다요." 그가 갑자기 단호하게, 또박또박 말하고는 마지막 말과 함께 한숨을 쉬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곧바로 다시 주저앉았다.

"두 분 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요. 두 분 다 아주 어린애처럼 되셨습죠." 스메르댜코프가 말을 이었다. "나리 아버님과 나리 형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말씀입니다요. 이제 표도르 파블로비치께서 일어나시면 곧바로 시시각각 저를 들볶기 시작하실 겁니다요. '왜 안 왔느냐? 왜 안 왔어?' 하시면서 자정까지, 자정이 넘도록 그러실 겁니다요. 그리고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오지 않으면(그분은 어쩌면 아예 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지도 모르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저한테 달려드실 겁니다요. '왜 안 왔느냐? 어째서 안 왔느냐, 언제 오느냐?' 하고요. 꼭 제가 그분 앞에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정도 있습죠. 날이 저물기만 하면, 아니 그 전부터도 나리 형님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이웃집에 나타나십니다요. '이봐, 사기꾼 놈아, 국물쟁이 놈아, 네가 그 여자를 놓쳐서 그 여자가 왔다는 걸 나한테 알리지 않으면, 누구보다 먼저 너를 죽여 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요. 밤이 지나면 아침에 그분도 표도르 파블로비치처럼 저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기 시작하실 겁니다요. '왜 안 왔느냐, 곧 나타나느냐' 하시면서요. 꼭 그분 마님이 나타나지 않은 게 이번에도 그분 앞에서 제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분 다 날마다, 시간마다 점점 더 화가 나셔서, 저는 가끔 무서워서 제 손으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요. 나리, 저는 그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요."

"그런데 왜 끼어들었어! 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한테 일러바치기 시작했어?" 이반 표도로비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제가 어찌 끼어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요? 게다가 아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는 전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요. 저는 처음부터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줄곧 잠자코 있었는데, 그분이 몸소 저를 당신 곁에 붙어 있는 충복 리차르다로 정하신 겁니다요. 그때부터 그분은 딱 한마디밖에 모르십니다요. '놓치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이 사기꾼 놈아!' 나리, 저는 내일 틀림없이 긴 간질 발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요."

"긴 간질 발작이라니, 그게 뭐냐?"

"그런 긴 발작이 있습니다요. 아주 깁죠. 몇 시간, 아니면 어쩌면 하루, 이틀이 가기도 합니다요. 한번은 사흘쯤 간 적이 있었습죠. 그때 저는 다락에서 떨어졌습니다요. 발작이 멎었다가 다시 시작되곤 해서, 저는 사흘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요. 그때 표도르 파블로비치께서 이 고장 의사인 게르첸시투베를 부르러 보내셨는데, 그 의사가 정수리에 얼음을 대고 또 다른 약도 하나 썼습죠…… 죽을 뻔했습니다요."

"그런데 간질은 몇 시에 일어나리라고 미리 알 수 없다던데. 어떻게 내일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냐?" 이반 표도로비치가 각별하고 짜증스러운 호기심을 품고 캐물었다.

"그건 정말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요."

"게다가 그때는 다락에서 떨어졌잖아."

"다락에는 날마다 기어 올라가니까 내일도 다락에서 떨어질 수 있습죠. 다락이 아니면 지하실로 떨어지겠지요. 지하실에도 날마다 갑니다요, 볼일이 있어서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보아하니 너는 말을 꾸며 대는구나. 나는 어쩐지 네 말을 모르겠다." 그가 조용하지만 어딘지 위협하듯 말했다. "내일 사흘 동안 간질에 걸린 척하겠다는 거냐? 응?"

땅바닥을 보며 다시 오른발 끝을 까딱거리던 스메르댜코프는 오른발을 제자리에 놓고 그 대신 왼발을 앞으로 내밀더니, 고개를 들고 빙긋 웃으며 말했다.

"설령 제가 바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해도, 그러니까 꾀병을 부릴 수 있다 해도, 그리고 그건 경험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때에도 저는 제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려고 그 방법을 쓸 온전한 권리가 있습죠. 제가 앓아누워 있으면, 설령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그분 아버님께 오신다 해도, 그분이 병자한테 '왜 알리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실 수는 없으니까요. 스스로 부끄러우실 겁니다요."

"에이, 젠장!" 이반 표도로비치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켰다. "너는 왜 늘 네 목숨만 걱정하며 벌벌 떠는 거냐! 드미트리 형의 그 위협들은 모두 홧김에 하는 말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녀석은 너를 죽이지 않아. 죽인다 해도 네가 아니야!"

"파리처럼 죽이실 겁니다요. 그것도 누구보다 먼저 저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요. 그분이 아버님께 무슨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실 때 제가 그분 패거리로 몰리는 게 두렵습니다요."

"왜 네가 공범으로 몰린다는 거냐?"

"제가 바로 그 신호들을 그분께 아주 은밀히 알려 드렸으니까 공범으로 몰린다는 겁니다요."

"무슨 신호? 누구한테 알렸어? 빌어먹을 놈, 더 분명하게 말해!"

"솔직히 다 털어놓아야겠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학자연하는 태연함으로 말을 끌었다. "여기에는 저와 표도르 파블로비치 사이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요. 그분은, 몸소 아시다시피(아시기만 하신다면 말씀입니다요), 며칠 전부터 밤이 되면, 아니 저녁만 되어도 곧바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십니다요. 나리께서는 요즈음 번번이 일찍 위층 방으로 돌아가셨고, 어제는 아예 아무 데도 나가지 않으셨으니, 어쩌면 그분이 요즈음 밤마다 얼마나 정성 들여 문을 잠그시는지 모르실 겁니다요.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가 몸소 온다 해도, 목소리로 확인하신 다음에야 열어 주실 겁니다요. 그런데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는 오지 않습니다요, 지금 방 안에서 그분 시중을 드는 건 저 하나뿐인데,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와 이 일을 꾸미기 시작하신 바로 그때부터

그분이 몸소 그렇게 정하셨습죠. 그리고 밤에는 저도 그분 지시대로 물러나 곁채에서 자는데, 자정까지는 자지 말고 당번을 서면서 일어나 마당을 돌아보고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요, 그분은 벌써 며칠째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분 생각은 이렇습죠, 그 여자가, 하시면서, 그놈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그분은 형님을 미치카라고 부르십니다요) 무서워하니까 밤늦게 뒤쪽으로 나한테 올 거다, 그러니 너는, 하시면서, 자정까지, 그리고 더 늦게까지 그 여자를 지켜라. 그 여자가 오면 너는 문으로 달려와서 내 방문이나 뜰 쪽 창문을 손으로 두드려라, 처음 두 번은 좀 살살, 이렇게, 똑, 똑, 그다음에 곧바로 세 번 더 빨리, 똑똑똑. 그러면, 하시면서, 나는 곧바로 그 여자가 왔다는 걸 알아듣고 너한테 살그머니 문을 열어 주겠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 다른 신호도 알려 주셨습죠, 처음에 두 번 빨리, 똑똑, 그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 훨씬 세게. 그러면 그분은 무언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고 제가 그분을 몹시 뵈어야 한다는 걸 알아들으시고, 역시 문을 열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들어가서 아뢰는 겁니다요. 모두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몸소 오지 못하고 무슨 일로 소식을 보낼지도 모르는 경우를 위해서이고, 그 밖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도 오실 수 있으니, 그분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요. 그분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몹시 무서워하셔서, 설령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벌써 와서 그분과 함께 방에 틀어박혀 계신다 해도 그동안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어디 가까이에 나타나면, 그때도 저는 세 번 두드려서 그 사실을 곧바로 그분께 반드시 아뢰어야 합니다요. 그러니까 다섯 번 두드리는 첫째 신호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오셨다'는 뜻이고, 세 번 두드리는 둘째 신호는 '몹시 볼일이 있다'는 뜻입죠. 그분이 몸소 몇 번이고 시범을 보여 주시면서 저를 가르치고 풀어 주셨습니다요.

그리고 이 신호들은 온 우주에서 저와 그분만 아니까, 그분은 이제 아무 의심도 없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소리 내어 묻는 걸 몹시 무서워하시거든요)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요. 그런데 바로 그 신호들을 이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알게 되셨습니다요."

"어떻게 알게 됐어? 네가 알렸어? 어떻게 감히 알렸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요. 그분 앞에서 제가 어찌 감히 입을 다물 수 있었겠습니까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날마다 몰아붙이셨습니다요. '너 나를 속이지, 나한테 뭘 숨기지? 네 두 다리를 다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바로 그 비밀 신호들을 알려 드렸습죠. 하다못해 제 비굴한 충성이라도 보시고, 그걸로 제가 그분을 속이지 않고 갖은 수를 다해 일러바친다는 걸 확인하시라고요."

"그 녀석이 그 신호를 써서 들어가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 녀석을 들이지 마라."

"그런데 제가 발작을 일으켜 누워 있으면, 그분이 그토록 막무가내라는 걸 알면서 설령 제가 감히 그분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해도, 그때 제가 어떻게 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요."

"에이, 빌어먹을! 너는 왜 간질이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냐, 이 빌어먹을 놈아? 나를 놀리는 거냐, 아니냐?"

"제가 어찌 감히 나리를 놀리겠습니까요. 이렇게 무서운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요? 간질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이 듭니다요.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요. 무서움 하나 때문에라도 일어날 겁니다요."

"에이, 젠장! 네가 누워 있으면 그리고리가 지킬 거다. 그리고리한테 미리 일러 둬라. 그 사람이라면 그 녀석을 들이지 않을 테니까."

"신호에 대해서는 주인 나리의 명령 없이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께 감히 어떻게도 알릴 수 없습니다요. 그리고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가 그분 소리를 듣고 들이지 않으리라는 말씀이라면, 그분은 마침 어제부터

오늘 몸져누우셨고,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내일 그분을 치료하려 하십니다요. 아까 그렇게 정하셨습죠.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요.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무슨 풀로 담근 독한 약술을 알고 계셔서 늘 담가 두시는데, 그런 비밀을 쥐고 계시는 겁죠. 그리고 그 비밀 약으로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를 한 해에 세 번쯤 치료하십니다요, 그분이 허리를 통 못 쓰게 되어 꼭 중풍이라도 든 것처럼 될 때 말씀입니다요, 한 해에 세 번쯤이요. 그러면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수건을 가져다 그 약술에 적셔서 그분 등 전체를 반 시간 동안 문지르십니다요, 물기가 다 마르도록요, 등이 아주 시뻘게지고 부어오르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병에 남은 걸 무슨 기도를 곁들여 그분께 마시게 하시는데, 다는 아니고, 이런 드문 때에는 조금은 당신 몫으로 남겨서 당신도 마시십니다요. 그러면 두 분 다, 말씀드리지만,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라 그 자리에 쓰러져서 아주 오랫동안 깊이 주무십니다요. 그리고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는 깨어나면 그 뒤로는 거의 언제나 몸이 좋아지시고,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깨어나면 그 뒤로 언제나 머리가 아프십니다요. 그러니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내일 그 생각을 실행하시면, 그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들이지 않기는 어려우실 겁니다요.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요."

"이게 무슨 허튼소리냐! 그 모든 게 꼭 일부러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맞아떨어지는구나. 너는 간질 발작이고, 그 두 사람은 정신을 잃고!" 이반 표도로비치가 소리를 질렀다. "설마 너 스스로 그게 맞아떨어지게 꾸미려는 건 아니겠지?" 이 말이 갑자기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고, 그는 무섭게 눈썹을 찌푸렸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꾸미겠습니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꾸미겠습니까요. 여기서는 모든 게 오직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한

분에게, 그분의 생각 하나에 달려 있는데요…… 그분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하시면 저지르시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일부러 그분을 데려와서 아버님께 밀어 넣지는 않을 겁니다요."

"그런데 네 말대로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아예 오지 않는다면, 그 녀석이 무엇 하러 아버지한테 들어가겠어, 그것도 몰래?" 이반 표도로비치가 분노로 창백해지며 말을 이었다. "너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도 여기 사는 동안 줄곧 영감이 공상을 할 뿐이고 그 계집은 영감한테 오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어. 그 계집이 오지 않는다면 드미트리가 무엇 하러 영감한테 쳐들어가겠어? 말해! 네 생각을 알고 싶다."

"무엇 하러 오실지는 몸소 아시잖습니까요. 여기서 제 생각이 무슨 소용입니까요? 그분은 오직 그 미움 하나 때문에 오시거나, 이를테면 제가 앓아누운 경우에 의심이 들어서 오시겠지요. 의심이 들면 어제처럼 참지 못하고 방 안을 뒤지러 가실 겁니다요. 그 여자가 어떻게든 그분 몰래 살그머니 들어오지 않았나 하고요. 그분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께서 큰 봉투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요. 그 안에 3천 루블이 봉해져 있고, 봉인이 세 개 찍혀 있고, 리본으로 묶여 있고, 그분 친필로 '내 천사 그루셴카에게, 오겠다면'이라고 쓰여 있습죠. 그리고 사흘쯤 뒤에 '그리고 내 병아리에게'라고 덧붙여 쓰셨습니다요. 바로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요."

"헛소리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거의 미친 듯이 소리쳤다. "드미트리는 돈을 훔치러 가지 않아. 게다가 그러면서 아버지를 죽이러 가지도 않아. 어제는 미쳐 날뛰는 악에 받친 바보처럼 그루셴카 때문에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훔치러 가지는 않아!"

"그분은 지금 돈이 몹시 필요하십니다요, 막다른 지경까지 필요하십니다요, 이반 표도로비치. 얼마나 필요하신지 나리는 모르실

겁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지극히 태연하게, 놀랄 만큼 또렷하게 풀어 말했다. "게다가 바로 그 3천 루블을 그분은 꼭 자기 돈처럼 여기시고, 몸소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요. '아버지는 아직 나한테 꼭 3천 루블을 빚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이반 표도로비치, 몇 가지 참된 사실도 따져 보십쇼. 말씀드려야겠는데,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는 그분만 마음먹으면 틀림없이 그분을, 그러니까 주인 나리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자기와 결혼하게 만드실 겁니다요. 그건 거의 틀림없습죠, 마음만 먹으면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은 마음을 먹으실지도 모릅니다요. 저는 그저 그분이 오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릴 뿐이지, 그분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걸, 그러니까 곧장 마님이 되기를 바라실지도 모릅니다요. 그분의 상인 삼소노프가 그분께 아주 솔직하게, 그건 결코 어리석지 않은 일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웃기까지 했다는 걸 저는 직접 압니다요. 그리고 그분은 머리가 결코 어리석지 않으십니다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같은 알거지한테 시집갈 분이 아닙죠. 그러니 이제 이걸 짚어서 몸소 따져 보십쇼, 이반 표도로비치. 그렇게 되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도, 심지어 나리와 나리 동생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에게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무것도, 1루블도 남지 않을 겁니다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모든 걸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무슨 돈이든 있는 대로 자기 앞으로 옮겨 놓으려고 그분과 결혼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아무 일도 없는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리들 한 분 한 분께 곧바로 틀림없이 4만 루블씩 돌아갈 겁니다요, 그분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까지도요, 그분은 아직 유언장을 만들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모든 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요……"

이반 표도로비치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일그러지며 떨리는 듯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너는 왜," 그가 갑자기 스메르댜코프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한테 체르마시냐에 가라고 권하는 거냐? 그걸로 무슨 말을 하려던 거냐? 내가 떠나면 너희한테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냐." 이반 표도로비치는 숨을 몰아쉬기가 힘들었다.

"바로 그렇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조용히, 사리를 따지듯 말하면서도 이반 표도로비치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바로 그렇다니?" 이반 표도로비치가 애써 자기를 억누르고 무섭게 눈을 번득이며 되물었다.

"저는 나리가 딱해서 말씀드린 겁니다요. 제가 나리 처지라면, 이런 일 곁에 앉아 있느니 당장 이 모든 걸 내던지겠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번득이는 이반 표도로비치의 눈을 더없이 솔직한 얼굴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너는 큰 바보인 것 같구나. 그리고 물론…… 지독한 악당이고!"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곧바로 쪽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멈춰 서서 스메르댜코프 쪽으로 돌아섰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경련이라도 일으킨 듯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한순간만 더 있었다면 물론 스메르댜코프에게 덤벼들었을 것이다. 적어도 스메르댜코프는 그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온몸을 뒤로 홱 뺐다. 그러나 그 순간은 스메르댜코프에게 무사히 지나갔고, 이반 표도로비치는 말없이, 그러나 어딘지 어리둥절한 듯 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알고 싶다면 말해 주지, 나는 내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내일 아침 일찍. 그게 다야!" 그가 갑자기 악에 받쳐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그는 그때 왜 스메르댜코프에게 그런 말을 해야 했는지 스스로 놀랐다.

"그게 가장 좋습죠." 스메르댜코프가 꼭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다. "다만 무슨 그런 일이 생기면 여기서 모스크바로 전보를 보내 나리를 번거롭게 해 드릴 수는 있겠습죠."

이반 표도로비치는 다시 멈춰 서서 다시 재빨리 스메르댜코프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스메르댜코프에게도 꼭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그의 허물없음과 무심함이 순식간에 모조리 벗겨져 떨어졌다. 그의 온 얼굴에 지극한 주의와 기대가 드러났지만, 그것은 이제 겁먹고 비굴한 기대였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요, 더 덧붙이실 말씀은요?"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뚫어지게 박힌 그의 눈길에서 이렇게 읽혔다.

"체르마시냐에서도 부르지 않겠어…… 무슨 그런 일이 생기면?" 이반 표도로비치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게 갑자기 목소리를 지독하게 높이며 별안간 울부짖었다.

"체르마시냐에서도…… 번거롭게 해 드릴 겁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꼭 어쩔 줄 모르는 듯 거의 속삭이며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이반 표도로비치의 눈을 뚫어지게, 뚫어지게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만 모스크바는 멀고 체르마시냐는 가까우니, 너는 체르마시냐로 가라고 우기면서 역마차 삯을 아끼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먼 길을 돌아가게 될까 봐 나를 딱하게 여기는 거냐?"

"바로 그렇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이미 끊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다시 제때 뒤로 펄쩍 물러날 채비를 하느라 몸을 움찔 오그렸다. 그런데 이반 표도로비치는 스메르댜코프가 놀랄 만큼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계속 웃으며 재빨리 쪽문으로 들어갔다. 누가 그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가 웃은 것이 결코 그렇게

즐거워서가 아니라고 틀림없이 결론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순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꼭 경련에 휩싸인 듯 움직이고 걸었다.

제7장 "똑똑한 사람과는 이야기만 나눠도 재미있다"

그리고 말도 했다. 들어서자마자 홀에서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마주치자, 그는 두 팔을 휘저으며 별안간 소리쳤다. "저는 위층 제 방으로 갑니다.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만." 그러고는 아버지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려 애쓰며 지나쳐 갔다. 그 순간 노인이 그에게 너무나 미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의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도 뜻밖이었다. 그런데 노인은 정말로 무언가 서둘러 알려 줄 것이 있었던 모양으로, 그 때문에 일부러 홀까지 나와 아들을 맞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냥한 말을 듣자 노인은 말없이 멈춰 서서, 그 잘난 아들이 위층 다락방으로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비웃는 얼굴로 눈길을 따라 보냈다.

"저 녀석 왜 저러냐?"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를 뒤따라 들어온 스메르댜코프에게 재빨리 물었다.

"무엇 때문인지 화가 나셨습죠, 누가 그분 속을 알겠습니까요." 스메르댜코프가 얼버무리며 중얼거렸다.

"에이, 빌어먹을! 화를 내라지! 사모바르나 내오고 너는 얼른 썩 물러가라, 냉큼. 뭐 새 소식은 없느냐?"

그러자 바로 스메르댜코프가 방금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하소연하던 바로 그런 캐물음이, 곧 기다리는 여자 손님에 관한 캐물음이 줄줄이 시작되었는데, 그 캐물음은 여기서 생략하겠다. 반 시간 뒤 집은 문이

잠겼고, 정신 나간 늙은이는 이제나저제나 약속해 둔 다섯 번의 두드림 소리가 울리리라고 떨며 기다리면서 혼자 이 방 저 방을 서성였고, 이따금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거기서는 밤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밤은 이미 몹시 깊었는데, 이반 표도로비치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이리저리 궁리했다. 그는 이날 밤 늦게, 두 시쯤에야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생각의 흐름을 모두 전하지는 않겠다.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 영혼에게는 제 차례가 따로 있다. 그리고 설령 무언가 전해 보려 한다 해도 그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거기 있던 것은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 몹시 막연한 것, 무엇보다 너무나 들끓는 무언가였기 때문이다. 그 자신도 실마리를 모조리 놓쳐 버렸다고 느꼈다. 여러 가지 이상하고 거의 전혀 뜻밖인 바람들도 그를 괴롭혔는데, 이를테면 자정이 지나자 그는 갑자기, 집요하고 견딜 수 없이, 아래로 내려가 문을 열고 곁채로 가서 스메르댜코프를 두들겨 패고 싶어졌지만, 무엇 때문이냐고 물으셨다면, 그 자신도 단 하나의 이유도 정확히 대지 못했을 것이다, 굳이 대자면 이 하인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모욕을 안긴 자처럼 미워졌다는 것 말고는. 한편으로 이날 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굴욕적인 겁이 여러 번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럴 때면 그는, 그 자신도 그렇게 느꼈는데, 갑자기 몸의 기운마저 잃는 것만 같았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무언가 미운 것이 그의 영혼을 죄었다. 꼭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처럼. 그는 아까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알료샤마저 미워했고, 때때로 자기 자신도 몹시 미워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조차 거의 잊었고, 나중에 이 일을 두고 몹시 놀랐는데, 더구나 바로 어제 아침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에서 내일 모스크바로 떠나겠다고 그토록 호기롭게 큰소리쳤을 때,

그때 이미 속으로 "그렇지만 헛소리야, 너는 떠나지 않을 거다, 지금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는 못할 거다" 하고 혼자 속삭였던 것을 스스로 똑똑히 기억했기 때문이다. 한참 뒤 이날 밤을 떠올릴 때, 이반 표도로비치는 자기가 이따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누가 엿볼까 봐 몹시 두려운 듯 살그머니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가서, 아래층 방들에서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거기 아래서 꿈지럭거리며 서성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일을 유난히 혐오스럽게 떠올렸다. 그는 오래도록, 한 번에 5분씩, 무언가 이상한 호기심으로 숨을 죽이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귀를 기울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다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귀를 기울였는지는 물론 그 자신도 몰랐다. 이 "행동"을 그는 나중에 평생 "역겨운" 짓이라고 불렀고, 평생 깊이 속으로, 영혼의 은밀한 곳에서, 자기 일생을 통틀어 가장 비열한 행동으로 여겼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미움조차 느끼지 않았고, 다만 웬일인지 온 힘을 다해 궁금해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거기 아래서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지금쯤 거기 제 방에서 대략 무엇을 하고 있을지 미리 짐작하고 헤아렸고, 아버지가 거기 아래서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방 한가운데 멈춰 서서 누가 두드리지 않나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도 헤아렸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 일을 하러 계단에 두어 번 나갔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표도르 파블로비치도 이미 자리에 누웠을 때, 두 시쯤, 이반 표도로비치도 어서 잠들고 싶다는 굳은 바람을 품고 자리에 누웠다. 몹시 지쳤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는 갑자기 깊이 잠들어 꿈도 없이 잤지만, 일찍, 일곱 시쯤, 이미 날이 밝았을 때 깨어났다. 눈을 뜨자, 스스로도 놀랍게, 그는 갑자기 무언가 유별난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재빨리 벌떡 일어나 재빨리 옷을 입은 다음 여행 가방을 끌어내어 지체 없이 서둘러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속옷은 마침 어제 아침 세탁부에게서 모두 돌아와 있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맞아 갑작스러운 출발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피식 웃음까지 났다. 그리고 출발은 정말로 갑작스러웠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어제(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알료샤에게, 그리고 나중에 스메르댜코프에게) 내일 떠나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그 순간에는 떠날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적어도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맨 먼저 여행 가방부터 꾸리러 달려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아주 잘 기억했다. 마침내 여행 가방과 손가방이 다 꾸려졌고, 벌써 아홉 시 가까이 되었을 때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날마다 하는 늘 같은 물음을 들고 그의 방으로 올라왔다. "차는 어디서 드시겠어요, 방에서 드실래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실래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거의 쾌활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그의 말과 몸짓에는 어딘지 흩어지고 서두르는 듯한 데가 있었다.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건강까지 각별히 물은 뒤, 그는 그렇지만 아버지의 대답이 끝나기도 기다리지 않고, 한 시간 뒤에 모스크바로 아주 떠난다고 대뜸 알리고 말을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그 소식을 조금도 놀라지 않고 들었고, 아들이 떠나는 것을 서운해하는 시늉조차 몹시 무례하게 잊었고, 그 대신 바로 때맞춰 제 절박한 볼일 하나가 떠올라 갑자기 몹시 부산을 떨었다.

"아차! 이런 정신머리하고는! 어제 말을 못 했구나…… 뭐, 상관없다, 지금이라도 처리하면 되지. 큰 은혜 하나만 베풀어 다오, 내 귀한 아들아, 체르마시냐에 들러 다오. 볼로비야 역참에서 왼쪽으로 꺾기만 하면 되잖니, 겨우 12베르스타 남짓이면 바로 거기가 체르마시냐다."

"무슨 말씀을요, 안 됩니다. 기차역까지 80베르스타인데, 모스크바행 기차가 저녁 일곱 시에 역을 떠나요. 딱 맞춰 닿을 만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닿으면 되지, 아니면 모레, 오늘은 체르마시냐로 꺾어라. 아비 마음 좀 놓게 해 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 여기 일만 없으면 내가 벌써 다녀왔을 거다. 거기 일이 급하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서…… 이것 봐라, 거기 내 숲이 있잖니, 두 구역으로, 베기체보와 댜치키노에, 황무지에 말이다. 마슬로프네, 영감과 아들, 상인들인데, 벌채 값으로 겨우 8천을 준단다. 그런데 바로 작년만 해도 살 사람이 나서서 1만 2천을 불렀거든. 다만 이 고장 사람이 아니었어, 바로 그게 요점이야. 이 고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팔 데가 없거든. 마슬로프네가, 아비와 아들이, 10만 루블 부자들이 주먹으로 쥐고 흔든단 말이다. 그놈들이 매기는 대로 받아야지, 이 고장 사람 중에는 아무도 감히 그놈들과 겨루지 못해. 그런데 일린스코예 신부님이 지난 목요일에 갑자기 여기로 편지를 보냈는데, 고르스트킨이 왔다는 거야. 그놈도 장사치인데, 내가 그놈을 알지. 다만 귀한 건 그놈이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 포그레보보 사람이라는 거다. 그러니 마슬로프네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 고장 사람이 아니니까. 숲값으로 1만 1천을 주겠다고 한다는 거야, 듣고 있냐? 그런데 신부님 편지로는 그놈이 여기 머무는 게 겨우 한 주뿐이래. 그러니 네가 가서 그놈하고 흥정을 매듭지어 주면……"

"그럼 신부님께 편지를 쓰세요. 그분이 흥정하시면 되잖아요."

"그 양반은 그걸 못 해, 그게 탈이다. 이 신부님은 볼 줄을 몰라. 금 같은 사람이지, 내가 지금 당장 2만 루블을 영수증도 없이 맡겨도 될 만큼. 그런데 볼 줄은 통 몰라. 꼭 사람이 아닌 것처럼, 까마귀한테도 속을 거다. 그러면서도 배운 사람이란 말이다, 생각 좀 해 봐라. 이 고르스트킨이란 놈은 겉보기엔 농군이고 파란 농군 외투를 입었지만, 성품으로는 완전한 악당이야. 바로 그게 우리 모두의 골칫거리지.

그놈은 거짓말을 해, 바로 그게 요점이야. 어떤 때는 어찌나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무엇 때문에 저러나 그저 놀랄 뿐이다. 재작년에는 마누라가 죽어서 벌써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단다, 생각 좀 해 봐라. 그놈 마누라는 죽은 적이 없어. 지금도 살아 있고 사흘에 한 번씩 그놈을 두들겨 팬다. 그러니 이번에도 알아봐야 해. 사고 싶다고, 1만 1천을 내겠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그렇지만 저도 거기선 아무것도 못 해요. 저도 보는 눈이 없거든요."

"서라, 기다려, 너도 쓸모가 있다. 내가 그놈의 표지를 다 일러 줄 테니까, 그 고르스트킨 놈의 표지를 말이다. 나는 그놈하고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 왔거든. 이것 봐라, 그놈은 수염을 봐야 한다. 그놈 수염이 불그스름하고 지저분하고 가느다래. 수염이 떨리고 그놈이 말하면서 화를 내면 됐다, 참말을 하는 거고 일을 하려는 거다. 그런데 왼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실실 웃으면, 그럼 속이려는 거다, 사기를 치는 거야. 그놈 눈은 절대 보지 마라. 눈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속을 알 수 없는 물이야, 사기꾼이지. 수염을 봐라. 내가 그놈에게 보낼 쪽지를 써 줄 테니 보여 줘라. 그놈은 고르스트킨이지만, 고르스트킨이 아니라 랴가비(사냥개)야. 그러니까 그놈한테 랴가비라고 하지는 마라, 성낼 거다. 그놈하고 흥정이 되고 일이 잘된 것 같으면 곧바로 여기로 편지를 보내라. 딱 이렇게만 써라. '거짓말이 아니다.' 1만 1천에서 버텨라. 1천은 깎아 줘도 되지만 그 이상은 깎지 마라. 생각해 봐라. 8천과 1만 1천, 3천 루블 차이다. 이 3천 루블은 내가 그냥 주운 거나 마찬가지다. 살 사람을 언제 또 구하겠냐, 그런데 돈이 죽도록 필요하단 말이다. 진심이라는 기별을 주면 그땐 내가 직접 여기서 날아가서 끝을 내마. 어떻게든 짬을 내지. 그런데 이게 다 신부님이 지어낸 일이라면 지금 내가 뭣 하러 거기까지 달려가겠냐? 자, 가겠냐, 안 가겠냐?"

"에이, 시간이 없어요, 봐주세요."

"에이, 아비 부탁 좀 들어다오, 잊지 않으마! 너희는 다들 인정머리가 없어, 그게 문제다! 하루 이틀이 너한테 뭐가 대수냐?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베네치아로? 네 베네치아는 이틀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다. 알료시카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에 알료시카가 뭘 알겠냐? 나는 오직 네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다, 내가 그걸 모르겠냐. 목재 장사는 안 해도 눈은 있잖니. 여기선 그저 보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지 아닌지. 말했잖아, 수염을 봐라. 수염이 떨리면 진심이다."

"아버지가 직접 저를 그 빌어먹을 체르마시냐로 떠미시는 거죠, 네?" 이반 표도로비치가 악의에 차서 히죽 웃으며 소리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악의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알아보고 싶지 않았고, 그 웃음만 덥석 받았다.

"그러니까 가는 거지, 가는 거지? 지금 당장 쪽지를 휘갈겨 주마."

"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다가 정할게요."

"가다가가 뭐냐, 지금 정해라. 얘야, 정해 다오! 흥정이 되면 두 줄만 써서 신부님께 건네라. 그럼 신부님이 네 쪽지를 당장 나한테 보내 줄 거다. 그다음엔 너를 붙잡지 않으마, 베네치아로 가거라. 신부님이 자기 말로 너를 볼로비야 역참까지 도로 데려다줄 거다……"

노인은 그저 신이 났다. 쪽지를 휘갈겨 썼고, 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술안주와 코냑이 나왔다. 노인은 기쁠 때면 늘 한껏 들떠 떠벌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꼭 자제하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헤어짐에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것을 아주 똑똑히 알아챘다. "그렇지만 나한테 어지간히 질렸나 보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현관 층계에서 아들을 배웅할 때에야 노인은 조금 허둥대는 듯하더니 입을 맞추려고 덤벼들었다. 그러나 이반 표도로비치는 얼른 악수하라고 손을 내밀었다. 입맞춤을 피하려는 것이 뻔히 보였다. 노인은 곧바로 알아차리고 순식간에 자기를 억눌렀다.

"자, 하느님과 함께 가거라, 하느님과 함께!" 그는 층계에서 되풀이했다. "살아생전에 언젠가 또 오기는 하겠지? 그래, 오너라, 언제든 반갑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이반 표도로비치는 타란타스 마차에 올라탔다.

"잘 가라, 이반, 너무 욕하지는 마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집안사람들이 모두 배웅하러 나왔다. 스메르댜코프, 마르파, 그리고리. 이반 표도로비치는 모두에게 10루블씩 주었다. 그가 이미 타란타스에 앉았을 때, 스메르댜코프가 깔개를 바로잡으려고 달려왔다.

"알겠지…… 체르마시냐로 간다……" 이반 표도로비치에게서 어쩐지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다. 다시 어제처럼 저절로 튀어나왔고, 게다가 무언가 신경질적인 웃음까지 섞여 있었다. 그는 나중에 오랫동안 이 일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과는 이야기만 나눠도 재미있다는 사람들 말이 참말입죠." 스메르댜코프가 이반 표도로비치를 꿰뚫듯이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타란타스가 움직이더니 내달렸다. 길 떠난 사람의 마음은 어수선했지만, 그는 둘레의 들판과 언덕과 나무들을, 맑은 하늘 높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탐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그는 마부에게 말을 붙여 보았고, 농군이 대답한 말 가운데 무언가가 그에게 지독히 흥미로웠지만, 잠시 뒤 그는 그 말이 모두 귓등으로 흘러갔고 사실은 농군이 대답한 것을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공기는 맑고 신선하고 서늘했고, 하늘은 개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알료샤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모습이 언뜻 스쳤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그 사랑스러운 환영들을 조용히 훅 불어 버렸고, 환영들은 날아가 버렸다. "그들의 때는 또 올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첫 역참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말을 바꾸고 볼로비야로 내달렸다. "똑똑한 사람과는 이야기하는 게 왜 재미있다는 거지, 그놈은 그 말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갑자기 그는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나는 왜 체르마시냐로 간다고 그놈에게 아뢰었을까?" 볼로비야 역참에 닿았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타란타스에서 내리자 마부들이 그를 에워쌌다. 그들은 체르마시냐까지, 시골길로 12베르스타를, 역마가 아닌 삯말로 가는 값을 흥정했다. 그는 말을 매라고 일렀다. 그는 역참 건물로 들어가 둘레를 둘러보고 역참지기의 아내를 흘끗 보더니 갑자기 도로 층계로 나왔다.

"체르마시냐는 그만두겠네. 여보게들, 일곱 시까지 기차역에 대어 갈 수 있겠나?"

"딱 맞춰 대 드립죠. 말을 맬까요?"

"당장 매게. 자네들 중에 내일 읍내에 갈 사람 없나?"

"없을 리가요, 여기 미트리가 갑니다요."

"미트리,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없겠나? 내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댁에 들러서, 내가 체르마시냐에 가지 않았다고 전해 주게. 해 줄 수 있겠나, 없겠나?"

"들르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요, 들르겠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나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압죠."

"자, 이건 자네 술값일세. 아버지는 아마 주지 않을 테니까……" 이반 표도로비치가 즐겁게 웃었다.

"정말 안 주실 겁니다요." 미트리도 웃었다. "고맙습니다, 나리, 꼭 해드립죠……"

저녁 일곱 시에 이반 표도로비치는 객차에 올라 모스크바로 날아갔다. "지난 것은 모두 꺼져라, 예전의 세상과는 영원히 끝이다, 거기서는 소식도 메아리도 오지 않게 하라.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곳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나 환희 대신 갑자기 그의 영혼에 그런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슴에는 평생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그런 슬픔이 저며 왔다. 그는 밤새 생각했고, 객차는 날아갔고, 새벽녘, 이미 모스크바로 들어설 무렵에야 그는 갑자기 정신이 드는 듯했다.

"나는 비열한 놈이다!" 그는 혼자 속삭였다.

그런데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아들을 배웅하고 나서 아주 흡족했다. 꼬박 두 시간 동안 그는 거의 행복하다고 느끼며 코냑을 홀짝였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모두에게 몹시 분하고 몹시 언짢은 일이 하나 벌어져 순식간에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스메르댜코프가 무슨 일로인지 지하실에 가다가 맨 위 계단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마침 그때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마당에 있다가 제때 들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 여자는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 대신 비명을, 특별하고 이상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비명,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는 간질 환자의 비명을 들었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에 발작이 일어나서 그 때문에 물론 곧바로 정신을 잃고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미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 때문에 이름난 간질 환자인 스메르댜코프에게 발작이 일어났는지는 가려낼 수 없었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찾았을 때 그는 이미 지하실 바닥에서 몸을 뒤틀고 경련하며 버둥거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틀림없이 어디를,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고 크게 다쳤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의 말대로 "주님이 지켜 주셨다."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그를 끌어내 지하실에서 하느님의 빛 아래로 들어내는 일이 어려웠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 어떻게든 해냈다. 이 모든 의식에 표도르 파블로비치 자신도 함께 있었고, 직접 거들기도 했는데, 눈에 띄게 겁에 질려 넋이 나간 것 같았다. 그러나 환자는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다. 발작은 잠시 멎는가 하면 다시 되풀이되었고, 모두들 작년에 그가 역시 다락에서 잘못 떨어졌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결론지었다. 그때 그의 정수리에 얼음을 대 주었던 일이 떠올랐다. 지하실에 아직 얼음이 조금 남아 있었고,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이것저것 지시했으며,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저녁 무렵 의사 게르첸시투베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의사는 곧바로 왔다. 환자를 꼼꼼히 진찰하고 나서(그는 온 현을 통틀어 가장 꼼꼼하고 주의 깊은 의사였고, 나이 지긋하고 더없이 존경받는 노인이었다), 그는 발작이 예사롭지 않으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금으로서는 그, 게르첸시투베도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지금의 처치가 듣지 않으면 다른 처치를 하기로 마음먹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자는 곁채의, 그리고리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사는 방 옆 작은 방에 눕혔다. 그 뒤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온종일 불행에 불행만 겪었다. 점심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지었는데, 수프는 스메르댜코프가 만든 것에 대면 "구정물 같았고", 닭고기는 어찌나 바싹 말랐는지 도무지 씹을 수가 없었다.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주인의 쓰디쓴, 정당하기는 했지만 쓰디쓴 나무람에, 닭이 원래부터 아주 늙은 것이었고 자기는 요리사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꾸했다. 저녁 무렵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저께부터 앓던 그리고리가 하필 이때 거의 완전히 몸져누웠는데 허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알려

왔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차를 마치고 혼자 집 안에 틀어박혔다. 그는 무섭게 조바심치며 기다렸다. 다름 아니라 바로 이날 저녁 그는 그루셴카가 오리라고 이미 거의 확신하며 기다렸다. 적어도 그는 이른 아침에 스메르댜코프에게서 "그분께서 틀림없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죠"라는, 거의 다짐이나 다름없는 말을 받아 두었다. 이 가만있지 못하는 늙은이의 가슴은 불안하게 뛰었고, 그는 빈방들을 서성이며 귀를 기울였다. 바짝 경계해야 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어디선가 그 여자를 지키고 있을지도 몰랐고, 그 여자가 창을 두드리면(스메르댜코프가 이미 그저께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어디를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지 그 여자에게 일러 주었다고 장담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문을 열어 주고, 행여, 하느님 맙소사, 무언가에 놀라 달아나지 않도록 현관에서 단 1초도 쓸데없이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되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마음이 분주했지만, 그의 가슴이 이보다 더 달콤한 희망에 잠긴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틀림없이 오리라고 거의 확실히 말할 수 있었으니까!……

제6권 러시아의 수도사

제1장 조시마 장로와 그의 손님들

알료샤가 불안과 가슴 아픔을 안고 장로의 수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거의 어리둥절하여 멈춰 섰다. 숨을 거두어 가는 환자, 어쩌면 이미 의식도 없는 환자를 보게 될까 봐 두려워했는데, 뜻밖에도 장로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쇠약해서 몹시 여위었지만 생기 있고 밝은 얼굴로,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그들과 조용하고 환한 담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기야 그가 침상에서 일어난 것은 알료샤가 오기 겨우 15분 전쯤이었다. 손님들은 그보다 먼저 그의 수방에 모여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는데, 파이시 신부가 "스승님께서는 틀림없이 일어나실 것이오. 아침에 몸소 말씀하시고 몸소 약속하신 대로, 마음에 사랑하는 이들과 한 번 더 담화를 나누시려고" 하고 굳게 장담했기 때문이다. 파이시 신부는 이 약속을, 아니 숨을 거두어 가는 장로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굳게 믿었다. 그 믿음이 어찌나 굳었던지, 설령 장로가 이미 완전히 의식을 잃고 숨마저 멎은 것을 보더라도 한 번 더 일어나 자기와 작별하겠다는 그의 약속이 있었다면, 어쩌면 죽음 자체도 믿지 않고 죽어 가는 이가 정신을 차려 약속한 것을 이루기를 내내 기다렸을 것이다. 아침에 조시마 장로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에게 분명히 말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대들과 한 번 더 담화를 실컷 나누기 전에는, 그대들의 정다운 얼굴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그대들에게 한 번 더 쏟아 놓기 전에는 죽지 않겠소." 아마도 장로의 마지막이 될 이 담화에 모인 이들은 오래전부터 그에게 가장 헌신해 온 벗들이었다.

모두 네 사람이었다. 수도사제인 이오시프 신부와 파이시 신부, 그리고 은수처의 원장인 수도사제 미하일 신부였는데, 미하일 신부는 아직 그리 늙지 않았고 학식은 그 둘에 훨씬 못 미치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정신이 굳세고 흔들림 없이 소박하게 믿는 사람이었으며, 겉보기에는 엄했으나 마음속 깊이 감동이 배어 있었고, 그 감동을 어딘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며 감추는 것이 눈에 보였다. 네 번째 손님은 아주 늙고 소박한 작은 수도사로, 가장 가난한 농민 출신인 안핌 수사였다. 글도 거의 모르다시피 하고, 말이 없고 조용하고, 누구와도 좀처럼 말을 나누지 않는, 가장 겸손한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마치 무언가 자기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무서운 것에 영원히 겁을 먹은 사람처럼 보였다. 조시마 장로는 이 늘 떨고 있는 듯한 사람을 몹시 사랑했고 평생 그에게 남다른 존경을 보였지만, 어쩌면 평생 누구와도 그와 나눈 것보다 적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여러 해를 그와 단둘이 온 거룩한 러시아를 떠돌며 보냈는데도 그랬다. 그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 그보다 마흔 해쯤 전의 일로, 조시마 장로가 코스트로마의 가난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어느 수도원에서 처음 수사의 정진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뒤 곧 안핌 신부를 따라 그들의 가난한 코스트로마의 작은 수도원을 위한 헌금을 모으러 함께 떠돌아다녔을 때였다. 주인과 손님 모두 장로의 둘째 방, 그의 침상이 놓인 방에 자리를 잡았다. 앞서 말했듯이 몹시 비좁은 방이라, 네 사람 모두(서 있던 수련 수사 포르피리는 빼고) 첫째 방에서 들여온 의자에 앉아 장로의 안락의자 둘레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방은 성상 앞의 성상 등잔과 밀초 불빛으로 밝았다. 들어오다가 쭈뼛하여 문간에 선 알료샤를 보자, 장로는 기쁘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 왔다, 조용한 아이야, 잘 왔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너도 왔구나. 올 줄 알았다."

알료샤는 그에게 다가가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언가가 그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려 했고, 그의 영혼은 떨렸고, 그는 흐느끼고 싶었다.

"왜 그러느냐, 슬피 울기는 아직 이르다." 장로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며 미소 지었다. "보아라, 나는 앉아서 담화를 나누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앞으로 스무 해를 더 살지도 모른다. 어제 그 착하고 정다운 아낙이, 어린 리자베타를 품에 안고 온 비셰고리예의 그 아낙이 내게 빌어 준 대로 말이다. 주님, 그 어미와 어린 리자베타를 기억하소서!(그는 성호를 그었다.) 포르피리, 그 여자가 바친 것은 내가 말한 곳에 갖다주었느냐?"

그가 떠올린 것은 어제 쾌활한 순례 여인이 "저보다 가난한 여자"에게 주라며 바친 60코페이카였다. 이런 헌금은 무슨 까닭에선가 스스로 짊어진 참회의 보속처럼 바치는 것이고, 반드시 제 손으로 일해 번 돈으로 바친다. 장로는 어젯저녁에 이미 포르피리를, 얼마 전에 불이 나 집을 잃은 우리 고장의 한 소시민 여자에게 보냈다. 아이들 딸린 과부로, 불이 난 뒤 구걸하러 나선 여자였다. 포르피리는 일이 이미 끝났으며, 분부받은 대로 "이름 모를 여자 은인이 드리는 것"이라며 주었다고 서둘러 아뢰었다.

"일어나거라, 얘야." 장로가 알료샤에게 말을 이었다. "어디 너를 좀 보자. 집에 다녀왔느냐, 형은 만났느냐?"

알료샤는 장로가 형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호하고 정확하게 묻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어느 형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어제도 오늘도 그를 곁에서 내보낸 것은 어쩌면 바로 그 형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만났습니다." 알료샤가 대답했다.

"나는 그 사람, 어제 그 맏형 말이다. 내가 땅에 엎드려 절한 그 사람."

"그 형은 어제만 보았고, 오늘은 아무리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알료샤가 말했다.

"서둘러 찾아라. 내일 다시 가거라, 서둘러라,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서둘러라. 어쩌면 아직 무언가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제 그가 앞으로 겪을 크나큰 고난에 절했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이상한 말이었다. 어제 장로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지켜본 이오시프 신부가 파이시 신부와 눈길을 주고받았다. 알료샤는 참지 못했다.

"신부님, 스승님." 그가 몹시 흥분하여 말했다. "말씀이 너무 모호합니다…… 형을 기다리는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궁금해하지 마라. 어제 무언가 무서운 것이 내게 보였다…… 마치 어제 그의 눈길이 그의 운명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같았다. 그에게 그런 눈길이 한 번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마련하고 있는지 깨닫고 순간 마음속으로 소스라쳤다. 살면서 한두 번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와 같은 얼굴 표정을 보았다…… 마치 그 사람들의 운명을 모두 그려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아아, 그들의 운명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알렉세이,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낸 것은 네 아우다운 얼굴이 그를 도우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고, 우리의 운명도 모두 그렇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알렉세이, 나는 내 생애에 너의 얼굴 때문에 마음속으로 너를 여러 번 축복했다. 이것을 알아 두어라." 장로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 담장을 나서겠지만, 세상에서 수사로 머물 것이다. 너는 적이 많겠지만, 네

원수들조차 너를 사랑할 것이다. 삶은 너에게 많은 불행을 안기겠지만, 바로 그 불행으로 너는 행복할 것이고, 삶을 축복하고, 다른 이들도 축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너는 그런 사람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그는 감동하여 미소 지으며 손님들에게 몸을 돌렸다. "오늘까지 나는 이 젊은이의 얼굴이 무엇 때문에 내 영혼에 그토록 사랑스러웠는지 한 번도, 이 아이에게조차 말한 적이 없소. 이제야 말하겠소. 그의 얼굴은 내게 하나의 일깨움이자 예언 같았소. 내 날들의 새벽에,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내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겨우 열일곱 살의 젊은 나이에 내 눈앞에서 죽었소. 그리고 그 뒤 내 삶을 지나오면서, 나는 이 형이 내 운명에서 마치 위로부터 온 가리킴이자 정해 주심 같았다는 것을 차츰 확신하게 되었소. 왜냐하면 그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아예 없었더라면, 나는 어쩌면 결코,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수사의 품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귀한 길에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 첫 나타남은 아직 내 어린 시절의 일이었는데, 이제 내 길이 저물 무렵에 그것이 마치 되풀이되듯 내 눈앞에 나타났소.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참으로 놀라운 일이오. 알렉세이는 얼굴은 그와 그리 닮지 않았고 조금 닮았을 뿐인데도, 영적으로는 그와 어찌나 닮아 보였는지, 나는 여러 번 이 아이를 바로 그 젊은이, 내 형으로, 무언가를 일깨우고 꿰뚫어 보게 하려고 내 길의 끝에 신비롭게 나를 찾아온 형으로 여겼고, 그래서 나 자신과 나의 이 이상한 몽상에 스스로 놀라기까지 했소. 포르피리, 이 말을 듣느냐." 그는 자기 시중을 드는 수련 수사에게 몸을 돌렸다. "네 얼굴에서 내가 너보다 알렉세이를 더 사랑한다고 서운해하는 기색을 여러 번 보았다.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지. 그렇지만 너도 사랑한다, 그것을 알아 두어라. 그리고 네가 서운해하는 것을 여러 번 슬퍼했다. 그런데 정다운 손님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젊은이, 내 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소. 내 삶에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예언적이고 더 가슴을 울리는 나타남은 없었기 때문이오. 내 마음이 감동하여, 나는 이 순간 내 삶 전체를 마치 그것을 모두 다시 살아 내듯 바라보고 있소……"

여기서 나는 말해 두어야겠다. 장로가 생애 마지막 날 그를 찾아온 손님들과 나눈 이 마지막 담화는 일부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가 장로가 죽고 얼마 지나서 기억을 더듬어 적어 두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그때의 담화였는지, 아니면 그가 기록에 스승과 나눈 이전 담화들에서 가져온 것도 덧붙였는지, 이것은 나로서는 이제 가릴 수 없다. 게다가 이 기록에서 장로의 말은 마치 그가 벗들을 향해 자기 삶을 이야기 한 편으로 풀어놓기라도 한 듯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뒤에 나온 이야기들로 보아 실제로는 틀림없이 조금 달랐을 것이다. 그날 저녁의 담화는 모두가 함께 나눈 것이었고, 손님들이 주인의 말을 별로 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에 끼어들어 자기 말도 했으며, 어쩌면 저마다 무언가를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이야기에 그런 끊임없음이 있을 수도 없었다. 장로는 이따금 숨이 차서 목소리를 잃었고 침상에 누워 쉬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잠이 들지는 않았고, 손님들도 자리를 뜨지 않았지만. 한두 번 담화가 복음서 낭독으로 끊겼는데, 읽은 이는 파이시 신부였다. 또 눈여겨볼 만하게도,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장로가 바로 그날 밤에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생애 마지막인 이날 저녁, 그는 낮에 깊이 잠들고 난 뒤 갑자기 새 힘을 얻은 듯했고, 그 힘이 벗들과 나눈 이 긴 담화 내내 그를 받쳐 주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안에 믿기지 않는 생기를 지탱해 준 마지막 감동 같았지만, 아주 짧은 동안뿐이었다. 그의 삶은 갑자기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 지금은 담화의 세부를 모두 늘어놓지 않고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원고에 따른 장로의 이야기만으로 그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 두고 싶다. 그쪽이 더 짧고 그리 지루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알료샤가 이전 담화들에서도 많은 것을 가져와 한데 엮기는 했지만.

제2장 하느님 품에 잠든 스키마 수도사제 조시마 장로의 생애에서. 장로 자신의 말을 받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가 엮음

전기(傳記)의 기록

가) 조시마 장로의 젊은 형에 대하여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나는 북쪽 먼 현의 V. 시에서, 귀족이기는 하나 명문가도 아니고 관등도 그리 높지 않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겨우 두 살일 때 세상을 떠나서, 나는 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작은 목조 집 한 채와 얼마간의 재산을 남겼는데, 큰돈은 아니어도 아이들과 함께 궁핍하지 않게 살기에는 넉넉했다. 어머니에게는 우리 둘뿐이었다. 나 지노비, 그리고 내 형 마르켈. 형은 나보다 여덟 살쯤 위였고, 성미가 급하고 신경질적이었지만 착했고, 남을 비웃는 일이 없었고, 이상하리만치 말이 없었는데, 특히 집에서, 나와 어머니와 하인들에게 그랬다. 김나지야에서 공부는 잘했지만 동무들과는 다투지는 않아도 어울리지 않았다고, 적어도 어머니는 형을 그렇게 기억했다. 세상을 떠나기 반년 전, 이미 열일곱 살이 넘었을 때, 형은 우리 읍에 외따로 사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버릇이 들었는데, 그는 자유사상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우리 읍으로 쫓겨 온 정치 유형수 같은 사람이었다. 이 유형수는 적잖은 학자였고 대학에서 이름난 철학자였다. 웬일인지 그는 마르켈을

좋아하게 되어 집에 맞아들이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그의 집에서 저녁마다 꼬박 앉아 있었고, 겨울 내내 그랬는데, 그러다가 유형수가 제청원으로 페테르부르크의 관직에 다시 불려 갔는데, 그에게는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재가 시작되었는데 마르켈은 재를 지키려 하지 않고, 욕을 하며 그것을 비웃었다. "다 헛소리야." 형은 말했다. "하느님 같은 건 아예 없어." 그래서 어머니도 하인들도 몹시 놀랐고, 어린 나까지 그랬다. 나는 겨우 아홉 살이었지만 이 말을 듣고 나도 몹시 겁이 났기 때문이다. 우리 집 하인은 모두 농노였고 네 사람이었는데, 모두 우리와 아는 어느 지주의 이름으로 사들인 이들이었다. 이 넷 가운데 어머니가 늙고 다리를 저는 요리하는 아낙 아피미야를 지폐로 60루블에 팔고 그 자리에 자유민 여자를 들였던 일도 기억난다. 그런데 대재 여섯째 주에 형은 갑자기 병이 더 깊어졌다. 형은 늘 몸이 좋지 않았고, 가슴이 약하고 체질이 허약해 폐병에 걸리기 쉬웠으며, 키는 작지 않았지만 가늘고 허약했고, 얼굴은 무척 단정하고 고왔다. 감기에 걸린 것인지 어떤지, 아무튼 의사가 왔고 곧 어머니에게 급성 폐병이라 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그때 형은 아직 걸어 다녔기에 형에게 조심스럽게(무엇보다 형이 겁먹지 않도록) 재를 지키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를 영하라고 빌기 시작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하느님의 성전을 욕했지만 생각에 잠겼고, 자기 병이 위중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힘이 남아 있을 때 재를 지키고 영성체를 하라고 보낸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다. 하기야 형도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보다 한 해 전에도 식탁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한 번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 당신들과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한 해도 못 살 거야." 그런데 정말 예언이라도 한 것 같았다. 사흘쯤 지나 성주간이 되었다. 그리고 형은 화요일 아침부터 재를 지키러 다니기 시작했다. "어머니,

사실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형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기뻐서, 또 슬퍼서 울었다. "저렇게 갑자기 달라졌으니 그 애의 마지막이 가까운 게로구나." 그러나 형은 오래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몸져누웠고, 그래서 고해와 영성체는 이미 집에서 받았다. 밝고 맑고 향기로운 날들이 왔다. 그해는 부활절이 늦었다. 기억하기로 형은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잠을 설쳤지만, 아침이면 늘 옷을 입고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보려 했다. 나는 형을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조용하고 온순하게 앉아 미소 짓던 형을. 병들었지만 얼굴은 즐겁고 기뻤다. 형은 영혼이 송두리째 달라졌다. 그토록 놀라운 변화가 갑자기 형 안에서 시작되었다! 늙은 유모가 형 방에 들어온다. "얘야, 네 방 성상 앞에도 등잔을 켜게 해 다오." 전에는 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불을 꺼 버리기까지 했다. "켜, 유모, 켜. 전에 당신들한테 못하게 한 나는 몹쓸 놈이었어. 유모는 등잔을 켜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나는 유모를 보며 기뻐하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렸고, 어머니는 제 방으로 가서 내내 울었고, 형 방에 들어갈 때만 눈물을 닦고 즐거운 얼굴을 했다. "어머니, 울지 마, 우리 어머니." 형은 곧잘 말했다. "나는 아직 오래 살 거고, 어머니와 오래 즐겁게 지낼 거야. 삶은, 삶은 즐겁고 기쁜 거야!" "아이고, 얘야, 네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니, 밤마다 열에 들떠 타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침을 하는데." "엄마." 형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울지 마. 삶은 천국이야. 우리는 모두 천국에 있는데 그걸 알려 하지 않을 뿐이야. 알려고 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온 세상에 천국이 올 거야." 모두 형의 말에 놀랐다. 형은 그만큼 이상하게, 그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들 감동하여 울었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형은 말했다. "사랑하는 분들, 귀한 분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주나요, 무엇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해 주나요.

그리고 나는 어째서 전에는 그걸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들어오는 하인들에게는 수시로 말했다. "사랑하는 이들, 귀한 이들, 무엇 때문에 나를 섬겨요, 내가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하느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 주신다면 내가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사람은 모두 서로 섬겨야 하니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얘야, 병 때문에 네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엄마, 내 기쁨." 형이 말했다. "주인과 하인이 없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나도 내 하인들의 하인이 되게 해 줘, 그들이 내게 하인인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 또 하나 말할게.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죄가 있어.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더 그래." 어머니는 그때 피식 웃기까지 했다. 울면서 웃었다. "글쎄, 네가 무엇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보다 더 죄가 있다는 거니? 세상에는 살인자도 강도도 있는데, 네가 무슨 죄를 그리 지었다고 누구보다 더 자기를 탓하니?" "어머니, 내 피붙이." 형이 말했다(형은 그 무렵 이런 다정하고 뜻밖의 말들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기쁜 내 피붙이, 참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모두에게, 모든 것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아 줘. 그걸 어떻게 풀어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걸 괴로울 만큼 느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화를 내고 아무것도 몰랐을까?" 형은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고, 날마다 점점 더 감동하고 기뻐했고 온통 사랑으로 떨었다. 의사가 오면, 늙은 독일인 아이젠시미트가 다녔는데, 형은 곧잘 그와 농담을 했다. "그래, 선생님, 나 하루쯤은 더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하루가 뭡니까, 여러 날을 사실 겁니다." 의사는 곧잘 대답했다. "몇 달, 몇 해를 더 사실 겁니다." "몇 해가 뭐고 몇 달이 뭐예요!" 형은 곧잘 외쳤다. "여기서 날을 셀 게 뭐 있어요, 사람이 모든 행복을 아는 데는 하루로도 넉넉해요. 사랑하는 이들, 우리는 왜 다투고, 서로 앞에서 뽐내고, 서로에게 받은 서운함을 기억할까요. 곧장 정원으로 가서

거닐고 뛰놀고, 서로 사랑하고 기리고 입 맞추고 우리 삶을 축복해요." "아드님은 이 세상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현관 층계까지 배웅하자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병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형 방의 창은 정원으로 나 있었고, 우리 정원은 늙은 나무들이 서 있어 그늘이 짙었는데, 나무에는 봄눈이 맺혔고, 이른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며 형의 창에 대고 노래했다. 그러자 형은 그 새들을 바라보며 반가워하다가 갑자기 새들에게도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새들아, 기쁜 새들아, 너희도 나를 용서해 다오. 나는 너희에게도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은 그때 우리 집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형은 기뻐서 울었다. "그래." 형이 말했다. "내 둘레에는 하느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었어. 새들, 나무들, 풀밭, 하늘. 그런데 나 혼자 부끄럽게 살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더럽혔고, 아름다움과 영광은 조금도 알아보지 못했어." "너는 네게 죄를 너무 많이 지우는구나." 어머니가 곧잘 울며 말했다. "어머니, 내 기쁨, 나는 슬퍼서가 아니라 즐거워서 우는 거야. 나 스스로 그들 앞에서 죄인이 되고 싶어. 다만 어머니한테 풀어 말할 수가 없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이라면, 그 대신 모두가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게 바로 천국이야. 지금 내가 천국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 밖에도 기억해 내지도, 적어 넣지도 못할 일이 많았다. 언젠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혼자 형 방에 들어간 일이 기억난다. 맑은 저녁 무렵이었는데, 해가 지면서 비스듬한 빛줄기로 온 방을 비추었다. 형은 나를 보자 손짓해 불렀고, 내가 다가가자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 감동한 듯 다정하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분쯤 그렇게 바라보기만 했다. "자, 이제 가서 놀아라. 나 대신 살아라!" 형이 말했다. 그때 나는 나가서 놀았다. 그러나 그 뒤로 살면서, 형이

자기 대신 살라고 했던 것을 이미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떠올렸다. 형은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그때 우리로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그 밖에도 많이 했다. 형은 부활절이 지나고 셋째 주에, 의식이 또렷한 채로 세상을 떠났는데, 말은 이미 못 하게 되었지만 마지막 시각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기쁘게 바라보았고, 눈에는 즐거움이 있었고, 눈길로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미소 짓고, 우리를 불렀다. 읍내에서도 형의 죽음을 두고 말이 많았다. 그때 이 모든 일이 나를 뒤흔들었지만 아주 심하지는 않았다. 형을 묻을 때 몹시 울기는 했지만. 나는 어렸고 아이였지만, 마음에는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게 남아 그 느낌이 숨어 있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 메아리쳐야 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

나) 조시마 신부의 생애에 깃든 성경에 대하여

그때 우리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곧 친절한 지인들이 어머니에게 권했다. 이제 아들이 하나만 남았고 가난하지도 않고 재산도 있으니 남들처럼 아드님을 페테르부르크로 보내지 않을 까닭이 무엇이냐, 여기 남겨 두면 어쩌면 그 애가 누릴 빛나는 앞날을 빼앗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나를 페테르부르크의 유년 사관학교에 데려가 나중에 황실 근위대에 들어가게 하라고 어머니에게 일러 주었다. 어머니는 오래 망설였다. 마지막 남은 아들과 어떻게 헤어지나 싶었지만, 결국 내 행복을 도우리라 생각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을 정했다. 어머니는 나를 페테르부르크로 데려가 입학시켰고, 그 뒤로 나는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세 해 내내 우리 둘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애태우다가 세 해 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부모님 집에서 나는 귀한 추억만을 가지고 나왔다. 사람에게는 부모님 집에서 보낸 첫 어린 시절의 추억보다 귀한 추억이 없기 때문이며, 가족 안에 사랑과 화목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거의 언제나 그렇다. 아니, 아주 못된 가정에서도 귀한 추억이 남을 수 있다. 네 영혼이 귀한 것을 찾을 줄 알기만 하면.

집의 추억에 나는 거룩한 역사의 추억도 넣는다. 부모님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역사를 무척 알고 싶어 했다. 그때 내게는 책 한 권이, 아름다운 그림이 든 거룩한 역사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이야기 백네 편』이었고, 나는 그 책으로 글을 배웠다. 지금도 그 책은 여기 내 선반에 있다. 귀한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글을 배우기 전에도, 아직 여덟 살 때, 처음으로 어떤 영적인 깨침이 나를 찾아왔던 것이 기억난다. 어머니가 나만 데리고(그때 형이 어디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성주간 월요일에 성찬 예배를 보러 주님의 성전에 갔다. 맑은 날이었다. 지금 떠올리면 다시 보는 것만 같다.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올라 조용히 위로 올라가고, 위쪽 둥근 지붕의 좁은 창으로 하느님의 빛줄기가 교회 안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향연은 그 빛을 향해 물결치며 올라가 그 속에 녹아드는 것 같았다. 나는 감동하여 바라보았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느님 말씀의 첫 씨앗을 뜻을 알고 영혼에 받아들였다. 소년 하나가 커다란 책을 들고 성전 한가운데로 나왔는데, 그 책이 어찌나 컸던지 그때 내게는 그가 그것을 들고 오기도 힘겨워 보였다. 그는 그 책을 독경대에 올려놓고 펼쳐 읽기 시작했고, 그러자 갑자기 나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를 알아들었다. 하느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읽는지 생전 처음으로 알아들었다.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했다. 그에게는 재산이 이만큼, 낙타가 이만큼, 양과 나귀가 이만큼 있었고, 그의 자식들은 즐겁게 지냈고, 그는 자식들을 몹시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빌었다. 그들이 즐기다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느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느님께 올라가, 땅 위와 땅 밑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주님께 아뢴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느님이 그에게 물으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의 위대하고 거룩한 종을 가리키며 마귀에게 자랑하셨다. 마귀는 하느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를 내게 넘겨주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원망하며 주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보시리이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의인을 마귀에게 넘겨주셨고, 마귀는 그의 자식들과 가축을 치고 그의 재산을 흩어 버렸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벼락을 맞은 듯 한순간에. 그러자 욥은 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땅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하느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느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지금 내 눈물을 너그러이 보아 주오. 내 어린 시절이 온통 다시 내 앞에 되살아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그때 여덟 살 아이의 작은 가슴으로 숨 쉬던 것처럼 숨 쉬고, 그때처럼 놀라움과 설렘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오. 그때 낙타들이 어찌나 내 상상을 사로잡았던지. 그리고 하느님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탄, 당신의 종을 멸망에 내주신 하느님, "나를 벌하실지라도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그분의 종,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울리던 조용하고 달콤한 노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1], 다시 사제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과 무릎 꿇은 기도! 그때부터, 바로 어제도 그 책을 집어 들었는데, 나는 이 지극히 거룩한 이야기를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한다. 여기에는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롭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많은가! 나는 나중에 비웃는 자들과 모독하는 자들의 말, 오만한 말들을 들었다. 어떻게 주님이 당신의 성인들 가운데 사랑하시는 이를 마귀의 노리개로 내주시고, 그에게서 자식들을 빼앗고, 그를 병과 종기로 쳐서 그가 질그릇 조각으로 상처의 고름을 긁어내게 하실 수 있었느냐, 그것도 무엇 때문에, 그저 사탄 앞에서 "보라, 내 성인이 나를 위해 이만큼 견딜 수 있다!" 하고 자랑하시려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다는 것, 지나가는 지상의 모습과 영원한 진리가 여기서 함께 맞닿았다는 것,

거기에 위대함이 있다. 지상의 진실 앞에서 영원한 진리의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창조주는, 창조의 첫 날들에 날마다 "내가 지은 것이 좋도다" 하고 찬탄으로 하루를 맺으셨던 것처럼, 욥을 보시며 다시 당신의 피조물을 자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욥은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그분의 모든 피조물도 섬길 것이다. 그는 그러도록 정해졌기 때문이다. 주님,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책이며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이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이며, 그와 함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큰 힘인가! 세계와 사람과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새겨 놓은 조각 같고, 모든 것에 이름이 붙고 모든 것이 영원무궁토록 가리켜졌다. 풀리고 드러난 신비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하느님은 욥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에게 다시 재산을 주신다. 다시 여러 해가 지나고, 이제 그에게는 새 자식들, 다른 자식들이 있고, 그는 그들을 사랑한다. 주님! "앞의 자식들이 없는데, 그 자식들을 잃었는데, 그는 어떻게 이 새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앞의 자식들을 떠올리면서, 새 자식들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한들 새 자식들과 함께 예전처럼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래된 슬픔은 사람 삶의 크나큰 신비로 말미암아 차츰 조용하고 감동 어린 기쁨으로 바뀐다. 젊은 날의 끓는 피 대신 온유하고 맑은 노년이 온다. 나는 날마다 해돋이를 축복하고, 내 마음은 예전처럼 해돋이를 노래하지만, 이제는 해넘이를, 그 길고 비스듬한 빛줄기를, 그와 함께 오는 조용하고 온유하고 감동 어린 추억들을, 길고 축복받은 생애 전체에서 떠오르는 정다운 모습들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의 진리가 있다. 감동시키고, 화해시키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진리가! 내 삶이 끝나 간다. 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듣는다. 그러나 남은 하루하루마다 나는 내 지상의 삶이 이미 새롭고 끝없고 알 수 없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삶과 맞닿는 것을 느끼고, 그 삶을 미리

느끼며 내 영혼은 환희로 떨고, 내 정신은 빛나고, 내 마음은 기뻐 운다…… 벗들이여, 스승들이여, 나는 여러 번 들었고, 요즘 들어서는 더욱 자주 들려온다. 우리 나라의 하느님의 사제들이, 무엇보다 시골 사제들이 곳곳에서 적은 봉급과 자기들이 받는 멸시를 눈물로 하소연하고, 심지어 글로 찍어 내어(나 스스로 그것을 읽었다) 대놓고 장담한다고 한다. 봉급이 적어서 이제는 백성에게 성경을 풀어 줄 수 없다는 듯이, 그러니 루터파와 이단자들이 와서 양 떼를 빼앗아 가기 시작해도 빼앗아 가라지, 우리는 봉급이 적으니까, 하고. 주님! 나는 생각한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그토록 귀한 이 봉급을 더 주시기를(그들의 하소연도 옳으니까). 그러나 참으로 말하거니와, 여기에 죄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절반은 우리 자신이다! 시간이 없다고 하자, 그가 내내 일과 성사 집전에 짓눌려 있다고 옳게 말한다고 하자. 그래도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한 주 내내 하느님을 생각할 한 시간쯤은 있다. 또 일이 한 해 내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한 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처음에는 아이들만이라도 제 집에 불러 모은다면, 아비들이 소문을 듣고 아비들도 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일을 하려고 대궐을 지을 것도 없다. 그냥 제 오두막에 맞아들이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네 오두막을 더럽히지 않는다. 겨우 한 시간 모으는 것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 책을 펼치고 어려운 말 없이, 거드름 없이, 그들 위에 올라서지 않고, 감동하여 온유하게, 자기가 그들에게 읽어 주고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알아듣는 것을 스스로 기뻐하며, 그 말씀을 스스로 사랑하며 읽기 시작하게 하라, 이따금 멈춰서 평민이 알아듣지 못할 낱말을 풀어 주기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다 알아들을 것이다, 정교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알아들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꿈에 주님과 씨름하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고 말한 이야기를 읽어 주어라. 그러면 평민의 경건한

마음을 깊이 울릴 것이다. 그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형들이 제 친동생을, 사랑스러운 소년, 꿈꾸는 자이자 위대한 예언자인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아비에게는 피 묻은 옷을 보여 주며 짐승이 그 아들을 찢어 죽였다고 말한 이야기를 읽어 주어라. 그 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을 때, 이미 큰 고관이 된 요셉이 그들에게 알아보이지 않은 채 그들을 괴롭히고 죄를 씌우고 아우 베냐민을 붙들어 두었던 이야기를, 그것도 내내 사랑하면서 그랬던 이야기를 읽어 주어라.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오, 사랑하기에 괴롭히오." 그는 평생 쉼 없이 떠올렸기 때문이다. 어딘가 뜨거운 초원의 우물가에서 형들이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을 때, 그가 손을 비틀며 울면서 낯선 땅에 종으로 팔지 말아 달라고 형들에게 빌었던 일을. 그리고 그 많은 해가 지나 형들을 보자 그는 다시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내내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애태우고 괴롭혔다. 마침내 그는 제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그들 앞을 떠나 제 침상에 몸을 던지고 울다가, 얼굴을 닦고 환하게 빛나며 나와서 그들에게 알린다. "형들이여,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오!" 그가 이어서, 늙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고향마저 버리고 이집트로 길을 떠나 낯선 땅에서 죽으면서, 평생 그의 온유하고 소심한 마음속에 신비롭게 담겨 있던 가장 위대한 말을, 그의 혈통에서, 유다에게서 세상의 크나큰 소망이, 세상의 화해자이자 구원자가 나오리라는 말을 유언으로 영원무궁토록 남긴 이야기를 읽게 하라!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오히려 나보다 백 배는 더 능숙하고 아름답게 나를 가르쳐 줄 것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풀어 말한다고 너그러이 보아 주고 노여워하지 마오. 나는 오직 환희에 차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 내 눈물을 용서해 주오. 나는 이 책을 사랑하기 때문이오! 하느님의 사제인 그도 울게 하라. 그러면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화답하여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작은 씨앗 하나, 아주 작은 씨앗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가 그것을 평민의 영혼에 던져 넣기만 하면, 그 씨앗은 죽지 않고 평생 그의 영혼 속에 살아, 그의 안에서 어둠 가운데, 그의 죄의 악취 가운데 밝은 한 점처럼, 크나큰 일깨움처럼 숨어 있을 것이다. 많이 풀어 주고 가르칠 것도 없다, 없다. 그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알아들을 것이다. 평민이 알아듣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오? 시험 삼아 이어서 아름다운 에스더와 교만한 와스디의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는 고래 배 속에 있던 예언자 요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읽어 주어 보오. 주님의 비유들도 잊지 마오. 무엇보다 누가복음에서(나는 그렇게 했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회심을(이것은 반드시,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티 미네이』에서, 하다못해 하느님의 사람 알렉시의 생애와, 위대한 이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기쁨에 찬 수난자이자 하느님을 뵌 이요 그리스도를 품은 이인 어머니 이집트의 마리아의 생애를 읽어 주오. 그러면 이 소박한 이야기들로 그의 마음을 꿰뚫을 것이오. 그것도 적은 봉급에도 아랑곳없이 한 주에 겨우 한 시간, 단 한 시간이면 되오. 그러면 그는 우리 백성이 자비롭고 고마워할 줄 알며 백 배로 갚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사제의 정성과 그의 감동 어린 말을 기억하고 백성은 제 뜻으로 그의 밭일을 거들고 그의 집일도 거들고 예전보다 더 큰 존경으로 그에게 보답할 테니, 그러면 벌써 그의 봉급도 늘어나는 셈이다. 이 일이 너무나 순박해서 때로는 입 밖에 내기도 두렵다. 다들 비웃을 테니까. 그러나 이 일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의 백성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을 믿게 된 자는, 그전에는 그 성스러운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 해도, 그 백성의 성스러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직 백성과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힘만이 고향 땅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 무신론자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본보기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하느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멸망한다. 백성의 영혼은 말씀과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목마르게 바라기 때문이다. 내 젊은 날에, 벌써 오래전, 거의 마흔 해 전에, 나는 안핌 신부와 함께 수도원을 위한 시주를 모으며 온 러시아를 돌아다녔는데, 한번은 배가 다니는 큰 강가에서 어부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 우리 곁에 단정한 젊은이 하나, 겉보기에 이미 열여덟 살쯤 된 농민이 와서 앉았는데, 그는 내일 상인의 짐배를 밧줄로 끌러 자기 일터로 서둘러 가는 길이었다. 그가 감동하여 맑은 눈으로 앞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다. 밝고 고요하고 따뜻한 칠월의 밤이었고, 강은 넓었고, 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올라 우리를 서늘하게 했고, 이따금 물고기가 살짝 뛰어올랐고, 새들은 잠잠해졌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둘만, 나와 이 젊은이만 잠들지 않았고, 우리는 이 하느님의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크나큰 신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개미, 금빛 꿀벌, 모두 지혜가 없는데도 놀랄 만큼 제 길을 알고, 하느님의 신비를 증언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그 신비를 이루어 간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젊은이의 마음이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숲을 사랑하고 숲의 새들을 사랑한다고 털어놓았는데, 그는 새 잡는 사람이었고, 새들이 우는 소리를 하나하나 다 알아들었고, 새를 한 마리 한 마리 다 꾀어낼 줄 알았다. "저는 숲속보다 좋은 데를 모릅니다. 하기야 다 좋지요." 그가 말했다. "참으로 그렇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좋고 훌륭하다.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보아라."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말을 보아라, 사람 가까이 있는 커다란 짐승이다. 아니면 황소를 보아라,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사람을 위해 일하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황소를. 그 얼굴들을 보아라. 얼마나 온유한가, 저를 자주 무자비하게 때리는 사람을 얼마나 따르는가, 얼마나 악의가 없고,

얼마나 사람을 믿고, 그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사람 말고는 모든 것이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정말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느냐."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말씀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명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하느님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께 울며, 스스로는 모르는 채 제 죄 없는 삶의 신비로 그 일을 이룬다. 저기." 나는 그에게 말했다. "숲에는 무서운 곰이 떠돌고 있다. 사납고 흉포하지만, 그 일에 아무 죄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언젠가 숲속 작은 수방에서 구원을 구하던 위대한 성인에게 곰 한 마리가 찾아왔는데, 위대한 성인은 곰을 가엾게 여겨 두려움 없이 곰에게 나가 빵 한 조각을 주며 "가거라,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하고 말했고, 사나운 짐승은 해를 끼치지 않고 순순히 얌전하게 물러갔다는 이야기를. 젊은이는 곰이 해를 끼치지 않고 물러갔다는 것과 곰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에 감동했다. "아, 그거 참 좋습니다. 하느님의 것은 모두 얼마나 좋고 놀라운지요!" 그가 말했다. 그는 앉아서 조용하고 달콤하게 생각에 잠겼다. 알아들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내 곁에서 가볍고 죄 없는 잠에 들었다. 주님, 젊음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나도 잠자리에 들며 그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빛을 보내소서!

다) 조시마 장로가 아직 속세에 있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회상. 결투

페테르부르크의 유년 사관학교에서 나는 오래, 거의 여덟 해를 지냈고, 새로운 교육을 받으며 아무것도 잊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의

인상을 많이 덮어 버렸다. 그 대신 새로운 버릇과 생각까지 어찌나 많이 받아들였던지, 나는 거의 야만스럽고 잔인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 예절과 사교의 세련됨은 프랑스어와 함께 몸에 익혔지만, 학교에서 우리 시중을 들던 병사들을 우리는 모두 완전한 짐승으로 여겼고, 나도 그랬다. 나는 어쩌면 누구보다 더 그랬다. 동무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 가장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장교가 되어 나왔을 때 우리는 모욕당한 연대의 명예를 위해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참된 명예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거의 없었고, 알았다 해도 저부터 앞장서서 곧바로 비웃었을 것이다. 술주정과 난봉과 객기를 우리는 거의 자랑으로 여겼다. 우리가 고약한 사람들이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이 젊은이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처신이 고약했고,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고약했다. 무엇보다 내게 내 몫의 재산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젊은이다운 온갖 열정으로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고, 돛을 활짝 펴고 내달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책도, 그것도 아주 즐겨 읽었는데, 성경만은 그 무렵 거의 펼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성경과 떨어진 적이 없이 어디든 가지고 다녔다. 참으로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책을 "그 날과 그 시, 그 달과 그 해를 위하여" 간직했다. 그렇게 네 해쯤 복무하다가 나는 마침내 그때 우리 연대가 주둔하던 K. 시에 오게 되었다. 그 도시의 사교계는 가지각색이고 사람이 많고 즐거웠으며, 손님을 반기고 부유했다. 나는 어디서나 환영받았는데, 나는 타고나기를 쾌활한 성미였고, 게다가 가난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교계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다. 나는 어느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 영리하고 품위 있고 성품이 밝고 고결한, 존경받는 부모의 딸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 집은 만만치 않은 집안이라 재산과

영향력과 힘이 있었고, 나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자, 그런 공상에 내 마음이 불타올랐다. 나중에야 나 스스로 깨닫고 똑똑히 알아차렸지만, 어쩌면 나는 그 아가씨를 그토록 강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가씨의 지성과 고상한 성품을 존경했을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젊은 나이에, 게다가 돈까지 있으면서 방탕하고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총각 생활의 유혹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두렵게 여겨져서, 나는 이기심 때문에 그때 청혼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넌지시 비치기는 했다. 아무튼 결정적인 걸음은 모두 잠시 미루어 두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달 동안 다른 군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 두 달 뒤에 돌아와 보니, 그 아가씨가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었다. 상대는 도시 근교의 부유한 지주였는데,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아직 젊고, 내게는 없는 수도와 상류 사회의 연줄이 있고, 무척 상냥하고 게다가 교양까지 있는 사람이었다. 교양이라면 나는 아예 없었다. 이 뜻밖의 일에 나는 어찌나 놀랐던지 정신까지 흐려졌다. 무엇보다, 그때 곧 알게 되었지만, 이 젊은 지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가씨의 약혼자였고, 나 자신도 그 집에서 그를 수없이 마주쳤으면서도 내 장점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 나를 모욕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거의 모두가 알았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몰랐다니? 그러자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악의가 치밀었다. 얼굴을 붉히며 나는 떠올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 아가씨에게 얼마나 여러 번 거의 사랑을 털어놓다시피 했는지. 그런데 아가씨는 나를 말리지도 미리 일러 주지도 않았으니, 그렇다면 나를 비웃었다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나중에야 물론 아가씨는 조금도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농담으로 끊고 그 자리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을 깨닫고 떠올렸지만,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탔다. 놀랍게도 지금 떠올려 보면, 이 복수심과 분노는 나 자신에게도 몹시 무겁고 역겨웠는데, 나는 성미가 가벼워서 누구에게도 오래 화를 낼 수 없었고, 그래서 마치 일부러 나 스스로를 부추겼고, 마침내 추하고 어리석은 꼴이 되었다. 나는 때를 기다렸고, 한번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마침내 내 "연적"을 모욕하는 데 성공했다. 겉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핑계 삼아, 당시 중대한 사건 하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비웃었다. 26년의 일이었다. 사람들 말로는 재치 있고 능란하게 비웃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해명을 강요했고, 해명하는 자리에서 어찌나 무례하게 굴었던지, 그는 우리 사이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보다 어리고 보잘것없고 관등도 낮았는데도.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그가 내 결투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어쩌면 나를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전에도, 아내가 아직 약혼녀였을 때 나를 조금 질투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가 나에게서 모욕을 받고도 결투를 신청할 결심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 저도 모르게 그를 경멸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생각했다. 입회인은 곧 구했다. 우리 연대의 중위인 동무였다. 그 무렵 결투는 엄하게 처벌받았지만, 군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무슨 유행처럼 되어 있었다. 그만큼 야만스러운 편견이 때로는 자라나 굳어진다. 유월이 저물 무렵이었고, 우리는 이튿날 아침 일곱 시에 교외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때 내게 무언가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저녁에 사납고 추한 꼴로 집에 돌아온 나는 내 당번병 아파나시에게 화를 내며 그의 얼굴을 힘껏 두 번 때려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는 내 시중을 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에도 그를 때린 적은 있었지만 그토록 짐승처럼 잔인하게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믿어지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로부터 마흔 해가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나는 그 일을 부끄러움과 괴로움 없이 떠올리지

못하오. 나는 잠자리에 들어 세 시간쯤 잤고, 일어나 보니 벌써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일어났고, 더는 자고 싶지 않아 창가로 가서 정원 쪽으로 열리는 창을 열었는데,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따뜻하고 아름다웠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이게 무엇일까, 나는 생각했다, 내 영혼에 무언가 수치스럽고 비열한 것이 느껴지는 것은? 피를 흘리러 가기 때문일까? 아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일까? 아니다, 전혀 그게 아니다, 전혀 그게 아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곧바로 무엇 때문인지 알아차렸다. 내가 저녁에 아파나시를 때렸기 때문이었다! 모든 일이 갑자기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꼭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앞에 서 있고, 나는 그의 얼굴을 곧장 힘껏 내리친다. 그는 차렷 자세로 두 손을 바지 솔기에 붙이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열병식에서처럼 눈을 부릅뜬 채, 한 대 맞을 때마다 몸을 움찔하면서도 감히 손을 들어 막지도 못한다. 사람이 이 지경까지 몰렸다니, 사람이 사람을 때리다니! 이 무슨 죄인가! 날카로운 바늘이 내 영혼을 꿰뚫고 지나간 것 같았다. 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데, 해는 비치고, 나뭇잎들은 기뻐하며 반짝이고, 새들은, 새들은 하느님을 찬양했다…… 나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대에 쓰러져 소리 내어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 형 마르켈과 그가 죽기 전에 하인들에게 한 말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이들, 귀한 이들, 무엇 때문에 나를 섬기고,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해요, 내가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래, 내가 그럴 만한가.' 갑자기 머리에 그 생각이 떠올랐다. 정말로 내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기에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이 나를 섬긴단 말인가?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 물음이 내 정신에 박혔다. "어머니, 내 피붙이, 참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모두에게 죄가 있어. 다만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야. 알기만 하면 당장

천국이 될 거야!" '주님, 정말 이것도 진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울면서 생각했다. '참으로 나는 모두에게, 어쩌면 누구보다 더 죄가 있고, 세상 누구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자 갑자기 온 진실이 그 모든 밝음 속에서 내 앞에 떠올랐다. 나는 무엇을 하러 가는가? 착하고 영리하고 고결한, 내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그것으로 그의 아내에게서 영원히 행복을 빼앗고, 그 여자를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는 그렇게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갑자기 내 동무인 중위가 권총을 들고 나를 데리러 들어왔다. "아, 벌써 일어났구나, 잘했어. 시간 됐어, 가자." 그가 말했다. 나는 그만 허둥지둥 넋을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차에 타려고 나갔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금방 뛰어갔다 올게, 지갑을 잊었어." 그리고 나는 혼자 집으로 도로 뛰어 들어가 곧장 아파나시의 작은 방으로 갔다. "아파나시." 나는 말했다. "내가 어제 네 얼굴을 두 번 때렸지. 나를 용서해 다오." 그는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하고 바라보았고, 그러자 나는 이것으로는 모자란다, 모자란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견장을 단 그 차림 그대로 그의 발 앞에 털썩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댔다. "나를 용서해 다오!" 나는 말했다. 그러자 그는 아주 얼이 빠졌다. "나리, 어르신 나리, 어찌 나리께서…… 제가 그럴 만한……" 그러더니 갑자기 그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까 나와 꼭 같이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창 쪽으로 돌아서서 눈물로 온몸을 들썩였다. 나는 동무에게 뛰어나가 마차에 뛰어올라 "가자!" 하고 소리쳤다. "보았나."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승리자를. 여기 네 앞에 있다!" 내 안에 어찌나 환희가 차올랐던지, 나는 웃으며 가는 길 내내 지껄이고 또 지껄였다.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야, 친구, 너 대단한데. 군복을 더럽히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 닿았는데, 그들은 벌써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열두 걸음 떨어져 섰고, 첫 발은 그의 차례였는데, 나는 즐겁게, 얼굴을 맞대고 그 앞에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가 쏘았는데, 총알은 내 뺨을 아주 조금 스치고 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소리쳤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군요!" 그러고는 내 권총을 움켜쥐고 뒤로 돌아서서 숲 위쪽으로 휙 내던졌다. "거기가 네 갈 길이다!" 나는 소리쳤다. 나는 상대에게 돌아섰다. "선생." 나는 말했다. "어리석은 젊은 놈인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 잘못으로 당신을 모욕하고, 이제는 나를 쏘게까지 만들었소. 나는 당신보다 열 배는 못한 사람이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할 거요. 이 말을 당신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하는 그분께 전해 주시오."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들 셋이 모두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씀이오." 내 상대가 화까지 내며 말했다. "싸울 생각이 없었다면 무엇 하러 사람을 귀찮게 했소?" "어제는 아직 어리석었는데 오늘은 철이 들었소." 나는 그에게 아주 즐겁게 대답했다. "어제 일은 믿겠소만, 오늘 일은 당신 생각대로 판단하기 어렵소." 그가 말했다. "브라보." 나는 그에게 소리치며 손뼉을 쳤다. "그 말에도 동의하오. 들어 마땅한 말씀이오!" "선생, 쏠 거요, 안 쏠 거요?" "안 쏘겠소." 나는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한다면 한 번 더 쏘시오. 다만 쏘지 않는 편이 낫겠소." 입회인들도 소리를 질렀다. 특히 내 입회인이. "결투선에 서서 용서를 빌다니, 연대를 이렇게 망신시키다니.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나는 그들 모두 앞에 섰고, 이제는 웃지 않았다. "여러분." 나는 말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제 어리석음을 스스로 뉘우치고 제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이오?" "그래도 결투선에서는 아니지." 내 입회인이 다시 소리쳤다. "바로 그거요."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바로 그게 놀라운 일이오. 원래는 여기 오자마자,

저분이 쏘기 전에 빌어서 저분을 크나큰 죽을죄에 빠뜨리지 말았어야 했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찌나 추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렇게 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소. 내가 열두 걸음에서 저분의 총알을 견뎌 낸 뒤에야 내 말이 이제 저분에게 무언가 뜻을 지닐 수 있소. 쏘기 전에, 여기 오자마자 그랬다면 그냥 이렇게들 말했을 거요. 겁쟁이다, 권총이 무서웠던 거다, 저놈 말은 들을 것도 없다. 여러분." 나는 갑자기 진심으로 외쳤다. "둘레의 하느님의 선물들을 보시오.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 부드러운 풀, 새들, 아름답고 죄 없는 자연. 그런데 우리, 오직 우리만 하느님 없이 어리석어서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오. 우리가 깨닫고 싶어 하기만 하면 곧바로 천국이 그 모든 아름다움으로 올 것이고,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될 텐데……" 나는 더 이어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숨까지 막혔다. 달콤하게, 젊디젊게. 그리고 가슴에는 평생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행복이 차올랐다. "모두 사리에 맞고 경건한 말씀이오." 상대가 내게 말했다. "어쨌든 당신은 독창적인 사람이오." "웃으시오." 나도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는 당신이 칭찬할 거요." "아니, 나는 지금이라도 칭찬할 수 있소." 그가 말했다. "자, 당신에게 손을 내밀겠소. 당신은 정말 진실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아니오." 나는 말했다. "지금은 필요 없소. 나중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당신의 존경을 받을 만해지면, 그때 내밀어 주시오. 그러면 잘하는 일일 거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 입회인은 오는 길 내내 욕을 퍼부었고, 나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동무들이 곧바로 소문을 듣고 그날로 모여 나를 재판했다. "군복을 더럽혔으니 전역을 신청하라지." 변호하는 이들도 나섰다. "그래도 총알은 견뎠잖아." "그래, 하지만 다음 총알이 무서워서 결투선에서 용서를 빌었어." "총알이 무서웠다면." 변호하는 이들이 반박했다.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제 권총부터 쏘았겠지. 그런데 그는 장전된

권총을 숲에 던져 버렸어. 아니야, 여기에는 무언가 다른 일이, 독창적인 일이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즐겁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친구들, 동무들." 나는 말했다. "내가 전역을 신청할까 봐 걱정하지 마오. 나는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벌써 사무실에 신청했소. 전역이 되면 곧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갈 거요. 그러려고 전역을 신청하는 거요."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부터 그렇게 알렸어야지. 이제야 다 설명이 되는군. 수도사를 재판할 수는 없지." 그들은 웃고 또 웃었는데, 조금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정하고 즐겁게 웃었다. 갑자기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 가장 사납게 나를 몰아세우던 이들까지도. 그리고 그 뒤 전역이 될 때까지 그 한 달 내내 나를 마치 손바닥에 올려놓고 받들다시피 했다. "아이고, 이 수도사 양반." 그들은 말했다. 그리고 누구나 내게 다정한 말을 한마디씩 건네고, 말리기 시작하고, 가엾게 여기기까지 했다. "너 지금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니야." 그들은 말했다. "이 친구는 우리 가운데서도 용감해. 총알을 견뎌 냈고 제 권총을 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전날 밤 수도사가 되라는 꿈을 꾼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지." 도시 사교계에서도 거의 꼭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에는 나를 각별히 눈여겨보지 않고 그저 반갑게 맞아들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모두가 앞다투어 나를 알게 되고 저마다 집으로 불렀고, 저희끼리는 나를 비웃으면서도 나를 좋아했다. 여기서 말해 두지만, 그때 모두 우리 결투 이야기를 드러내 놓고 했는데도 윗사람들은 이 사건을 덮었다. 내 상대가 우리 장군의 가까운 친척이었고, 일이 피를 보지 않고 마치 장난처럼 끝났으며, 마침내 나도 전역을 신청했으니, 정말로 장난으로 돌려 버렸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들의 웃음에도 아랑곳없이 드러내 놓고 두려움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웃음은 악의가 아니라 선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 저녁에 부인들 모임에서 오갔는데, 그 무렵에는 여자들이 내 말을 더 듣기 좋아하게 되었고 남자들에게도 듣게 했다. "그런데 내가 모두에게 죄가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소." 누구나 내 면전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를테면 내가 당신에게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겠소."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온 세상이 이미 오래전에 다른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새빨간 거짓을 진실로 여기며 남들에게도 그런 거짓을 요구하는데. 나는 평생 한 번 진실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여러분 모두에게 꼭 성 바보처럼 되어 버렸소. 나를 좋아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를 비웃고 있지 않소." "당신 같은 분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주인이 소리 내어 웃으며 내게 말했다. 그 집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 부인들 가운데서 바로 그 젊은 부인이, 내가 그때 결투를 신청한 까닭이 된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신붓감으로 점찍었던 그 사람이 일어섰는데, 나는 그 부인이 이 저녁 모임에 와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부인은 일어나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비웃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당신이 하신 일에 눈물로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해요." 부인이 말했다. 그러자 그 남편도 다가왔고, 이어서 갑자기 모두가 내게 몰려와 하마터면 내게 입을 맞출 뻔했다. 나는 몹시 기뻤다. 그런데 그때 무엇보다 한 신사가 갑자기 눈에 띄었다. 이미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전에 그의 이름은 알았지만 한 번도 그와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고, 이날 저녁까지 그와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다.

라) 신비한 방문객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도시에서 관직에 있었고,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두에게 존경받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자선으로 이름이 났다. 양로원과 고아원에 상당한 재산을 기부했고, 그 밖에도 남몰래, 드러내지 않고 많은 선행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그가 죽은 뒤에 밝혀졌다. 나이는 쉰쯤이었고, 거의 엄해 보이는 얼굴이었으며 말수가 적었으며, 결혼한 지는 열 해가 넘지 않았고, 아직 젊은 아내와의 사이에 아직 어린 세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 내가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바로 그 신사가 들어왔다.

여기서 말해 두어야겠는데, 그때 나는 이미 예전 숙소에 살지 않았고, 전역을 신청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옮겨 관리의 과부인 어느 늙은 여자의 집에 하숙을 들었고, 시중은 그 집 하인에게 받았는데, 내가 이 숙소로 옮긴 것도 오직 결투에서 돌아온 그날로 아파나시를 중대로 돌려보냈기 때문이었으니, 아까 내가 그에게 한 짓을 겪고 나니 그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 준비되지 않은 세속의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가장 옳은 행동조차 부끄러워하기 쉽다.

"나는 며칠째 여러 집에서 당신 말을 무척 흥미롭게 들어 왔소." 내게 들어온 신사가 말했다. "그래서 마침내 당신과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싶어졌소. 선생, 내게 그런 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겠소?" "그럼요, 더없이 기쁘게, 각별한 영광으로 알겠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거의 겁이 났다. 처음부터 그가 그만큼 나를 놀라게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궁금해하기는 했지만, 이토록 진지하고 엄한 내면의 얼굴로 내게 다가온 이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게다가 몸소 내 숙소까지 찾아왔다. 그는 앉았다. "당신에게서 큰 성격의 힘을 보오." 그가 말을 이었다. "모두에게서 경멸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에서 자기의 진실을 위해 진리를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시는 것 같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니, 지나치지 않소." 그가 대답했다. "그런 행동을 하기가 당신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믿으시오. 사실 나는." 그가 말을 이었다. "바로 그 점에 놀랐고, 그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소. 어쩌면 몹시 무례할지도 모르는 내 호기심이 언짢지 않다면, 결투에서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기억한다면 이야기해 주시오. 내 물음을 경솔하다고 여기지 마시오. 오히려 그런 물음을 던지는 데는 내 나름의 숨은 목적이 있소. 하느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맺어 주신다면 그것은 아마 나중에 설명하게 될 거요."

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줄곧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그에게 더없이 강한 믿음이 느껴졌고, 그 밖에 나로서도 남다른 호기심이 일었다. 그의 영혼에 무언가 그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용서를 빌던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물으시는데."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그보다 아직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는 편이 낫겠소." 그러고는 아파나시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과 그에게 땅에 엎드려 절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것으로 보시다시피." 나는 그에게 결론지어 말했다. "결투 때는 이미 내게 한결 쉬웠소. 나는 이미 집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일단 이 길에 들어서자 그다음 일은 모두 어렵기는커녕 오히려 기쁘고 즐거웠소."

그는 듣고 나서 참 좋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참으로 흥미롭소. 또 오겠소, 자꾸 오겠소."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거의 저녁마다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 이야기도 했더라면 우리는 몹시 친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게 나에 대해서만 물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고, 내 모든 감정에서 그를 온전히 믿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의 비밀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그것이 없어도 이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보인다. 게다가 그토록 진지하고 나이도 나와 걸맞지

않은 사람이 젊은 나를 찾아오고 나를 꺼리지 않았다. 그는 높은 지성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에게서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웠다. "삶이 천국이라는 것." 그가 갑자기 내게 말했다. "그것은 나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소." 그러더니 갑자기 덧붙였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 일에서 당신보다 더 확신하고 있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분은 틀림없이 내게 무언가 털어놓으려는 것이다.' "천국은." 그가 말했다. "우리 저마다의 안에 숨어 있소. 지금 내 안에도 숨어 있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정말로 내게 오고, 그것도 내 평생 오게 될 거요." 보니 그는 감동하여 말하며 신비롭게 나를 바라보았다. 꼭 내게 묻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와는 별도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죄가 있다는 것." 그가 말을 이었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옳게 판단했소.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이 생각을 그토록 온전히 품을 수 있었는지 놀랍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생각을 깨닫게 되면 그들에게 천국이 꿈이 아니라 정말로 오리라는 것은 참으로 옳소."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는 그때 슬프게 그에게 외쳤다. "언제 이루어지겠소,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소? 그것은 그저 꿈이 아니겠소?" "자, 당신은 믿지 않는구려." 그가 말했다.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는 믿지 않는구려. 그렇다면 알아 두시오. 당신 말대로 이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요. 그것을 믿으시오. 다만 지금은 아니오. 모든 일에는 제 법칙이 있으니까. 이것은 영혼의 일, 심리의 일이오. 세상을 새롭게 고쳐 만들려면 사람들 스스로 정신적으로 다른 길로 돌아서야 하오. 정말로 모든 이에게 형제가 되기 전에는 형제애가 오지 않소. 사람들은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이익으로도 저마다의 재산과 권리를 서로 억울함 없이 나누지 못할 거요.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모자랄 것이고, 모두가 투덜대고 시기하고 서로를 없앨 거요. 당신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묻는구려. 이루어지겠지만, 먼저 인간의 *고립*의 시대가 끝나야 하오." "무슨 고립 말이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 어디서나, 특히 우리 시대에 판치는 그런 고립 말이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 때가 차지 않았소. 지금은 누구나 제 개인을 남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갈라놓으려 하고, 자기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맛보려 하지만, 그 온갖 노력에서 나오는 것은 삶의 충만함이 아니라 완전한 자살뿐이오. 자기 존재를 충만하게 규정하는 대신 완전한 고립에 빠지기 때문이오. 우리 시대에는 모두가 낱낱으로 갈라졌고, 누구나 제 굴에 틀어박히고, 누구나 남에게서 멀어지고 숨으며, 가진 것을 숨기고, 결국 스스로 사람들에게서 밀려나고 스스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마오. 혼자 재산을 모으며 생각하지. 이제 나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든든한가. 그런데 어리석게도, 모으면 모을수록 더 자살 같은 무력함에 빠진다는 것을 모르오. 저 혼자만 믿는 데 길들고, 낱낱이 되어 전체에서 떨어져 나왔고, 제 영혼을 사람의 도움도, 사람도, 인류도 믿지 않도록 길들였기에, 오직 제 돈과 제가 얻은 권리를 잃을까 봐 떨기만 하오. 오늘날 어디서나 사람의 지성은, 개인의 참된 보장이 저 혼자 고립된 노력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온전함에 있다는 것을 비웃으며 알아듣지 못하기 시작했소. 그러나 이 무서운 고립에도 반드시 때가 끝날 것이고, 모두가 한꺼번에 깨달을 거요.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서로 갈라졌는지. 그것이 시대의 기운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토록 오래 어둠 속에 앉아 빛을 보지 못했던 것에 놀랄 거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래도 깃발을 지켜야 하오. 이따금은 단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본보기를 보이고, 영혼을 고립에서 끌어내어 형제를 사랑하는 사귐이라는 위업으로 이끌어야 하오. 성 바보 꼴이 되더라도. 이 위대한 생각이 죽지 않게 하려는 거요……"

바로 이런 불타오르고 환희에 찬 담화 속에 우리의 저녁이 하나하나 지나갔다. 나는 사교계마저 버리고 남의 집에 훨씬 덜 드나들게 되었다. 게다가 나에 대한 유행도 지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좋아했고 즐겁게 대했으니까. 그러나 유행이 사교계에서 정말로 만만치 않은 여왕이라는 것만은 그래도 인정해야 한다. 나의 신비한 방문객을 나는 마침내 감탄하며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의 지성을 즐기는 것 말고도, 그가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품고 어쩌면 위대한 위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겉으로 그의 비밀을 궁금해하지 않고, 대놓고든 넌지시든 캐묻지 않는 것도 그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그 자신도 무언가를 내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적어도 그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서는 그것이 아주 뚜렷이 보였다. "아시오." 그가 언젠가 내게 물었다. "도시에서 우리 둘을 두고 무척 궁금해하고, 내가 이렇게 자주 당신을 찾아온다고 놀라워한다는 것을. 그러나 내버려 두시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 이따금 그는 갑자기 몹시 흥분했고, 그럴 때면 거의 언제나 일어나 가 버렸다. 이따금은 오래도록, 마치 꿰뚫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무언가 말하겠구나.' 그러나 그는 갑자기 말을 끊고 누구나 아는 평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머리가 아프다고 자주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뜻밖에, 그가 오래도록 열띠게 이야기한 뒤에, 그가 갑자기 창백해지고 얼굴이 아주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왜 그러시오." 내가 말했다. "몸이 좋지 않으시오?"

그는 바로 두통을 하소연하던 참이었다.

"나는…… 아시오…… 나는…… 사람을 죽였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미소 지었는데, 얼굴은 분필처럼 하얬다. '왜 이 사람은 미소 짓는 걸까.' 내가 무언가를 깨닫기도 전에 이 생각이 갑자기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 자신도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보시오." 그는 여전히 창백한 미소를 띤 채 내게 대답했다. "첫마디를 하기가 내게 얼마나 큰 값을 치르게 했는지. 이제 말했으니 길에 들어선 것 같소. 나아가겠소."

나는 오랫동안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한 번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흘 동안 나를 찾아와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한 뒤에야 믿었다. 나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지만, 결국에는 더없이 슬프고 놀랍게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열네 해 전에, 우리 도시에 와서 묵을 저택을 가지고 있던 젊고 아름다운 부유한 부인, 과부 지주에게 크고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그는 그 부인에게 큰 사랑을 느껴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높은 관등의 명문가 군인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그 군인은 그때 출정 중이었고, 부인은 그가 곧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은 그의 청혼을 물리치고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발길을 끊은 뒤, 그는 그 집의 구조를 알고 있었기에,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대담함으로 밤에 정원에서 지붕을 타고 부인에게 숨어들었다. 그러나 아주 흔히 그렇듯이, 유별나게 대담하게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더 자주 성공한다. 그는 지붕창으로 다락에 들어가 다락에서 사다리 계단을 타고 사람이 사는 방들로 내려갔는데, 사다리 끝에 있는 문이 하인들의 부주의로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 부주의를 믿었는데, 정말 그대로였다. 사람이 사는 방들로 숨어든 그는 어둠 속에서 부인의 침실로 갔는데, 거기에는 성상 등잔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부인의 하녀

둘이 모두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같은 거리에서 열린 이웃집 명명일 잔치에 가 있었다. 나머지 하인과 하녀들은 아래층의 하인 방과 부엌에서 자고 있었다. 잠든 부인을 보자 그의 안에서 정욕이 타올랐고, 이어서 복수심에 찬 질투 어린 악의가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고, 그는 정신없이, 술 취한 사람처럼 다가가 부인의 심장에 곧장 칼을 찔렀고, 부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러고는 지옥 같은, 더없이 흉악한 계산으로 하인들이 의심받도록 꾸몄는데, 서슴지 않고 부인의 지갑을 챙기고, 베개 밑에서 꺼낸 열쇠로 부인의 서랍장을 열어 몇 가지 물건을 꺼냈다. 바로 무식한 하인이 했을 법하게, 곧 유가 증권은 남기고 돈만 가져갔고, 큼직한 금붙이 몇 개를 가져가고, 열 배는 더 값나가지만 작은 물건들은 그냥 두었다. 기념으로 다른 것도 몇 가지 챙겼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는 들어온 길로 나갔다. 이튿날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 뒤로 평생 한 번도, 누구도 진짜 악인을 의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가 부인을 사랑했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다. 그는 늘 말이 없고 속을 터놓지 않는 성격이었고, 제 영혼을 털어놓을 벗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죽은 부인의 지인으로, 그것도 그리 가깝지 않은 지인으로 여겼는데, 마지막 두 주 동안 그는 부인을 찾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곧바로 부인의 농노 하인 표트르가 의심을 받았고, 마침 이 의심을 굳히는 정황이 모두 맞아떨어졌는데, 이 하인은 부인이 자기를 군대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죽은 부인도 그것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인의 농민들에게서 내야 할 신병 몫으로 그를 보내려 했는데, 그가 홀몸이고 게다가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가 술에 취해 화가 나서 선술집에서 부인을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 부인이 죽기 이틀 전에 그는 달아나 도시의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지냈다. 살인이 있은 이튿날, 사람들은 도시를 벗어나는 길목에서 곤드레만드레

취한 그를 찾아냈는데, 주머니에 칼이 있었고, 게다가 웬일인지 오른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코피가 났다고 우겼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녀들은 잔치에 갔었고 현관 층계의 바깥문이 자기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기지 않은 채였다고 털어놓았다.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증거가 숱하게 나타났고, 그 증거들로 죄 없는 하인이 붙잡혔다. 그는 체포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바로 한 주 뒤에 체포된 그는 열병에 걸려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죽었다. 그것으로 사건은 끝났고, 하느님의 뜻에 맡겨졌으며, 모두가, 재판관도 관청도 온 사교계도, 죄를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죽은 하인이라고 확신한 채 남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벌이 시작되었다.

신비한 손님, 이제는 내 벗이 된 그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괴로워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다는 것, 그 여자가 이제 없다는 것, 그 여자를 죽이면서 제 사랑을 죽였다는 것이 아쉬워서였다. 정욕의 불은 그의 핏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러나 흘린 무고한 피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의 희생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는 양심으로 자기는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고 확신했다. 처음에는 하인이 체포된 일이 그를 조금 괴롭혔지만, 체포된 자가 곧 병들고 이어서 죽자 마음이 놓였다. 그가 그때 따져 본 바로는, 그자는 누가 보아도 뻔히 체포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달아나 있던 동안, 곤드레만드레 취해 축축한 땅바닥에 밤새 뒹굴던 때 걸린 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다. 훔친 물건과 돈은 별로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가 역시 그렇게 따진 바로는, 도둑질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의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훔친 액수는 대단치 않았고, 그는 곧 그 액수를 모두,

아니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우리 도시에 새로 세운 양로원에 기부했다. 그는 도둑질에 대해 양심을 달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한동안, 그것도 오랫동안, 정말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 자신이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때 관직 일에 크게 몰두했고, 스스로 청하여 두 해쯤 걸리는 번거롭고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 의지가 강한 성격이었기에 그는 그 일을 거의 잊었다. 떠오를 때면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선에도 몰두해 우리 도시에서 많은 것을 세우고 기부했으며, 수도들에서도 이름을 알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 그곳 자선 단체의 회원으로 뽑혔다. 그러나 그래도 마침내 그는 제 힘에 겨운 괴로움을 안고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때 아름답고 사려 깊은 아가씨 하나가 그의 마음에 들었고, 그는 곧 그 아가씨와 결혼했다. 결혼하면 고독한 우울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고, 새 길에 들어서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의무를 열심히 다하면 옛 기억에서 아주 멀어지리라고 꿈꾸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대와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 결혼한 첫 달부터 끊임없는 생각 하나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아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내가 첫아이를 배고 그것을 그에게 알렸을 때 그는 갑자기 당황했다. '나는 생명을 주는데, 나 자신은 생명을 빼앗았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애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를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 애들에게 덕을 이야기하나. 나는 피를 흘렸는데.' 아이들은 아름답게 자랐고, 그는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이 애들의 죄 없고 맑은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마침내 죽은 희생자의 피가, 짓밟힌 그 젊은 생명이,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무섭고 쓰라리게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끔찍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는 오랫동안 그 괴로움을 견뎠다. '이 은밀한 괴로움으로

모든 것을 속죄하리라.' 그러나 이 희망도 헛되었다. 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다. 사교계에서는 그의 자선 활동 때문에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모두가 그의 엄하고 음울한 성격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면 할수록 그는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했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대신 다른 꿈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있을 수 없고 미친 짓이라고 여겼던 꿈, 그러나 마침내 그의 가슴에 어찌나 달라붙었던지 떼어 낼 수도 없게 된 꿈이었다. 그는 이렇게 꿈꾸었다. 일어나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모두에게 밝히는 것. 그는 세 해쯤 이 꿈을 품고 지냈고, 그 꿈은 갖가지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마침내 그는 자기 죄를 밝히면 틀림없이 영혼이 낫고 영원히 평안해지리라고 온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믿게 되자 가슴에 두려움이 일었다. 어떻게 실행한단 말인가? 그런데 갑자기 내 결투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당신을 보고 나는 이제 마음을 정했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렇게 작은 일이 당신에게 그런 결심을 낳을 수 있었단 말이오?" 나는 두 손을 마주 치며 그에게 외쳤다.

"내 결심은 세 해 동안 자라났소." 그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의 일은 거기에 한 번 떠밀어 주었을 뿐이오. 당신을 보고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랐고 당신을 부러워했소." 그는 엄하게까지 내게 이 말을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열네 해나 지났으니."

"증거가 있소, 큰 증거가. 내놓겠소."

그러자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한 가지만 내게 정해 주시오, 한 가지만!" 그가 내게 말했다(마치 이제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내, 아이들! 아내는 어쩌면

슬픔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귀족 신분과 재산을 잃지는 않더라도 징역살이 죄수의 자식이 되오, 영원히. 그리고 그 애들 마음에 나에 대해 어떤 기억을, 어떤 기억을 남기겠소!"

나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져서, 영원히 두고 떠나야 하오? 영원히, 영원히 말이오!"

나는 앉아서 속으로 말없이 기도를 속삭였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무서워졌다.

"어떻소?"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가시오." 내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밝히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진실만 남을 거요. 아이들은 자라면 당신의 위대한 결심에 얼마나 큰 아량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요."

그는 그때 정말로 마음을 정한 듯이 내게서 떠났다. 그러나 그 뒤로도 두 주 넘게 날마다 저녁이면 잇달아 나를 찾아왔다. 줄곧 준비만 하고 줄곧 결심하지 못했다. 그는 내 마음을 괴롭혔다. 어떤 때는 굳은 얼굴로 와서 감동하여 말했다.

"내게 천국이 오리라는 것을 아오. 밝히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오리라는 것을. 열네 해 동안 나는 지옥에 있었소. 고난을 받고 싶소. 고난을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하겠소. 거짓으로는 세상을 지나갈 수 있어도 되돌아오지는 못하오. 지금 나는 이웃은커녕 내 아이들조차 감히 사랑하지 못하오. 주님, 아이들도 어쩌면 내 고난이 내게 얼마나 큰 값이었는지 알아주고 나를 탓하지 않을 거요! 주님은 힘에 계시지 않고 진리에 계시오."

"모두가 당신의 위업을 알아줄 거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알아줄 거요. 당신은 진리를, 더 높은 진리를, 땅의 것이 아닌 진리를 섬겼으니까……"

그러면 그는 위로받은 듯이 내게서 떠나곤 했는데, 이튿날이면 갑자기 다시 악에 받쳐 창백한 얼굴로 와서 비웃듯이 말했다.

"내가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그토록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는구려. '또 밝히지 않았구나' 하고. 기다리시오, 너무 경멸하지 마시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나는 어쩌면 아예 하지 않을지도 모르오. 그렇다고 당신이 나를 고발하러 가지는 않겠지, 응?"

그런데 나는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바라보기는커녕 그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나는 병이 날 만큼 지쳐 있었고, 내 영혼은 눈물로 가득했다. 밤잠마저 잃었다.

"나는 방금." 그가 말을 이었다. "아내에게서 오는 길이오. 아내가 무엇인지 당신은 아오? 내가 나올 때 아이들이 내게 소리쳤소.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 빨리 와서 우리랑 『어린이 읽을거리』 읽어요.' 아니, 당신은 이것을 모르오! 남의 불행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법이오."

그의 눈이 번득였고 입술이 떨렸다. 갑자기 그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서 탁자 위의 물건들이 튀어 올랐다. 그토록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래야 하오?" 그가 외쳤다. "그래야만 하오?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나 때문에 아무도 징역을 가지 않았소. 하인은 병으로 죽었소. 그리고 흘린 피에 대해서는 나는 괴로움으로 벌을 받았소. 게다가 사람들은 내 말을 아예 믿지 않을 거요. 내 어떤 증거도 믿지 않을 거요. 밝혀야 하오, 밝혀야만 하오? 흘린 피를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 더 괴로워할 각오가 되어 있소. 아내와 아이들을 쳐서 쓰러뜨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들을 나와 함께 망치는 것이 옳은 일이겠소?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오? 여기서 진리가 어디 있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보고, 값어치를 알고, 존중해 주기나 하겠소?"

'주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순간에 사람들의 존중을 생각하다니!' 그리고 그때 그가 어찌나 가엾던지, 그의 짐을 덜어 줄 수만 있다면 나 스스로 그의 운명을 나누어 졌을 것만 같았다. 보니 그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나는 이런 결심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는 일인지 이제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영혼으로 깨닫고 소스라쳤다.

"내 운명을 정해 주시오!" 그가 다시 외쳤다.

"가서 밝히시오."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내게는 목소리가 모자랐지만 나는 단호하게 속삭였다. 그러고는 탁자에서 복음서, 러시아어 번역본을 집어 들어 그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여 주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그가 오기 바로 전에 이 구절을 읽은 참이었다.

그는 그것을 읽었다.

"옳은 말이오." 그가 말했지만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런 책에서는." 그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끔찍한 것을 다 만나게 되오. 남의 코앞에 들이밀기는 쉽지. 그리고 이걸 누가 썼소, 정말 사람이 썼소?"

"성령께서 쓰셨소." 내가 말했다.

"당신은 지껄이기 쉽겠지." 그가 또 비웃었는데, 이제는 거의 미움에 차 있었다. 나는 다시 책을 집어 다른 곳을 펼치고 그에게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읽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는 읽고 나서 그대로 책을 내던졌다. 온몸을 떨기까지 했다.

"무서운 구절이오." 그가 말했다. "할 말이 없소, 잘도 골랐소."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자." 그가 말했다. "안녕히 계시오.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열네 해 전부터 나는

이미 '살아 계신 하느님의 손에 빠져 들어갔'구려. 이 열네 해를 그렇게 부르는 거로군. 내일 이 손에게 나를 놓아 달라고 빌겠소……"

나는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그토록 일그러져 있었고, 눈길은 무거웠다. 그는 나갔다. '주님.'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그때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재빨리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모께 그를 위해 울며 빌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지 반 시간쯤 지났고, 벌써 밤이 깊어 자정쯤 되었다. 갑자기 보니 문이 열리고 그가 다시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디 갔다 오셨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는." 그가 말했다. "나는 무언가 잊은 것 같소…… 손수건인 것 같소…… 뭐,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해도 좀 앉게 해 주시오……"

그는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당신도 앉으시오." 그가 말했다. 나는 앉았다. 우리는 2분쯤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피식 웃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 그러고는 일어나 나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기억해 둬." 그가 말했다. "내가 두 번째로 너를 찾아왔던 일을. 듣고 있지, 이것을 기억해 둬!"

그가 처음으로 내게 *너*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내일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바로 이튿날이 그의 생일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요 며칠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기에 누구에게서도 알 수 없었다. 이날이면 해마다 그의 집에 큰 모임이 있었고, 온 도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번에도 모여들었다. 그런데 점심 식사가 끝나자 그가 한가운데로 나섰는데,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윗사람에게 올리는 정식 보고서였다. 그의 윗사람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모인 이들 모두에게 서류를 소리 내어 읽었다. 거기에는 범죄 전체가 낱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내쳐야 할 자인 나를 사람들 가운데서 내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이렇게 맺었다. "고난을 받고 싶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증명하리라 여긴 것, 열네 해 동안 간직해 온 것을 모두 가져와 탁자에 내놓았다. 의심을 자기에게서 돌리려고 훔친 죽은 부인의 금붙이들, 부인의 목에서 벗겨 낸 메달과 십자가, 메달 안에는 부인의 약혼자의 초상이 있었다. 수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두 통이었다. 곧 도착하겠다고 알리는 약혼자의 편지와, 부인이 그 편지에 쓰기 시작했으나 다 쓰지 못하고 이튿날 우체국에 보내려고 탁자에 놓아둔 답장이었다. 그는 두 편지를 다 가져갔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뒤로 증거로서 없애 버리는 대신 열네 해 동안 간직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몹시 궁금해하며 듣기는 했지만 병자의 말처럼 들었고, 며칠 지나자 집집마다 그 불행한 사람이 미쳤다고 완전히 결론짓고 판정을 내렸다. 관청과 법원은 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들도 손을 멈추었다. 제출한 물건과 편지들이 생각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여기서도 이 증거들이 진짜로 밝혀진다 해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게다가 그 물건들은 모두 그가 부인의 지인으로서 부인에게 직접 맡아 두었을 수도 있었다. 하기야 나중에 물건들이 진짜라는 것은 죽은 부인의 여러 지인과 친척을 통해 확인되었고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번에도 끝을 볼 운명이 아니었다. 닷새쯤 지나 모두가, 그 고난받는 사람이 병이 들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나도 설명할 수 없다. 심장 박동이 흐트러지는 병이라고들 했지만, 그의 아내의 고집으로 의사들의

회의가 그의 정신 상태도 진찰했고, 이미 정신이 나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나에게 캐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를 찾아가 보고 싶어 하자 오랫동안 나를 막았다. 무엇보다 그의 아내가 막았다. "당신이 그이를 어지럽혔어요." 부인이 내게 말했다. "그이는 전에도 음울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은 다들 그이에게서 예사롭지 않은 흥분과 이상한 행동을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신이 그이를 망쳤어요. 당신이 그이에게 책을 읽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달 내내 그이는 당신 집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아내만이 아니라 온 도시 사람들이 내게 달려들어 나를 탓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오." 그들이 말했다. 나는 말이 없었고, 속으로는 기뻤다. 스스로에게 맞서 일어나 스스로를 벌한 사람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틀림없는 자비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미쳤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다. 마침내 나도 그에게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 그가 나와 작별하고 싶다고 몸소 끈질기게 요구했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의 남은 날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헤아려졌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쇠약했고, 누렇게 떴고,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지만, 감동하여 기쁘게 바라보았다.

"다 이루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너를 보고 싶어 목이 탔어. 왜 오지 않았지?"

나는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께로 부르셔.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많은 해 끝에 처음으로 기쁨과 평화를 느껴. 해야 할 일을 하자마자 단번에 내 영혼에 천국을 느꼈어. 이제는 감히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입 맞출 수 있어.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 아내도, 재판관들도. 아이들도 영영 믿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서 내 아이들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자비를 봐. 나는 죽고, 내 이름은 아이들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채 남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하느님을 미리 느껴. 마음이 천국에 있는 듯 즐거워…… 의무를 다했어……"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내 손을 뜨겁게 쥐고 불타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쉴 새 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래도 그는 기어이 내게 속삭였다.

"그런데 기억하나, 내가 그때 두 번째로, 한밤중에 너를 찾아갔던 일을? 기억해 두라고까지 했지? 내가 무엇 하러 들어갔는지 아나? 나는 너를 죽이러 갔었어!"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나는 그때 너에게서 나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거리를 헤매며 나 자신과 싸웠어. 그러다가 갑자기 너를 어찌나 미워하게 되었던지 가슴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어. '이제 저 사람만이 나를 묶어 놓았고, 저 사람이 내 재판관이다. 저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이제 내일의 형벌을 거절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고발할까 봐 두려웠던 건 아니야(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나 자신을 고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 얼굴을 보지?' 그리고 네가 구만리 밖에 있다 해도 살아 있기만 하면 마찬가지야. 네가 살아서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심판한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어. 나는 마치 네가 모든 일의 원인이고 모든 일에 죄가 있는 것처럼 너를 미워했어. 나는 그때 너에게 돌아갔어. 네 탁자 위에 단검이 놓여 있던 게 기억나. 나는 앉았고 너도 앉으라고 했지. 그리고 꼬박 1분 동안 생각했어. 내가 너를 죽였다면, 이전 범죄를 밝히지 않았다 해도 이 살인 때문에 어차피 파멸했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 나는 오직 너를 미워했고, 모든 것을 두고 온

힘을 다해 너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내 마음속의 마귀를 이기셨어. 그렇지만 알아 둬, 너는 그때만큼 죽음에 가까이 간 적이 없었어."

한 주 뒤에 그는 죽었다. 온 도시 사람들이 그의 관을 무덤까지 배웅했다. 대사제가 감동 어린 추도사를 했다. 사람들은 그의 날들을 끊어 버린 무서운 병을 슬퍼했다. 그러나 그를 묻고 나자 온 도시가 내게 맞서 일어났고, 나를 맞아들이지도 않게 되었다. 하기야 몇몇 사람이, 처음에는 몇 안 되다가 차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무척 궁금해하고 기뻐하며 캐묻기 시작했다. 사람은 의인이 떨어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었고 곧 그 도시를 아주 떠났다. 그리고 다섯 달 뒤에 주 하느님께서 내게 굳고 아름다운 길에 들어설 은총을 내리셨다. 나는 그 길을 그토록 뚜렷이 가리켜 준 보이지 않는 손가락을 축복한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은 하느님의 종 미하일을 오늘날까지 날마다 내 기도에서 기억한다.

---

1. 시편 141편 2절. 정교회 만과(저녁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의 첫머리다.

제3장 조시마 장로의 담화와 가르침에서

마) 러시아의 수사에 대해, 그리고 그가 지닐 수 있는 의미에 대해 몇 마디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수사란 무엇이오? 깨인 세상에서 요즘 이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비웃음과 함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욕처럼 입에 오르오. 그리고 갈수록 더 그렇소. 사실이오, 아아 사실이오, 수도사들 가운데도 놀고먹는 자, 육신을 섬기는 자, 쾌락을 좇는 자, 뻔뻔한 떠돌이가 많소. 교양 있는 세속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키오. "당신들은 게으름뱅이고 사회의 쓸모없는 구성원이며, 남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염치없는 거지들이다." 그런데도 수도사들 가운데는 겸손하고 온유한 이들, 고독과 고요 속의 불타는 기도를 목마르게 바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소. 이들은 덜 가리키고, 아예 입을 다물고 지나치기까지 하오. 그런데 내가 이 온유한 이들, 홀로 하는 기도를 목마르게 바라는 이들에게서 어쩌면 다시 한 번 러시아 땅의 구원이 나오리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소! 왜냐하면 참으로 그들은 고요 속에서 "그 날과 그 시, 그 달과 그 해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오. 그들은 지금은 고독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름답게, 일그러뜨리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의 깨끗함 속에서, 아주 오랜 교부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때가 되면 흔들리는 세상의 진리에 그것을 보여 줄 것이오. 이것은 위대한 생각이오. 이 별은 동방에서 빛날 것이오.

나는 수사를 이렇게 생각하오. 이것이 정말 거짓이겠소, 정말 오만이겠소? 세속 사람들을, 하느님의 백성 위에 온통 높이 올라선 세상을 보시오. 거기서 하느님의 얼굴과 그분의 진리가 일그러지지 않았소? 그들에게는 학문이 있는데, 학문에는 감각에 드러나는 것만 있소. 영적인 세계, 인간 존재의 더 높은 절반은 아예 버려지고, 무슨 개가를 올리듯, 심지어 미움을 품고 쫓겨났소. 세상은 자유를 선포했소. 특히 요즘 들어 그렇소. 그런데 그들의 이 자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오. 오직 노예 됨과 자살뿐이오! 세상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오. "너에게는 욕구가 있으니 그것을 채워라. 너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으니까. 욕구를 채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늘려라."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이오. 그들은 바로 여기서 자유를 보오. 그런데 욕구를 늘릴 이 권리에서 무엇이 나오오? 부자들에게는 *고립*과 영적인 자살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시기와 살인이 나오오. 권리는 주었지만 욕구를 채울 방도는 아직 일러 주지 않았기 때문이오. 사람들은 세상이 거리를 줄이고 공중으로 생각을 전하면서 갈수록 더 하나가 되고 형제다운 사귐으로 엮여 간다고 장담하오. 아아, 사람들의 그런 하나 됨을 믿지 마시오. 자유를 욕구를 늘리고 빨리 채우는 것으로 알아들으며 그들은 제 본성을 일그러뜨리오. 제 안에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바람과 버릇과 더없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숱하게 낳기 때문이오. 그들은 오직 서로 시기하고 육신을 섬기고 거드름을 피우려고 사오. 만찬과 나들이와 마차와 관등과 노예 같은 하인을 갖는 것이 이미 그토록 꼭 필요한 일로 여겨져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목숨과 명예와 인간애까지 바치고,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오. 부유하지 않은 이들에게서도 같은 것을 보고,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채우지 못한 욕구와 시기가 지금은 술로 눌려 있소. 그러나 머지않아 술 대신 피에 취할 것이오. 그들을 그리로 이끌고 있소.

그대들에게 묻겠소. 그런 사람이 자유롭소? 나는 한 "사상의 투사"를 알았는데, 그는 감옥에서 담배를 빼앗기자 그 빼앗김에 어찌나 괴로웠던지 담배만 준다면 제 "사상"을 팔아넘기러 갈 뻔했다고 스스로 내게 이야기했소. 그런데 이런 자가 "인류를 위해 싸우러 간다"고 말하오. 이런 자가 어디로 가겠으며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기껏해야 섣부른 일 하나 정도겠지, 오래 견디지는 못할 거요. 그러니 자유 대신 노예 됨에 빠지고, 형제애와 인간의 하나 됨을 섬기는 대신 오히려 *따로 떨어짐*과 고립에 빠진 것도 놀랄 일이 아니오. 내 젊은 날 신비한 손님이자 나의 스승이 내게 말했던 그대로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류를 섬긴다는 생각, 사람들의 형제애와 온전함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꺼져 가고, 참으로 이 생각은 이제 비웃음까지 사오. 제 손으로 지어낸 숱한 욕구를 채우는 데 그토록 길든 이 노예가 어떻게 제 버릇을 떨치겠으며, 어디로 가겠소? 그는 고립 속에 있으니 전체가 그와 무슨 상관이겠소. 그리고 그들은 물건은 더 많이 쌓았지만 기쁨은 더 적어지는 데 이르렀소.

수사의 길은 다르오. 순종과 재계와 기도를 사람들은 비웃기까지 하지만, 오직 그 안에만 참된, 이미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 있소. 나는 쓸데없고 필요 없는 욕구를 끊어 내고, 제 몸만 사랑하는 오만한 내 뜻을 순종으로 누르고 매질하여, 그것으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영의 자유에, 그와 함께 영적인 기쁨에 이르오! 그들 가운데 누가 위대한 생각을 더 잘 들어 올려 그것을 섬기러 갈 수 있겠소? 고립된 부자요, 아니면 물건과 버릇의 폭정에서 *풀려난* 이 사람이오? 사람들은 수사를 그 고립을 들어 나무라오. "너는 수도원 담 안에서 제 한 몸 구하려고 고립했고, 인류를 형제로서 섬기는 일은 잊었다." 그러나 누가 형제애에 더 힘쓰는지 두고 봅시다. 고립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오. 예로부터 우리에게서 백성의 일꾼들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나올 수 없겠소? 바로 그 겸손하고 온유한 재계자들과 침묵하는 이들이 일어나 위대한 일을 하러 갈 것이오. 러시아의 구원은 백성에게서 오오. 그리고 러시아의 수도원은 예부터 백성과 함께 있었소. 백성이 고립되어 있다면 우리도 고립되어 있는 것이오. 백성은 우리처럼 믿소. 그리고 믿음 없는 일꾼은 우리 러시아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오. 마음이 진실하고 지성이 천재적이라 해도 말이오. 이것을 기억하시오. 백성은 무신론자를 맞아 그를 이길 것이고, 하나의 정교 러시아가 설 것이오. 그러니 백성을 지키고 그 마음을 보살피시오. 고요 속에서 백성을 기르시오. 이것이 그대들 수사의 위업이오. 이 백성은 하느님을 품은 백성이기 때문이오.

바) 주인과 하인에 대해, 그리고 주인과 하인이 영으로 서로 형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마디

하느님, 누가 아니라 하겠소, 백성에게도 죄가 있소. 타락의 불길은 눈에 보이게, 시시각각 커지고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오. 백성 사이에도 고립이 다가오고 있소. 고리대금업자와 마을 거머리들이 생겨나고, 상인은 벌써 점점 더 명예를 바라고, 교양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면서 교양 있는 체하려 들고, 그러려고 옛 풍습을 더럽게 업신여기고 조상의 믿음마저 부끄러워하오. 공작들 집에 드나들지만, 실은 그 자신이 망가진 농군일 뿐이오. 백성은 술로 곪았고 이제는 술을 끊지 못하오. 그리고 가족에게, 아내에게, 심지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잔인한지. 모두 술 때문이오. 나는 공장에서 열 살밖에 안 된 아이들까지 보았소. 허약하고, 시들고, 등이 굽고, 벌써 타락한 아이들을. 숨 막히는 작업장, 덜컹거리는 기계, 하느님이 주신 하루 내내 일, 음란한 말과 술, 술, 그런데 그토록 어린아이의 영혼에 그런 것이 필요하겠소? 아이에게는 해와 아이들의 놀이와 어디서나 밝은 본보기, 그리고 아이에게 주는 한 방울의 사랑이라도 필요하오. 그러니 이런 일이 없게

하시오, 수사들이여,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게 하시오. 일어나 이것을 어서, 어서 설교하시오. 그러나 하느님은 러시아를 구하실 것이오. 평민이 타락했고 악취 나는 죄를 이제 스스로 끊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자기의 악취 나는 죄가 하느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죄를 지으며 자기가 나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오. 그러니 우리 백성은 아직 쉼 없이 진리를 믿고, 하느님을 인정하고, 감동하여 우오. 윗사람들은 그렇지 않소. 그들은 학문을 좇아 오직 제 지성만으로 정의롭게 살림을 꾸리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그리스도 없이 하려 하고, 범죄는 없다, 죄는 이제 없다고 이미 선포했소. 그들 생각으로는 그 말도 옳소. 너에게 하느님이 없다면 그때 무슨 범죄가 있겠소? 유럽에서는 백성이 이미 힘으로 부자들에게 맞서 일어나고 있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곳곳에서 백성을 피로 이끌며 그들의 분노가 옳다고 가르치오. 그러나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나 러시아는 주님께서 구하실 것이오. 이미 여러 번 구하셨듯이. 구원은 백성에게서, 백성의 믿음과 겸손에서 나올 것이오.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백성의 믿음을 지키시오. 이것은 꿈이 아니오. 나는 평생 우리 위대한 백성에게서 그 아름답고 참된 품위에 놀랐소. 나 스스로 보았고, 나 스스로 증언할 수 있소. 보고 놀랐소. 우리 백성의 죄의 악취와 거지 같은 몰골에도 불구하고 보았소. 그들은 비굴하지 않소. 두 세기 동안 노예였는데도. 모습과 몸가짐이 자유롭지만 조금도 무례하지 않소. 앙갚음하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소. "당신은 귀하고, 당신은 부유하고, 당신은 영리하고 재주가 있소. 그래도 좋소, 하느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아오. 시기하지 않고 당신을 존중하는 바로 그것으로 나는 당신 앞에서 내 사람다운 품위를 드러내오." 참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아직 말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하오*. 나 스스로 보았고, 나 스스로

겪었소. 그리고 믿어지시오, 우리 러시아 사람은 가난하고 낮을수록 이 아름다운 진리가 그에게서 더 뚜렷이 보이오. 그들 가운데 부유한 고리대금업자와 마을 거머리들은 이미 숱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게으름과 소홀함에서 비롯된 것이 많소, 많소!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구하실 것이오. 러시아는 그 겸손으로 위대하기 때문이오. 나는 우리의 다가올 앞날을 보기를 꿈꾸고, 이미 그것을 뚜렷이 보는 것만 같소. 우리의 가장 타락한 부자조차 결국 가난한 이 앞에서 제 재산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가난한 이는 그 겸손을 보고 깨달아 기꺼이 그에게 양보하고, 그의 아름다운 부끄러움에 다정함으로 답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끝나리라는 것을 믿으시오. 그리로 가고 있소. 오직 사람의 영적인 품위에서만 평등이 있고, 이것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깨달을 것이오. 형제가 있다면 형제애도 있을 것이지만, 형제애가 있기 전에는 결코 나눠 가지지 못할 것이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키고 있고, 그 형상은 귀한 금강석처럼 온 세상에 빛날 것이오…… 그리 되소서, 그리 되소서!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한번은 내게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소. 떠돌아다니다가 언젠가 현청 소재지인 K. 시에서 예전 내 당번병 아파나시를 만났는데, 그때는 내가 그와 헤어진 지 이미 여덟 해가 지나 있었소. 그는 장터에서 우연히 나를 보고 알아보고는 내게 달려왔는데, 하느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대로 내게 덤벼들다시피 했소. "아이고 나리, 나리 아니십니까? 정말 나리를 뵙는 겁니까?" 그는 나를 제 집으로 데려갔소. 그는 이미 제대하고 결혼하여 갓난아이 둘을 두고 있었소. 아내와 함께 장터에서 좌판을 놓고 자잘한 장사를 하며 살았소. 그의 방은 가난했지만 깨끗하고 밝았소. 그는 나를 앉히고 사모바르를 올리고 아내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소. 마치 내가 나타나서 그에게 무슨 잔치라도 베풀어 준 것 같았소. 그는 아이들을 내게 데려왔소. "축복해

주십시오, 신부님." "내가 무슨 축복을 하겠나." 나는 그에게 대답했소. "나는 소박하고 비천한 수사일 뿐일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느님께 기도하겠네. 그리고 아파나시 파블로비치, 자네를 위해서는 그날부터 늘, 날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네. 모든 일이 자네에게서 비롯되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그것을 설명했소. 그런데 어떻소,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면서, 예전 자기 주인이고 장교였던 내가 이제 이런 모습과 이런 옷차림으로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도무지 그려 내지 못했소. 울기까지 했소. "왜 우나." 나는 그에게 말했소. "잊을 수 없는 사람아, 그보다 나를 위해 마음으로 기뻐해 주게, 이 사람아. 내 길은 기쁘고 밝으니까." 그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고, 그저 내내 아이고 하며 감동하여 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소. "그런데 나리 재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물었소. 나는 그에게 대답했소. "수도원에 바쳤네.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네." 차를 마신 뒤 내가 그들과 작별하려는데, 갑자기 그가 수도원에 바치는 헌금으로 50코페이카를 내게 내밀었고, 보니 또 50코페이카를 서둘러 내 손에 쥐여 주었소. "이건 신부님 몫입니다. 나그네로 떠도시는 분이니 쓰실 데가 있을 겁니다, 신부님." 나는 그의 50코페이카를 받고 그와 그의 아내에게 절하고 기쁘게 떠났소. 그리고 길을 가며 생각했소. '지금쯤 우리 둘 다, 그는 제 집에서, 나는 길을 가며, 아마 아이고 하면서 기쁘게 웃고 있겠지. 마음이 즐거워 고개를 끄덕이며 하느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해 주셨는지 떠올리면서.' 그 뒤로 나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소. 나는 그의 주인이었고 그는 나의 하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영적인 감동 속에 서로 입 맞추었을 때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크나큰 하나 됨이 이루어졌소. 나는 이것을 많이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오. 이 위대하고 순박한 하나 됨이 때가 되면 우리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지성으로 그토록 다다를 수 없는 일이겠소?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소. 그리고 때가 가깝소.

하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덧붙이겠소. 젊었을 때 나는 하인들에게 화를 많이 냈소. "요리사가 음식을 너무 뜨겁게 내왔다, 당번병이 옷을 털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에 들었던 사랑하는 형의 생각이 나를 비추었소. "내가 도대체 무엇이 그리 대단하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나는 그의 가난과 무지를 빌미로 그를 부려 먹는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그때 곧바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가장 단순한 생각들이 얼마나 늦게 우리 지성에 떠오르는지에 놀랐소. 세상에서 하인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너의 하인이 하인이 아닐 때보다 영이 더 자유롭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왜 내 하인의 하인이 될 수 없겠소. 그것도 그가 그것을 보도록, 내 쪽에서는 조금도 교만 없이, 그의 쪽에서는 의심 없이? 왜 내 하인이 내게 피붙이 같아서, 마침내 그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게 될 수 없겠소? 지금이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올 사람들의 찬란한 하나 됨의 바탕이 될 것이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오늘날처럼 하인을 구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하인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서대로 온 힘을 다해 스스로 모든 이의 하인이 되려 할 것이오. 마침내 사람이 오늘날처럼 잔인한 기쁨에서, 폭식과 음행과 거드름과 자랑과 남보다 위에 서려는 시기 어린 다툼에서가 아니라 오직 깨우침과 자비의 위업에서 제 기쁨을 찾게 되리라는 것이 정말 꿈이겠소?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때가 가깝다고 굳게 믿소. 사람들은 비웃으며 묻소. 그때가 대체 언제 오며, 올 것 같기는 하냐고.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위대한 일을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땅 위에, 인류의 역사에 열 해 전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사상들이, 그들을 위한 신비로운 때가 오자 갑자기 나타나 온 땅을 휩쓴 일이

얼마나 많았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백성이 세상에 빛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말할 것이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리고 비웃는 자들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싶소. 우리 것이 꿈이라면, 당신들은 대체 언제 당신들의 건물을 세우고 그리스도 없이 오직 당신들의 지성만으로 정의롭게 살림을 꾸리겠소?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 됨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도, 참으로 그것을 믿는 것은 그들 가운데 가장 순박한 이들뿐이오. 그 순박함에 놀랄 지경이오. 참으로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몽상이 더 많소. 그들은 정의롭게 살림을 꾸리려 하지만,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결국 세상을 피로 물들이고 말 것이오. 피는 피를 부르고, 검을 뽑은 자는 검으로 망하기 때문이오.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다면 그들은 땅 위의 마지막 두 사람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없애 버릴 것이오. 그리고 그 마지막 두 사람도 교만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 주지 못해,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에서 둘째 사람을 없애고, 이어서 자기 자신도 없앨 것이오.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을 위해 이 일이 줄어들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오. 결투 뒤에, 아직 장교 제복을 입고 있던 나는 그때 사교계에서 하인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기억하기로 모두가 내게 놀랐소. "그럼 우리가 하인을 소파에 앉히고 차라도 갖다 바치란 말이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소, 가끔만이라도." 그때 모두가 웃었소. 그들의 물음은 경솔했고 내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 안에도 얼마간 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오.

사) 기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다른 세계들과 맞닿는 것에 대해

젊은이여, 기도를 잊지 마라. 네 기도가 진실하다면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언뜻 스칠 것이고, 그 안에 네가 전에 몰랐던 새로운 생각도 있어 너를 다시 북돋울 것이고, 그러면 기도가 곧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어라. 날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어라. "주님, 오늘 당신 앞에 선 모든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시각각, 순간순간 수천의 사람이 이 땅에서 제 삶을 떠나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가 아무도 모르게 외따로, 아무도 자기를 아쉬워하지 않고 자기가 살았는지 아닌지조차 아예 모른다는 슬픔과 우울 속에 이 땅과 헤어졌는가. 그런데 어쩌면 땅의 다른 끝에서 그의 안식을 위한 네 기도도 주님께 올라갈 것이다. 네가 그를 전혀 몰랐고 그도 너를 몰랐다 해도. 두려움 속에 주님 앞에 선 그의 영혼이 그 순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땅 위에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 존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가슴 뭉클하겠느냐. 그리고 하느님도 너희 둘을 더 자비롭게 굽어보실 것이니, 네가 이미 그토록 그를 가엾게 여겼다면, 너보다 한없이 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은 더욱 그를 가엾게 여기실 테니까. 그리고 너를 보아 그를 용서하실 것이다.

형제들이여, 사람들의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죄 속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오. 이것이 이미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고 땅 위에서 사랑의 정점이기 때문이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그 전체도 모래알 하나하나도 사랑하시오. 나뭇잎 하나하나, 하느님의 빛줄기 하나하나를 사랑하시오. 짐승을 사랑하고, 풀과 나무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오. 모든 것을 사랑하면 사물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을 것이다. 한번 깨닫게 되면 날마다 쉼 없이 그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이미 온전한, 온 세상을 품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짐승을 사랑하시오. 하느님은 짐승에게 생각의 시작과 거리낌 없는 기쁨을 주셨소. 그 기쁨을 어지럽히지 말고, 짐승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오. 사람이여, 짐승 위에 스스로

높이지 마라. 짐승은 죄가 없는데, 너는 너의 위대함으로 땅 위에 나타나 땅을 썩게 하고 뒤에 썩은 자취를 남긴다. 아아, 우리 거의 누구나 그렇다! 아이들을 특히 사랑하시오. 아이들도 천사처럼 죄가 없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가리킴처럼 살기 때문이오. 아기를 모욕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나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 이는 안핌 신부였소. 사랑스럽고 우리의 떠돌이 길에서 늘 말이 없던 그는, 동냥으로 받은 푼돈으로 아이들에게 줄 과자와 사탕을 사서 나누어 주곤 했소. 아이들 곁을 지나칠 때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했소. 그런 사람이었소.

어떤 생각 앞에서는, 특히 사람들의 죄를 보면 어쩔 줄 몰라 스스로 묻게 될 것이다. "힘으로 사로잡을까, 겸손한 사랑으로 사로잡을까?" 언제나 이렇게 정하라. "겸손한 사랑으로 사로잡겠다." 한번 그렇게 영원히 정하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겸손은 무서운 힘, 모든 힘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이고, 그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날마다, 시시각각, 순간마다 너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네 모습이 아름답도록 하라. 보라, 너는 어린아이 곁을 지나갔다. 악에 받쳐, 더러운 말을 내뱉으며, 노여운 영혼으로 지나갔다. 너는 어쩌면 그 아이를 알아채지도 못했겠지만, 아이는 너를 보았고, 보기 흉하고 불경한 네 모습이 어쩌면 아이의 무방비한 작은 가슴에 남았을지도 모른다. 너는 그것을 몰랐지만, 어쩌면 너는 그것으로 이미 아이에게 나쁜 씨앗을 던졌고, 그 씨앗은 아마 자랄 텐데, 이 모든 것이 네가 아이 앞에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 안에 조심스러운 사랑, 실행하는 사랑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사랑은 스승이오. 그러나 사랑을 얻을 줄 알아야 하오. 사랑은 어렵게 얻어지고, 오랜 수고로, 오랜 시간을 거쳐 비싸게 사들여지기 때문이오. 우연한 한순간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오. 우연히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소. 악인도 사랑할 것이오. 젊은 내 형은 새들에게 용서를 빌었소. 그것은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진리요. 모든 것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이 흐르고 맞닿아 있으니, 한 곳을 건드리면 세상의 다른 끝에서 울리기 때문이오. 새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미친 짓이라 해도, 네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단 한 방울만큼이라도 더 아름다웠다면 새들도, 아이도, 네 곁의 모든 짐승도 한결 편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바다와 같다고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오. 그때 너는 온전한 사랑에 시달려, 마치 무슨 환희에 사로잡힌 듯 새들에게도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새들도 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 것이다. 이 환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무의미해 보여도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

나의 벗들이여, 하느님께 기쁨을 구하시오. 아이들처럼, 하늘의 새들처럼 즐거워하시오. 그대들이 일하는 데 사람들의 죄가 그대들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오. 그 죄가 그대들의 일을 짓밟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죄는 강하고, 불경은 강하고, 더러운 환경은 강한데, 우리는 외롭고 힘이 없다. 더러운 환경이 우리를 짓밟아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얘들아, 이 낙심에서 달아나라! 여기서 구원은 하나뿐이다. 너 자신을 붙잡아 너 자신을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자로 만들어라. 벗이여, 참으로 그것은 정말 그렇다. 네가 진심으로 너 자신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자로 만들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바로 네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 게으름과 네 무력함을 사람들에게 떠넘기면, 결국 사탄의 교만에 물들어 하느님께 원망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교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오. 땅 위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조차 어렵고, 그러니 무언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여기면서 얼마나

쉽게 잘못에 빠져 그것에 물들겠소. 우리 본성의 가장 강한 느낌과 움직임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는 아직 땅 위에서 깨달을 수 없소. 이것에도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무엇에서든 네게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원한 재판관은 네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을 네게 물으시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물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너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더는 다투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땅 위에서 우리는 참으로 헤매는 것과 같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귀한 형상이 없다면 홍수 앞의 인류처럼 우리는 아주 길을 잃고 멸망할 것이오. 땅 위의 많은 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와, 높은 곳의 더 높은 세계와 우리가 살아 있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은밀하고 깊숙한 느낌이 주어졌소. 그리고 우리 생각과 느낌의 뿌리도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세계들에 있소. 그래서 철학자들은 땅 위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오. 하느님은 다른 세계들에서 씨앗을 가져다 이 땅에 뿌리시고 당신의 동산을 가꾸셨소. 그러자 싹틀 수 있는 것은 모두 싹텄지만, 자라난 것은 오직 신비로운 다른 세계들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으로만 살고 살아 있소. 네 안에서 이 느낌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네 안에서 자라난 것도 죽는다. 그러면 너는 삶에 무심해지고 삶을 미워하기까지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아) 자기와 같은 이들의 재판관이 될 수 있는가? 끝까지 믿는 것에 대하여

특히 기억하라, 너는 누구의 재판관도 될 수 없다. 재판관 스스로 자기도 앞에 선 자와 똑같은 범죄자라는 것을, 앞에 선 자의 범죄에 바로 자기가 어쩌면 누구보다 먼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땅 위에 범죄자의 재판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재판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미친 소리 같아도

이것은 진리다. 내가 스스로 의로웠다면 어쩌면 내 앞에 선 범죄자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앞에 서서 네 마음이 심판하는 범죄자의 죄를 네가 떠맡을 수 있다면, 곧바로 떠맡아 그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고, 그는 나무라지 말고 놓아 보내라. 설령 법이 너를 그의 재판관으로 세웠다 해도, 그때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정신으로 행하라, 그는 떠나가서 네 심판보다 더 쓰라리게 스스로를 심판할 테니까. 그가 네 입맞춤을 받고도 무감각하게, 너를 비웃으며 떠나간다 해도 이것에 넘어가지 마라.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오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 깨닫고, 고난을 받고, 스스로를 심판하고 탓할 것이며, 진리는 채워질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의심 없이 믿어라. 바로 여기에 성인들의 모든 소망과 모든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쉼 없이 행하라. 밤에 잠자리에 들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일어나 그 일을 하라. 네 둘레의 사람들이 악하고 무감각하여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그들 앞에 엎드려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들이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데는 참으로 너에게도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악에 받친 이들과 이제 말을 나눌 수 없거든, 말없이 낮아져 그들을 섬기고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모두가 너를 버리고 이제 힘으로 너를 쫓아내거든, 홀로 남아 땅에 엎드려 땅에 입 맞추고 네 눈물로 땅을 적셔라. 그러면 네가 홀로 있는 곳에서 아무도 너를 보지 못하고 네 말을 듣지 못했다 해도, 땅은 네 눈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끝까지 믿어라. 설령 땅 위의 모든 이가 그릇된 길로 빠지고 너 홀로 충실하게 남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때도 제물을 바치고, 홀로 남은 너는 하느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런 이가 둘이 모이면, 그것이 벌써 온 세상, 살아 있는 사랑의 세상이다. 감동하여 서로

끌어안고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둘에게서일지라도 그분의 진리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네가 스스로 죄를 짓고 네 죄들 때문에, 또는 갑작스러운 한 가지 죄 때문에 죽을 만큼 슬퍼하게 되거든, 다른 이를 위해 기뻐하라, 의로운 이를 위해 기뻐하라. 네가 죄를 지었다면 그 대신 그는 의롭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하라.

사람들의 악행이 너를 분노와 이길 수 없는 슬픔으로 들끓게 하여 악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하거든, 무엇보다 이 감정을 두려워하라. 곧바로 가서, 마치 네가 사람들의 이 악행에 죄가 있는 것처럼 너 스스로 괴로움을 구하라. 이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견뎌라. 그러면 네 마음이 가라앉고, 너 스스로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니, 너는 단 하나 죄 없는 사람으로서라도 악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었는데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빛을 비추었다면 네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도 밝혔을 것이고, 악행을 저지른 자도 네 빛 아래서는 어쩌면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빛을 비추었는데도 사람들이 네 빛 아래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 굳건히 서서 하늘의 빛의 힘을 의심하지 마라.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구원받으리라고 믿어라. 나중에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식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이미 죽었다 해도 네 빛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인은 떠나가도 그의 빛은 남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하는 이가 죽은 뒤에 구원받는다. 인류는 제 예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때려죽이지만, 사람들은 제 순교자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괴롭혀 죽인 이들을 공경한다. 너는 전체를 위해 일하고, 앞날을 위해 행한다. 그러나 결코 보상을 구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이 땅에서 이미 네게 큰 보상이, 오직 의로운 이만이 얻는 너의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귀한 이도 힘센 이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고 늘

아름다워라. 분수를 알고 때를 알아라. 이것을 배워라. 홀로 남거든 기도하라. 땅에 엎드려 땅에 입 맞추기를 즐겨라. 땅에 입 맞추고, 쉼 없이, 물리지 않고 땅을 사랑하라. 모든 이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 환희와 이 열광을 구하라. 네 기쁨의 눈물로 땅을 적시고 네 이 눈물을 사랑하라. 이 열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 위대한 선물이고, 많은 이에게가 아니라 뽑힌 이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지옥과 지옥 불에 대하여, 신비로운 논의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나는 생각하오.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헤아리오. "더는 사랑할 수 없다는 괴로움이다." 한번, 시간으로도 공간으로도 잴 수 없는 끝없는 존재 속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그가 땅 위에 나타남으로써,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고 자기에게 말할 능력이 주어졌소. 한번, 오직 한 번, 그에게 실행하는, *살아 있는* 사랑의 한순간이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 땅의 삶이 주어졌으며, 그와 함께 때와 기한이 주어졌소. 그런데 어떻게 되었소. 이 행복한 존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물리쳤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비웃으며 바라보고 무감각한 채 남았소. 그런 자는 이미 땅을 떠난 뒤 아브라함의 품도 보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도 나누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께 올라갈 수도 있소.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오. 사랑하지 않았던 자신이 주님께 올라가, 사랑한 이들의 사랑을 업신여겼던 자신이 그들과 맞닿게 되기 때문이오. 그는 똑똑히 보고 이제 스스로에게 말하오. "이제 나는 앎을 얻었고, 사랑하기를 목마르게 바라게 되었지만, 이제 내 사랑에는 위업도 없을 것이고 희생도 없을 것이다. 땅의 삶은 끝났고, 아브라함은 살아 있는 물 한 방울로라도(곧 예전의 실행하는 땅의 삶이라는 선물을 다시 주어)

영적인 사랑의 목마름의 불꽃을 식혀 주러 오지 않을 것이다. 땅 위에서 그 사랑을 업신여겼기에 나는 지금 그 불꽃에 타고 있다. 이제 삶은 없고, 시간도 더는 없을 것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사랑의 희생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삶은 지나갔고, 이제 그 삶과 이 존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사람들은 물질로 된 지옥 불을 말하오. 나는 이 신비를 캐지 않고 두려워하오. 그러나 생각하건대, 물질로 된 불이 있다 해도 참으로 그들은 그 불을 반길 것이오. 내 꿈같은 생각으로는, 물질의 괴로움 속에서 그들은 이 더 무서운 영적인 괴로움을 한순간이나마 잊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 영적인 괴로움을 빼앗을 수도 없소. 이 괴로움은 바깥에 있지 않고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오. 빼앗을 수 있다 해도, 생각하건대,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욱 쓰라리게 불행해질 것이오. 천국의 의인들이 그들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하고 한없이 사랑하여 자기들에게 부른다 해도, 바로 그것으로 그들의 괴로움을 더 늘릴 것이기 때문이오.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답하는 실행하는 감사의 사랑을 향한 목마름의 불꽃을 그들 안에 더욱 세차게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소심함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 이 불가능을 깨닫는 것 자체가 마침내 그들에게 위안이 될 것이오. 갚을 길 없이 의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순종 속에서, 그 겸손의 행함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땅 위에서 업신여겼던 그 실행하는 사랑의 어떤 모습 같은 것을, 그와 비슷한 어떤 행함 같은 것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형제들이여, 벗들이여, 이것을 똑똑히 말할 줄 몰라 안타깝소. 그러나 땅 위에서 스스로를 없앤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생각하건대, 그들보다 더 불행한 이는 있을 수 없소.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비는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들 말하고, 교회도 겉으로는 그들을 물리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의 은밀한 곳에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사랑 때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노여워하지 않으실 것이오. 나는 평생 속으로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했소. 신부들이여, 스승들이여, 그대들에게 그것을 고백하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오.

아아, 지옥에서도, 이미 다툴 여지 없는 앎과 거역할 수 없는 진리를 바라보면서도 교만하고 사납게 남아 있는 이들이 있소. 사탄과 그의 교만한 영에 온통 물든 무서운 이들이 있소. 그들에게 지옥은 이미 제 뜻으로 택한 것이고 물리지 않는 것이오. 그들은 이미 자진한 수난자들이오. 하느님과 삶을 저주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했기 때문이오. 그들은 마치 광야의 굶주린 자가 제 몸에서 제 피를 빨아 먹기 시작하듯이 제 악한 교만을 먹고 사오. 그러나 영원무궁토록 물리지 않고, 용서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부르시는 하느님을 저주하오. 살아 계신 하느님을 미움 없이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의 하느님이 없기를, 하느님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없애 버리시기를 요구하오. 그리고 그들은 제 분노의 불 속에서 영원히 타며 죽음과 없음을 목마르게 바랄 것이오. 그러나 죽음을 얻지 못할 것이오.

여기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원고가 끝난다. 다시 말하지만, 원고는 온전하지 않고 토막 나 있다. 이를테면 전기의 기록은 장로의 첫 젊은 시절만 담고 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의견에서는, 분명히 서로 다른 때에 서로 다른 까닭으로 한 말들을 마치 하나의 전체인 것처럼 한데 모아 놓았다. 장로가 바로 생애의 이 마지막 시간들에 한 말은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고, 다만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의 원고에 이전 가르침들에서 옮겨 놓은 것과 견주어 보면 이 담화의 정신과 성격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장로의 죽음은 참으로 아주 뜻밖에 찾아왔다. 그 마지막 저녁 그에게 모인 이들이 모두 그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죽음이 그토록 갑자기

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의 벗들은, 내가 앞서 말했듯이, 그날 밤 그가 그토록 기운 있고 말이 많아 보이는 것을 보고, 잠시뿐일지라도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확신하기까지 했다. 나중에 사람들이 놀라며 전하기로는, 숨을 거두기 5분 전까지도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에 몹시 심한 통증을 느낀 듯 창백해지더니 두 손을 가슴에 꼭 눌렀다. 그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띤 채 그들을 바라보며 안락의자에서 바닥으로 조용히 내려와 무릎을 꿇었고, 이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 팔을 벌리고, 마치 기쁜 환희에 차서 땅에 입 맞추며 기도하다가(그 자신이 가르친 대로) 조용하고 기쁘게 영혼을 하느님께 돌려드렸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은 곧바로 은수처에 퍼졌고 수도원에 닿았다. 새로 세상을 떠난 이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과 직분상 그 일을 맡아야 할 이들이 옛 의식대로 그의 몸을 거두기 시작했고, 수도사 형제들은 모두 대성당에 모였다. 그리고 나중에 소문으로 전해지기로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새로 세상을 떠난 이의 소식이 읍내에 닿았다. 아침이 되자 거의 온 읍내가 이 일을 이야기했고, 많은 주민이 수도원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권에서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다만 미리 덧붙여 두자.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모두에게 너무나 뜻밖인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수도원 안과 읍내에 남긴 인상이 너무나 이상하고 불안하고 어수선해서, 그 많은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읍내에는 많은 이에게 그토록 불안했던 그날에 대한 더없이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다……

제3부

제7권 알료샤

제1장 썩는 냄새

세상을 떠난 스키마 수도사제 조시마 신부의 몸은 정해진 의식대로 장례 준비를 마쳤다. 알려진 대로 죽은 수도사와 스키마 수도사는 몸을 씻기지 않는다. 대(大)성사 예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수도사 가운데 누가 주님께로 떠나면, 맡은 수도사(곧 이 일을 위해 정해진 이)가 먼저 해면(곧 그리스 해면)으로 떠난 이의 이마와 가슴과 두 손과 두 발과 두 무릎에 십자를 긋고 따뜻한 물로 그의 몸을 닦되,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을 파이시 신부가 손수 고인에게 해 주었다. 몸을 닦은 뒤 그는 고인에게 수도복을 입히고 수도 망토로 감쌌는데, 규정대로 망토를 조금 잘라 십자 모양으로 감쌌다. 머리에는 여덟 끝 십자가가 달린 두건을 씌웠다. 두건은 열어 두고, 고인의 얼굴은 검은 덮개 천으로 가렸다. 두 손에는 구세주의 성상을 쥐여 주었다. 이런 모습으로 아침 무렵 그를 관(이미 오래전에 마련해 둔 관)에 옮겨 눕혔다. 관은 하루 종일 수방에(첫째의 큰 방, 바로 고인이 된 장로가 수도사 형제들과 세속 사람들을 맞던 그 방에) 두기로 했다. 고인은 직분으로 스키마 수도사제였으므로, 수도사제와 보제 수도사들이 그의 곁에서 시편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야 했다. 추도 예배가 끝나자 곧바로 이오시프 신부가 낭독을 시작했다. 그다음 낮과 밤 내내 몸소 읽겠다고 한 파이시 신부는 아직 은수처의 원장 신부와 함께 몹시 바쁘고 근심에 차 있었다. 수도사 형제들 사이에서도, 수도원 숙소와 읍내에서 떼 지어 몰려드는 세속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전에 없던, 심지어 "어울리지 않는" 흥분과 조바심 어린 기대가 갑자기, 그것도 갈수록 더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원장도 파이시 신부도 그토록 법석을 떨며 흥분한 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라앉히려고 온갖 애를 썼다. 날이 꽤 밝자 읍내에서 병자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치 일부러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믿음으로는 곧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즉각적인 치유의 힘을 바라는 것이 뻔히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야 우리 고장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장로를 그가 살아 있을 때부터 이미 얼마나 틀림없는 위대한 성인으로 여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몰려드는 이들 가운데는 평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믿는 이들의 이 커다란 기대는, 그토록 성급하고 드러내 놓고, 심지어 조바심을 내며 거의 요구하다시피 내보이는 기대는 파이시 신부에게 틀림없는 시험거리로 보였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예감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예상을 넘어섰다. 흥분한 수도사들과 마주치면 파이시 신부는 그들을 나무라기까지 했다. "무언가 위대한 것을 이토록 당장 기다리는 것은." 그는 말했다. "세속 사람들 사이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경솔함이오.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소."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별로 듣지 않았고, 파이시 신부는 그것을 불안하게 알아챘다. 그런데 그 자신도(모든 것을 정직하게 떠올린다면) 너무 조바심 어린 기대에 분개하고 거기서 경솔함과 허영을 보았지만, 남몰래, 속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흥분한 이들과 거의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어떤 마주침들은 그에게 유난히 불쾌했고, 어떤 예감 때문에 그의 안에 커다란 의심을 일으켰다. 고인의 수방에 북적거리는 무리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혐오를 느끼며(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것을 스스로 나무랐지만) 이를테면 라키틴이, 또는 아직 수도원에 머물고 있던 먼 데서 온 손님인

오브도르스크의 수도사가 와 있는 것을 알아챘고, 웬일인지 갑자기 두 사람을 다 수상하게 여겼다. 같은 뜻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지만. 오브도르스크의 수도사는 흥분한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산을 떨어 눈에 띄었다. 그는 어디서나,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어디서나 캐묻고, 어디서나 귀를 기울이고, 어디서나 무언가 유별나게 신비로운 얼굴로 소곤거렸다. 얼굴에는 더없이 조바심 어린 표정, 그토록 오래 기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벌써 짜증이 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라키틴으로 말하자면, 나중에 밝혀졌듯이, 그는 호흘라코바 부인의 특별한 부탁으로 그토록 이른 시각에 은수처에 와 있었다. 이 착하지만 줏대 없는 부인은 자신은 은수처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잠에서 깨어 장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자마자 갑자기 어찌나 격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던지, 곧바로 자기 대신 라키틴을 은수처로 보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략 반 시간마다 곧바로 글로 알려 달라고 했다. 부인은 라키틴을 더없이 경건하고 믿음 깊은 젊은이로 여겼다. 그만큼 그는 누구와도 잘 지낼 줄 알았고, 거기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보이기만 하면 저마다의 바람에 맞추어 자기를 내보일 줄 알았다. 날은 맑고 환했고, 찾아온 순례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은수처의 무덤들 둘레에 몰려 있었는데, 무덤들은 성당 둘레에 가장 빽빽이 모여 있었고 은수처 곳곳에도 흩어져 있었다. 은수처를 돌다가 파이시 신부는 갑자기 알료샤가 생각났고, 거의 밤부터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를 떠올리자마자 곧바로 은수처의 가장 외진 구석, 담장 곁에서, 옛날에 세상을 떠나 그 수행으로 이름난 한 수도사의 묘석에 앉아 있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은수처 쪽으로 등을 돌리고 담장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마치 비석 뒤에 숨은 듯했다. 바로 곁까지 다가가자 파이시 신부는 그가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는 내지 않지만 흐느낌에 온몸을

들썩이며 쓰라리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파이시 신부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만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만해라, 벗이여." 마침내 그가 마음을 담아 말했다. "왜 그러느냐? 울지 말고 기뻐하라. 아니면 오늘이 *그분의* 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아라!"

알료샤는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부은 얼굴을 드러내며 그를 쳐다보려 했지만, 곧바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파이시 신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 울어라. 그리스도께서 이 눈물을 네게 보내셨다." '감동의 눈물은 영혼의 쉼일 뿐이고, 네 사랑스러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는 알료샤에게서 물러나며 그를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속으로 덧붙였다. 하기야 그는 서둘러 물러났다. 그를 보고 있으면 자기도 울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수도원 예배와 고인을 위한 추도 예배는 순서대로 이어졌다. 파이시 신부는 다시 관 곁에서 이오시프 신부와 교대하고 다시 그에게서 복음서 낭독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오후 세 시가 채 되기도 전에, 내가 지난 권 끝에서 이미 말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고장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모두의 소망과 그토록 어긋나는 일이어서,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우리 읍내와 우리 고장 일대에서 더없이 생생하게 회자된다. 여기서 나 개인으로서 한 번 더 덧붙이겠다. 나는 이 시시콜콜하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실은 더없이 하찮고 자연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기가 거의 역겹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이야기의 주인공, *비록 앞날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인 알료샤의 영혼과 마음에 가장 강하고 분명한 영향을 미쳐, 그의 영혼에

마치 꺾임과 뒤집힘 같은 것을 일으키고, 그의 이성을 뒤흔들었지만 그와 함께 마침내 평생, 어떤 목적을 향해 굳건하게 하지 않았다면, 물론 나는 이 일을 내 이야기에서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빼 버렸을 것이다.

그럼 이야기로 넘어가자. 아직 동트기 전에 장례 준비를 마친 장로의 몸을 관에 눕히고, 예전에 손님을 맞던 첫째 방으로 옮겼을 때, 관 곁에 있던 이들 사이에서 방의 창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이 나왔다. 그러나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언뜻 내뱉은 이 물음은 대답 없이,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은 채 남았다. 굳이 말하자면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이 그것도 속으로만, 이런 분의 몸에서 썩음과 썩는 냄새를 기다리는 것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일이고 이 물음을 내뱉은 자의 믿음이 적고 경솔한 것이 (비웃을 일은 아니라도) 딱하기까지 하다고 여겼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정반대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오가 조금 지나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드나드는 이들이 그저 말없이 속으로만 받아들였고, 저마다 시작된 제 생각을 누군가에게 알리기를 눈에 띄게 두려워하기까지 했지만, 오후 세 시가 되자 이미 너무나 뚜렷하고 반박할 수 없이 드러나서, 그 소식은 순식간에 은수처 전체와 은수처를 찾아온 순례자들 모두에게 퍼졌고, 곧바로 수도원에도 스며들어 수도원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마침내 아주 짧은 사이에 읍내에도 닿아 거기서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모두를 들끓게 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기뻐했고, 믿는 이들로 말하자면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기뻐하는 이들까지 나왔다. 세상을 떠난 장로 자신이 어느 가르침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의인이 떨어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름 아니라 관에서 조금씩, 그러나 갈수록 더 눈에 띄게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오후 세 시에는 이미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바로 뒤에 수도사들 사이에서조차 드러난 물의, 그토록 거칠게 고삐 풀린, 다른 경우였다면

있을 수조차 없었을 물의는 우리 수도원의 지난 모든 세월을 통틀어 오래도록 없었고 떠올릴 수조차 없었다. 나중에, 그것도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우리 수도사들 가운데 사려 깊은 이들은 그날 하루를 자세히 떠올리며, 어떻게 물의가 그때 그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 놀라고 소스라쳤다. 이전에도 아주 의롭게 살아 그 의로움이 모두의 눈에 뚜렷했던 수도사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장로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겸손한 관에서도 모든 죽은 이에게서처럼 자연스럽게 썩는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물의도, 아주 작은 술렁임도 일으키지 않았다. 물론 우리 수도원에도 옛날에 세상을 떠난 이들 가운데 아직 수도원에 그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는 이들이 있었다. 전해 오는 말로는 그들의 유해는 썩지 않았고, 그것이 수도사 형제들에게 감동적이고 신비롭게 영향을 미쳐, 무언가 아름답고 기적 같은 것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때가 온다면 그들의 무덤에서 앞으로 더 큰 영광이 나오리라는 약속으로 형제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런 이들 가운데 특히 기억되는 이는 백다섯 살까지 산 이오프 장로였다. 이름난 수행자로, 위대한 재계자이자 침묵하는 이였던 그는 이미 오래전, 이 세기 10년대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무덤은 처음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각별하고 남다른 존경을 담아 보여 주었고, 그때 어떤 큰 소망을 신비롭게 넌지시 말하곤 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파이시 신부가 알료샤가 앉아 있는 것을 본 그 무덤이다.) 옛날에 세상을 떠난 이 장로 말고도, 비교적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위대한 스키마 수도사제 바르소노피 장로에 대해서도 같은 기억이 생생했다. 바로 조시마 신부가 장로직을 물려받은 그분으로, 살아 계실 때 수도원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모두 그분을 그야말로 성 바보로 여겼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관 속에 산 사람처럼 누워 있다가 전혀 썩지 않은 채 묻혔고 관 속에서 얼굴이 환해지기까지 한 것 같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어떤 이들은 그분들의 몸에서

향기가 또렷이 느껴졌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토록 인상 깊은 기억들이 있다 해도, 조시마 장로의 관 곁에서 그토록 경솔하고 터무니없고 악의에 찬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까닭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 개인으로서는, 여기에 다른 많은 것이, 함께 작용한 여러 까닭이 한꺼번에 겹쳤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그 가운데는 장로 제도를 해로운 새것으로 여기는 뿌리 깊은 적의도 있었다. 그 적의는 수도원에서 아직 많은 수도사의 머릿속에 깊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물론 무엇보다 고인의 거룩함에 대한 시기가 있었다. 그 거룩함은 그가 살아 있을 때 너무나 굳게 자리 잡아 반박하는 것조차 금지된 것 같았다. 세상을 떠난 장로는 많은 이를 자기에게 끌어들였고, 그것도 기적보다는 사랑으로 끌어들여 자기 둘레에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온 세상을 세워 놓았지만, 그런데도, 아니 그럴수록 바로 그것으로 자기를 시기하는 이들을, 이어서 드러난 적과 숨은 적, 사나운 적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수도원 사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세속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를테면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이 나왔다. "무엇 때문에 다들 그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그리고 오직 이 한 가지 물음이 차츰 되풀이되면서 마침내 더없이 물릴 줄 모르는 악의의 온 심연을 낳았다. 그래서 나는 많은 이가 그의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그것도 그토록 빨리, 그가 죽은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랬다는 것을 듣고 한없이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로에게 헌신하고 그때까지 그를 공경하던 이들 가운데서도 이 일에 거의 개인적으로 모욕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곧바로 나왔다. 일은 차츰 이렇게 진행되었다.

썩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자마자, 고인의 수방에 들어가는 수도사들의 얼굴만 보고도 그들이 무엇 하러 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들어와 잠시 서 있다가, 밖에서 떼 지어 기다리는 이들에게 소식을 어서 확인해

주려고 나갔다. 기다리던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이들은 악에 받친 눈빛에서 뻔히 빛나는 기쁨을 이제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더는 나무라지 않았고, 아무도 선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기까지 했다. 수도원에는 그래도 세상을 떠난 장로에게 헌신한 이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수가 잠시 이기도록 주님 스스로 허락하신 모양이었다. 곧 세속 사람들도, 주로 교양 있는 방문객들이 그렇게 엿보는 자로 수방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민은 은수처 문 앞에 많이 몰려 있었지만 들어오는 이는 적었다. 바로 세 시가 지나서 세속 방문객들의 물결이 몹시 거세졌고, 그것이 바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 소식 때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어쩌면 이날 아예 오지 않았을 사람들, 올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찾아왔고, 그 가운데는 높은 관등의 인물들도 있었다. 하기야 겉으로는 아직 예법이 깨지지 않았고, 파이시 신부는 엄한 얼굴로 단호하고 또렷하게 소리 내어 복음서를 계속 읽었다. 이미 오래전에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아챘는데도, 일어나는 일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마침내 그에게도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낮았지만 차츰 단단해지고 대담해졌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사람의 심판과 다르구먼!" 파이시 신부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다. 맨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은 세속 사람, 읍내의 관리였는데, 이미 나이 지긋하고, 알려진 바로는 무척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소리 내어 말하면서, 수도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끼리 귓속말로 되풀이하던 것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절망스러운 말을 내뱉었고, 무엇보다 나쁘게도 이 말과 함께 무언가 개가 같은 것이 거의 순간마다 드러나며 커져 갔다. 그러나 곧 예법마저 깨지기 시작했고, 마치 모두가 그것을 깰 무슨 권리라도 생긴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는 듯이 몇몇 수도사가 말했다. "몸집도 크지 않고, 마르고, 뼈에 살가죽만 붙은 분이었는데,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일부러 보여 주시려 한 거지." 다른 이들이 서둘러 덧붙였고, 그들의 의견은 이론 없이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짚었기 때문이다. 모든 죄 많은 고인에게서처럼 냄새가 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도, 그래도 더 늦게, 이토록 뻔히 서둘러서가 아니라 적어도 하루는 지나서 났어야 하는데, "이분은 자연을 앞질렀으니", 그렇다면 여기에는 다름 아닌 하느님과 그분이 일부러 가리키시는 손가락이 있다. 보여 주시려 한 것이다. 이 판단은 거역할 수 없게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온유한 수도사제 이오시프 신부, 도서관 담당이자 고인이 아끼던 그는 헐뜯는 이들 몇몇에게 반박하려 했다. "어디서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의인들의 몸이 썩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정교회의 무슨 교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며, 가장 정교회다운 나라들에서조차, 이를테면 아토스산에서도 썩는 냄새에 그리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는 구원받은 이들이 영광을 받았다는 주된 표지로 몸이 썩지 않는 것을 꼽지 않고, 그들의 몸이 땅속에 여러 해 누워 있다가 땅속에서 썩어 버린 뒤 그들 뼈의 빛깔을 꼽는다고. "뼈가 밀랍처럼 누렇게 나오면 그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의인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가장 큰 표지요. 누렇지 않고 검게 나오면 주님께서 그런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오. 예로부터 정교가 흔들림 없이, 가장 밝은 깨끗함으로 지켜져 온 위대한 곳 아토스산에서는 그렇소." 이오시프 신부는 이렇게 맺었다. 그러나 겸손한 신부의 말은 아무 감화도 주지 못하고 지나갔고, 오히려 비웃는 반발까지 샀다. "그건 다 학식이니 새것이니 하는 거야. 들을 것도 없어." 수도사들은 속으로 결론지었다. "우리는 옛날 그대로야. 요즘 새것이 좀 많이 나오나, 그걸 다 따라 하란 말이야?" 다른 이들이 덧붙였다.

"우리한테도 그쪽보다 못지않게 거룩한 교부들이 계셨어. 그쪽은 튀르크놈 밑에 앉아 있다가 다 잊어버렸어. 그쪽은 정교도 오래전에 흐려졌고 종도 없다잖아." 가장 비웃기 좋아하는 이들이 거들었다. 이오시프 신부는 슬프게 물러났다. 더구나 그 자신도 자기 의견을 그리 굳게 말하지 못했고 그것을 별로 믿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무언가 몹시 보기 흉한 일이 시작되고 있으며 불순종마저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것을 당혹스럽게 내다보았다. 이오시프 신부에 뒤이어 차츰 사리에 맞는 목소리들도 모두 잠잠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세상을 떠난 장로를 사랑하고 장로 제도를 감동하여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이들은 모두 갑자기 무언가에 무섭게 겁을 먹고, 서로 마주치면 그저 쭈뼛쭈뼛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장로 제도를 새것이라 하여 미워하던 이들은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돌아가신 바르소노피 장로님한테서는 냄새는커녕 향기가 흘러나왔어." 그들은 고소해하며 일깨웠다. "그렇지만 그분은 장로 제도로 그런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이야." 그러자 이어서 새로 세상을 떠난 장로에게 비난과 더없이 심한 고발까지 쏟아졌다. "가르침이 바르지 않았어. 삶이 눈물 어린 겸손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가장 분별없는 이들 가운데 몇몇이 말했다. "유행 따라 믿었지, 지옥의 물질 불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보다 더 분별없는 이들이 거들었다. "재계에 엄하지 않았어, 단것을 스스로 허락했어. 버찌 잼을 차와 함께 먹었는데 아주 좋아했지, 마님들이 보내 주었어. 스키마 수도사가 차를 마셔도 되는 거야?" 시기하는 이들 가운데 몇몇에게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교만하게 앉아 있었어." 가장 고소해하는 이들이 잔인하게 떠올렸다. "제가 성인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당연한 듯 받았어." "고해 성사를 남용했어." 장로 제도에 가장 사납게 반대하는 이들이 악의에 찬 귓속말로 덧붙였는데, 그것도

가장 나이 많고 기도에 엄격한 수도사들, 참된 재계자이자 침묵하는 이들, 고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입을 연 이들에게서 나온 말이라 정말 끔찍했다. 그들의 말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 수도사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오브도르스크의 손님, 성 실베스트르 수도원에서 온 작은 수도사도 깊이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귀담아들었다. '아니, 페라폰트 신부님이 어제 옳게 판단하셨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페라폰트 신부가 나타났다. 마치 충격을 더하려고 일부러 나온 것 같았다.

나는 앞서 그가 양봉장의 나무로 된 작은 수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고 교회에도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그를 이른바 성 바보로 여겨 그것을 눈감아 주고 모두에게 공통된 규칙으로 그를 묶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대로 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눈감아 준 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까닭도 있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무릎을 꿇은 채 잠들기까지 하는) 그토록 위대한 재계자이자 침묵하는 이를, 그가 스스로 따르려 하지 않는데 공통 규율로 억지로 짓누르는 것은 어쩐지 부끄럽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모두보다 거룩하고 규율보다 더 어려운 것을 지키고 계셔." 그랬다면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건, 언제 나와야 할지 그분 스스로 아신다는 뜻이야. 그분에게는 그분의 규율이 있어." 바로 이런 있을 법한 불평과 물의 때문에 페라폰트 신부를 내버려 두었다. 누구나 이미 알고 있었듯이 페라폰트 신부는 조시마 장로를 몹시 싫어했다. 그런데 그에게도, 그의 작은 수방에도 갑자기 "하느님의 심판은 사람의 심판과 다르고, 그분은 자연까지 앞질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어제 그를 찾아갔다가 어제 그에게 질겁하여 물러났던 오브도르스크의 손님이 맨 먼저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으리라 짐작된다. 나는 또 이런 말도 했다. 관 곁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낭독하던

파이시 신부는 수방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요한 것을 모두 틀림없이 미리 짐작했다. 자기 주변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이미 마음의 눈에 그려지는 이 술렁임의 앞날을 꿰뚫는 눈길로 지켜보았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현관에서 예사롭지 않은, 이미 뻔히 예법을 깨는 소란이 그의 귀를 때렸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문턱에 페라폰트 신부가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수방에서도 똑똑히 보이듯이, 그를 따라온 많은 수도사가, 그 가운데는 세속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래 현관 층계 앞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따라온 이들은 들어오지 않고 층계에도 오르지 않았으며, 멈춰 서서 페라폰트 신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기다렸다. 그들은 온갖 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괜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두려움을 품고 예감했기 때문이다. 문턱에 멈춰 선 페라폰트 신부는 두 팔을 들어 올렸고, 그의 오른팔 밑으로 오브도르스크 손님의 날카롭고 호기심 어린 작은 눈이 엿보았다. 그는 엄청난 호기심 때문에 참지 못하고 페라폰트 신부를 따라 계단을 뛰어 올라온 단 한 사람이었다. 그 밖의 다른 이들은 문이 요란하게 활짝 열리자마자 오히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더 뒤로 물러섰다.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리고 페라폰트 신부는 갑자기 울부짖었다.

"내쫓고 또 내쫓으리라!" 그러고는 곧바로 사방을 번갈아 돌아보며 손으로 벽과 수방의 네 구석에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페라폰트 신부를 따라온 이들은 곧바로 이 행동을 알아들었다. 그가 어디에 들어가든 늘 이렇게 하고, 더러운 힘을 쫓아내기 전에는 앉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는 성호를 그을 때마다 되풀이했다. "내쫓고 또 내쫓으리라!" 그가 다시 울부짖었다. 그는

노끈을 허리에 맨 거친 수도복 차림이었다. 삼베 셔츠 밑으로 하얗게 센 털로 뒤덮인 맨가슴이 내다보였다. 발은 완전히 맨발이었다. 그가 두 팔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그가 수도복 밑에 차고 다니는 무거운 쇠사슬이 흔들리며 절그럭거렸다. 파이시 신부는 낭독을 멈추고 앞으로 나서서 그 앞에 서서 기다렸다.

"어찌하여 왔소, 존귀한 신부여? 어찌하여 예법을 깨뜨리오? 어찌하여 겸손한 양 떼를 어지럽히오?" 마침내 그가 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무엇 하러 왔느뇨? 무엇을 구하느뇨? 그대는 어찌 믿느뇨?" 페라폰트 신부가 성 바보처럼 굴며 소리쳤다. "너희네 여기 손님들을, 더러운 악마들을 쫓아내러 달려왔지. 나 없는 동안 놈들을 얼마나 쌓아 두었나 보는 거야. 자작나무 빗자루로 놈들을 쓸어 내고 싶어."

"더러운 것을 쫓아낸다면서 어쩌면 그대 자신이 그것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오." 파이시 신부가 두려움 없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두고 '나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소? 그대요, 신부여?"

"나는 더러우니라, 거룩하지 않으니라. 나는 안락의자에 앉지 않을 것이요, 우상처럼 절 받기를 바라지도 않으리라!" 페라폰트 신부가 쩌렁쩌렁 외쳤다. "이제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을 망치고 있다. 저 죽은 자, 너희의 그 성인은." 그는 손가락으로 관을 가리키며 무리 쪽으로 돌아섰다. "악마를 물리쳤지. 악마 쫓는다고 설사약을 주었어. 그래서 놈들이 너희 집 구석구석에 거미처럼 번식한 거야. 그런데 오늘은 저 자신이 썩은 내를 풍기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크나큰 가리키심을 보노라."

이것은 정말로 조시마 신부가 살아 있을 때 한번 있었던 일이었다. 한 수도사가 꿈에 더러운 힘을 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깨어 있을 때도 그것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가 몹시 두려워하며 장로에게 이것을 털어놓자, 장로는 쉼 없는 기도와 엄한 재계를 권했다. 그러나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자, 재계와 기도를 그만두지 말고 약을 하나 먹으라고 권했다. 그때 많은 이가 이 일에 물의를 일으키며 저희끼리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다. 누구보다 페라폰트 신부가 그랬는데, 헐뜯는 이 몇몇이 그런 특별한 경우에 장로가 내린 이 "예사롭지 않은" 처방을 그때 곧바로 그에게 서둘러 전했다.

"물러가시오, 신부여!" 파이시 신부가 명령하듯 말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심판하시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그대도 나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가리키심'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오. 물러가시오, 신부여, 양 떼를 어지럽히지 마시오!" 그가 끈질기게 되풀이했다.

"제 스키마의 규율대로 재계를 지키지 않았으니 가리키심이 나온 게지. 이건 분명한 일인데 죄를 숨기다니!" 분별없는 열성에 들뜬 광신자는 그치지 않았다. "사탕에 넘어갔고, 마님들이 주머니에 넣어 갖다주었지. 차로 단맛을 즐기고, 배에 제물을 바치며 단것으로 배를 채웠고, 머리는 교만한 생각으로…… 그래서 수치를 당한 게지……"

"그대의 말은 경솔하오, 신부여!" 파이시 신부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대의 재계와 수행에는 놀라지만, 그대의 말은 경솔하오. 세상의 변덕스럽고 철없는 젊은이가 내뱉은 말 같소. 물러가시오, 신부여, 그대에게 명하오." 파이시 신부가 마지막으로 쩌렁쩌렁 외쳤다.

"나야 물러가지!" 페라폰트 신부가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악에 받친 것은 그대로인 채 말했다. "너희는 배운 사람들이지! 큰 지혜로 내 보잘것없음 위에 높이 올라섰지. 나는 글도 잘 모르는 채로 여기 달려왔는데, 여기서 알던 것마저 잊었어. 주 하느님께서 몸소 너희의 그 지혜로부터 작은 나를 지켜 주셨지……"

파이시 신부는 그 앞에 서서 굳건하게 기다렸다. 페라폰트 신부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시름에 잠겨 오른 손바닥을 뺨에 대고 세상을

떠난 장로의 관을 바라보며 노래하듯 말했다.

"저 사람 위에서는 내일 아침 '돕는 이시며 보호하시는 이'를 부르겠지, 영광스러운 카논을. 그런데 내가 뒤지면 내 위에서는 고작 '세상의 어떤 단맛이'[1], 짤막한 찬송 한 가락뿐이겠지." 그는 눈물을 머금고 서럽게 말했다. "교만해져서 높이 올라섰구나, 이곳은 황폐하리라!"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더니 손을 휘젓고는 재빨리 돌아서서 재빨리 현관 층계를 내려갔다. 아래서 기다리던 무리가 술렁였다. 몇몇은 곧바로 그를 따라갔지만 몇몇은 머뭇거렸다. 수방은 아직 열려 있었고, 파이시 신부가 페라폰트 신부를 따라 층계로 나와 서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뜬 노인은 아직 다 끝내지 않았다. 스무 걸음쯤 가더니 그는 갑자기 지는 해 쪽으로 돌아서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마치 누가 다리를 후려친 것처럼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나의 주님께서 이기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지는 해에게 이기셨도다!" 그는 해를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소리 내어 흐느끼며 눈물로 온몸을 들썩이고 땅바닥에 두 팔을 벌렸다. 그러자 모두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외침과 화답하는 흐느낌이 울렸다…… 무언가 열광 같은 것이 모두를 사로잡았다.

"이분이야말로 거룩하시다! 이분이야말로 의로우시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외치는 소리가 울렸다. "이분이야말로 장로 자리에 앉으셔야 해." 다른 이들이 이미 악에 받쳐 덧붙였다.

"그분은 장로 자리에 앉지 않으실 거야…… 그분 스스로 물리치실 거야…… 저주받은 새것을 섬기지 않으실 거야…… 저자들의 바보짓을 따라 하지 않으실 거야." 곧바로 다른 목소리들이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갔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바로 그 순간 예배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모두가 갑자기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페라폰트 신부도 일어나 성호로 자기를 지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수방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무언가 외쳤지만 이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다. 몇 안 되는 이들이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대부분은 예배에 서둘러 가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파이시 신부는 낭독을 이오시프 신부에게 넘기고 아래로 내려갔다. 광신자들의 열광한 외침에 그가 흔들릴 리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갑자기 유난히 무언가로 슬퍼지고 울적해졌고,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는 멈춰 서서 갑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이 슬픔은 어째서 낙심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슬픔이 아무래도 아주 작고 특별한 까닭에서 오는 것 같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고 놀랐다. 다름 아니라 방금 수방 입구에 몰려 있던 무리 가운데서 다른 흥분한 이들과 함께 알료샤도 그의 눈에 띄었고, 그를 보았을 때 곧바로 마음속에 무언가 아픔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이 떠올랐다. '정말 이 젊은이가 지금 내 마음에 그토록 큰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는 갑자기 놀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바로 그 순간 알료샤가 어딘가로 서두르는 듯 그의 곁을 지나갔는데, 성당 쪽은 아니었다. 그들의 눈길이 마주쳤다. 알료샤는 재빨리 눈길을 돌려 땅으로 떨구었고, 젊은이의 모습만 보고도 파이시 신부는 지금 이 순간 그의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했다.

"너도 시험에 들었느냐?" 파이시 신부가 갑자기 외쳤다. "정말 너도 믿음이 적은 자들과 한패란 말이냐!" 그가 슬프게 덧붙였다.

알료샤는 멈춰 서서 어딘지 모호하게 파이시 신부를 쳐다보았지만, 다시 재빨리 눈길을 돌려 다시 땅으로 떨구었다. 그는 옆으로 선 채 묻는 이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파이시 신부는 유심히 지켜보았다.

"어디로 서둘러 가느냐? 예배 종이 울리는데." 그가 다시 물었지만, 알료샤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은수처를 떠나는 거냐? 허락도 구하지 않고, 축복도 받지 않고?"

알료샤는 갑자기 비뚜름하게 피식 웃더니, 이상하게, 아주 이상하게 묻는 신부를 향해 눈을 치켜떴다. 그의 예전 인도자, 그의 마음과 지성의 예전 주인, 사랑하는 장로가 죽어 가며 그를 맡긴 바로 그 사람을 향해. 그러고는 갑자기, 여전히 대답 없이, 공손함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듯 손을 휘젓고는 빠른 걸음으로 은수처 밖으로 나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래도 돌아올 거다!" 파이시 신부가 슬픈 놀라움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

1. '돕는 이시며 보호하시는 이'는 사제(수도사제)의 장례 때 부르는 카논(여러 노래로 이루어진 긴 찬송)의 첫머리이고, '세상의 어떤 단맛이'는 일반 수도사와 평신도의 장례 때 부르는 짧은 찬송의 첫머리다.

제2장 그런 한순간

파이시 신부가 제 "귀여운 아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판단한 것은 물론 틀리지 않았고, 어쩌면 그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꿰뚫어 보듯이) 알료샤의 마음 상태가 지닌 참뜻까지 헤아렸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이토록 아끼는, 아직 이토록 젊은 내 이야기의 주인공의 삶에 찾아온 이 이상하고 막연한 순간이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지를 지금 분명히 전하기란 나 자신에게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파이시 신부가 알료샤에게 던진 비통한 물음, "너도 믿음이 적은 자들과 한편이냐?"에 대해서라면 나는 물론 알료샤를 대신해 단호히 대답할 수 있다. "아니다, 그는 믿음이 적은 자들과 한편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정반대의 사정마저 있었다. 그의 혼란은 모두 바로 그가 많이 믿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도 혼란은 있었다. 어쨌든 생겨났고, 어찌나 괴로웠던지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알료샤는 이 비통한 날을 제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숙명적인 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런데 누가 대놓고 "정말로 그 모든 우수와 그토록 큰 동요가 오로지 그의 장로의 시신이 곧바로 치유를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일찍 썩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오?"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하겠다. "그렇소, 정말로 그랬소." 다만 독자에게 내 젊은이의 깨끗한 마음을 너무 서둘러 비웃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나로 말하자면, 그를 위해 용서를 빌거나, 이를테면 그의 어린 나이나 그가 앞서 배운 학문에서 거둔 보잘것없는 성과 따위를

들어 그 소박한 믿음을 변명하고 감싸 줄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의 마음이 타고난 본성에 진심으로 존경을 느낀다고 분명히 밝히겠다. 틀림없이 어떤 젊은이, 마음의 감동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벌써 뜨겁게가 아니라 그저 미지근하게 사랑할 줄 알며, 바르기는 하되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분별 있는(그래서 값싼) 머리를 지닌 젊은이라면, 그런 젊은이라면, 내 말하거니와, 내 젊은이에게 일어난 일을 피해 갔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이지, 비록 분별없을지언정 그래도 큰 사랑에서 나온 열정에 몸을 맡기는 편이 아예 몸을 맡기지 않는 것보다 더 존경할 만하다. 젊은 시절에는 더욱 그렇다. 늘 지나치게 분별 있는 젊은이는 미덥지 못하고 그 값도 싸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면 분별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외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젊은이가 그런 미신을 믿을 수는 없지 않소. 당신의 젊은이는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못 되오." 이에 대해서도 나는 또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렇다, 내 젊은이는 믿었다. 거룩하게, 흔들림 없이 믿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그를 위해 용서를 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다. 앞에서 나는 내 주인공을 해명하지도, 변명하지도, 감싸 주지도 않겠다고 밝혔지만(그리고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밝혔는지도 모르지만), 이야기를 앞으로 이해하려면 그래도 무언가는 꼭 밝혀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겠다. 여기서 문제는 기적이 아니었다. 여기에 있었던 것은 조바심에 들뜬 경박한 기적 기대가 아니었다. 그때 알료샤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것은 무슨 신념을 승리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그건 전혀 아니었다), 다른 생각을 어서 이겨 주었으면 하는 무슨 예전부터 품어 온 선입견 때문도 아니었다. 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여기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첫자리에, 그의 앞에 얼굴 하나가, 오직 그 얼굴 하나가, 그가 사랑하는 장로의 얼굴, 그가 그토록 숭배하며 받들던 그 의인의

얼굴이 서 있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그의 젊고 깨끗한 마음속에 숨어 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향한 사랑이, 그 무렵에도, 그리고 그 앞의 한 해 내내, 때때로 마치 송두리째, 그리고 어쩌면 옳지 않게, 오직 한 존재에게만, 적어도 그의 마음이 가장 세차게 솟구칠 때는, 이제 세상을 떠난 그의 사랑하는 장로에게로 쏠리곤 했다. 사실 이 존재가 그토록 오랫동안 다툴 여지 없는 이상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으니, 그의 젊은 힘이 모두, 그 힘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 이상 하나로만 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느 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잊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나중에 스스로 떠올렸다. 이 괴로운 날 그는 바로 전날 그토록 걱정하고 애태우던 드미트리 형을 까맣게 잊었다. 역시 바로 전날 그토록 열을 내며 해내려고 마음먹었던 일, 일류셰치카의 아버지에게 200루블을 가져다주는 일도 잊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직 "더 높은 정의"였다. 그가 믿기에 그 정의가 짓밟혔고, 그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토록 잔인하게, 그토록 갑작스럽게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알료샤가 기다리는 가운데 이 "정의"가 일이 흘러가다 보니 저절로, 그가 숭배하던 옛 인도자의 유해에서 당장 일어나리라고 기대한 기적의 모습을 띠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수도원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던가. 알료샤가 그 지성 앞에 머리를 숙이던 사람들조차, 이를테면 파이시 신부 자신조차 그랬고, 그래서 알료샤도 아무 의심으로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제 꿈을 모두가 입힌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입혔다. 게다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 일은 수도원 생활 한 해 내내 오래전부터 그렇게 자리 잡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벌써 그렇게 기다리는 버릇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목말라한 것은 정의였다, 정의였다, 기적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바라기로는 온 세상에서 누구보다 높이 들려야 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

대신 갑자기 내동댕이쳐지고 치욕을 당했다! 무엇 때문에? 누가 심판했는가? 누가 그렇게 판결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그의 경험 없고 숫된 마음을 당장 괴롭힌 물음들이었다. 의인 가운데 가장 의로운 이가 그토록 경박한, 그분보다 그토록 낮은 무리에게 내맡겨져 그토록 비웃음 섞인 악의적인 조롱을 당하는 것을, 그는 모욕감 없이는, 아니 마음속 분노 없이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 기적 따위는 아예 없었다 해도 좋다. 놀라운 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당장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좋다, 그러나 왜 굳이 오명이 나타났는가, 왜 치욕이 허락되었는가, 심술궂은 수도사들이 말한 대로 "자연을 앞지른" 이 서두른 썩음은 왜인가? 그들이 지금 페라폰트 신부와 함께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끌어내는 이 "계시"는 왜이며, 그들은 왜 그렇게 끌어낼 권리까지 얻었다고 믿는가? 섭리는, 그 손가락은 대체 어디 있는가? 섭리는 무엇 때문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알료샤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손가락을 감추었고, 마치 스스로 눈멀고 말 못 하고 무자비한 자연의 법칙에 몸을 맡기고 싶어 하기라도 한 듯했는가?

알료샤의 마음이 피를 흘린 까닭은 이것이었다. 그리고 물론, 내가 이미 말했듯이, 여기서는 무엇보다 먼저 얼굴 하나가 서 있었다. 그가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 얼굴, 그런데 바로 그 얼굴이 "치욕을 당했고", 바로 그 얼굴이 "오명을 썼다"! 내 젊은이의 이 투덜거림이 경박하고 무분별했다고 해도 좋다. 그래도 다시, 세 번째로 되풀이하건대(그리고 어쩌면 이것도 경박한 말일지 모른다는 점을 미리 인정하지만), 나는 내 젊은이가 그런 순간에 그다지 분별 있지 않았다는 것이 기쁘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별의 때가 언제든 오기 마련이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에조차 젊은이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은 대체 언제 오겠는가? 그렇지만 이 기회에, 알료샤에게 숙명적이고 갈피를 잡을 수 없던 이 순간에 비록 한순간이나마 그래도 그의 머릿속에 드러났던 어떤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도 잠자코 있고 싶지는 않다. 새로 나타나 번득인 이 무언가는, 알료샤가 지금 쉴 새 없이 떠올리던 어제 이반 형과 나눈 이야기에서 받은 어떤 괴로운 인상이었다. 바로 지금. 오, 그의 영혼 속에서 그 근본적인, 이를테면 타고난 믿음 가운데 무엇이 흔들렸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제 하느님을 사랑했고 흔들림 없이 믿었다. 비록 갑자기 그분께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 이반 형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자 생긴 어떤 막연하지만 괴롭고 심술궂은 인상이 갑자기 지금 다시 그의 영혼 속에서 꿈틀거렸고, 점점 더 그 겉으로 떠오르려 했다. 날이 꽤 저물었을 때, 은수처에서 수도원으로 가려고 소나무 숲을 지나던 라키틴이 문득, 나무 아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고 잠든 것만 같은 알료샤를 보았다. 라키틴은 다가가 그를 불렀다.

"너 여기 있었냐, 알렉세이? 아니 설마 너……" 그는 놀라서 말을 꺼냈지만, 끝맺지 못하고 멈추었다. 그는 "설마 너 이 지경까지 됐단 말이냐?" 하고 말하려 했다. 알료샤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라키틴은 그가 제 말을 듣고 알아듣는다는 것을 곧 알아챘다.

"대체 왜 그래?" 그는 계속 놀라워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놀라움은 벌써 미소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미소는 점점 더 비웃는 빛을 띠었다.

"이봐, 나 너를 벌써 두 시간 넘게 찾아다녔어. 너 거기서 갑자기 사라졌잖아.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거룩한 바보짓이야? 나 좀 쳐다보기라도 해……"

알료샤는 고개를 들고 일어나 앉아 나무에 등을 기댔다. 그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고통이 어려 있었고 눈길에는 짜증이 보였다. 하기야 그는 라키틴이 아니라 어딘가 옆을 보고 있었다.

"있잖아, 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소문난 그 예전의 온순함이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 화라도 났냐? 누가 모욕했어?"

"내버려 둬!" 알료샤가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지친 듯 손을 휘저으며 갑자기 내뱉었다.

"오호, 이렇게 나오시겠다! 꼭 다른 죽을 인간들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네. 천사님께서 말이야! 하, 알료시카, 너 나를 놀라게 했어, 이거 알아 둬,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여기서 오래전부터 무엇에도 놀라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너를 교양 있는 인간으로 여겼거든……"

알료샤는 마침내 그를 보았지만, 어쩐지 멍하니, 아직도 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았다.

"설마 너 그저 네 영감이 썩은 내를 풍겨서 이러는 거냐? 설마 너 정말로 그 영감이 기적을 부려 대기 시작하리라고 진지하게 믿었어?" 라키틴이 다시 더없이 진심 어린 놀라움으로 돌아가며 외쳤다.

"믿었어, 믿어, 믿고 싶고, 믿을 거야, 그래 뭘 더 바라!" 알료샤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이 친구야. 쳇, 제기랄, 그런 건 이제 열세 살 먹은 학생도 안 믿어. 하기야, 제기랄…… 그래서 너는 지금 네 하느님께 화가 나서 반역을 일으킨 거구먼. 승진에서 빠뜨렸다, 명절에 훈장을 안 줬다, 이거지! 에이, 너희들이란!"

알료샤는 어쩐지 눈을 가늘게 뜨고 라키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번득였다…… 그러나 라키틴을 향한 분노는 아니었다.

"나는 내 하느님께 반역하지 않아, 나는 다만 '그분의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야." 알료샤가 갑자기 비뚜름하게 웃었다.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키틴은 그의 대답을 두고 아주 잠깐 생각해 보았다. "무슨 헛소리야?"

알료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너 오늘 뭘 먹었냐?"

"기억 안 나…… 먹은 것 같아."

"얼굴을 보니 너 기운을 좀 차려야겠다. 너를 보고 있으면 정말 가엾은 생각이 든다니까. 너 밤에도 못 잤잖아, 들으니까 너희 거기서 회의가 있었다며. 그다음엔 그 온갖 법석과 칠갑까지…… 틀림없이 안티도르 한 조각밖에 못 씹었겠지. 나 주머니에 소시지가 있어, 아까 이리 오면서 혹시나 해서 시내에서 챙겨 왔어, 그런데 너는 소시지는 안 먹을 테니……"

"소시지 줘."

"에헤! 너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반역이네, 바리케이드네! 그래, 친구야, 이런 일은 얕볼 게 아니지. 우리 집에 들르자…… 나도 지금 보드카나 한 잔 털어 넣고 싶어, 죽을 만큼 지쳤거든. 보드카는 아마 엄두를 못 내겠지…… 아니면 마실래?"

"보드카도 줘."

"이것 봐라! 신기하네, 친구야!" 라키틴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뭐, 이렇든 저렇든, 보드카든 소시지든, 이건 기막히게 좋은 일이니 놓칠 수는 없지, 가자!"

알료샤는 말없이 땅에서 일어나 라키틴을 따라갔다.

"바네치카 형이 이걸 봤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건 그렇고, 네 형님이반 표도로비치가 오늘 아침에 모스크바로 떠났어, 너 그거 알아?"

"알아." 알료샤가 무심하게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드미트리 형의 모습이 스쳤다. 그러나 스쳤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무언가를, 이제 1분도 더 미룰 수 없는 어떤 급한 일을, 어떤 빚을, 어떤 무서운 의무를 일깨우기는 했지만, 이 기억도 그에게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그의 마음에 닿지 못한 채 그 순간 기억에서 날아가 잊혔다. 그러나 알료샤는 나중에 오래도록 이 일을 떠올렸다.

"네 형님 바네치카가 언젠가 나를 두고 '재주 없는 자유주의 자루'라고 선언하셨지. 너도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내가 '파렴치하다'는 걸 넌지시 알려 줬고…… 좋아! 이제 너희의 재주와 정직함을 구경 좀 해 볼까(라키틴은 이 말을 벌써 혼자 속삭이며 끝맺었다). 쳇, 들어 봐!" 그는 다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수도원은 비켜 가서 오솔길로 곧장 시내로 가자…… 흠. 마침 나는 호흘라코바 부인 댁에 들러야 하는데. 생각해 봐, 내가 그 부인한테 일어난 일을 몽땅 적어 보냈더니, 글쎄, 부인이 금세 연필로 쪽지를 써서 답장을 했어(이 부인은 쪽지 쓰기를 무척 좋아하거든). 조시마 신부처럼 그토록 존경받는 장로에게서 '*그런 처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야! 정말 그렇게 썼다니까, '처신'이라고! 그 부인도 화가 났다는 거지. 에이, 너희들 다! 잠깐!" 그는 갑자기 다시 소리치더니, 우뚝 멈춰 서서 알료샤의 어깨를 붙잡아 그도 멈춰 세웠다.

"있잖아, 알료시카." 그는 갑자기 그를 환히 비춘 새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캐묻듯 알료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이 갑작스러운 새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기가 겁나는 눈치였다. 그만큼 그는 지금 알료샤에게서 보는, 그에게는 이상하고 전혀 뜻밖인 기분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알료시카, 너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면 가장 좋을지 알아?" 그는 마침내 쭈뼛쭈뼛, 비위를 맞추듯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좋아……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그루셴카한테 가자, 응? 갈래?" 라키틴은 쭈뼛거리는 기대에 온몸을 떨기까지 하며 마침내 선언하듯 말했다.

"그루셴카한테 가자." 알료샤가 차분하게, 곧바로 대답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고 차분한 승낙은 라키틴에게 어찌나

뜻밖이었던지 그는 하마터면 뒤로 펄쩍 물러설 뻔했다.

"그, 그래!…… 그렇지!" 그는 놀라서 소리쳤지만, 갑자기 알료샤의 팔을 꽉 끼고 오솔길로 빠르게 끌고 갔다. 그동안 알료샤의 결심이 사라질까 봐 여전히 몹시 겁이 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고, 라키틴은 말을 거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그는 중얼거리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루셴카를 기쁘게 하려고 알료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지한 인간이라 제게 이로운 목적 없이는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았다. 지금 그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복수였다. 곧 "의인의 치욕"과, 알료샤가 "성인에서 죄인으로" "타락"하는 꼴을 보려는 것이었는데, 그는 벌써 그것을 미리 그려 보며 흐뭇해했다. 둘째로 그는 여기서 어떤 물질적인, 자기에게 퍽 이로운 목적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한순간이 온 거로군.' 그는 흥겹고도 심술궂게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우리가 그 순간을, 그 한순간을 덜미를 잡아 붙들어야지, 우리한테 아주 안성맞춤인 순간이니까.'

제3장 양파 한 뿌리

그루셴카는 읍에서 가장 번화한 곳, 대성당 광장 근처에 있는 상인의 과부 모로조바의 집에 살았는데, 그 집 마당의 작은 목조 곁채를 세내어 쓰고 있었다. 모로조바의 집은 크고 돌로 지은 2층짜리였는데, 낡고 겉보기에 퍽 볼품이 없었고, 그 집에는 늙은 여자인 안주인이 역시 꽤 나이 든 처녀인 조카딸 둘과 함께 바깥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살았다. 안주인은 마당의 곁채를 세놓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가 그루셴카를 세입자로 들인 것은(벌써 네 해쯤 전 일이다) 오로지 친척인 상인 삼소노프, 곧 그루셴카를 드러내 놓고 돌보던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질투 많은 노인이 제 "애첩"을 모로조바의 집에 들인 것은 처음에는 새 세입자의 행실을 살피라고 노파의 날카로운 눈을 염두에 두었다고들 했다. 그러나 날카로운 눈은 곧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끝내는 모로조바가 그루셴카와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어져, 나중에는 아무런 감시로도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게 되었다. 하기야 노인이 현청 소재지에서 열여덟 살 먹은 계집아이를, 겁 많고 수줍고 가냘프고 여위고 생각에 잠기곤 하는 슬픈 아이를 이 집으로 데려온 지 벌써 네 해가 지났고, 그동안 많은 물이 흘러갔다. 그렇지만 우리 읍에서는 이 계집아이의 내력을 잘 알지 못했고, 알아도 뒤죽박죽이었다. 근래에도,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네 해 사이에 변한 그런 "절세미인"에게 아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조차, 더 알게 된 것은 없었다. 그 애가

아직 열일곱 살 계집아이였을 때 누군가에게, 무슨 장교라던가 하는 사람에게 속았다가 곧바로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을 뿐이다. 그 장교는 떠나 어딘가에서 장가를 들었고, 그루셴카는 치욕과 가난 속에 남았다나. 하기야 그루셴카가 정말로 가난 속에 있다가 그 노인에게 거두어진 것은 맞지만, 집안은 정직했고 어딘가 성직자 신분 출신으로, 직책 없는 어느 보제의 딸이거나 그 비슷한 무엇이었다고들 했다. 그런데 네 해 만에 상처받기 쉽고 모욕당한 가엾은 고아 계집아이에게서 혈색 좋고 살집 있는 러시아 미인이 나왔는데, 대담하고 단호한 성격에 거만하고 뻔뻔한 여자, 돈의 이치를 알고 재물을 모을 줄 아는 여자, 인색하고 조심스러운 여자, 옳은 수로든 그른 수로든 사람들 말로는 벌써 제 몫의 작은 밑천을 꽤 모아 둔 여자였다. 모두가 확신한 것은 단 한 가지였다. 그루셴카에게 다가가기는 어렵고, 그를 돌보는 노인 말고는 네 해 내내 그의 호의를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굳은 사실이었다. 그 호의를 얻으려고 나선 사냥꾼들이, 특히 마지막 두 해 동안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고, 구애자 가운데 몇몇은 성깔 있는 이 젊은 여인의 단호하고 비웃음 섞인 퇴짜 덕분에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꼴로 물러서기까지 해야 했다. 사람들은 또 이 젊은 여인이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이른바 "게셰프트"라는 것에 뛰어들었고, 이쪽으로는 비상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 마침내 많은 사람이 그를 영락없는 유대 계집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알았다. 그가 돈을 이자로 꾸어 준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테면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와 짜고 한동안 정말로 어음을 헐값에, 1루블짜리를 10코페이카에 사들였다가, 그 어음 가운데 몇몇에서는 10코페이카마다 1루블씩 벌어들였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 병든 삼소노프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어오른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홀아비로, 다 큰 아들들에게는 폭군이었고, 10만 루블을 가진 큰

부자였으며, 인색하고 가차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제가 거둔 이 여자에게 크게 휘둘리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이 여자의 고삐를 바짝 죄고 험하게 부렸으며, 당시 입이 건 사람들 말마따나 "기름기 하나 없이" 먹였다. 그러나 그루셴카는 그 굴레에서 벗어났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에게 한결같이 충실하다는 끝없는 믿음을 그에게 심어 주었다. 큰 장사꾼이던 이 노인은(지금은 죽은 지 오래다) 역시 대단한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부싯돌처럼 인색하고 단단했다. 그래서 그루셴카에게 홀딱 빠져 그 여자 없이는 살 수도 없게 되었는데도(이를테면 마지막 두 해는 정말 그랬다), 그는 그래도 그 여자에게 크고 넉넉한 재산을 떼어 주지는 않았다. 설령 그 여자가 아주 버리고 떠나겠다고 을러댔더라도 그는 그때도 꿈쩍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작은 밑천은 떼어 주었고, 그 일이 알려지자 그것조차 모두를 놀라게 했다. "너는 만만한 계집이 아니니," 그는 그 여자에게 8천 루블쯤을 떼어 주며 말했다. "네가 알아서 굴려 봐라. 그러나 알아 둬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전처럼 해마다 주는 생활비 말고는 나한테서 더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유언장에도 더는 아무것도 떼어 주지 않을 거다." 그는 정말 그 말을 지켰다. 죽으면서 모든 것을, 평생 아내와 아이들까지 딸린 채 하인과 다름없이 곁에 붙잡아 두던 아들들에게 남겼고, 그루셴카에 대해서는 유언장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나중에 알려졌다. 그렇지만 "제 밑천"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는 그는 그루셴카에게 조언으로 적잖이 도왔고, 그 여자에게 "일거리"를 일러 주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가 처음에는 어떤 우연한 "게셰프트" 때문에 그루셴카와 얽혔다가, 저 자신도 전혀 뜻밖에 그 여자에게 정신없이, 마치 넋이라도 잃은 듯이 반해 버리고 말자, 그때 이미 숨이 간당간당하던 삼소노프 노인은 그를 몹시 비웃었다. 눈여겨볼 만한 일은, 그루셴카가 서로 알고 지낸 내내 이 노인에게만은 아주

솔직했고, 마치 진심으로 솔직하기까지 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세상에서 오직 이 사람 하나에게만 그랬던 것 같다. 아주 최근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까지 제 사랑을 들고 불쑥 나타나자 노인은 웃기를 그쳤다. 오히려 한번은 그루셴카에게 진지하고 엄하게 충고했다. "기왕 둘 가운데서, 아비냐 아들이냐 고르겠다면, 늙은이를 골라라. 다만 그 늙은 비열한 놈이 반드시 너하고 혼인하고, 그 전에 밑천이라도 좀 떼어 문서로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대위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앞길이 없다." 이것이 그때 벌써 제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정말로 이 충고를 하고 다섯 달 뒤에 죽은 늙은 호색가가 그루셴카에게 한 바로 그 말이었다. 지나가는 김에 하나 더 적어 두겠다. 그때 우리 읍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루셴카를 두고 벌어진 카라마조프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어처구니없고 흉한 경쟁을 알고 있었지만, 그 여자가 두 사람, 노인과 아들에게 정말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때 알던 사람은 드물었다. 그루셴카의 두 하녀조차(그 뒤에 터진 파국,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것이 남아 있다) 나중에 법정에서,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맞아들인 것은 오직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그가 "죽이겠다고 을러댔기" 때문이라나 하고 진술했다. 하녀는 둘이었는데, 하나는 아직 그 여자의 친정에서부터 데려온, 병들고 거의 귀가 먹은 아주 늙은 식모였고, 또 하나는 그 노파의 손녀로 스무 살쯤 된 생기 있는 젊은 처녀, 그루셴카의 몸종이었다. 그루셴카는 아주 인색하게, 전혀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 살았다. 곁채에는 방이 셋뿐이었고, 안주인이 들여놓은 낡은 마호가니 가구, 1820년대 양식의 가구가 놓여 있었다. 라키틴과 알료샤가 들어섰을 때는 벌써 날이 아주 저물었지만,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그루셴카는 제 응접실에서, 등받이를 마호가니처럼 칠한, 딱딱하고 가죽을 씌운 크고 투박한 소파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 가죽은 오래전에 닳고 구멍이 나

있었다. 그 여자의 머리 밑에는 제 침대에서 가져온 하얀 깃털 베개 두 개가 받쳐져 있었다. 그 여자는 꼼짝하지 않고 반듯이 몸을 뻗은 채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누워 있었다. 그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검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무척 잘 어울리는 가벼운 레이스 머리 장식을 얹었으며, 어깨에는 레이스 숄을 걸쳐 묵직한 금 브로치로 여몄다. 정말로 그 여자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얼굴은 조금 창백해지고 입술과 눈은 뜨거운 채, 마치 애태우며 조바심치듯 누워서 오른발 끝으로 조바심치며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다. 라키틴과 알료샤가 나타나자마자 작은 소동이 일 뻔했다. 그루셴카가 소파에서 재빨리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겁에 질려 "거기 누구야?" 하고 소리치는 것이 현관에서 들렸다. 그러나 손님을 맞은 것은 하녀였고, 하녀는 곧바로 마님에게 대답했다.

"그분들이 아니에요, 마님, 다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괜찮아요."

"저 여자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키틴이 알료샤의 손을 잡고 응접실로 이끌며 중얼거렸다. 그루셴카는 아직도 겁에 질린 사람처럼 소파 옆에 서 있었다. 짙은 아마빛 머리채 한 가닥이 갑자기 머리 장식 밑에서 빠져나와 오른쪽 어깨에 흘러내렸지만, 그 여자는 손님들을 자세히 보고 누군지 알아볼 때까지 그것을 알아채지도, 바로잡지도 못했다.

"아, 너였어, 라키트카? 나 정말 간 떨어질 뻔했잖아. 누구랑 왔어? 너랑 같이 온 게 누구야? 맙소사, 누구를 데려왔담!" 그 여자는 알료샤를 알아보고 외쳤다.

"아무튼 초나 좀 내오라고 해!" 라키틴이 그 집에서 이것저것 시킬 권리까지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허물없는 사람처럼 넉살 좋게 말했다.

"초…… 그래, 초…… 페냐, 이 사람한테 초 좀 갖다줘…… 아니, 하필 이런 때 이 사람을 데려오다니!" 그 여자는 알료샤 쪽으로 고개를

까딱하며 다시 외쳤다. 그러고는 거울 쪽으로 돌아서서 두 손으로 재빨리 머리채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어쩐지 못마땅한 눈치였다.

"마음에 안 들었어?" 라키틴이 거의 그 자리에서 기분이 상해 물었다.

"네가 나를 놀라게 했다고, 라키트카, 그 얘기야." 그루셴카가 미소를 띠고 알료샤 쪽으로 돌아섰다. "나를 무서워하지 마, 귀여운 알료샤, 네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뜻밖의 내 손님. 그런데 라키트카, 너는 나를 놀라게 했어. 나는 미탸가 쳐들어오는 줄 알았거든. 있잖아, 나 아까 그 사람을 속였어. 나를 믿으라고 그 사람한테서 맹세까지 받아 놓고는 거짓말을 했어. 쿠지마 쿠지미치한테, 우리 영감한테 가서 저녁 내내 밤늦게까지 같이 돈을 셀 거라고 했어. 나는 정말로 주마다 그 영감한테 가서 저녁 내내 셈을 맞추거든. 문을 걸어 잠그고, 영감은 주판알을 튕기고, 나는 앉아서 장부에 적어. 영감은 나 하나만 믿어. 미탸는 내가 거기 있는 줄 믿었지만, 나는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 앉아서 소식 하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페냐가 어떻게 너희를 들여보냈담! 페냐, 페냐! 대문으로 뛰어가서 열고 둘레를 살펴봐, 어디 대위 나리가 없는지! 숨어서 엿보고 있을지도 몰라, 무서워 죽겠어!"

"아무도 없어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방금 둘레를 다 살펴봤어요. 저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틈마다 다가가 줄곧 내다보고 있어요."

"덧문은 잠갔어, 페냐? 휘장도 내려야지, 이렇게!" 그 여자가 손수 무거운 휘장을 내렸다. "안 그러면 불빛을 보고 그 사람이 곧장 날아들 테니까. 알료샤, 나 오늘은 너희 형 미탸가 무서워." 그루셴카는 불안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쩐지 거의 들뜬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미텐카가 무서운데?" 라키틴이 캐물었다. "그 사람 앞에서 겁먹는 편이 아니잖아, 그 사람은 네 피리 소리에 맞춰 춤추는데."

"말했잖아, 소식을 기다린다고, 금쪽같은 소식 하나를 말이야. 그러니 지금은 미텐카 따위는 아예 없어도 돼. 게다가 내가 쿠지마 쿠지미치한테 갔다는 말도 그 사람은 안 믿었어, 그건 느낌으로 알아. 아마 지금쯤 거기, 표도르 파블로비치네 뒤뜰에 앉아서 나를 지키고 있을 거야. 거기 버티고 있다면 여기는 안 올 테니 그게 더 낫지! 그런데 나 정말로 쿠지마 쿠지미치한테 다녀왔어. 미탸가 바래다주기까지 했어. 자정까지 있을 테니 자정에 꼭 와서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지.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나는 영감 곁에 10분쯤 앉아 있다가 다시 이리로 왔어. 휴, 무서웠어. 그 사람하고 마주칠까 봐 뛰어왔다니까."

"그런데 어디 가려고 이렇게 차려입었어? 이것 봐라, 무슨 모자가 이렇게 신기해?"

"너야말로 참 신기한 인간이다, 라키틴! 말했잖아, 그런 소식 하나를 기다린다고. 소식이 오면 벌떡 일어나 날아갈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본 것도 이게 마지막이지. 그래서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차려입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어디로 날아갈 건데?"

"너무 많이 알면 빨리 늙어."

"이것 봐라. 기쁨으로 온통 들떴네…… 너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무도회에라도 가는 것처럼 차려입었어." 라키틴이 그 여자를 훑어보았다.

"네가 무도회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럼 너는 많이 알아?"

"나는 무도회를 봤어. 재작년에 쿠지마 쿠지미치가 아들을 장가보낼 때 나는 위층 회랑에서 내려다봤거든. 그런데 라키트카, 여기 이런 공작님이 서 계신데 내가 너하고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야? 이런 손님이 다 있나! 알료샤, 귀여운 사람, 너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 맙소사,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나타났담! 솔직히 말하면 기다리지도 짐작하지도 못했어. 전에도 네가 올 수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믿지 않았어. 지금은 때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네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소파에 앉아, 여기, 그래 이렇게, 내 젊은 초승달 같은 사람. 정말이지 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에이, 라키트카, 네가 이 사람을 어제나 그저께 데려왔더라면!…… 뭐, 이래도 기뻐. 어쩌면 그저께가 아니라 지금, 이런 순간에 온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 여자는 날렵하게 알료샤 곁, 그의 바로 옆 소파에 앉아 그를 넋을 잃은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말로 기뻐했다. 그렇게 말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눈은 빛났고 입술은 웃고 있었는데, 착하고 즐겁게 웃고 있었다. 알료샤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이렇게 선한 표정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는 어제까지는 그 여자를 거의 만난 적이 없었고, 그 여자에 대해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고 있었으며, 어제는 그 여자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한 악의적이고 간교한 짓에 몹시 충격을 받았기에, 지금 갑자기 그 여자에게서 전혀 다른, 뜻밖의 존재를 보고 무척 놀랐다. 그리고 그는 제 슬픔에 아무리 짓눌려 있었어도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 여자의 몸가짐도 모두 어제와는 아주 딴판으로 좋아진 것 같았다, 어제처럼 말끝을 달착지근하게 늘이는 투가 거의 없었고, 그 나긋나긋하고 꾸민 몸짓도 없었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꾸밈이 없었으며, 몸짓은 빠르고 곧고 스스럼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몹시 들떠 있었다.

"맙소사, 오늘은 정말 별일이 다 이루어지네." 그 여자가 다시 재잘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료샤, 내가 왜 이렇게 네가 반가운지 나도 모르겠어. 물어봐, 그래도 나는 몰라."

"어이구, 무엇 때문에 기쁜지도 모른다고?" 라키틴이 피식 웃었다. "전에는 무엇 때문인지 나한테 데려와 달라, 데려와 달라 하고 졸랐잖아.

목적이 있었던 거지."

"전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지나갔어,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한테 대접을 해야겠다, 그게 할 일이야. 나 지금은 마음이 착해졌어, 라키트카. 너도 앉아, 라키트카, 왜 서 있어? 아니, 벌써 앉았어? 라키투시카가 저를 잊을 리 없지. 봐, 알료샤, 저 사람 지금 우리 맞은편에 앉아서 토라져 있어. 내가 왜 너보다 먼저 자기한테 앉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휴, 우리 라키트카는 잘 토라져, 잘 토라져!" 그루셴카가 웃음을 터뜨렸다. "화내지 마, 라키트카, 오늘은 나 착해. 그런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어, 알료셰치카, 나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 여자가 즐겁게 놀리며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 애는 슬픈 일이 있어. 승진을 못 했거든." 라키틴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승진?"

"이 애 장로가 냄새를 풍겼어."

"냄새를 풍기다니? 너 또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는구나, 무슨 더러운 소리를 하려는 거지. 입 다물어, 바보야. 알료샤, 네 무릎에 좀 앉게 해 줄래, 이렇게!" 그러고는 갑자기 그 여자는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웃으면서 응석 부리는 고양이처럼 그의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올라, 오른손으로 다정하게 그의 목을 감았다. "내가 너를 즐겁게 해 줄게, 하느님밖에 모르는 내 귀여운 소년! 아니, 정말로, 내가 네 무릎에 앉아 있어도 괜찮겠어, 화 안 낼 거지?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갈게."

알료샤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움직이기가 두려워 앉아 있었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갈게" 하는 그 여자의 말을 들었지만, 얼어붙은 듯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던 것은, 이를테면 제자리에서 음탕하게 지켜보던 라키틴 같은 사람이 지금 그에게서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었을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의 큰 슬픔이 그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삼켜 버렸고, 만약 그가 이 순간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었다면, 지금 자기가 온갖 유혹과 시험을 막는 더없이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 상태가 온통 막연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는데도, 그를 짓누르는 그 모든 슬픔에도,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떤 새롭고 이상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놀랐다. 이 여자가, 이 "무서운" 여자가 지금 그를 예전의 두려움으로, 예전에 여자에 대한 공상이 영혼 속에 스칠 때마다 그의 안에 생겨나던 두려움으로 겁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누구보다 두려워하던 이 여자가, 그의 무릎에 앉아 그를 끌어안고 있는 이 여자가 지금 갑자기 그의 안에 전혀 다른, 뜻밖의 각별한 느낌을, 그 여자를 향한 어떤 비상하고 더없이 크고 더없이 순진한 호기심의 느낌을 불러일으켰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예전의 공포라고는 조금도 없이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요점이었고, 바로 이것이 저도 모르게 그를 놀라게 했다.

"아무튼 헛소리는 그만들 지껄여." 라키틴이 소리쳤다. "그보다 샴페인이나 내와, 너 빚이 있잖아, 너도 알지!"

"정말 빚이 있어. 알료샤, 나 저 사람한테 너를 데려오면 다른 것 말고도 샴페인까지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샴페인 가져와, 나도 마실 거야! 페냐, 페냐, 우리한테 샴페인 가져와, 미탸가 두고 간 그 병, 얼른 뛰어가. 내가 인색하기는 해도 한 병은 내놓을게. 라키트카,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버섯 나부랭이지만 이 사람은 공작님이니까! 지금 내 영혼이 가득 찬 건 그런 것이 아니지만, 될 대로 되라지, 나도 너희하고 같이 마실 거야, 실컷 놀아 보고 싶어!"

"그런데 너 무슨 순간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소식'이라는 게 대체 뭔지 물어봐도 돼, 아니면 비밀이야?" 라키틴이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손가락 튕기기 같은 핀잔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 척 온 힘을 다해 시늉하며 다시 호기심에 끼어들었다.

"에이, 비밀은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루셴카가 갑자기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는 라키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알료샤에게서 조금 몸을 젖혔지만, 여전히 그의 무릎에 앉아 한 팔로 그의 목을 감고 있었다. "장교가 와, 라키틴, 내 장교가 오고 있어!"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벌써 그렇게 가까이 왔어?"

"지금 모크로예에 있어. 거기서 이리로 급사를 보내겠다고 자기가 직접 썼어, 아까 편지를 받았거든. 앉아서 급사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 봐라! 왜 모크로예야?"

"얘기하자면 길어, 너는 이만큼만 알면 돼."

"그러니 이제 미텐카는, 아이고, 아이고! 그 사람은 알아, 몰라?"

"알긴 뭘 알아! 전혀 몰라! 알았다면 죽이려 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건 전혀 안 무서워, 이제 그 사람 칼이 무섭지 않아. 입 다물어, 라키트카, 나한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짓이겨 놨어. 그리고 이 순간에는 그런 건 하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알료셰치카라면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알료셰치카를 보고 있어…… 그래, 나 보고 웃어 줘, 귀여운 사람, 기운 내, 내 어리석음을, 내 기쁨을 보고 웃어 줘…… 아, 웃었다, 웃었어! 봐, 얼마나 다정하게 보는지. 있잖아, 알료샤, 나는 네가 그저께 일 때문에, 그 아가씨 일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났다고 줄곧 생각했어. 나는 개였어,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 게 잘된 거야. 나쁘기도 했고 잘되기도 했어." 그루셴카가 갑자기 생각에 잠겨 피식 웃었고, 그 웃음에 갑자기 어떤 잔인한 빛이 스쳤다. "미탸가 그러는데 그 아가씨가 '저런 건 채찍으로 다스려야 해!' 하고 소리쳤다더라. 그때 내가 그 아가씨를 정말 단단히 모욕했어. 나를 불러다 이기고 싶어 했지, 제 초콜릿으로

나를 홀리려고 했어…… 아니, 그렇게 된 게 잘된 거야." 그 여자는 다시 피식 웃었다. "그래도 네가 화났을까 봐 자꾸 겁이 나……"

"정말 그렇네." 라키틴이 갑자기 진지하게 놀라며 끼어들었다. "알료샤, 이 여자가 정말로 너를 무서워해, 너 같은 병아리를."

"너한테나 이 사람이 병아리지, 라키트카, 그래…… 너한테는 양심이 없으니까, 그래! 있잖아, 나는 이 사람을 영혼으로 사랑해, 그래! 알료샤, 내가 너를 온 영혼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어?"

"아이고, 이런 뻔뻔한 여자 봤나! 알렉세이, 이 여자가 너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

"그럼 뭐 어때서, 사랑해."

"그럼 장교는? 모크로예에서 올 금쪽같은 소식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참 계집다운 소리 나왔네!"

"나 화나게 하지 마, 라키트카." 그루셴카가 뜨겁게 말을 받았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나는 알료샤를 다르게 사랑해. 맞아, 알료샤, 전에는 너한테 음흉한 생각을 품었어. 나는 천하고 사나운 여자니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알료샤, 너를 내 양심처럼 보곤 했어. 늘 생각했어. '저런 사람은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지금쯤 얼마나 경멸할까.' 그저께도 아가씨한테서 이리로 뛰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그렇게 눈여겨봤어, 알료샤. 미탸도 알아, 그 사람한테 말했거든. 미탸는 그걸 알아들어. 믿겠어? 어떤 때는, 정말이야, 알료샤, 너를 보면 부끄러워, 나 자신이 온통 부끄러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페냐가 들어와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쟁반에는 마개를 딴 병 하나와 가득 따른 잔 세 개가 놓여 있었다.

"샴페인 왔다!" 라키틴이 소리쳤다. "너 들떴어,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제정신이 아니야. 한 잔 마시면 춤추러 나가겠다. 에이, 이것도 제대로 못 했네." 그는 샴페인을 살펴보며 덧붙였다. "부엌에서 노파가 따랐구먼, 병은 마개도 없이 가져왔고, 미지근하기까지 해. 뭐, 이렇게라도 줘."

그는 탁자로 다가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 또 한 잔을 따랐다.

"샴페인은 자주 걸리는 게 아니거든." 그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자, 알료샤, 잔 들어, 솜씨 좀 보여 줘. 무엇을 위해 마실까? 천국의 문을 위해서? 그루샤, 잔 들어, 너도 천국의 문을 위해 마셔."

"무슨 천국의 문?"

그 여자는 잔을 들었다. 알료샤도 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도로 내려놓았다.

"아니, 안 마시는 게 낫겠어!"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큰소리치더니!" 라키틴이 소리쳤다.

"그럼 나도 안 마실래." 그루셴카가 말을 받았다. "마시고 싶지도 않아. 라키트카, 너 혼자 한 병 다 마셔. 알료샤가 마시면 그때 나도 마실게."

"송아지 같은 응석이 시작됐군!" 라키틴이 놀려 댔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애 무릎에 앉아 있고! 이 애는 슬픈 일이 있다 치자, 그런데 너는 뭐야? 이 애는 제 하느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소시지를 처먹으려 들었다고……"

"어째서?"

"이 애 장로가 오늘 죽었어, 조시마 장로가, 성인 말이야."

"그럼 조시마 장로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루셴카가 외쳤다. "맙소사, 나는 그것도 몰랐네!" 그 여자는 경건하게 성호를 그었다. "맙소사, 그런데 나는 뭐야, 지금 이 사람 무릎에 앉아 있다니!" 그 여자는 갑자기

겁에 질린 듯 펄쩍 놀라더니 순식간에 무릎에서 뛰어내려 소파로 옮겨 앉았다. 알료샤는 놀란 눈으로 그 여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빛나는 것 같았다.

"라키틴." 그가 갑자기 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하느님께 반역했다고 나를 놀리지 마. 나는 너한테 앙심을 품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너도 좀 더 착하게 굴어 줘. 나는 너는 한 번도 가져 본 적 없는 보물을 잃었어, 그러니 너는 지금 나를 심판할 수 없어. 그보다 여기, 이 사람을 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아껴 주었는지 봤지? 나는 사악한 영혼을 찾으러 여기 왔어, 내가 비열하고 사악했으니까 나 스스로 그쪽으로 끌렸던 거야, 그런데 나는 진실한 누이를 찾았어, 보물을 찾았어, 사랑하는 영혼을…… 이 사람은 방금 나를 아껴 주었어……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네 이야기야. 너는 방금 내 영혼을 되살려 주었어."

알료샤의 입술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는 말을 멈추었다.

"꼭 이 여자가 너를 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 라키틴이 심술궂게 웃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너를 삼키려고 했어, 너 그거 알아?"

"그만해, 라키트카!" 그루셴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둘 다 입 다물어. 이제 내가 다 말할게. 알료샤, 너는 입 다물어, 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부끄러워지니까, 나는 착한 게 아니라 사악하니까. 나는 그런 여자야. 그리고 라키트카, 너는 거짓말을 하니까 입 다물어. 이 사람을 삼키고 싶었던 비열한 생각이 있기는 했어. 그렇지만 지금 너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네 말을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 라키트카!" 그루셴카는 이 모든 말을 비상하게 흥분해서 했다.

"이것 봐라, 둘 다 미쳐 날뛰네!" 라키틴이 두 사람을 놀라서 살펴보며 쉿쉿거렸다. "미친 사람들처럼, 꼭 내가 정신 병원에 들어온 것 같아. 둘이 같이 맥이 풀렸어, 곧 울기 시작하겠군!"

"그래, 울 거야, 울 거야!" 그루셴카가 되뇌었다. "이 사람이 나를 제 누이라고 불렀어, 나는 앞으로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다만 이것만은 알아 둬, 라키트카, 나는 사악해도 그래도 양파 한 뿌리는 준 적이 있어."

"무슨 양파 한 뿌리? 쳇, 제기랄, 정말로 미쳤구먼!"

라키틴은 두 사람의 들뜬 모습에 놀랐고, 언짢아하며 성을 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마침 인생에서 흔치 않게 영혼을 뒤흔들 만한 모든 일이 한꺼번에 겹쳤다는 것쯤은 그도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러나 제 자신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무척 예민하게 알아차리던 라키틴은 이웃의 감정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데는 몹시 둔했는데, 얼마쯤은 젊어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고, 얼마쯤은 그의 커다란 이기심 때문이었다.

"있잖아, 알료셰치카." 그루셴카가 갑자기 그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다고 내가 라키트카한테 자랑했지만, 너한테는 자랑하지 않을게, 너한테는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할게. 이건 그냥 옛이야기야. 그렇지만 좋은 옛이야기야. 내가 아직 어린애였을 때 지금 우리 집 식모로 있는 마트료나한테서 들었어. 들어 봐, 이래. '옛날에 아주아주 심술궂은 아낙이 하나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죽고 나서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 악마들이 그 여자를 붙잡아 불바다에 던졌어. 그러자 그 여자의 수호천사가 서서 생각해. 하느님께 말씀드릴 만한, 그 여자가 한 무슨 착한 일을 떠올릴 수 없을까. 천사가 생각해 내고 하느님께 말해. 그 여자가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 거지 여자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자 하느님이 대답하셔. 그럼 너는 바로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져다 불바다 속 그 여자에게 내밀어라, 그 여자가 붙잡고 끌려 나오게 해라, 네가 그 여자를 불바다 밖으로 끌어내면 천국에 가게 하고, 양파가 끊어지면 그 아낙은 지금 있는 그곳에 남아야 한다, 하고. 천사가 아낙에게 달려가 양파 한 뿌리를 내밀었어. 자, 아낙아, 이걸 붙잡고

따라 올라오너라, 하고. 그러고는 조심조심 그 여자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서 거의 다 끌어냈는데, 불바다 속 다른 죄인들이 그 여자가 끌려 나가는 걸 보고는 저희도 함께 끌려 나가려고 모두 그 여자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아낙은 아주아주 심술궂은 여자라 그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 "끌려 나가는 건 나지 너희가 아니야, 이건 내 양파지 너희 양파가 아니야." 그 여자가 이 말을 하자마자 양파가 끊어져 버렸어. 아낙은 불바다에 떨어져 오늘날까지 불타고 있어.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어.' 이게 그 옛이야기야, 알료샤. 나는 이걸 외워 두었어, 내가 바로 그 심술궂은 아낙이니까. 라키트카한테는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너한테는 다르게 말할게. 나는 평생 겨우 무슨 양파 한 뿌리쯤을 준 게 다야, 나한테 있는 착한 일은 그것뿐이야.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나를 칭찬하지 마, 알료샤, 나를 착한 여자로 여기지 마. 나는 사악해, 아주아주 심술궂어. 네가 칭찬하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에이, 다 털어놓고 뉘우칠래. 들어 봐, 알료샤. 나는 너를 우리 집에 꾀어 들이고 싶어서 라키트카를 얼마나 졸랐는지, 너를 데려오면 25루블을 주겠다고까지 약속했어. 거기 서, 라키트카, 기다려!" 그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탁자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서 25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런 헛소리가! 이런 헛소리가!" 어리둥절해진 라키틴이 외쳤다.

"받아, 라키트카, 빚이야. 설마 마다하지는 않겠지, 네가 달라고 했잖아." 그러고는 그 여자가 지폐를 그에게 던졌다.

"마다할 리가 있나." 라키틴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 띄게 당황했지만 짐짓 대범한 척 부끄러움을 감추었다. "이건 우리한테 심히 쓸모가 있겠군. 바보들은 똑똑한 사람한테 이득을 주려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입 다물어, 라키트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다 네 귀를 위한 게 아니야. 저 구석에 앉아서 입 다물고 있어. 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 입 다물어."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야 하는데?" 라키틴이 이제는 앙심을 숨기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25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지만, 알료샤 앞에서 그는 정말로 부끄러웠다. 그는 알료샤가 알지도 못하게 나중에 삯을 받을 셈이었는데,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화가 치밀었다. 이 순간까지 그는 그루셴카가 아무리 핀잔을 주어도 그 여자에게 크게 맞서지 않는 것이 무척 현명하다고 여겼다. 그 여자가 그를 어떤 힘으로 쥐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도 화가 났다.

"사랑하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 둘이 나한테 해 준 게 뭐야?"

"너는 아무 까닭 없이 사랑해 봐, 알료샤가 사랑하듯이."

"그럼 저 애가 무엇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무슨 대단한 걸 보여 줬길래 네가 이렇게 야단이야?"

그루셴카는 방 한가운데 서서 뜨겁게 말했다. 그 여자의 목소리에 히스테리 섞인 가락이 들렸다.

"입 다물어, 라키트카, 너는 우리 사이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 감히 나한테 *반말*하지 마, 허락하지 않을 테니.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어, 그래! 구석에 앉아서 내 하인처럼 입 다물고 있어. 자, 이제 알료샤, 너 하나한테만 숨김없는 진실을 다 말할게, 내가 얼마나 몹쓸 년인지 네가 알 수 있게! 라키트카가 아니라 너한테 말하는 거야. 나는 너를 망치고 싶었어, 알료샤, 이건 커다란 진실이야, 아주 그렇게 마음먹었어. 라키트카를 돈으로 매수해서 너를 데려오게 할 만큼 그러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먹었을까? 알료샤, 너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한테서 고개를 돌렸어, 지나가다가도 눈을 내리깔았지.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너를 백 번이나 쳐다봤고, 모두에게 네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어. 네 얼굴이 내 마음에 남았어. '저 사람은

나를 경멸해, 나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했지. 그러다 마침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 자신이 놀랄 지경이었어. 내가 왜 저런 소년을 무서워하지? 통째로 삼켜 버리고 웃어 줄 테다. 아주 독이 올랐어. 믿겠어?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못된 일로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를 찾아올 엄두를 내거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해. 나한테는 그 영감 하나뿐이야, 나는 그 영감한테 묶여 있고 팔려 있어, 사탄이 우리 혼례를 올려 줬지. 그 대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를 보고는 마음먹었어. 저 사람을 삼켜 버리겠다고. 삼키고 웃어 줄 테다. 봐, 네가 누이라고 부른 내가 이렇게 사악한 개야! 이제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이 왔어. 지금 나는 앉아서 소식을 기다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이었는지 알아? 다섯 해 전에 쿠지마가 나를 이리로 데려왔을 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사람들한테서 숨어 앉아 있곤 했어, 가냘프고 어리석은 계집애가 앉아서 흐느끼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생각했지.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아마 다른 여자하고 나를 비웃고 있겠지. 두고 봐,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언젠가 만나기만 하면, 그때는 갚아 줄 거야, 꼭 갚아 줄 거야!' 밤에 어둠 속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이 모든 걸 곱씹었어, 일부러 내 마음을 찢었고, 앙심으로 그 마음을 달랬어. '두고 봐, 두고 봐, 갚아 줄 거야!' 어둠 속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어. 그러다 갑자기,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게, 아니 어쩌면 아주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 한다는 게 생각나면, 침대에서 바닥으로 몸을 던져 힘없는 눈물을 쏟으며 새벽까지 떨고 또 떨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개보다 더 사나워져서 온 세상을 삼켜 버리고 싶었어. 그다음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나는 밑천을 모으기 시작했고, 인정사정없어졌고, 살이 붙었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겠지, 응? 그런데 아니야, 온 세상에서 아무도 그걸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밤의 어둠이 내리면 다섯 해 전 계집애였을 때와 똑같이 어떤 때는 누워서 이를 갈며 밤새 울어. '두고 봐, 두고 봐!' 하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 다 들었지? 그럼 이제 나를 어떻게 이해해? 한 달 전에 갑자기 바로 그 편지가 나한테 왔어. 그 사람이 온다는 거야, 홀아비가 되어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때 나는 숨이 턱 막혔어, 맙소사,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휘파람 한 번 불며 나를 부르면 나는 매 맞은 강아지처럼, 죄 지은 강아지처럼 그 사람한테 기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비열한가, 아닌가, 그 사람한테 달려갈까, 안 달려갈까?' 그리고 이 한 달 내내 나 자신한테 어찌나 화가 났는지, 다섯 해 전보다 더 지독했어. 이제 알겠어, 알료샤, 내가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너한테 진실을 다 털어놓았어!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 않으려고 미탸를 가지고 놀았어. 입 다물어, 라키트카, 네가 나를 심판할 일이 아니야,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너희가 오기 전에 나는 여기 누워서 기다리며 생각했어, 내 운명을 다 결정하고 있었어. 그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너희는 절대 모를 거야. 그래, 알료샤, 네 아가씨한테 그저께 일로 화내지 말라고 전해 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지 온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 알 수도 없어…… 어쩌면 나는 오늘 거기 칼을 가지고 갈지도 모르니까, 아직 그건 정하지 않았어……"

이 "가엾은" 말을 내뱉고 나자 그루셴카는 갑자기 견디지 못하고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파의 베개에 몸을 던져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알료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키틴에게 다가갔다.

"미샤." 그가 말했다. "화내지 마. 이 사람이 너를 모욕했지만 화내지 마. 방금 이 사람 말 들었지? 사람의 영혼한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돼, 좀 더 자비로워야 해……"

알료샤는 걷잡을 수 없이 북받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 그는 마음을 털어놓아야 했고, 그래서 라키틴에게 말을 건넸다. 라키틴이 없었다면 그는 혼자서라도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라키틴이 비웃듯 바라보았고, 알료샤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너 아까 네 장로한테서 장전을 받아 와서 이제 네 장로를 나한테 쏘아 댄 거야, 알료셴카, 하느님의 귀여운 사람아." 라키틴이 증오 어린 미소를 띠고 말했다.

"웃지 마, 라키틴, 비웃지 마, 돌아가신 분 얘기는 하지 마. 그분은 땅 위에 있었던 누구보다 높은 분이야!" 알료샤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너를 심판하는 사람으로 말하려고 일어선 게 아니야, 나 자신이 피고 가운데 가장 못한 자로서 말하는 거야.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뭐야? 나는 파멸하려고 여기 왔어, 그리고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하고 말했어. 그것도 내 비겁함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다섯 해를 괴로워하고서도, 누군가 처음으로 와서 진실한 말 한마디를 해 주자마자 다 용서하고 다 잊고 울고 있어! 이 사람을 모욕한 사람이 돌아와서 부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용서하고 기뻐하며 그 사람한테 서둘러 가고, 칼은 가져가지 않을 거야, 가져가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그렇지 못해. 미샤, 네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오늘, 방금 이 가르침을 받았어…… 이 사람은 사랑으로 우리보다 높아……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걸 전에 이 사람한테서 들은 적 있어? 아니, 못 들었지. 들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다 알아들었을 거야…… 그리고 그저께 모욕당한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면! 그리고 알게 되면 용서할 거야…… 그리고 알게 될 거야…… 이 영혼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영혼이야, 아껴 주어야 해…… 이 영혼에는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알료샤는 숨이 끊겨 말을 멈추었다. 라키틴은 온갖 앙심에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얌전한 알료샤에게서 이런 긴 열변이 나오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다.

"이것 봐라, 변호사가 나섰네! 너 이 여자한테 반하기라도 한 거야?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우리 금욕 수도자가 정말로 너한테 반했어, 네가 이겼어!" 그가 뻔뻔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그루셴카는 베개에서 고개를 들고, 방금 흘린 눈물로 어쩐지 갑자기 부어오른 얼굴에 환히 피어난 감동한 미소를 띠고 알료샤를 바라보았다.

"내버려 둬, 알료샤, 내 케루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잖아, 말할 상대를 잘도 골랐네. 미하일 오시포비치." 그 여자는 라키틴을 돌아보았다. "너를 욕한 걸 용서해 달라고 빌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그러기 싫어졌어. 알료샤, 이리 와, 여기 앉아." 그 여자는 기쁜 미소를 띠고 그를 손짓해 불렀다. "그래, 이렇게, 여기 앉아. 나한테 말해 줘." (그 여자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말해 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안 해?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을, 사랑해, 안 해? 너희가 오기 전에 나는 여기 어둠 속에 누워서 줄곧 내 마음한테 물었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안 해? 알료샤, 네가 정해 줘, 때가 왔어. 네가 정하는 대로 될 거야. 그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벌써 용서했잖아." 알료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로 용서했네." 그루셴카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 얼마나 비열한 마음인지! 내 비열한 마음을 위해!" 그 여자는 갑자기 탁자에서 잔을 낚아채 단숨에 마시고는 높이 쳐들었다가 힘껏 바닥에 내던졌다.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 여자의 미소에 어떤 잔인한 빛이 스쳤다.

"그런데 어쩌면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그 여자는 땅으로 눈을 내리깐 채, 혼자서 저 자신에게 말하듯 어쩐지 위협하듯 말했다.

"어쩌면 마음이 이제 겨우 용서하려는 참인지도 몰라. 아직 그 마음하고 더 싸워 볼 거야. 있잖아, 알료샤, 나는 다섯 해 동안 흘린 내 눈물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어…… 어쩌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욕만 사랑하게 된 건지도 몰라!"

"아이고, 그 사람 처지가 되고 싶지는 않구먼!" 라키틴이 쉿쉿거렸다.

"되지도 못할 거야, 라키트카, 너는 절대 그 사람 처지가 되지 못해. 너는 나한테 신발이나 지어 줄 거야, 라키트카, 너는 그런 일에나 부려 먹을 거야. 나 같은 여자는 너한테는 절대 차례가 안 와…… 어쩌면 그 사람한테도 안 올지 몰라……"

"그 사람한테도? 그럼 왜 차려입었어?" 라키틴이 짓궂게 놀렸다.

"옷 가지고 나를 나무라지 마, 라키트카, 너는 아직 내 마음을 다 몰라! 내키면 옷을 찢어 버릴 거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찢어 버릴 거야." 그 여자가 낭랑하게 소리쳤다. "이 옷이 무엇 때문인지 너는 몰라, 라키트카! 어쩌면 그 사람한테 나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이런 나를 본 적 있어, 아직 없어?' 그 사람은 열일곱 살, 가냘프고 폐병 앓는 울보인 나를 버리고 갔어. 그러니 그 사람 곁에 앉아서 홀리고 애태우게 해 줄 거야. '지금 내가 어떤지 봤지?' 하고 말할 거야. '그럼 그대로 계세요, 나리. 수염만 적시고 입에는 한 방울도 못 넣은 채로!' 어쩌면 이 옷은 바로 그걸 위한 건지도 몰라, 라키트카." 그루셴카가 심술궂게 웃으며 말을 맺었다. "나는 사나워, 알료샤, 독해. 내 옷을 찢고, 내 몸을, 내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얼굴을 불로 지지고 칼로 그어 버리고, 동냥하러 나갈 거야. 내키면 이제 아무 데도, 아무한테도 가지 않을 거야. 내키면 내일 당장 쿠지마가 나한테 준 걸 모두, 그 사람 돈까지 몽땅 돌려보내고, 나는 평생 날품팔이 일꾼으로 살 거야!…… 내가 그렇게 못 할 것 같아, 라키트카, 그럴 엄두도 못 낼 것 같아? 할 거야, 할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 나를 약 올리지만 마…… 그리고 그

사람은 쫓아 버릴 거야, 그 사람한테는 주먹 감자를 먹여 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다시는 못 볼 거야!"

마지막 말을 그 여자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다시 견디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베개에 몸을 던져 또다시 흐느끼며 몸을 떨었다. 라키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 시간이야." 그가 말했다. "늦었어, 수도원에서 안 들여보내 줄 거야."

그루셴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마 너 가려는 거야, 알료샤!" 그 여자가 비통하게 놀라며 외쳤다. "그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를 온통 일깨워 놓고, 갈가리 찢어 놓고, 그런데 또 이 밤이 오고, 또 나 혼자 남아야 하잖아!"

"설마 이 애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어? 하기야 이 애가 원하면 그러라지! 나는 혼자 갈게!" 라키틴이 빈정거리며 농담을 던졌다.

"입 다물어, 사악한 인간아." 그루셴카가 사납게 소리쳤다. "너는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해 준 그런 말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

"이 애가 너한테 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라키틴이 짜증스럽게 투덜거렸다.

"나도 몰라, 모르겠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에 와닿았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 처음으로,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었어, 그래! 내 케루빔, 너는 왜 진작 오지 않았어?" 그 여자는 갑자기 넋이 나간 듯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평생 너 같은 사람을 기다렸어, 언젠가 그런 사람이 와서 나를 용서해 주리라는 걸 알았어. 누군가 나를, 이 더러운 여자를, 치욕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해 주리라고 믿었어!……"

"내가 너한테 뭘 해 줬다고?" 알료샤가 감동해 미소 지으며 그 여자에게 몸을 숙이고 다정하게 그 여자의 두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한테 양파 한 뿌리를 주었을 뿐이야, 아주 작은 양파 한 뿌리를,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자신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누군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루셴카는 몹시 겁에 질린 듯 벌떡 일어났다. 페냐가 소란스럽게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마님, 마님, 아이고 마님, 급사가 말을 달려왔어요!" 하녀가 즐겁게,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모크로예에서 마님을 모시러 포장마차가 왔어요. 마부 티모페이의 트로이카예요. 곧 새 말로 바꿔 맬 거예요…… 편지요, 편지, 마님, 여기 편지요!"

편지는 하녀의 손에 있었고, 하녀는 소리치는 내내 편지를 허공에 흔들어 댔다. 그루셴카는 하녀에게서 편지를 낚아채 촛불에 갖다 댔다. 그것은 몇 줄밖에 안 되는 쪽지일 뿐이었고, 그 여자는 순식간에 그것을 읽었다.

"불렀어!" 그 여자가 온통 창백해져서, 병적인 미소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다. "휘파람을 불었어! 기어가라, 강아지야!"

그러나 그 여자가 망설이듯 서 있었던 것은 한순간뿐이었다. 갑자기 피가 머리로 몰려 그 여자의 두 뺨을 불처럼 물들였다.

"갈 거야!" 그 여자가 갑자기 외쳤다. "내 다섯 해! 안녕히들! 잘 있어, 알료샤, 운명은 정해졌어…… 가, 가, 이제 다들 나한테서 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게!…… 그루셴카는 새 삶으로 날아갔어…… 라키트카, 너도 나를 나쁘게 기억하지 마. 어쩌면 나는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 휴! 꼭 술 취한 것 같아!"

그 여자는 갑자기 두 사람을 내버려 두고 제 침실로 달려갔다.

"뭐, 이제 저 여자는 우리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지!" 라키틴이 투덜거렸다. "가자, 안 그러면 또 그 계집 같은 울부짖음이 시작될

테니까. 그 눈물 바람 섞인 울부짖음에는 이제 진저리가 나……"

알료샤는 기계처럼 이끌려 나갔다. 마당에는 포장마차가 서 있었고, 말을 풀고, 등불을 들고 다니며 부산을 떨었다. 열린 대문으로 새 트로이카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알료샤와 라키틴이 현관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갑자기 그루셴카의 침실 창문이 열리더니, 그 여자가 알료샤의 뒤에 대고 낭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알료셰치카, 네 형 미텐카한테 안부 전해 줘, 그리고 자기를 망친 나를 나쁘게 기억하지 말라고 해. 그리고 내 말 그대로 이렇게도 전해 줘. '그루셴카는 고귀한 당신이 아니라 비열한 놈 차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덧붙여 줘. 그루셴카가 그 사람을 한 시간 동안 사랑했다고, 딱 한 시간만 사랑했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제부터 평생 그 한 시간을 기억하라고, 그루셴카가 평생 당신한테 그렇게 당부했다고!……"

그 여자는 울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창문이 쾅 닫혔다.

"흠, 흠!" 라키틴이 웃으며 우물거렸다. "형님 미텐카의 목을 따 놓고 평생 기억하라고까지 하는구먼. 이런 육식성이라니!"

알료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치 듣지도 못한 것 같았다. 그는 몹시 서두르기라도 하듯 라키틴 곁에서 빠르게 걸었고, 넋이 나간 듯 기계처럼 걸었다. 라키틴은 갑자기 무언가에 찔린 듯했다. 마치 누가 그의 생생한 상처를 손가락으로 건드린 것 같았다. 그가 아까 그루셴카와 알료샤를 맞붙여 줄 때 기대한 것은 전혀 이런 일이 아니었고, 그가 무척 바라던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

"폴란드인이야, 그 여자의 그 장교라는 놈은."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는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게다가 이제는 장교도 아니야. 시베리아 어디, 중국 국경 근처 세관에서 관리로 일했대. 틀림없이 비리비리한 폴란드 녀석이겠지. 자리를 잃었다더군. 이제 그루셴카한테 밑천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온 거야. 기적이라는 게 고작 그거야."

알료샤는 또 듣지도 못한 것 같았다. 라키틴은 참지 못했다.

"그래, 죄 많은 여자를 회개시켰냐?" 그는 알료샤에게 심술궂게 웃었다. "창녀를 진리의 길로 돌려세웠어? 일곱 귀신을 쫓아냈냐, 응? 아까 기다리던 우리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구먼!"

"그만해, 라키틴." 알료샤가 영혼 속 고통을 안고 대답했다.

"너 지금 아까 받은 25루블 때문에 나를 '경멸하는' 거지? 진실한 친구를 팔아넘겼다, 이거지.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유다가 아니야."

"아, 라키틴, 정말이야, 나는 그 일을 잊고 있었어." 알료샤가 외쳤다. "네가 방금 일깨워 주었지……"

그러나 라키틴은 이제 완전히 화가 났다.

"제기랄, 너희 모두 하나하나 다 꺼져 버려라!" 그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젠장, 내가 왜 너하고 얽혔담! 이제부터 너하고는 알고 지내고 싶지도 않아. 혼자 가, 저기 네 길이 있어!"

그러고는 홱 돌아서서 다른 거리로 들어가 버리고, 알료샤를 어둠 속에 혼자 남겨 두었다. 알료샤는 읍을 벗어나 들판을 지나 수도원으로 걸어갔다.

제4장 갈릴리 가나

알료샤가 은수처에 돌아왔을 때는 수도원 기준으로 벌써 아주 늦은 시각이어서, 문지기가 따로 길을 내어 그를 들여보내 주었다. 벌써 아홉 시를 쳤다, 모두에게 그토록 어수선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 함께 쉬며 고요히 지내는 시간이었다. 알료샤는 쭈뼛거리며 문을 열고, 이제 장로의 관이 놓여 있는 장로의 수방으로 들어섰다. 관 곁에서 홀로 복음서를 읽는 파이시 신부와, 어젯밤의 담화와 오늘의 소란에 지쳐 다른 방 바닥에서 젊은이다운 깊은 잠에 빠진 젊은 수련 수사 포르피리 말고는 수방에 아무도 없었다. 파이시 신부는 알료샤가 들어온 것을 들었지만,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알료샤는 문에서 오른쪽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혼은 가득 차 있었지만 어쩐지 어렴풋했고, 어느 느낌 하나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며 어떤 고요하고 고른 소용돌이를 이루었다. 그러나 마음은 달콤했고, 이상하게도 알료샤는 그것이 놀랍지 않았다. 다시 그는 제 앞에 그 관을, 온통 덮인 채 누워 있는, 그에게 너무나 귀한 그 죽은 이를 보았지만, 아까 아침처럼 울고 앓고 괴로워하는 연민은 그의 영혼에 없었다. 방금 들어서자마자 그는 성소 앞에서처럼 관 앞에 엎드렸지만, 기쁨이, 기쁨이 그의 머리와 그의 마음에서 빛나고 있었다. 수방의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고, 공기는 신선하고 조금 쌀쌀했다. "창문을 열기로 했다면 냄새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겠지." 알료샤는 생각했다. 그러나 아까만 해도 그토록 무섭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던 썩는

냄새에 대한 이 생각조차 이제는 아까의 우수도, 아까의 분노도 그의 안에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곧 제가 거의 기계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생각의 조각들이 그의 영혼 속에 스치며 작은 별들처럼 불붙었다가는 곧 꺼지고 다른 조각들로 바뀌었지만, 그 대신 영혼 속에는 무언가 온전하고 단단하고 달래 주는 것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스스로 의식했다. 때때로 그는 뜨겁게 기도를 시작했다. 그토록 감사하고 사랑하고 싶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갑자기 다른 무엇으로 넘어가 생각에 잠기고, 기도도, 기도를 끊은 그 무엇도 잊어버렸다. 그는 파이시 신부가 읽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 했지만, 몹시 지쳐서 차츰차츰 졸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으니," 파이시 신부가 읽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부름을 받았더라."*

"혼인 잔치? 이게 뭐지…… 혼인 잔치……" 알료샤의 머릿속에 회오리바람처럼 휘몰아쳤다. "그 사람한테도 행복이…… 잔치에 갔지…… 아니, 그 사람은 칼을 가져가지 않았어, 칼을 가져가지 않았어…… 그건 그저 '가엾은' 말이었을 뿐이야…… 그래…… 가엾은 말은 용서해 줘야 해, 반드시. 가엾은 말은 영혼을 달래 줘…… 그런 말이 없으면 사람들의 슬픔은 너무 무거울 거야. 라키틴은 골목으로 가 버렸지. 라키틴은 제 모욕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골목으로 가 버릴 거야…… 그런데 길은…… 길은 넓고 곧고 환하고 수정 같고, 그 끝에는 해가 있어…… 응?…… 뭘 읽고 있지?"

"……포도주가 떨어지매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하니……" 알료샤에게 들려왔다.

"아, 그래, 여기를 놓쳤네,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이 대목을 사랑해. 이건 갈릴리 가나야, 첫 번째 기적…… 아, 이 기적, 아, 이 사랑스러운 기적!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 찾아가신 것은 사람들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사람들의 기쁨을 도우셨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는 그들의 기쁨도 사랑한다……' 돌아가신 분이 늘 되풀이하던 말이야, 그분의 가장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였어…… 기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미탸 형은 말하지…… 그래, 미탸 형…… 참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언제나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것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인이여, 나와 그대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기쁨, 어떤 가난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 물론 가난했겠지, 혼인 잔치에 포도주조차 모자랐으니까…… 역사가들이 쓰기로는 그때 게네사렛 호수 둘레와 그 모든 고장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또 하나의 위대한 존재, 그분의 어머니의 또 하나의 위대한 마음은 알았어. 그분이 그때 내려오신 것은 그 위대하고 무서운 위업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제 초라한 혼인 잔치에 다정하게 불러 준 어떤 무지한, 무지하고 순박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즐거움도 그분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셔(틀림없이 어머니에게 온유하게 미소 지으셨을 거야)…… 정말이지, 그분이 가난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불리려고 땅에 내려오셨을까? 그런데도 가서 어머니의 부탁대로 해 주셨어…… 아, 또 읽고 계시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아귀까지 채웠더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주라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주었더라.

잔치를 맡은 이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 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잔치를 맡은 이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뒤에 못한 것을 내놓거늘,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 하니라."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방이 넓어지는 거지…… 아, 그래…… 이건 혼인 잔치야, 결혼식이야…… 그래, 물론이지. 저기 손님들이 있고, 저기 신랑 신부가 앉아 있고,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잔치 맡은 이는 어디 있지? 그런데 이건 누구지? 누구야? 또 방이 넓어졌어…… 저기 큰 식탁에서 일어서는 이는 누구지? 어떻게…… 그분도 여기 계셔? 그분은 관 속에 계신데…… 그런데 여기도 계셔…… 일어나셔서 나를 보시고 이리로 오셔…… 주님!……

그래, 그에게로, 그에게로 그분이 다가왔다. 얼굴에 잔주름이 잡힌, 기뻐하며 조용히 웃는 깡마른 노인이었다. 관은 이제 없었고, 그분은 어제 손님들이 모였을 때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얼굴은 온통 환히 드러나 있었고, 눈은 빛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니까 그분도 잔치에 계신 거야, 그분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부름을 받으신 거야……

"그렇단다, 얘야, 나도 부름을 받았지, 청함을 받고 부름을 입었단다." 그의 머리 위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린다. "왜 여기 숨어서 보이지도 않느냐…… 너도 우리한테 가자."

그분의 목소리, 조시마 장로의 목소리다…… 부르시는데 어찌 그분이 아닐 수 있겠는가? 장로가 손으로 알료샤를 일으켰고, 알료샤는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단다." 깡마른 노인이 말을 잇는다. "새 포도주를, 새롭고 큰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단다.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느냐? 저기 신랑과 신부가 있고, 저기 지혜로운 잔치 맡은 이가 새 포도주를 맛보고 있다. 왜 나를 보고 놀라느냐? 나는 양파 한 뿌리를 주었고, 그래서 나도 여기 있단다. 여기 있는 많은 이가 양파 한 뿌리씩만, 작은 양파 한 뿌리씩만 주었을 뿐이란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너도, 조용한 너도, 온순한 내 아이 너도 오늘 굶주린 여자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줄 줄 알았지. 시작하거라, 얘야, 시작하거라, 온순한 아이야, 네 일을!…… 그런데 우리의 해가 보이느냐, 그분이 보이느냐?"

"두려워요……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알료샤가 속삭였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 앞에서 그 위대하심으로 두렵고 그 높으심으로 무서우시지만, 끝없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며, 손님들의 기쁨이 끊기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새 손님들을 기다리시며, 쉼 없이 새 손님들을 부르신단다. 이제는 영원무궁토록. 저기 새 포도주를 가져오는구나. 보이느냐, 그릇들을 가져오는구나……"

알료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무언가가 갑자기 아플 만큼 그를 가득 채웠고, 환희의 눈물이 그의 영혼에서 터져 나오려 했다…… 그는 두 팔을 내뻗고 소리를 지르고는 깨어났다……

다시 관이, 열린 창문이, 조용하고 장중하게 또박또박 읽는 복음서 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알료샤는 이제 무엇을 읽는지 듣고 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잠들었는데, 지금은 두 발로 서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튕겨 나가듯 단단하고 빠른 세 걸음으로 관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어깨로 파이시 신부를 건드리기까지 했지만 그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파이시 신부는 잠깐 책에서 눈을 들어 그를 보았지만, 젊은이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 다시 눈길을 돌렸다. 알료샤는 30초쯤 관을, 덮인 채 꼼짝 않고 관 속에 길게 누운 죽은 이를, 가슴에는 성상을 얹고 머리에는 여덟 끝 십자가가 달린 두건을 쓴 그 죽은 이를 바라보았다. 방금 그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는 아직 그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귀를 기울였고, 아직도 소리를 기다렸다…… 그러나 갑자기 홱 돌아서서 수방을 나왔다.

그는 현관 계단에서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아래로 내려갔다. 환희로 가득한 그의 영혼은 자유를, 공간을, 너른 곳을 목말라했다. 그의 머리 위로 고요히 빛나는 별들로 가득한 하늘의 둥근 지붕이 넓게,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 꼭대기에서 지평선까지 아직 희미한 은하수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꼼짝하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신선한 밤이 땅을 감싸고 있었다. 대성당의 하얀 탑들과 황금빛 둥근 지붕들이 사파이어빛 하늘에 반짝였다. 집 둘레 꽃밭의 화려한 가을꽃들은 아침까지 잠들어 있었다. 땅의 고요가 하늘의 고요와 하나로 녹아드는 것 같았고, 땅의 신비가 별들의 신비와 맞닿아 있었다…… 알료샤는 서서 바라보다가 갑자기 낫에 베인 듯 땅에 엎드렸다.

그는 무엇 때문에 대지를 끌어안는지 알지 못했고, 왜 그토록 걷잡을 수 없이 대지에 입 맞추고, 대지 전체에 입 맞추고 싶은지 스스로 헤아리지 못했지만, 울면서, 흐느끼면서, 제 눈물로 대지를 적시면서 입 맞추었고, 대지를 사랑하겠다고, 대지를 영원무궁토록 사랑하겠다고 미친 듯이 맹세했다. "네 기쁨의 눈물로 땅을 적시고 네 이 눈물을 사랑하라……" 그의 영혼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오, 그는 환희에 차서 심연에서 그에게 빛을 보내는 저 별들 때문에도 울었고, "이 열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셀 수 없이 많은 세계에서 뻗어 온 실들이 모두 한꺼번에 그의 영혼 속에서 만난 듯했고, 그의 영혼은 "다른 세계들과 맞닿으며" 온통 떨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하고 싶었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위해. "나를 위해서도 다른 이들이 빌고 있다." 그의 영혼 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그러나 매 순간 그는 무언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하늘의 궁륭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 영혼 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뚜렷하게, 마치 손으로 만지듯이 느꼈다. 어떤 생각 같은 것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평생토록, 영원무궁토록. 그는 연약한 젊은이로 땅에 엎드렸다가 평생토록 굳센 투사가 되어 일어섰고, 그것을 갑자기, 바로 그 환희의 순간에 깨닫고 느꼈다. 그리고 알료샤는 그 뒤로 평생 이 순간을 결코, 결코 잊지 못했다. "그 시각에 누군가 내 영혼을 찾아오셨다." 그는 나중에 제 말을 굳게 믿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다……

사흘 뒤 그는 수도원을 나왔다. 그것은 "세상에 머물라"고 그에게 명한, 세상을 떠난 그의 장로의 말과도 맞는 일이었다.

---

1. 요한복음 2장 1~10절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 파이시 신부는 교회 슬라브어 복음서를 읽고 있다.

제8권 미탸

제1장 쿠지마 삼소노프

그런데 그루셴카가 새 삶으로 날아가면서 마지막 안부를 전하라고 "시키고" 제 사랑의 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당부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그 여자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순간 그 역시 무서운 혼란과 분주함 속에 있었다. 마지막 이틀 동안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나중에 그 자신이 말했듯이 정말로 뇌염에 걸릴 수도 있었다. 알료샤는 전날 아침에 그를 찾아내지 못했고, 이반 형도 같은 날 술집에서 그와 만날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가 세 들어 살던 작은 셋집의 주인들은 그의 분부대로 그의 행방을 감추었다. 그런데 그는 이 이틀 동안, 나중에 그가 스스로 표현한 대로 "제 운명과 싸우며 저를 구하느라" 말 그대로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그루셴카를 단 1분이라도 지켜보지 않은 채 남겨 두고 떠나기가 몹시 두려웠는데도 어떤 다급한 일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읍 밖으로 날아갔다 오기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문서로까지 밝혀졌지만, 지금 우리는 그의 운명에 그토록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무서운 파국에 앞선, 그의 삶에서 이 끔찍한 이틀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 사실대로 짚어 두겠다.

그루셴카가 한 시간 동안 그를 참되게,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여자는 그와 동시에 어떤 때는 정말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를 괴롭혔다. 요점은 그가 그 여자의 속셈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그렇다고 다정하게 굴거나

힘으로 밀어붙여 알아낼 수도 없었다. 그 여자는 절대로 넘어오지 않고 화를 내며 그에게서 아주 돌아서 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때 분명히 알았다. 그는 그때 그 여자 자신도 무언가와 싸우고 있고, 어떤 비상한 망설임 속에 있으며, 무언가를 결단하려 하면서도 끝내 결단하지 못한다고 무척 옳게 짐작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이 철렁하며, 그 여자가 어떤 순간에는 정열을 지닌 그를 그저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그 짐작에도 근거가 없지 않았다.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그루셴카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애태우는지는 그래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괴롭히는 물음 전체는 그에게는 사실 두 가지 규정으로만 모였다. "그, 미탸냐, 아니면 표도르 파블로비치냐." 덧붙여 여기서 굳은 사실 하나를 짚어 두어야겠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반드시 그루셴카에게 법적인 혼인을 청하리라고(이미 청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확신했고, 늙은 호색한이 3천 루블만으로 때우기를 바란다고는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미탸는 그루셴카와 그 여자의 성격을 알기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따금, 그루셴카의 온갖 괴로움과 온갖 망설임도 그저 그 여자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골라야 할지, 누가 자기에게 더 이로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장교", 곧 그루셴카의 삶에서 숙명적인 그 사람, 그 여자가 그토록 들뜨고 두려워하며 도착을 기다리던 그 사람이 곧 돌아온다는 데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그는 그 무렵 생각조차 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루셴카는 마지막 며칠 동안 그와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몹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옛 유혹자가 한 달 전에 그 여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그는 그 여자 자신에게서 들어 다 알고 있었고, 편지의 내용도 얼마쯤 알고 있었다. 그때, 어느 심술궂은 순간에 그루셴카가 그에게 이 편지를 보여 주었지만, 그 여자가 놀랍게도 그는 이 편지를 거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그저, 이 여자를 두고 친아버지와 벌이는 싸움의 온갖 추태와 공포에 짓눌린 나머지, 적어도 그때는 그 자신에게 그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일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섯 해 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약혼자를 그는 그저 믿지 않았고, 특히 그가 곧 오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게다가 미텐카에게 보여 준 "장교"의 이 첫 편지에서조차 이 새 연적이 온다는 이야기는 무척 막연했다. 편지는 몹시 흐릿하고 몹시 과장되었으며 감상으로만 가득했다. 짚어 둘 것은, 그루셴카가 그때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적힌 편지 마지막 몇 줄을 그에게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미텐카는 나중에, 그 순간 그루셴카 자신의 얼굴에서 시베리아에서 온 이 편지에 대한 어떤 저도 모르는 오만한 경멸 같은 것을 알아보았다고 떠올렸다. 그 뒤로 그루셴카는 이 새 연적과 그 뒤에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텐카에게 더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는 차츰차츰 장교를 아주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다가오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와의 마지막 충돌은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결판이 나야 한다는 것. 그는 영혼이 얼어붙는 듯한 심정으로 매 순간 그루셴카의 결정을 기다렸고, 그 결정이 마치 영감처럼 갑자기 내려지리라고 줄곧 믿었다. 그 여자가 갑자기 그에게 "나를 데려가요, 나는 영원히 당신 거예요" 하고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는 그 여자를 붙잡아 곧바로 세상 끝으로 데려갈 것이다. 오, 곧바로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데려갈 것이다. 세상 끝이 아니라면 어딘가 러시아 끝으로라도 데려가 거기서 그 여자와 혼인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서도 아무도 그들에 대해 아예 모르도록 그 여자와 남몰래(incognito) 살 것이다. 그때, 오, 그때는 곧바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 다른, 새로워진, 이제는 "덕스러운" 삶을 ("반드시, 반드시 덕스러운" 삶을) 그는 쉴 새 없이, 미친 듯이 꿈꾸었다. 그는 이 부활과 새로워짐을 목말라했다. 제 발로 빠져든 더러운 늪이 그를 너무나 짓눌렀고, 그는 이런 처지에 놓인 아주 많은 사람처럼 무엇보다 자리를 바꾸는 것을 믿었다. 이 사람들만 아니라면, 이런 사정만 아니라면, 이 저주받은 곳에서 날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흘러가리라! 그가 믿은 것은 이것이었고, 그가 애타게 그리워한 것도 이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첫 번째로, *행복하게* 풀릴 경우에만 그랬다. 다른 풀림도 있었다. 다른, 그러나 이미 무서운 결말도 떠올랐다. 그 여자가 갑자기 그에게 "가요, 나는 방금 표도르 파블로비치하고 결정했어요, 그 사람한테 시집갈 거예요, 당신은 필요 없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때는…… 그러나 그때는…… 하기야 미탸는 그때 어떻게 될지 몰랐다. 마지막 시간까지 몰랐다. 이 점은 그를 위해 변호해 두어야 한다. 뚜렷한 의도는 그에게 없었고, 범죄를 꾀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지켜보고, 엿보고, 괴로워했을 뿐, 그래도 제 운명의 첫 번째, 행복한 결말만을 준비했다. 다른 생각은 모두 쫓아 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기서 벌써 전혀 다른 괴로움이 시작되었다. 전혀 새롭고 엉뚱한, 그러나 역시 숙명적이고 풀 수 없는 사정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다름 아니라, 그 여자가 그에게 "나는 당신 거예요, 나를 데려가요" 하고 말할 경우, 그는 그 여자를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그럴 밑천이, 돈이 그에게 어디 있는가? 그토록 여러 해 동안 끊긴 적 없던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던져 주는 돈에서 나오던 수입이 하필 이때 모두 바닥이 났다. 물론 그루셴카에게는 돈이 있었지만, 이 점에서 미탸에게는 갑자기 무서운 자존심이 드러났다. 그는 그 여자를 제 힘으로 데려가 그 여자의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

여자의 돈을 제가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 생각만 해도 괴로울 만큼 역겨워 괴로워했다. 나는 여기서 이 사실을 길게 늘어놓지도, 분석하지도 않겠다. 다만 짚어 둔다. 그때 그의 마음은 그렇게 생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마치 저도 모르게, 그가 도둑질하듯 제 것으로 삼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돈에 대한 남모르는 양심의 괴로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한 여자 앞에서 비열한 놈인데, 다른 여자 앞에서도 곧바로 또 비열한 놈이 되겠지." 나중에 그가 스스로 털어놓았듯이 그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루셴카도 알게 되면 그런 비열한 놈은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밑천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 숙명적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오로지 돈이 모자라서, 오, 치욕이여!"

미리 앞질러 말해 두겠다. 실은 그가 어쩌면 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았고, 어쩌면 그 돈이 어디 놓여 있는지까지 알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아도 말해 두겠다. 어딘가 놓여 있는 이 밑천을 가지려면,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으려면*, 먼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3천 루블을 돌려주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소매치기고 비열한 놈이야, 그런데 나는 새 삶을 비열한 놈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하고 미탸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온 세상을 뒤엎어서라도 이 3천 루블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반드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심이 마지막으로 굳어진 것은, 말하자면 그의 삶의 맨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이었다. 바로 이틀 전 저녁, 그루셴카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모욕한 뒤에 길에서 알료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부터였다. 그때 미탸는 알료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비열한 놈이라고 털어놓으며 "그것으로 그 여자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 말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전하라고 했다. 바로 그때, 그날 밤 동생과 헤어진 뒤 그는 미친 듯한 상태에서 차라리 "누구를 죽이고 빼앗더라도 카탸한테 빚은 갚는 게" 낫다고 느꼈다. "차라리 내가 죽임당하고 빼앗긴 그 사람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살인자에 도둑이 되어 시베리아로 가는 게 낫지, 카탸가 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돈을 훔치고, 바로 그 돈을 들고 그루셴카하고 달아나 덕스러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보다는! 그것만은 못 해!" 미탸는 이를 갈며 그렇게 내뱉었고, 정말로 이따금 제가 뇌염으로 끝나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싸우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런 결심을 했으니 그에게는 이제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더구나 그 같은 빈털터리가? 그런데도 그는 그동안 끝까지, 이 3천 루블을 구하리라고, 그 돈이 어떻게든 저절로, 하다못해 하늘에서라도 날아오리라고 바랐다. 그러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처럼 평생 물려받은 돈을 공짜로 쓰고 날릴 줄만 알 뿐,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는 아무 개념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저께 알료샤와 헤어진 뒤 곧바로 그의 머릿속에는 더없이 엉뚱한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그의 생각을 모두 뒤엉클어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는 더없이 터무니없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 어쩌면 바로 이런 처지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가능하고 엉뚱한 일이 가장 먼저 가장 그럴듯한 일로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는 갑자기 그루셴카를 돌보는 상인 삼소노프를 찾아가 "계획" 하나를 내놓고, 이 "계획"을 담보로 찾던 돈 전부를 단번에 얻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제 계획이 장사 쪽으로 보아 틀림없다는 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다만 삼소노프가 장사

쪽으로만 보지 않으려 할 때 그 자신이 제 엉뚱한 짓을 어떻게 볼지만 의심했다. 미탸는 이 상인의 얼굴은 알았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그와 말을 나눠 본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의 안에는, 그것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숨이 간당간당한 이 늙은 방탕아가 그루셴카가 어떻게든 제 삶을 정직하게 꾸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집간다면 지금은 어쩌면 전혀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그러기를 바라고, 기회만 생기면 스스로 도와주기까지 하리라고 믿었다. 무슨 소문을 들어서인지, 그루셴카가 한 무슨 말 때문인지, 그는 노인이 어쩌면 그루셴카의 짝으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보다 자기를 더 낫게 여기리라고도 결론을 내렸다. 우리 이야기를 읽는 많은 독자에게는 어쩌면 이런 도움을 셈에 넣고, 말하자면 제 약혼녀를 그 여자를 돌보는 사람의 손에서 받아 내려는 이 생각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쪽에서 너무 거칠고 비위 좋은 짓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다만 그루셴카의 과거가 미탸에게는 이미 완전히 지나간 일로 여겨졌다는 것만 짚어 둘 수 있다. 그는 그 과거를 끝없는 연민으로 바라보았고, 그루셴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시집오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곧바로 전혀 새로운 그루셴카가 시작되고, 그와 함께 전혀 새로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이제는 아무 악덕 없이 오직 미덕만 지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시작되리라고,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제 삶을 이제는 전혀 새롭게 시작하리라고 제 정열의 온 불길로 결론을 내렸다. 쿠지마 삼소노프로 말하자면, 그는 이 노인을 그루셴카의 무너져 버린 그 옛 과거 속에서 그 여자의 삶에 숙명적이었던 사람, 그러나 그 여자가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요점인데, 역시 이미 "지나가 버린", 끝나 버린, 그래서 이제는 아예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 게다가 미탸는 이제 그를 사람으로조차 여길 수 없었다. 그가 병든 폐인일 뿐이고,

그루셴카와 맺은 관계도 말하자면 아버지 같은 것일 뿐 예전과 같은 바탕이 전혀 아니며, 그렇게 된 지 벌써 오래, 벌써 거의 한 해가 되었다는 것은 읍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기에는 미탸의 순진함도 많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온갖 악덕에도 불구하고 무척 순진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진함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 저세상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늙은 쿠지마가 그루셴카와 지낸 제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 그 여자에게는 이미 해롭지 않게 된 이 노인보다 더 충실한 보호자이자 친구가 없다고 진지하게 확신했다.

들판에서 알료샤와 이야기를 나눈 바로 이튿날, 그 이야기 뒤로 거의 밤을 새운 미탸는 아침 열 시쯤 삼소노프의 집에 나타나 저를 알려 달라고 했다. 이 집은 낡고 음침하고 무척 넓은 2층 집으로, 마당에 딸린 건물들과 곁채가 있었다. 아래층에는 삼소노프의 결혼한 두 아들이 제 식구들과 함께 살았고, 그의 늙은 누이와 시집가지 않은 딸 하나도 살았다. 곁채에는 그의 점원 둘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식구가 많았다. 자식들도 점원들도 제 거처에서 비좁게 지냈지만, 집의 위층은 노인 혼자 차지하고, 그를 돌보는 딸조차 위층에 살게 하지 않았다. 딸은 정해진 시각에,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그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오래된 숨찬 병에도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야 했다. 이 "위층"은 상인들의 옛 풍습대로 가구를 들인 크고 화려한 방 여럿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벽을 따라 투박한 마호가니 안락의자와 의자가 길고 따분하게 늘어서 있었고, 덮개를 씌운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으며, 창과 창 사이 벽에는 음울한 거울이 걸려 있었다. 이 방들은 모두 텅 빈 채 아무도 살지 않았다. 병든 노인은 방 하나에만, 멀리 떨어진 작은 침실 하나에만 웅크리고 지냈고, 그곳에서 머리에 수건을 쓴 늙은 하녀와, 현관방 궤짝 위에서 지내는 "젊은 놈" 하나가 그의 시중을 들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부어오른 다리 때문에 거의 걷지 못했고, 가끔 가죽 안락의자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노파가 그의 팔을 부축해 방 안을 한두 바퀴 돌게 했다. 그는 이 노파에게조차 엄하고 말이 없었다. "대위"가 왔다고 알리자 그는 곧바로 돌려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미탸는 고집을 부려 다시 한 번 저를 알렸다. 쿠지마 쿠지미치는 젊은 놈에게 자세히 캐물었다. 생김새는 어떠냐, 술에 취하지는 않았느냐? 행패를 부리지는 않느냐? 그러자 "멀쩡합니다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노인은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모든 일을 내다보고 일부러 이럴 때를 대비해 종이와 연필을 챙겨 온 미탸가 종잇조각에 또박또박 한 줄을 적었다.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와 밀접하게 관련된 더없이 긴요한 일로" 그러고는 그것을 노인에게 보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젊은 놈에게 손님을 홀로 안내하라고 이르고, 노파는 아래층으로 보내 작은아들에게 당장 위층으로 올라오라고 했다. 키가 2아르신 12베르쇼크나 되고 힘이 엄청나며, 얼굴을 밀고 독일 사람처럼 옷을 입는(삼소노프 자신은 카프탄을 입고 수염을 길렀다) 이 작은아들은 곧바로 말없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었다. 아버지가 이 장정을 부른 것은 대위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그는 결코 겁 많은 성격이 아니었다) 그저 혹시 몰라서, 무엇보다 증인을 두려는 뜻이었다. 아들이 팔을 부축하고 젊은 놈이 따르는 가운데 그는 마침내 홀로 미끄러지듯 나왔다. 꽤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미탸가 기다리던 이 홀은 거대하고 음울한, 영혼을 따분함으로 죽여 버리는 방이었다. 창이 두 층으로 나 있고, 위층 회랑이 있고, 벽은 "대리석처럼" 칠했으며, 덮개를 씌운 커다란 크리스털 샹들리에 세 개가 달려 있었다. 미탸는 입구 문 곁 작은 의자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조바심치며 제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이 미탸의 의자에서 10사젠쯤 떨어진 맞은편

입구에 나타나자 미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군인다운 단단한 걸음으로, 한 걸음이 1아르신씩 되는 걸음으로 그를 맞으러 나아갔다. 미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단추를 채운 프록코트에 둥근 모자를 손에 들고 검은 장갑을 꼈는데, 사흘쯤 전 수도원 장로의 처소에서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형제들이 모인 가족 모임에 갔을 때와 꼭 같았다. 노인은 위엄 있고 엄하게 서서 그를 기다렸고, 미탸는 자기가 다가가는 동안 노인이 자기를 낱낱이 훑어보았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다. 미탸는 근래 몹시 부어오른 쿠지마 쿠지미치의 얼굴에도 크게 놀랐다. 그러잖아도 두툼하던 아랫입술이 이제는 어쩐지 축 늘어진 납작한 빵처럼 보였다. 그는 위엄 있게, 말없이 손님에게 인사하고 소파 옆 안락의자를 가리키고는, 아들의 팔에 기대 아프게 끙끙거리며 천천히 미탸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고통스러운 안간힘을 보자 미탸는 곧바로 마음속에서, 이토록 위엄 있는 사람을 제가 성가시게 했다는 것에 대한 뉘우침과,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한 섬세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리, 저한테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마침내 자리를 잡고 앉은 노인이 천천히, 또박또박, 엄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다.

미탸는 흠칫 놀라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다. 그러고는 곧바로 크게, 빠르게, 신경질적으로, 손짓을 섞어 가며 단호하고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벼랑 끝에 이르러 파멸한 사람이 마지막 출구를 찾고 있으며, 그것이 안 되면 당장이라도 물에 뛰어들 판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다. 삼소노프 노인은 아마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우상처럼 변함없이 차가웠지만.

"더없이 고귀하신 쿠지마 쿠지미치께서는 아마 제가 제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와 벌이는 다툼에 대해 벌써 여러 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은 제 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을 제게서

빼앗았지요…… 온 읍이 벌써 그 이야기로 떠들썩하니까요…… 여기서는 다들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로 떠들어 대니까요…… 게다가 그루셴카한테서도 들으셨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한테서요…… 제가 무척 존경하고 무척 받드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한테서요……" 미탸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첫마디부터 말이 끊겼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말을 모두 글자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지만 적어 두겠다.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미탸가 벌써 석 달 전에 현청 소재지의 변호사와 고의로(그는 바로 "일부러"가 아니라 "고의로"라고 말했다) 상의했다는 것이다. "이름난 변호사입니다, 쿠지마 쿠지미치, 파벨 파블로비치 코르네플로도프라고, 아마 들어 보셨겠지요? 이마가 넓고, 거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두뇌입니다…… 나리도 알더군요…… 아주 좋게 말하더군요……" 미탸는 또 한 번 말이 끊겼다. 그러나 말이 끊겨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곧바로 그 끊긴 자리를 건너뛰어 점점 더 앞으로 내달렸다. 바로 그 코르네플로도프가 자세히 묻고 미탸가 내놓을 수 있었던 서류들을 살펴보고 나서(서류에 대해서는 미탸가 흐릿하게, 이 대목에서 특히 서둘러 말했다), 미탸가 어머니 쪽으로 물려받았어야 할 체르마시냐 마을을 두고 정말로 소송을 걸어 그 추한 늙은이를 기겁하게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모든 문이 다 잠겨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라는 건 어디로 기어들어야 할지 알거든요." 한마디로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서 6천 루블쯤, 아니 7천 루블까지 더 받아 낼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체르마시냐는 아무리 못해도 2만 5천 루블은 나가니까. 다시 말해 틀림없이 2만 8천 루블, "3만 루블, 3만 루블입니다, 쿠지마 쿠지미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잔인한 인간한테서 1만 7천 루블도 다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탸는 그때 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법이라는 것을 다룰 줄 몰라서. 그런데 이리 와 보니 맞소송에 걸려

얼어붙고 말았다고 했다(여기서 미탸는 다시 갈피를 잃고 다시 홱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더없이 고귀하신 쿠지마 쿠지미치께서 그 악당에 대한 제 권리를 모두 가져가시고, 저에게는 3천 루블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손해 보실 리가 없습니다, 이건 명예를,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3천 루블 대신 6천이나 7천 루블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바로 오늘이라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공증인한테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한마디로 저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서류는 모두 내드리고, 무엇이든 서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서를 당장 꾸밀 수 있을 테고,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아침에라도…… 제게 그 3천 루블을 내주신다면…… 이 작은 읍에서 나리만 한 자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구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가련한 머리를 더없이 고귀한 일을 위해, 더없이 숭고한 일을 위해,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구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나리가 너무나 잘 아시고 아버지처럼 보살피시는 어떤 분께 더없이 고귀한 감정을 품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처럼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여기서는 세 사람이 이마를 맞부딪쳤습니다. 운명이란 무시무시한 괴물이니까요, 쿠지마 쿠지미치! 현실주의입니다, 쿠지마 쿠지미치, 현실주의! 그런데 나리는 벌써 오래전에 빼 드려야 하니, 이마 둘이 남습니다. 제 표현이 어쩌면 서툰지도 모르지만, 저는 문필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마 하나는 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악당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고르십시오. 저입니까, 악당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나리 손에 달렸습니다. 세 운명에 두 제비가……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습니다만, 알아들으시겠지요…… 존경스러운 나리의 눈을 보니 알아들으셨군요…… 만약 알아듣지 못하셨다면, 오늘 당장 물에 뛰어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탸는 이 "이상입니다"로 제 터무니없는 말을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리석은 제안에 대한 대답을 기다렸다.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는 갑자기, 절망적으로, 모든 것이 터져 버렸다는 것을, 무엇보다 제가 끔찍한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일이야, 여기 오는 동안에는 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보니 헛소리잖아!" 갑자기 그의 절망한 머릿속을 스쳐 갔다. 그가 말하는 내내 노인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얼음 같은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쿠지마 쿠지미치는 기다리게 하며 그를 잠깐 세워 두더니, 마침내 더없이 단호하고 냉정한 투로 내뱉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요."

미탸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쿠지마 쿠지미치." 그가 창백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요……"

미탸는 줄곧 선 채로 꼼짝하지 않고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문득 노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흠칫했다.

"보십시오, 나리, 저희한테는 그런 일이 손에 맞지 않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재판이 벌어지고 변호사들이 오가고, 그야말로 골칫거리지요! 그렇지만 괜찮으시다면, 여기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 보시지요……"

"맙소사, 그게 누굽니까!…… 저를 되살려 주시는군요, 쿠지마 쿠지미치." 미탸가 갑자기 재잘거리기 시작했다.

"이 고장 사람은 아니고, 지금은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농민 출신으로 목재를 거래하는데, 별명이 랴가비지요. 벌써 한 해째 표도르 파블로비치하고 체르마시냐에 있는 나리네 그 숲을 두고 흥정을 하는데, 값이 맞지 않는답니다. 아마 들으셨겠지요. 지금 마침 또 와서

일린스코예 신부님 댁에 묵고 있습니다. 볼로비야 역참에서 12베르스타쯤 되던가, 일린스코예 마을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일로, 그러니까 그 숲 일로 저한테도 편지를 보내 조언을 구했지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몸소 그 사람한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리가 표도르 파블로비치보다 먼저 가서 랴가비한테 지금 저한테 하신 바로 그 이야기를 내놓으신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천재적인 생각입니다!" 미탸가 열광하며 말을 가로챘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한테 안성맞춤이에요! 그 사람은 흥정을 하는데 값을 비싸게 부르니, 여기 그 사람한테 바로 소유권 문서가 있는 거지요, 하하하!" 그러고는 미탸가 갑자기 짤막하고 나무토막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나 뜻밖이어서 삼소노프조차 고개를 움찔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쿠지마 쿠지미치." 미탸가 들끓었다.

"천만에요." 삼소노프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지만 모르실 겁니다, 나리가 저를 구해 주셨어요. 오, 예감이 저를 나리께 이끌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신부한테!"

"감사하실 것 없습니다요."

"서둘러 날아가겠습니다. 나리의 건강을 너무 축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쿠지마 쿠지미치, 러-러시아 사람이!"

"그-렇습죠."

미탸는 노인의 손을 잡고 흔들려 했지만, 노인의 눈에 무언가 악의 어린 빛이 스쳤다. 미탸는 손을 거두었지만 곧바로 제 의심 많은 성미를 나무랐다. "이 노인이 지쳐서 그래……" 그의 머릿속을 스쳐 갔다.

"그 여자를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예요, 쿠지마 쿠지미치! 이게 그 여자를 위해서라는 걸 아시겠지요!" 그는 갑자기 홀이 떠나가라 소리치고 인사를 하더니, 홱 돌아서서 아까와 같은 빠른 걸음으로, 한

걸음이 1아르신씩 되는 걸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구로 내달렸다. 그는 환희로 떨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수호천사가 구해 주었어." 그의 머릿속에 휘몰아쳤다. "이 노인 같은 장사꾼이(더없이 고귀한 노인이야, 그리고 그 풍채라니!) 이 길을 일러 주었다면…… 그렇다면 물론 이 길은 이긴 거야. 당장 날아가야지.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오고, 밤에 돌아오더라도, 일은 이긴 거야. 설마 노인이 나를 비웃었을 리는 없겠지?" 미탸는 제 셋집으로 걸어가며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물론 그의 머리에는 달리 떠오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을 아는 사람의(그것도 그런 장사꾼의) 쓸모 있는 조언, 일을 잘 알고 그랴가비(이상한 성이야!)를 잘 알고 하는 조언이거나, 아니면, 아니면 노인이 그를 비웃은 것이거나! 아! 바로 이 마지막 생각만이 옳았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미 파국이 모두 끝난 뒤에, 삼소노프 노인은 그때 "대위"를 놀려 먹었다고 웃으며 스스로 털어놓았다. 그는 악의 차고 차갑고 비웃기 좋아하는 인간이었고, 게다가 병적인 반감을 품곤 했다. 대위의 들뜬 모습 때문이었는지, 이 "낭비꾼이자 탕아"가 저 삼소노프가 그의 "계획" 같은 엉뚱한 짓에 넘어갈 수 있다고 믿은 어리석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망나니"가 그루셴카의 이름을 걸고 무슨 엉뚱한 짓을 들고 돈을 얻으러 왔다는 데서 생긴 그루셴카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는지, 그때 무엇이 노인을 움직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미탸가 그의 앞에 서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제가 끝장났다고 정신없이 외치던 그 순간, 그 순간 노인은 끝없는 악의를 품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놀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미탸가 나가자 쿠지마 쿠지미치는 악의로 창백해져서 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그 누더기 같은 놈은 그림자도 얼씬 못 하게 하고 마당에도 들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는 무엇으로 을러대는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노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 온 아들조차 겁에 질려 흠칫 떨었다. 한 시간이 꼬박 지나서도 노인은 악의로 온몸을 떨었고, 저녁 무렵에는 병이 나서 "의원"을 부르러 보냈다.

제2장 랴가비

그러니 "말을 달려야" 했는데, 말을 빌릴 돈은 그래도 1코페이카도 없었다. 그러니까 20코페이카짜리 두 닢이 있었고, 그게 전부였다. 그 많은 세월 누리던 예전의 넉넉함에서 남은 것이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집에는 오래전에 멈춘 낡은 은시계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고 장터의 작은 가게에 자리 잡은 유대인 시계공에게 가져갔다. 시계공은 그것을 6루블에 쳐주었다. "이것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미탸는 신이 나서 외치고는(그는 줄곧 신이 나 있었다), 제 6루블을 움켜쥐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서 그는 집주인들에게 3루블을 빌려 돈을 채웠는데, 집주인들은 그를 그만큼 좋아했기에 마지막 남은 제 돈을 내주면서도 기꺼이 빌려주었다. 미탸는 들뜬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제 운명이 결정되려 한다고 털어놓았고, 물론 몹시 서두르며, 방금 삼소노프에게 내놓은 제 "계획"을 거의 다, 이어서 삼소노프의 결정과 제 앞날의 희망 따위, 따위를 이야기했다. 집주인들은 전에도 그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조금도 거만하지 않은 나리, *우리* 사람처럼 여겼다. 이렇게 9루블을 모아 미탸는 볼로비야 역참까지 갈 역마를 부르러 보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있기 전날 정오에 미탸에게는 1코페이카도 없었고, 그는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팔고 집주인들에게 3루블을 빌렸으며, 이 모든 일이 증인들 앞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에 남고 뚜렷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미리 짚어 두는데,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볼로비야 역참으로 말을 달리면서 미탸는 마침내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매듭을 풀리라는 기쁜 예감으로 빛났지만, 그런데도 두려움으로 떨기도 했다. 그가 없는 동안 그루셴카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필 오늘 마침내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가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래서 그는 그 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났고, 집주인들에게는 어디서 누가 그를 찾으러 오더라도 그가 어디 갔는지 절대로 알려 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반드시, 반드시 오늘 저녁까지는 돌아와야 해." 그는 짐수레 위에서 흔들리며 되뇌었다. "그리고 그 랴가비라는 자를 어쩌면 이리로 끌고 와야 할지도 몰라…… 이 계약을 맺으려면……" 미탸는 영혼이 얼어붙는 듯한 심정으로 이렇게 꿈꾸었지만, 아아, 그의 꿈은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운명이 결코 아니었다.

첫째로, 그는 볼로비야 역참에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가 늦어졌다. 시골길은 12베르스타가 아니라 18베르스타였다. 둘째로, 그는 일린스코예 신부를 집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신부는 이웃 마을에 가고 없었다. 미탸가 벌써 지칠 대로 지친 그 말들을 그대로 몰고 그 이웃 마을로 가서 신부를 찾아냈을 때는 벌써 거의 밤이 되어 있었다. 겁 많고 상냥해 보이는 작은 몸집의 신부는 곧바로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랴가비라는 자는 처음에는 자기 집에 묵었지만 지금은 수호이 포숄로크에 있으며, 거기서도 숲을 흥정하고 있어서 오늘 밤은 거기 산지기의 오두막에서 묵는다고 했다. 미탸가 지금 당장 랴가비에게 데려다 달라고, "그것으로 말하자면 저를 구해 달라고" 거듭 간청하자, 신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생긴 듯 수호이 포숄로크까지 그를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금 넘는다" 해도 고작 1베르스타쯤이니 "걸어서" 가자고 권했다. 미탸는 물론 동의하고, 한 걸음이 1아르신씩 되는 걸음으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기에, 가엾은 신부는 거의 뛰다시피 그를 따라갔다. 그는 아직 늙지 않은, 무척

조심스러운 작은 사람이었다. 미탸는 그에게도 곧바로 제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뜨겁게, 신경질적으로 랴가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가는 내내 지껄였다. 신부는 주의 깊게 들었지만 조언은 거의 하지 않았다. 미탸의 물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요" 하고 얼버무렸다. 미탸가 유산을 두고 아버지와 벌이는 다툼 이야기를 꺼내자 신부는 겁을 먹기까지 했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무언가 기대어 사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부는 미탸가 왜 장사하는 그 농민 고르스트킨을 랴가비라고 부르는지 놀라서 묻고는, 그자가 정말로 랴가비이기는 하지만 랴가비가 아니라고, 그 이름에 몹시 모욕을 느끼니 반드시 고르스트킨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친절하게 일러 주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요." 신부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미탸는 조금, 그리고 얼른 놀라고는 삼소노프 자신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 사정을 듣자 신부는 곧바로 이야기를 덮어 버렸다. 하기야 그때 바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 제 짐작을 일러 주었더라면 잘했을 것이다. 삼소노프 자신이 랴가비라고 부르며 그를 이 농군에게 보냈다면, 무슨 까닭에서인지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여기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미탸에게는 "그런 사소한 일"에 머물 겨를이 없었다. 그는 서둘러 성큼성큼 걸었고, 수호이 포숄로크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걸어온 길이 1베르스타도 1베르스타 반도 아니라 틀림없이 3베르스타였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들은 오두막에 들어갔다. 신부와 아는 사이인 산지기는 오두막 한쪽 칸에 살았고, 현관방 건너 다른 쪽 깨끗한 칸에는 고르스트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이 깨끗한 칸으로 들어가 수지 양초를 켰다. 오두막은 몹시 뜨겁게 불을 때 놓았고, 소나무 탁자 위에는 불 꺼진 사모바르가 놓여 있었고, 그 곁에 찻잔들을 담은

쟁반, 바닥까지 비운 럼주 병 하나, 다 비우지는 않은 보드카 큰 병 하나, 먹다 남은 밀빵 부스러기가 있었다. 정작 나그네는 머리 밑에 베개 대신 겉옷을 뭉쳐 괴고 긴 의자 위에 큰대자로 누워 육중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미탸는 어쩔 줄 몰라 멈춰 섰다. "물론 깨워야지. 내 일은 너무 중요해. 나는 그렇게 서둘러 왔고, 오늘 안으로 돌아가려고 서두르고 있어." 미탸는 안절부절못했다. 그러나 신부와 산지기는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잠자코 서 있었다. 미탸는 다가가 손수 깨우기 시작했다. 힘차게 깨웠지만 잠든 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이자는 취했어." 미탸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하지, 주여,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고는 갑자기 무섭게 조바심치며 잠든 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흔들고, 일으켜 긴 의자에 앉히기 시작했지만, 무척 오래 애를 쓴 끝에 겨우 얻어 낸 것은 그자가 어처구니없게 웅얼거리며, 분명하지는 않아도 거칠게 욕을 해 대기 시작한 것뿐이었다.

"아니, 차라리 좀 기다리시지요." 마침내 신부가 말했다. "보아하니 이 사람은 말이 통할 형편이 아니니까요."

"온종일 마셨습니다요." 산지기가 대꾸했다.

"맙소사!" 미탸가 소리쳤다. "제가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아시기만 한다면!"

"아니, 아무래도 아침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신부가 되풀이했다.

"아침까지요?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절망한 나머지 다시 술주정뱅이를 깨우러 달려들 뻔했지만, 애써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곧 그만두었다. 신부는 잠자코 있었고, 잠이 덜 깬 산지기는 언짢은 얼굴이었다.

"현실주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벌여 놓는지!" 미탸가 완전히 절망해서 말했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신부는 이

틈을 타서 무척 사리에 맞게 설명했다. 설령 잠든 자를 깨우는 데 성공한다 해도 취해 있으니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나리의 일은 중요하니 아침까지 미뤄 두는 편이 더 확실하겠지요……" 미탸는 두 팔을 벌리며 동의했다.

"신부님, 저는 여기서 촛불을 켜 놓고 남아서 순간을 붙잡겠습니다. 깨어나면 그때 시작하지요…… 촛값은 자네한테 치르겠네." 그는 산지기를 돌아보았다. "묵는 값도 치르겠네,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를 기억하게 될 걸세. 그런데 신부님, 신부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디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요. 이 사람 암말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는 산지기를 가리켰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뜻하신 대로 흡족하게 이루시기를 빕니다요."

그렇게 정해졌다. 신부는 마침내 떨쳐 버린 것을 기뻐하며 암말을 타고 떠났지만, 그래도 어수선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 미리 은인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이 신기한 일을 알려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혹시라도 아시게 되어 노하시면 은혜를 끊으실 테니". 산지기는 몸을 긁적이고는 말없이 제 칸으로 가 버렸고, 미탸는 긴 의자에 앉아 그가 표현한 대로 순간을 붙잡기 시작했다. 깊은 우수가 무거운 안개처럼 그의 영혼을 감쌌다. 깊고 무서운 우수였다! 그는 앉아서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다. 초는 심지가 타들어 갔고,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고, 불을 땐 방은 견딜 수 없이 숨이 막혀 왔다. 그의 눈앞에 갑자기 정원이, 정원 뒤의 샛길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집에서 문이 은밀히 열리고, 그 문으로 그루셴카가 뛰어 들어갔다…… 그는 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극이야!" 그는 이를 갈며 말하고는 기계처럼 잠든 자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깡마른, 아직 늙지 않은

농군으로, 얼굴은 꽤 길쭉했고, 머리는 아마빛 곱슬이었으며, 불그스름하고 가늘고 긴 턱수염을 길렀고, 무명 루바시카에 검은 조끼를 입었는데, 조끼 주머니에서 은시계 줄이 비죽 나와 있었다. 미탸는 무서운 증오를 품고 이 낯짝을 살펴보았고, 어째서인지 그자가 곱슬머리라는 것이 특히 미웠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이 분한 것은, 그 미탸가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토록 많은 것을 내팽개치고 온통 지친 채 미룰 수 없는 일을 안고 그자 곁에 서 있는데, 이 게으름뱅이는, "지금 내 운명을 송두리째 쥐고 있는 이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코를 골고 있다"는 점이었다. "오, 운명의 아이러니여!" 미탸는 외치고는 갑자기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다시 취한 농군을 깨우러 달려들었다. 그는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그자를 깨웠다. 잡아 뜯고, 밀치고, 때리기까지 했지만, 5분쯤 씨름하고도 또다시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힘없는 절망에 빠져 제 긴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어리석어, 어리석어!" 미탸가 외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얼마나 파렴치한가!" 그는 어째서인지 갑자기 덧붙였다. 머리가 무섭게 아프기 시작했다. "그만둘까? 아주 떠나 버릴까?"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아니, 아침까지는 있자. 일부러라도 남을 거야, 일부러!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뭐 하러 왔겠어? 게다가 타고 갈 것도 없으니 이제 여기서 어떻게 떠나, 오, 무의미한 짓이야!"

그러나 머리는 점점 더 아파 왔다. 그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어떻게 졸기 시작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갑자기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보아하니 두 시간이나 그 이상 잔 것 같았다. 그는 소리를 지를 만큼 견딜 수 없는 두통 때문에 정신을 차렸다. 관자놀이가 쿵쿵 울리고 정수리가 아팠고, 정신을 차리고도 그는 오랫동안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헤아리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불을 땐 방에 무서운 탄내가 가득 찼고,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취한 농군은 여전히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고, 초는 녹아내려 꺼지려 하고 있었다. 미탸는 소리를 지르고 비틀거리며 현관방을 건너 산지기의 칸으로 달려갔다. 산지기는 곧 깨어났지만, 다른 칸에 탄내가 찼다는 말을 듣고는 손을 쓰러 가기는 했어도 이 일을 이상할 만큼 무심하게 받아들였고, 미탸는 그것이 분하고 놀라웠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죽었어, 죽었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탸가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외쳤다.

문을 열어젖히고, 창문을 열고, 굴뚝 마개를 열었고, 미탸는 현관방에서 물 양동이를 끌어와 먼저 제 머리를 적시고, 이어서 무슨 헝겊을 찾아내 물에 담갔다가 랴가비의 머리에 얹었다. 그런데 산지기는 이 모든 일을 줄곧 어쩐지 깔보듯 대했고, 창문을 열고는 "이만하면 됐어" 하고 시무룩하게 내뱉더니, 미탸에게 불 켠 쇠 등을 남겨 두고 다시 자러 가 버렸다. 미탸는 탄내를 마신 술주정뱅이를 붙들고 반 시간쯤 씨름하며 줄곧 그의 머리를 적셔 주었다. 그는 정말로 밤을 새울 작정이었지만, 지칠 대로 지쳐서 숨을 돌리려고 어쩌다 잠깐 앉았다가 순식간에 눈을 감았고, 이어서 곧바로 저도 모르게 긴 의자에 몸을 뻗고 죽은 듯이 잠들었다.

그는 지독하게 늦게 깨어났다. 벌써 아침 아홉 시쯤 되었을 것이다. 해가 오두막의 작은 창 두 개로 환히 비쳐 들었다. 어제의 곱슬머리 농군은 벌써 짧은 카프탄을 걸치고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새 사모바르와 새 보드카 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의 묵은 병은 벌써 바닥이 났고, 새 병도 절반 넘게 비어 있었다. 미탸는 벌떡 일어났고, 이 저주받을 농군이 또 취했다는 것을, 깊이, 돌이킬 수 없이 취했다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그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잠깐 그자를 바라보았다. 농군은 말없이 교활하게, 어떤 모욕적인 침착함으로,

미탸가 보기에는 경멸 섞인 거만함까지 띠고 그를 흘끔흘끔 보았다. 미탸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실례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마 저쪽 칸의 이곳 산지기한테서 들으셨겠지요. 저는 중위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입니다. 당신이 숲을 흥정하고 계신 카라마조프 노인의 아들이지요……"

"거짓말이야!" 갑자기 농군이 단호하고 침착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거짓말이라니요?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아시지요?"

"네 표도르 파블로비치 따위는 아무도 몰라." 농군이 어쩐지 혀를 무겁게 굴리며 말했다.

"숲을, 숲을 그 사람한테서 흥정하고 계시잖습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일린스코예의 파벨 신부님이 저를 여기 데려다주셨습니다…… 당신이 삼소노프한테 편지를 쓰셔서, 그분이 저를 당신한테 보냈습니다……" 미탸가 숨을 헐떡였다.

"거, 거짓말이야!" 랴가비가 다시 또박또박 말했다.

미탸는 다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쩌면 술기운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결국은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는 있으시잖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칠장이야!"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는 카라마조프입니다, 드미트리 카라마조프, 당신께 제안이 있습니다…… 이로운 제안이…… 무척 이로운…… 바로 숲에 관해서요."

농군은 거드름을 피우며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아니, 너는 도급을 맡았다가 비열한 놈이 됐어. 너는 비열한 놈이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 아신 겁니다!" 미탸는 절망해서 두 손을 비틀었다. 농군은 줄곧 턱수염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교활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 너 이거나 나한테 대 봐. 더러운 짓을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을 나한테 대 보라고, 알아들어! 너는 비열한 놈이야, 그거 알아?"

미탸는 침울하게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나중에 스스로 표현한 대로 "무언가가 이마를 탁 친" 것 같았다. 한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다. "등불이 켜지고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넋을 잃고 서서, 그래도 영리한 인간인 자기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에 넘어가, 이런 모험에 홀딱 빠져서 거의 꼬박 하루 동안 이 모든 짓을 계속하며 이 랴가비를 붙들고 씨름하고 그의 머리를 적셔 주었는지 어리둥절했다…… "그래, 이자는 취했어, 악마가 보일 만큼 취했고, 앞으로 한 주는 더 계속 퍼마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겠어? 만약 삼소노프가 일부러 나를 여기 보낸 거라면? 만약 그 여자가…… 오, 하느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농군은 앉아서 그를 바라보며 히죽거렸다. 다른 때였다면 미탸는 어쩌면 화가 나서 이 바보를 죽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온통 맥이 빠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긴 의자로 다가가 제 외투를 집어 말없이 입고는 오두막을 나왔다. 다른 칸에서도 산지기를 찾지 못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잔돈으로 50코페이카를 꺼내 하룻밤 묵은 값, 촛값, 폐를 끼친 값으로 탁자 위에 놓았다. 오두막을 나서 보니 둘레에는 숲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오두막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왼쪽으로 돌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되는대로 걸었다. 어젯밤 신부와 함께 이리로 서둘러 올 때 길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에는 누구에게도, 삼소노프에게조차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좁은 숲길을 아무 생각

없이, 넋을 잃은 채, "잃어버린 생각"을 품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다. 영혼도 몸도 갑자기 그만큼 힘이 빠져서, 마주 오는 어린아이라도 그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든 숲을 빠져나왔다. 갑자기 눈앞에 가을걷이를 끝낸 헐벗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다.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둘레가 얼마나 죽어 있는가!" 그는 계속 앞으로, 앞으로 걸으며 되뇌었다.

그를 구한 것은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다. 마부 하나가 시골길로 어떤 늙은 상인을 태우고 가고 있었다. 나란히 되었을 때 미탸가 길을 물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도 볼로비야로 가는 길이었다. 흥정을 하고 나서 그들은 미탸를 길동무로 태워 주었다. 세 시간쯤 지나 그들은 닿았다. 볼로비야 역참에서 미탸는 곧바로 읍으로 갈 역마를 부탁했고, 그러고 나서야 갑자기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을 매는 동안 사람들이 그에게 달걀 부침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것을 순식간에 다 먹고, 큼직한 빵 한 덩어리를 다 먹고, 마침 있던 소시지를 먹고, 보드카를 세 잔 마셨다. 기운을 차리자 그는 힘이 났고 그의 영혼 속도 다시 맑아졌다. 그는 길을 날듯이 달리며 마부를 재촉하다가, 오늘 저녁까지 "그 저주받을 돈"을 구할 새로운, 이번에는 "틀림없는" 계획을 갑자기 세웠다.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 이 보잘것없는 3천 루블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망가지다니!" 그는 경멸하듯 외쳤다. "오늘 당장 결판을 낼 거야!" 그리고 그루셴카에 대한,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을까 하는 끊임없는 생각만 아니었다면, 그는 어쩌면 다시 아주 즐거워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시시각각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영혼을 찔렀다. 마침내 그들은 닿았고, 미탸는 곧바로 그루셴카에게 달려갔다.

제3장 금광

이것이 바로 그루셴카가 그토록 겁에 질려 라키틴에게 이야기한 미탸의 그 방문이었다. 그 여자는 그때 제 "급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미탸가 어제도 오늘도 오지 않아서 무척 기뻤으며, 하느님이 도우시면 떠날 때까지 그가 오지 않으리라고 바랐는데, 그가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다음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그를 떼어 내려고 그 여자는 거기 "돈을 세러" 꼭 가야 한다는 핑계로 순식간에 그를 구슬려 쿠지마 삼소노프에게 바래다 달라고 했다. 미탸가 곧바로 그 여자를 바래다주자 그 여자는 쿠지마의 대문 앞에서 그와 헤어지며, 열한 시가 넘어 자기를 데리러 와서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약속을 받아 냈다. 미탸도 이렇게 시키는 것이 기뻤다. "쿠지마 집에 앉아 있을 테니 표도르 파블로비치한테는 가지 않겠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는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바로 이런 성질의 질투꾼이었다. 사랑하는 여자와 떨어져 있으면 곧바로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여자가 거기서 어떻게 자기를 "배신하는지" 하느님만 아실 온갖 끔찍한 일을 지어내다가도, 충격을 받고 넋이 나가 그 여자가 기어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돌이킬 수 없이 확신한 채 다시 그 여자에게 달려가서는, 그 여자의 얼굴을, 웃고 있는 이 여자의 즐겁고 다정한 얼굴을 첫눈에 보기만 하면 곧바로 기운을 되찾고 곧바로 온갖 의심을 잃고, 기쁜 부끄러움을 느끼며 제 질투를 스스로 꾸짖었다. 그루셴카를 바래다주고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오, 그는 오늘 해내야 할 일이 아직 그렇게나 많았다! 그래도 적어도 마음은 놓였다. "그래도 스메르댜코프한테서 어제저녁 거기 무슨 일이 없었는지, 그 여자가 혹시라도 표도르 파블로비치한테 오지 않았는지 어서 알아봐야 할 텐데, 휴!" 그의 머릿속을 스쳐 갔다. 그래서 그는 제 셋집에 미처 닿기도 전에 벌써 다시 질투가 그의 잠잠할 줄 모르는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다.

질투! "오셀로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믿는 것이다." 푸시킨은 이렇게 짚었는데,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위대한 시인의 지성이 얼마나 비상하게 깊었는지 알 수 있다. 오셀로는 *그의 이상이 죽어 버렸기* 때문에 그저 영혼이 짓이겨지고 그의 세계관 전체가 흐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오셀로는 숨거나 엿보거나 몰래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을 잘 믿으니까. 오히려 그가 배신을 겨우 짐작이라도 하게 하려면 비상하게 애를 써서 그를 이끌고 떠밀고 부추겨야 했다. 참된 질투꾼은 그렇지 않다. 질투꾼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치욕과 도덕적 타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천박하고 더러운 영혼이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높은 마음을 지니고, 깨끗하고 자기희생으로 가득한 사랑을 품고서도, 그와 동시에 탁자 밑에 숨고, 더없이 비열한 인간들을 매수하고, 엿보고 엿듣는 더없이 더러운 오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오셀로는 그 영혼이 갓난아기의 영혼처럼 악의 없고 순결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과 화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된 질투꾼은 그렇지 않아서, 어떤 질투꾼이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무엇과 화해할 수 있으며 무엇을 용서할 수 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질투꾼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빨리 용서하고, 이것은 모든 여자가 안다. 질투꾼은 (물론 처음에 끔찍한 소동을 벌인 뒤에) 이를테면 거의 증명된 배신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포옹과 입맞춤도 무척 빨리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능력이 있다, 이를테면 그와 동시에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연적이 이 시간부터 사라져 땅끝으로 떠나리라고, 아니면 자기가 그 여자를 그 무서운 연적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딘가로 데려가리라고 어떻게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물론 화해는 한 시간뿐일 것이다, 설령 연적이 정말로 사라진다 해도 그는 내일이면 벌써 다른 새 연적을 지어내 그 새 연적을 질투할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엿보아야 하는 사랑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토록 애써 지켜야 하는 사랑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는가 싶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참된 질투꾼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정말이지, 높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까지 있다. 더 눈여겨볼 것은, 높은 마음을 지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느 골방에 서서 엿듣고 엿보며, 제 발로 기어든 그 모든 수치를 "제 높은 마음으로" 분명히 알면서도, 적어도 그 골방에 서 있는 그 순간만은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탸는 그루셴카를 보면 질투가 사라졌고, 한순간 남을 잘 믿는 고결한 인간이 되었으며, 제 나쁜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경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이 여자를 향한 그의 사랑에 그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높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는 뜻일 뿐, 그가 알료샤에게 늘어놓은 정열만, "몸의 곡선"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 대신 그루셴카가 사라지면 미탸는 곧바로 다시 그 여자에게서 배신의 온갖 비열함과 간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안에서 질투가 다시 끓어올랐다. 어쨌든 서둘러야 했다. 무엇보다 먼저 급한 대로 쓸 돈을 조금이라도 구해야 했다. 어제의 9루블은 거의 다 길에 써 버렸고, 다들 알다시피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디에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아까 짐수레 위에서 새 계획과 함께 급한 대로 쓸 돈을 어디서 구할지도 궁리해 두었다. 그에게는 탄약까지 갖춘 좋은 결투용 권총 한

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전당 잡히지 않은 것은 그가 가진 것 가운데 무엇보다 그 물건을 아꼈기 때문이다. 그는 "수도" 여관 술집에서 오래전에 어떤 젊은 관리와 가볍게 알게 되었는데, 역시 그 술집에서, 이 독신에 꽤 넉넉한 관리가 무기를 몹시 좋아해서 권총, 연발총, 단검을 사들여 제 방 벽에 걸어 놓고,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며 자랑하고, 연발총의 구조며 그것을 어떻게 장전하고 어떻게 쏘는지 따위를 풀이하는 데 능하다는 것을 어쩌다 알게 되었다. 미탸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그에게 가서 권총을 10루블에 잡아 달라고 했다. 관리는 기뻐하며 아예 팔라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미탸가 응하지 않자 이자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밝히며 10루블을 내주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미탸는 서둘렀고, 스메르댜코프를 어서 불러내려고 표도르 파블로비치네 뒤뜰로, 제 정자로 내달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또다시, 내가 아래에서 이야기할 어떤 일이 일어나기 겨우 서너 시간 전에 미탸에게는 돈이 1코페이카도 없었고, 그는 아끼는 물건을 10루블에 전당 잡혔는데, 그로부터 세 시간 뒤 갑자기 그의 손에 수천 루블이 들려 있었다는 사실이 생겼다…… 그러나 나는 앞질러 가고 있다.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이웃)의 집에서는 스메르댜코프가 병이 났다는, 그를 몹시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하 창고에 굴러떨어진 이야기며, 이어서 간질 발작, 의사가 온 일,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애태운 일을 들었고, 이반 표도로비치 형이 오늘 아침 벌써 모스크바로 떠났다는 것도 호기심을 품고 알게 되었다. "틀림없이 나보다 먼저 볼로비야를 지나갔겠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생각했지만, 스메르댜코프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이제 어쩐다, 누가 망을 보고, 누가 나한테 전해 주지?" 그는 이 여자들에게 어제저녁 무슨 눈치챈 일이 없었느냐고

탐욕스럽게 캐묻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그가 무엇을 알아내려는지 아주 잘 알았고, 아무도 오지 않았으며 이반 표도로비치가 거기서 잤고 "모든 게 아무 탈 없었다"고 그를 완전히 안심시켰다. 미탸는 생각에 잠겼다. 틀림없이 오늘도 망을 보아야 하는데, 어디서? 여기서, 아니면 삼소노프의 대문 앞에서? 그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형편을 보아 가며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문제는 이제 그 앞에 그 "계획"이, 아까 짐수레 위에서 생각해 낸 새롭고 이번에는 틀림없는, 실행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그 계획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미탸는 여기에 한 시간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한 시간이면 다 결판을 내고 다 알아낼 거야.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첫째로 삼소노프의 집에 가서 그루셴카가 거기 있는지 알아보고, 곧바로 이리로 돌아와 열한 시까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 여자를 데리러 삼소노프 집에 가서 집까지 바래다줘야지." 그는 이렇게 정했다.

그는 집으로 날아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털고, 옷을 입고는 호흘라코바 부인 댁으로 갔다. 아아, 그의 "계획"이 여기 있었다. 그는 이 부인에게서 3천 루블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갑자기, 어쩐지 느닷없이, 부인이 자기를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비상한 확신이 생겼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왜 그가 처음부터 여기, 말하자면 제 사교계로 오지 않고,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도 모르는 낯선 성향의 인간 삼소노프에게 갔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지난 한 달 동안 호흘라코바 부인과 거의 왕래를 끊었고, 전에도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으며, 게다가 부인 자신이 그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무척 잘 알았다는 데 있었다. 이 부인은 처음부터 그를 미워했는데, 그저 그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약혼자라는 까닭이었다. 부인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갑자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를 버리고 "그토록 훌륭한 몸가짐을 지닌, 기사처럼

교양 있는 귀여운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시집가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이다. 미탸의 몸가짐은 부인이 미워했다. 미탸는 부인을 비웃기까지 했고, 언젠가 한번은 이 부인이 "교양이 없는 만큼이나 활발하고 거침없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아까 아침 짐수레 위에서 그에게 더없이 환한 생각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그 부인이 내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결혼하는 걸 그토록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 정도까지 (그는 부인이 거의 히스테리를 부릴 지경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그 돈으로 카탸를 떠나 여기서 영원히 떠나 버릴 수 있게, 지금 이 3천 루블을 왜 거절하겠어? 이런 응석받이 상류층 부인들은 일단 변덕스럽게 무언가를 원하면 제 뜻대로 되게 하려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거든. 게다가 그 부인은 그렇게 부자니까." 미탸는 이렇게 따졌다. 정작 "계획"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전과 똑같았다. 다시 말해 체르마시냐에 대한 제 권리를 내놓겠다는 제안이었는데, 다만 어제 삼소노프에게 한 것처럼 장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어제 삼소노프를 꾀었듯이 3천 루블 대신 두 배, 6천이나 7천 루블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고 이 부인을 꾀지도 않고, 그저 빚에 대한 고귀한 담보로 내놓겠다는 점이 달랐다. 이 새 생각을 펼쳐 나가며 미탸는 환희에 이르렀지만, 그가 무슨 일을 벌일 때마다, 갑자기 무슨 결심을 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그는 새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정열적으로 거기 몸을 맡겼다. 그런데도 호흘라코바 부인 댁 현관 계단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갑자기 등줄기에 공포의 오한을 느꼈는데, 바로 이 순간 그는 이것이 제 마지막 희망이며, 여기서 끊어지면 이 세상에 더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그리고 이제는 수학처럼 분명하게 깨달았다. "3천 루블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빼앗는다면 몰라도, 그 밖에는 아무것도……" 그가 초인종을 누른 것은 일곱 시 반쯤이었다.

처음에는 일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가 저를 알리자마자 놀라울 만큼 빠르게 그를 맞아들였다. "꼭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군." 미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이어서 그가 응접실로 안내되자마자 갑자기 안주인이 거의 뛰어 들어오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대놓고 말했다……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잖아요, 당신도 그건 인정하시겠지요. 그런데도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내 본능에 놀라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는 오늘 당신이 오시리라고 아침 내내 확신했어요."

"그거 참 놀랍습니다, 부인." 미탸가 굼뜨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런데…… 저는 무척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중요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한테는요, 부인, 저 하나한테는요. 그리고 저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아요, 가장 중요한 일로 오셨다는 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이건 무슨 예감 같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시늉 같은 게 아니에요(조시마 장로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건, 이건 수학이에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하고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는 당신은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지 않을 수가,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수학이에요."

"실제 삶의 현실주의지요, 부인,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만 실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바로 현실주의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는 이제 온통 현실주의 편이에요, 기적이라면 너무 혼이 났거든요. 조시마 장로가 돌아가신 거 들으셨어요?"

"아니요, 부인, 처음 듣습니다." 미탸는 조금 놀랐다. 그의 머릿속에 알료샤의 모습이 스쳤다.

"오늘 밤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인." 미탸가 말을 끊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오직, 제가 더없이 절망적인 처지에 있으며, 부인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제가 맨 먼저 무너진다는 것뿐입니다. 진부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열에 들떠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열병에 걸리셨다는 거, 다 알아요. 당신은 다른 마음 상태일 수가 없지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나는 다 미리 알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운명을 염두에 두었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당신의 운명을 지켜보며 연구하고 있어요…… 오, 믿어 주세요, 나는 경험 많은 영혼의 의사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부인, 부인이 경험 많은 의사라면, 그 대신 저는 경험 많은 환자입니다." 미탸가 억지로 비위를 맞추었다. "그리고 부인이 그토록 제 운명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그 운명이 파멸할 때 도와주시리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제가 감히 들고 온 그 계획을…… 그리고 제가 부인께 바라는 것을 마침내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부인, 제가 온 것은……"

"말하지 마세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도움에 대해서라면, 내가 도와 드리는 게 당신이 처음은 아니에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아마 내 사촌 벨메소바 이야기를 들으셨겠지요. 그 사람 남편이 파멸해 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특징 있게 표현하신 대로 무너지고 있었지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말 사육을 하라고 일러 주었더니 지금은 번창하고 있어요. 말 사육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조금도 모릅니다, 부인, 아아, 부인, 조금도 모릅니다!" 미탸가 신경질적으로 조바심치며 소리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

"부인, 제발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들고 온 모든 것을, 계획 전체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게 2분만 마음 놓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게다가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몹시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탸는 부인이 곧 또 말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느끼고, 그 말을 소리로 눌러 버리려고 히스테리를 부리며 외쳤다. "저는 절망해서 왔습니다…… 마지막 절망에 빠져서, 부인께 돈을 꾸어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3천 루블을, 꾸어 달라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더없이 확실한 담보를 잡히고요, 부인, 더없이 확실한 보증을 걸고요!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건 다 나중에, 나중에요!" 이번에는 호흘라코바 부인이 그에게 손을 내저었다. "게다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나는 다 미리 알아요,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무슨 돈을 부탁하시죠, 3천 루블이 필요하시죠. 그렇지만 나는 당신께 더 드릴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더 드릴 거예요. 내가 당신을 구해 드릴게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그렇지만 당신이 내 말을 들으셔야 해요!"

미탸는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인, 정말 그렇게 친절하십니까!" 그가 비상하게 감격해서 외쳤다. "맙소사, 부인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부인은 한 사람을 비명횡사에서, 권총에서 구하시는 겁니다, 부인…… 영원히 감사드리겠습니다……"

"3천 루블보다 끝없이, 끝없이 많이 드릴 거예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미탸의 환희를 빛나는 미소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끝없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숙명적인 그 3천 루블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쪽에서 끝없는 감사와 함께 그 액수를 보증해 드리려고 왔고, 계획을 하나 내놓으려는데, 그 계획이란……"

"그만하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말한 대로 됐어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은인다운 순결한 승리감으로 잘라 말했다. "당신을 구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 구해 드릴게요. 벨메소프를 구했듯이 당신을 구해 드릴게요. 금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금광이요, 부인! 저는 금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무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당신 대신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나는 벌써 한 달 내내 그 목적으로 당신을 지켜보았어요. 당신이 지나갈 때 백 번이나 당신을 보며 되뇌었지요. 저 사람은 정력 넘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금광으로 가야 해. 나는 당신 걸음걸이까지 연구하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금광을 많이 찾아낼 거라고."

"걸음걸이를 보고요, 부인?" 미탸가 미소 지었다.

"그럼요, 걸음걸이를 보고요. 아니, 걸음걸이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걸 부정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자연과학도 똑같은 걸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오, 나는 이제 현실주의자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를 그토록 속상하게 한 수도원의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오늘부터 완전한 현실주의자가 되었고, 실제 활동에 뛰어들고 싶어요. 나는 다 나았어요. '이제 그만!' 투르게네프가 말했듯이요."

"그렇지만 부인, 그토록 너그럽게 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3천 루블은……"

"당신을 비켜 가지 않을 거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호흘라코바 부인이 곧바로 말을 끊었다. "그 3천 루블은 이미 당신 주머니에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3천 루블이 아니라 3백만 루블이에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아주 짧은 시간에요! 당신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금광을 찾아내고, 수백만 루블을 벌어서, 돌아와 활동가가 되고, 우리까지 움직여 선으로 이끌 거예요. 설마 모든 걸 유대 놈들한테 맡겨

둘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건물을 짓고 갖가지 사업을 일으킬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은 당신을 축복하겠지요. 지금은 철도의 시대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당신은 이름이 나고, 지금 그토록 궁한 재무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지폐 루블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는 잠을 못 자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사람들은 나의 이런 면을 잘 몰라요……"

"부인, 부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어떤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다시 말을 끊었다. "저는 어쩌면 부인의 충고를, 부인의 현명한 충고를 꼭, 꼭 따라 어쩌면 거기로…… 그 금광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러 다시 부인께 오겠습니다…… 여러 번이라도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3천 루블을, 부인이 그토록 너그럽게…… 오, 그 돈이면 저는 풀려날 텐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늘……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저한테는 지금 한 시간이,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그만하세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끈질기게 말을 끊었다. "질문이에요. 당신은 금광에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결심하셨어요? 수학적으로 대답하세요."

"가겠습니다, 부인, 나중에…… 부인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부인…… 그렇지만 지금은……"

"그럼 기다리세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외치더니 벌떡 일어나,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서랍이 달린 화려한 책상으로 달려가서는, 몹시 서두르며 무언가를 찾느라 서랍을 하나씩 차례로 빼기 시작했다.

"3천 루블이다!" 미탸는 가슴이 철렁하며 생각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아무 서류도 없이, 증서도 없이…… 오, 이거야말로 신사다운 일이야! 훌륭한 여자야, 말만 이렇게 많지 않다면……"

"여기 있어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미탸에게 돌아오며 기뻐서 소리쳤다. "이걸 찾고 있었어요!"

그것은 끈에 꿴 아주 작은 은 성상이었다. 이따금 가슴에 다는 십자가와 함께 몸에 지니는 그런 성상이었다.

"이건 키예프에서 온 거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부인이 경건하게 말을 이었다. "대순교자 성 바르바라의 성해에서 온 거예요. 내가 손수 당신 목에 걸어 드리고, 그것으로 당신을 새 삶과 새 위업으로 축복하게 해 주세요."

그러고는 부인이 정말로 그의 목에 성상을 걸고 그것을 옷 안으로 넣어 주려 했다. 미탸는 몹시 당황해서 몸을 조금 숙여 부인을 돕다가, 마침내 넥타이와 셔츠 깃 사이로 성상을 가슴에 밀어 넣었다.

"자, 이제 떠나셔도 돼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엄숙하게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부인, 저는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게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신다면!…… 부인의 너그러움에서 제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돈을…… 오, 부인, 부인이 그토록 친절하시다면, 저에게 그토록 감동적으로 너그러우시다면." 미탸가 갑자기 영감에 차서 외쳤다. "부인께 털어놓게 해 주십시오…… 하기야 부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탸를 배신했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말입니다. 오, 저는 그분 앞에서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를요, 부인, 어쩌면 부인이 경멸하실 여자를요. 부인은 벌써 다 아시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 여자를 절대로,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3천 루블이……"

"다 버리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호흘라코바 부인이 더없이 단호한 투로 말을 가로챘다. "버리세요, 특히 여자는요. 당신의 목적은 금광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여자를 데려갈 까닭이 없어요. 나중에 당신이 부와 명예를 안고 돌아오면, 최고 상류 사회에서 마음의 벗을 찾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지식을 갖추고 편견이 없는 현대적인 아가씨일 거예요. 그 무렵이면 지금 막 시작된 여성 문제도 무르익어 새로운 여성이 나타날 거예요……"

"부인,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애원하며 두 손을 모으려 했다.

"바로 그거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거, 당신이 스스로도 모르면서 목말라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의 여성 문제에 결코 반대하지 않아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여성의 발전, 그리고 아주 가까운 앞날에는 여성의 정치적 역할까지, 그게 내 이상이에요. 나한테도 딸이 있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사람들은 나의 이런 면을 잘 몰라요. 나는 이 일로 작가 셰드린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작가가 여성의 사명에 대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얼마나 많은 걸 일깨워 주었는지, 나는 작년에 그에게 두 줄짜리 익명 편지를 보냈어요. '현대 여성을 위해 당신을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나의 작가여, 계속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라고 서명했어요. '현대의 어머니'라고 서명할까 망설였지만, 그냥 '어머니'로 정했어요.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더 크니까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게다가 '현대의'라는 말은 그 사람들한테 『현대인』을 떠올리게 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검열 아래서는 그 사람들한테 쓰라린 기억이잖아요[1]…… 아, 맙소사, 왜 그러세요?"

"부인." 미탸가 마침내 벌떡 일어나 힘없이 애원하며 부인 앞에서 두 손바닥을 모았다. "부인, 부인이 그토록 너그럽게 …… 하신 것을 자꾸 미루시면 저는 울고 말 겁니다……"

"울어도 돼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우세요! 그건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당신 앞에는 그런 길이 놓여 있잖아요! 눈물이 마음을 가볍게 해 줄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면 기뻐하게 될 거예요. 나하고 함께 기뻐하려고 일부러 시베리아에서 말을 달려 나한테 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한테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미탸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부인에게서 약속하신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면, 정확히 언제 받으러 오면 되겠습니까?"

"무슨 돈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약속하신 3천 루블 말입니다…… 부인이 그토록 너그럽게……"

"3천이요? 루블로요? 아, 아니에요, 나한테는 3천 루블이 없어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어쩐지 차분하게 놀라며 말했다. 미탸는 얼이 빠졌다……

"그럼 부인은……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돈이 이미 제 주머니에 든 거나 마찬가지라고까지 하셨잖습니까……"

"아, 아니에요, 내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그렇다면 당신은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나는 금광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나는 당신께 3천 루블보다 더, 끝없이 더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다 생각나요. 그렇지만 나는 금광만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럼 돈은요? 3천 루블은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어처구니없게 외쳤다.

"오, 돈을 말씀하신 거라면 나한테는 없어요. 지금 나한테는 돈이 아예 없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마침 지금 우리 집 관리인하고 싸우는 중이라 며칠 전에는 나도 미우소프한테서 500루블을 꾸었어요. 아니, 아니, 나한테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설령 있다 해도 나는 당신께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로,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꾸어 주지 않아요. 돈을 꾸어 준다는 건 사이가 틀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지만 당신께는, 당신께는 특히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을 아끼니까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을 구하려고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금광, 금광, 금광뿐이니까요!……"

"오, 제기랄!……" 미탸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있는 힘껏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아-악!" 호흘라코바 부인이 겁에 질려 소리치며 응접실 다른 끝으로 날아가듯 물러났다.

미탸는 침을 뱉고는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와, 집을 나와, 거리로, 어둠 속으로 나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걸으며 제 가슴을, 이틀 전 저녁 어둠 속 길에서 알료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알료샤 앞에서 쳤던 바로 그 가슴 자리를 쳤다. 가슴을 *바로 그 자리를* 치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것으로 그가 무엇을 가리키려 했는지는 아직은 세상 누구도 모르는, 그때 알료샤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은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비밀 속에 치욕 이상의 것이, 파멸과 자살이 담겨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갚아 제 가슴에서, *"가슴의 그 자리에서"* 그가 거기 지니고 다니며 그토록 제 양심을 짓누르던 치욕을 걷어 낼 그 3천 루블을 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기로 그는 이미 마음먹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독자에게 완전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고 나자 몸이 그토록 억센 이 사나이는 호흘라코바 부인의 집에서 몇 걸음 떼자마자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았다. 그는 걸으며 넋이 나간 채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고, 그렇게 광장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온몸으로 무언가에 부딪힌 것을 느꼈다. 그가 하마터면 넘어뜨릴 뻔한 어떤 늙은 할멈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렸다.

"맙소사, 하마터면 사람 죽이겠네! 왜 함부로 걸어 다니는 거야, 이 망나니야!"

"아니, 당신이에요?" 미탸가 어둠 속에서 할멈을 알아보고 외쳤다. 그것은 쿠지마 삼소노프의 시중을 들던, 미탸가 어제 유난히 눈여겨본 바로 그 늙은 하녀였다.

"그러는 나리는 누구신데요?" 노파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어두워서 알아볼 수가 없네요."

"쿠지마 쿠지미치 댁에 살면서 그 어른 시중을 드시지요?"

"그렇습죠, 나리, 방금 프로호리치네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나리를 통 알아볼 수가 없을까?"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지금 댁에 계십니까?" 미탸가 기다림에 넋을 잃고 말했다. "아까 제가 직접 바래다드렸습니다."

"계셨어요, 나리, 오셔서 잠깐 앉아 계시다가 가셨어요."

"뭐라고요? 가셨다고요?" 미탸가 외쳤다. "언제 가셨어요?"

"그때 바로 가셨어요. 우리 집에는 아주 잠깐만 계셨어요. 쿠지마 쿠지미치한테 무슨 옛날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려서 웃기시고는 뛰어가 버리셨어요."

"거짓말이야, 이 빌어먹을 할멈아!" 미탸가 고함을 질렀다.

"아-악!" 할멈이 소리쳤지만, 미탸는 벌써 온데간데없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모로조바의 집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루셴카가 모크로예로 떠난 때였다. 그 여자가 떠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았다. 페냐가 제 할머니인 식모 마트료나와 부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위"가 뛰어 들어왔다. 그를 보자 페냐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다.

"소리를 질러?" 미탸가 고함쳤다. "그 여자 어디 있어?" 그러나 겁에 질려 얼이 빠진 페냐가 한마디도 대답하기 전에 그는 갑자기 페냐의

발치에 털썩 엎드렸다.

"페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해 줘, 그 여자 어디 있어?"

"나리, 아무것도 몰라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아무것도 몰라요, 죽이셔도 아무것도 몰라요." 페냐가 하늘에 대고 맹세했다. "아까 나리가 직접 마님하고 같이 가셨잖아요."

"그 여자는 돌아왔어!……"

"나리, 안 돌아오셨어요, 하느님께 맹세해요, 안 돌아오셨어요!"

"거짓말이야." 미탸가 외쳤다. "네가 겁먹은 꼴만 봐도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겠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겁에 질린 페냐는 이만하기 다행이라고 기뻐했지만, 그에게 그저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쩌면 무사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다. 그러나 뛰쳐나가면서 그는 아주 뜻밖의 짓을 하나 해서 페냐와 마트료나 노파를 놀라게 했는데, 탁자 위에 구리 절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절굿공이가, 길이가 4분의 1아르신밖에 안 되는 작은 구리 절굿공이가 들어 있었다. 미탸는 뛰쳐나가며 한 손으로 벌써 문을 열고 있다가, 다른 손으로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절구에서 절굿공이를 낚아채 옆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그것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아이고 맙소사, 저 양반이 누구를 죽이려나 봐!" 페냐가 두 손을 마주쳤다.

---

1. 『현대인(Современник)』은 푸시킨이 창간하고 네크라소프 등이 이끈 진보 성향의 잡지로, 1866년 당국이 폐간했다. 셰드린(살티코프셰드린)도 편집에 참여했다.

제4장 어둠 속에서

그는 어디로 달려갔을까? 뻔한 일이다. "그 여자가 표도르 파블로비치 집 말고 어디 있을 수 있겠어? 삼소노프한테서 곧장 그리로 달려간 거야, 이제야 분명해. 온갖 음모, 온갖 속임수가 이제 훤히 보여……"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회오리바람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네 마당에는 들르지 않았다. "거기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면 안 돼…… 곧바로 일러바치고 팔아넘길 거야……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도 분명히 한패야, 스메르댜코프도, 그놈도, 다들 매수됐어!" 그에게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골목을 지나 크게 에돌아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을 돌아서 드미트롭스카야 거리를 내달리고, 이어서 작은 다리를 건너, 곧장 뒤쪽의 인적 없는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텅 비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골목은 한쪽은 이웃 텃밭의 바자울로, 다른 쪽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정원을 빙 둘러싼 튼튼하고 높은 담으로 막혀 있었다. 여기서 그는 자리를 골랐는데, 아무래도 그가 아는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언젠가 리자베타 스메르댜샤야가 담을 넘었다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 같다. "그 여자도 넘을 수 있었다면," 하느님만 아실 까닭으로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어떻게 못 넘겠어?" 그리고 정말로 그는 뛰어올라 순식간에 요령 있게 담 꼭대기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는, 힘차게 몸을 끌어올려 단번에 기어올라 담 위에 말 타듯 걸터앉았다. 바로 가까운 정원 안에 작은 목욕간이 있었지만, 담

위에서는 불 켜진 집 창문들도 보였다. "역시 그렇군, 영감 침실에 불이 켜져 있어, 그 여자가 거기 있어!" 그러고는 그는 담에서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그리고리가 아프고, 어쩌면 스메르댜코프도 정말로 아파서 제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디나 죽은 듯 고요했고, 일부러 그런 것처럼 아주 잠잠해서 바람 한 점 없었다.

"'오직 고요만이 속삭이네.'" 어째서인지 그의 머릿속을 이런 시구가 스쳤다. "내가 담을 넘은 걸 아무도 듣지 못했어야 할 텐데. 못 들은 것 같아." 잠깐 서 있다가 그는 정원 풀밭을 살금살금 걸어가기 시작했고, 나무와 덤불을 에돌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리를 죽이고 제 걸음마다 스스로 귀를 기울이며 오래 걸었다. 그는 5분쯤 걸려 불 켜진 창문에 다다랐다. 그는 거기 창문 바로 밑에 크고 높고 우거진 딱총나무와 가막살나무 덤불이 몇 그루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집 앞쪽 왼편에 있는, 집에서 정원으로 나가는 문은 잠겨 있었는데, 그는 지나오면서 일부러 꼼꼼히 그것을 살펴 두었다. 마침내 그는 덤불에 이르러 그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숨도 쉬지 않았다. "이제 좀 기다려야 해." 그는 생각했다. "저들이 내 발소리를 듣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잘못 들었다고 여기게…… 기침이나 재채기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는 2분쯤 기다렸지만 심장이 무섭게 뛰었고, 이따금 거의 숨이 막혔다. "아니,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그는 덤불 뒤 그늘에 서 있었고, 덤불 앞쪽 절반은 창문에서 나온 불빛을 받고 있었다. "가막살나무, 열매가, 어쩌면 저렇게 빨갈까!" 그는 저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는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한 걸음씩 끊어 디디며 창문으로 다가가 발끝으로 섰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작은 침실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한눈에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작은 방이었는데,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중국식"이라고 부르는 빨간 칸막이로 방 전체가 가로질러 나뉘어 있었다. "중국식이라." 미탸의 머릿속을 스쳤다. "칸막이 뒤에 그루셴카가 있어."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영감은 미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줄무늬 비단 실내복을 입고, 역시 비단으로 된 술 달린 끈으로 허리를 매고 있었다. 실내복 깃 밑으로 깨끗하고 멋 부린 속옷이, 금 커프스단추를 단 고운 홀란드 셔츠가 비죽 보였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머리에는 알료샤가 보았던 그 빨간 붕대가 그대로 감겨 있었다. "잔뜩 차려입었군." 미탸는 생각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보아하니 생각에 잠긴 듯 창가에 서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아주 조금 귀를 기울이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탁자로 다가가 유리병에서 코냑을 반 잔쯤 따라 마셨다. 이어서 가슴 가득 한숨을 쉬고, 다시 잠깐 서 있다가, 넋이 나간 듯 창과 창 사이 벽에 걸린 거울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이마의 빨간 붕대를 조금 들어 올리고 아직 낫지 않은 멍과 상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혼자야." 미탸는 생각했다. "아무래도 혼자야."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거울에서 물러나더니 갑자기 창문 쪽으로 돌아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미탸는 순식간에 그늘로 몸을 피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칸막이 뒤에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벌써 자고 있는지도 몰라." 그의 가슴이 찔렸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창가에서 물러났다. "저 영감이 창밖으로 그 여자를 찾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 어둠 속을 내다보겠어?…… 조바심에 몸이 다는 거야……" 미탸는 곧바로 다가가 다시 창문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영감은 벌써 보아하니 시름에 잠긴 듯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팔꿈치를 괴고 오른손바닥을 뺨에 갖다 댔다. 미탸는 탐욕스럽게 들여다보았다.

"혼자야, 혼자!" 그는 다시 되뇌었다. "그 여자가 여기 있었다면 영감 얼굴이 달랐을 거야." 이상한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 여자가 여기 없다는 데 대한 어떤 터무니없고 묘한 분함이 끓어올랐다. "그 여자가 여기 없어서가 아니야." 미탸는 곧바로 생각을 가다듬고 스스로 대답했다. "그 여자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길이 없어서야." 미탸는 나중에, 그 순간 제 머리가 비상하게 맑았고 모든 것을 마지막 세부까지 헤아리며 하나하나의 생김새를 다 붙잡았다고 스스로 떠올렸다. 그러나 우수가, 알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우수가 엄청난 속도로 그의 마음속에서 불어났다. "도대체 그 여자는 여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악에 받쳐 끓어올랐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마음을 정하고 손을 뻗어 창틀을 살그머니 두드렸다. 그는 영감과 스메르댜코프가 정한 신호를, 처음 두 번은 좀 살살, 그다음에 세 번은 빠르게, 똑똑똑, "그루셴카가 왔다"는 뜻의 신호를 두드렸다. 영감은 흠칫하더니 고개를 쳐들고 재빨리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왔다. 미탸는 그늘로 몸을 피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창문을 열고 머리를 통째로 내밀었다.

"그루셴카, 너냐? 너 맞지?" 그가 어쩐지 떨리는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있니, 내 귀염둥이, 내 천사, 어디 있니?" 그는 무섭게 들떠 있었고, 숨이 막혀 했다.

"혼자야!" 미탸는 단정했다.

"어디 있는 거냐?" 영감이 다시 소리치며 머리를 더 내밀었다. 어깨까지 내밀고 오른쪽 왼쪽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이리 오너라. 선물을 마련해 두었단다, 이리 와, 보여 줄게!……"

"3천 루블이 든 봉투 이야기로군." 미탸의 머릿속을 스쳤다.

"대체 어디 있니?…… 아니면 문 앞에 있니? 지금 열어 주마……"

그러고는 영감은 하마터면 창문 밖으로 기어 나올 뻔하며,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 오른쪽 옆을 들여다보고 어둠 속을 살펴보려 애썼다. 1초만 지나면 그는 그루셴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틀림없이 문을 열러 달려갔을 것이다. 미탸는 옆에서 꼼짝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그토록 역겨운 영감의 옆얼굴 전체가, 축 늘어진 목젖, 매부리코, 달콤한 기대에 미소 짓는 입술, 이 모든 것이 방 안 왼쪽에서 비스듬히 비치는 등불 빛을 받아 환히 드러나 있었다. 무섭고 미친 듯한 분노가 갑자기 미탸의 마음속에서 끓어올랐다. "저기 있다, 내 연적, 나를 괴롭히는 자, 내 삶을 괴롭히는 자!" 나흘 전 정자에서 알료샤와 이야기를 나누며 "형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말을 할 수 있어?" 하는 알료샤의 물음에 대답할 때, 그가 미리 느끼기라도 한 듯 알료샤에게 일러 주었던 바로 그 갑작스럽고 복수심에 찬 미친 듯한 분노가 밀려왔다.

"나도 몰라, 몰라." 그는 그때 말했다. "어쩌면 안 죽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일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미워질까 봐 두려워. 나는 아버지의 그 목젖이, 그 코가, 그 눈이, 그 뻔뻔한 비웃음이 미워. 몸서리쳐지는 혐오를 느껴. 바로 그게 두려워. 그러면 참지 못할 거야……"

몸서리쳐지는 혐오가 견딜 수 없이 차올랐다. 미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구리 절굿공이를 꺼냈다……

"그때 하느님이 나를 지켜 주셨다." 미탸가 나중에 스스로 말했듯이 그랬다. 바로 그때 병들어 누워 있던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가 잠자리에서 깨어났다. 그날 저녁 무렵 그는 스메르댜코프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이야기한 그 유명한 치료를 제 몸에 했는데, 다시 말해 아내의 도움을 받아 무슨 비밀스럽고 아주 독한 약초 우린 것을 섞은 보드카로 온몸을 문지르고, 남은 것은 아내가 그의 머리 위에서 속삭여

준 "어떤 기도"와 함께 마시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도 그것을 맛보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남편 곁에서 죽은 듯이 잠들었다. 그런데 그리고리가 전혀 뜻밖에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잠깐 생각하고는 곧바로 다시 허리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도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어서 또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었다. 어쩌면 "이런 위험한 때" 집을 지키는 사람도 없이 제가 자고 있다는 데 양심의 가책이 그를 찔렀는지도 모른다. 간질 발작으로 녹초가 된 스메르댜코프는 다른 골방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할멈이 맥이 빠졌군."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는 아내를 흘끗 보고 생각하고는 끙끙거리며 현관 계단으로 나갔다. 물론 그는 걸을 기운이 없어서 현관 계단에서 한번 둘러보기만 하려 했다. 허리와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저녁에 정원 쪽문을 자물쇠로 잠그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는 더없이 꼼꼼하고 더없이 정확한 사람, 한번 정해진 질서와 여러 해 묵은 버릇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리를 절며 아파서 몸을 비틀면서 현관 계단을 내려와 정원 쪽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기계처럼 정원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어쩌면 무언가 헛것이 보였는지도, 어쩌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왼쪽을 흘끗 보니 주인 나리의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미 텅 빈 창문이라 이제는 아무도 그 창으로 내다보고 있지 않았다. "왜 열려 있지, 지금은 여름도 아닌데!" 그리고리는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의 앞 정원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어른거렸다. 그의 앞 마흔 걸음쯤 되는 곳에서 어둠 속을 어떤 사람이 달려가는 것 같았고, 어떤 그림자가 무척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여!" 그리고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정신없이, 허리의 통증도 잊은 채

달려가는 자의 앞길을 가로막으러 내달렸다. 그는 지름길을 택했다. 보아하니 정원은 달아나는 자보다 그에게 더 익숙했고, 달아나는 자는 목욕간 쪽으로 가서 목욕간 뒤로 달려가 담으로 내달렸다…… 그리고리는 놓치지 않고 그를 뒤쫓으며 정신없이 달렸다. 그는 마침 달아나는 자가 벌써 담을 넘으려는 그 순간 담에 다다랐다. 그리고리는 넋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어 두 손으로 그의 다리를 움켜잡았다.

아니나 다를까, 예감은 그를 속이지 않았다. 그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자였다, "아비를 죽인 악당"이었다!

"아비를 죽인 놈!" 노인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지만, 그것만 소리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갑자기 벼락을 맞은 듯 쓰러졌다. 미탸는 다시 정원으로 뛰어내려 쓰러진 노인 위로 몸을 숙였다. 미탸의 손에는 구리 절굿공이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기계처럼 풀밭에 내던졌다. 절굿공이는 그리고리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떨어졌는데, 풀밭이 아니라 오솔길 위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떨어졌다. 몇 초 동안 그는 제 앞에 누운 노인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머리는 온통 피투성이였고, 미탸는 손을 뻗어 노인의 머리를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 그 순간 노인의 두개골을 깨뜨렸는지 아니면 절굿공이로 정수리를 그저 "얼떨떨하게" 했을 뿐인지 "완전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무섭게 들었다고 똑똑히 떠올렸다. 그러나 피는 흘렀다. 무섭게 흘러서 순식간에 뜨거운 줄기로 미탸의 떨리는 손가락을 적셨다. 그는 호흘라코바 부인 댁에 가면서 챙겨 둔 새 흰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내 노인의 머리에 대고, 이마와 얼굴의 피를 닦아 내려고 정신없이 애썼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손수건도 순식간에 온통 피에 젖었다. "주여, 내가 대체 이걸 왜 하고 있지?" 미탸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깨뜨렸다면 이제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그는 갑자기 절망하여 덧붙였다. "죽였으면 죽인 거지……

걸려들었으니 거기 누워 있어라, 영감!" 그는 큰 소리로 말하고는 갑자기 담으로 달려들어 골목으로 뛰어넘고는 내달리기 시작했다. 피에 젖은 손수건은 그의 오른손 주먹 안에 구겨져 있었고, 그는 달리면서 그것을 프록코트 뒷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정신없이 달렸고, 어둠 속 읍내 거리에서 그와 마주친 몇 안 되는 행인들은 나중에, 그날 밤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을 만났다고 기억했다. 그는 다시 모로조바의 집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아까 그가 나가자마자 페냐는 문지기 우두머리 나자르 이바노비치에게 달려가 "그리스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다시는 대위를 들이지 말아 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나자르 이바노비치는 듣고 나서 그러마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갑자기 부름을 받고 위층 마님에게 올라가게 되었고, 가는 길에 마주친 조카, 얼마 전 시골에서 올라온 스무 살쯤 된 젊은이에게 마당에 있으라고 일렀지만, 대위 이야기는 하는 것을 잊었다. 대문에 다다른 미탸가 문을 두드렸다. 젊은이는 그를 곧바로 알아보았는데, 미탸가 벌써 여러 번 그에게 술값을 쥐여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쪽문을 열어 그를 들여보내고는 즐겁게 웃으며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지금 댁에 안 계십니다요" 하고 친절하게 서둘러 알렸다.

"그럼 어디 있어, 프로호르?" 미탸가 갑자기 멈춰 섰다.

"아까 떠나셨습니다요, 두 시간쯤 전에, 티모페이하고 모크로예로요."

"왜?" 미탸가 소리쳤다.

"그건 모르겠습니다요. 무슨 장교한테 가신답니다요. 누가 거기서 마님을 부르고 말까지 보냈답니다요……"

미탸는 그를 내버려 두고 미친 사람처럼 페냐에게 뛰어 들어갔다.

제5장 갑작스러운 결심

페냐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나자르 이바노비치를 믿고 그들은 이번에도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 미탸는 뛰어 들어와 페냐에게 달려들어 그 목을 꽉 움켜잡았다.

"당장 말해, 그 여자 어디 있어, 지금 모크로예에서 누구하고 있어?" 그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두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말할게요, 아이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지금 다 말할게요, 하나도 숨기지 않을게요." 죽을 만큼 겁에 질린 페냐가 빠르게 소리쳤다. "마님은 모크로예로 장교한테 가셨어요."

"무슨 장교?" 미탸가 고함쳤다.

"예전 장교요, 바로 그 사람이요, 마님의 예전 사람이요, 다섯 해 전에 있다가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요." 페냐가 아까처럼 빠르게 재잘거렸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하녀의 목을 조르던 두 손을 거두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하녀 앞에 서 있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반 마디만 듣고도 마지막 하나까지 단번에 알아듣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 물론 그 순간 그가 알아들었는지 아닌지를 살필 처지가 가엾은 페냐에게는 아니었다. 페냐는 그가 뛰어 들어왔을 때 궤짝 위에 앉아 있던 그대로 지금도 앉아 온몸을 떨며, 자기를 막으려는 듯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채 그 자세로 얼어붙어 있었다. 겁에 질려 휘둥그레진 눈동자로 그를 꼼짝 않고 노려보았다. 그런데 마침 그의 두 손은 피투성이였다. 달려오는 길에 틀림없이 얼굴의 땀을 닦으며 그 손으로 이마를 만졌는지, 이마에도 오른쪽 뺨에도 문질러진 피의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페냐는 금방이라도 히스테리를 일으킬 것 같았고, 늙은 식모는 벌떡 일어나 거의 넋을 잃은 채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1분쯤 서 있다가 갑자기 기계처럼 페냐 곁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앉아서, 무엇을 헤아린다기보다는 겁에 질린 듯, 무엇에 얼어붙은 듯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낮처럼 분명했다. 그 장교, 그는 그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루셴카 자신에게서 들어 알았고, 그자가 한 달 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꼬박 한 달 동안 이 일은 그에게 깊이 감추어진 채 이 새로운 사람이 지금 도착할 때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그는 그자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그는 그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그는 그때 그 장교를 그렇게 깡그리 잊어버렸을까,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잊어버렸을까? 바로 이것이 무슨 괴물처럼 그의 앞에 버티고 선 물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겁에 질려, 겁에 질려 싸늘하게 식은 채 이 괴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조용하고 다정한 어린아이처럼 조용하고 온순하게 페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방금 그 하녀를 그토록 겁주고 모욕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아주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그는 갑자기 비상한, 그의 처지에서는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페냐에게 캐묻기 시작했다. 페냐는 그의 피투성이 손을 넋 나간 듯 바라보면서도 역시 놀라울 만큼 기꺼이, 서둘러 그의 물음 하나하나에 대답하기 시작했고, 마치 그에게 "참말 중의 참말"을 몽땅 털어놓으려고 서두르는 것 같기까지 했다.

차츰차츰 어떤 기쁨마저 느끼며 모든 세부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를 괴롭히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에게 힘껏 도움이 되려고 서두르는 것 같았다. 하녀는 오늘 하루 일을, 라키틴과 알료샤가 찾아온 일, 저 페냐가 망을 본 일, 마님이 떠난 일, 마님이 창문에서 알료샤에게 그 미텐카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그리고 "마님이 그를 한 시간 동안 사랑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소리친 일까지 마지막 세부까지 다 이야기했다. 안부 이야기를 듣자 미탸는 갑자기 피식 웃었고, 그의 창백한 뺨에 붉은 기가 확 돌았다. 페냐는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제 호기심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온통 피투성이예요!"

"그래." 미탸는 기계처럼 대답하고 멍하니 제 손을 보더니, 곧바로 손도 페냐의 물음도 잊어버렸다. 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가 뛰어들어온 뒤로 벌써 20분쯤 지났다. 아까의 겁은 가셨지만, 보아하니 이제 어떤 새롭고 굽힐 수 없는 결심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에 잠긴 채 미소 지었다.

"나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페냐가 다시 그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그의 슬픔 속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된 듯 안타깝게 말했다.

미탸는 다시 제 손을 보았다.

"이건 피야, 페냐." 그가 이상한 표정으로 하녀를 보며 말했다. "이건 사람의 피야. 하느님, 이 피가 왜 흘렀을까! 그렇지만…… 페냐…… 여기 담이 하나 있어(그는 하녀에게 수수께끼를 내듯 바라보았다), 높고 보기에도 무서운 담이 하나 있어, 그렇지만…… 내일 새벽에, '해가 날아오를 때', 미텐카는 이 담을 뛰어넘을 거야…… 무슨 담인지 모르겠지, 페냐, 뭐, 괜찮아…… 아무래도 좋아, 내일이면 듣고 다 알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잘 있어! 방해하지 않고 비켜설게. 비켜설 줄 알아. 살아라, 내 기쁨아…… 나를 한 시간 사랑했으니, 그러니 미텐카 카라마조프를 영원히 기억해 줘…… 그 여자는 나를 늘 미텐카라고 불렀잖아, 기억하지?"

그러고는 이 말과 함께 갑자기 부엌을 나갔다. 그런데 페냐는 그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까 그가 뛰어 들어와 자기에게 달려들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무서웠다.

정확히 10분 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아까 권총을 잡힌 그 젊은 관리 표트르 일리치 페르호틴의 집에 들어섰다. 벌써 여덟 시 반이었고, 표트르 일리치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나서 "수도" 여관 술집으로 당구를 치러 가려고 막 다시 프록코트를 걸친 참이었다. 미탸는 나가려는 그를 붙잡았다. 표트르 일리치는 그를 보고, 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소리를 질렀다.

"맙소사!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이죠." 미탸가 빠르게 말했다. "권총을 찾으러 왔고, 당신한테 돈을 가져왔어요. 고마웠습니다. 서두르고 있어요, 표트르 일리치, 제발 빨리요."

표트르 일리치는 점점 더 놀랐다. 그는 미탸의 손에서 갑자기 돈뭉치를 보았는데, 무엇보다 미탸는 아무도 돈을 그렇게 쥐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돈을 들고 들어오지 않는 모양새로, 지폐를 모두 오른손에 쥐고 마치 보란 듯이 손을 앞으로 똑바로 내민 채 그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현관방에서 미탸를 맞은 관리의 하인 소년은 나중에, 그가 그렇게 돈을 손에 든 채 현관방에 들어왔으니 거리에서도 줄곧 그렇게 오른손에 들고 앞으로 내밀고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폐는 모두 무지갯빛 100루블짜리였고, 그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쥐고 있었다.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표트르 일리치는 그때 눈대중으로는 세기 어려웠지만 어쩌면 2천 루블, 어쩌면 3천 루블쯤이었고, 아무튼 뭉치가 크고 "두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자신은, 표트르 일리치가 역시 나중에 진술한 대로, "역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만 취하지는 않았고, 무슨 환희에 빠진 것 같았으며, 몹시 멍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정신을 모은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며 알아내려 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척 서둘렀고, 날카롭게, 아주 이상하게 대답했으며, 어떤 순간에는 슬퍼하기는커녕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당신은 지금 대체 왜 그래요?" 표트르 일리치가 손님을 넋 나간 듯 살펴보며 다시 소리쳤다. "어쩌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어요, 넘어지기라도 했어요? 보세요!"

그는 미탸의 팔꿈치를 잡아 거울 앞에 세웠다. 미탸는 피로 얼룩진 제 얼굴을 보고 흠칫하더니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렸다.

"에이, 제기랄! 이것까지 겹치다니." 그는 악에 받쳐 중얼거리더니 재빨리 지폐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 쥐고 경련하듯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끄집어냈다. 그러나 손수건도 온통 피투성이였다(바로 이 손수건으로 그는 그리고리의 머리와 얼굴을 닦았다), 흰 곳이라고는 거의 한 군데도 없었고, 마르기 시작했다기보다는 덩어리째 어쩐지 뻣뻣하게 굳어서 펴지려 하지 않았다. 미탸는 화가 나서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에이, 제기랄! 무슨 걸레라도 없어요…… 좀 닦아야겠는데……"

"그럼 묻기만 했고 다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씻으세요." 표트르 일리치가 대답했다. "여기 세면대가 있어요, 물을 부어 드릴게요."

"세면대요? 그거 좋네요…… 그런데 이건 어디다 두지?" 그는 어쩐지 아주 이상하게 어리둥절해하며 표트르 일리치에게 제 100루블짜리 뭉치를 가리키고, 마치 그가 자기 돈을 어디 두어야 할지 정해 주어야 한다는 듯 묻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주머니에 넣든지, 아니면 여기 탁자 위에 놓으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주머니에요? 그래, 주머니에. 그거 좋네요…… 아니, 보세요, 이건 다 헛소리예요!" 그가 갑자기 멍한 데서 깨어나듯 외쳤다. "보세요, 우선 이 일부터 끝냅시다, 권총 말이에요, 그걸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당신 돈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무척, 무척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시간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고는 뭉치에서 맨 위의 100루블짜리를 한 장 빼서 관리에게 내밀었다.

"나한테는 거스름돈도 없을 텐데요." 관리가 말했다. "더 잔 돈은 없어요?"

"없어요." 미탸가 다시 뭉치를 보며 말하더니, 제 말이 미덥지 않은 듯 맨 위의 두세 장을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다.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다시 묻는 눈길로 표트르 일리치를 보았다.

"대체 어디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표트르 일리치가 물었다. "잠깐만요, 우리 집 아이를 플로트니코프네로 뛰어가게 할게요. 그 집은 늦게 문을 닫으니까 바꿔 줄지도 몰라요. 이봐, 미샤!" 그가 현관방에 대고 소리쳤다.

"플로트니코프네 가게라,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미탸도 무슨 생각이 번쩍 떠오른 듯 소리쳤다. "미샤." 그는 들어온 소년을 돌아보았다. "잘 들어, 플로트니코프네로 뛰어가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안부를 전하라고 했고 곧 직접 갈 거라고 해라…… 그리고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갈 때까지 샴페인을 준비해 두라고 해, 한 서너 다스쯤, 그리고 모크로예에 갔던 그때처럼 꾸려 두라고 해…… 그때 나는 그 집에서 네 다스를 가져갔어요." 그는 갑자기 표트르 일리치를 돌아보았다.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걱정 마라, 미샤." 그는 다시 소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잘 들어. 치즈, 스트라스부르 파이, 훈제 흰송어, 햄, 캐비아, 그리고 그 밖에 그 집에 있는 건 뭐든지 다, 전처럼 한 100루블이나 120루블어치…… 그리고 잘 들어. 선물로 줄 것도 잊지 말라고 해. 사탕, 배, 수박 두세 통, 아니 네 통, 아니, 수박은 한 통이면 됐고, 초콜릿, 막대사탕, 알사탕, 엿가락, 아무튼 그때 모크로예에 갈 때 나한테 꾸려 준 건 다, 샴페인까지 해서 300루블어치가 되게…… 그래, 이번에도 꼭 똑같이 하라고 해. 그리고 기억해 둬라, 미샤, 네가 미샤라면…… 이 애 이름이 미샤 맞지요?" 그는 다시 표트르 일리치를 돌아보았다.

"아니, 잠깐만요." 표트르 일리치가 불안하게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살펴보다가 말을 끊었다. "차라리 당신이 직접 가서 그때 말하세요, 이 애는 엉터리로 전할 거예요."

"엉터리로 전하겠군, 엉터리로 전할 게 보여! 에이, 미샤, 심부름값으로 너한테 입이라도 맞춰 주려 했는데…… 엉터리로 전하지 않으면 10루블 주마, 얼른 뛰어가…… 샴페인, 무엇보다 샴페인을 내놓으라고 해, 그리고 코냑도, 적포도주도, 백포도주도, 그때처럼 그런 건 다…… 그 사람들은 그때 어땠는지 다 알아."

"아니, 내 말 좀 들어요!" 표트르 일리치가 이제는 조바심치며 말을 끊었다. "내 말은, 이 애는 뛰어가서 돈만 바꾸고 문을 닫지 말라고만 이르게 하고, 당신은 직접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지폐를 이리 줘요. 가, 미샤, 한달음에 다녀와!" 표트르 일리치는 아무래도 일부러 미샤를 서둘러 내보낸 것 같았다. 미샤는 손님 앞에 서서 그의 피투성이 얼굴과,

떨리는 손가락에 돈다발을 쥔 피 묻은 손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보며, 놀라고 무서워서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서 있었고, 아마 미탸가 시킨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제 씻으러 갑시다." 표트르 일리치가 엄하게 말했다. "돈은 탁자 위에 두든지 주머니에 넣든지 하세요…… 그래요, 갑시다. 그리고 프록코트를 벗으세요."

그러고는 그는 미탸가 프록코트를 벗는 것을 돕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다시 소리쳤다.

"보세요, 프록코트에도 피가 묻었어요!"

"이건…… 이건 프록코트가 아니에요. 여기 소매에 조금 묻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여기, 손수건이 들어 있던 자리뿐이에요. 주머니에서 배어 나온 거예요. 페냐네서 손수건 위에 앉았더니 피가 배어 나왔어요." 미탸는 어떤 놀라운 스스럼없음으로 곧바로 설명했다. 표트르 일리치는 얼굴을 찌푸리며 들었다.

"용케도 그렇게 됐군요. 아마 누구하고 싸웠나 보죠." 그가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씻기 시작했다. 표트르 일리치가 물병을 들고 물을 부어 주었다. 미탸는 서두르느라 손에 비누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표트르 일리치가 나중에 떠올린 바로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표트르 일리치는 곧바로 비누칠을 더 하고 더 문지르라고 했다. 그는 이 순간 미탸를 어떻게든 휘어잡게 된 것 같았고, 갈수록 더 그랬다. 덧붙여 말해 두자면, 이 젊은이는 겁 많은 성격이 아니었다.

"보세요, 손톱 밑을 덜 씻었어요. 자, 이제 얼굴을 문지르세요, 여기요. 관자놀이랑 귀 옆이요…… 이 셔츠를 입고 떠날 거예요? 대체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오른쪽 소맷부리가 온통 피투성이예요."

"그래, 피투성이군." 미탸가 셔츠의 소맷부리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럼 속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대신 나는, 자, 보세요……" 미탸가 아까와 같은 스스럼없음으로 말을 이으며, 벌써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고 프록코트를 입었다. "여기 소매 끝을 접어 넣을게요. 그러면 프록코트 밑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이제 말해 봐요, 어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때처럼 또 술집에서 그랬어요? 그때처럼 또 그 대위를 때리고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표트르 일리치가 나무라듯 떠올렸다. "또 누구를 두들겨 팼어요…… 아니면 죽이기라도 했어요?"

"헛소리!" 미탸가 말했다.

"헛소리라니요?"

"그만둬요." 미탸가 말하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다. "방금 광장에서 웬 할멈을 하나 깔아뭉갰어요."

"깔아뭉갰다고요? 할멈을요?"

"영감을!" 미탸가 표트르 일리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웃으면서, 귀먹은 사람한테 하듯 고함을 질렀다.

"에이, 제기랄, 영감이니 할멈이니…… 누굴 죽이기라도 했어요?"

"화해했어요. 맞붙었다가 화해했어요. 어떤 곳에서요. 친구처럼 헤어졌어요. 어떤 바보가…… 그자는 나를 용서했어요, 이제는 틀림없이 용서했어요…… 그자가 일어났다면 용서하지 않았겠지만." 미탸가 갑자기 눈을 찡긋했다.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자는 꺼지라 그래요, 들었지요, 표트르 일리치, 꺼지라 그래요, 그만둬요! 지금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미탸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내 말은 당신이 아무하고나 엮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2등 대위하고 하찮은 일로 그랬듯이…… 싸우고 나서 이제는 흥청망청

놀러 내달리고, 그게 당신 성격 그대로예요. 샴페인 서너 다스라니, 그렇게 많이 어디다 쓰려고요?"

"브라보! 이제 권총을 주세요. 정말이지 시간이 없어요. 너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기도 해, 이 친구야,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 이야기하기엔 너무 늦었어. 아! 그런데 돈은 어디 있지, 내가 어디 뒀지?" 그는 외치고는 주머니마다 손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탁자 위에 놓았잖아요…… 당신이 직접…… 저기 놓여 있잖아요. 잊었어요? 정말이지 당신한테 돈은 쓰레기나 물 같군요. 여기 당신 권총이에요. 이상하네요, 아까 다섯 시 넘어서 10루블에 잡혔는데, 지금은 이것 봐요, 수천 루블이나 있네요. 2천이나 3천은 되겠죠?"

"3천은 되겠지." 미탸가 웃으며 돈을 바지 옆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다 잃어버려요. 금광이라도 생겼어요?"

"금광? 금광이라!" 미탸가 있는 힘껏 소리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페르호틴, 금광에 가고 싶어요? 여기 어떤 부인이 가기만 하면 당장 3천 루블을 쏟아부어 줄 거예요. 나한테도 쏟아부어 줬어요, 그 부인은 그렇게 금광을 좋아해요! 호흘라코바 부인 알아요?"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어요. 설마 그 부인이 당신한테 3천 루블을 줬어요? 그렇게 쏟아부어 줬다고요?" 표트르 일리치가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내일 해가 날아오르면, 영원히 젊은 포이보스가 날아오르며 하느님을 기리고 찬양하면, 내일 그 부인한테, 호흘라코바 부인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 부인이 나한테 3천 루블을 쏟아부어 줬는지 아닌지. 알아보세요."

"나는 당신네 사이를 모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딱 잘라 말한다면 줬나 보죠…… 그런데 당신은 돈을 손에 쥐자마자 시베리아 대신에

사방팔방으로 내달리는 거군요…… 그런데 정말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모크로예로."

"모크로예로요? 밤인데요!"

"다 갖췄던 마스트류크가 빈털터리 마스트류크가 됐지!" 미탸가 갑자기 말했다.

"빈털터리라니요? 그런 수천 루블을 갖고 빈털터리라고요?"

"수천 루블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루블은 꺼지라 그래요! 나는 여자의 성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성미는 쉬이 믿고,
변덕스럽고, 죄 많아라.

나는 율리시스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당신 말을 모르겠어요!"

"취했어요?"

"취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빠요."

"나는 영혼이 취했어요, 표트르 일리치, 영혼이 취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됐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권총을 장전하는 거예요?"

"권총을 장전하는 거예요."

미탸는 정말로 권총 상자를 열고 화약 뿔통 마개를 따서 꼼꼼히 화약을 붓고 다져 넣었다. 이어서 탄알을 집더니, 그것을 굴려 넣기 전에 두 손가락으로 집어 촛불 위로 제 앞에 쳐들었다.

"탄알은 왜 보는 거예요?" 표트르 일리치가 불안한 호기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냥. 상상이야. 만약 네가 이 탄알을 제 머리에 박아 넣을 생각을 했다면, 권총을 장전하면서 이걸 보겠어, 안 보겠어?"

"그걸 왜 봐요?"

"내 머리에 들어갈 거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는 게 재미있지…… 하기야 헛소리야, 한순간의 헛소리. 자, 다 됐다." 그는 탄알을 굴려 넣고 삼부스러기로 다져 넣으며 덧붙였다. "표트르 일리치, 이 친구야, 헛소리야, 다 헛소리야,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네가 안다면! 이제 종이 쪼가리를 좀 줘."

"여기 종이요."

"아니, 매끈하고 깨끗한 종이, 글 쓰는 종이 말이야. 그래, 그거." 그러고는 미탸가 탁자에서 펜을 집어 종이에 재빨리 두 줄을 쓰고는, 종이를 네 겹으로 접어 조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권총은 상자에 넣고 작은 열쇠로 잠근 다음 상자를 손에 들었다. 그러고는 표트르 일리치를 보며 길게,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다.

"이제 가자." 그가 말했다.

"어디로 가요? 아니, 잠깐만요…… 당신 혹시 그걸 제 머리에 보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 탄알을……" 표트르 일리치가 불안하게 말했다.

"탄알은 헛소리야!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삶을 사랑해! 이걸 알아 둬. 나는 금빛 머리채의 포이보스와 그의 뜨거운 빛을 사랑해…… 표트르 일리치, 이 친구야, 너 비켜설 줄 알아?"

"비켜서다니요?"

"길을 내주는 거야. 사랑하는 존재에게, 그리고 미운 존재에게 길을 내주는 거야. 그리고 미운 존재마저 사랑스러워지게, 그렇게 길을 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하느님이 함께하시기를, 가요, 지나가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당신은요?"

"그만, 가자."

"정말이지,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표트르 일리치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거기 못 가게요. 지금 모크로예에 왜 가는 거예요?"

"여자가 거기 있어, 여자가. 너는 그것만 알면 돼, 표트르 일리치, 이상 끝!"

"들어 봐요, 당신은 거칠기는 해도 나는 어쩐지 늘 당신이 좋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맙다, 친구야. 내가 거칠다고 했지. 야만인들, 야만인들! 나는 늘 그것만 되뇌어. 야만인들! 아, 그래, 미샤가 왔구나, 나는 미샤를 잊고 있었네."

미샤가 바꾼 돈 뭉치를 들고 허둥지둥 들어와서, 플로트니코프네서는 "모두 부산하게 움직이고" 병들을 날라 오고 생선이며 차며 다 곧 준비될 거라고 보고했다. 미탸는 10루블짜리 한 장을 집어 표트르 일리치에게 주고, 또 한 장의 10루블짜리를 미샤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지 말아요!" 표트르 일리치가 소리쳤다.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게다가 그건 나쁜 버릇이에요. 돈은 넣어 둬요, 여기 넣어요, 뭐 하러 뿌려요? 내일이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바로 나한테 10루블 꾸러 올 테니까요. 왜 자꾸 옆주머니에다 쑤셔 넣어요? 이봐요, 잃어버려요!"

"들어 봐, 이 친구야, 모크로예에 같이 갈래?"

"내가 거기 뭐 하러 가요?"

"들어 봐, 지금 한 병 따서 삶을 위해 마실래? 나는 마시고 싶어, 무엇보다 너하고 마시고 싶어. 나는 너하고 한 번도 마셔 본 적이 없잖아, 응?"

"뭐, 술집에서라면 좋아요, 가요, 나도 지금 거기 가는 길이니까."

"술집에 갈 시간은 없어, 플로트니코프네 가게 뒷방에서 마시자. 원한다면 지금 수수께끼 하나 내 줄게."

"내 봐요."

미탸는 조끼에서 제 종이쪽지를 꺼내 펴서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크고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평생을 걸고 나 자신을 처형한다, 내 평생을 벌한다!"

"정말이지,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지금 가서 말할 거예요." 쪽지를 읽고 나서 표트르 일리치가 말했다.

"그럴 틈이 없을 거야, 이 친구야, 가서 마시자, 가자!"

플로트니코프네 가게는 표트르 일리치의 집에서 거의 한 집 건너, 거리 모퉁이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 읍에서 가장 큰 식료품 가게였는데, 부유한 상인들의 가게였고, 가게 자체도 꽤 괜찮았다. 수도의 어느 가게에나 있는 것은, 온갖 식료품, "엘리세예프 형제상회에서 병에 담은" 포도주, 과일, 여송연, 차, 설탕, 커피 따위가 다 있었다. 언제나 점원 셋이 앉아 있었고, 심부름하는 소년 둘이 뛰어다녔다. 우리 고장은 가난해지고, 지주들은 떠나고, 장사는 시들해졌지만, 식료품 장사만은 여전히 번창했고 해마다 점점 더 잘되기까지 했는데, 이런 물건에는 사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게에서는 조바심치며 미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너 주 전 그가 이번처럼 온갖 물건과 포도주를 한꺼번에 수백 루블어치나 현금으로 사 간 일을(외상이라면 물론 그에게 아무것도 믿고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잘 기억했고, 그때도 지금처럼 그의 손에 무지갯빛 지폐가 한 뭉치 비죽 나와 있었고, 그는 그것을 흥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물건과 포도주 따위를 무엇에 쓰려는지 헤아리지도, 헤아리려 하지도 않고 마구 뿌렸다는 것도 기억했다. 나중에 온 읍에서는 그때 그가 그루셴카와 함께 모크로예로 떠나 "하룻밤과 그 이튿날 낮 동안 3천 루블을 한꺼번에 날리고,

흥청망청 놀다가 무일푼으로, 어머니가 낳아 준 몸뚱이 하나로 돌아왔다"고들 했다. 그때 그는 집시 무리를 통째로 불러 모았는데(그 무렵 우리 고장에 떠돌던 무리였다), 그들은 이틀 동안 취한 그에게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빼내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비싼 포도주를 마셔 댔다나. 사람들은 미탸를 비웃으며, 그가 모크로예에서 막돼먹은 농군들에게 샴페인을 퍼 먹이고 시골 처녀와 아낙들에게 사탕과 스트라스부르 파이를 실컷 먹였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특히 술집에서는, 그 "모험" 전체를 통해 그가 그루셴카에게서 얻은 것은 "제 발에 입을 맞추게 해 준 것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미탸가 그때 스스로 드러내 놓고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은 고백도 비웃었다(물론 그의 면전에서 비웃은 것은 아니다. 면전에서 비웃기는 좀 위험했다).

미탸와 표트르 일리치가 가게에 다가갔을 때, 입구에는 양탄자를 덮은 짐수레에 방울과 작은 방울들을 단 트로이카가 벌써 준비되어 있었고, 마부 안드레이가 미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에서는 물건을 담은 상자 하나를 거의 다 "꾸려" 놓고, 미탸가 나타나기만 기다렸다가 못을 박아 짐수레에 실을 참이었다. 표트르 일리치는 놀랐다.

"대체 트로이카는 언제 마련했어?" 그가 미탸에게 물었다.

"너한테 달려가다가 이 사람, 안드레이를 만나서 곧장 여기 가게 앞으로 오라고 했지. 시간을 잃을 수는 없잖아! 지난번에는 티모페이하고 갔는데, 티모페이는 이제 휘리릭, 나보다 먼저 어떤 마법사 아가씨를 태우고 떠나 버렸어. 안드레이, 많이 늦겠나?"

"고작 한 시간쯤 우리보다 먼저 닿을까, 그것도 안 될 겁니다요, 겨우 한 시간 앞설 겁니다요!" 안드레이가 서둘러 대꾸했다. "티모페이는 제가 채비를 해 줬으니 어떻게 갈지 압니다요. 그 사람들 달리는 건 우리 달리는 것과 다릅니다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그 사람들이 어디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요. 한 시간 먼저 닿지도 못할 겁니다요!" 안드레이가 열을 내며 말을 가로챘다. 그는 아직 늙지 않은 마부로, 불그스름한 머리에 깡마른 젊은이였는데, 짧은 카프탄을 입고 왼팔에 겉옷을 걸치고 있었다.

"한 시간만 뒤처지면 술값으로 50루블일세."

"한 시간은 장담합니다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아이고, 한 시간이 아니라 반 시간도 앞서지 못할 겁니다요!"

미탸는 부산하게 이것저것 지시했지만, 어쩐지 이상하게, 앞뒤 없이 뒤죽박죽 말하고 시켰다. 하나를 시작하고는 끝을 잊어버렸다. 표트르 일리치는 끼어들어 일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400루블어치, 400루블어치보다 적으면 안 돼, 그때와 꼭 똑같이." 미탸가 지시했다. "샴페인 네 다스, 한 병도 모자라면 안 돼."

"그렇게 많이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잠깐!" 표트르 일리치가 소리쳤다. "이 상자는 뭐야? 뭐가 들었어? 설마 여기에 400루블어치가 들었어?"

부산을 떠는 점원들이 달착지근한 말투로 곧바로 그에게 설명했다. 이 첫 상자에는 샴페인 반 다스와 안주, 사탕, 알사탕 따위 "처음에 쓰실 필요한 물건들"만 들었고, 정작 "주문하신 물건"의 대부분은 지난번처럼 따로 꾸려 따로 짐수레에, 그것도 트로이카에 실어 곧바로 보낼 것이며, 제때 닿을 것이라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보다 겨우 한 시간 늦게 그곳에 닿을 겁니다요."

"한 시간보다 더 늦으면 안 돼, 한 시간보다 더 늦지 않게. 그리고 알사탕하고 엿가락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넣어. 거기 처녀들이 좋아하거든." 미탸가 열을 내며 우겼다.

"엿가락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네 다스는 뭐 하려고? 한 다스면 돼." 표트르 일리치는 거의 화가 났다. 그는 흥정을 시작했고, 계산서를

달라고 했고, 진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가 아낀 것은 겨우 100루블뿐이었다. 결국 물건 전부를 300루블어치 넘지 않게 보내기로 정했다.

"에이, 제기랄!" 표트르 일리치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외쳤다. "내가 여기서 무슨 상관이야? 공짜로 얻은 돈이라면 마음대로 뿌려라!"

"이리 와, 살림꾼, 이리 와, 화내지 마." 미탸가 그를 가게 뒷방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곧 우리한테 한 병 내올 테니 한 모금 하자. 에이, 표트르 일리치, 같이 가자.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

미탸는 더없이 더러운 냅킨을 덮은 아주 작은 탁자 앞의 고리버들 의자에 앉았다. 표트르 일리치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자 순식간에 샴페인이 나왔다. 나리들께서 굴을 드시지 않겠느냐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최상품 굴"이라고 권했다.

"굴은 꺼지라 그래, 나는 안 먹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표트르 일리치가 거의 악에 받쳐 쏘아붙였다.

"굴 먹을 시간 없어." 미탸가 말했다. "입맛도 없고. 있잖아, 친구." 그가 갑자기 감정을 담아 말했다. "나는 이런 무질서가 다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

"누가 좋아하겠어! 맙소사, 농군들한테 세 다스라니, 누구라도 터지겠다."

"그 얘기가 아니야. 나는 더 높은 질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안에는 질서가 없어, 더 높은 질서가…… 그렇지만…… 이건 다 끝났어, 슬퍼할 것 없어. 너무 늦었어, 그리고 제기랄! 내 삶은 온통 무질서였으니 질서를 세워야지. 말장난이야, 응?"

"말장난이 아니라 헛소리지."

"세상에 계신 지고하신 분께 영광,
내 안에 계신 지고하신 분께 영광!

이 시구는 언젠가 내 영혼에서 터져 나왔어. 시가 아니라 눈물이야…… 내가 직접 지었어…… 그렇지만 2등 대위의 턱수염을 잡아끌던 때는 아니야……"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 해?"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 하냐고? 헛소리!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평평해져. 줄을 긋고, 합계를 내는 거야."

"정말이지, 자꾸 네 권총이 눈앞에 어른거려."

"권총도 헛소리야! 마셔, 그리고 공상하지 마. 나는 삶을 사랑해, 삶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 너무 사랑해서 역겨울 지경이야. 그만! 삶을 위해, 이 친구야, 삶을 위해 마시자, 삶을 위해 건배를 제안한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 만족할까? 나는 비열하지만 나 자신에게 만족해. 그런데도 나는 비열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게 괴로워. 나는 창조를 축복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를 축복할 각오가 되어 있어, 그렇지만…… 구린내 나는 벌레 한 마리를 없애 버려야 해, 기어 다니며 다른 이들의 삶을 망치지 못하게…… 삶을 위해 마시자, 사랑하는 형제여! 삶보다 귀한 게 무엇이 있겠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삶을 위해, 그리고 여왕 중의 여왕을 위해."

"삶을 위해 마시자, 그리고 그러지 뭐, 네 여왕을 위해서도."

두 사람은 한 잔씩 마셨다. 미탸는 들떠서 마구 뿌려 대면서도 어쩐지 슬퍼 보였다. 마치 이겨 낼 수 없는 무거운 근심이 그의 뒤에 버티고 선 것 같았다.

"미샤…… 들어온 게 네 미샤냐? 미샤, 얘야, 미샤, 이리 와서 나를 위해 이 잔을 마셔라, 금빛 머리채의 포이보스를 위해, 내일의

포이보스를 위해……"

"그 애한테는 왜 줘!" 표트르 일리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뭐 어때, 그냥, 나는 그러고 싶어."

"에이!"

미샤는 잔을 비우고 인사하고는 뛰어갔다.

"오래 기억할 거야." 미탸가 말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여자를! 여자란 무엇인가? 땅의 여왕이야! 슬퍼, 슬퍼, 표트르 일리치. 햄릿 기억나? '나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호레이쇼…… 아, 가엾은 요릭!' 이게 어쩌면 나야, 내가 요릭이야. 지금은 바로 내가 요릭이고, 해골은 나중이지."

표트르 일리치는 듣기만 하고 잠자코 있었다. 미탸도 잠자코 있었다.

"이건 무슨 개예요?" 미탸가 구석에 있는 까만 눈을 한 작고 예쁜 발바리를 보고 갑자기 멍하니 점원에게 물었다.

"이건 우리 안주인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의 발바리입니다요." 점원이 대답했다. "아까 직접 데려오셨다가 여기 두고 잊어버리셨습니다요. 도로 갖다 드려야겠습니다요."

"나도 이런 개를 하나 본 적이 있지…… 연대에서……" 미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다만 그 개는 뒷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었어…… 표트르 일리치, 마침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 평생 뭘 훔친 적 있어, 없어?"

"그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그냥. 있잖아, 누구 주머니에서, 남의 것을? 나랏돈 얘기가 아니야. 나랏돈은 누구나 뜯어 먹지, 물론 너도……"

"꺼져 버려."

"나는 남의 것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응?"

"아홉 살 때 엄마 돈 20코페이카를 한 번 훔쳤어, 탁자 위에서. 살그머니 집어서 손에 꼭 쥐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어. 사흘 동안 갖고 있다가 부끄러워져서 털어놓고 돌려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당연히 매를 맞았지.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너야말로 훔친 적 있어?"

"훔쳤지." 미탸가 교활하게 눈을 찡긋했다.

"뭘 훔쳤는데?" 표트르 일리치가 궁금해했다.

"아홉 살 때 엄마 돈 20코페이카를 훔쳤다가 사흘 뒤에 돌려줬어." 이렇게 말하고 미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서두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갑자기 가게 문간에서 안드레이가 소리쳤다.

"다 됐나? 가자!" 미탸가 허둥지둥 일어났다. "마지막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고…… 안드레이한테 가는 길에 마실 보드카 한 잔 당장 줘! 보드카 말고 코냑도 한 잔 줘! 이 상자는(권총 상자였다) 내 자리 밑에 넣어. 잘 있어, 표트르 일리치, 나를 나쁘게 기억하지 마."

"그래도 내일은 돌아오는 거지?"

"반드시."

"이제 셈을 끝내 주시겠습니까요?" 점원이 쪼르르 다가왔다.

"아, 그래, 셈! 반드시!"

그는 다시 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무지갯빛 지폐 석 장을 빼서 계산대에 던지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갔다.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인사하며 작별 인사와 축원으로 배웅했다. 안드레이는 방금 마신 코냑에 컥 소리를 내고는 마부석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미탸가 막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앞에 전혀 뜻밖에 페냐가 나타났다. 하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며 그의 앞에 두 손을 모으고는 그의 발치에 털썩 엎드렸다.

"나리,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마님을 망치지 마세요! 제가 나리한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망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마님의 예전 사람이에요! 이제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하고 혼인하려고 시베리아에서 돌아왔대요…… 나리,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남의 목숨을 망치지 마세요!"

"쯧쯧쯧, 그런 거였군! 그래, 너 이제 거기서 일을 저지르겠구나!" 표트르 일리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 알겠다,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사람이고 싶으면 지금 당장 권총을 나한테 내놔." 그는 미탸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들었어, 드미트리!"

"권총? 기다려, 이 친구야, 가는 길에 웅덩이에 던져 버릴게." 미탸가 대답했다. "페냐, 일어나, 내 앞에 엎드려 있지 마. 미탸는 망치지 않아, 이 어리석은 인간은 앞으로 아무도 망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있잖아, 페냐." 그는 벌써 자리에 앉아서 하녀에게 소리쳤다. "아까 내가 너를 모욕했으니 나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 줘, 이 비열한 놈을 용서해 줘…… 용서하지 않아도 아무래도 좋아! 이제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출발해, 안드레이, 어서 날아가!"

안드레이가 말을 몰았다. 방울이 울렸다.

"잘 있어, 표트르 일리치! 너한테 마지막 눈물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지껄이담!' 표트르 일리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는 미탸가 속고 바가지를 쓰리라는 예감이 들어서, 남은 식료품과 포도주를 실을 짐수레를(이것도 트로이카였다) 어떻게 꾸리는지 지켜보려고 남을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침을 뱉고는 당구를 치러 제 술집으로 갔다.

"바보야, 좋은 녀석이기는 하지만……" 그는 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다. "그루셴카의 그 무슨 '예전' 장교라는 자 이야기는 들었지. 그래, 그자가 왔다면, 그러면…… 에이, 그 권총! 에이, 제기랄, 내가 그 녀석 보모라도 되나? 마음대로들 하라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떠버리들일 뿐, 그 이상은 아니야. 취해서 싸우고, 싸우고 나서 화해하겠지. 그게 어디 실속 있는 인간들이야? '비켜설게'니 '나 자신을 처형한다'니 하는 게 다 뭐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취해서 술집에서 이런 투로 천 번은 고함을 질렀지. 지금이야 취하지 않았지만. '영혼이 취했다', 비열한 놈들이 좋아하는 투지. 내가 그 녀석 보모라도 되나? 그리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 낯짝이 온통 피투성이였으니. 누구하고였을까? 술집에 가면 알게 되겠지. 손수건도 피투성이였는데…… 쳇, 제기랄, 우리 집 바닥에 두고 갔잖아…… 알게 뭐야!"

그는 더없이 언짢은 기분으로 술집에 들어가 곧바로 한 판을 시작했다. 한 판을 치고 나니 기분이 풀렸다. 그는 또 한 판을 치다가 갑자기 함께 치던 사람 하나에게,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에게 또 돈이 생겼다고, 3천 루블쯤 되는 걸 제 눈으로 보았다고, 그리고 그가 또 그루셴카와 흥청망청 놀러 모크로예로 떠났다고 이야기했다.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거의 뜻밖이라 할 만한 호기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웃지 않고, 어쩐지 이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구마저 멈추었다.

"3천 루블? 그 사람한테 어디서 3천 루블이 생겨?"

사람들은 더 캐묻기 시작했다. 호흘라코바 부인 이야기는 미심쩍게 받아들였다.

"혹시 영감을 털어 간 거 아냐, 그거 말이야? 3천 루블이라! 뭔가 수상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떠벌렸잖아, 여기서 다들 들었어. 바로 3천 루블 얘기를 했지……"

표트르 일리치는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묻는 말에 메마르고 인색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여기 올 때는 이야기하려 했는데도 미탸의 얼굴과 손에 묻어 있던 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판을 시작하자 미탸 이야기는 차츰 잦아들었지만, 세 번째 판을 끝내자 표트르 일리치는 더 치려 하지 않고 큐를 내려놓더니, 생각했던 대로 저녁을 먹지도 않고 술집을 나왔다. 광장으로 나온 그는 어리둥절해서, 제 자신에게 놀라기까지 하며 멈춰 섰다. 그는 지금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헛소리로 드러날 일 때문에 남의 집을 깨우고 소동을 일으키겠지. 쳇, 제기랄, 내가 그 사람들 보모라도 되나?"

더없이 언짢은 기분으로 그는 곧장 집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페냐가 생각났다. "에이, 제기랄, 아까 그 하녀한테 캐물어 볼걸." 그는 분해하며 생각했다. "그랬으면 다 알았을 텐데." 그러자 갑자기 그 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보고 싶다는 더없이 조바심 나고 끈질긴 욕망이 그의 안에서 불타올라, 그는 가던 길 중간에서 홱 돌아서서 그루셴카가 세 들어 사는 모로조바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에 다가가 그가 문을 두드리자, 밤의 고요 속에 울린 그 소리가 다시 갑자기 그의 술을 깨게 하고 그를 화나게 하는 듯했다. 게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집 안에서는 모두 자고 있었다. "여기서도 소동을 일으키겠군!" 그는 이미 어떤 괴로움을 영혼에 품고 생각했지만, 아주 떠나 버리는 대신 갑자기 다시, 이번에는 있는 힘을 다해 두드리기 시작했다. 온 거리에 소란이 일었다. "그래, 안 되지, 열릴 때까지 두드릴 거야, 두드릴 거야!" 그는 소리가 날 때마다 미칠 듯이 제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와 동시에 대문을 두드리는 손길을 더 세차게 했다.

제6장 내가 간다!

한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길을 날듯이 달리고 있었다. 모크로예까지는 20베르스타 남짓이었지만, 안드레이의 트로이카가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한 시간 15분이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빠른 질주가 갑자기 미탸의 정신을 맑게 해 주는 듯했다. 공기는 신선하고 쌀쌀했으며, 맑은 하늘에는 커다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 밤이었다. 어쩌면 바로 그 시각이었는지도 모른다. 알료샤가 땅에 엎드려 "대지를 영원무궁토록 사랑하겠다고 미친 듯이 맹세하던" 바로 그때였다. 그러나 미탸의 마음속은 어수선했다. 몹시 어수선했다. 지금 많은 것이 그의 영혼을 괴롭혔지만, 이 순간 그의 온 존재는 오직 그 여자에게만, 그의 여왕에게만 거스를 수 없이 쏠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그 여자를 보려고 그리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한 가지만 말해 두겠다. 그의 마음은 단 1분도 다투지 않았다. 질투에 사로잡히던 이 사나이가, 땅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새 사람, 새 연적, 이 "장교"에게 조금도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면 아마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른 누구였다면, 그런 자가 나타났다면, 그는 곧바로 질투에 불타 어쩌면 그 무서운 두 손을 다시 피로 적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 "그 여자의 첫 남자"에게는, 지금 트로이카를 타고 날아가면서도 질투 어린 증오는커녕 적의조차 느끼지 않았다. 물론 아직 그를 본 적은 없었지만. "여기에는 다툴 여지가 없다. 여기엔 그 여자와 그 남자의 권리가 있다. 그 여자가 다섯 해 동안 잊지

못한 첫사랑이다. 그러니 그 다섯 해 동안 그 남자만 사랑했다는 거다. 그런데 나는, 나는 왜 여기 끼어들었지? 내가 여기서 무슨 상관이야? 비켜라, 미탸, 길을 내 줘라! 그리고 지금 내가 뭐냐? 이제는 장교가 없어도 다 끝났다. 그 사람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어차피 다 끝났을 거야……"

그가 따져 볼 수만 있었다면 아마 대강 이런 말로 제 느낌을 풀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미 따져 볼 수가 없었다. 지금의 결심은 모두 따져 보지 않고 한순간에 생겨났고, 아까 페냐의 집에서 그 하녀의 첫마디를 듣자마자 단번에 느껴졌으며, 그 모든 결과와 함께 통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그의 영혼은 어수선했고, 괴로울 만큼 어수선했으니, 결심도 평안을 주지는 못했다. 너무 많은 것이 그의 뒤에 버티고 서서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이따금 그는 그것이 이상했다. 이미 그는 펜으로 종이에 제 손으로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문을 써 두지 않았던가. "나 자신을 처형하고 벌한다." 그 쪽지는 마련된 채 여기, 그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이미 권총도 장전해 두었고, 내일 "금빛 머리채의 포이보스"가 비추는 첫 뜨거운 햇살을 어떻게 맞을지 이미 정해 두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예전의 것, 그의 뒤에 버티고 서서 그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과는 끝내 셈을 치를 수가 없었고, 그는 그것을 괴로울 만큼 느꼈으며, 그 생각이 절망이 되어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가는 길에 한순간, 갑자기 안드레이를 세우고 짐수레에서 뛰어내려 장전한 권총을 꺼내 날이 밝기도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내 버리고 싶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불티처럼 휙 지나갔다. 게다가 트로이카는 "공간을 집어삼키며" 날아갔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그 여자에 대한 생각, 오직 그 여자 하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세게 그의 숨을 틀어쥐고 다른 모든 무서운 유령들을 그의 마음에서 몰아냈다. 아, 그는 그 여자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잠깐이라도, 멀리서라도! "그 여자는 지금 그놈하고 있어. 그러니 그 여자가 지금 그놈하고, 제 예전의 정든 사람하고 어떻게 있는지 보기만 하자. 나한테는 그거면 돼." 그리고 제 운명에 들어선 이 숙명의 여자를 향해 이토록 많은 사랑이 그의 가슴에서 솟아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이토록 많은 새로운 감정, 그 자신에게도 뜻밖인 감정, 기도하고 싶을 만큼, 그 여자 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을 만큼 다정한 감정이 솟아오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리자!" 그는 무슨 히스테리 같은 환희에 사로잡혀 갑자기 중얼거렸다.

벌써 거의 한 시간을 달렸다. 미탸는 말이 없었고, 안드레이는 말하기 좋아하는 농군인데도 말을 꺼내기가 겁나는 듯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제 "늙다리 말들", 밤색의 깡마르지만 날랜 트로이카를 부지런히 몰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미탸가 무섭게 불안해하며 외쳤다.

"안드레이! 그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어쩌지?"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때까지는 그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벌써 잠자리에 들었다고 봐야겠습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미탸는 괴롭게 얼굴을 찌푸렸다. 정말이지, 그가 날아갔는데…… 이런 감정을 품고…… 그 사람들은 자고 있다면…… 그 여자도 어쩌면 바로 거기서 자고 있다면…… 악한 감정이 그의 가슴에서 끓어올랐다.

"몰아, 안드레이, 달려, 안드레이, 어서!"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아직 안 잤을지도 모릅죠." 잠시 말이 없다가 안드레이가 헤아려 보았다. "아까 티모페이가 그러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요……"

"역참에?"

"역참이 아니라 플라스투노프네 여관에요, 말하자면 사설 역참입죠."

"알아. 그런데 많다니 무슨 소리야? 어디에 많아? 누구들이야?" 뜻밖의 소식에 미탸가 무섭게 놀라 펄쩍 뛰었다.

"글쎄 티모페이 말로는 다 나리들이랍니다요. 읍내에서 온 사람이 둘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요. 티모페이 말로는 이 고장 나리 둘하고, 또 둘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 같다던데, 어쩌면 또 누가 있는지도 모릅죠, 제가 똑똑히 묻지를 않았습니다요. 카드를 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카드를?"

"그러니 카드를 시작했다면 안 잘지도 모릅죠. 지금은 기껏해야 열 시가 거의 다 지났을 겁니다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요."

"몰아, 안드레이, 몰아!" 미탸가 다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이건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만, 나리." 잠시 말이 없다가 안드레이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저 나리를 화나게 해 드리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요, 나리."

"뭔데?"

"아까 페도시야 마르코브나가 나리 발치에 엎드려서, 마님을 망치지 말아 달라고, 또 다른 누구도 망치지 말아 달라고 빌었잖습니까요…… 그런데 나리, 제가 나리를 그리로 모시고 가는 거라서…… 용서해 주십쇼, 나리, 그냥 양심에서 하는 말인데, 어리석은 소리를 했는지도 모릅죠."

미탸가 갑자기 뒤에서 그의 두 어깨를 움켜잡았다.

"너 마부지? 마부지?" 그가 미친 듯이 말을 꺼냈다.

"마부입죠……"

"너는 길을 비켜 줘야 한다는 걸 알지. 마부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길을 안 비켜 주고, 비켜라, 내가 간다, 하고 깔아뭉개면 되나! 안 돼, 마부야, 깔아뭉개지 마! 사람을 깔아뭉개면 안 돼, 사람들의 삶을 망치면 안 돼,

그리고 삶을 망쳤다면 자신을 벌해라…… 망치기만 했다면, 누군가의 삶을 파멸시키기만 했다면, 자신을 처형하고 떠나라."

이 모든 말이 미탸에게서 거의 완전한 히스테리처럼 터져 나왔다. 안드레이는 나리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말을 받아 주었다.

"그건 옳습니다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사람을 깔아뭉개면 안 된다는 건 나리 말씀이 옳습니다요, 괴롭혀서도 안 되고요, 온갖 짐승도 마찬가지입죠, 짐승이란 다 지음을 받은 짐승이니까요, 이를테면 말도 그렇습죠, 그런데 어떤 놈은 공연히 말을 혹사합니다요, 우리 마부라도 말입죠…… 그리고 그놈은 거칠 것이 없어서 그냥 밀고 나갑니다요, 곧장 그냥 밀고 나갑죠."

"지옥으로?" 미탸가 갑자기 말을 가로채더니 그 특유의 뜻밖의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안드레이, 순박한 영혼아." 그는 다시 그의 두 어깨를 꽉 움켜잡았다. "말해 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는 지옥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네 생각은 어때?"

"모르겠습니다요, 나리, 나리한테 달렸습죠. 나리는 우리한테…… 보십쇼, 나리, 하느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곧장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고통받던 죄인들을 모두 풀어 주셨답니다요. 그러자 지옥이 신음했답니다요. 이제는 아무도, 죄인이라곤 아무도 자기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지옥에게 말씀하셨답니다요. '신음하지 마라, 지옥아. 이제부터 온갖 고관대작과 다스리는 자와 큰 재판관과 부자 들이 너에게 갈 터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영원무궁토록 그러했던 것과 똑같이 가득 차리라.' 이건 확실합니다요, 그런 말씀이 있었답니다요……"

"민간 전설이군, 훌륭해! 왼쪽 말을 쳐, 안드레이!"

"그러니까, 나리, 지옥은 그런 사람들한테 정해진 겁니다요." 안드레이가 왼쪽 말을 쳤다. "그런데 나리는 우리한테, 나리, 꼭

어린아이 같으십니다요…… 우리는 나리를 그렇게 여깁죠…… 그리고 나리, 화를 잘 내시긴 합니다만, 그건 그렇습죠, 그래도 나리의 순박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요."

"그럼 너는, 너는 나를 용서해 주겠니, 안드레이?"

"제가 뭣 때문에 나리를 용서합니까요, 나리는 저한테 아무 짓도 안 하셨는데요."

"아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너 하나가, 바로 지금, 당장, 여기, 길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용서해 주겠니? 말해 봐, 평민의 영혼아!"

"아이고, 나리! 나리를 모시고 가기도 겁이 납니다요, 나리 말씀이 어째 이상해서요……"

그러나 미탸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미친 듯이 기도하며 사납게 혼자 속삭였다.

"주님, 제 모든 불법과 함께 저를 받아 주시되, 저를 심판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 없이 저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저 자신을 심판했으니까요, 심판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 저는 더러운 놈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거기서도 사랑할 것이고, 거기서도 주님을 영원무궁토록 사랑한다고 외칠 겁니다…… 하지만 저도 끝까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끝까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햇살까지 겨우 다섯 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여왕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속속들이 보고 계십니다. 달려가서 그 여자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나를 스쳐 지나간 건…… 잘 있어, 그리고 당신의 제물을 잊어, 절대로 마음 쓰지 마!"

"모크로예입니다요!" 안드레이가 채찍으로 앞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희붐한 밤의 어둠 너머로 드넓은 땅에 흩어진 건물들의 단단한 덩어리가 갑자기 시커멓게 드러났다. 모크로예 마을은 2천 명이 사는 마을이었지만, 이 시각에는 온 마을이 벌써 잠들어 있었고, 어둠 속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불빛만 아직 깜박이고 있었다.

"몰아, 몰아, 안드레이, 내가 간다!" 미탸가 열에 들뜬 듯 외쳤다.

"안 자고 있습니다요!" 안드레이가 다시 말하며 마을 어귀에 바로 서 있는 플라스투노프네 여관을 채찍으로 가리켰는데, 거리로 난 창문 여섯 개에 모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안 자고 있어!" 미탸가 기뻐하며 맞장구쳤다. "요란하게 굴려, 안드레이, 내달려, 방울을 울려, 우당탕 소리 나게 대 줘. 누가 왔는지 다들 알게! 내가 간다! 내가 직접 간다!" 미탸는 미친 듯이 외쳐 댔다.

안드레이는 지친 트로이카를 내달리게 하여 정말로 우당탕 소리를 내며 높은 현관 층계에 대고는, 김이 무럭무럭 나고 숨이 반쯤 넘어간 말들을 세웠다. 미탸가 짐수레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여관 주인이, 하기야 벌써 자러 가던 참이었지만, 누가 이렇게 요란하게 대는지 궁금해서 현관 층계에서 내다보았다.

"트리폰 보리시치, 자네야?"

주인은 몸을 숙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현관 층계를 쏜살같이 뛰어내려와 비굴한 환희에 차서 손님에게 달려들었다.

"아이고, 드미트리 표도리치 나리! 나리를 다시 뵙다니요?"

이 트리폰 보리시치는 키가 중간쯤인 다부지고 건장한 농군으로, 얼굴이 좀 통통한 편이었고, 생김새가 엄하고 사정이 없었는데 특히 모크로예 농군들한테는 더 그랬지만, 이득을 챙길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재빨리 더없이 비굴한 표정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러시아 옷차림을 해서, 깃이 비스듬한 루바시카에 농군 외투를 걸치고 다녔고, 꽤 큰돈을 모아 두었지만 더 높은 역할도 쉬지 않고 꿈꾸었다. 농군의

절반 넘게가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모두가 사방에서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지주들에게서 땅을 빌렸고 제 돈으로 사기도 했으며, 농군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빚을 갚느라 그 땅을 갈아 주었다. 그는 홀아비였고 다 큰 딸이 넷 있었는데, 한 딸은 벌써 과부가 되어 어린것 둘, 그에게는 손녀 둘을 데리고 그의 집에 살며 날품팔이처럼 그를 위해 일했다. 또 한 농군 딸은 관리에게, 그것도 어떻게 겨우 진급한 무슨 하급 서기에게 시집갔는데, 여관 방 하나의 벽에 걸린 집안 사진들 가운데 이 하급 관리가 제복을 입고 관리 견장을 단 아주 조그만 사진도 볼 수 있었다. 두 막내딸은 성당 축일이나 어디 손님으로 갈 때면 뒤를 몸에 꼭 맞게 하고 한 아르신이나 되는 자락을 단, 유행대로 지은 하늘색이나 초록색 드레스를 입었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이면 여느 날처럼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자작나무 비를 들고 방을 쓸고 구정물을 내다 버리고 손님들이 떠난 뒤의 쓰레기를 치웠다. 벌써 수천 루블을 모았는데도 트리폰 보리시치는 흥청망청 노는 손님에게서 한몫 뜯어내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루셴카와 흥청망청 놀던 동안 그에게서 하루 만에, 300루블은 아니더라도 200루블 남짓을 챙겼던 것을 기억하고, 미탸가 현관 층계에 대는 모양 하나만 보고도 또다시 먹잇감 냄새를 맡아 기뻐하며 쏜살같이 그를 맞이했다.

"아이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나리를 다시 모시게 되다니요?"

"잠깐, 트리폰 보리시치." 미탸가 말을 꺼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 여자 어디 있어?"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말씀입니까요?" 주인은 미탸의 얼굴을 날카롭게 살피며 곧바로 알아들었다. "네, 여기 머물고 계십니다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입니다요…… 한 사람은 관리인데, 말하는 걸 들어 보면 폴란드 사람인 것 같은데, 바로 그 사람이 여기서 그분한테 말을 보냈습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동무인지 길동무인지, 누가 알겠습니까요. 양복을 입었습니다요……"

"그래, 흥청망청 노나? 부자들이야?"

"흥청망청이라니요! 대단찮은 사람들입니다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대단찮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읍내 사람들입니다요, 나리 두 분이요…… 체르냐에서 돌아오다가 묵었습죠…… 한 분은 젊은 분인데, 미우소프 나리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요, 이름이 뭐더라 잊었는데…… 다른 한 분은 아마 나리도 아실 겁니다요. 지주 막시모프 나리인데, 순례를 하다가 거기 나리네 수도원에 들렀다더니, 이제 그 미우소프 나리의 젊은 친척하고 같이 다니신답니다요……"

"그게 다야?"

"그게 답니다요."

"잠깐, 가만있어, 트리폰 보리시치,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말해 봐. 그 여자는 어때, 그 여자는 어떻게 있어?"

"아까 오셔서 그분들하고 앉아 계십니다요."

"즐거워해? 웃고 있어?"

"아뇨, 별로 웃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요…… 아주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기까지 합니다요. 젊은 분 머리를 빗겨 주시더군요."

"그 폴란드 놈, 그 장교 머리를?"

"그 사람이 무슨 젊은 사람입니까요, 게다가 장교도 아닌걸요. 아닙니다요, 나리,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미우소프 나리 조카, 그 젊은

분이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칼가노프?"

"바로 칼가노프입니다요."

"좋아, 내가 알아서 정하지. 카드를 치고 있어?"

"치다가 그만두셨습니다요. 차를 다 드시고, 관리가 과실주를 달라고 했습죠."

"잠깐, 트리폰 보리시치, 잠깐, 이 사람아, 내가 알아서 정할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대답해. 집시들 없어?"

"집시는 이제 소식이 아주 끊겼습니다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관청에서 쫓아냈습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 있습니다요. 로즈데스트벤스카야 마을에서 침발롬이며 바이올린을 켜는데,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요. 올 겁니다요."

"보내, 꼭 보내!" 미탸가 소리쳤다. "그리고 계집애들도 그때처럼 깨울 수 있지, 특히 마리야, 스테파니다도, 아리나도. 합창에 200루블이야!"

"그런 돈이면 지금 다들 퍼질러 자고 있어도 내가 온 마을을 다 깨워 주지. 그런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이 고장 농군들이, 아니면 계집애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기나 합니까요? 그런 비열하고 막돼먹은 것들한테 그런 돈을 매기다니요! 우리 농군 놈이 궐련을 피울 주제나 되나, 그런데 자네는 그놈들한테 궐련을 줬지. 그놈한테서는 구린내가 나는데, 그 강도 놈한테서는. 그리고 계집애들은 몇이 됐든 다 이투성이고. 그런 돈은커녕 공짜로라도 내 딸들을 자네한테 깨워 주지, 지금 막 잠자리에 들었지만, 발로 등짝을 걷어차서라도 자네를 위해 노래를 부르게 할 거야. 요전에는 농군들한테 샴페인을 먹이고, 에이 참!"

트리폰 보리시치가 미탸를 아까워한 것은 괜한 일이었는데, 그때 그 자신이 미탸에게서 샴페인을 여섯 병쯤 몰래 빼돌렸고, 탁자 밑에서

100루블짜리 지폐를 주워 제 주먹에 꼭 쥐었다. 그 지폐는 그대로 그의 주먹 안에 남았다.

"트리폰 보리시치, 그때 나는 여기서 1천 루블을 한두 번 뿌린 게 아니었지. 기억하나?"

"뿌리셨습죠, 나리, 어찌 기억 못 하겠습니까요, 아마 우리 집에 3천 루블은 두고 가셨을 겁니다요."

"그래, 이번에도 그걸 들고 왔어, 보이지?"

그러고는 지폐 뭉치를 꺼내 주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제 듣고 알아들어. 한 시간 뒤에 술이 올 거야, 안주, 피로그, 사탕도. 전부 곧바로 저 위층으로 올려. 안드레이한테 있는 이 상자도 지금 당장 위로 올려서 열고 곧바로 샴페인을 내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집애들이야, 계집애들, 마리야는 꼭……"

그는 짐수레로 돌아서서 자리 밑에서 권총 상자를 꺼냈다.

"셈하자, 안드레이, 받아! 이건 트로이카 삯 15루블, 이건 술값 50루블이야…… 기꺼이 와 준 값, 네 사랑값이야…… 카라마조프 나리를 기억해!"

"겁이 납니다요, 나리……" 안드레이가 머뭇거렸다. "찻값으로 5루블만 주십쇼, 그 이상은 안 받겠습니다요. 트리폰 보리시치가 증인입니다요. 제 어리석은 말을 용서해 주십쇼……"

"뭐가 겁나." 미탸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꺼져 버려!" 그는 5루블을 그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이제 트리폰 보리시치, 나를 조용히 데려가서,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들을 모두 한번 슬쩍 보게 해 줘,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채지 못하게. 그 사람들 어디 있지, 하늘색 방에?"

트리폰 보리시치는 겁먹은 눈으로 미탸를 쳐다보았지만, 곧바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 조심스럽게 그를 현관방으로 데려가서는,

자기는 손님들이 앉아 있는 방 바로 옆의 커다란 첫째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촛불을 들고 나왔다. 그런 다음 살그머니 미탸를 들여보내, 손님들에게 들키지 않고 마음껏 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구석의 어둠 속에 세웠다. 그러나 미탸는 오래 보지 않았고 찬찬히 살펴볼 수도 없었으니, 그 여자를 보자 심장이 쿵쿵 뛰고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식탁 옆쪽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곁 소파에는 얼굴이 곱상하고 아직 아주 젊은 칼가노프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그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것 같았는데, 칼가노프는 그 여자를 보지 않은 채, 식탁 건너 그루셴카 맞은편에 앉은 막시모프에게 무엇이 못마땅한 듯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다. 막시모프는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몹시 웃었다. 소파에는 *그자*가 앉아 있었고, 소파 곁 벽 옆 의자에는 또 다른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소파에 퍼질러 앉아 있는 자는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는데, 미탸의 머리에는 그저 그가 좀 뚱뚱하고 얼굴이 넓적한 작달막한 사내이고, 키는 아마 작을 테고, 무엇에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만 언뜻 스쳤다. 그 동무, 또 다른 낯선 사람은 미탸에게 어쩐지 엄청나게 키가 커 보였다. 그러나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숨이 턱 막혔다. 1분도 서 있지 못하고, 그는 상자를 서랍장 위에 놓고는 몸이 싸늘해지고 얼어붙는 채로 곧장 하늘색 방의 손님들에게 걸어갔다.

"아이!" 맨 먼저 그를 알아본 그루셴카가 놀라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제7장 예전의, 다툴 여지 없는 그 사람

미탸는 그 빠르고 성큼성큼한 걸음으로 식탁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여러분." 그는 큰 소리로, 거의 고함치듯 말을 꺼냈지만 낱말마다 더듬었다.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가 외쳤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갑자기 그루셴카에게 돌아섰다. 그루셴카는 안락의자에서 칼가노프 쪽으로 몸을 비키고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 "나는…… 나도 가는 길이야. 나는 아침까지만이야.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침까지 함께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침까지만, 마지막으로, 바로 이 방에서요?"

이 말은 파이프를 들고 소파에 앉은 뚱뚱한 작은 사내에게 하며 맺었다. 사내는 거드름을 피우며 입술에서 파이프를 떼고 엄하게 말했다.

"판(pan), 우리는 여기서 사사로이 있는 중이오. 다른 방들이 있소."

"아니,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칼가노프가 대꾸했다. "우리하고 같이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분…… 더없이 귀한 분! 나는 언제나 당신을 존경했어요……" 미탸는 기뻐하며 쏜살같이 대꾸하고는 곧바로 식탁 너머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 어쩌면 그렇게 세게 쥐세요! 손가락이 다 부러졌어요." 칼가노프가 웃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쥐어요, 늘 이렇다니까요!" 그루셴카가 아직 쭈뼛거리며 웃음 띤 얼굴로 즐겁게 맞받았는데, 미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난동을 부리지는 않으리라고 갑자기 확신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무서울 만큼 호기심을 품고 여전히 불안하게 그를 뜯어보았다. 그에게는 그 여자를 몹시 놀라게 한 무언가가 있었고, 게다가 이런 순간에 그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요." 왼쪽에서 지주 막시모프도 달콤하게 대꾸했다. 미탸는 그에게도 달려들었다.

"안녕하세요, 당신도 여기 계셨군요, 당신도 여기 계시니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여러분, 나는……" 그는 다시 파이프를 든 판에게 몸을 돌렸다. 아무래도 그를 이 자리의 우두머리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날아왔어요…… 나는 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이 방에서 보내고 싶었어요, 바로 이 방에서…… 나도 내 여왕을…… 떠받들던 이 방에서!…… 용서해 줘, 판!"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나는 날아오면서 맹세했어…… 아, 겁내지 마세요, 내 마지막 밤입니다! 화해의 술을 마시자, 판! 곧 술이 올 거야…… 내가 이걸 가져왔거든……" 그는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지폐 뭉치를 꺼냈다. "허락해 줘, 판! 나는 음악을 원해, 우레 같은 소리, 떠들썩함, 예전 같은 모든 것을…… 그러나 벌레, 쓸데없는 벌레는 땅 위를 기어가다가 사라질 거야! 내 마지막 밤에 내 기쁨의 날을 기리겠어!……"

그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했고, 많은 것을,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튀어나온 것은 이상한 외침들뿐이었다. 판은 꼼짝 않고 그를, 그의 지폐 뭉치를 바라보았고, 그루셴카를 바라보았으며, 보기에도 어리둥절해했다.

"나의 크룰레바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가 말을 꺼내려 했다.

"크룰레바는 또 뭐예요, 여왕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그루셴카가 말을 가로챘다. "당신들이 다들 말하는 걸 들으면 우스워 죽겠어요. 앉아, 미탸,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발 겁주지 마. 겁주지 않을 거지, 안 그럴 거지? 안 그런다면 나는 네가 와서 기뻐……"

"내가, 내가 겁을 준다고?" 미탸가 갑자기 두 손을 위로 쳐들며 소리쳤다. "아, 지나가세요, 그냥 가세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러더니 그는 모두에게, 그리고 물론 그 자신에게도 전혀 뜻밖에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맞은편 벽 쪽으로 돌리고, 두 팔로 의자 등받이를 꽉 끌어안은 채 눈물을 쏟았다. 꼭 등받이를 껴안는 것 같았다.

"저것 봐, 저것 봐, 어쩜 저래!" 그루셴카가 나무라듯 외쳤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올 때도 꼭 저랬어요. 갑자기 말을 꺼내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한 번은 저렇게 울더니, 이제 또 두 번째네. 이런 창피가! 왜 울어? *울 까닭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 여자는 갑자기 수수께끼처럼, 무슨 짜증을 내며 그 짧은 말에 힘을 주어 덧붙였다.

"나는…… 나는 안 울어…… 자, 안녕하세요!" 그는 순식간에 의자에서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웃었는데, 늘 하던 그 뻣뻣하게 끊어지는 웃음이 아니라 소리 없이 길게 이어지는 신경질적인, 온몸이 떨리는 웃음이었다.

"저것 봐, 또…… 자, 기운 내, 기운 내!" 그루셴카가 그를 달랬다. "네가 와서 나는 정말 기뻐, 정말 기뻐, 미탸, 내가 정말 기쁘다는 거 들려? 나는 이 사람이 여기 우리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는 마치 모두에게 하듯 명령조로 말했지만, 그 말은 분명 소파에 앉은 자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고요! 이 사람이 나가면 나도 나갈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그 여자는 갑자기 눈을 번득이며 덧붙였다.

"나의 여왕께서 바라시는 것이 곧 법이오!" 판은 그루셴카의 손에 정중하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판께서 우리 일행에 드시기를 청하오!" 그는 미탸에게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미탸는 또 장광설을 터뜨리려는 뜻이 보이게 다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른 일이 되고 말았다.

"마시자, 판!" 그는 연설 대신 갑자기 말을 툭 끊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나는 또 연설하려는 줄 알았네." 그루셴카가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들어 봐, 미탸." 그 여자는 끈질기게 덧붙였다. "더는 벌떡 일어나지 마. 샴페인을 가져왔다니 그건 잘했어. 나도 마실 거야, 과실주는 질색이거든. 그런데 무엇보다 잘한 건 네가 직접 달려온 거야, 안 그랬으면 지루해 죽을 뻔했어…… 그런데 너 또 흥청망청 놀러 온 거야? 그 돈 좀 주머니에 넣어!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했어?"

미탸는 손에 아직 지폐를 구겨 쥐고 있었는데, 모두가, 특히 판들이 그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재빨리 쭈뼛거리며 지폐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바로 그때 주인이 마개를 딴 샴페인 한 병과 잔들을 쟁반에 받쳐 들고 왔다. 미탸는 병을 움켜잡았지만 너무 당황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 칼가노프가 그에게서 병을 받아 그 대신 술을 따랐다.

"한 병 더, 한 병 더!" 미탸는 주인에게 소리치고는, 그토록 엄숙하게 화해의 술을 마시자고 청했던 판과 잔을 부딪는 것도 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채 갑자기 혼자서 제 잔을 다 비웠다. 그의 얼굴 전체가 갑자기 바뀌었다. 들어올 때의 그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 대신 무언가 갓난아기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는 갑자기 온통 고분고분해지고 낮아진 것 같았다. 그는 모두를 쭈뼛쭈뼛, 기쁘게 바라보며 자주 신경질적으로 키득거렸는데, 다시 귀여움을 받고 다시 집 안에 들어오게 된 잘못한 강아지처럼 고마워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은 듯이 아이

같은 미소를 띠고 넋을 잃고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루셴카를 쳐다볼 때는 끊임없이 웃었고, 제 의자를 그 여자의 안락의자 바로 곁까지 끌어다 붙였다. 그는 두 판도 조금씩 뜯어보았지만 아직 그들을 제대로 헤아리지는 못했다. 소파에 앉은 판은 그 거드름 피우는 자세와 폴란드 억양,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프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파이프를 피우니 좋잖아." 미탸는 바라보며 생각했다. 판의 얼굴은 좀 부석부석하고 벌써 마흔 가까이 되어 보였으며, 아주 조그만 코 밑으로 포마드를 발라 뻔뻔하게 뾰족 세운 아주 가느다란 콧수염 두 가닥이 보였는데, 그 얼굴도 아직은 미탸에게 아무런 의문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시베리아에서 만든 판의 아주 형편없는 가발이, 귀밑머리를 더없이 어리석게 앞으로 빗어 붙인 그 가발조차 미탸를 그다지 놀라게 하지 않았다. "가발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겠지." 그는 행복하게 계속 바라보았다. 벽 옆에 앉은 다른 판은 소파의 판보다 젊었고, 일행 전체를 건방지고 시비조로 바라보며 말없이 경멸을 품고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 판 역시 미탸를 놀라게 한 것은 소파의 판과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아주 큰 키뿐이었다. "일어서면 11베르쇼크는 되겠는걸." 미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이 키 큰 판은 아마 소파의 판의 친구이자 앞잡이, 말하자면 "그의 호위병"일 것이고, 파이프를 든 작은 판이 물론 키 큰 판을 부리고 있으리라는 생각도 스쳤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미탸에게는 지독히도 좋고 다툴 여지 없는 일로 여겨졌다. 작은 강아지의 마음속에서 모든 경쟁심이 숨을 죽였다. 그루셴카에 대해서도, 그 여자가 한 몇 마디 말의 수수께끼 같은 어조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저 그 여자가 자기에게 다정하다는 것, 그 여자가 자기를 "용서하고" 곁에 앉혔다는 것만 온 마음을 떨며 알아들었다. 그 여자가 잔의 술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보고 그는 넋을 잃을 만큼 황홀했다. 그러나 일행의 침묵이

갑자기 그를 놀라게 한 듯,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으로 모두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앉아만 있죠, 여러분은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를 드러내고 웃는 그의 눈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줄곧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줄곧 웃고 있었어요." 칼가노프가 꼭 그의 생각을 알아맞히기라도 한 듯 막시모프를 가리키며 갑자기 말을 꺼냈다.

미탸는 쏜살같이 칼가노프를 쳐다보았다가 곧바로 막시모프를 쳐다보았다.

"거짓말을?" 그는 곧바로 무엇이 기쁜지 그 짧고 뻣뻣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네. 글쎄, 이 사람 주장이 1820년대에 우리 기병대가 모조리 폴란드 여자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독한 헛소리잖아요, 안 그래요?"

"폴란드 여자들하고?" 미탸가 다시 맞장구쳤는데, 이제는 아주 넋을 잃고 황홀해했다.

칼가노프는 미탸와 그루셴카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판에 대해서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고, 어쩌면 아예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며, 무엇보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막시모프였다. 그는 막시모프와 우연히 이리로 왔고, 판들은 여기 여관에서 난생처음 만났다. 그루셴카는 전부터 알았고, 한번은 누군가와 그 여자의 집에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는 그 여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여자가 아주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미탸가 오기 전에는 그를 쓰다듬기까지 했지만, 그는 어쩐지 무덤덤했다. 그는 스무 살이 넘지 않은 젊은이였는데, 멋지게 차려입었고, 아주 귀엽고 하얀 얼굴에 숱 많고 아름다운 아마빛

머리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하얀 얼굴에는 어여쁜 연하늘빛 눈이 있었고, 그 눈에는 영리하고 때로는 깊은 표정, 나이에 맞지 않는 표정까지 서려 있었으니, 이 젊은이가 때로는 꼭 아기처럼 말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랬다. 대체로 그는 아주 별났고 변덕스럽기까지 했지만, 언제나 다정했다. 때로 그의 얼굴 표정에는 무언가 움직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것이 스쳤는데, 그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제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맥이 풀리고 게을러지는가 하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보기에 더없이 하찮은 까닭으로 그럴 때도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벌써 나흘째 데리고 다녀요." 그는 낱말을 조금 게으르게 늘이듯 말을 이었지만, 멋 부리는 기색은 하나도 없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기억하시죠, 그때 당신 동생이 이 사람을 마차에서 밀어서 이 사람이 나동그라진 뒤부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일로 나를 아주 궁금하게 해서 시골로 데려갔는데, 이제는 줄곧 거짓말만 해서 같이 있기가 창피해요. 다시 데려다주는 길이에요……"

"판은 폴란드 귀부인을 본 적도 없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구려." 파이프를 든 판이 막시모프에게 한마디 했다.

파이프를 든 판은 러시아어를 꽤 잘했고, 적어도 그런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했다. 그는 러시아어 낱말을 쓰더라도 폴란드 말투로 비틀었다.

"하지만 저도 폴란드 귀부인하고 결혼했었는걸요." 막시모프가 키득거리며 대답했다.

"그럼 당신이 기병대에서 복무했다는 거예요? 기병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당신이 기병이었어요?" 칼가노프가 곧바로 끼어들었다.

"그래, 정말이지 이 사람이 기병이었다고? 하하!" 미탸가 소리쳤다. 그는 귀를 기울여 탐욕스럽게 듣고 있었고, 누가 말을 꺼낼 때마다 묻는 눈길을 재빨리 그 사람에게 옮겼는데, 꼭 저마다에게서 무슨 엄청난 말을 듣기라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요, 그게 말입니다요." 막시모프가 그에게 돌아섰다. "제 말은요, 거기 그 아가씨들이…… 예쁜 아가씨들이요…… 우리 창기병하고 마주르카를 추고 나면…… 아가씨가 그 사람하고 마주르카를 다 추고 나면 곧바로 그 사람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오른다는 겁니다요, 새끼 고양이처럼요…… 하얀 새끼 고양이처럼요…… 그런데 아버지 판하고 어머니 판이 보면서도 허락한다는 겁니다요…… 허락한다니까요…… 그러면 창기병은 이튿날 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요…… 그렇습니다요…… 청혼을 하는 겁니다요, 히히!" 막시모프가 말을 맺으며 키득거렸다.

"판은 라이다크요!" 의자에 앉은 키 큰 판이 갑자기 투덜거리며 다리를 꼬았다. 미탸의 눈에는 기름 먹인 그의 커다란 장화와 두껍고 더러운 밑창만 들어왔다. 대체로 두 판은 꽤 꾀죄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아니, 라이다크라니! 저 사람이 왜 욕을 해요?" 갑자기 그루셴카가 화를 냈다.

"판 아그리피나, 이 판이 폴란드 땅에서 본 것은 시골 계집들이지 귀족 부인들이 아니오." 파이프를 든 판이 그루셴카에게 한마디 했다.

"그건 믿어도 좋소!" 의자에 앉은 키 큰 판이 경멸하듯 잘라 말했다.

"별꼴이야! 말 좀 하게 내버려 둬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방해해요? 저 사람들하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루셴카가 쏘아붙였다.

"방해하지 않소, 판." 가발을 쓴 판이 그루셴카를 오래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하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입을 다물고 다시 파이프를 빨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엔 판이 옳은 말을 했어요." 꼭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걸린 것처럼 칼가노프가 다시 열을 올렸다. "이 사람은 폴란드에 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폴란드 이야기를 해요? 폴란드에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요, 스몰렌스크현에서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아내 말입니다요, 장래의 아내요, 그보다 먼저 창기병이 어머니 판하고, 이모하고, 또 다 큰 아들을 둔 친척 여자 하나하고 함께 데려왔습니다요. 그건 진짜 폴란드에서, 바로 폴란드에서요…… 그러고는 저한테 양보했습니다요. 우리 중위 한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요. 처음에는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습니다요. 그 여자가 절름발이로 드러났거든요……"

"그럼 절름발이하고 결혼했어요?" 칼가노프가 외쳤다.

"절름발이하고요. 그때 그 두 사람이 저를 조금 속이고 숨긴 겁니다요. 저는 그 여자가 깡충깡충 뛰는 줄 알았습니다요…… 줄곧 깡충깡충 뛰길래 즐거워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요……"

"당신한테 시집오는 게 기뻐서요?" 칼가노프가 무슨 아이처럼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네, 기뻐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까닭이었습니다요. 나중에 우리가 혼례를 올리고 나니, 혼례 날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여자가 털어놓고는 아주 애틋하게 용서를 빌더군요, 어릴 때 웅덩이를 한 번 뛰어넘다가 그만 다리를 다쳤다고요, 히히!"

칼가노프는 더없이 아이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루셴카도 웃음을 터뜨렸다. 미탸는 행복의 꼭대기에 있었다.

"아세요, 아세요,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칼가노프가 미탸에게 외쳤다. "그리고 아세요, 이 사람은 두 번

결혼했는데요, 이건 첫 아내 이야기예요, 그런데 둘째 아내는, 아세요, 달아나서 지금도 살아 있대요, 그거 아세요?"

"설마?" 미탸가 얼굴에 엄청난 놀라움을 드러내며 재빨리 막시모프에게 돌아섰다.

"네, 달아났습니다요, 그런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요." 막시모프가 겸손하게 확인했다. "웬 무슈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 시골 땅을 맨 먼저 미리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요. 당신은 교육받은 사람이니 당신 몫의 빵은 혼자서도 찾을 거예요, 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주저앉혔습니다요. 한번은 어느 존경스러운 주교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자네 아내 하나는 절름발이였고, 또 하나는 발이 너무 가벼웠구먼, 하고요, 히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칼가노프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리고 자주 거짓말을 하지만, 오로지 모두를 즐겁게 해 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비열한 게 아니잖아요, 비열한 게 아니죠? 있잖아요, 나는 가끔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은 아주 비열하지만, 타고나게 비열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득을 얻으려고 비열하게 굴지만, 이 사람은 그냥, 타고나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이 사람은 고골이 『죽은 혼』에서 바로 자기 이야기를 지었다고 우겨요(어제 오는 내내 말다툼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거기 노즈드료프가 회초리로 때려서 재판에 넘겨진 지주 막시모프가 나오잖아요, '술 취한 상태에서 지주 막시모프에게 회초리로 인신 모욕을 가한 죄로', 네, 기억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게 바로 자기였고 자기가 회초리를 맞았다고 우겨요! 그게 말이 돼요? 치치코프가 돌아다닌 건 아무리 늦게 잡아도 1820년대, 그것도 초반이니까 햇수가

전혀 안 맞아요. 그때 이 사람이 회초리를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칼가노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진심으로 열을 올렸다. 미탸는 아낌없이 그의 관심사에 빠져들었다.

"아니, 회초리를 맞았다면야!" 그가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맞았다기보다는, 그냥 좀." 막시모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냥 좀이라니요? 맞았든지, 안 맞았든지지."

"크투라 고지나, 파네?(몇 시요?)" 파이프를 든 판이 지루한 얼굴로 의자에 앉은 키 큰 판에게 물었다. 키 큰 판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두 사람 다 시계가 없었다.

"이야기 좀 하면 어때서요? 다른 사람들도 말하게 둬요. 당신들이 지루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루셴카가 다시 발끈했다.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이 보였다. 미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스친 것 같았다. 이번에는 판이 보기에도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판, 야 니츠 니 무벵 프로치브, 니츠 니 포베지아웸.(나는 반대하지 않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래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이야기해." 그루셴카가 막시모프에게 소리쳤다. "왜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요, 다 바보 같은 짓이라서요." 막시모프는 보기에도 흐뭇하게, 그리고 조금 새침을 떨며 곧바로 말을 받았다. "게다가 고골 작품에서는 그게 다 우의적인 꼴로만 나옵니다요. 성을 모두 우의적으로 붙였거든요. 노즈드료프는 노즈드료프가 아니라 노소프였고, 쿠브신니코프는 아예 닮지도 않았습니다요, 시크보르네프였으니까요. 그런데 페나르디는 정말 페나르디였습니다요,

다만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 페트로프였죠. 그리고 페나르디 아가씨는 예뻤습니다요, 쫄쫄이 바지를 입은 다리도 예뻤고요, 반짝이를 단 짧은 치마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는데, 다만 네 시간이 아니라 고작 4분이었습니다요…… 그리고 모두를 홀렸습죠……"

"그러니까 왜 맞았냐고요, 당신은 왜 회초리를 맞았냐고?" 칼가노프가 소리를 질렀다.

"피롱 때문입니다요." 막시모프가 대답했다.

"무슨 피롱?" 미탸가 소리쳤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피롱 말입니다요. 그때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요, 술집에서, 바로 이 장터에서요. 그 사람들이 저를 불렀는데, 저는 맨 먼저 풍자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요. '그대인가, 부알로, 이 무슨 우스운 차림인가.' 그러자 부알로가 가면무도회에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는 길이라고 대답합니다요, 히히. 그 사람들이 그걸 제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요. 그래서 저는 얼른 다른 걸 읊었습니다요.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다들 아는 아주 유명하고 신랄한 시였습니다요.

그대는 사포, 나는 파온, 그건 다투지 않으리.
하지만 나로선 슬프게도
그대는 바다로 가는 길을 모르네.

"그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나서 저를 점잖지 못하게 욕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하필 제 불운으로, 일을 바로잡아 보려고 그 자리에서 피롱에 대한 아주 교양 있는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요, 피롱이 프랑스 아카데미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갚음을 하려고 자기 묘비에 새길 비명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여기 피롱 잠들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노라,
아카데미 회원조차도.

"그 사람들이 그냥 저를 붙잡아서 회초리로 때렸습니다요."

"그러니까 왜요, 왜?"

"제 교양 때문에요. 사람이 사람을 회초리로 때릴 까닭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요." 막시모프가 온순하고 훈계하듯 결론지었다.

"에이, 그만둬, 다 시시해,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그루셴카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미탸는 흠칫하더니 곧바로 웃음을 그쳤다. 키 큰 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무리가 아닌 자리에서 따분해하는 사람처럼 오만한 모습으로 두 손을 뒷짐 지고 방 안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걷기 시작했다.

"어머, 걸어 다니기 시작했네!" 그루셴카가 경멸하듯 그를 쳐다보았다. 미탸는 불안해졌다. 게다가 소파에 앉은 판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그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도 눈치챘다.

"판." 미탸가 소리쳤다. "마시자, 판! 그리고 다른 판하고도. 마십시다, 판 여러분!" 그는 순식간에 잔 세 개를 모아 샴페인을 따랐다.

"폴란드를 위하여, 판 여러분, 당신들의 폴란드를 위하여, 폴란드 땅을 위하여 마시겠어!" 미탸가 외쳤다.

"바르조 미 토 미워, 파네, 비피옘.(이거 참 반갑소, 판, 마십시다.)" 소파에 앉은 판이 거드름을 피우며 너그럽게 말하고는 제 잔을 들었다.

"그리고 다른 판도, 이름이 뭐더라, 이봐요, 존귀하신 판, 잔을 들어!" 미탸가 부산을 떨었다.

"판 브루블렙스키요." 소파에 앉은 판이 일러 주었다.

판 브루블렙스키는 몸을 흔들며 식탁으로 다가와 선 채로 잔을 받았다.

"폴란드를 위하여, 판 여러분, *만세*!" 미탸가 잔을 들고 소리쳤다.

세 사람이 모두 마셨다. 미탸는 병을 움켜잡고 곧바로 다시 잔 세 개를 채웠다.

"이제 러시아를 위하여, 판 여러분, 그리고 형제가 됩시다!"

"우리한테도 따라 줘." 그루셴카가 말했다. "러시아를 위해서라면 나도 마실래."

"나도요." 칼가노프가 말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요…… 러시아 할멈, 늙은 할머니를 위해서요." 막시모프가 키득거렸다.

"모두, 모두!" 미탸가 외쳤다. "주인, 병을 더!"

미탸가 가져온 것 가운데 남은 세 병을 모두 가져왔다. 미탸가 술을 따랐다.

"러시아를 위하여, *만세*!" 그가 다시 소리 높여 외쳤다. 판들 말고는 모두 마셨고, 그루셴카는 제 잔을 단숨에 다 비웠다. 그런데 판들은 제 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판 여러분, 왜 그래요?" 미탸가 외쳤다. "당신들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판 브루블렙스키가 잔을 들어 올리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1772년까지의 국경 안에 있는 러시아를 위하여![1]"

"오토 바르조 펭크네!(이거 참 좋소!)" 다른 판이 소리쳤고, 두 사람은 단번에 제 잔을 비웠다.

"당신들은 바보들이야, 판 여러분!" 갑자기 미탸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

"파-네!!" 두 판이 위협하듯 소리치며 수탉들처럼 미탸에게 덤벼들 듯 마주 섰다. 특히 판 브루블렙스키가 부르르 끓어올랐다.

"알레 니 모주나 니 미에치 스와보시치 도 스보에고 크라유?(제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입 닥쳐요! 싸우지 말아요! 싸움은 안 돼요!" 그루셴카가 명령하듯 소리치며 조그만 발로 바닥을 쿵 굴렀다. 그 여자의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이 번득였다. 방금 마신 술잔이 효과를 낸 것이다. 미탸는 무섭게 겁이 났다.

"판 여러분, 용서해 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브루블렙스키, 판 브루블렙스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라도 좀 입 다물고 앉아, 이 바보야!" 그루셴카가 독살스럽게 짜증을 내며 그에게 쏘아붙였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모두 잠잠해졌고, 모두 서로를 쳐다보았다.

"여러분, 모든 게 내 탓입니다!" 그루셴카의 외침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미탸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앉아 있지? 그럼 우리 뭘 할까요…… 즐겁게, 다시 즐겁게 놀려면?"

"아, 정말 지독히도 재미가 없네요." 칼가노프가 게으르게 웅얼거렸다.

"아까처럼 반크 놀음이나 한판 하시면 어떨깝쇼……" 막시모프가 갑자기 키득거렸다.

"반크? 훌륭해요!" 미탸가 맞장구쳤다. "판 여러분만 괜찮다면……"

"푸지노요, 판!" 소파에 앉은 판이 마지못한 듯 대꾸했다……

"그 말이 맞소." 판 브루블렙스키도 맞장구를 쳤다.

"푸지노? 푸지노가 대체 뭐예요?" 그루셴카가 물었다.

"늦었다는 뜻이오, 판, 늦었소, 시간이 늦었다는 말이오." 소파에 앉은 판이 풀어 말했다.

"저 사람들은 뭐든지 늦었고, 뭐든지 안 된대!" 그루셴카가 짜증이 나서 거의 꽥 소리를 질렀다. "자기들이 지루하게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지루해야 한다는 거야. 미탸, 네가 오기 전에도 저 사람들은 줄곧 이렇게 입을 다물고 나한테 거드름을 피웠어……"

"나의 여신이여!" 소파에 앉은 판이 소리쳤다. "초 무비시, 토 시엥 스타니에. 비젱 니에와스켕, 이 예스템 스무트니.(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보이니, 그래서 내가 슬픈 것이오.) 예스템 고투프(나는 준비되었소), 판." 그는 미탸에게 몸을 돌려 말을 맺었다.

"시작해, 판!" 미탸가 맞장구치며 주머니에서 지폐를 홱 꺼내더니 그 가운데 100루블짜리 두 장을 식탁에 내놓았다.

"나는 당신한테 많이 잃어 주고 싶어, 판. 카드를 들어, 판돈을 걸어!"

"카드는 주인에게서 받아야 하오, 판." 작은 판이 끈질기고 진지하게 말했다.

"토 나일렙시 스포수프.(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오.)" 판 브루블렙스키가 맞장구쳤다.

"주인에게서? 좋아, 알겠어, 주인에게서 받자고, 잘 생각했어요, 판 여러분! 카드!" 미탸가 주인에게 명령했다.

주인은 뜯지 않은 카드 한 벌을 가져와서, 계집애들이 벌써 모이고 있고 침발롬을 든 유대 녀석들도 아마 곧 올 테지만 먹을 것을 실은 트로이카는 아직 닿지 못했다고 미탸에게 알렸다. 미탸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지금 당장 지시를 하려고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계집애들은 겨우 셋만 왔고, 마리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게다가 그 자신도 어떻게 지시를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달려 나왔는지 몰랐고, 그저 상자에서 선물로 줄 과자, 막대사탕과 엿을 꺼내 계집애들에게 나눠 주라고 일렀을 뿐이었다. "그리고 안드레이한테 보드카를, 보드카를 안드레이한테!" 그는 서둘러 명령했다. "내가 안드레이를 모욕했어!" 그때 그의 뒤를 따라 달려 나온 막시모프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5루블만 주십쇼." 그가 미탸에게 속삭였다. "저도 반크 놀음에 한번 걸어 보고 싶습니다요, 히히!"

"좋아요, 훌륭해요! 10루블 가져가세요, 자!" 그는 다시 주머니에서 지폐를 모두 꺼내더니 10루블을 찾아냈다. "그리고 잃으면 또 와, 또 와……"

"알겠습니다요." 막시모프는 기뻐하며 속삭이고는 홀로 달려갔다. 미탸도 곧바로 돌아와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판들은 벌써 자리 잡고 앉아 카드를 뜯어 놓았다. 그들은 훨씬 상냥하게, 거의 다정하게 쳐다보았다. 소파에 앉은 판은 새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카드를 돌릴 채비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엄숙함까지 서려 있었다.

"나 미에이스차, 파노비에!(자리에 앉으시오, 판 여러분!)" 판 브루블렙스키가 소리 높여 말했다.

"아니요, 나는 더 안 할래요." 칼가노프가 대꾸했다. "아까 벌써 저 사람들한테 50루블을 잃었어요."

"판은 운이 없었소. 판은 다시 운이 좋아질 수도 있소." 소파에 앉은 판이 그를 두고 한마디 했다.

"판돈은 얼마요? 무제한이오?" 미탸가 열을 올렸다.

"듣겠소, 판, 100루블일 수도, 200루블일 수도 있소. 당신이 거는 만큼이오."

"100만 루블!" 미탸가 껄껄 웃었다.

"판 대위는 혹시 판 포드비소츠키 이야기를 들어 보았소?"

"무슨 포드비소츠키?"

"바르샤바에서 무제한 판을 열고 아무나 와서 거는 것이었소. 포드비소츠키가 와서 금화 천 즈워티를 보고 겁니다. 판돈을 몽땅 겁니다. 물주가 말하오. '판 포드비소츠키, 금화를 거오, 아니면 명예를 거오?' '명예를 걸겠소, 판.' 포드비소츠키가 말하오. '그럼 더 좋소, 판.'

물주가 카드를 돌리고, 포드비소츠키가 천 즈워티를 땁니다. '기다리시오, 판.' 물주가 말하더니 상자를 꺼내 100만을 내주오. '가져가시오, 판, 이것이 당신 몫이오(당신 셈이오)!' 판돈이 100만이었던 것이오. '나는 그걸 몰랐소.' 포드비소츠키가 말하오. '판 포드비소츠키.' 물주가 말하오. '당신은 명예를 걸었고, 우리도 명예를 걸었소.' 포드비소츠키는 100만을 가져갔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칼가노프가 말했다.

"판 칼가노프, 점잖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아니오(점잖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소)."

"폴란드 노름꾼이 퍽이나 100만 루블을 내주겠다!" 미탸가 외쳤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용서해, 판, 내 잘못이야, 또 내 잘못이야, 내주고말고, 100만을 내주고말고, 명예를 걸고, 폴란드의 명예를 걸고! 봐, 내가 폴란드 말을 이렇게 하잖아, 하하! 자, 10루블을 건다, 잭으로 간다."

"그럼 저는 1루블을 퀸에, 하트 퀸에, 예쁜 퀸에, 아가씨에게 걸겠습니다요, 히히!" 막시모프는 키득거리며 제 퀸을 내밀더니, 모두에게서 감추려는 듯 식탁 바로 앞까지 다가앉아 식탁 밑에서 얼른 성호를 그었다. 미탸가 땄다. 1루블도 땄다.

"귀퉁이!" 미탸가 소리쳤다.

"저는 또 1루블이요, 저는 그냥 작게, 아주 작게 걸겠습니다요." 1루블을 땄다는 생각에 무섭게 기뻐하며 막시모프가 행복하게 중얼거렸다.

"졌다!" 미탸가 소리쳤다. "세븐에 *갑절*로!"

*갑절*로 건 것도 졌다.

"그만두세요." 갑자기 칼가노프가 말했다.

"*갑절*로, *갑절*로." 미탸는 판돈을 곱으로 올렸는데, *갑절*로 걸기만 하면 모조리 졌다. 그런데 1루블짜리들은 땄다.

"*갑절*로!" 미탸가 분에 차서 고함을 질렀다.

"200루블을 잃었소, 판. 또 200루블을 걸겠소?" 소파에 앉은 판이 물었다.

"뭐, 벌써 200루블을 잃었다고? 그럼 또 200루블! 200루블 모두 *갑절*로!" 그리고 미탸는 주머니에서 돈을 홱 꺼내 200루블을 퀸에 던지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칼가노프가 손으로 그 퀸을 덮었다.

"그만!" 그가 그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짓이에요?" 미탸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만, 안 돼요! 더는 못 하세요."

"왜요?"

"그냥요. 침을 뱉고 일어나세요, 그게 이유예요. 더는 못 하게 할 거예요!"

미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만둬, 미탸, 저 사람 말이 옳을지도 몰라. 그러지 않아도 많이 잃었잖아." 그루셴카도 목소리에 묘한 가락을 띠고 말했다. 두 판이 갑자기 지독히도 모욕당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농담하오(농담이오), 판?" 작은 판이 칼가노프를 엄하게 훑어보며 말했다.

"야크 시엥 포바자시 토 로비치, 파네!(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오!)" 판 브루블렙스키도 칼가노프에게 고함을 질렀다.

"감히, 감히 소리치지 말아요!" 그루셴카가 소리쳤다. "아이고, 칠면조 수탉들 같으니!"

미탸는 그들 모두를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그때 그루센카의 얼굴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그를 놀라게 했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도 아주 새로운 무언가가 스쳤다. 이상한 새 생각이었다!

"판 아그리피나!" 작은 판이 시비조로 온통 시뻘개져서 말을 꺼내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미탸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존귀하신 판, 두 마디만 합시다."

"무엇을 원하오, 판?(무슨 일이오?)"

"저 방으로, 저쪽 방으로 가자. 좋은 말을 두 마디만 해 줄게, 더없이 좋은 말을. 흡족할 거야."

작은 판은 놀라서 겁먹은 눈으로 미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곧 동의했다. 다만 판 브루블렙스키도 꼭 함께 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호위병 말이야? 저 사람도 같이 가자, 저 사람도 있어야지! 저 사람은 꼭 있어야 해!" 미탸가 외쳤다. "갑시다, 판 여러분!"

"어디 가는 거야?" 그루센카가 불안하게 물었다.

"금방 돌아올게." 미탸가 대답했다. 무슨 대담함, 무슨 뜻밖의 기운이 그의 얼굴에서 번득였다. 한 시간 전 이 방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는 판들을 오른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계집애들의 합창단이 모이고 식탁이 차려지던 큰 방이 아니라, 궤짝과 보따리 들을 두고 큰 침대 두 개에 저마다 무명 베개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침실이었다. 그 방 맨 구석의 작은 송판 탁자 위에 촛불이 타고 있었다. 판과 미탸는 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고, 거구의 판 브루블렙스키는 두 사람 옆에서 뒷짐을 지고 섰다. 판들은 엄하게, 그러나 보기에도 호기심을 품고 바라보았다.

"무엇으로 판을 도와 드릴 수 있겠소?" 작은 판이 웅얼거렸다.

"이것으로, 판. 나는 말을 길게 안 할게. 자, 여기 돈이 있어." 그는 지폐를 꺼냈다. "3천 루블을 원하면 가져가고 어디든 네가 아는 데로

떠나."

판은 꼬치꼬치 캐듯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그야말로 미탸의 얼굴에 눈길을 박았다.

"트시 티시엥치, 판?" 그는 브루블렙스키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트시야, 판 여러분, 트시! 들어 봐, 판, 네가 분별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 3천 루블을 가지고 썩 꺼져 버려. 브루블렙스키도 같이 데려가고. 알아들어? 하지만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영원히야. 알겠어, 판, 영원히 바로 이 문으로 나가는 거야. 저기 너 뭐가 있지, 외투, 털외투? 내가 가져다줄게. 지금 당장 트로이카에 말을 매 줄 테니, 그러면 도 비제냐, 판! 응?"

미탸는 자신 있게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무언가 몹시 단호한 것이 판의 얼굴에 스쳤다.

"그럼 루블은, 판?"

"루블은 이렇게 하자, 판. 지금 당장 마차 삯이자 계약금으로 500루블, 그리고 나머지 2천 5백 루블은 내일 읍내에서,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마련할 거야, 땅속에서라도 파내 올 거야!" 미탸가 소리쳤다.

폴란드 사람들은 다시 눈짓을 주고받았다. 판의 얼굴이 나쁜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700루블, 500루블이 아니라 700루블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손에 쥐여 줄게!"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느낀 미탸가 값을 올렸다. "왜 그래, 판? 못 믿겠어? 3천 루블을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잖아. 내가 다 주면 너는 내일 당장 그 여자한테 돌아올 테니까…… 게다가 지금 나한테 3천 루블이 다 있는 것도 아니야, 읍내 집에 있어." 미탸는 겁을 먹고 한마디 할 때마다 풀이 죽으며 웅얼거렸다. "정말이야, 있어, 숨겨 놨어……"

한순간에 남다른 자존심이 작은 판의 얼굴에 빛났다.

"더 바라는 것은 없소?" 그가 비꼬듯 물었다. "프페! 아 프페! (창피하오, 부끄럽소!)" 그러고는 침을 뱉었다. 판 브루블렙스키도 침을 뱉었다.

"네가 침을 뱉는 건 말이야, 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미탸가 절망한 사람처럼 말했다. "그루셴카한테서 더 많이 우려낼 생각이라서야. 너희 둘 다 거세한 수탉들이야, 그게 다야!"

"예스템 도 지비에고 도트크니옹티!(나는 극도로 모욕을 당했소)" 작은 판이 갑자기 가재처럼 시뻘개지더니,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무섭게 분개하여 재빨리 방을 나갔다. 그 뒤를 몸을 흔들며 브루블렙스키가 따라갔고, 그들 뒤로 당황하고 얼이 빠진 미탸가 따라갔다. 그는 그루셴카가 두려웠다. 판이 당장 소리를 질러 댈 것이라고 예감했다. 바로 그렇게 되었다. 판은 홀로 들어가 그루셴카 앞에 연극하듯 섰다.

"판 아그리피나, 나는 극도로 모욕을 당했소!" 그가 외치려 했지만, 그루셴카는 마치 제일 아픈 데를 건드리기라도 한 듯 갑자기 모든 참을성을 잃은 것 같았다.

"러시아 말로, 러시아 말로 해, 폴란드 말은 한 마디도 섞지 마!" 그 여자가 그에게 고함을 질렀다. "전에는 러시아 말을 했잖아, 다섯 해 만에 잊어버리기라도 했어!" 그 여자는 화가 나서 온통 시뻘개졌다.

"판 아그리피나……"

"나는 아그라페나야, 나는 그루셴카야, 러시아 말로 해, 안 그러면 듣지 않을 거야!" 판은 명예심에 씩씩거리더니 러시아 말을 비틀며 빠르고 거들먹거리게 말했다.

"판 아그라페나, 나는 지난 일을 잊고 그것을 용서하러 왔소. 오늘 전까지 있었던 일을 잊으려고……"

"용서한다고? 네가 나를 용서하러 왔다고?" 그루셴카가 말을 끊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렇소, 판(그렇다니까, 판). 나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이오. 그러나 당신의 정부들을 보고 나는 놀랐소(놀랐었소). 판 미탸가 저 방에서 나에게 떠나라고 3천을 주려 했소. 나는 판의 낯짝에 침을 뱉었소."

"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너한테 돈을 주려 했다고?" 그루셴카가 히스테리를 일으키며 소리쳤다. "정말이야, 미탸? 어떻게 감히! 내가 몸 파는 여자야?"

"판, 판." 미탸가 울부짖었다. "이 여자는 깨끗하고 빛나, 나는 한 번도 이 여자의 정부였던 적이 없어! 그건 네가 거짓말한 거야……"

"어떻게 감히 저 사람 앞에서 나를 감싸는 거야." 그루셴카가 울부짖었다. "내가 깨끗했던 건 정조를 지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쿠지마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저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만나면 저 사람한테 비열한 놈이라고 말할 권리를 가지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너한테서 돈을 안 받았어?"

"받으려 했어, 받으려 했다니까!" 미탸가 외쳤다. "다만 3천 루블을 한꺼번에 다 받고 싶어 했는데, 나는 계약금으로 700루블만 주려 했던 거야."

"그럼 뻔하지. 나한테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혼례를 올리러 온 거야!"

"판 아그리피나." 판이 소리쳤다. "나는 기사요, 나는 귀족이오, 라이다크가 아니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으러 왔는데, 보니 새로운 판이오, 예전 같은 판이 아니라, 고집 세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판이오(제멋대로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요)."

"그럼 온 데로 꺼져 버려! 당장 너를 쫓아내라고 시킬 거야, 그러면 쫓아낼 거야!" 그루셴카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바보, 다섯 해 동안 나 자신을 괴롭힌 내가 바보였어! 그것도 저 사람 때문에 괴롭힌 게 전혀 아니야, 앙심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힌 거야! 게다가 이건 전혀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이랬어? 이건 그 사람 아버지 같은 거야! 가발은 대체 어디서 맞췄어? 그 사람은 매였는데, 이건 수오리야. 그 사람은 웃고 나한테 노래를 불러 줬어…… 그런데 나는, 나는 다섯 해 동안 눈물에 젖어 지냈어, 이 저주받을 바보, 이 천한 년, 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년!"

그 여자는 제 안락의자에 털썩 쓰러져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갑자기 왼쪽 옆방에서 마침내 모인 모크로예 계집애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신나는 춤 노래였다.

"이건 소돔이오!" 갑자기 판 브루블렙스키가 고함을 질렀다. "주인, 저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들을 쫓아내시오!"

주인은 벌써 한참 전부터 호기심에 차서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고함 소리를 듣고 손님들이 서로 싸웠다는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방에 나타났다.

"너는 왜 고함을 질러, 목청이 찢어지게?"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무례하게 브루블렙스키에게 말했다.

"짐승 같은 놈!" 판 브루블렙스키가 고래고래 소리치려 했다.

"짐승? 그럼 너는 방금 무슨 카드로 쳤어? 내가 카드 한 벌을 내줬는데, 너는 내 카드를 감췄지! 너는 가짜 카드로 쳤어! 가짜 카드로 쳤으니 나는 너를 시베리아로 보낼 수도 있어, 알아? 가짜 지폐나 매한가지니까……" 그러고는 소파로 다가가서 소파 등받이와 쿠션 사이에 손가락을 쑤셔 넣더니 거기서 뜯지 않은 카드 한 벌을 꺼냈다.

"이게 내 카드야, 뜯지도 않았어!" 그는 카드를 들어 올려 빙 둘러 모두에게 보여 주었다. "저기서 내가 다 봤어, 저놈이 내 카드를 틈새에 쑤셔 넣고 제 걸로 바꿔치기하는 걸. 이 사기꾼 같은 놈, 판은 무슨 판이야!"

"나는 저 판이 두 번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걸 봤어요." 칼가노프가 소리쳤다.

"아이 창피해, 아이 창피해!" 그루셴카가 두 손을 마주 치며 외쳤고, 정말로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아이고, 어쩌면,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미탸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채 다 하기도 전에, 당황하고 격분한 판 브루블렙스키가 그루셴카에게 돌아서서 주먹으로 그 여자를 위협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 화냥년!" 그러나 그가 미처 다 외치기도 전에 미탸가 그에게 달려들어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더니, 순식간에 홀에서 방금 그 두 사람을 데려갔던 오른쪽 방으로 그를 들고 나갔다.

"저기 바닥에 눕혀 놨어!" 그는 곧바로 돌아와 흥분에 숨을 헐떡이며 알렸다. "싸우려 드는군, 이 악당이. 아마 거기서 못 나올 거야!……" 그는 문짝 한쪽을 닫고 다른 쪽은 활짝 열어 둔 채 작은 판에게 외쳤다.

"존귀하신 판, 거기로 같이 가 주시지 않겠소? 프셰프라샴!"

"아이고, 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트리폰 보리시치가 소리쳤다. "저놈들한테서 돈을 도로 빼앗으라고, 저놈들한테 잃은 돈 말이야! 도둑질로 자네한테서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내 50루블을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칼가노프가 대꾸했다.

"나도 내 200루블을, 나도 돌려받고 싶지 않아!" 미탸가 외쳤다. "절대로 돌려받지 않을 거야, 위안으로 남겨 두라지."

"잘했어, 미탸! 장하다, 미탸!" 그루셴카가 소리쳤고, 그 외침에는 무섭도록 독살스러운 가락이 울렸다. 작은 판은 분노로 시뻘개졌지만 위엄을 조금도 잃지 않은 채 문으로 향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그루셴카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판, 예젤리 흐체시 이시치 자 므논, 이지미, 예슬리 니에, 비바이즈드로바!(판,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같이 갑시다. 아니면 잘 있으시오!)"

그리고 그는 분개와 자존심으로 씩씩거리며 거드름을 피우고 문을 지나갔다. 성깔 있는 사람이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뒤에도 그는 판이 자기를 따라오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만큼 제 자신을 높이 쳤다. 미탸는 그의 뒤로 문을 탁 닫았다.

"열쇠로 잠가 버려요." 칼가노프가 말했다. 그러나 자물쇠는 저쪽에서 찰칵 소리를 냈다. 그들이 스스로 잠근 것이다.

"잘됐어!" 그루셴카가 다시 독살스럽고 무자비하게 소리쳤다. "잘됐어! 그리로 가는 게 딱 맞아!"

---

1. 1772년은 제1차 폴란드 분할이 있던 해다. 그 전의 국경이라면 러시아는 그 뒤 빼앗은 폴란드 땅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제8장 헛소리

거의 난장판이, 온 세상을 다 부른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루셴카가 맨 먼저 술을 달라고 소리쳤다. "마시고 싶어, 아주 곤드레만드레 취하고 싶어, 예전처럼. 기억나, 미탸, 기억나, 그때 우리가 여기서 처음 가까워졌을 때!" 미탸 자신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 같았고 "제 행복"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기야 그루셴카는 줄곧 그를 제 곁에서 쫓아 보냈다. "가서 놀아, 저 사람들한테 춤추라고 해, 다들 즐겁게 놀라고 해, '오두막도 춤추고 난로도 춤춰라', 그때처럼, 그때처럼!" 그 여자는 계속 외쳐 댔다. 그 여자는 지독히 흥분해 있었다. 그러자 미탸는 지시를 하러 달려 나갔다. 합창단은 옆방에 모였다. 지금까지 앉아 있던 방은 게다가 비좁기도 했고, 무명 휘장으로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또 폭신한 깃털 요를 깔고 역시 무명 베개를 수북이 쌓은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하기야 이 집의 "깨끗한" 방 네 칸에는 어디나 침대가 있었다. 그루셴카는 바로 문간에 자리를 잡았고, 미탸가 그 여자에게 이리로 안락의자를 가져다주었는데, 처음 여기서 흥청망청 놀던 날, "그때"에도 그 여자는 꼭 그렇게 앉아서 여기서 합창과 춤을 구경했다. 계집애들은 모두 그때 그 계집애들이 모였고, 바이올린과 치터를 든 유대 녀석들도 왔으며,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술과 먹을거리를 실은 트로이카 짐수레도 닿았다. 미탸는 부산을 떨었다. 방에는 구경하러 남들도, 벌써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한 달 전처럼 전에 없던 대접이 있다는 냄새를 맡은 농군들과 아낙들도 들어왔다. 미탸는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끌어안고 얼굴들을 떠올리며 병마개를 따고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술을 따랐다. 샴페인을 탐내는 것은 계집애들뿐이었고, 농군들은 럼과 코냑, 특히 뜨거운 펀치를 더 좋아했다. 미탸는 계집애들 모두에게 코코아를 끓여 주고,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차와 펀치를 내도록 사모바르 세 개가 밤새 끊이지 않고 끓게 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마음껏 대접받게 하라고 일렀다. 한마디로, 무언가 무질서하고 터무니없는 일이 시작되었지만, 미탸는 꼭 제 타고난 물을 만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터무니없어질수록 그는 더욱 기운이 났다. 그 순간 어떤 농군이 돈을 달라고 했다면 그는 곧바로 지폐 뭉치를 통째로 꺼내 이리저리 세지도 않고 나눠 주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미탸를 지키려고 여관 주인 트리폰 보리시치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그의 곁을 맴돌았는데, 그는 이 밤에는 아예 잠자리에 들 생각을 버린 것 같았는데, 그래도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펀치를 겨우 한 잔 드셨을 뿐이다), 제 나름대로 미탸의 이익을 날카롭게 지켜보았다. 필요한 순간이면 그는 다정하고 비굴하게 미탸를 말리고 달래며, "그때"처럼 농군들에게 "궐련과 라인 포도주"를 나눠 주지 못하게 했고, 하느님 맙소사, 돈은 더더욱 못 주게 했으며, 계집애들이 리큐어를 마시고 사탕을 먹는 것에 몹시 분개했다. "이투성이일 뿐입니다요, 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그가 말했다. "저것들을 하나하나 무릎으로 걷어차고, 그걸 영광으로 알라고 해야 합니다요, 저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요!" 미탸는 다시 안드레이를 떠올리고 그에게 펀치를 보내 주라고 했다. "아까 내가 그 사람을 모욕했어." 그는 맥 빠지고 감동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칼가노프는 마시지 않으려 했고 계집애들의 합창도 처음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샴페인을 두어 잔 더 마시더니 무섭게 신이 나서 방들을 돌아다니며 웃고, 노래며 음악이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칭찬했다. 행복하고 얼큰해진 막시모프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역시 취기가 돌기 시작한 그루셴카는 미탸에게 칼가노프를 가리켰다. "어쩌면 저렇게 귀여워, 어쩌면 저렇게 멋진 소년이야!" 그러자 미탸는 황홀해서 칼가노프와 막시모프에게 입을 맞추러 달려갔다. 아, 그는 많은 것을 예감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아직 그에게 그런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일부러 말을 미루는 것이 보이기까지 했으며, 그저 이따금 다정하지만 뜨거운 눈길로 그를 흘끔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 여자는 갑자기 그의 손을 꽉 잡고 힘껏 제게로 끌어당겼다. 그 여자는 그때 문간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까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응? 어떻게 들어왔냐고!…… 나 얼마나 놀랐는데. 너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했어, 응? 정말 그러려고 했어?"

"네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미탸가 행복에 겨워 그 여자에게 웅얼거렸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그의 대답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자, 가…… 가서 놀아." 그 여자는 다시 그를 쫓아 보냈다. "울지는 마, 또 부를게."

그러면 그는 달려가고, 그 여자는 다시 노래를 듣고 춤을 구경하기 시작하며 그가 어디 있든 눈으로 그를 좇았지만, 15분쯤 지나면 다시 그를 불렀고, 그는 다시 달려왔다.

"자, 이제 곁에 앉아서 이야기해 봐, 어제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어떻게 들었어. 누구한테서 맨 먼저 알았어?"

그러면 미탸는 모든 것을 앞뒤 없이, 뒤죽박죽으로, 뜨겁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품이 이상해서 자주 갑자기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다.

"왜 얼굴을 찌푸려?" 그 여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아픈 사람 하나를 두고 왔어. 그 사람이 낫는다면, 낫는다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목숨 열 해라도

내놓겠어!"

"그래, 아픈 사람이라면 하느님께 맡겨. 그런데 정말 내일 총으로 죽으려고 했어, 이 바보야, 대체 뭣 때문에? 나는 너 같은 이런 무모한 사람들이 좋아." 그 여자는 조금 무거워진 혀로 그에게 웅얼거렸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거지? 응? 그런데 정말 너, 이 바보야, 정말로 내일 총으로 죽으려고 했어! 아니, 잠깐 기다려 봐. 내일 내가 너한테 어쩌면 한마디 해 줄지도 몰라…… 오늘 말고 내일 말할게. 그런데 너는 오늘 듣고 싶어? 아니, 나는 오늘은 싫어…… 자, 가, 이제 가서 놀아."

그런데 한번은 그 여자가 무슨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걱정스럽게 그를 불렀다.

"너 왜 슬퍼해? 네가 슬퍼하는 게 보여…… 아니, 정말 보여." 그 여자가 그의 눈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네가 저기서 농군들하고 입을 맞추고 소리를 질러도 나는 뭔가가 보여. 아니, 너는 놀아. 나는 즐거우니까 너도 즐겁게 놀아…… 나는 여기서 누군가를 사랑해, 누군지 맞혀 봐?…… 아이, 저것 봐. 우리 소년이 잠들었어, 취해서. 가엾기도 하지."

그 여자는 칼가노프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칼가노프는 정말로 취해서 소파에 앉은 채 잠깐 잠이 들었다. 취기 하나 때문에 잠든 것도 아니었고, 그는 갑자기 왠지 슬퍼졌다, 아니면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따분해졌다". 마지막에 가서는 술판이 무르익는 데 따라 차츰 지나치게 음탕하고 방자한 것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계집애들의 노래도 그를 몹시 맥 빠지게 했다. 춤도 마찬가지여서, 계집애 둘이 곰으로 분장했고, 막대기를 손에 든 활달한 계집애 스테파니다가 곰을 부리는 사람 흉내를 내며 그 곰들을 "구경시키기" 시작했다. "더 신나게, 마리야." 스테파니다가 소리쳤다. "안 그러면 막대기다!" 마침내 곰들은 어쩐지

아주 점잖지 못하게 바닥에 쓰러졌고, 그 자리에 빽빽이 들어찬 온갖 구경꾼 아낙들과 농군들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놔둬, 그냥 놔둬." 그루셴카가 행복한 얼굴로 격언을 읊듯 말했다. "어쩌다 하루 즐겁게 놀 날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도 말란 말이야?" 그러나 칼가노프는 무엇에 더럽혀지기라도 한 듯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다 돼지 짓이에요, 이 민중이라는 게 다." 그가 자리를 뜨며 한마디 했다. "이건 저 사람들의 봄놀이예요, 여름밤 내내 해를 지키는 놀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특히 들지 않은 것은 신나는 춤가락에 맞춰 부른 "새로 나온" 노래 하나였다. 나리가 지나가며 처녀들에게 물었다는 노래였다.

나리가 처녀들한테 물었네,
처녀들아, 나를 좋아하느냐?

그러나 처녀들은 나리는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리는 아프게 때릴 테니
나는 나리를 안 좋아해.

그다음에는 집시가 지나갔다(노래에서는 '집-시'로 첫 음절에 힘을 주어 불렀다). 이 집시도 마찬가지였다.

집-시가 처녀들한테 물었네,
처녀들아, 나를 좋아하느냐?

그러나 집시도 좋아할 수 없었다.

집-시는 도둑질을 할 테니
나는 눈물 바람을 하겠지.

그렇게 처녀들에게 물으며 지나간 사람이 많았는데, 군인까지 있었다.

군인이 처녀들한테 물었네,
처녀들아, 나를 좋아하느냐?

그러나 군인은 경멸받으며 퇴짜를 맞았다.

군인은 배낭을 메고 갈 테니
나는 그 뒤를……

여기서 더없이 입에 담지 못할 구절이 이어졌는데, 그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불러서 듣던 구경꾼들 사이에 열광을 일으켰다. 일은 마침내 상인에게서 끝났다.

장사꾼이 처녀들한테 물었네,
처녀들아, 나를 좋아하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 좋아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렇다고 했다.

장사꾼은 장사를 할 테니
나는 여왕처럼 살겠지.

칼가노프는 화까지 냈다.

"이건 아주 어제오늘 지은 노래예요." 그가 소리 내어 한마디 했다. "누가 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지어 주는 거야! 철도꾼이나 유대인이 지나가며 처녀들한테 묻는 대목만 빠졌네요. 그 사람들이라면 모두를 이겼을 텐데." 그러고는 거의 모욕을 당한 듯이 그 자리에서 따분하다고 선언하더니 소파에 앉아 갑자기 꾸벅꾸벅 졸았다. 그의 예쁘장한 얼굴은 조금 창백해져서 소파 쿠션에 기대어 젖혀졌다.

"봐, 얼마나 예쁜지." 그루셴카가 미탸를 그에게 데려가며 말했다. "아까 내가 이 사람 머리를 빗겨 줬어. 머리칼이 꼭 아마 같고 숱도 많아……"

그리고 그 여자는 감동하여 그에게 몸을 숙이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칼가노프는 순식간에 눈을 뜨고 그 여자를 쳐다보더니 몸을 일으키며 더없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막시모프는 어디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저 사람이야." 그루셴카가 웃었다. "나하고 잠깐만 앉아 있어. 미탸, 이 사람의 막시모프를 데려와."

알고 보니 막시모프는 계집애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이따금 리큐어를 따라 마시러 달려갔을 뿐이었으며, 코코아는 벌써 두 잔이나 마셨다. 그의 얼굴은 불그레해지고 코는 시뻘게졌으며, 눈은 촉촉하고 달콤해졌다. 그는 달려와서 지금 "어떤 가락에 맞춰" 사보티에르 춤을 추고 싶다고 선언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예절 바른 사교춤을 다 배웠거든요……"

"그래, 가, 같이 가, 미탸. 나는 여기서 저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춤추는지 볼게."

"아니요, 나도, 나도 보러 갈래요." 칼가노프가 외치며 함께 앉아 있자는 그루셴카의 청을 더없이 순진하게 물리쳤다. 그래서 모두 보러 갔다. 막시모프는 정말로 제 춤을 추었지만, 미탸 말고는 거의 아무도 별로 황홀해하지 않았다. 춤이라는 것이 다리를 옆으로 비틀어 발바닥을 위로 쳐들며 무슨 깡충깡충 뛰는 동작뿐이었고, 뛸 때마다 막시모프는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쳤다. 칼가노프는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미탸는 춤춘 사람에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자, 고마워요, 지쳤겠어요. 왜 여기를 쳐다봐요, 사탕 먹고 싶어, 응? 궐련 피우고 싶어?"

"권련으로 주십쇼."

"한잔 마시고 싶지 않아?"

"저는 여기 리큐어를 조금…… 그런데 초콜릿 사탕은 없습니까요?"

"저기 식탁에 한 수레 있잖아, 아무거나 골라, 비둘기 같은 영혼아!"

"아닙니다요, 저는 그런 거 말고요, 바닐라가 든 걸로요…… 늙은이들용으로요…… 히히!"

"아니, 친구, 그런 특별한 건 없어."

"들어 보십쇼!" 노인이 갑자기 미탸의 귀에 바싹 몸을 숙였다. "저기 저 아가씨, 마리유시카 말입니다요, 히히, 될 수만 있다면 그 아가씨하고 어떻게 좀 사귈 수 없을까요, 나리의 친절로……"

"어쭈, 그런 걸 바라나! 안 돼, 친구, 어림없어."

"저는 아무한테도 해코지를 하지 않는데요." 막시모프가 풀 죽어 속삭였다.

"그래, 좋아, 좋아. 여기선 말이야, 친구, 노래하고 춤만 춰. 하기야, 에이, 제기랄! 기다려 봐…… 우선 들어, 먹고 마시고 놀아. 돈 필요하지 않아?"

"나중에나 혹시 모르죠." 막시모프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 좋아……"

미탸는 머리가 불타는 듯했다. 그는 현관방을 지나, 건물 한쪽을 안마당 쪽에서 안으로 빙 둘러 가는 위층 나무 회랑으로 나갔다. 신선한 공기가 그를 되살려 주었다. 그는 어둠 속 구석에 홀로 서 있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흩어졌던 생각들이 갑자기 하나로 모이고 느낌들이 하나로 녹아들었으며, 모든 것이 빛을 내뿜었다. 무섭고 끔찍한 빛이었다! "총으로 죽을 거라면 바로 지금 말고 언제란 말이냐?" 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휙 스쳤다. "권총을 가지러 가서 여기로 가져와 바로 이 더럽고 어두운 구석에서 끝내자." 거의 1분 동안 그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아까 이리로 날아올 때 그의 뒤에는 치욕이, 그가 이미 저질러 버린 완전한 도둑질이, 그리고 그 피가, 피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쉬웠다, 아, 더 쉬웠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지 않았던가. 그는 그 여자를 잃었고, 넘겨주었고, 그

여자는 그에게서 사라졌고, 없어졌으니, 아, 그때는 판결이 그에게 더 쉬웠고 적어도 피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세상에 남아 있을 까닭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지금이 그때와 같은가? 지금은 적어도 유령 하나, 허깨비 하나는 끝장이 났으니, 그 여자의 "예전의" 그 사람, 그 여자의 다툴 여지 없는 숙명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무서운 유령이 갑자기 무언가 아주 조그맣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손에 들려 침실로 옮겨지고 자물쇠로 잠겼다. 그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는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는 이제 그 여자의 눈에서 그 여자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그러니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아, 저주받을! "하느님, 담장 밑에 쓰러진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이 무서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은 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어떨까, 어떨까, 그 노인이 살아 있다면? 아, 그렇다면 나머지 치욕의 수치는 내가 없애 버리겠다, 훔친 돈을 돌려주겠다, 갚겠다, 땅속에서라도 파내 오겠다…… 치욕의 흔적은 내 마음속 말고는 아무 데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러나 아니야, 아니야, 아, 이루어질 수 없는 비겁한 꿈이다! 아, 저주받을!"

그래도 어둠 속에서 무슨 밝은 희망의 빛줄기 같은 것이 그에게 번쩍였다.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달려갔다. 그 여자에게로, 다시 그 여자에게로, 영원한 제 여왕에게로! "그 여자가 사랑해 주는 한 시간, 단 1분이 나머지 온 생애만 한 값어치가 없단 말이냐, 치욕의 고통 속에 사는 생애라 해도?" 이 거친 물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여자에게로, 오직 그 여자에게로,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모든 것을 잊자, 오늘 밤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현관방 바로 앞, 아직 회랑에 있을 때

그는 주인 트리폰 보리시치와 마주쳤다. 주인은 그에게 어쩐지 침울하고 걱정스러워 보였고, 그를 찾으러 오던 길인 것 같았다.

"왜 그래, 보리시치, 나를 찾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요, 나리를 찾은 게 아닙니다요." 주인이 갑자기 얼떨떨해하는 것 같았다. "제가 왜 나리를 찾겠습니까요? 그런데 나리는…… 어디 계셨습니까요?"

"왜 그렇게 시무룩해? 화난 거 아니지? 기다려, 곧 자러 갈 수 있을 거야…… 몇 시야?"

"벌써 세 시는 됐을 겁니다요. 아마 네 시가 넘었을지도 모릅죠."

"끝낼게, 끝낼게."

"무슨 말씀을요, 괜찮습니다요. 얼마든지 계십쇼……"

"저 사람 왜 저래?" 미탸는 언뜻 그렇게 생각하고 계집애들이 춤추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그 여자는 거기 없었다. 하늘색 방에도 없었다. 칼가노프만 혼자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미탸는 휘장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그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 여자는 구석의 궤짝 위에 앉아서 곁에 놓인 침대에 두 팔과 머리를 기댄 채, 남이 듣지 못하게 있는 힘을 다해 버티며 목소리를 죽이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미탸를 보자 그 여자는 그에게 손짓했고, 그가 달려가자 그의 손을 꽉 붙잡았다.

"미탸, 미탸,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 여자가 속삭이며 그에게 말을 꺼냈다. "정말 사랑했어, 다섯 해 내내, 그동안 내내, 내내! 그 사람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내 앙심만 사랑한 걸까? 아니야, 그 사람을! 아, 그 사람을! 내가 내 앙심만 사랑했지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야! 미탸, 그때 나는 겨우 열일곱 살이었어. 그 사람은 그때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쾌활했고, 나한테 노래를 불러 줬어…… 아니면 바보 계집애였던 나한테 그렇게 보였을 뿐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지금은, 하느님, 이건 그 사람이 아니야, 전혀 그 사람이 아니야.

얼굴도 그 사람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나는 얼굴로도 그 사람을 못 알아봤어. 티모페이하고 여기 오면서 나는 줄곧 생각했어, 오는 내내 생각했어.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쳐다볼까?……' 온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나한테 꼭 대야에 담긴 구정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 꼭 선생이 말하는 것 같았어. 모든 게 그렇게 유식하고 거창하고, 그렇게 거만하게 맞이해서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어. 한마디 끼어들 틈도 없었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저 키다리 폴란드 놈을 창피해하는 줄 알았어. 앉아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지. 나는 왜 지금 그 사람하고 아무 말도 못 하는 걸까? 있잖아, 그 사람을 망친 건 그 사람 아내야, 그때 나를 버리고 결혼한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가 저기서 그 사람을 딴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미탸, 이게 무슨 창피야! 아, 창피해, 미탸, 창피해, 아, 내 평생이 창피해!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그 다섯 해, 저주받아라!" 그러고는 다시 눈물을 쏟았지만 미탸의 손은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었다.

"미탸, 이 사람아, 잠깐, 가지 마. 너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 그 여자는 속삭이더니 갑자기 그에게 얼굴을 들었다. "들어 봐, 나한테 말해 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는 여기서 한 사람을 사랑해. 그게 어떤 사람이야? 그걸 나한테 말해 줘." 눈물로 부은 그 여자의 얼굴에 미소가 빛나고, 눈이 어스름 속에서 반짝였다. "아까 매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 바보야, 네가 사랑하는 건 바로 저 사람이야.' 마음이 곧바로 그렇게 속삭였어. 네가 들어와서 모든 걸 환하게 비춰 줬어. '저 사람이 대체 뭘 겁내는 걸까?' 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는 겁을 먹었어, 아주 겁을 먹어서 말도 제대로 못 했어. 저 사람들을 겁내는 건 아닐 거야, 하고 생각했지. 네가 누구를 겁낼 수 있겠어? 저 사람은 나를 겁내는 거야, 하고 생각했어, 오직 나만. 그런데

페냐가 너한테, 이 바보한테 이야기했잖아, 내가 창문으로 알료샤한테, 미텐카를 한 시간쯤 사랑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러 간다고 소리친 걸. 미탸, 미탸, 내가 어떻게, 이 바보가, 너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용서해, 미탸? 나를 용서해, 안 해? 사랑해? 사랑해?"

그 여자는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미탸는 황홀해서 말을 잃고 그 여자의 눈을, 얼굴을, 미소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여자를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괴롭힌 것도 용서해 줄 거야? 나는 앙심 때문에 너희 모두를 괴롭혔어. 그 늙은이도 앙심 때문에 일부러 미치게 만들었어…… 기억나, 네가 한번 우리 집에서 마시다가 잔을 깨뜨렸잖아? 나는 그걸 기억해 뒀다가 오늘 나도 잔을 깨뜨렸어, '내 비열한 마음'을 위해 마셨어. 미탸, 내 매, 왜 나한테 입을 안 맞춰? 한 번 입 맞추더니 떨어져서 쳐다보고, 듣고만 있어…… 내 말을 들어서 뭐 해! 입 맞춰 줘, 더 세게 입 맞춰 줘, 그렇게. 사랑할 거면 사랑하는 거야! 이제 나는 네 종이 될 거야, 평생 네 종이 될 거야! 종이 되는 건 달콤해!…… 입 맞춰 줘! 나를 때려, 나를 괴롭혀, 나한테 무슨 짓이든 해…… 아, 정말 나는 괴롭힘을 당해야 해…… 잠깐! 기다려, 나중에, 이렇게는 싫어……" 그 여자는 갑자기 그를 밀쳐 냈다. "저리 가, 미치카. 이제 가서 술을 실컷 마실 거야, 취하고 싶어, 당장 취해서 춤추러 갈 거야,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그 여자는 그에게서 몸을 빼내 휘장 밖으로 나갔다. 미탸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여자를 따라 나갔다. "그래, 좋아, 좋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단 1분을 위해 온 세상을 내주겠어." 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루셴카는 정말로 샴페인을 또 한 잔 단숨에 들이켜고는 갑자기 몹시 취했다. 그 여자는 행복한 미소를 띠고 아까 그

자리 안락의자에 앉았다. 두 뺨은 불타오르고 입술은 달아올랐으며, 번득이던 눈은 흐리멍덩해지고 정열적인 눈길이 손짓했다. 칼가노프조차 무엇이 가슴을 문 것처럼 그 여자에게 다가왔다.

"아까 네가 잘 때 내가 입 맞춘 거 알았어?" 그 여자가 그에게 웅얼거렸다. "나 이제 취했어, 그렇다고…… 그런데 너는 안 취했어? 그런데 미탸는 왜 안 마셔? 왜 안 마셔, 미탸, 나는 마셨는데 너는 안 마시네……"

"취했어! 그러지 않아도 취했어…… 너한테 취했어, 이제는 술에도 취하고 싶어." 그는 한 잔을 더 마셨는데, 그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오직 이 마지막 잔 때문에 취했다. 갑자기 취해 버렸다. 그때까지는 줄곧 멀쩡했고, 그 자신도 그것을 기억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헛소리 속에서처럼 그의 둘레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는 걸어 다니고 웃고 모두에게 말을 걸었는데, 모든 것을 이미 정신없이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안에서는 오직 움직이지 않는 타는 듯한 한 가지 감정만이, 나중에 그가 회상한 말로는 "꼭 영혼 속에 뜨거운 숯이 들어 있는 것처럼" 시시각각 느껴졌다. 그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곁에 앉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 그 여자는 지독히도 말이 많아져서 모두를 제게로 불렀고, 합창단에서 어떤 계집애를 갑자기 손짓해 불러서는, 그 계집애가 다가오면 입을 맞추고 보내 주거나 때로는 손으로 성호를 그어 주었다. 1분만 더 있으면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었다. 그 여자가 막시모프를 부르는 이름대로 하면 "늙은이"도 그 여자를 몹시 즐겁게 해 주었다. 그는 시시각각 달려와 그 여자의 손에,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었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부르는 어떤 옛 노래에 맞춰 춤을 하나 더 추었다. 특히 후렴에 맞춰 열을 내며 깡충거렸다.

돼지는 꿀꿀, 꿀꿀,
송아지는 음매, 음매,
오리는 꽥꽥, 꽥꽥,
거위는 꽉꽉, 꽉꽉.
암탉은 현관방을 거닐며,
꼬꼬꼬, 꼬꼬, 중얼거렸네,
아이, 아이, 중얼거렸네!

"저 사람한테 뭐라도 줘, 미탸." 그루셴카가 말했다. "선물을 줘, 가난한 사람이잖아. 아, 가난한 사람들, 모욕당한 사람들!…… 있잖아, 미탸, 나는 수도원에 갈 거야. 아니, 정말로, 언젠가는 갈 거야. 알료샤가 오늘 나한테 평생 간직할 말을 해 줬어…… 그래…… 하지만 오늘은 춤이나 추자. 내일은 수도원, 오늘은 춤을 추자. 나는 장난치고 싶어요, 착한 사람들, 그게 어때서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거예요. '나의 귀여운 죄인들아, 오늘부터 모두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용서를 빌러 갈 거예요. '착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계집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요.' 나는 짐승이야, 그렇다고. 그런데도 기도하고 싶어. 나는 양파 한 뿌리를 줬어. 나 같은 악한 계집도 기도하고 싶은 거야! 미탸, 춤추게 놔둬, 방해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상은 좋아. 우리가 더러워도 세상은 좋아. 우리는 더럽고 좋아, 더럽기도 하고 좋기도 해…… 아니, 말해 봐요, 내가 물을게요, 다들 이리 와요, 내가 물을게요. 다들 나한테 이걸 말해 줘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잖아,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루셴카는 점점 더 취해 가며 그렇게 웅얼거리다가, 마침내 지금 자기가 직접 춤을 추고 싶다고 대놓고 선언했다. 그 여자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비틀거렸다. "미탸, 이제 나한테 술 주지 마.

달라고 해도 주지 마. 술은 마음을 가라앉혀 주지 않아. 모든 게 빙빙 돌아, 난로도, 모든 게 빙빙 돌아. 춤추고 싶어. 다들 내가 춤추는 걸 봐요…… 내가 얼마나 잘, 얼마나 멋지게 춤추는지……"

진지한 뜻이었다. 그 여자는 주머니에서 하얀 아마포 손수건을 꺼내더니 춤출 때 흔들려고 그 끝을 조그만 오른손에 쥐었다. 미탸가 부산을 떨었고, 계집애들은 첫 손짓에 맞춰 일제히 춤 노래를 터뜨리려고 채비를 하며 잠잠해졌다. 막시모프는 그루셴카가 직접 춤을 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자 기뻐서 꽥 소리를 지르더니, 노래를 부르며 그 여자 앞에서 깡충거리려 했다.

다리는 가늘고, 옆구리는 쨍쨍,
꼬리는 꼬부랑.

그러나 그루셴카는 손수건을 그에게 휘둘러 그를 쫓아 버렸다.

"쉿! 미탸, 왜 안 와? 다들 오라고 해…… 구경하라고. 저 갇힌 사람들도 불러…… 왜 저 사람들을 가뒀어? 내가 춤춘다고 말해, 저 사람들도 내가 춤추는 걸 보라고……"

미탸는 술 취해 휘청거리며 잠긴 문으로 다가가 판들을 향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봐, 너희들…… 포드비소츠키들! 나와, 이 여자가 춤추고 싶대, 너희를 부르고 있어."

"라이다크!" 판들 가운데 누군가가 대답으로 소리쳤다.

"그럼 너는 비열한 라이다크야! 쪼끄만 비열이 새끼야, 그게 너야."

"폴란드를 비웃는 건 그만두시죠." 역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취한 칼가노프가 격언을 읊듯 한마디 했다.

"입 다물어, 꼬마야! 내가 저놈한테 비열한 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폴란드 전체에 비열한 놈이라고 한 건 아니야. 라이다크 하나가

폴란드는 아니잖아. 입 다물어, 귀여운 꼬마야, 사탕이나 먹어."

"아이, 어쩌면! 꼭 사람도 아닌 것처럼. 저 사람들은 왜 화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 그루셴카가 말하고는 춤을 추러 나섰다. 합창단이 "아, 현관방아, 내 현관방아"를 터뜨렸다. 그루셴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술을 반쯤 벌리고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흔들려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크게 비틀거리더니 어리둥절해서 방 한가운데 멈춰 섰다.

"기운이 없어……" 그 여자가 무슨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기운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잘못했어요……"

그 여자는 합창단에게 절을 하고, 이어서 사방에 차례로 절을 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잔 하셨네, 마님, 한잔 하셨어, 예쁜 마님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렸다.

"취하셨습니다요." 막시모프가 키득거리며 처녀들에게 풀어 말해 주었다.

"미탸, 나 좀 데려가 줘…… 나를 데려가, 미탸." 그루셴카가 맥없이 말했다. 미탸는 그 여자에게 달려가 그 여자를 두 팔로 안아 들고 그 귀한 전리품을 품은 채 휘장 너머로 달려갔다. "이제 나는 가야겠다." 칼가노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색 방을 나가며 등 뒤로 두 문짝을 모두 닫았다. 그러나 홀의 잔치는 울리고 이어졌으며, 더욱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미탸는 그루셴카를 침대에 눕히고 그 여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파고들었다.

"나를 건드리지 마……" 그 여자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그에게 웅얼거렸다. "건드리지 마, 내가 네 것이 될 때까지는…… 네 것이라고 말했지만, 건드리지는 마…… 봐줘…… 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 사람들 곁에서는 안 돼. 저 사람이 여기 있어. 여기는 역겨워……"

"분부대로! 생각도 안 해…… 받들어 모실게!……" 미탸가 중얼거렸다. "그래, 여기는 역겨워, 아, 비천해."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품에서 놓지 않은 채 침대 곁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알아, 너는 짐승이긴 하지만 고결한 사람이야." 그루셴카가 힘겹게 말했다. "이건 떳떳하게 해야 해…… 앞으로는 떳떳하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도 떳떳하게, 우리도 착하게, 짐승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해…… 나를 데려가, 멀리 데려가, 알아들어…… 나는 여기는 싫어, 멀리, 멀리……"

"아, 그래, 그래, 꼭 그렇게 할게!" 미탸가 그 여자를 품에 꽉 껴안았다. "너를 데려갈게, 날아가자…… 아, 그 피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온 생애를 단 한 해와 바꿔 내주겠어!"

"무슨 피?" 그루셴카가 어리둥절해서 되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미탸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루샤, 너는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데, 나는 도둑이야. 나는 카치카한테서 돈을 훔쳤어…… 치욕이야, 치욕이야!"

"카치카한테서? 그 아가씨한테서? 아니야, 너는 안 훔쳤어. 그 여자한테 돌려줘, 내 돈 가져가…… 왜 소리를 질러? 이제 내 것은 다 네 거야. 우리한테 돈이 다 뭐야? 우리는 돈 없이도 다 탕진해 버릴 거야……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탕진을 안 하겠어. 그보다 우리 같이 가서 땅을 갈자. 나는 바로 이 손으로 땅을 긁고 싶어. 일을 해야 해, 알아들어? 알료샤가 그렇게 시켰어. 나는 네 정부가 아니라 너한테 충실한 여자가 될 거야, 네 종이 될 거야, 너를 위해 일할 거야. 우리 둘이 그 아가씨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절하고 떠나자. 용서하지 않아도 그냥 떠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여자한테 돈을 갖다줘, 그리고 나를 사랑해…… 그 여자는 사랑하지 마. 더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마.

사랑하면 그 여자를 목 졸라 죽일 거야…… 바늘로 그 여자의 두 눈을 찔러 버릴 거야……"

"너를 사랑해, 너 하나만, 시베리아에서도 사랑할 거야……"

"왜 시베리아야? 그래도 뭐, 원하면 시베리아도 좋아, 아무래도 좋아…… 일하면 되지…… 시베리아에는 눈이 있어…… 나는 눈 위로 썰매 타고 가는 게 좋아…… 방울도 있었으면 좋겠어…… 들려, 방울이 울려…… 어디서 방울이 울리는 걸까? 누가 오나 봐…… 이제 울리지 않네."

그 여자는 맥없이 눈을 감더니 갑자기 1분쯤 잠든 것 같았다. 방울은 정말로 어디 먼 데서 울리다가 갑자기 그쳤다. 미탸는 그 여자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방울이 그친 것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갑자기 노래도 그치고, 노래와 술 취한 소란 대신 온 집 안에 별안간 죽음 같은 고요가 깃든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루셴카가 눈을 떴다.

"뭐야, 내가 잤어? 그래…… 방울…… 나는 자면서 꿈을 꿨어. 내가 눈 위로 썰매를 타고 가는 꿈…… 방울이 울리고, 나는 꾸벅꾸벅 졸아. 정든 사람하고, 너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았어. 멀리, 아주 멀리…… 너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너한테 바싹 붙었어. 추운 것 같았는데 눈은 반짝이고…… 있잖아, 밤에 눈이 반짝이고 달이 내려다보면, 꼭 내가 땅 위가 아닌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깨어 보니 정든 사람이 곁에 있네, 얼마나 좋아……"

"곁에 있어." 미탸가 그 여자의 옷에, 가슴에, 손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것이 그에게 보였다. 그 여자가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데, 그를 보는 것도,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의 머리 너머를 뚫어지게, 이상하리만큼 꼼짝 않고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얼굴에 갑자기 놀라움이, 거의 겁에 질린 빛이 떠올랐다.

"미탸, 저기서 누가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어?" 그 여자가 갑자기 속삭였다. 미탸가 뒤돌아보니, 정말로 누군가가 휘장을 젖히고 그들을 엿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듯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들여다보던 사람에게 재빨리 다가갔다.

"이리, 이리 우리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누군가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끈질기게 그에게 말했다.

미탸는 휘장 밖으로 나서서 꼼짝 않고 섰다. 온 방이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었다. 순간 오한이 그의 등을 타고 흘렀고, 그는 몸을 떨었다. 그는 이 사람들을 모두 한순간에 알아보았다. 외투를 입고 휘장 달린 모자를 쓴 저 키 크고 살집 좋은 노인은 군 경찰서장 미하일 마카리치다. 그리고 저 "폐병쟁이" 같은 말쑥한 멋쟁이, "언제나 그렇게 잘 닦은 장화를 신는" 저 사람은 검사보다. "그 사람한테는 400루블짜리 크로노미터가 있지, 보여 준 적이 있어." 그리고 안경을 쓴 저 젊고 작은 사람은…… 미탸는 그의 성만 잊었을 뿐 그도 알고 있었고, 본 적이 있었다. 예심판사, 법원 예심판사, "법률학교 출신"으로 얼마 전에 부임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서장 마브리키 마브리키치다. 이 사람은 그도 잘 아는,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배지를 단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왔지? 그리고 또 무슨 사람 둘, 농군들이…… 그리고 저기 문간에 칼가노프와 트리폰 보리시치가……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미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듯이, 제 뜻이 아닌 듯이 목청껏 크게 외쳤다.

"알-겠-습-니-다!"

안경을 쓴 젊은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미탸에게 다가와서, 점잖게 거드름을 피우면서도 조금 서두르는 듯이 말을 꺼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한마디로, 이리로, 이쪽 소파로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과 해명을 나누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미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노인과 그 피!……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낫에 베인 듯이, 쓰러지듯이 곁에 놓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알겠다고? 알아들었군! 아비를 죽인 악당 같으니, 네 늙은 아비의 피가 네 뒤에서 울부짖고 있다!" 늙은 경찰서장이 갑자기 미탸에게 다가서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얼굴이 시뻘게져서 온몸을 덜덜 떨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작고 젊은 사내가 소리쳤다. "미하일 마카리치, 미하일 마카리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요!…… 저 혼자 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장님에게서 이런 장면이 나오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헛소리요, 여러분, 헛소리라고!" 경찰서장이 외쳤다. "저자를 보시오. 밤중에, 술에 취해서, 방탕한 계집하고, 그것도 제 아비의 피를 묻힌 채…… 헛소리야! 헛소리라고!"

"미하일 마카리치 서장님, 이번만은 감정을 누르시기를 있는 힘을 다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보가 노인에게 빠른 말로 속삭이려 했다. "안 그러면 저는 부득이……"

그러나 작은 예심판사가 말을 다 끝내게 두지 않았다. 그는 미탸에게 몸을 돌려 단단하고 큰 목소리로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퇴역 중위 카라마조프 씨, 당신은 오늘 밤 일어난 당신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살해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려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했고 검사도 무언가 끼어든 것 같았지만, 미탸는 듣고 있었으면서도 이미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거친 눈길로 그들 모두를 둘러보았다……

제9권 예심

제1장 관리 페르호틴의 출세 첫걸음

상인의 아내 모로조바의 집, 단단히 잠긴 튼튼한 대문을 있는 힘을 다해 두드리던 모습으로 우리가 남겨 두고 온 표트르 일리치 페르호틴은, 물론 마침내 문을 두드려 열게 하는 데 성공했다. 대문을 두드리는 그 미친 듯한 소리를 듣자, 두 시간쯤 전에 그토록 겁에 질렸다가 흥분과 "생각" 때문에 아직 잠자리에 들지 못하던 페냐는 이번에도 거의 히스테리가 일어날 만큼 겁에 질렸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두드릴 사람은 그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두드린다고 생각했던 것이다(그가 떠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랬다). 페냐는 잠에서 깨어 벌써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대문으로 가던 문지기에게 달려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빌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지기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가 누구이며 아주 중요한 일로 페도시야 마르코브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문을 열어 주기로 했다. 표트르 일리치는 아까 그 부엌으로 페도시야 마르코브나를 찾아 들어갔는데, 하녀는 "으심이 들어서" 문지기도 함께 들어오게 해 달라고 표트르 일리치에게 졸랐다. 표트르 일리치는 하녀에게 캐묻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는데, 바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루셴카를 찾으러 달려 나가면서 절구에서 절굿공이를 집어 갔고, 돌아왔을 때는 절굿공이 없이 피투성이가 된 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가 아직 뚝뚝 떨어졌어요, 손에서 그냥 뚝뚝,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 페냐가 외쳤는데, 이 끔찍한 사실은 분명 하녀가

어지러운 상상 속에서 스스로 지어낸 것이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손은 표트르 일리치도 직접 보았고, 거기서 피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손을 씻는 것도 직접 거들었다. 게다가 문제는 그 손이 빨리 말랐느냐가 아니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절굿공이를 들고 바로 어디로 달려갔느냐, 그러니까 정말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갔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였다. 이 대목을 표트르 일리치는 꼼꼼하게 캐물었고, 결국 확실하게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아버지 집 말고는 어디로도 달려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거기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거의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왔을 때요." 페냐가 흥분해서 덧붙였다. "제가 그분한테 다 털어놓고 나서 캐묻기 시작했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왜 두 손이 피투성이세요?" 그러자 그가 그 하녀에게 그 피는 사람의 피이고 자기가 방금 사람을 죽였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백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다 털어놓고 뉘우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어요. 저는 앉아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이제 미친 사람처럼 어디로 달려갔을까? 모크로예로 가서 거기서 마님을 죽일 거야,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님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빌러 그분 하숙집으로 뛰어갔는데, 플로트니코프네 가게 앞에서 보니 그분이 벌써 떠나려 하고, 손에는 이제 피가 묻어 있지 않더라고요."(페냐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기억해 두었다.) 페냐의 할머니인 노파는 손녀의 진술을 힘닿는 데까지 모두 확인해 주었다. 표트르 일리치는 몇 가지를 더 캐묻고는 들어올 때보다 더 흥분하고 불안해져서 그 집을 나왔다.

그가 지금 가장 곧바르고 가까운 길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일어났다면 바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다툴 여지 없이 확인한 다음에야 경찰서장에게 가는

것인 듯했고, 표트르 일리치도 이미 그렇게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밤은 어두웠고, 표도르 파블로비치 집의 대문은 튼튼해서 또 두드려야 했으며, 표도르 파블로비치와는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두드리고 두드려서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빈정대기 좋아하는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내일 읍내를 돌아다니며, 한밤중에 모르는 관리 페르호틴이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았는지 알아보겠다고 자기 집에 쳐들어왔다는 우스개를 늘어놓을 것이다. 추문이다! 그런데 표트르 일리치는 세상 무엇보다 추문이 두려웠다. 그런데도 그를 끌고 가는 감정이 너무나 세서, 그는 성이 나서 땅을 발로 쿵 구르고 다시 제 자신을 욕하고는 곧바로 새 길로 달려 나갔는데, 이번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가 아니라 호흘라코바 부인에게로 갔다. 그 부인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까 몇 시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 3천 루블을 준 것이 부인이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들르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장에게 갈 것이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물론 곧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밤에, 거의 열한 시에, 전혀 모르는 사교계 부인의 집에 가서, 어쩌면 잠자리에서 일으켜, 그 사정으로 보아 놀라운 물음을 던지겠다는 이 젊은이의 결심에는, 어쩌면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가는 것보다 추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따금,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없이 꼼꼼하고 침착한 사람들의 결심도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표트르 일리치는 그 순간 이미 전혀 침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 뒤로 평생, 차츰 자기를 사로잡은 이겨 낼 수 없는 불안이 마침내 고통이 되어 제 뜻을 거슬러서까지 자기를 끌고 갔던 것을 회상했다. 물론 그래도 그는 이 부인에게 간다고 가는 길 내내 제 자신을 욕했지만, "끝까지 해낼 거다, 끝까지 해낼 거다!" 하고 이를

갈며 열 번째로 되풀이했고, 제 뜻을 이루었다. 끝까지 해낸 것이다. 그가 호흘라코바 부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는 꼭 열한 시였다. 그를 안마당으로 들여보내 준 것은 꽤 빨랐지만, 마님이 벌써 주무시는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는지 하는 물음에 문지기는 이맘때면 보통 잠자리에 드신다는 것 말고는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저 위층에 가서 여쭈십쇼. 만나 주시겠다면 만나 주실 거고, 싫다 하시면 안 만나 주실 겁니다." 표트르 일리치는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여기서부터는 일이 더 힘들어졌다. 하인은 여쭙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마침내 하녀를 불러냈다. 표트르 일리치는 공손하지만 끈질기게, 이곳 관리 페르호틴이 특별한 일로 찾아왔으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감히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마님께 여쭈어 달라고 하녀에게 부탁했다. "바로, 바로 이 말 그대로 여쭈어 주십시오." 그는 하녀에게 부탁했다. 하녀가 나갔다. 그는 현관방에 남아 기다렸다. 호흘라코바 부인 자신은 아직 잠들지는 않았지만 벌써 침실에 있었다. 부인은 아까 미탸가 찾아온 뒤로 줄곧 마음이 어지러웠고, 그럴 때면 으레 그렇듯 오늘 밤에도 편두통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벌써 예감하고 있었다. 하녀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이런 시각에 모르는 "이곳 관리"가 뜻밖에 찾아왔다는 것이 부인의 여자다운 호기심을 몹시 자극했는데도, 부인은 짜증을 내며 돌려보내라고 일렀다. 그러나 표트르 일리치는 이번에는 노새처럼 버텼다. 거절을 듣자 그는 몹시 끈질기게 다시 한 번 여쭈어 달라고, 그리고 "바로 이 말 그대로" 자기가 "더없이 중요한 일로 왔으며, 지금 만나 주지 않으면 마님께서 나중에 몸소 후회하실지도 모른다"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나는 꼭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나중에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녀는 놀라서 그를 훑어보고는 다시 여쭈러 갔다. 호흘라코바 부인은 놀라서 생각에 잠겼다가, 그가 겉모습이 어떤지 묻고는, "아주 점잖게 차려입으셨고, 젊고, 무척 공손하세요"라는 대답을

들었다. 괄호를 치고 지나가는 말로 덧붙이자면, 표트르 일리치는 꽤나 잘생긴 젊은이였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호흘라코바 부인은 나가 보기로 했다. 부인은 벌써 실내 가운에 실내화 차림이었지만, 어깨에 검은 숄을 걸쳤다. "관리"는 아까 미탸를 맞이했던 바로 그 응접실로 들어오라는 청을 받았다. 안주인은 엄하게 캐묻는 얼굴로 손님에게 나와서, 앉으라는 말도 없이 곧바로 물음부터 던졌다. "무슨 일이세요?"

"부인, 우리 두 사람이 다 아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 일로 감히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페르호틴이 말을 꺼냈지만, 그가 이 이름을 입에 올리자마자 갑자기 안주인의 얼굴에 지독한 짜증이 드러났다. 부인은 거의 꽥 소리를 지를 뻔하더니 성이 나서 그의 말을 끊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무서운 사람 일로 나를 괴롭힐 거예요?" 부인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선생,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모르는 부인에게 그 집에서 이런 시각에 폐를 끼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 바로 이 응접실에 겨우 세 시간 전에 나를 죽이러 와서 발을 구르고, 점잖은 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나가지 않는 꼴로 나간 사람 이야기를 하러 나타나다니요. 알아 두세요, 선생, 나는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 주세요…… 나는 어머니예요, 나는 지금 당장…… 나는…… 나는……"

"죽이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인도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이 벌써 누구를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쏜살같이 물었다.

"부인, 반 분만 들어 주십시오. 두 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르호틴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 오후 다섯 시에 카라마조프 씨가 저한테서 친구 사이로 10루블을 빌려 갔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돈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바로 오늘 아홉 시에 그 사람이 손에 100루블짜리 지폐 뭉치를 다 보이게 들고 저한테 왔는데, 대략 2천 루블이나 3천 루블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손과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였고, 그 사람 자신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구했느냐는 제 물음에 그 사람은 방금 전에 부인에게서 받았다고, 부인이 금광에 간다면서 3천 루블을 빌려주었다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흘라코바 부인의 얼굴에 갑자기 엄청난, 병적인 흥분이 드러났다.

"하느님! 그 사람이 늙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부인이 두 손을 마주치며 소리쳤다.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한 푼도! 아, 뛰어가세요, 뛰어가세요!…… 더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노인을 구하세요, 그 사람 아버지한테 뛰어가세요, 뛰어가요!"

"잠깐만요, 부인, 그러니까 부인은 그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아무 돈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십니까?"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나는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값어치를 알아볼 줄 몰랐으니까요. 그 사람은 미쳐 날뛰며 발을 구르고 나갔어요. 나한테 달려들었고, 나는 펄쩍 물러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는 분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침까지 뱉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 왜 서 있죠? 아, 앉으세요…… 미안해요, 나는…… 아니, 그보다 뛰어가세요, 뛰어가요, 뛰어가서 가엾은 노인을 끔찍한 죽음에서 구해야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벌써 아버지를 죽였다면요?"

"아, 맙소사, 정말 그렇네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는 사이에 부인은 표트르 일리치를 앉히고 자기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표트르 일리치는 짧지만 꽤 똑똑히 일의 경위를, 적어도 그가 오늘 직접 목격한 대목을 부인에게 이야기했고, 방금 페냐를 찾아간 일도 이야기하며 절굿공이 소식도 알렸다. 이 모든 자세한 이야기가 흥분한 부인을 더할 나위 없이 뒤흔들었고,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눈을 가렸다……

"글쎄, 나는 이 모든 것을 예감했어요! 나한테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그 무서운 사람을 보면서 늘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결국 나를 죽이고 말 사람이야,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나를 죽이지 않고 제 아버지만 죽였다면, 그건 틀림없이 나를 지켜 준 하느님의 손길이 보이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 자신도 죽이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그 사람 목에 대순교자 성 바르바라의 성해에서 온 작은 성상을 걸어 주었거든요…… 그때 나는 죽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나는 그 사람한테 아주 바짝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목을 쭉 내밀었어요! 있잖아요, 표트르 일리치(미안해요, 표트르 일리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있잖아요,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상과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이 분명한 기적, 그게 나를 뒤흔들어서, 나는 다시 무엇이든 믿기 시작했어요. 조시마 장로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하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목에 성상을 걸고도 나한테 침을 뱉었어요…… 물론 침만 뱉었지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고는 저렇게 멀리 달려갔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트르 일리치는 일어나서 이제 곧장 경찰서장에게 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다음은 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 그분은 훌륭한,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미하일 마카로비치를 알아요. 꼭, 바로 그분한테 가세요. 어쩌면 그렇게 재치가 있으세요, 표트르 일리치, 어쩌면 그렇게 다 잘 생각해 내셨어요, 있잖아요, 나라면 당신 자리에 있어도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게다가 저도 서장님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표트르 일리치가 아직 선 채로 한마디 했다. 성급한 부인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틈을 도무지 주지 않았으므로,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부인이 웅얼거렸다. "거기서 무엇을 보고 알게 되는지 나한테 와서 말해 주세요…… 무엇이 드러나는지도……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판결하고 어디로 보내는지도요. 그런데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없죠? 그래도 꼭 와 주세요, 새벽 세 시라도, 네 시라도, 네 시 반이라도요……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깨우라고, 흔들어 깨우라고 하세요…… 아, 하느님, 나는 잠도 못 잘 거예요. 있잖아요, 나도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아, 아닙니다. 그보다 혹시 모르니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 아무 돈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부인 손으로 세 줄만 써 주신다면, 어쩌면 쓸모없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물론이죠!" 호흘라코바 부인은 열광하여 제 책상으로 펄쩍 뛰어갔다. "그리고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해요, 이런 일에 그렇게 재치 있고 솜씨 좋은 당신이 그야말로 나를 뒤흔들어요…… 여기서 근무하세요? 여기서 근무하신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부인은 반 장짜리 편지지에 큼직한 글씨로 다음 세 줄을 재빨리 써 내려갔다.

"나는 내 평생 결코 불행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에게 (그래도 그는 이제 불행하니까) 오늘 3천 루블을 빌려준 적이 없으며, 그 밖의 어떤 돈도 결코, 결코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것을 걸고 이를 맹세합니다."

"자, 이 쪽지예요!" 부인은 표트르 일리치에게 재빨리 돌아섰다. "어서 가서 구하세요. 이건 당신이 하는 위대한 공적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그에게 세 번 성호를 그어 주었다. 부인은 그를 배웅하러 현관방까지 뛰어나오기까지 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당신이 맨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지금 얼마나 고마운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여태 만난 적이 없었을까요? 앞으로도 당신을 내 집에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신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게 꼼꼼하고, 그렇게 재치 있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줘야 해요, 마침내 당신을 알아줘야 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믿어 주세요…… 아, 나는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반했어요. 젊은이들은 지금 고통받는 우리 러시아 전체의 바탕이에요, 러시아의 모든 희망이에요…… 아, 가세요, 가세요!……"

그러나 표트르 일리치는 벌써 뛰쳐나가고 없었다. 안 그랬다면 부인은 그를 그렇게 빨리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기야 호흘라코바 부인은 그에게 꽤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 인상 덕분에 이런 고약한 일에 말려들었다는 그의 불안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사람의 취향이란 지극히 가지가지다. 이것은 다들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 든 부인도 전혀 아니야." 그는 기분 좋게 생각했다. "오히려 나라면 그 부인을 그 딸로 여겼을 거야."

호흘라코바 부인 자신은 이 젊은이에게 그야말로 홀딱 반했다. "그렇게 솜씨 좋고, 그렇게 꼼꼼하다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것도 그런 몸가짐과 생김새로.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들 하지만, 여기 본보기가 있잖아" 등등, 등등. 그래서 부인은 "끔찍한 사건"은 그야말로 잊어버리기까지 했고,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갑자기 다시 떠올리고 나서야 "아, 끔찍해, 끔찍해!" 하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더없이 깊고 달콤한 잠에 빠졌다. 하기야 방금 내가 그린, 젊은 관리와 아직 결코 늙지 않은 과부의 이 별난 만남이 나중에 이 꼼꼼하고 깔끔한 젊은이의 평생 출세의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자잘하고 곁가지인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은 우리 읍내에서 지금도 놀라움 속에 회상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도 카라마조프 형제에 대한 이 긴 이야기를 맺을 때 따로 한마디 할지도 모른다.

제2장 경보

우리 군 경찰서장 미하일 마카로비치 마카로프는 퇴역 중령으로, 7등 문관으로 관등이 바뀐 사람이었고, 홀아비였으며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고장에 부임한 지는 겨우 세 해였지만, 무엇보다 "사교계를 하나로 묶을 줄 안다"는 점으로 벌써 모두의 호감을 샀다. 그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손님 없이는 그 자신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날마다 반드시 누군가 그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손님이 둘이든 하나뿐이든, 손님 없이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다. 온갖 구실을, 때로는 뜻밖의 구실까지 붙여 손님을 청하는 점심도 있었다. 차려 내는 음식은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푸짐했고, 쿨레뱌카는 훌륭하게 구워졌으며, 포도주는 질이 빛나지는 않아도 양으로 채웠다. 들어서는 방에는 꽤 번듯하게, 그러니까 벽에 검은 액자에 넣은 영국 경주마 그림까지 걸어 갖춘 당구대가 있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것은 독신 남자의 당구장이라면 어디에나 빠질 수 없는 장식이다. 저녁마다 탁자 하나에서라도 카드를 쳤다. 그러나 아주 자주 우리 읍내의 내로라하는 사교계 사람들이 어머니들과 아가씨들을 데리고 춤을 추러 모이기도 했다. 미하일 마카로비치는 홀아비였지만 가족과 함께 살았고, 오래전에 과부가 된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딸은 또 미하일 마카로비치에게는 손녀인 두 아가씨의 어머니였다. 아가씨들은 벌써 다 자라 교육을 마쳤고, 생김새가 밉지 않고 성미가 쾌활해서, 지참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다들 알면서도 우리 사교계의 젊은이들을 할아버지 집으로 끌어들였다.

미하일 마카로비치는 일에 아주 밝지는 않았지만, 제 직무는 다른 많은 사람들 못지않게 해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꽤나 교양이 없는 사람이었고, 제 행정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에도 무심하기까지 했다. 지금 치세의 몇몇 개혁을 그는 아주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따금 몹시 눈에 띄는 잘못을 섞어 이해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무슨 특별한 무능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 그저 그의 성격이 무심해서, 깊이 파고들 겨를이 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는 문관보다는 군인의 영혼을 지닌 사람이오." 그는 제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하곤 했다. 농노 해방 개혁의 정확한 원칙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확고하고 최종적인 개념을 얻지 못한 듯했고, 말하자면 해마다 그것을 알아 가며 실제로,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지식을 늘려 가는 중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이 지주였다. 표트르 일리치는 이날 저녁 미하일 마카로비치의 집에 가면 틀림없이 손님 누군가를 만나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지만, 바로 누구일지는 몰랐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그 집에서는 검사와 우리 지방 자치회 의사 바르빈스키가 예랄라시를 치고 있었는데, 바르빈스키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막 우리 고장에 온 젊은이로, 페테르부르크 의학 아카데미를 빛나는 성적으로 마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검사, 그러니까 검사보지만 우리 고장에서 모두 검사라고 부르던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우리 고장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다. 늙지 않아 겨우 서른다섯 살 남짓이었지만 폐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었고, 게다가 몹시 뚱뚱하고 아이가 없는 부인과 결혼했으며, 자존심이 세고 신경질적이었지만 꽤 탄탄한 지성에 착한 마음씨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의 성격의 불행은 모두, 그가 제 참된 장점이 허락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조금 더 높이 생각한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늘 불안해 보였다. 게다가 그에게는 무슨 고상하고 예술적이기까지 한 야심이 있었으니, 이를테면 심리학에 대한, 인간

영혼에 대한 특별한 앎에 대한, 범죄자와 그 범죄를 꿰뚫어 보는 특별한 재능에 대한 야심이었다. 이런 뜻에서 그는 자기가 근무에서 조금 모욕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여겼고, 저 위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줄 몰랐으며 자기에게는 적들이 있다고 늘 확신했다. 침울할 때면 형사 사건 변호사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카라마조프 집안의 뜻밖의 친부 살해 사건은 그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것 같았다. "온 러시아에 알려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앞질러 하는 이야기다.

옆방에는 아가씨들과 함께 우리 젊은 예심판사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넬류도프도 앉아 있었는데, 그는 겨우 두 달 전에 페테르부르크에서 우리 고장에 온 사람이었다. 나중에 우리 고장에서는 "범죄"가 일어난 그날 저녁 이 사람들이 모두 일부러 그런 듯 행정 권력자의 집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놀라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은 훨씬 더 간단했고, 더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니, 이폴리트 키릴로비치의 부인은 이틀째 이가 아팠으므로, 그는 부인의 신음을 피해 어디로든 달아나야 했다. 의사는 그 본성상 저녁이면 카드판 말고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넬류도프는 벌써 사흘 전부터 이날 저녁 말하자면 우연인 척 미하일 마카로비치의 집에 들를 셈이었다. 맏손녀 올가 미하일로브나에게 그 여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오늘이 그 여자의 생일이며 읍내 사람들을 춤추러 불러 모으지 않으려고 일부러 우리 사교계에 생일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 갑자기 짓궂게 그 여자를 놀라게 해 줄 생각이었다. 웃음거리가 많을 터였다. 나이 이야기를 넌지시 비추며, 나이를 드러내기가 두려운 모양이라고, 이제 그 비밀을 쥐었으니 내일 당장 모두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등등. 이 귀엽고 젊은 사람은 이런 일에 대단한 장난꾸러기여서, 우리 고장 부인들은 아예 그를

장난꾸러기라고 불렀고, 그는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하기야 그는 아주 좋은 사교계에 드나들었고, 좋은 집안 출신에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좋은 감정을 지녔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아주 순진하고 언제나 점잖았다. 겉보기에 그는 키가 작고 체격이 약하고 여렸다. 가늘고 창백한 손가락에는 늘 엄청나게 큼직한 반지 몇 개가 번쩍였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할 때면 그는 남달리 거드름을 피우며, 제 지위와 의무를 거의 성물처럼 여기는 듯했다. 특히 그는 평민 출신 살인범과 그 밖의 악당 들을 신문할 때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줄 알았고, 정말로 그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서장의 집에 들어선 표트르 일리치는 그야말로 얼이 빠졌다. 거기서는 이미 모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보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카드는 내던져져 있었고, 모두 서서 의논하고 있었으며,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까지 아가씨들 곁에서 뛰어나와 더없이 싸움에 나선 듯한 성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표트르 일리치를 맞은 것은 늙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정말로, 실제로 이날 저녁 제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살해당하고 강도를 당했다는 얼떨떨한 소식이었다. 그 일이 알려진 것은 바로 조금 전이었는데, 경위는 이러했다.

담장 밑에 쓰러진 그리고리의 아내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제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대로 아침까지 잘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잠에서 깼다. 옆의 작은 방에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던 스메르댜코프의 무서운 간질 비명 때문이었다. 그의 간질 발작은 늘 그 비명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비명은 평생 내내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를 무섭게 놀라게 하고 그 여자에게 병적인 작용을 했다. 그 여자는 끝내 그 비명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 여자는 잠결에 벌떡 일어나 거의

정신없이 스메르댜코프의 골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거기는 어두웠고, 환자가 무섭게 코를 골며 몸부림치기 시작한 소리만 들렸다. 그러자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자기도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어날 때 그리고리가 침대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는 침대로 달려가 다시 더듬어 보았지만, 침대는 정말로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갔다는 것인데, 어디로? 그 여자는 현관 층계로 뛰어나가 층계에서 쭈뼛쭈뼛 남편을 불렀다. 물론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 대신 밤의 고요 속에서 어디서인지, 저 멀리 정원 쪽에서 들리는 듯한 무슨 신음 소리를 들었다. 그 여자는 귀를 기울였다. 신음이 다시 되풀이되었고, 그것이 정말로 정원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느님, 꼭 그때 리자베타 스메르댜샤야 같아!" 그 여자의 어지러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휙 스쳤다. 그 여자는 쭈뼛쭈뼛 층계를 내려와서 정원으로 난 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틀림없이 그이가, 가엾은 그이가 저기 있구나." 그 여자는 생각하며 쪽문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그리고리가 힘없이 신음하는 무서운 목소리로 "마르파, 마르파!" 하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하느님, 우리를 재앙에서 지켜 주소서."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속삭이고는 부르는 소리를 향해 달려갔고, 바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리를 찾아냈다. 그러나 담장 밑, 그가 쓰러졌던 그 자리가 아니라 담장에서 벌써 스무 걸음쯤 떨어진 데서 찾아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는 정신이 들자 기어갔고, 아마 오래 기어갔을 것이며,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혼수에 빠지기를 거듭했을 것이다. 그 여자는 그가 온통 피투성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목청껏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그리고리는 나지막하고 앞뒤 없이 웅얼거렸다. "죽였어…… 아버지를 죽였어…… 왜 소리를 질러, 이 멍청이…… 뛰어가, 사람을 불러……" 그러나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가라앉지 않고 줄곧 소리를 질렀고, 갑자기 나리의 창문이 열려 있고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자 그리로 달려가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문을 들여다본 그 여자는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나리가 바닥에 꼼짝 않고 반듯이 누워 있었다. 밝은 빛깔의 실내 가운과 가슴께의 흰 셔츠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탁자 위의 촛불이 그 피와, 꼼짝 않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죽은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자 극도로 겁에 질린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창문에서 달아나 정원을 뛰쳐나와 대문 빗장을 열고, 뒤쪽에 사는 이웃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에게 정신없이 달려갔다. 두 이웃, 어머니와 딸은 벌써 잠들어 있었지만, 덧창을 세차게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의 고함에 잠이 깨어 창가로 뛰어왔다.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꽥꽥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앞뒤 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고 도와 달라고 불렀다. 마침 그날 밤 떠돌이 포마가 그 집에서 묵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를 깨웠고, 세 사람은 범행 현장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는, 아까 여덟 시가 넘어서 그 집 정원에서 온 동네에 울리는 무섭고 날카로운 비명을 들었다는 것을 떠올렸는데, 물론 그것은 바로 그리고리의 그 고함이었다. 이미 담장 위에 앉아 있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다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아비를 죽인 놈!" 하고 소리친 그 고함이었다. "누가 혼자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그쳤어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달려가면서 진술했다. 그리고리가 누워 있는 데로 달려가서 두 여자는 포마의 도움을 받아 그를 별채로 옮겼다. 불을 켜고 보니, 스메르댜코프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제 골방에서 몸부림치며 눈을 사팔뜨기처럼 굴렸고, 입술에서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리의 머리를 식초 탄 물로 씻었더니, 그 물에 그는 완전히 정신이 들어서 곧바로 물었다. "나리는 죽었나, 안 죽었나?" 그러자 두 여자와 포마는

나리에게 갔다. 정원에 들어서 보니 이번에는 창문만이 아니라 집에서 정원으로 난 문까지 활짝 열려 있었다. 나리는 벌써 한 주 내내 밤마다 저녁부터 스스로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고, 그리고리에게조차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랬다. 그 열린 문을 보자 두 여자와 포마는 모두 곧바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리에게 가기가 겁이 났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자 그리고리는 곧바로 경찰서장에게 직접 달려가라고 일렀다. 그래서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달려가 경찰서장의 집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 여자가 닿은 것은 표트르 일리치가 오기 겨우 5분 전이었으므로, 표트르 일리치는 제 짐작과 결론만 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으로 나타났고, 그의 이야기는 범인이 누구냐에 대한 모두의 짐작을 더욱 굳혀 주었다(하기야 그는 마음속 깊은 데서는 바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과감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읍 경찰서 부서장에게 곧바로 입회인을 넷쯤 모으라고 맡기고, 내가 여기서 굳이 적지 않는 온갖 규칙에 따라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 들어가 현장에서 조사를 했다. 열정적이고 갓 부임한 지방 자치회 의사는 경찰서장과 검사와 예심판사를 따라가겠다고 거의 스스로 졸랐다. 간단히만 짚어 두겠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머리가 깨져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무엇으로? 아마 나중에 그리고리를 친 것과 같은 바로 그 흉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 흉기도 찾아냈다. 할 수 있는 만큼 치료를 받은 그리고리에게서, 힘없고 끊기는 목소리로나마 꽤 조리 있게, 자기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등불을 들고 담장 옆을 찾아보니, 정원 오솔길 위에 바로 눈에 띄게 내던져진 구리 절굿공이가 있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누워 있던 방에서는 별다른 어지러움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침대 곁 칸막이 뒤 바닥에서 두꺼운 종이로 만든 관청

서류 크기의 큰 봉투를 집어 들었다. 봉투에는 "오겠다면, 내 천사 그루센카에게 3천 루블의 선물"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밑에는 아마 나중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직접 덧붙였을 "그리고 내 병아리에게"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봉투에는 붉은 봉랍으로 찍은 큰 봉인이 세 개 있었지만, 봉투는 이미 찢겨 비어 있었다. 돈은 가져가고 없었다. 봉투를 묶었던 가느다란 분홍 리본도 바닥에서 찾아냈다. 표트르 일리치의 진술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이 무엇보다 검사와 예심판사에게 엄청난 인상을 남겼는데, 바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날이 밝을 무렵 틀림없이 총으로 자살할 것이라는 짐작이었다. 그 자신이 그렇게 결심했고, 그 자신이 표트르 일리치에게 그렇게 말했으며, 그가 보는 앞에서 권총을 장전하고 쪽지를 써서 주머니에 넣었다는 등등이었다. 그리고 그를 여전히 믿고 싶지 않던 표트르 일리치가 자살을 막으려고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으르자, 미탸 자신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늦을걸" 하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러니 범인이 정말로 총으로 죽을 생각을 하기 전에 그를 덮치려면 서둘러 현장으로, 모크로예로 가야 했다. "분명하군요, 분명해요!" 검사는 몹시 흥분해서 되풀이했다. "이런 망나니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내일 나는 죽는다, 그러니 죽기 전에 흥청망청 논다." 그가 가게에서 술과 물건을 사 갔다는 이야기는 검사를 더욱 달아오르게 할 뿐이었다. "여러분, 그 젊은 놈 기억하십니까, 상인 올수피예프를 죽이고 1천 5백 루블을 털어서는 곧바로 가서 머리를 지지고, 그러고는 돈을 제대로 감추지도 않은 채 역시 거의 손에 들고 계집들한테 갔던 놈 말입니다." 그러나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서 하는 조사와 수색, 서류 절차 등이 모두의 발을 묶었다. 이 모든 일에 시간이 걸렸으므로, 그들보다 두 시간쯤 먼저 지서장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 시메르초프를 모크로예로 보냈는데, 마침 전날 아침 봉급을 받으러 읍내에 온 사람이었다.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는

지시를 받았다. 모크로예에 닿으면 아무 소란도 일으키지 말고, 마땅한 관헌이 닿을 때까지 "범인"을 쉬지 않고 지켜보며, 아울러 입회인과 마을 순경들을 마련해 두라는 등등의 지시였다.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는 그렇게 했다. 그는 신분을 감추고, 오랜 친구인 트리폰 보리소비치 한 사람에게만 일의 비밀을 조금 털어놓았다. 그 때가 바로, 미탸가 어둠 속 회랑에서 자기를 찾던 주인과 마주치고, 그 자리에서 트리폰 보리소비치의 얼굴과 말투에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때와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미탸도, 다른 누구도 자기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의 권총 상자는 이미 오래전에 트리폰 보리소비치가 훔쳐서 남모르는 곳에 감춰 두었다. 그리고 새벽 다섯 시가 넘어서, 거의 날이 밝을 무렵에야 관헌들, 경찰서장과 검사와 예심판사가 마차 두 대와 트로이카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모두 닿았다. 의사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 남았는데, 아침에 피살자의 시신을 해부할 생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아픈 하인 스메르댜코프의 상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격렬하고 이렇게 긴 간질 발작이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되풀이되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학문이 다룰 일입니다." 그는 떠나는 카드 친구들에게 흥분해서 말했고, 그들은 웃으며 그가 귀한 것을 찾아냈다고 축하했다. 이때 의사가 더없이 단호한 어조로 스메르댜코프는 아침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인 것을 검사와 예심판사는 아주 잘 기억해 두었다.

이제 길지만 꼭 필요했던 듯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는 앞 권에서 이야기를 멈추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왔다.

제3장 영혼이 시련의 관문을 지나다. 첫째 관문

그렇게 미탸는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거친 눈길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그는 일어나서 두 손을 위로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죄가 없습니다! 이 피에는 죄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피에는 죄가 없습니다…… 죽이고 싶기는 했지만 죄는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외치자마자 휘장 뒤에서 그루셴카가 뛰쳐나와 경찰서장의 발치에 그대로 털썩 쓰러졌다.

"나예요, 나, 이 저주받을 년이, 내 잘못이에요!" 그 여자는 온통 눈물에 젖어 모두에게 두 손을 내밀며 가슴을 찢는 울부짖음으로 소리쳤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괴롭혀서 그렇게까지 몰아간 거예요! 그 가엾은 늙은이, 돌아가신 그 늙은이도 내가 앙심 때문에 괴롭혀서 그렇게까지 몰아갔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첫째예요, 내가 으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 네가 죄인이다! 네가 으뜸가는 범인이다! 너는 미친년이고, 방탕한 년이고, 네가 으뜸가는 죄인이다." 경찰서장이 그 여자에게 손을 휘두르며 울부짖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재빨리 단호하게 그를 진정시켰다. 검사는 그를 두 팔로 끌어안기까지 했다.

"이러면 정말 엉망이 됩니다, 미하일 마카로비치." 검사가 소리쳤다. "서장님은 정말이지 조사를 방해하고 계십니다…… 일을 망치고 계세요……" 그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했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해야 해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도 무섭게 열을 올렸다. "안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같이 심판해 주세요!" 그루셴카는 아직 무릎을 꿇은 채 미친 듯이 계속 외쳤다. "우리를 같이 처형해 주세요. 이제 이 사람하고라면 사형장이라도 가겠어요!"

"그루샤, 내 생명, 내 피, 내 성물아!" 미탸도 그 여자 곁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며 그 여자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이 여자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가 소리쳤다. "이 여자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어떤 피에도,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는 나중에, 여러 사람이 그를 그 여자에게서 억지로 떼어 놓았고 그 여자가 갑자기 끌려 나갔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자기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의 곁과 뒤에는 배지를 단 사람들이 서 있었다. 식탁 건너 그의 맞은편 소파에는 예심판사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앉아서, 식탁에 놓인 잔의 물을 조금 마셔 보라고 줄곧 그를 달랬다. "기운이 나실 겁니다, 마음이 가라앉으실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더없이 공손하게 덧붙였다. 그런데 미탸에게는 갑자기, 그는 이것을 기억했다, 예심판사의 큼직한 반지들이 지독히도 궁금해졌는데, 하나는 자수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슨 샛노랗고 투명한, 그렇게도 아름답게 빛나는 반지였다. 그리고 그는 오래도록 나중에도, 그 무서운 신문 시간 내내 그 반지들이 거스를 수 없이 자기 눈길을 끌었다는 것을 놀라며 회상했으니, 어째서인지 그는 제 처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인 그 반지들에서 끝내 눈을 떼지도, 그것을 잊지도 못했다. 미탸의 왼쪽 옆, 초저녁에 막시모프가 앉았던 자리에는 이제 검사가 앉았고, 미탸의 오른쪽, 그때 그루셴카가 있던 자리에는 무슨 사냥복 같은, 그것도 몹시

낡은 웃옷을 입은 얼굴 불그레한 젊은이 하나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앞에는 잉크병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 알고 보니 예심판사가 데려온 서기였다. 경찰서장은 이제 방 반대쪽 끝 창가에 서 있었고, 그 곁에는 칼가노프가 역시 같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물을 드십시오!" 예심판사가 열 번째로 부드럽게 되풀이했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마셨어요…… 하지만…… 자, 여러분, 짓누르십시오, 처형하십시오, 운명을 정하십시오!" 미탸가 무섭게 꼼짝 않고 툭 튀어나온 눈으로 예심판사를 노려보며 외쳤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죽음에 죄가 없다고 단호히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심판사가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물었다.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피에, 다른 노인의 피에 죄가 있지, 내 아버지의 피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슬퍼합니다! 죽였어요, 그 노인을 죽였어요, 죽이고 때려눕혔어요…… 그러나 이 피 때문에 다른 피로, 내가 죄 없는 무서운 피로 대답해야 한다니 괴롭습니다…… 무서운 혐의예요, 여러분, 꼭 이마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대체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기적이에요, 터무니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누가 죽일 수 있었느냐 하면……" 예심판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검사 이폴리트 키릴로비치가(검사보지만 우리도 줄여서 검사라고 부르겠다) 예심판사와 눈짓을 주고받고 미탸에게 말했다.

"늙은 하인 그리고리 바실리예프 일로 공연히 걱정하시는군요. 알아두십시오, 그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정신이 들었고, 그 사람의 진술과 지금 당신의 진술대로라면 당신이 그에게 입힌 심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의사의 소견으로는 틀림없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살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 있다고요!" 미탸가 두 손을 마주 치며 갑자기 울부짖었다. 그의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 "주님, 죄인이자 악당인 저에게, 제 기도대로 베풀어 주신 이 크나큰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래, 그래, 이건 내 기도 덕분이에요, 나는 밤새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세 번 성호를 그었다. 그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고리에게서 우리는 당신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진술을 얻었는데, 그래서……" 검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미탸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발 잠깐만요. 그 여자한테 뛰어갔다 올게요……"

"잠깐!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거의 꽥 소리를 지를 뻔하며 자기도 벌떡 일어났다. 가슴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미탸를 붙잡았지만, 하기야 미탸는 스스로 의자에 앉았다……

"여러분, 정말 유감입니다! 나는 그 여자한테 딱 한순간만 가 보려 했어요…… 밤새 내 심장을 빨아 먹던 그 피가 씻겨 없어졌다고, 나는 이제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 여자한테 알려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여자는 내 약혼녀입니다!" 그는 갑자기 모두를 둘러보며 열광하여 경건하게 말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은 한순간에 나를 얼마나 되살려 주셨는지, 얼마나 부활시켜 주셨는지!…… 그 노인은, 여러분, 그 노인은 나를 안고 다녔어요, 내가 세 살배기 아이였을 때 모두 나를 버렸는데, 그 노인이 나를 함지박에서 씻겨 주었어요. 친아버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심판사가 말을 꺼내려 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더요." 미탸가 두 팔꿈치를 식탁에 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을 끊었다. "조금만 생각할 틈을 주세요, 숨

좀 쉬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지독히 뒤흔들어 놓아요, 지독히. 사람이 무슨 북 가죽은 아니잖습니까, 여러분!"

"물을 좀 더 드시면……"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웅얼거렸다.

미탸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길은 생기가 있었고, 그는 한순간에 온통 바뀐 것 같았다. 그의 말투도 모두 바뀌었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이미 다시 이 모든 사람들과, 그의 옛 지인인 이 모든 사람들과 대등한 사람이었으니, 마치 그들이 모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제, 어느 사교 모임에서 만난 것과 꼭 같았다. 그러나 말이 난 김에 짚어 두자면, 미탸는 우리 고장에 처음 왔을 때 경찰서장의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 뒤로,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은 그 집에 거의 드나들지 않았고, 경찰서장은 이를테면 거리에서 그와 마주치면 얼굴을 몹시 찌푸리고 그저 예의상 인사만 했는데, 미탸는 그것을 아주 잘 눈치채고 있었다. 검사와는 그보다 더 먼 사이였지만, 신경질적이고 공상을 좋아하는 검사의 부인에게는 이따금, 그것도 더없이 공손한 방문으로, 그 자신도 무엇 때문에 그 부인에게 가는지 잘 모르면서 드나들었는데, 부인은 언제나 그를 다정하게 맞이했고, 어째서인지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예심판사와는 아직 사귈 틈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를 만난 적이 있었고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두 번 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니콜라이 파르페니치, 보아하니 당신은 더없이 노련한 예심판사시군요." 미탸가 갑자기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제 내가 직접 도와 드리지요. 아, 여러분, 나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허물없이, 이렇게 곧바로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나는 조금 취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니콜라이 파르페니치, 나는 내 친척 미우소프 댁에서 당신을 만나는 영광을……

영광과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대등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앉아 있는지 나도 알아요. 나한테는…… 그리고리가 나에 대해 진술했다면…… 나한테는, 아, 물론 이미 걸려 있지요, 무서운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끔찍해요, 끔찍해요,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본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 일은 이제 한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물론 한순간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탸는 빠르게, 많이, 신경질적으로, 거침없이 말했고, 듣는 사람들을 단호히 제 가장 좋은 친구들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럼 일단 당신이 씌워진 혐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한다고 적어 두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위엄 있게 말하고는 서기에게 돌아서서 적어야 할 것을 낮은 목소리로 불러 주었다.

"적으신다고요? 그걸 적으시려고요? 그래요, 적으세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다만 보세요…… 잠깐, 잠깐, 이렇게 적어 주세요. '난동에는 죄가 있다. 가엾은 노인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데에는 죄가 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속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죄가 있지만, 그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갑자기 서기에게 돌아섰다. "그건 이미 내 사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건 이미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은 곳이라는 건…… 하지만 늙은 아버지를 죽인 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증명해 드리지요, 여러분은 한순간에 납득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혐의를 두고 직접 껄껄 웃으실 겁니다!……"

"진정하십시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예심판사가 일깨웠다. 제 침착함으로 미쳐 날뛰는 사람을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신문을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대답에 동의하신다면, 당신이 돌아가신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분과 무슨 끊이지 않는 다툼을 벌였던 것 같다는 사실을 당신에게서 확인받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15분 전에 당신은 그분을 죽이고 싶기까지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고 싶기는 했다!' 하고 당신이 외치셨지요."

"내가 그렇게 외쳤다고요? 아,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래요, 불행히도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여러 번 죽이고 싶었어요…… 불행히도, 불행히도!"

"죽이고 싶으셨다. 그렇다면 당신 부친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증오에서 당신을 이끈 원칙이 엄밀히 말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미탸가 고개를 숙이고 침울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온 읍내가 그걸 알고, 술집에서는 다들 알아요. 바로 얼마 전에는 수도원에서, 조시마 장로의 수방에서 밝혔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는 증인들 앞에서 아버지를 때려 거의 죽일 뻔했고, 다시 와서 죽이겠다고 맹세했어요…… 아, 증인이 천 명이에요! 한 달 내내 소리쳤으니, 모두가 증인이에요!…… 사실은 눈앞에 있어요, 사실이 말하고 소리치고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요, 여러분, 감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탸가 얼굴을 찌푸렸다. "감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한테 물을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권한을 지니신 건 알지만, 그건 내 일이에요, 내 속의 일, 은밀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전에도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니까…… 이를테면 술집에서 아무한테나 다 말했으니까…… 지금도 그걸 비밀로 삼지는 않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경우에 나한테 무서운 증거가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모두에게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정말 죽었으니 이 경우에 어떻게 내가 아니겠어요? 하하!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용서해요. 나도 표피 속까지 얼떨떨하니까요. 이 경우에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누가? 여러분." 그가 갑자기 외쳤다. "나는 알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말해 주십시오." 그는 검사와 예심판사를 눈으로 둘러보며 재빨리 물었다.

"우리는 그분이 자기 서재 바닥에 머리가 깨진 채 반듯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무섭군요, 여러분!" 미탸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계속하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당신의 증오의 감정을 이끌었습니까? 질투의 감정이라고 공공연히 밝히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질투지요. 질투 하나만은 아니고요."

"돈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까?"

"그래요, 돈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툼은 당신에게 유산으로 주지 않았다는 3천 루블을 두고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3천이 다 뭡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미탸가 펄쩍 뛰었다. "6천이 넘어요, 어쩌면 1만이 넘을지도 몰라요. 나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모두에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나는 결심했어요, 될 대로 되라고, 3천 루블로 화해하기로요. 나한테는 그 3천 루블이 죽을 만큼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베개 밑에 그루셴카에게 주려고 마련해 둔 3천 루블이 든 그 봉투를, 나는 그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그걸

단호히 나한테서 도둑맞은 것처럼 여겼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내 것으로, 꼭 내 재산처럼 여겼어요……"

검사는 의미심장하게 예심판사와 눈짓을 주고받고 몰래 그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그 문제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심판사가 곧바로 말했다. "지금은 바로 이 대목을 짚어서 적어 두게 해 주시겠지요. 당신이 그 봉투에 든 그 돈을 당신 재산처럼 여겼다는 것 말입니다."

"적으세요, 여러분, 이게 또 나한테 불리한 증거라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증거가 두렵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합니다. 들리시죠,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실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 같군요." 그는 갑자기 침울하고 서글프게 덧붙였다.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 더없이 고결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비열한 짓을 끝없이 저질렀지만, 언제나 더없이 고결한 존재였고 그렇게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로서는, 속으로는, 깊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표현을 할 줄 모르겠네요…… 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어요. 고결함을 갈망했고, 말하자면 고결함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었고, 등불을 들고, 디오게네스의 등불을 들고 고결함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평생 추한 짓만 했어요. 우리 모두처럼요, 여러분…… 아니, 나 혼자처럼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나 혼자, 내가 잘못 말했어요, 나 혼자, 나 혼자!……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그는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비열하고, 허풍을 떨고, 온갖 성스러운 것을 짓밟고, 비웃고, 믿음이 없었어요. 추해요, 추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요?"

"다르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 게 안타까워요."

"뉘우치십니까?"

"아니요, 뉘우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적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좋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나 자신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니, 그 사람을 역겹게 여길 권리가 나한테는 없었어요, 그렇다고요! 이건 적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미탸는 갑자기 몹시 서글퍼졌다. 이미 한참 전부터 예심판사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그는 차츰 점점 더 침울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갑자기 다시 뜻밖의 장면이 벌어졌다. 실은 그루셴카를 아까 떼어 놓기는 했지만 그리 멀리 데려가지는 않고, 지금 신문이 벌어지는 하늘색 방에서 셋째 방, 밤새 춤추고 잔치가 벌어졌던 그 큰 방 바로 뒤에 있는 창문 하나짜리 작은 방에 두었다. 그 여자는 거기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아직 막시모프 하나뿐이었는데, 그는 지독히 놀라고 지독히 겁에 질려서 그 여자 곁에서 살길을 찾는 듯 그 여자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들의 방문 앞에는 가슴에 배지를 단 웬 농군이 서 있었다. 그루셴카는 울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슬픔이 너무나 영혼에 사무치자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마주 치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하고 크게 울부짖으며 방에서 뛰쳐나가 그에게로, 제 미탸에게로 달려갔는데, 어찌나 뜻밖이었는지 아무도 미처 그 여자를 막지 못했다. 그 여자의 울부짖음을 들은 미탸는 그야말로 몸을 떨며 벌떡 일어나 울부짖고, 정신없는 듯이 쏜살같이 그 여자를 맞으러 달려 나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보았는데도 또다시 만나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의 두 팔을 꽉 붙잡았고, 그가 몸부림치며 뿌리치려 해서 그를 붙잡아 두는 데 서너 사람이 필요했다. 그 여자도 붙잡혔고, 그는 그 여자가 끌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에게 두 팔을 내미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이 끝났을 때 그는 다시 아까 그 자리,

예심판사와 마주한 식탁 앞에서 정신을 차렸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 여자한테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왜 그 여자를 괴롭힙니까? 그 여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검사와 예심판사가 그를 달랬다. 그렇게 얼마쯤, 10분쯤 지났고, 마침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미하일 마카로비치가 서둘러 방에 들어오더니 흥분해서 검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떼어 놓았습니다. 아래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데서요, 여러분 앞에서요!"

"그러시지요, 미하일 마카로비치." 예심판사가 대답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반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들어 보게, 이 사람아." 미하일 마카로비치가 미탸에게 말을 꺼냈다. 흥분한 그의 얼굴 전체가 불행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거의 아버지 같은 연민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네의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내가 직접 아래층으로 데려가서 주인집 딸들한테 맡겼고, 지금 그 여자 곁에는 그 늙은이 막시모프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달랬네, 알아듣겠나? 달래고 진정시켰어. 자네는 무죄를 밝혀야 하니 방해하지 말라고, 자네를 서글프게 만들지 말라고, 안 그러면 자네가 당황해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잘못 진술할 수도 있다고 일러 주었네, 알겠나? 그래, 한마디로, 내가 말했고 그 여자는 알아들었네. 이 사람아, 그 여자는 영리하고 착해. 이 늙은이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자네를 부탁하더군. 그 여자가 직접 나를 이리로 보내서, 자기 일로는 마음 놓으라고 자네한테 전하라고 했네, 그리고 이 사람아, 이제 내가 가서 자네가 마음을 가라앉혔고 그 여자 일로 위안을 얻었다고 그 여자한테 말해 줘야 하네, 그래야 해. 그러니 진정하게,

이걸 알아들어야 해. 나는 그 여자한테 잘못했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인다운 영혼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순한 영혼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할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얌전히 앉아 있겠나, 안 그러겠나?"

이 착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았지만, 그루셴카의 슬픔이, 사람의 슬픔이 그의 착한 영혼에 스며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미탸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그가 소리쳤다. "미하일 마카로비치, 당신은 천사 같은, 천사 같은 영혼이십니다. 그 여자 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진정하겠어요, 즐겁게 있겠습니다. 당신의 한없이 착한 마음으로 그 여자한테 전해 주십시오, 나는 즐겁다고, 즐겁다고, 당신 같은 수호천사가 그 여자 곁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웃기까지 하겠다고요. 이제 곧 다 끝내고, 풀려나기만 하면 곧바로 그 여자한테 갈 거예요. 그 여자는 보게 될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는 갑자기 검사와 예심판사에게 돌아섰다. "이제 내 영혼을 몽땅 여러분에게 열어 보이겠습니다, 몽땅 쏟아 놓겠어요. 이 일은 금방 끝낼 겁니다, 즐겁게 끝낼 겁니다. 끝에 가서는 우리 함께 웃게 되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자는 내 영혼의 여왕입니다! 아, 이 말은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여러분에게 털어놓겠습니다…… 나는 내가 더없이 고결한 분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여자는 빛이에요, 내 성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기만 한다면! 그 여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너하고라면 사형장이라도!' 그런데 내가, 이 거지, 알거지가 그 여자한테 뭘 주었다고, 무엇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걸까요, 이 볼품없고 수치스러운 놈이, 수치스러운 낯짝을 한 놈이, 그 여자가 나하고 같이 유형지로 갈 만큼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나 때문에 아까 그 여자가 여러분

발치에 엎드려 뒹굴었어요. 그 오만하고 아무 죄도 없는 여자가!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 여자를 떠받들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방금처럼 그 여자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이제 나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털썩 쓰러져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렸다. 늙은 경찰서장은 몹시 흐뭇해했고, 법률가들도 그런 것 같았는데, 그들은 신문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리라는 것을 느꼈다. 경찰서장을 배웅하고 나서 미탸는 그야말로 즐거워졌다.

"자,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자잘한 것들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합의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또 자잘한 것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맹세하건대 서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믿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영영 끝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본론으로, 여러분, 본론으로 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을 그렇게 파헤치지 마시고, 하찮은 것으로 내 영혼을 괴롭히지 마시고, 일과 사실만 물어 주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잘한 것들은 집어치우고요!"

미탸는 그렇게 외쳤다. 신문이 다시 시작되었다.

제4장 둘째 관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당신의 이런 각오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북돋아 주는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생기 띤 얼굴로 말을 꺼냈는데, 1분 전에 안경을 벗은, 툭 튀어나온 큼직한 연회색 눈, 하기야 몹시 근시인 그 눈에 흐뭇함이 보이게 빛났다. "그리고 방금 서로 믿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무죄를 밝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또 밝힐 수 있다면, 그런 경우와 그런 뜻에서는 서로 믿지 않고는 때로 아예 불가능하기까지 하지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 힘이 닿는 모든 것을 다하겠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끄는지는 지금도 직접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폴리트 키릴로비치?" 그는 갑자기 검사에게 돌아섰다.

"아, 물론입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열의에 견주면 조금 무뚝뚝하게 검사가 동의했다.

여기서 아주 짚어 두겠다. 우리 고장에 갓 부임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이곳에서 경력을 시작한 처음부터 우리 이폴리트 키릴로비치 검사에게 남다른 존경을 느꼈고, 거의 마음으로 그와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 "근무에서 모욕당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의 남다른 심리학적 재능과 웅변 재능을 무조건 믿은, 그리고 그가 모욕당했다는 것도 전적으로 믿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이폴리트 키릴로비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대신 젊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역시 우리 "모욕당한" 검사가 진심으로 좋아한 온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리로 오는 길에 두 사람은 앞으로 벌일 일에 대해 몇 가지를 의논하고 약속해 둘 수 있었고, 이제 식탁 앞에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날카로운 머리는 손윗사람인 동료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지시, 모든 움직임을 반 마디 말로, 눈길 한 번으로, 눈을 한 번 찡긋하는 것으로 날아가는 것을 잡듯 알아채고 알아들었다.

"여러분, 나 혼자 이야기하게만 해 주시고 하찮은 것으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미탸가 열을 올렸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에게 몹시 궁금한 사실 하나만 더 확인하게 해 주시지요, 바로 어제 다섯 시쯤 당신이 친구 표트르 일리치 페르호틴에게 권총을 맡기고 빌린 그 10루블 말입니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겼어요, 10루블에. 그래서요? 그게 다예요. 길에서 읍내로 돌아오자마자 맡겼지요."

"그럼 길에서 돌아오셨다는 겁니까? 읍내 밖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40베르스타를 다녀왔어요.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셨어요?"

검사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대체로, 어제 하루를 아침부터 차례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무엇 때문에 읍내를 비우셨는지, 정확히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오셨는지…… 그런 모든 사실을 알게 해 주시지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물으셨어야지요." 미탸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일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그저께

아침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래야 내가 어디로, 어떻게, 왜 걸어가고 마차를 타고 갔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께 아침에 이곳 상인 삼소노프에게 갔어요. 더없이 확실한 담보를 잡히고 3천 루블을 빌리려고요. 갑자기 다급해졌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검사가 공손하게 끼어들었다. "왜 당신에게 갑자기 그 돈이, 그것도 바로 그런 금액, 그러니까 3천 루블이 필요해졌습니까?"

"에이, 여러분, 자잘한 건 그만둡시다. 어떻게, 언제, 왜, 그리고 왜 하필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의 돈인지, 그런 시시콜콜한 건…… 그러다간 세 권으로도 다 못 적어요, 게다가 에필로그까지 있어야 할 겁니다!"

미탸는 이 모든 말을,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고 더없이 좋은 뜻으로 가득 찬 사람의 너그럽지만 조바심 나는 허물없음으로 말했다.

"여러분."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했다. "내가 이렇게 날뛴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더없이 공손한 마음을 품고 있고 지금 일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믿어 주십시오. 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술이 깼어요. 그리고 취했다 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렇거든요.

술이 깨어 똑똑해지면 바보가 되고,
술에 취해 멍청해지면 똑똑해진다.

"하하! 하기야 여러분,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재치를 부리는 게 아직은 점잖지 못하다는 걸 알겠네요. 내 체면도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이의 차이를 나도 알아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 앞에 범인으로 앉아 있으니 여러분과는 더할 나위 없이 대등하지 않고, 여러분은 나를 지켜보는 일을 맡으셨지요. 그리고리 일로

여러분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지는 않겠지요, 정말이지 노인들 머리를 벌도 안 받고 깨뜨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일로 여러분은 재판을 거쳐 나를 반년쯤, 한 해쯤 교화소에 가두시겠지요, 여러분 쪽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권리 박탈은 없이요, 권리 박탈은 없는 거죠, 검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이 차이를 알아요…… 하지만 그런 물음으로는 하느님 자신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디를 디뎠느냐, 어떻게 디뎠느냐, 언제 디뎠느냐, 무엇을 디뎠느냐. 그렇게 되면 나는 헷갈릴 거고, 여러분은 곧바로 그걸 꼬투리 잡아 적으실 텐데, 그러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결국, 이왕 허튼소리를 시작했으니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교육을 받은 더없이 고결한 분들이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부탁 하나로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료적인 신문 투를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엔, 보시다시피, 무언가 시시하고 하찮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났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어떻게 침을 뱉었느냐, 그러고는 '범인의 주의를 잠재운' 다음 갑자기 얼떨떨한 물음으로 덮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느냐, 누구를 털었느냐?' 하하! 그게 여러분의 관료 투죠, 그게 여러분의 규칙이고, 여러분의 꾀가 모두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꾀로는 농군들이나 잠재우시지 나는 안 됩니다. 나도 일을 알아요, 나도 복무했거든요, 하하하!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례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는 거의 놀라울 만큼 너그럽게 그들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미치카 카라마조프가 한 말이니 용서할 수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용서받지 못하지만 미치카라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하!"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듣고 있다가 자기도 웃었다. 검사는 웃지 않았지만, 미탸가 하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몸짓 하나,

얼굴의 아주 작은 선 하나의 아주 작은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떼지 않고 날카롭게 미탸를 뜯어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계속 웃으며 대꾸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고 무엇을 드셨느냐는 물음으로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했지요."

"압니다, 알아들었고 높이 샀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친절은 더더욱 높이 삽니다. 견줄 데 없는, 더없이 고결한 영혼에 어울리는 친절이에요. 여기 우리 셋은 고결한 사람들로 만났으니, 귀족 신분과 명예로 맺어진 교양 있는 사교계 사람들의 서로 믿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해 나갑시다. 어쨌든 내 생애의 이 순간, 내 명예가 짓밟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을 내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언짢지 않으시죠, 여러분, 언짢지 않으시죠?"

"오히려 아주 훌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거드름을 피우며 찬성하듯 동의했다.

"그리고 자잘한 것들은, 여러분, 그 꼬투리 잡는 자잘한 것들은 다 치워 버립시다." 미탸가 열광하여 외쳤다. "안 그러면 그야말로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안 그래요?"

"당신의 현명한 충고를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갑자기 검사가 미탸에게 끼어들었다. "하지만 내 물음은 거두지 않겠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금액이, 그러니까 바로 3천 루블이 당신에게 필요했는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했냐고요? 그야 이것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고요."

"정확히 누구에게요?"

"그건 단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할 수 없어서나 감히 말하지 못해서나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건 다 하찮은 일이고 정말 시시한 일이니까요. 말하지 않는 건 여기에 원칙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사생활이고, 나는 누구도 내 사생활에 끼어들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내 원칙이에요. 당신의 물음은 사건과 상관이 없고, 사건과 상관없는 것은 모두 내 사생활입니다! 빚을 갚고 싶었어요, 명예의 빚을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적게 해 주십시오." 검사가 말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적으세요.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비열하다고까지 여긴다고 적으세요. 참, 여러분은 적을 시간도 많으시군요!"

"선생, 혹시 모르셨다면 미리 일러 드리고 다시 한 번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특별히, 몹시 엄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당신은 지금 받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온전한 권리가 있고, 거꾸로 우리는 당신이 이런저런 까닭으로 대답을 피한다면 당신에게서 대답을 억지로 받아 낼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당신 개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또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당신이 이런저런 진술을 거부하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끼치는 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당신에게 보여 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럼 계속하시지요."

"여러분, 나는 화내지 않습니다…… 나는……" 타이르는 말에 조금 당황한 미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때 내가 찾아간 바로 그 삼소노프 말인데요……"

물론 우리는 독자가 이미 아는 일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옮기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싶어 조바심을 냈고, 그와 동시에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진술하는 대로 받아 적었으므로 그를 멈춰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그것을 나무랐지만 따랐고, 화를 냈지만 아직은 너그럽게 냈다. 정말로 그는 이따금 "여러분, 이러면 하느님 자신도 화가 나실 겁니다"라거나 "여러분, 여러분이 공연히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고 소리쳤지만, 그렇게 외치면서도 아직은 친구처럼 거침없는 기분을 바꾸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그저께 삼소노프가 자기를 어떻게 "속였는지" 이야기했다(이제 그는 그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완전히 짐작하고 있었다). 길 떠날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6루블에 판 일은 예심판사와 검사가 아직 전혀 모르던 일이라 곧바로 그들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미탸가 한없이 분개했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자세히 적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니, 그 전날에도 그에게 이미 돈이 거의 한 푼도 없었다는 정황을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탸는 조금씩 침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다음 랴가비를 찾아간 여행과 탄내 나는 오두막에서 보낸 밤 등을 이야기하고, 읍내로 돌아온 데까지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 여기서 그는 따로 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루셴카를 둘러싼 제 질투의 괴로움을 스스로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없이 주의 깊게 들었고, 특히 그가 오래전부터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 "뒤쪽",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의 집에 그루셴카를 지켜보는 감시 초소를 마련해 두었다는 정황과, 스메르댜코프가 그에게 소식을 날라다 주었다는 사실을 꼼꼼히 파고들어 그것을 아주 눈여겨보고 적어 두었다. 그는 제 질투에 대해 뜨겁고 길게 말했고, 말하자면 제 가장 은밀한 감정을 "만인의 수치"로 드러내는 것을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실하기 위해 그 부끄러움을 이겨 내는 것이 보였다. 이야기하는 동안 그에게 뚫어지게 쏠린 예심판사와, 특히 검사의 눈길에 담긴 무심한

엄격함이 마침내 그를 꽤 심하게 당황하게 했다. "겨우 며칠 전에 여자에 대해 바보 같은 소리를 나누던 이 꼬마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와 이 병든 검사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 줄 만한 사람들이 못 돼." 그의 머릿속에 서글프게 그런 생각이 스쳤다. "치욕이다! '참아라, 겸손하라, 그리고 침묵하라.'" 그는 시 한 줄로 생각을 맺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호흘라코바 부인 이야기로 넘어가자 그는 다시 즐거워지기까지 했고, 이 부인에 대해 사건과 상관없는 최근의 특별한 일화를 하나 이야기하려고까지 했지만, 예심판사가 그를 멈추게 하고 "더 본질적인 것"으로 넘어가자고 공손하게 권했다. 마침내 제 절망을 묘사하고, 호흘라코바 부인의 집을 나서면서 "어서 누구든 칼로 찔러 죽여서라도 3천 루블을 구하자"는 생각까지 했던 순간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다시 그를 멈추게 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 했다"는 것을 적어 두었다. 미탸는 말없이 적게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이야기는, 그루셴카가 자정까지 노인 곁에 앉아 있겠다고 제 입으로 말해 놓고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삼소노프에게 데려다주자마자 곧바로 그 집을 나갔다는 것을 그가 갑자기 알게 된 대목에 이르렀다. "여러분, 내가 그때 그 페냐를 죽이지 않은 건 오로지 시간이 없어서였어요." 이야기의 이 대목에서 갑자기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것도 꼼꼼히 적었다. 미탸는 침울하게 기다렸다가 제가 정원으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달려갔는지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예심판사가 그를 멈추게 하고 소파 위 제 곁에 놓인 커다란 서류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구리 절굿공이를 꺼냈다.

"이 물건을 아십니까?" 그는 그것을 미탸에게 보여 주었다.

"아, 그래요!" 그가 침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디 좀 봅시다…… 에이, 제기랄, 그만둬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 잊으셨군요." 예심판사가 짚었다.

"에이, 제기랄! 여러분한테 숨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것 없이는 넘어갈 수 없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에서 그냥 빠져나갔을 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어떻게 무장하셨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러지요, 이야기해 드리지요, 여러분."

그리고 미탸는 자기가 어떻게 절굿공이를 집어 들고 달려갔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런 무기로 무장하면서 당신은 무슨 목적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무슨 목적이요? 아무 목적도 없었어요! 집어 들고 달려갔을 뿐이에요."

"목적이 없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미탸의 마음속에서 짜증이 끓어올랐다. 그는 "꼬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침울하고 독살스럽게 쓴웃음을 지었다. 실은 방금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속을 다 털어놓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제 질투 이야기를 한 것이 그에게는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있었다.

"절굿공이 따위 알 게 뭐예요!" 갑자기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래도요."

"그럼, 개들 때문에 집어 들었어요. 그럼, 어두워서…… 그럼, 혹시 몰라서요."

"그렇게 어둠이 무서우셨다면, 전에도 밤에 집을 나설 때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가셨습니까?"

"에이, 제기랄, 퉤! 여러분, 여러분하고는 그야말로 말을 할 수가 없군요!" 미탸가 극도로 짜증을 내며 소리치더니, 서기에게 돌아서서

분노로 온통 얼굴을 붉히고는 무슨 미친 듯한 가락이 섞인 목소리로 재빨리 그에게 말했다.

"지금 적어…… 지금…… '내 아버지를……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머리를 쳐서 죽이러 달려가려고 절굿공이를 집어 들었다!' 자, 이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속이 후련하십니까?" 그는 예심판사와 검사를 도전하듯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방금 그런 진술을 한 것은 우리에게 짜증이 나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음, 당신은 자잘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몹시 본질적인 그 물음들에 화가 나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검사가 대답으로 메마르게 말했다.

"아니, 제발 좀요, 여러분! 그래요, 절굿공이를 집어 들었어요…… 그래,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손에 무언가를 쥐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집어 들고 달려갔어요. 그게 다예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넘어갑시다(passons). 안 그러면 맹세하는데 이야기를 그만두겠어요!"

그는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손으로 머리를 받쳤다. 그는 그들에게 옆으로 앉아 벽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나쁜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정말로 그는 일어나서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더라도"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보세요, 여러분." 그는 힘겹게 제 자신을 누르며 갑자기 말했다. "보세요. 여러분 말을 듣고 있으니 무언가 떠올라요…… 나는, 보세요, 이따금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런 꿈 하나를요, 그 꿈을 자주 꾸는데, 되풀이되는 꿈인데, 누군가 나를 쫓아와요. 내가 지독히 무서워하는 누군가가요. 어둠 속에서, 밤에 쫓아와서 나를 찾는데, 나는 그자를 피해 어디 문 뒤나 장롱 뒤에 숨어요. 굴욕스럽게 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자는 내가 어디 숨었는지 아주 잘 알면서도 일부러 내가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오래 괴롭히려고, 내 두려움을 즐기려고요…… 바로 그걸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거랑 닮았어요!"

"그런 꿈을 꾸십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래요, 그런 꿈을 꿔요…… 설마 그것도 적으시려는 건 아니죠?" 미탸가 비뚜름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적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신기한 꿈을 꾸시는군요."

"이제는 꿈이 아니에요! 리얼리즘이에요, 여러분, 실제 삶의 리얼리즘이라고요! 나는 늑대고 여러분은 사냥꾼이에요. 그러니 늑대를 몰아 잡으십시오."

"공연히 그런 비유를 드시는군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더없이 부드럽게 말을 꺼내려 했다.

"공연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연히가 아니라고요!" 미탸가 다시 부르르 끓어올랐지만, 갑작스러운 분노를 터뜨리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 보였고, 벌써 한마디 할 때마다 다시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범인이나, 여러분의 물음에 시달리는 피고는 믿지 않으셔도 좋지만, 더없이 고결한 사람은, 여러분, 영혼의 더없이 고결한 충동은(대담하게 이걸 외칩니다!), 아니에요! 그것만은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권리조차 없으십니다…… 하지만"

침묵하라, 마음아,
참아라, 겸손하라, 그리고 침묵하라!

"자, 그럼 계속할까요?" 그가 침울하게 말을 끊었다.

"그럼요, 그러시지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대답했다.

제5장 셋째 관문

미탸는 엄하게 말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전하는 이야기에서 선 하나도 잊거나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애쓰기 시작한 것이 보였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담장을 넘어 아버지의 정원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창문까지 갔는지, 그리고 마침내 창문 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루셴카가 아버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지독히도 알고 싶었던 그 순간들, 정원에 있던 그 순간들에 자기를 뒤흔든 감정들을 그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꼭 한 자 한 자 새기듯 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도 예심판사도 이번에는 어쩐지 지독히 삼가며 듣고 메마르게 바라볼 뿐, 묻는 말이 훨씬 적었다. 미탸는 그들의 얼굴로는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었다. "화가 나서 기분이 상했군." 그는 생각했다. "에이, 제기랄!" 그루셴카가 왔으니 창문을 열라는 *신호*를 마침내 아버지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은 이야기를 했을 때, 검사와 예심판사는 "신호"라는 낱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낱말이 여기서 어떤 뜻을 지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듯해서 미탸도 그것을 눈치챌 정도였다. 마침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민 아버지를 보고 증오가 끓어올라 주머니에서 절굿공이를 홱 꺼낸 그 순간에 이르자, 그는 갑자기 일부러 그런 듯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는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이 그야말로 자기에게 눈길을 박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요." 예심판사가 말했다. "흉기를 꺼내셨고……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다음에요? 그다음엔 죽였지요…… 정수리를 내리쳐서 두개골을 쪼개 놓았지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가 갑자기 눈을 번득였다. 사그라들었던 그의 분노가 갑자기 남다른 힘으로 영혼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되받았다. "그럼 당신 생각으로는요?"

미탸는 눈을 내리깔고 오래 말이 없었다.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누구의 눈물 덕분인지, 내 어머니가 하느님께 빌어 주셨는지, 밝은 영이 그 순간 나에게 입을 맞춰 주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악마가 졌어요. 나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담장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겁에 질려 그때 처음 나를 알아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에서 펄쩍 물러섰어요, 그건 아주 잘 기억해요. 그리고 나는 정원을 지나 담장으로…… 바로 거기서 그리고리가 나를 따라잡았어요, 내가 벌써 담장 위에 앉아 있을 때요……"

그때 그는 마침내 듣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었다. 그들은 더없이 평온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무슨 분개의 경련 같은 것이 미탸의 영혼을 스쳤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비웃고 있군요!" 그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왜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한마디 했다.

"한마디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요! 내가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다는 건 나도 알아요. 노인은 지금 머리가 깨진 채 저기 누워 있는데, 나는 죽이고 싶었다는 것과 벌써 절굿공이를 꺼냈다는 것을 비장하게 묘사하고 나서는 갑자기 창문에서 달아난다니……

서사시네요! 운문으로요! 이 젊은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좋다! 하하! 여러분은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고는 온몸으로 의자에서 홱 돌아앉았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그런데 혹시 보지 못하셨습니까." 검사가 미탸의 흥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갑자기 말을 꺼냈다. "창문에서 달아날 때 혹시 보지 못하셨습니까, 별채 반대쪽 끝에 있는 정원으로 난 문이 열려 있었는지 아닌지?"

"아니요, 열려 있지 않았어요."

"열려 있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었겠어요? 어, 문이라니, 잠깐만요!" 그는 갑자기 정신이 든 듯 거의 몸을 떨 뻔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셨다는 겁니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연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었단 말입니까?" 미탸가 갑자기 무섭게 놀랐다.

"문은 열려 있었고, 당신 부친을 죽인 자는 틀림없이 이 문으로 들어가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이 문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꼭 한 자 한 자 새기듯 천천히, 끊어서 말했다. "그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합니다. 살인은 분명히 방 안에서 일어났지 *창문 너머로가 아니며*, 그건 작성된 현장 검증 조서로도, 시신의 위치로도, 모든 것으로도 단호히 분명합니다. 이 정황에는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탸는 무섭게 놀랐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는 완전히 넋을 잃고 소리쳤다. "나는…… 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단호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정원에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정원에서 달아날

때도 문은 닫혀 있었어요. 나는 창문 밑에 서서 창문으로 그 사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요. 그리고 설령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알아요, *신호*는 나하고 스메르댜코프하고 그 사람, 고인만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은 신호 없이는 세상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신호요? 그게 무슨 신호입니까?" 검사가 탐욕스러운, 거의 히스테리 같은 호기심으로 말하더니 순식간에 삼가던 태도를 모조리 잃었다. 그는 쭈뼛쭈뼛 기어오듯 물었다. 그는 아직 모르던 중요한 사실을 냄새 맡았고, 곧바로 미탸가 그것을 다 털어놓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건 모르셨군요!" 미탸가 비웃듯 독살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눈을 찡긋했다. "그럼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알아내시겠어요? 신호는 고인하고 나하고 스메르댜코프만 알았어요, 그게 다고, 또 하늘이 알았지만 하늘은 여러분한테 말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사실이죠. 이걸로 무엇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털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자기에게 해가 되게 진술하는 피고를 상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명예를 지키는 기사인데 여러분은 아니니까요!"

검사는 쓴 약을 모두 삼켰고, 그저 새 사실을 알고 싶어 조바심에 떨 뿐이었다. 미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스메르댜코프를 위해 고안한 신호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바로 무엇을 뜻했는지 이야기했으며, 그 신호를 식탁에 두드려 보이기까지 했으며, 그러니까 그 자신, 미탸도 노인의 창문을 두드렸을 때 바로 "그루셴카가 왔다"는 뜻의 그 신호를

두드렸느냐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물음에, 바로 정확히 그렇게, 그러니까 "그루셴카가 왔다"고 두드렸다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자, 이제 탑을 쌓아 올리십시오!" 미탸가 말을 끊고는 경멸하듯 다시 그들에게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 신호는 돌아가신 당신 부친과 당신과 하인 스메르댜코프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래요, 하인 스메르댜코프하고, 또 하늘이요. 하늘도 적으세요. 그것도 적어 두는 게 쓸모없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느님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물론 적기 시작했는데, 적는 동안 검사가 갑자기 전혀 뜻밖에 새로운 생각에 부딪힌 듯이 말했다.

"그런데 스메르댜코프도 이 신호를 알고 있었고, 당신은 부친의 죽음에 대한 모든 혐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약속된 신호를 두드려 당신 부친에게 문을 열게 하고, 그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요?"

미탸는 깊이 비웃는, 그러면서도 무섭도록 증오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자 검사의 눈이 깜박거렸다.

"또 여우를 잡으셨군요!" 마침내 미탸가 말했다. "그 고약한 짐승의 꼬리를 꽉 집으셨네요, 헤헤! 검사님, 당신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장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귀띔해 주는 것에 매달려 목청껏 '아이고, 스메르댜코프다, 저놈이 살인자다!' 하고 소리칠 줄로만 생각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기다렸다.

"잘못 짚으셨어요, 스메르댜코프를 두고 소리치지는 않겠습니다!" 미탸가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을 전혀 의심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럼 당신은 의심하십니까?"

"그 사람도 의심했습니다."

미탸는 바닥에 눈길을 박았다.

"농담은 그만두고요."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의 아까 내가 이 휘장 뒤에서 여러분에게 뛰쳐나왔을 때부터, 내 머릿속에 벌써 그 생각이 스쳤어요. '스메르댜코프!' 여기 식탁 앞에 앉아서 피에는 죄가 없다고 소리치면서도 나는 줄곧 생각했어요. '스메르댜코프!' 그리고 스메르댜코프는 내 영혼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지금도 갑자기 같은 생각을, '스메르댜코프'를 떠올렸지만 겨우 1초뿐이었고, 곧바로 그 곁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스메르댜코프가 아니야!' 그건 그놈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어떤 인물을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다.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하늘의 손인지 사탄인지 모르겠지만…… 스메르댜코프는 아닙니다!" 미탸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하지만 왜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굳게, 그렇게 끈질기게 주장하십니까?"

"확신으로요. 인상으로요. 스메르댜코프는 더없이 천한 본성을 지닌 겁쟁이니까요. 겁쟁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비겁함을 한데 모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덩어리예요. 그놈은 암탉한테서 태어났어요. 나하고 이야기할 때면 그놈은 매번 내가 자기를 죽일까 봐 벌벌 떨었어요, 나는 손도 쳐들지 않았는데도요. 그놈은 내 발치에 엎드려

울었고, 바로 이 장화에 입을 맞췄어요, 말 그대로요, 자기를 '겁주지 말아 달라고' 빌면서요. 들리세요, '겁주지 말아 달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놈한테 선물까지 줬어요. 그놈은 간질에 걸린, 머리도 모자라고 여덟 살짜리 꼬마한테도 얻어맞을 병든 암탉이에요. 그게 무슨 본성이에요? 스메르댜코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놈은 돈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나한테서 선물도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놈이 무엇 때문에 노인을 죽이겠어요? 그놈은 어쩌면 그 노인의 아들, 사생아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아세요?"

"그 전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부친의 아들인데, 당신 자신이 부친을 죽이고 싶었다고 모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넌지시 찌르시는군요! 그것도 저열하고 고약하게 찌르시네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그걸 내 눈앞에서 나한테 말하는 건 너무 비열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비열하다는 건, 그걸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죽이고 싶었을 뿐 아니라 죽일 수도 있었고, 게다가 거의 죽일 뻔했다는 것까지 내 발로 스스로 끌어다 덮어썼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 수호천사가 나를 구해 주었어요, 바로 그걸 여러분은 헤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비열해요, 비열해요! 나는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들리세요, 검사님,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했다. 신문 내내 그가 이토록 흥분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메르댜코프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맺었다. "그걸 여러분에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으셔도 됩니다." 검사가 차갑고 엄한 얼굴로 대답했다. "사건의 사실적 측면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물음에 당신을 만족시켜 드릴 의무까지 있습니다. 당신이 묻는 하인 스메르댜코프는 자기 침대에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는데, 지독히 심한, 어쩌면 연달아 열 번째로 되풀이되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의사는 환자를 살펴보고 나서, 그가 어쩌면 아침까지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악마가 죽였군요!" 갑자기 미탸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마치 그가 이 순간까지도 줄곧 제 자신에게 "스메르댜코프일까, 아닐까?" 하고 묻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사실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진술을 계속하시지 않겠습니까."

미탸는 좀 쉬게 해 달라고 청했다. 공손하게 허락해 주었다. 쉬고 나서 그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러나 그는 보기에도 힘겨워했다. 그는 지치고 모욕당하고 도덕적으로 뒤흔들려 있었다. 게다가 검사는 이제 꼭 일부러 그러는 듯 "자잘한 것들"에 꼬투리를 잡아 시시각각 그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다. 미탸가 담장 위에 걸터앉아서 제 왼쪽 다리에 매달린 그리고리의 머리를 절굿공이로 내리치고 곧바로 쓰러진 사람에게 뛰어내린 이야기를 하자마자, 검사가 그를 멈추게 하고 담장 위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더 자세히 묘사해 달라고 청했다. 미탸는 놀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걸터앉아서, 한쪽 다리는 저쪽에, 다른 쪽 다리는 이쪽에……"

"그럼 절굿공이는요?"

"절굿공이는 손에 들고 있었어요."

"주머니가 아니고요? 그걸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십니까? 그럼 손을 세게 휘두르셨습니까?"

"아마 세게 휘둘렀겠지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그때 담장 위에서처럼 의자에 꼭 그렇게 앉아서, 분명히 하기 위해 어떻게, 어디로, 어느 쪽으로 휘두르셨는지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보여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나를 비웃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미탸가 신문하는 사람을 오만하게 쳐다보며 물었지만, 상대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다. 미탸는 경련하듯 몸을 돌려 의자에 걸터앉고 손을 휘둘렀다.

"이렇게 내리쳤어요! 이렇게 죽였어요! 또 뭘 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수고스럽겠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밀히 말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엄밀히 말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아래로 뛰어내리셨습니까?"

"아이, 제기랄…… 쓰러진 사람한테 뛰어내렸어요……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서요? 그리고 달아나던 중에요?"

"그래요, 흥분한 상태에서, 그리고 달아나던 중에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셨습니까?"

"돕기는 무슨…… 그래요, 어쩌면 도우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까지 하셨다는 겁니까?"

"아, 아니요, 의식을 잃기는커녕 다 기억해요. 실오라기 하나까지 다요. 들여다보려고 뛰어내려서 손수건으로 그 사람의 피를 닦아 주었어요."

"당신의 손수건은 보았습니다. 당신이 쓰러뜨린 사람을 되살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 확인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요?"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죽였다고 생각하고 달아났는데, 그 사람이 정신이 들었군요."

"좋습니다." 검사가 맺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그거면 됐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계속하시지요."

아아, 미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도, 자기가 불쌍해서 뛰어내렸고, 죽은 줄 안 사람 앞에 서서 몇 마디 가엾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생각은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걸려들었군, 영감, 어쩔 수 없지, 그냥 누워 있어." 그런데 검사는 오직 한 가지 결론만 끌어냈다. 그 사람은 "그런 순간에, 그런 흥분 속에서" 오로지 자기 범행의 *유일한* 증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실히 확인하려고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순간에조차 그 사람의 힘과 결단과 냉정함과 계산이 어떠했겠느냐는 등등이었다. 검사는 흡족했다. "병적인 인간을 '자잘한 것들'로 짜증 나게 했더니 말실수를 했군."

미탸는 괴로워하며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러나 곧바로 이번에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다시 그를 멈추게 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손과, 나중에 드러난 바로는 얼굴을 하고서 어떻게 하녀 페도시야 마르코바에게 뛰어 들어갈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나는 내가 피투성이라는 것을 아예 몰랐어요!" 미탸가 대답했다.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있지요." 검사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바로 몰랐어요. 검사님, 그건 훌륭하게 짚으셨어요." 미탸도 갑자기 찬성했다. 그러나 그다음은 "물러나서" "행복한 사람들을 비켜 지나가게 하겠다"는 미탸의 갑작스러운 결심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는 아까처럼

다시 제 마음을 드러내고 "제 영혼의 여왕" 이야기를 할 결심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빈대처럼 자기에게 달라붙어 피를 빠는" 이 차가운 사람들 앞에서는 역겨웠다. 그래서 거듭되는 물음에 그는 짧고 날카롭게 밝혔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심했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남겠어요. 그 물음은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그 여자의 예전 사람, 다툴 여지 없는 사람, 그 여자를 모욕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섯 해 만에 사랑을 품고 달려와서 그 모욕을 법적인 혼인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모든 게 끝장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치욕이, 그리고 이 피가, 그리고리의 피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살겠어요? 그래서 맡겨 둔 권총을 찾으러 갔어요. 장전해서 날이 밝으면 대가리에 총알을 박으려고요……"

"그런데 밤에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셨고요?"

"밤에는 성대한 잔치를 벌였지요. 에이, 제기랄, 여러분, 어서 끝내세요. 나는 틀림없이 총으로 죽으려 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마을 어귀 밖에서 아침 다섯 시쯤 나 자신을 처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쪽지도 마련해 두었는데, 권총을 장전할 때 페르호틴의 집에서 썼어요. 여기 그 쪽지가 있어요, 읽어 보세요. 여러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갑자기 경멸하듯 덧붙였다.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그들 앞 식탁에 내던졌고, 신문하던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읽고 나서, 으레 그렇듯 사건 서류에 첨부했다.

"그런데 페르호틴 씨 댁에 들어가실 때조차 손을 씻을 생각은 아직도 하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의심받을 것이 두렵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무슨 의심이요? 의심하든 말든 아무래도 좋았어요, 나는 이리로 달려와서 다섯 시에 총으로 죽었을 테고, 아무도 손쓸 틈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일만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랐을 테고, 이리로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 이건 악마가 한 짓이에요, 악마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악마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리로 오셨어요? 놀랍군요, 꿈같은 일이에요!"

"페르호틴 씨가 우리에게 전한 바로는, 당신이 그 댁에 들어갈 때 손에…… 피투성이가 된 손에…… 당신의 돈을…… 큰돈을…… 100루블짜리 지폐 뭉치를 들고 있었고, 그 댁에서 일하는 소년도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작은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더없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사건 기록으로는 시간 계산으로 보아도 당신이 집에 들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구하셨습니까?"

검사는 그렇게 정면으로 들이댄 물음에 조금 얼굴을 찌푸렸지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말을 끊지는 않았다.

"그래요, 집에는 들르지 않았어요." 미탸가 보기에는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땅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물음을 되풀이하게 해 주십시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어쩐지 기어오듯 말을 이었다. "당신 자신이 인정하신 대로 바로 그날 다섯 시만 해도……"

"10루블이 아쉬워서 페르호틴한테 권총을 맡겼고, 그다음엔 3천 루블을 얻으러 호흘라코바한테 갔는데 그 부인이 주지 않았다는 등등, 온갖 그런 것들 말이죠." 미탸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아쉬웠는데 갑자기 수천 루블이 나타났다, 이거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두 분은 지금 겁을 내고 계세요. 어디서 구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맞히셨어요, 알아내지 못하실 겁니다." 미탸가 갑자기 엄청나게

단호하게 한 자 한 자 새기듯 말했다. 신문하던 사람들은 잠깐 말이 없었다.

"카라마조프 씨,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조용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도 끼어들어, 신문받는 사람은 물론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이롭다고 여기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등을 다시 일깨웠지만, 혐의자가 침묵으로 스스로에게 입힐 수 있는 손해를 생각하면, 특히 그토록 중대한 물음을 생각하면……

"등등, 여러분, 등등이죠! 그만하세요, 그 훈계는 아까도 들었어요!" 미탸가 다시 말을 끊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여기가 가장 본질적인 대목이라는 건 나도 알아요. 그래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야 뭐,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 당신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시는 거예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했다.

"보세요, 여러분, 농담은 그만두고요." 미탸가 눈을 치켜뜨고 두 사람을 단단히 바라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마를 맞부딪치리라고 예감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아까 내가 진술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먼 안갯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둥둥 떠다녀서, 나는 '우리 사이에 서로 믿자'는 제안부터 할 만큼 순진하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 저주받을 담장에 이르렀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이르렀네요! 안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기야 나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그건 알아요!"

그는 침울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결심을 조금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 진술하는, 당신에게 그토록 위험한 순간에

당신을 침묵으로 이끌 수 있는 그토록 강한 동기가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작은 암시라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미탸는 서글프게, 어쩐지 생각에 잠긴 듯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려 드리고 그 암시도 드리지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요. 여러분, 내가 침묵하는 건 이것이 나한테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물음에 대답하는 데에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털었다 하더라도 그 살인과 강도조차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치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치욕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적으시려는 겁니까?"

"네, 적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웅얼거렸다.

"그건 적지 마셨어야 하는데요, '치욕' 이야기는요. 이건 내가 그저 착한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털어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건데, 여러분은 곧바로 그걸 꼬투리 잡아 적으시는군요. 그래요, 적으세요, 원하는 대로 다 적으세요." 그는 경멸하며 질색하듯 맺었다. "나는 여러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럼 그 치욕이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웅얼거리려 했다.

검사가 무섭게 얼굴을 찌푸렸다.

"안 돼요, 안 돼요, 끝났어요(c'est fini), 애쓰지 마세요. 더럽힐 가치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이미 더럽혀졌어요.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른 누구도…… 그만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끊겠습니다."

말이 너무나 단호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더 조르지 않았지만, 이폴리트 키릴로비치의 눈길에서 그가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적어도 페르호틴 씨 댁에 들어가실 때 손에 든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몇 루블이었는지는 밝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페르호틴 씨에게는 호흘라코바 부인에게서 받았다는 3천 루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만하세요, 여러분,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고스럽겠지만,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여기 와서 하신 일을 모두 묘사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건 여기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하기야, 그래요, 나도 이야기하지요."

그는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옮기지 않겠다. 그는 메마르게, 대충 이야기했다. 제 사랑의 환희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을 보고" 총으로 죽겠다는 결심이 자기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이야기했다. 그는 까닭을 대지도 않고 자세한 데로 들어가지도 않으며 이야기했다. 신문하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그를 그리 귀찮게 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도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때 모든 것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물론 그 신문은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할 겁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신문을 맺었다. "이제 지니고 계신 물건을 모두, 무엇보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모두 여기 식탁 위에 내놓아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요, 여러분? 그러지요, 그래야 한다는 건 압니다. 오히려 왜 더 일찍 궁금해하지 않으셨는지 놀라울 정도네요. 하기야 나는 어디로도 달아나지 않았을 테고, 다 보이게 앉아 있으니까요. 자, 여기 있어요, 내 돈이에요, 세어 보세요, 가져가세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모든 것을 꺼냈고, 잔돈까지, 조끼 옆주머니에서 20코페이카짜리 두 닢까지 꺼냈다. 돈을 세어 보니 836루블 40코페이카였다.

"그리고 이게 다입니까?" 예심판사가 물었다.

"다예요."

"방금 진술하시면서 플로트니코프네 가게에 300루블을 두고 왔고, 페르호틴에게 10루블을 주었고, 마부에게 20루블, 여기서 200루블을 잃었고, 그다음에……"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모든 것을 다시 셈했다. 미탸는 기꺼이 거들었다. 코페이카 하나까지 떠올려 셈에 넣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재빨리 합계를 냈다.

"그러니까 이 800루블과 합하면 처음에 모두 1천 5백 루블쯤 가지고 계셨던 거로군요?"

"그렇지요." 미탸가 잘라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모두들 훨씬 많았다고 주장할까요?"

"주장하라고 하세요."

"당신 자신도 그렇게 주장하셨잖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주장했지요."

"아직 신문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 모든 것을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신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땅한 곳에 보관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 일이 끝나면 당신 뜻대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 돈에 다툴 여지 없는 권리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말하자면 증명된다면요. 그럼, 이제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갑자기 일어나서 "당신의 옷과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더없이 자세하고 정확한 조사를 "부득이, 그리고 마땅히" 해야겠다고 미탸에게 단호하게 알렸다.

"그러시지요, 여러분, 원하시면 주머니를 다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주머니를 뒤집기 시작했다.

"옷을 벗으셔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옷을 벗으라고요? 쳇, 제기랄! 그냥 이대로 뒤지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미탸가 침울하게 따랐다. "다만 제발 여기 말고 휘장 뒤에서 해 주세요. 누가 살펴봅니까?"

"물론 휘장 뒤에서 하지요." 동의한다는 뜻으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남다른 위엄까지 서렸다.

제6장 검사가 미탸를 붙잡다

미탸에게는 전혀 뜻밖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 전 같으면, 아니 바로 1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그를, 미탸 카라마조프를 이렇게 다룰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무언가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고, 저쪽에서는 "거만하고 그를 깔보는" 무언가가 나타났다. 프록코트를 벗는 것쯤이야 아무래도 좋았다. 그런데 그들은 그에게 그 이상으로 옷을 벗으라고 청했다. 그것도 청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명령했다. 그는 그것을 똑똑히 알아들었다. 자존심과 경멸 때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스란히 따랐다. 칸막이 휘장 뒤로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말고도 검사가 들어왔고, 농군 몇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 "물론 힘을 쓰려고 그러는 거지." 미탸는 생각했다. "어쩌면 다른 무엇 때문일지도 모르고."

"뭡니까, 설마 셔츠까지 벗어야 합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으려 했지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검사와 함께 프록코트와 바지와 조끼와 모자를 살펴보는 데 깊이 빠져 있었고, 두 사람 다 이 조사에 몹시 흥미를 느끼는 것이 눈에 보였다. "아예 체면을 차리지 않는군." 미탸의 머리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꼭 지켜야 할 예의조차 지키지 않아."

"두 번째로 묻습니다. 셔츠를 벗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가 더욱 날카롭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알려 드리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어쩐지 윗사람 같은 투로까지 대답했다. 적어도 미탸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러는 사이에 예심판사와 검사는 낮은 목소리로 꼼꼼히 의논하고 있었다. 프록코트에, 특히 왼쪽 자락 뒤쪽에 커다란 핏자국들이 말라붙어 뻣뻣하게 굳은 채, 아직 그다지 구겨지지도 않고 남아 있었다. 바지에도 있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그 밖에도 입회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수 프록코트와 바지의 깃이며 소맷부리며 모든 솔기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는데, 분명히 무언가를, 물론 돈을 찾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가 돈을 옷 속에 꿰매 넣을 수 있었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의심을 미탸에게 감추지 않았다. "이건 아예 장교가 아니라 도둑을 다루는 꼴이로군."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서로 제 생각을 이상하리만큼 터놓고 주고받았다. 이를테면 역시 휘장 뒤에 와 있던 서기가 바삐 움직이며 시중을 들다가, 마찬가지로 더듬어 본 모자에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주의를 끌었다. "서기 그리덴카 기억하십니까요." 서기가 말했다. "여름에 사무소 전체 봉급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술에 취해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는데, 그래 어디서 찾았습니까요? 바로 이 테두리 속, 모자 속이었습죠. 100루블짜리 지폐들을 대롱처럼 말아서 테두리 속에 꿰매 넣었더랬습죠." 그리덴카 사건은 예심판사도 검사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미탸의 모자도 따로 떼어 놓고 이것은 다 나중에 제대로 다시 살펴보아야겠다고, 옷도 모두 그래야겠다고 정했다.

"잠깐만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미탸의 셔츠 오른쪽 소매의 오른쪽 소맷부리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 온통 피에 젖은 것을 보고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만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피입니까?"

"피요." 미탸가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그리고 왜 소매 안으로 접어 넣었습니까?"

미탸는 그리고리와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소맷부리를 더럽혔고, 페르호틴의 집에서 손을 씻을 때 그것을 안으로 접어 넣었다고 이야기했다.

"셔츠도 가져가야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로 말입니다." 미탸는 얼굴이 붉어지며 사납게 격분했다.

"뭡니까, 나더러 알몸으로 있으라는 겁니까?" 그가 소리쳤다.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든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고스럽지만 양말도 벗어 주십시오."

"농담하시는 거 아니지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미탸가 눈을 번득였다.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엄하게 받아쳤다.

"뭐, 그래야 한다면…… 나는……" 미탸는 중얼거리며 침대에 앉아 양말을 벗기 시작했다. 그는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모두 옷을 입고 있는데 저 혼자 벗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옷을 벗고 나니 그 자신도 그들 앞에서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으며, 무엇보다 자기가 정말로 갑자기 그들 모두보다 낮아졌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를 경멸할 온전한 권리가 있다는 데 저 자신도 거의 동의하고 있었다. "모두 벗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지만, 혼자 벗고 있고 모두가 바라보면 망신이야!" 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만 스쳤다. "꼭 꿈속 같군. 꿈에서 가끔 나 자신이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걸 보곤 했지." 그런데 양말을 벗는 일은 그에게 괴롭기까지 했다. 양말이 몹시 더러웠고 속옷도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발을 싫어했고, 어쩐지 평생 두 발의 엄지발가락이 흉하다고 여겼고, 특히 오른발의 거칠고 납작하고 어쩐지 아래로 휘어 들어간 발톱 하나가 흉했는데, 이제 그들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갑자기 더욱, 이제는 일부러 거칠게 굴었다. 그는 손수 셔츠를 벗어 던졌다.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다른 데도 더 뒤져 보시지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알몸으로 있어야 합니까?" 그가 사납게 덧붙였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 수고스럽지만 여기 좀 앉아 계십시오, 침대에서 담요를 가져다 두르셔도 됩니다, 나는…… 내가 이걸 다 처리하겠습니다."

물건들을 모두 입회인들에게 보이고 조사 조서를 꾸민 다음, 마침내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나갔고 옷도 그를 따라 내갔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도 나갔다. 미탸 곁에는 농군들만 남아 말없이 서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미탸는 담요를 둘렀다. 추워졌다. 맨발이 밖으로 비죽 나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해도 담요를 발까지 끌어당겨 덮을 수가 없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어쩐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고문하듯 오래 걸리는군." "나를 강아지쯤으로 여기는 거야." 미탸는 이를 갈았다. "저 쓰레기 같은 검사도 나갔어. 틀림없이 경멸해서겠지, 알몸을 보기가 역겨워진 거야." 미탸는 그래도 그들이 어딘가 저쪽에서 자기 옷을 살펴보고 도로 가져오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갑자기 전혀 다른 옷을 들고, 그것도 뒤따르는 농군에게 들려서 돌아왔을 때 그의 분개가 어떠했겠는가.

"자, 옷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녀온 걸음이 성공한 데 몹시 흡족한 듯 거리낌 없이 말했다. "칼가노프 씨가 이 흥미로운 경우를 위해 내주시는 겁니다. 깨끗한 셔츠도 함께요. 다행히 마침 이게 다 그분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당신 것을 그대로 입으셔도 됩니다."

미탸는 무섭게 끓어올랐다.

"남의 옷은 싫습니다!" 그는 위협하듯 소리쳤다. "내 옷을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옷을 주시라고요. 칼가노프는 지옥에나 가라고 해요. 그놈 옷도, 그놈 자신도!"

그들은 오래도록 그를 달랬다. 그래도 어찌어찌 진정시켰다. 그들은 그의 옷이 피로 더럽혀졌으므로 "물적 증거 수집품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 옷을 그에게 입혀 둘 "권리조차 이제는 없다……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만큼"이라고 그를 타일렀다. 미탸는 마침내 어찌어찌 그것을 알아들었다. 그는 침울하게 입을 다물고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다만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이 자기의 낡은 옷보다 값지고 자기는 "덕 보기"는 싫다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그 밖에도 "굴욕스러울 만큼 꽉 낍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무슨 어릿광대짓이라도 해야 합니까…… 당신들 즐겁게 해 드리려고!"

그들은 그가 이번에도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칼가노프 씨가 그보다 키가 크기는 하지만 아주 조금일 뿐이고, 기껏해야 바지가 좀 길겠다고 다시 타일렀다. 그러나 프록코트는 정말로 어깨가 좁았다.

"빌어먹을, 단추 채우기도 힘들군." 미탸가 다시 투덜거렸다. "부탁이니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칼가노프 씨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옷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릿광대로 꾸며 놓았다고요."

"그분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일을……"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우물우물 말하려 했다.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든 말든 알 바 아닙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계속 여기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들은 그에게 다시 "그 방"으로 나가 달라고 청했다. 미탸는 분이 나서 얼굴을 찌푸린 채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나갔다. 남의 옷을 입고 있자니 이 농군들 앞에서도,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문간에 얼굴을 비쳤다가 사라진 트리폰 보리소비치 앞에서도 그는 완전히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다. "변장한 꼴을 구경하러 왔군." 미탸는 생각했다. 그는 아까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무언가 악몽 같고 터무니없는 것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자, 이제 뭡니까, 회초리로 매질이라도 시작하실 겁니까?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그는 검사를 보며 이를 갈았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쪽으로는 이제 고개를 돌리고 싶지도 않았다. 말을 건넬 값어치도 없다는 듯이. "내 양말을 지나치게 꼼꼼히 살펴보더군, 게다가 뒤집어 보라고까지 했어, 비열한 놈, 일부러 그런 거야, 내 속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두에게 내보이려고!"

"이제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물음에 대답하듯 말했다.

"네." 검사도 무언가를 헤아리듯 생각에 잠겨 말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우리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당신이 지니고 있던 돈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데 대해 그토록 단호한 거절을 받은 이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반지는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미탸가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깨어나기라도 한 듯,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오른손을 꾸민 커다란 반지 세 개 가운데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갑자기 말을 끊었다.

"반지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놀라서 되물었다.

"네, 이거요…… 여기 가운뎃손가락에 있는, 잔줄이 간 거요. 무슨 돌입니까?" 미탸가 어쩐지 짜증스럽게, 고집 센 아이처럼 우겼다.

"연수정입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미소 지었다. "보시겠습니까? 빼 드리지요……"

"아니, 아니, 빼지 마세요!" 미탸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 저 자신에게 화를 내며 사납게 소리쳤다. "빼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제기랄…… 여러분, 당신들은 내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당신들에게 그걸 감추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숨으려 들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걸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내게 죄가 있었다면, 맹세코,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당신들이 여기 닿기를,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고, 날이 밝기도 전에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없애 버렸을 겁니다! 나는 이제 그걸 내 몸으로 느낍니다. 스무 해를 살았어도 이 저주받은 밤에 깨달은 만큼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비를 죽인 놈이었다면, 이 밤에, 지금 이 순간 당신들과 앉아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당신들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리고리를 어쩌다 죽인 그 일조차 밤새 나를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 당신들의 처벌이 두려워서만은 아니라요! 망신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비웃는 사람들, 눈먼 두더지 같은 비웃는 사람들에게, 그게 당신들의 기소에서 나를 구해 준다 해도, 내가 또 하나의 비열한 짓을, 또 하나의 망신을 털어놓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차라리 유형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 그자가 아버지를 죽였고, 그자가 도둑질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아닙니다. 그걸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이게 내가 당신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전부이고, 이제 됐습니다, 들러붙지 마십시오…… 유형을 보내든 처형을 하든 하시되, 더는 나를 약 올리지 마십시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들을 부르십시오!"

미탸는 앞으로는 아주 끝까지 입을 다물기로 완전히 마음먹은 듯이 이 갑작스러운 독백을 내뱉었다. 검사는 내내 그를 지켜보다가, 그가 입을 다물자마자 더없이 차갑고 더없이 차분한 얼굴로 아주 예사로운 일을 말하듯 갑자기 입을 열었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는 마침 잘됐다 싶게, 바로 지금, 당신이 다치게 한 그리고리 바실리예프 노인의 매우 흥미롭고 당신에게나 우리에게나 더없이 중요한 진술 하나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정신이 들고 나서 우리가 묻는 말에 분명하게, 끈질기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현관 층계로 나와 정원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열려 있던 쪽문으로 정원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을 그때, 정원에 들어서서는,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알린 대로, 당신이 아버님을 보았다는 그 열린 창문에서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당신을 알아보기 전에, 그는, 그리고리는, 왼쪽으로 눈길을 던져 정말로 그 열린 창문을 보았고, 그와 동시에 자기에게서 훨씬 가까운 곳에 활짝 열린 문도 보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원에 있는 동안 내내 닫혀 있었다고 밝힌 바로 그 문 말입니다. 당신에게 감추지 않겠습니다만, 바실리예프 자신은 당신이 그 문으로 뛰어나왔을 것이 틀림없다고 굳게 결론을 내리고 증언합니다. 물론 그가 당신이 뛰어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처음 알아본 순간에 당신은 이미 그에게서 얼마쯤 떨어져, 정원 한가운데서 담장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미탸는 말이 반쯤 나왔을 때 벌써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헛소리!" 그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뻔뻔스러운 속임수예요! 그 사람은 열린 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은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되풀이해 말씀드리는 것이 내 의무라고 여깁니다만, 그의 진술은 확고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술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도 열을 올려 맞장구쳤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나를 모함하는 거거나 미친 사람의 환각이에요." 미탸는 계속 소리쳤다. "그저 헛소리를 하다가, 피를 흘리고 다쳐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네, 하지만 그가 열린 문을 본 건 다쳤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곁채에서 정원으로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앙심을 품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문으로 뛰어나오지 않았어요." 미탸는 숨이 막혔다.

검사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쪽으로 돌아서서 힘주어 말했다.

"보여 주십시오."

"이 물건을 아십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두꺼운 종이로 만든 관청 서류 크기의 큰 봉투를 갑자기 탁자 위에 내놓았고, 봉투에는 봉인 세 개가 아직 그대로 보였다. 봉투 자체는 비어 있었고 한쪽 옆이 찢겨 있었다. 미탸는 봉투를 보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이건…… 이건 그러니까 아버지 봉투로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 3천 루블이 들어 있던 바로 그 봉투…… 그리고 글이 있다면, 잠깐만요,

'병아리에게'…… 여기 있군요, 3천 루블." 그가 외쳤다. "3천 루블, 보이시지요?"

"보이고말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비어 있었고, 칸막이 뒤 침대 곁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미탸는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여러분, 이건 스메르댜코프예요!" 그가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놈이 죽였어요, 그놈이 털었어요! 노인이 봉투를 어디에 감춰 두었는지 그놈 하나만 알았으니까요…… 그놈이에요, 이제 분명해요!"

"하지만 당신도 봉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베개 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나는 그 봉투를 본 적도 아예 없어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전에는 스메르댜코프에게 들었을 뿐이에요…… 그놈 혼자 노인이 어디에 감춰 두었는지 알았고 나는 몰랐어요……" 미탸는 아주 숨이 막혔다.

"그런데도 아까 당신 스스로 봉투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베개 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베개 밑이라고 말했으니,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확인했다.

"헛소리예요, 터무니없어요! 나는 베개 밑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어쩌면 베개 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되는대로 베개 밑이라고 말했어요…… 스메르댜코프는 뭐라고 합니까? 그놈에게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스메르댜코프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나는 일부러 나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했어요…… 베개 밑에 있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당신들은

이제…… 왜, 아시잖아요, 말이 입에서 미끄러져 나오면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알았던 건 스메르댜코프 하나, 오직 스메르댜코프 하나뿐이고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그놈은 나한테도 어디 있는지 털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죽인 건 틀림없이 그놈이에요. 이제 내게는 대낮처럼 분명해요." 미탸는 갈수록 더 미친 듯이, 앞뒤 없이 되풀이하고 열을 올리고 악에 받쳐 외쳤다. "그걸 알아들으시고 어서 그놈을 잡아들이세요, 어서요…… 내가 달아나고 그리고리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바로 그놈이 죽였어요. 이제 분명해요…… 그놈이 신호를 보냈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 준 거예요…… 신호를 아는 건 그놈 하나뿐이었고, 신호가 없으면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그 사정을 잊고 계시는군요." 검사가 여전히 자제하면서도 벌써 이긴 듯이 말했다.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면, 당신이 있을 때, 당신이 아직 정원에 있을 때부터 열려 있었다면, 신호를 보낼 필요조차 없었다는 사정 말입니다……"

"문, 문." 미탸는 중얼거리며 말없이 검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힘없이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래요, 문!…… 이건 유령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거스르시는군요!" 그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앞을 바라보며 외쳤다.

"보십시오." 검사가 무게를 잡고 말했다. "그러니 이제 직접 헤아려 보십시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한편으로는 당신이 뛰어나온 그 열린 문에 대한 이 진술이 당신과 우리를 짓누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당신 손에 나타난 돈의 출처에 대해 당신이 영문 모를, 끈질긴, 거의 악에 받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생기기 불과 세 시간 전에, 당신 자신의 진술대로라면, 당신은 겨우 10루블을 얻으려고 권총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직접 정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멈추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신 영혼의 고결한 충동을 믿을 수 없는 '차가운 냉소가이자 비웃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처지도 헤아려 주십시오……"

미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동요했다. 그는 얼굴이 하얘졌다.

"좋습니다!" 그가 갑자기 외쳤다. "내 비밀을 털어놓겠습니다.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털어놓겠습니다!…… 망신을 털어놓겠습니다. 나중에 당신들도 나 자신도 탓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어쩐지 감격한 듯 기쁜 가느다란 목소리로 받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시는 진실하고 온전한 자백은 무엇이든 나중에 당신의 처지를 한없이 가볍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게다가 그 밖에도……"

그러나 검사가 탁자 밑으로 그를 가볍게 밀었고, 그는 제때 말을 멈출 수 있었다. 사실 미탸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았다.

제7장 미탸의 크나큰 비밀. 야유를 받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그 흥분한 채로 말을 꺼냈다. "그 돈은…… 나는 모두 자백하고 싶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었습니다."

검사와 예심판사는 얼굴이 길게 늘어지기까지 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당신 돈입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더듬거렸다. "그날 오후 다섯 시에만 해도, 당신 스스로 자백하신 대로……"

"에이, 그날 다섯 시고 내 자백이고 다 집어치우세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돈은 내 돈이었어요, 내 돈, 그러니까 내가 훔친 돈……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훔친 돈, 내가 훔친 돈이고, 1천 5백 루블이었고, 그걸 내가 지니고 있었어요, 내내 지니고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꺼냈습니까?"

"목에서요, 여러분, 목에서 꺼냈어요. 바로 이 내 목에서요…… 여기 내 목에 헝겊에 꿰매서 걸어 두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벌써 한 달 동안 그걸 목에 걸고 부끄럽게, 망신스럽게 다녔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그 돈을…… 가로챘습니까?"

"'훔쳤다'고 말하려던 거지요? 이제는 말을 곧이곧대로 하세요. 그래요, 나는 그걸 훔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신다면 정말로 '가로챘다'고 해도 좋고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훔친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아주 완전히 훔쳤고요."

"어젯밤에요? 하지만 방금 한 달 전에 그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에게서 훔친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훔쳤어요. 이야기하게 해 주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괴로운 일이니까요. 보세요, 한 달 전에 내 옛 약혼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베르호프체바가 나를 불렀어요…… 그 여자를 아십니까?"

"알고말고요, 무슨 말씀을."

"아시는 거 알아요. 더없이 고결한 영혼, 고결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고결한 영혼이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나를 미워했어요, 오,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그것도 마땅히, 마땅히 미워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말입니까?" 예심판사가 놀라서 되물었다. 검사도 무섭게 눈을 부릅떴다.

"오, 그 여자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 여자를 끌어들이다니 나는 비열한 놈이에요. 그래요, 그 여자가 나를 미워한다는 걸 나는 보았어요…… 오래전부터…… 맨 처음부터, 거기 내 하숙집에서 있었던 바로 그때부터…… 하지만 됐어요, 됐어요. 그건 당신들이 알 자격조차 없고,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 이것뿐이에요, 그 여자가 한 달 전에 나를 불러서 3천 루블을 내주며 모스크바에 있는 제 언니와 또 다른 친척 여자에게 부쳐 달라고 했어요(마치 저 혼자서는 부칠 수 없다는 듯이!). 그런데 나는…… 그건 바로 내 인생의 그 운명적인 시간이었어요, 내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막 다른 여자를, *그 여자*를, 지금의 그 여자를, 저기 지금 아래층에 앉아 있는 그 여자를, 그루셴카를 사랑하게 된 때였어요…… 나는 그때 그 여자를 여기 모크로예로 낚아채 데려와서, 이틀 동안 그 저주받은 3천 루블의 절반을, 그러니까 1천 5백 루블을 다 써 버렸고, 나머지 절반은

내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자, 내가 지니고 있던 바로 그 1천 5백 루블을 부적 주머니 대신 목에 걸고 다녔는데, 어제 그걸 뜯어서 써 버렸어요. 지금 당신 손에 있는 거스름돈 800루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그게 어제 그 1천 5백 루블에서 남은 거스름돈이에요."

"잠깐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한 달 전에 여기서 1천 5백 루블이 아니라 3천 루블을 썼잖습니까. 모두가 그걸 아는데요?"

"누가 그걸 압니까? 누가 세어 봤어요? 내가 누구한테 세어 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당신 스스로 그때 꼭 3천 루블을 썼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말했고, 온 읍내에 말했고, 온 읍내가 말했고, 모두가 그렇게 셈했고, 여기 모크로예에서도 모두가 똑같이 3천 루블이라고 셈했어요. 그래도 나는 3천 루블이 아니라 1천 5백 루블을 썼고, 나머지 1천 5백 루블은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었어요, 사정은 이랬어요, 여러분, 어제 그 돈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거의 기적 같군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더듬거렸다.

"하나 묻겠습니다." 마침내 검사가 입을 열었다. "그 사정을 전에 누구에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밝힌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1천 5백 루블을 그때, 한 달 전에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상하군요. 정말로 아무에게도, 아예 아무에게도요?"

"아예 아무에게도요.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하지만 왜 그렇게 입을 다물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그토록 비밀로 했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지요. 당신은 마침내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고, 당신 말로는 그 비밀이 그토록 '망신스러운' 것이라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말해서, 이

행위는, 그러니까 바로 남의 돈 3천 루블을 가로챈 일, 그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저 잠시 가로챈 일은, 이 행위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저 더없이 경솔한 행위일 뿐 그리 망신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의 성격도 헤아려 보면 말입니다…… 뭐, 더없이 낯 뜨거운 행위라고 해 둡시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낯 뜨거운 것이지 그래도 망신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사실이겁니다. 당신이 베르호프체바 양에게서 받아 써 버린 그 3천 루블에 대해서는 이번 한 달 동안 당신이 자백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이 짐작하고 있었고, 나도 그 전설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미하일 마카로비치도 들었고요. 그러니 결국 이건 이제 거의 전설이 아니라 온 읍내의 뒷공론입니다. 게다가 당신 자신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그걸, 그러니까 바로 그 돈이 베르호프체바 양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털어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 말로 떼어 두었다는 그 1천 5백 루블에 그토록 엄청난 비밀을 붙이고, 그 비밀에 무슨 공포까지 엮어 놓은 것이 나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 비밀을 털어놓는 데 그토록 괴로워해야 했다는 건 믿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금 자백하느니 차라리 유형지로 가겠다고 소리치기까지 했으니까요……"

검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열이 올라 있었다. 그는 분한 마음을, 거의 화가 난 마음을 감추지 않았고, 말씨를 다듬을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앞뒤 없이 거의 갈피를 잃은 채 쌓인 것을 모조리 쏟아 놓았다.

"망신은 1천 5백 루블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그 1천 5백 루블을 그 3천 루블에서 떼어 놓았다는 데 있었어요." 미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뭡니까." 검사가 짜증스럽게 비웃었다. "이미 낯 뜨겁게, 아니 원하신다면 망신스럽게 가져간 3천 루블에서 당신 마음대로 절반을 떼어 놓았다는 게 대체 무엇이 망신스럽다는 겁니까? 중요한 건 당신이 3천

루블을 가로챘다는 거지, 그 돈을 어떻게 처분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당신은 왜 하필 그렇게 처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반을 떼어 놓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오, 여러분, 바로 그 목적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미탸가 외쳤다. "비열해서, 그러니까 셈속으로 떼어 놓았어요. 이 경우에는 셈속이 바로 비열함이니까요…… 그리고 그 비열함이 꼬박 한 달 동안 이어졌어요!"

"알 수가 없군요."

"당신들이 놀랍군요. 하기야 더 설명하지요. 정말로 알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보세요, 내 말을 잘 따라오세요. 내가 내 명예를 믿고 맡긴 3천 루블을 가로채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 놀고 몽땅 써 버린 다음, 이튿날 아침에 그 여자에게 가서 '카탸, 내가 잘못했어, 네 3천 루블을 다 써 버렸어' 하고 말한다고 칩시다. 자, 어때요, 좋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아요, 명예롭지 못하고 비겁하지요, 짐승이고, 짐승처럼 제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도둑은 아니지요? 대놓고 도둑은 아니에요, 대놓고는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써 버렸지 훔치지는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 경우, 더욱 유리한 경우예요, 잘 따라오세요, 안 그러면 내가 또 헷갈릴지도 모르니까요, 어쩐지 머리가 핑 도는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예요. 내가 여기서 3천 루블 가운데 1천 5백 루블만, 그러니까 절반만 써 버려요. 이튿날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절반을 가져다주지요. '카탸, 이 망나니이고 경솔한 비열한 놈에게서 이 절반을 받아 줘, 절반은 써 버렸으니 이것도 써 버릴 거야, 그러니 죄를 짓기 전에 치워 버리게!'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무엇이든 좋아요, 짐승이고 비열한 놈이지만 이제 도둑은 아니에요, 결코 도둑은 아니에요, 도둑이라면 틀림없이 거스름돈 절반을 도로 가져다주지 않고 그것까지 가로챘을 테니까요. 여기서 그

여자는 이 사람이 절반을 가져왔으니 나머지도, 그러니까 써 버린 것도 가져올 거라는 걸, 평생 찾아다니고 일하겠지만 찾아내서 돌려줄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비열한 놈이지만 도둑은 아니에요, 도둑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 도둑은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 두지요." 검사가 차갑게 비웃었다. "그래도 당신이 거기서 그토록 운명적인 차이를 본다는 건 이상합니다."

"네, 그토록 운명적인 차이를 봐요! 비열한 놈은 누구나 될 수 있고, 어쩌면 누구나 그렇지요, 하지만 도둑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열한 놈 중의 상비열한 놈만 될 수 있어요. 뭐, 나는 그런 미묘한 건 잘 모르지만…… 다만 도둑은 비열한 놈보다 더 비열해요. 그게 내 신념이에요. 들어 보세요, 나는 그 돈을 꼬박 한 달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녀요, 당장 내일이라도 돌려주기로 마음먹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제 비열한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먹고, 날마다 '마음먹어, 마음먹어, 비열한 놈아' 하고 나 자신을 떠밀면서도, 한 달 내내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때요, 좋습니까, 당신들 생각에는 좋습니까?"

"그리 좋지 않다고 해 두지요. 그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검사가 자제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미묘한 차이와 구별에 대한 말다툼은 모두 미루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론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은 바로, 우리가 물었는데도 당신이 아직 설명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당신은 처음에 무엇 때문에 그 3천 루블을 그렇게 나누었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써 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감추었습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정확히 말해 무엇 때문에 감추었고, 떼어 둔 그 1천 5백 루블을 정확히 무엇에 쓰려 했습니까? 나는 이 물음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아,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미탸가 제 이마를 치며 외쳤다. "용서하세요, 나는 당신들을 괴롭히면서 가장 중요한 걸 설명하지 않고 있군요, 그걸 설명하면 당신들은 단번에 알아들었을 텐데요, 바로 그 목적에, 그 목적에 망신이 있으니까요! 보세요, 여기에는 줄곧 그 노인, 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줄곧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를 꼬드겼고, 나는 질투했고, 그때는 그 여자가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했지요, 갑자기 그 여자 쪽에서 마음을 정하면 어쩌나, 나를 괴롭히는 데 지쳐서 갑자기 '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요, 나를 세상 끝까지 데려가 줘요' 하고 말하면 어쩌나. 그런데 나한테는 20코페이카짜리 은화 두 닢밖에 없어요. 그걸로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때 나는 그 여자를 몰랐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에게 돈이 필요하고 그 여자가 내 가난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음흉하게 3천 루블에서 절반을 세어 떼어 놓고, 냉정하게 바늘로 꿰매요, 셈속을 차려서 꿰매요, 술 마시기 전에 꿰매고, 다 꿰매고 나서는 나머지 절반을 들고 술 마시러 가요! 아니요, 이건 비열한 짓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검사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예심판사도 그랬다.

"내 생각에는 참고 다 써 버리지 않았으니 오히려 분별 있고 도덕적이기까지 한데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킥킥거렸다. "여기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훔쳤다는 거요, 바로 그거예요! 오, 하느님, 당신들은 못 알아들어서 나를 질겁하게 하는군요! 그 1천 5백 루블을 가슴에 꿰매어 지니고 다니는 내내, 나는 날마다 매시간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는 도둑이야, 너는 도둑이야!' 그래서 나는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사납게 날뛰었고, 그래서 술집에서 싸움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두들겨 팼어요, 나

자신이 도둑이라고 느꼈으니까요! 나는 동생 알료샤에게조차 그 1천 5백 루블 이야기를 털어놓을 엄두를 못 냈어요, 감히 그러지 못했고, 그만큼 나 자신이 비열한 놈이고 사기꾼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알아 두세요. 그걸 지니고 다니는 동안 나는 그와 동시에 날마다 매시간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너는 어쩌면 아직 도둑이 아닌지도 몰라.' 왜냐고요? 바로 네가 내일이라도 가서 그 1천 5백 루블을 카탸에게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다 어제에야 나는 페냐에게서 나와 페르호틴에게 가는 길에 목에서 부적 주머니를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순간까지는 마음을 먹지 못했는데, 뜯어내자마자 바로 그 순간 나는 이제 완전하고 다툴 여지 없는 도둑이, 평생 도둑이자 명예를 잃은 인간이 되었어요. 왜냐고요? 부적 주머니와 함께 카탸에게 가서 '나는 비열한 놈이지 도둑은 아니야' 하고 말하려던 내 꿈까지 찢어 버렸으니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어젯밤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을 끊으려 했다.

"왜냐고요? 묻는 게 우습군요, 나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했으니까요, 아침 다섯 시에, 여기서 해가 뜰 때요. '어차피 죽을 텐데, 비열한 놈으로 죽든 고결한 사람으로 죽든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찬가지가 아니었어요!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나를 가장 괴롭힌 건 그게 아니었고, 내가 늙은 하인을 죽였다는 것, 시베리아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언제요, 내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늘이 내게 다시 열린 바로 그때요! 오, 그것도 괴로웠지만 그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마침내 가슴에서 그 저주받은 돈을 뜯어내어 써 버렸으니 이제는 완전한 도둑이라는 이 저주받은 의식만큼은 아니었어요! 오, 여러분, 가슴의 피를 쏟으며 되풀이해 말하는데, 나는 이 밤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비열한 놈으로 사는 것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비열한 놈으로 죽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죽을 때는 떳떳하게 죽어야 해요!……"

미탸는 창백했다. 그는 극도로 열이 올라 있었는데도 얼굴은 기진맥진하고 시달린 모습이었다.

"이제 당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검사가 부드럽게, 거의 동정하는 듯이 말을 늘였다. "하지만 이건 모두, 좋을 대로 생각하시되, 내가 보기에는 그저 신경입니다…… 당신의 병든 신경,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거의 꼬박 한 달 동안의 그 숱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은 왜 그 1천 5백 루블을 당신에게 그 돈을 맡긴 그분에게 가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끝낸 다음, 당신이 그려 보이는 만큼 그토록 끔찍했던 그때의 당신 처지를 생각하면, 왜 머리에 그토록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방책을 써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당신의 잘못을 고결하게 고백한 다음, 왜 바로 그분에게 당신의 비용에 필요한 돈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그분이 당신의 곤경을 보고 물론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요, 특히 차용증을 써 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당신이 상인 삼소노프와 호흘라코바 부인에게 내놓았던 것과 같은 담보라도 걸었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그 담보를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탸가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정말로 나를 그 정도까지 비열한 놈으로 여기십니까?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일 리가 없어요!……" 그는 분개하여 검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에게서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장담하지만 진심입니다…… 왜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검사가 놀랐다.

"오, 그건 얼마나 비열한 짓이겠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좋아요, 다 말하지요, 될 대로 되라지요. 이제 내 지옥 같은 속을 다 털어놓겠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어우러져 얼마나 비열한 데까지 갈 수 있는지 당신들 스스로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알아 두세요. 나도 이미 그 방책을, 바로 당신이 방금 말한 그 방책을 생각했어요, 검사 양반! 그래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한 달 동안 나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마터면 카탸에게 가기로 마음먹을 뻔했고, 그만큼 나는 비열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배신을 알리고, 바로 그 배신을 위해서, 그 배신을 이루려고, 그 배신에 들어갈 비용을 위해서, 바로 그 여자에게, 카탸에게 돈을 청하고(청하다니, 들리십니까, 청하다니!) 곧바로 그 여자에게서 다른 여자와, 그 여자의 연적과, 그 여자를 미워하고 모욕한 여자와 달아난다니, 무슨 말씀을, 당신 미쳤군요, 검사 양반!"

"미쳤든 안 미쳤든, 물론 나는 급한 마음에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질투에 대해서는요…… 당신 주장대로 정말로 거기에 질투가 있을 수 있었다면…… 그래요, 어쩌면 거기에 그 비슷한 게 있겠군요." 검사가 비웃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추악한 짓이었을 거예요." 미탸가 사납게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건 얼마나 구린내가 났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내게 그 돈을 줄 수도 있었다는 걸, 그리고 주었을 거라는 걸, 틀림없이 주었을 거라는 걸 아십니까? 나에게 복수하려고 주었을 거예요, 복수하는 즐거움으로, 나를 경멸해서 주었을 거예요, 그 여자도 지옥 같은 영혼이고 크나큰 분노를 품은 여자니까요! 그리고 나는 돈을 받았을 거예요, 오,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평생…… 오, 하느님! 용서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주 얼마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저께,

내가 밤에 랴가비와 씨름하던 그때, 그리고 어제도, 그래요, 어제도, 어제 하루 종일, 기억해요, 바로 그 일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기까지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호기심에 차서 끼어들려 했지만 미탸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끔찍한 자백을 했습니다." 그가 침울하게 맺었다. "그러니 그 값을 쳐 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그것으로는 모자라요, 값을 한 번 쳐 주는 걸로는 모자라요, 값을 쳐 주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것마저 당신들 영혼을 스쳐 지나간다면, 그때는 당신들이 아예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신들 같은 사람에게 자백했다는 부끄러움으로 죽을 거예요! 오, 총으로 나 자신을 쏘겠어요! 아니, 벌써 보여요, 보여요, 당신들은 나를 믿지 않는군요! 뭐라고요, 그것까지 받아 적으실 겁니까?" 그는 이제 겁에 질려 외쳤다.

"아니, 방금 하신 말씀 말입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맨 마지막 시간까지도 베르호프체바 양에게 가서 그 돈을 청할 생각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장담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술입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그러니까 이 일 전체에 대해서요…… 그리고 특히 당신에게, 특히 당신에게 중요합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세요, 여러분." 미탸가 두 손을 마주쳤다. "그것만은 적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는, 말하자면, 당신들 앞에서 내 영혼을 반으로 찢었는데, 당신들은 그걸 이용해서 찢긴 자리를, 두 쪽 모두를 손가락으로 헤집고 있군요…… 오, 하느님!"

그는 절망하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검사가 맺었다. "지금 받아 적은 것은 모두 나중에 직접 들어 보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신 말대로 고치겠습니다만, 지금 작은 물음 하나를 세 번째로 되풀이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정말로 아예 아무도, 당신이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은 그 돈 이야기를 당신에게서 듣지 못했습니까? 말씀드리자면, 그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요, 아무도.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가만 내버려 두세요."

"좋습니다, 이 일은 밝혀져야 하고, 그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우선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쩌면 수십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써 버린 3천 루블, 1천 5백 루블이 아니라 3천 루블 이야기를 퍼뜨리고 심지어 곳곳에서 떠들고 다녔다는 증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제 그 돈이 나타났을 때도, 당신은 이번에도 3천 루블을 가져왔다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증언이 당신들 손에 있어요. 2백 가지 증언, 2백 명이 들었어요, 1천 명이 들었어요!" 미탸가 외쳤다.

"자, 보십시오, 모두가, 모두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모두*라는 말에 무언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뜻도 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내 뒤를 따라 모두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쓰는 말대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까?"

"그건 악마나 알지요. 허풍으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많은 돈을 써 버렸다고…… 어쩌면 꿰매 넣은 그 돈을 잊으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바로 그래서였어요…… 제기랄…… 그 물음을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뭐, 거짓말을 했고,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거짓말을 했으니 고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따금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지, 그건 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검사가 무게를 잡고 말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 목에 있던, 당신이 부적 주머니라고 부르는 그것은 컸습니까?"

"아니요, 크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얼마만 했습니까?"

"100루블짜리 지폐를 반으로 접으면 그만한 크기예요."

"그 헝겊 조각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지니고 계실 텐데요."

"에이, 제기랄……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걸 어디서, 언제 목에서 떼어 냈습니까? 당신 진술대로라면 집에는 들르지 않았잖습니까?"

"페냐에게서 나와 페르호틴에게 가다가 길에서 목에서 뜯어내고 돈을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요?"

"여기에 초가 왜 필요해요? 손가락으로 순식간에 해치웠어요."

"가위도 없이, 길거리에서요?"

"광장에서였던 것 같아요. 가위가 왜 필요해요? 낡아 빠진 헝겊이라 금방 찢어졌어요."

"그럼 그 뒤에 그걸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자리에 버렸어요."

"정확히 어디에요?"

"광장에요, 그냥 광장에요! 광장 어디였는지 악마나 알지요. 그런데 그게 당신들한테 왜 필요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바로 당신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십니까? 한 달 전에 꿰맬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나 혼자 꿰맸어요."

"바느질을 할 줄 아십니까?"

"군인은 바느질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게다가 이건 무슨 솜씨도 필요 없어요."

"그 재료는, 그러니까 꿰매 넣은 그 헝겊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설마 비웃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천만에요. 우리는 웃을 때가 아닙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헝겊을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선가 구했어요."

"그런 것쯤은 기억이 날 법도 한데요?"

"정말이지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속옷 같은 걸 찢었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주 흥미롭군요. 내일 당신 하숙집에서 그 물건이, 어쩌면 당신이 한 조각을 찢어 낸 셔츠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헝겊은 무엇으로 된 것이었습니까. 거친 삼베였습니까, 아마포였습니까?"

"그게 무엇으로 됐는지 악마나 알지요. 잠깐만요…… 나는 아무것에서도 찢어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옥양목이었어요…… 하숙집 안주인의 머릿수건에 꿰맸던 것 같아요."

"하숙집 안주인의 머릿수건에요?"

"네, 그 여자한테서 슬쩍 가져왔어요."

"슬쩍 가져왔다니, 어떻게요?"

"보세요, 정말로, 기억나는 대로라면 언젠가 머릿수건 하나를 헝겊으로 쓰려고, 어쩌면 펜을 닦으려고 슬쩍 가져왔어요. 아무 쓸모 없는 헝겊이라 몰래 가져왔지요. 헝겊 조각들이 내 방에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1천 5백 루블이 생겨서 그걸 가져다 꿰맸어요…… 바로 그 헝겊에 꿰맨 것 같아요. 천 번은 빨아 낡아 빠진 옥양목 쪼가리예요."

"그럼 그건 이제 확실히 기억하십니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머릿수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 될 대로 되라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하숙집 안주인이 적어도 그 물건이 없어졌다는 건 기억해 낼 수 있겠군요?"

"천만에요. 그 여자는 없어진 줄도 몰랐어요. 낡은 헝겊이라니까요, 낡은 헝겊, 한 푼어치도 안 돼요."

"그럼 바늘은, 실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만두겠어요. 더는 싫어요. 됐어요!" 마침내 미탸가 화를 냈다.

"그리고 또 이상하군요. 광장 어느 자리에 그…… 부적 주머니를 버렸는지 그렇게 깡그리 잊어버리셨다니요."

"그럼 내일 광장을 쓸라고 하세요. 찾을지도 모르지요." 미탸가 비웃었다.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그는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끝을 냈다. "분명히 보여요. 당신들은 나를 믿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푼어치도요! 내 잘못이지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괜히 나섰어요. 왜, 왜 나는 내 비밀을 털어놓아 나 자신을 역겹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당신들한테는 이게 우스운 거예요. 당신들 눈을 보면 알아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검사 양반! 할 수 있으면 개선가나 부르시지요…… 저주나 받아라, 고문하는 사람들아!"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검사와 예심판사는 말이 없었다. 1분쯤 지나 그는 고개를 들고 어쩐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이루어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드러나 있었고, 그는 어쩐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앉아 정신을

놓은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일을 끝내야 했다. 지체 없이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야 했다. 벌써 아침 여덟 시쯤이었다. 초는 이미 오래전에 꺼 버렸다. 신문하는 동안 내내 방을 들락날락하던 미하일 마카로비치와 칼가노프는 이번에도 둘 다 다시 나갔다. 검사와 예심판사도 몹시 지친 모습이었다. 밝아 온 아침은 궂었고, 하늘은 온통 구름에 덮였으며, 비가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졌다. 미탸는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을 좀 내다봐도 됩니까?" 그가 갑자기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에게 물었다.

"오, 얼마든지요." 그가 대답했다.

미탸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비가 작고 푸르스름한 창유리를 마구 때렸다. 창문 바로 밑으로 진창길이 보였고, 그 너머 멀리 비 내리는 어스름 속에 검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농가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비 때문에 더 검어지고 더 가난해진 것 같았다. 미탸는 "금빛 머리채의 포이보스"를 떠올렸고, 그 첫 햇살과 함께 총으로 죽으려 했던 것을 떠올렸다. "어쩌면 이런 아침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지." 그는 비웃더니 갑자기 손을 위에서 아래로 홱 내젓고는 "고문하는 사람들" 쪽으로 돌아섰다.

"여러분!" 그가 외쳤다. "내가 끝장났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요? 그 여자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설마 그 여자도 나와 함께 끝장나는 건 아니겠지요? 그 여자는 죄가 없어요. 어제 그 여자가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소리친 건 제정신이 아니어서였어요. 그 여자는 아무 죄도, 아무 죄도 없어요! 당신들과 앉아 있으면서 나는 밤새 가슴 아팠어요…… 말해 줄 수 없습니까, 말해 주실 수 없나요. 이제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안심하십시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검사가 곧바로, 눈에 띄게 서둘러 대답했다. "당신이 그토록 마음 쓰는 그분을 무엇 하나로라도 번거롭게 해 드릴 만한 중요한 동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진행되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뜻에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아주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들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준비됐어요."

"네, 서둘러야겠습니다. 지체 없이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당신이 보는 자리에서 해야 하니까……"

"먼저 차나 한잔하지 않겠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을 끊었다. "그만한 자격은 얻은 것 같은데요!"

아래층에 준비된 차가 있다면(미하일 마카로비치가 틀림없이 "차를 마시러" 나갔을 테니) 한 잔씩 마시고 그다음에 "계속하고 또 계속하기로" 정했다. 제대로 된 차와 "요깃거리"는 좀 더 한가한 시간으로 미루었다. 정말로 아래층에 차가 있었고, 곧 위층으로 올려 왔다. 미탸는 처음에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친절하게 내미는 잔을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저 스스로 청해서 게걸스럽게 마셨다. 대체로 그는 어쩐지 놀라울 만큼 지친 모습이었다. 그의 장사 같은 힘을 생각하면, 흥청망청 논 하룻밤이, 그것도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 따랐다 한들 무슨 대수였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저 자신이 겨우 앉아 있다고 느꼈고, 이따금은 모든 물건이 눈앞에서 걸어 다니고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가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8장 증인들의 진술. 아기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해 온 만큼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어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불려 오는 증인마다 진실과 양심에 따라 진술해야 하며 나중에 이 진술을 선서하고 되풀이해야 한다고 타이른 일은 건너뛰겠다. 마지막으로 증인마다 자기 진술 조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일 따위도 건너뛰겠다. 한 가지만 짚어 두자면, 신문하는 사람들이 온 주의를 기울인 가장 중요한 점은 주로 여전히 바로 그 3천 루블 문제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곧 한 달 전 여기 모크로예에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처음 흥청망청 놀았을 때 그 돈이 3천 루블이었느냐 1천 5백 루블이었느냐, 그리고 어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두 번째로 흥청망청 놀았을 때 3천 루블이었느냐 1천 5백 루블이었느냐 하는 문제였다. 아아, 모든 증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미탸에게 불리했고 그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어떤 증언은 그의 진술을 반박하는 새로운, 거의 어안이 벙벙해지는 사실들까지 보탰다. 맨 먼저 신문을 받은 사람은 트리폰 보리시치였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나섰고, 오히려 피고에게 엄하고 매서운 분개를 품은 얼굴이었으며, 그것으로 그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대단한 정직함과 자존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덧입혔다. 그는 말을 아끼고 삼가며 물음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곰곰이 헤아려 대답했다. 그는 한 달 전에 3천 루블보다 적게 썼을 리가 없다고, 여기 농군들이 모두 3천 루블 이야기를

"미트리 표도리치" 본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단단히 진술했다. "집시 계집들한테만 돈을 얼마나 뿌렸는뎁쇼. 그것들한테만도 아마 1천 루블은 넘었을 겁니다요."

"500루블도 안 줬을지 몰라." 미탸가 거기에 대고 침울하게 말했다. "그때 세어 보지 않았을 뿐이지. 취해 있었으니까. 아쉽군……"

미탸는 이번에는 휘장을 등지고 옆쪽에 앉아 침울하게 듣고 있었는데, 서글프고 지친 모습이 꼭 "에이, 뭐든 마음대로 진술해.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것들한테 1천 루블이 넘게 들어갔습니다요, 미트리 표도로비치." 트리폰 보리소비치가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무렇게나 뿌리셨고 그것들이 주워 갔습죠. 그 족속은 도둑에 사기꾼이고 말 도둑이라, 여기서 쫓아 버렸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저것들이 나리한테서 얼마씩 챙겼는지 손수 진술했을지도 모릅죠. 저도 그때 나리 손에 든 돈을 보았습니다요. 세어 보지는 못했습죠, 나리가 세어 보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요. 하지만 눈대중으로는, 기억하기로 1천 5백 루블보다 훨씬 많았습니다요…… 1천 5백이 다 뭡니까요! 저희도 돈 구경은 해 봤으니 가늠할 줄은 압죠……"

어제 그 돈에 대해서는, 트리폰 보리소비치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말에서 내리자마자 자기에게 직접 3천 루블을 가져왔다고 알렸다고 대놓고 진술했다.

"그만하게, 정말 그랬나, 트리폰 보리시치." 미탸가 반박하려 했다. "정말 내가 3천 루블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딱 잘라 알렸단 말인가?"

"말씀하셨습니다요, 미트리 표도로비치. 안드레이 앞에서 말씀하셨습죠. 저기 안드레이가 아직 떠나지 않고 있으니 불러 보십쇼. 그리고 저기 홀에서 합창단에게 한턱내실 때, 여기서 여섯 번째 1천 루블을 쓰고 가신다고 대놓고 소리치셨습죠. 그러니까 지난번 것까지

쳐서 말입죠, 그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요. 스테판하고 세묜이 들었고, 표트르 포미치 칼가노프 나리도 그때 나리 곁에 서 계셨으니 그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릅죠……"

여섯 번째 1천 루블에 대한 진술은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인상을 남겼다. 새 판본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고, 셋에 셋이면 여섯, 그러니 그때 3천 루블에 이번 3천 루블, 그것으로 6천 루블이 다 채워지니 분명해 보였다.

트리폰 보리소비치가 가리킨 농군들, 스테판과 세묜, 마부 안드레이, 그리고 표트르 포미치 칼가노프를 모두 신문했다. 농군들과 마부는 트리폰 보리시치의 진술을 거침없이 확인했다. 그 밖에도 안드레이의 말에 따라, 그가 길에서 미탸와 나눈 이야기, "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어디로 가게 될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저세상에서 나를 용서해 줄까 말까" 했다는 이야기를 특별히 받아 적었다. "심리학자"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이 모든 것을 엷은 미소를 띠고 듣더니, 결국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한 이 진술도 "사건 서류에 붙여 두라"고 권했다.

신문을 받게 된 칼가노프는 마지못해, 찌푸리고 언짢은 얼굴로 들어와서는, 오래전부터 날마다 보는 사이였는데도 검사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를 난생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도 여섯 번째 1천 루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순간 곁에 서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가 보기에 미탸 손에 든 돈은 "얼마였는지 모른다". 폴란드인들이 카드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데 대해서는 그렇다고 진술했다. 거듭된 물음에, 폴란드인들을 쫓아낸 뒤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와 미탸의 사이가 정말로 나아졌고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스스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것도 설명했다. 그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에 대해 마치 그 여자가 가장 훌륭한 사교계의 마님이라도 되는 듯이 삼가며 공손하게 이야기했고, 한 번도 그 여자를 "그루셴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젊은이가 진술하기를 눈에 띄게 꺼렸는데도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그를 오래 캐물었고, 말하자면 이 밤에 있었던 미탸의 "연애 소설"을 이루는 모든 자질구레한 사정을 그에게서만 알아냈다. 미탸는 한 번도 칼가노프를 가로막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젊은이를 내보냈고, 그는 분개를 감추지 않고 물러갔다.

폴란드인들도 신문했다. 그들은 제 작은 방에서 자리에 눕기는 했지만 밤새 잠들지 못했고, 관헌이 닿자 자기들도 틀림없이 불려 가리라는 것을 알고 서둘러 옷을 입고 매무새를 갖추었다. 그들은 얼마쯤 겁을 먹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위엄 있게 나타났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작은 판은 알고 보니 퇴직한 12등 관리로 시베리아에서 수의사로 일했고, 성은 판 무샬로비치였다. 판 브루블렙스키는 알고 보니 개업한 덴티스트, 러시아 말로 치과 의사였다. 두 사람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묻는데도 곧바로 한쪽에 서 있던 미하일 마카로비치에게 대답을 했다. 몰라서 그를 이곳의 가장 높은 관리이자 책임자로 여기고 한마디마다 그를 "판 풀코브니쿠(대령님)"라고 불렀다. 몇 번을 그러고 나서, 그리고 미하일 마카로비치가 직접 일러 준 뒤에야 그들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에게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몇몇 낱말의 발음 말고는 러시아 말을 아주 아주 바르게 할 줄 알았다. 판 무샬로비치는 그루셴카와의 관계, 예전 관계와 지금 관계에 대해 뜨겁고 오만하게 밝히려 들었고, 그러자 미탸가 단번에 이성을 잃고 "비열한 놈"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판 무샬로비치는 곧바로 "비열한 놈"이라는 낱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을 조서에 넣어 달라고 청했다. 미탸는 노여움으로 끓어올랐다.

"비열한 놈, 비열한 놈이지! 그걸 넣으시오. 그리고 조서가 있든 말든 나는 그래도 비열한 놈이라고 소리친다는 것도 넣으시오!" 그가 고함쳤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조서에 넣기는 했지만, 이 불쾌한 일에서 더없이 칭찬받을 만한 사무 솜씨와 처리 능력을 보였고, 그는 미탸를 엄하게 타이른 다음 곧바로 사건의 연애 쪽에 관한 물음을 모두 그만두고 서둘러 요점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요점에서 판들의 진술 하나가 예심하는 사람들의 남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미탸가 그 작은 방에서 판 무샬로비치를 매수하려 하면서 물러나는 값으로 3천 루블을 내놓았는데, 700루블은 그 자리에서 손에 쥐여 주고 나머지 2천 3백 루블은 "당장 내일 아침 읍내에서" 주겠다고 했으며, 이때 여기 모크로예에는 지금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없고 돈은 읍내에 있다고 밝히며 명예를 걸고 맹세했다는 이야기였다. 미탸는 발끈해서 내일 읍내에서 틀림없이 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려 했지만, 판 브루블렙스키가 그 진술을 확인했고, 미탸 자신도 1분쯤 생각하더니 얼굴을 찌푸린 채, 아마 판들 말대로였을 것이며 그때는 흥분해 있었으니 정말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 동의했다. 검사는 이 진술에 그야말로 달라붙었다. 예심으로서는 미탸의 손에 들어온 3천 루블의 절반이나 일부가 정말로 읍내 어딘가에, 어쩌면 여기 모크로예 어딘가에라도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예심으로서는 껄끄러웠던 사정, 곧 미탸의 손에서 고작 800루블만 나왔다는 사정도 풀렸고, 그 사정은 지금까지 단 하나뿐이고 꽤 보잘것없기는 해도 그나마 미탸에게 유리한 증거였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유리한 이 단 하나의 증거마저 무너졌다. 검사가 물었다. 그 자신이 1천 5백 루블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판에게는 명예를 걸고 다짐했으니, 내일 판에게 줄

나머지 2천 3백 루블은 어디서 구하려 했느냐고. 미탸는 내일 그 "폴란드 녀석"에게 돈이 아니라 체르마시냐 영지에 대한 자기 권리를 넘기는 정식 증서를 내놓으려 했다고, 삼소노프와 호흘라코바에게 내놓았던 바로 그 권리라고 단단히 대답했다. 검사는 "그 순진한 꼼수"에 비웃음까지 지었다.

"그럼 그 사람이 현금 2천 3백 루블 대신 그 '권리'를 받는 데 동의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동의했을 겁니다." 미탸가 열을 올려 잘라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걸로 2천 루블이 아니라 4천 루블, 아니 6천 루블이라도 그자는 낚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자는 당장 제 패거리 변호사 나부랭이들을, 폴란드 녀석들과 유대 녀석들을 끌어모아서 3천 루블이 아니라 체르마시냐를 통째로 노인한테서 뜯어냈을 겁니다."

물론 판 무샬로비치의 진술은 더없이 자세하게 조서에 넣었다. 그것으로 판들을 내보냈다. 카드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은 거의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그러지 않아도 그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으므로 하찮은 일로 그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그것은 모두 취해서 카드를 하다가 벌어진 하찮은 다툼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 밤에 흥청망청 놀고 추태를 부린 일이 어디 한둘이었던가…… 그래서 그 돈, 200루블은 그대로 판들의 주머니에 남았다.

그다음에 막시모프 노인을 불렀다. 그는 쭈뼛거리며 나타나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는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몹시 서글픈 모습이었다. 그는 내내 저 아래층에서 그루셴카 곁에 붙어 앉아 말없이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미하일 마카로비치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이따금 그 여자를 보며 훌쩍이기 시작하고는 파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그루셴카가 오히려 그를 달래고 위로해야 했다. 노인은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서 "10루블을요, 가난해서요" 꾸었으며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털어놓았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대놓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서 돈을 꿀 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의 손에 든 돈을 볼 수 있었을 테니 그의 손에 정확히 얼마가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았느냐고 묻자, 막시모프는 더없이 단호하게 돈이 "2만 루블이었습니다요"라고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전에 어디서든 2만 루블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보고말고요, 봤습니다요. 다만 2만이 아니라 7천이었습니다요. 제 아내가 제 조그만 마을을 저당 잡혔을 때였습죠. 멀찍이서만 보게 해 주더군요, 제 앞에서 자랑을 하느라고요. 아주 두툼한 다발이었습니다요, 죄다 무지갯빛 지폐였습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 있던 것도 죄다 무지갯빛 지폐였고요……"

그는 곧 내보내졌다. 마침내 그루셴카의 차례가 왔다. 예심하는 사람들은 그루셴카가 나타나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 미칠지 모를 인상을 눈에 띄게 걱정했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미탸에게 타이르는 말을 몇 마디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미탸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소란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알렸다. 그루셴카는 미하일 마카로비치가 손수 데리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엄하고 침울한 얼굴로, 겉보기에는 거의 차분하게 들어와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맞은편, 앉으라고 가리킨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 여자는 몹시 창백했고, 추운 것 같았으며, 아름다운 검은 숄을 몸에 꼭 여며 두르고 있었다. 실제로 그때 그 여자에게는 가벼운 열병 오한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밤 이후 그 여자가 앓게 된 긴 병의 시작이었다. 그 여자의 엄한 모습, 곧고 진지한 눈길, 차분한 몸가짐은

모두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단번에 얼마쯤 "마음이 쏠리기"까지 했다. 그는 나중에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며, 그때에야 처음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미인인지" 깨달았고, 전에는 그 여자를 보기는 했어도 늘 무슨 "군 소재지의 헤타이라" 비슷한 것으로 여겼다고 털어놓았다. "그 여자는 몸가짐이 최상류 사교계 사람 같아요." 언젠가 어느 부인들 모임에서 그는 감격에 겨워 불쑥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부인들은 더없이 분개하며 그 말을 듣더니 곧바로 그를 "장난꾸러기"라고 불렀고, 그는 그 말에 몹시 흡족해했다. 방에 들어서면서 그루셴카는 미탸를 그저 흘끗 보기만 한 것 같았는데, 미탸는 미탸대로 불안하게 그 여자를 바라보았지만 그 여자의 모습이 바로 그 순간 그도 안심시켰다. 꼭 필요한 첫 물음과 타이름이 끝난 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얼마쯤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더없이 정중한 모습을 지키며 그 여자에게 물었다. "퇴역 중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러자 그루셴카가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했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는 사람으로서 맞아들였어요."

캐묻는 물음이 이어지자 그 여자는 대놓고 아주 솔직하게 밝혔다. 그가 "가끔은"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고, "그 노인네"와 마찬가지로 "제 더러운 앙심으로" 그를 꾀었으며, 미탸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다른 모든 사람을 두고 자기를 몹시 질투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걸 그저 재미로 삼았다고.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는 결코 갈 생각이 없었고 그저 그를 비웃었다고. "그 한 달 내내 저는 그 두 사람한테 마음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한테 잘못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만 제 생각에는요." 그 여자가 맺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궁금해하실 것도 없고 저도 여러분께 대답할 것도 없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니까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곧바로 그렇게 했다. 그는 다시 "연애" 쪽 점들은 더 캐묻지 않고 곧장 진지한 문제로, 그러니까 여전히 바로 그 가장 중요한 3천 루블 문제로 넘어갔다. 그루셴카는 한 달 전 모크로예에서 정말로 3천 루블을 썼다고 확인했고, 자기가 직접 돈을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본인에게서 3천 루블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 했습니까, 누가 있는 데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듣기만 했습니까?" 검사가 곧바로 캐물었다.

그러자 그루셴카는 사람들 앞에서도 들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단둘이 있을 때 그 자신에게서도 들었다고 밝혔다.

"단둘이 있을 때 한 번 들었습니까, 여러 번 들었습니까?" 검사가 다시 캐물었고, 그루셴카가 여러 번 들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폴리트 키릴리치는 이 진술에 몹시 흡족했다. 이어진 물음에서 그루셴카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 돈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럼 한 달 전에 탕진한 돈이 3천 루블이 아니라 그보다 적었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 가운데 꼬박 절반을 자기 몫으로 남겨 두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루셴카가 진술했다.

나아가 오히려 미탸가 이 한 달 내내 그 여자에게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다고 자주 말했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자기 아버지한테서 받기만을 줄곧 기다렸어요." 그루셴카가 맺었다.

"그런데 혹시 당신 앞에서……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든, 짜증이 나서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갑자기 들이댔다.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노릴 생각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아, 말했어요!" 그루셴카가 한숨을 쉬었다.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여러 번 입에 올렸어요. 늘 홧김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해치우리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단단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의 고결함을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미탸가 갑자기 외쳤다. "여러분 앞에서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에게 딱 한마디만 하게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허락했다.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미탸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느님과 나를 믿어. 어제 살해된 우리 아버지의 피에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미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루셴카가 몸을 일으켜 성상을 향해 경건하게 성호를 그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뜨겁고 사무치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아직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쪽으로 돌아서서 덧붙였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한 대로 믿으세요! 저는 저 사람을 알아요. 무슨 말을 불쑥 내뱉을 때도 있지요, 웃자고 하든 고집 때문이든요. 하지만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절대로 속이지 않아요. 곧이곧대로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 말을 믿으세요!"

"고마워,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내 영혼을 붙들어 줬어!" 미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제 그 돈에 대해 묻자 그 여자는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제 3천 루블을 가져왔다고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가 자기 혼자에게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 "훔쳤다"고 말했고, 자기는 거기에 대고 그건 훔친 게 아니며 당장 내일이라도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검사가 끈질기게, 그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 훔쳤다고 말한 것이 어떤 돈이었느냐, 어제 그 돈이었느냐 아니면 한 달 전 여기서 쓴 그 3천 루블이었느냐고 묻자, 그 여자는 한 달 전 그 돈을 두고 한 말이었고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밝혔다.

마침내 그루셴카를 내보냈는데, 이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그 여자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읍내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리고 자기 쪽에서 무엇으로든, 이를테면 말 문제나, 또 이를테면 그 여자가 바래다줄 사람을 원한다면 무엇이든 도울 수 있다면 자기는…… 자기 쪽에서…… 라고 서둘러 밝혔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루셴카가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저는 저 노인과, 저 지주 양반과 함께 가겠어요. 그분을 모셔다드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그때까지 아래층에서 기다리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보려고요."

그 여자는 나갔다. 미탸는 차분했고 아주 기운을 되찾은 모습이기까지 했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다. 어쩐지 이상하게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갈수록 더 그를 덮쳤다. 그의 눈은 피로로 감겨 왔다. 마침내 증인 신문이 끝났다. 조서를 마지막으로 다듬는 일에 들어갔다. 미탸는 일어나 제 의자에서 구석으로, 휘장 쪽으로 옮겨 가 양탄자를 덮어 놓은 주인의 커다란 궤 위에 몸을 누이더니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그는 어쩐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쩐지 전혀 엉뚱한 자리, 엉뚱한 때에 찾아온 꿈이었다. 그는 어딘가, 오래전에, 더 예전에 군 복무를 하던

그곳 스텝을 달려가는 것 같고, 진창 속을 농군 하나가 말 두 필이 끄는 짐마차에 그를 태우고 간다. 그런데 미탸는 추운 것 같다. 11월 초인데, 크고 축축한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다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녹아 버린다. 농군은 힘차게 말을 몰며 채찍을 멋들어지게 휘두르는데, 길고 아마빛 수염을 기르고 있고, 노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쉰 살쯤 되었을까, 농군의 잿빛 허름한 겉옷을 걸쳤다. 그런데 저기 머지않은 곳에 마을이 있고, 시커멓디시커먼 농가들이 보이는데, 농가의 절반은 불에 타 버리고 타다 남은 통나무들만 비죽비죽 서 있다. 그리고 마을 어귀 길가에 아낙들이 늘어서 있다. 많은 아낙이 한 줄로 죽 서 있는데, 모두 야위고 핏기가 없고, 얼굴은 어쩐지 거무죽죽하다. 특히 맨 끝에 선 한 아낙이 있다. 뼈만 앙상하고 키가 큰데, 마흔 살쯤 되어 보이지만 어쩌면 고작 스무 살인지도 모른다. 얼굴은 길고 야위었고, 그 품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으며, 그 여자의 젖가슴은 틀림없이 바싹 말라 젖이 한 방울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울고 또 울며 작은 손을 내민다. 앙증맞은 주먹을 쥔 맨손이 추위에 아주 어쩐지 퍼렇게 질려 있다.

"저 사람들은 왜 우나? 무엇 때문에 우나?" 미탸가 그들 곁을 신나게 휙 스쳐 지나가며 묻는다.

"아기요." 마부가 그에게 대답한다. "아기가 울어요." 그런데 미탸는 마부가 제 말투대로, 농군 말투로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고 "아기"라고 한 데 놀란다. 그리고 그는 농군이 "아기"라고 한 것이 마음에 든다. 연민이 더 담긴 것 같다.

"그런데 아기가 왜 우나?" 미탸는 바보처럼 캐묻는다. "왜 작은 손이 맨손인가, 왜 아기를 싸 주지 않나?"

"아기가 얼었어요. 옷가지가 얼어붙어서 따뜻하게 해 주질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바보 같은 미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다.

"가난해서요, 불에 타서요. 빵 쪼가리도 없어서, 불탄 자리를 다시 일으키려고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미탸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 "자네 말해 보게. 왜 불에 타 버린 어머니들이 저렇게 서 있나, 왜 사람들은 가난한가, 왜 아기는 가난한가, 왜 스텝은 헐벗었나, 왜 저들은 서로 껴안지 않고, 입 맞추지 않나, 왜 기쁜 노래를 부르지 않나, 왜 저들은 시커먼 불행에 저렇게 시커멓게 되었나, 왜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나?"

그리고 그는 속으로 느낀다. 자기가 미친 듯이, 분별없이 묻고 있지만 꼭 이렇게 묻고 싶고, 바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또 느낀다. 그의 가슴에 어쩐지 일찍이 그에게 없던 감동이 솟아오르고, 울고 싶어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진다는 것을. 아기가 더는 울지 않도록, 아기의 시커멓고 바싹 마른 어머니도 울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아예 눈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미루지 않고 무엇이 있든 아랑곳없이, 카라마조프의 온 거침없음을 다해 하고 싶다는 것을.

"나도 당신과 함께 가요. 이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평생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그의 곁에서 그루셴카의 다정하고 사무치는 감정 어린 말이 울린다. 그러자 그의 가슴이 온통 불타오르며 어떤 빛을 향해 내달리고, 그는 살고 또 살고 싶고, 어떤 길을, 부르는 새로운 빛을 향해 가고 또 가고 싶다. 그것도 어서, 어서, 이제 곧, 지금 당장!

"뭐야? 어디로?" 그는 눈을 뜨고 궤 위에 일어나 앉으며 외친다. 꼭 기절했다가 정신이 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그의 곁에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서서 조서를 듣고 서명해 달라고 청한다. 미탸는 자기가 한 시간 넘게 잤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말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머리

밑에 베개가 놓여 있다는 데 놀랐다. 그가 힘이 빠져 궤 위에 몸을 누일 때는 베개가 없었다.

"누가 내 머리 밑에 베개를 가져다 놓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쩐지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어쩐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마치 무슨 대단한 은혜라도 입은 것 같았다. 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려지지 않았고, 입회인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면 어쩌면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꼬마 서기가 불쌍히 여겨 베개를 받쳐 주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온 영혼이 눈물로 뒤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탁자로 가서 무엇이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쩐지 기쁨에 환히 빛나는 듯한 새로운 얼굴로, 어쩐지 이상하게 말했다.

제9장 미탸를 데려가다

조서에 서명이 끝나자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엄숙하게 피고에게 돌아서서 "결정문"을 읽어 주었다. 결정문은 이러했다. 모년 모일, 모처에서, 모 지방 법원 예심판사는 모(그러니까 미탸)를 모모한 혐의(모든 죄목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의 피고로서 신문하였고, 피고가 자신에게 씌워진 범죄에 대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변명할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반면 증인(모모)과 정황(모모)은 그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법전』의 모모 조항에 따라, 운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모(미탸)가 예심과 재판을 피할 길을 막기 위해 그를 모 감옥에 가두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며, 이 결정문의 사본을 검사보에게 통보한다, 운운, 운운. 한마디로 그들은 미탸에게 그가 이 순간부터 죄수이고 이제 곧 읍내로 데려가 아주 불쾌한 곳에 가두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미탸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다.

"뭐, 여러분, 나는 당신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됐어요…… 당신들에게 이제 다른 길이 없다는 건 압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마침 지금 여기 와 있는 지서장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가 곧바로 그를 데려갈 것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잠깐만요." 미탸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돌아서서 어쩐지 억누를 수 없는 감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잔인하고, 우리는 모두 괴물이고,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어머니들과

젖먹이들을 울립니다, 하지만 그 모두 가운데, 이제 그렇게 정해 두기로 합시다, 그 모두 가운데 내가 가장 비열한 버러지입니다! 그러라지요! 나는 내 삶의 하루하루 가슴을 치며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하루하루 똑같은 추한 짓을 저질렀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는 일격이, 운명의 일격이 필요하다는 걸요, 올가미로 옭아매듯 그를 붙잡아 바깥의 힘으로 묶어 버릴 일격 말입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결코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벼락이 쳤어요. 나는 기소의 고통과 만인 앞에서 당하는 내 망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고통을 겪고 싶고, 고통으로 깨끗해질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깨끗해질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들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의 피에 죄가 없습니다! 내가 형벌을 받아들이는 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고 어쩌면 정말로 죽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들과 싸울 작정이고, 그걸 당신들에게 알립니다. 나는 마지막 끝까지 당신들과 싸울 거고, 그다음은 하느님이 정하실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내가 신문하는 동안 당신들에게 소리친 걸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오, 그때 나는 아직 그토록 어리석었어요…… 1분 뒤면 나는 죄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지막으로, 아직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드미트리 카라마조프가 당신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신들과 작별하면서 나는 사람들과 작별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정말로 손을 내밀려 했지만, 누구보다 그에게 가까이 있던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어쩐지 갑자기, 어쩐지 거의 경련하듯 제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미탸는 순식간에 그것을 알아채고 몸을 떨었다. 내밀었던 손을 그는 곧바로 내렸다.

"예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얼마쯤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읍내에서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내

쪽에서 당신에게 온갖 행운을 빌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죄를 밝히도록…… 사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는 늘 당신을, 말하자면, 죄가 있다기보다는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감히 모두를 대표해서 말씀드려도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당신을 근본적으로는 고결한 젊은이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아! 몇 가지 정념에 얼마쯤 지나치게 휩쓸린……"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작은 몸집은 말이 끝날 무렵 더없이 온전한 위엄을 드러냈다. 미탸의 머리에는 갑자기 이 "소년"이 지금 자기 팔을 잡고 다른 구석으로 데려가서 얼마 전에 둘이 나누던 "아가씨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머리에도 이따금 전혀 엉뚱하고 일과 상관없는 생각이 어디 한둘 스치겠는가.

"여러분, 당신들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으시니, *그 여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작별할 수 있겠습니까?" 미탸가 물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사정상…… 한마디로, 이제는 입회 없이는 안 됩니다……"

"좋아요, 입회하시지요!"

그루셴카를 데려왔지만, 작별은 짧고 말이 적었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를 흡족하게 하지 못했다. 그루셴카는 미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 거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당신 거예요. 당신을 어떻게 정하든 어디든 영원히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잘 가요, 죄 없이 스스로를 망친 사람!"

그 여자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용서해 줘, 그루샤, 내 사랑을, 내 사랑으로 너까지 망쳐 버린 걸!"

미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저 스스로 말을 끊고 나갔다. 그의 둘레에는 곧바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붙었다. 어제 그가 안드레이의 트로이카를 타고 그토록 요란하게 들이닥쳤던 아래층 현관 층계 앞에는 이미 짐마차 두 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땅딸막하고 다부지며 얼굴이 부석부석한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는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생긴 무슨 혼란 때문에 짜증이 나서 화를 내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어쩐지 지나치게 무뚝뚝하게 미탸에게 짐마차에 올라타라고 했다. "전에 내가 술집에서 술을 샀을 때는 이 사람 얼굴이 전혀 딴판이었는데." 미탸는 올라타며 생각했다. 현관 층계에서 트리폰 보리소비치도 내려왔다.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농군들과 아낙들과 마부들이 모여들어 모두 미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잘들 있게, 하느님의 사람들!" 미탸가 짐마차에서 갑자기 그들에게 소리쳤다.

"우리도 용서해 주십쇼." 두세 사람의 목소리가 울렸다.

"자네도 잘 있게, 트리폰 보리시치!"

그러나 트리폰 보리시치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어쩌면 정말 몹시 바빴는지도 모른다. 그도 무언가 소리치며 부산을 떨고 있었다. 알고 보니 마을 순경 두 사람이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를 호송하며 타고 갈 두 번째 짐마차에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 두 번째 트로이카를 몰라고 정해 두었던 꾀죄죄한 농군 하나가 허름한 겉옷을 걸치며, 갈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아킴이라고 고집스럽게 우기고 있었다. 그러나 아킴은 없었다. 그를 찾으러 사람이 달려갔다. 꾀죄죄한 농군은 우기면서 좀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요,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 트리폰 보리시치가 외쳤다. "아킴이 그저께 너한테 25코페이카를 주었는데, 너는 그걸 술로 다 마셔 버리고 이제 와서

소리를 치는구나. 이 비열한 우리 족속을 두고도 나리께서 베푸시는 너그러움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요,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 이 말씀 한 가지만 드립죠!"

"그런데 우리한테 두 번째 트로이카가 왜 필요한가?" 미탸가 끼어들려 했다. "한 대로 가세, 마브리키 마브리키치. 내가 난동을 부리거나 자네한테서 달아나지는 않을 테니. 호송이 무슨 소용인가?"

"나리, 나한테 말하는 법을 아직 못 배우셨다면 좀 배우시지요. 나는 나리가 *반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반말은 삼가 주십쇼. 그리고 충고는 다음번을 위해 아껴 두시고요……"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가 마치 분풀이할 데를 찾아 반가웠다는 듯 갑자기 미탸에게 사납게 잘라 말했다.

미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잠시 뒤 그는 갑자기 몹시 추워졌다. 비는 그쳤지만 흐린 하늘은 여전히 온통 구름에 덮여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로 곧장 불어 왔다. "오한이 드는 건가." 미탸는 어깨를 움찔하며 생각했다. 마침내 마브리키 마브리키예비치도 짐마차에 올라 묵직하게,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러면서 못 본 척 미탸를 몸으로 세게 밀어붙였다. 사실 그는 기분이 언짢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몹시 못마땅했다.

"잘 있게, 트리폰 보리시치!" 미탸가 다시 소리쳤는데, 이번에는 선량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꼈다. 그러나 트리폰 보리시치는 두 손을 등 뒤로 짚고 오만하게 서서 미탸를 똑바로 쳐다보며 엄하고 성난 눈길을 보낼 뿐 미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녕히 가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안녕히 가세요!" 어디선가 갑자기 뛰쳐나온 칼가노프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그는 짐마차로

달려와 미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았다. 미탸는 그래도 그의 손을 붙잡아 꽉 쥘 수 있었다.

"잘 있어요, 착한 사람, 그 너그러움을 잊지 않겠어요!" 그가 뜨겁게 외쳤다. 그러나 짐마차가 움직였고, 그들의 손이 떨어졌다. 방울이 울렸다. 미탸를 데려갔다.

그리고 칼가노프는 현관방으로 달려 들어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울었다. 이미 스무 살 된 젊은이가 아니라 아직 꼬마 소년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었다. 오, 그는 미탸의 죄를 거의 완전히 믿었다! "대체 저게 무슨 사람들이야, 그러고 나서도 무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는 쓰라린 낙담 속에서, 거의 절망 속에서 앞뒤 없이 외쳤다.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조차 않았다. "그럴 가치가 있을까, 그럴 가치가 있을까!" 상심한 젊은이는 외쳤다.

제4부

제10권 소년들

제1장 콜랴 크라솟킨

11월 초다. 우리 고장에는 영하 11도쯤 되는 추위가 닥쳤고, 그와 함께 길이 꽁꽁 얼어붙었다. 밤사이 언 땅 위에 마른눈이 조금 내렸는데, "메마르고 날카로운" 바람이 그 눈을 들어 올려 우리 작은 읍의 따분한 거리들로, 특히 장터 광장으로 쓸고 다닌다. 아침은 흐리지만 눈발은 그쳤다. 광장에서 멀지 않은, 플로트니코프네 가게 근처에 관리의 과부 크라솟키나 부인의 작은 집이 서 있는데, 안팎으로 아주 말끔하다. 12등 문관 크라솟킨 자신은 아주 오래전에, 거의 열네 해 전에 죽었지만, 그의 과부는, 서른 살이고 지금도 꽤 반반하게 생긴 이 젊은 부인은 살아서 그 말끔한 작은 집에서 "제 밑천으로" 산다. 그 여자는 정직하고 소심하게 살고, 성격은 부드럽지만 꽤 쾌활하다.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여자는 열여덟 살쯤이었는데, 남편과는 겨우 한 해 남짓 살았고 막 아들을 낳은 참이었다. 그때부터, 바로 남편이 죽은 그때부터 그 여자는 이 귀염둥이 아들 콜랴를 기르는 데 온몸을 바쳤고, 그 열네 해 내내 아들을 정신없이 사랑하기는 했지만, 물론 기쁨을 누린 것보다 견줄 수 없이 더 많은 괴로움을 그 아이와 함께 겪었다. 아이가 병이 날까, 감기에 걸릴까, 장난을 칠까, 의자에 기어올랐다가 떨어질까 따위 따위로 거의 날마다 떨며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콜랴가 학교에 다니고 그다음 우리 예비 김나지움에 다니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아이를 돕고 함께 공부를 되짚어 주려고 아이와 함께 온갖 학과를 공부하는 데 뛰어들었고, 교사들과 그 아내들과 사귀는 데 뛰어들었으며, 콜랴의 친구들인

학생들까지 어루만지고 그들 앞에서 여우처럼 알랑거렸다. 콜랴를 건드리지 말고, 비웃지 말고, 때리지 말아 달라고. 그러다 결국 일이 거기까지 가서, 사내아이들은 정말로 그 여자 때문에 콜랴를 비웃기 시작했고 엄마 치마폭에 싸인 아이라고 놀려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년은 제 몸을 지킬 줄 알았다. 그는 대담한 녀석이었고, 반에서 그런 소문이 퍼지더니 곧 굳어진 대로 "무시무시하게 힘이 셌으며", 날렵하고, 성격이 끈질기고, 기질이 당돌하고 일을 꾸미기를 좋아했다. 그는 공부를 잘했고, 산수에서도 세계사에서도 다르다넬로프 선생 본인을 쩔쩔매게 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소년은 코를 치켜들고 모두를 내려다보기는 했지만 좋은 친구였고 우쭐대지 않았다. 학생들의 존경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다정하게 굴었다. 무엇보다 그는 분수를 알았고, 때에 따라 저 자신을 억누를 줄 알았으며, 윗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어떤 마지막의,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다. 그 선을 넘으면 비행은 이제 용납될 수 없고 무질서와 반역과 무법으로 바뀌고 만다. 그런데도 그는 기회만 있으면 장난을 치는 것을 아주, 아주 마다하지 않았다. 가장 막돼먹은 꼬마처럼 장난을 쳤는데, 장난을 친다기보다 무언가 꾀를 부리고, 별난 짓을 하고, "엑스트라페페르"를 부리고, 멋을 부리고, 뽐내 보이고 싶어서였다. 무엇보다 그는 자존심이 몹시 강했다. 제 엄마조차 자기에게 순종하는 처지에 두었고, 거의 폭군처럼 엄마를 다루었다. 엄마는 순종했고, 오, 벌써 오래전에 순종했고, 다만 제 아들이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없었다. 그 여자에게는 콜랴가 자기에게 "무정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히스테리 섞인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차가움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일도 있었다. 소년은 그걸 싫어했고, 마음을 쏟아 내 보이라고 요구할수록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더욱 고분고분하지 않게 굴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랬다. 성격이 그랬다. 어머니는 잘못 알고 있었다. 그는 엄마를 아주 사랑했고, 다만 그가 학생 말투로 표현하듯 "송아지 같은 애정 표현"을 싫어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죽고 책장 하나가 남았는데, 거기에 책이 몇 권 들어 있었다. 콜랴는 읽기를 좋아해서 그 가운데 몇 권을 이미 혼자 읽었다. 어머니는 그 일에 당황하지 않았고, 다만 이따금 아이가 나가서 놀지 않고 책장 앞에 몇 시간이고 서서 무슨 책을 들여다보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졌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콜랴는 그 나이에는 아직 읽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얼마쯤 읽었다. 하기야 요즘 들어 소년이 장난을 칠 때 일정한 선을 넘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를 정말로 겁먹게 한 장난들이 시작되었다. 사실 무슨 부도덕한 장난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무모하고 목숨을 건 장난이었다. 바로 이번 여름, 7월 방학 동안, 엄마와 아들이 70베르스타 떨어진 다른 군에 사는 먼 친척 여자 집에 한 주쯤 손님으로 다니러 간 일이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철도역에서 일했다(우리 읍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그 역으로, 한 달 뒤 이반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가 거기서 모스크바로 떠났다). 거기서 콜랴는 먼저 철도를 자세히 둘러보고 운행 규칙을 익혔고, 집에 돌아가면 새로 익힌 것들을 내세워 제 예비 김나지움 학생들 사이에서 뽐낼 수 있겠다고 여겨서였다. 그런데 마침 그때 거기에 다른 사내아이들도 몇 있어서 그는 그 아이들과 어울렸다. 몇은 역에서 살았고 몇은 이웃에 살았는데, 열두 살에서 열다섯 살까지의 젊은 패거리가 모두 여섯이나 일곱 명 모였고, 그 가운데 둘은 마침 우리 읍에서 온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함께 놀고 장난을 쳤는데, 역에 머문 지 나흘인가 닷새째 되던 날, 어리석은 아이들 사이에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2루블짜리 내기가 벌어졌다. 바로 이런 내기였다. 거의 누구보다 어려서 형들에게 얼마쯤 업신여김을 받던 콜랴가,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앞뒤 없는 배짱 때문인지, 밤에 열한 시 기차가 올 때 레일

사이에 엎드려 누워 기차가 전속력으로 자기 위를 지나갈 때까지 꼼짝 않고 누워 있겠다고 나섰다. 사실 미리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레일 사이에 길게 몸을 뻗고 납작 엎드리면 기차가 물론 지나가더라도 누운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그렇게 누워 있기가 어떻겠는가! 콜랴는 누워 있겠다고 굽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거짓말쟁이, 허풍선이라고 불렀지만, 그럴수록 그를 더 부추길 뿐이었다. 무엇보다 이 열다섯 살짜리들이 그 앞에서 너무 코를 치켜들었고, 처음에는 그를 "꼬맹이"라며 친구로 쳐주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벌써 견딜 수 없이 모욕스러웠다. 그래서 저녁에 역에서 1베르스타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정했다. 기차가 역을 떠나 한껏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사내아이들이 모였다. 달 없는 밤이었는데, 어둡다기보다 거의 새까만 밤이었다. 정해진 시각에 콜랴는 레일 사이에 누웠다. 내기를 건 나머지 다섯은 가슴을 졸이다가, 마침내는 두려움과 뉘우침 속에서 둑 아래 길가 덤불 속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멀리서 역을 떠난 기차가 울려 왔다. 어둠 속에서 붉은 등불 두 개가 번쩍이고, 다가오는 괴물이 우르릉거렸다. "도망쳐, 레일에서 도망쳐!"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던 아이들이 덤불 속에서 콜랴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기차가 들이닥쳐 휙 지나갔다. 아이들은 콜랴에게 달려갔다. 그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흔들고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말없이 둑을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서자 그는 아이들을 겁주려고 일부러 정신을 잃은 듯 누워 있었다고 밝혔지만, 진실은 그가 정말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었고, 나중에, 한참 뒤에 그 자신도 엄마에게 그렇게 털어놓았다. 이렇게 해서 "무모한 녀석"이라는 이름이 영영 그에게 굳어졌다. 그는 천처럼 하얗게 질려서 역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그는 가벼운 신경열에 걸렸지만, 기분은 무척 즐겁고 기쁘고 흐뭇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가 아니라 우리

읍에 와서야 알려졌고, 예비 김나지움에 스며들어 학교 윗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 콜랴의 엄마가 아들을 위해 윗사람들에게 빌러 뛰어들었고, 결국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교사 다르다넬로프가 그를 감싸고 그를 위해 간청해 주어서, 일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덮이고 말았다. 이 다르다넬로프는 독신이고 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벌써 여러 해 전부터 크라솟키나 부인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고, 한 해쯤 전에 한 번은 더없이 공손하게,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숨을 죽이며 그 여자에게 청혼하는 모험을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받아들이는 것이 제 아들을 배신하는 일이라 여겨 딱 잘라 거절했다. 다르다넬로프는 어떤 은밀한 기미들로 보아, 사랑스럽지만 너무나 정숙하고 여린 이 과부에게 자기가 아주 싫은 사람은 아니라고 꿈꿀 권리가 어쩌면 얼마쯤 있었을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콜랴의 미친 장난이 얼음을 깬 듯했고, 다르다넬로프는 그 변호 덕분에 희망의 암시를 받았다. 사실 먼 희망이었지만, 다르다넬로프 자신이 순결함과 조심스러움의 기이한 본보기 같은 사람이라, 그로서는 우선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채우기에 넉넉했다. 그는 소년을 사랑했지만, 소년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굴욕스러운 일로 여겼을 것이고, 수업에서는 그를 엄하고 까다롭게 대했다. 그러나 콜랴 자신도 그를 공손한 거리에 두었고, 공부를 훌륭하게 해 와서 반에서 2등이었으며, 다르다넬로프에게는 메마르게 대했다. 그리고 온 반은 콜랴가 세계사에 워낙 강해서 다르다넬로프 본인도 "쩔쩔매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실제로 콜랴는 한 번 그에게 "트로이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다르다넬로프는 거기에 대고 민족들과 그 이동과 이주, 아득한 옛날, 전설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을 뿐, 누가 트로이를 세웠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세웠는지는 대답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물음을 어쩐지 쓸데없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다넬로프가 트로이를 누가 세웠는지 모른다고 굳게 믿은 채로 남았다. 콜랴는 아버지가 남긴 책장에 간직된 스마라그도프의 책에서 트로이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 읽었다. 결국 아이들이 모두 마침내 대체 누가 트로이를 세웠는지 궁금해하게 되었지만, 크라솟킨은 제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고, 박식하다는 명성은 흔들림 없이 그의 것으로 남았다.

철도 사건 뒤로 콜랴가 어머니를 대하는 데에 얼마쯤 변화가 생겼다. 안나 표도로브나(크라솟킨의 과부)는 아들의 무용담을 알자 두려워서 하마터면 미칠 뻔했다. 그 여자에게 끔찍한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나 며칠 동안 이따금 끊겼다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정말로 겁이 난 콜랴가 이런 장난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명예와 고결함을 걸고 약속했다. 그는 크라솟키나 부인 자신이 요구한 대로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맹세했으며, 이때 "사내다운" 콜랴는 저 스스로 "감정"에 겨워 여섯 살 꼬마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하루 종일 서로 끌어안고 몸을 떨며 울었다. 이튿날 콜랴는 전처럼 "무정한" 아이로 깨어났지만, 말수가 적어지고 얌전해지고 엄격해지고 생각이 깊어졌다. 사실 한 달 반쯤 지나 그는 또 한 번 어떤 장난에 걸려들었고 그의 이름이 우리 치안판사에게까지 알려졌지만, 그 장난은 이미 전혀 다른 종류였고 우습고 어리석기까지 했으며, 알고 보니 그가 직접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저 거기에 휘말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언젠가 나중에 하자. 어머니는 계속 떨며 괴로워했고, 다르다넬로프는 그 여자가 불안해할수록 더욱더 희망을 품었다. 짚어 두어야겠는데, 콜랴는 이 방면에서 다르다넬로프를 알아보고 꿰뚫어 보았고, 물론 그의 "감정" 때문에 그를 깊이 경멸했고, 전에는 그 경멸을 어머니 앞에서 내보이는 무례를 저지르기까지 하며, 다르다넬로프가 무엇을 노리는지 안다고 어머니에게 넌지시 비쳤다.

그러나 철도 사건 뒤로 그는 이 점에서도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는 더는 넌지시 비치는 말조차, 아무리 먼 말이라도 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어머니 앞에서 다르다넬로프를 더 공손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예민한 안나 표도로브나는 곧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 깊이 끝없이 고마워했지만, 그 대신 어쩌다 찾아온 손님에게서라도 다르다넬로프에 대한 말이 아주 조금만, 아주 뜻밖에 나와도, 그 자리에 콜랴가 있으면 갑자기 장미처럼 온통 부끄러움으로 달아올랐다. 그런 순간이면 콜랴는 얼굴을 찌푸리고 창밖을 내다보거나, 제 장화가 입을 벌리지 않았나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페레즈본을 사납게 불렀다. 페레즈본은 털북숭이에 꽤 크고 옴이 오른 개였는데, 한 달쯤 전에 그가 갑자기 어디선가 구해서 집에 끌고 들어와서는 어쩐지 비밀로 방에 두고 친구들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는 그 개를 온갖 재주와 학문으로 가르치며 무섭게 들볶았고, 그래서 가엾은 개는 그가 수업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없다고 울부짖었고, 그가 돌아오면 기뻐서 깨갱거리며 반쯤 미친 것처럼 날뛰고, 두 발로 서고, 땅바닥에 나뒹굴며 죽은 시늉을 하는 따위, 한마디로 배운 재주를 모조리 보여 주었다. 그것도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열렬한 기쁨과 고마워하는 마음이 넘쳐서였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앞서 짚어 두는 것을 잊었는데, 콜랴 크라솟킨은 바로 그 소년이었다. 독자도 이미 아는 소년 일류샤, 퇴역 2등 대위 스네기료프의 아들이, 학생들이 "수세미"라고 놀려 대던 아버지를 감싸다가 주머니칼로 넓적다리를 찔렀던 그 소년 말이다.

제2장 꼬마들

그러니까 얼어붙고 북풍이 몰아치는 그 11월 아침, 소년 콜랴 크라솟킨은 집에 앉아 있었다. 일요일이라 수업이 없었다. 그런데 벌써 열한 시를 쳤고, 그는 "아주 중요한 일 하나 때문에" 꼭 나가 봐야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는 온 집에 혼자 남아 그야말로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떤 급하고 별난 사정 때문에 집에 사는 어른들이 모두 나가 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부 크라솟키나 부인의 집에는 그 여자 자신이 쓰는 살림방에서 현관방을 건너 또 하나의, 집에서 하나뿐인 작은 방 두 칸짜리 셋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사 부인이 어린 두 아이와 살고 있었다. 이 의사 부인은 안나 표도로브나와 동갑이고 그 여자와 무척 친한 사이였고, 의사 자신은 벌써 한 해쯤 전에 어딘가로, 처음에는 오렌부르크로, 그다음에는 타슈켄트로 떠났고, 벌써 반년째 소식 한 장 없었다. 그래서 크라솟키나 부인과의 우정이 버림받은 의사 부인의 슬픔을 얼마쯤 누그러뜨려 주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그 슬픔 때문에 그야말로 눈물로 다 녹아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운명이 내리는 온갖 시련을 마무리하려는 듯, 하필 바로 이날 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의사 부인의 하나뿐인 하녀 카테리나가 갑자기, 그 마님으로서는 전혀 뜻밖에, 아침까지 아기를 낳을 것 같다고 알렸다. 어떻게 아무도 그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는지, 모두에게는 거의 기적 같았다. 깜짝 놀란 의사 부인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카테리나를 우리 읍에서 그런 일에 맞게 갖춰진 곳, 어느 산파 할멈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하녀를 무척 아꼈으므로 그 여자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해서 하녀를 데려갔고, 게다가 그곳에서 그 곁에 남았다. 그 뒤 아침이 되자 어쩐 일인지 크라솟키나 부인 자신의 온갖 다정한 참견과 도움까지 필요해졌다. 이 경우에 크라솟키나 부인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무슨 뒤를 봐줄 수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두 부인이 다 집을 비웠고, 크라솟키나 부인 자신의 하녀인 아낙 아가피야는 장에 갔으며, 콜랴는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방울이들", 그러니까 단둘이 남은 의사 부인의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를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었다. 집을 지키는 일이 콜랴는 무섭지 않았다. 게다가 곁에는 페레즈본이 있었다. 페레즈본은 문간방 긴 의자 밑에 "꼼짝 말고 엎드려"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그래서 방들을 거닐던 콜랴가 문간방에 들어올 때마다 머리를 움찔하며 바닥을 꼬리로 단단하고 알랑거리는 두 번을 탁탁 쳤지만, 아아, 부르는 휘파람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콜랴가 불쌍한 개를 위엄 있게 노려보면 개는 다시 고분고분하게 굳어 버렸다. 그러나 콜랴를 마음 쓰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방울이들"뿐이었다. 카테리나에게 생긴 뜻밖의 일은 물론 더없이 깊은 경멸로 바라보았지만, 고아처럼 남은 방울이들은 무척 사랑해서 벌써 무슨 동화책 하나를 가져다주었다. 큰아이 나스탸는 계집아이로 벌써 여덟 살이라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작은 방울이, 일곱 살 사내아이 코스탸는 나스탸가 읽어 주는 것을 듣기를 무척 좋아했다. 물론 크라솟킨은 아이들을 더 재미있게 놀아 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둘을 나란히 세워 놓고 병정놀이를 하거나 온 집 안을 돌며 숨바꼭질을 할 수도 있었다. 그는 전에도 여러 번 그렇게 했고 그러기를 꺼리지도 않았으므로, 한번은 반에서 크라솟킨이 집에서 꼬마 세입자들과 말놀이를 하며 곁말 노릇을 하느라 껑충껑충 뛰고 고개를 숙인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그러나 크라솟킨은 오만하게 그 비난을 받아쳤다.

동갑내기들, 열세 살짜리들과 "우리 시대에" 말놀이를 하는 건 정말로 망신스러운 일이겠지만, 자기는 "방울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건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해명을 요구할 수 없다고 내세웠다. 그 대신 두 "방울이"는 그를 무척 따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난감 놀이를 할 때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기만의 일이, 그것도 겉보기에 어쩐지 거의 비밀스럽기까지 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갔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가피야는 여전히 장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몇 번이나 현관방을 건너가 의사 부인 방의 문을 열고 "방울이들"을 걱정스럽게 둘러보았는데, 아이들은 그의 분부대로 책을 앞에 놓고 앉아 있다가 그가 문을 열 때마다 이제 그가 들어와서 무언가 멋지고 재미있는 것을 해 주리라 기대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말없이 웃어 보였다. 그러나 콜랴는 마음이 불안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시를 쳤고, 그는 "빌어먹을" 아가피야가 10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나가 버리겠다고 단단히, 완전히 마음먹었고, 물론 "방울이들"에게서 자기가 없어도 겁먹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무서워서 울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고서였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무슨 고양이 털인지 모를 털깃이 달린 솜 넣은 겨울 외투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둘러멘 다음, "이렇게 추운 날" 밖에 나갈 때는 늘 덧신을 신으라는 어머니의 거듭된 애원에도 불구하고, 문간방을 지나가며 덧신을 경멸스럽게 쳐다보기만 하고 장화만 신은 채 나갔다. 페레즈본은 그가 옷을 입은 것을 보자 온몸을 신경질적으로 떨며 꼬리로 바닥을 힘껏 치기 시작했고, 애처롭게 울부짖기까지 했다. 그러나 콜랴는 제 개가 그토록 열렬히 서두르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규율에 해롭다고 판단해서, 단 1분이라도 개를 긴 의자 밑에 더 붙잡아 두었다가, 현관방으로 나가는 문을 막 열고 나서야 갑자기 휘파람을

불어 개를 불렀다. 개는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나 기뻐서 그의 앞에서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현관방을 건너가 콜랴는 "방울이들"의 방문을 열었다. 둘은 여전히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책을 읽지 않고 무언가를 두고 열띠게 다투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살면서 부딪치는 여러 도발적인 문제를 두고 자주 다투었는데, 그럴 때면 나스탸가 손위라서 늘 이겼다. 코스탸는 누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의 언제나 콜랴 크라솟킨에게 항소하러 갔고, 콜랴가 판결하는 대로 그것이 모든 쪽에게 절대적인 판결로 남았다. 이번에는 "방울이들"의 다툼이 크라솟킨의 흥미를 얼마쯤 끌어서, 그는 문간에 멈춰 서서 들어보았다. 아이들은 그가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열을 내며 말다툼을 이어 갔다.

"절대로, 절대로 안 믿어." 나스탸가 열을 올리며 재잘거렸다. "산파 할머니들이 아기를 채소밭 양배추 이랑 사이에서 찾아낸다는 건. 지금은 벌써 겨울이라 이랑 같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할머니가 카테리나한테 딸을 가져다줄 수가 없었어."

"휘유!" 콜랴가 속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아니면 이런 거야. 할머니들이 어디선가 아기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시집간 사람한테만 가져다줘."

코스탸는 나스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생각 깊게 듣고 헤아렸다.

"나스탸, 누나는 정말 바보야." 그가 마침내 열을 내지 않고 단단하게 말했다. "카테리나는 시집을 안 갔는데 무슨 아기가 있을 수 있어?"

나스탸는 무섭게 열을 올렸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누나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카테리나한테 남편이 있었는데 감옥에 가 있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야."

"카테리나 남편이 감옥에 가 있어?" 실속 있는 코스탸가 점잖게 캐물었다.

"아니면 이런 거야." 나스탸가 첫 번째 가설을 완전히 내던지고 잊어버린 채 다급하게 말을 끊었다. "카테리나한테는 남편이 없어, 그건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시집을 가고 싶어서 어떻게 시집갈까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남편이 아니라 아기가 되어 버린 거야."

"그럼 그런가 보네." 완전히 진 코스탸가 동의했다. "그런데 누나가 그걸 먼저 말 안 했잖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꼬마들아." 콜랴가 방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말했다. "보아하니 너희는 위험한 족속이로구나!"

"페레즈본도 같이 왔어요?" 코스탸가 이를 드러내고 웃더니 손가락을 딱딱 튀기며 페레즈본을 부르기 시작했다.

"방울이들아, 나는 지금 곤란한 처지야." 크라솟킨이 점잖게 말을 꺼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해. 아가피야는 틀림없이 다리가 부러진 거야. 아직도 안 나타나니까. 이건 결정되었고 서명까지 끝났어. 그런데 나는 꼭 나가 봐야 해. 나를 보내 줄래, 안 보내 줄래?"

아이들은 걱정스럽게 서로 마주 보았고, 풀어졌던 얼굴에 불안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기야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직 다 알아듣지 못했다.

"나 없는 동안 장난치지 않을 거지? 책장에 기어오르지도 않고, 다리를 부러뜨리지도 않고? 너희끼리 있다고 무서워서 울지도 않을 거지?"

아이들 얼굴에 무서운 슬픔이 떠올랐다.

"그 대신 너희한테 물건 하나를 보여 줄 수도 있는데. 진짜 화약으로 쏠 수 있는 구리 대포 말이야."

아이들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대포 보여 주세요." 코스탸가 온 얼굴을 빛내며 말했다.

크라솟킨은 가방에 손을 쑥 넣어 작은 청동 대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보여 달라니 보여 주지! 봐, 바퀴가 달렸어." 그는 장난감을 탁자 위에서 굴렸다. "쏠 수도 있어. 산탄을 재어서 쏘는 거야."

"그럼 죽어요?"

"겨누기만 하면 다 죽어." 그러고 나서 크라솟킨은 화약을 어디에 넣고 산탄을 어디에 굴려 넣는지 설명해 주었고, 점화구처럼 생긴 작은 구멍을 가리키고, 쏘면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다. 아이들은 무서울 만큼 호기심에 차서 들었다. 쏘면 뒤로 밀린다는 것이 특히 아이들의 상상을 사로잡았다.

"화약도 있어요?" 나스탸가 캐물었다.

"있어."

"화약도 보여 주세요." 나스탸가 조르는 미소를 띠고 말을 늘였다.

크라솟킨은 다시 가방을 뒤져 작은 병을 하나 꺼냈는데, 그 안에는 정말로 진짜 화약이 조금 담겨 있었고, 돌돌 만 종이에는 산탄 몇 알이 들어 있었다. 그는 병마개를 따고 화약을 조금 손바닥에 쏟기까지 했다.

"자, 어디 불만 없으면 돼. 안 그러면 그대로 터져서 우리를 몽땅 죽일 테니까." 크라솟킨이 효과를 노리고 경고했다.

아이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화약을 살펴보았는데, 그 두려움이 즐거움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코스탸는 산탄이 더 마음에 들었다.

"산탄은 안 타요?" 그가 캐물었다.

"산탄은 안 타."

"산탄 조금만 주세요." 그가 애원하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산탄은 조금 주지. 자, 가져. 다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 엄마한테는 보여 주지 마. 안 그러면 엄마가 화약인 줄 알고 무서워서 그대로 돌아가시고, 너희는 매를 맞을 테니까."

"엄마는 우리를 회초리로 때린 적이 없어요." 나스탸가 곧바로 지적했다.

"알아. 그냥 말을 멋지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엄마를 절대 속이면 안 돼.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그러니까 방울이들아, 나 가도 돼, 안 돼? 나 없다고 무서워서 울지 않을 거지?"

"우-울-래요." 코스탸가 벌써 울 채비를 하며 말을 늘였다.

"울래요, 꼭 울래요!" 나스탸도 겁먹은 빠른 말로 받았다.

"아, 아이들아, 아이들아, 너희 나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쩔 수 없지, 병아리들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너희와 같이 앉아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시간이, 휴!"

"페레즈본한테 죽은 척하라고 시켜 주세요." 코스탸가 졸랐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페레즈본까지 동원해야겠군. 이리 와(ici), 페레즈본!" 그러고 나서 콜랴는 개에게 명령하기 시작했고, 개는 아는 재주를 모두 보여 주었다. 털북숭이 개로, 크기는 흔한 마당개만 했고, 털은 어쩐지 잿빛 도는 보랏빛이었다. 오른쪽 눈은 애꾸였고, 왼쪽 귀는 어쩐 일인지 찢어져 있었다. 개는 깨갱거리며 뛰어오르고, 두 발로 서고, 뒷다리로 걷고, 네 발을 모두 위로 쳐들고 벌렁 드러누워 죽은 듯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이 마지막 재주를 부리는 동안 문이 열리더니, 크라솟키나 부인의 뚱뚱한 하녀로 곰보 자국이 있는 마흔 살쯤 된 아낙 아가피야가 장 본 식료품 봉지를 손에 들고 장에서 돌아와 문턱에 나타났다. 아가피야는 멈춰 서서 왼손에 봉지를 늘어뜨려 든 채 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콜랴는 그토록 아가피야를 기다렸는데도 재주를 멈추지 않았고, 페레즈본을 정해진 시간 동안 죽은 채로 두었다가

마침내 휘파람을 불었다. 개는 벌떡 일어나 제 의무를 다했다는 기쁨으로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아이고, 개 좀 봐!" 아가피야가 훈계하듯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늦었어, 여인네?" 크라솟킨이 위엄 있게 물었다.

"여인네라니, 쪼끄만 뾰루지 같으니!"

"뾰루지?"

"그래, 뾰루지. 내가 늦은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늦었으면 그래야 했던 거지." 아가피야는 난로 곁에서 부산을 떨기 시작하며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못마땅하거나 성난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흡족한 목소리였고, 마치 쾌활한 도련님과 농지거리를 할 기회가 생겨서 반가운 것 같았다.

"들어 봐, 경솔한 할멈." 크라솟킨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을 꺼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것을 걸고, 그리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 걸고, 내가 없는 동안 방울이들을 쉬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 나는 나가 봐야 해."

"내가 왜 너한테 맹세를 해?" 아가피야가 웃었다. "그러지 않아도 봐줄 거야."

"아니, 네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갈 거야."

"그럼 나가지 마. 내가 알 게 뭐야. 밖은 추우니 집에 있어."

"방울이들아." 콜랴가 아이들에게 돌아섰다. "이 여자가 내가 올 때까지, 아니면 너희 엄마가 올 때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거야. 너희 엄마도 벌써 오래전에 돌아왔어야 했으니까. 게다가 너희한테 아침도 줄 거야. 아이들한테 뭘 좀 줄 거지, 아가피야?"

"그럴 수 있지."

"잘 있어, 병아리들아. 나는 마음 놓고 간다. 그리고 할멈은." 그는 아가피야 곁을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점잖게 말했다. "너희 아낙들이 늘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카테리나를 두고 아이들한테 지껄이지 않기를 바라. 어린 나이를 아껴 줘. 이리 와, 페레즈본!"

"아이고, 썩 꺼져." 아가피야가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우스운 녀석! 그런 말을 하다니 너부터 매를 맞아야 해, 바로 그거야."

제3장 학생

그러나 콜랴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마침내 나갈 수 있었다. 대문 밖으로 나서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어깨를 움찔하더니 "춥군!" 하고 말하고는 곧장 거리를 따라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꺾어 장터 광장 쪽으로 향했다. 광장을 집 한 채 앞두고 그는 어느 대문 앞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약속한 신호라도 보내듯 힘껏 불었다. 1분도 기다리지 않아 쪽문에서 갑자기 얼굴이 발그레한 열한 살쯤 된 소년이 그에게 뛰어나왔고, 이 아이도 따뜻하고 말끔한, 맵시 있기까지 한 외투를 입고 있었다. 예비반(콜랴 크라솟킨은 벌써 그보다 두 학년 위였다)에 다니는 소년 스무로프였는데, 넉넉한 관리의 아들로, 부모가 그에게 크라솟킨과는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것 같았다. 크라솟킨이 이름난 무모한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스무로프는 분명히 지금 몰래 뛰어나온 것이었다. 독자가 잊지 않았다면, 이 스무로프는 두 달 전 도랑 너머로 일류샤에게 돌을 던지던 그 소년들 패거리 가운데 하나였고, 그때 알료샤 카라마조프에게 일류샤 이야기를 해 준 아이였다.

"벌써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크라솟킨." 스무로프가 단호한 얼굴로 말했고, 소년들은 광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늦었어." 크라솟킨이 대답했다. "사정이 있었거든. 너 나랑 다닌다고 매 맞는 거 아니야?"

"에이, 그만둬요. 내가 매를 맞기는요? 페레즈본도 같이 가요?"

"페레즈본도!"

"페레즈본도 거기로 데려가요?"

"페레즈본도 거기로."

"아, 주치카라면 좋을 텐데!"

"주치카는 안 돼. 주치카는 존재하지 않아. 주치카는 미지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스무로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일류샤 말로는 주치카도 털북숭이였고 페레즈본처럼 잿빛이었대요, 연기 같은 잿빛. 이게 바로 그 주치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일류샤가 믿을지도 몰라요."

"학생이여, 거짓을 혐오하라, 이것이 하나. 착한 일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둘. 그리고 무엇보다, 너 거기서 내가 온다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를 바라."

"천만에요,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페레즈본으로는 일류샤를 위로하지 못할 거야." 스무로프가 한숨을 쉬었다. "있잖아, 그 아버지, 그 대위 말이야, 그 수세미가 오늘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다주겠다고 우리한테 말했어, 코가 까만 진짜 메델랸스키 개로, 그걸로 일류샤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일류샤는 어때?"

"아, 나빠, 나빠! 내 생각에는 폐병인 것 같아. 정신은 말짱한데, 그저 숨을 헐떡헐떡해. 숨 쉬는 게 좋지 않아. 요전 날 걷게 해 달라고 해서 장화를 신겨 주었더니 걸으려다가 그만 쓰러졌어. '아, 아빠, 내가 말했잖아, 내 장화가 나쁘다고, 예전 거라서 전에도 신고 걷기가 불편했다고.' 그러더라. 장화 때문에 다리가 꺾여서 쓰러지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그냥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한 주도 못 살 거야. 게르첸시투베가 다녀가. 이제 그 집은 다시 부자가 됐어. 돈이 많아."

"사기꾼들."

"누가 사기꾼이야?"

"의사들. 그리고 의학을 하는 놈들 모두, 대체로 말해서, 그리고 물론 하나하나 따져서도. 나는 의학을 부정해. 쓸모없는 제도야. 하기야 나는 그걸 다 연구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 거기서는 무슨 감상주의가 생겨났다는 거야? 너희 반 전체가 거기 가 있는 것 같던데?"

"전체는 아니고, 우리 반 애들 열 명쯤이 거기 다녀. 늘, 날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일에서 놀라운 건 알렉세이 카라마조프의 역할이야, 그 사람 형은 내일이나 모레 그런 범죄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은 사내아이들하고 감상에 빠져 놀 시간이 그렇게 많다니!"

"감상에 빠지는 건 전혀 없어. 너도 지금 일류샤하고 화해하러 가잖아."

"화해? 우스운 표현이군. 하기야 나는 누구에게도 내 행동을 분석하도록 허락하지 않아."

"일류샤가 너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할까! 네가 올 줄은 상상도 못 하고 있어. 왜, 왜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려고 하지 않았어?" 스무로프가 갑자기 열을 올려 외쳤다.

"귀여운 꼬마야, 그건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야. 나는 내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 발로 가는 거고, 너희는 모두 알렉세이 카라마조프가 거기로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화해하러 가는 게 아닐지도 모르잖아? 바보 같은 표현이야."

"카라마조프가 아니야, 전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애들이 저절로 거기 다니기 시작한 거야. 물론 처음에는 카라마조프하고 같이 갔지만.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 바보 같은 건 하나도. 처음에는 한 명, 그다음에는 또 한 명. 아버지는 우리를 무척 반가워했어. 있잖아, 일류샤가 죽으면 그 아버지는 그냥 미쳐 버릴 거야. 일류샤가

죽으리라는 걸 그 사람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일류샤하고 화해했다고 우리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일류샤가 네 이야기를 물었어. 다른 말은 하나도 덧붙이지 않았어. 묻고는 입을 다물어. 그리고 아버지는 미쳐 버리거나 목을 맬 거야. 그 사람은 전에도 미친 사람처럼 굴었잖아. 있잖아, 그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고, 그때는 오해가 있었던 거야. 다 그 아비를 죽인 놈이 그때 그 사람을 두들겨 패서 그런 거야."

"그래도 카라마조프는 나한테 수수께끼야. 나는 벌써 오래전에 그 사람과 사귈 수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만하게 구는 걸 좋아하거든. 게다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의견을 세웠는데, 그걸 아직 확인하고 밝혀 봐야 해."

콜랴는 점잖게 입을 다물었다. 스무로프도 그랬다. 스무로프는 물론 콜랴 크라솟킨을 우러러보았고 감히 그와 나란히 서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무섭게 궁금해졌다. 콜랴가 "내 발로 간다"고 설명했으니, 콜랴가 이제 와서, 하필 오늘 가 보겠다고 갑자기 마음먹은 데에는 틀림없이 무슨 수수께끼가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장터 광장을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타지에서 온 짐마차가 많이 서 있었고 몰고 온 가금도 많았다. 읍내 아낙들이 차양 밑에서 둥근 빵이며 실 따위를 팔고 있었다. 이런 일요일 장을 우리 작은 읍에서는 순진하게 정기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기 시장이 한 해에도 여러 번 선다. 페레즈본은 더없이 즐거운 기분으로 뛰어가며 쉬지 않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빠져 어디서든 무엇이든 냄새를 맡았다. 다른 개들과 마주치면 개들의 온갖 규칙에 따라 남다른 열의로 서로 냄새를 맡았다.

"나는 리얼리즘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 스무로프." 콜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개들이 마주치면 서로 냄새를 맡는 거 봤어? 거기에는 개들에게 공통된 무슨 자연법칙이 있어."

"응, 무슨 우스운 법칙이."

"그러니까 우스운 게 아니야. 그건 네가 틀렸어. 자연에는 우스운 게 하나도 없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말이야. 개들이 따지고 비판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개들은 제 주인인 사람들이 서로 맺는 사회관계에서 그만큼 우스운 것을, 아니 훨씬 더 많이 찾아낼 거야, 아니 훨씬 더 많이, 이걸 되풀이하는 건 우리에게 어리석은 짓이 훨씬 더 많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야. 이건 라키틴의 생각이야, 훌륭한 생각이지. 나는 사회주의자야, 스무로프."

"사회주의자가 뭔데?" 스무로프가 물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에게 하나의 공동 재산이 있고, 결혼이 없고, 종교와 모든 법은 저마다 좋을 대로, 뭐 그 밖의 나머지도 다 그런 거야. 너는 아직 거기까지 크지 못했어. 너한테는 일러. 그런데 춥군."

"응. 영하 12도야. 아까 아버지가 온도계를 봤어."

"그런데 스무로프, 너 그거 알아챘어? 한겨울에는 영하 15도나 18도라도 지금처럼 춥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를테면 지금 같은 초겨울에 갑자기 뜻밖에 영하 12도 추위가 닥치면, 게다가 눈까지 적으면 더 추워. 그건 사람들이 아직 길들지 않았다는 뜻이야. 사람에게는 모든 게 습관이야. 모든 일에서, 국가 관계와 정치 관계에서까지. 습관이 가장 큰 원동력이야. 그런데 저 농군 참 우습게 생겼네."

콜랴는 양가죽 외투를 입은 키 큰 농군을 가리켰고,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의 농군은 제 짐마차 곁에서 추위 때문에 벙어리장갑 낀 손바닥을 툭툭 마주치고 있었다. 그의 긴 아마빛 수염은 추위에 온통 서리가 앉아 있었다.

"농군 수염이 얼었네!" 콜랴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시비조로 외쳤다.

"얼어붙은 사람이 많지." 농군이 대답으로 차분하게, 격언 투로 말했다.

"건드리지 마." 스무로프가 말했다.

"괜찮아, 화내지 않을 거야. 좋은 사람이야. 잘 있어요, 마트베이."

"잘 가."

"아저씨가 정말 마트베이예요?"

"마트베이지. 몰랐냐?"

"몰랐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 본 거예요."

"허 참. 학생이냐?"

"학생이에요."

"그래, 매도 맞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아프냐?"

"안 아플 리가 있나요!"

"에이, 사는 게 뭔지!" 농군이 진심으로 한숨을 쉬었다.

"잘 있어요, 마트베이."

"잘 가. 귀여운 녀석이구나, 정말."

소년들은 계속 걸어갔다.

"좋은 농군이야." 콜랴가 스무로프에게 말을 꺼냈다. "나는 민중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언제나 기꺼이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

"우리 학교에서 매를 때린다고 왜 거짓말을 했어?" 스무로프가 물었다.

"위로해 줘야 했잖아?"

"뭘로?"

"이봐, 스무로프, 나는 첫마디에 못 알아듣고 되묻는 걸 싫어해. 어떤 건 설명할 수도 없어. 농군의 생각으로는 학생은 매를 맞고 또 맞아야 해. 매를 안 맞는 학생이 무슨 학생이냐, 이거지. 그런데 내가 갑자기 우리 학교에서는 매를 안 때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서운해할 거잖아. 하기야 너는 이걸 이해 못 해. 민중과는 요령 있게 이야기해야 해."

"제발 건드리지만 마. 안 그러면 그때 그 거위 사건처럼 또 일이 터질 거야."

"무서워?"

"웃지 마, 콜랴, 정말로 무서워. 아버지가 무섭게 화낼 거야. 나는 너하고 다니는 게 엄하게 금지돼 있어."

"걱정 마,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안녕, 나타샤." 그가 차양 밑 장사꾼 아낙 하나에게 외쳤다.

"내가 무슨 나타샤야, 나는 마리야야." 아직 그리 늙지 않은 장사꾼 아낙이 새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리야라니 좋네요. 잘 있어요."

"아이고, 이 쪼끄만 개구쟁이, 땅바닥에서 보이지도 않는 게 저도 한몫하겠다고!"

"바빠요, 바빠서 아줌마랑 이럴 시간 없어요. 다음 일요일에 이야기해 줘요." 콜랴가 두 손을 내저었다. 마치 자기가 아낙에게 들러붙은 게 아니라 아낙이 자기에게 들러붙은 것 같았다.

"내가 일요일에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 네가 들러붙었지 내가 너한테 들러붙었냐, 이 말썽꾸러기야." 마리야가 소리를 질러 댔다. "매를 맞아야 해, 바로 그거야. 너는 이름난 심술꾸러기야, 바로 그거야!"

마리야 곁에서 제 좌판을 벌이고 장사하던 다른 아낙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는데, 그때 갑자기 읍내 상점들의 아케이드 밑에서 난데없이 장사꾼 점원쯤 되어 보이는 짜증 난 사내 하나가 뛰쳐나왔다. 우리 고장

장사꾼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으로, 자락이 긴 파란 카프탄을 입고 챙 달린 모자를 썼으며, 아직 젊고 암갈색 고수머리에 길고 창백하고 얽은 얼굴이었다. 그는 어쩐지 바보같이 흥분해서 곧바로 콜랴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으르기 시작했다.

"나는 너를 알아." 그가 짜증스럽게 외쳤다. "나는 너를 알아!"

콜랴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언제 이 사람과 무슨 다툼이라도 했던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거리에서 그가 벌인 다툼이 어디 한둘이었겠는가. 다 기억해 낼 수도 없었다.

"알아?" 그가 빈정대며 물었다.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읍민 사내가 바보처럼 되뇌었다.

"그럼 너한테 잘됐네. 자, 나는 바빠, 잘 있어!"

"왜 말썽을 부려?" 읍민 사내가 소리쳤다. "너 또 말썽 부리냐? 나는 너를 알아! 너 또 말썽 부리냐?"

"이봐, 내가 말썽을 부리든 말든 이제 그건 네 일이 아니야." 콜랴가 걸음을 멈추고 계속 그를 훑어보며 말했다.

"어째서 내 일이 아니야?"

"그냥, 네 일이 아니야."

"그럼 누구 일이야? 누구 일인데? 응, 누구 일인데?"

"이봐, 그건 이제 트리폰 니키티치의 일이지 네 일이 아니야."

"무슨 트리폰 니키티치?" 젊은 사내가 여전히 열을 올리면서도 바보같이 놀라서 콜랴를 멀거니 쳐다보았다. 콜랴는 점잖게 눈길로 그를 위아래로 재었다.

"승천 성당에 갔었어?" 그가 갑자기 엄하고 끈질기게 물었다.

"무슨 승천 성당? 왜? 아니, 안 갔어." 젊은 사내가 조금 어리둥절해졌다.

"사바네예프 알아?" 콜랴가 더욱 끈질기게, 더욱 엄하게 이었다.

"무슨 사바네예프? 아니, 몰라."

"그럼 너는 이제 지옥에나 가라!" 콜랴가 갑자기 잘라 말하더니 오른쪽으로 홱 돌아서서 제 갈 길을 빠르게 걸어갔고, 사바네예프도 모르는 그런 멍청이와는 말을 섞는 것조차 경멸스럽다는 듯이.

"거기 서, 이봐! 무슨 사바네예프 말이야?" 젊은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온통 흥분했다. "저 녀석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는 갑자기 장사꾼 아낙들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바보같이 쳐다보았다.

아낙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영리한 녀석이네." 한 아낙이 말했다.

"무슨, 무슨 사바네예프를 말한 거야?" 젊은 사내가 오른손을 휘두르며 여전히 미친 듯이 되풀이했다.

"그건 아마 사바네예프겠지, 쿠지미초프네 집에서 일하던 사람, 그래, 아마 그럴 거야." 한 아낙이 갑자기 짐작했다.

젊은 사내가 그 아낙을 사납게 쳐다보았다.

"쿠-지-미-초프?" 다른 아낙이 되받았다. "그 사람이 어디 트리폰이야? 그 사람은 쿠지마지 트리폰이 아니야. 그런데 아이는 트리폰 니키티치라고 했으니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건 말이야, 트리폰도 아니고 사바네예프도 아니고 치조프야." 지금까지 말없이 진지하게 듣고 있던 세 번째 아낙이 갑자기 받았다. "알렉세이 이바니치라고 불러. 치조프,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그래, 맞아, 치조프야." 네 번째 아낙이 끈질기게 확인했다.

어리둥절해진 젊은 사내는 이 아낙을 보았다가 저 아낙을 보았다가 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왜 물었을까, 왜 물었느냐고요, 여러분?" 그가 이제는 거의 절망하여 외쳤다. "'사바네예프 알아?'라니. 그 사바네예프가 대체 어떤 놈인지 악마나 알겠지!"

"이런 분별없는 사람 같으니, 사바네예프가 아니라 치조프라잖아,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치조프,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 장사꾼 아낙이 그에게 힘주어 소리쳤다.

"무슨 치조프? 응, 어떤 치조프? 알면 말해 봐."

"키가 껑충하고 코를 훌쩍거리던 사람, 작년 여름에 장터에 앉아 있었잖아."

"그런데 당신네 그 치조프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 네?"

"그 치조프가 너한테 무슨 소용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누가 알아." 다른 아낙이 받았다. "그렇게 떠들어 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너 스스로 알아야지. 그 애는 우리가 아니라 너한테 말했잖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야?"

"누구를?"

"치조프를."

"치조프고 뭐고 당신까지 함께 악마한테나 잡혀가라! 그놈을 두들겨 패 주겠어, 바로 그거야! 그놈이 나를 놀렸어!"

"치조프를 두들겨 패겠다고? 아니면 그 사람이 너를 패겠지! 너는 바보야, 바로 그거야!"

"치조프가 아니야, 치조프가 아니라고, 이 심술궂고 못된 아낙아. 그 녀석을 두들겨 패겠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그 녀석을 데려와, 여기로 데려와. 그 녀석이 나를 놀렸어!"

아낙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나 콜랴는 이미 의기양양한 얼굴로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 스무로프는 그 곁에서 걸으며 멀리서 소리치는 무리를 돌아보았다. 그도 무척 즐거웠지만, 그래도 콜랴와 함께 무슨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그 사람한테 무슨 사바네예프를 물어본 거야?" 그가 대답을 미리 짐작하며 콜랴에게 물었다.

"무슨 사바네예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저 사람들은 저녁까지 떠들어 댈 거야. 나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바보들을 쑤셔 놓는 걸 좋아해. 저기 멍청이가 또 하나 서 있네, 저 농군 말이야. 잘 봐 둬. '어리석은 프랑스인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들 하지만, 러시아 사람의 얼굴도 제 속을 드러내. 저 사람 얼굴에 바보라고 쓰여 있지 않아? 저 농군 말이야, 응?"

"내버려 둬, 콜랴, 그냥 지나가."

"절대로 안 내버려 둬. 이제 나는 발동이 걸렸어. 이봐요! 안녕하세요, 농군 아저씨!"

천천히 지나가던, 벌써 한잔 걸친 듯한, 둥글고 어수룩한 얼굴에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건장한 농군이 고개를 들고 소년을 쳐다보았다.

"그래, 안녕하냐. 농담이 아니라면." 그가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농담이라면요?" 콜랴가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라면 농담하려무나. 하느님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괜찮아, 그래도 돼. 농담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야."

"미안해요, 아저씨, 농담했어요."

"그래, 하느님이 너를 용서하시기를. 너는 나를 용서하냐?"

"아주 용서하구말구요. 가세요."

"허 참, 너는, 너는 아마 영리한 농군인가 보구나."

"너보다 영리하지." 농군이 뜻밖에 여전히 점잖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콜랴가 얼마쯤 어리둥절해졌다.

"참말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니까, 얘야."

"잘 있어요, 농군 아저씨."

"잘 가."

"농군도 여러 가지야." 한동안 말이 없다가 콜랴가 스무로프에게 말했다. "영리한 사람한테 걸릴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나는 언제든 민중의 지혜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

멀리 대성당 시계가 열한 시 반을 쳤다. 소년들은 서둘렀고, 2등 대위 스네기료프의 집까지 아직 꽤 남은 길을 빠르게, 거의 말도 없이 걸었다. 집을 스무 걸음쯤 앞두고 콜랴는 멈춰 서서 스무로프에게 먼저 가서 카라마조프를 여기로 불러내라고 했다.

"먼저 서로 냄새를 맡아 봐야 해." 그가 스무로프에게 말했다.

"왜 불러내?" 스무로프가 반박하려 했다. "그냥 들어가. 다들 무척 반가워할 거야. 추운 데서 무슨 인사를 해?"

"이 추운 데로 왜 그 사람을 불러내야 하는지는 내가 알아." 콜랴가 폭군처럼 잘라 말했고(이 "꼬맹이들"에게 그러기를 무척 좋아했다), 스무로프는 명령을 실행하러 뛰어갔다.

제4장 주치카

콜랴는 점잖은 표정을 지으며 울타리에 몸을 기대고 알료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료샤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사내아이들에게서 알료샤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면 늘 겉으로는 경멸하는 듯 무심한 얼굴을 했고, 사람들이 전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알료샤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척, 무척 사귀고 싶었다. 그가 들은 알료샤 이야기에는 모두 무언가 호감이 가고 끌리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은 중요했다. 우선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아야 했고, 독립성을 보여야 했다. "안 그러면 내가 열세 살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저 녀석들 같은 꼬마로 여길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저 녀석들이 다 뭐지? 가까워지면 물어봐야지. 그런데 고약한 건 내 키가 이렇게 작다는 거야. 투지코프는 나보다 어린데 머리 반쯤 더 커. 하기야 내 얼굴은 영리해. 잘생기지 않았다는 건 알아. 얼굴이 흉하다는 건 알지만, 얼굴은 영리해. 그리고 너무 속을 드러내서도 안 돼. 처음부터 대뜸 끌어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테니까…… 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할까!……"

콜랴는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더없이 독립적인 모습을 지으려고 온 힘을 다해 애썼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작은 키였다. "흉한" 얼굴보다도 키였다. 그의 집 구석 벽에는 지난해부터 그가 제 키를 표시해 둔 연필 금이 그어져 있었고, 그때부터 그는 두 달마다 가슴을

졸이며 다시 키를 재러 다가갔다.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아아! 그는 무섭게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고, 그것이 이따금 그를 그야말로 절망에 빠뜨렸다. 얼굴로 말하자면, 전혀 "흉하지" 않았고, 오히려 꽤 귀염성 있고 하얗고 핏기가 없는 얼굴에 주근깨가 있었다. 크지는 않지만 생기 있는 잿빛 눈은 대담하게 바라보았고 자주 감정으로 불타올랐다. 광대뼈는 얼마쯤 넓었고, 입술은 작고 그리 두껍지 않지만 무척 붉었다. 코는 작고 영락없이 들창코였다. "아주 들창코야, 아주 들창코!" 콜랴는 거울을 볼 때면 속으로 중얼거렸고, 늘 분개하며 거울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얼굴이 정말 영리하기는 할까?" 그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하며 그것마저 의심했다. 하기야 얼굴과 키에 대한 걱정이 그의 온 영혼을 삼키고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울 앞의 순간들이 아무리 쓰라렸어도 그는 금방, 그것도 오랫동안 그것을 잊었고, 그 자신이 제 활동을 규정한 대로 "사상과 실제 생활에 온통 몸을 바치며".

알료샤는 곧 나타나 서둘러 콜랴에게 다가왔다. 콜랴는 몇 걸음 앞에서부터 알료샤의 얼굴이 어쩐지 아주 기뻐 보인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정말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는 걸까?" 콜랴는 흐뭇하게 생각했다. 여기서 짚어 두자면, 알료샤는 우리가 그를 남겨 두고 떠난 뒤로 무척 달라졌고, 그는 수도복 안옷을 벗어 버리고 이제는 아주 잘 지은 프록코트를 입고 부드러운 둥근 모자를 썼으며, 머리를 짧게 깎았다. 이 모든 것이 그를 무척 돋보이게 해서, 그는 아주 미남으로 보였다. 그의 귀염성 있는 얼굴은 늘 즐거워 보였지만, 그 즐거움은 어쩐지 조용하고 차분했다. 콜랴가 놀랍게도, 알료샤는 방에 앉아 있던 차림 그대로 외투도 걸치지 않고 그에게 나왔다. 서둘렀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곧바로 콜랴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침내 오셨군요. 우리 모두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사정이 있었는데,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기회를 기다렸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콜랴가 조금 숨이 가쁜 듯 중얼거렸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됐을 거예요. 나도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곳에는 늦게 오셨군요."

"말해 주세요, 여기는 어때요?"

"일류샤가 몹시 나빠요.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그럴 수가! 의학이 비열하다는 걸 인정하시지요, 카라마조프." 콜랴가 열을 올려 외쳤다.

"일류샤가 자주, 아주 자주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있잖아요, 꿈속에서, 헛소리하면서까지요. 전에는 당신이 그 애에게 무척, 무척 소중했던 게 분명해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칼 사건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다른 까닭도 있어요…… 말해 주세요, 그게 당신 개예요?"

"내 개예요. 페레즈본이에요."

"주치카가 아니고요?" 알료샤가 안타깝게 콜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개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나요?"

"모두 주치카를 바라신다는 건 알아요. 다 들었습니다." 콜랴가 수수께끼처럼 빙그레 웃었다. "들어 보세요, 카라마조프, 일을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그러려고 왔고, 그래서 당신을 불러냈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건 전체를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가 생기 있게 말을 꺼냈다. "보세요, 카라마조프, 봄에 일류샤가 예비반에 들어와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비반이란 꼬마들, 어린애들이지요. 다들 곧바로 일류샤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나는 두 학년 위라서 물론 멀리서, 옆에서 지켜봐요. 보니까 작고 약한 아이인데 굴복하지 않고 그 녀석들과 싸우기까지 해요. 자존심이 세고 작은 눈이 불타요. 나는 그런 아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녀석들은 더욱 못살게 굴어요.

무엇보다 그때 그 애는 옷이 형편없었어요. 바지는 위로 말려 올라가고 장화는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녀석들은 그것 때문에도 그 애를 놀려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정말 내가 싫어해요. 곧바로 감싸 주고 엑스트라페페르를 부렸지요. 나는 녀석들을 때리는데도 녀석들은 나를 무척 따라요. 그거 아세요, 카라마조프?" 콜랴가 거침없이 자랑했다. "그리고 대체로 나는 꼬마들을 좋아해요. 지금도 집에서 병아리 둘이 내 목에 매달려 있어요. 오늘도 그 애들 때문에 늦었고요. 이렇게 해서 일류샤를 때리는 일은 그쳤고, 나는 그 애를 내 보호 아래 두었어요. 보니까 자존심이 센 아이예요, 정말로 자존심이 세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노예처럼 내게 몸을 맡기고, 내가 시키는 아주 작은 일까지 다 하고, 나를 신처럼 떠받들고, 나를 흉내 내려고 기를 써요.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이면 곧바로 내게 오고, 우리는 함께 다녀요. 일요일에도 그래요. 우리 김나지움에서는 상급생이 꼬마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비웃지만, 그건 편견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걸로 끝이지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애를 가르치고 계발해요. 말해 보세요, 그 애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왜 그 애를 계발하면 안 되지요? 카라마조프, 당신도 바로 그 병아리들과 다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계발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소문으로 알게 된 당신 성격의 바로 그 점이 무엇보다 내 흥미를 끌었어요. 하기야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그 애에게서 무슨 감수성이, 감상이 자라는 게 눈에 띄는데, 나는요,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온갖 송아지 같은 애정 표현의 결연한 적이에요. 게다가 모순이 있어요, 자존심이 세면서 노예처럼 내게 매달리고, 노예처럼 매달리다가 갑자기 작은 눈을 번득이며 나한테 동의하려 들지도 않고 대들고 길길이 날뛰어요. 나는 가끔 여러 가지 사상을 펼쳤는데, 그 애가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에게 반역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내가 그 애의 애정에 냉정함으로 대꾸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애를 단련하려고, 그 애가 다정해질수록 더욱 냉정해져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게 내 신념이에요. 나는 성격을 훈련시키고, 바로잡고, 사람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뭐, 그 밖에도…… 당신은 물론 반마디만 들어도 나를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애가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당황하고 슬퍼하는 게 눈에 띄는데, 이젠 애정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더 강하고 더 높은 것 때문이에요. 무슨 비극일까 싶었지요. 다그쳤더니 사연을 알게 돼요. 그 애가 어쩌다 당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하인(그때는 아직 살아 있었지요) 스메르댜코프와 가까워졌는데, 그자가 그 바보 같은 아이에게 바보 같은 장난을, 그러니까 짐승 같은 장난, 비열한 장난을 가르쳐 줬어요. 빵 한 조각, 말랑한 속살을 떼어 거기에 핀을 꽂아서, 배가 고파서 씹지도 않고 조각을 삼키는 그런 마당개에게 던져 주고 어떻게 되나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그런 조각을 만들어서 바로 이 털북숭이 주치카,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 그 주치카에게 던졌어요, 먹이를 아예 주지 않는 어느 집 마당개였는데, 그 개는 하루 종일 허공에 대고 짖어 댔지요. (카라마조프, 그런 바보 같은 개 짖는 소리 좋아하세요? 나는 질색이에요.) 개는 그대로 달려들어 삼키더니 깨갱거리며 빙빙 돌다가 내달렸고, 달려가면서 줄곧 깨갱거리다가 사라졌어요, 일류샤가 직접 내게 그렇게 묘사해 주었어요. 털어놓으면서 울고 또 울고, 나를 끌어안고 몸을 떨면서 '달려가면서 깨갱거려, 달려가면서 깨갱거려.' 그 말만 되풀이해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양심의 가책이구나 싶었어요.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무엇보다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도 그 애를 단단히 가르치고 싶어서, 솔직히 말해 그때 나는 꾀를 부렸고, 어쩌면 전혀 품지도 않았을 만큼 분개한 척했지요. '너는 비열한 짓을 했어. 너는 비열한 놈이야. 물론 퍼뜨리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너와

관계를 끊겠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스무로프를 통해서 알려 줄게.' 그렇게 말했지요(바로 지금 나와 함께 온, 늘 내게 충실했던 이 소년 말이에요). '앞으로도 너와 관계를 계속할지, 아니면 비열한 놈인 너를 영원히 버릴지.' 그 말이 그 애에게 무서운 충격을 주었어요. 솔직히 나도 그때 이미 어쩌면 너무 엄하게 대했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내 생각이 그랬어요. 하루 뒤에 나는 스무로프를 그 애에게 보내서, 이제 그 애와 '말하지 않는다'고 전하게 하는데, 우리끼리는 친구 둘이 관계를 끊을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비밀은 내가 그 애를 겨우 며칠만 벌칙으로 묶어 두었다가, 뉘우치는 걸 보면 다시 손을 내밀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굳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스무로프에게서 듣더니 갑자기 그 애 눈이 번득였어요. '크라솟킨에게 전해.' 그 애가 소리쳤어요. '나는 이제 모든 개한테 핀 꽂은 조각을 던질 거라고, 모든 개한테, 모든 개한테!' 아, 버릇없는 기운이 생겼구나, 이걸 몰아내야겠다 싶어서 그 애에게 철저한 경멸을 내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빈정대며 웃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애 아버지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기억하시지요, 그 수세미 말이에요? 그러니 아시겠지만, 그 애는 그렇게 해서 이미 무서운 울화가 치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애를 버린 걸 보고 녀석들이 그 애에게 달려들어 '수세미, 수세미' 하고 놀려요. 바로 그때부터 녀석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는데, 나는 그게 무섭게 안타까워요. 그 애가 그때 한 번 무척 아프게 얻어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한번은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그 애가 마당에서 모두에게 달려들어요, 그런데 나는 마침 열 걸음 떨어진 데 서서 그 애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맹세하지만, 그때 내가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나는 그 애가 무척, 무척 가여워져서, 한순간만 더 지났으면 그 애를 감싸러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내 눈길과

마주쳤는데, 그 애에게 무엇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는 주머니칼을 홱 꺼내 내게 달려들더니 내 넓적다리를 찔렀어요. 바로 여기, 오른쪽 다리요. 나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나는 가끔 용감할 때가 있어요, 카라마조프, 나는 그저 경멸스럽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눈길로 이렇게 말하듯이요. '내 모든 우정의 대가로 더 찌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찔러.' 그런데 그 애는 두 번은 찌르지 않았어요, 견디지 못하고 저 스스로 겁이 나서 칼을 내던지고 소리 내어 울며 달아났어요. 나는 물론 고자질하지 않았고, 윗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게 모두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고, 엄마에게도 다 아물고 나서야 말했어요, 게다가 상처도 별것 아니었어요, 긁힌 자국이었지요. 그 뒤에 들으니 그날 그 애가 돌을 던지고 당신 손가락을 물어뜯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시겠지요, 그 애가 어떤 상태였는지! 뭐, 어쩌겠어요, 나는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 애가 병이 났을 때 용서하러, 그러니까 화해하러 가지 않았고, 이제 와서 뉘우쳐요. 하지만 그 뒤로 나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생겼어요. 자, 이게 이야기 전부예요…… 다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알료샤가 흥분해서 외쳤다. "그 애와 당신의 그런 관계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벌써 오래전에 당신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그 애에게 가 달라고 부탁했을 텐데요. 믿으시겠어요, 열이 오르고 앓는 동안 그 애는 헛소리로 당신을 불렀어요. 그 애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로 그 주치카를 끝내 찾지 못했나요? 아버지와 소년들이 모두 온 읍내를 뒤졌어요. 믿으시겠어요, 그 애는 앓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서 벌써 세 번이나 아버지에게 되풀이했어요. '아빠, 내가 아픈 건 그때 주치카를 죽였기 때문이야. 하느님이 나를 벌하신 거야.' 그 생각에서 그 애를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주치카를 구해서,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주기만 하면 그 애는 기뻐서 되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당신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말해 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주치카를 찾아내리라고, 그러니까 하필 내가 찾아내리라고 희망을 걸었지요?" 콜랴가 대단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나를 믿었지요?"

"당신이 그 개를 찾고 있고, 찾으면 데려올 거라는 소문이 좀 있었어요. 스무로프가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치카가 살아 있다고, 어디선가 그 개를 보았다고 그 애를 믿게 하려고 줄곧 애쓰고 있어요. 소년들이 어디선가 살아 있는 산토끼를 구해다 주었지만, 그 애는 쳐다보고 아주 조금 미소 짓더니 들판에 놓아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방금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애에게 메델랸스키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어디선가 구해 왔는데, 그걸로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해 주세요, 카라마조프.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알지만, 당신이 규정하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릿광대, 익살꾼?"

"아, 아니에요. 깊이 느끼면서도 어쩐지 짓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릿광대짓은 오랫동안 굴욕스럽게 겁을 먹어 온 탓에 면전에서는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대에게 퍼붓는 독살스러운 빈정거림 같은 거예요. 믿어 주세요, 크라솟킨, 그런 어릿광대짓은 때로 대단히 비극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일류샤에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 일류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슬퍼서 미쳐 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보면 나는 거의 그렇게 확신해요!"

"당신을 이해해요, 카라마조프. 당신은 사람을 아는군요." 콜랴가 사무치게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개를 데리고 있는 걸 보자마자, 그 주치카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어요."

"기다려 보세요, 카라마조프. 어쩌면 우리가 그 개를 찾아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건, 이건 페레즈본이에요. 이제 이 개를 방에 들여보내면 어쩌면 메델랸스키 강아지보다 일류샤를 더 즐겁게 해 줄지도 몰라요. 기다려 보세요, 카라마조프, 곧 무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맙소사, 내가 왜 당신을 붙잡고 있지!" 콜랴가 갑자기 다급하게 외쳤다. "이 추위에 프록코트 바람이신데 내가 붙잡고 있네요. 보세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오, 우리는 모두 이기주의자예요, 카라마조프!"

"걱정 마세요. 춥기는 하지만 나는 감기에 잘 안 걸려요. 그래도 들어갑시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콜랴라는 건 아는데, 그다음은요?"

"니콜라이, 니콜라이 이바노프 크라솟킨이에요. 관청 투로 말하자면 크라솟킨의 아들이지요." 콜랴는 무엇 때문인지 웃었지만 갑자기 덧붙였다. "나는 물론 니콜라이라는 내 이름이 싫어요."

"왜요?"

"진부하고, 관청 냄새가 나서……"

"열세 살이에요?" 알료샤가 물었다.

"그러니까 열네 살이에요. 2주 뒤면 열네 살, 아주 곧이지요. 카라마조프, 내 약점 하나를 미리 털어놓을게요, 이건 당신 앞이니까, 처음 사귀는 자리니까, 당신이 내 본성을 단번에 다 보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나이를 묻는 게 싫어요,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테면 내가 지난주에 예비반 아이들과 도둑놀이를 했다는 중상이 돌아요. 내가 놀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이 즐거우려고 놀았다는 건 그야말로

중상이에요. 그 말이 당신 귀에도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내게 있지만, 나는 나를 위해 논 게 아니라 꼬마들을 위해 놀았어요, 그 애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해 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고장에서는 늘 허튼소리를 퍼뜨려요. 여기는 뒷공론의 도시예요. 장담해요."

"설령 당신이 즐거우려고 놀았다 해도, 그게 무슨 문제예요?"

"뭐, 나를 위해서라니…… 당신은 말놀이 같은 건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알료샤가 미소 지었다. "이를테면 어른들도 연극을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연극에서도 온갖 영웅들의 모험을 보여 주고, 때로는 도둑이나 전쟁도 나오지요, 그러니 그것도, 물론 제 나름대로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전쟁놀이나 도둑놀이도 막 싹트는 예술, 젊은 영혼 속에서 막 싹트는 예술의 욕구이고, 그런 놀이는 때로 연극보다 더 그럴듯하게 짜이기까지 해요. 다른 점은 연극에는 배우들을 보러 가지만 여기서는 젊은이들 자신이 배우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당신의 신념이에요?" 콜랴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꽤 흥미로운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면 거기에 대해 머리를 좀 굴려 봐야겠어요. 솔직히 나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배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배우러 왔어요, 카라마조프." 콜랴가 사무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맺었다.

"나도 당신에게 배우러요." 알료샤가 그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다.

콜랴는 알료샤가 대단히 흡족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알료샤가 그를 더없이 대등하게 대하고 "가장 큰 사람"에게 하듯 그와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다.

"카라마조프, 지금 당신에게 재주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연극 같은 거예요." 그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그러려고 왔거든요."

"먼저 왼쪽 집주인네로 들어가요. 거기에 모두 외투를 벗어 둬요. 방이 비좁고 더우니까요."

"오, 나는 잠깐이면 돼요. 들어가서 외투를 입은 채로 앉아 있을게요. 페레즈본은 여기 현관방에 남아서 죽을 거예요. '이리 와, 페레즈본, 엎드려, 그리고 죽어!' 보세요, 죽었잖아요. 나는 먼저 들어가서 형편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휘파람을 불 거예요. '이리 와, 페레즈본!' 그러면 보세요, 녀석이 곧바로 미친 듯이 날아 들어올 거예요. 다만 스무로프가 그 순간에 문을 여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다 맡아서 할 테니 재주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제5장 일류샤의 침대 곁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퇴역 2등 대위 스네기료프의 가족이 사는, 우리에게 이미 낯익은 그 방은 이때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숨 막히고 비좁았다. 이번에는 소년 몇이 일류샤 곁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스무로프처럼 알료샤가 자기들을 일류샤와 화해시키고 이어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태세였지만, 사실은 그랬다. 이 일에서 알료샤의 솜씨는 오로지 그 아이들을 하나씩 차례로, "송아지 같은 애정 표현"도 없이, 마치 전혀 일부러가 아닌 듯 우연인 듯 일류샤와 이어 주었다는 데 있었다. 일류샤에게는 그것이 괴로움을 엄청나게 덜어 주었다. 예전의 적이던 이 모든 소년이 자기에게 거의 다정한 우정과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는 무척 감동했다. 다만 크라솟킨 한 사람만 없었는데, 그것이 그의 가슴을 무섭게 짓눌렀다. 일류셰치카의 쓰라린 추억 가운데 가장 쓰라린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유일한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크라솟킨과 얽힌 그 일, 그때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든 그 일 전체였다. 영리한 소년 스무로프(일류샤와 화해하러 맨 먼저 온 아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크라솟킨 자신은, 알료샤가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를 찾아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스무로프가 넌지시 전하자, 곧바로 그 접근을 딱 잘라 끊어 버렸고, 그는 스무로프에게 지금 당장 "카라마조프"에게 전하라고 맡겼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기가 알고, 누구에게서도 충고를 바라지 않으며, 앓는 아이에게 간다면 언제 갈지는 자기가 안다고, 자기에게는 "자기 셈속"이 있다고. 그것이 이 일요일보다 아직 2주쯤

전이었다. 그래서 알료샤는 마음먹었던 대로 몸소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하기야 알료샤는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무로프를 크라솟킨에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보냈다. 그러나 그 두 번 모두 크라솟킨은 이제 더없이 참을성 없고 날카롭게 거절하며, 알료샤가 몸소 자기를 데리러 오면 그 때문에라도 결코 일류샤에게 가지 않을 테니 더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알료샤에게 전하게 했다. 바로 이 마지막 날까지도 스무로프 자신은 콜랴가 이날 아침 일류샤에게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몰랐고, 다만 전날 저녁 스무로프와 헤어지면서 콜랴가 갑자기 딱 잘라, 내일 아침 함께 스네기료프네 집에 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나 자기는 불쑥 나타나고 싶으니 누구에게도 자기가 온다는 것을 감히 알리지 말라고 일렀을 뿐이다. 스무로프는 그 말에 따랐다. 그런데 크라솟킨이 사라진 주치카를 데려올 것이라는 스무로프의 꿈은 크라솟킨이 한 번 지나가는 말로 던진 말, "개가 살아 있기만 하다면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녀석들은 다 당나귀야"라는 말에 근거해서 생겨났다. 스무로프가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개에 대한 자기 짐작을 크라솟킨에게 넌지시 비치자, 크라솟킨은 갑자기 무섭게 화를 냈다. "내게는 내 페레즈본이 있는데, 내가 무슨 당나귀라고 온 읍내를 돌아다니며 남의 개를 찾아? 그리고 핀을 삼킨 개가 살아 있으리라고 꿈이라도 꿀 수 있어? 송아지 같은 애정 표현일 뿐이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사이에 일류샤는 벌써 2주째 성상들 곁 구석에 놓인 제 침대에서 거의 내려오지 못했다. 수업에는 알료샤를 만나 그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바로 그 일이 있은 뒤로 가지 않았다. 하기야 그는 그날부터 앓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한 달쯤은 이따금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과 현관방을 어떻게든 드문드문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마침내 아주 기운이 다해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곁에서

떨었고, 술도 아예 끊었으며, 아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으며, 자주, 특히 아들의 팔을 부축해 방 안을 거닐게 하고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면, 갑자기 현관방 어두운 구석으로 뛰쳐나가 이마를 벽에 기대고는 어쩐지 목이 메어 떨리는 울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일류셰치카에게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짓눌렀다.

방으로 돌아오면 그는 대개 무엇으로든 사랑하는 아들을 즐겁게 해 주고 위로하기 시작했다. 옛이야기와 우스운 일화를 들려주거나, 자기가 우연히 만난 여러 우스운 사람들 흉내를 내고, 짐승들이 우습게 울부짖거나 소리치는 것까지 흉내 냈다. 그러나 일류샤는 아버지가 몸을 비틀며 어릿광대짓을 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소년은 그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아버지가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의식했고, 늘 끈질기게 "수세미"와 그 "끔찍한 날"을 떠올렸다. 일류셰치카의 누나로 다리가 불편하고 조용하고 온순한 니노치카도 아버지가 몸을 비트는 것을 싫어했다(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로 말하자면, 그 여자는 벌써 오래전에 강좌를 들으러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그 대신 정신이 반쯤 나간 엄마는 남편이 무언가를 흉내 내거나 무슨 우스운 몸짓을 해 보이기 시작하면 무척 재미있어하며 진심으로 웃었다. 그것으로만 그 여자를 위로할 수 있었고, 그 밖의 시간에는 내내 이제 모두가 자기를 잊었다고, 아무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모욕한다고 따위 따위로 쉬지 않고 투덜거리며 울었다. 그런데 바로 요 며칠 사이에 그 여자도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자주 구석에 있는 일류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훨씬 말수가 적어지고 조용해졌으며, 울게 되면 남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울었다. 2등 대위는 쓰라린 어리둥절함으로 아내의 이런 변화를 알아차렸다. 소년들이 찾아오는 것이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저 화만 돋우었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의 즐거운 외침과 이야기가 그 여자도 즐겁게 해 주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소년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 무섭게 시름에 잠겼을 것이다.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놀기 시작하면 그 여자는 웃으며 손뼉을 쳤다. 몇몇 아이는 곁으로 불러 입을 맞추었다. 소년 스무로프를 특히 좋아했다. 2등 대위로 말하자면, 일류샤를 즐겁게 해 주러 찾아오는 아이들이 집에 나타난 것이 처음부터 그의 영혼을 열광적인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 일류샤가 시름을 덜고 어쩌면 그 덕분에 더 빨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까지 채웠다. 그는 일류샤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바로 요즘까지 단 한 순간도 아들이 갑자기 나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손님들을 경건하게 맞이했고, 그 곁을 맴돌며 시중을 들었고, 그 아이들을 등에 태워 줄 태세였고, 실제로 태워 주기 시작하기까지 했지만, 일류샤가 그런 놀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군것질거리를, 작은 꿀과자와 호두를 사 오기 시작했고, 차를 차리고 버터 바른 빵을 만들었다. 짚어 두어야겠는데, 이 무렵 내내 그에게는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보낸 200루블을 그는 알료샤가 예언한 그대로 받았다. 그 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들의 형편과 일류샤의 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는 몸소 그 집을 찾아가 온 가족과 인사를 나누었고, 정신이 반쯤 나간 2등 대위 부인까지 사로잡았다. 그때부터 그 여자의 손은 마르지 않았고, 2등 대위 자신은 아들이 죽으리라는 생각에 공포에 짓눌려 예전의 자존심을 잊고 공손하게 적선을 받았다. 이 무렵 내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청으로 게르첸시투베 의사가 하루걸러 꼬박꼬박 앓는 아이를 보러 왔지만, 그의 왕진은 별 소용이 없었고 그 대신 그는 아이에게 지독히 약을 처발랐다. 그런데 이날, 그러니까 이 일요일 아침에 2등 대위의 집에서는 모스크바에서 온, 모스크바에서 명의로 꼽히는 새 의사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큰돈을 들여 일부러 모스크바에서 불러 모셔 온 의사였고, 일류셰치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 때문이었는데, 그 목적은 아래에서 제자리에서 이야기하겠는데, 이왕 왔으니 일류셰치카도 들여다봐 달라고 청했고, 2등 대위는 미리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콜랴 크라솟킨이 오리라고는, 그의 일류셰치카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그 소년이 마침내 와 주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바라기는 했지만, 그는 아무 예감도 없었다. 크라솟킨이 문을 열고 방에 나타난 바로 그 순간, 모두가, 2등 대위와 소년들이 앓는 아이의 침대 곁에 모여 방금 가져온 아주 작은 메델랸스키 강아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어제 태어난 강아지였는데, 사라졌고 물론 이미 죽었을 주치카를 두고 줄곧 시름에 잠긴 일류셰치카를 즐겁게 해 주고 위로하려고 2등 대위가 벌써 한 주 전에 주문해 두었다. 그러나 일류샤는 사흘 전부터 작은 개를, 그것도 흔한 개가 아니라 진짜 메델랸스키 개를(그것은 물론 무섭게 중요한 일이었다) 선물로 받으리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기에,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선물이 반갑다는 것을 내보이기는 했지만, 아버지도 소년들도 모두 새 강아지가 어쩌면 그의 작은 가슴속에서 그가 괴롭혀 죽인 불쌍한 주치카의 기억을 더욱 세게 건드렸을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강아지는 그의 곁에 누워 꼼지락거렸고, 그는 아프게 미소 지으며 가늘고 핏기 없는 바싹 마른 작은 손으로 강아지를 쓰다듬었고, 강아지가 그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까지 보였지만…… 그래도 주치카는 없었고, 그래도 이건 주치카가 아니었다. 주치카와 강아지가 함께 있다면, 그때는 행복이 온전했을 텐데!

"크라솟킨이다!" 들어온 콜랴를 맨 먼저 알아본 소년 하나가 갑자기 소리쳤다. 눈에 띄게 술렁거림이 일었고, 소년들은 길을 비켜 침대

양쪽으로 갈라서는 바람에 갑자기 일류셰치카의 온몸이 드러났다. 2등 대위가 다급하게 콜랴를 맞으러 달려 나갔다.

"어서 오십쇼, 어서 오십쇼…… 귀한 손님!" 그가 그에게 더듬거렸다. "일류셰치카, 크라솟킨 씨가 너한테 와 주셨다……"

그러나 크라솟킨은 그에게 서둘러 손을 내밀고 나서 순식간에 사교 예절에 대한 자기의 남다른 지식을 드러냈다. 그는 곧바로 무엇보다 먼저 제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2등 대위의 부인에게 돌아섰고(부인은 마침 그때 소년들이 일류샤의 침대를 가로막아 새 강아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무섭게 못마땅해하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발을 끌며 인사했다. 그다음 니노치카에게 돌아서서 그 여자에게도 숙녀에게 하듯 똑같이 인사했다. 이 정중한 행동은 앓는 부인에게 남다르게 기분 좋은 인상을 남겼다.

"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라는 게 금방 보이는군." 그 여자가 두 팔을 벌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손님들은 어떻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타고 들어온다니까."

"여보, 어머니, 하나가 다른 하나를 타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2등 대위가 상냥하게, 그러나 "어머니"가 조금 걱정되어 더듬거렸다.

"그냥 그렇게 타고 들어온다고. 현관방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어깨에 올라타서는 고귀한 집안에 말 탄 채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무슨 손님이야?"

"대체 누가, 누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누가요?"

"오늘 이 아이가 이 아이를 타고 들어왔고, 저 아이가 저 아이를……"

그러나 콜랴는 벌써 일류샤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앓는 아이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는 작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콜랴를 뚫어지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콜랴는 예전의 어린 친구를 두 달쯤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멈춰 서서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토록 여위고

누렇게 뜬 작은 얼굴, 열에 들떠 불타고 무섭게 커진 것 같은 그 눈, 그토록 가냘픈 작은 손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는 일류샤가 그토록 깊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입술이 그토록 바싹 말라붙은 것을 슬픈 놀라움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는 일류샤에게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내밀고는 거의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그래, 영감…… 어떻게 지내?"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끊겼고, 거침없는 태도가 모자랐으며, 얼굴이 어쩐지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입술 언저리에서 무언가가 떨렸다. 일류샤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아프게 그에게 미소 지었다. 콜랴는 갑자기 손을 들어 무엇 때문인지 손바닥으로 일류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그가 일류샤에게 조용히 더듬거렸다. 일류샤를 북돋우려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게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인지. 잠시 다시 말이 없었다.

"그게 뭐야, 새 강아지야?" 콜랴가 갑자기 더없이 무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으-응!" 일류샤가 숨이 차서 길게 속삭여 대답했다.

"코가 까만 걸 보니 사나운 놈이네, 사슬에 매어 두는 개야." 콜랴가 마치 일이 온통 강아지와 그 까만 코에 달려 있기라도 한 듯 점잖고 단단하게 말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그가 "꼬맹이"처럼 울지 않으려고 아직도 온 힘을 다해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아직도 억누르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크면 사슬에 매어 둬야 할 거야. 내가 알아."

"엄청나게 커질 거야!" 무리 속에서 소년 하나가 외쳤다.

"그럼, 메델랸스키니까 엄청 커. 이만큼, 송아지만 해져." 갑자기 가는 목소리 몇이 울렸다.

"송아지만 하지요, 진짜 송아지만 합지요." 2등 대위가 뛰어들었다. "일부러 그런 놈을 찾았습지요, 가장, 가장 사나운 놈으로요. 어미 아비도 엄청나게 크고 가장 사나운 놈들이라, 바닥에서부터 키가 이만합지요…… 앉으십쇼, 여기 일류샤 침대에, 아니면 여기 긴 의자에요. 어서 오십쇼, 귀한 손님, 오래 기다린 손님……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와 함께 오셨습지요?"

크라솟킨은 일류샤의 발치,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 그는 어쩌면 오는 길에 무엇으로 거침없이 이야기를 시작할지 미리 마련해 두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실마리를 놓쳐 버렸다.

"아니요…… 나는 페레즈본과 같이 왔어요…… 지금 나한테 그런 개가 있어요, 페레즈본이에요. 슬라브식 이름이지요. 저기서 기다려요…… 휘파람을 불면 날아 들어올 거예요. 나도 개를 데리고 왔어." 그가 갑자기 일류샤에게 돌아섰다. "영감, 주치카 기억나?" 그가 갑자기 물음으로 일류샤를 후려쳤다.

일류셰치카의 작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괴로운 듯 콜랴를 바라보았다. 문가에 서 있던 알료샤가 얼굴을 찌푸리며 주치카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콜랴에게 몰래 고개를 끄덕여 보이려 했지만, 콜랴는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아채고 싶어 하지 않았다.

"주치카는…… 어디 있어?" 일류샤가 찢어질 듯 갈라진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네 주치카는, 휘유! 네 주치카는 사라졌어!"

일류샤는 말이 없었지만 다시 한 번 콜랴를 뚫어지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콜랴의 눈길을 붙잡은 알료샤가 다시 온 힘을 다해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콜랴는 또 눈길을 돌리며 이번에도 알아채지 못한 척했다.

"어딘가로 달아나서 사라졌어. 그런 먹이를 먹고 어떻게 안 사라지겠어." 콜랴가 무자비하게 잘라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저 자신은 무엇 때문인지 숨이 막히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 대신 나한테는 페레즈본이 있어…… 슬라브식 이름이야…… 너한테 데려왔어……"

"싫-어!" 일류셰치카가 갑자기 말했다.

"아니, 아니, 봐야 해, 꼭 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일부러 데려왔어…… 그 개처럼 털북숭이야…… 부인, 제 개를 여기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는 갑자기 어쩐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여 스네기료바 부인에게 돌아섰다.

"싫어, 싫어!" 일류샤가 목소리에 슬픈 파열을 담아 외쳤다. 그의 눈에 나무람이 불타올랐다.

"저, 저기요……" 2등 대위가 벽 곁 궤에 걸터앉아 있다가 갑자기 몸을 홱 일으켰다. "저기요…… 다른 때에 하시면……" 그가 더듬거렸지만, 콜랴는 억누를 수 없이 고집하며 서둘러 갑자기 스무로프에게 소리쳤다. "스무로프, 문 열어!" 그리고 스무로프가 문을 열자마자 호루라기를 불었다. 페레즈본이 방으로 쏜살같이 날아 들어왔다.

"뛰어, 페레즈본, 서! 서!" 콜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고, 개는 뒷다리로 서서 일류샤의 침대 바로 앞에 몸을 쭉 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일류샤가 몸을 떨더니 갑자기 온몸을 힘껏 앞으로 내밀어 페레즈본 쪽으로 몸을 숙이고, 숨이 멎을 듯 개를 바라보았다.

"이건…… 주치카야!" 그가 갑자기 괴로움과 행복으로 갈라진 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럼 누군 줄 알았어?" 크라솟킨이 낭랑하고 행복한 목소리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더니, 개에게 몸을 숙여 껴안고 일류샤 쪽으로 들어 올렸다.

"봐, 영감, 보여? 눈 한쪽이 애꾸고 왼쪽 귀가 찢어졌잖아. 네가 나한테 말해 준 표시랑 꼭 같아. 나는 이 표시로 이 개를 찾아냈어! 그때 바로, 금방 찾아냈어. 이 개는 주인이 없었어, 이 개는 주인이 없었다고!" 그가 재빨리 2등 대위에게, 그 부인에게, 알료샤에게 돌아섰다가 다시 일류샤에게 돌아서며 설명했다. "이 개는 페도토프네 뒷마당에 있었어요. 거기 눌러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이 개는 떠돌이예요, 마을에서 도망쳐 온 떠돌이예요…… 내가 이 개를 찾아냈어요…… 봐, 영감, 그러니까 그때 이 개는 네가 준 조각을 삼키지 않은 거야. 삼켰다면 물론 죽었겠지, 물론이야! 지금 살아 있으니 뱉어 낼 틈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너는 개가 뱉어 낸 걸 알아채지 못한 거야. 뱉어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혀를 찔려서 그때 깨갱거린 거야. 달려가면서 깨갱거렸으니까 너는 개가 아주 삼켜 버린 줄 알았던 거야. 개는 무척 깨갱거렸을 거야. 개의 입 안 살갗은 무척 여리니까…… 사람보다 여려, 훨씬 여려!" 콜랴가 불타오르고 기쁨에 빛나는 얼굴로 미친 듯이 외쳤다.

그러나 일류샤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크고 어쩐지 무섭게 튀어나온 눈으로 입을 벌린 채 천처럼 하얗게 질려 콜랴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한 크라솟킨이 이런 순간이 앓는 소년의 건강에 얼마나 괴롭고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알기만 했더라면, 그가 부린 그런 재주를 결코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방 안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쩌면 알료샤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2등 대위로 말하자면, 그는 온통 가장 어린 꼬마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주치카! 그럼 이게 주치카라고?" 그가 더없이 행복한 목소리로 외쳤다. "일류셰치카, 이건 주치카야, 네 주치카야! 어머니, 이건 주치카예요!" 그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런데 나는 짐작도 못 했어!" 스무로프가 서글프게 외쳤다. "역시 크라솟킨이야. 주치카를 찾아낼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봐, 찾아냈어!"

"찾아냈어!" 또 누군가가 기쁘게 받았다.

"크라솟킨 장하다!" 세 번째 가는 목소리가 울렸다.

"장하다, 장하다!" 소년들이 모두 소리치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크라솟킨이 모두의 소리를 누르려고 애썼다.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줄게. 중요한 건 어떻게 된 거냐지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이 개를 찾아내서 우리 집에 끌고 가서 곧바로 숨겼고, 집에 자물쇠를 채우고 바로 마지막 날까지 아무에게도 보여 주지 않았어. 스무로프 하나만 2주 전에 알았는데, 이게 페레즈본이라고 믿게 했더니 짐작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그사이에 주치카에게 온갖 학문을 가르쳤어. 봐, 이 녀석이 무슨 재주를 아는지 보기만 해! 영감, 너한테 잘 길들이고 반들반들하게 해서 데려오려고 가르친 거야. 자, 영감, 네 주치카가 이제 어떤지 봐! 혹시 쇠고기 조각 좀 없어요? 이 녀석이 지금 웃다가 넘어갈 재주를 하나 보여 줄 거예요. 쇠고기 말이에요, 한 조각이요, 설마 없어요?"

2등 대위는 2등 대위네 음식도 끓이고 있는 주인네 농가로 현관방을 건너 다급하게 달려갔다. 그러나 콜랴는 귀한 시간을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페레즈본에게 소리쳤다. "죽어!" 그러자 개는 갑자기 빙글 돌더니 벌렁 드러누워 네 다리를 모두 위로 쳐든 채 꼼짝 않고 굳어 버렸다. 소년들은 웃었고, 일류샤는 예전의 그 괴로운 미소를 띠고 바라보았지만, 페레즈본이 죽은 것을 누구보다 좋아한 것은 "어머니"였다. 그 여자는 개를 보고 깔깔대며 손가락을 딱딱 튀기며 부르기 시작했다.

"페레즈본, 페레즈본!"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절대로." 콜랴가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당연히 자랑스러워하며 소리쳤다. "온 세상이 소리쳐도요. 하지만 내가 소리치면 순식간에 벌떡 일어날 거예요! 이리 와, 페레즈본!"

개는 벌떡 일어나 기뻐서 깨갱거리며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2등 대위가 삶은 쇠고기 한 조각을 들고 뛰어 들어왔다.

"뜨겁지 않아요?" 콜랴가 조각을 받으며 서둘러 사무적으로 캐물었다. "아니, 뜨겁지 않네요. 개들은 뜨거운 걸 싫어하거든요. 자, 모두 보세요. 일류셰치카, 봐, 봐, 봐, 영감, 왜 안 봐? 내가 데려왔는데 안 보잖아!"

새 재주는 이랬다. 꼼짝 않고 서서 코를 내민 개의 바로 코끝에 맛있는 쇠고기 조각을 올려놓는다. 불쌍한 개는 주인이 시키는 만큼, 30분이라도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몸을 떨지도 않고 코에 조각을 얹은 채 서 있어야 했다. 그러나 페레즈본은 아주 잠깐만 붙잡아 두었다.

"물어!" 콜랴가 소리쳤고, 조각은 순식간에 코에서 페레즈본의 입으로 날아 들어갔다. 구경꾼들은 물론 열광적인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럼 정말로, 정말로 개를 가르치려고 그동안 내내 오지 않은 거예요!" 알료샤가 저도 모르게 나무라며 외쳤다.

"바로 그래서예요." 콜랴가 더없이 순박하게 소리쳤다. "이 녀석을 온갖 광채 속에서 보여 주고 싶었어요!"

"페레즈본! 페레즈본!" 일류샤가 갑자기 가냘픈 손가락을 딱딱 튀기며 개를 불렀다.

"뭘 그래! 녀석이 저 스스로 네 침대로 뛰어오르게 해. 이리 와, 페레즈본!" 콜랴가 손바닥으로 침대를 두드리자 페레즈본은 화살처럼 일류샤에게 날아갔다. 일류샤는 다급하게 두 팔로 개의 머리를 끌어안았고, 페레즈본은 그 보답으로 순식간에 그의 뺨을 핥았다.

일류셰치카는 개에게 몸을 바싹 붙이고 침대에 몸을 쭉 뻗더니, 개의 텁수룩한 털 속에 얼굴을 묻어 모두에게서 감추었다.

"주님, 주님!" 2등 대위가 외쳤다.

콜랴는 다시 일류샤의 침대에 걸터앉았다.

"일류샤, 너한테 재주를 하나 더 보여 줄 수 있어. 대포를 가져왔어. 기억나? 그때 내가 이 대포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아, 나도 보고 싶다!' 했잖아. 자, 이제 가져왔어."

그러고 나서 콜랴는 서둘러 가방에서 청동 대포를 꺼냈다. 그가 서두른 것은 저 자신이 이미 무척 행복했기 때문인데, 다른 때 같으면 페레즈본이 낸 효과가 가라앉기를 기다렸겠지만, 지금은 온갖 참을성을 경멸하며 서둘렀다. "그러지 않아도 행복하잖아, 그러니 행복을 더 줄게!" 그 자신이 이미 몹시 도취해 있었다.

"이건 벌써 오래전에 관리 모로조프네서 봐 두었던 거야. 너를 위해서, 영감, 너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는 쓸데없이 놓여 있던 거고, 형한테서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아빠 책장에 있던 책 하나랑 바꿨어, 『마호메트의 친척, 또는 병을 고치는 바보짓』이라는 책이야. 백 년 된 책인데 막돼먹은 책이야. 아직 검열이 없을 때 모스크바에서 나왔어. 그런데 모로조프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더라……"

콜랴는 대포를 모두 앞에서 손에 들고 있었으므로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었다. 일류샤는 몸을 일으켜 오른팔로는 여전히 페레즈본을 끌어안은 채 감탄하며 장난감을 들여다보았다. 콜랴가 자기에게 화약도 있으니 "숙녀분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당장 쏠 수도 있다고 밝히자 효과는 절정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곧바로 장난감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해 달라고 청했고, 그 청은 곧바로 이루어졌다. 바퀴 달린 청동 대포가 그 여자의 마음에 무섭게 들었고, 그 여자는 그것을 무릎 위에서 굴리기 시작했다. 쏘아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청하자 그

여자는, 하기야 무엇을 묻는지 알아듣지도 못한 채, 더없이 흔쾌히 동의했다. 콜랴가 화약과 산탄을 보여 주었다. 2등 대위가 예전에 군인이었던 사람답게 몸소 장전을 맡아 화약을 아주 조금만 쏟아 넣었고, 산탄은 다음번으로 미루자고 청했다. 대포를 빈 곳에 포구를 겨누어 바닥에 놓고, 점화구에 화약 세 알을 밀어 넣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더없이 눈부신 한 방이 터졌다. 어머니는 몸을 움찔했지만 곧바로 기뻐서 웃었다. 소년들은 말없는 의기양양함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보다 더없이 행복해한 것은 일류샤를 바라보는 2등 대위였다. 콜랴는 대포를 집어 들어 곧바로 산탄과 화약까지 함께 일류샤에게 선물했다.

"이건 너 주려고, 너 주려고! 오래전부터 마련해 둔 거야." 그가 넘치는 행복 속에서 한 번 더 되풀이했다.

"아, 나한테 줘요! 아니, 대포는 차라리 나한테 줘요!" 어머니가 갑자기 꼬마처럼 조르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서글픈 불안이 떠올랐다. 콜랴는 당황했다. 2등 대위는 불안해서 안절부절못했다.

"여보, 어머니!" 그가 아내에게 뛰어갔다. "대포는 당신 거예요, 당신 거, 하지만 일류샤에게 선물한 거니까 일류샤가 갖고 있게 해요, 그래도 당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류셰치카가 늘 당신한테 가지고 놀게 해 줄 거예요, 둘이 같이, 같이 쓰는 걸로 해요……"

"아니, 같이 쓰는 건 싫어. 아니, 일류샤 거 말고 아주 내 거였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벌써 울 채비를 하며 이어 말했다.

"엄마, 가져, 자, 가져!" 일류샤가 갑자기 소리쳤다. "크라솟킨, 이걸 엄마한테 선물해도 돼?" 그는 갑자기 애원하는 얼굴로 크라솟킨에게 돌아섰다. 크라솟킨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그가 언짢아할까 봐 두려운 것 같았다.

"얼마든지 돼!" 크라솟킨이 곧바로 동의하더니 일류샤의 손에서 대포를 받아 몸소 더없이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는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일류셰치카, 귀여운 것, 제 엄마를 사랑하는 건 이 애야!" 그 여자는 감동해서 외치더니 곧바로 다시 무릎 위에서 대포를 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손에 입 맞추게 해 줘요." 남편이 아내에게 뛰어가더니 곧바로 그대로 했다.

"그리고 또 누가 가장 귀여운 젊은이냐 하면, 바로 이 착한 소년이야!" 고마워하는 부인이 크라솟킨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일류샤, 화약은 이제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다줄게. 우리는 이제 화약을 직접 만들어. 보로비코프가 성분을 알아냈어, 초석 스물네 몫, 황 열 몫, 자작나무 숯 여섯 몫을 한데 빻아서 물을 붓고 반죽처럼 섞은 다음 북 가죽에 대고 문질러 거르면 화약이 돼."

"스무로프가 벌써 너희 화약 이야기를 해 줬어. 그런데 아빠가 그건 진짜 화약이 아니래." 일류샤가 대답했다.

"어째서 진짜가 아니야?" 콜랴가 얼굴을 붉혔다. "우리 건 타는데. 하기야 나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지요." 2등 대위가 갑자기 죄지은 얼굴로 뛰어들었다. "사실 진짜 화약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했습지요. 하지만 괜찮습지요, 그렇게 해도 됩지요."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더 잘 아시겠지요. 우리는 돌로 된 포마드 단지에 넣고 불을 붙였는데, 훌륭하게 타서 다 타 버리고 아주 조금 그을음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반죽이고, 가죽에 문질러 거르면…… 하기야 아저씨가 더 잘 아시겠지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킨이 우리 화약 때문에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어. 들었어?" 그가 갑자기 일류샤에게 돌아섰다.

"들었어." 일류샤가 대답했다. 그는 끝없는 흥미와 즐거움으로 콜랴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우리가 화약을 한 병 가득 만들어 두었는데, 불킨이 그걸 침대 밑에 두었어. 아버지가 그걸 봤어. 터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매질을 했어. 나를 김나지움에 고자질하려고 했대. 이제 그 애는 나랑 못 다니게 해. 이제 아무도 나랑 못 다니게 해. 스무로프도 못 다니게 해. 나는 모두한테 이름이 났어. 다들 내가 '무모한 녀석'이래." 콜랴가 경멸하듯 빙그레 웃었다. "다 여기서 철도 일로 시작된 거야."

"아, 그 사건 이야기도 들었습지요!" 2등 대위가 외쳤다. "어떻게 거기 누워 계셨습지요? 기차 밑에 누워 있을 때 정말 조금도 겁이 나지 않으셨습지요? 무섭지 않으셨습지요?"

2등 대위는 콜랴 앞에서 무섭게 알랑거렸다.

"그-그리 무섭지는 않았어요!" 콜랴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내 평판을 가장 망쳐 놓은 건 그 빌어먹을 거위예요." 그가 다시 일류샤에게 돌아섰다. 그러나 이야기하며 무심한 척 얼굴을 꾸몄지만, 그는 여전히 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조를 놓치는 것 같았다.

"아, 거위 이야기도 들었어!" 일류샤가 온 얼굴을 빛내며 웃었다. "이야기해 줬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 정말 너 치안판사한테 재판받았어?"

"더없이 골빈, 더없이 하찮은 일인데, 우리 고장에서는 늘 그렇듯 그걸로 코끼리를 통째로 지어냈어." 콜랴가 거침없이 말을 꺼냈다. "한번은 내가 여기 광장을 지나가는데 마침 거위를 몰고 왔어. 나는 멈춰 서서 거위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 고장 젊은 녀석 하나, 비시냐코프라고, 지금은 플로트니코프네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는데, 그 녀석이 나를 보더니 '너 왜 거위를 쳐다보냐?' 하는 거야. 나는 그 녀석을 봐. 바보 같은 둥근 낯짝에 나이는 스무 살이야. 아시다시피 나는 결코

민중을 물리치지 않아요. 나는 민중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민중에게서 뒤처졌어요. 그건 공리예요. 웃으시는 것 같네요, 카라마조프?"

"아니요, 천만에요, 아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알료샤가 더없이 순박한 얼굴로 대답했고, 의심 많은 콜랴는 순식간에 기운을 되찾았다.

"내 이론은요, 카라마조프, 분명하고 단순해요." 그는 곧바로 다시 기쁘게 서둘렀다. "나는 민중을 믿고 언제든 기꺼이 공정하게 대하지만, 결코 응석을 받아 주지는 않아요. 그건 필수 조건(sine qua)…… 그래, 거위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지. 그래서 나는 그 바보에게 돌아서서 대답해. '거위가 무슨 생각을 하나 생각하고 있어.' 그 녀석이 아주 바보같이 나를 쳐다봐. '거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래. '자, 봐, 귀리 실은 짐마차가 서 있지. 자루에서 귀리가 쏟아지는데, 거위가 바로 바퀴 밑에 목을 들이밀고 낟알을 쪼고 있잖아. 보여?' 내가 그랬지. '그건 아주 잘 보이지.' 그 녀석이 그래. '그럼 이제 그 짐마차를 조금만 앞으로 움직이면 바퀴가 거위 목을 자를까, 안 자를까?' 내가 그랬지. '틀림없이 자르지.' 그러면서 그 녀석은 벌써 입이 귀에 걸리게 히죽거리며 온통 녹아내려. '그럼 가자, 이봐, 해 보자.' 내가 그랬지. '해 보자.' 그 녀석이 그래. 그리고 오래 꾸밀 것도 없었어. 그 녀석은 슬그머니 고삐 곁에 섰고, 나는 거위를 몰려고 옆에 섰어. 그런데 그때 농군이 한눈을 팔고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서, 나는 아예 몰 필요도 없었어, 거위가 저 혼자 귀리를 좇아 짐마차 밑으로, 바로 바퀴 밑으로 목을 쭉 뻗었어. 내가 그 녀석에게 눈짓을 했고, 그 녀석이 고삐를 당겼고, 그러자 우-지끈, 바퀴가 거위 목을 두 동강으로 타고 넘어갔어! 그런데 하필 바로 그 순간 농군들이 다 우리를 봤고, 한꺼번에 떠들어 대는 거야.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그랬어!' 그러고는 떠들어 대. '치안판사한테 가자!' 나까지 붙잡았어. '너도 여기 있었잖아,

네가 거들었잖아, 온 장터가 너를 알아!' 그런데 실제로 온 장터가 어쩐 일인지 나를 알거든요." 콜랴가 자존심 섞어 덧붙였다. "우리는 모두 치안판사한테 줄줄이 갔고, 거위도 들고 갔어. 보니까 내 녀석은 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어. 정말이야, 아낙처럼 울어. 그리고 가축 장수는 소리쳐. '이렇게 하면 거위를 얼마든지 깔아 죽일 수 있겠구먼!' 뭐, 물론 증인들도 있었지. 치안판사는 순식간에 끝냈어. 거위 값으로 가축 장수에게 1루블을 주고, 거위는 그 녀석이 가져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결코 그런 장난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녀석은 여전히 아낙처럼 울어. '내가 아니에요, 저 녀석이 나를 꼬드겼어요.'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나는 아주 냉정하게, 나는 결코 가르치지 않았고, 그저 기본 생각을 말했을 뿐이며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해. 치안판사 네페도프가 빙그레 웃더니, 웃은 데 대해 곧바로 저 자신에게 화를 내. '당장 당신 학교 윗사람들에게 알리겠소.' 나한테 그래. '책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대신 앞으로는 그런 계획에 뛰어들지 않도록 말이오.' 윗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어, 그건 농담이었지, 하지만 일은 정말로 퍼져서 윗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갔어, 우리 고장은 귀가 길거든! 특히 고전 선생 콜바스니코프가 들고일어났지만, 다르다넬로프가 또 감싸 줬어. 그런데 콜바스니코프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푸른 당나귀처럼 성이 나 있어. 일류샤, 너 들었어? 그 사람 장가갔어. 미하일로프네서 지참금으로 1천 루블을 받았는데, 신부가 일등급에 마지막 단계의 못난이야. 3학년들이 곧바로 풍자시를 지었어.

3학년들이 깜짝 놀란 소식,
칠칠이 콜바스니코프가 장가갔다네.

뭐, 그다음도 있는데 아주 우스워. 나중에 가져다줄게. 다르다넬로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할래. 학식 있는 사람이야,

확실한 학식이 있어. 그런 사람은 존경해. 나를 감싸 줘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니야……"

"그래도 너는 트로이를 누가 세웠느냐로 그 사람을 쩔쩔매게 했잖아!" 이 순간 크라솟킨이 그야말로 자랑스러워진 스무로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거위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무척 들었던 것이다.

"정말 그렇게 쩔쩔매게 하셨습지요?" 2등 대위가 아첨하며 받았다. "트로이를 누가 세웠느냐는 그 이야기 말씀입지요? 쩔쩔매게 하셨다는 건 벌써 들었습지요. 일류셰치카가 그때 바로 이야기해 줬습지요……"

"아빠, 그 애는 다 알아.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 잘 알아!" 일류셰치카도 받았다. "그 애는 그런 척할 뿐이지, 모든 과목에서 우리 반 1등이야……"

일류샤는 끝없는 행복으로 콜랴를 바라보았다.

"아, 트로이 이야기는 허튼소리야, 하찮은 거야. 나 스스로 그 물음은 쓸데없다고 여겨." 콜랴가 자랑스러운 겸손을 띠고 대답했다. 그는 이미 완전히 제 어조를 찾았지만, 하기야 얼마쯤 불안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가 몹시 흥분해 있다는 것을, 이를테면 거위 이야기를 너무 진심으로 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는 사이에 알료샤는 이야기하는 내내 말이 없고 진지했다. 그래서 자존심 강한 소년의 가슴은 조금씩 긁히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말이 없는 건 내가 칭찬을 바란다고 여기고 나를 경멸해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저 사람이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나는 그 물음을 그야말로 쓸데없다고 여겨." 그가 다시 한 번 자랑스럽게 잘라 말했다.

"나는 트로이를 누가 세웠는지 알아." 지금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소년 하나가 갑자기 전혀 뜻밖에 말했고, 말이 없고 눈에 띄게 수줍음을 타는, 무척 예쁘장하게 생긴 열한 살쯤 된 소년으로, 성은

카르타쇼프였다. 그는 문 바로 곁에 앉아 있었다. 콜랴는 놀라움과 위엄을 띠고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 "누가 정확히 트로이를 세웠느냐?"는 물음은 모든 반에서 그야말로 비밀이 되어 버렸고, 그 비밀을 알아내려면 스마라그도프의 책을 읽어야 했다. 그런데 스마라그도프의 책은 콜랴 말고는 아무에게도 없었다. 그런데 한번은 소년 카르타쇼프가 콜랴가 돌아서 있는 틈에 몰래 그의 책들 사이에 놓인 스마라그도프의 책을 얼른 펼쳤는데, 곧바로 트로이를 세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걸렸다. 그 일은 벌써 꽤 오래전이었지만, 그는 어쩐지 줄곧 부끄러워하며 자기도 트로이를 누가 세웠는지 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콜랴가 그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무안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쩐 일인지 참지 못하고 말해 버렸다.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고 싶었다.

"그래, 누가 세웠는데?" 콜랴가 거만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듯 그에게 돌아섰고, 이미 얼굴로 보아 그 아이가 정말로 안다는 것을 짐작하고 물론 곧바로 모든 결과에 대비한 채였다. 모두의 분위기에 이른바 불협화음이 일었다.

"트로이는 테우크로스, 다르다노스, 일로스, 트로스가 세웠어." 소년이 단숨에 또박또박 말하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어찌나 붉어졌는지 보기가 딱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소년들은 모두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꼬박 1분 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모든 눈이 한꺼번에 콜랴에게로 돌아갔다. 콜랴는 경멸스러운 냉정함으로 여전히 그 당돌한 소년을 눈길로 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웠다는 거야?" 마침내 그가 말해 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그리고 대체 도시나 국가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벽돌을 한 장씩 쌓기라도 했다는 거야?"

웃음이 터졌다. 잘못을 저지른 소년은 분홍빛에서 새빨개졌다. 그는 말이 없었고 울 듯했다. 콜랴는 1분쯤 더 그를 그렇게 붙잡아 두었다.

"민족의 기틀을 세우는 일 같은 역사적 사건을 논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해." 그가 가르치듯 엄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하기야 나는 그런 아낙네 옛이야기 따위에 무게를 두지 않아. 그리고 대체로 세계사를 그리 존중하지 않아." 그가 이번에는 모두에게 돌아서며 갑자기 무심하게 덧붙였다.

"세계사를 말씀입지요?" 2등 대위가 어쩐지 갑자기 겁을 먹고 캐물었다.

"네, 세계사요. 사람들의 어리석은 짓을 줄줄이 연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나는 수학과 자연 과학만 존중해요." 콜랴가 뽐내며 말하고는 알료샤를 흘끗 보았다. 그가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알료샤의 의견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알료샤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전과 다름없이 진지했다. 알료샤가 지금 무슨 말이라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알료샤는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은 경멸일 수도 있었으므로" 콜랴는 이제 완전히 짜증이 났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학교의 고전어 말이에요. 미친 짓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카라마조프?"

"동의하지 않아요." 알료샤가 삼가며 미소 지었다.

"고전어는요, 내 의견을 다 듣고 싶으시다면, 경찰 조치예요. 오로지 그 때문에 들여온 거예요." 콜랴가 다시 조금씩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고전어를 들여온 건 따분하기 때문이고, 능력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따분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따분하게 만들까? 분별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분별없게 만들까? 그래서 고전어를 생각해 낸 거예요. 이게 그것에 대한 내 의견 전부이고, 나는 결코 그 의견을

바꾸지 않기를 바라요." 콜랴가 날카롭게 맺었다. 그의 두 뺨에 붉은 홍조가 점처럼 하나씩 떠올랐다.

"맞아." 열심히 듣고 있던 스무로프가 갑자기 낭랑하고 확신에 찬 가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런데 자기는 라틴어 1등이면서!" 무리 속에서 소년 하나가 갑자기 소리쳤다.

"맞아, 아빠, 저 애는 저렇게 말하면서 우리 반 라틴어 1등이야." 일류샤도 받았다.

"그게 어때서?" 콜랴는 칭찬이 무척 기분 좋으면서도 자기를 변호할 필요를 느꼈다. "라틴어를 달달 외우는 건 그래야 하니까, 엄마한테 과정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에는 무엇을 맡았으면 잘해야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전주의와 그 모든 비열함을 깊이 경멸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카라마조프?"

"그런데 왜 '비열함'이에요?" 알료샤가 다시 빙그레 웃었다.

"무슨 말씀을, 고전은 모두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저들에게 라틴어가 필요했던 건 결코 고전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경찰 조치를 위해서, 능력을 둔하게 만들려고예요. 그러니 이게 비열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대체 누가 이걸 다 가르쳐 주었어요?" 마침내 놀란 알료샤가 외쳤다.

"첫째, 나는 배우지 않아도 나 혼자 이해할 수 있어요. 둘째, 알아두세요. 내가 방금 번역된 고전에 대해 말씀드린 바로 그 이야기는 콜바스니코프 선생 자신이 3학년 전체 앞에서 소리 내어 한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왔어!" 내내 말이 없던 니노치카가 갑자기 외쳤다.

정말로 집 대문 앞에 호흘라코바 부인의 마차가 와 닿았다. 아침 내내 의사를 기다리던 2등 대위는 그를 맞으러 허둥지둥 대문으로 달려

나갔다. 어머니는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위엄을 지었다. 알료샤는 일류샤에게 다가가 베개를 고쳐 주기 시작했다. 니노치카는 제 안락의자에서 알료샤가 침대를 정돈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소년들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몇은 저녁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콜랴가 페레즈본을 부르자 개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나 안 가, 안 가!" 콜랴가 허둥지둥 일류샤에게 말했다. "현관방에서 기다렸다가 의사가 가면 다시 올게. 페레즈본이랑 같이 올게."

그러나 의사가 벌써 들어오고 있었다. 곰 가죽 외투를 입고, 길고 검은 구레나룻에 반들반들하게 면도한 턱을 한 위엄 있는 풍채였다. 문턱을 넘어서자 그는 어리둥절한 듯 갑자기 멈춰 섰다. 아마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이게 뭐지? 내가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어깨에서 외투도 벗지 않고, 챙까지 물개 가죽으로 된 물개 가죽 모자도 머리에서 벗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사람들 무리, 방의 가난함, 구석에 줄을 매고 널어 놓은 빨래가 그를 갈피를 못 잡게 했다. 2등 대위가 그 앞에서 몸을 세 겹으로 접듯 굽실거렸다.

"여기입지요, 여기입지요." 그가 비굴하게 중얼거렸다. "여기입지요, 저희 집입지요, 저한테 오신 겁지요……"

"스네-기-료프?" 의사가 위엄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스네기료프 씨, 당신이오?"

"저입지요!"

"아!"

의사는 다시 한 번 역겨운 듯 방을 둘러보고 외투를 벗어 던졌다. 목에 건 위엄 있는 훈장이 모두의 눈에 번쩍 띄었다. 2등 대위가 날아오는 외투를 받아 들었고, 의사는 모자를 벗었다.

"그래, 환자는 어디 있소?" 그가 큰 소리로 다그치듯 물었다.

제6장 조숙

"의사가 일류샤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콜랴가 빠르게 말했다. "그런데 정말 역겨운 낯짝이지요, 안 그래요? 나는 의학이라면 질색이에요!"

"일류샤는 죽을 거예요. 그건 이제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알료샤가 서글프게 대답했다.

"사기꾼들! 의학은 사기꾼이에요! 그래도 당신을 알게 되어 기뻐요, 카라마조프.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싶었어요. 다만 이렇게 서글프게 만나서 아쉬울 뿐이에요……"

콜랴는 무언가를 더 뜨겁게, 더 거침없이 말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껄끄럽게 하는 것 같았다. 알료샤가 그것을 알아채고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콜랴가 갈피를 잃고 헷갈리며 다시 중얼거렸다. "당신이 신비주의자이고 수도원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신비주의자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멈추지는 않았어요. 현실과 맞닿으면 당신은 나을 거예요…… 당신 같은 천성은 달리 되는 법이 없어요."

"무엇을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알료샤가 조금 놀랐다.

"뭐, 신이니 그 밖의 것이니."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신에게 아무 반감도 없어요. 물론 신은 가설일 뿐이지만…… 그래도…… 신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요, 질서를 위해서요…… 세계 질서 같은 것을 위해서요…… 그리고 신이 없다면 만들어 내야 할 판이에요." 콜랴가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며 덧붙였다. 그는 갑자기 알료샤가 지금 자기가 제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보여 주려 한다고 생각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내 지식을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콜랴는 분개하며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무섭게 분해졌다.

"솔직히 나는 이런 말다툼에 뛰어드는 게 질색이에요." 그가 잘라 말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인류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테르도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인류를 사랑했잖아요?" ("또, 또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볼테르는 신을 믿었어요. 다만 조금밖에 믿지 않았던 것 같고, 인류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료샤가 마치 나이가 같은 사람이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듯 조용하게, 삼가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콜랴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볼테르에 대한 알료샤의 이런, 자기 의견을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였고, 마치 바로 자기, 꼬마 콜랴에게 이 물음의 판정을 맡기는 듯한 태도였다.

"그런데 당신은 볼테르를 읽었어요?" 알료샤가 맺었다.

"아니요, 읽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하기야 『캉디드』는 읽었어요. 러시아어 번역으로요…… 낡고 형편없는 번역, 우스운 번역이었어요…… (또, 또야!)"

"그럼 이해했어요?"

"오, 그럼요, 다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해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거기에는 음담이 많지요…… 그게 철학 소설이고 어떤 사상을 펼치려고 쓴 거라는 걸 나는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콜랴는

이제 완전히 헷갈렸다. "나는 사회주의자예요, 카라마조프. 나는 구제할 길 없는 사회주의자예요." 그가 갑자기 난데없이 말을 끊었다.

"사회주의자요?" 알료샤가 웃었다. "대체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당신은 아직 겨우 열세 살이잖아요?"

콜랴는 몸이 오그라들었다.

"첫째, 열세 살이 아니라 열네 살이에요. 2주 뒤면 열네 살이에요." 그가 확 달아올랐다. "그리고 둘째, 여기서 내 나이가 왜 나오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 신념이 어떠냐지 내가 몇 살이냐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나이를 더 먹으면 나이가 신념에 어떤 뜻을 지니는지 당신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자기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알료샤가 겸손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콜랴가 뜨겁게 그의 말을 끊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은 복종과 신비주의를 바라는군요. 이를테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하층 계급을 노예 상태에 묶어 두려고 부자와 귀족에게만 봉사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안 그래요?"

"아, 당신이 그걸 어디서 읽었는지 알아요. 틀림없이 누가 당신에게 가르쳐 줬어요!" 알료샤가 외쳤다.

"무슨 말씀을, 왜 꼭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도적인 인물이었고,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곧장 혁명가들에게 가담해서 어쩌면 두드러진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대체 어디서,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주워들었어요! 어떤 바보와 어울린 거예요?" 알료샤가 외쳤다.

"무슨 말씀을, 진실은 감출 수 없어요. 물론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라키틴 씨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건 벨린스키 영감도 말했다고들 해요."

"벨린스키가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분은 그런 걸 어디에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다면, 말했다고들 해요. 나는 그걸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하기야 제기랄……"

"그럼 벨린스키는 읽었어요?"

"그게요…… 아니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타티야나가 왜 오네긴과 함께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목은 읽었어요."

"오네긴과 함께 떠나지 않았다니요? 그럼 당신은 벌써 그걸…… 이해해요?"

"무슨 말씀을, 나를 꼬마 스무로프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네요." 콜랴가 짜증스럽게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하기야 제발 내가 그렇게까지 혁명가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는 라키틴 씨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무척 많아요. 내가 타티야나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성 해방을 지지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나는 여자가 종속된 존재이고 복종해야 한다고 인정해요.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여자들은 뜨개질을 한다(Les femmes tricottent)." 콜랴가 무엇 때문인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점에서는 그 가짜 위인의 신념에 나도 완전히 동의해요. 나는 또 이를테면 조국을 버리고 아메리카로 달아나는 건 비열한 짓, 비열한 짓보다 더 나쁜 짓, 곧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나라에서도 인류를 위해 쓸모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아메리카로 가요? 바로 지금이요. 결실 있는 활동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했다니요? 누구에게요? 그럼 벌써 누가 당신을 아메리카로 부르기라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부추긴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물리쳤어요. 이건 물론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카라마조프. 들으셨지요,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제3부의 손아귀에 떨어져서 체인 다리 옆에서 교훈을 얻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1]

체인 다리 옆
그 건물을 잊지 못하리!

기억나세요? 훌륭하지요! 왜 웃으세요? 설마 내가 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아버지 책장에 『종(鐘)』이 그 한 호밖에 없고, 그 밖에는 그런 걸 하나도 읽지 않았다는 걸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어쩌지?" 콜랴는 언뜻, 그러나 몸서리를 치며 생각했다.)

"아, 아니요, 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요. 이 모든 게, 아아, 정말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말해 보세요, 푸시킨은 읽었어요, 『 오네긴 』 말이에요…… 방금 타티야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읽고 싶어요. 나는 편견이 없어요, 카라마조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 보고 싶어요. 왜 물으셨어요?"

"그냥요."

"말해 주세요, 카라마조프, 나를 무섭게 경멸하세요?" 콜랴가 갑자기 잘라 묻더니 마치 자세라도 잡는 듯 알료샤 앞에서 온몸을 쭉 폈다. "부탁이니 에두르지 말고요."

"당신을 경멸하냐고요?" 알료샤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대체 무엇 때문에요? 다만 당신처럼 사랑스러운 천성이, 아직 살기 시작하지도 않은 천성이 벌써 이 모든 거친 허튼소리에 비틀려 있다는 게 서글플 뿐이에요."

"내 천성은 걱정하지 마세요." 콜랴가 얼마쯤 우쭐해서 말을 끊었다. "하지만 내가 의심이 많다는 건 맞아요. 어리석게 의심이 많고, 거칠게 의심이 많아요. 방금 당신이 빙그레 웃었을 때, 나는 당신이 마치……"

"아, 나는 전혀 다른 일 때문에 웃었어요. 보세요,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말해 줄게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 살았던 어느 외국 독일인이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에 대해 쓴 평을 하나 읽었어요. '러시아 학생에게 별자리 지도를 보여 주어라.' 그 사람은 이렇게 써요. '그때까지 그런 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지도를, 그러면 그 학생은 당장 이튿날 그 지도를 고쳐서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다.'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끝없는 자만심. 그 독일인이 러시아 학생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 그건 정말 꼭 맞는 말이에요!" 콜랴가 갑자기 깔깔대고 웃었다. "맞아, 맞아시모, 딱 그대로예요! 브라보, 독일인! 그런데 그 촌뜨기는 좋은 면은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만심, 그건 그렇다쳐요, 그건 젊어서 그런 거고, 고쳐야 한다면 고쳐질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 거의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정신이 있고, 그 대신 생각과 신념의 대담함이 있어요. 권위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소시지 장수 같은 비굴함은 없고요…… 그래도 그 독일인은 말을 잘했어요! 브라보, 독일인! 그래도 독일인들은 목을 졸라 버려야 하지만요. 학문에 강하다고 해도, 그래도 목을 졸라 버려야 해요……"

"왜 목을 졸라야 해요?" 알료샤가 미소 지었다.

"뭐, 내가 허튼소리를 했는지도 몰라요, 인정해요. 나는 가끔 무서운 어린애라, 무언가에 기쁘면 참지 못하고 허튼소리를 지껄일 태세가 돼요. 들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찮은 것을 떠들고 있는데, 저 의사는 저기서 왜 이렇게 오래 붙들려 있지요. 하기야 거기서 '엄마'도 진찰하고 그 다리 불편한 니노치카도 진찰하는지 모르지요. 있잖아요, 그 니노치카가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나올 때 갑자기 나한테 속삭였어요.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나무라는 그런 목소리로! 그 사람은 무섭게 착하고 가엾은 사람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당신이 드나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알게 되는 건 당신에게 무척 이로워요, 그런 존재들과 사귀어야만 알게 되는 그 밖의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니까요." 알료샤가 뜨겁게 말했다. "그게 무엇보다 당신을 바꿔 놓을 거예요."

"오, 더 일찍 오지 않은 게 얼마나 후회스럽고 나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콜랴가 쓰라린 마음으로 외쳤다.

"그래요, 무척 안타까워요. 당신이 그 불쌍한 아이에게 얼마나 기쁜 인상을 주었는지 당신 스스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당신을 기다리며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그런 말 마세요! 내 속을 긁는군요. 하기야 나는 그래도 싸요, 나는 자존심 때문에, 이기적인 자존심과 비열한 제멋대로 구는 버릇 때문에 오지 않았고, 평생 나 자신을 꺾으면서도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그걸 알겠어요. 나는 여러 면에서 비열한 놈이에요, 카라마조프."

"아니요, 당신은 비틀리기는 했어도 사랑스러운 천성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왜 그 고결하고 병적으로 예민한 소년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겠어요!" 알료샤가 뜨겁게 대답했다.

"그걸 당신이 나한테 말해 주다니요!" 콜랴가 외쳤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와서도 몇 번이나 당신이 나를 경멸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 의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 나이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방에서 당신이 이야기할 때 당신을 보며 나는 바로 당신이 무척 의심이 많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눈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세요, 보세요! 장담하지만 그건 내가 거위 이야기를 하던 그 대목이었을 거예요. 나는 바로 그 대목에서 당신이 내가 서둘러 잘난 척하려 한다고 나를 깊이 경멸한다고 상상했고, 그래서 갑자기 당신이 미워지기까지 해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는(이건 방금, 여기서였어요) '신이 없다면 만들어 내야 할 판이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내가 내 교양을 너무 서둘러 내세우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게다가 그 문장은 책에서 읽은 거라 더 그랬어요. 하지만 맹세하지만, 내가 서둘러 내세운 건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왜인지 모르겠지만 기뻐서였고, 정말이지 기뻐서인 것 같아요…… 사람이 기뻐서 모두의 목에 매달리는 건 깊이 부끄러운 버릇이지만요.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 대신 이제는 당신이 나를 경멸하지 않으며 이 모든 걸 나 혼자 지어냈다고 확신해요. 오, 카라마조프, 나는 깊이 불행해요. 나는 가끔 별별 것을 상상해요. 모두가 나를 비웃는다고, 온 세상이 비웃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때, 나는 그야말로 그때 사물의 질서를 통째로 없애 버릴 태세가 돼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요." 알료샤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특히 어머니를요. 카라마조프, 말해 주세요, 지금 내가 무척 우스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알료샤가 외쳤다. "그리고 우습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우스울 때나 우스워 보일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우스워질까 봐 무섭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행해요. 다만 당신이 그토록 일찍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하기야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눈여겨보고 있는데, 당신 한 사람에게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아이들까지 그걸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거의 미친 짓이에요. 이 자존심 속에 악마가 몸을 입고 들어와 온 세대에 기어들었어요. 바로 악마예요." 알료샤가 덧붙였는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콜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금도 빙그레 웃지 않았다. "당신도 모두와 같아요." 알료샤가 맺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과 같아요. 다만 모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그런데도요?"

"그래요, 모두가 그런데도요. 당신 하나만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모두와 같지 않아요. 당신은 방금 나쁜 것을, 우스운 것까지 털어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누가 그런 걸 털어놓아요? 아무도요. 사람들은 자기를 탓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모두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설령 당신 하나만 그런 사람으로 남더라도, 그래도 모두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훌륭해요! 내가 당신을 잘못 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위로할 줄 알아요. 오,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가고 싶었는지, 카라마조프, 얼마나 오래전부터 당신과 만날 기회를 찾았는지! 당신도 정말 나를 생각했어요? 아까 당신도 나를 생각했다고 하셨지요?"

"네, 당신 이야기를 들었고, 당신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물은 게 얼마쯤 자존심 때문이라 해도 괜찮아요."

"있잖아요, 카라마조프,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랑 고백 같아요." 콜랴가 어쩐지 맥이 풀리고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습지 않아요, 우습지 않아요?"

"전혀 우습지 않아요. 설령 우습다 해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니까요." 알료샤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카라마조프, 인정하세요. 당신도 지금 나와 있으면서 조금 부끄럽지요…… 눈을 보면 알아요." 콜랴가 어쩐지 짓궂게, 그러면서도 어쩐지 거의 행복하게 빙그레 웃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얼굴을 붉히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얼굴을 붉힌 거예요!" 알료샤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정말로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그래요, 조금 부끄러워요. 왜인지는 하느님이나 아시지, 나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거의 당황해서까지 중얼거렸다.

"오, 이 순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바로 당신도 나와 있으면서 무언가 부끄러워한다는 그것 때문에요! 당신도 꼭 나 같으니까요!" 콜랴가 그야말로 열광하여 외쳤다. 그의 뺨이 불타올랐고, 눈이 반짝였다.

"들어 봐요, 콜랴. 그런데 당신은 살면서 무척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알료샤가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말했다.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그걸 다 미리 아세요!" 콜랴가 곧바로 확인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삶을 축복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만세! 당신은 예언자예요! 오, 우리는 가까워질 거예요, 카라마조프. 있잖아요, 무엇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당신이 나를 완전히 대등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등하지 않아요. 아니요, 대등하지 않아요. 당신이 더 높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까워질 거예요. 있잖아요, 나는 지난 한 달 내내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과 단번에 영원한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첫 만남에서 무덤까지 원수로 갈라서든지!'"

"그렇게 말하면서 물론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었군요!" 알료샤가 즐겁게 웃었다.

"사랑했어요, 무섭게 사랑했어요, 사랑하며 당신을 꿈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미리 아세요? 아, 의사가 나오는군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보세요, 저 얼굴 좀 보세요!"

---

1. 제3부는 정치 사범을 다루던 황제 직속 비밀경찰(황제 직할 관방 제3부)이고, 그 청사가 페테르부르크의 체인 다리 곁에 있었다. 두 줄은 이를 비꼰 풍자시 구절이다. 『종(鐘)』(콜로콜)은 게르첸이 런던에서 펴내 러시아로 몰래 들여오던 금서 신문이다.

제7장 일류샤

의사는 다시 털외투로 몸을 감싸고 머리에 챙 달린 모자를 쓴 채 오두막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거의 성나 있었고 역겨워하는 기색이었다. 마치 줄곧 어디에 몸이 더러워질까 봐 겁내는 것 같았다. 그는 현관을 힐끗 둘러보더니 알료샤와 콜랴를 엄하게 쳐다보았다. 알료샤가 문간에서 마부에게 손짓하자, 의사를 태우고 온 마차가 출입문 앞으로 다가왔다. 2등 대위가 의사를 뒤따라 허둥지둥 뛰어나와, 허리를 굽히고 몸을 비비 꼬다시피 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하려고 그를 붙잡았다. 가엾은 사내의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다.

"각하, 각하…… 정말로?……" 그는 말을 꺼냈다가 끝맺지 못하고 절망하여 두 손을 맞부딪치기만 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애원을 담아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의사가 하는 한마디로 가엾은 소년에게 내려진 판결이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듯이.

"어쩌겠소! 나는 신이 아니오." 의사가 무심하면서도 버릇처럼 위엄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각하…… 그럼 곧입니까, 곧?"

"모든 것에 대-비-하-시-오." 의사가 음절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끊어 말하고는 눈길을 떨군 채 문턱을 넘어 마차로 걸음을 내디디려 했다.

"각하, 그리스도를 봐서라도!" 2등 대위가 겁에 질려 다시 한 번 그를 붙잡았다. "각하!…… 그럼 정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전혀 구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내게 달-린 일이 아니오." 의사가 참을성 없이 말했다. "그렇지만, 흠." 그가 갑자기 멈칫했다. "만일 당신이 이를테면…… 당신 환자를…… 지금 당장,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의사는 '지금 당장,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라는 말을 엄하게라기보다 거의 성난 듯이 내뱉어서 2등 대위가 몸을 움찔하기까지 했다) 시-라-쿠-사로 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새로운 이-로-운 기-후 조건 덕분에…… 어쩌면,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오……"

"시라쿠사로요!" 2등 대위가 아직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듯 소리쳤다.

"시라쿠사는 시칠리아에 있어요." 콜랴가 설명하느라 갑자기 큰 소리로 딱 잘라 말했다. 의사가 그를 쳐다보았다.

"시칠리아로요! 나리, 각하." 2등 대위는 어쩔 줄을 몰랐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두 팔로 주위를 한 바퀴 휘저으며 자기 살림을 가리켰다. "그럼 어머니는요, 식구들은요?"

"아-니, 식구들은 시칠리아가 아니라, 당신 식구들은 캅카스로, 이른 봄에…… 따님은 캅카스로, 그리고 부인은…… 류머티즘이 있으니 역시 캅-카-스에서 온천 요법을 마치게 한 다음…… 곧바로 파리로, 정-신-과 의사 르-펠-레티에 박사의 요양원으로 보-내시오. 내가 그 사람 앞으로 소개장을 써 줄 수도 있소. 그러면…… 어쩌면,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보시잖습니까!" 2등 대위가 갑자기 다시 두 팔을 휘저으며 절망하여 현관방의 맨 통나무 벽을 가리켰다.

"아,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오." 의사가 빙긋 웃었다. "나는 마지막 수단을 묻는 당신 물음에 과-학이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유감스럽게도……"

"걱정 마세요, 의원 양반, 내 개는 안 물어요." 콜랴가 문턱에 버티고 선 페레즈본에게 던지는 의사의 조금 불안한 눈길을 알아채고 큰 소리로 딱 잘라 말했다. 콜랴의 목소리에 성난 가락이 울렸다. '의사' 대신 '의원'이라는 말을 그는 *일부러* 썼고, 나중에 스스로 밝힌 대로 "모욕하려고 썼다".

"뭐-라-고?" 의사가 고개를 쳐들고 놀라서 콜랴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건 어-떤 녀석이오?" 그는 갑자기 알료샤에게 돌아섰다. 마치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페레즈본의 주인이에요, 의원 양반. 내 신상은 걱정 마세요." 콜랴가 다시 또박또박 끊어 말했다.

"즈본?" 의사가 페레즈본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되뇌었다.

"어디서 울리는지는 모르시는군요.[1] 안녕히 가세요, 의원 양반, 시라쿠사에서 만나요."

"이-건 누구요? 누구, 누구요?" 의사가 갑자기 무섭게 펄펄 끓어올랐다.

"이 고장 학생이에요, 의사 선생님. 장난꾸러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료샤가 얼굴을 찌푸리며 빠르게 말했다. "콜랴, 조용히 해요!" 그가 크라솟킨에게 소리쳤다.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의사 선생님." 그가 이번에는 조금 더 참을성 없이 되풀이했다.

"매-질을, 매-질을 해야 해, 매-질을!" 웬일인지 너무 지나치게 길길이 날뛰게 된 의사가 발을 구르려 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의원 양반, 우리 페레즈본은 어쩌면 물지도 몰라요!" 콜랴가 얼굴이 하얘지고 눈을 번득이며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리 와, 페레즈본!"

"콜랴, 한마디만 더 하면 나는 당신과 영원히 절교하겠어요!" 알료샤가 위엄 있게 소리쳤다.

"의원 양반, 온 세상에 니콜라이 크라솟킨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뿐인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콜랴가 알료샤를 가리켰다. "이 사람에게는 복종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는 자리를 박차고 문을 열어젖히고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페레즈본이 그 뒤를 쫓아 뛰어들었다. 의사는 넋이 나간 듯 알료샤를 바라보며 5초쯤 더 서 있다가, 갑자기 침을 탁 뱉고는 큰 소리로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뭔지 나는 모르겠군!" 하고 되뇌며 빠르게 마차 쪽으로 걸어갔다. 2등 대위가 그를 마차에 태워 주려고 달려갔다. 알료샤는 콜랴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콜랴는 벌써 일류샤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일류샤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아빠를 부르고 있었다. 1분 뒤 2등 대위도 돌아왔다.

"아빠, 아빠, 이리 와…… 우리……" 일류샤가 몹시 흥분하여 더듬더듬 말을 꺼냈지만, 더는 이어 갈 힘이 없는 듯 갑자기 바싹 여윈 두 팔을 앞으로 내던지더니 콜랴와 아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있는 힘을 다해 꽉 끌어안아 하나의 포옹으로 묶고 자기도 그들에게 몸을 바싹 붙였다. 2등 대위는 갑자기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온몸을 떨었고, 콜랴는 입술과 턱이 떨렸다.

"아빠, 아빠! 아빠가 너무 불쌍해, 아빠!" 일류샤가 쓰라리게 신음했다.

"일류셰치카…… 귀여운 것……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너는 나을 거야…… 우린 행복할 거야…… 의사 선생님이……" 2등 대위가 말을 꺼내려 했다.

"아, 아빠! 새 의사 선생님이 나에 대해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나 알아…… 나 봤어!" 일류샤가 외치고는 다시 두 사람을 온 힘을 다해 꽉

끌어안고 아빠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울지 마…… 그리고 내가 죽으면 착한 아이를, 다른 애를 데려와…… 아빠가 저 애들 모두 가운데서 골라, 착한 애로, 그 애를 일류샤라고 부르고 나 대신 사랑해 줘……"

"입 다물어, 영감, 너 나을 거야!" 크라솟킨이 성이라도 난 것처럼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아빠, 나는 절대 잊지 마." 일류샤가 말을 이었다. "내 무덤에 와 줘…… 그리고 있잖아, 아빠, 나를 우리 커다란 돌 곁에 묻어 줘, 아빠랑 같이 산책하러 가던 그 돌 곁에, 그리고 크라솟킨이랑 같이 거기 나한테 와 줘, 저녁에…… 페레즈본도…… 나는 기다릴게…… 아빠, 아빠!"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셋은 서로 끌어안은 채 서서 이제는 말이 없었다. 안락의자에 앉은 니노치카도 조용히 울었고, 모두가 우는 것을 보자 갑자기 엄마도 눈물을 쏟았다.

"일류셰치카! 일류셰치카!" 그 여자가 외쳤다.

크라솟킨이 갑자기 일류샤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잘 있어, 영감, 엄마가 점심 먹으라고 나를 기다리셔." 그가 빠르게 말했다. "미리 알려 드리지 않은 게 정말 아쉽네! 무척 걱정하실 거야…… 하지만 점심 먹고 곧바로 너한테 올게,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 줄지, 얼마나 많이 해 줄지! 페레즈본도 데려올게. 지금은 데려가야 해, 나 없으면 울부짖기 시작해서 너를 방해할 테니까. 또 보자!"

그리고 그는 현관방으로 뛰어나갔다. 울음을 터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현관방에서 그는 끝내 울고 말았다. 그런 그를 알료샤가 발견했다.

"콜랴, 꼭 약속을 지켜서 와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저 애가 무섭게 슬퍼할 거예요." 알료샤가 끈질기게 말했다.

"꼭이요! 아, 더 일찍 오지 않은 나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콜랴가 울면서, 이제는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2등 대위가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오다시피 하더니 곧바로 등 뒤로 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은 미친 사람 같았고 입술이 떨렸다. 그는 두 젊은이 앞에 서서 두 팔을 위로 번쩍 쳐들었다.

"착한 아이는 싫어! 다른 아이는 싫어!" 그가 이를 갈며 사나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혀가 붙을……"

그는 숨이 막힌 듯 끝맺지 못하고 나무 긴 의자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두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어딘지 터무니없이 끽끽 새된 소리를 내면서도 오두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텼다. 콜랴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잘 있어요, 카라마조프! 당신도 올 거죠?" 그가 날카롭고 화난 목소리로 알료샤에게 소리쳤다.

"저녁에 꼭 갈게요."

"저 사람이 예루살렘 어쩌고 한 건 뭐예요…… 그건 또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그러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잊는다면, 그것을 무엇과 바꾼다면, 그때는 내리치시기를……"

"알겠어요, 됐어요! 당신도 꼭 와요! 이리 와, 페레즈본!" 그는 이제 아주 사납게 개에게 소리치고는 크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

1. 러시아 속담 「종소리(즈본)는 들었는데 어디서 울리는지는 모른다」(어설프게 주워듣고 아는 체한다는 뜻)의 뒷부분이다. 개 이름 페레즈본은 '종을 잇달아 울리는 소리'라는 뜻이다.

제11권 형 이반 표도로비치

제1장 그루셴카의 집에서

알료샤는 대성당 광장 쪽으로, 상인의 아내 모로조바의 집으로, 그루셴카에게 갔다. 그루셴카는 아침 일찍 페냐를 보내 꼭 들러 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페냐에게 물어보고 알료샤는 마님이 어제부터 무언가 크고 각별한 근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탸가 체포된 뒤 이 두 달 내내 알료샤는 자기 마음에 내켜서도, 미탸의 심부름으로도 모로조바의 집에 자주 들렀다. 미탸가 체포되고 사흘쯤 지나 그루셴카는 심하게 앓아누웠고 다섯 주 가까이 앓았다. 그 다섯 주 가운데 한 주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그 여자는 얼굴이 몹시 달라졌고 여위고 누렇게 떴는데, 하기야 벌써 두 주 가까이 바깥에 나다닐 수는 있었다. 그러나 알료샤가 보기에 그 여자의 얼굴은 오히려 더 매력 있어진 것 같았고, 그는 그 여자의 집에 들어서며 그 여자의 눈길과 마주치기를 좋아했다. 그 여자의 눈길에 무언가 단단하고 생각 깊은 것이 굳어진 듯했다. 어떤 영혼의 전환이 드러났고, 무언가 변함없고 겸손하지만 선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의가 나타났다. 이마의 두 눈썹 사이에 작은 세로 주름이 하나 생겨, 그 사랑스러운 얼굴에 제 안으로 모아들인 생각에 잠긴 기색을, 얼핏 보기에는 거의 엄하다 싶은 기색까지 띠게 했다. 이를테면 예전의 경박함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알료샤에게 이상했던 것은 또 이것이었다. 가엾은 여자에게 닥친 온갖 불행에도, 그러니까 끔찍한 범죄로 체포된 신랑의 약혼녀가, 그것도 바로 그의 약혼녀가 된 거의 그 순간에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 뒤의 병에도, 앞에

닥쳐올 거의 피할 수 없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루셴카는 그래도 예전의 젊은 쾌활함을 잃지 않았다. 예전에는 오만하던 그 여자의 눈에 이제 무언가 고요함이 빛났다. 하기야…… 하기야 그 눈은 이따금 다시 어떤 불길한 불꽃으로 타오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진 예전의 한 가지 근심이 찾아올 때였다. 그 근심의 대상은 여전히 같았다. 그루셴카가 아파 누워 있을 때 헛소리 속에서까지 입에 올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였다. 알료샤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는데도 갇혀 있는 미탸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건만, 그루셴카가 미탸를, 갇힌 미탸를 두고 그 여자를 무섭게 질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알료샤에게는 어떤 어려운 숙제가 되었는데, 그루셴카는 오직 그에게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쉬지 않고 그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는 이따금 그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었다.

그는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여자의 집에 들어섰다. 그 여자는 벌써 집에 있었는데, 미탸에게서 돌아온 지 30분쯤 되었는데, 그 여자가 탁자 앞 안락의자에서 그를 맞으러 벌떡 일어나는 그 날랜 몸짓만 보고도 그는 그 여자가 몹시 애타게 자기를 기다렸다고 판단했다. 탁자 위에는 카드가 놓여 있었고 바보 놀이 한 판이 돌려져 있었다. 탁자 맞은편 가죽 소파에는 잠자리가 펴져 있었고, 거기에 실내복을 입고 무명 잠모를 쓴 막시모프가 반쯤 누워 있었는데, 보기에도 병들고 기운이 빠졌지만 달콤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집 없는 노인은 두 달쯤 전 그때 그루셴카와 함께 모크로예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대로 그 여자의 집에, 그 여자 곁에 줄곧 떨어지지 않고 머물렀다. 그때 비와 진창 속에 그 여자와 함께 도착한 그는 흠뻑 젖고 겁에 질린 채 소파에 앉아 수줍게 애원하는 미소를 띠고 말없이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무서운 슬픔에 빠져 있었고 이미 열이 오르기 시작한 데다 도착한 뒤 처음 30분 동안은

이런저런 일에 쫓겨 그를 거의 잊고 있던 그루셴카가 갑자기 어쩐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는 그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가엾고 넋 나간 듯 킥킥 웃었다. 그 여자는 페냐를 불러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일렀다. 그날 하루 내내 그는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져 덧문을 닫자 페냐가 마님에게 물었다.

"저기요, 마님, 저분이 정말 여기서 주무시나요?"

"그래, 소파에 잠자리를 펴 드려." 그루셴카가 대답했다.

그를 더 자세히 캐물어 보고 그루셴카는 그가 정말 바로 지금 갈 곳이 아예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은인이신 칼가노프 씨가 이제 다시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시고는 5루블을 주셨습니다요"라는 것을 그에게서 알게 되었다. "그럼 할 수 없지, 그냥 있어요." 그루셴카가 시름에 잠겨 그렇게 정하고 그에게 가엾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그 미소에 몸을 움찔했고 고마움의 울음으로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그때부터 떠돌이 식객은 그 여자의 집에 눌러앉았다. 그 여자가 앓는 동안에도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페냐와 그루셴카의 요리사인 그 어머니는 그를 쫓아내지 않고 계속 먹여 주고 소파에 잠자리를 펴 주었다. 나중에는 그루셴카도 그에게 익숙해지기까지 했고, 미탸에게서 돌아오면(그 여자는 조금 몸을 추스르자마자 제대로 낫지도 않은 채 곧바로 미탸에게 다니기 시작했다) 시름을 달래려고 앉아서, 그저 제 슬픔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막시무시카"와 이런저런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노인은 이따금 이야깃거리를 제법 풀어놓을 줄도 알아서, 마침내 그 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까지 했다. 알료샤 말고는, 하기야 그도 날마다 들르지는 않았고 늘 잠깐씩만 들렀지만, 그루셴카는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 여자의 노인, 그러니까 그 상인은 이 무렵 벌써 무섭게 앓아누워 있었는데, 읍내에서 말하던 대로 "숨을 거두어 가는 중"이었고, 실제로 미탸의 재판이 있고

겨우 한 주 뒤에 죽었다. 죽기 세 주 전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그는 마침내 아들들을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위층 제 곁으로 불러들여 이제 더는 제 곁을 떠나지 말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루셴카는 아예 들이지 말라고, 오거든 "오래오래 즐겁게 사시고 저분은 아주 잊어버리시라는 분부십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인들에게 엄하게 일렀다. 그래도 그루셴카는 거의 날마다 사람을 보내 그의 안부를 알아보게 했다.

"드디어 왔네!" 그 여자가 카드를 내던지고 알료샤와 반갑게 인사하며 소리쳤다. "막시무시카가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른다고 하도 겁을 줘서. 아, 네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탁자에 앉아. 자, 뭘 줄까, 커피?"

"그래, 좋아." 알료샤가 탁자에 다가앉으며 말했다. "무척 배가 고파."

"그렇지. 페냐, 페냐, 커피!" 그루셴카가 소리쳤다. "벌써 오래전부터 끓고 있어, 너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피로시키도 가져와, 뜨거운 걸로. 아니, 잠깐, 알료샤, 오늘 이 피로시키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그걸 감옥으로 그 사람한테 가져갔는데, 글쎄 믿어져, 그걸 나한테 도로 내던지고 결국 안 먹었어. 하나는 아예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간수한테 맡겨 둘게, 저녁까지 안 먹으면 그건 독살스러운 앙심이 당신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야!' 그러고는 나와 버렸어. 또 싸웠다니까, 믿어 줘. 갈 때마다 싸워."

그루셴카는 흥분해서 이 모든 말을 단숨에 쏟아 냈다. 막시모프는 곧바로 겁을 먹고 작은 눈을 내리깐 채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데?" 알료샤가 물었다.

"그러게 말이야, 전혀 생각도 못 했어! 생각해 봐, '예전의 그 사람'을 두고 질투를 했어.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먹여 살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시작했다는 거지?' 줄곧 질투해, 줄곧 나를 질투해! 자면서도 먹으면서도 질투해. 지난주에는 한 번 쿠지마까지 질투했어."

"그런데 '예전의 그 사람' 이야기는 형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맨 처음부터 바로 오늘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 무슨 말을 했는지 입에 올리기도 창피해. 바보야! 내가 나오자 라키트카가 그 사람한테 왔어. 어쩌면 라키트카가 그 사람을 부추기는지도 몰라, 응? 네 생각은 어때?" 그 여자가 건성으로 덧붙이는 듯 말했다.

"형은 너를 사랑해, 바로 그거야, 무척 사랑해. 그리고 지금은 마침 신경이 곤두서 있고."

"곤두서지 않고 배기겠어, 내일 재판인데. 나도 내일 일에 대해 내 말을 해 주려고 간 거였어. 왜냐하면 알료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나는 무서워! 너는 그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지만, 나야말로 얼마나 곤두서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폴란드 사람 이야기나 하고! 바보 같으니! 막시무시카는 질투하지 않을 거야, 아마."

"제 아내도 저를 무척 질투했습니다요." 막시모프가 제 한마디를 끼워 넣었다.

"아이고, 당신을." 그루셴카가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를 두고 당신을 질투해?"

"하녀 아가씨들을 두고요."

"에이, 그만해, 막시무시카, 지금 나는 웃을 기분이 아니야, 화가 다 나. 피로시키에 눈독 들이지 마, 안 줄 거야, 당신 몸에 해로워. 약술도 안 줄 거야. 이 사람도 돌봐 줘야 하고. 정말이지 우리 집이 무슨 양로원 같아." 그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마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요, 저는 하찮은 놈입니다요." 막시모프가 눈물 어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의 은혜는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게 낫겠습니다요."

"에이, 누구나 필요한 거야, 막시무시카. 누가 누구보다 더 필요한지 무엇으로 알겠어. 그 폴란드 사람만 아예 없었더라도 좋았을 텐데, 알료샤, 그 사람도 오늘 앓아눕겠다고 나섰지 뭐야. 그 사람한테도 갔었어.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 사람한테 피로시키를 보낼 거야, 나는 보내지 않았는데 미탸가 보낸다고 나를 탓했으니까, 이제 일부러라도 보낼 거야, 일부러! 아, 페냐가 편지를 들고 오네! 그럼 그렇지, 또 폴란드 사람들한테서야, 또 돈을 달래!"

판 무샬로비치는 정말로 늘 그렇듯이 무척 길고 꾸밈 많은 편지를 보내 3루블을 꾸어 달라고 청했다. 편지에는 석 달 안에 갚겠다는 약정을 단 수령증이 붙어 있었고, 수령증 밑에는 판 브루블렙스키도 서명했다. 그루셴카는 이런 편지를, 그것도 모두 이런 수령증이 붙은 편지를 자기의 "예전의 그 사람"에게서 벌써 많이 받았다. 그 일은 그루셴카가 나은 바로 그때부터, 두 주쯤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두 판이 자기가 앓는 동안에도 안부를 알아보러 들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루셴카가 받은 첫 편지는 큰 판형 편지지에 쓴 긴 편지로, 집안의 커다란 인장으로 봉해져 있었고 무섭게 알쏭달쏭하고 꾸밈이 많아서, 그루셴카는 절반만 읽고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채 내던졌다. 그때는 편지 따위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 그 첫 편지에 이어 이튿날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판 무샬로비치는 거기서 아주 짧은 기한으로 2천 루블을 꾸어 달라고 청했다. 그루셴카는 이 편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다음에는 날마다 한 통씩 편지가 줄줄이 이어졌는데, 모두 여전히 거드름 피우고 꾸밈이 많았지만 꾸어 달라는 액수는 차츰 내려가서 100루블, 25루블, 10루블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갑자기 그루셴카는 두 판이 겨우 1루블만 달라고 청하며 둘이 함께 서명한 수령증을 붙인 편지를 받았다. 그러자 그루셴카는 갑자기 가엾은 생각이 들어 해 질 녘에 몸소 판에게 달려갔다. 그 여자는 두 폴란드 사람이 무서운 가난

속에, 거의 거지꼴로, 먹을 것도 땔나무도 궐련도 없이 집주인 여자에게 빚을 진 채 지내는 것을 보았다. 모크로예에서 미탸에게 딴 200루블은 어디론가 금세 사라져 버렸다. 그렇지만 두 판이 모두 거만한 위엄과 남에게 기대지 않는 의젓함을 차리며, 더없이 깍듯한 예법과 부풀린 말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루셴카는 놀랐다. 그루셴카는 그저 웃음을 터뜨리고 자기의 "예전의 그 사람"에게 10루블을 주었다. 그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미탸에게 했는데, 미탸는 전혀 질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판들은 그루셴카에게 매달려 날마다 돈을 달라는 편지로 그 여자를 폭격했고, 그 여자는 그때마다 조금씩 보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갑자기 미탸가 지독하게 질투할 마음을 먹었다.

"나는 바보같이 그 사람한테도 들렀어, 미탸에게 가는 길에 아주 잠깐만. 그 사람도, 나의 예전 그 판도 앓아누웠다고 해서." 그루셴카가 다시 부산하게 서두르며 말을 꺼냈다. "그래서 웃으면서 미탸한테 이야기를 했지, 생각해 봐, 내가 그랬어, 우리 폴란드 사람이 기타를 치며 나한테 예전 노래를 불러 줄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한테 시집올 줄 아나 봐. 그런데 미탸가 욕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란 듯이 판들한테 피로시키를 보낼 거야! 페냐, 저 사람들이 거기 그 계집애를 보냈어? 자, 그 애한테 3루블 주고, 피로시키 열 개쯤 종이에 싸서 가져가게 해, 그리고 알료샤, 너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피로시키를 보냈다고 꼭 미탸한테 말해 줘."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알료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에이, 너는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줄 아는구나. 그 사람은 일부러 질투한 거야. 그 사람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루셴카가 쓰라리게 말했다.

"일부러라니, 어떻게?" 알료샤가 물었다.

"너는 바보야, 알료셴카, 바로 그거야. 그 많은 머리를 가지고도 이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바로 그거야. 나는 그 사람이 나 같은 걸 질투해서 서운한 게 아니야. 아예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때야말로 서운할 거야. 나는 그런 여자야. 나는 질투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아, 나 자신도 마음이 모진 여자라서 나도 질투할 거야. 다만 내가 서운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제 *일부러* 질투했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무슨 장님이라서 못 보는 줄 알아? 그 사람이 그 여자 이야기를, 카치카 이야기를 갑자기 방금 나한테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이렇고 저렇고, 나를 위해 재판에 모스크바에서 의사를 불러왔다고, 나를 구하려고 불러왔다고, 가장 으뜸가는, 가장 유식한 변호사도 불러왔다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칭찬하기 시작한 걸 보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 뻔뻔한 눈으로! 내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트집을 잡는 거야, 자기보다 먼저 나를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 혼자한테 다 뒤집어씌우려고, '당신이 나보다 먼저 폴란드 사람이랑 있었으니까, 그러니 나도 카치카랑 그래도 되게 됐어'라는 거지. 바로 그거야! 나 혼자한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 싶은 거야. 일부러 트집 잡은 거야, 일부러라니까,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루셴카는 자기가 무엇을 할지 끝내 말하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무섭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형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사랑하지 않아." 알료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글쎄, 사랑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곧 알아낼 거야." 그루셴카가 눈에서 손수건을 떼며 위협하는 가락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알료샤는 그 여자의 얼굴이 온순하고 조용히 쾌활하던 얼굴에서 갑자기 침울하고 독살스러운 얼굴로 바뀌는 것을 비통하게 보았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그만해!" 그 여자가 갑자기 딱 잘라 말했다.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른 게 전혀 아니야. 알료샤, 착한 사람아, 내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게 나를 괴롭혀! 나 혼자만 괴로워! 다들 보면 아무도 그 일은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그 일에 아무 관심도 없어. 너라도 그 일을 생각하고 있어? 내일 재판이잖아! 말해 줘, 거기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재판할 거야? 하인이, 하인이 죽였잖아, 하인이! 주님! 정말로 그 사람을 하인 대신 벌하고, 아무도 그 사람 편을 들어 주지 않는 거야? 하인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잖아, 응?"

"그 사람을 엄하게 신문했어." 알료샤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런데 다들 그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어. 지금은 몹시 앓아누워 있어. 그때부터, 그 간질 발작 때부터 앓고 있어. 정말로 아파." 알료샤가 덧붙였다.

"주님, 그럼 네가 그 변호사한테 몸소 가서 단둘이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 페테르부르크에서 3천 루블에 불러왔다던데."

"그건 우리 셋이서 3천 루블을 냈어, 나랑 이반 형이랑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랑, 모스크바에서 의사를 2천 루블에 불러온 건 그분 혼자 한 일이고. 변호사 페튜코비치는 더 받았을 텐데, 이 사건이 온 러시아에 알려져서 모든 신문과 잡지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건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페튜코비치가 오히려 명성 때문에 오기로 했어. 어제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했어?" 그루셴카가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자기한테는 벌써 확실한 견해가 섰다고 했어. 그래도 내 말을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어."

"고려해 보다니! 아, 그 사기꾼들! 그 사람들이 그이를 망칠 거야! 그럼 의사는, 의사는 그 여자가 왜 불러왔어?"

"감정인으로. 형이 미쳐서 정신이 나간 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죽였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싶어 해." 알료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형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아, 그 사람이 죽였다면 그건 정말 사실이야!" 그루셴카가 외쳤다. "그때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가 있었어, 완전히 나가 있었어. 그리고 그건 나, 나, 이 비열한 년 탓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모두가, 온 읍내가 그 사람이 죽였다고 해. 페냐까지도 그 사람이 죽인 것처럼 되게 진술했어. 그리고 가게에서도, 그 관리도, 그전에 술집에서도 들었다고! 모두가, 모두가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떠들어 대."

"그래, 진술이 무섭게 늘어났어." 알료샤가 침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리고리, 그리고리 바실리치는 문이 열려 있었다고 고집을 부려. 봤다고 버티는데 꺾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몸소 이야기해 봤어. 오히려 욕을 하더라!"

"그래, 그게 어쩌면 형한테 가장 불리한 진술일 거야." 알료샤가 말했다.

"그리고 미탸가 정신이 나갔다는 말인데, 그 사람은 지금도 꼭 그래." 그루셴카가 어쩐지 유난히 근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얼굴로 갑자기 말을 꺼냈다. "있잖아, 알료셴카, 오래전부터 너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날마다 그 사람한테 가는데 그저 놀랄 뿐이야. 말해 봐, 네 생각은 어때. 그 사람이 지금 대체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한 걸까? 말을 하고 또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똑똑한 이야기를 하나 보다, 나는 멍청해서 못 알아듣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아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슨 어린 아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아기는 왜 가난한가?' '그 아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시베리아로 갈 거야, 나는 죽이지 않았지만 나는 시베리아로 가야 해!'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아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냥 울음을 터뜨렸어, 그 사람이 그 말을 너무나 잘했거든, 그 사람이 울고 나도 울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입을 맞추고 손으로 성호를 그어 주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알료샤, 말해 줘, 그 '아기'라는 게 뭐야?"

"요즘 라키틴이 웬일인지 형한테 자꾸 찾아가." 알료샤가 미소 지었다. "하기야…… 그건 라키틴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어제는 형한테 가지 않았어, 오늘은 갈 거야."

"아니, 그건 라키트카가 아니야, 그 사람 동생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 사람을 흔드는 거야. 그 사람이 미탸한테 가는 거야, 바로 그거야……" 그루셴카가 말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힌 듯했다. 알료샤는 놀란 사람처럼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간다니 어떻게? 이반 형이 형한테 갔다는 거야? 미탸 형은 이반 형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나한테 직접 말했는데!"

"아…… 아, 나 좀 봐! 입을 잘못 놀렸네!" 그루셴카가 당황해서 갑자기 얼굴이 온통 빨개지며 외쳤다. "잠깐, 알료샤, 아무 말 마, 할 수 없지, 이미 입을 잘못 놀렸으니 사실을 다 말할게, 그 사람은 미탸한테 두 번 갔어, 처음은 그 사람이 막 도착했을 때야, 그때 바로 모스크바에서 말을 달려 왔거든, 내가 미처 앓아눕기도 전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주 전에 왔어. 미탸한테는 그 일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몰래 왔어."

알료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무언가를 헤아렸다. 그 소식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 분명했다.

"이반 형은 미탸 형의 일을 나하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대체로 이 두 달 내내 나하고 말을 무척 적게 했고, 내가 찾아가면 늘 내가 온 것을 못마땅해해서, 나는 벌써 세 주째 형한테 가지

않고 있어. 흠…… 형이 한 주 전에 왔다면…… 이 한 주 동안 미탸 형한테 정말로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 변화야!" 그루셴카가 재빨리 받았다. "둘 사이에 비밀이 있어, 둘 사이에 비밀이 있었어! 미탸가 비밀이라고 나한테 직접 말했어. 그런데 있잖아, 미탸가 마음을 놓지 못할 만큼 그런 비밀이야. 예전에는 쾌활했잖아. 하기야 지금도 쾌활해. 다만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방 안을 서성거리고, 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여기 관자놀이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무언가 불안한 게 있다는 걸 나는 벌써 알아…… 나는 벌써 안다고!…… 그거 말고는 쾌활했어. 오늘도 쾌활했어!"

"그런데 너는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잖아?"

"신경도 곤두서 있고 쾌활하기도 해. 줄곧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건 잠깐이고, 그다음엔 쾌활하고, 그러다 갑자기 또 신경이 곤두서. 그리고 있잖아, 알료샤, 나는 그 사람한테 줄곧 놀라. 앞에 그토록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따금 그런 시시한 일에 깔깔 웃기까지 해. 꼭 자기가 아기인 것처럼."

"그런데 이반 형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말라고 형이 했다는 게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말했어, 말하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 말하지 말라고. 미탸는 무엇보다 너를 무서워해. 여기 비밀이 있으니까. 비밀이라고 직접 말했어…… 알료샤, 착한 사람아, 가서 알아내 줘. 둘 사이에 그게 무슨 비밀인지, 그리고 나한테 와서 말해 줘." 그루셴카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애원했다. "불쌍한 나를 결딴내 줘, 내 저주받은 운명을 알 수 있게!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너는 그게 너에 관한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형이 네 앞에서 비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야."

"몰라. 어쩌면 나한테 말하고 싶은데 감히 못 하는 건지도 몰라. 미리 알려 주는 거야. 비밀이 있다고, 그런데 무슨 비밀인지는 말하지 않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끝장이야, 그렇게 생각해. 셋이서 나한테 끝장을 마련한 거야, 여기에 카치카가 있으니까. 이건 다 카치카야, 그 여자한테서 나온 거야. '그 여자는 이렇고 저렇다'는 건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은 미리 말해 두는 거야, 미리 나한테 알려 두는 거라고. 나를 버리려고 마음먹은 거야, 그게 비밀의 전부야! 셋이서 그걸 꾸몄어, 미치카, 카치카, 그리고 이반 표도로비치가. 알료샤, 오래전부터 너한테 묻고 싶었어, 한 주 전에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털어놓는 거야, 이반이 카치카를 사랑한다고, 그 여자한테 자주 가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사실이야, 아니야? 양심껏 말해 줘, 나를 베어도 좋아."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을게. 이반 형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것 봐, 나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뻔뻔한 사람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지금 나를 질투한 건 나중에 나한테 뒤집어씌우려고 그런 거야. 그 사람은 바보라서 뒤끝을 감출 줄 모르거든,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라서……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보여 줄 거야! '당신은 내가 죽였다고 믿는 거지', 그 사람이 그래. 나한테, 바로 나한테 그 말을 해, 나를 그걸로 나무랐어! 하느님이 그 사람을 지켜 주시길! 그래, 두고 봐, 재판에서 이 카치카는 나 때문에 혼쭐이 날 거야! 거기서 내가 한마디 그런 말을 할 거야…… 거기서 다 말해 버릴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 쓰라리게 울었다.

"그루셴카, 이건 너한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 알료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첫째, 형은 너를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오직 너 하나만 사랑해, 이건 나를 믿어. 나는 알아. 정말 알아. 둘째로 너한테 말할 건, 나는 형한테서 비밀을 캐내고 싶지 않지만, 형이 오늘 나한테 스스로 말해 준다면 너한테 말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형한테 곧바로 말할 거야. 그러면 오늘 바로 너한테 와서 말해 줄게. 다만…… 내가 보기에…… 여기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림자도 없고, 이 비밀은 무언가 다른 일에 관한 거야. 틀림없이 그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 관한 것 같지는 전혀 않아, 내 느낌은 그래. 그럼 그때까지 잘 있어!"

알료샤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루셴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가 자기의 위로를 거의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슬픔을 쏟아 내고 속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그 여자에게는 이미 좋은 일이었다. 그 여자를 이런 상태로 두고 가기가 안쓰러웠지만, 그는 서둘렀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제2장 아픈 발

그 일들 가운데 첫째는 호흘라코바 부인 댁에 있었고, 그는 거기서 어서 일을 끝내고 미탸에게 늦지 않으려고 그리로 서둘러 갔다. 호흘라코바 부인은 벌써 세 주째 몸이 좋지 않았는데, 무슨 까닭인지 발이 부어올라, 침대에 누워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낮에는 매혹적이면서도 점잖은 실내복 차림으로 자기 내실의 긴 의자에 반쯤 누워 지냈다. 알료샤는 언젠가 한 번, 호흘라코바 부인이 병중인데도 거의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순진하게 빙긋 웃으며 속으로 알아챘으니, 무슨 머리 장식이며 리본이며 헐렁한 웃옷 따위가 나타났고, 그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리면서도 그것이 왜 그런지 짐작했다. 최근 두 달 사이 호흘라코바 부인을 찾는 여러 손님 가운데 젊은 페르호틴이 끼어 드나들기 시작했다. 알료샤는 벌써 나흘쯤 들르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서자 곧장 리자에게 가려고 서둘렀는데, 그의 볼일이 바로 리자에게 있었고, 리자는 어제 하녀를 보내 "아주 중요한 사정으로"라며 곧바로 와 달라고 간곡히 청했고, 이 일은 몇 가지 까닭으로 알료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하녀가 리자에게 알리러 간 사이 호흘라코바 부인이 벌써 누구에게선가 그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딱 잠깐만"이라며 자기에게 와 달라고 청했다. 알료샤는 그가 리자에게 가 앉아 있는 동안 엄마가 1분마다 리자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먼저 엄마의 청을 들어주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호흘라코바 부인은 어딘지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긴 의자에 누워

있었고, 보기에도 몹시 신경이 들떠 있었다. 그 부인은 환호성으로 알료샤를 맞았다.

"몇 세기, 몇 세기를, 몇 세기를 통째로 못 뵈었어요! 꼬박 한 주를요, 세상에, 아, 하기야 겨우 나흘 전 수요일에 오셨지요. 리즈한테 오셨지요, 나한테 들키지 않게 발끝으로 살금살금 곧장 그 애한테 가려고 하셨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귀한, 귀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 애가 나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아신다면! 하지만 그건 나중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에요. 귀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는 우리 리즈를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겨요. 조시마 장로님이 돌아가신 뒤로, 주님, 그분 영혼을 편히 쉬게 하소서!(그 부인은 성호를 그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스키마 수도사처럼 바라봐요. 하기야 새 옷을 무척 멋지게 입으셨지만요. 이 고장에서 어디서 이런 재단사를 구하셨어요? 아니,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요. 내가 이따금 당신을 알료샤라고 부르는 걸 용서해 주세요. 나는 늙은이라서 나한테는 모든 것이 허용돼요." 그 부인은 교태 부리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내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당신이 직접 일깨워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고 말해 주세요. 아,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리즈가 당신에게 한 약속을, 어린애 같은 약속을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에게 시집가겠다는 약속을 거두어들인 뒤로, 물론 당신도 그게 오래 안락의자에 앉아 지낸 아픈 계집애의 장난스러운 어린애 공상일 뿐이었다는 걸 아셨겠지요. 다행히 그 애는 이제 걸어 다녀요. 카탸가 그 불행한 당신 형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불러온 그 새 의사, 내일 그 형을…… 아니, 내일 일은 말해서 뭐 해요! 내일 일을 생각만 해도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궁금해서요…… 한마디로 그 의사가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리즈를

보았어요…… 왕진 한 번에 50루블을 치렀어요. 하지만 이건 다 그게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는 이제 완전히 갈피를 잃었어요. 나는 서둘러요. 내가 왜 서두를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요즘 무섭게 아무것도 모르게 돼 가요. 나한테는 모든 게 무슨 뭉치처럼 뒤엉켜 버렸어요. 당신이 지루해서 나한테서 훌쩍 뛰쳐나가 버리고,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 봐 겁나요. 아, 세상에! 우리가 왜 이렇게 앉아만 있지요, 우선 커피부터요. 율리야, 글라피라, 커피!"

알료샤는 서둘러 고맙다고 하고 방금 커피를 마셨다고 밝혔다.

"누구네서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네서요."

"그건…… 그 여자네서요! 아, 그 여자가 모두를 망쳤어요, 하기야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늦게나마 성녀가 됐다고들 하더군요. 진작, 그래야 할 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말 마세요, 아무 말 마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마 결국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으니까요. 이 끔찍한 재판…… 나는 꼭 갈 거예요, 채비하고 있어요, 안락의자째로 나를 들고 들어갈 거예요, 게다가 나는 앉아 있을 수 있고, 내 곁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는 증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선서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부인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 당신 때문에 갈피를 잃잖아요! 이 재판, 이 야만스러운 짓, 그다음엔 모두 시베리아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 모든 게 빨리, 빨리, 모든 게 바뀌고, 그러다 마침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모두가 늙은이가 되어 관을 들여다보게 되지요. 그러라지요, 나는 지쳤어요. 그 카탸, 이 매력적인 사람(cette

charmante personne)이 내 모든 희망을 깨뜨렸어요, 이제 그 애는 당신 형 하나를 따라 시베리아로 갈 거고, 당신의 다른 형은 그 애를 따라가서 이웃 도시에 살 거고, 모두가 서로를 괴롭히겠지요. 그게 나를 미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요.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모든 신문에 백만 번은 썼어요. 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도 썼어요, 내가 당신 형의 '다정한 친구'였다고요, 그 추잡한 낱말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대체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 드릴게요. 어제 받아서 어제 읽었어요. 여기 이 신문『소문』에요, 페테르부르크 신문이에요. 이 『소문』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는 소문을 무섭게 좋아해서 구독했다가 이렇게 날벼락을 맞았어요, 알고 보니 소문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여기요, 바로 이 자리요, 읽어 보세요."

그리고 그 부인은 베개 밑에 있던 신문 한 장을 알료샤에게 내밀었다.

그 부인은 마음이 상했다기보다 어딘지 온통 무너져 있었고, 정말로 어쩌면 머릿속의 모든 것이 뭉치처럼 뒤엉켜 버렸는지도 몰랐다. 신문 기사는 아주 독특했고, 물론 그 부인의 마음을 무척 간지럽게 건드렸을 것이 틀림없지만, 그 부인은,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이 순간 한 점에 정신을 모을 수 없었고, 그래서 1분만 지나면 신문 일조차 잊고 전혀 다른 일로 건너뛸 수 있었다. 끔찍한 재판의 소문이 벌써 온 러시아 곳곳에 퍼졌다는 것은 알료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느님 맙소사, 이 두 달 사이에 그는 자기 형에 대해, 카라마조프 집안 전체에 대해,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 다른 믿을 만한 소식들 사이에서 얼마나 황당한 소식과 통신 기사를 읽어야 했던가. 어떤 신문에는 그가 형의 범죄 뒤에 겁이 나서 스키마 수도사가 되어 은둔해 버렸다고까지

쓰여 있었고, 다른 신문은 그것을 반박하며 오히려 그가 자기 장로 조시마와 함께 수도원 금고를 부수고 "수도원에서 내뺐다"고 썼다. 이번 『 소문 』 의 기사는 「 스코토프리고니옙스크에서(아아, 우리 읍은 그렇게 불린다, 나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숨겨 왔다),[1] 카라마조프 재판에 부쳐 」 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기사는 짧았고, 호흘라코바 부인에 대해서는 대놓고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체로 이름은 모두 감추어져 있었다. 다만 지금 그토록 떠들썩하게 재판하려는 범인이 뻔뻔한 부류의 퇴역 육군 대위로, 게으름뱅이에 농노제 옹호자이며, 걸핏하면 연애질을 일삼고 특히 몇몇 "홀로 무료하게 지내는 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알릴 뿐이었다. "무료한 과부들"에 드는 한 부인은 벌써 다 큰 딸이 있는데도 젊은 체하는 여자로, 그에게 얼마나 홀렸던지 범행 겨우 두 시간 전에 그에게 3천 루블을 내놓겠다며 곧바로 자기와 함께 금광으로 달아나자고 했다나. 그러나 악당은 무료한 부인의 마흔 살 먹은 매력을 끌고 시베리아로 터덜터덜 가느니, 벌 받지 않고 해치울 셈으로 차라리 아버지를 죽이고 바로 그 3천 루블을 빼앗는 편을 택했다나. 이 장난스러운 통신 기사는 마땅히 그래야 하듯 아비 살해와 지난날의 농노제의 부도덕을 두고 고결하게 분개하며 끝났다. 알료샤는 호기심을 갖고 읽은 다음 신문을 접어 호흘라코바 부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니 나 말고 누구겠어요?" 그 부인이 다시 재잘거렸다. "바로 나잖아요, 내가 거의 한 시간 전에 그 사람한테 금광을 권했는데, 갑자기 '마흔 살 먹은 매력'이라니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나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영원한 심판자께서 마흔 살 먹은 매력 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나도 용서하듯이요. 그런데 이건…… 이게 누군지 아세요? 당신 친구 라키틴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알료샤가 말했다. "하기야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럴지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쫓아냈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부인이 앞으로 찾아오지 말아 달라고 하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적어도 부인한테서는 듣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서는 들으셨군요!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욕해요, 많이 욕해요?"

"네, 욕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나 욕하니까요. 그런데 부인이 왜 그 사람을 거절하셨는지는 그 사람한테서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대체로 그 사람과는 아주 드물게 만나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 털어놓을게요, 할 수 없지요, 고백할게요, 여기에는 어쩌면 내 탓인 구석이 하나 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작은 구석이에요, 가장 작은 구석이라서 어쩌면 아예 없는지도 몰라요. 보세요, 귀한 분." 호흘라코바 부인이 갑자기 어딘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 입가에는 사랑스럽지만 수수께끼 같은 작은 미소가 어른거렸다. "보세요, 나는 의심해요…… 용서하세요, 알료샤, 나는 당신에게 어머니처럼……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반대로 나는 지금 당신을 내 아버지처럼…… 왜냐하면 여기에 어머니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뭐, 고해 때 조시마 장로님께 하듯이요. 이게 가장 맞아요, 아주 잘 어울려요, 아까 내가 당신을 스키마 수도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엾은 젊은이, 당신 친구 라키틴이(오, 세상에, 나는 정말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화가 나고 약이 오르기는 하지만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경박한 젊은이가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나중에야, 나중에야 갑자기 알아챘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더 자주, 거의 날마다 오기 시작했어요, 하기야 그전에도 아는 사이였지만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번쩍 깨달은 것처럼 놀랍게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나는 두 달 전부터 이 고장에서 근무하는 겸손하고 상냥하고 훌륭한 젊은이 표트르 일리치 페르호틴을 집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그 사람을 여러 번 만나셨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훌륭하고 진지하지요. 그 사람은 날마다가 아니라 사흘에 한 번 와요(날마다 와도 좋겠지만요), 그리고 늘 아주 잘 차려입고요, 대체로 나는 젊은이들을 좋아해요, 알료샤, 재능 있고 겸손한 젊은이들을, 바로 당신 같은 젊은이들을, 그런데 그 사람은 거의 국가를 다스릴 만한 머리를 지녔고, 말을 아주 상냥하게 해요, 나는 꼭, 꼭 그 사람을 위해 청을 넣을 거예요. 장래의 외교관이에요. 그 끔찍한 날 밤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거의 죽음에서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당신 친구 라키틴은 늘 그런 장화를 신고 와서는 양탄자 위로 쭉 뻗어 놓고…… 한마디로 그 사람은 나한테 무언가 넌지시 비치기까지 하더니, 갑자기 한 번은 돌아가면서 내 손을 무섭게 꽉 쥐었어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쥐자마자 갑자기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그전에도 우리 집에서 표트르 일리치를 만났는데, 믿어지세요, 줄곧 그 사람을 찔러 대고, 줄곧 찔러 대고, 무엇 때문인지 그 사람한테 그냥 으르렁거려요. 나는 둘이 마주치면 그저 둘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혼자 앉아 있는데, 아니, 그때는 벌써 누워 있었지요, 내가 혼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미하일 이바노비치가 와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은 시를 가져와요. 아주 짧은 시인데, 내 아픈 발에 대한 시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픈 발을 시로 그렸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되더라.

이 작은 발, 이 작은 발이
조금 아파졌다네……

아니면 어떻게 되더라, 도무지 시를 외우지 못하겠어요, 여기 나한테 있어요,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아주 멋져요, 멋져요, 그리고 있잖아요, 작은 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훈도 있어요, 멋진 사상이 담겨 있어요, 다만 그 사상은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곧바로 앨범에 넣을 만해요. 그래서 나는 물론 고맙다고 했고, 그 사람은 보기에도 우쭐해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표트르 일리치도 들어왔는데, 미하일 이바노비치가 갑자기 밤처럼 얼굴을 찌푸리지 뭐예요. 표트르 일리치가 무언가 그 사람을 방해했다는 걸 나는 벌써 알아챘어요,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시를 보여 준 다음 곧바로 틀림없이 무언가 말하려 했거든요, 나는 벌써 예감했어요, 그런데 표트르 일리치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갑자기 표트르 일리치에게 그 시를 보여 주었어요, 그것도 누가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고요.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나는 확신해요, 그 사람은 곧바로 알아챘어요,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표트르 일리치는 곧바로 깔깔 웃더니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형편없는 엉터리 시라고, 어떤 신학생이 썼을 거라고, 그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신이 나서, 얼마나 신이 나서요! 그러자 당신 친구가 웃어넘기기는커녕 갑자기 완전히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는 둘이 싸움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건 내가 썼소.'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장난으로 썼소, 시를 쓰는 건 비천한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만 내 시는 훌륭하오, 당신네 푸시킨한테는 여자 발을 읊었다고 기념비를 세워 주려 하지만, 내 시에는 방향이 있소. 그런데 당신은 농노제 옹호자요.'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인도주의라곤 하나도 없고, 오늘날의 계몽된 감정이라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발전이 당신을 비껴갔소, 당신은 관리이고 뇌물을 받소!'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지르며 둘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표트르 일리치는, 아시다시피 겁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갑자기 더없이 고결한 말투를 취했어요, 비웃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듣고 있다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칭찬했을 겁니다…… 시인들은 다 그렇게 신경이 예민하지요……' 한마디로 더없이 고결한 말투를 가장한 그런 비웃음이었어요. 그게 다 비웃음이었다는 건 나중에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설명해 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누워서, 지금 당신 앞에서처럼 누워서 생각해요, 미하일 이바노비치가 우리 집에서 내 손님한테 버릇없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 사람을 갑자기 쫓아내면 그게 고결한 일일까, 아닐까? 그런데 믿어지세요, 누워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결한 일일까, 아닐까, 그런데 결정을 못 하고 괴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소리를 지를까, 말까? 한 목소리는 소리 질러라 하고, 다른 목소리는 아니야, 소리 지르지 마라 해요. 그 다른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나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소동이 났지요. 나는 갑자기 일어나서 미하일 이바노비치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쓰리지만 이제 더는 우리 집에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쫓아냈어요. 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도 내가 고약한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줄곧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엇보다 갑자기, 이게, 이 장면이 무척 멋질 것 같았어요…… 다만 믿어지세요, 그래도 이 장면은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고 그 뒤로 며칠 동안 울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엔 갑자기 점심을 먹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벌써 두 주째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요. 정말로 아예 안 올 작정인가? 그게 바로 어제 일인데, 갑자기 저녁 무렵에 이 『소문』이 온 거예요. 읽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 누가 썼겠어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때 집에 가서 앉아서 썼고, 보냈더니 실어 준 거예요. 그게 벌써 두 주 전 일이니까요. 그런데, 알료샤, 내가 지금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해야 할 말은 전혀 하지 않고요? 아, 말이 저절로 나와요!"

"나는 오늘 형한테 꼭 제때 가야 해요, 무섭게 급해요." 알료샤가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맞아요, 맞아요! 당신이 다 일깨워 주셨어요! 들어 보세요, 격정이 뭐예요?"

"무슨 격정이요?" 알료샤가 놀랐다.

"법정의 격정이요. 그런 격정이라면 다 용서해 준대요. 무슨 짓을 했든 곧바로 용서해 준대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카탸가…… 아, 그 귀한, 귀한 사람, 다만 그 애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캐낼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그 애는 요즘 나한테 아주 겉치레로만 말을 꺼내요, 한마디로 줄곧 내 건강 이야기만 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말투까지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말했지요, 그러라지, 마음대로 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격정 말이에요. 그 의사가 왔잖아요. 의사가 온 걸 아시지요? 모르실 리가 없지요, 미친 사람을 알아보는 의사요. 당신들이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 카탸가요. 모두 카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혀 미치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격정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있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만, 그러면서도 격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한테도 틀림없이 격정이 있었던 거예요. 새 재판소들이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격정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이게 새 재판소들의 은덕이에요. 그 의사가 와서 그날 저녁 일을, 그러니까 금광 일을 나한테

캐물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땠느냐고요. 그게 격정 상태가 아니고 뭐겠어요, 와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돈, 돈, 3천 루블, 3천 루블을 주세요, 그러고는 나가서 갑자기 죽였잖아요. 죽이고 싶지 않다고,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갑자기 죽였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버티다가 죽였다는 그 점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거예요."

"하지만 형은 죽이지 않았어요." 알료샤가 조금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불안과 조바심이 점점 더 그를 사로잡았다.

"알아요, 그건 그 노인 그리고리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리라니요?" 알료샤가 소리쳤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리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 사람을 치자 그 사람은 쓰러져 있다가 그다음에 일어났는데, 보니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죽인 거예요."

"대체 왜요, 왜요?"

"격정이 온 거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 사람 머리를 치자 그 사람은 정신이 들었고 격정이 와서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어쩌면 기억을 못 해서일 거예요. 다만 보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죽인 편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리라고 하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훨씬 더 좋아요! 아,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으니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다만 그래도 그 사람인 편이 더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울 것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걸 기억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채 죽였으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지요, 그건 무척 인도적이고, 새 재판소들의 은덕을 모두가 보게 될 테니까요, 나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그게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대요, 어제 그걸 알고 나는 너무나 놀라서 곧바로 당신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려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재판소에서 곧장 우리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오게 할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고, 우리는 새 재판소들을 위해 건배할 거예요. 그 사람이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손님을 아주 많이 부를 테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면 언제든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어디 다른 도시에서 치안판사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몸소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재판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격정 상태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도 나도 다 격정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앉아서 로망스를 부르다가 갑자기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권총을 집어 들고 아무나 쏘아 죽이는데, 그다음엔 모두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요. 나는 이걸 얼마 전에 읽었는데 모든 의사가 확인했어요. 요즘 의사들은 확인해요, 무엇이든 확인해요. 세상에, 우리 리즈도 격정 상태예요, 어제도 그 애 때문에 울었고 그저께도 울었는데, 오늘에야 그 애가 그저 격정 상태라는 걸 짐작했어요. 아, 리즈는 나를 너무나 속상하게 해요! 그 애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 애가 왜 당신을 불렀어요? 그 애가 불렀어요, 아니면 당신이 그 애한테 오신 거예요?"

"네, 리즈가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로 가려고요." 알료샤가 단호하게 일어나려 했다.

"아, 귀한, 귀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어쩌면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내가 진심으로 리즈를 당신에게 맡긴다는 건 하느님이 보고 계세요. 그 애가 엄마 몰래 당신을 부른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형이반 표도로비치에게는, 용서하세요, 내 딸을 그렇게 쉽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여전히 더없이 기사도적인 젊은이로 여기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리즈한테 왔었는데 나는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어떻게요? 뭐라고요? 언제요?" 알료샤가 무섭게 놀랐다. 그는 이제 앉지도 않고 선 채로 들었다.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을 불렀는지도 몰라요, 왜 불렀는지 나도 이제는 모르겠으니까요. 이래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뒤로 우리 집에 겨우 두 번 왔는데, 처음에는 아는 사람으로서 인사차 왔고, 두 번째는, 그건 얼마 전인데, 카탸가 우리 집에 와 있었을 때 그 애가 우리 집에 있다는 걸 알고 들렀어요. 나는 물론 그 사람이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러잖아도 요즘 그 사람한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니까요, 아시겠지요, 그 사건이며 아버님의 끔찍한 죽음이며(vous comprenez, cette affaire et la mort terrible de votre papa),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또 왔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나한테가 아니라 리즈한테요, 그게 벌써 엿새쯤 전인데, 와서 5분 앉아 있다가 갔대요. 그런데 나는 그 일을 꼬박 사흘 뒤에 글라피라한테서 알게 돼서 갑자기 쇼크를 받았어요. 곧바로 리즈를 불렀더니 그 애가 웃어요, 그 사람은 엄마가 주무시는 줄 알고 엄마 건강을 물으러 자기한테 들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랬겠지요. 다만 리즈, 리즈는, 오, 세상에, 나를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애가 어느 날 밤, 그게 나흘 전이에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바로 다음에요, 갑자기 밤중에 발작을 일으켰어요,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왜 나는 한 번도 히스테리가 안 날까요? 그다음 날도 발작, 그다음엔 사흘째에도, 어제도, 그리고 바로 어제 이 격정이요.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나는 이반 표도로비치가 미워요, 그 사람을 들이지 말아요, 그 사람한테

이 집 출입을 거절해요!' 나는 너무 뜻밖이라 얼이 빠져서 그 애한테 반박했지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를, 게다가 그런 학식을 갖추고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을 거절하겠느냐고요, 아무튼 이 모든 사건은 불행이지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애가 갑자기 내 말에 깔깔 웃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모욕적으로요. 그래도 나는 그 애를 웃겨서 기쁘다고, 이제 발작이 지나가겠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나 자신도 내 허락 없이 이상하게 찾아온 일 때문에 이반 표도로비치를 거절하고 해명을 요구하려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 리자가 잠에서 깨어 율리야한테 화를 내더니, 생각해 보세요, 율리야의 뺨을 손으로 때렸어요. 하지만 이건 괴물 같은 짓이에요, 나는 우리 하녀들한테도 *존댓말*을 쓰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시간 뒤에는 율리야를 끌어안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람을 보내 자기는 엄마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고, 앞으로도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몸소 그 애한테 끙끙대며 찾아갔더니 나한테 달려들어 입을 맞추고 울고, 입을 맞추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밖으로 밀어내 버려서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이제, 귀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내 희망은 다 당신한테 있어요, 그리고 물론 내 평생의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그저 부탁드려요, 리즈한테 가서, 당신 혼자만 할 줄 아는 그대로 그 애한테서 모든 걸 알아내시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한테, 어미한테요, 아시겠지만 이 일이 계속되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냥 죽어 버리거나 집에서 달아날 거예요. 나는 더는 못 견뎌요, 나한테도 참을성은 있지만 그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 세상에, 드디어 표트르 일리치군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들어오는 표트르 일리치 페르호틴을 보자 갑자기 얼굴이 온통 환해지며 소리쳤다. "늦으셨어요, 늦으셨어요! 자, 어서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운명을 결정해 주세요. 자, 그 변호사는 어떻대요? 어디 가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리즈한테요."

"아, 그래요! 그럼 잊지 않으시지요, 내가 부탁한 걸 잊지 않으시지요? 여기에 운명이, 운명이 걸려 있어요!"

"물론 잊지 않을게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알료샤가 서둘러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꼭, 꼭 들르셔야 해요,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예요!" 호흘라코바 부인이 그의 뒤에 대고 소리쳤지만 알료샤는 벌써 방을 나간 뒤였다.

---

1. 「 스코토프리고니옙스크 」 는 '가축(스코트)을 몰아넣는(프리고나티) 곳'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다.

제3장 꼬마 악마

리자에게 들어가 보니, 그 애는 아직 걷지 못할 때 밀고 다니던 예전의 그 안락의자에 반쯤 누워 있었다. 그 애는 그를 맞으러 몸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날카롭고 매서운 그 눈길이 그에게 그대로 꽂혔다. 눈길은 조금 열에 들떠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누랬다. 알료샤는 그 애가 사흘 사이에 그토록 달라지고 여위기까지 한 데 놀랐다. 그 애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옷 위에 꼼짝 않고 놓인 그 애의 가늘고 긴 손가락을 몸소 살짝 만지고는 말없이 그 애 맞은편에 앉았다.

"감옥에 가시느라 급하다는 거 알아요." 리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런데 엄마가 두 시간이나 붙잡아 두고, 방금 나랑 율리야 이야기를 했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료샤가 물었다.

"엿들었어요. 왜 나를 빤히 쳐다봐요? 엿듣고 싶으니까 엿듣는 거예요, 여기에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는 빌지 않아요."

"무슨 일로 속이 상했어요?"

"그 반대예요, 무척 기뻐요. 방금도 또, 서른 번째로 곰곰 따져 보던 참이에요. 내가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 아내가 되지 않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당신은 남편감이 못 돼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가서 갑자기 당신 다음에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한테 갖다주라고 쪽지를 주면, 당신은 받아서 틀림없이 갖다줄 거고, 게다가 답장까지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마흔 살이 되어도 여전히 내 그런 쪽지를 날라다 줄 거예요."

그 애가 갑자기 웃었다.

"당신한테는 무언가 심술궂은 데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언가 순박한 데가 있어요." 알료샤가 그 애에게 미소 지었다.

"순박한 건 내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싶지도 않아요. 바로 당신 앞에서, 바로 당신을요. 알료샤, 나는 왜 당신을 존경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아요. 존경한다면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아니요, 믿지 않아요."

리자가 다시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그 애는 빠르게, 재빠르게 말했다.

"당신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한테 감옥으로 사탕을 보냈어요. 알료샤, 당신이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빨리 허락해 준 대가로 나는 당신을 무섭게 사랑할 거예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리즈?"

"내 바람 하나를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 주면 좋겠어요. 나랑 결혼하고, 그다음에 나를 괴롭히고, 속이고, 떠나서 멀리 가 버리면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요!"

"무질서가 좋아졌어요?"

"아, 나는 무질서를 바라요. 나는 줄곧 집에 불을 지르고 싶어요. 내가 다가가서 살그머니 불을 지르는 걸 상상해요. 꼭 살그머니요. 사람들은

끄는데 집은 타고요. 그리고 나는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요. 아, 바보 같은 소리! 그리고 얼마나 지루한지!"

그 애는 혐오스럽다는 듯 작은 손을 내저었다.

"부유하게 사니까 그래요." 알료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가난한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아요."

"그건 돌아가신 당신네 수도사가 당신한테 잔뜩 불어넣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고 다른 사람이 다 가난하다면, 나는 사탕을 먹고 크림을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줄 거예요. 아, 말하지 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 애가 작은 손을 내저었다. 알료샤는 입도 벙긋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전에 이 말을 나한테 다 했어요, 나는 다 외워요. 지루해요. 내가 가난하면 누군가를 죽일 거예요, 부자라도 어쩌면 죽일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곡식을 베고 싶어요, 호밀을 베고 싶어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갈 테니 당신은 농군이 되세요, 진짜 농군이요, 우리한테 망아지도 한 마리 있고요, 그러고 싶어요? 칼가노프를 알아요?"

"알아요."

"그 사람은 줄곧 돌아다니며 공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래요. 무엇하러 진짜로 살아요, 공상하는 게 더 낫지. 공상으로는 가장 즐거운 걸 지어낼 수 있지만 사는 건 지루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곧 결혼할 거예요, 벌써 나한테도 사랑을 고백했어요. 팽이 칠 줄 알아요?"

"알아요."

"그 사람이 꼭 팽이 같아요. 돌려서 내려놓고 채찍으로 치고, 치고, 또 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평생 팽이처럼 돌릴 거예요. 나랑 앉아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내가 거룩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무섭게 화가 났지요. 나는 거룩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그걸 정확히 알 거잖아요."

"하느님이 심판하시겠지요." 알료샤가 그 애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나는 바로 그걸 바라요. 내가 가면 나를 심판하겠지요. 그러면 나는 갑자기 그 사람들 모두의 눈앞에서 대놓고 웃어 줄 거예요. 나는 무섭게 집에 불을 지르고 싶어요, 알료샤, 우리 집에요. 당신은 여전히 내 말을 안 믿지요?"

"왜요? 열두어 살쯤 된 아이들 가운데에도 무언가에 불을 지르고 싶어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애들은 정말 불을 질러요. 그건 병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 쳐도,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악을 선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건 한때의 위기예요. 어쩌면 예전의 당신 병 탓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당신은 나를 경멸하는군요! 나는 그냥 선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악을 행하고 싶어요. 여기에 무슨 병 같은 건 없어요."

"악을 왜 행해요?"

"아무 데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요. 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있잖아요, 알료샤, 나는 이따금 무섭게 많은 악을, 온갖 고약한 짓을 저질러야겠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살그머니 저지르다가 갑자기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손가락질하겠지요. 그러면 나는 모두를 바라볼 거예요. 그건 무척 기분 좋아요.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알료샤?"

"그냥 그래요. 무언가 좋은 것을 짓밟고 싶은 욕구, 아니면 당신이 말한 대로 불을 지르고 싶은 욕구지요. 그런 일도 있어요."

"나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할 거예요."

"믿어요."

"아, '믿어요'라고 말해 주니까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게다가 당신은 전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당신을 놀리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기야 어쩌면 그런 욕구도 조금은 있겠지요."

"조금은 있어요. 당신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애가 어떤 불꽃이 번득이는 눈으로 말했다.

알료샤를 무엇보다 놀라게 한 것은 그 애의 진지함이었다. 예전에는 그 애가 가장 "진지한" 순간에도 쾌활함과 장난기가 그 애를 떠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애의 얼굴에는 우스꽝스러움이나 장난기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사람들이 범죄를 사랑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알료샤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내 생각을 말했어요. 사랑해요, 모두가 사랑하고, 늘 사랑해요, '순간들'이 아니라요. 있잖아요, 이 일에서는 꼭 모두가 언젠가 거짓말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때부터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나쁜 것을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그걸 사랑해요."

"당신은 여전히 나쁜 책들을 읽고 있어요?"

"읽어요. 엄마가 읽고 베개 밑에 감춰 두는데 내가 훔쳐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게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나는 나를 망가뜨리고 싶어요.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애는 기차가 자기 위로 지나가는 동안 레일 밑에 엎드려 있었대요.

행운아예요! 들어 보세요, 지금 당신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재판을 받는데, 모두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걸 좋아해요."

"아버지를 죽인 걸 좋아한다고요?"

"좋아해요, 모두가 좋아해요! 모두가 그건 끔찍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섭게 좋아해요. 내가 제일 먼저 좋아해요."

"모두에 대한 당신 말에는 진실이 조금 있어요." 알료샤가 조용히 말했다.

"아, 당신은 생각하는 게 어쩜 그래요!" 리자가 환호하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그것도 수도사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못 믿을 거예요, 알료샤, 당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 내 우스운 꿈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요, 나는 이따금 꿈에 악마들을 봐요, 밤인 것 같은데 나는 촛불을 들고 내 방에 있고, 갑자기 사방에 악마들이 있어요, 구석마다, 탁자 밑에도요, 그리고 문을 여는데 문 뒤에는 악마들이 한 무리 있어서, 들어와 나를 붙잡고 싶어 해요. 벌써 다가와요, 벌써 붙잡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성호를 그으면 모두 뒷걸음질 쳐요, 무서워하면서요, 다만 아주 가 버리지는 않고 문간이며 구석구석에 서서 기다려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소리 내어 하느님을 욕하고 싶어 무섭게 견딜 수가 없어져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악마들이 갑자기 다시 떼를 지어 나한테 몰려오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벌써 다시 나를 붙잡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다시 성호를 그으면 모두 뒷걸음질 쳐요. 무섭게 즐거워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나도 바로 그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알료샤가 갑자기 말했다.

"정말요?" 리자가 놀라서 소리쳤다. "들어 보세요, 알료샤, 웃지 마요, 이건 무섭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아마 그럴 수 있겠지요."

"알료샤, 정말이에요, 이건 무섭게 중요해요." 리자가 어딘지 벌써 지나친 놀라움에 사로잡혀 말을 이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똑같은 바로 그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당신은 나한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지금도 거짓말하지 마요. 그게 사실이에요? 웃는 거 아니지요?"

"사실이에요."

리자는 무엇엔가 무섭게 놀라서 30초쯤 입을 다물었다.

"알료샤, 나한테 와 줘요, 더 자주 와 줘요." 그 애가 갑자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언제나, 평생 당신한테 올 거예요." 알료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리자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나 혼자한테 말하고, 그리고 당신한테요. 온 세상에서 당신 하나한테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보다 당신한테 더 기꺼이 말해요. 그리고 당신은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알료샤, 나는 왜 당신이 전혀, 전혀 부끄럽지 않을까요? 알료샤, 유대 놈들이 부활절에 아이들을 훔쳐다가 칼로 벤다는 게 사실이에요?"

"모르겠어요."

"나한테 책이 한 권 있는데, 거기서 어디선가 열린 무슨 재판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유대 놈이 네 살 먹은 사내아이의 두 손 손가락을 먼저 모두 잘라 내고, 그다음에 벽에 못 박았대요, 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요. 그러고는 재판에서 아이가 금방, 네 시간 만에 죽었다고 말했대요. 금방이라니! 그 사람이 그래요. 아이가 신음했다고, 줄곧 신음했는데 자기는 서서 그걸 보며 즐겼다고요. 그거 좋네요!"

"좋다고요?"

"좋아요. 나는 이따금 내가 그 아이를 못 박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매달려서 신음하는데,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서 파인애플 설탕 조림을 먹는 거예요. 나는 파인애플 설탕 조림을 무척 좋아해요. 당신도 좋아해요?"

알료샤는 말없이 그 애를 바라보았다. 핏기 없이 누런 그 애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고 눈이 불타올랐다.

"있잖아요, 그 유대 놈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떨었어요. 그 아이가 소리치고 신음하는 걸 상상하는데(네 살짜리 사내아이들도 알아들으니까요), 그 설탕 조림 생각이 줄곧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나는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 꼭 와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왔고, 나는 갑자기 그 사람한테 그 아이 이야기와 설탕 조림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다*. 그리고 '그거 좋네요'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웃더니 그건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가 버렸어요. 겨우 5분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경멸한 걸까요, 경멸한 걸까요? 말해 줘요, 말해 줘요, 알료샤, 그 사람이 나를 경멸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애가 눈을 번득이며 긴 의자에서 몸을 꼿꼿이 일으켰다.

"말해 봐요." 알료샤가 흥분해서 말했다.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요."

"바로 그걸 물어보려고, 그 아이에 대해서요?"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 곧바로 그걸 물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하고, 웃고, 일어나서 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정직하게 대했어요." 알료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를 경멸했어요? 비웃었어요?"

"아니요. 어쩌면 그 사람 자신이 파인애플 설탕 조림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람도 지금 무척 아파요, 리즈."

"그래요, 믿어요!" 리자가 눈을 번득였다.

"그 사람은 아무도 경멸하지 않아요." 알료샤가 말을 이었다. "다만 아무도 믿지 않을 뿐이에요. 믿지 않으면 물론 경멸도 하겠지요."

"그럼 나도요? 나도요?"

"당신도요."

"그거 좋네요." 리자가 어딘지 이를 갈듯이 말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웃었을 때 나는 경멸받는 게 좋다고 느꼈어요. 손가락이 잘린 사내아이도 좋고, 경멸받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 애는 어딘지 심술궂고 열에 들뜬 얼굴로 알료샤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있잖아요, 알료샤, 있잖아요, 나는…… 알료샤, 나를 구해 줘요!" 그 애가 갑자기 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들더니 두 팔로 그를 꽉 끌어안았다. "나를 구해 줘요." 그 애가 거의 신음하듯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한 말을 세상 누구한테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진실을, 진실을, 진실을 말했어요! 나는 자살할 거예요, 모든 게 역겨우니까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역겨우니까요! 모든 게 역겨워요, 모든 게 역겨워요! 알료샤, 당신은 왜 나를 전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애가 미친 듯이 말을 맺었다.

"아니요, 사랑해요!" 알료샤가 뜨겁게 대답했다.

"그럼 나 때문에 울어 줄 거예요, 울어 줄 거예요?"

"울어 줄게요."

"내가 당신 아내가 되려 하지 않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울어 줄 거예요, 그냥?"

"울어 줄게요."

"고마워요! 나한테는 당신의 눈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처형하고 발로 짓밟으라지요, 모두, 모두, *아무도* 빼지 말고!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들려요, 아-무-도요! 그 반대로 미워해요! 가요, 알료샤, 형한테 갈 시간이에요!" 그 애가 갑자기 그에게서 떨어졌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요?" 알료샤가 거의 겁에 질려 말했다.

"형한테 가요, 감옥 문이 닫혀요, 가요, 여기 모자요! 미탸한테 입 맞춰 줘요, 가요, 가요!"

그리고 그 애는 힘을 다해 알료샤를 문밖으로 거의 밀어냈다. 알료샤는 비통하게 어리둥절해하며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 오른손에 편지가, 단단히 접어 봉한 작은 편지 한 통이 쥐여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힐끗 보고 순식간에 겉봉을 읽었다. 이반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 앞. 그는 재빨리 리자를 쳐다보았다. 그 애의 얼굴이 거의 무서워졌다.

"전해 줘요, 꼭 전해 줘요!" 그 애가 온몸을 떨며 미친 듯이 명령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러지 않으면 나는 독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재빨리 문을 쾅 닫았다. 빗장이 딸깍 걸렸다. 알료샤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호흘라코바 부인에게 들르지도 않고, 그 부인을 잊기까지 하고 곧장 계단으로 갔다. 그런데 리자는 알료샤가 멀어지자마자 곧바로 빗장을 벗기고 문을 아주 조금 열어 그 틈에 자기 손가락을 끼우고는 문을 쾅 닫으며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짓눌렀다. 10초쯤 지나 손을 빼내자 그 애는 조용히, 천천히 자기 안락의자로 걸어가서 몸을 꼿꼿이 펴고 앉아, 시커멓게 멍든 자기 작은 손가락과

손톱 밑에서 배어 나온 피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애의 입술이 떨렸고, 그 애는 혼자 빠르게, 빠르게 속삭였다.

"비열한 년, 비열한 년, 비열한 년, 비열한 년!"

제4장 찬가와 비밀

알료샤가 감옥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벌써 꽤 늦은 시각이었다(11월의 낮이 길어 봐야 얼마나 길겠는가). 어스름이 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알료샤는 자기가 아무 막힘 없이 미탸에게 들여보내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일은 우리 고장, 우리 읍에서도 다른 어디와 다를 바 없다. 처음에는 물론 예심이 모두 끝난 뒤에도 친척이나 다른 몇몇 사람이 미탸를 면회하러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몇 가지 필요한 절차가 따랐지만, 나중에는 절차가 느슨해졌다기보다, 적어도 미탸를 찾아오는 몇몇 사람에게는 어쩐지 저절로 몇 가지 예외가 생겼다. 어떤 때는 그런 목적으로 정해 둔 방에서 수감자를 만나는 일조차 거의 단둘이서 이루어질 정도였다. 하기야 그런 사람은 아주 적어서 그루셴카, 알료샤, 라키틴뿐이었다. 그런데 그루셴카에게는 군 경찰서장 미하일 마카로비치 자신이 무척 호의를 베풀었다. 노인은 모크로예에서 그 여자에게 호통친 일이 마음에 걸려 있었다. 그 뒤 일의 내막을 다 알고 나서 그는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미탸의 범죄를 굳게 확신하면서도, 미탸가 갇힌 뒤로 어쩐지 점점 더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착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술과 무질서 때문에 스웨덴 군대처럼 결딴이 나 버렸구먼!" 예전의 공포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연민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 알료샤로 말하자면, 서장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오래전부터 그와 아는 사이였고, 나중에 수감자를 무척 자주 찾아오게 된 라키틴은

그가 "서장 댁 아가씨들"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가장 가까운 사이 가운데 하나여서 날마다 그 집에 붙어 지냈다. 그는 또 마음씨 좋은 노인이지만 고집 센 관리이기도 한 감옥 소장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했다. 알료샤는 알료샤대로 대체로 "지혜"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소장과도 각별하고 오래된 사이였다. 이를테면 이반 표도로비치를 소장은 존경했다기보다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무엇보다 그의 판단을 두려워했고, 소장 자신도 물론 "제 머리로 깨쳤다"는 대단한 철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알료샤에게 끌리는 어떤 어쩔 수 없는 호감이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인은 마침 외경 복음서들에 푹 빠져서 1분이 멀다 하고 자기 감상을 젊은 벗에게 전했다. 예전에는 수도원으로 그를 찾아가기까지 해서 그와, 그리고 수도사제들과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마디로 알료샤는 감옥에 늦게 오더라도 소장에게 들르기만 하면 일이 늘 해결되었다. 게다가 감옥의 맨 마지막 간수까지 모두가 알료샤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경비병들도 물론 윗사람의 허락만 있으면 거북하게 굴지 않았다. 미탸는 불려 나올 때면 늘 자기 감방에서 면회 장소로 정해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알료샤는 방에 들어서다가 마침 미탸에게서 나가던 라키틴과 맞닥뜨렸다.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를 배웅하는 미탸는 무엇 때문인지 무척 웃고 있었고, 라키틴은 투덜거리는 것 같았다. 라키틴은, 특히 요즘 들어, 알료샤와 마주치기를 싫어해서 그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인사조차 마지못해 했다. 지금 알료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유난히 눈살을 찌푸리고, 털 깃을 단 자기의 커다란 따뜻한 외투 단추를 채우느라 온통 정신이 팔린 것처럼 눈을 옆으로 돌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우산을 찾기 시작했다.

"내 건 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가 그저 무슨 말이든 하려고 중얼거렸다.

"너는 남의 걸 뭐 하나 잊지 마!" 미탸가 재치를 부리고는 곧바로 제 재치에 저 스스로 깔깔 웃었다. 라키틴이 순식간에 발끈했다.

"그 소리는 너희 카라마조프 놈들한테나 권해, 농노 주인 씨알머리 같은 너희 족속한테나. 라키틴한테는 말고!" 그가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갑자기 소리쳤다.

"왜 그래? 농담했잖아!" 미탸가 소리쳤다. "쳇, 빌어먹을! 저 사람들은 다 저래." 그는 빠르게 나가는 라키틴 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알료샤에게 돌아섰다. "줄곧 앉아서 웃고 즐거워하더니 갑자기 끓어오르잖아! 너한테는 고개 한 번 까딱하지 않던데, 너희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너를 기다렸다기보다 아침 내내 목이 타게 갈망했어. 뭐, 괜찮아! 벌충하면 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자주 형한테 와? 형, 저 사람이랑 친해진 거야?" 알료샤가 역시 라키틴이 사라진 문 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물었다.

"미하일하고 친해졌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돼지랑 무슨! 내가…… 비열한 놈이라고 여기거든. 농담도 못 알아들어, 그게 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야. 저 사람들은 절대 농담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영혼이 메말랐어. 납작하고 메말랐어. 꼭 그때 내가 감옥에 다가가며 감옥 담을 바라보던 그 모양처럼.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해. 그래, 알렉세이, 이제 내 머리는 끝장이야!"

그는 긴 의자에 앉아 알료샤를 자기 곁에 앉혔다.

"그래, 내일 재판이지. 그런데 형, 정말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는 거야?" 알료샤가 머뭇거리는 마음으로 말했다.

"너 무슨 이야기야?" 미탸가 어딘지 흐릿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아, 재판 말이구나! 에이, 빌어먹을!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시시한 이야기만, 줄곧 이 재판 이야기만 했고,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래, 내일 재판이야. 하지만 내 머리가 끝장이라고 한 건 재판

이야기가 아니야. 머리가 끝장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 있던 게 끝장났어. 왜 그렇게 비판하는 얼굴로 나를 봐?"

"무슨 말이야, 미탸 형?"

"사상, 사상 말이야, 바로 그거야! 에피카. 에피카라는 게 뭐야?"

"에피카?" 알료샤가 놀랐다.

"그래, 무슨 학문인가?"

"응, 그런 학문이 있어…… 다만…… 솔직히 말하면 무슨 학문인지 형한테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라키틴은 알아. 라키틴은 많이 알아, 빌어먹을 놈! 그 녀석은 수도사가 되지 않을 거야. 페테르부르크로 갈 채비를 하고 있어. 거기서 비평란에 들어가겠대, 다만 고상한 방향을 갖고서. 뭐,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겠지. 우, 출세라면 저 사람들은 도사야! 에피카 따위는 집어치워! 나는 끝장이야, 알렉세이, 나는 말이야, 이 하느님의 사람아! 나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바로 그거야. 거기 카를 베르나르라는 게 누구였지?"

"카를 베르나르?" 알료샤가 다시 놀랐다.

"아니, 카를이 아니라, 잠깐, 잘못 말했어. 클로드 베르나르야. 그게 뭐야? 화학인가?"

"아마 학자 한 사람일 거야." 알료샤가 대답했다. "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는 말해 줄 수 없어. 학자라는 말만 들었지, 어떤 학자인지는 몰라."

"그럼 빌어먹으라지, 나도 몰라." 미탸가 욕을 했다. "아마 어떤 비열한 놈이겠지,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커. 다들 비열한 놈들이야. 그런데 라키틴은 기어 들어갈 거야, 라키틴은 틈새로도 기어 들어갈 거야, 그 녀석도 베르나르야. 우, 베르나르들! 그런 놈들이 무척 많이 퍼졌어!"

"대체 형 왜 그래?" 알료샤가 끈질기게 물었다.

"그 녀석이 나에 대해, 내 사건에 대해 논문을 써서 그걸로 문단에서 제 역할을 시작하고 싶어 해, 그래서 드나드는 거야, 자기가 직접 설명했어. 무슨 방향이 있는 걸 쓰고 싶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에 먹혀 버렸다' 등등, 나한테 설명했어. 사회주의의 색채를 띨 거래. 뭐, 빌어먹으라지, 색채면 색채지,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반 형을 좋아하지 않아, 미워해. 너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래도 나는 그 녀석을 쫓아내지 않아,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무척 우쭐대. 내가 방금 그 녀석한테 말했어. '카라마조프 집안 사람들은 비열한 놈들이 아니라 철학자야, 진짜 러시아 사람은 다 철학자니까, 그런데 너는 공부는 했어도 철학자가 아니야, 너는 상놈이야.' 웃더라, 아주 독살스럽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데 미슬리부스 논 에스트 디스푸탄둠'.[1] 괜찮은 재담이지? 적어도 나도 고전주의에 입문한 셈이야." 미탸가 갑자기 깔깔 웃었다.

"형은 왜 끝장이야?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알료샤가 말을 끊었다.

"왜 끝장이냐고? 흠! 사실은…… 전체를 놓고 보면 하느님이 가엾어, 그래서야!"

"하느님이 가엾다니?"

"생각해 봐. 그건 거기 신경 속에, 머릿속에,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그 신경들 속에(에이, 빌어먹을 것들!)…… 이런 꼬리 같은 게 있어, 그 신경들한테 꼬리가 있어, 그런데 그게 거기서 떨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봐, 내가 무언가를 눈으로 보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것들이, 그 꼬리들이 떨려…… 떨리면 상이 나타나,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슨 순간이, 1초쯤이 지나가고 나서, 무슨 계기 같은 게 나타나. 그러니까 계기가 아니라, 계기 따위는 빌어먹으라지, 상이, 그러니까 사물이나 사건이, 에이, 빌어먹을, 그래서 나는 관조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꼬리들 때문이지, 나한테 영혼이 있어서도, 내가

무슨 형상이나 닮은꼴이라서도 전혀 아니야. 그건 다 바보 같은 소리야. 이건, 형제여, 미하일이 바로 어제 나한테 설명해 줬는데, 나는 꼭 불에 덴 것 같았어. 이 학문은 굉장해, 알료샤! 새로운 인간이 나타날 거야, 그건 나도 알아…… 그래도 하느님이 가엾어!"

"그것도 좋은 일이야." 알료샤가 말했다.

"하느님이 가엾다는 게? 화학이야, 형제여, 화학이야! 어쩔 수 없지요, 신부님, 조금만 비켜 주십쇼, 화학이 나가십니다! 그런데 라키틴은 하느님을 좋아하지 않아, 우, 정말 좋아하지 않아! 이건 저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아픈 곳이야! 그런데 숨겨. 거짓말을 해. 시치미를 떼. '그래서 너는 비평란에서 그걸 밀고 나갈 거야?' 내가 물었지. '뭐, 대놓고는 못 하게 하겠지.' 그 녀석이 웃으며 그래. '그런데 그러면 대체 그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물었지. '하느님도 없고 내세도 없으면? 그럼 이제 모든 것이 허용되고,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거야?' '너 몰랐어?' 그 녀석이 그래. 웃어. '똑똑한 사람한테는 무엇이든 해도 돼. 똑똑한 사람은 가재 잡을 줄 알지, 그런데 너는', 그 녀석이 그래, '사람을 죽이고 걸려들어서 감옥에서 썩고 있잖아!'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타고난 돼지야! 예전 같으면 저런 놈들은 밖으로 내던졌을 텐데, 지금은 듣고 있어. 그래도 쓸 만한 말도 많이 하거든. 글도 똑똑하게 써. 한 주쯤 전에 나한테 무슨 논문을 하나 읽어 주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 거기서 일부러 세 줄을 베껴 두었어. 자, 잠깐, 여기 있어."

미탸가 서둘러 조끼 주머니에서 종이쪽지를 꺼내 읽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개인을 자기의 현실과 대립시켜야 한다.' 알겠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알료샤가 말했다.

그는 호기심을 갖고 미탸를 찬찬히 바라보며 그의 말을 들었다.

"나도 몰라. 어둡고 흐릿하지만 그 대신 똑똑해. '요즘은 다들 이렇게 써. 환경이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래…… 환경을 무서워해. 시도 쓰더라, 비열한 놈이, 호흘라코바의 작은 발을 노래했어, 하하하!"

"들었어." 알료샤가 말했다.

"들었어? 그럼 그 엉터리 시도 들었어?"

"아니."

"나한테 있어, 자, 읽어 줄게. 너는 몰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 여기엔 사연이 한 보따리 있어. 사기꾼 같으니! 세 주 전에 그 녀석이 나를 놀려 먹을 생각을 했어, '너는 3천 루블 때문에 바보처럼 걸려들었지만, 나는 15만 루블을 낚아채서 어떤 과부랑 결혼해서 페테르부르크에 돌집을 살 거야.' 그러고는 자기가 호흘라코바한테 꼬리를 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젊어서도 똑똑하지 않았지만 마흔이 되니 아예 정신이 나갔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어. '하지만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 그걸로 끝장을 낼 거야. 결혼해서 페테르부르크로 데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녀석 입술에는 그런 추잡한 호색의 침이 고여 있었어, 호흘라코바를 보고 고인 침이 아니라 그 15만 루블을 보고 고인 침이야. 그리고 나를 믿게 했어, 믿게 했다고, 줄곧 나한테 왔어, 날마다, 넘어온대, 그러더라. 기쁨에 빛났어. 그런데 갑자기 쫓겨난 거야, 페르호틴 표트르 일리치가 이겼어, 장한 녀석! 그러니까 그 녀석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 멍청한 여자한테 입을 맞춰 주고 싶을 정도야! 그 녀석이 나한테 드나들 때 바로 이 엉터리 시를 지었어. '처음으로 손을 더럽혀 시를 써, 꾀어내려고, 그러니까 쓸모 있는 일을 하려고 쓰는 거야. 그 멍청한 여자한테서 자본을 손에 넣으면 그다음에 시민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온갖 추잡한 짓에 다 시민적 정당화가 있거든! '그래도 네 푸시킨보다 잘 썼어, 장난스러운 시에도 시민의 슬픔을 슬쩍 끼워 넣을 줄 알았으니까.' 그

녀석이 그래. 푸시킨 이야기는 나도 알아.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이었는데 작은 발만 그렸다면야! 그런데 그 엉터리 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저 사람들의 자존심이란, 자존심이란! '내 대상의 아픈 작은 발이 낫기를 바라며', 그 녀석이 붙인 제목이야. 재기발랄한 녀석이지!

이 작은 발이 어찌 된 일인가,
작은 발, 조금 부어오른 작은 발!
의사들이 찾아와 고친다며
붕대를 감고, 병신을 만드네.
작은 발이 그리운 게 아니야.
그건 푸시킨이 노래하라지.
작은 머리가 그리워라,
사상을 알아듣지 못하는 머리가.
조금은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그만 작은 발이 방해를 했네!
그러니 작은 발이여 나아라,
작은 머리가 알아듣도록.

돼지야, 순 돼지야, 그런데 그 악당이 쓴 게 장난스럽게 잘 됐어! 그리고 정말로 '시민적인' 걸 슬쩍 끼워 넣었어. 그런데 쫓겨났을 때 얼마나 화를 냈는지. 이를 갈았어!"

"벌써 앙갚음했어." 알료샤가 말했다. "호흘라코바에 대해 통신 기사를 썼어."

그리고 알료샤는 신문 『소문』에 실린 통신 기사 이야기를 형에게 간추려 들려주었다.

"그 녀석이야, 그 녀석!" 미탸가 얼굴을 찌푸리며 맞장구쳤다. "그 녀석이야! 그런 통신 기사들……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미 얼마나

많은 비열한 이야기가 쓰였는지, 이를테면 그루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카탸에 대해서도…… 흠!"

그는 근심스럽게 방 안을 거닐었다.

"형, 나는 오래 있을 수 없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알료샤가 말했다. "내일은 형한테 무섭고 위대한 날이야. 형한테 하느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나는 놀라워. 형은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할 일 대신 하느님만 아실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니, 놀라지 마." 미탸가 뜨겁게 말을 끊었다. "그럼 그 냄새나는 개 이야기라도 할까? 살인자 이야기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넉넉히 했어. 그 냄새나는 놈, 냄새나는 여자의 아들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놈은 하느님이 죽이실 거야, 두고 봐, 아무 말 마!"

그는 흥분해서 알료샤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이 불타올랐다.

"라키틴은 이걸 알아듣지 못할 거야." 그가 온통 어떤 환희에 휩싸인 듯 말을 꺼냈다. "하지만 너는, 너는 다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너를 목마르게 기다린 거야. 봐, 나는 오래전부터 여기서, 이 벗겨진 벽 안에서 너한테 많은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았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았거든. 이제 마지막 기한이 되어서야 너한테 영혼을 쏟아 놓게 됐어. 형제여, 나는 지난 두 달 동안 내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느꼈어, 내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부활했어! 내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 벼락이 아니었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무서워! 그리고 내가 광산에서 스무 해 동안 망치로 광석을 두들겨 캐게 된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전혀 무섭지 않아, 지금 무서운 건 다른 거야, 부활한 인간이 나한테서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거야! 거기서도, 광산에서도, 땅 밑에서도, 내 곁에서, 나처럼 똑같은 징역수이자 살인자에게서도 인간의 마음을 찾아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어,

거기서도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징역수 안에서 얼어붙은 마음을 되살리고 부활시킬 수 있어, 몇 해 동안 그를 보살피다가 마침내 소굴에서 빛 속으로 이미 높은 영혼을, 고통을 겪은 의식을 끌어낼 수 있어, 천사를 되살리고, 영웅을 부활시킬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 수백 명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죄가 있어! 그때 하필 그런 순간에 왜 나는 '아기' 꿈을 꾸었을까? '아기는 왜 가난한가?' 그건 그 순간 나한테 내린 예언이었어! 나는 '아기'를 위해 갈 거야. 모두가 모두에게 죄가 있으니까. 모두를 위한 '아기'야, 작은 아이들도 있고 큰 아이들도 있으니까. 모두가 '아기'야. 나는 모두를 위해 갈 거야, 누군가는 모두를 위해 가야 하니까.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지만, 나는 가야 해. 받아들일게! 이 모든 게 여기서 나한테 떠올랐어…… 바로 이 벗겨진 벽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거기 수백 명이야, 땅 밑 사람들이, 손에 망치를 든 사람들이. 오, 그래, 우리는 사슬에 묶이고 자유도 없겠지, 하지만 그때, 우리의 크나큰 슬픔 속에서 우리는 다시 기쁨 속으로 부활할 거야, 기쁨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고, 하느님은 존재할 수 없어, 하느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그건 그분의 특권이야, 위대한…… 주여, 사람이 기도 속에 녹아 버리기를! 하느님 없이 내가 거기 땅 밑에서 어떻게 지내겠어? 라키틴은 거짓말을 해, 사람들이 하느님을 땅 위에서 쫓아낸다면 우리는 땅 밑에서 그분을 맞이하리라! 징역수는 하느님 없이 지낼 수 없어, 징역수 아닌 사람보다 더 지낼 수 없어! 그러면 우리, 땅 밑의 인간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지니신 하느님께 비극의 찬가를 부를 거야! 하느님과 그분의 기쁨이여 만세! 나는 그분을 사랑해!"

미탸는 이 사나운 연설을 하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아니, 삶은 충만해, 땅 밑에도 삶은 있어!"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넌 믿지 못할 거야, 알렉세이, 내가 지금 얼마나 살고 싶은지, 존재하고 의식하고 싶은 어떤 갈증이 바로 이 벗겨진 벽 안에서 내 안에 생겨났는지! 라키틴은 그걸 몰라. 그 녀석은 그저 집을 지어 세나 놓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고통이 대체 뭐야? 나는 고통이 두렵지 않아, 그게 셀 수 없이 많다 해도. 지금은 두렵지 않아, 예전에는 두려웠지. 있잖아, 나는 어쩌면 재판에서 대답도 하지 않을지 몰라……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그런 힘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모든 걸, 모든 고통을 이겨 낼 것 같아. 그저 1분마다 나 자신에게 말하고 또 말하기 위해서. 나는 있다! 천 가지 고통 속에서도 나는 있다. 고문 속에서 몸부림쳐도 나는 있다! 기둥 위에 갇혀 앉아 있어도 나는 존재하고, 해를 봐. 해를 보지 못해도 해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해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벌써 삶의 전부야. 알료샤, 나의 케루빔, 온갖 철학이 나를 죽이고 있어, 빌어먹을 것들! 이반 형이……"

"이반 형이 왜?" 알료샤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미탸는 듣지 못했다.

"봐, 나는 예전에는 이런 의심이 하나도 없었어. 하지만 그게 다 내 안에 숨어 있었어. 어쩌면 바로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사상들이 날뛰었기 때문에 나는 술을 퍼마시고, 싸우고, 미쳐 날뛰었는지도 몰라. 내 안의 그것들을 달래려고, 잠재우고 짓눌러 버리려고 싸웠어. 이반 형은 라키틴이 아니야. 형은 사상을 감추고 있어. 이반 형은 스핑크스야, 말이 없어, 줄곧 말이 없어. 그런데 나는 하느님이 괴롭혀. 오직 그것 하나만 나를 괴롭혀. 그분이 없다면 어떡하지? 그게 인류 안의 인위적인 사상이라는 라키틴 말이 옳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없다면, 사람이 땅의, 우주의 우두머리야. 굉장하지! 다만 하느님 없이 사람이 어떻게 덕을 지닐 수 있어? 문제야! 나는 줄곧 그 생각이야. 그러면 사람은 대체 누구를 사랑할 거야?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가를 부를 거야?

라키틴은 웃어. 하느님 없이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라키틴은 말해. 그건 콧물 질질 흘리는 애송이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라키틴은 살기 편해, '너는 차라리 인간의 시민권을 넓히는 일에 힘을 쓰든지, 하다못해 쇠고깃값이 오르지 않게 애쓰기라도 해, 그게 철학보다 더 간단하고 더 가깝게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거야.' 그 녀석이 오늘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한 방 먹였지, '그런데 너는 하느님 없이도 손에 걸리기만 하면 너 스스로 쇠고깃값을 올리고 1코페이카에 1루블씩 붙여 먹을 거야.' 화를 내더라. 그런데 덕이란 대체 뭐야? 대답해 봐, 알렉세이. 나한테는 내 덕이 있고 중국 사람한테는 다른 덕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아니야? 상대적인 게 아니야? 교활한 문제야! 이것 때문에 이틀 밤을 못 잤다고 해도 웃지 않겠지. 이제는 그저 저기 사람들이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놀라울 뿐이야. 헛된 일이야! 이반 형한테는 하느님이 없어. 형한테는 사상이 있어. 내 그릇으로는 감당 못 할 사상이. 그런데 형은 말이 없어. 나는 형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생각해. 물어봤는데 말이 없어. 그 샘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었는데, 말이 없어. 딱 한 번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는데?" 알료샤가 서둘러 받았다.

"내가 형한테 그랬지.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거야? 형이 얼굴을 찌푸렸어. '우리 아버님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돼지 새끼였지만 생각은 옳게 했어.' 형이 그래. 그런 말을 해 버렸어. 그게 다였어. 그건 라키틴보다 훨씬 더 지독해."

"그래." 알료샤가 쓰라리게 맞장구쳤다. "형이 언제 형한테 왔었어?"

"그건 나중에, 지금은 다른 이야기야. 나는 지금까지 이반 형에 대해 너한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끝까지 미뤄 두었어. 여기서 내 이 일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너한테 몇 가지 이야기할게, 다

이야기할게. 여기엔 무서운 일이 하나 있어…… 그리고 너는 이 일에서 내 재판관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은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 지금은 쉿이야. 너는 내일 일을, 재판 일을 이야기하지만, 믿어져?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 변호사하고 이야기했어?"

"변호사가 무슨! 그 사람한테 다 이야기했어. 부드러운 사기꾼이야, 수도 물 먹은. 베르나르야! 다만 부서진 동전 한 닢만큼도 나를 믿지 않아. 내가 죽였다고 믿어, 생각해 봐, 나는 벌써 알아. '그럼 그런 경우에 왜 나를 변호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물었지. 그 사람들 따위는 침이나 뱉으라지. 의사도 불러왔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는 못 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자기 의무'를 끝까지 다하고 싶어 해. 억지로라도!" 미탸가 쓰라리게 빙긋 웃었다. "고양이야! 모진 마음이야!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그때 모크로예에서 자기에 대해 한 말을, 그 여자가 '크나큰 분노를 품은' 여자라고 한 말을 알아! 누가 전했어. 그래, 진술이 바닷모래처럼 늘어났어! 그리고리는 자기 말을 고집해. 그리고리는 정직하지만 바보야. 많은 사람이 바보라서 정직해. 이건 라키틴의 생각이야. 그리고리는 내 원수야. 어떤 사람은 친구로 두기보다 원수로 두는 편이 더 이로워. 이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무서워, 아, 무서워, 그 여자가 재판에서 4천 5백 루블 다음의 그 땅에 엎드린 절 이야기를 할까 봐! 끝까지 갚을 거야, 마지막 한 호리까지. 그 여자의 희생은 바라지 않아! 그 사람들이 재판에서 나를 망신 줄 거야! 어떻게든 견딜 거야. 그 여자한테 가 줘, 알료샤, 재판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줘. 안 될까? 에이, 빌어먹을, 아무래도 좋아, 견딜 거야! 그 여자는 불쌍하지 않아. 자기가 바라는 거니까. 도둑은 벌을 받아 마땅해. 나는, 알렉세이, 내 연설을 할 거야." 그가 다시 쓰라리게 빙긋 웃었다. "다만…… 다만 그루샤가, 그루샤가,

주여! 그 여자는 무엇 때문에 이제 그런 고통을 짊어져야 하지!"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그루샤가 나를 죽이고 있어, 그 여자 생각이 나를 죽이고 있어, 죽이고 있어! 그 여자가 아까 나한테 왔었어……"

"나한테 이야기했어. 오늘 형 때문에 무척 속상해했어."

"알아. 내 성질머리는 빌어먹으라지. 질투를 했어! 보내면서 뉘우치고 입을 맞췄어. 용서는 빌지 않았어."

"왜 빌지 않았어?" 알료샤가 외쳤다.

미탸가 갑자기 거의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느님이 지켜 주시기를, 귀여운 녀석아, 언젠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특히, 특히, 네가 그 여자 앞에서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왜냐하면 여자란, 형제여, 그건 대체 무엇인지 악마나 알 일이니까, 적어도 여자에 대해서라면 나는 안다고! 자, 한번 여자 앞에서 잘못을 인정해 봐, '잘못했어, 용서해 줘, 미안해', 그러면 곧바로 비난이 우박처럼 쏟아질 거야! 절대로 곧장, 순순히 용서하지 않고 너를 걸레만큼 낮추고, 있지도 않은 일까지 끄집어내고, 다 들추고, 아무것도 잊지 않고, 제 것까지 보태고, 그러고 나서야 용서할 거야. 그것도 가장 나은, 가장 나은 여자가 그래!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긁어모아서 다 네 머리 위에 쌓아 올릴 거야, 정말이지 그런 가죽 벗기는 백정 근성이 그 여자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한테, 우리가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천사들한테 들어 있어! 봐, 착한 녀석아, 솔직하고 간단하게 말할게, 점잖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여자든 여자 하나의 구두 밑에 깔려 지내야 해. 이게 내 확신이야, 확신이 아니라 느낌이야. 남자는 너그러워야 하고, 그건 남자를 더럽히지 않아. 영웅도 더럽히지 않아, 카이사르도 더럽히지 않아! 그래도 용서는 빌지 마,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규칙을 기억해,

여자 때문에 망한 네 형 미탸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아니, 나는 차라리 용서를 빌지 않고 무언가로 그루샤의 마음을 얻을 거야. 나는 그 여자를 우러러, 알렉세이, 우러러! 다만 그 여자는 그걸 보지 못해, 아니, 그 여자한테는 사랑이 늘 모자라. 그리고 그 여자는 나를 애태워, 사랑으로 애태워. 예전과는 달라! 예전에는 지옥 같은 굽이들만 나를 애태웠는데, 지금은 그 여자의 영혼을 통째로 내 영혼에 받아들였고, 그 여자를 통해 나 자신이 인간이 되었어! 우리를 결혼시켜 줄까? 그러지 않으면 나는 질투로 죽을 거야. 날마다 무슨 꿈을 꾸어…… 그 여자가 너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했어?"

알료샤는 아까 그루셴카가 한 말을 모두 되풀이했다. 미탸는 자세히 듣고 많은 것을 되묻고는 만족했다.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는 걸 화내지 않는구나." 그가 외쳤다. "진짜 여자야! '나 자신도 마음이 모진 여자야.' 우, 나는 그런 여자들이 좋아, 모진 여자들이. 하기야 누가 나를 질투하는 건 못 참아, 못 참아! 우리는 싸울 거야. 하지만 사랑할 거야, 그 여자를 끝없이 사랑할 거야. 우리를 결혼시켜 줄까? 징역수도 결혼시켜 주나? 문제야. 그런데 나는 그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

미탸가 얼굴을 찌푸리고 방 안을 거닐었다. 방 안은 거의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무섭게 근심에 잠겼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비밀이라고 했다고? 나한테 셋이서 그 여자에 맞선 음모가 있고, '카치카'가 끼어 있다고? 아니야, 그루셴카, 그건 아니야. 너는 여기서 실수했어, 네 그 멍청한 여자다운 실수를! 알료샤, 착한 녀석아,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너한테 우리 비밀을 털어놓을게!"

그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자기 앞에 서 있는 알료샤에게 재빨리 바싹 다가가 비밀스러운 얼굴로 속삭이기 시작했는데, 하기야 실제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늙은 간수는 구석 긴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보초 병사들에게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너한테 우리 비밀을 다 털어놓을게!" 미탸가 서둘러 속삭였다. "나중에 털어놓으려고 했어, 너 없이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어? 너는 나한테 전부야. 이반 형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기는 하지만, 너는 나의 케루빔이야. 오직 네 결정이 결정할 거야. 어쩌면 이반 형이 아니라 바로 네가 더 높은 사람인지도 몰라. 봐, 이건 양심의 문제야, 더 높은 양심의 문제야, 너무나 중대한 비밀이라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너한테 미뤄 두었어. 그래도 지금 결정하기는 일러, 판결을 기다려야 하니까, 판결이 나오면 그때 네가 운명을 결정해. 지금은 결정하지 마, 지금 너한테 말할 테니 너는 듣기만 하고 결정하지 마. 가만히 서서 아무 말 마. 너한테 다는 털어놓지 않을게. 자세한 건 빼고 생각만 말할 테니, 너는 아무 말 마. 질문도, 몸짓도 하지 마, 알았지? 하기야, 주여, 네 눈은 어디다 치우지? 네가 말이 없더라도 네 눈이 결정을 말할까 봐 무서워. 우, 무서워! 알료샤, 들어 봐. 이반 형이 나한테 *달아나라고* 해. 자세한 건 말하지 않을게, 모든 게 미리 마련되어 있고, 모든 게 잘될 수 있어. 아무 말 마, 결정하지 마. 그루샤랑 아메리카로. 나는 그루샤 없이는 살 수 없잖아! 거기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내 주지 않으면 어떡해? 징역수도 결혼시켜 주나? 이반 형은 아니라고 해. 그런데 그루샤 없이 내가 거기 땅 밑에서 망치를 들고 뭘 하겠어, 그 망치로 내 머리나 부숴 버리겠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양심은? 고통에서 달아난 거잖아! 계시가 있었는데 계시를 물리쳤고, 정화의 길이 있었는데 뒤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반 형은 아메리카에서 '착한 마음씨만 있으면' 땅 밑에서보다 더 많은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 그럼 우리의 땅 밑 찬가는 어디서 부르지? 아메리카가 뭐야, 아메리카도 또 헛된 일이야! 게다가 아메리카에도

사기가 많을 거야, 내 생각엔. 십자가에서 달아난 거야! 알렉세이, 이걸 너한테 말하는 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 하나뿐이라서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내가 너한테 찬가에 대해 한 말 전부가 다 바보 같은 소리고 헛소리야. 미쳤다거나 바보라고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미치지 않았고 바보도 아니야. 찬가 이야기는 이반 형도 알아들어, 우, 알아들어, 다만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이 없어, 찬가를 믿지 않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네가 어떻게 보는지 나는 다 보여, 너는 벌써 결정했어! 결정하지 마, 나를 불쌍히 여겨 줘, 나는 그루샤 없이는 살 수 없어, 재판까지 기다려 줘!"

미탸는 미친 사람처럼 말을 맺었다. 그는 두 손으로 알료샤의 어깨를 붙잡고 목마르고 열에 들뜬 눈길로 알료샤의 눈에 그대로 매달렸다.

"징역수도 결혼시켜 주나?"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세 번째로 되풀이했다.

알료샤는 몹시 놀라며 들었고 깊이 충격을 받았다.

"한 가지만 말해 줘." 그가 말했다. "이반 형이 무척 고집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맨 처음 생각해 낸 게 누구야?"

"형이야, 형이 생각해 냈고 형이 고집해! 형은 줄곧 나한테 오지 않다가 한 주 전에 갑자기 와서 곧장 그 이야기부터 꺼냈어. 무섭게 고집해.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해. 내가 고분고분 따르리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 나는 너한테 하듯 형한테도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보여 주고 찬가 이야기도 했는데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야기해 줬어. 모든 정보를 모아 놓았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히스테리가 날 만큼 바라. 중요한 건 돈이야. 달아나는 데 1만 루블, 아메리카에 2만 루블이래. 그리고 1만 루블이면 굉장한 탈출을 마련할 수 있대."

"그리고 나한테는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어?" 알료샤가 다시 되물었다.

"절대로, 아무한테도. 그리고 무엇보다 너한테는. 너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대! 아마 네가 내 앞에 양심처럼 서게 될까 봐 무서운 거겠지. 내가 너한테 전했다고 형한테 말하지 마. 우, 말하지 마!"

"형 말이 옳아." 알료샤가 결론지었다. "재판 판결 전에는 결정할 수 없어. 재판이 끝나면 형이 직접 결정해. 그때 형은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찾아낼 거고, 그 사람이 결정할 거야."

"새로운 인간 아니면 베르나르겠지. 그놈은 베르나르답게 결정할 거야! 나 자신도 경멸스러운 베르나르인 것 같으니까!" 미탸가 쓰라리게 이를 드러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형, 무죄가 될 희망은 하나도 없는 거야?"

미탸는 경련하듯 어깨를 위로 으쓱하고는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알료샤, 착한 녀석아, 이제 갈 시간이야!" 그가 갑자기 서둘렀다. "소장이 마당에서 소리쳤어, 곧 이리 올 거야. 우리 너무 늦었어, 규칙에 어긋나. 어서 나를 안아 줘, 입 맞춰 줘, 성호를 그어 줘, 착한 녀석아, 내일의 십자가를 지라고 성호를 그어 줘……"

두 사람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이반 형은." 미탸가 갑자기 말했다. "달아나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내가 죽였다고 믿어!"

그의 입술에 서글픈 웃음이 억지로 배어 나왔다.

"형은 이반 형한테 물어봤어? 믿는지 안 믿는지?" 알료샤가 물었다.

"아니, 안 물어봤어.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힘이 모자랐어. 그래도 아무래도 좋아, 눈을 보면 알아. 자, 잘 가!"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서둘러 입을 맞추었고, 알료샤가 막 나가려는데 갑자기 미탸가 다시 그를 불렀다.

"내 앞에 서 봐, 이렇게."

그리고 그는 다시 두 손으로 알료샤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완전히 창백해져서 거의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무섭도록 눈에 띄었다. 입술이 일그러졌고, 눈길이 알료샤에게 매달렸다.

"알료샤, 주 하느님 앞에서처럼 나한테 온전한 진실을 말해 줘. 너는 내가 죽였다고 믿어, 안 믿어? 너는, 바로 너 자신은 믿어, 안 믿어? 온전한 진실을, 거짓말하지 마!" 그가 미친 듯이 알료샤에게 소리쳤다.

알료샤는 온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그의 가슴속으로, 그는 그것을 들었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만해, 형 왜 그래……" 그가 넋 나간 사람처럼 더듬거렸다.

"진실을 다, 다 말해, 거짓말하지 마!" 미탸가 되풀이했다.

"형이 살인자라고는 단 1분도 믿은 적 없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가 알료샤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고, 그는 마치 하느님을 자기 말의 증인으로 부르듯 오른손을 위로 쳐들었다. 순식간에 미탸의 얼굴 전체에 지복이 환하게 번졌다.

"고마워!" 그가 기절했다가 깨어나며 한숨을 내쉬듯 길게 말했다. "이제 네가 나를 되살렸어…… 믿어져? 지금까지 너한테 묻기가 무서웠어, 바로 너한테, 너한테! 자, 가, 가! 내일을 위해 네가 나를 굳세게 해 주었어, 하느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자, 가, 이반 형을 사랑해 줘!" 마지막 말이 미탸에게서 터져 나왔다.

알료샤는 온통 눈물에 젖어 밖으로 나왔다. 미탸가 이토록 의심이 많다는 것, 그에게까지, 알료샤에게까지 이토록 믿음이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알료샤 앞에 불행한 형의 영혼 속에 있는, 예전에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출구 없는 슬픔과 절망의 심연을 열어 보였다. 깊고 끝없는 연민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아 순식간에 그를 괴롭혔다. 꿰뚫린 그의 가슴이 무섭게 아팠다. "이반 형을 사랑해 줘!" 방금 들은 미탸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는 바로 이반에게 가는 길이었다. 그는 벌써 아침부터 이반을 몹시 만나야 했다. 미탸 못지않게 이반이 그를 괴롭혔는데, 이제 형을 만나고 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했다.

---

1. 라틴어 격언 「취향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없다(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에서 '취향(gustibus)' 자리에 러시아어 '미슬(생각)'을 라틴어 꼴로 꾸며 넣은 엉터리 말장난이다. 「생각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제5장 형이 아니야, 형이 아니야!

이반에게 가는 길에 그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세 들어 사는 집 앞을 지나야 했다. 창문에 불빛이 있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벌써 한 주 넘게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반이 지금, 특히 그런 날의 전날이니, 그 여자의 집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 머리에 떠올랐다. 초인종을 누르고 중국식 초롱이 흐릿하게 비추는 계단으로 들어서다가, 그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았고, 가까이 마주치자 그것이 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형은 벌써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 나오는 길이었다.

"아, 너구나." 이반 표도로비치가 메마르게 말했다. "그럼 잘 가. 그 여자한테 가는 거야?"

"응."

"권하지 않겠어. 그 여자는 '흥분해' 있어. 네가 가면 더 심란하게 만들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식간에 열린 문에서 위쪽으로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소리쳤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이한테서 오시는 길이에요?"

"네, 형한테 다녀왔어요."

"나한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알료샤. 그리고 이반 표도로비치, 당신도 꼭, 꼭 되돌아오세요. 들-리-세-요!"

카탸의 목소리에 어찌나 명령조의 가락이 울렸던지, 이반 표도로비치는 한순간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알료샤와 함께 다시 올라가기로 했다.

"엿들었군!" 그가 짜증스럽게 혼잣말로 속삭였지만 알료샤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외투를 입은 채로 있게 해 주십시오." 이반 표도로비치가 응접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앉지도 않겠습니다. 1분 넘게는 있지 않을 겁니다."

"앉으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자기는 선 채로 말했다. 그 여자는 그동안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두운 눈이 불길한 불꽃으로 번득였다. 알료샤는 나중에, 그 순간 그 여자가 무척 아름다워 보였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 그이가 무슨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딱 한 가지요." 알료샤가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몸을 아끼시라고, 그리고 재판에서 그 일을 아무것도 진술하지 마시라고요……" 그가 조금 머뭇거렸다.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맨 처음 아는 사이가 되었을 때…… 그 도시에서요……"

"아, 그 돈 때문에 땅에 엎드려 한 절 이야기군요!" 그 여자가 쓰라리게 웃음을 터뜨리며 받았다. "그래서, 그이는 자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네? 그이가 아끼라고 했다고요. 누구를요? 그이를요, 나를요? 말해 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알료샤는 그 여자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부인 자신도, 형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겠지요." 그 여자가 어딘지 독살스럽게 또박또박 내뱉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은 아직 나를 몰라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 여자가 위협하듯 말했다. "나도 아직 나를 몰라요.

어쩌면 내일 신문이 끝나면 당신은 나를 발로 짓밟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정직하게 진술하실 거예요." 알료샤가 말했다. "그거면 돼요."

"여자는 흔히 정직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이를 갈듯 말했다. "나는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악당한테 손대기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파충류한테 손대듯……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나한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죽였을까요? 그 사람이 죽였어요?" 그 여자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재빨리 돌아서며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듯 외쳤다. 알료샤는 그 여자가 바로 이 질문을 어쩌면 그가 오기 겨우 1분 전에도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했으며,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백 번째였고, 두 사람이 싸움으로 끝냈다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나는 스메르댜코프한테 갔었어…… 그 사람이 아비를 죽인 놈이라고 나를 설득한 건 너야, 너라고. 나는 너만 믿었어!" 그 여자가 줄곧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몸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이반은 억지로 빙긋 웃는 듯했다. 그 *반말*을 듣고 알료샤는 몸을 떨었다. 그는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자, 이제 그만해." 이반이 딱 잘라 말했다. "나는 가겠어. 내일 올게." 그리고 곧바로 돌아서서 방을 나가 곧장 계단으로 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어딘지 명령하는 몸짓으로 알료샤의 두 손을 붙잡았다.

"저 사람을 따라가요! 따라잡아요! 저 사람을 단 1분도 혼자 두지 마요." 그 여자가 빠르게 속삭였다.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어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는 걸 몰라요? 저 사람은 열병이에요, 신경성 열병이요! 의사가 나한테 그랬어요. 가요, 저 사람을 쫓아 뛰어가요……"

알료샤는 벌떡 일어나 이반 표도로비치를 쫓아 달려갔다. 이반은 쉰 걸음도 채 가지 못했다.

"뭐야?" 그가 알료샤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에게 돌아섰다. "내가 미쳤으니까 나를 쫓아 뛰어가라고 했겠지. 다 외우고 있어." 그가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물론 그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지만, 형이 아프다는 건 그분 말이 맞아." 알료샤가 말했다. "방금 그분 집에서 형 얼굴을 봤어. 형 얼굴은 무척 아파 보여, 무척, 이반 형!"

이반은 멈추지 않고 걸었다. 알료샤도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너는 알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사람이 어떻게 미쳐 가는지?" 이반이 아주 갑자기, 조금도 짜증스럽지 않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서 별안간 더없이 순박한 호기심이 들렸다.

"아니, 몰라. 미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자기가 미쳐 간다는 걸 자기 스스로 지켜볼 수 있을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를 또렷이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아." 알료샤가 놀라서 대답했다. 이반은 30초쯤 입을 다물었다.

"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제발 화제를 바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 잊어버리기 전에, 형한테 편지가 있어." 알료샤가 머뭇거리며 말하고는 주머니에서 리자의 편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들은 마침 가로등 앞에 이르렀다. 이반은 곧바로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아, 그 꼬마 악마한테서 왔군!" 그가 독살스럽게 웃음을 터뜨리고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갑자기 여러 조각으로 찢어 바람에 날려 버렸다. 종잇조각들이 흩어져 날아갔다.

"아마 아직 열여섯 살도 안 됐을 텐데 벌써 제 몸을 내놓는군!" 그가 다시 거리를 걸어가며 경멸하듯 말했다.

"내놓다니?" 알료샤가 외쳤다.

"뻔하지, 타락한 여자들이 제 몸을 내놓듯이."

"형 무슨 소리야, 이반 형, 무슨 소리야?" 알료샤가 비통하고 뜨겁게 감쌌다. "그 애는 아이야, 형은 아이를 모욕하고 있어! 그 애는 아파, 그 애 자신이 무척 아파, 그 애도 어쩌면 미쳐 가는지도 몰라…… 나는 그 애 편지를 형한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 나는 오히려 형한테서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 그 애를 구하려고."

"나한테서 들을 말은 없어. 그 애가 아이라면 나는 그 애 유모가 아니야. 그만해, 알렉세이. 계속하지 마. 나는 그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1분쯤 입을 다물었다.

"그 여자는 이제 밤새도록 성모께 기도하겠지. 내일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그가 갑자기 다시 날카롭고 독살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 형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미텐카를 구해 주는 여자로 나설까, 망쳐 놓는 여자로 나설까? 제 영혼을 비춰 달라고 기도하겠지. 자기도, 보시다시피, 아직 모르는 거야, 미처 채비하지 못한 거지. 그 여자도 나를 유모로 여겨. 내가 자기를 달래서 재워 주기를 바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형을 사랑해, 형." 알료샤가 서글픈 마음으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다만 나는 그 여자가 내키지 않아."

"그분은 괴로워하고 있어. 그런데 형은 왜 그분한테…… 이따금…… 그분이 희망을 품게 하는 말을 해?" 알료샤가 머뭇거리며 나무라듯 말을 이었다. "형이 그분한테 희망을 주었다는 거 나는 알아.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그가 덧붙였다.

"여기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할 수가 없어. 끊어 버리고 그 여자한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 이반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살인자에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지금 그 여자와 끊으면, 그 여자는 나한테 앙갚음하려고 바로 내일 재판에서 그 망나니를 망쳐 놓을 거야, 그 여자는 그놈을 미워하고, 자기가 미워한다는 걸 알거든. 여기는 모든 게 거짓이야, 거짓 위에 거짓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여자와 끊지 않는 동안은 그 여자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어서, 내가 그 악당을 궁지에서 얼마나 꺼내 주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놈을 망쳐 놓지 않을 거야. 그 빌어먹을 판결은 대체 언제나 내려질까!"

"살인자"와 "악당"이라는 말이 알료샤의 가슴에 아프게 울렸다.

"그분이 무엇으로 미탸 형을 망쳐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가 이반의 말을 곰곰이 따져 보며 물었다. "미탸 형을 곧바로 파멸시킬 수 있을 만한 무슨 진술을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는 아직 그걸 몰라. 그 여자 손에 문서가 하나 있어, 미텐카가 직접 쓴 문서야, 그놈이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죽였다는 걸 수학처럼 증명하는 문서야."

"그럴 리가 없어!" 알료샤가 외쳤다.

"그럴 리가 없다니? 내가 직접 읽었어."

"그런 문서는 있을 리가 없어!" 알료샤가 열을 올려 되풀이했다. "있을 리가 없어, 살인자는 형이 아니니까. 아버지를 죽인 건 형이 아니야, 형이 아니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럼 당신 생각에는 누가 살인자입니까?" 그가 보기에 어딘지 차갑게 물었고, 그 물음의 말투에는 어딘지 오만한 가락까지 울렸다.

"누군지 형 스스로 알잖아." 알료샤가 조용히, 가슴에 스미듯 말했다.

"누구? 그 정신 나간 간질병 백치에 대한 꾸며 낸 이야기 말이야? 스메르댜코프 말이야?"

알료샤는 갑자기 자기가 온몸을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지 형 스스로 알잖아." 힘없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숨이 막혔다.

"그러니까 누구, 누구냐고?" 이반이 이제는 거의 사납게 소리쳤다. 자제하던 기색이 모두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한 가지만 알아." 알료샤가 여전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를 죽인 건 *형이 아니야*."

"'형이 아니야'라니! 형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반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를 죽인 건 형이 아니야, 형이 아니야!" 알료샤가 단호하게 되풀이했다.

30초쯤 침묵이 이어졌다.

"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너 헛소리하는 거야?" 이반이 창백하고 일그러진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는 눈으로 알료샤에게 매달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다시 가로등 곁에 서 있었다.

"아니야, 이반 형, 형은 형 자신한테 살인자는 바로 형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언제 말했어?…… 나는 모스크바에 있었어…… 내가 언제 말했어?" 이반이 완전히 넋이 나가 더듬거렸다.

"형은 이 무서운 두 달 동안 혼자 있을 때 그 말을 자기한테 여러 번 했어." 알료샤가 여전히 조용히,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어딘지 제정신이 아닌 듯이, 제 뜻이 아닌 듯이, 무언가 거스를 수 없는 명령에 따르듯이 말하고 있었다. "형은 자기를 고발했고, 살인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라고 자기한테 털어놓았어. 하지만 죽인 건

형이 아니야. 형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살인자는 형이 아니야, 내 말 들려, 형이 아니야! 하느님이 그 말을 형한테 하라고 나를 보내셨어."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은 꼬박 긴 1분 동안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선 채로 줄곧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둘 다 창백했다. 갑자기 이반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알료샤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너 우리 집에 왔었지!" 그가 이를 가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놈이 왔던 밤에 너 우리 집에 왔었지…… 털어놔…… 너 그놈을 봤지, 봤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탸 형 이야기야?" 알료샤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놈 말고, 그 악당은 집어치워!" 이반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놈이 나한테 드나든다는 걸 네가 정말 알아? 어떻게 알았어, 말해!"

"그놈이 누구야? 형이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알료샤가 이제는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아니, 너는 알아……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어떻게…… 네가 모를 리가 없어……"

그러나 그는 갑자기 자기를 억누른 것 같았다. 그는 선 채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이상한 웃음이 그의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형." 알료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다. "내가 형한테 그 말을 한 건, 형이 내 말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야, 나는 그걸 알아. 나는 평생을 걸고 형한테 그 말을 했어, *형이 아니야!* 들려, 평생을 걸고. 그리고 형이 이 시간부터 영원히 나를 미워하게 된다 해도 형한테 그 말을 하라고 하느님이 내 영혼에 놓아 주셨어……"

그러나 이반 표도로비치는 보기에 이미 완전히 자기를 다잡은 것 같았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가 차가운 웃음을 띠고 말했다. "나는 예언자와 간질 환자를 참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자는 더욱 그렇지요,

당신도 그건 너무 잘 아시지요.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과 절교합니다, 아마 영원히. 지금 당장 이 네거리에서 나를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당신 하숙으로 가는 길은 이 골목이지요. 특히 오늘 우리 집에 들르는 건 조심하십시오! 들리십니까?"

그는 돌아서서 단단한 걸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형." 알료샤가 그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오늘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보다 먼저 나를 생각해!……"

그러나 이반은 대답하지 않았다. 알료샤는 이반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네거리의 가로등 곁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골목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와 이반 표도로비치는 따로따로, 서로 다른 하숙에서 지냈으니, 두 사람 모두 텅 빈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알료샤는 어느 소시민 가족의 집에서 가구 딸린 방을 빌려 지냈고,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에게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넉넉한 관리의 과부가 가진 어느 훌륭한 집의 별채에서 넓고 꽤 안락한 거처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별채 전체에서 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은 아주 늙고 귀가 완전히 먹은 데다 온몸이 류머티즘투성이인 노파 하나뿐이었는데, 노파는 저녁 여섯 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났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 두 달 동안 이상할 만큼 까다롭지 않게 되었고, 아주 혼자 있기를 무척 좋아했다. 자기가 쓰는 방조차 자기 손으로 치웠고, 거처의 나머지 방에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다. 자기 집 대문에 이르러 벌써 초인종 손잡이를 잡았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자기가 아직도 온몸을 독살스러운 떨림으로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는 초인종을 놓고 침을 탁 뱉더니, 되돌아서서 다시 빠르게 읍의 완전히 다른 쪽, 반대편 끝으로, 자기 하숙에서 2베르스타쯤 떨어진 곳으로, 작고 기울어진 통나무집 한 채로 걸어갔는데, 거기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예전 이웃으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네 부엌에 수프를 얻으러 오곤 했고, 그때 스메르댜코프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 주던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세 들어 살았다. 그 여자는 예전의 작은 집을 팔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거의 농가나 다름없는 집에서 살았는데, 앓아누워 거의 죽어 가는 스메르댜코프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죽은 그때부터 그들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지금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였는데, 하나의 갑작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생각이 그를 그리로 끌고 갔다.

제6장 스메르댜코프와 처음 만나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뒤 스메르댜코프와 이야기하러 가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참사가 있은 뒤 처음으로 그를 보고 그와 이야기한 것은 도착한 바로 첫날이었고, 그다음 두 주 뒤에 한 번 더 그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뒤로는 스메르댜코프와 만나기를 그만두어서, 이제 그를 보지 못하고 그에 대해 거의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때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죽은 지 닷새째 되는 날이어서 관조차 보지 못했으니, 장례가 바로 그가 도착하기 전날 치러졌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늦어진 까닭은, 알료샤가 그의 모스크바 주소를 정확히 몰라 전보를 보내려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기댔는데, 그 여자도 진짜 주소를 몰라서 이반 표도로비치가 모스크바에 닿자마자 곧바로 들르리라 짐작하고 자기 언니와 이모에게 전보를 쳤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도착하고 나흘째에야 그들에게 들렀고, 전보를 읽자 물론 곧바로 정신없이 우리에게로 날아왔다. 우리 고장에서 그는 맨 먼저 알료샤를 만났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알료샤가 미탸를 의심하려 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읍의 다른 모든 의견과 어긋나게 스메르댜코프를 곧장 살인자로 지목하는 데 무척 놀랐다. 그 뒤 군 경찰서장과 검사를 만나 기소와 체포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나서는 알료샤에게 더욱 놀랐고, 그의 의견을 오로지 극도로 들끓는 형제애와 미탸에 대한 연민 탓으로 돌렸는데, 알료샤가 미탸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은 이반도 알고 있었다.

내친김에 이반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형에게 품은 감정에 대해 딱 두 마디만, 이번 한 번으로 말해 두자면, 그는 형을 단연코 좋아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이따금 연민을 느낄 뿐이었는데, 그것도 혐오에 이를 만큼 커다란 경멸이 섞인 연민이었다. 미탸의 모든 것이, 그 생김새까지 그에게는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미탸를 사랑하는 것을 이반은 분개하며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도착한 첫날 피고 미탸와도 만났는데, 이 만남은 미탸가 유죄라는 그의 확신을 약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게 했다. 그때 그가 본 형은 불안해했고 병적으로 흥분해 있었다. 미탸는 말이 많았지만 정신이 산만하고 이리저리 흩어졌으며, 무척 거칠게 말하고, 스메르댜코프를 고발하고, 무섭게 갈피를 잃었다. 무엇보다 고인이 자기한테서 "훔쳤다"는 바로 그 3천 루블 이야기를 줄곧 했다. "그 돈은 내 거야, 내 거였어." 미탸가 되풀이했다. "내가 그걸 훔쳤다 해도 나는 옳았을 거야."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거의 반박하지 않았고, 사실을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할 때도 역시 몹시 두서없고 터무니없었으며, 대체로 이반이든 누구 앞에서든 아예 해명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고발을 오만하게 무시하고, 욕을 하고 펄펄 끓었다. 열린 문에 대한 그리고리의 증언은 그저 경멸하듯 비웃으며 "악마가 열었다"고 우겼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조리 있는 해명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캐물을 일은 아니라고 날카롭게 말해 버려 이반 표도로비치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대체로 이번에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무척 쌀쌀맞았다. 미탸와 이렇게 만나고 나서 곧바로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때 스메르댜코프에게로 갔다.

모스크바에서 날아오는 기차 안에서부터 그는 줄곧 스메르댜코프를, 그리고 떠나기 전날 저녁 그와 나눈 마지막 이야기를 생각했다. 많은

것이 그를 흔들었고, 많은 것이 수상쩍어 보였다. 그러나 예심판사에게 진술을 할 때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 이야기를 당분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모든 것을 스메르댜코프와 만날 때까지 미루었다. 스메르댜코프는 그때 읍의 병원에 있었다. 게르첸시투베 의사와 이반 표도로비치가 병원에서 마주친 바르빈스키 의사는 이반 표도로비치가 끈질기게 묻자 스메르댜코프의 간질은 틀림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고, "참사가 있던 날 그가 꾀병을 부린 것은 아닙니까?"라는 물음에는 놀라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 발작이 오히려 예사롭지 않았다고, 며칠 동안 이어지고 되풀이되어 환자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웠으며, 이런저런 조치를 한 지금에야 환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그에게 알려 주었다. 하기야 그의 이성이 "평생은 아니더라도 꽤 오랫동안" 얼마쯤 흐트러진 채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게르첸시투베 의사가 덧붙였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미쳤다는 말입니까?" 이반 표도로비치가 참을성 없이 묻자, "온전한 뜻에서는 아직 아니지만 몇 가지 비정상이 보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 비정상이 어떤 것인지 몸소 알아보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곧바로 면회를 허락해 주었다. 스메르댜코프는 독방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다. 바로 그의 곁에 침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종으로 온몸이 부어오른 기운 없는 읍의 소시민 하나가 보기에도 내일이나 모레쯤 죽을 듯이 누워 있어서 이야기에 방해가 될 수는 없었다. 스메르댜코프는 이반 표도로비치를 보자 미심쩍은 듯 이를 드러내고 웃었고, 첫 순간에는 겁을 먹기까지 한 것 같았다. 적어도 이반 표도로비치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었고, 그 뒤로는 내내 오히려 스메르댜코프의 침착함이 그를 거의 놀라게 했다. 첫눈에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가 완전히, 그리고 몹시 병든 상태라는 것을 틀림없이 확신했으니, 그는 무척 쇠약했고, 혀를 겨우

굴리듯 천천히 말했으며, 무척 여위고 누렇게 떴다. 20분쯤 되는 면회 내내 그는 두통과 온몸 마디마디가 쑤신다고 하소연했다. 거세된 사람 같은 그의 메마른 얼굴은 어쩐지 아주 작아진 것 같았고, 관자놀이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앞머리 대신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가닥만 위로 삐죽 솟아 있었다. 그러나 가늘게 뜬, 무언가를 넌지시 비치는 듯한 왼쪽 작은 눈이 예전의 스메르댜코프를 드러냈다. 곧바로 이반 표도로비치의 머리에 "똑똑한 사람과는 이야기만 나눠도 재미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는 스메르댜코프의 발치 쪽 걸상에 앉았다. 스메르댜코프는 괴로운 듯 침대 위에서 온몸을 꿈틀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고, 이제는 그리 궁금하지 않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반 표도로비치가 물었다. "많이 지치게 하지는 않을게."

"아주 할 수 있습죠." 스메르댜코프가 힘없는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오래전에 오셨습니까요?" 그가 거북해하는 방문객을 북돋아 주기라도 하듯 너그럽게 덧붙였다.

"아니, 오늘 막 왔어…… 너희 여기서 쑤어 놓은 죽을 떠먹으러."

스메르댜코프가 한숨을 쉬었다.

"왜 한숨을 쉬어, 너는 알고 있었잖아?" 이반 표도로비치가 대놓고 툭 내뱉었다.

스메르댜코프는 점잖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요? 미리 뻔했습죠. 다만 그렇게 끌고 갈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요?"

"뭘 끌고 가? 얼버무리지 마! 지하실로 내려가자마자 간질이 일어나리라고 네가 예언했잖아? 지하실이라고 딱 짚어서 말했잖아."

"그걸 벌써 신문에서 진술하셨습니까요?" 스메르댜코프가 침착하게 궁금해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화를 냈다.

"아니, 아직 진술하지 않았지만 꼭 진술할 거야. 이봐, 너는 지금 나한테 많은 걸 밝혀 줘야 해. 그리고 알아 둬, 이 친구야, 나는 나를 가지고 놀게 두지 않을 거야!"

"제가 무엇 하러 그런 놀이를 하겠습니까요, 제 모든 소망이 나리께 있는데요, 오직 주 하느님께 거는 것처럼 말입죠!" 스메르댜코프가 여전히 아주 침착하게, 그저 잠깐 작은 눈을 감으며 말했다.

"첫째." 이반 표도로비치가 따지기 시작했다. "간질은 미리 예언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아. 알아봤어, 얼버무리지 마. 날짜와 시각은 예언할 수 없어. 그런데 너는 그때 어떻게 나한테 날짜와 시각을, 게다가 지하실까지 예언했지? 일부러 간질인 척하지 않았다면, 발작이 나서 하필 그 지하실로 굴러떨어지리라는 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지?"

"지하실에는 그러지 않아도 가야 했습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요." 스메르댜코프가 서두르지 않고 길게 늘였다. "꼭 그렇게 한 해 전에는 다락에서 굴러떨어졌습죠. 간질을 날짜와 시각까지 미리 예언할 수 없다는 건 반드시코 그렇습니다만, 예감은 늘 할 수 있습죠."

"그런데 너는 날짜와 시각을 예언했어!"

"제 간질병에 대해서는요, 나리, 이 고장 의사 선생님들께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죠. 진짜였는지 진짜가 아니었는지요. 저는 이 일에 대해 나리께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요."

"그럼 지하실은? 지하실은 어떻게 미리 알았어?"

"그놈의 지하실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십니까요! 저는 그때 그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무섭고 으심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나리를 잃어버리구서 이제 온 세상에서 아무한테도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죠. 그때 그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요. '이제 오겠지, 이제 덮치겠지, 굴러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런데 바로

그 으심 때문에 갑자기 목에서 그 피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났습죠…… 그래서 굴러떨어졌습죠. 이 모든 걸, 그리고 그 전날 저녁 대문 곁에서 나리와 나눈 앞서 이야기를 다, 제가 그때 나리께 제 두려움이며 지하실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까지 다 저는 게르첸시투베 의사 선생님과 예심판사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께 자세히 밝혔고, 그분들은 다 조서에 적었습죠. 그리고 이 고장 의사 바르빈스키 선생님은 그분들 모두 앞에서 바로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하는 바로 그 의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특히 강조하셨습죠. 그런데 거기서 그게 덮쳐 온 겁니다요. 그래서 반드시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오로지 제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었습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스메르댜코프는 피로에 지친 듯 깊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너는 그걸 벌써 진술했단 말이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조금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는 바로 그때 나눈 이야기를 밝히겠다며 그를 겁주려 했는데, 알고 보니 스메르댜코프가 이미 스스로 다 밝혀 버린 것이다.

"제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요? 참된 진실을 다 적으라지요." 스메르댜코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대문 곁에서 너하고 나눈 이야기도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말했어?"

"아니요,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는 아닙니다요."

"그럼 그때 나한테 자랑한 대로 간질인 척할 줄 안다는 것도 말했어?"

"아니요,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죠."

"이제 말해 봐. 너는 그때 무엇 때문에 나를 체르마시냐로 보내려 했어?"

"나리께서 모스크바로 떠나실까 봐 겁이 났습죠. 체르마시냐는 그래도 더 가까우니까요."

"거짓말. 너는 나더러 떠나라고 직접 권했잖아. 떠나세요, 죄 될 일은 피해 가세요, 그렇게 말했잖아!"

"그건 그때 오로지 나리께 품은 우정과 제 진심 어린 충성심으로, 집안에 탈이 날 것을 예감하고 나리를 가엾게 여겨서 그런 겁니다요. 다만 나리보다 제 자신을 더 가엾게 여겼습죠. 그래서 죄 될 일은 피해 가시라고 말한 겁니다요. 집에서 나쁜 일이 생기리라는 걸 나리께서 알아들으시고 남아서 아버님을 지켜 주시라고요."

"그럼 좀 더 똑바로 말했어야지, 이 바보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더 똑바로 말씀드릴 수 있었겠습니까요? 제 안에서는 오직 두려움만 말하고 있었습죠. 게다가 나리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었고요. 저는 물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무슨 소동을 벌이시고 바로 그 돈을 가져가시지나 않을까 걱정할 수는 있었습죠, 그 돈을 당신 돈이나 다름없이 여기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살인짓으로 끝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요? 저는 그분이 그저 나리 요 밑에 봉투에 들어 있던 그 3천 루블을 훔쳐 가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죽이셨습죠. 나리께선들 어찌 짐작하셨겠습니까요?"

"네 입으로 짐작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알아채고 남아 있을 수 있었겠어? 너 무슨 말을 뒤죽박죽으로 하는 거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곰곰이 따져 보며 말했다.

"제가 나리를 그 모스크바 대신 체르마시냐로 가시게 했으니 바로 그것으로 알아채실 수 있었습죠."

"대체 그걸로 어떻게 알아채!"

스메르댜코프는 무척 지친 것 같았고, 다시 1분쯤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것으로 알아채실 수 있었습죠, 제가 나리를 모스크바에서 체르마시냐로 돌려 드린다면, 그건 나리께서 여기 가까이 계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니까요, 모스크바는 멀지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나리가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는 걸 알구서는 그리 기운을 내지 못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더 빨리 와서 지켜 주실 수도 있었습죠, 게다가 제 입으로 그리고리 바실리치의 병도 짚어 드렸고, 제가 간질을 무서워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께 들어갈 수 있는 그 두드리는 신호를 나리께 설명해 드리고, 그게 저를 통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 다 알려졌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 그분이 틀림없이 무슨 일을 저지르시리라는 걸 나리께서 그때 스스로 알아채시고, 체르마시냐는커녕 아예 남아 계시리라고 생각했습죠."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는군." 이반 표도로비치가 생각했다. "웅얼거리기는 해도. 게르첸시투베가 말한 그 정신 능력의 흐트러짐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거야?"

"너 나하고 꾀를 부리는구나, 빌어먹을 놈!" 그가 화가 나서 외쳤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나리께서 벌써 다 알아채신 줄 알았습죠." 스메르댜코프가 더없이 순박한 얼굴로 받아넘겼다.

"알아챘다면 남았겠지!" 이반 표도로비치가 다시 버럭 하며 소리쳤다.

"그렇습죠, 그런데 저는 나리께서 모든 걸 다 짐작하시구서, 그저 죄될 일을 피하시려고, 그저 어디로든 달아나서 두려움에서 제 몸을 구하시려고 되도록 빨리 떠나시는 줄로만 알았습죠."

"너는 모두가 너만큼 겁쟁이인 줄 알았냐?"

"용서해 주십쇼, 나리도 저와 같은 줄 알았습죠."

"물론 알아챘어야 했지." 이반이 흥분했다. "그리고 나는 네 쪽에서 무언가 추잡한 짓을 하리라는 건 짐작했어…… 다만 너는 거짓말을 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리쳤다. "기억나?

그때 네가 마차로 다가와서 나한테 '똑똑한 사람과는 이야기만 나눠도 재미있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칭찬까지 한 걸 보면 내가 떠나서 기뻤다는 거잖아?"

스메르댜코프는 다시,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도는 것 같았다.

"기뻤다면." 그가 조금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건 오로지 모스크바가 아니라 체르마시냐로 가시기로 동의하셨기 때문입죠. 그래도 그게 더 가까우니까요. 다만 저는 그 말을 그때 칭찬으로 드린 게 아니라 나무라느라 드린 겁니다요. 나리께선 그걸 알아듣지 못하셨습죠."

"뭘 나무랐다는 거야?"

"그런 탈이 날 걸 예감하시면서도 친아버님을 버려두고 가시고 저희를 지켜 주시려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그 3천 루블 때문에 언제든 제가 훔쳤다고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빌어먹을 놈!" 이반이 다시 욕을 했다. "잠깐, 너는 그 신호를, 그 두드리는 소리를 예심판사와 검사한테 밝혔어?"

"있는 그대로 다 밝혔습죠."

이반 표도로비치는 다시 속으로 놀랐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다면."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건 오로지 네 쪽의 무슨 추잡한 짓에 대한 거였어. 드미트리는 죽일 수는 있어도 훔치리라고는 그때 나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네 쪽에서는 온갖 추잡한 짓을 다 예상했어. 간질인 척할 줄 안다고 네가 직접 나한테 말했잖아. 그 말은 왜 했어?"

"오로지 제 순박함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평생 한 번도 일부러 간질인 척한 적이 없습니다요. 그저 나리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요. 순전히 어리석은 짓이었습죠. 저는 그때 나리를 무척 좋아하게 돼서 아주 순박하게 나리를 대했습죠."

"형은 네가 죽이고 네가 훔쳤다고 대놓고 너를 고발해."

"그분한테 달리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요?" 스메르댜코프가 쓰라리게 이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있는데 누가 그분 말을 믿겠습니까요?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께서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셨는데, 그다음에야 어쩌겠습니까요. 뭐, 하느님이 그분과 함께하시기를! 제 몸을 구하려고 떨고 계시는 겁니다요……"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헤아린 듯 덧붙였다.

"그러니까 말씀입죠, 또 바로 그 일입니다요, 그분은 그게 제 손이 한 짓이라고 저한테 뒤집어씌우고 싶어 하십니다요, 그건 저도 벌써 들었습죠, 그런데 바로 이것만 해도, 제가 간질인 척하는 데 도사라는 것만 해도요, 정말로 그때 제가 나리 아버님께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었다면 제가 꾀병을 부릴 줄 안다고 나리께 미리 말씀드렸겠습니까요? 제가 그런 살인짓을 꾸몄다면, 저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증거를 미리 말할 만큼, 그것도 친아드님께 말할 만큼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세상에요?! 그게 그럴듯한 일입니까요? 그런 일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전혀 절대로 아닙죠. 지금 나리와 저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섭리 말고는 아무도 듣지 않습죠, 그런데 나리께서 검사님과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께 알려 주신다면 바로 그것으로 저를 끝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을 겁니다요, 미리 그렇게 순박하다면 그게 무슨 악당이겠습니까요? 그런 건 그분들이 아주 잘 따져 보실 수 있습죠."

"이봐." 스메르댜코프의 마지막 논거에 놀란 이반 표도로비치가 이야기를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너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너를 고발하는 건 우습다고까지 생각해…… 오히려 네가 내 마음을

놓이게 해 줘서 고마워. 이제 가 보겠지만 또 들를게. 그럼 잘 있어, 몸조리 잘 해. 필요한 건 없어?"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요.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제게 필요한 게 있으면 예전처럼 착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거들어 주십니다요. 날마다 착한 분들이 찾아와 주십니다요."

"잘 있어. 그런데 네가 꾀병을 부릴 줄 안다는 건 나는 말하지 않겠어…… 너도 진술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반이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말했다.

"아주아주 잘 알겠습죠. 나리께서 그걸 진술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그때 대문 곁에서 나리와 나눈 이야기를 다는 밝히지 않겠습니다요……"

그때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밖으로 나왔는데, 복도를 열 걸음쯤 걸어가고 나서야 문득 스메르댜코프의 마지막 말에 무언가 모욕적인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되돌아가려 했지만 그것은 그저 머리를 스쳤을 뿐이었고, 그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내뱉고는 서둘러 병원을 나왔다. 무엇보다 그는 정말로 마음이 놓였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도 바로 죄가 있는 사람이 스메르댜코프가 아니라 형 미탸라는 사정 때문이었는데, 생각대로라면 반대가 되어야 했을 것 같았다. 왜 그런지 그는 그때 따져 보고 싶지 않았고, 자기 느낌을 파헤치는 것이 역겹기까지 했다. 그는 어서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싶은 것 같았다. 그 뒤 며칠 동안 미탸를 짓누르는 모든 증거를 더 가깝고 철저하게 알게 되자 그는 미탸가 유죄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다. 더없이 하찮은 사람들의 진술이었지만 거의 충격적인 진술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페냐와 그 어머니의 진술이었다. 페르호틴이며 술집이며 플로트니코프네 가게며 모크로예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세부가 짓눌렀다. 비밀스러운 "두드리는 신호"에 대한 소식은 열린 문에 대한 그리고리의 진술과 거의 같은 정도로 예심판사와 검사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리의 아내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는 이반 표도로비치가 묻자, 스메르댜코프가 밤새도록 자기들 칸막이 뒤에 누워 있었고 "우리 침대에서 세 걸음도 안 떨어져 있었다"고, 자기는 깊이 잠들기는 했지만 그가 거기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 번 깼다고, "내내 신음했어요, 쉬지 않고 신음했어요"라고 대놓고 말했다. 게르첸시투베와 이야기하며 스메르댜코프는 전혀 정신이 나간 것 같지 않고 그저 쇠약해 보일 뿐이라는 자기 생각을 말하자, 그는 노인에게서 가느다란 웃음을 끌어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 특히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노인이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물었다. "프랑스어 낱말을 외우고 있어요. 베개 밑에 공책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프랑스어 낱말을 러시아 글자로 적어 주었더군요, 헤헤헤!" 이반 표도로비치는 마침내 모든 의심을 버렸다. 드미트리 형에 대해서는 이제 혐오 없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이상했다. 알료샤가 죽인 것은 드미트리가 아니라 "십중팔구" 스메르댜코프라고 끈질기게 계속 고집했다. 이반은 늘 알료샤의 의견이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지금 그에게 무척 어리둥절했다. 알료샤가 미탸 이야기를 하려고 그를 찾지도 않고 스스로 먼저 꺼내는 일도 결코 없이 그저 이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는 것도 이상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것도 똑똑히 알아챘다. 하기야 그 무렵 그는 전혀 딴 사정 하나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모스크바에서 돌아오자마자 처음 며칠 사이에 그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향한 불같고 미친 정열에 온통, 돌이킬 수 없이 몸을 내맡겼다. 나중에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 이반 표도로비치의 이 새로운 정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며, 그것은 모두 이미 다른 이야기의, 다른 소설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소설을 내가 언젠가 쓰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이것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서 이미 그렸듯이 이반 표도로비치가 밤에

알료샤와 함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을 나와 걸어가며 그에게 "나는 그 여자가 내키지 않아"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순간 무섭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를 미친 듯이 사랑했지만, 하기야 이따금 그 여자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미워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많은 까닭이 얽혀 있었으니, 미탸의 사건으로 온통 뒤흔들린 그 여자는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마치 무슨 구원자에게 달려들듯 달려들었다. 그 여자는 감정에서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굴욕을 당했다. 그런데 예전에도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오, 그 여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리고 그 지성과 마음을 그 여자가 늘 자기보다 그토록 높이 두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처녀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카라마조프다운 고삐 풀린 욕망에도, 그가 그 여자에게 미치는 온갖 매력에도 자기를 통째로 바치지는 않았다. 그와 동시에 그 여자는 미탸를 배신했다는 뉘우침으로 쉬지 않고 괴로워했고, 이반과 험악하게 다투는 순간에는(그런 순간이 많았다) 그 말을 대놓고 그에게 했다. 바로 그것을 그는 알료샤와 이야기하며 "거짓 위에 거짓"이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물론 정말로 거짓이 많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이반 표도로비치를 짜증 나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중 이야기다. 한마디로 그는 한동안 스메르댜코프를 거의 잊었다. 그러나 그를 처음 찾아가고 두 주가 지나자 예전과 똑같은 그 이상한 생각들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가 쉬지 않고 자기에게 묻게 되었다고만 말해 두면 충분하다. 그는 그때,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에, 떠나기 전에, 왜 도둑처럼 살그머니 계단으로 나가 아래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엿들었을까? 왜 나중에 그 일을 혐오스럽게 떠올렸고, 왜 이튿날 아침 길에서 갑자기 그토록 시름에 잠겼고, 모스크바에 들어서면서 자기에게 "나는 비열한 놈이다!"라고 말했을까? 그런데 이제 한번은, 이 모든 괴로운 생각 때문에 자기가

어쩌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마저 잊을 태세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 생각들이 그만큼 갑자기 다시 세차게 그를 사로잡았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거리에서 알료샤를 만났다. 그는 곧바로 알료샤를 멈춰 세우고 갑자기 그에게 물었다.

"기억나? 점심 뒤에 드미트리가 집에 뛰어들어 아버지를 때렸을 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마당에서 너한테 '바랄 권리'는 내 몫으로 남겨 두겠다고 했을 때 말이야. 말해 봐, 너는 그때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바란다고 생각했어, 안 했어?"

"생각했어." 알료샤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기야 그건 사실이었고, 짐작할 것도 없었지. 그런데 그때 너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 내가 바로 '독사 한 마리가 다른 독사를 잡아먹기를', 그러니까 바로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이기를, 그것도 되도록 빨리 죽이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나 자신이 거들어 줄 마음까지 있다고?"

알료샤는 얼굴이 살짝 창백해져서 말없이 형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해!" 이반이 외쳤다. "그때 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온 힘을 다해 알고 싶어. 나한테는 그게 필요해. 진실을, 진실을!" 그는 벌써 미리 어떤 독기를 품고 알료샤를 바라보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용서해 줘, 그때 나는 그 생각도 했어." 알료샤가 속삭이고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은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고마워!" 이반이 딱 잘라 말하고는 알료샤를 버려둔 채 빠르게 제 갈 길을 갔다. 그때부터 알료샤는 이반 형이 어쩐지 갑자기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를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신도 형을 찾아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와 만난 바로 뒤에, 이반 표도로비치는 집에 들르지도 않고 갑자기 다시 스메르댜코프에게로 향했다.

제7장 스메르댜코프를 두 번째로 찾아가다

스메르댜코프는 그때쯤 벌써 병원에서 나와 있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의 새 거처가 바로 현관방을 사이에 두고 두 칸으로 나뉜, 이 기울어진 작은 통나무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칸에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 있었고, 다른 칸에는 스메르댜코프가 따로 들어 있었다. 그가 무슨 근거로 그들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공짜로 사는지 돈을 내고 사는지는 하느님이나 아실 일이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가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의 신랑감으로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당분간은 공짜로 지냈다고 짐작했다. 어머니도 딸도 그를 무척 존경했고 그를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 겨우 열게 한 다음 이반 표도로비치는 현관방으로 들어섰고,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가리키는 대로 곧장 왼쪽, 스메르댜코프가 쓰는 "깨끗한 칸"으로 들어갔다. 이 칸에는 타일 난로가 있었는데 몹시 뜨겁게 불을 때 놓았다. 벽마다 하늘색 벽지가 화려하게 발려 있었지만 사실 온통 찢어져 있었고, 그 밑 틈새에서는 바퀴벌레들이 무섭게 많이 우글거려서 쉬지 않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구는 보잘것없어서, 양쪽 벽에 긴 의자 두 개, 탁자 곁에 의자 두 개뿐이었다. 탁자는 그냥 나무 탁자였지만 그래도 분홍 무늬가 있는 식탁보가 덮여 있었다. 작은 창문 두 개에는 창마다 제라늄 화분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성상들이 든 성상 상자가 있었다. 탁자 위에는 몹시 찌그러진 작은 구리 사모바르와 찻잔 두 개가 놓인 쟁반이

있었다. 그러나 스메르댜코프는 벌써 차를 다 마셨고 사모바르는 식어 있었다…… 그 자신은 탁자 앞 긴 의자에 앉아 공책을 들여다보며 펜으로 무언가를 긋고 있었다. 곁에는 잉크병이 있었고, 낮은 무쇠 촛대도 있었는데 꽂힌 초는 하기야 스테아린 초였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스메르댜코프의 얼굴을 보고 그가 병에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곧바로 판단했다. 그의 얼굴은 더 생기 있고 더 통통해졌으며, 앞머리는 부풀려 세웠고 관자놀이 머리는 착 붙여 발라 놓았다. 그는 알록달록한 솜 실내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 옷은 하기야 몹시 낡고 꽤 해어져 있었다. 그의 코에는 이반 표도로비치가 예전에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안경이 걸려 있었다. 이 더없이 하찮은 사정이 갑자기 이반 표도로비치의 화를 갑절로 돋우는 것 같았다. "이런 버러지가, 게다가 안경까지 쓰고!" 스메르댜코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경 너머로 들어온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조용히 안경을 벗고 긴 의자에서 몸을 조금 일으켰지만, 어쩐지 그리 공손하지 않게, 어쩐지 게으르게까지, 그저 더는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려는 듯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반의 머리를 스쳤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엇보다 단연코 독살스럽고 무뚝뚝하고 오만하기까지 한 스메르댜코프의 눈길을 단번에 파악하고 알아챘다. "왜 어슬렁거리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때 다 말을 맞춰 두었는데 무엇 하러 또 오셨습니까?"라는 듯한 눈길이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겨우 자기를 억눌렀다.

"덥구나, 여기." 그가 아직 선 채로 말하고 외투 단추를 풀었다.

"벗으십쇼." 스메르댜코프가 허락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외투를 벗어 긴 의자에 내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집어 재빨리 탁자로 끌어다 놓고 앉았다. 스메르댜코프는 그보다 먼저 자기 긴 의자에 몸을 내려놓았다.

"우선, 우리 둘뿐이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엄하게, 성급하게 물었다. "저쪽에서 우리 말을 듣지 않을까?"

"아무도 아무것도 못 듣습죠. 직접 보셨잖습니까요, 현관방이 있습죠."

"이봐, 이 친구야, 내가 병원에서 너한테서 나올 때 너 그때 무슨 헛소리를 했지, 네가 간질인 척하는 데 도사라는 걸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너도 대문 곁에서 너하고 나눈 이야기를 예심판사한테 다는 밝히지 않겠다고? 그 *다*라는 게 뭐야? 너는 그때 무슨 뜻으로 그랬어? 나를 위협한 거야, 뭐야? 내가 너하고 무슨 동맹이라도 맺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무서워한다는 거야, 뭐야?"

이반 표도로비치는 완전히 격분해서 이 말을 했는데, 보기에도 일부러 온갖 에두르기와 온갖 넘겨짚기를 경멸하고 패를 다 까놓고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았다. 스메르댜코프의 눈이 독살스럽게 번득였고, 왼쪽 작은 눈이 깜박이기 시작했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절제하고 또박또박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자기 대답을 내놓았다. "툭 터놓고 하자는 거로군, 그럼 여기 바로 그 툭 터놓음을 받으라고."

"바로 그 뜻으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바로 그러려고 그 말을 꺼낸 겁니다요. 나리께서는 친아버님이 그렇게 살인짓을 당하리라는 걸 미리 알구서도 그때 그분을 제물로 버려두셨으니,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리의 감정에 대해, 어쩌면 무슨 다른 일에 대해서도 무언가 나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바로 그걸 관청에 밝히지 않겠다고 제가 그때 약속한 겁니다요."

스메르댜코프는 서두르지 않고 보기에 자기를 다스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벌써 무언가 단단하고 끈질기고 독살스럽고 뻔뻔하게 도전하는 것이 들렸다. 그가 건방지게 이반 표도로비치를 빤히 쳐다보자, 이반 표도로비치는 첫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기까지 했다.

"뭐?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아니야?"

"완전히 온전한 제정신입죠."

"그래, 내가 그때 살인이 일어날 걸 *알았다*는 거야?" 마침내 이반 표도로비치가 소리치며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다. "'무슨 다른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말해, 이 비열한 놈아!"

스메르댜코프는 입을 다문 채 여전히 그 뻔뻔한 눈길로 이반 표도로비치를 계속 훑어보았다.

"말해, 이 냄새나는 사기꾼아, '무슨 다른 일'이 뭐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울부짖었다.

"그 '무슨 다른 일'이라는 건 제가 지금 이 순간 말씀드리자면, 나리께서도 어쩌면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를 무척 바라셨다는 겁니다요."

이반 표도로비치가 벌떡 일어나 온 힘을 다해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후려치자, 스메르댜코프는 벽 쪽으로 휘청 물러났다. 한순간에 그의 얼굴 전체가 눈물로 뒤덮였고, 그는 "나리, 약한 사람을 때리시다니 부끄러운 일입죠!"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파란 체크무늬의, 코를 풀어 온통 더러워진 무명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1분쯤이 지났다.

"됐어! 그만해!" 마침내 이반 표도로비치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명령하듯 말했다. "내 마지막 참을성까지 바닥나게 하지 마."

스메르댜코프는 눈에서 그 헝겊 조각을 뗐다. 쭈글쭈글한 그의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방금 겪은 모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열한 놈아, 너는 그때 내가 드미트리하고 한패가 되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나리의 그때 생각은 저는 몰랐습죠." 스메르댜코프가 모욕당한 듯 말했다. "그래서 그때 나리께서 대문으로 들어오실 때 바로 그 점에서 나리를 시험해 보려고 붙잡은 겁니다요."

"뭘 시험해? 뭘?"

"바로 그 사정입죠. 아버님이 어서 죽임을 당하시기를 나리께서 바라시는지, 바라지 않으시는지요."

무엇보다 이반 표도로비치를 분노케 한 것은 스메르댜코프가 끈질기게 물러서려 하지 않는 이 고집스럽고 뻔뻔한 말투였다.

"네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가 갑자기 외쳤다.

스메르댜코프가 경멸하듯 빙긋 웃었다.

"제가 죽이지 않았다는 건 나리께서 확실히 직접 아십니다요. 그리고 똑똑한 분하고는 이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죠."

"그런데 왜, 왜 그때 너한테 나를 두고 그런 의심이 생겼어?"

"이미 아시다시피 오로지 두려움 때문입죠. 그때 저는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할 만한 처지였으니까요. 나리도 시험해 보기로 했습죠, 나리께서도 형님과 똑같은 걸 바라신다면 그때는 이 모든 일이 끝장이고, 저도 덩달아 파리처럼 죽어 없어지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봐, 너 두 주 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나리와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뜻으로 말씀드렸습죠, 다만 나리께서는 더없이 똑똑한 분이시니 군말 없이도 알아들으시고, 나리 스스로 대놓고 이야기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습죠."

"요것 봐라! 그래도 대답해, 대답해, 나는 고집할 거야, 대체 무엇으로, 대체 어떻게 내가 그때 네 그 비열한 영혼에 나를 두고 그런 천한 의심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야?"

"죽이는 것, 그건 나리께서 직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못 하셨습죠, 바라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죽이기를 바라는 것, 그건 나리께서 바라셨습죠."

"얼마나 침착하게, 얼마나 침착하게 말하는지!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바라겠어, 내가 대체 무슨 빌어먹을 까닭으로 바랐겠어?"

"무슨 빌어먹을 까닭이라니요? 유산은요?" 스메르댜코프가 독살스럽게, 어딘지 앙갚음하듯 받았다.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세 형제분께 저마다 4만 루블 가까이, 어쩌면 그보다 더 돌아갈 수 있었습죠, 그런데 그때 표도르 파블로비치께서 바로 그 마님,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와 결혼하셨다면, 그분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았을 겁니다요, 그분은 무척 어리석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세 형제분께는 2루블도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요. 그런데 그때 결혼식까지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요? 머리카락 한 올이었습죠, 그 마님이 그분 앞에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분은 곧바로 혀를 빼물고 그분 뒤를 쫓아 교회로 달려가셨을 겁니다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괴로움을 참으며 자기를 억눌렀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봐라, 나는 벌떡 일어나지도 않았고, 너를 때리지도 않았고, 너를 죽이지도 않았어. 계속 말해. 그러니까 네 생각에 나는 드미트리 형을 바로 그 일에 쓰려고 했고, 형한테 기대를 걸었다는 거야?"

"어찌 그분께 기대를 걸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요, 그분이 죽이시면 그때는 귀족의 모든 권리와 관등과 재산을 빼앗기시고 유형을 가실 테니까요. 그러면 그때 아버님이 남기신 그분네 몫은 나리와 동생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께 똑같이 남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리께는 저마다 4만이 아니라 6만 루블씩 돌아갔을 겁니다요. 바로 그래서 나리께서는 그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 반드시코 기대를 거셨던 겁니다요!"

"아, 내가 너한테 이런 꼴까지 참아야 하다니! 이봐, 이 망나니야, 내가 그때 누구한테 기대를 걸었다면 물론 드미트리가 아니라 너한테 걸었을 거야, 그리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한테서 무슨 추잡한 짓이 나오리라고 예감하기까지 했어…… 그때…… 그때 내 느낌을 기억해!"

"저도 그때 잠깐, 아주 잠깐, 나리께서 저한테도 기대를 거신다고 생각했습죠." 스메르댜코프가 비웃듯이 이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으로 그때 제 앞에서 나리 자신을 더욱 드러내셨습죠, 저한테서 무슨 일이 나오리라고 예감하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떠나셨다면, 그건 바로 그것으로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니까요. 너는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 나는 막지 않는다."

"비열한 놈! 너는 그렇게 알아들었어!"

"다 바로 그 체르마시냐 때문입죠. 세상에, 생각해 보십쇼! 모스크바로 떠나실 채비를 하시면서 체르마시냐로 가 달라는 아버님의 온갖 부탁을 다 거절하셨습죠! 그런데 제 어리석은 말 한마디에 갑자기 동의하셨습죠! 그때 대체 무엇 하러 그 체르마시냐에 동의하셔야 했습니까요? 모스크바가 아니라 아무 까닭 없이, 오로지 제 말 한마디로 체르마시냐로 가셨다면, 그건 저한테서 무언가를 기대하셨다는 뜻입죠."

"아니야, 맹세코 아니야!" 이반이 이를 갈며 울부짖었다.

"어떻게 아니라는 겁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으니 나리께서는 아버님의 아드님으로서 저를 맨 먼저 경찰서로 끌고 가서 매질을 당하게 하셨어야 했습죠…… 하다못해 그 자리에서 제 낯짝이라도 후려갈기셨어야 했는데, 세상에, 나리께서는 오히려 조금도 화를 내시지 않구서 곧바로 다정하게 제 무척 어리석은 말 그대로 정확히 따르시고 떠나시니,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죠, 나리께서는 아버님의 목숨을 지키려고 남아 계셨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어찌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요?"

이반은 얼굴을 찌푸리고 두 주먹으로 무릎을 경련하듯 짚은 채 앉아 있었다.

"그래, 그때 네 낯짝을 후려갈기지 않은 게 아깝구나." 그가 쓰라리게 빙긋 웃었다. "그때 너를 경찰서로 끌고 갈 수는 없었어, 누가 내 말을 믿었겠으며, 내가 무엇을 증거로 내놓을 수 있었겠어. 그런데 낯짝을 후려갈기는 건…… 아,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게 아깝구나, 낯짝 후려갈기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네 상판대기를 곤죽으로 만들어 놓았을 텐데."

스메르댜코프는 거의 즐기듯 그를 바라보았다.

"삶의 보통 경우에는요." 그는 예전에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식탁 뒤에서서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와 신앙을 두고 논쟁하며 그를 약 올리던 그 자기만족에 찬 교조적인 말투로 말했다. "삶의 보통 경우에는 요즘 낯짝 후려갈기기가 정말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다들 때리지 않게 됐지만, 삶의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다못해 더없이 완전한 프랑스 공화국이라 해도, 아담과 이브 때처럼 여전히 계속 때리고, 앞으로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요, 그런데 나리께서는 그 특별한 경우에도 그때 감히 그러지 못하셨습죠."

"너는 왜 프랑스어 낱말을 외우는 거야?" 이반이 탁자 위에 놓인 공책을 고갯짓으로 가리켰다.

"제가 왜 그걸 외우면 안 됩니까요, 그걸로 제 교양을 높이려는 겁니다요, 저 자신도 언젠가 유럽의 그 행복한 곳들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이봐, 이 악당아." 이반이 눈을 번득이며 온몸을 떨었다. "나는 네 고발 따위는 무섭지 않아, 나에 대해 무슨 진술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지금 너를 때려죽이지 않은 건 오로지 내가 이 범죄로 너를

의심하고 있어서 너를 재판에 끌어낼 작정이기 때문이야. 나는 아직 네 정체를 드러내고 말 거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입을 다무시는 편이 낫겠습니다요. 저는 완전히 결백한데 나리께서 저에 대해 무엇을 밝히실 수 있으며, 누가 나리 말을 믿겠습니까요? 다만 나리께서 시작하시면 저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요. 제가 어찌 제 몸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요?"

"너는 내가 지금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해?"

"제가 지금 나리께 드린 이 모든 말을 법정에서는 믿지 않는다 해도, 그 대신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요, 그러면 나리께서 부끄러워지시겠지요."

"그건 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과는 이야기만 나눠도 재미있다'는 거군, 응?" 이반이 이를 갈듯 말했다.

"바로 정곡을 찌르셨습죠. 그러니 똑똑하게 처신하십쇼."

이반 표도로비치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일어나 외투를 입고는 더는 스메르댜코프에게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재빨리 집을 나왔다. 상쾌한 저녁 공기가 그의 정신을 들게 했다. 하늘에는 달이 밝게 빛났다. 생각과 느낌의 무서운 악몽이 그의 영혼 속에서 끓어올랐다. "지금 당장 가서 스메르댜코프를 고발할까? 그런데 무엇을 고발해. 그래도 그놈은 결백해. 오히려 그놈이 나를 고발할 거야. 정말로 나는 그때 무엇 하러 체르마시냐로 갔을까? 무엇 하러, 무엇 하러?" 이반 표도로비치가 자기에게 물었다. "그래, 물론 나는 무언가를 기대했어, 그리고 그놈 말이 맞아……" 그리고 그는 다시 백 번째로, 아버지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에 계단에서 아버지를 엿듣던 일을 떠올렸는데, 이제는 너무나 괴롭게 떠올라서 꿰뚫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기까지 했다. "그래, 나는 그때 그걸 기다렸어, 그건 사실이야! 나는 바랐어, 바로 살인을 바랐어! 내가 살인을 바랐을까, 바랐을까?……

스메르댜코프를 죽여야 해!…… 지금 스메르댜코프를 감히 죽이지 못한다면 살 가치도 없어!……"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때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갔고, 자기가 나타난 것만으로 그 여자를 놀라게 했으니, 그는 미친 사람 같았다. 그는 스메르댜코프와 나눈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그 여자에게 전했다. 그는 그 여자가 아무리 달래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방 안을 줄곧 서성거리며 띄엄띄엄 이상하게 말했다. 마침내 그는 앉아서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이상한 경구를 내뱉었다.

"드미트리가 아니라 스메르댜코프가 죽였다면 물론 나는 그놈과 한패야. 내가 그놈을 부추겼으니까. 내가 그놈을 부추겼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드미트리가 아니라 그놈이 죽였다면 물론 살인자는 나이기도 해."

이 말을 듣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책상으로 가더니, 그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어 무슨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반 앞에 놓았다. 이 종이가 바로 나중에 이반 표도로비치가 알료샤에게 드미트리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수학적 증명"이라고 밝힌 그 문서였다. 그것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에서 그루셴카가 그 여자를 모욕한 장면이 있은 뒤, 수도원으로 돌아가던 알료샤와 들판에서 마주친 바로 그날 저녁에 미탸가 술에 취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쓴 편지였다. 그때 알료샤와 헤어진 뒤 미탸는 그루셴카에게 달려갔는데, 그 여자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밤이 되자 그는 '수도'라는 선술집에 와 있었고, 거기서 제대로 취했다. 취한 그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중대한 문서를 휘갈겨 썼다. 그것은 미친 듯하고 말 많고 두서없는 편지, 그야말로 "취한" 편지였다. 그것은 취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나 식구 누군가에게 방금 자기가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 자기를 모욕한 놈이 얼마나 비열한 놈인지, 반대로 자기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비열한 놈에게 어떻게 본때를 보여 줄지를, 그 모든 것을 길게, 길게, 두서없이, 흥분해서, 주먹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취한 눈물을 흘리며 유난히 열을 올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했다. 선술집에서 그에게 내준 편지지는 질 나쁜 보통 필기용지의 더러운 종잇조각이었는데, 뒷면에는 무슨 계산서가 적혀 있었다. 취한 사람의 장광설에는 자리가 모자랐던 것이 분명해서, 미탸는 여백을 다 채웠을 뿐 아니라 마지막 몇 줄은 심지어 이미 쓴 글 위에 가로질러 썼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운명의 카탸! 내일 돈을 구해서 네 3천 루블을 돌려줄게, 그리고 잘 있어, 크나큰 분노를 품은 여자여, 그리고 잘 있어, 내 사랑이여! 끝내자! 내일 모든 사람한테서 구해 보겠어, 사람들한테서 구하지 못하면 맹세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 머리를 깨부수고 베개 밑에서 꺼낼 거야, 이반만 떠나면. 징역을 가더라도 3천 루블은 돌려줄게. 그리고 너는 잘 있어. 땅에 엎드려 절한다, 네 앞에서 나는 비열한 놈이니까. 나를 용서해 줘. 아니, 차라리 용서하지 마. 그게 나한테도 너한테도 더 가벼워! 네 사랑보다는 징역이 더 나아,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너는 오늘 너무 잘 알게 됐지, 그러니 네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내 도둑을 죽이겠어! 너희 모두를 떠나 동방으로 가겠어, 아무도 모르게. *그 여자*도. 나를 괴롭히는 건 너 하나만이 아니라 그 여자도니까. 잘 있어!

"추신. 저주를 쓰지만 너를 숭배해! 내 가슴속에서 들려. 현 하나가 남아서 울리고 있어. 차라리 심장이 둘로 쪼개지는 게 나아! 나 자신을 죽이겠지만, 그래도 먼저 그 개부터. 그놈한테서 3천을 빼앗아서 너한테 던져 줄게. 네 앞에서 비열한 놈이라도 도둑은 아니야! 3천 루블을 기다려. 개의 요 밑에, 분홍 리본. 내가 도둑이 아니라, 내 도둑을 죽일 거야. 카탸, 경멸스럽게 보지 마. 디미트리는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야!

아버지를 죽이고 나 자신을 망쳤어, 네 오만을 견디지 않고 버티고 서 있으려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추추신. 네 발에 입 맞춘다, 잘 있어!

"추추신 또. 카탸, 사람들이 돈을 주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줘. 그러면 나는 피를 묻히지 않을 거야. 주지 않으면 피를 묻히는 거야! 나를 죽여 줘!"

이반은 그 "문서"를 읽고 나서 확신을 품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죽인 것은 스메르댜코프가 아니라 형이었다. 스메르댜코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도, 이반도 아니었다. 이 편지는 갑자기 그의 눈에 수학적인 뜻을 띠었다. 이제 그에게는 미탸의 유죄에 대해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었다. 내친김에 말하자면, 미탸가 스메르댜코프와 함께 죽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이반에게 한 번도 없었고, 그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았다. 이반은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이튿날 아침 그는 스메르댜코프와 그의 비웃음을 그저 경멸하며 떠올렸을 뿐이었고, 며칠 뒤에는 자기가 어떻게 그의 의심에 그토록 괴롭게 모욕을 느낄 수 있었는지 놀라기까지 했다. 그는 그를 경멸하고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스메르댜코프에 대해 그는 더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지만, 그가 몹시 아프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한두 번 지나가며 들었다. "미쳐서 끝날 겁니다." 젊은 의사 바르빈스키가 한번은 그를 두고 그렇게 말했고, 이반은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 이달의 마지막 주에 이반 자신이 몸이 무척 좋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재판 바로 전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불러서 모스크바에서 온 의사에게 그는 벌써 진찰을 받으러 다녔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그의 관계는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서로 사랑에 빠진 두 원수 같았다. 순간적이지만 강렬하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미탸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이반을 완전히 미치게 했다. 이상한 일은, 알료샤가 미탸에게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왔을 때의 그 마지막 장면, 우리가 그려 보인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반이 그토록 미워한 그 여자의 온갖 "되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내 그 여자에게서 미탸의 유죄를 의심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가 미탸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미워한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카탸의 "되돌아감"으로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놈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 온전히 느끼고 의식했다. 그런데도 재판 열흘쯤 전에 그는 미탸에게 가서 탈출 계획을 내놓았다. 보기에도 이미 오래전에 꾸며 둔 계획이었다. 그가 그런 걸음을 내딛게 된 데에는 그를 움직인 주된 까닭 말고도, 스메르댜코프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남긴, 아물지 않는 어떤 생채기도 탓이 있었으니, 형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이 알료샤와 자기에게는 4만에서 6만 루블로 늘어나니 그게 그에게, 이반에게 이롭다는 말이었다. 그는 미탸의 탈출을 마련하려고 자기 몫에서만 3만 루블을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미탸에게서 돌아오면서 그는 무섭게 서글프고 마음이 어지러웠으니, 그가 탈출을 바라는 것이 3만 루블을 내놓아 생채기를 아물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까닭 때문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다. "영혼 속에서는 나도 똑같은 살인자이기 때문일까?" 그는 자기에게 물으려 했다. 무언가 아득하지만 타는 듯한 것이 그의 영혼을 쑤셨다. 무엇보다 이 한 달 내내 그의 자존심이 무섭게 괴로워했지만, 그것은 나중 이야기다…… 알료샤와 이야기를 나눈 뒤 자기 하숙의 초인종을 잡았다가 갑자기 스메르댜코프에게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그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른 어떤 각별한 분노에 따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알료샤 앞에서 그에게 "그 사람(그러니까 미탸)이 살인자라고 나를 설득한 건 너야, 오직 너

하나야!"라고 외친 것을 갑자기 떠올렸다. 그것을 떠올리자 이반은 얼어붙기까지 했으니, 그는 평생 한 번도 미탸가 살인자라고 그 여자를 설득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스메르댜코프에게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여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심했다. 오히려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때 그에게 "문서"를 내놓고 형의 유죄를 증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지금 "나는 스메르댜코프한테 갔었어!" 하고 외친다. 언제 갔다는 말인가? 이반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미탸의 유죄를 전혀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스메르댜코프가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 여자에게 대체,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무서운 분노가 그의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30분 전에 그 여자의 그 말을 어떻게 흘려듣고 그때 바로 소리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초인종을 놓고 스메르댜코프에게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어쩌면 그놈을 죽일지도 몰라." 그는 가는 길에 생각했다.

제8장 스메르댜코프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다

아직 길을 반도 가기 전에, 이날 아침 일찍 불던 것과 똑같은 날카롭고 메마른 바람이 일더니 잘고 촘촘하고 메마른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은 땅에 달라붙지 않고 떨어졌고, 바람이 그것을 휘감아서 이내 완전한 눈보라가 일었다. 스메르댜코프가 사는 읍의 그 구역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눈보라도 알아채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길을 가려 디디며 어둠 속을 성큼성큼 걸었다. 머리가 아팠고 관자놀이가 괴롭게 쿵쿵 울렸다. 손목에 경련이 이는 것을 그는 느꼈다.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의 작은 집에 조금 못 미쳐서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혼자 가는 술 취한 농군 하나와 마주쳤는데, 키가 작고, 기운 누더기 외투를 입은 그 농군은 갈지자로 걸으며 투덜거리고 욕을 하다가 갑자기 욕을 그치고는 쉰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 반카는 피테르로 떠났네,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을래!

그러나 그는 늘 이 둘째 줄에서 끊고 다시 누군가에게 욕을 하다가, 그다음 다시 갑자기 같은 노래를 길게 뽑았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그에게 무서운 증오를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를 의식했다. 곧바로 그는 그

농군을 위에서 주먹으로 내리쳐 때려눕히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은 나란히 마주쳤고, 농군은 크게 휘청하더니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이반에게 부딪쳤다. 이반은 미친 듯이 그를 떠밀었다. 농군은 날아가 통나무토막처럼 얼어붙은 땅에 철퍼덕 쓰러지더니 "오오!" 하고 딱 한 번 아프게 신음하고는 조용해졌다. 이반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농군은 정신을 잃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반듯이 누워 있었다. "얼어 죽겠군!" 이반은 생각하고 다시 스메르댜코프에게로 걸어갔다.

현관방에서부터 벌써, 촛불을 들고 문을 열러 뛰어나온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파벨 표도로비치(그러니까 스메르댜코프)가 엄청시리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거의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다고, 차도 치우라고 하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고 그에게 속삭였다.

"그래, 그 사람이 행패라도 부려?" 이반 표도로비치가 거칠게 물었다.

"웬걸요, 오히려 아주 조용하세요. 다만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부탁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섰다.

지난번처럼 불을 뜨겁게 때 놓았지만 방에는 몇 가지 달라진 데가 눈에 띄었으니, 옆쪽 긴 의자 하나를 내가고 그 자리에 마호가니처럼 꾸민 낡고 커다란 가죽 소파가 들어와 있었다. 그 위에는 꽤 깨끗한 흰 베개를 갖춘 잠자리가 펴져 있었다. 잠자리 위에 스메르댜코프가 여전히 그 실내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탁자를 소파 앞으로 옮겨 놓아서 방이 무척 비좁아졌다. 탁자 위에는 노란 표지를 씌운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지만, 스메르댜코프는 그것을 읽지 않았고, 아무래도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길고 말 없는 눈길로 이반 표도로비치를 맞았고, 보기에 그가 온 것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척 달라졌고, 무척 여위고 누렇게 떠 있었다. 눈은 움푹 꺼지고 아래 눈꺼풀은 푸르스름했다.

"너 정말 아프구나?" 이반 표도로비치가 걸음을 멈추었다. "오래 붙잡지 않을게, 외투도 벗지 않겠어. 어디 앉을 데가 있어?"

그는 탁자 다른 쪽 끝으로 돌아가 의자를 탁자로 끌어다 놓고 앉았다.

"왜 보기만 하고 말이 없어? 나는 딱 하나만 물으러 왔고, 맹세하는데 대답을 듣기 전에는 안 갈 거야. 마님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너한테 왔었어?"

스메르댜코프는 여전히 조용히 이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내젓고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왜 그래?" 이반이 외쳤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래요, 왔었습니다, 그게 나리께 무슨 상관입니까. 귀찮게 하지 마십쇼."

"아니, 귀찮게 할 거야! 말해, 언제 왔었어?"

"그 여자 일은 기억하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경멸하듯 빙긋 웃더니, 갑자기 다시 이반에게 얼굴을 돌려 어딘지 미친 듯 증오에 찬 눈길로, 한 달 전 그 만남 때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길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리야말로 아프신 것 같은데요. 저것 봐, 수척해지셨네, 얼굴이 말이 아니십니다요." 그가 이반에게 말했다.

"내 건강은 내버려 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

"그런데 왜 눈이 누레지셨습니까요, 흰자위가 아주 누렇습니다요. 무척 괴로우신 겁니까요?"

그는 경멸하듯 빙긋 웃더니 갑자기 아예 소리 내어 웃었다.

"이봐, 대답을 듣기 전에는 안 간다고 했잖아!" 이반이 무섭게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왜 저한테 들러붙으십니까요?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요?" 스메르댜코프가 괴로운 듯 말했다.

"에이, 빌어먹을! 나는 너한테는 아무 볼일도 없어.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곧바로 갈 거야."

"나리께 드릴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대답하게 될 거야!"

"왜 그렇게 줄곧 걱정을 하십니까요?" 스메르댜코프가 갑자기 그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경멸이라기보다 거의 어떤 역겨움이 담긴 눈길이었다. "내일 재판이 시작돼서 그러십니까요? 나리께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요, 이제 그만 좀 믿으십쇼! 댁에 가셔서 편히 주무십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말을 모르겠어…… 내가 내일 무엇을 무서워한다는 거야?" 이반이 놀라서 내뱉었는데, 갑자기 정말로 어떤 두려움이 그의 영혼에 찬 기운을 훅 끼쳐 왔다. 스메르댜코프가 눈으로 그를 재 보았다.

"모-르-시겠다고요?" 그가 나무라듯 길게 끌었다. "똑똑한 분이 이런 코메디를 하시고 싶으실까!"

이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자기 하인이던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대하는, 어딘지 전에 없이 오만한 이 뜻밖의 말투 하나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투는 그래도 없었다.

"말씀드리지만 나리께서 무서워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요. 저는 나리께 불리한 진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 증거도 없습니다요.

저것 봐, 손이 떨리시네. 손가락이 왜 그렇게 움직이십니까요? 댁에 가십쇼, *나리가 죽이신 게 아닙니다*."

이반은 몸을 떨었다. 알료샤가 떠올랐다.

"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그가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아-신-다고요?" 스메르댜코프가 다시 받았다.

이반이 벌떡 일어나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다 말해, 이 버러지야! 다 말해!"

스메르댜코프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한 증오를 담아 그에게 눈길을 못 박았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바로 나리께서 죽이신 겁니다요." 그가 미친 듯이 그에게 속삭였다.

이반은 무언가를 헤아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독살스럽게 빙긋 웃었다.

"너 줄곧 그때 일 이야기야? 지난번과 같은 이야기야?"

"지난번에도 제 앞에 서서 다 알아들으셨고, 지금도 알아들으십니다요."

"알아듣는 건 네가 미쳤다는 것뿐이야."

"참 질리지도 않으십니다요! 단둘이 앉아 있는데 무엇 하러 서로 속이고 코메디를 하겠습니까요? 아니면 아직도 저 하나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싶으십니까요,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나리께서 죽이셨습죠. 나리야말로 주범 살인꾼이시고, 저는 그저 나리의 졸개, 충복 리차르다였을 뿐입니다요. 그리고 나리 말씀대로 이 일을 해치웠습죠."

"해치웠다고? 그럼 네가 죽였어?" 이반의 몸이 싸늘하게 식었다.

무언가가 그의 뇌 속에서 뒤흔들린 것 같았고, 그는 온몸을 잘고 차가운 떨림으로 떨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메르댜코프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으니, 아마 이반의 두려움이 너무나 진실해서 마침내 그를 놀라게 한 모양이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셨단 말입니까요?" 그가 미심쩍은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비뚤게 빙긋 웃고 더듬더듬 말했다.

이반은 줄곧 그를 바라보았다. 혀가 굳어 버린 것 같았다.

아, 반카는 피테르로 떠났네,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을래,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울렸다.

"있잖아, 나는 네가 꿈이 아닐까, 내 앞에 앉아 있는 게 유령이 아닐까 무서워." 그가 더듬거렸다.

"여기에는 유령 따위는 없습니다요. 우리 둘 말고는요, 그리고 또 어떤 셋째 말고는요. 으심할 것도 없이 그 셋째는 지금 여기, 우리 둘 사이에 있습죠."

"그게 누구야? 누가 있다는 거야? 셋째가 누구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사방을 둘러보며, 서둘러 모든 구석에서 눈으로 누군가를 찾으며 겁에 질려 말했다.

"그 셋째는 하느님이십니다요, 바로 그 섭리십니다요. 지금 우리 곁에 계십죠. 다만 찾지 마십쇼, 찾지 못하실 테니까요."

"네가 죽였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반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너는 미쳤거나, 지난번처럼 나를 놀리는 거야!"

스메르댜코프는 아까처럼 조금도 겁먹지 않고 줄곧 캐묻듯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아직도 도무지 자기의 불신을 이겨 낼 수가 없었고,

이반이 "다 알면서" 그저 "자기 눈앞에서 자기 하나한테 다 뒤집어씌우려고" 시치미를 떼는 것만 같았다.

"잠깐만요." 그가 마침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갑자기 탁자 밑에서 왼발을 끌어내 바짓자락을 위로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발에는 긴 흰 양말이 신겨 있었고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스메르댜코프는 서두르지 않고 양말 대님을 풀고 손가락을 양말 속 깊이 집어넣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경련하듯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미친놈!" 그가 울부짖으며 재빨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휘청 물러났는데, 등이 벽에 쿵 부딪히자 온몸을 실처럼 쭉 펴고 벽에 들러붙은 것 같았다. 그는 미친 듯한 공포에 질려 스메르댜코프를 바라보았다. 스메르댜코프는 그의 공포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양말 속에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붙잡아 꺼내려고 줄곧 애쓰는 듯 여전히 양말 속을 뒤졌다. 마침내 그것을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것이 무슨 종이들, 아니 종이 뭉치 하나라는 것을 보았고, 스메르댜코프는 그것을 끌어내 탁자 위에 놓았다.

"여기 있습니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뭐야?" 이반이 떨며 대답했다.

"한번 보십쇼." 스메르댜코프가 똑같이 조용히 말했다.

이반은 탁자로 한 걸음 다가가 뭉치를 집어 들고 펼치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무슨 역겹고 무서운 파충류라도 닿은 것처럼 손가락을 홱 뺐다.

"손가락이 줄곧 떨리십니다요, 경련이 이셔서요." 스메르댜코프가 그렇게 말하고는 몸소 서두르지 않고 종이를 펼쳤다. 겉 종이 밑에서 무지갯빛 100루블짜리 지폐 세 뭉치가 나왔다.

"다 여기 있습니다요, 3천 루블 전부요, 세어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요. 받으십쇼." 그가 돈을 고갯짓으로 가리키며 이반에게 권했다. 이반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손수건처럼 창백했다.

"너 때문에 놀랐잖아…… 그 양말 때문에……" 그가 어딘지 이상하게 히죽거리며 말했다.

"정말로, 정말로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요?" 스메르댜코프가 한 번 더 물었다.

"그래, 몰랐어. 나는 줄곧 드미트리라고 생각했어. 형! 형! 아!" 그가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봐, 너 혼자 죽였어? 형 없이, 아니면 형과 함께?"

"오로지 나리하고만 함께입죠. 나리와 함께 죽였습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는 그야말로 죄가 없으십니다요."

"좋아, 좋아…… 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줄곧 떨지…… 말을 한마디도 못 하겠어."

"그때는 늘 대담하셨습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씀하셨습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겁을 내시는군요!" 스메르댜코프가 놀라며 더듬더듬 말했다. "레모네이드 드시지 않겠습니까요, 곧 시키겠습니다요. 아주 개운해지실 겁니다요. 다만 이걸 먼저 덮어 두어야겠습니다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돈뭉치를 고갯짓으로 가리켰다. 그는 문에 대고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를 불러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가져오게 하려고 일어나려 했는데, 그 여자가 돈을 보지 못하게 무엇으로 덮을지 찾다가 먼저 손수건을 꺼냈지만, 그것이 다시 완전히 코투성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반이 들어오면서 눈여겨본, 탁자 위에 놓인 하나뿐인 두꺼운 노란 책을 집어 그것으로 돈을 눌러 놓았다. 책 제목은 『우리의 거룩한 교부 시리아인 이삭의 말씀』 이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기계적으로 그 제목을 읽었다.

"레모네이드는 싫어." 그가 말했다. "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앉아서 말해. 너 그걸 어떻게 했어? 다 말해……"

"외투라도 벗으시지요, 그러다간 땀범벅이 되십니다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제야 비로소 그 생각이 난 듯이 외투를 벗어 던져,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긴 의자 위로 내던졌다.

"말해, 제발, 말해!"

그는 가라앉은 것 같았다. 그는 스메르댜코프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하리라고 확신하며 기다렸다.

"어떻게 해치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요?" 스메르댜코프가 한숨을 쉬었다. "더없이 자연스럽게 해치웠습죠, 바로 나리의 그 말씀대로……"

"내 말은 나중에." 이반이 다시 말을 끊었지만, 이제는 아까처럼 소리치지 않고, 단단하게 말을 내뱉으며 완전히 자기를 다잡은 것 같았다. "네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만 말해. 모두 차례대로. 아무것도 잊지 말고. 세부를, 무엇보다 세부를. 부탁이야."

"나리께서 떠나시고, 저는 그때 지하실로 굴러떨어졌습죠……"

"간질 발작이었어, 아니면 그런 척했어?"

"물론 그런 척했습죠. 모든 걸 그런 척했습죠. 계단을 침착하게 내려가서, 맨 밑까지요, 침착하게 누웠습죠. 그리고 눕자마자 울부짖기 시작했습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나갈 때까지 몸부림쳤습죠."

"잠깐! 그럼 그 내내, 그다음에도, 병원에서도 줄곧 그런 척했어?"

"천만에요. 바로 이튿날 아침, 병원에 가기도 전에 진짜 발작이 덮쳤는데, 여러 해 동안 그런 게 없었을 만큼 세게 덮쳤습죠. 이틀 동안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습죠."

"좋아, 좋아. 계속해."

"사람들이 저를 그 침상에 눕혔는데, 칸막이 뒤일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죠,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께서는 제가 아플 때마다 늘 밤에는 자기네 방 바로 그 칸막이 뒤에 저를 눕히셨으니까요. 그분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늘 저한테 다정하셨습죠. 밤에 신음을 했습죠, 다만 조용히요. 줄곧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기다렸습죠."

"기다리다니, 너한테 오기를?"

"왜 저한테요. 집으로 오시기를 기다렸습죠. 그분이 바로 그날 밤 오시리라는 데는 저한테 이제 아무 으심도 없었으니까요. 저를 잃어버리구서 아무 소식도 못 듣구서는 그분은 반드시코 늘 하시던 대로 울타리를 넘어 몸소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든 저지르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형이 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요. 그분 없이는 저도 결심하지 못했을 겁니다요."

"좋아, 좋아…… 더 알아듣게 말해, 서두르지 말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빼먹지 마!"

"저는 그분이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죽이시리라고 기다렸습죠…… 그건 틀림없었습죠. 제가 그분을 이미 그렇게 준비시켜 놓았으니까요…… 마지막 며칠 동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호들이 그분한테 알려졌으니까요. 그 며칠 사이에 그분 안에 쌓인 의심과 분노를 생각하면 그분은 반드시코 신호를 써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습죠. 그건 반드시코 그랬습죠. 저는 그렇게 그분을 기다렸습죠."

"잠깐." 이반이 말을 끊었다. "형이 죽였다면 돈을 가지고 가 버렸을 거잖아. 너는 바로 그렇게 따졌어야 했을 텐데? 그러면 그다음에 너한테는 뭐가 돌아갔겠어?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돈을 그분은 결코 찾아내지 못하셨을 겁니다요. 돈이 요 밑에 있다고 그분한테 가르쳐 드린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죠. 처음에는 작은 상짝 속에 들어 있었습죠, 그랬습죠. 그런데 그다음에 저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께, 그분은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저 하나만 모든 일에 믿어 주셨으니까요, 돈이 든 바로 그 봉투를 성상들 뒤 구석으로 옮기시라고 가르쳐 드렸습죠. 거기라면 아무도, 특히 허둥지둥 들이닥친 사람은 결코 짐작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봉투는 거기, 그분 방 구석 성상들 뒤에 놓여 있었습죠. 요 밑에 두는 건 아주 우스운 일이었을 겁니다요. 상짝 속이라면 적어도 자물쇠라도 채울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모두가 요 밑에 있었다고 믿게 됐습죠. 어리석은 추론입죠. 그러니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바로 그 살인짓을 하셨다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살인꾼들이 늘 그러듯이 바스락 소리 하나에도 겁을 먹고 허둥지둥 달아나셨거나, 아니면 체포되셨을 겁니다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 이튿날이나 바로 그날 밤에라도 성상들 뒤로 기어올라가 바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었고, 모든 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 뒤집어씌워졌을 겁니다요. 그건 언제나 기대할 수 있었습죠."

"그럼 형이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했다면?"

"죽이지 않으셨다면 저는 물론 감히 돈을 가져가지 못했을 테고, 그 일은 헛일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런 셈도 있었습죠. 그분이 정신을 잃을 만큼 때리시면 저는 그사이에 얼른 돈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표도르 파블로비치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아버님을 때려눕히구서 돈을 훔쳐 가셨다고 보곱해 드리면 되니까요."

"잠깐…… 헷갈려. 그러니까 결국 드미트리가 죽이고 너는 돈만 가져갔다는 거야?"

"아니요, 그분이 죽이신 게 아닙니다요. 뭐, 지금이라도 그분이 살인꾼이라고 나리께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나리께서 정말로 여적 아무것도 모르셨고, 나리의 뻔한 죄를 제 눈앞에서 저한테 뒤집어씌우려고 제 앞에서 시치미를 떼신 게 아니라면, 그래도 나리께서는 모든 일에 죄가 있으시니까요, 나리께서는 살인이 일어날 걸 아셨고, 저한테 죽이라고 맡기셨고, 모든 걸 알구서도 떠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 나리의 눈앞에서 이걸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요, 여기서 모든 일의 주범 살인꾼은 오로지 나리 한 분이시고, 저는 죽이기는 제가 죽였어도 그저 가장 주범이 아닌 살인꾼일 뿐이라는 걸요. 나리야말로 가장 법에 맞는 살인꾼이십니다요!"

"왜, 왜 내가 살인자야? 오, 하느님!" 이반이 대화 끝까지 자기 이야기는 미뤄 두기로 한 것을 잊고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것도 다 그 체르마시냐 때문이야? 잠깐, 말해 봐. 네가 체르마시냐를 동의로 받아들였다면, 너한테 내 동의가 왜 필요했어? 이제는 그걸 어떻게 풀이할 거야?"

"나리의 동의를 확신했으니, 무슨 까닭으로든 관청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대신 저를 의심하거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와 한패로 의심하더라도, 나리께서 돌아오셔서 잃어버린 그 3천 루블 때문에 소리를 지르시지 않으리라는 걸 저는 알았을 겁니다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서 저를 지켜 주셨겠지요…… 그리고 유산을 받으시면 그다음에 언제든, 남은 평생 동안 저한테 상을 주실 수도 있었습죠, 어쨌든 나리께서는 저를 통해 그 유산을 받으신 거니까요, 그러지 않고 아버님께서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와 장가드시구서는 나리께는 주먹 감자 하나만 돌아갔을 겁니다요."

"아! 그러니까 너는 그다음에도 평생 나를 괴롭힐 작정이었구나!" 이반이 이를 갈듯 말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고발했다면?"

"그때 나리께서 무엇을 고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요? 제가 나리를 체르마시냐로 가시라고 꼬드겼다고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죠. 게다가 우리 이야기가 끝난 뒤 나리께서는 떠나시든지 남으시든지 하셨겠지요. 남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요. 저는 나리께서 그 일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아무 일도 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떠나셨다면, 그건 그러니까 나리께서 저를 감히 법정에 고발하지 못하실 테고 그 3천 루블도 저한테 용서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다짐해 주신 셈입죠. 게다가 나리께서는 나중에 저를 전혀 쫓으실 수도 없었으니, 그러면 저는 그때 법정에서 다 이야기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훔쳤다거나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요, 나리께서 몸소 저를 훔치고 죽이라고 부추기셨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때 저한테 나리의 동의가 필요했던 겁니다요, 나리께서 무엇으로도 저를 꼼짝 못 하게 몰아붙이지 못하시도록요, 나리께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요, 그런데 저는 나리께서 아버님의 죽음을 얼마나 목마르게 바라셨는지 드러내서 언제든 나리를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었습죠. 장담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믿었을 테고, 나리께서는 평생 부끄러우셨을 겁니다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 목마름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야, 지니고 있었다고?" 이반이 다시 이를 갈듯 말했다.

"틀림없이 지니고 계셨습죠. 그리고 나리의 동의로 그때 말없이 저한테 이 일을 허락하셨습죠." 스메르댜코프가 단호하게 이반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척 쇠약해서 조용히, 지쳐서 말했지만, 무언가 속에

감추어진 것이 그를 부추기고 있었고, 그에게는 보기에도 무슨 의도가 있었다. 이반은 그것을 예감했다.

"계속해." 그가 그에게 말했다. "그날 밤 이야기를 계속해."

"그다음이야 뭐겠습니까요! 저는 누워 있다가 나리가 소리치신 것 같은 소리를 듣습죠. 그런데 그리고리 바실리치께서는 그 전에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시더니 갑자기 울부짖으셨고, 그다음엔 모든 게 조용하고 캄캄했습죠. 누워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죠. 마침내 일어나서 나가 보니 왼쪽으로 그분의 정원 쪽 창문이 열려 있어서, 저는 그분이 거기 살아서 앉아 계신지 아닌지 들어 보려고 왼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 나리가 허둥대며 앓는 소리를 내시는 게 들리니 살아 계신 겁니다요. 에이, 하고 생각했습죠! 창문으로 다가가서 나리께 소리쳤습죠. '접니다요.'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왔었어, 왔었어, 달아났어!' 하시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리를 죽였어!' '어디서요?' 제가 그분께 속삭였습죠. '저기, 구석에.' 그분이 가리키시며 그분도 속삭이셨습죠. '기다리십쇼.' 제가 말했습죠. 구석으로 찾으러 가다가 담 곁에 쓰러져 계신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께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온통 피투성이로 정신을 잃고 누워 계셨습죠. 그러니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오셨던 게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이 곧바로 머리에 떠올랐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 모든 일을 끝내 버리기로 마음먹었으니,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께서 아직 살아 계시더라도 정신을 잃고 누워 계시니 당분간은 아무것도 못 보실 테니까요. 위험은 단 하나, 갑자기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께서 깨어나시는 것뿐이었습죠. 그 순간 그걸 느끼기는 했지만, 그 목마름이 저를 온통 사로잡아 버려서 아예 숨이 막혔습죠. 다시 나리 창문 밑으로 가서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요, 오셨습니다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께서 오셔서 들여보내 달라고 하십니다요'

하고 말했습죠. 그러자 그분이 꼭 갓난아기처럼 온몸을 떠시더군요. '여기 어디? 어디?' 그렇게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도 아직 믿지 않으셨습죠. '저기 서 계십니다요, 열어 주십쇼!' 제가 말했습죠. 창문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믿으시는 것도 같고 안 믿으시는 것도 같고, 문을 열기는 무서워하셨는데, 이건 저를 무서워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죠. 그런데 우습게도 저는 갑자기 그때 그루셴카가 왔다는 바로 그 신호를 그분 눈앞에서 창틀에 두드려 보여 드릴 생각을 했는데, 말은 믿지 않으시는 것 같더니 제가 신호를 두드리자 곧바로 문을 열러 달려가셨습죠. 문을 여셨습죠.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서서 온몸으로 저를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요. '그 애는 어디 있어, 그 애는 어디 있어?' 저를 바라보시며 덜덜 떠시는 겁니다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시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저는 그분이 저를 방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께서 달려오시거나, 무슨 일이든 생길까 봐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다 빠졌는데, 그때는 기억도 안 납니다요, 아마 그분 앞에 하얗게 질려 서 있었을 겁니다요. 그분께 '아니, 저기, 저기 창문 밑에 계신데, 어째서 못 보셨습니까요?' 하고 속삭였습죠. '그럼 네가 데려와, 네가 데려와!' '무서워하십니다요, 고함 소리에 놀라서 덤불에 숨으셨습죠. 서재에서 몸소 가서 불러 보십쇼.' 제가 말했습죠. 그분이 달려가서 창문으로 다가가 촛불을 창턱에 놓으셨습죠. '그루셴카, 그루셴카, 거기 있어?' 그렇게 소리치시면서도 창문 밖으로 몸을 숙이려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서 떨어지려 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를 너무나 무서워하시게 돼서 저한테서 감히 떨어지지 못하셨던 겁니다요. '저기 계시잖습니까요.' 제가 말했습죠(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온몸을 내밀었습죠). '저기 덤불 속에서 나리를 보고 웃고 계십니다요, 보이십니까요?' 그분이 갑자기 믿으시고는 덜덜

떠셨는데, 그 여자한테 너무나 반해 계셨던 터라 온몸을 창문 밖으로 내미셨습죠. 그때 저는 그분 책상 위에 있던 바로 그 무쇠 문진을, 기억하십니까요, 3푼트쯤은 나갈 겁니다요, 그걸 집어 들고 휘둘러서 뒤에서 모서리로 정수리를 내리쳤습죠. 소리도 지르지 않으셨습죠. 그저 갑자기 밑으로 주저앉으셨는데, 저는 두 번, 세 번 내리쳤습죠. 세 번째에 깨진 걸 느꼈습죠. 그분은 갑자기 얼굴을 위로 한 채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뒤로 벌렁 쓰러지셨습죠. 저를 살펴보니 피가 묻지 않았고 튀지도 않았기에, 문진을 닦아서 내려놓고, 성상들 뒤로 가서 봉투에서 돈을 꺼내고, 봉투는 바닥에 던지고 바로 그 분홍 리본도 그 곁에 던졌습죠. 정원으로 내려왔는데 온몸이 떨렸습죠. 곧장 구멍 난 그 사과나무로 갔는데, 그 구멍은 나리도 아시지요, 저는 그걸 오래전에 봐 두었고, 그 안에 벌써 헝겊과 종이가 들어 있었습죠, 오래전에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돈을 몽땅 종이에 싸고 그다음에 헝겊에 싸서 깊이 쑤셔 넣었습죠. 그렇게 그 돈은 두 주 넘게 거기 있었습죠, 바로 그 돈이요. 그다음 병원에서 나와서 꺼냈습죠. 제 침대로 돌아와서 누워 두려움 속에 이렇게 생각했습죠,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께서 아주 죽으셨다면 그것 때문에 무척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죽지 않으시고 깨어나신다면 아주아주 잘된 일일 거야. 그러면 그분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오셨다는 증인이 될 테고, 그러니 그분이 죽이고 돈을 가져가셨다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으심과 조바심에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를 어서 깨우려고 신음하기 시작했습죠. 마침내 그분이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오려 하시다가,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가 없는 걸 갑자기 보시고는 뛰어나가셨고, 정원에서 울부짖으시는 소리가 들렸습죠. 자, 그다음부터는 밤새도록 그 모든 일이 벌어졌고, 저는 이미 모든 일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죠."

이야기하던 사람이 말을 멈추었다. 이반은 그 내내 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듣고 있었다. 스메르댜코프는 이야기하면서 이따금 그를 힐끗 볼 뿐 거의 옆으로 곁눈질을 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 자신도 보기에 흥분해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에 땀이 배었다. 그러나 그가 뉘우침을 느끼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잠깐." 이반이 헤아리며 받았다. "그럼 문은? 아버지가 너한테만 문을 열어 주었다면, 그리고리가 어떻게 너보다 먼저 문이 열린 걸 볼 수 있었어? 그리고리는 너보다 먼저 봤잖아?"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반이 더없이 평온한 목소리로, 완전히 다른 말투로, 조금도 독살스럽지 않게 물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그들의 방문을 열고 문턱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무언가 평범하지만 흥미로운 일에 대해 앉아서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틀림없이 판단했을 것이다.

"그 문 말인데요,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께서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셨다는 건 그분한테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일그러지게 빙긋 웃었다. "그분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니라 고집 센 거세한 말이나 다름없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그다음엔 꺾을 수가 없습죠. 그분이 그걸 지어내신 건 우리한테, 나리와 저한테 떨어진 행운입죠, 그다음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틀림없이 완전히 유죄로 드러나실 테니까요."

"이봐." 이반 표도로비치가 다시 갈피를 잃기 시작하며 무언가를 헤아리려 애쓰듯 말했다. "이봐…… 너한테 더 많이 묻고 싶었는데 잊어버렸어…… 나는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려…… 그래! 이것 하나만이라도 말해 줘. 너는 왜 봉투를 뜯어서 그 자리 바닥에 두고 갔어? 왜 그냥 봉투째 가져가지 않았어…… 네가 이야기할 때 그 봉투

이야기를 마치 꼭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왜 그래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건 어떤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요. 이를테면 저처럼 그 돈을 미리감치 직접 보고, 어쩌면 그 봉투에 몸소 싸 넣고, 그걸 봉하고 겉봉을 쓰는 걸 제 눈으로 지켜본, 알고 익숙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요, 그런 사람이, 가령 그 사람이 죽였다면, 그 돈이 그 봉투에 반드시코 들어 있다는 걸 그러잖아도 아주 틀림없이 알면서, 살인짓을 하고 나서 무슨 까닭으로 그 봉투를 뜯겠습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허둥지둥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저 같은 도둑이라면 봉투를 조금도 뜯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고 어서 내뺐을 겁니다요. 그런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전혀 다릅죠, 그분은 봉투를 소문으로만 알았지 그 봉투 자체는 보신 적이 없었으니, 가령 요 밑에서 그걸 꺼내셨다면, 정말로 바로 그 돈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자리에서 어서 뜯어 보셨을 겁니다요. 그리고 봉투는 그 자리에 던지셨을 겁니다요, 그게 나중에 자기를 겨냥한 증거로 남으리라는 건 미처 헤아리지 못하시구서요, 그분은 익숙하지 않은 도둑이시고, 예전에 대놓고 무엇 하나 훔치신 적이 없으니까요, 대대로 귀족이시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훔치기로 마음먹으셨다 해도, 바로 훔치는 게 아니라 그저 제 재산을 되찾으러 오신 것처럼 하셨을 겁니다요, 그분은 미리 온 읍내에 그걸 알리셨고, 가서 표도르 파블로비치한테서 제 재산을 되찾아 오겠다고 미리감치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자랑까지 하셨으니까요. 저는 검사님께 신문을 받을 때 이 생각을 또렷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넌지시 이끌어 드리듯이 했습죠, 마치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분이 몸소 그 생각을 해내신 것처럼, 제가 넌지시 일러 드린 게 아닌 것처럼요, 그랬더니 검사님은 바로 제 그 귀띔에 군침까지 흘리셨습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너는 그 모든 걸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궁리해 냈어?" 이반 표도로비치가 놀란 나머지 제정신이 아닌 채 외쳤다. 그는 다시 겁에 질려 스메르댜코프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 모든 걸 그렇게 허둥지둥한 가운데 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요? 미리 다 궁리해 둔 겁니다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는 악마가 몸소 도왔구나!" 이반 표도로비치가 다시 외쳤다. "아니, 너는 어리석지 않아,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똑똑해……"

그는 보기에도 방 안을 거닐 작정으로 일어났다. 그는 무서운 비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탁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탁자와 벽 사이를 거의 비집고 지나가야 했으므로, 그는 그 자리에서 몸만 돌리고 다시 앉았다. 거닐지 못한 것이 어쩌면 갑자기 그를 짜증 나게 했는지, 그는 거의 아까처럼 미친 듯이 갑자기 울부짖었다.

"이봐, 불행하고 경멸스러운 인간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건 오로지 내일 법정에서 네가 답변하도록 너를 아껴 두는 것뿐이라는 걸 정말 모르겠어? 하느님이 보고 계셔." 이반이 손을 위로 쳐들었다. "어쩌면 나도 죄가 있었는지 몰라. 어쩌면 정말로 나는 은밀한 바람을 품고 있었는지 몰라…… 아버지가 죽기를. 하지만 맹세하는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죄가 있지는 않았어. 그리고 어쩌면 너를 전혀 부추기지 않았는지도 몰라. 아니야, 아니야, 부추기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래도 좋아,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고발하겠어, 바로 내일, 법정에서. 나는 결심했어! 다 말할 거야, 다. 하지만 우리는 너와 함께 출두할 거야! 그리고 네가 법정에서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증언을 하든 나는 받아들이고 너를 무서워하지 않아. 내가 몸소 다 확인해 주겠어! 하지만 너도 법정에서 자백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함께 가는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반은 이 말을 엄숙하고 힘차게 했고, 그 번득이는 눈길 하나만 보아도 벌써 정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리께서는 아프십니다요, 제가 보기에 아주 아프십니다요. 눈이 아주 누렇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말했는데, 전혀 비웃는 기색 없이, 오히려 가엾어하는 것 같았다.

"함께 가는 거야!" 이반이 되풀이했다. "네가 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좋아, 나 혼자 자백할 거야."

스메르댜코프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요. 나리께서는 가지 않으실 겁니다요." 그가 마침내 두말할 여지 없이 결론지었다.

"너는 나를 몰라!" 이반이 나무라듯 외쳤다.

"모든 걸 자백하시면 너무나 부끄러우실 겁니다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건 아무 소용도 없으리라는 거지요, 전혀요, 저는 대놓고 말할 테니까요, 저는 나리께 그런 말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나리께서는 무슨 병에 걸리셨거나(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형님이 너무 가여워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저한테 덮어씌우셨다고요, 나리께서는 평생 저를 사람이 아니라 하루살이처럼 여기셨으니까요. 그러니 누가 나리 말을 믿겠습니까요, 그리고 나리께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요?"

"이봐, 이 돈을 지금 나한테 보여 준 건 물론 나를 믿게 하려는 거지."

스메르댜코프는 돈뭉치에서 시리아인 이삭을 걷어 내 옆으로 치웠다.

"이 돈은 가지고 가십쇼." 스메르댜코프가 한숨을 쉬었다.

"물론 가져갈 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면서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반이 몹시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저한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손을 내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돈을 가지고 모스크바나, 아니

그보다 외국에서 삶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꿈이 있었습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었습죠. 그건 나리께서 정말로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죠, 그때 나리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무한한 하느님이 없다면 어떤 덕도 없고, 그때는 덕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다고요. 그건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요. 저는 그렇게 따졌습죠."

"제 머리로 깨쳤냐?" 이반이 비뚤게 빙긋 웃었다.

"나리의 지도로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돌려주는 걸 보니 하느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아니요, 믿게 되지 않았습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속삭였다.

"그럼 왜 돌려줘?"

"그만두십쇼……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다시 손을 내저었다. "나리께서 몸소 그때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줄곧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요, 나리 자신이요? 자기를 고발하러 가시겠다고까지 하시고…… 다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요! 고발하러 가지 않으실 겁니다요!" 스메르댜코프가 다시 단호하게, 확신에 차서 결론지었다.

"두고 봐!" 이반이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요. 나리께서는 무척 똑똑하십니다요. 돈을 좋아하시지요, 그건 제가 압니다요, 명예도 좋아하시지요, 무척 오만하시니까요, 여자의 매력을 지나치게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평온하게 만족하며 살고 아무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기를 좋아하시지요, 그게 무엇보다 그렇습니다요. 법정에서 그런 수치를 받아들여서 영영 삶을 망치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요. 나리께서는 표도르 파블로비치 같으십니다요, 누구보다도요, 모든 자식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분을 닮으셨고, 그분과 한 영혼을 지니셨습니다요."

"너는 어리석지 않아." 이반이 충격을 받은 듯 말했다. 피가 그의 얼굴로 몰렸다. "예전에는 네가 어리석은 줄 알았어. 너는 지금 진지해!" 그가 어쩐지 갑자기 새로운 눈으로 스메르댜코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리의 오만 때문에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신 겁니다요. 돈을 받으십쇼."

이반은 지폐 세 뭉치를 모두 집어 무엇으로도 싸지 않은 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내일 이걸 법정에서 보여 주겠어." 그가 말했다.

"거기서 아무도 나리를 믿지 않을 겁니다요. 마침 나리께는 이제 나리 돈도 넉넉하니, 상짝에서 꺼내서 가져오셨다고 할 테니까요."

이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말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건 오로지 네가 내일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걸 기억해, 잊지 마!"

"그럼 뭐, 죽이십쇼. 지금 죽이십쇼." 스메르댜코프가 이상하게 이반을 바라보며 갑자기 이상하게 말했다. "그것도 감히 못 하실 겁니다요." 그가 쓰라리게 빙긋 웃으며 덧붙였다. "아무것도 감히 못 하실 겁니다요, 예전의 대담하신 분께서요!"

"내일 보자!" 이반이 소리치고는 나가려고 몸을 움직였다.

"잠깐만요…… 그걸 한 번만 더 보여 주십쇼."

이반은 지폐를 꺼내 그에게 보여 주었다. 스메르댜코프는 10초쯤 그것을 바라보았다.

"자, 가십쇼." 그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반 표도로비치!" 그가 갑자기 다시 그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왜?" 이반이 벌써 걸어가다가 돌아섰다.

"안녕히 가십쇼!"

"내일 보자!" 이반이 다시 소리치고는 방을 나왔다.

눈보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 몇 걸음은 씩씩하게 걸었지만,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무언가 몸 탓이야." 그는 빙긋 웃으며 생각했다. 무언가 기쁨 같은 것이 이제 그의 영혼에 내려앉았다. 그는 자기 안에서 어떤 끝없는 단단함을 느꼈으니, 요즘 내내 그를 그토록 무섭게 괴롭히던 망설임이 끝났다!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는 행복하게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무엇엔가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멈춰 서서 보니 자기 발치에 자기가 쓰러뜨린 그 농군이 여전히 바로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눈보라가 벌써 그의 얼굴을 거의 다 덮어 버렸다. 이반은 갑자기 그를 붙잡아 등에 업고 끌고 갔다. 오른쪽 작은 집에 불빛이 보이자 다가가 덧문을 두드리고, 대답하고 나온 그 집 주인인 소시민에게 농군을 경찰 지서까지 끌고 가는 것을 도와 달라고, 그 대가로 곧바로 3루블을 주겠다고 청했다. 소시민은 채비를 하고 나왔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때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 농군을 지서에 맡기고 곧바로 의사의 진찰까지 받게 했는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시 손 크게 돈을 "비용으로" 내놓았는지는 자세히 쓰지 않겠다. 다만 그 일에 거의 한 시간이 꼬박 걸렸다는 것만 말해 두자. 그러나 이반 표도로비치는 무척 만족했다. 그의 생각은 이리저리 뻗어 가며 움직였다. "내일에 대한 내 결정이 이렇게 단단히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는 갑자기 즐겁게 생각했다, "나는 한 시간이나 멈춰 서서 농군을 맡기고 있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그놈이 얼어 죽든 말든 침이나 뱉었겠지……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지켜볼 힘이 있다니." 그는 같은 순간 더욱 즐겁게 생각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내가 미쳐 간다고 단정했단 말이지!" 자기 집에 이르자 그는 갑작스러운 물음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지금, 바로 지금 검사한테 가서 다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는 "내일 모두 함께!"라고 혼자 속삭이며 다시 집 쪽으로 돌아서서 그 물음을 풀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기쁨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거의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가 자기 방에 들어섰을 때 무언가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갑자기 그의 가슴에 닿았는데, 마치 회상 같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이 방에 지금, 바로 지금 있는, 그리고 예전에도 있었던 무언가 괴롭고 역겨운 것을 일깨우는 것 같았다. 그는 지쳐서 자기 소파에 주저앉았다. 노파가 사모바르를 가져왔고, 그는 차를 우렸지만 손대지 않았다. 노파는 내일까지 물러가게 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기가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느꼈다. 잠이 들려 했지만 불안해서 일어나 잠을 쫓으려고 방 안을 거닐었다. 이따금 자기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병이 아니었고, 다시 앉고 나서 그는 무언가를 찾아보듯 이따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 마침내 그의 눈길이 한 점으로 뚫어지게 향했다. 이반은 빙긋 웃었지만 분노의 붉은 기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꽉 괸 채 오랫동안 제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같은 점을, 맞은편 벽 곁에 놓인 소파를 곁눈질했다. 보기에도 거기에 있는 무언가가, 어떤 물체가 그를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 같았다.

제9장 악마. 이반 표도로비치의 악몽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반 표도로비치의 병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독자에게 무엇이든 조금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왔다고 느낀다. 앞질러 한 가지만 말해 두자. 그는 지금, 이날 저녁, 바로 섬망이 덮치기 직전에 있었다. 오래전부터 무너져 가면서도 끈질기게 병에 맞서 온 그의 몸을 섬망이 마침내 완전히 사로잡았다. 의학을 전혀 모르면서도 감히 짐작을 말해 보자면, 그는 정말로 어쩌면 무서운 의지의 긴장으로 병을 한동안 멀리 밀어내는 데 성공했고, 물론 아예 이겨 내기를 꿈꾸었을 것이다. 그는 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지금, 제 삶의 숙명적인 순간들이 닥쳐오는 이때 앓아눕는다는 것이 역겹도록 싫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제 말을 대담하고 단호하게 하고, 스스로 "제 앞에서 제 자신을 의롭다 해야" 할 때였기 때문이다. 하기야 그는 한 번, 모스크바에서 새로 온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앞서 이미 말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어떤 공상 때문에 그 여자가 불러온 의사였다. 의사는 그의 말을 듣고 진찰한 뒤, 그에게 뇌에 무슨 탈 같은 것마저 있는 듯하다고 결론지었고, 그가 역겨워하면서도 털어놓은 어떤 고백에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환각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가 판정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1분도 허비하지 말고 진지하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빠집니다." 그러나 이반 표도로비치는 의사 집을 나서자 그 현명한 충고를 따르지

않았고, 자리에 누워 치료받는 일도 무시해 버렸다. "아직 걸어 다니고 기운도 있잖아. 쓰러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르지. 그때는 누구든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 치료하라지." 그는 손을 내저으며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거의 제 스스로도 헛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앉아 있었고, 이미 말한 대로 맞은편 벽 소파 위의 무언가를 끈덕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거기에 갑자기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하느님이나 아실 일이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스메르댜코프에게서 돌아와 방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그는 방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신사,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부류의 러시아 젠틀맨이었다. 나이는 이미 젊지 않았는데, 프랑스 사람들 말로 "쉰을 바라보는(qui frisait la cinquantaine)" 나이였고, 아직 꽤 길고 숱 많은 검은 머리에 흰머리가 그리 많지 않게 섞여 있었으며, 쐐기 모양으로 짧게 깎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무슨 갈색 재킷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분명 일류 재단사의 솜씨였으나 이미 낡았고, 대략 재작년에 지은 것으로 완전히 유행이 지나서, 사교계의 넉넉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은 이미 2년째 아무도 없었다. 속옷이며 목도리처럼 길게 늘어뜨린 넥타이며, 모든 것이 멋 부리는 신사들이 다 그렇듯 그러했으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속옷은 좀 꾀죄죄했고 넓은 목도리는 몹시 닳아 있었다. 손님의 체크무늬 바지는 몸에 기막히게 맞았지만 이것 역시 너무 밝은 색이었고, 요즘은 더는 입지 않는, 어쩐지 지나치게 좁은 것이었다. 손님이 너무나 철에 맞지 않게 들고 온 부드러운 흰 털모자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주머니 사정은 몹시 넉넉지 못하면서도 점잖은 티는 갖춘 모양새였다. 그 젠틀맨은 아무래도 농노제 시절에 번성했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옛 지주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았다. 세상과 점잖은 사교계를 구경한 적이 있고, 한때 연줄도 있었으며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연줄을 지니고 있겠지만, 젊은

시절의 흥겨운 생활과 얼마 전의 농노 해방 뒤로 차츰 가난해지면서 좋은 옛 지인들 집을 떠도는 점잖은 식객 비슷한 것이 되어 버린 사람이 분명했다. 그런 지인들은 그가 잘 어울리고 무난한 성격이라서, 그리고 또 어쨌든 점잖은 사람이니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제 식탁에 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인다. 물론 말석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무난한 성격의 식객 젠틀맨들은 이야기를 곧잘 풀어 놓고 카드놀이 판을 채워 주지만, 무슨 심부름이든 떠맡기면 질색을 하는데, 대개 외톨이다. 홀아비이거나 아내를 여읜 사람이고, 어쩌면 자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식들은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의 무슨 이모나 고모 집에서 자란다. 젠틀맨은 그런 친척이 어쩐지 좀 부끄러운 듯 점잖은 사교계에서는 그들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다. 자식들과도 차츰 아주 멀어져서, 이따금 제 명명일과 성탄절에 그들에게서 축하 편지를 받고, 때로는 답장을 쓰기도 한다. 뜻밖의 손님의 얼굴은 선량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었고, 역시 무난한 얼굴로, 사정에 따라 어떤 상냥한 표정이든 지어 보일 채비가 되어 있었다. 시계는 차고 있지 않았으나 검은 끈에 매단 대모갑 손잡이 안경을 지니고 있었다.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에는 값싼 오팔을 박은 묵직한 금반지가 번쩍였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심술궂게 입을 다문 채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손님은 기다렸다. 그는 위층의 제게 내준 방에서 차를 마시러 막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인의 말동무가 되어 주려는 식객처럼 앉아 있었다. 주인이 무언가에 골몰해 얼굴을 찌푸리고 생각에 잠겨 있으니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나, 주인이 말을 꺼내기만 하면 어떤 상냥한 대화에든 응할 채비가 되어 있는 식객이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무언가 뜻밖의 근심 같은 것이 떠올랐다.

"이봐." 그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말을 꺼냈다. "미안하지만 그냥 일깨워 주려는 것뿐인데, 너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일을 알아보려고

스메르댜코프한테 갔으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나왔잖아. 아마 잊어버렸겠지……"

"아, 그렇지!" 이반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고 그의 얼굴이 근심으로 어두워졌다. "그래, 잊어버렸어…… 하기야 이제는 아무래도 좋아, 모든 건 내일까지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너는," 그가 짜증스럽게 손님에게 돌아섰다. "그건 내가 지금 막 스스로 떠올렸어야 했던 거야, 바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게 쑤셨으니까! 네가 불쑥 튀어나왔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떠올린 게 아니라 네가 일러 준 거라고 내가 믿을 줄 알아?"

"믿지 마." 젠틀맨이 다정하게 빙긋 웃었다. "억지로 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게다가 믿음에는 어떤 증거도 도움이 안 돼, 특히 물질적인 증거는. 도마가 믿은 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아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믿고 싶어 했기 때문이야. 이를테면 강신술사들 말이야…… 나는 그 사람들을 아주 좋아해…… 생각해 봐, 그 사람들은 저세상에서 악마들이 자기들한테 뿔을 내보여 주니까 자기들이 신앙에 이롭다고 여긴다니까. '이건, 말하자면, 저세상이 있다는 이미 물질적인 증거라는 거지.' 저세상과 물질적인 증거라니, 얼씨구! 그리고 결국, 악마가 증명됐다 쳐도 신이 증명됐는지는 아직 모를 일이잖아? 나는 관념론자 협회에 가입해서 거기서 반대파 노릇을 할 생각이야. '이를테면 나는 실재론자지 유물론자는 아니올시다, 헤헤!'"

"이봐."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탁자에서 일어섰다. "나는 지금 꼭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물론 헛소리를 하고 있지…… 마음대로 거짓말을 늘어놔,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지난번처럼 나를 미쳐 날뛰게 만들지는 못할 거야. 다만 왠지 부끄러울 뿐이야…… 방 안을 좀 걷고 싶어…… 지난번처럼 나는 가끔 너를 보지도 못하고 네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지만, 네가 지껄이는 것은 언제나 알아맞혀. *이건*

나, 나 자신이 말하는 거지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지난번에 내가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생시에 너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어. 자,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머리에 대 볼 테니, 그러면 혹시 너는 증발해 버리겠지."

이반 표도로비치는 구석으로 가서 수건을 집어 들고 말한 대로 하더니, 젖은 수건을 머리에 얹은 채 방 안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곧장 *반말*을 트게 된 게 마음에 드는군." 손님이 말을 꺼내려 했다.

"바보 같으니." 이반이 웃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존댓말*이라도 할 줄 알았어?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 관자놀이만 아플 뿐이야…… 정수리도…… 다만 제발 지난번처럼 철학은 늘어놓지 마. 꺼질 수 없다면 뭔가 즐거운 거짓말이나 해. 험담이나 해, 너는 식객이니까 험담이나 하라고. 이런 악몽이 들러붙다니! 그래도 나는 네가 무섭지 않아. 너를 이겨 낼 거야. 정신병원으로 실려 가지는 않을 거야!"

"멋지군, 식객이라. 그래, 나는 바로 제 모습 그대로야. 내가 이 땅에서 식객 말고 뭐겠어? 그건 그렇고, 네 말을 들으면서 나는 좀 놀라고 있어. 하느님께 맹세코, 너는 지난번에 그저 네 환상일 뿐이라고 우기던 것과는 달리, 벌써 나를 조금씩 정말로 무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거든……"

"단 1분도 너를 실재하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반이 어쩐지 사납게까지 소리쳤다. "너는 거짓이고, 내 병이고, 유령이야. 다만 너를 무엇으로 없애 버려야 할지 모르겠고, 얼마 동안은 괴로움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 뿐이야. 너는 내 환각이야. 너는 나 자신의 화신이야, 하기야 내 한쪽 면의…… 내 생각과 감정 가운데 가장 추하고 어리석은 것들만의 화신이지만. 그런 면에서라면 너는 나한테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 너를 상대할 시간만 있다면……"

"잠깐, 잠깐, 내가 너를 꼼짝 못 하게 해 주지. 아까 가로등 곁에서 네가 알료샤에게 덤벼들며 '너는 그놈한테서 알았구나! 그놈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하고 소리쳤을 때, 그건 너 나를 떠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아주 짧은 한순간이나마 너는 믿었던 거야, 내가 참으로 있다고 믿었던 거지." 젠틀맨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그건 본성의 약점이었어…… 하지만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었어. 지난번에 내가 자고 있었는지 걸어 다녔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나는 그때 너를 꿈에서만 보았을 뿐, 생시에는 전혀 보지 않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너는 아까 왜 그 애한테, 알료샤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 그 애는 사랑스러운 애야. 나는 조시마 장로 일로 그 애한테 죄가 있지."

"알료샤 이야기는 하지 마! 감히 어디서, 이 하인 놈이!" 이반이 다시 웃었다.

"욕을 하면서 웃다니, 좋은 징조야. 하기야 너는 오늘 지난번보다 나한테 훨씬 상냥한데, 왜 그런지 알겠어. 그 위대한 결심 때문이지……"

"결심 이야기는 하지 마!" 이반이 사납게 소리쳤다.

"알아, 알아, 고결하구나, 멋지구나, 너는 내일 형을 변호하러 가서 너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지…… 기사답구나."

"닥쳐, 발길질을 해 줄 테다!"

"어떤 면에서는 기쁘겠는걸. 그러면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발길질을 한다면 내 실재를 믿는다는 뜻이야, 유령한테는 발길질을 하지 않으니까. 농담은 그만두고,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욕하고 싶으면 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예의를 갖추는 게 낫지, 비록 나를 상대로라도. 바보니 하인 놈이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를 욕하는 건 나 자신을 욕하는 거야!" 이반이 다시 웃었다. "너는 나야, 나 자신이야, 낯짝만 다를 뿐이지. 너는 바로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 그리고 나한테 새로운 건 아무것도 말할 힘이 없어!"

"내가 너와 생각이 같다면 그건 나한테 영광일 뿐이야." 젠틀맨이 섬세하고 품위 있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내 생각 가운데 추한 것들만, 무엇보다 어리석은 것들만 가져가. 너는 어리석고 저속해. 너는 끔찍하게 어리석어. 아니, 나는 너를 견디지 못하겠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반이 이를 갈았다.

"친구, 그래도 나는 젠틀맨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기를 바라." 순전히 식객다운, 그것도 미리부터 양보할 채비가 된 사람 좋은 자존심이 좀 발동해서 손님이 말을 꺼냈다. "나는 가난하지만…… 아주 정직하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세상에서는 대개 내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공리로 받아들이지. 하느님께 맹세코, 내가 어떻게 언젠가 천사였을 수 있었는지 상상이 안 가. 설령 그랬던 적이 있다 해도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려도 죄가 아니지. 이제 나는 점잖은 사람이라는 평판만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기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되는대로 살아. 나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오, 나는 많은 점에서 중상을 당했지! 이따금 내가 너희한테 옮겨 와 살 때면, 여기서는 내 삶이 어쩐지 정말로 실재하는 무엇처럼 흘러가는데, 무엇보다 그게 마음에 들어. 나도 너처럼 환상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너희의 지상의 리얼리즘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 너희한테는 모든 게 윤곽이 잡혀 있고 공식이 있고 기하학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온통 무슨 부정 방정식 같은 것뿐이야! 나는 여기서 거닐며 공상을 해. 나는 공상을 좋아하지. 게다가 지상에 오면 나는 미신을 믿게 되는데, 제발 웃지 마, 나는 바로 그게, 미신을 믿게 된다는 게 마음에 들어. 나는 여기서 너희 습관을 다 받아들여서 대중목욕탕에 다니는 걸 좋아하게 됐는데, 네가 이걸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인들이며 사제들하고 함께 증기욕을 하는 걸 좋아해. 내 꿈은 몸을 입는 거야, 그것도 마지막으로,

되돌릴 수 없게, 무슨 7푸드나 되는 뚱뚱한 상인 마누라 몸을 입고서 그 여자가 믿는 것을 다 믿는 거지. 내 이상은 교회에 들어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초를 한 자루 바치는 거야, 하느님께 맹세코 정말이야. 그러면 내 괴로움도 끝이야. 그리고 너희한테서 치료받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 봄에 천연두가 돌자 나는 고아원에 가서 우두를 맞았는데, 그날 내가 얼마나 흡족했는지 네가 안다면! 슬라브 형제들을 위해 10루블을 기부했거든!…… 그런데 너는 듣지 않는구나. 있잖아, 너는 오늘 무척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젠틀맨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어제 그 의사한테 갔었다는 거 알아…… 그래, 건강은 어때? 의사가 뭐라고 했어?"

"바보!" 이반이 잘라 말했다.

"그 대신 너는 참 똑똑하구나. 또 욕이야? 나는 뭐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야. 대답 안 해도 돼. 요즘 또 류머티즘이 돌기 시작했어……"

"바보." 이반이 또다시 되풀이했다.

"너는 늘 그 소리구나. 그런데 나는 작년에 어찌나 지독한 류머티즘에 걸렸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

"악마한테 류머티즘이라고?"

"왜 안 되겠어, 내가 가끔 몸을 입는데. 몸을 입으면 그 결과도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사탄이니, 인간적인 것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Satana sum et nihil humanum a me alienum puto).[1]"

"뭐, 뭐라고? 나는 사탄이니, 인간적인 것 가운데…… 악마치고는 멍청하지 않은 소리군!"

"드디어 마음에 들었다니 기쁘군."

"그런데 그건 네가 나한테서 가져온 게 아니야." 이반이 무엇에 얻어맞은 듯 갑자기 멈춰 섰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내 머리에 떠오른 적이 없어, 이상한 일이야……"

"새롭지, 안 그래? 이번에는 정직하게 굴어서 너한테 설명해 주지. 들어 봐. 꿈속에서, 특히 악몽 속에서, 그러니까 배탈이 났거나 뭐 그런 일로 꾸는 악몽 속에서 사람은 가끔 몹시 예술적인 꿈을 꾸는데, 몹시 복잡하고 실감 나는 현실을, 그런 사건들을, 아니 무슨 줄거리로 얽힌 사건들의 온 세계를, 너희의 가장 높은 발현에서부터 셔츠 앞섶의 마지막 단추에 이르기까지 몹시 뜻밖의 세부를 갖춘 채로 보는데, 맹세하지만 레프 톨스토이도 그렇게는 못 지어낼 정도이고, 그런데도 그런 꿈을 꾸는 건 때로 작가들이 전혀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 관리나 잡문 기자나 사제 같은 사람들이야…… 이것만 해도 아주 큰 수수께끼지. 어떤 장관은 자기의 가장 좋은 생각들이 모두 잠잘 때 떠오른다고 나한테 직접 털어놓기까지 했어. 그래, 지금도 그런 거야. 나는 네 환각이지만, 악몽 속에서처럼 독창적인 것을, 지금까지 네 머리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말하니까 네 생각을 되풀이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러면서도 나는 네 악몽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네 목적은 바로 네가 따로 있는 거지 내 악몽이 아니라고 믿게 하는 건데, 이제 네 입으로 네가 꿈이라고 확인해 주는구나."

"친구, 오늘 나는 특별한 수법을 쓰기로 했어. 나중에 풀어서 말해 주지. 잠깐,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래, 나는 그때 감기에 걸렸어, 다만 너희 여기서가 아니라 아직 저기서……"

"저기가 어딘데? 말해 봐, 내 곁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거야, 떠날 수 없어?" 이반이 거의 절망하여 외쳤다. 그는 걷기를 그만두고 소파에 앉아 다시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젖은 수건을 벗겨 내어 짜증스럽게 내던졌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분명했다.

"너는 신경이 곤두서 있구나." 젠틀맨이 스스럼없이 무심하면서도 아주 다정한 얼굴로 한마디 했다. "너는 내가 감기에 걸릴 수 있었다는 것까지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야. 나는 그때 장관 자리를 노리던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상류층 귀부인 댁에서 열리는 외교 야회에 서둘러 가던 참이었어. 그래서 연미복에 흰 넥타이에 장갑까지 갖추었는데, 나는 아직도 어디인지 하느님이나 아실 곳에 있었고, 너희 땅에 닿으려면 아직 공간을 날아 건너야 했지…… 물론 그건 한순간일 뿐이지만 해에서 오는 빛도 꼬박 8분이 걸리는데, 생각해 봐, 연미복에 앞이 트인 조끼 차림이었다고. 영들은 얼지 않지만 일단 몸을 입었으니…… 한마디로 경솔하게 그냥 나섰는데, 그 공간들 속은, 그 에테르 속은,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속은 어찌나 추운지…… 아니, 추위라니, 그건 추위라고 부를 수도 없어, 상상해 봐, 영하 150도야! 시골 처녀들의 *장난*은 잘 알려져 있지, 영하 30도 추위에 풋내기한테 도끼를 핥아 보라고 하면 혀가 순식간에 얼어붙어서 얼간이는 혀의 살갗을 피가 나게 벗겨 내는데, 그건 겨우 30도에서고, 150도라면 내 생각에 도끼에 손가락만 대도 손가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만약…… 거기에 도끼가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럼 거기에 도끼가 있을 수 있어?" 이반 표도로비치가 멍하니, 그리고 메스꺼운 듯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는 자기 헛소리를 믿지 않으려고, 완전히 미쳐 버리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버텼다.

"도끼?" 손님이 놀라서 되물었다.

"그래, 거기서 도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반 표도로비치가 어쩐지 사납고 집요하게 고집하며 갑자기 소리쳤다.

"공간 속에서 도끼가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그런 생각을! 좀 멀리 들어가게 되면, 내 생각에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채 위성 꼴로 지구

둘레를 날아다니기 시작할 거야. 천문학자들은 도끼가 뜨고 지는 시각을 계산하고, 가추크는 그걸 달력에 실어 넣겠지. 그걸로 끝이야."

"너는 어리석어, 끔찍하게 어리석어!" 이반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좀 더 똑똑하게 거짓말을 해, 안 그러면 듣지 않을 테다. 너는 리얼리즘으로 나를 꺾고 싶은 거야, 네가 있다고 나를 믿게 하려는 거지. 하지만 나는 네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아! 믿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다 사실이야. 안타깝게도 진실이란 거의 언제나 재치가 없지. 보아하니 너는 나한테서 단연코 무언가 위대한 것을, 어쩌면 아름다운 것까지 기다리는 모양이야. 그거 참 유감이군,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주니까."

"철학은 늘어놓지 마, 이 당나귀야!"

"철학은 무슨, 오른쪽이 온통 마비되어서 끙끙대고 앓는 소리나 내는 판에.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가 봤는데, 알아내는 건 기막히게 잘해서 병을 손가락 꼽듯 낱낱이 이야기해 주지만 고치는 건 못 하더군. 마침 어떤 열광적인 대학생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하는 말이, 당신은 죽는다 해도 그 대신 무슨 병으로 죽는지는 완전히 알게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또 전문의한테 보내는 그 사람들 버릇 말이야, 우리는 알아내기만 할 뿐이니 아무개 전문의한테 가 보시오, 그 사람이 고쳐 줄 거요, 이런다니까. 예전처럼 모든 병을 고치던 의사는 아주, 아주 사라져 버렸고, 정말이지 이제는 전문의들뿐인데 그 사람들은 모두 신문에 광고를 내지. 코가 아프면 거기에 코를 고치는 유럽의 전문의가 있다면서 너를 파리로 보내. 파리에 가면 그 전문의가 코를 살펴보고, 나는 오른쪽 콧구멍만 고쳐 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 콧구멍은 고치지 않거든요, 그건 내 전문이 아니니 나한테 다녀간 다음 빈으로 가십시오, 거기 특별한 전문의가 왼쪽 콧구멍을 마저 고쳐 드릴 겁니다, 하고 말할 거야. 어쩌겠어? 민간요법에 기댔더니, 어떤 독일인 의사가 목욕탕 선반

위에서 꿀과 소금을 몸에 문지르라고 권하더군. 나는 오로지 목욕탕에 한 번 더 가 보려는 생각으로 갔는데, 온몸만 더러워지고 아무 효과도 없었어. 절망한 나머지 밀라노의 마테이 백작한테 편지를 썼더니 책이랑 물약을 보내 주더군, 하느님이 그 사람을 지켜 주시길. 그런데 생각해 봐, 호프의 맥아 엑기스가 도움이 된 거야! 우연히 사서 한 병 반을 마셨더니, 춤이라도 출 수 있을 만큼 씻은 듯이 다 나았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우러나 꼭 신문에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를 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생각해 봐,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어, 어느 편집국에서도 받아 주지 않는 거야! '그건 몹시 반동적일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악마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le diable n'existe point). 익명으로 실으시지요.' 이렇게 권하더군. 익명이라면 그게 무슨 '감사합니다'야. 나는 사무원들하고 함께 웃으며 말했지. '우리 시대에 하느님을 믿는 건 반동적이지만, 나는 악마니까 나는 믿어도 되잖소.' 그랬더니 '압니다, 악마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노선에 해가 될 수 있어서요. 농담 꼴로라면 모를까?' 이러더군. 농담으로 내면 재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결국 싣지 못했어. 그런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마음에 응어리로 남기까지 했어. 이를테면 감사 같은 내 가장 좋은 감정들이 오로지 내 사회적 처지 때문에 형식상 금지되어 있다니까."

"또 철학으로 굴러 들어갔군!" 이반이 증오에 차서 이를 갈았다.

"하느님, 나를 지켜 주소서. 하지만 가끔은 하소연하지 않을 수 없잖아. 나는 중상을 당한 사람이야. 너는 툭하면 나더러 어리석다고 하지. 젊은 사람이라는 게 그대로 보인다니까. 친구, 문제는 지혜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본디 마음씨가 착하고 명랑해, '나도 이런저런 보드빌을 좀 쓰지요.' 너는 아무래도 나를 머리 센 흘레스타코프[2]쯤으로 아는 모양인데, 내 운명은 그보다 훨씬 심각해. 나는 끝내 알아낼 수

없었던 어떤 태초 이전의 정해진 몫에 따라 '부정하는' 자로 정해졌는데, 그런데도 나는 진심으로 착하고 부정하는 일에는 전혀 재주가 없어. 아니, 가서 부정하라는 거야, 부정이 없으면 비평이 없을 거고, '비평란'이 없는 잡지가 무슨 잡지냐는 거지. 비평이 없으면 오직 '호산나'만 남을 거야. 하지만 삶에는 '호산나' 하나로는 모자라고, 그 '호산나'가 의심의 용광로를 거쳐야 하고, 뭐 그런 따위로 계속 이어지지. 하기야 나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아,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니니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지. 그래서 속죄양을 뽑아서 비평란에 글을 쓰게 했고, 그래서 삶이 생겨났어. 우리는 이 코미디를 잘 알아서, 이를테면 나는 곧이곧대로 나를 없애 달라고 요구해. 그러면 안 돼, 살아라,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이런다니까. 지상의 모든 것이 분별 있기만 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가 없으면 아무 사건도 없을 텐데, 사건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건이 있도록 마지못해 일하고, 명령대로 분별없는 짓을 저질러.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지혜를 다 갖추고서도 이 코미디를 무슨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거기에 그들의 비극이 있어. 그래서 물론 괴로워하지만…… 그 대신 살아, 환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살지, 괴로움이야말로 삶이니까. 괴로움이 없다면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모든 게 끝없는 기도회 하나로 바뀌어 버릴 텐데, 그건 거룩하지만 좀 따분하지. 그럼 나는? 나는 괴로워하는데도 살지 못해. 나는 부정 방정식의 엑스야. 나는 끝과 처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자기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까지 잊어버린 무슨 삶의 유령이야. 너는 웃는구나…… 아니, 너는 웃지 않아, 또 화를 내는구나. 너는 늘 화를 내고 너한테는 오로지 지혜만 있으면 되지만, 나는 다시 말하지만, 오로지 7푸드짜리 상인 마누라의 영혼 속에 몸을 입고 하느님께 초를 바칠 수만 있다면, 이 별들 위의 삶을, 모든 관등과 영예를 다 내주겠어."

"그래 너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반이 증오에 차서 빙긋 웃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네가 정말 진지하게 묻는 거라면……"

"하느님은 있어, 없어?" 이반이 다시 사납게 고집하며 소리쳤다.

"아, 그럼 진지하게 묻는 거구나? 이 사람아, 하느님께 맹세코 모르겠어. 위대한 말을 했군."

"모르면서 하느님을 본다고? 아니, 너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나*야, 너는 *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내 환상이야!"

"그러니까, 원한다면, 나는 너와 같은 철학을 가졌다고 해 두지, 그게 공정할 거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Je pense donc je suis)', 이건 내가 확실히 알지만, 그 밖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이 세계들, 하느님, 심지어 사탄 자신까지, 이 모든 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태초 이전부터 홀로 존재하는 내 *나*의 발산일 뿐이고 그 *나*가 차례로 펼쳐진 것일 뿐인지 나한테는 증명되지 않았어…… 한마디로 이쯤에서 얼른 그만둘게, 너는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나 덤벼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무슨 일화라도 이야기해!" 이반이 괴로운 듯 말했다.

"일화가 있지, 그것도 바로 우리 주제에 맞는 게, 그러니까 일화가 아니라 그냥 전설이야. 너는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나더러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하지만 친구, 그런 게 나 하나만은 아니야, 우리 저쪽에서는 이제 다들 머리가 흐려졌는데, 모두 너희 학문 때문이야. 원자와 오감과 4원소가 있던 동안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앞뒤가 맞았지. 원자야 고대 세계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화학적 분자'니 '원형질'이니 그 밖에 악마나 알 무엇을 발견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자, 우리 쪽은 그만 꼬리를 말았어. 그냥 뒤죽박죽이 시작됐어, 무엇보다 미신과 험담 말이야, 험담은 우리 쪽에도 너희만큼, 아니 조금 더 많고, 결국에는 밀고까지 있지, 우리한테도 이른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서가 한 군데 있거든. 그래서 이 엉뚱한 전설은 아직 우리 중세에, 너희 중세가 아니라 우리 중세에 생긴 건데, 우리 쪽에서도 7푸드짜리 상인 마누라들 말고는,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가 아니라 우리 쪽 상인 마누라들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아. 너희한테 있는 건 다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 이건 금지되어 있지만 우정을 봐서 너한테 털어놓는 우리 비밀이야. 그 전설이란 천국에 관한 거야. 여기 너희 땅에 '법률도 양심도 믿음도 모두 부정했고' 무엇보다 내세를 부정한 그런 사상가이자 철학자가 한 사람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죽었는데, 곧장 어둠과 죽음으로 가리라 생각했건만 웬걸, 그 앞에 내세가 있었어. 그는 깜짝 놀라 분개했지. '이건 내 신념에 어긋나오.' 그래서 그 벌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들은 대로 전할 뿐이야, 이건 전설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어둠 속을 1천조 킬로미터 걸어가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우리 쪽도 이제는 킬로미터로 재거든). 그리고 그 1천조를 다 걸으면 천국의 문을 열어 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 저세상에는 1천조 말고 또 무슨 고문이 있어?" 이반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기를 띠며 말을 끊었다.

"무슨 고문이냐고? 아, 묻지도 마, 예전에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갈수록 도덕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 '양심의 가책'이니 하는 헛소리 말이야. 이것도 너희한테서 퍼진 거야, '너희 풍속이 부드러워진' 덕분이지. 그래서 누가 이득을 봤느냐 하면, 양심 없는 자들만 이득을 봤어, 양심이란 게 아예 없는데 양심의 가책이 그 사람한테 무슨 상관이겠어. 그 대신 아직 양심과 명예가 남아 있던

점잖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땅에 개혁을 하면, 게다가 남의 제도를 베껴 온 개혁을 하면 해만 될 뿐이야! 옛날 불길이 차라리 나았을걸. 아무튼 그 1천조를 선고받은 사람은 잠시 서서 둘러보더니 길에 가로로 드러누웠어. '가지 않겠다, 원칙상 가지 않겠다!' 러시아 계몽된 무신론자의 영혼을 하나 가져다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 사흘 낮을 토라져 있던 예언자 요나의 영혼과 섞어 보면, 그게 바로 길에 드러누운 그 사상가의 성격이야."

"그런데 거기서 무엇 위에 드러누웠는데?"

"뭐, 거기에도 누울 데야 있었겠지. 웃지 않는 거야?"

"장하다!" 이반이 여전히 그 이상한 생기를 띤 채 소리쳤다. 이제 그는 어쩐지 뜻밖의 호기심을 품고 듣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누워 있어?"

"그게 바로 아니라는 거야. 그는 거의 1천 년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걸어갔어."

"그런 당나귀가 있나!" 이반이 신경질적으로 껄껄 웃으며 외쳤다. 무언가를 줄곧 애써 궁리하는 듯했다. "영원히 누워 있든 1천조 베르스타를 걷든 마찬가지 아니야? 그건 10억 년은 걸어야 할 거리잖아?"

"훨씬 더 걸리지. 연필하고 종이 쪼가리만 있으면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는 벌써 오래전에 다 걸어갔어. 일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

"다 걸어갔다고! 10억 년을 어디서 얻었는데?"

"너는 줄곧 우리의 지금 이 지구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지금의 지구 자체가 어쩌면 10억 번이나 되풀이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고, 얼어붙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그 구성 원소로 분해되고, 다시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되고, 그다음 다시 혜성, 다시 태양, 다시 태양에서 지구가 되고. 이런 발전이 어쩌면 벌써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지도

몰라, 그것도 모두 똑같은 꼴로, 선 하나까지 똑같이. 지독히 꼴사나운 지루함이지……"

"그래, 그래, 다 걸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

"천국 문을 열어 주어 그가 들어서자마자, 2초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시계로 재서 말이야, 시계로(내 생각에 그의 시계는 길을 가는 동안 벌써 오래전에 그의 주머니 속에서 구성 원소로 분해되었어야 했지만), 2초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이 2초를 위해서라면 1천조가 아니라 1천조의 1천조라도, 그걸 다시 1천조 제곱을 해서라도 걸어갈 수 있다고 외쳤어! 한마디로 '호산나'를 불렀는데, 그게 좀 지나쳐서, 거기 좀 더 고상한 사고방식을 지닌 몇몇은 처음에는 그에게 악수조차 하려 하지 않았대. 너무 성급하게 보수파로 넘어갔다는 거지. 러시아인의 천성이야. 다시 말하지만 전설이야. 산 값에 판다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거야. 거기 우리 쪽에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직도 이런 생각들이 돌고 있다는 거지."

"내가 너를 잡았다!" 이반이 무언가를 이미 완전히 떠올린 듯 어쩐지 거의 어린애 같은 기쁨에 차서 소리쳤다. "1천조 년에 관한 그 일화는 내가 지어낸 거야! 나는 그때 열일곱 살이었고 김나지움에 다녔어…… 그때 나는 이 일화를 지어서 친구 하나한테 이야기해 주었지. 성이 코롭킨이었고, 모스크바에서였어…… 이 일화는 너무나 특징이 뚜렷해서 내가 어디서 가져왔을 리가 없어. 나는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제 무의식중에 떠오른 거야, 나 스스로 떠올린 거지 네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야! 수천 가지 일이 가끔 무의식중에 떠오르듯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조차 떠오르듯이…… 꿈속에서 떠오른 거야. 바로 네가 그 꿈이야! 너는 꿈이고 존재하지 않아!"

"네가 나를 부정하는 그 열기로 보아," 젠틀맨이 웃었다. "너는 그래도 나를 믿는다고 확신하게 되는군."

"조금도! 1백분의 1도 믿지 않아!"

"하지만 1천분의 1은 믿지. 동종 요법의 분량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센지도 몰라. 믿는다고 고백해, 뭐 1만분의 1이라도……"

"단 1분도!" 이반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기야 나도 너를 믿고 싶기는 해!" 그가 갑자기 이상하게 덧붙였다.

"어이쿠! 이거 고백이로군! 하지만 나는 착하니까 이번에도 너를 도와주지. 들어 봐. 너를 잡은 건 나지 네가 나를 잡은 게 아니야! 나는 일부러 네가 이미 잊어버린 네 일화를 너한테 들려준 거야. 네가 나를 완전히 믿지 않게 되도록."

"거짓말이야! 네가 나타난 목적은 네가 있다고 나를 믿게 하려는 거야."

"바로 그거야. 하지만 흔들림, 불안, 믿음과 불신의 싸움, 이건 너처럼 양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때로 차라리 목을 매는 게 나을 만큼 괴로운 거야. 나는 네가 나를 쬐끔은 믿는다는 걸 알기에 이 일화를 들려주어서 너한테 아예 불신을 불어넣은 거야. 나는 너를 믿음과 불신 사이로 번갈아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나 나름의 목적이 있어. 새로운 수법이올시다. 네가 나를 완전히 믿지 않게 되면 그 즉시 너는 바로 내 눈앞에서 내가 꿈이 아니라 참으로 있다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할 거거든, 나는 이미 너를 알아, 그때 나는 목적을 이루는 거지. 그리고 내 목적은 고결해. 나는 너한테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만 던져 넣을 뿐인데, 거기서 참나무가, 그것도 네가 그 참나무 위에 앉아서 '광야의 교부들과 흠 없는 여인들' 축에 끼고 싶어 할 만한 참나무가 자라날 거야. 너는 남몰래 그걸 아주아주, 아주아주 바라고 있으니까, 너는 메뚜기를 먹게 될 거고, 구원을 받으려고 광야로 터덜터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악당아, 너는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거야?"

"언젠가 한 번쯤은 착한 일을 해야 하잖아. 보아하니 화가 났구나, 단단히 화가 났어!"

"어릿광대! 그럼 너는 언젠가 저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메뚜기를 먹고 열일곱 해씩 헐벗은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이끼가 끼어 버린 사람들을 시험해 본 적이 있어?"

"이 사람아, 나는 그 일만 해 왔어. 온 세상과 세계들을 다 잊고 그런 사람 하나에게 들러붙는 거야, 그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값지거든, 그런 영혼 하나가 때로는 별자리 하나와 맞먹으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나름의 산수가 있지. 승리가 값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하느님께 맹세코, 네가 믿지 않겠지만 지적인 발달로 치면 너보다 못하지 않아서, 같은 한순간에 믿음과 불신의 그런 심연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정말이지 때로는 머리카락 한 올만 더 있으면 배우 고르부노프 말마따나 사람이 '거꾸로 곤두박질'쳐 날아갈 것만 같다니까."

"그래서 어쨌는데, 코가 납작해져서 물러났어?"

"친구," 손님이 격언이라도 읊듯 한마디 했다. "코가 아예 없는 것보다야 코가 납작해져서 물러나는 게 그래도 낫다고, 얼마 전에 어떤 병든 후작이(아마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았겠지) 자기 고해 신부인 예수회 신부에게 고해하면서 말씀하셨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근사했지. '내 코를 돌려주십시오!' 그가 이러면서 제 가슴을 치는 거야. '아들이여,' 신부는 말을 슬쩍 돌리지. '섭리의 헤아릴 수 없는 뜻에 따라 모든 것은 메워지고, 눈에 보이는 불행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이득을 데려오는 법이오. 엄한 운명이 당신에게서 코를 앗아 갔다면, 당신의 이득은 이제 평생 아무도 감히 당신더러 코가 납작해졌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소.' 그러자 절망한 사람이 외치지. '신부님,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코만 제자리에 붙어 있다면

평생 날마다 코가 납작해져도 기쁘겠습니다!' 신부가 한숨을 쉬지. '아들이여, 모든 복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섭리에 대한 불평이오, 섭리는 여기서도 당신을 잊지 않았는데 말이오. 당신이 방금 외친 대로 평생 기꺼이 코가 납작해질 채비가 되어 있다고 부르짖는다면 여기서도 이미 당신 바람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코를 잃었으니 그로써 당신은 그래도 어떤 의미로는 코가 납작해진 셈이니 말이오……'"

"퉤, 바보 같기는!" 이반이 소리쳤다.

"친구, 나는 그저 너를 웃겨 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맹세하는데, 이건 진짜 예수회식 궤변이고, 맹세하는데, 이 일은 모두 내가 너한테 늘어놓은 그대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일어났어. 얼마 전 일인데 나한테 골칫거리를 많이 안겨 주었지. 그 불행한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 권총으로 자살했는데,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지…… 그리고 예수회의 그 고해 칸막이로 말하자면, 그건 참으로 삶의 서글픈 순간에 내가 가장 즐기는 오락이야. 자, 여기 또 하나, 그야말로 며칠 전 일이 있어. 늙은 신부한테 금발 아가씨가, 노르망디 처녀가, 스무 살쯤 된 처녀가 찾아와. 아름다움, 풍만한 몸, 타고난 천성, 군침이 돌 지경이야. 몸을 숙이고 작은 구멍에 대고 신부한테 제 죄를 속삭여. '아니, 내 딸이여, 정말 또 타락했다는 말이오?……' 신부가 외치지. '오, 성모 마리아여, 이게 무슨 말이오. 그것도 그 남자가 아니라니. 그래 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요, 부끄럽지도 않소!' 그러자 죄 지은 처녀가 온통 참회의 눈물에 젖어 대답해. '아, 신부님,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토록 기쁨이고 저한테는 그토록 수고가 적은걸요!' 자, 그런 대답을 상상해 봐! 거기서는 나도 물러섰어, 이건 자연 그 자체의 외침이고, 원한다면 순결 그 자체보다 나은 거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처녀의 죄를 사해 주고 돌아서서 가려

했는데, 곧바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어, 들어 보니 신부가 작은 구멍에 대고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거야, 그 노인이 부싯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타락한 거지! 자연이, 자연의 진실이 제 몫을 차지한 거야! 뭐야, 또 코를 돌리는 거야, 또 화를 내? 이제 어떻게 해야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군……"

"나를 내버려 둬. 너는 떨쳐 버릴 수 없는 악몽처럼 내 머릿속에서 쾅쾅 두드려 대." 이반이 자기 환영 앞에서 힘없이 괴로운 듯 신음했다. "너하고 있으면 지루해, 견딜 수 없이 괴로워! 너를 쫓아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많이 내주겠어!"

"다시 말하지만, 요구를 좀 줄여. 나한테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요구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보게 될 거야." 젠틀맨이 타이르듯 말했다. "참으로 너는 내가 무슨 붉은 광채에 싸여 '천둥 치고 번쩍이며', 그을린 날개를 달고 너한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수수한 꼴로 나타났다고 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너는 첫째로 미적 감정에 모욕을 받았고, 둘째로 자존심에 모욕을 받은 거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저속한 악마가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지. 아니, 너한테는 벌써 벨린스키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낭만적인 핏줄이 역시 흐르고 있어. 어쩌겠어, 젊은이. 아까 너한테 오려고 채비를 하면서, 장난삼아 캅카스에서 근무한 퇴역 4등 문관 꼴로, 연미복에 사자와 태양 훈장을 달고 나타날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겁이 나더군, 내가 감히 연미복에 하다못해 북극성 훈장이나 시리우스라도 달지 않고 사자와 태양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네가 나를 두들겨 팰 테니까. 그리고 너는 줄곧 내가 어리석다는 소리만 하지. 하지만 맙소사, 나는 지혜로 너와 겨루겠다는 주제넘은 생각은 하지도 않아.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나타나서, 자기는 악을 바라지만 선만 행한다고 스스로 증언했어. 뭐, 그건 그 사람 마음대로고, 나는 완전히

거꾸로야. 나는 어쩌면 온 자연을 통틀어 진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선을 바라는 유일한 사람인지도 몰라. 십자가에서 죽은 말씀이 오른편 강도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늘로 올라갈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호산나'를 부르며 외치는 케루빔의 기쁜 환성과, 하늘과 온 우주를 뒤흔든 세라핌의 우레 같은 환희의 외침을 들었어. 그런데 거룩한 모든 것에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 합창에 끼어서 모두와 함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싶었어. 벌써 그 소리가 날아 나오려 했고, 벌써 가슴에서 터져 나오려 했지…… 너도 알다시피 나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 예술적으로 민감하거든. 그런데 건전한 상식이, 오, 내 천성 가운데 가장 불행한 성질이 이번에도 나를 마땅한 테두리 안에 붙잡아 두어서 나는 그 순간을 놓쳐 버렸어! 왜냐하면 나는 바로 그 순간 생각했거든. 내가 '호산나'를 부르면 그다음에 무엇이 되겠느냐고? 곧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꺼져 버리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로지 직무상의 의무와 내 사회적 처지 때문에 내 안의 좋은 순간을 짓눌러 버리고 추잡한 짓 곁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 선의 영예는 누군가가 몽땅 차지하고, 나한테는 추잡한 짓만 몫으로 남겨졌어. 하지만 나는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영예를 부러워하지 않아, 나는 명예욕이 없거든. 왜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오직 나 하나만 모든 점잖은 사람들한테서 저주를 받고, 몸을 입으면 때로는 그런 결과까지 받아들여야 하니까 심지어 장화 발길질까지 받을 운명이냐고? 나는 알아,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 비밀을 결코 밝혀 주려 하지 않아, 그랬다가는 내가 어찌 된 일인지 알아채고 '호산나'를 고래고래 외칠 테고, 그러면 꼭 있어야 할 마이너스가 곧바로 사라지고 온 세상에 분별이 시작될 테고, 그와 함께 물론 모든 것이, 신문이며 잡지까지 끝나 버릴 테니까, 그때는 누가 그걸 구독하겠어. 나는 알아, 결국 나도 화해하게 되고, 나도 내 1천조를 다 걸어가서 비밀을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토라진 채 마지못해, 하나를 구원하려고 수천을 멸망시키는 내 소임을 다해. 이를테면 그 옛날 나를 그토록 심술궂게 골탕 먹인 그 의인 욥 하나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멸망시키고 얼마나 많은 정직한 평판을 더럽혀야 했는지 몰라! 아니,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동안 나한테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 진리, 그들의 진리로 나는 아직 그걸 전혀 모르고, 다른 하나는 내 진리야. 그리고 어느 쪽이 더 깨끗할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 잠들었어?"

"그럴 리가 있나." 이반이 심술궂게 신음했다. "내 천성 속에 있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든, 이미 오래전에 다 겪고 내 머릿속에서 다 빻아 버리고 썩은 고기처럼 내던져 버린 것을, 너는 무슨 새것이라도 되는 듯이 바로 나한테 내미는구나!"

"이번에도 비위를 못 맞췄군! 나는 문학적인 서술로 너를 홀려 볼까 생각하기까지 했는데. 그 하늘의 '호산나'는 정말 내가 꽤 그럴듯하게 해냈잖아? 그리고 방금 그 하이네 투의 빈정거리는 어조 말이야, 안 그래?"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런 하인 놈이었던 적이 없어! 어떻게 내 영혼이 너 같은 하인 놈을 낳을 수 있었지?"

"친구, 나는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러시아 도련님을 하나 알아. 젊은 사상가이고, 문학과 우아한 것들을 무척 좋아하고, 「대심문관」이라는 제목의, 장래가 촉망되는 서사시를 쓴 작가야…… 나는 오로지 그 사람만 마음에 두었던 거야!"

"「대심문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금지한다." 이반이 부끄러움에 온통 얼굴이 붉어져서 외쳤다.

"그럼 「지질학적 격변」은? 기억나? 그건 정말 대단한 서사시였지!"

"닥쳐, 안 그러면 죽여 버릴 테다!"

"나를 죽이겠다고? 아니, 미안하지만 말해야겠어, 이 즐거움을 맛보려고 온 거니까. 오, 나는 삶에 대한 갈망으로 떨고 있는 열렬하고 젊은 내 벗들의 꿈을 좋아해! '저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 지난봄 여기로 오려고 채비하면서 너는 이렇게 판단했지.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식인에서 시작하려 한다. 바보들, 나한테 묻지도 않았군!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파괴할 필요가 없고, 인류 안에 있는 신의 관념만 파괴하면 되니,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로 거기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여!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을 버리기만 하면(그리고 나는 지질학적 시대에 나란히 견줄 이 시대가 오리라고 믿는다), 식인 없이도 저절로 이전의 세계관 전체가, 무엇보다 이전의 도덕 전체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은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나로 뭉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오직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일 것이다. 사람은 신과 같은, 거인 같은 오만의 정신으로 위대해지고, 인신(人神)이 나타날 것이다. 의지와 과학으로 이제 한계 없이 자연을 시시각각 정복하면서 사람은 바로 그로써 시시각각 몹시 드높은 쾌락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쾌락이 그에게 천상의 쾌락에 대한 이전의 모든 소망을 대신할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부활 없이 온전히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신처럼 오만하고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오만으로 말미암아 삶이 한순간이라고 해서 불평할 까닭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무 보상 없이 제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은 삶의 한순간만 채워 주겠지만, 그 순간성에 대한 의식 하나만으로도 사랑의 불길은, 예전에 무덤 너머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며 흩어져 버렸던 그만큼 더 세차게 타오를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따위로 쭉 이어지지. 정말 귀엽군!"

이반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땅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지만,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문제는, 내 젊은 사상가는 생각했지, 그런 시대가 언젠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온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인류는 마침내 질서를 잡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뿌리 깊은 어리석음을 보면 이건 어쩌면 1천 년이 지나도 질서가 잡히지 않을 테니, 지금 벌써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원칙에 따라 완전히 제 마음대로 질서를 세워도 괜찮다는 거지. 이런 뜻에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뿐이 아니야, 설령 이 시대가 결코 오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신과 불멸은 없으니까, 새로운 인간은 비록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라 해도 인신이 되어도 괜찮고, 물론 새로운 지위에 올라서는 필요하다면 이전의 노예 인간이 지키던 이전의 모든 도덕적 장벽을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넘어도 괜찮지. 신에게는 법이 없어! 신이 서는 곳이 곧 신의 자리야! 내가 서는 곳이 곧바로 첫째 자리가 될 거야……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걸로 끝! 이건 다 아주 귀엽지만, 사기를 치고 싶어졌다면 거기에 무엇 하러 진리의 재가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러시아의 현대 인간 나부랭이란 원래 그래서, 재가 없이는 사기도 칠 엄두를 못 내, 그만큼 진리를 사랑하게 된 거지……"

손님은 제 웅변에 도취한 것이 분명한 얼굴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비웃듯 주인을 곁눈질하면서 말을 이어 갔으나,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다. 이반이 갑자기 탁자에서 컵을 움켜쥐더니 연설가에게 힘껏 내던졌기 때문이다.

"아, 이거 정말 바보짓이군!" 손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몸에 튄 찻물을 털어 내며 외쳤다. "루터의 잉크병[3]을 떠올렸구나! 저는 나를 꿈으로 여기면서 꿈에다 컵을 내던지다니!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런데 나는 네가 귀를 틀어막은 척만 하고 실은 듣고 있었으리라고 짐작했지……"

갑자기 마당 쪽에서 창틀을 단단하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들리지, 열어 주는 게 좋을 거야." 손님이 소리쳤다. "네 동생 알료샤가 아주 뜻밖의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 내가 장담하지!"

"닥쳐, 사기꾼아, 너보다 내가 먼저 알료샤라는 걸 알았어, 나는 그 애가 오리라는 걸 미리 느꼈어. 물론 그 애는 괜히 온 게 아니야, 물론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 이반이 미친 듯이 외쳤다.

"열어 줘, 어서 열어 줘. 밖에는 눈보라가 치는데 그 애는 네 동생이잖아. 손님, 바깥 날씨가 어떤지 아시오? 개도 내보내지 못할 날씨라오……"

두드리는 소리는 이어졌다. 이반은 창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무엇인가가 갑자기 그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어 버린 것 같았다. 그는 결박을 끊어 내려는 듯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버텼으나 헛일이었다. 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세지고 커졌다. 마침내 갑자기 결박이 끊어졌고, 이반 표도로비치는 소파 위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넋 나간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 자루의 초는 거의 다 타 버렸고, 방금 그가 손님에게 내던진 컵은 그의 앞 탁자 위에 놓여 있었으며, 맞은편 소파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지기는 했으나, 방금 꿈속에서 들리는 듯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전혀 않았고, 오히려 몹시 조심스러웠다.

"이건 꿈이 아니야! 아니, 맹세코 이건 꿈이 아니었어, 이건 다 방금 있었던 일이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소리치고는 창으로 달려가 통풍창을 열었다.

"알료샤,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가 동생에게 사납게 소리쳤다. "두 마디로 해. 무슨 일이야? 두 마디로, 알았어?"

"한 시간 전에 스메르댜코프가 목을 맸어." 마당에서 알료샤가 대답했다.

"현관으로 와, 금방 열어 줄게." 이반이 말하고는 알료샤에게 문을 열어 주러 갔다.

---

1. 로마 희극 작가 테렌티우스의 구절 「나는 인간이니, 인간적인 것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Homo sum, humani nihil a me alienum puto)」에서 '인간(Homo)'을 '사탄'으로 바꾼 것이다.

2. 고골의 희극 『검찰관』에서 검찰관 행세를 하는 허풍쟁이 하급 관리. 바로 앞의 「나도 이런저런 보드빌을 좀 쓰지요」는 그의 허풍 대사다.

3. 마르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성에서 나타난 악마에게 잉크병을 내던졌다는 전설.

제10장 "그놈이 그렇게 말했어!"

알료샤는 들어오자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한 시간 남짓 전에 마리야 콘드라티예브나가 자기 하숙으로 달려와서 스메르댜코프가 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사모바르를 치우러 그 사람 방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벽에 박힌 못에 매달려 있지 뭐예요." 알맞은 곳에 신고했느냐는 알료샤의 물음에 그 여자는 아무 데도 신고하지 않았고 "곧장 맨 먼저 도련님한테 달려왔는데, 오는 내내 뛰어왔다"고 대답했다. 그 여자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알료샤는 전했다. 알료샤가 그 여자와 함께 그들의 오두막으로 달려가 보니 스메르댜코프는 아직도 매달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무도 탓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의 뜻과 바람으로 내 목숨을 없앤다"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알료샤는 그 쪽지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곧장 군 경찰서장에게 가서 모든 것을 신고했고, "거기서 곧장 형한테 온 거야." 알료샤는 이반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말을 맺었다. 그는 이야기하는 내내 마치 그의 얼굴 표정에서 무언가에 몹시 놀란 듯 이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형."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형은 틀림없이 몹시 아픈 거야! 형은 나를 보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네가 와서 잘됐다." 이반은 생각에 잠긴 듯, 그리고 알료샤의 외침을 전혀 듣지 못한 듯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놈이 목을 맨 걸 알고 있었어."

"누구한테서?"

"누구한테서인지는 몰라. 하지만 알고 있었어. 내가 알고 있었던가? 그래, 그놈이 나한테 말했어. 그놈이 방금까지도 나한테 말하고 있었어……"

이반은 방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놈이 누군데?" 알료샤가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놈은 슬쩍 빠져나갔어."

이반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놈은 너를 무서워했어, 비둘기 같은 너를. 너는 '순결한 케루빔'이야. 드미트리가 너를 케루빔이라고 부르지. 케루빔…… 세라핌의 우레 같은 환희의 외침! 세라핌이란 뭘까? 어쩌면 별자리 하나 전체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쩌면 그 별자리 전체가 그저 무슨 화학적 분자 하나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지…… 사자와 태양 별자리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아?"

"형, 앉아!" 알료샤가 놀라서 말했다. "제발 소파에 앉아. 형은 헛소리를 하고 있어, 베개를 베고 누워, 그래, 그렇게. 머리에 젖은 수건을 대 줄까? 좀 나아질지도 몰라."

"수건 줘, 여기 의자 위에 있어, 아까 내가 여기 던져 놨어."

"여기 없는데. 걱정 마,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여기 있네." 알료샤는 방의 다른 구석, 이반의 화장대 곁에서 아직 개켜진 채 쓰지 않은 깨끗한 수건을 찾아내며 말했다. 이반은 이상한 눈길로 수건을 보았는데, 기억이 한순간에 그에게 돌아온 것 같았다.

"잠깐." 그가 소파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아까, 한 시간 전에, 나는 바로 이 수건을 바로 거기서 꺼내서 물에 적셨어. 머리에 대고 있다가 여기에 던졌는데…… 어떻게 이게 말라 있지? 다른 수건은 없었는데."

"형이 이 수건을 머리에 댔다고?" 알료샤가 물었다.

"그래, 그리고 방 안을 걸어 다녔어, 한 시간 전에…… 왜 초가 이렇게 타 버렸지? 몇 시야?"

"곧 열두 시야."

"아니, 아니, 아니야!" 이반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건 꿈이 아니었어! 그놈이 있었어, 그놈이 여기 앉아 있었어, 저기 저 소파에. 네가 창을 두드렸을 때 나는 그놈한테 컵을 던졌어…… 바로 이 컵을…… 잠깐, 나는 전에도 잠을 잤지만 이 꿈은 꿈이 아니야. 전에도 그랬어. 알료샤, 나는 요즘 꿈을 꾸는데…… 그건 꿈이 아니라 생시야, 나는 걷고, 말하고, 보는데…… 자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놈은 여기 앉아 있었어, 그놈이 있었어, 바로 이 소파에…… 그놈은 끔찍하게 어리석어, 알료샤, 끔찍하게 어리석어." 이반은 갑자기 웃더니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가 어리석다는 거야?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 알료샤가 다시 괴로운 듯 물었다.

"악마! 그놈이 나한테 드나들기 시작했어. 두 번 왔고, 거의 세 번이나 왔어. 그놈은 자기가 천둥과 번개 속에 그을린 날개를 단 사탄이 아니라 그냥 악마라서 내가 화를 낸다고 나를 놀려 댔어. 하지만 그놈은 사탄이 아니야, 그건 그놈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놈은 사칭꾼이야. 그놈은 그냥 악마야, 하찮고 시시한 악마. 그놈은 목욕탕에 다녀. 그놈 옷을 벗겨 보면 틀림없이 꼬리가 나올 거야, 덴마크 개처럼 길고 매끈하고 1아르신이나 되는 갈색 꼬리가…… 알료샤, 너 얼었구나, 눈 속에 있었으니까. 차 마실래? 뭐? 식었어? 새로 끓이라고 할까? 개도 내보내지 못할 날씨라오(C'est à ne pas mettre un chien dehors)."

알료샤는 재빨리 세면대로 달려가 수건을 적시고는 이반을 달래어 다시 앉히고 그의 머리를 젖은 수건으로 감쌌다. 그리고 자기도 그의

곁에 앉았다.

"아까 너 리자에 대해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지?" 이반이 다시 말을 꺼냈다(그는 몹시 말이 많아지고 있었다). "나는 리자가 좋아. 내가 너한테 리자에 대해서 무언가 추한 말을 했지. 거짓말이었어, 나는 그 애가 좋아…… 나는 내일 카탸가 걱정돼, 무엇보다도 그게 걱정이야. 앞날이 걱정돼. 카탸는 내일 나를 버리고 발로 짓밟을 거야. 카탸는 내가 질투 때문에 미탸를 파멸시킨다고 생각해! 그래, 카탸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천만에! 내일은 십자가지만 교수대는 아니야. 아니, 나는 목을 매지 않을 거야. 알료샤, 나는 결코 내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비열해서일까?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살고 싶은 갈망 때문이야! 왜 나는 스메르댜코프가 목을 맨 걸 알고 있었을까? 그래, 그건 그놈이 나한테 말한 거야……"

"그럼 형은 누군가가 여기 앉아 있었다고 굳게 믿는 거야?" 알료샤가 물었다.

"저기 저 소파에, 구석에. 네가 그놈을 쫓아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네가 나타나자 그놈이 사라졌으니 네가 그놈을 쫓아 버린 거야. 나는 네 얼굴이 좋아, 알료샤. 내가 네 얼굴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놈은 나야, 알료샤, 나 자신이야. 내 비천한 모든 것, 내 비열하고 경멸할 만한 모든 것이야! 그래, 나는 '낭만주의자'야, 그놈이 그걸 알아챘어…… 그건 중상이지만. 그놈은 끔찍하게 어리석지만 바로 그걸로 이겨. 그놈은 교활해, 짐승처럼 교활해, 무엇으로 나를 미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놈은 줄곧 내가 자기를 믿는다고 나를 놀려 댔고, 그걸로 나를 억지로 자기 말에 귀 기울이게 했어. 그놈은 나를 어린애처럼 속였어. 하기야 그놈은 나에 대해 진실을 많이 말했어. 나라면 결코 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거야. 있잖아, 알료샤,

있잖아." 이반이 끔찍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무슨 비밀이라도 털어놓듯 덧붙였다. "나는 그놈이 정말로 내가 아니라 그놈이었으면 좋겠어!"

"그놈이 형을 괴롭혔구나." 알료샤가 연민에 차서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놀려 댔어! 그런데 말이야, 교묘하게, 교묘하게 그랬어. '양심! 양심이 뭐야? 양심은 내가 직접 만들어. 그런데 왜 나는 괴로워하지? 습관 때문이야. 7천 년 동안 이어진 온 인류의 습관 때문이지. 그러니 그 습관을 버리고 신이 되자.' 그놈이 그렇게 말했어, 그놈이 그렇게 말했어!"

"형이 아니고, 형이 아니고?" 알료샤가 형을 맑게 바라보며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럼 내버려 둬, 그놈은 내버려 두고 잊어버려! 형이 지금 저주하는 모든 걸 그놈이 다 가지고 가 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하지만 그놈은 악해. 그놈은 나를 비웃었어. 그놈은 뻔뻔했어, 알료샤." 이반이 모욕감에 몸서리치며 말했다. "하지만 그놈은 나를 중상했어, 많은 점에서 중상했어. 바로 나한테, 바로 내 눈앞에서 나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오, 너는 미덕의 위업을 이루러 가는구나,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인이 네 사주를 받아 아버지를 죽였다고 밝히러 가는구나……'"

"형." 알료샤가 말을 끊었다. "참아. 아버지를 죽인 건 형이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놈이 그렇게 말해, 그놈이, 그런데 그놈은 그걸 알아. '너는 미덕의 위업을 이루러 가지만 미덕은 믿지 않아, 바로 그게 너를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거야, 바로 그래서 너는 그토록 앙심을 품는 거야.' 그놈이 나한테 나에 대해 그렇게 말했는데, 그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건 형이 말하는 거지 그놈이 아니야!" 알료샤가 슬프게 외쳤다. "그것도 아파서, 헛소리하면서, 형 자신을 괴롭히면서 말하는 거야!"

"아니, 그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너는 오만 때문에 가는 거라고, 너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놈이 말해. '죽인 건 나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공포에 질려 몸을 비트는 거요, 당신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경멸하오, 당신들의 공포를 경멸하오.' 그놈은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이래. '그런데 있잖아, 너는 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 범죄자이고 살인자이지만 얼마나 너그러운 감정을 지녔느냐, 형을 구하고 싶어서 자백했다고 말이야!' 이건 정말 거짓말이야, 알료샤!" 이반이 갑자기 눈을 번득이며 소리쳤다. "나는 상놈들한테 칭찬받고 싶지 않아! 그놈이 거짓말을 한 거야, 알료샤, 거짓말을 했어, 맹세해! 그래서 나는 그놈한테 컵을 던졌고, 컵은 그놈 낯짝에 맞아 박살이 났어."

"형, 진정해, 그만해!" 알료샤가 애원했다.

"아니, 그놈은 괴롭힐 줄 알아, 그놈은 잔인해." 이반은 듣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그놈이 무엇 하러 오는지 늘 미리 느꼈어. '네가 오만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해 두자, 그래도 스메르댜코프의 죄가 드러나 그놈이 징역살이로 유형을 가고 미탸는 무죄가 되고, 너는 그저 *도덕적으로*만 단죄를 받으리라는(들려, 그놈은 여기서 웃었어!) 희망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너를 칭찬해 주리라는 희망도 있었잖아. 그런데 스메르댜코프가 죽었어, 목을 맸으니 이제 거기 법정에서 누가 너 하나만 믿어 주겠어? 그런데도 너는 가는구나, 가는구나, 그래도 너는 갈 거야, 가기로 결심했지. 그렇다면 이제 무엇 하러 가는 거야?' 무서워, 알료샤, 나는 그런 물음을 견딜 수가 없어.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야!"

"형." 알료샤가 두려움으로 얼어붙으면서도 여전히 이반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으리라 바라는 듯 말을 끊었다. "아직 아무도 스메르댜코프의 죽음을 몰랐고 누구도 알아낼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오기 전에 그놈이 어떻게 형한테 스메르댜코프가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어?"

"그놈이 말했어." 이반이 의심의 여지조차 두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놈은 원한다면 그 이야기만 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네가 미덕을 믿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원칙을 위해 간다고 할 수 있을 테니 좋겠지. 그런데 너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처럼 돼지 새끼인데, 너한테 미덕이 다 뭐야? 네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너는 무엇 하러 거기에 터덜터덜 가는 거야? 그건 네가 무엇 하러 가는지 너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이야! 오, 무엇 하러 가는지 너 스스로 알 수만 있다면 너는 무엇이든 많이 내주겠지! 그래 네가 결심했다고? 너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어. 너는 밤새 앉아서 갈까 말까 결정하려 할 거야. 그래도 너는 갈 거고, 갈 거라는 걸 알고, 네가 아무리 결심을 해 보아도 그 결정은 이미 네게 달려 있지 않다는 걸 너 스스로 알지. 너는 갈 거야, 감히 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왜 감히 그럴 수 없는지는 너 스스로 알아맞혀 봐, 이게 너한테 내는 수수께끼야!' 그러고는 일어나서 가 버렸어. 네가 오자 그놈은 가 버렸어. 그놈은 나를 겁쟁이라고 불렀어, 알료샤! 수수께끼의 답(Le mot de l'énigme)은 내가 겁쟁이라는 거야! '그런 독수리들이 땅 위로 날아오를 수는 없지!' 그놈이 이 말을 덧붙였어, 그놈이 이 말을 덧붙였어! 스메르댜코프도 같은 말을 했어. 그놈을 죽여야 해! 카탸는 나를 경멸해, 한 달째 나는 그걸 보고 있어, 리자도 나를 경멸하기 시작할 거야! '칭찬받으려고 가는 거야.' 이건 짐승 같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너도 나를 경멸하지, 알료샤. 이제 나는 다시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그 악당도 미워, 그 악당도 미워!

그 악당을 구하고 싶지 않아, 징역살이 하다가 썩어 버리라지!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지! 오, 내일 나는 가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 모두의 눈에 침을 뱉어 줄 테다!"

그는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나 수건을 벗어 던지고는 다시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알료샤는 아까 그가 한 말을 떠올렸다. "마치 생시에 자고 있는 것 같아…… 걷고, 말하고, 보는데 자고 있는 거야." 바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알료샤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에게 달려가 데려올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형을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는 형을 혼자 두기가 두려웠다. 마침내 이반은 조금씩 완전히 정신을 잃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줄곧 말을 이었고, 그치지 않고 말했지만, 이미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낱말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크게 휘청거렸다. 그러나 알료샤가 제때 그를 붙잡았다. 이반은 침대까지 이끌려 가는 대로 몸을 맡겼고, 알료샤는 그럭저럭 그의 옷을 벗기고 눕혔다. 알료샤는 그 곁에서 두 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 환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하고 고르게 숨 쉬며 깊이 잠들었다. 알료샤는 베개를 집어 들고 옷을 입은 채 소파에 누웠다. 잠이 들면서 그는 미탸와 이반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이반의 병을, "오만한 결심의 괴로움, 깊은 양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믿지 않던 하느님과 하느님의 진리가, 아직도 굴복하려 하지 않는 마음을 이겨 내고 있었다. "그래." 이미 베개에 누운 알료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갔다. "그래, 스메르댜코프가 죽었으니 이제 아무도 이반의 진술을 믿지 않겠지. 그래도 형은 가서 진술할 거야!" 알료샤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느님이 이기실 거야!" 그는 생각했다. "형은 진리의 빛 속에서 일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지 않는 것에 몸 바친 데 대해 자기

자신과 모두에게 복수하며 증오 속에서 파멸하든지 하겠지." 알료샤는 씁쓸하게 덧붙이고 다시 이반을 위해 기도했다.

제12권 오심

제1장 운명의 날

내가 서술한 사건들이 있은 이튿날 오전 열 시에 우리 지방 법원의 개정이 선언되었고,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미리 말해 두겠고, 힘주어 말해 두겠는데, 나는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마땅히 갖추어야 할 만큼 빠짐없이 전하기는커녕 마땅한 순서대로 전할 힘조차 내게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떠올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 밝히려면 책 한 권이, 그것도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이 통째로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줄곧 든다. 그러니 내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일, 특히 기억에 남은 일만 전한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나는 부차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고,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꼭 필요한 특징들을 아예 빠뜨렸을 수도 있다…… 하기야 변명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것을 알겠다.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겠고, 독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날 나를 특히 놀라게 한 일을 이야기해 두겠다. 하기야 놀란 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었고, 나중에 드러났듯이 모든 사람이 놀랐다. 다름 아니라, 이 사건이 너무나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 모두가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조바심으로 애를 태웠다는 것, 우리 사교계에서 꼬박 두 달 동안 이 사건을 두고 숱한 이야기와 추측과 탄성과 공상이 오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온 러시아에 알려졌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이 사건이 우리 고장에서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그토록 뜨겁게, 그토록 신경이 곤두설 만큼 뒤흔들어 놓았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날 바로 법정에서 그것이 드러났다. 이날에 맞추어 우리 현의 도시에서뿐 아니라 러시아의 다른 몇몇 도시에서, 그리고 마침내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까지 손님들이 몰려왔다. 법률가들이 왔고, 몇몇 명사들까지 왔으며, 부인들도 왔다. 입장권은 모두 동이 났다. 남자 손님 가운데 특히 존귀하고 이름난 이들을 위해서는 판사들이 자리 잡은 탁자 뒤쪽에 아주 이례적인 자리까지 마련되어서, 거기에 갖가지 인사들이 차지한 안락의자가 한 줄로 죽 늘어섰는데, 이런 일은 우리 고장에서 전에는 결코 허락된 적이 없었다. 우리 고장 부인들과 다른 곳에서 온 부인들이 특히 많았는데, 내 생각에는 온 방청객의 절반을 밑돌지 않았던 것 같다. 곳곳에서 몰려온 법률가들만 해도 어찌나 많았던지, 입장권은 이미 오래전에 나누어 주고 졸라서 얻어 가고 애걸해서 얻어 가 버려서, 그들을 어디에 앉혀야 할지조차 몰랐다. 나는 법정 끝 연단 뒤에 임시로 서둘러 특별한 칸막이를 만들어 몰려온 법률가들을 모두 그 안에 들여보내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서 있을 수만 있어도 다행으로 여겼다. 자리를 넓히려고 그 칸막이 안에서는 의자를 아예 들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모여든 무리는 "사건" 내내 어깨를 맞댄 채 빽빽이 한 덩어리로 서 있었다. 부인들 가운데 몇몇은, 특히 다른 곳에서 온 부인들은 법정의 위층 회랑에 엄청나게 차려입고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부인들은 옷차림은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히스테릭하고 탐욕스러운, 거의 병적인 호기심이 드러나 있었다. 법정에 모인 이 사교계 전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꼭 짚어 두어야 할 것은, 나중에 여러 사람이 지켜본 바로도 확인되었듯이, 거의 모든 부인들이, 적어도 그 압도적인 대다수가 미탸

편이었고 그의 무죄 방면을 바랐다는 점이다. 어쩌면 무엇보다 그가 여자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굳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연적인 두 여자가 나오리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곧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특히 모두가 관심을 쏟았다. 그 여자에 대해서는 몹시 별난 이야기가 숱하게 오갔고, 미탸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를 향한 그 여자의 열정에 대해서는 놀라운 일화들이 오갔다. 특히 그 여자의 오만함(그 여자는 우리 읍에서 거의 아무 집도 방문하지 않았다)과 "귀족 사회와의 연줄"이 입에 오르내렸다. 그 여자가 범죄자를 따라 징역지까지 가서 어딘가 땅 밑 광산에서 그와 결혼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할 생각이라는 말도 돌았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연적인 그루셴카가 법정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들떠 있었다. 사람들은 오만한 귀족 아가씨와 "헤타이라", 이 두 연적이 법정 앞에서 마주치는 순간을 애타는 호기심으로 기다렸다. 하기야 우리 부인들에게는 그루셴카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보다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우리 부인들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그 불행한 아들을 망친 여자"인 그루셴카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고, 그토록 "아주 평범한, 생김새도 전혀 예쁘지 않은 러시아 소시민 계집"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그토록 반할 수 있었는지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아해했다. 한마디로 말이 많았다. 내가 확실히 아는 바로는, 바로 우리 읍에서 미탸 때문에 심각한 부부 싸움까지 몇 번 일어났다. 많은 부인들이 이 끔찍한 사건 전체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편들과 뜨겁게 다투었고, 그러니 그 뒤로 이 부인들의 남편들이 모두 피고에게 호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적의를 품은 채 법정에 나타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대체로 부인들과는 반대로 남자들은 모두 피고에게 적대적이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엄하고 찌푸린 얼굴들이 보였고, 아예 악의에 찬 얼굴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많았다. 미탸가 우리 고장에 머무는 동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직접 모욕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방청객 가운데 어떤 이들은 거의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고, 미탸의 운명 자체에는 몹시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심리 중인 사건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결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자들의 대다수는 단연코 범죄자가 벌을 받기를 바랐다. 다만 법률가들은 예외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사건의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를테면 현대 법률적인 측면뿐이었다. 유명한 페튜코비치가 온다는 것이 모두를 들뜨게 했다. 그의 재능은 곳곳에 알려져 있었고, 그가 떠들썩한 형사 사건을 변호하러 지방에 나타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변호하고 나면 그런 사건들은 언제나 온 러시아에 이름이 나고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우리 검사에 대해서도, 재판장에 대해서도 일화가 몇 가지 돌았다. 우리 검사가 페튜코비치와 마주치기를 두려워하여 떨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이 이미 페테르부르크 시절부터, 그들이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오랜 적수였다는 것, 페테르부르크 시절부터 제 재능이 마땅히 인정받지 못했다며 줄곧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여겨 온 자존심 강한 우리 이폴리트 키릴로비치가 카라마조프 사건을 맡고서 기운이 되살아났고, 이 사건으로 시들어 버린 제 경력을 되살려 보리라 꿈꾸기까지 했지만, 다만 페튜코비치가 그를 겁먹게 했다는 것이 이야깃거리였다. 그러나 페튜코비치 앞에서 떨었다는 말은 그리 공정한 판단이 아니었다. 우리 검사는 위험 앞에서 기가 꺾이는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커질수록 자존심이 자라나서 날개를 다는 그런 성격이었다. 대체로 우리 검사가 너무 열을 잘 내고 병적으로 예민했다는 것은 짚어 두어야겠다. 그는 어떤 사건에는 온 영혼을 쏟아붓고, 마치 그 판결에 제 운명 전체와 제 재산 전체가 달려 있기라도 한 듯이 사건을 끌고 갔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좀 비웃었다. 우리 검사는 바로 이런 성질 덕분에 어느 정도

이름까지 얻었는데, 곳곳에 알려진 것은 결코 아니어도 우리 법원에서 그가 차지한 보잘것없는 자리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특히 그의 심리학 애호를 비웃었다. 내 생각에는 모두가 잘못 알았다. 우리 검사는 사람으로서도 성격으로서도 많은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진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병적인 사람은 출셋길 첫걸음부터, 그리고 그 뒤로도 평생 동안 끝내 제 자리를 제대로 세울 줄 몰랐다.

우리 재판장으로 말하자면, 그는 교양 있고 인정 많고 실무에 밝으며 가장 현대적인 사상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 그는 자존심이 꽤 강했지만 제 출세에는 그리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의 삶의 주된 목표는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데 있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연줄도 재산도 있었다. 나중에 드러났듯이 그는 카라마조프 사건을 꽤 뜨겁게 바라보았지만, 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였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현상과 그 분류, 그 현상을 우리 사회적 기반의 산물로, 러시아적 요소의 특징으로 보는 관점 따위였다. 사건의 개인적인 성격, 그 비극, 그리고 피고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개성에 대해서는 꽤 무관심하고 추상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하기야 어쩌면 그래야 마땅했는지도 모른다.

재판부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법정은 이미 빈틈없이 꽉 차 있었다. 우리 고장의 법정은 읍에서 가장 좋은 홀로, 넓고 천장이 높고 소리가 잘 울린다. 조금 높은 단 위에 자리 잡은 판사들의 오른쪽에는 배심원들을 위한 탁자 하나와 안락의자 두 줄이 마련되어 있었다. 왼쪽은 피고와 변호인의 자리였다. 법정 한가운데, 재판부 자리 가까이에는 "증거물"을 올려놓은 탁자가 있었다. 그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흰 비단 실내복, 살인으로 추정되는 일을 저지른 그 운명의 구리 절굿공이, 소매가 피로 더러워진 미탸의 셔츠, 그가 그때 피에 흠뻑 젖은 손수건을 쑤셔 넣었던 주머니 자리 뒤쪽이 온통 핏자국투성이인 그의

프록코트, 피로 온통 뻣뻣하게 굳고 이제는 완전히 누렇게 바랜 그 손수건 자체, 미탸가 페르호틴의 집에서 자살하려고 장전했다가 모크로예에서 트리폰 보리소비치에게 슬그머니 빼앗긴 권총, 그루셴카에게 주려고 3천 루블을 넣어 두었던 겉에 글씨가 적힌 봉투와 그 봉투를 묶었던 가느다란 분홍 리본,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다른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진 법정 안쪽부터 방청석이 시작되었지만, 난간 앞에는 이미 진술을 마치고 법정에 남게 될 증인들을 위한 안락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열 시에 재판장과 배석 판사 한 사람, 명예 치안판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나타났다. 물론 곧바로 검사도 나타났다. 재판장은 키가 보통보다 작고 다부지고 땅딸막한 사람으로, 치질을 앓는 사람 같은 얼굴에 나이는 쉰 살쯤이었고, 희끗희끗한 검은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무슨 훈장인지는 이제 기억나지 않지만 붉은 수장(綬章)을 두르고 있었다. 검사는 나에게, 아니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어쩐지 몹시 창백해 보였고 얼굴이 거의 푸르스름했으며, 웬일인지 어쩌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여윈 것 같았다. 나는 바로 그저께만 해도 그가 완전히 평소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법정 정리에게 배심원들이 모두 출석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더는 이렇게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겠다. 많은 것을 잘 듣지 못했고, 어떤 것은 깊이 새겨듣지 못하고 넘겼고, 또 어떤 것은 기억해 두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이미 말했듯이 오간 말과 일어난 일을 모두 떠올리려 하면 말 그대로 내게 시간도 지면도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양쪽, 곧 변호인과 검사가 기피한 배심원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그 대신 열두 배심원의 구성은 기억한다. 우리 고장 관리 네 사람, 상인 두 사람, 그리고 우리 읍의 농민과 소시민 여섯 사람이었다. 재판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우리

사교계에서는 특히 부인들이 좀 놀라며 이렇게 묻던 것이 기억난다. "그토록 미묘하고 복잡하고 심리적인 사건이 정말로 무슨 관리들과, 게다가 농군들의 운명적인 판결에 맡겨진단 말인가요, 그런 관리가, 하물며 농군이 거기서 무엇을 알겠어요?" 실제로 배심원으로 뽑힌 그 관리 네 사람은 모두 지위가 낮은 하찮은 사람들이었고, 머리가 세었고(그 가운데 한 사람만 조금 젊었다), 우리 사교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쥐꼬리만 한 봉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아마 어디에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늙은 아내가 있고, 저마다 한 무더기씩 아이들이 있고, 어쩌면 그 아이들은 맨발로 다니기까지 할 것이고, 여가라야 고작 어딘가에서 카드놀이나 좀 하며 보낼 것이고, 물론 책이라고는 한 권도 읽어 본 적이 없을 사람들이었다. 상인 두 사람은 점잖은 모습이기는 했지만 어쩐지 이상하게 말이 없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턱수염을 밀고 독일풍으로 차려입었고, 희끗한 턱수염을 기른 다른 한 사람은 목에 붉은 수장을 두르고 무슨 메달을 달고 있었다. 소시민과 농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스코토프리고니옙스크의 소시민들은 농민과 거의 다름없고, 밭까지 간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도 독일풍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쩌면 바로 그래서 다른 네 사람보다 더 지저분하고 보기에 볼품없어 보였다. 그러니 이를테면 내가 그들을 찬찬히 뜯어보자마자 그랬듯이 "저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로 들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은 어쩐지 이상하게 위압적이고 거의 위협적인 인상을 주었고, 엄하고 찌푸려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퇴직 9등 문관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살인 사건의 심리를 선언했다. 그때 그가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는 다 기억나지 않는다. 법정 정리에게 피고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드디어 미탸가 나타났다. 법정 안이 온통 조용해져서 파리 소리도 들릴

지경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미탸의 모습은 나에게 아주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무엇보다 그는 바늘 자국도 안 난 새 프록코트를 입고 끔찍하게 멋을 부리고 나타났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는 일부러 이날에 맞추어 자기 치수를 아직 가지고 있던 예전 재단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프록코트를 맞추었다고 한다. 그는 새로 산 검은 키드 가죽 장갑을 끼고 멋을 부린 속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1아르신씩 되는 긴 걸음으로 걸어 들어와 꼼짝도 하지 않을 만큼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아주 태연한 얼굴로 제자리에 앉았다. 바로 그와 함께 변호인인 유명한 페튜코비치도 나타났고, 법정 안에 무언가 억눌린 웅성거림 같은 것이 지나갔다. 그는 키가 크고 깡마른 사람으로, 다리가 길고 가늘었고, 손가락이 유난히 길고 창백하고 가늘었으며, 얼굴은 말끔히 면도했고, 꽤 짧은 머리를 수수하게 빗어 넘겼으며, 얇은 입술은 비웃음인지 미소인지 모를 것으로 이따금 일그러졌다. 나이는 마흔 살쯤으로 보였다. 그의 얼굴은 눈만 아니었다면 호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 눈은 그 자체로는 작고 표정이 없었지만, 보기 드물게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길쭉하고 가느다란 코의 가는 콧날 하나만이 둘을 갈라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 얼굴에는 무언가 날카롭게 새 같은 데가 있어서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연미복에 흰 넥타이 차림이었다. 재판장이 미탸에게 처음으로 이름과 신분 따위를 물었던 것이 기억난다. 미탸는 퉁명스럽지만 어쩐지 뜻밖에 큰 소리로 대답해서 재판장이 고개를 흔들기까지 하며 거의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다음 사실 심리에 소환된 사람들, 곧 증인들과 감정인들의 명단이 낭독되었다. 명단은 길었다. 증인 가운데 네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파리에 가 있지만 예심 때 진술을 해 둔 미우소프, 병 때문에 호흘라코바 부인과 지주 막시모프,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스메르댜코프였고, 스메르댜코프에 대해서는 경찰의 증명서가

제출되었다. 스메르댜코프 소식에 법정 안이 크게 술렁이며 수군거렸다. 물론 방청객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갑작스러운 자살 사건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미탸의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이었다. 스메르댜코프에 대한 보고가 나오자마자 그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법정이 떠나가게 외쳤다.

"개는 개답게 죽는 법이지!"

변호인이 그에게 달려가던 모습과, 재판장이 이런 돌출 행동이 한 번만 더 되풀이되면 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에게 경고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미탸는 고개를 끄덕이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그러나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듯이 변호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입이 미끄러졌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물론 이 짧은 일은 배심원들과 방청객의 판단에서 그에게 이롭게 작용하지 않았다. 성격이 드러났고, 그 성격이 스스로를 소개한 셈이었다. 바로 이런 인상 아래 법원 서기가 공소장을 낭독했다.

공소장은 꽤 짧았지만 빈틈이 없었다. 아무개가 왜 기소되었는지, 왜 그를 재판에 넘겨야 했는지 따위의 가장 중요한 이유들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서기는 또박또박, 낭랑하게, 분명하게 읽었다. 이 비극 전체가 운명의, 가차 없는 빛을 받아 모두의 앞에 다시 도드라지게, 한 점으로 모여 나타나는 것 같았다. 낭독이 끝나자마자 재판장이 크고 위엄 있게 미탸에게 묻던 것이 기억난다.

"피고, 피고는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합니까?" 미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술에 빠지고 방탕한 것은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또다시 뜻밖의, 거의 미친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게으르고 난봉을 피운 것도 인정합니다. 운명이 저를 베어 넘어뜨린 바로 그 순간, 저는 영원히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제 원수이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그 노인의 돈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도, 아니, 아니, 무죄입니다. 유죄일 수도 없습니다.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비열한 놈이지만 도둑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나서 그는 온몸을 떠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떨며 제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은 다시 그에게 질문에만 대답하고 엉뚱하고 미친 듯한 외침을 늘어놓지 말라고 짧지만 훈계하듯 타일렀다. 그러고 나서 사실 심리에 들어가라고 명했다. 증인들이 모두 선서를 하러 불려 들어왔다. 그때 나는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보았다. 하기야 피고의 형제들은 선서 없이 증언하도록 허락되었다. 사제와 재판장의 훈계가 끝나자 증인들은 밖으로 이끌려 나가 되도록 서로 떨어져 앉았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씩 부르기 시작했다.

제2장 위험한 증인들

검사 측 증인과 변호 측 증인을 재판장이 어떤 무리로 나누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순서로 그들을 부르기로 정해 두었는지는 모르겠다. 틀림없이 그런 것이 다 있었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검사 측 증인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모든 신문을 한 걸음 한 걸음 묘사할 생각은 없다. 게다가 내 묘사는 어느 정도 군더더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변론에 들어갔을 때 검사와 변호인의 연설에서, 나오고 들은 모든 진술의 흐름과 뜻이 밝고 특징 있는 빛을 받아 마치 한 점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편의 놀라운 연설을 나는 적어도 군데군데 빠짐없이 받아 적어 두었으니 적당한 때에 전하겠고, 마찬가지로 법정 변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갑자기 벌어져서 재판의 무섭고 운명적인 결말에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끼친, 예사롭지 않고 아주 뜻밖의 사건 하나도 전하겠다. 다만 재판이 시작된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이 "사건"의 어떤 특별한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 모두의 눈에 띄었다는 것만 짚어 두겠다. 다름 아니라 변호 측이 지닌 수단에 견주어 기소의 힘이 엄청났다는 것이다. 이 무서운 법정 안에서 사실들이 한 점으로 모이며 무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모든 공포와 그 모든 피가 차츰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첫 순간에 모두가 그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모두가 첫걸음부터 벌써, 이것은 다툴 여지조차 없는 사건이고, 여기에는 의심이 없으며, 사실 변론 따위는 아예 필요 없을 것이고, 변론은 형식일 뿐이고, 범죄자는 유죄이고, 명백히 유죄이고,

결정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피고의 무죄 방면을 그토록 조바심치며 갈망하던 부인들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와 동시에 그가 완전히 유죄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기까지 한다. 그뿐 아니라 그의 유죄가 그만큼 확증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히려 서운해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랬다면 범죄자가 무죄 방면되는 결말에 그만한 극적 효과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가 무죄 방면되리라는 것을, 이상한 일이지만 부인들은 모두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믿고 있었다. "유죄이긴 하지만 인도주의 때문에, 요즘 퍼진 새로운 사상 때문에, 새로운 감정 때문에 방면될 거예요" 따위로 말이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조바심치며 이리로 몰려든 것이다. 남자들은 검사와 이름난 페튜코비치의 싸움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았다. 모두가 놀라며 스스로 물었다. 이렇게 진 사건, 이렇게 속이 다 파먹힌 달걀 같은 사건에서 페튜코비치 같은 재능이라 한들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가 그의 활약을 한 걸음 한 걸음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페튜코비치는 마지막까지, 그의 연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수수께끼로 남았다. 노련한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체계가 있고, 이미 무언가가 짜여 있으며, 앞에 목표가 있다는 것을 미리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도 그의 확신과 자신만만함은 눈에 띄었다. 게다가 모두가 곧바로 흐뭇하게 알아차렸듯이, 그는 우리 고장에 그토록 짧게, 어쩌면 겨우 사흘쯤 머무는 동안 놀랍게도 사건을 속속들이 알아내어 "세세한 데까지 연구해" 두었다. 이를테면 나중에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검사 측 증인들을 모두 제때에 "궁지로 몰아넣어" 되도록 말을 헛갈리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도덕적 평판에 흠집을 내어 그로써 저절로 그들의 진술에도 흠집을 냈는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하기야 사람들은 그가 이 일을 기껏해야 승부를 위해, 이를테면 법률가로서 좀

빛나 보이려고, 받아들여진 변호사의 수법 가운데 하나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고 여겼다. 그가 그런 "흠집 내기"로는 무슨 크고 결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들 확신했고, 아마 그 자신이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면서, 무언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아껴 두고 아직은 감추어 둔 무슨 변호의 무기를 쥐고 있다가 때가 오면 갑자기 드러내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그래도 제 힘을 의식하며 놀이하듯 장난치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정원으로 열린 문"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진술을 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예전 시종 그리고리 바실리예프를 신문할 때, 변호인은 자기가 질문할 차례가 오자 그를 그야말로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가 법정의 위엄에도, 자기 말을 듣는 엄청난 방청객 앞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거의 위풍당당한 얼굴로 법정에 나섰다는 것은 짚어 두어야겠다. 그는 마치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와 단둘이 이야기하듯, 다만 그보다 좀 더 공손하게, 그만큼 확신을 품고 진술했다. 그를 헛갈리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처음에는 검사가 카라마조프 집안의 온갖 자세한 사정을 오래도록 캐물었다. 집안의 모습이 뚜렷이 겉으로 드러났다. 증인이 순박하고 치우침이 없다는 것이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였다. 예전 주인의 기억을 더없이 깊이 공경하면서도 그는, 이를테면 주인이 미탸에게 공정하지 않았고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가 없었으면 그 어린 도련님은 이한테 뜯어 먹혔을 겁니다." 그는 미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덧붙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 어머니 쪽 영지, 대대로 내려온 영지 일로 섭섭하게 한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계산에서 아들을 섭섭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는 모두가 놀랍게도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도 아들과의 계산이 "옳지 않았고" 틀림없이 아들에게 "몇천 루블을 더 치러 주어야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덧붙여 말하자면,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정말로 미탸에게 무엇을 덜 치렀느냐는 이 물음을 검사는 나중에 알료샤와 이반 표도로비치도 빼놓지 않고 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모든 증인에게 유난히 집요하게 던졌지만, 증인 누구에게서도 정확한 정보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모두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조금이라도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뛰어들어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다시 와서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식탁 장면을 그리고리가 묘사하자 음울한 인상이 법정 안을 휩쓸었는데, 늙은 하인이 차분하게, 쓸데없는 말 없이 저 나름의 말투로 이야기한 것이 무섭도록 설득력 있게 들렸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때 자기 얼굴을 쳐서 넘어뜨린 미탸에게 당한 모욕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 않고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한마디 했다. 고인이 된 스메르댜코프에 대해서는 성호를 긋고 나서, 그녀석은 재주는 있었지만 어리석고 병에 짓눌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놈이었는데, 그 무신앙을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맏아드님이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메르댜코프의 정직함은 거의 열을 내며 확인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스메르댜코프가 그 옛날 주인이 떨어뜨린 돈을 주워서 감추지 않고 주인에게 가져다주었고, 주인이 그 상으로 "금화 한 닢을 주고" 그 뒤로는 모든 일에서 그를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정원으로 난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끈질기게 고집하며 확인했다. 하기야 그에게 어찌나 많은 것을 캐물었는지 나는 다 기억해 낼 수도 없다. 마침내 신문은 변호인에게 넘어갔고, 변호인은 맨 먼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어떤 여인"에게 주려고 3천 루블을 넣어 감추어 두었다는 "그렇다고 하는" 봉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주인을 가까이 모신 증인께서는 그 봉투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리는 보지 못했고, 그런 돈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까지" 누구한테서도 들어 본 적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봉투에 대한 이 물음을 페튜코비치는, 검사가 영지 분할에 대한 자기 물음을 던졌던 것만큼이나 집요하게, 이 일을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증인에게 던졌고, 모두에게서 역시 단 하나의 대답만을 들었다. 많은 사람이 그 봉투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변호인의 집요함은 처음부터 모두의 눈에 띄었다.

"이제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페튜코비치가 갑자기, 아주 뜻밖에 물었다. "예심에서 밝혀진 대로 그날 저녁 주무시기 전에 증인께서 아픈 허리를 낫게 하려고 바르셨던 그 고약, 말하자면 그 약술은 무엇으로 만든 것이었습니까?"

그리고리는 멍하니 신문하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더니 중얼거렸다.

"샐비어를 넣었습니다."

"샐비어만요? 또 무엇이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질경이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후추도요?" 페튜코비치가 궁금한 듯 물었다.

"후추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이군요. 그리고 그걸 모두 보드카에 담그셨나요?"

"주정에 담갔습니다."

법정 안에 아주 살짝 웃음이 번졌다.

"보십시오, 주정에까지 담그셨군요. 등을 문지르시고 나서 증인께서는 증인의 부인만 아는 어떤 경건한 기도를 올리며 병에 남은 것을 드셨지요, 그렇지요?"

"마셨습니다."

"대략 얼마나 드셨습니까? 대략이요? 한 잔, 두 잔?"

"컵으로 하나쯤 될 겁니다."

"컵으로 하나나요. 어쩌면 한 컵 반쯤일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리는 입을 다물었다.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다.

"깨끗한 주정 한 컵 반이라, 그거 꽤 괜찮은 양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으로 난 문은 고사하고 '천국의 문이 열린 것'까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리는 줄곧 잠자코 있었다. 법정 안에 다시 웃음이 지나갔다. 재판장이 몸을 움찔했다.

"혹시 확실히 아십니까?" 페튜코비치는 점점 더 파고들었다. "정원으로 열린 문을 보셨던 그 순간에 증인께서 주무시고 계셨는지 아닌지를요?"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 주무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못 됩니다(법정 안에 또다시, 또다시 웃음). 이를테면 그 순간에 누가 무엇을 물었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이 몇 년도냐고 물었다면 대답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이 몇 년도인지, 우리 기원으로,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리는 얼떨떨한 얼굴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가 정말로 지금이 몇 년도인지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그럼 혹시 손가락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저는 남의 뜻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리가 갑자기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윗분들이 저를 놀리고 싶으시다면 저는 참아야지요."

페튜코비치는 조금 기가 꺾인 듯했지만 재판장이 끼어들어 변호인에게 좀 더 알맞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훈계하듯 일깨웠다. 페튜코비치는 그 말을 듣고 품위 있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자기 신문을 마쳤다고 알렸다. 물론 방청객에게도 배심원들에게도, 어떤 치료 상태에서 "천국의 문을 볼" 수 있었고 게다가 지금이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몇 년도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 작은 의심의 벌레 한 마리쯤은 남았을 수 있었다. 그러니 변호인은 그래도 목적을 이룬 셈이었다. 그러나 그리고리가 물러나기 전에 일이 하나 더 벌어졌다. 재판장이 피고를 돌아보며, 방금 나온 진술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문 말고는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미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를 잡아 준 것은 고맙고, 내가 때린 것을 용서해 준 것도 고맙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정직했고 아버지에게 푸들 700마리만큼 충실했습니다."

"피고는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다.

"나는 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리도 투덜거렸다.

"그럼 내가 푸들이야, 내가!" 미탸가 소리쳤다. "모욕이라면 내가 뒤집어쓰고 이 사람한테 용서를 빌겠습니다. 나는 짐승이었고 이 사람한테 모질었습니다! 이솝한테도 모질었고요."

"무슨 이솝 말입니까?" 재판장이 다시 엄하게 따졌다.

"아니, 피에로…… 아버지 말입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요."

재판장은 다시, 또다시 이제는 더없이 엄하게, 표현을 더 조심스럽게 고르라고 미탸에게 단단히 일렀다.

"피고는 그렇게 해서 판사들의 판단에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증인 라키틴을 신문할 때도 변호인은 똑같이 아주 교묘하게 처리했다. 라키틴이 가장 중요한 증인 가운데 하나였고 검사가 그를 의심할 여지 없이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짚어 두겠다. 알고 보니 그는 모든 것을,

놀랍도록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집에 드나들었고,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카라마조프 집안 모든 사람의 내력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다. 사실 3천 루블이 든 봉투에 대해서는 그도 미탸 자신에게서 들었을 뿐이었다. 그 대신 그는 "수도"라는 선술집에서 벌인 미탸의 활약과 미탸에게 불리한 모든 말과 몸짓을 자세히 묘사했고, 2등 대위 스네기료프의 "수세미"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영지를 계산할 때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미탸에게 무엇을 빚진 채 남았느냐는 그 특별한 쟁점에 대해서는 라키틴 자신도 아무것도 짚어 내지 못했고, 경멸 섞인 상투적인 말로 얼버무렸을 뿐이었다. "아무도 제 자신을 이해하지도 규정하지도 못하는 분별없는 카라마조프 기질 속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내고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심리 중인 범죄의 비극 전체를, 낡은 농노제 풍속과, 걸맞은 제도도 없이 괴로워하며 무질서 속에 잠긴 러시아의 산물로 그렸다. 한마디로 그에게 이것저것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재판으로 라키틴 씨는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눈에 띄게 되었다. 검사는 증인이 이번 범죄에 대해 잡지에 실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자기 연설에서(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논문의 생각 몇 가지를 인용했으니 이미 그 논문을 읽어 본 것이었다. 증인이 그린 그림은 음울하고 운명적인 것이 되었고 "기소"를 크게 뒷받침했다. 대체로 라키틴의 진술은 그 생각의 독립성과 그 비상하는 생각의 남다른 고결함으로 방청객을 사로잡았다. 바로 농노제와 혼란으로 괴로워하는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갑자기 터져 나온 박수 소리가 두세 번 들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라키틴은 그래도 젊은이라서 작은 실수를 하나 저질렀고, 변호인은 곧바로 그것을 기막히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는 그루셴카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답하면서, 물론 이미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던 자기 성공과 자기가 날아오른 그 고결함의 높이에 도취한 나머지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를 "상인 삼소노프의 첩"이라고 좀 경멸하듯 표현해 버렸다. 나중에 그는 그 한마디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비싸게 내주었을 것이다. 페튜코비치가 곧바로 바로 그 말로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페튜코비치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사건의 그토록 내밀한 세부까지 알아냈으리라고는 라키틴이 전혀 셈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변호인은 자기가 질문할 차례가 오자 더없이 상냥하고 공손하기까지 한 미소를 띠고 말을 꺼냈다. "증인은 물론, 깊은 신앙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교님께 바치는 훌륭하고 경건한 헌사가 붙은, 교구 당국에서 펴낸 소책자 『하느님 품에 잠든 조시마 장로 신부의 생애』를 제가 얼마 전에 무척 즐겁게 읽었는데, 바로 그 소책자를 쓰신 라키틴 씨 맞으시지요?"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인쇄된 겁니다." 라키틴이 갑자기 무엇에 얼떨떨해진 듯 거의 부끄러워하며 중얼거렸다.

"오, 그거 훌륭하군요! 증인 같은 사상가는 모든 사회 현상을 아주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아니 그래야 마땅하지요. 주교님의 후원으로 증인의 더없이 유익한 소책자는 널리 퍼져 상대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증인은 방금 스베틀로바 부인과 아주 가까이 아는 사이였다고 밝히셨지요?(주의할 것(Nota bene). 그루셴카의 성은 「스베틀로바」였다. 나는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키틴이 온통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페튜코비치는 스스로도 당황한 듯, 그리고 서둘러 사과하려는 듯 외쳤다. "증인도 다른 누구나 그렇듯이 이 고장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을 기꺼이 자기 집에 맞아들이던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아는 사이가 되는 데 관심이 있으셨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다만 알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스베틀로바는 두 달쯤 전에 카라마조프 집안의 막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와 몹시 알고 지내고 싶어 했고, 증인이 그를 자기에게 데려오기만 하면, 그것도 바로 그 무렵의 수도원 옷차림 그대로 데려오기만 하면 증인에게 25루블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은 바로 이번 사건의 바탕이 된 비극적인 파국으로 끝난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증인은 알렉세이 카라마조프를 스베틀로바 부인에게 데려갔는데, 그때 스베틀로바한테서 그 25루블의 사례금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증인한테서 듣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그게 왜 당신 관심을 끄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농담으로 받았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받으셨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으셨지요…… 아니면 돌려주셨습니까?"

"그건 하찮은 일입니다……" 라키틴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돌려줄 겁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지만 변호인은 라키틴 씨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알렸다. 라키틴 씨는 기름때가 좀 묻은 꼴로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 연설의 드높은 고결함이 준 인상은 결국 망가져 버렸고, 페튜코비치는 그를 눈으로 배웅하며 방청객에게 가리켜 보이는 듯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결한 고발자들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미탸 쪽에서 한바탕 일이 벌어졌던 것이 기억난다. 라키틴이 그루센카를 두고

말한 말투에 격분한 그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베르나르!" 하고 소리쳤던 것이다. 라키틴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나고 재판장이 피고를 돌아보며 피고 쪽에서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미탸는 우렁차게 외쳤다.

"저 녀석은 피고가 된 나한테서까지 돈을 꿔 갔습니다! 경멸할 베르나르이고 출세주의자이고,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서 주교님을 속였습니다!"

미탸는 물론 다시 표현이 사납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지만 라키틴 씨는 끝장이 났다. 2등 대위 스네기료프의 증언도 운이 없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다. 그는 온통 너덜너덜한 꼴로, 더러운 옷에 더러운 장화를 신고 나타났는데, 온갖 조심과 사전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완전히 얼큰히 취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미탸에게 당한 모욕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갑자기 대답을 거부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께 맡기겠습니다요. 일류셰치카가 하지 말라고 했습지요. 거기서 하느님이 저한테 갚아 주실 겁지요."

"누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까?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일류셰치카, 제 아들놈입지요. '아빠, 아빠, 그 사람이 아빠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돌 곁에서 그렇게 말했습지요. 이제 죽어 갑니다요……"

2등 대위는 갑자기 흐느끼더니 털썩 재판장 발치에 엎드렸다. 방청객의 웃음 속에서 그는 서둘러 끌려 나갔다. 검사가 준비해 둔 인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이용했고, 사건을 가장 작은 세부까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점점 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를테면 트리폰 보리소비치의 진술은 꽤 강한 인상을 남길 뻔했고, 물론 미탸에게 몹시 불리했다. 다름 아니라 그는 거의 손가락을 꼽아 가며, 미탸가 파국이 일어나기 거의 한 달 전 모크로예에 처음 왔을 때 3천 루블보다 적게, 또는 "아주 조금 빠지게만" 썼을 리는 없다고 셈해 보였다. "그 집시

계집들한테만 해도 얼마나 뿌렸는지 모릅니다요! 이 고장 이투성이 농군들한테는 '반 루블짜리를 길바닥에 뿌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25루블짜리 지폐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보다 적게는 주지 않으셨습죠. 그리고 그때 그냥 도둑맞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훔친 놈이 제 손을 남겨 두고 가는 것도 아니니 그 도둑놈을 어디서 잡습니까요, 나리께서 손수 함부로 뿌리셨으니! 우리 고장 백성은 강도라서 제 영혼을 지키지 않습죠. 그리고 처녀들, 우리 마을 처녀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지! 그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렇습죠, 전에는 가난했는데." 한마디로 그는 온갖 지출을 다 떠올리고 주판으로 놓듯이 정확하게 셈을 해 보였다. 그리하여 1천 5백 루블만 쓰고 나머지는 부적 주머니에 따로 넣어 두었다는 추측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되어 갔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요, 그분 손에 3천 루블이 1코페이카처럼 들려 있는 걸 봤습죠,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셈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요!" 트리폰 보리소비치는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 외쳤다. 그러나 신문이 변호인에게 넘어가자 변호인은 그 진술을 거의 반박하려 하지도 않고, 체포되기 한 달 전 모크로예의 첫 술잔치 때 마부 티모페이와 또 다른 농군 아킴이 미탸가 취해서 떨어뜨린 100루블을 현관방 바닥에서 주워 트리폰 보리소비치에게 갖다 바쳤고, 트리폰 보리소비치가 그 대가로 그들에게 1루블씩 주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다. "그래서 증인은 그때 그 100루블을 카라마조프 씨에게 돌려주었습니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트리폰 보리소비치는 이리저리 둘러대려 했지만, 농군들을 신문한 뒤에는 결국 100루블짜리를 찾아낸 일을 자백했고, 다만 그때 곧바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에게 모두 거룩하게 돌려드렸고 "아주 정직하게 건네드렸는데, 다만 그분께서 그때 완전히 취해 계셨으니 그걸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요"라고 덧붙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농군 증인들이 불려 나오기 전까지는 100루블을 찾아낸 일을 그래도 부인했으므로, 취한 미탸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다는 그의 진술은 당연히 크게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검찰 측이 내세운 가장 위험한 증인 가운데 하나도 역시 의심을 받으며, 평판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채 물러났다. 폴란드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오만하고 거리낌 없는 태도로 나타났다. 그들은 첫째로 둘 다 "왕관을 섬겼다"는 것과 "판 미탸"가 그들의 명예를 사려고 3천 루블을 내놓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그의 손에 든 큰돈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큰 소리로 증언했다. 판 무샬로비치는 자기 문장에 폴란드 말을 엄청나게 많이 끼워 넣었고, 그것이 재판장과 검사의 눈에 자기를 높여 줄 뿐이라는 것을 보자 마침내 완전히 기가 살아서 아예 폴란드 말로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페튜코비치는 그들도 자기 그물로 붙잡았다. 다시 불려 나온 트리폰 보리소비치는 아무리 둘러대도 결국, 판 브루블렙스키가 그의 카드 한 벌을 자기 것으로 바꿔치기했고 판 무샬로비치가 반크의 물주 노릇을 하면서 카드를 속였다는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칼가노프도 자기 차례에 진술하면서 확인해 주었고, 두 판은 방청객의 웃음까지 받으며 좀 창피를 당한 채 물러갔다.

그 뒤로는 가장 위험한 증인들 거의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페튜코비치는 그들 하나하나를 도덕적으로 흠집 내어 코가 좀 납작해진 꼴로 돌려보낼 줄 알았다. 애호가들과 법률가들은 그저 감탄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무슨 그토록 크고 결정적인 일에 쓰일 수 있을지 다시금 의아해할 뿐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점점 더 비극적으로 커져 가는 기소의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마술사"의 확신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차분하다는 것을 알았고, 기다렸다. "그런 사람"이 괜히 페테르부르크에서 온 것은 아니었고, 빈손으로 돌아갈 사람도 아니었다.

제3장 의학 감정과 호두 1푼트

의학 감정도 피고에게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 페튜코비치 자신도 그것에 그리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드러났다. 감정은 본디 오로지, 일부러 모스크바에서 이름난 의사를 불러온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고집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변호 측으로서는 그것으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잘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었다. 하기야 일부는 의사들 사이의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무언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 버리기까지 했다. 감정인으로는 이름난 의사가 와서 나섰고, 그다음 우리 고장 의사 게르첸시투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 바르빈스키가 나섰다. 뒤의 두 사람은 검사가 소환한 그냥 증인으로도 나왔다. 감정인 자격으로 맨 먼저 신문을 받은 사람은 게르첸시투베 의사였다. 그는 일흔 살 된 노인으로, 머리가 세고 벗어졌으며, 키는 보통이고 몸이 다부졌다. 우리 읍에서는 누구나 그를 무척 높이 평가하고 존경했다. 그는 양심적인 의사였고,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헤른후트파인지 "모라비아 형제단"인지 무슨 그런 신자였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그는 우리 고장에서 이미 아주 오래 살았고 대단히 품위 있게 처신했다. 그는 착하고 인정이 많아서 가난한 환자와 농민들을 공짜로 치료해 주었고, 그들의 움막과 오두막에 손수 찾아가서 약값으로 돈을 놓고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노새처럼 고집이 셌다. 어떤 생각이 일단 그의 머리에 들어박히면 그를 그 생각에서 끌어내기란 불가능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다른 곳에서 온 그

이름난 의사가 우리 고장에 머문 겨우 이틀이나 사흘 동안 게르첸시투베 의사의 재능에 대해 몹시 모욕적인 평을 몇 번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미 읍에서 거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정은 이랬다. 모스크바 의사는 왕진 한 번에 적어도 25루블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읍의 몇몇 사람은 그가 온 기회를 반기며 돈을 아끼지 않고 그에게 조언을 들으러 몰려갔다. 그 환자들은 물론 모두 그보다 먼저 게르첸시투베 의사가 치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름난 의사는 가는 곳마다 그의 치료를 몹시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에는 환자를 찾아가서 대놓고 묻기까지 했다. "그래, 여기서 당신을 누가 망쳐 놓았소, 게르첸시투베요? 헤헤!" 게르첸시투베 의사는 물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 의사가 신문을 받으러 차례로 나타났다. 게르첸시투베 의사는 "피고의 지적 능력의 비정상성은 저절로 엿보인다"고 대놓고 밝혔다. 그다음 그는 여기서는 내가 생략하는 자기 소견을 내놓고 나서, 이 비정상성은 무엇보다 피고의 예전 여러 행동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무엇에서 그것이 엿보이느냐고 설명을 청하자, 늙은 의사는 그 순박함 그대로 곧이곧대로, 피고가 법정에 들어설 때 "그 처지에 걸맞지 않게 별나고 기이한 모습이었고, 군인처럼 앞으로 성큼성큼 걸었으며, 눈을 제 앞으로 고정하고 버텼는데, 사실은 방청석에 부인들이 앉아 있는 왼쪽을 보는 편이 더 옳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성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부인들이 자기를 두고 무슨 말을 할지 무척 많이 생각했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노인은 자기 나름의 말투로 그렇게 말을 맺었다.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그가 러시아 말을 많이, 즐겨 했지만 어쩐지 문장마다 독일식 말투가 되어 버렸다는 점인데, 그래도 그는 그런 일로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자기 러시아 말을 본보기가 될 만한 것으로, "러시아 사람들 말보다도 낫다"고 여기는

약점이 있었고, 러시아 속담을 쓰기를 몹시 좋아해서 러시아 속담이야말로 세계의 모든 속담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표현력이 풍부하다고 매번 장담했기 때문이다. 또 짚어 두자면, 그는 무슨 정신이 딴 데 팔려서 그러는지 이야기하다가 아주 흔한 낱말들을 곧잘 잊어버렸다. 잘 아는 낱말인데도 웬일인지 갑자기 머릿속에서 튀어 나가 버렸다. 하기야 독일 말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럴 때면 그는 늘 잃어버린 낱말을 붙잡으려는 듯 제 얼굴 앞에서 손을 휘저었고, 사라진 낱말을 찾아내기 전에는 누구도 그에게 하던 말을 이어 가게 할 수 없었다. 피고가 들어설 때 부인들을 보았어야 했다는 그의 말은 방청석에 장난스러운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고장 부인들은 모두 우리 노인을 무척 좋아했고, 평생 독신으로 지낸 경건하고 정결한 그가 여자들을 드높고 이상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뜻밖의 말이 모두에게 끔찍하게 이상하게 여겨졌다.

모스크바 의사는 자기 차례에 신문을 받자, 피고의 정신 상태를 비정상으로, "그것도 극도로" 비정상으로 여긴다고 날카롭고 집요하게 확언했다. 그는 "격정"과 "편집증"에 대해 많이, 그리고 똑똑하게 이야기했고, 수집한 모든 자료로 보건대 피고는 체포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의심할 여지 없이 병적인 격정 상태에 있었으며,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비록 그것을 의식하기는 했어도 거의 저도 모르게, 자기를 사로잡은 병적인 도덕적 충동과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채로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의사는 격정 말고도 편집증을 보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앞으로 이미 완전한 정신 착란에 이르는 곧은길을 예고했다. (덧붙임(NB). 나는 내 말로 전하는 것이고, 의사는 몹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말로 설명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건전한 상식과 논리에 거꾸로 갑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보지 못한 것, 곧 범죄 자체와 이 파국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께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전혀 웃을 필요가 없을 때 뜻밖에 터져 나오는 웃음.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짜증, 이상한 말들. '베르나르, 에피카' 따위의, 쓸 필요가 없는 말들 말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특히 그 편집증을 본 것은, 피고가 자기가 속아서 잃었다고 여기는 그 3천 루블에 대해서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짜증 없이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으면서, 다른 모든 실패와 모욕에 대해서는 꽤 가볍게 이야기하고 떠올린다는 점에서였다. 마지막으로, 조회해 보니 그는 예전에도 이 3천 루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거의 미친 듯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가 사심이 없고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피고가 법정에 들어설 때 자기 앞을 똑바로 보지 말고 부인들을 보았어야 했다는 학식 있는 동료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스크바 의사는 말을 맺으면서 빈정대듯 덧붙였다. "그런 결론의 장난스러움은 차치하고라도, 그 결론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가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제 앞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 순간 그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징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에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가 왼쪽의 부인들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오른쪽을 보며 자기 변호인을 눈으로 찾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모든 희망은 변호인의 도움에 걸려 있고, 이제 그의 운명 전체가 변호인의 변호에 달려 있으니까요." 의사는 자기 의견을 단호하고 집요하게 밝혔다. 그러나 두 학식 있는 감정인의 의견 차이에 특별한 희극성을 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신문을 받은 의사 바르빈스키의 뜻밖의 결론이었다. 그가 보기에 피고는 지금도 예전도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며, 체포되기 전에 정말로 신경이 곤두서고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질투, 분노, 끊임없는 만취 따위의 가장

명백한 여러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신경 상태에는 방금 말한 어떤 특별한 "격정"도 담겨 있을 수 없었다. 피고가 법정에 들어설 때 왼쪽을 보았어야 했느냐 오른쪽을 보았어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소박한 의견으로는" 피고는 바로 법정에 들어서면서 실제로 그랬듯이 자기 앞을 똑바로 보았어야 했다. 그의 바로 앞에는 이제 그의 운명 전체를 쥔 재판장과 판사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 앞을 똑바로 봄으로써 그는 바로 그로써 그 순간 자기 정신이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젊은 의사는 좀 열을 내며 자기의 "소박한" 진술을 맺었다.

"브라보, 의원 양반!" 미탸가 제자리에서 소리쳤다. "바로 그거요!"

미탸는 물론 제지를 받았지만, 젊은 의사의 의견은 재판부에도 방청객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중에 드러났듯이 모두가 그에게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기야 이번에는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은 게르첸시투베 의사가 아주 뜻밖에 갑자기 미탸에게 이로운 쪽으로 나섰다. 오래전부터 카라마조프 집안을 알아 온 읍의 토박이로서 그는 "기소"에 몹시 흥미로운 진술을 몇 가지 하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 불쌍한 젊은이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운명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시절에도, 어린 시절이 지난 뒤에도 좋은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러시아 속담이 말하기를, '누구에게 지혜가 한 개 있으면 좋은 일이고, 거기에 또 지혜로운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머리 하나도 좋지만 둘이면 더 좋다." 검사가 조바심을 내며 거들었다. 그는 노인이 말을 느릿느릿 길게 늘어뜨리는 버릇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노인은 자기 말이 어떤 인상을 주든, 남을

기다리게 하든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둔하고 감자처럼 무르고 언제나 기쁘게 자기만족에 찬 독일식 재치를 무척 높이 쳤다. 노인은 재치 부리기를 좋아했다.

"오, 그-그렇지요, 나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말을 받았다. "머리 하나도 좋지만 둘이면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머리가 있는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고, 그는 자기 머리마저 내보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그가 머리를 어디로 내보냈는지? 그 낱말, 그가 자기 머리를 어디로 내보냈는지 그 낱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제 눈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말을 이었다. "아, 그렇지, 슈파치렌."

"산책 말입니까?"

"그래요, 산책, 나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는 산책을 나갔고, 아주 깊은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마워할 줄 알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이었습니다. 오, 나는 그가 아직 이만한 꼬맹이였을 때, 아버지의 뒷마당에 버려져 장화도 신지 않은 채 단추 하나로 겨우 채운 바지를 입고 땅바닥을 뛰어다니던 그를 아주 잘 기억합니다."

정직한 노인의 목소리에 갑자기 무언가 감상적이고 마음 깊이 스며드는 가락이 들렸다. 페튜코비치는 무언가를 미리 느낀 듯 흠칫하더니 순식간에 달라붙었다.

"오, 그렇지요, 나도 그때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그때 마흔다섯 살이었고, 막 이곳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소년이 불쌍해져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 애한테 1푼트를 사 줄 수 없는가…… 그래요, 무엇을 1푼트?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것 1푼트, 그걸 뭐라고 하지요, 그걸 뭐라고……" 의사가 다시 손을

휘저었다. "그건 나무에서 자라고, 사람들이 그걸 따서 모두에게 선물로 줍니다……"

"사과 말입니까?"

"오, 아-아니-이요! 1푼트, 1푼트라니까요, 사과는 열 개씩이지 1푼트가 아닙니다…… 아니, 그건 많고 모두 작아서, 입에 넣으면 와-지-직!……"

"호두 말입니까?"

"그래요, 호두, 나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의사는 마치 낱말을 전혀 찾지 않았던 듯 더없이 차분하게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애한테 호두 1푼트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에게는 일찍이 아무도 호두 1푼트를 가져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손가락을 들고 그 애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 하느님(Gott der Vater).' 그 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그다음 '아들 하느님(Gott der Sohn).' 그 애는 또 웃으며 옹알거렸습니다. '아들 하느님.' 그다음 '성령 하느님(Gott der heilige Geist).' 그러자 그 애는 또 웃으며 할 수 있는 만큼 말했습니다. '성령 하느님.' 그리고 나는 떠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나가는데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아버지 하느님, 아들 하느님.' 다만 '성령 하느님'만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 애한테 일깨워 주었고, 나는 다시 그 애가 몹시 불쌍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다른 데로 보내졌고 나는 다시는 그 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물세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나는 벌써 머리가 하얗게 센 채로 내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혈기 왕성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는 손가락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아들 하느님, 그리고 성령 하느님! 저는 방금 도착해서 호두 1푼트에 대해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는 아무도 호두 1푼트를 사 준 적이 없었고, 선생님

혼자 저한테 호두 1푼트를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내 행복한 젊은 시절과 장화도 신지 않고 마당에 있던 불쌍한 소년을 떠올렸고, 내 가슴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고마워할 줄 아는 젊은이로군. 왜냐하면 내가 자네 어린 시절에 가져다준 그 호두 1푼트를 평생 기억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를 껴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울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울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은 울어야 할 자리에서 몹시 자주 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울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아!……"

"지금도 울고 있어요, 독일 양반, 지금도 울고 있어요, 하느님의 사람아!" 미탸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소리쳤다.

어찌 되었든 이 짧은 일화는 방청객에게 어느 정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미탸에게 이로운 쪽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낸 것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진술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곧 하겠다. 대체로 변호 측 증인(à décharge), 곧 변호인이 소환한 증인들이 나서기 시작하자 운명이 갑자기, 그것도 진지하게 미탸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그것은 변호 측조차 뜻밖이었다. 그러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보다 먼저 알료샤가 신문을 받았는데, 그는 갑자기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그것은 기소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에 맞서는, 거의 이미 결정적인 증언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사실이었다.

제4장 행운이 미탸에게 미소 짓다

그 일은 알료샤 자신에게도 전혀 뜻밖에 일어났다. 그는 선서 없이 소환되었는데, 신문의 첫마디부터 모든 쪽이 그를 아주 부드럽고 호의적으로 대하던 것이 기억난다. 좋은 평판이 그보다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이 보였다. 알료샤는 겸손하고 절제 있게 진술했지만, 그의 진술에는 불행한 형에 대한 뜨거운 공감이 뚜렷이 배어 나왔다. 어떤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는 형의 성격을, 어쩌면 사납고 정열에 휩쓸리는 사람이지만 고결하고 자존심 강하고 너그러우며 누가 요구한다면 희생까지 할 채비가 된 사람으로 그려 보였다. 하기야 그는 최근 며칠 동안 형이 그루셴카를 향한 정열 때문에, 아버지와의 경쟁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은 분개하며 물리쳤다. 다만 그 3천 루블이 미탸의 머릿속에서 무슨 거의 편집증 같은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형은 그 돈을 아버지가 속여서 자기에게 덜 준 유산으로 여겼으며, 전혀 돈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면서도 이 3천 루블 이야기만은 미친 듯이 격분하지 않고는 꺼내지도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검사가 표현한 대로 두 "여인", 곧 그루셴카와 카탸의 경쟁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며 대답했고, 한두 가지 질문에는 아예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적어도 증인의 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라고 증인에게 말한 적은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덧붙였다.

"대놓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알료샤가 대답했다.

"그럼요? 에둘러서는요?"

"형은 한번 아버지를 향한 자기 개인적인 증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극단적인 순간에…… 혐오가 치미는 순간에…… 어쩌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증인은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었다고 말하기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명의 순간에 어떤 드높은 감정이 언제나 형을 구해 주리라고 늘 굳게 믿었고, 실제로 형을 구해 주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것은 *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료샤는 법정이 떠나가게 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을 맺었다. 검사는 나팔 신호를 들은 군마처럼 흠칫했다.

"증인의 확신이 더없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완전히 믿습니다. 그 확신을 불행한 형에 대한 증인의 사랑에 조금도 결부시키거나 동화시키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 점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증인의 집안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일 전체에 대한 증인의 독특한 견해는 예심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말하자면, 그 견해는 극도로 별나고 검찰이 얻은 다른 모든 진술과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집요하게 여쭐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바로 어떤 자료가 증인의 생각을 이끌어서, 증인의 형이 결백하다는, 그리고 거꾸로 증인이 예심에서 이미 대놓고 지목한 다른 인물이 유죄라는 결정적인 확신으로 그 생각을 향하게 했습니까?"

"예심에서 저는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알료샤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스스로 나서서 스메르댜코프를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지목하셨지요?"

"드미트리 형의 말을 듣고 지목했습니다. 신문을 받기 전에 벌써, 형이 체포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형이 스스로 스메르댜코프를 어떻게 지목했는지를 누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형이 죄가 없다고 완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인 것이 아니라면……"

"스메르댜코프라는 겁니까? 왜 하필 스메르댜코프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 증인은 형이 죄가 없다고 그토록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형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형의 얼굴을 보고 형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만 보고요? 그게 증인의 증거 전부입니까?"

"더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메르댜코프의 유죄에 대해서도 증인은 형의 말과 형의 얼굴 표정 말고는 다른 어떤 작은 증거에도 기대지 않습니까?"

"예,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검사는 신문을 그쳤다. 알료샤의 대답은 방청객에게 몹시 실망스러운 인상을 남길 뻔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 고장에서는 이미 스메르댜코프에 대한 말이 돌았다. 누구는 무엇을 들었다 하고 누구는 무엇을 짚었다 했으며, 알료샤를 두고는 그가 형에게 이롭고 하인에게 불리한 무슨 엄청난 증거들을 모아 두었다는 말이 돌았는데, 막상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피고의 친동생이라는 처지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무슨 도덕적 확신 말고는 아무 증거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페튜코비치도 질문을 시작했다. 피고가 증인 알료샤에게 아버지를 향한 증오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정확히 언제 말했는지, 이를테면 파국 전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묻자, 알료샤는 대답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이제야 겨우 떠올리고 깨달은 듯 흠칫했다.

"이제 한 가지 사정이 떠오릅니다. 저 자신도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 너무나 모호했지만 지금은……"

그리고 알료샤는, 바로 지금 갑자기 그 생각에 이른 것이 분명한 얼굴로 열중하여, 미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저녁 수도원으로 가는 길의 나무 곁에서 미탸가 자기 가슴을, "가슴 윗부분"을 치면서 자기 명예를 되찾을 수단이 있다고, 그 수단이 여기, 바로 여기, 자기 가슴에 있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저는 형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마음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료샤는 말을 이었다. "형 앞에 닥쳐 있었고 형이 저에게조차 감히 털어놓지 못한 어떤 끔찍한 치욕에서 벗어날 힘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 바로 형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무슨 폭력을 휘두를 생각을 하면서 치욕을 느끼듯 몸서리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바로 그때 자기 가슴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고, 그래서 바로 그때 심장은 가슴의 그쪽이 아니라 더 아래에 있는데 형은 훨씬 위쪽을, 바로 여기, 목 바로 아래를 치면서 줄곧 그 자리를 가리킨다는 무슨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제 생각이 어리석게 여겨졌지만, 형은 바로 그때 어쩌면 그 1천 5백 루블을 꿰매 넣은 그 부적 주머니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거야!" 미탸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소리쳤다. "그래, 알료샤, 그래, 나는 그때 그걸 주먹으로 두드렸어!"

페튜코비치는 허둥지둥 그에게 달려가 진정하라고 애원하더니, 그와 동시에 알료샤를 그야말로 물고 늘어졌다. 알료샤는 자기 회상에 스스로 휩쓸려서, 그 치욕이란 아마도 바로 이런 것이었으리라는 자기 추측을

뜨겁게 밝혔다. 형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진 빚의 절반으로 그 여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1천 5백 루블을 몸에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그 절반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데에, 곧 그루셴카가 동의한다면 그루셴카를 데리고 떠나는 데에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알료샤가 갑작스러운 흥분에 차서 외쳤다. "형은 그때 바로 저에게, 절반을, 치욕의 절반을(형은 몇 번이나 *절반을!*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당장이라도 벗어 버릴 수 있지만 자기 성격이 약해서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럴 힘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형이 바로 가슴의 그 자리를 쳤다는 것을 증인은 굳게, 분명하게 기억합니까?" 페튜코비치가 탐욕스럽게 캐물었다.

"분명하고 굳게 기억합니다. 바로 그때 저는, 심장은 더 아래에 있는데 형이 왜 저렇게 높은 데를 치나 하고 생각했고, 그때 곧바로 제 생각이 어리석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여겨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생각이 스쳐 갔어요. 바로 그래서 저는 지금 막 그 일을 떠올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지금까지 그걸 잊고 있었을까요! 형은 바로 그 부적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자기에게 수단이 있지만 그 1천 5백 루블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겁니다! 그리고 체포될 때, 모크로예에서, 형은 바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누가 저에게 전해 주었으니까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빚의 절반을(바로 절반을!) 돌려주어 그 여자 앞에서 도둑이 되지 않을 수단이 있었는데도 끝내 돌려줄 결심을 하지 못하고, 돈과 헤어지느니 차라리 그 여자 눈에 도둑으로 남기를 바랐던 것을 자기 평생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형은 그 빚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알료샤는 외치며 말을 맺었다.

물론 검사도 끼어들었다. 그는 알료샤에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 번 묘사해 달라고 청하고는, 피고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느냐고 몇 번이나 고집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저 주먹으로 가슴을 쳤던 것은 아니냐고도 했다.

"주먹으로 친 게 아니라니까요!" 알료샤가 외쳤다.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여기를, 아주 높은 데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바로 이 순간까지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을까요!"

재판장이 미탸를 돌아보며 방금 나온 진술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미탸는 바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고, 자기는 바로 목 바로 아래 가슴에 지니고 있던 1천 5백 루블을 가리켰다고, 그리고 물론 그것은 치욕이었다고 확인했다. "제가 부인하지 않는 치욕, 제 평생 가장 치욕스러운 짓입니다!" 미탸가 소리쳤다. "저는 돌려줄 수 있었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눈에 차라리 도둑으로 남기를 바랐고 돌려주지 않았는데, 가장 큰 치욕은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알료샤 말이 맞아! 고마워, 알료샤!"

이것으로 알료샤의 신문이 끝났다. 중요하고 특징적인 것은 바로, 단 하나라도 사실이, 단 하나라도, 설령 아주 하찮다 하더라도 증거가, 거의 증거의 암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나왔다는 사정이었다. 그래도 그것은 그 부적 주머니가 정말로 있었고, 그 안에 1천 5백 루블이 들어 있었으며, 피고가 모크로예에서 그 1천 5백 루블이 "내 돈이었다"고 밝혔을 때 예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증언해 주었다. 알료샤는 기뻤다. 그는 온통 얼굴이 붉어진 채 자기에게 지정된 자리로 갔다. 그는 오래도록 혼자 되뇌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잊었을까!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제야 떠올랐을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법정 안에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지나갔다. 부인들은 손잡이 안경과 쌍안경을 집어 들었고, 남자들은 몸을 들썩였으며, 어떤 이들은 더 잘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중에 모두가 장담하기를, 그 여자가 들어서자마자 미탸가 갑자기 "손수건처럼" 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온통 검은 옷을 입은 그 여자는 수수하게, 거의 수줍게 자기에게 지정된 자리로 다가갔다. 그 여자의 얼굴로는 그 여자가 마음이 들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 어둡고 음울한 눈길에는 결단이 번득였다. 나중에 아주 많은 사람이, 그 순간 그 여자가 놀랍도록 아름다웠다고 장담했다는 것은 짚어 두어야겠다. 그 여자는 조용하지만 법정 전체에 들리도록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아주 차분하게, 적어도 차분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재판장은 마치 "어떤 현"을 건드릴까 두려워하고 크나큰 불행을 존중하듯 조심스럽게, 아주 공손하게 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첫마디부터 스스로, 던져진 질문 가운데 하나에 대답하면서 자기가 피고의 약혼녀였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릴 때까지는요……" 그 여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미탸에게 친척들에게 우편으로 부치라고 맡긴 3천 루블에 대해 묻자 그 여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 돈을 곧장 우편으로 부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돈이 몹시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느꼈어요…… 그 순간에요. 나는 그 3천 루블을, 원한다면 한 달 안에 부치라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빚 때문에 그토록 자기를 괴롭힌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모든 질문과 그 여자의 모든 대답을 정확히 전하지는 않고, 그 여자 진술의 본질적인 뜻만 전한다.

"나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기만 하면 언제든 그 3천 루블을 부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 여자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사심이 없고 정직하다는 것을, 돈 문제에서는 드높게 정직하다는 것을…… 늘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한테서 3천 루블을 받으리라고 굳게 믿었고, 나한테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늘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위협했다는 말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적어도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왔다면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진 그 불행한 3천 루블 때문에 품은 불안을 곧바로 가라앉혀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은 더는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 빚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조금도 없었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덧붙였고, 그 목소리에 무언가 단호한 것이 울렸다. "나 자신이 언젠가 그 사람한테서 3천 루블보다 더 큰 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언젠가 그 빚을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으리라고는 그때 짐작조차 할 수 없었는데도 그 도움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도전 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바로 이 순간 질문이 페튜코비치에게 넘어갔다.

"그건 아직 여기서가 아니라 두 분이 알게 된 처음 무렵의 일이었지요?" 페튜코비치가 순간 무언가 이로운 것을 미리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받았다. (괄호 안에 짚어 두자면, 그는 일부는 바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자신이 그를 페테르부르크에서 불러왔는데도, 미탸가 아직 그 도시에 있을 때 그 여자에게 준 5천 루블에 얽힌 일과 "땅에 엎드려 한 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여자가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 여자 자신도 마지막 순간까지 법정에서 그 일을 이야기할지 말지 몰랐고, 무슨 영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확신을 품고 짐작할 수 있다.)

아니, 나는 그 순간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여자는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미탸가 알료샤에게 들려주었던 그 일 전체를, "땅에 엎드려 한 절"도, 그 까닭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도, 자기가 미탸를 찾아갔던 일도 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미탸가 그 여자의 언니를 통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돈을 받으러 자기에게 보내라"고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단 한마디로도, 단 하나의 암시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것을 너그럽게 감추었고, 그때 무언가를 바라며 자기 스스로의 충동으로 젊은 장교에게 돈을 얻으러 달려간 것이 바로 자기,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언가 사람을 뒤흔들었다. 나는 들으면서 몸이 싸늘해지고 떨렸고, 법정은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으며 숨을 죽였다. 거기에는 무언가 전례가 없는 것이 있어서, 그 여자처럼 제멋대로이고 남을 경멸할 만큼 오만한 아가씨에게서조차 그토록 드높게 솔직한 진술을, 그토록 큰 희생을, 그토록 철저한 자기 제물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였던가? 자기를 배신하고 모욕한 사람을 구하려고, 그에게 이로운 좋은 인상을 줌으로써 그를 구하는 데 무엇으로든,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마지막 5천 루블을, 자기 생에 남아 있던 전부를 내주고 결백한 아가씨 앞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장교의 모습은 아주 호감 가고 매력 있게 드러났지만…… 내 가슴은 아프게 조여들었다! 나중에 중상이 생겨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생겨났다, 생겨났다!) 나는 느꼈다. 나중에 온 읍에서 사람들은 심술궂게 히죽거리며, 그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바로

장교가 아가씨를 "그저 공손하게 절만 하고" 돌려보냈다는 대목이 그렇다고 수군거렸다. 거기서 무언가가 "빠졌다"는 암시였다. "설령 빠진 게 없다 해도, 설령 모두 사실이라 해도," 우리 고장의 가장 점잖은 부인들조차 이렇게 말했다. "비록 아버지를 구하려고 그랬다 해도 아가씨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그리 고결한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요?" 그런데 그 지혜와 그 병적인 통찰력을 지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정말 미리 느끼지 못했을까? 틀림없이 미리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물론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한 이 모든 지저분한 의심은 나중에야 시작되었고, 첫 순간에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뒤흔들렸다. 판사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경건한, 이를테면 부끄러워하는 침묵 속에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말을 들었다. 검사는 이 주제에 대해 더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페튜코비치는 그 여자에게 깊이 고개 숙여 절했다. 오, 그는 거의 개가를 올리고 있었다! 많은 것을 얻었다. 고결한 충동에 이끌려 마지막 5천 루블을 내주는 사람과, 그다음 그 같은 사람이 3천 루블을 빼앗으려고 밤중에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라니, 이것은 어딘가 서로 이어지지 않았다. 적어도 강도 혐의만큼은 이제 페튜코비치가 걷어낼 수 있었다. "사건"은 갑자기 무슨 새로운 빛을 흠뻑 받았다. 무언가 호감 같은 것이 미탸에게 이롭게 지나갔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전하기로는, 그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진술하는 동안 한두 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걸상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갑자기 그 여자에게 두 팔을 뻗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외쳤다.

"카탸, 왜 나를 파멸시켰어!"

그리고 법정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흐느낄 뻔했다. 하기야 순식간에 마음을 다잡고는 다시 외쳤다.

"이제 나는 선고를 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이를 악물고 가슴 위에 두 팔을 열십자로 꽉 낀 채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법정에 남아 자기에게 지정된 의자에 앉았다. 그 여자는 창백했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 여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전하기로는, 그 여자는 학질에라도 걸린 듯 오래도록 온몸을 떨었다고 한다. 신문을 받으러 그루셴카가 나왔다.

나는 갑자기 터져 나와 정말로 어쩌면 미탸를 파멸시켰을지도 모르는 그 파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범죄자에게 정상 참작은 해 주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다른 모든 사람도, 모든 법률가들도 나중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곧 하겠다. 그 전에 그루셴카에 대해 두 마디만 하겠다.

그 여자도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어깨에는 그 아름다운 검은 숄을 두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살집 있는 여자들이 이따금 그렇게 걷듯이, 소리 없는 걸음으로 살짝 몸을 흔들며 미끄러지듯 그 여자는 난간으로 다가갔다. 그 여자는 재판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오른쪽도 왼쪽도 단 한 번 쳐다보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 순간 그 여자는 무척 아름다웠고, 나중에 부인들이 장담한 것처럼 창백하지도 전혀 않았다. 그 여자가 무언가 골똘하고 악의에 찬 얼굴이었다는 장담도 있었다. 나는 다만 그 여자가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추문에 굶주린 우리 방청객의 경멸 섞인 호기심 어린 눈길을 무겁게 느끼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 여자는 경멸을 견디지 못하는 오만한 성격이었고, 누군가에게서 경멸의 기색을 조금이라도 느끼기만 하면 곧바로 분노와 맞서 싸우고 싶은 갈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소심함도, 그리고 그 소심함에 대한 속마음의 부끄러움도 있었으니, 그 여자의 말이 고르지 않았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화를 내다가,

경멸하며 일부러 거칠게 굴다가, 갑자기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기 단죄와 자책의 가락이 울리기도 했다. 이따금 그 여자는 무슨 심연으로 날아드는 사람처럼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마찬가지야, 그래도 나는 말할 거야……"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알고 지낸 것에 대해서 그 여자는 날카롭게 한마디 했다. "다 하찮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들러붙은 게 내 잘못인가요?" 그러고는 1분 뒤에 덧붙였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늙은이도 이 사람도 비웃었고 두 사람을 다 그 지경까지 몰아갔어요. 모든 게 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어찌어찌하다가 삼소노프 이야기가 나왔다. "누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여자는 무슨 뻔뻔한 도전을 담아 곧바로 쏘아붙였다. "그분은 내 은인이에요. 친척들이 나를 오두막에서 내쫓았을 때 그분이 맨발인 나를 거두어 주셨어요." 하기야 재판장은 아주 정중하게, 쓸데없는 자세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질문에 곧바로 대답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그루셴카는 얼굴을 붉혔고 그 눈이 번득였다.

돈이 든 봉투는 본 적이 없고, 다만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3천 루블이 든 무슨 봉투가 있다는 이야기를 "악당"한테서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그건 다 어리석은 이야기였어요, 나는 웃어넘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방금 "악당"이라고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 하인 말이에요, 자기 주인을 죽이고 어제 목을 맨 스메르댜코프요."

물론 사람들은 곧바로 그 여자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고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 여자에게도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직접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믿으세요. 남의 사이를 갈라놓은 여자가 그 사람을 파멸시켰어요, 그래요, 모든 게 그 여자 하나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루셴카는 증오로 온몸을 부르르 떠는 듯 덧붙였고, 그 목소리에 악의에 찬 가락이 울렸다.

이번에는 또 누구를 암시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 아가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요. 그때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초콜릿을 대접하면서 나를 홀리려고 했어요. 그 여자한테는 참된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여기서 재판장이 이제 엄하게 그 여자를 제지하며 표현을 삼가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질투하는 여자의 마음은 이미 불타올라서, 그 여자는 심연으로라도 날아들 채비가 되어 있었다……

"모크로예 마을에서 체포될 때," 검사가 기억을 더듬으며 물었다. "증인이 다른 방에서 뛰어나와 '다 내 잘못이에요, 함께 징역살이를 가요!' 하고 외치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도 그 순간 이미 그가 아버지를 죽인 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 내가 무슨 느낌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루셴카가 대답했다. "그때 모두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외쳤고, 그래서 나는 내 잘못이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였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자 나는 곧바로 그 사람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언제나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질문이 페튜코비치에게 넘어갔다. 그는 무엇보다 라키틴에 대해, 그리고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를 데려온 대가로" 받은 25루블에 대해 물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 사람이 돈을 받은 게 뭐가 놀라워요." 그루셴카가 경멸 섞인 악의를 담아 빙긋 웃었다. "그 사람은 늘 나한테 돈을 졸라 대러 왔어요.

한 달에 30루블씩 뜯어 가곤 했는데, 대개는 군것질에 썼죠. 먹고 마실 것은 내 돈 없이도 있었으니까요."

"무슨 까닭으로 증인은 라키틴 씨에게 그토록 너그러웠습니까?" 재판장이 몹시 몸을 들썩이는데도 페튜코비치가 말을 받았다.

"그야 그 사람이 내 사촌 오빠니까요. 내 어머니와 그 사람 어머니가 친자매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늘 나한테 빌기만 했어요, 나를 엄청 부끄러워했거든요."

이 새로운 사실은 모두에게 완전히 뜻밖이었다. 지금까지 온 읍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수도원에서도 몰랐으며, 미탸조차 몰랐다. 라키틴은 자기 의자에서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시뻘게졌다고 한다. 그루셴카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떻게인지 그가 미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 화가 나 있었다. 라키틴 씨가 아까 한 연설 전체, 그 모든 고결함, 농노제와 러시아의 사회적 무질서를 향한 그 모든 공격, 이 모든 것이 이번에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없어져 버렸다. 페튜코비치는 흡족했다. 또다시 하늘에서 복이 굴러떨어진 셈이었다. 대체로 그루셴카는 그리 오래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물론 그 여자도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알려 줄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방청객에게 몹시 불쾌한 인상을 남겼다. 진술을 마치고 그 여자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 꽤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자 수백 개의 경멸 어린 눈길이 그 여자에게 쏠렸다. 그 여자가 신문을 받는 내내 미탸는 돌이 된 듯 땅으로 눈을 내리깐 채 잠자코 있었다.

증인으로 이반 표도로비치가 나왔다.

제5장 갑작스러운 파국

짚어 두자면, 그는 알료샤보다도 먼저 소환되었다. 그러나 그때 법정 정리가 재판장에게, 증인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인지 무슨 발작 때문인지 지금은 나올 수 없지만 몸이 나아지기만 하면 언제든 원하는 때에 진술할 채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하기야 이 말은 어쩐지 아무도 듣지 못했고, 나중에야 알려졌다. 그가 나타났을 때 처음 순간에는 거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주요 증인들, 특히 두 연적은 이미 신문을 마쳤고 호기심은 당분간 채워진 뒤였기 때문이다. 방청객 사이에는 피로감마저 느껴졌다. 아직 증인 몇 사람의 말을 더 들어야 했는데, 이미 나온 모든 이야기로 보아 그들은 아마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알려 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고개까지 숙인 채, 마치 무언가를 얼굴을 찌푸리고 궁리하는 듯 어쩐지 놀라울 만큼 느릿느릿 다가왔다. 그는 나무랄 데 없이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은 적어도 나에게는 병적인 인상을 주었으니, 그 얼굴에는 무언가 흙빛이 스민 것 같은 데가, 죽어 가는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눈은 흐릿했는데, 그는 그 눈을 들어 천천히 법정 안을 둘러보았다. 알료샤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며 "아!" 하고 신음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도 알아챈 사람은 별로 없었다.

재판장은 그가 선서 없이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 그는 진술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지만, 물론 진술하는 것은 모두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 따위로 말을 시작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천천히 미소로 벌어지기 시작했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재판장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또 뭡니까?"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법정 안이 온통 조용해졌고,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재판장이 불안해졌다.

"증인은…… 혹시 아직 몸이 그리 좋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는 눈으로 법정 정리를 찾으며 말을 꺼내려 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하, 저는 충분히 건강하고, 각하께 무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아주 차분하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무슨 특별한 진술을 내놓으실 것이 있습니까?" 재판장은 여전히 미심쩍은 듯 말을 이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고개를 숙이고 몇 초 머뭇거리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더듬듯 대답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쩐지 영 마지못해, 어쩐지 일부러 짧게, 점점 더 커져 가는 무슨 혐오까지 품고 대답했지만, 그래도 대답은 조리 있게 했다. 많은 질문에는 모른다고 피해 갔다. 아버지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위협은 피고에게서 들었다. 봉투에 든 돈에 대해서는 스메르댜코프에게서 들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갑자기 지친 얼굴로 말을 끊었다. "저는 법정에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증인이 몸이 좋지 않으신 것을 알겠고, 증인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재판장이 말을 꺼내려 했다.

그가 양쪽, 곧 검사와 변호인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면 질문을 하라고 권하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반 표도로비치가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청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각하, 몸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갑자기 혼자 돌아서서 법정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네 걸음쯤 가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한 듯 멈춰 서서 조용히 빙긋 웃더니 다시 아까 그 자리로 돌아왔다.

"각하, 저는 그 시골 처녀 같습니다…… 아시지요, 그거. '뛰고 짚으믄 뛰고, 안 뛰고 짚으믄 안 뛸 거여.' 사람들이 사라판인지 치마인지를 들고 그 처녀를 쫓아다닙니다. 그 처녀가 뛰어오르면 옷을 입혀 묶어서 혼례를 올리러 데려가려고요. 그런데 그 처녀는 이럽니다. '뛰고 짚으믄 뛰고, 안 뛰고 짚으믄 안 뛸 거여……' 이건 우리 무슨 민속에 있는 겁니다……"

"그 말로 무엇을 말하려는 겁니까?" 재판장이 엄하게 물었다.

"자, 이겁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지폐 한 뭉치를 꺼냈다. "여기 돈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저 봉투에 들어 있던 그 돈입니다." 그는 증거물이 놓인 탁자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이 돈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법정 정리 양반, 전해 주시오."

법정 정리가 뭉치를 통째로 받아 재판장에게 건넸다.

"어떻게 이 돈이 증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그 돈이라면?" 재판장이 놀라서 말했다.

"스메르댜코프한테서, 살인자한테서 어제 받았습니다. 그가 목을 매기 전에 그를 찾아갔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그 녀석이지 형이

아닙니다. 그 녀석이 죽였고, 그 녀석에게 죽이라고 가르친 건 저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은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재판장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정신이라는 게…… 그것도 비열한 정신이지요, 각하나 여기 있는 이 모든…… 낯짝들처럼요!" 그가 갑자기 방청석을 돌아보았다. "아버지를 죽여 놓고는 깜짝 놀란 척들 하는군." 그가 사나운 경멸을 담아 이를 갈았다. "서로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시늉들을 하지. 거짓말쟁이들! 모두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 독사 한 마리가 다른 독사를 잡아먹는 거야…… 아버지 살해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나서 심통 난 채로 흩어져 갔을걸…… 구경거리! '빵과 구경거리를!' 하기야 나도 잘난 놈은 아니지! 여기 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것 좀 주십시오, 제발!" 그가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법정 정리가 곧바로 그에게 다가갔다. 알료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형은 아파요, 형 말을 믿지 마세요, 형은 섬망에 빠져 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의자에서 재빨리 일어나 공포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이반 표도로비치를 바라보았다. 미탸는 몸을 일으키고 무슨 사납게 일그러진 미소를 띤 채 탐욕스럽게 형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다.

"진정하십시오,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이반이 다시 말을 꺼냈다. "살인자한테 웅변을 바랄 수야 없지요……" 그는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덧붙이고는 일그러지게 웃었다.

검사는 눈에 띄게 당황하여 재판장에게 몸을 숙였다. 판사들은 허둥대며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페튜코비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였다. 법정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재판장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했다.

"증인, 증인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고 이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진정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정말로 할 말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자백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증인이 없다는 게. 개 같은 스메르댜코프는 저세상에서 진술서를 보내 주지 않을 겁니다…… 봉투에 넣어서요. 각하께서는 줄곧 봉투만 찾으시는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한테는 증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말고는요."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빙긋 웃었다.

"증인의 증인이 누굽니까?"

"꼬리가 달렸습니다, 각하, 형식에 맞지 않을 겁니다! 악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찮고 시시한 악마니까요." 그는 갑자기 웃음을 그치고 무슨 비밀이라도 털어놓듯 덧붙였다. "그놈은 틀림없이 여기 어딘가에, 바로 저 증거물 탁자 밑에 있을 겁니다. 그놈이 거기 말고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놈한테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놈은 지질학적 격변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리석은 소리! 자, 그 악당을 풀어 주십시오…… 그놈은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건 그놈이 마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건달이 '반카는 피테르로 떠났네' 하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나는 2초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1천조의 1천조라도 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모릅니다! 오, 여러분의 이 모든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 그놈 대신 나를 잡아가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엔가 왔을 것 아닙니까…… 왜, 왜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법정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알료샤가 제자리에서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법정 정리가 벌써 이반 표도로비치의 팔을 붙잡았다.

"이건 또 무슨 짓이야?" 이반 표도로비치는 정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소리치더니, 갑자기 그의 두 어깨를 움켜잡고 사납게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러나 경비들이 이미 달려와 그를 붙잡았고, 그러자 그는 미친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끌려 나가는 내내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외쳐 댔다.

소동이 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 자신도 마음이 들떠서 다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나중에 모든 것이 가라앉고 모두가 무슨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법정 정리가 결국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뿐이다. 그는 증인이 내내 건강했고, 한 시간 전에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을 때 의사가 그를 살펴보았지만 법정에 들어오기 전까지 줄곧 조리 있게 말했으므로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었고, 오히려 증인 자신이 우겨서 꼭 진술하고 싶어 했다고 윗사람들에게 근거를 들어 설명했는데도 그랬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 장면에 곧바로 뒤이어 또 다른 장면이 터졌으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그 여자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흐느꼈지만 나가려 하지 않았고, 몸부림치며 자기를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다가 갑자기 재판장에게 외쳤다.

"진술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여기 종이가, 편지가 있어요…… 받으세요, 어서 읽어 보세요, 어서요! 이건 이 악당의 편지예요,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의!" 그 여자는 미탸를 가리켰다. "아버지를 죽인 건 이 사람이에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지 나한테 써 보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파요, 아파요, 저 사람은 섬망에 빠져 있어요! 나는 사흘째 저 사람이 열에 들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여자는 넋이 나간 채 이렇게 외쳐 댔다. 법정 정리가 그 여자가 재판장에게 내민 종이를 받았고, 그 여자는 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가린 채 경련하듯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법정에서 내보내질까 두려워 아주 작은 신음조차 억누르며 온몸을 떨었다. 그 여자가 낸 종이는 이반 표도로비치가 "수학적" 중요성을 지닌 문서라고 불렀던, 바로 "수도"라는 선술집에서 쓴 미탸의 그 편지였다. 아아! 바로 그 편지에 그 수학적 성격이 인정되었으니, 이 편지가 없었다면 어쩌면 미탸는 파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그토록 끔찍하게 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다 지켜보기는 어려웠다. 지금도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런 소동 속에 떠오른다. 아마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새 문서를 재판부와 검사와 변호인과 배심원들에게 알렸을 것이다. 나는 다만 사람들이 여자 증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만 기억한다. 진정이 되었느냐고 재판장이 부드럽게 묻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재빨리 외쳤다.

"됐어요, 됐어요! 나는 완전히 대답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 여자는 무슨 까닭으로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 주지 않을까 봐 여전히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한 얼굴로 덧붙였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그것이 무슨 편지이며 어떤 사정에서 그것을 받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청했다.

"나는 범죄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보다 하루 전에 선술집에서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이틀 전에요. 보세요, 무슨 계산서 위에 썼잖아요!" 그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 사람은 그때 나를 미워했어요. 자기가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그 계집을 따라갔기 때문이고…… 또 나한테 그 3천 루블을 빚졌기 때문이에요…… 오, 그 사람은 자기 비열함 때문에 그 3천 루블이 분했던 거예요! 그 3천 루블은 이렇게 된 거예요, 부탁이에요, 제발 내 말을 들어 주세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죽이기 3주 전 아침에 나를 찾아왔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에 필요한지도, 바로, 바로 그 계집을 꾀어서 데리고 달아나는 데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이미 나를 배신했고 나를 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내가 직접 그때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내밀었고, 모스크바에 있는 내 언니한테 부치라는 핑계로 내가 직접 내놓았고, 건네주면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며 원할 때 부쳐도 된다고, "한 달 뒤에라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이 몰랐겠어요, 내가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걸요. '너는 그 계집과 나를 배신하려고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 여기 이 돈을 받아, 내가 직접 너한테 주는 거야, 받을 만큼 염치가 없다면 받아!……' 나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 사람은 받았어요, 그 돈을 받았어요,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만에 그 계집과 함께 다 써 버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알았어요,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걸 알았어요, 장담하지만 그 사람은 그때 내가 돈을 건네주면서 그저 그 사람을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나한테서 돈을 받을 만큼 염치가 없는지 없지 않은지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는 그 사람 눈을 보았고, 그 사람도 내 눈을 보며 모든 걸 알았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그러고도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 돈을 가져갔어요!"

"맞아, 카탸!" 미탸가 갑자기 울부짖었다. "눈을 보면서, 네가 나를 욕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네 돈을 받았어! 비열한 놈을 경멸하십시오, 모두 경멸하십시오, 그래도 쌉니다!"

"피고." 재판장이 소리쳤다. "한마디만 더 하면 끌어내라고 명하겠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을 괴롭혔어요." 카탸가 경련하듯 서두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그 돈을 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계집 때문에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래도 나한테 돈은 돌려주지 않고 그 계집과 함께, 그 사람이 붙잡힌 그 마을로 떠났어요. 거기서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인 아버지한테서 훔친 그 돈을 다시 흥청망청 써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하루 전에 나한테 이 편지를 썼어요, 취해서 썼어요, 나는 그때 곧바로 알았어요, 앙심을 품고 썼고, 설령 자기가 죽인다 해도 내가 이 편지를 아무한테도 보여 주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틀림없이 알고 썼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읽어 보세요, 주의 깊게 읽어 보세요, 제발 더 주의 깊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편지에 모든 걸, 모든 걸 미리,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지, 아버지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 놓았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보세요, 제발 빠뜨리지 마세요, 거기 이런 문장이 한 줄 있어요. '이반만 떠나면 죽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일지 미리 생각해 둔 거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고소한 듯 심술궂게 재판부에 일러 주었다. 오, 그 여자가 이 운명의 편지를 세세한 데까지 읽고 또 읽어서 그 안의 획 하나하나까지 연구해 두었다는 것이 보였다.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걸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거기에는 모든 게 미리 적혀 있어요, 모든 게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인 그대로 꼭 맞게요, 계획 전체가요!"

그 여자는 넋이 나간 채 이렇게 외쳤고, 물론 자기에게 닥칠 모든 결과를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하기야 그 결과는 어쩌면 이미 한 달

전부터 내다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분노로 몸을 떨며 "이걸 법정에서 읽게 할까?" 하고 공상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는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지듯 날아들었다. 아마 바로 이때 서기가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던 것 같고, 그 편지는 사람들을 뒤흔드는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미탸에게 "이 편지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미탸가 외쳤다. "취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로 서로 미워했어, 카탸, 하지만 맹세해, 맹세해, 나는 너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는 절망하여 두 손을 비틀며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검사와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아까는 그런 문서를 감추고 전혀 다른 정신과 어조로 진술했느냐"는 뜻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나는 아까 거짓말을 했어요, 명예와 양심을 거슬러 모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까 그 사람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경멸했으니까요." 카탸가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오, 그 사람은 나를 끔찍하게 경멸했어요, 늘 경멸했어요, 그리고 아세요, 아세요, 그 사람은 내가 그때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발치에 엎드려 절한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를 경멸했어요. 나는 그걸 보았어요…… 나는 그때 곧바로 그걸 느꼈지만, 오랫동안 나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 눈에서 나는 몇 번이나 이런 말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때 네가 제 발로 나한테 찾아왔잖아.' 오, 그 사람은 몰랐어요, 내가 그때 왜 달려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비열함밖에는 의심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 잣대로 쟀어요, 모두가 자기 같은 줄 알았어요." 카탸는 이미 완전히 미친 듯이 사납게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한 것은 오로지

내가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그 때문에요! 나는 늘 그 때문일 거라고 의심했어요! 오,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그때 찾아갔던 일이 부끄러워서 평생 자기 앞에서 떨 것이고, 그 일로 자기는 영원히 나를 경멸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위에 설 수 있다고 평생 믿었고, 그래서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요, 다 그래요! 나는 내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겨 보려고 했고, 그 사람의 배신까지 참아 내려 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알 수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악당이에요! 나는 이 편지를 다음 날 저녁에야 받았어요, 선술집에서 가져다주었는데, 그날 아침만 해도, 그날 아침만 해도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모든 걸, 그 배신까지도 용서하려 했어요!"

물론 재판장과 검사가 그 여자를 진정시켰다. 그들 모두 그 여자의 광란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런 고백을 듣고 있는 것이 어쩌면 스스로도 부끄러웠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얼마나 괴로우신지 압니다, 믿어 주십시오, 우리도 느낄 줄 압니다" 따위의 말을 하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그들은 히스테리에 빠져 넋이 나간 여자에게서 진술을 짜내고야 말았다. 마침내 그 여자는, 그토록 긴장된 상태의 순간에도 자주, 비록 한순간이나마 번득이는 예사롭지 않은 명료함으로, 이반 표도로비치가 이 두 달 내내 자기 형 "악당이자 살인자"를 구하려고 얼마나 거의 미쳐 가고 있었는지를 묘사했다.

"그이는 자기 자신을 괴롭혔어요." 그 여자가 외쳤다. "그이는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어쩌면 자기도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는지 모른다고 나한테 털어놓으면서, 줄곧 형의 죄를 덜어 주고 싶어 했어요. 오, 그건 깊은, 깊은 양심이에요! 그이는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혀 녹초가 됐어요! 그이는 나한테 모든 걸,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날마다

나를 찾아와 하나뿐인 친구에게 하듯 나와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이의 하나뿐인 친구라는 영광을 지니고 있어요!" 그 여자는 마치 무슨 도전이라도 하듯 갑자기 눈을 번득이며 외쳤다. "그이는 스메르댜코프를 두 번 찾아갔어요. 한번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이 아니라 스메르댜코프가 죽였다면(여기서는 모두가 스메르댜코프가 죽였다는 우스운 이야기를 퍼뜨렸으니까요) 어쩌면 자기도 죄가 있을 거라고, 스메르댜코프는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어쩌면 자기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때 나는 이 편지를 꺼내서 그이한테 보여 주었고, 그이는 형이 죽였다고 완전히 믿게 되었고, 그게 그이를 완전히 쓰러뜨렸어요. 그이는 자기 친형이 아버지를 죽인 자라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벌써 일주일 전에 나는 그이가 그 일로 병이 난 걸 보았어요. 요 며칠 동안 그이는 내 집에 앉아서 헛소리를 했어요. 나는 그이가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이는 돌아다니며 헛소리를 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런 그이를 보았어요. 다른 곳에서 온 의사가 내 부탁으로 그저께 그이를 진찰하고는 그이가 섬망 직전이라고 나한테 말했어요,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이에요, 모든 게 그 악당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이는 스메르댜코프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그이를 너무나 뒤흔들어서 그이는 미쳐 버렸어요…… 모든 게 그 악당 때문이에요, 모든 게 그 악당을 구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이를테면 죽기 직전의 순간에, 처형대에 오르면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카탸는 바로 제 성격 그대로였고 제 순간 속에 있었다. 그것은 그때 아버지를 구하려고 젊은 난봉꾼에게 달려갔던 바로 그 격렬한 카탸였고, 아까 이 모든 방청객 앞에서, 다가오는 그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고 "미탸의 고결한 행동"을 이야기하며

오만하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과 처녀의 수치심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카탸였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똑같이 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고, 어쩌면 이제야, 오직 이 순간에야 비로소 그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으로 온전히 느끼고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그 여자는 그가 자기 진술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형이 아니라 그가 죽였다고 갑자기 상상하고서 그를 걱정하며 놀라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그를, 그의 명예를, 그의 평판을 구하려고 희생했다! 그런데 무서운 의문이 스쳐 갔으니, 그 여자가 예전에 미탸와 자기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면서 미탸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가, 그것이 문제다. 아니, 아니다, 미탸가 땅에 엎드려 한 절 때문에 자기를 경멸했다고 외치면서 그 여자는 일부러 중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여자 자신이 그것을 믿었고, 어쩌면 바로 그 절을 한 때부터, 그때 이미 자기를 숭배하던 순박한 미탸가 자기를 비웃고 경멸한다고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직 오만 때문에 그 여자는 그때 히스테리에 찬, 파열된 사랑으로 그에게 매달렸고, 상처 입은 오만 때문에 그랬으니,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와 닮아 있었다. 오, 어쩌면 이 파열된 사랑도 참된 사랑으로 바뀌었을지 모르고, 어쩌면 카탸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미탸는 배신으로 그 여자의 영혼 밑바닥까지 모욕했고, 그 영혼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데 복수의 순간이 뜻밖에 날아들었고, 모욕당한 여자의 가슴에 그토록 오래, 그토록 아프게 쌓여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리고 역시 뜻밖에 겉으로 터져 나왔다. 그 여자는 미탸를 배반했지만 자기 자신도 배반했다! 그리고 물론 말을 다 쏟아 내자마자 긴장이 끊어졌고 수치심이 그 여자를 짓눌렀다. 다시 히스테리가 시작되었고, 그 여자는 흐느끼고 소리치며 쓰러졌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들어 날랐다. 그 여자가 들려 나가는 순간 그루셴카가

울부짖으며 제자리에서 미탸에게로 달려들어서 미처 붙잡을 틈도 없었다.

"미탸!" 그 여자가 울부짖었다. "네 독사가 너를 파멸시켰어! 저것 봐요, 저 여자가 여러분한테 제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 여자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재판부를 향해 외쳤다. 재판장의 손짓에 따라 사람들이 그 여자를 붙잡아 법정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미탸에게로 되돌아가려고 버둥거렸다. 미탸가 울부짖으며 그 여자에게로 달려들려 했다. 사람들이 그를 제압했다.

그렇다, 우리 구경꾼 부인들은 흡족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구경거리가 푸짐했으니까. 그다음, 모스크바에서 온 의사가 나타났던 것이 기억난다. 재판장이 그 전에 벌써 정리를 보내어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조치했던 것 같다. 의사는 환자가 몹시 위험한 섬망 발작 상태에 있으니 곧바로 데려가야 한다고 재판부에 보고했다.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환자가 그저께 스스로 자기를 찾아왔고, 그때 자기가 곧 섬망이 닥치리라고 그에게 예고했지만 환자가 치료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확실히 건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시에 환영을 보고, 이미 죽은 여러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며, 밤마다 사탄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나에게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진술을 마치고 이름난 의사는 물러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내놓은 편지는 증거물에 덧붙여졌다. 재판부는 협의한 끝에 사실 심리를 계속하고, 뜻밖의 두 진술(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이반 표도로비치의 진술)은 조서에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뒤의 사실 심리는 더는 묘사하지 않겠다. 게다가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은 저마다 특징은 있었지만 앞선 진술을 되풀이하고 확인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검사의

연설에서 한 점으로 모일 것이니, 이제 곧 그 연설로 넘어가겠다. 모두가 흥분해 있었고, 마지막 파국으로 모두가 전기에 감전된 듯했으며, 모두가 오로지 어서 결말이, 양쪽의 연설과 판결이 나기를 타는 듯한 조바심으로 기다렸다. 페튜코비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진술로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그 대신 검사는 개가를 올렸다. 사실 심리가 끝나자 휴정이 선언되었고, 휴정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재판장이 변론을 개시했다. 우리 검사 이폴리트 키릴로비치가 논고를 시작한 것은 아마 저녁 여덟 시 정각이었던 것 같다.

제6장 검사의 논고. 인물 묘사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신경성 떨림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마와 관자놀이에 식은땀을 병적으로 흘리며, 온몸에 오한과 열이 번갈아 드는 것을 느끼며 논고를 시작했다. 나중에 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이 연설을 자기의 걸작(chef-d'œuvre), 자기 평생의 걸작, 자기의 백조의 노래로 여겼다. 사실 그는 아홉 달 뒤에 악성 폐병으로 죽었으니, 알고 보면 자기 최후를 미리 느꼈다면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백조에 자기를 견줄 권리가 정말로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연설에 자기 온 마음과 자기가 지닌 모든 지혜를 쏟아부었고, 적어도 우리 불쌍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가 제 안에 담을 수 있었던 만큼은 그에게도 시민적 감정과 "저주받은" 문제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뜻밖에 증명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말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진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피고의 유죄를 진심으로 믿었다. 남의 주문을 받아서나 직무상으로만 그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부르짖으며 정말로 "사회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몸을 떨었다. 결국 이폴리트 키릴로비치에게 적대적이었던 우리 부인 방청객들조차 그래도 엄청난 인상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갈라지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목소리가 단단해져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연설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어졌다. 그러나 연설을 마치자마자 그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배심원 여러분." 고발자가 말을 꺼냈다. "이번 사건은 온 러시아에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랄 것이 무엇이며, 특별히 그토록 경악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특히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그토록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음울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의 끔찍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악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 우리의 습관이지, 이런저런 개인의 단 한 번의 악행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 우리에게 부럽지 않은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 우리가 이토록 무관심하고 겨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냉소에 있습니까, 아직 그토록 젊으면서도 그토록 때 이르게 노쇠해 버린 우리 사회의 지혜와 상상력이 일찍 고갈된 데 있습니까? 뿌리째 흔들려 버린 우리의 도덕적 원칙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도덕적 원칙이 아예 없다는 데 있습니까? 저는 이 물음들에 답을 내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물음들은 괴롭고, 모든 시민은 이 물음들로 괴로워해야 마땅할 뿐 아니라 괴로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아직 소심한 우리 언론이 그래도 사회에 얼마간 공헌을 했습니다. 언론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삐 풀린 의지와 도덕적 타락의 그 공포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빠짐없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론은 이 공포들을, 지금 폐하의 치세에 우리에게 하사된 새 공개 법정의 법정을 찾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지면에 실어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날마다 무엇을 읽습니까? 오, 지금 이 사건조차 빛이 바래고 거의 이미 무슨 평범한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시시각각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러시아의, 우리 민족의 숱한 형사 사건들이 바로 무언가 보편적인 것을, 우리 안에 뿌리내려서 보편적인 악처럼 이제는 맞서 싸우기도 어려운

어떤 공통의 재앙을 증언한다는 점입니다. 저기서는 이제 막 삶과 경력을 시작하는 상류 사회의 젊고 눈부신 장교가 비열하게, 남몰래,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어느 정도 자기 은인이기도 했던 하급 관리와 그 하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자기 차용 증서를 훔치고 그와 함께 관리의 나머지 돈푼도 훔치려는 것이지요. '상류 사회에서 누릴 내 즐거움과 앞날의 내 출세에 쓸모가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을 다 찔러 죽인 뒤 그는 두 시체의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 놓고 떠납니다. 또 저기서는 용맹을 떨쳐 훈장을 주렁주렁 단 젊은 영웅이 큰길에서 자기 상관이자 은인의 어머니를 강도처럼 죽이고, 동료들을 꾀면서 '그 여자는 나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니까 내 말을 다 따를 것이고 조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자를 악당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저는 그자가 단 하나뿐인 악당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자와 꼭 같이 생각하고 느끼며, 영혼 속으로는 그자와 꼭 같이 명예를 모릅니다. 남몰래, 자기 양심과 단둘이 있을 때 어쩌면 스스로에게 묻겠지요. '명예란 대체 무엇이냐, 피란 편견이 아니냐?' 어쩌면 사람들이 저에게 맞서 소리치며, 저는 병적이고 히스테릭한 사람이라서 괴물같이 중상하고, 헛소리를 하고, 과장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맙소사, 그렇다면 누구보다 제가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를 병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제 말만은 기억해 두십시오. 제 말의 10분의 1이라도, 20분의 1이라도 사실이라면 그때도 이건 끔찍한 일이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고장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권총으로 자살하는지를. 오, '*저기서*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햄릿의 물음은 조금도 없이, 그런 물음의 기색조차 없이 자살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에 대한, 무덤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것에 대한 이 조항이 그들의 천성에서 오래전에 지워져 묻혀

버리고 모래로 덮여 버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탕을, 우리의 호색한들을 보십시오. 이번 재판의 불행한 희생자인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 앞에서는 거의 죄 없는 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를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범죄의 심리학은 어쩌면 언젠가 우리와 유럽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연구는 언젠가 나중에, 이미 여유를 두고,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비극적인 뒤죽박죽 전체가 좀 더 먼 배경으로 물러났을 때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공정하게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악하거나 경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냉소적이고 게으른 무위를 들쑤셔 주는 강하고 기이한 감각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그 구경거리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결국 어린아이들처럼, 무서운 유령들을 손으로 휘저어 쫓고, 무서운 환영이 지나갈 때까지 베개에 머리를 파묻었다가, 그다음 곧바로 흥겨운 놀이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삶을 시작해야 하고, 우리도 사회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도 우리 사회의 일에서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깨닫거나, 하다못해 깨닫는 일을 시작이라도 해야 합니다. 앞 시대의 위대한 작가는 자기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의 끝에서 온 러시아를 알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날랜 러시아 트로이카로 형상화하며 외칩니다. '아, 트로이카, 새 같은 트로이카, 누가 너를 생각해 냈느냐!' 그리고 오만한 환희에 차서, 정신없이 질주하는 트로이카 앞에서 모든 민족이 공손하게 길을 비킨다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키라고 하십시오, 비키라고 하십시오, 공손하게든 아니든. 그러나 제 죄 많은 눈으로 보기에 그 천재 예술가가

그렇게 끝맺은 것은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아름다운 생각에 사로잡힌 발작 때문이었거나, 그저 그 시절의 검열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의 트로이카에 그 자신의 주인공들, 곧 소바케비치들과 노즈드료프들과 치치코프들만 매어 놓는다면, 누구를 마부로 앉히든 그런 말들로는 어디에도 쓸 만한 곳에 닿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건 아직 예전 말들일 뿐이고, 지금의 말들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더 대단한 말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의 연설은 박수 소리로 끊겼다. 러시아 트로이카를 그린 자유주의가 마음에 든 것이다. 사실 박수는 두세 번 터졌을 뿐이라서, 재판장은 "법정을 비우겠다"고 방청객에게 위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고, 다만 박수 친 사람들 쪽을 엄하게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기운이 났다. 지금까지 그에게 박수를 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온 러시아를 향해 말할 기회가 온 것이다!

"사실," 그는 말을 이었다. "갑자기 온 러시아에까지 이토록 슬픈 이름을 떨치게 된 이 카라마조프 집안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 제가 너무 과장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집안의 그림에는 우리 현대 지식인 사회의 어떤 공통되고 근본적인 요소들이 언뜻언뜻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오, 모든 요소가 비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작은 물방울 속의 태양처럼' 아주 작은 모습으로 언뜻 비쳤을 뿐이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비쳤고, 그래도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이 불행하고, 고삐 풀리고, 방탕한 노인을, 이토록 슬프게 제 생을 마친 이 '가장'을 보십시오. 가엾은 식객으로 출발했다가 우연하고 뜻밖의 결혼으로 지참금 삼아 작은 밑천을 움켜쥔 대대로 내려온 귀족, 처음에는 하찮은 사기꾼이자 아첨하는 어릿광대였고, 하기야 꽤 약하지 않은 지적 능력의

싹을 지녔으며, 무엇보다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세월과 함께, 그러니까 작은 밑천이 불어나면서 그는 기운이 납니다. 비굴함과 알랑거림은 사라지고, 비웃기 좋아하고 심술궂은 냉소가이자 호색한만 남습니다. 정신적인 면은 송두리째 지워져 버렸지만 삶에 대한 갈망은 엄청납니다. 결국 그는 삶에서 호색의 쾌락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져야 할 정신적인 의무 따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웃고, 어린 자식들을 뒷마당에서 키우며, 남이 그 아이들을 데려가면 기뻐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노인의 도덕 원칙이라고는 모두 '내가 죽은 뒤에야 홍수가 나든 말든(après moi le déluge)'뿐입니다. 시민이라는 개념과 정반대되는 모든 것, 사회로부터 완전히, 아니 적대적으로까지 따로 떨어짐. '온 세상이 불에 타든 말든 나 하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는 좋습니다, 그는 완전히 만족하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친아들을 속여 셈을 하고, 그 아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그 아들의 돈으로, 그 어머니의 유산으로, 바로 자기 아들한테서 정부를 빼앗습니다. 아니, 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오신 재능 넘치는 변호인에게 피고의 변호를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진실을 말하겠고, 그가 아들의 가슴에 쌓아 놓은 그 분노의 총계를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이만하면 이 불행한 노인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그는 자기 응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였다는 것, 그것도 현대의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기억해 둡시다. 그가 현대의 숱한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라고까지 말한다면 제가 사회를 모욕하는 것일까요? 아아, 현대의 그토록 많은 아버지들이 다만 이 사람만큼 냉소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교양을 쌓았으니까요. 그러나 본질에서는 그와 거의 똑같은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관론자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기로 우리는 이미 약속했습니다. 미리 약속해 둡시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저는 말할 테니 여러분은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제가 다 말하게 해 주시고, 그래도 제 말 가운데 무언가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노인, 이 가장의 자식들 말입니다. 하나는 우리 앞의 피고석에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설 전체가 다룰 것이고,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스치듯 말하겠습니다. 그 다른 아들들 가운데 맏이는 눈부신 교육을 받고 꽤 강한 지혜를 지닌 현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로, 그러면서도 이미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삶에서 많은 것을,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부정하고 지워 버렸으니, 꼭 자기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말을 들었고, 그는 우리 사교계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그에 대해 좀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저에게 줍니다. 물론 사사로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카라마조프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어제 여기 읍 변두리에서 이번 사건에 깊이 얽힌 병든 백치 하나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예전 하인이자 어쩌면 사생아였을지도 모르는 스메르댜코프가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는 예심에서 히스테릭한 눈물을 흘리며, 이 젊은 카라마조프, 곧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 정신의 거침없음으로 자기를 얼마나 질겁하게 했는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 생각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든 것이 허용되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친 게 바로 그겁니다요.' 그 백치는 자기가 배운 바로 이 명제 때문에 완전히 미쳐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정신 착란에는 간질과, 그들 집안에서 터진 이 끔찍한 파국 전체도 영향을 끼쳤겠지만요. 그러나 이 백치의 입에서 아주아주 흥미로운 말이 하나 흘러나왔는데, 그보다 더

똑똑한 관찰자에게도 영예가 되었을 만한 말이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들들 가운데 성격이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있다면 그건 그분, 이반 표도로비치입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이제 막 시작한 인물 묘사를 그칩니다. 더 이어 가는 것은 섬세하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 저는 더 나아간 결론을 끌어내고 싶지 않고, 까마귀처럼 젊은 운명에게 파멸만을 까악까악 울어 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 이 법정에서 우리는 진실의 직접적인 힘이 아직 그의 젊은 가슴에 살아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상의 괴로움보다는 오히려 물려받아서 얻은 불신과 도덕적 냉소가 그의 안에서 아직 가족에 대한 정을 짓눌러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또 한 아들은, 오, 아직 젊은이로, 경건하고 겸손하며, 자기 형의 음울하고 사람을 썩게 만드는 세계관과는 반대로, 이를테면 '민중의 원칙'에, 또는 우리 사유하는 지식인 사회의 어떤 이론적인 구석에서 이 어려운 말로 부르는 것에 달라붙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수도원에 달라붙었고, 하마터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수도사가 될 뻔했습니다. 그에게서는, 제가 보기에, 마치 무의식적으로, 그토록 일찍, 그 소심한 절망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엾은 사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냉소와 방탕을 두려워하고 모든 악을 잘못 유럽의 계몽 탓으로 돌리면서, 그들 말마따나 '고향 땅'으로, 이를테면 고향 땅의 어머니 품으로 뛰어드는 그 절망 말입니다. 유령에 놀란 아이들처럼 그들은, 그 무서운 공포를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력을 잃은 어머니의 말라 버린 젖가슴에 안겨 그저 편히 잠들기라도, 아니 평생을 잠으로 보내기라도 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로서는 그 착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고, 그의 젊은 아름다운 마음과 민중의 원칙을 향한 지향이 나중에, 그토록 자주 그렇게 되듯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음울한 신비주의로,

시민적인 측면에서는 우둔한 쇼비니즘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성질은 어쩌면 그의 형이 앓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거저 얻은 유럽 계몽에서 오는 이른 타락보다도 민족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쇼비니즘과 신비주의 대목에서 다시 박수가 두세 번 터질 뻔했다. 그리고 물론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열중해 버렸고, 이 모든 것이 이번 사건에 별로 맞지도 않았으며, 꽤 모호하게 되어 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폐병을 앓으며 원한에 찬 이 사람은 평생 한 번이라도 속엣말을 다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다. 나중에 우리 고장에서는, 이반 표도로비치를 묘사할 때 그가 섬세하지 못한 감정에까지 이끌렸다는 말이 돌았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한두 번 사람들 앞에서 논쟁 중에 그를 무안하게 한 적이 있어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가 그 일을 기억하고 이제 복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지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서론일 뿐이었고, 그다음부터 연설은 더 곧게, 사건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

"그런데 현대 가정의 아버지의 셋째 아들이,"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말을 이었다. "피고석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의 공적도, 그의 삶과 그의 행적도 있습니다. 때가 왔고, 모든 것이 펼쳐졌으며,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의 '유럽주의'와 '민중의 원칙'과는 반대로, 그는 직접적인 러시아를 몸소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오, 러시아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러시아 전체라면 하느님 맙소사!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 그 여자가, 우리 러시아 아씨가 있고, 그 여자의 냄새가 나고, 그 어머니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 우리는 직접적이고, 우리는 선과 악이 더없이 놀랍게 뒤섞인 존재이며, 우리는 계몽과 실러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선술집마다 행패를 부리며 술친구인 주정뱅이들의 턱수염을 뽑아 버립니다. 오, 우리도 훌륭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좋고 아름다울 때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고결한 이상들에 휩싸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휩싸입니다. 다만 그 이상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우리 식탁 위로 떨어지고, 무엇보다 거저, 거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얻어진다는 조건에서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기는 끔찍하게 싫어하지만 받기는 무척 좋아하고, 그것도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오, 우리에게 삶의 온갖 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바로 온갖 복입니다, 그보다 싸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미를 어떤 일에서도 가로막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훌륭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아니고말고요, 그러나 그래도 돈을 주십시오, 더, 더,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너그럽게, 비천한 금속을 얼마나 경멸하며, 거침없는 술잔치로 하룻밤 사이에 그 돈을 다 뿌려 버리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몹시 원할 때 그 돈을 어떻게 손에 넣을 줄 아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순서대로 따라가 봅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앞에는 가엾게 버려진 소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의 존경하는 존귀한 동료 시민께서, 아아, 외국 출신이신 그분께서 표현하신 대로 '장화도 신지 않고 뒷마당에 있던' 소년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피고의 변호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발자이고, 저는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인간이며, 어린 시절의 첫 인상과 정든 보금자리가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젊은이가, 장교가 되어, 행패를 부리고 결투를 신청한 일로 우리 축복받은 러시아의 먼 국경 소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그는 근무하고, 거기서 술판도 벌입니다.

그리고 물론 큰 배에는 큰 항해가 걸맞은 법이지요. 우리에게는 돈이,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요. 그래서 오랜 다툼 끝에 그는 아버지와 마지막 6천 루블로 결말을 짓고, 그 돈을 부쳐 받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는 증서를 써 주었고, 그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6천 루블로 유산을 둘러싼 아버지와의 다툼을 끝낸다고 쓴 그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품과 교양이 드높은 젊은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오, 저는 자세한 사정을 감히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명예가 있고 자기희생이 있으니, 저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경박하고 방탕하지만 참된 고결함 앞에, 드높은 이상 앞에 고개를 숙인 젊은이의 모습이 우리 앞에 아주 호감 가게 언뜻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바로 이 법정에서 아주 뜻밖에 메달의 뒷면이 뒤따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감히 추측에 나서지 않겠고 분석도 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까닭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여성이, 오래도록 감추어 온 분노의 눈물에 젖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맨 먼저 자기의 조심성 없는, 거침없는, 어쩌면 그렇다 해도 숭고하고 그렇다 해도 너그러웠던 충동 때문에 자기를 경멸했다고 우리에게 밝힙니다. 바로 그 사람, 이 아가씨의 약혼자에게서 누구보다 먼저 그 비웃는 미소가 언뜻 비쳤고, 아가씨는 오직 그 사람한테서만은 그 미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미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면서(아가씨가 이미 자기에게서 무엇이든, 자기 배신까지도 미리 참아 주어야 한다고 믿으며 배신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알면서 아가씨는 일부러 그에게 3천 루블을 내밀고, 그러면서 바로 자기를 배신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미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가 알아듣게 합니다. '자,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만큼 염치가 없나요?' 아가씨는 심판하고 시험하는 눈길로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가씨를 바라보며 그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고(그는 여기 여러분 앞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이 3천 루블을 서슴없이 제 것으로 삼아 새 애인과 함께 이틀 만에 흥청망청 써 버립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전설, 곧 삶을 위한 마지막 돈을 내주고 미덕 앞에 고개를 숙이는 드높은 고결함의 충동입니까, 아니면 그토록 역겨운 메달의 뒷면입니까? 삶에서는 대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으면 그 한가운데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첫 번째 경우에 그는 진심으로 고결했고, 두 번째 경우에는 똑같이 진심으로 비열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가 넓은 천성, 카라마조프적인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온갖 반대되는 것들을 담을 수 있고 두 심연을, 우리 위의 심연, 가장 드높은 이상의 심연과 우리 아래의 심연, 가장 낮고 악취 나는 타락의 심연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천성 말입니다. 카라마조프 집안 전체를 깊이, 가까이에서 지켜본 젊은 관찰자 라키틴 씨가 아까 밝힌 그 눈부신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고삐 풀리고 거침없는 천성들에게는 드높은 고결함의 감각만큼이나 타락의 비천함에 대한 감각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이 부자연스러운 뒤섞임이 늘,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두 심연, 두 심연입니다, 여러분, 같은 한순간에 말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의 존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넓습니다, 우리 어머니 러시아 전체처럼 넓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담고 모든 것과 어울려 살 것입니다! 그런데 배심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3천 루블 이야기에 닿았으니, 조금 앞질러 가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런 성격을 지닌 그가 그때 그 돈을, 그것도 그렇게, 그런 부끄러움을, 그런 치욕을, 더할 나위 없는 굴욕을 거쳐 받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바로 그 돈에서 절반을 떼어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고, 그 뒤로 한 달 내내 온갖 유혹과 엄청난 궁핍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목에 걸고 다닐 굳센 의지를 지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술집에서 벌인 취한 술판에서도, 연적인 자기 아버지의 유혹에서 애인을 데리고 떠나는 데 꼭 필요한 돈을 하느님이나 아실 누구에게서 구하러 읍을 날듯이 떠나야 했을 때에도 그는 감히 이 부적 주머니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토록 질투하던 노인의 유혹에 애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것만으로도 그는 부적 주머니를 뜯고, 애인이 마침내 '나는 당신 거예요' 하고 말해 주어 지금의 이 운명적인 처지에서 그 여자와 함께 어디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순간을 기다리며, 집에 남아 애인을 떠나지 않는 파수꾼이 되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는 자기 부적에 손대지 않는데, 대체 무슨 핑계로 그랬을까요? 처음의 핑계는, 우리가 말했듯이, 바로 누가 그에게 '나는 당신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요' 하고 말할 때 데려갈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핑계는 피고 자신의 말에 따르면 두 번째 핑계 앞에서 빛이 바랬습니다. 이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동안은 '나는 비열한 놈이지만 도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자기가 모욕한 약혼녀에게 가서, 그 여자한테서 속여서 차지한 돈 전체의 이 절반을 그 여자 앞에 내놓고 언제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봐, 나는 네 돈의 절반을 다 써 버렸고, 그로써 내가 약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며, 원한다면 비열한 놈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저는 피고 자신의 말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열한 놈이라 해도 도둑은 아니야. 내가 도둑이었다면 남은 이 절반을 너한테 가져오지 않고 첫 번째 절반처럼 이것도 차지해 버렸을 테니까.' 놀라운 사실 해명입니다! 그토록 미친 듯하면서도 약한 이 사람,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도 3천 루블을 받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바로 이 사람이 갑자기 제 안에 그런 스토아학파 같은 굳셈을 느끼고, 수천 루블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감히

손대지 못한다니! 이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격과 조금이라도 맞아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라면, 설령 정말로 자기 돈을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했을지 여러분께 감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오자마자, 이를테면 이미 이 돈의 첫 절반을 함께 다 써 버린 바로 그 새 애인을 또 무엇으로 즐겁게 해 주려고만 해도, 그는 부적 주머니를 뜯고 거기서, 글쎄요, 우선은 겨우 100루블만 떼어 냈을 겁니다. 왜 꼭 절반을, 곧 1천 5백 루블을 가져가야 하느냐, 1천 4백 루블이면 충분하다, 어차피 다 마찬가지다, 이러면서요. '비열한 놈이지 도둑은 아니야, 그래도 1천 4백 루블이나마 돌려주었으니까. 도둑이라면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을 거야.' 그다음 얼마 뒤에 다시 부적 주머니를 뜯고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100루블을 꺼냈을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를 꺼냈을 것이며, 한 달이 다 가기도 전에 마침내 끝에서 두 번째 100루블을 꺼냈을 겁니다. 100루블 한 장만 돌려줘도 어차피 다 마찬가지다, 이러면서요. '비열한 놈이지 도둑은 아니야. 2천 9백 루블을 써 버렸지만 그래도 100루블은 돌려주었으니까, 도둑이라면 그것도 돌려주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두 번째 100루블까지 다 써 버리고 나서 마지막 100루블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정말이지 100루블 한 장을 돌려주는 것도 할 짓이 못 돼, 이것도 다 써 버리자!' 우리가 아는 진짜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라면 바로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부적 주머니에 관한 전설로 말하자면, 이것은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현실과 어긋납니다. 무엇이든 추측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로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사실 심리에서 드러난 아버지와 아들의 재산 다툼과 집안 관계를 순서대로 모두 짚고 나서, 알려진 자료로는 유산

분할 문제에서 누가 누구를 속여 셈했는지, 누가 누구에게 더 셈을 물렸는지 가려낼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결론을 다시, 또다시 끌어낸 다음, 미탸의 머릿속에 고정 관념처럼 박혀 있던 이 3천 루블과 관련하여 의학 감정을 언급했다.

제7장 역사적 개관

"의학 감정은 피고가 제정신이 아니며 편집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피고는 그야말로 제정신이며, 바로 그 점이 가장 나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훨씬 더 영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편집광이라는 데에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 점에서뿐입니다. 바로 감정에서도 짚은 그 점,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자기에게 덜 치렀다는 저 3천 루블을 피고가 바라보는 눈길에서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두고 피고가 늘 보여 온 그 광분을 설명하려면, 광기로 기우는 그의 성향보다 비할 데 없이 가까운 관점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피고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 지녀 왔으며 다만 신경이 곤두서고 악에 받쳐 있었을 뿐이라고 본 젊은 의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가 늘 미친 듯이 악에 받쳐 있던 까닭은 3천 루블에, 그 금액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특별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란 바로 질투입니다!"

여기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그루셴카를 향한 피고의 운명적인 정열의 전모를 길게 펼쳐 보였다. 그는 피고가 이폴리트 키릴로비치가 풀이한 대로 피고 자신의 말을 빌리면 "두들겨 패 주려고" "젊은 여인"을 찾아갔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두들겨 패 주기는커녕 그 여자의 발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같은 무렵 피고의 아버지인 노인도 바로 그 여인에게 눈길을 던집니다. 놀랍고도 운명적인 일치입니다. 전에도 두 사람 다 이 여인을 알았고 마주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한꺼번에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은 더없이 고삐 풀린, 더없이 카라마조프다운 정열로 불붙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그 여인 자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다 비웃었어요'라고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두 사람을 다 비웃어 주고 싶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때 갑자기 이 생각이 머리에 날아든 것이고, 결국 두 사람 다 정복당해 그 여인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돈을 하느님처럼 섬기던 노인은 그 여인이 자기 거처를 찾아 주기만 하면 된다며 곧바로 3천 루블을 마련해 두었으나, 곧 그 여인이 자기의 정식 아내가 되어 주기로 승낙만 한다면 자기 이름과 전 재산을 그 발치에 바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고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피고로 말하자면, 그의 비극은 뻔하고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인의 '놀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혹하는 여인은 이 불행한 젊은이에게 희망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진짜 희망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맨 마지막 순간, 그가 자기를 괴롭히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미 자기 아버지이자 연적의 피로 물든 두 손을 그 여인에게 내밀던 그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저를, 저를 그이와 함께 유형지로 보내 주세요, 제가 그이를 그렇게까지 몰고 갔어요, 제가 누구보다 죄가 많아요!' 그가 체포되던 순간 이 여인은 이미 진심으로 뉘우치며 스스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글로 쓰겠다고 나선 재능 있는 젊은이, 제가 이미 언급한 바로 그 라키틴 씨는 몇 마디 간결하고 특징을 잘 잡은 문장으로 이 여주인공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이른 환멸, 이른 속임과 타락, 그 여자를 버린 유혹자 약혼자의 배신,

그다음에는 가난, 정직한 집안의 저주, 그리고 마침내 어느 부유한 노인의 비호. 하기야 그 여자는 이 노인을 지금도 자기 은인으로 여긴다. 어쩌면 좋은 것을 많이 품고 있었을지 모르는 젊은 마음속에 너무 이른 때부터 분노가 숨어들었다. 셈이 빠르고 자본을 모으는 성격이 만들어졌다. 사회를 향한 조롱과 복수심이 만들어졌다.' 이런 성격 묘사를 듣고 나면, 그 여인이 오로지 놀이를 위해서, 악의에 찬 놀이를 위해서 두 사람을 다 비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희망 없는 사랑의 한 달, 도덕적 타락과 약혼녀에 대한 배신과 자기 명예를 믿고 맡겨진 남의 돈을 가로챈 이 한 달 동안, 피고는 그 밖에도 끊임없는 질투 때문에 거의 광분에, 미칠 듯한 분노에 이르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 나간 노인은 바로 그 3천 루블로, 아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몫이자 어머니의 유산이라 여기며 그 일로 아버지를 나무라던 바로 그 돈으로 아들이 정열을 바치는 대상을 꾀어내고 홀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편집증마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돈으로 그토록 역겨운 냉소를 부리며 그의 행복이 깨어지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피고 안에서 어떻게 차츰 싹텄는지로 넘어가, 사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그것을 짚었다.

"처음에 우리는 그저 선술집마다 고함만 칩니다. 이 한 달 내내 고함을 칩니다. 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없이 지옥 같고 위험한 생각까지도 모조리 곧바로 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곧바로 우리에게 더없는 공감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온갖 걱정과 불안에 끼어들어 주고 우리 말에

맞장구를 쳐 주고 우리 성미를 거스르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이 나서 선술집을 통째로 박살 냅니다. (이어서 2등 대위 스네기료프에 관한 일화가 나왔다.) 이 한 달 동안 피고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마침내, 이것이 이제 아버지를 향한 고함과 위협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광분이라면 위협이 아마 실행으로 옮겨질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검사는 수도원에서 있었던 가족 모임, 알료샤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피고가 저녁 식사 뒤 아버지 집에 뛰어들었을 때 벌어진 추악한 폭행 장면을 묘사했다.) 그 장면 전에 피고가 이미 아버지를 죽여 끝장을 내기로 숙고 끝에 미리 계획하고 마음먹었다고 고집스레 단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은 이미 여러 번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는 숙고하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들과 증인들과 그 자신의 자백이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배심원 여러분,"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덧붙였다. "저는 오늘까지도, 피고에게 다가오던 이 범죄를 그가 완전히 의식하고 미리 계획했다고 볼지 망설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이미 여러 차례 앞에 놓인 운명의 순간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굳게 믿었지만, 다만 바라보기만 했고, 그 순간을 다만 가능성으로만 그려 보았을 뿐 실행할 때도 형편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망설인 것은 오늘까지, 오늘 베르호프체바 양이 법정에 내놓은 이 운명적인 문서가 나오기까지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성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이건 계획이에요, 살인 계획서예요!' 불행한 피고의 불행한 '술 취한' 편지를 그 여성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편지에는 계획서와 사전 계획이라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편지는 범행 이틀 전에 쓰였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피고가 자기의 무서운 생각을 실행하기 이틀 전에, 내일 돈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죽여 '빨간

리본을 맨 봉투에 든' 돈을 베개 밑에서 꺼내 가겠다고, '이반만 떠나 준다면' 그러겠다고 맹세까지 하며 선언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들리십니까. '이반만 떠나 준다면.' 그러니 여기서는 이미 모든 것이 숙고되었고 형편이 저울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뒤 모든 것이 쓰인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사전 계획과 숙고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범죄는 강도를 목적으로 저질러질 참이었습니다. 이것은 똑똑히 선언되었고, 쓰였고, 서명되었습니다. 피고는 자기 서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들 말할 것입니다. 이건 취한 사람이 쓴 거라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래서 더 중대합니다. 맨정신일 때 꾀한 것을 취해서 쓴 것입니다. 맨정신일 때 꾀하지 않았다면 취해서 쓰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무엇 하러 그는 자기 뜻을 선술집마다 고함쳐 떠들었느냐고. 그런 일을 *미리 계획하고* 결행하는 자는 입을 다물고 속에 감추어 둔다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함을 친 것은 아직 계획도 사전 계획도 없고 다만 욕망 하나가 서 있고 다만 충동이 익어 가던 때였습니다. 그 뒤로 그는 이 일에 대해 이미 덜 고함칩니다. 이 편지를 쓴 그날 저녁, '수도'라는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그는 여느 때와 달리 말이 없었고, 당구도 치지 않았고, 한쪽에 떨어져 앉아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 고장 상인의 점원 하나를 자리에서 쫓아냈을 뿐인데, 그것도 이미 거의 무의식적으로, 선술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 없이는 배기지 못하던 싸움 버릇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최종 결심과 함께 피고에게는, 자기가 미리 읍내에 너무 많이 떠들어 놓았고 계획한 일을 실행하고 나면 이것이 자기의 죄상을 밝히고 자기를 고발하는 데 크게 쓰일 수 있다는 걱정이 틀림없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소문이 났다는 사실은 이미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결국 전에도 어떻게든 운이 따라 주었으니 이번에도

따라 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별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저는 그가 운명의 순간을 비켜 가려고 많은 일을 했고 피투성이 결말을 피하려고 아주 많은 애를 썼다는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내일 모든 사람에게 3천 루블을 청할 거야.' 그는 자기 특유의 말투로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피가 흐를 거야.' 또다시 취해서 쓰였고, 또다시 맨정신으로 쓰인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범죄를 피하려고 돈을 구하던 미탸의 온갖 노력을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삼소노프를 찾아간 그의 행적과 랴가비에게 간 여행을 모두 문서에 따라 묘사했다. "기진맥진하고 조롱당하고 굶주린 채, 이 여행을 하느라 시계까지 팔고서(그러면서도 몸에는 1천 5백 루블을 지니고서 말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 그렇다는 겁니다!), 읍에 두고 온 사랑의 대상 때문에 질투로 괴로워하며, 그 여자가 자기가 없는 사이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가 버리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그는 마침내 읍으로 돌아옵니다. 다행입니다! 그 여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소 그 여자를 그 여자의 비호자 삼소노프에게 바래다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삼소노프에게는 질투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 사건에서 몹시 특징적인 심리적 특성입니다!) 그다음 그는 '뒤쪽'의 감시 초소로 달려가고, 거기서, 거기서 스메르댜코프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다른 하인도 앓아누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걸리적거릴 것이 없고 '신호'는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무슨 유혹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래도 버팁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높이 존경하는, 이 고장에 잠시 머물고 계신 호흘라코바 부인을 찾아갑니다. 오래전부터 그의 운명을 가엾게 여기던 이 부인은 그에게 더없이 분별 있는 충고를 내놓습니다. 이 모든 방탕을, 이 추한 사랑을, 이 선술집 떠돌이 생활을, 젊은 힘을 열매 없이 낭비하는 일을 다 집어치우고 시베리아 금광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끓는 당신의 힘과 모험을 갈망하는 당신의 낭만적인 성격이 나아갈 출구가 있어요.'"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그루셴카가 삼소노프에게는 아예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피고가 별안간 들은 순간을 묘사하고, 그 여자가 바로 자기를 속였고 지금 그자에게,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가 있다는 생각에 신경이 다 닳은 불행한 질투쟁이가 순식간에 광분한 모습을 묘사한 다음,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우연의 운명적인 의미에 주의를 돌리며 이렇게 맺었다. "하녀가 그에게 그의 연인은 모크로예에 '예전의 그 사람'과, '다툴 여지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미처 말해 주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녀는 겁에 질려 얼이 빠졌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며 하느님까지 걸었습니다. 피고가 그 자리에서 하녀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를 배신한 여자를 쫓아 정신없이 내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여겨보십시오. 그토록 제정신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기어이 구리 절굿공이를 챙겨 갔습니다. 왜 하필 절굿공이입니까, 왜 다른 무기는 안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한 달 내내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다면, 무기처럼 생긴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눈에 비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무기로 움켜쥐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물건이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한 달 내내 그려 보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순식간에, 그토록 다툴 여지 없이 그것을 무기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운명의 절굿공이를 움켜쥔 것은 그래도 무의식이 아니었고, 그래도 저도 모르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버지의 정원에 있습니다. 걸리적거릴 것이 없고, 증인도 없고, 깊은 밤이고, 어둠과 질투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에, 그자와, 자기 연적과 함께 그의 품에 안겨 있고 어쩌면 바로 이 순간 자기를 비웃고 있으리라는 의심에 그는 숨이 막힙니다. 아니, 의심만이 아닙니다. 이제 무슨

의심이겠습니까, 속임수는 명백하고 뻔합니다. 그 여자는 여기, 불빛이 새어 나오는 바로 이 방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자의 집에, 저기 칸막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이 창가로 살그머니 다가가 공손하게 안을 들여다보고, 얌전하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위험하고 부도덕한 일이 무엇이든 벌어지지 않도록 화를 피해 얼른 분별 있게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피고의 성격을 알고, 그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사실들로 우리가 알게 된 그 상태를 헤아리는 우리더러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당장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신호까지 쥐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신호"를 계기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잠시 자기 논고를 접어 두고 스메르댜코프에 대해 길게 늘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스메르댜코프가 살인을 했다는 혐의에 관한 이 곁가지 삽화를 남김없이 다루어 이 생각에 영영 끝장을 내려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 일을 아주 꼼꼼하게 해냈고, 그가 이 추측에 대해 아무리 경멸을 드러냈어도 그래도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렸다.

제8장 스메르댜코프론

"우선, 이런 혐의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이 물음으로 시작했다. "스메르댜코프가 죽였다고 맨 먼저 외친 사람은 체포되던 순간의 피고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처음 그 외침에서부터 바로 지금 이 재판의 순간까지 자기 고발을 뒷받침할 사실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커녕,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도 사람의 상식에 조금이나마 들어맞는 암시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이 고발을 뒷받침하는 사람은 단 셋, 피고의 두 동생과 스베틀로바 양뿐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큰동생은 오늘에야, 병중에, 다툴 여지 없는 정신 착란과 열병의 발작 속에서 자기 혐의를 밝혔고, 그 전에는 두 달 내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듯이, 형이 유죄라는 확신을 고스란히 함께하며 이 생각에 반박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다음 피고의 막내 동생은 아까 스스로 우리에게, 스메르댜코프가 유죄라는 자기 생각을 뒷받침할 사실은 아무것도, 조금도 없으며 다만 피고 자신의 말과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렇게 결론 내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증거를 그의 동생은 아까 두 번이나 입에 올렸습니다. 스베틀로바 양은 어쩌면 한결 더 어마어마하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가 여러분께 하는 말이면 그대로 믿으세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피고의 운명에 지나치게 이해가 얽힌 이 세 사람이 스메르댜코프를 겨냥해 내놓은 사실상의 증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스메르댜코프에 대한 고발은 떠돌았고, 버텨 왔고,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병적인 정신 착란과 광기의 발작 속에서 제 목숨을 끊은" 고(故) 스메르댜코프의 성격을 가볍게 그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스메르댜코프를, 어렴풋한 교육의 싹을 지녔으나 자기 머리로는 감당하지 못할 철학 사상에 얼이 빠지고, 의무와 책임에 관한 요즘의 몇몇 학설에 겁을 먹은 저능한 사람으로 그려 보였다. 그 학설들을 그는 실천으로는 그의 주인이자 어쩌면 아버지이기도 했던 고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막된 생활에서, 이론으로는 주인의 큰아들 이반 표도로비치와 나눈 갖가지 이상한 철학 이야기에서 듬뿍 배웠는데, 이반 표도로비치는 아마 따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쓸 곳을 찾지 못한 조롱의 욕구 때문에 이 오락을 기꺼이 즐겼으리라고 했다. "그 사람은 주인집에 머물던 마지막 며칠 동안 자기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풀이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증언합니다. 피고 자신, 그의 동생, 그리고 하인 그리고리까지, 곧 그를 아주 가까이에서 알았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간질병에 짓눌린 스메르댜코프는 '암탉처럼 겁이 많았습니다.' '그놈은 내 발치에 엎드려 내 발에 입을 맞췄어요.' 이런 이야기가 자기에게 얼마간 불리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던 때에 피고 자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놈은 간질 걸린 암탉이에요.' 피고는 자기 특유의 말투로 그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를 피고는(이것은 피고 자신도 증언합니다) 자기 심복으로 고르고, 그가 마침내 자기의 첩자이자 말 전하는 사람 노릇을 하겠다고 승낙할 만큼 그를 겁박합니다. 집안의 염탐꾼이 된 그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돈 봉투가 있다는 것도,

주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신호도 피고에게 알려 줍니다. 하기야 어찌 알려 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일 겁니다요, 저를 죽일 거라는 걸 똑똑히 봤습죠.' 그를 겁박하던 고문자가 그때 이미 체포되어 있어서 그를 벌하러 올 수 없었는데도, 그는 예심에서 우리 앞에서조차 부들부들 떨고 벌벌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언제나 의심하셨습죠. 저도 무섭고 떨려서, 그분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무슨 비밀이든 서둘러 일러 드렸습죠. 그래야 그분 앞에서 제가 결백하다는 걸 보시고 목숨만은 살려서 회개하게 놓아 주실 테니까요.' 이것이 그의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버럭 소리라도 지르시면, 저는 그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어지곤 했습죠.' 본디 천성이 더없이 정직한 젊은이였고, 잃어버린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 주인이 그의 그 정직함을 알아본 덕에 주인의 신임을 얻었으니, 불행한 스메르댜코프는 은인으로 사랑하던 주인을 배신한 것을 두고 무섭게 뉘우치며 괴로워했으리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깊이 있는 정신 의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간질병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늘 끊임없는, 물론 병적인 자기 고발에 기울어집니다. 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누구인가에게 지은 자기의 '죄'로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며, 흔히 아무 근거도 없이 갖가지 잘못과 범죄를 부풀리고, 심지어 스스로 지어내어 제게 덮어씌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간이 두려움과 겁박 때문에 정말로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됩니다. 그 밖에도 그는 자기 눈앞에서 엮여 가는 형편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예감했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큰아들 이반 표도로비치가 파국 직전에 모스크바로 떠날 때, 스메르댜코프는 그에게 남아 달라고 애원했지만, 겁 많은 버릇대로 자기의 걱정을 모두 분명하고 단호하게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암시로 만족했지만, 사람들은 그 암시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짚어 둘 것은, 그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서 이를테면 자기의 보호를, 그분이 집에 있는 동안은 화가 닥치지 않으리라는 이를테면 보증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의 '술 취한' 편지에 있는 표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반만 떠나 준다면 영감을 죽이겠다.' 그러니 이반 표도로비치가 집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집안의 평온과 질서를 지키는 이를테면 보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떠나고, 젊은 주인이 떠난 지 겨우 한 시간쯤 지나 스메르댜코프는 곧바로 간질 발작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 이해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두려움과 일종의 절망에 짓눌린 스메르댜코프가 마지막 며칠 동안 간질 발작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을 유난히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간질 발작은 전에도 늘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충격을 받는 순간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발작의 날짜와 시각은 물론 알아맞힐 수 없지만, 발작이 오려는 기미는 어떤 간질 환자든 미리 제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반 표도로비치가 마당을 나서자마자, 스메르댜코프는 말하자면 고아가 된 듯하고 의지할 데 없어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집안일로 지하실에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작이 올까, 안 올까, 지금 당장 오면 어쩌지?' 그리고 바로 이런 기분과 이런 의심과 이런 물음 때문에, 간질 발작에 늘 앞서는 목구멍 경련이 그를 덮치고, 그는 정신을 잃은 채 지하실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더없이 자연스러운 우연에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무슨 혐의를, 무슨 단서를, 그가 *일부러* 병든 척했다는 무슨 암시를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랬다면 곧바로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대체 무엇 하러 그랬느냐? 무슨 셈으로, 무슨 목적으로? 의학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한다, 과학은 틀린다, 의사들이 진실과 꾀병을 가려내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라지요, 그러라지요. 그러나 그래도 제 물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그가 꾀병을 부릴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을 꾀해 놓고, 마침 일어난 발작으로 미리, 되도록 빨리 집안의 주의를 자기에게 끌려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범행이 일어난 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는 다섯 사람이 있었고 또 드나들었습니다. 첫째, 표도르 파블로비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그의 하인 그리고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셋째, 그리고리의 아내, 하녀 마르파 이그나티예바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자기 주인을 죽인 살인자로 상상하는 것은 그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눈에 띄는 사람은 둘이 남습니다. 피고와 스메르댜코프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우기니, 그렇다면 스메르댜코프가 죽였어야 합니다. 다른 출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찾아낼 수 없고, 다른 살인자는 하나도 골라낼 수 없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행한 백치를 겨냥한 이 '교묘하고' 어마어마한 고발이 나온 것입니다! 오로지 달리 골라낼 사람이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무슨 여섯 번째 인물에게 그림자 하나라도, 혐의 하나라도 있었다면, 피고 자신조차 그때는 스메르댜코프를 지목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 여섯 번째 인물을 지목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살인을 두고 스메르댜코프를 고발하는 것은 완전한 부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접어 둡시다, 의학도 접어 둡시다, 논리 자체마저도 접어 두고, 사실에만, 오로지 사실에만 눈을 돌려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봅시다. 스메르댜코프가 죽였다, 그러나 어떻게? 혼자서입니까, 아니면 피고와 짜고서입니까? 먼저 첫 번째 경우, 곧 스메르댜코프가 혼자 죽이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물론 그가 죽였다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있던 것과 같은 살인 동기, 곧 증오, 질투 따위, 따위는 그림자조차 없었으니, 스메르댜코프는 의심할 것 없이 오직 돈 때문에, 주인이 봉투에 넣는 것을 제 눈으로 본 바로 그 3천 루블을 차지하려고만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꾀해 놓고 그는 미리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이해가 얽힌 사람에게, 바로 피고에게 돈과 신호에 얽힌 모든 사정을 알려 줍니다. 봉투가 어디 있는지, 봉투에 정확히 무엇이 쓰여 있는지, 무엇으로 싸여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주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신호'를 알려 줍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놓고 제 정체를 드러내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아니면 어쩌면 자기도 들어가 봉투를 손에 넣고 싶어 할 경쟁자를 하나 구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하고들 제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서 알려 준 거라고.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토록 대담하고 짐승 같은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꾀하고 나중에 실행까지 한 사람이, 온 세상에서 자기만 알고 자기가 입을 다물기만 하면 온 세상 아무도 결코 짐작조차 못 했을 소식을 알려 준다니요.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겁이 많아도, 그런 일을 꾀했다면 적어도 봉투와 신호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미리 자기를 송두리째 드러내는 일이 될 테니까요. 꼭 소식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면 일부러 무엇이든 지어내고 다른 거짓말을 무엇이든 했을 테지만, 이것만은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돈 이야기만이라도 입을 다물었다가 그 뒤에 죽이고 그 돈을 차지했다면, 적어도 강도를 노린 살인이라는 죄목으로는 온 세상 누구도 결코 그를 고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돈은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 돈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설령 그를 고발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가 무언가 다른 동기로 죽였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를 아무도 그에게서 미리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모두가 그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의 신임으로 대접받는 것을 보았으니, 물론 그는 맨 나중에야 혐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혐의를 받았을 사람은 그런 동기를 지닌 사람, 그런 동기가 있다고 스스로 고함치던 사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모두 앞에 드러내던 사람, 한마디로 살해된 사람의 아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였을 것입니다. 스메르댜코프가 죽이고 털어 가고 아들이 고발당한다면, 살인자 스메르댜코프에게는 물론 그것이 이득이었을 테지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 드미트리에게 스메르댜코프는 살인을 꾀해 놓고 미리 돈 이야기도, 봉투 이야기도, 신호 이야기도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스메르댜코프가 꾀한 살인의 날이 옵니다. 그러자 그는 간질 발작을 *꾸며 내어* 다리가 꺾이며 쓰러집니다. 무엇 하러 그랬겠습니까? 물론 첫째로는, 자기 치료를 계획해 두었던 하인 그리고리가 집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어쩌면 치료를 미루고 파수를 서게 하려는 것이었겠지요. 둘째로는 물론, 주인이 아무도 자기를 지켜 주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들이 찾아올까 봐 무섭게 겁을 내던 터라 (주인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조심을 더욱 키우게 하려는 것이었겠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발작으로 쓰러진 자기를, 스메르댜코프를, 그가 늘 모두와 떨어져 혼자 자고 따로 드나드는 문까지 있던 부엌에서 곧바로 바깥채 맞은편 끝, 그리고리의 작은 방으로, 두 노인 부부의 칸막이 뒤로, 그들 자신의 침대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하려는 것이었겠지요. 간질이 그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주인과 인정 많은 마르파 이그나티예브나가 시켜서 예로부터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거기 칸막이 뒤에 누워서 그는 아마 더 그럴듯하게 병자 시늉을 하려고 물론 신음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밤새 두 사람을 깨울 것입니다(그리고리와 그 아내의 진술대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다음에 한결 편하게 갑자기 일어나서 주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들 제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병자이니 아무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바로 꾀병을 부린 것이고, 피고에게 돈과 신호를 알려 준 것은 바로 피고가 유혹에 넘어가 몸소 와서 죽이게 하려던 것이라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피고가 죽이고 돈을 가지고 떠나면서 어쩌면 소란을 피우고 요란한 소리를 내어 증인들을 깨우면, 그때는 보시다시피 스메르댜코프도 일어나서 갑니다. 그래, 무엇을 하러 간단 말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 주인을 죽이고 이미 가져간 돈을 두 번째로 가져가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십니까? 저 자신도 이런 추측을 늘어놓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피고가 단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고리를 쓰러뜨리고 소동을 일으킨 뒤 집에서 이미 나가고 나서, 그가 일어나 가서 죽이고 털어 갔다는 것입니다. 스메르댜코프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미리 셈하고 손바닥 보듯 다 미리 알 수 있었겠느냐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신경이 곤두서고 미쳐 날뛰는 아들이 오로지 창문을 공손하게 들여다보기만 하려고 와서는, 신호까지 쥐고 있으면서도 물러가 노획물을 몽땅 자기에게, 스메르댜코프에게 남겨 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스메르댜코프가 범행을 저지른 그 순간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을 짚어 보십시오. 그것 없이는 고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간질은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병자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외침을 듣고, 나왔다.'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둘러보고 나서 혼잣말로, 어디 가서 주인을 죽여 볼까,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까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는데요? 하기야, 여러분, 공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칩죠.' 섬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짰다면 어떻습니까, 둘이 함께 죽이고 돈을 나눠 가졌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대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우선,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곧바로 나옵니다. 하나는 죽이고 수고를 몽땅 떠맡는데, 다른 공범은 간질에 걸린 척하며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바로 미리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주인에게 불안을, 그리고리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려고 말입니다. 두 공범이 무슨 동기로 하필 이런 미친 계획을 생각해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스메르댜코프 쪽에서 보면 전혀 적극적인 공모가 아니라, 말하자면 수동적이고 고난에 찬 공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겁박당한 스메르댜코프는 살인에 맞서지 않기로만 승낙했고, 자기가 주인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바로 자기가 고발당하리라 예감하고서, 소리치지도 맞서지도 않은 채 그 시간 동안 간질에 걸린 듯 누워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미리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에게서 받아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자네는 거기서 마음대로 죽이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 오두막은 마을 끝이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간질이 또다시 집안에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테니, 이를 내다본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결코 이런 약조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보하겠습니다. 그가 동의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때는 드미트리 카라마조프가 살인자, 직접 손을 쓴 살인자이자 주모자이고, 스메르댜코프는 다만 수동적인 가담자, 아니, 가담자조차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눈감아 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법정은 이것을 틀림없이 가려낼

수 있었을 테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피고는 체포되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스메르댜코프 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 *한 사람*만 고발합니다. 자기와 공모했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만 고발합니다. 그놈 혼자 그 짓을 했다, 그놈이 죽이고 털어 갔다, 그놈 손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곧바로 서로를 고자질하기 시작하는 공범들이라니, 그게 무슨 공범입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십시오, 카라마조프에게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는 주범이고 상대는 주범이 아니라 눈감아 주고 칸막이 뒤에 누워 있던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그는 누워 있던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 그 누워 있던 사람은 화가 나서, 오로지 제 몸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서둘러 참된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둘이 다 가담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고 두려워서 허락하고 눈감아 주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스메르댜코프는 법정이 곧바로 자기 죄의 정도를 가려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테고, 그러니 벌을 받는다 해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떠넘기려는 그 주범 살인자보다 비할 데 없이 가벼우리라는 셈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인자가 그를 확고하게 고발하며 줄곧 그를 유일한 살인자로 지목했는데도 스메르댜코프는 공모에 대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돈 봉투와 신호를 피고에게 알려 준 것이 *바로 자기*이며 자기가 없었다면 피고는 아무것도 몰랐으리라는 것을 예심에 밝힌 것도 바로 스메르댜코프입니다. 그가 정말로 공모했고 죄가 있었다면, 이것을, 곧 이 모든 것을 피고에게 알려 준 것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그토록 쉽게 예심에 밝혔겠습니까? 반대로, 그는 시치미를 떼고, 틀림없이 사실을 비틀고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틀지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모로

고발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결백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간질과 이 모든 일어난 파국 때문에 생긴 병적인 우울의 발작 속에서 어제 목을 맸습니다. 목을 매면서 그는 자기 특유의 문체로 쓴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도록 내 뜻과 바람으로 나 자신을 없앤다.' 그 쪽지에 '살인자는 나지, 카라마조프가 아니다' 하고 덧붙이는 것쯤이야 무슨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에는 양심이 넉넉했는데 다른 한 가지에는 모자랐다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곳 법정에 돈을, 3천 루블을 가져옵니다. '증거물 탁자 위에 있는 바로 이 봉투에 들어 있던 바로 그 돈인데, 어제 스메르댜코프한테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아까의 그 서글픈 광경을 몸소 기억하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두세 가지 고찰을, 그것도 가장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골라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들이 사소하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에게나 떠오르지는 않고 잊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것도 또다시 하는 말입니다만, 스메르댜코프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제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반 카라마조프 자신이 밝혔듯이 어제저녁에야 처음으로 이반 카라마조프에게 자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까지 입을 다물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자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되풀이하지만, 왜 그는 바로 내일 결백한 피고에게 무서운 심판이 닥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기 전에 남긴 쪽지에서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돈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저와 이 법정의 다른 두 사람은 이미 한 주 전에 아주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반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가 5천

루블짜리 5퍼센트 채권 두 장, 그러니까 모두 1만 루블어치를 바꾸려고 현청 소재지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정해진 때에 맞춰 누구에게나 돈이 있을 수 있고, 3천 루블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그 돈, 바로 그 상자나 봉투에서 나온 돈이라고 꼭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반 카라마조프는 어제 진짜 살인자에게서 그토록 중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태연히 지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곧바로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것을 아침까지 미루었을까요? 저는 왜 그랬는지 짐작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주 전부터 건강이 상해 있었고, 환영을 보며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의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스로 털어놓았던 그는, 바로 오늘 그를 덮친 섬망의 전날 스메르댜코프가 죽었다는 것을 갑자기 알고서 별안간 이런 생각을 짜 맞춥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그놈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다, 그리고 형은 구하겠다. 돈은 나한테 있다. 한 뭉치를 가져가서 스메르댜코프가 죽기 전에 나한테 주었다고 하자.' 여러분은 이것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도,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 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면, 하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에 마침내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그랬다고 스스로 상상해 버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까의 광경을 보셨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셨습니다. 그는 두 발로 서서 말을 했지만, 그의 정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열병 환자의 아까 그 진술에 이어 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피고가 범행 이틀 전에 쓴, 범행의 자세한 계획서를 미리 담은 베르호프체바 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하러 계획서와 그것을 짠 사람을 찾겠습니까? 일은 바로 그 계획서대로 정확히 이루어졌고, 다른 누구도 아닌 그것을 짠 사람이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쓰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결코 아버지의 창문 앞에서 공손하게, 겁을 먹고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자의 방에 우리 연인이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터무니없고 사실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들어갔고, 그리고 일을 끝냈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가 증오하는 자이자 연적을 보자마자 신경이 곤두서고 분노에 타올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고 나서, 어쩌면 단 한 번에, 구리 절굿공이를 쥔 손을 한 번 휘둘러 죽였을 것이고, 그다음 꼼꼼히 뒤져 보고 나서야 그 여자가 거기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그래도 베개 밑에 손을 넣어 돈 봉투를 꺼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찢어진 봉투 껍데기가 지금 여기 증거물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생각에 아주 특징적인 사정 하나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련한 살인자, 바로 오로지 강도만 노린 살인자였다면, 글쎄요, 그가 봉투 껍데기를 시체 곁에서 발견된 그 모양 그대로 바닥에 남겨 두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것이 강도를 노리고 죽이는 스메르댜코프였다면, 그는 희생자의 시체 위에서 봉투를 뜯는 수고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봉투째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봉투에 돈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 앞에서 돈을 넣고 봉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봉투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면, 그때는 강도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스메르댜코프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봉투를 바닥에 남겨 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은 이미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광분한 살인자, 도둑이 아니고 그때까지 무엇 하나 훔쳐 본 적 없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침대 밑에서 돈을 낚아챘지만, 도둑이 훔치듯 한 것이 아니라 훔쳐 간 도둑에게서 제 물건을 되찾아 가져가듯 한 것입니다. 이 3천 루블에 대한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의 생각이 바로 그러했고, 그 생각은 그 안에서 편집증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봉투를 움켜쥐고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껍데기를 찢고, 그다음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달아납니다. 찢어진 껍데기라는 꼴로 자기를 겨누는 더없이 어마어마한 고발 증거를 바닥에 남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모두 그가 스메르댜코프가 아니라 카라마조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지 못했고,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그에게 어디 그럴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달아나고, 자기를 쫓아오는 하인의 비명을 듣습니다. 하인은 그를 붙잡아 세우고, 구리 절굿공이에 맞아 쓰러집니다. 피고는 가엾어서 그에게로 뛰어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갑자기 우리에게, 그때 자기가 가엾어서, 연민 때문에, 무엇으로든 그를 도울 수 없을까 살펴보려고 그에게로 뛰어내렸다고 우깁니다. 그래, 이것이 그런 연민을 드러낼 만한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뛰어내린 것은 바로 자기 악행의 유일한 증인이 살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어떤 감정이나 다른 어떤 동기도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그리고리 곁에서 애를 쓰며 손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닦아 주고, 그가 죽었다고 확신하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그곳으로, 자기 연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가 온통 피투성이이고 곧바로 덜미가 잡히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피고 자신은 자기가 온통 피투성이라는 데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우깁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있을 법한 일이고, 그런 순간에 범죄자들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한쪽으로는 지옥 같은 셈을 하는데, 다른 쪽으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서둘러 알아내야 했고, 그래서 그 여자의 집으로

달려가 자기로서는 뜻밖이고 더없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예전의 그 사람', '다툴 여지 없는' 그 사람과 함께 모크로예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9장 전속력의 심리학. 질주하는 트로이카. 검사 논고의 끝

논고의 이 대목에 이르자, 분명히 엄격한 역사적 서술법을 고른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자기의 성급한 열중을 억누르려고 일부러 엄격하게 짠 틀을 찾는 신경질적인 연설가들은 모두 이 방법을 무척 즐겨 쓴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예전의 그 사람", "다툴 여지 없는" 그 사람에 대해 특히 길게 늘어놓았고, 이 주제를 두고 나름대로 흥미로운 생각을 몇 가지 밝혔다. "누구에게나 미칠 듯이 질투하던 카라마조프가 '예전의 그 사람', '다툴 여지 없는' 그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단번에 이를테면 무너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전에는 그가 뜻밖의 연적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새로운 위험에 거의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던 만큼 이것은 더욱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직 아주 멀리 있는 일이라고만 줄곧 여겼고, 카라마조프는 늘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갑니다. 아마 그는 그를 허구로까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여자가 이 새 연적을 숨긴 것도, 아까 자기를 속인 것도 바로 새로 날아든 이 연적이 그 여자에게 공상도 허구도 결코 아니고 그 여자의 전부, 삶의 모든 희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순식간에 깨닫자, 이것을 순식간에 깨닫자 그는 체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피고의 영혼에 있는 이 갑작스러운 특성을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결코 드러낼 수 없을 듯 보이던 그에게서 진실을 향한, 여인에 대한 존중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정없는 욕구가 갑자기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여인 때문에 그가 자기 아버지의 피로 손을 물들인 그 순간입니다! 하기야 그 순간에는 흘린 피도 이미 복수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영혼과 이 세상에서 누릴 자기 운명을 송두리째 망쳐 버린 그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느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그는 무엇이며 무엇일 수 있겠는가. 언젠가 자기가 망쳐 놓은 이 여자에게 뉘우치며 새로운 사랑과 정직한 청혼과 되살아난, 이미 행복한 삶의 약속을 들고 돌아온 이 「예전의 그 사람」, 「다툴 여지 없는」 그 사람과 견주어서 말이다. 그런데 불행한 그는 *이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줄 것이며,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카라마조프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범죄가 자기 앞의 모든 길을 막아 버렸고, 자기는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다만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이 그를 짓눌러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미친 계획 하나에 머무는데, 카라마조프의 성격으로 보아 그것은 자기의 무서운 처지에서 벗어날 유일하고 숙명적인 출구로 그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출구란 자살입니다. 그는 관리 페르호틴에게 잡혀 둔 권총을 찾으러 달려가고, 그러면서 길에서, 뛰어가면서 방금 아버지의 피로 손을 더럽히고 얻은 돈을 몽땅 주머니에서 꺼내 듭니다. 오, 이제 그에게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카라마조프가 죽는다, 카라마조프가 권총으로 자살한다, 이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공연히 우리가 시인이겠습니까, 공연히 우리가 양 끝에 불붙인 초처럼 우리 삶을 태워 왔겠습니까. '그 여자에게로, 그 여자에게로. 그리고 거기서, 오, 거기서 나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겠다. 일찍이 없던 잔치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오래도록 이야기하도록. 거친 고함과 미친 집시 노래와 춤 속에서 우리는 축배를 들고 사랑하는 여인의 새 행복을 축하해 주고, 그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발치에서 그 여자 앞에서 우리의 두개골을 박살 내고 우리 삶을 처형하자! 언젠가는 미탸 카라마조프를 떠올리겠지, 미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겠지, 미탸를 가엾게 여기겠지!' 그림 같은 장면이 많고, 낭만적인 광분과 거친 카라마조프식 고삐 풀림과 감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무언가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영혼 속에서 외치고,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두드리고, 그의 마음을 죽도록 독으로 물들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무언가*란, 배심원 여러분, 양심입니다. 양심의 심판, 양심의 무서운 가책입니다! 그러나 권총이 모든 것을 화해시켜 줄 것입니다. 권총이 유일한 출구이고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카라마조프가 그 순간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했는지, 그리고 카라마조프가 햄릿처럼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닙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쪽 사람들에게는 햄릿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은 카라마조프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미탸가 떠날 채비를 하던 일, 페르호틴의 집과 가게와 마부들과 함께 있던 장면을 더없이 자세하게 펼쳐 보였다. 그는 모두 증인들이 확인해 준 말과 격언과 몸짓을 숱하게 늘어놓았고, 그 그림은 듣는 사람들의 확신에 무섭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작용한 것은 사실들이 한데 모인 힘이었다.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이미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의 유죄가 반박할 수 없게 드러났다. "그에게는 이제 자기 몸을 아낄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말했다. "그는 두세 번 하마터면 다 자백할 뻔했고, 거의 암시했으며, 다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여기서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길에서 마부에게까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살인자를 태우고 가는 걸 아느냐!' 그러나 그래도 그는 끝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모크로예 마을에 닿아 거기서 서사시를 끝맺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한 그를 무엇이 기다립니까? 문제는, 모크로예에서 거의 처음 몇 분부터 그는 자기의 '다툴 여지 없는' 연적이 어쩌면 전혀 그렇게 다툴 여지 없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새 행복을 축하하는 말도 축배도 그에게서 바라지 않고 받아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고, 마침내 완전히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여러분은 사실 심리로 이미 사실들을 아십니다. 연적에 대한 카라마조프의 승리는 이번에도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여기서, 오, 여기서 그의 영혼에는 아주 새로운 국면이, 이 영혼이 겪었고 앞으로 언제 겪을 모든 국면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확실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외쳤다. "모욕당한 자연과 범죄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재판보다 더 온전하게 스스로 복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재판과 이 세상의 형벌은 자연의 형벌을 덜어 주기까지 하고, 이런 순간에는 범죄자의 영혼을 절망에서 구해 주는 것으로서 그 영혼에 꼭 필요하기까지 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위해 '예전의 그 사람', '다툴 여지 없는' 그 사람을 물리친다는 것, 그를, 그를, '미탸'를 새로워진 삶으로 함께 가자고 부르며 행복을 약속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카라마조프가 겪은 그 공포와 그 정신적 고통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버렸고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친김에 그때 피고가 놓인 처지의 참된 본질을 밝히기 위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견 하나를 지나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이 사랑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체포되는 그 찰나까지도 그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정열적으로

바라지만 이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왜 그는 그때 바로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린 결심을 버리고 자기 권총이 어디 있는지조차 잊었을까요? 바로 이 정열적인 사랑의 갈증과 그 갈증을 그때, 그 자리에서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잔치의 열기 속에서 그는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자기 연인, 그 어느 때보다 그에게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연인에게 붙박였습니다. 그는 그 여자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넋을 잃고, 그 여자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정열적인 갈증은 한순간 체포의 두려움뿐 아니라 양심의 가책마저 짓누를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 오, 다만 한순간! 저는 그때 범죄자의 영혼이 자기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 세 가지 요소에 다툴 여지 없이 노예처럼 굴복해 있었다고 그려 봅니다. 첫째, 취한 상태, 열기와 소란, 춤추는 발 구르는 소리, 노래의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그 여자, 그 여자, 술에 발그레 달아오른 채 노래하고 춤추며 취해서 그에게 웃어 주는 그 여자입니다! 둘째, 운명의 결말이 아직 멀다는, 적어도 가깝지는 않다는, 기껏해야 이튿날에야, 아침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리라는, 힘을 북돋는 아득한 꿈입니다. 그러니 몇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 무섭도록 많은 것입니다! 몇 시간이면 많은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형수를 처형장으로, 교수대로 데려갈 때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으리라고 그려 봅니다. 아직 길고 긴 거리를, 그것도 천천히 걸음을 맞추어 수천 명의 사람들 곁을 지나가야 하고, 그다음 다른 거리로 꺾어 들고, 그 다른 거리 끝에 가서야 무서운 광장이 나옵니다! 바로 행렬이 시작될 때 수치의 수레에 앉은 사형수는 앞에 아직 끝없는 삶이 있다고 느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하나씩 물러가고 수레는 자꾸 나아갑니다. 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거리로 꺾어 들기까지는 아직 그렇게나 멀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기운차게 오른쪽과 왼쪽을, 자기에게 눈길을 붙박은

무심하게 호기심에 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어른거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리로 꺾어 드는 모퉁이입니다. 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거리 하나가 통째로 남았다. 그리고 집들이 아무리 많이 물러가도 그는 줄곧 '아직 집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맨 끝까지, 광장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때 카라마조프에게도 이와 같았으리라고 저는 그려 봅니다. '저쪽에서는 아직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직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다. 오, 변호 계획을 짜고 반박을 궁리할 시간이 아직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그 여자가 이토록 사랑스럽구나!' 그의 영혼 속은 어지럽고 무섭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 돈에서 절반을 떼어 어딘가에 숨길 겨를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금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가져온 이 3천 루블에서 꼭 절반이 어디로 사라질 수 있었는지 저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모크로예에 여러 번 갔고, 거기서 이미 이틀 밤낮을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그 낡고 큰 목조 가옥은 헛간이며 회랑이며 모두 그가 잘 압니다. 저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집에서, 체포되기 조금 전에 돈의 일부가 어떤 틈에, 갈라진 틈에, 어떤 마룻널 밑에, 어디 구석에, 지붕 밑에 숨겨졌다고 추정합니다. 무엇 하러? 무엇 하러냐고요? 파국은 지금 당장 닥칠 수 있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맞을지 아직 생각해 두지 않았고, 그럴 겨를도 없고, 머릿속은 쿵쿵 울리고, *그 여자*에게 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돈은? 돈은 어떤 처지에서든 꼭 필요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에 이런 셈이 여러분께 부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우기지 않습니까, 그보다 한 달 전에도 역시 그에게는 몹시 불안하고 운명적인 어느 순간에 3천 루블에서 절반을 떼어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이것은 곧 증명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 생각은 카라마조프에게 낯익은 것이고, 그는 그것을 그려 보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예심판사에게 1천 5백 루블을 떼어 부적 주머니에(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넣었다고 우겼을 때, 어쩌면 그는 그 부적 주머니를 바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두 시간 전에, 갑자기 떠오른 영감에 따라 돈을 몸에 지니지 않으려고, 만일을 위해 아침까지 돈의 절반을 떼어 그곳 모크로예 어딘가에 숨겼기 때문입니다. 두 심연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카라마조프가 두 심연을, 그것도 둘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집을 우리는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돈은 지금도 거기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이튿날 사라져 지금은 피고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그 여자 곁에서,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는 그 여자에게 두 손을 내밀고 있었으며, 그 순간 모든 것을 얼마나 잊었던지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대답할 말을 아직 아무것도 마련해 두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의 머리도 불시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심판관들 앞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한 인간 앞에서 거의 두려워지는, 그리고 한 인간을 위해서도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가 이미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버티고, 아직 여러분과 맞서 버티려고 하는 그 짐승 같은 공포를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서 자기 보존의 모든 본능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나고, 그가 자기를 구하려고 묻고 괴로워하는 꿰뚫는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살피고, 여러분이 어느 쪽에서 내리칠지

기다리면서 흔들리는 머릿속에 순식간에 천 가지 계획을 짜내지만, 그래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말실수를 할까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인간 영혼의 이 굴욕적인 순간들, 영혼이 시련의 관문을 지나는 이 일, 자기를 구하려는 이 짐승 같은 갈증은 끔찍하며, 때로는 예심판사에게서조차 범죄자에 대한 전율과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넋이 나갔고, 공포에 질린 그의 입에서 그에게 몹시 불리한 몇 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피다! 당해도 싸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자기를 억눌렀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대답할지,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마련된 것은 다만 증거 없는 부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이고, 그 울타리 뒤에서 우리는 어쩌면 또 무엇인가를, 무슨 바리케이드라도 쌓을 것입니다. 우리가 묻기도 전에 그는 서둘러, 처음 내뱉은 불리한 외침들을 자기가 하인 그리고리의 죽음에만 죄가 있다고 여긴다는 뜻이었다고 풀이합니다. '이 피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분을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까?' 들리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바로 그 물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간 우리에게 도리어 묻는 겁니다! 들리십니까, 앞질러 튀어나온 이 한마디, '내가 아니라면', 이 짐승 같은 교활함, 이 순진함, 이 카라마조프다운 성급함이 들리십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내가 그랬다고는 생각도 하지 마라.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었어요.' 그는 서둘러 이렇게 자백합니다 (서두릅니다, 오, 무섭게 서두릅니다!). '그래도 죄는 없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죽이고 싶었다는 것만은 우리에게 양보합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솔직하니 그만큼 더 빨리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믿어 주시오, 이런 겁니다. 오, 이런 경우 범죄자는 때때로 믿기 어려울

만큼 경솔해지고 남의 말을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주 우연인 듯이, 예심은 갑자기 그에게 더없이 순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메르댜코프가 죽인 건 아닙니까?' 그러자 우리가 기대하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스메르댜코프를 끌어내면 가장 그럴듯해 보일 순간을 그가 미처 마련하고 고르고 붙잡기도 전에 우리가 앞질러 불시에 그를 붙잡았으니, 그는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천성대로 그는 곧바로 극단으로 내달려, 스메르댜코프는 죽일 수 없었다, 죽일 위인이 못 된다고 오히려 자기가 힘껏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의 교활함일 뿐입니다. 그는 결코, 결코 아직 스메르댜코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또 내세울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대체 누구를 내세우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순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이 일단 틀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는 어쩌면 내일이나 며칠 뒤에야 그를 내세울 것이고, 알맞은 순간을 찾아내어 몸소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보세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스메르댜코프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확신합니다. 그놈이 죽였어요, 그놈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음울하고 신경질적인 부인에 빠져드는데, 그런데도 성급함과 분노가 그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창문을 어떻게 들여다보았고 어떻게 공손하게 창문에서 물러났는지에 대해 더없이 서투르고 사실 같지 않은 해명을 일러 줍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직 사정을, 정신을 차린 그리고리가 어디까지 진술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몸 조사와 수색에 들어갑니다. 조사는 그를 노하게 하지만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3천 루블을 다 찾아내지 못했고, 찾아낸 것은 1천 5백 루블뿐이니까요. 그리고 물론 바로 이 성난 침묵과 부인의 순간에야 그의 머리에 난생처음 부적 주머니라는 생각이 튀어 오릅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는

스스로 이 지어낸 이야기가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믿을 만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럴듯한 소설 한 편이 통째로 나오게끔 지어낼 수 있을지 괴로워합니다, 무섭게 괴로워합니다. 이런 경우 예심이 해야 할 맨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불시에 덮쳐서, 범죄자가 자기의 소중한 생각을 그것을 드러내 버리는 온갖 순박함과 사실 같지 않음과 모순 그대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를 말하게 하려면, 무슨 새 사실을, 의미로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결코 짐작하지 못했고 도무지 알아챌 수 없었던 사건의 무슨 정황을 갑자기, 우연인 듯이 그에게 알려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오,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고가 뛰쳐나간 열린 문에 관한, 정신을 차린 하인 그리고리의 진술이었습니다. 그 문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그리고리가 그것을 보았을 수 있다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갑자기 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스메르댜코프가 죽였어요, 스메르댜코프가!' 그렇게 그는 자기의 소중한 생각, 자기의 근본적인 생각을 가장 사실 같지 않은 꼴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스메르댜코프는 그가 그리고리를 때려눕히고 달아난 뒤에야 죽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리고리가 쓰러지기 전에 열린 문을 보았고, 자기 침실에서 나오면서 칸막이 뒤에서 스메르댜코프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가 그에게 알려 주자, 카라마조프는 참으로 짓눌려 버렸습니다. 제 동료, 우리의 존경스럽고 재치 있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나중에 저에게, 그 순간 그가 눈물이 날 만큼 가여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일을 바로잡으려고 그는 서둘러 우리에게 그 이름난 부적 주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 수 없지, 이 이야기를 들어 보시오, 이런 겁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에 부적 주머니에 돈을 꿰매

넣었다는 이 지어낸 이야기를 왜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 아니라 이 경우에 찾아낼 수 있었던 가장 사실 같지 않은 꾸밈으로 보는지 이미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그려 보이면 이보다 더 사실 같지 않겠느냐를 두고 내기를 걸고 찾는다 해도 이보다 더 못한 것은 지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의기양양한 소설가를 세부로 꺾고 가루로 부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늘 그런 세부로 가득하지만, 이 불행하고 본의 아닌 작가들은 그것을 전혀 아무 뜻도 없고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것인 양 늘 업신여기고, 그런 것은 아예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오, 그 순간 그들에게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다만 웅장한 전체를 지어낼 뿐인데, 감히 그런 자질구레한 것을 그들에게 들이밀다니요! 그러나 바로 거기서 그들은 붙잡힙니다! 피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부적 주머니에 쓸 천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누가 꿰매 주었습니까?' '내가 직접 꿰맸습니다.' '그럼 아마포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피고는 벌써 기분이 상합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에게 거의 모욕적인 자질구레한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믿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 셔츠에서 뜯어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신 옷가지에서 한 조각 뜯겨 나간 그 셔츠를 찾아내겠군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셔츠를 찾아내기만 했다면(그런 셔츠가 정말로 있었다면 그의 트렁크나 서랍장에서 어찌 찾아내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실, 그의 진술이 옳다는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뒷받침하는 사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쩌면 셔츠가 아니라 하숙집 안주인의 머릿수건에 꿰맸는지도 모릅니다.' '머릿수건이라니, 무슨 머릿수건 말입니까?' '안주인한테서 가져왔어요, 굴러다니던 거예요, 낡아 빠진 옥양목 쪼가리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확실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무서운 순간에, 이를테면 처형장에 끌려갈 때에도 바로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가는 길에 언뜻 스친 어느 초록 지붕이나 십자가 위의 갈까마귀, 바로 이런 것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부적 주머니를 꿰매면서 집 안 사람들 눈을 피해 숨었으니, 누가 들어와 들킬까 봐 바늘을 손에 쥐고 얼마나 굴욕적으로 겁에 질려 괴로워했는지, 처음 노크 소리가 나자마자 어떻게 벌떡 일어나 칸막이 뒤로 달려갔는지(그의 하숙방에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심원 여러분, 제가 무엇 하러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세부와 자질구레한 것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갑자기 외쳤다. "바로 피고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터무니없는 소리를 고집스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달 내내, 그에게 운명적이었던 바로 그 밤부터, 그는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았고 이전의 공상 같은 진술에 해명이 될 만한 실제 정황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자질구레한 일이니 명예를 걸고 하는 내 말을 믿어 주시오, 이런 겁니다! 오, 우리는 기꺼이 믿고 싶습니다.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라도 우리는 믿기를 목마르게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사람의 피에 목마른 승냥이입니까?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단 하나라도 내놓아 보십시오, 짚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다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의 사실이어야지, 피고의 친동생이 피고의 얼굴 표정을 보고 내린 결론이나, 피고가 가슴을 치면서 틀림없이 부적 주머니를 가리켰을 것이라는 지적, 그것도 어둠 속에서 그랬다는 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실을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우리 고발을 거두겠습니다. 서둘러 거두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의가 부르짖고 있으니 우리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갔다. 그는 열병에 걸린 사람 같았다. 그는 흘린 피를 두고, "강도라는 비열한 목적으로" 아들에게 살해된 아버지의 피를 두고 부르짖었다. 그는 비극적이고 부르짖는 듯한 사실들의 총체를 굳건하게 짚었다. "그리고 재능으로 이름난 피고의 변호인에게서 무슨 말을 들으시든,"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여러분의 감수성을 두드리는 어떤 웅변적이고 감동적인 말이 이곳에 울려 퍼지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우리 정의의 성소에 있다는 것을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진리의 수호자이며, 우리 거룩한 러시아의, 그 기틀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거룩한 것의 수호자라는 것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곳에서 러시아를 대표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판결은 이 법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러시아 전체가 자기의 수호자이자 심판관으로서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의 판결로 용기를 얻거나 낙담할 것입니다. 그러니 러시아와 러시아의 기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의 트로이카는 곤두박질치듯 내달리고 있고, 어쩌면 파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두 손을 내밀며, 이 미쳐 날뛰는 염치없는 질주를 멈추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다른 민족들이 정신없이 질주하는 트로이카를 피해 비켜서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시인이 바랐듯이 트로이카를 우러러서가 결코 아니라 그저 공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공포 때문에, 어쩌면 트로이카에 대한 혐오 때문에 비켜서는 것이고, 그래도 비켜서기라도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문득 비켜서기를 그만두고, 질주하는 환영 앞에 단단한 벽으로 서서 자기 자신과 계몽과 문명을

구하려는 뜻에서 몸소 우리 방종의 미친 질주를 멈춰 세울지도 모릅니다!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 불안한 목소리들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이미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일을 무죄로 하는 판결로 점점 자라나는 그들의 증오를 쌓아 주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몹시 열중하기는 했어도 끝내 비장하게 끝맺었고, 실제로 그가 남긴 인상은 대단했다. 그 자신은 연설을 마치자 서둘러 나갔고, 되풀이하지만 다른 방에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쓰러졌다. 법정은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진지한 사람들은 만족했다. 그리 만족하지 않은 것은 부인들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웅변은 마음에 들어 했다. 더구나 그들은 결과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페튜코비치에게 기대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 사람이 말을 꺼낼 거고, 물론 모두를 이길 거예요!" 모두가 미탸를 힐끔힐끔 보았다. 검사의 논고 내내 그는 두 손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눈을 내리깐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따금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을 뿐이었다. 특히 그루셴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랬다. 검사가 그 여자에 대한 라키틴의 의견을 전할 때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악의에 찬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꽤 들리게 이렇게 내뱉었다. "베르나르 놈들!" 그런데 이폴리트 키릴로비치가 모크로예에서 어떻게 자기를 신문하고 괴롭혔는지 이야기할 때, 미탸는 고개를 들고 무서운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연설의 어느 대목에서는 벌떡 일어나 무엇인가 소리치려는 듯도 했으나, 그래도 자기를 억누르고 경멸하듯 어깨만 으쓱했을 뿐이었다. 논고의 이 마지막 대목, 바로 모크로예에서 범죄자를 신문하던 때 검사가 세운 공훈에 대해 나중에 우리 사교계에서는 말들이 오갔고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를 두고 슬쩍 비웃었다. "그 사람이 자기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겼다는 거지." 공판은 중단되었으나 아주

잠깐, 15분, 길어야 20분 동안이었다. 방청석에서는 말소리와 외침이 울렸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나는 기억해 두었다.

"진지한 연설이었소!" 어느 무리에서 한 신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심리학을 너무 많이 비틀어 댔어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다 사실이잖아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요, 그런 데는 그 사람이 명수지요."

"결산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우리한테도 결산을 했지요." 세 번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논고 첫머리에서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모두가 표도르 파블로비치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끝에서도 그랬지요. 다만 그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게다가 모호한 데도 있었고요."

"좀 열을 올렸어요."

"공정하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합니다요."

"아니요, 그래도 솜씨는 좋았어요. 오래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한 거지요, 헤헤!"

"변호인은 무슨 말을 할까요?"

다른 무리에서는 이랬다.

"그런데 페테르부르크 사람을 지금 괜히 건드렸어요. '감수성을 두드리는' 어쩌고 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그건 서툴렀어요."

"서둘렀지요."

"신경질적인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피고는 어떻겠어요?"

"그렇습죠. 미텐카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변호인은 무슨 말을 할까요?"

세 번째 무리에서는 이랬다.

"저기 저 부인은 누구예요, 손잡이 안경을 들고 뚱뚱한, 가장자리에 앉은 부인 말이에요?"

"어느 장군 부인인데, 이혼한 여자예요, 내가 알아요."

"그러게, 손잡이 안경을 들었네요."

"하찮은 여자예요."

"아니요, 제법 매력 있는데요."

"그 옆으로 두 자리 건너 금발 아가씨가 앉아 있잖아요, 그쪽이 더 나아요."

"그런데 그때 모크로예에서 그 사람들이 그를 솜씨 좋게 덮쳤지요, 안 그래요?"

"솜씨야 좋았지요. 또 그 얘기를 했네요. 그 일을 여기 이 집 저 집 다니며 벌써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도 참지 못했군요. 자존심이에요."

"한이 맺힌 사람이니까요, 헤헤!"

"게다가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고요. 수사도 너무 많고 문장도 길어요."

"게다가 겁을 주잖아요, 눈여겨보세요, 줄곧 겁을 줘요. 트로이카 얘기 기억나세요? '저쪽에는 햄릿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은 카라마조프들이 있을 뿐!' 그건 솜씨 좋았어요."

"그건 자유주의에 아첨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지요!"

"게다가 변호사도 겁나는 거고요."

"그래요, 페튜코비치 씨는 무슨 말을 할까요?"

"글쎄,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농군들은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번째 무리에서는 이랬다.

"그런데 트로이카 얘기는 잘했어, 민족들 얘기하는 대목 말이야."

"그리고 정말이잖아, 기억나? 민족들이 기다려 주지 않을 거라고 한 대목."

"그게 왜?"

"영국 의회에서 지난주에 벌써 어떤 의원이 일어나서, 허무주의자들 문제로, 우리를 교화하려면 이 야만 민족에 끼어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정부에 물었거든. 이폴리트가 말한 건 그 사람 이야기야, 그 사람 이야기라는 걸 내가 알지. 그 사람이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

"도요새들한테는 아직 멀었지."

"무슨 도요새? 왜 멀었다는 거야?"

"우리가 크론시타트를 막아 버리고 그놈들한테 곡식을 안 주면 돼. 어디서 구하겠어?"

"아메리카에서는? 이제는 아메리카에서 구하지."

"거짓말."

그러나 종이 울렸고 모두가 제자리로 우르르 돌아갔다. 페튜코비치가 연단에 올랐다.

제10장 변호인의 변론. 양날의 칼

이름난 연설가의 첫마디가 울리자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법정 전체가 그에게 눈길을 박았다. 그는 더없이 곧바르고 소박하게, 확신에 차서, 그러나 조금도 거만하지 않게 시작했다. 웅변을 부리려는 시도도, 비장한 가락도, 감정으로 울리는 낱말도 조금도 없었다. 그는 공감하는 사람들의 가까운 모임에서 말을 꺼낸 사람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훌륭하고 우렁차고 호감이 가는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 자체에서 이미 무언가 진실하고 순박한 것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모두가 곧바로 알아챘다. 이 연설가는 갑자기 참으로 비장한 데까지 솟아올라 "알 수 없는 힘으로 마음을 내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쩌면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보다 덜 바르게 말했지만, 긴 문장 없이 말했고 오히려 더 정확했다. 부인들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는 특히 연설 첫머리에 줄곧 어쩐지 등을 구부렸는데, 절을 한다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고 날아가려는 듯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기다란 등의 절반으로만 몸을 숙이는 것 같았다. 마치 그 길고 가느다란 등 한가운데에 경첩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등이 거의 직각으로 꺾일 수 있는 것 같았다. 연설 첫머리에 그는 어쩐지 흩어지게, 체계도 없이 사실을 여기저기서 집어 들며 말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전체가 이루어졌다. 그의 연설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앞부분은 비판, 고발에 대한 반박이었고, 때로는 독하고 빈정거리는 반박이었다. 그러나 연설 뒷부분에 이르자 그는 갑자기 말투도,

수법까지도 바꾼 듯하더니 단번에 비장한 데까지 솟아올랐고, 법정은 그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온통 환희로 떨었다. 그는 곧바로 사건으로 들어갔다. 자기 활동 무대는 페테르부르크이지만 피고들을 변호하러 러시아의 여러 도시를 찾는 것이 처음은 아니며, 다만 그 결백을 자기가 확신하거나 미리 예감하는 피고들만 변호한다는 말로 그는 시작했다. "이번 경우에도 저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풀이했다. "처음 신문에 실린 통신문들만 보고도 저에게는 이미 피고에게 유리한, 저를 몹시 놀라게 한 무언가가 언뜻 비쳤습니다. 한마디로, 무엇보다 먼저 제 관심을 끈 것은 어떤 법률적 사실이었습니다. 재판 실무에서 자주 되풀이되는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사건처럼 이토록 온전하게, 이토록 특징적인 면모를 갖추고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 연설의 끝에, 제가 할 말을 마칠 때에야 말로 정리해 내놓아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을 맨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효과를 감추어 두거나 인상을 아끼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 쪽에서 보면 셈에 어두운 일이겠지만, 그 대신 진실합니다. 제 이 생각, 제 공식은 이렇습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들의 총체는 압도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씩 따로, 그 자체로 살펴보면 비판을 견뎌 내는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소문과 신문을 따라가며 저는 제 생각을 점점 더 굳혔고, 그러다 갑자기 피고의 가족에게서 그를 변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둘러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서운 사실들의 총체를 깨뜨리고, 고발하는 사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증명되지 않았고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저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시작했고,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외쳤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새로 온 사람입니다. 모든 인상이 선입견 없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성미가 거칠고 고삐 풀린 피고는 이 읍의 어쩌면 백 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미리 저를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부터 그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 사회의 도덕 감정이 정당하게 들끓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피고는 거칠고 고삐가 풀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곳 사회는 그를 받아 주었고, 재능이 뛰어나신 검사님 댁에서도 그는 다정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Nota bene. 이 말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두세 번 웃음이 터졌는데, 금세 눌러지기는 했어도 모두가 알아챘다. 검사가 마지못해 미탸를 자기 집에 들였다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 모두가 아는 일이었다. 그 까닭은 오로지 검사 부인이 왜 그런지 미탸를 흥미롭게 여겼기 때문인데, 이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덕이 높고 존경받는 분이지만 공상을 좋아하고 고집이 세며, 어떤 경우에, 주로 자질구레한 일에서 남편과 맞서기를 좋아했다. 하기야 미탸가 그 집을 찾은 것은 꽤 드물었다.) 그런데도 감히 이렇게 짐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인은 말을 이었다. "제 상대처럼 이토록 독립적인 정신과 공정한 성격을 지닌 분에게서도 제 불행한 의뢰인에 대해 얼마간 잘못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선입견을 품고 대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나 그럴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욕당한 도덕 감정, 더구나 그보다 더한 미적 감정은 때로 사정이 없습니다. 물론 재능이 뛰어난 논고에서 우리는 피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엄격한 분석, 사건에 대한 엄격한 비판적 태도를 모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심리적 깊이를 펼쳐 보였는데, 피고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선입견을 품고 있었다면 이 깊이 속으로 파고드는 일은 아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건에 대한 더없이 악의적이고 미리 계획된 태도보다도 더 나쁘고 더 파멸적이기까지 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예술적인 놀이에, 예술 창작의 욕구에, 말하자면 소설을 지어내려는 욕구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특히 하느님이 우리 재능에 내려 주신 심리적 재주가 넉넉할 때 그렇습니다. 아직 페테르부르크에 있을 때, 이곳에 올 채비를 할 때부터 저는 미리 귀띔을 받았습니다. 아니, 귀띔이 없었어도 저는 이곳에서 깊이 있고 더없이 섬세한 심리학자를 상대로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자질로 우리의 아직 젊은 법조계에서 이미 오래전에 남다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리학이란 깊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방청석에서 웃음). 오, 여러분은 물론 제 진부한 비유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저는 너무 웅변적으로 말하는 데는 서툴러서요. 그러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검사의 논고에서 맨 처음 눈에 띈 것을 집어 들겠습니다. 피고는 밤에 정원에서 달아나다가 울타리를 넘으면서, 자기 다리에 매달린 하인을 구리 절굿공이로 쓰러뜨립니다. 그다음 곧바로 다시 정원으로 뛰어내려, 그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알아내려고 쓰러진 사람 곁에서 꼬박 5분 동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가 가엾어서 그리고리 노인에게로 뛰어내렸다는 피고의 진술이 옳다는 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순간에 그런 감수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부자연스럽다, 그가 뛰어내린 것은 바로 자기 악행의 유일한 증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고, 그러니 다른 어떤 까닭이나 끌림이나 감정으로도 정원에 뛰어내릴 수 없었을 테니 바로 그것으로 자기가 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언한 셈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리학을 집어 들어 사건에 대 보되 다른 끝에서부터 대 보면, 조금도 덜 그럴듯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살인자는 증인이 살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조심성에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그는 자기가 죽인 아버지의 서재에, 검사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3천 루블이 들어 있다고 쓰인 찢어진 봉투라는 꼴로 자기를 겨누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가 이 봉투를 가지고 가 버렸다면,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 돈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 피고가 돈을 털어 갔다는 것을 온 세상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것은 검사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한쪽으로는 조심성이 모자랐고, 사람이 넋이 나가고 겁에 질려 바닥에 증거를 남긴 채 달아났는데, 2분쯤 뒤 다른 사람을 내리쳐 죽이자 그때는 곧바로 더없이 냉혹하고 셈 빠른 조심성이 우리를 섬기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합시다, 그랬다고 합시다. 이런 형편에서 내가 방금은 캅카스의 독수리처럼 피에 굶주리고 눈이 밝다가 다음 순간에는 보잘것없는 두더지처럼 눈이 멀고 겁이 많아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심리학의 섬세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피에 굶주리고 잔인하게 셈이 빨라서, 죽이고 나서 오로지 나를 겨누는 증인이 살았는지 아닌지 보려고 뛰어내렸다면, 무엇 하러 이 새 희생자 곁에서 꼬박 5분이나 애를 쓰고, 게다가 어쩌면 새 증인들까지 불러들이겠습니까? 무엇 하러 손수건을 적셔 쓰러진 사람 머리에서 피를 닦아 주고, 이 손수건이 나중에 바로 나를 겨누는 증거가 되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셈이 빠르고 모질다면, 뛰어내린 김에 쓰러진 하인의 머리를 바로 그 절굿공이로 또 한 번, 또 한 번 그냥 내리쳐서 아주 죽여 버리고, 증인을 뿌리 뽑아 마음의 걱정을 모두 덜어 버리는 편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를 겨누는 증인이 살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뛰어내리면서, 그 자리 오솔길에 또 다른 증인을, 바로 이 절굿공이를 남겨 둡니다. 나는 이 절굿공이를 두 여자에게서 집어 왔고, 두 여자는 언제든 나중에 이 절굿공이를 자기 것이라고 알아보고 내가 자기들한테서 가져갔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솔길에 잊어버렸다거나 정신이 없어서, 넋이 나가서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무기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열다섯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찾아냈으니까요. 묻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 하러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늙은 하인을 죽였다는 것이 괴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해서, 저주를 퍼부으며 살인의 무기인 절굿공이를 내던진 것입니다. 달리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 하러 그토록 힘껏 휘둘러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아픔과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물론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죽였다면 쓰러진 다른 사람에게 가엾어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연민이 아니라 제 몸을 구할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두개골을 아주 박살 냈을 것이지 5분 동안 그를 붙들고 애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연민과 선한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 것은 바로 그 전에 양심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벌써 다른 심리학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일부러 지금 몸소 심리학을 써 보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심리학은 더없이 진지한 사람들까지도 소설로 끌어들이고, 그것도 전혀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지나친 심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심리학을 얼마간 남용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방청석에서 찬성하는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모두 검사를 겨냥한 것이었다. 변호인의 연설을 모두 자세히 옮기지는 않겠고, 그 가운데 몇몇 대목, 몇몇 가장 중요한 요점만 골라 옮기겠다.

제11장 돈은 없었다. 강도도 없었다

변호인의 연설에는 모두를 놀라게 한 대목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 운명의 3천 루블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 그 돈을 털어 갈 가능성마저 완전히 부인한 대목이었다.

"배심원 여러분." 변호인은 이야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에서는 선입견 없는 새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점에 놀랍니다. 바로 강도죄로 고발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확히 무엇을 털어 갔는지 사실로 짚어 보일 수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바로 3천 루블을 털어 갔다고 하지만, 그 돈이 정말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져 보십시오. 첫째, 3천 루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고, 누가 그 돈을 보았습니까? 그 돈을 보고, 그것이 겉에 글씨가 쓰인 봉투에 넣어져 있었다고 짚은 사람은 하인 스메르댜코프 하나뿐입니다. 그가 파국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피고와 피고의 동생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알렸습니다. 스베틀로바 양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아무도 그 돈을 직접 보지 못했고, 본 사람은 또다시 스메르댜코프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절로 물음이 생깁니다. 그 돈이 있었고 스메르댜코프가 그것을 본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가 그 돈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입니까? 주인이 그에게 말하지 않고 이 돈을 침대 밑에서 꺼내 다시 상자에 넣었다면 어떻습니까? 눈여겨보십시오. 스메르댜코프의 말에 따르면 돈은 침대 밑, 요 밑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그 돈을 요 밑에서 낚아채야 했을 텐데,

그런데도 침대는 조금도 구겨져 있지 않았고, 이 점은 조서에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피고가 어떻게 침대를 조금도 구기지 않을 수 있었으며, 게다가 피투성이 손으로, 이번에 일부러 새로 깐 아주 깨끗하고 고운 침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들 말할 것입니다. 그럼 바닥에 있던 봉투는? 바로 이 봉투 이야기를 해 볼 만합니다. 아까 저는 조금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신 검사님께서 이 봉투 이야기를 꺼내시다가 갑자기 몸소, 들으십시오, 여러분, 몸소 연설에서 이 봉투에 대해 밝히셨으니까요. 바로 스메르댜코프가 죽였다는 추측이 터무니없다고 짚으시던 대목에서 말입니다. '이 봉투가 없었다면, 그것이 증거로 바닥에 남지 않았다면, 강도가 그것을 가지고 가 버렸다면,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 돈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 피고가 돈을 털어 갔다는 것을 온 세상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글씨가 쓰인 이 찢어진 종잇조각 하나가, 검사 자신이 인정하시듯이, 피고를 강도죄로 고발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도가 있었다는 것도, 어쩌면 돈이 있었다는 것조차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잇조각이 바닥에 굴러다녔다는 것 하나가 그 안에 돈이 있었고 그 돈을 털어 갔다는 증거란 말입니까? '그러나 스메르댜코프가 봉투에 든 돈을 보지 않았느냐'고들 대답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가 그 돈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냐, 바로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스메르댜코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파국 이틀 전에 그 돈을 보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를테면 이런 사정쯤은 추측해 볼 수 없단 말입니까. 표도르 파블로비치 노인이 집에 틀어박혀 연인을 성급하고 히스테릭하게 기다리다가, 할 일이 없으니 별안간 봉투를 꺼내 뜯어 보고 싶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봉투쯤이야, 어쩌면 믿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무지갯빛 지폐 서른 장을 한 뭉치로

보여 주면 틀림없이 더 잘 먹히겠지, 군침을 흘리겠지.' 그래서 그는 봉투를 찢고 돈을 꺼낸 다음, 주인다운 거침없는 손길로 봉투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물론 무슨 증거가 될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들어 보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이런 추측, 이런 사실보다 더 있을 법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때는 강도죄의 고발이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돈이 없었으니 강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봉투가 그 안에 돈이 있었다는 증거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면, 왜 저는 반대로, 바로 주인이 미리 돈을 꺼내 가서 그 안에 이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봉투가 바닥에 굴러다녔다고 주장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 하지만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몸소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면, 그런 경우 돈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나오지 않았는데?' 첫째, 그의 상자에서 돈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아침에, 아니 전날에 벌써 돈을 꺼내 달리 처리하고, 내주고, 보내 버리고, 마침내 자기 생각과 행동 계획을 밑바닥부터 바꾸면서도 그것을 미리 스메르댜코프에게 알릴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추측의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그토록 끈질기게, 그토록 단호하게 피고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강도를 노리고 살인을 저질렀고 정말로 강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설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어떤 물건을 털어 갔다고 주장하려면 그 물건을 짚어 보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움직일 수 없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조차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 페테르부르크에서 열여덟 살 난, 거의 소년이나 다름없는 한 젊은이, 좌판을 메고 다니는 하찮은 행상이 대낮에 도끼를 들고 환전상 가게에 들어가 놀랍도록 전형적인 대담함으로 가게 주인을 죽이고 돈 1천 5백 루블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섯 시간쯤 뒤에 그는 체포되었는데, 그가

이미 써 버린 15루블을 빼고 그 1천 5백 루블이 모두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인이 있은 뒤 가게로 돌아온 점원이 도둑맞은 금액만이 아니라 그 돈이 정확히 어떤 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까지, 곧 무지갯빛 지폐가 몇 장, 파란 지폐가 몇 장, 빨간 지폐가 몇 장, 금화가 몇 닢이고 정확히 어떤 금화였는지까지 경찰에 알렸는데, 체포된 살인자에게서 바로 그런 지폐와 금화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살인자가, 자기가 죽이고 바로 이 돈을 가지고 나갔다고 온전하고 솔직하게 자백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것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제가 돈을 알고, 보고, 손으로 만지니, 그 돈이 없다거나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삶과 죽음, 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다 치자'고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 흥청망청 놀며 돈을 뿌렸고, 그에게서 1천 5백 루블이 나왔다. 그는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러나 바로 1천 5백 루블만 나왔고 그 금액의 다른 절반은 끝내 찾아내지도 밝혀내지도 못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돈이 전혀 다른 돈, 결코 어떤 봉투에도 들어 있었던 적이 없는 돈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심은 시간 계산으로(그것도 더없이 엄격한 계산으로) 피고가 하녀들 집에서 관리 페르호틴에게로 뛰어갔을 때 집에도 들르지 않았고 아무 데도 들르지 않았으며, 그다음에는 줄곧 사람들 앞에 있었고, 그러니 3천 루블에서 절반을 떼어 읍내 어딘가에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 고찰 때문에 검사는 돈이 모크로예 마을 어느 갈라진 틈에 숨겨져 있다고 추측하셨던 것입니다. 우돌포 성의 지하실에라도 숨겼다는 말입니까, 여러분?[1] 이것이 공상적인 추측, 소설 같은 추측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눈여겨보십시오, 이 추측 하나만, 곧 모크로예에 숨겼다는 추측 하나만 무너지면 강도죄의 고발 전체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1천 5백 루블은 대체

어디로,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피고가 아무 데도 들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그 돈이 무슨 기적으로 사라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설로 한 인간의 삶을 망쳐 버릴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몸에서 나온 이 1천 5백 루블을 어디서 구했는지 해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밤 전까지 그에게 돈이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피고는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술했고, 원하신다면, 배심원 여러분, 원하신다면 말씀드리지만, 이 진술보다 더 있을 법한 것은 결코 없었고 있을 수도 없으며, 게다가 이보다 피고의 성격과 영혼에 더 잘 어울리는 것도 없습니다. 고발 측은 자기가 지은 소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혼녀가 그토록 치욕스럽게 내민 3천 루블을 받기로 한 의지 약한 사람이 절반을 떼어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꿰매 넣었다 하더라도 이틀마다 뜯어서 100루블씩 떼어 냈을 것이며, 그렇게 한 달 만에 다 써 버렸으리라는 겁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어떤 반박도 용납하지 않는 말투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전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소설을 지어냈는데 그 소설 속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다른 인물을 지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그가 파국 한 달 전에 베르호프체바 양에게서 받은 3천 루블을 모크로예 마을에서 1코페이카처럼 단번에 몽땅 써 버렸다는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그는 거기서 절반을 떼어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증인들이란 누구입니까? 그 증인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법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남의 손에 든 떡은 늘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인들 가운데 누구도 그 돈을 직접 세어 보지 않았고, 다만 제 눈짐작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증인 막시모프는 피고 손에 2만 루블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심리학은 양날의 칼이니, 여기서도 저에게 다른 날을 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파국 한 달 전, 베르호프체바 양은 우편으로 부쳐 달라며 피고에게 3천 루블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물음이 있습니다. 아까 선언된 것처럼 그토록 치욕스럽고 그토록 굴욕적으로 맡겼다는 것이 옳습니까? 같은 일에 대한 베르호프체바 양의 첫 번째 진술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술에서 우리가 들은 것은 오직 분노와 복수의 외침, 오래 숨겨 온 증오의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첫 번째 진술에서 한 번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두 번째 진술도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결론 내릴 권리가 생깁니다. 검사는 이 소설에 손대기를 '원하지 않고, 감히 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라지요, 저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짚어 두게 해 주십시오. 다툴 여지 없이 높이 존경받는 베르호프체바 양처럼 순결하고 도덕이 높은 분이, 그런 분이, 제 말씀은, 피고를 망치려는 똑바른 목적으로 법정에서 갑자기, 단번에 자기 첫 진술을 바꾼다면, 그 진술이 공평하게, 냉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복수하는 여인이 많은 것을 부풀릴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릴 권리마저 우리에게서 빼앗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 돈을 내밀 때의 그 부끄러움과 치욕을 부풀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은 아직 받을 수도 있을 만하게, 특히 우리 피고처럼 경솔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을 만하게 내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때 셈으로 따져 자기에게 돌아올 그 3천 루블을 머잖아 아버지에게서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솔한 일이지만, 바로 그 경솔함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그 돈을 내주리라고, 자기가 그 돈을 받으리라고, 그러니 베르호프체바 양이

맡긴 돈을 언제든 우편으로 부쳐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가 같은 날, 고발대로라면 바로 그날, 받은 돈에서 절반을 떼어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라마조프는 넓다고 외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고, 카라마조프가 바라볼 수 있는 맨 끝의 두 심연을 외친 것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카라마조프는 바로 두 면, 두 심연을 지닌 천성이어서, 더없이 고삐 풀린 방탕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다른 쪽에서 무언가 그를 강하게 치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쪽이란 사랑, 바로 그때 화약처럼 불붙은 이 새로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바로 그 연인과 벌이는 방탕보다 더 필요합니다, 오!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나는 당신 거예요,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싫어요' 하고 말하면, 그는 그 여자를 붙잡아 데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데리고 떠날 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방탕보다 중요합니다. 카라마조프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는 바로 이것으로, 이 걱정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돈을 떼어 만일을 위해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 무엇이 믿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피고에게 3천 루블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돈으로 아들의 연인을 꾀어내기로 정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내주지 않으면'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앞에서 도둑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이 부적 주머니에 넣어 줄곧 몸에 지니고 다니는 바로 이 1천 5백 루블을 가지고 가서 베르호프체바 양 앞에 내놓으며 '나는 비열한 놈이지만 도둑은 아니오' 하고 말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이 1천 5백 루블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결코 부적 주머니를 뜯지 않고 100루블씩 떼어 내지 않을

까닭이 이미 두 겹으로 생긴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피고에게 명예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명예심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다고 칩시다, 아주 자주 잘못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은 있습니다, 정열에 이를 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점점 얽혀 들고, 질투의 고통은 극에 이르며, 늘 같은, 늘 예전의 두 물음이 피고의 달아오른 머릿속에서 점점 더 괴롭게 떠오릅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돌려주면, 무슨 돈으로 그루셴카를 데리고 떠나지?' 이 한 달 내내 그가 그렇게 미친 듯이 굴고, 술에 취하고, 선술집마다 행패를 부렸다면, 그것은 어쩌면 바로 자기 자신이 괴롭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물음은 마침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3천 루블을 청해 보라고 막내 동생을 아버지에게 보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소 뛰어들어 결국 증인들 앞에서 노인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받을 데가 없습니다. 얻어맞은 아버지가 줄 리 없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는 자기 가슴을, 바로 부적 주머니가 있는 가슴 윗부분을 치며 동생에게 맹세합니다. 자기에게는 비열한 놈이 되지 않을 방도가 있지만, 그래도 비열한 놈으로 남고 말 것이다, 자기가 그 방도를 쓰지 못하리라는 것을, 마음의 힘이 모자라고 기개가 모자라리라는 것을 내다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왜, 왜 고발 측은 그토록 깨끗하고 진실하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내놓은 알렉세이 카라마조프의 진술을 믿지 않습니까? 왜 반대로 저더러는 무슨 갈라진 틈에, 우돌포 성의 지하실에 있는 돈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날 저녁, 동생과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고는 그 운명적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편지가 피고의 강도죄를 밝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증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청할 거야,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이고 요 밑에서, 분홍 리본을 맨 봉투에 든 것을 가져갈

거야, 이반만 떠나 준다면.' 살인 계획서가 다 갖추어졌다, 그가 아니고 누구겠느냐는 겁니다. '쓰인 그대로 이루어졌다!' 고발 측은 외칩니다. 그러나 첫째, 편지는 술에 취해 무섭게 신경이 곤두선 채 쓴 것입니다. 둘째, 봉투에 대해서는 또다시 스메르댜코프의 말을 듣고 쓴 것입니다. 그 자신은 봉투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셋째, 쓰기는 쓴 것이지만, 쓰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피고가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까, 돈을 찾아냈습니까, 그 돈이 있기는 했습니까? 게다가 피고가 돈 때문에 달려갔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털러 정신없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여자가, 자기를 짓밟아 버린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러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계획서대로, 쓰인 그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곧 숙고한 강도짓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뜻하지 않게, 질투의 광분 속에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달려가서 죽이고 돈도 챙겼다'고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 그가 죽이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도죄의 고발을 저는 분개하며 물리칩니다. 무엇을 털어 갔는지 정확히 짚어 보일 수 없다면 강도죄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이기는 했습니까, 강도짓 없이 죽이기는 했습니까? 이것은 증명되었습니까? 이것 또한 소설이 아닙니까?"

---

1. 영국 작가 앤 래드클리프의 고딕 소설 『우돌포의 비밀』(1794)에 나오는 성. 지하실과 비밀 통로가 가득한 괴기 소설의 무대로 이름났다.

제12장 살인도 없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기에는 한 인간의 삶이 걸려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발 측이 스스로, 바로 마지막 날까지, 오늘까지, 재판 날까지 피고를 완전하고 온전한 살인의 사전 계획으로 고발할지 망설였다고, 오늘 법정에 제출된 바로 이 운명적인 '술 취한' 편지가 나오기까지 망설였다고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쓰인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그 여자를 쫓아, 오로지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가 집에 있었다면 그는 아무 데도 달려가지 않고 그 여자 곁에 머물렀을 것이고, 편지에서 약속한 일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달려갔고, 자기의 '술 취한' 편지는 그때 어쩌면 전혀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절굿공이를 챙겨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지요, 이 절굿공이 하나를 두고 우리에게 심리학을 통째로 끌어냈습니다. 왜 그는 이 절굿공이를 무기로 여기고 무기로 움켜쥐어야 했는가 따위, 따위 말입니다. 여기서 저에게는 더없이 평범한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 만약 이 절굿공이가 눈에 띄는 곳에, 피고가 그것을 움켜쥔 선반 위에 놓여 있지 않고 찬장 안에 치워져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랬다면 그것은 피고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무기 없이 빈손으로 달려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절굿공이를 무장과 사전 계획의 증거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는 선술집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고함쳤고, 이틀 전 술 취한 편지를 쓴 그날 저녁에는 조용히 있으면서 선술집에서 상인의 점원 한 사람하고만 다투었는데, 그것은 '카라마조프는 다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살인을, 그것도 계획대로, 쓰인 그대로 꾀했다면 틀림없이 점원하고도 다투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선술집에 아예 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꾀한 영혼은 고요와 숨어듦을 찾고, 사라짐을 찾으니까요. 남이 보지 않도록, 남이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잊어 주시오.' 이것은 셈만이 아니라 본능에서 나옵니다. 배심원 여러분, 심리학은 양날의 칼이고, 우리도 심리학을 이해할 줄 압니다. 이 한 달 내내 선술집에서 지른 이 모든 고함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이나 술 취한 건달들이 술집에서 나오며 서로 다투면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하고 외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적인 편지도, 그것 또한 술 취한 짜증이 아닙니까, 술집에서 나오는 사람의 고함이 아닙니까? 죽여 버리겠다, 너희를 다 죽여 버리겠다, 이런 것 말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없었습니까? 왜 이 편지는 운명적이고, 왜 반대로 우스운 것은 아닙니까? 바로 살해된 아버지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증인이 무장한 채 달아나는 피고를 정원에서 보았으며 자기도 그에게 맞아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쓰인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편지는 우스운 것이 아니라 운명적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덕분에 우리는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정원에 있었다면 곧 그가 죽였다.' 이 두 마디, 있었다면 곧 틀림없이 그렇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고발 전체가 바닥납니다. '있었으니 곧 그렇다.' 그런데 있었다 해도 그렇지 않다면요? 오, 사실들의 총체, 사실들의 일치가 정말로 꽤 웅변적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총체에 홀리지 말고 이 모든 사실을 따로따로 살펴보십시오. 이를테면 왜 고발 측은 아버지의 창문 앞에서 달아났다는 피고의 진술이 참되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를 갑자기 사로잡은 공손함과 '경건한' 감정을 두고 고발 측이 이곳에서 늘어놓은 빈정거림까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무언가 그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면, 곧 감정의 공손함은 아니어도 감정의 경건함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 주셨나 봅니다.' 피고는 예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베틀로바 양이 아버지 집에 없다고 확신하자마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창문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고발 측은 우리에게 반박합니다. 그런데 왜 확신할 수 없었습니까? 피고가 보낸 신호에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어떤 말 한마디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외침이 튀어나왔을 수도 있으며, 그래서 피고가 스베틀로바 양이 거기 없다고 갑자기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기로 짐작해 둔 대로 짐작해야 합니까? 현실에서는 가장 섬세한 소설가의 관찰도 빠져나가는 수천 가지가 언뜻 스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리고리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으니 피고는 틀림없이 집 안에 있었고, 그러니 죽였다.' 그 문에 대해서는, 배심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열린 문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만 증언하는데, 그 사람 자신이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문이 열려 있었다고, 피고가 부인했다고, 자기 처지에서 아주 이해할 만한 자기방어의 감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가 집 안에 숨어들었고 집 안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왜 꼭 있었다면 죽였다는 겁니까? 그는 뛰어들어 방들을 달려 지나갈 수 있었고, 아버지를 떠밀 수 있었고, 아버지를 때릴 수조차 있었지만, 스베틀로바

양이 아버지 집에 없다고 확인하고는 그 여자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달아났다는 것을 기뻐하며 달아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쩌면 그는 순수한 감정,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기에, 아버지를 죽이려는 유혹에서 달아났기에,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기쁨을 느꼈기에, 1분 뒤 울타리에서 흥분한 김에 자기가 쓰러뜨린 그리고리에게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사랑이 다시 그에게 열려 그를 새 삶으로 부르는데, 뒤에는 아버지의 피투성이 시체가 있고 그 시체 뒤에는 처형이 있어서 그가 이미 사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크로예 마을에서 피고가 놓인 무서운 상태를 검사는 소름 끼칠 만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그려 보입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그래도 사랑을 인정하셨고, 그것을 자기 심리학으로 풀이하셨습니다. '취한 상태, 범죄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아직 기다릴 시간이 길다 따위, 따위.' 그러나 검사님, 다시 묻습니다만, 당신은 또 다른 인물을 지어내신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아버지의 피가 그에게 묻어 있었다면, 그 순간에 아직 사랑을 생각하고 법정 앞에서 둘러댈 궁리를 할 수 있을 만큼 피고가 그토록, 그토록 거칠고 무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함께 가자고 부르고, 새 행복을 약속한다는 것이 막 드러났으니, 오, 맹세합니다, 그때 그는 자살하려는 욕구를 두 배로, 세 배로 느꼈어야 했고, 뒤에 아버지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면 틀림없이 자살했을 것입니다! 오, 아닙니다, 자기 권총이 어디 있는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피고를 압니다. 고발 측이 그에게 덮어씌운 거칠고 나무토막 같은 무정함은 그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는 자살했을 것이고,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자살하지 않은 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피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크로예에서 그는 오직 자기가

쓰러뜨린 그리고리 노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했으며, 노인이 일어나 정신을 차리기를, 자기가 친 일격이 치명상이 아니어서 그 때문에 처형을 받지 않게 되기를 속으로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왜 사건을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피고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무슨 확고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시체가 있지 않으냐고, 곧바로 다시 우리에게 짚을 것입니다. 그가 뛰어나갔고 그가 죽이지 않았다면, 그럼 누가 노인을 죽였느냐고 말입니다.

"되풀이하지만, 여기에 고발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면 누가 죽였느냐? 그 대신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참으로 세울 사람이 그렇게 아무도,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날 밤 그 집에 있었고 드나든 사람을 고발 측이 하나하나 손꼽아 세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섯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셋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해된 사람 자신, 그리고리 노인, 그리고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피고와 스메르댜코프가 남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가 스메르댜코프를 지목하는 것은 달리 지목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며, 여기 누군가 여섯 번째 사람이, 무슨 여섯 번째 사람의 그림자라도 있었다면 피고 자신이 이를 부끄러워하며 곧바로 스메르댜코프를 고발하기를 그만두고 이 여섯 번째 사람을 지목했으리라고 열띠게 외칩니다. 그러나 배심원 여러분, 왜 저는 정반대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까?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피고와 스메르댜코프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여러분이 제 의뢰인을 고발하는 것은 오로지 고발할 사람이 달리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완전히 선입견에 사로잡혀 미리 스메르댜코프를 모든 혐의에서 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메르댜코프를 지목하는 것은 피고 자신, 그의 두 동생, 스베틀로바

양뿐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목하는 쪽에 누군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음, 어떤 혐의를 두고 사회에 일고 있는 어렴풋하지만 분명히 있는 술렁임입니다. 어떤 어렴풋한 소문이 들리고, 어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막연하기는 하다고 고백하지만 몹시 특징적인 사실들의 대조가 증언합니다. 첫째, 바로 파국의 날에 일어난 이 간질 발작입니다. 이 발작을 검사는 왜 그런지 그토록 애써 감싸고 옹호해야 했습니다. 그다음, 재판 전날 스메르댜코프의 갑작스러운 자살입니다. 그다음, 오늘 법정에서 나온 피고의 큰동생의 그에 못지않게 갑작스러운 진술입니다. 지금까지 형의 유죄를 믿던 그가 갑자기 돈을 가져오고, 또다시 스메르댜코프라는 이름을 살인자로 외쳤습니다! 오, 이반 카라마조프가 병들어 열에 들떠 있고, 그의 진술이 정말로 형을 구하려고, 그것도 헛소리 속에서 꾀한, 죽은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절망적인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법정과 검찰과 함께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스메르댜코프라는 이름이 나왔고, 또다시 무언가 수수께끼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다 말해지지 않은 것이, 배심원 여러분, 끝나지 않은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말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단 접어 둡시다, 이것은 아직 앞에 있습니다. 법정은 아까 공판을 계속하기로 정했습니다만, 지금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를테면 검사가 그토록 섬세하고 그토록 재능 있게 그려 낸 고 스메르댜코프의 성격 묘사를 두고 몇 가지 짚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에 놀라면서도 저는 그 성격 묘사의 본질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메르댜코프를 찾아가서 그를 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저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가 건강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격으로는, 마음으로는, 오, 아닙니다, 그는

고발 측이 결론 내린 것처럼 그리 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에게서 겁을, 검사가 그토록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한 그 겁을 찾지 못했습니다. 순박함은 그에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는 순진함 밑에 숨어 있는 무서운 의심과, 아주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력을 발견했습니다. 오! 고발 측은 너무 순박하게 그를 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뚜렷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존재가 단연코 악의에 차 있고, 터무니없이 공명심이 강하고, 복수심이 깊고, 타는 듯이 시기심이 많다는 확신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출생을 증오했고 그것을 부끄러워했으며, 자기가 '스메르댜샤야에게서 났다'는 것을 이를 갈며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의 은인이었던 하인 그리고리와 그 아내에게 그는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저주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 사람으로 바뀌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부터 그러기에는 돈이 모자란다고 자주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은 이상하리만큼 높이 떠받들었습니다. 그는 계몽을 좋은 옷과 깨끗한 셔츠 앞섶과 잘 닦은 장화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이에 대해서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사생아로 여겼으니, 주인의 적자들과 비교해 자기 처지를 증오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저들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고 저들에게는 유산이 있는데 자기는 요리사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함께 직접 돈을 봉투에 넣었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앞날을 열어 줄 수도 있었을 이 돈이 어디에 쓰일지 정해진 것이 그에게는 물론 증오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3천 루블을 반짝이는 무지갯빛 지폐로 보았습니다(저는 일부러 그에게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오, 시기심 많고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큰돈을

한꺼번에 보여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는 그런 금액을 한 손에 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무지갯빛 지폐 뭉치의 인상은 그의 상상 속에 병적으로 비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신 검사님께서는 스메르댜코프를 살인으로 고발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의 프로와 콘트라를 모두 남다르게 섬세하게 그려 보이셨고, 특히 그가 무엇 하러 간질을 꾸며 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꾸며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발작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을 수 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도 있었고, 병자는 정신을 차릴 수도 있었습니다. 낫지는 못했다 합시다, 그러나 간질에서 늘 그렇듯이 언젠가는 제정신이 들어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발 측은 묻습니다. 스메르댜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순간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순간을 짚기란 아주 쉽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고리 노인이 울타리 위에서 달아나는 피고의 다리를 붙잡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아비를 죽인 놈!' 하고 울부짖던 그 순간에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그는 다만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간질 발작 뒤에는 늘 깊은 잠이 덮치니까요). 고요와 어둠 속의 이 심상치 않은 외침이 스메르댜코프를 깨울 수 있었고, 그 무렵에는 그의 잠이 그리 깊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미 한 시간 전부터 깨어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무 뜻도 없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외침이 난 쪽으로 갑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병적인 몽롱함이 있고 판단은 아직 졸고 있지만, 그는 정원에 들어서서 불 켜진 창문으로 다가가, 물론 그를 보고 반가워한 주인에게서 무서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단번에 판단이 불타오릅니다. 겁에 질린 주인에게서 그는 자세한 사정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차츰 그의 흐트러지고 병든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세워집니다. 무섭지만 유혹적이고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죽이고, 3천 루블을 가져가고, 나중에 모든 것을 도련님에게 뒤집어씌우자. 이제 도련님 말고 누구를 의심하겠느냐, 도련님 말고 누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모든 증거가 있고, 그는 여기 있었다. 돈에 대한, 노획물에 대한 무서운 갈망이 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판단과 함께 그의 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 이런 갑작스럽고 거역할 수 없는 충동은 기회만 있으면 너무나 자주 찾아오고, 무엇보다 1분 전만 해도 자기가 죽이고 싶어지리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살인자들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메르댜코프는 주인에게 들어가 자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무슨 무기로? 정원에서 처음 주운 돌멩이로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하러, 무슨 목적으로? 3천 루블이면 앞날이 열리지 않습니까. 오! 저는 제 말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돈은 있었을 수도 있고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돈을 어디서 찾을지, 주인 방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스메르댜코프 하나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돈의 껍데기는, 바닥에 찢겨 있던 봉투는?' 아까 검사가 이 봉투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바닥에 남겨 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익숙하지 않은 도둑, 바로 카라마조프 같은 사람이지 자기를 겨누는 그런 증거를 결코 남기지 않았을 스메르댜코프는 결코 아니라는 아주 섬세한 고찰을 펼치셨을 때, 아까, 배심원 여러분, 저는 듣다가 별안간 무언가 아주 귀에 익은 것을 듣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고찰, 카라마조프라면 봉투를 어떻게 다룰 수 있었을까 하는 바로 이 짐작을 저는 꼭 이틀 전에 스메르댜코프 자신에게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바로 그것으로 저를 놀라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가 거짓으로 순진한 척하며 앞질러 가서 이 생각을 저에게 떠안기고, 제가 몸소 바로 이 고찰을 끌어내도록 이를테면 저에게 귀띔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고찰을 예심에도 귀띔해 주지 않았을까요? 재능이

뛰어나신 검사님께도 떠안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들 말할 것입니다. 그럼 노파, 그리고리의 아내는? 그 여자는 병자가 자기 곁에서 밤새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찰은 몹시 흔들리는 고찰입니다. 저는 마당에서 똥개 한 마리가 밤새 자기를 깨워 잠을 못 자게 했다고 몹시 불평하던 부인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엾은 강아지는 밤새 겨우 두세 번 짖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신음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잠이 깬 것에 짜증을 내며 깨어나지만 금세 다시 잠듭니다. 두 시간쯤 지나 또 신음 소리가 나고, 또 깨어났다가 또 잠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신음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두 시간 뒤라서 밤새 모두 세 번쯤입니다. 아침에 자던 사람은 일어나서, 누가 밤새 신음하며 쉴 새 없이 자기를 깨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꼭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시간씩 잠든 틈은 자 버렸으니 기억하지 못하고, 깨어난 순간들만 기억에 남았으니, 밤새 누가 자기를 깨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왜 스메르댜코프는 죽은 뒤에 남긴 쪽지에서 자백하지 않았느냐고 고발 측은 외칩니다. '한 가지에는 양심이 넉넉했는데 다른 한 가지에는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양심이란 이미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에게는 뉘우침이 없었을 수도 있고, 다만 절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뉘우침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절망은 악의에 차고 화해를 모를 수 있으며, 자살하는 사람은 제 몸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평생 시기하던 사람들을 갑절로 증오할 수 있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오심을 경계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내놓고 그려 보인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이, 무엇이 사실 같지 않습니까? 제 설명에서 잘못을 찾아보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부조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제 추측에 가능성의 그림자라도, 그럴듯함의 그림자라도 있다면, 판결을

삼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그림자만 있습니까? 모든 거룩한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내놓은 살인에 관한 제 풀이를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저를 어지럽히고 화나게 하는 것은 늘 같은 그 생각입니다. 고발 측이 피고에게 쌓아 올린 사실의 산더미 가운데 조금이라도 정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단 하나도 없는데, 불행한 사람이 오로지 이 사실들의 총체 때문에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체는 끔찍합니다. 이 피, 손가락에서 흘러내리는 이 피, 피 묻은 속옷, '아비를 죽인 놈!'이라는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는 이 어두운 밤, 머리가 깨져 소리치며 쓰러지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과 진술과 몸짓과 외침의 산더미, 오, 이것은 이토록 영향을 주고, 이토록 확신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확신을,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을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끝없는 권세가, 매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강할수록 그것을 쓰는 일은 더 무섭습니다! 저는 방금 드린 말씀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할 수 없지요, 잠시 저도 제 불행한 의뢰인이 아버지의 피로 손을 물들였다는 고발 측의 말에 동의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되풀이하지만 저는 그의 결백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지요, 제 피고가 아버지를 죽인 죄가 있다고 추측해 봅시다. 그러나 제가 그런 추측을 받아들인다 해도,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아직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에서도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예감하기 때문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를 두고 이런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진실하고 솔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여기서 꽤 큰 박수가 변호인의 말을 끊었다. 사실 그는 마지막 말을 어찌나 진실하게 울리는 가락으로 했던지, 어쩌면 정말로 그에게 할 말이 있고 그가 지금 할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모두가 느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박수 소리를 듣자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되풀이되면 법정을 "비우겠다"고 크게 으름장을 놓았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페튜코비치는 지금까지 말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롭고 가슴에 스며드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13장 사상의 간음자

"배심원 여러분, 제 의뢰인을 파멸시키는 것은 사실들의 총체만이 아닙니다." 그는 외쳤다. "아닙니다, 제 의뢰인을 참으로 파멸시키는 것은 단 하나의 사실, 바로 늙은 아버지의 시체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살인이었다면, 사실 하나하나를 총체로가 아니라 따로따로 살펴볼 때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증거가 없고 공상적인지 보시고, 여러분은 고발을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아, 그가 그토록 자초한 선입견 하나만으로 한 인간의 운명을 망치기를 망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아버지 살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압도하고, 그것도 얼마나 압도하는지, 고발하는 사실들의 하찮음과 증거 없음조차 이제는 그리 하찮지도 그리 증거가 없지도 않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가장 선입견 없는 머리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래, 이런 피고를 어떻게 무죄로 하겠느냐? 만약 그가 죽였는데 벌받지 않고 빠져나간다면 어쩌겠느냐, 누구나 거의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나를 낳아 준 사람의 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의 피,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의 피, 내 어린 시절부터 내 병을 함께 앓아 주고, 평생 내 행복을 위해 고통받고, 오직 내 기쁨과 내 성공으로 살아온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오, 그런 아버지를 죽인다니,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아버지란 무엇입니까, 참된 아버지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말이며, 이 이름에는 얼마나 무섭도록 위대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방금 참된 아버지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 얼마간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그토록 매달려 있고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이번 사건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 고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가 방금 우리 마음에 떠오른 아버지라는 개념에 조금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떤 아버지는 불행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불행을 좀 더 가까이 살펴봅시다. 배심원 여러분, 앞에 놓인 결정이 이토록 중대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신 검사님의 멋진 표현대로, 특히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나 겁 많은 여자들처럼 어떤 사상을 두려워하거나 이를테면 손사래 쳐서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제 상대는(제가 첫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상대였던 분은) 열띤 연설에서 여러 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나는 누구에게도 피고를 변호하게 두지 않겠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온 변호인에게 그의 변호를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고발자이면서 변호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렇게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무서운 피고가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자기를 귀여워해 준 단 한 사람에게서 받은 호두 1푼트를 그토록 꼬박 스물세 해 동안이나 고마워했다면, 반대로 그런 사람이 인정 많은 의사 게르첸시투베의 표현대로 '장화도 신지 않은 채 단추 하나로 겨우 채운 바지를 입고 뒷마당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것을 이 스물세 해 내내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언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 배심원 여러분, 무엇 하러 우리가 이 '불행'을 더 가까이 살펴보며 모두가 이미 아는 것을 되풀이하겠습니까! 제 의뢰인이 이곳 아버지에게 왔을 때 무엇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왜, 왜 제 의뢰인을 무감각한 사람, 이기주의자, 괴물로 그려 보입니까? 그는 고삐가 풀렸고, 그는 거칠고 사납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누구 탓입니까. 좋은 성향과 고결하고 감수성 깊은 마음을 지녔는데도 그가 그토록 터무니없는 교육을 받은 것은 누구 탓입니까? 누가 그에게 사리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가 학문으로 계몽되었습니까, 누가 어린 시절 그를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었습니까? 제 의뢰인은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다시 말해 들짐승처럼 자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랜 이별 끝에 아버지를 보기를 갈망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는 그 전에 꿈결처럼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 꿈에 나타났던 역겨운 유령들을 천 번이나 쫓아 버리고, 온 영혼으로 자기 아버지를 변명해 주고 껴안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맞은 것은 냉소에 찬 조롱과 의심과 다툼거리인 돈을 둘러싼 트집뿐입니다. 그는 날마다 '코냑을 마시며' 마음이 뒤집힐 이야기와 처세훈만 듣고,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에게서, 그것도 아들의 돈으로 애인을 가로채는 것을 봅니다. 오, 배심원 여러분, 이것은 역겹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인이 모두에게 아들이 공손하지 않고 잔인하다고 불평하고, 사교계에서 그를 더럽히고, 그를 해치고, 그를 헐뜯고, 그를 감옥에 넣으려고 그의 차용 증서를 사들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런 영혼들, 제 의뢰인처럼 겉보기에 모질고 거칠고 고삐 풀린 이런 사람들은 몹시 여린 마음을 지닌 경우가 있고, 그것도 가장 흔합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제 생각을 비웃지 마십시오! 재능 있는 검사는 아까 제 의뢰인이 실러를 좋아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을 좋아한다고 내세우며 그를 무자비하게 비웃었습니다. 제가 그분 자리에, 검사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것을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오, 그토록 드물게 그토록 부당하게 이해되는 이런 마음들을 변호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은 아주 자주 부드러운 것,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을 갈망하고, 그것도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거칢과, 자기의 잔인함과 대조라도 이루듯이 무의식중에 갈망합니다. 바로 갈망합니다. 겉으로는 정열적이고 잔인한 그들은 이를테면 한 여인을 괴로울 만큼 사랑할 수 있고, 그것도 틀림없이 영적이고 드높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다시 저를 비웃지 마십시오. 이런 천성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가장 흔합니다! 다만 그들은 때로 몹시 거친 자기 정열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바로 이것이 눈에 띄고, 사람의 속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열은 모두 금세 채워지지만, 고결하고 아름다운 존재 곁에서 이 겉보기에 거칠고 잔인한 사람은 새로워지기를 찾고, 바로잡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숭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찾습니다. 이 말이 아무리 웃음거리가 되었어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아까 저는 제 의뢰인과 베르호프체바 양의 소설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마디쯤은 해도 되겠지요. 우리가 아까 들은 것은 진술이 아니라 광분하여 복수하는 여인의 외침일 뿐이었고, 배신을 나무랄 사람은 그 여자가, 오,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 자신이 배신했으니까요! 정신을 차릴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여자는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 그 여자를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제 의뢰인은 그 여자가 부른 것처럼 '악당'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사랑하신 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한 인간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맙시다! 저는 방금, 아버지란 무엇이냐고 묻고, 그것은 위대한 말이며 귀한 이름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여러분, 말은 정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 대상을 그 자체의 말로, 그 자체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살해된 카라마조프 노인 같은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릴 수 없고, 그렇게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만하게 해 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터무니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랑을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하느님만이 지어내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는 사랑으로 타오르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의뢰인을 위해 이 거룩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를 위해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아버지들을 가르칠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저는 부르짖습니다. 산 자들을 부른다(vivos voco)!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오래지 않고, 우리는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알맞은 순간을 모두 붙잡아 서로 좋은 말도 해 줍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저는 제 순간을 씁니다. 이 연단이 드높은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러시아 전체가 듣습니다. 저는 이곳의 아버지들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에게 외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먼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때에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원수이며,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 스스로 그들을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서가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린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나무라겠습니까? 얼마 전 핀란드에서 하녀로 일하는 한 처녀가 남몰래 아이를 낳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지켜보다가 집의 다락 구석 벽돌 뒤에서 아무도

몰랐던 그 여자의 궤짝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열자 그 여자가 죽인 갓난아기의 작은 시체가 나왔습니다. 같은 궤짝에서 그 여자가 전에 낳아 태어나는 순간 역시 그 여자가 죽인 갓난아기 둘의 해골이 나왔고, 그 여자는 이것을 자백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여자가 제 아이들의 어머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 여자가 아이들에게 어머니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그 여자에게 어머니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배심원 여러분, 대담해집시다, 무엄해지기까지 합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래야 할 의무까지 있으며, '쇠붙이'니 '유황불'이니 하는 말을 무서워하는 모스크바 상인 아낙들처럼 어떤 말과 사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1]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몇 해의 진보가 우리의 발달에도 닿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똑바로 말합시다. 낳은 자가 곧 아버지인 것은 아니며, 아버지란 낳고 또 그럴 만하게 해 준 자입니다. 오, 물론 '아버지'라는 말에는 다른 뜻,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설령 제 아이들에게 악당이고 악한이라 해도 오로지 나를 낳았다는 그 까닭 하나로 그래도 내 아버지로 남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풀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말하자면 신비적인 뜻이어서,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종교가 믿으라고 명하는 다른 많은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현실 생활의 영역 밖에 남아 있게 합시다. 자기 권리를 지닐 뿐 아니라 스스로 크나큰 의무를 지우기도 하는 현실 생활의 영역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인도적이고자 한다면,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고자 한다면, 이성과 경험으로 정당화되고 분석의 용광로를 거친 신념만을 펼쳐야 하고 또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사람을 괴롭히고 파멸시키지 않도록, 꿈이나 헛소리 속에서처럼 분별없이 하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바로 그때에야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교의 일, 신비적일 뿐인 일이 아니라 분별 있고 이미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법정의 여러 곳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오려 했지만, 페튜코비치는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하게 해 달라고 애원하듯이 두 손을 내젓기까지 했다. 모든 것이 곧바로 잠잠해졌다. 연설가는 말을 이었다.

"배심원 여러분, 이런 물음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미 청년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미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 우리 아이들을 비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비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불가능한 절제를 요구하지 맙시다! 못난 아버지의 모습은, 특히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게 있는 다른 훌륭한 아버지들과 견주어 볼 때, 청년에게 저도 모르게 괴로운 물음들을 일러 줍니다. 그 물음에 사람들은 관청 투로 대답해 줍니다. '그는 너를 낳았고 너는 그의 피다. 그러니 너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 청년은 저도 모르게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낳을 때 나를 사랑했던가?' 그는 점점 더 놀라며 묻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나를 낳았던가? 그 순간에, 어쩌면 술로 달아오른 정열의 순간에 그는 나도, 내 성별조차도 몰랐고, 기껏해야 나에게 술버릇을 물려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그가 베푼 은혜의 전부다…… 그런데 왜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가 나를 낳았다는 그것 하나로, 그러고는 평생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오, 여러분께는 어쩌면 이런 물음들이 거칠고 잔인해 보이겠지만, 젊은 머리에 불가능한 절제를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본성을 문으로 내쫓으면 창문으로 날아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쇠붙이'와 '유황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비적인 개념이 명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성과 인간애가 명하는 대로 이 물음을 풉시다.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풉시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서서 생각을 갖추어 아버지 자신에게 묻게 합시다. '아버지, 말해 주세요.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대답하고 증명해 줄 힘과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신비적인 편견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엄격하게 인도적인 기초 위에 선 참되고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아버지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곧바로 끝장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며, 아들은 앞으로 자기 아버지를 남으로, 심지어 자기 원수로 여길 자유와 권리를 얻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우리 연단은 진리와 건전한 개념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거의 광분에 찬 박수로 말이 끊겼다. 물론 법정 전체가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법정의 절반은 박수를 쳤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부인들이 앉아 있던 위층에서는 날카로운 소리와 외침이 들렸다. 손수건을 흔들었다. 재판장은 있는 힘을 다해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법정의 소란에 눈에 띄게 짜증이 나 있었지만, 조금 전에 으름장을 놓은 대로 법정을 "비울" 엄두는 결코 내지 못했다. 뒤쪽 특별석에 앉은 고관들, 연미복에 훈장 별을 단 노인들까지 연설가에게 박수를 치고 손수건을 흔들었으니, 소란이 가라앉았을 때 재판장은 법정을 "비우겠다"는 앞서의 더없이 엄한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의기양양하고 흥분한 페튜코비치는 다시 연설을 이어 갔다.

"배심원 여러분, 오늘 그토록 많은 이야기가 오간 그 무서운 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아들이 울타리를 넘어 아버지의 집으로 숨어들어, 마침내 자기를 낳은 자이자 원수이며 모욕한 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섰던 그 밤 말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주장합니다. 그 순간

그가 달려온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강도죄의 고발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뛰어든 것은 죽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 아닙니다. 그에게 미리 계획한 그런 뜻이 있었다면 적어도 무기라도 미리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 절굿공이는 그가 무엇 하러 그러는지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움켜쥔 것입니다. 그가 신호로 아버지를 속였다고 합시다, 그가 아버지에게 숨어들었다고 합시다. 저는 이 전설을 한순간도 믿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합시다, 할 수 없지요, 한순간 그렇다고 추측해 봅시다! 배심원 여러분, 모든 거룩한 것을 걸고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남남인 모욕자였다면, 그는 방들을 달려 지나가며 그 여자가 이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연적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쏜살같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때리거나 떠밀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겨를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으며, 그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는, 오, 모든 것을 저지른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모습, 어릴 적부터 자기를 미워한 자, 자기의 원수, 자기를 모욕한 자, 그리고 이제는 괴물 같은 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증오의 감정이 저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를 사로잡았고, 따져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들고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광기와 착란의 격정이었지만, 자연의 격정, 자연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걷잡을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영원한 법칙을 위해 복수하는 자연의 격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이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언합니다, 저는 이것을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는 다만 역겨운 분노에 차서 절굿공이를 휘둘렀을 뿐, 죽이려 하지도 않았고 죽이게 되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운명의 절굿공이가 그의 손에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아버지를 때리기만 했을 뿐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달아나면서 그는 자기가 쓰러뜨린 노인이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살인은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 살인은 아버지 살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아버지 살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살인은 오직 편견에 따라서만 아버지 살해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이 정말로, 정말로 있었습니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저는 여러분께 거듭, 거듭 부르짖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유죄로 판결하면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운명을 위해, 내 양육을 위해, 내 교육을 위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나를 먹이지도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옥에 갇혀 헐벗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유형지로 보냈다. 나는 셈을 치렀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고, 영원무궁토록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그들이 악하니 나도 악해지겠다. 그들이 잔인하니 나도 잔인해지겠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맹세합니다. 여러분은 유죄 판결로 그를 홀가분하게 해 줄 뿐입니다. 그의 양심을 홀가분하게 해 줄 뿐이고, 그는 자기가 흘린 피를 뉘우치지 않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은 그의 안에 아직 있을 수 있는 인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는 평생 악하고 눈먼 채로 남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무섭게, 엄하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벌로 벌하되, 그의 영혼을 영원히 구하고 되살리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비로 그를 짓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은 보실 것이고, 그의 영혼이 얼마나 떨며 두려워하는지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자비를 견딜 수 있을까, 나에게 이토록 큰 사랑이라니,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오, 저는 압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 거칠지만 고결한 마음을 압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의 위업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며,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갈망하고, 불타올라 영원히 부활할 것입니다. 편협함 때문에 온 세상을 탓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자비로 짓눌러 주시고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영혼은 자기가 한 일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영혼 안에는 선한 싹이 그토록 많으니까요. 영혼은 넓어져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로운지 볼 것입니다. 뉘우침과, 앞으로 그에게 놓인 셀 수 없는 빚이 그를 두렵게 하고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때 '나는 셈을 치렀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죄가 있고, 모든 사람보다 못나다'고 말할 것입니다. 뉘우침의 눈물과 불타는 듯한 고통에 찬 감동 속에서 그는 외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 나를 파멸시키려 하지 않고 구하려 했으니까!' 오,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 자비의 행위는 이토록 쉬운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실 같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 유죄다' 하고 선고하기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무거울 테니까요. 죄 없는 사람 하나를 벌하느니 죄 있는 사람 열을 놓아주는 편이 낫다. 들리십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지난 세기에서 들려오는 이 장엄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보잘것없는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일깨워 드려야 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재판은 형벌일 뿐 아니라 파멸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글자와 형벌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정신과 의미가, 파멸한 사람들의 구원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로 러시아와 러시아의 재판이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라 러시아여! 그리고 우리를 겁주지 마십시오, 오, 모든 민족이 역겨워하며 비켜서는 여러분의 미쳐 날뛰는 트로이카로 우리를 겁주지 마십시오! 미쳐 날뛰는 트로이카가 아니라 장엄한 러시아의 마차가 엄숙하고 평온하게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제 의뢰인의 운명이 있고, 여러분의 손에 우리 러시아의 진리의 운명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구하실 것이고, 그것을

지키실 것이며, 그것을 지킬 사람이 있고 그것이 좋은 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

1. 오스트롭스키의 희곡 『힘든 나날』(1863)에서 모스크바의 상인 아낙이 '쇠붙이(металл)'니 '유황불(жупел)'이니 하는 낯선 말을 듣고 무서워하는 장면을 빗댄 것. 알 수 없는 말을 덮어놓고 두려워하는 무지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였다.

제14장 농군들이 제 뜻을 지켰다

페튜코비치는 이렇게 끝맺었고, 이번에 터져 나온 청중의 환호는 폭풍처럼 걷잡을 수 없었다. 그것을 억누르기란 이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여자들이 울었고, 남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울었으며, 고관 두 사람까지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은 굴복했고, 종을 울리는 것마저 잠시 미루었다. 나중에 우리 고장 부인들이 외쳤듯이 "그런 열광에 손을 대는 것은 성소에 손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연설가 자신도 진심으로 감동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 이폴리트 키릴로비치가 "반론을 주고받으려고" 다시 한 번 일어섰다. 사람들은 증오에 차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게 뭐야? 저 사람이 아직도 감히 반론을 하겠다는 거야?" 부인들이 재잘거렸다. 그러나 온 세상 부인들이, 그것도 이폴리트 키릴로비치의 아내인 검사 부인을 앞세우고 재잘거렸다 해도 이 순간 그를 붙잡아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창백했고 흥분으로 온몸을 떨었다. 그가 내뱉은 첫마디, 첫 문장들은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숨이 막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갈피를 잃었다. 하기야 곧 바로잡았다. 그러나 그의 이 두 번째 연설에서는 몇 문장만 옮기겠다.

"……우리가 소설을 잔뜩 지어냈다고 나무랍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것은 소설에 소설을 겹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만 빠졌을 뿐입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애인을 기다리며 봉투를 찢어 바닥에 던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서사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가 돈을 꺼냈다는 증거는 어디 있고, 그가 하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저능한 백치 스메르댜코프를, 사생아로 태어난 것 때문에 사회에 복수하는 무슨 바이런풍 주인공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이런 취향의 서사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뛰어들어 그를 죽였으면서 그와 동시에 죽이지 않았다는 아들, 이것은 이미 소설도 서사시도 아니고 스핑크스입니다. 물론 자기도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입니다. 죽였으면 죽인 것이지, 죽였는데 죽이지 않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누가 이것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다음 우리에게 우리 연단은 진리와 건전한 개념의 연단이라고 선언하더니, 바로 그 '건전한 개념'의 연단에서 아버지 살해를 아버지 살해라고 부르는 것은 편견일 뿐이라는 공리가 맹세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살해가 편견이고, 아이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나요?' 하고 따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사회의 기틀은 어떻게 되며, 가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살해가, 보십시오, 모스크바 상인 아낙의 '유황불'일 뿐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재판의 사명과 앞날에 관한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유훈이, 오로지 목적을 이루려고, 무죄로 할 수 없는 것을 무죄로 받아 내려고 비틀리고 경솔하게 그려집니다. '오, 그를 자비로 짓눌러 주십시오.' 변호인은 외치지만, 범죄자에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할 뿐이고, 당장 내일이면 그가 얼마나 짓눌리는지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인은 피고의 무죄만 요구하다니 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해자의 위업을 후손과 젊은 세대에게 길이 남기기 위해 아버지 살해자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을 세우자고 요구하지 않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와 종교가 고쳐집니다. 그건 다 신비주의일 뿐이고, 이성과 건전한 개념의 분석으로 이미 검증된 참된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거짓 닮은꼴을 세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변호인은 이렇게 외치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가 남이 너희를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라고 명하셨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것도 진리와 건전한 개념의 연단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연설 전날에야 복음서를 들여다봅니다. 그래도 꽤 독창적인 이 저작을 안다는 것을 뽐내려고 말입니다. 이 저작은 얼마간 효과를 내는 데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헤아림대로, 모든 것을 필요의 치수대로!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를 삼가라고 명하십니다. 악한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 뺨을 돌려 대야 하지,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 우리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되갚아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것이지,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건전한 개념의 강단에서 우리 하느님의 복음서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인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라고만 부르는 데 그치셨지만, 정교를 믿는 러시아 전체는 그와 반대로 그분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우리 하느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재판장이 끼어들어 열중한 검사를 제지하며, 지나치게 부풀리지 말고 마땅한 한계 안에 머물러 달라는 따위, 따위, 이런 경우 재판장들이 흔히 하는 말을 했다. 법정도 술렁였다. 방청객은 들썩였고, 분개하여 외치기까지 했다. 페튜코비치는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위엄에 찬 몇 마디를 하려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소설"과 "심리학"을 다시 가볍게, 빈정거리며 건드렸을 뿐이고, 내친김에 한 대목에서 "유피테르여, 그대가 화를 내는 것을 보니 그대가 틀렸구려" 하고 끼워 넣어

방청석에서 찬성하는 웃음을 숱하게 자아냈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이미 유피테르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다음 자기가 젊은 세대에게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고 허락한다는 듯한 고발에 대해서는, 페튜코비치는 반박할 생각도 없다고 깊은 위엄을 갖추어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짓 닮은꼴"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라고만 불러 "정교에 어긋나며 진리와 건전한 개념의 연단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페튜코비치는 "빗대어 헐뜯기"라고 넌지시 말했고, 이곳에 올 채비를 하면서 적어도 이곳 연단만은 "시민이자 충성스러운 신민으로서 제 인격에 위험한" 고발에서 안전하리라고 셈하고 있었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오자 재판장은 그도 제지했고, 페튜코비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답변을 마쳤다. 법정 전체의 찬성하는 웅성거림이 그를 배웅했다.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우리 부인들의 의견으로는 "영영 짓눌려 버렸다."

그다음 피고 자신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미탸는 일어섰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몸도 마음도 무섭게 지쳐 있었다. 아침에 법정에 들어설 때 그에게서 보이던 꿋꿋하고 힘찬 모습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날 무언가를 평생에 남을 만큼 겪고, 그것으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고 깨친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고, 그는 아까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말에서는 무언가 새롭고, 체념하고, 꺾이고, 엎드린 것이 들렸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배심원 여러분! 내 심판이 왔습니다, 하느님의 오른손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방탕한 인간의 끝장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고해하듯이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피에는,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되풀이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지만 선을 사랑했습니다. 순간마다 바로잡으려고 애썼지만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검사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 몰랐던 많은 것을 나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변호인께도 감사합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추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말은 믿지 마십시오, 나는 아주 제정신입니다. 다만 내 영혼이 무거울 뿐입니다. 나를 살려 주신다면, 놓아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유죄로 판결하신다면, 내 머리 위에서 내 손으로 칼을 꺾고, 꺾은 다음 그 조각들에 입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살려 주십시오, 내 하느님을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나를 압니다. 원망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살려 주십시오!"

그는 거의 쓰러지듯 제자리에 앉았다. 목소리가 끊겼고, 마지막 말은 겨우 내뱉었다. 그다음 법정은 질문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가 양쪽에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는 쓰지 않겠다. 마침내 배심원들이 평의하러 물러가려고 일어섰다. 재판장은 몹시 지쳐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힘없는 당부의 말을 했다. "공평하시오, 변호인의 웅변에 휩쓸리지 마시오, 그러나 그래도 잘 저울질하고, 여러분에게 크나큰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떠올리시오" 따위, 따위였다. 배심원들은 물러갔고, 공판은 휴정에 들어갔다. 일어나 거닐고, 쌓인 인상을 주고받고, 매점에서 요기를 할 수 있었다. 몹시 늦어 이미 새벽 1시 가까이 되었지만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 모두가 너무 긴장하고 들떠 있어서 쉴 겨를이 없었다.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다. 하기야 모두가 가슴을 졸인 것은 아니었다. 부인들은 히스테릭하게 조바심을 낼

뿐 마음은 평온했다. "무죄는 피할 수 없다"고들 했다. 부인들은 모두 다 함께 열광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고백하자면 법정의 남자들 쪽에도 무죄가 피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고, 다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풀이 죽었다. 그들은 무죄를 바라지 않았다! 페튜코비치 자신은 성공을 굳게 믿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 축하를 건넸고, 그에게 알랑거렸다.

"있습니다." 나중에 전해진 바로는 그는 어느 무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과 배심원을 잇는 그 보이지 않는 실들이 있습니다. 그 실들은 연설하는 동안 이미 맺어지고 미리 느껴집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 일은 끝났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농군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눈살을 찌푸린, 뚱뚱하고 얽은 신사 하나가, 읍 근처의 지주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신사들의 한 무리에 다가가며 말했다.

"농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리가 네 명 있어요."

"그래요, 관리들이 있지요." 지방 자치회 위원 하나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런데 나자리예프, 프로호르 이바노비치를 아세요? 메달을 단 그 상인, 배심원 말이에요."

"그게 왜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줄곧 입을 다물고 있던데요."

"입이야 다물고 있지만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페테르부르크 사람이 그를 가르칠 게 아니라, 그가 페테르부르크를 통째로 가르칠 거예요. 자식이 열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설마 무죄로 하지 않겠어요?" 다른 무리에서 우리 고장 젊은 관리 하나가 소리쳤다.

"틀림없이 무죄로 할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죄로 하지 않는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관리가 외쳤다. "그가 죽였다고 칩시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나름이잖아요! 게다가 그는 그토록 광분해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절굿공이를 한 번 휘둘렀을 뿐이고, 그런데 노인이 쓰러졌을 수 있어요. 다만 하인을 거기 끌어들인 게 좋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우스운 삽화예요. 내가 변호인이었다면 대놓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죽였지만 죄는 없다, 그러니 너희나 악마한테 가라!"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다만 '악마한테 가라'고는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아니에요, 미하일 세묘니치, 거의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목소리가 맞장구쳤다.

"아니, 여러분, 우리 고장에서는 대재 때 자기 정부의 본처 목을 벤 여배우도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베지는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베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이야기는 어땠어요? 훌륭했지요!"

"훌륭했지요."

"그런데 신비주의 이야기는, 신비주의 이야기는 어때요?"

"신비주의 얘기는 그만두세요." 또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폴리트를, 오늘부터 그 사람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헤아려 보세요! 미텐카 일로 내일 검사 부인이 그의 눈을 할퀴어 버릴 거예요."

"그 부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긴 왜 있어요? 여기 있었다면 여기서 할퀴었겠지요. 이가 아파서 집에 앉아 있어요. 헤헤헤!"

"헤헤헤!"

세 번째 무리에서는 이랬다.

"그런데 미텐카는 어쩌면 무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날지, 내일이면 '수도'를 통째로 박살 내고 열흘은 술을 퍼마실 거예요."

"에이, 악마 같으니!"

"악마야 악마지요, 악마 없이는 안 된 일이에요. 여기 말고 악마가 있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웅변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아버지 머리를 대저울로 깨부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마차, 마차 기억나세요?"

"그래요, 짐수레를 마차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내일은 마차를 짐수레로 만들겠지요. '필요한 헤아림대로, 모든 것을 필요한 헤아림대로.'"

"재주 좋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루시에 진리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러나 종이 울렸다. 배심원들은 꼭 한 시간, 더도 덜도 아니게 평의했다. 방청객이 다시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침묵이 깔렸다. 배심원들이 법정에 들어서던 모습이 기억난다. 마침내! 질문들을 항목별로 옮기지는 않겠다. 사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재판장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 곧 "강도를 목적으로 미리 계획하여 죽였는가?"(문구는 기억나지 않는다)에 대한

대답뿐이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배심원 대표, 바로 그 누구보다 젊은 관리가 법정의 죽은 듯한 고요 속에서 크고 또렷하게 선언했다.

"그렇습니다, 유죄입니다!"

그러고는 모든 항목에서 똑같았다. 유죄, 또 유죄, 그것도 정상 참작은 조금도 없었다! 이것은 정말이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다. 적어도 정상 참작만은 거의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다. 법정의 죽은 듯한 고요는 끊어지지 않았다. 말 그대로 모두가 돌이 된 듯했다. 유죄를 바라던 사람들도, 무죄를 바라던 사람들도. 그러나 그것은 처음 몇 분뿐이었다. 그다음 무서운 혼란이 일었다. 남자 방청객 가운데는 몹시 흡족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않고 손을 비비기까지 했다. 못마땅한 사람들은 짓눌린 듯 어깨를 으쓱하고 수군거렸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아이고 맙소사, 우리 부인들은 어떻게 되었던가! 나는 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줄 알았다. 처음에 부인들은 자기 귀를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법정 가득 외침이 들렸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또 뭐냔 말이에요?" 부인들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다. 아마 이 모든 것을 당장 다시 바꾸고 고칠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미탸가 일어나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가슴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으로 외쳤다.

"하느님과 그분의 최후 심판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아버지의 피에는 죄가 없습니다! 카탸, 너를 용서해! 형제들이여, 벗들이여, 다른 여자는 살려 주십시오!"

그는 말을 다 맺지 못하고 법정이 떠나가게 소리 내어 무섭게 흐느껴 울었다. 그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이나 아실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어떤 새롭고 뜻밖의 목소리였다. 위층 회랑, 맨 뒤 구석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이 울렸다. 그루셴카였다. 그 여자는 아까

누군가에게 애원했고,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법정에 들어올 수 있었다. 미탸는 끌려 나갔다. 판결 선고는 내일로 미루어졌다. 법정 전체가 어수선하게 일어섰지만, 나는 이미 기다리지도 듣지도 않았다. 이미 출구의 현관 계단에서 들은 외침 몇 마디만 기억에 남았다.

"광산 냄새를 스무 해는 맡겠군."

"그보다 덜하지는 않을 거요."

"그렇습죠, 우리 농군들이 제 뜻을 지켰습죠."

"그리고 우리 미텐카를 끝장냈지요!"

에필로그

제1장 미탸를 구할 계획

미탸의 재판이 있은 지 닷새째 되는 날, 아주 이른 아침, 아직 아홉 시도 되기 전에 알료샤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왔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의논해 정하려는 것이었고, 그 밖에 그 여자에게 전할 부탁도 하나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언젠가 그루셴카를 맞았던 바로 그 방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로 옆 다른 방에는 이반 표도로비치가 열병에 걸려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법정에서 그 장면이 있은 직후, 앞으로 피할 수 없을 사교계의 온갖 쑥덕공론과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들어 정신을 잃은 이반 표도로비치를 자기 집으로 옮기게 했다. 함께 살던 친척 여자 둘 가운데 하나는 법정의 그 장면 직후 곧바로 모스크바로 떠났고, 다른 하나는 남았다. 그러나 둘 다 떠났다 해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돌보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을 것이다. 그를 치료한 것은 바르빈스키와 게르첸시투베였고, 모스크바 의사는 병이 어떻게 끝날지 의견을 내놓기를 마다하고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남은 의사들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알료샤를 북돋워 주기는 했지만, 아직 확실한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알료샤는 하루에 두 번씩 아픈 형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게 특별하고 몹시 성가신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그는 미리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몹시 서두르고 있었다. 같은 날 아침 다른 곳에 또 하나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야 했다. 두 사람은 벌써 15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창백하고 몹시 지쳐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병적으로 몹시 들떠 있었다. 무엇보다 알료샤가 지금 무엇 하러 자기를 찾아왔는지 예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정할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단호하고 끈질기게 알료샤에게 말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 사람은 결국 이 출구에 이를 거예요. 그 사람은 달아나야 해요! 그 불행한 사람, 명예와 양심의 영웅이, 그 사람 말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말고, 이 문 뒤에 누워 있는 사람, 동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 말이에요." 카탸는 눈을 번득이며 덧붙였다. "그 사람이 이 탈주 계획을 전부 오래전에 나한테 알려 주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벌써 줄을 대 두었어요…… 이미 조금은 말씀드렸지요…… 보세요, 아마 유형수 호송대를 시베리아로 끌고 갈 때 여기서 세 번째 호송 중계소에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 그때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벌써 세 번째 중계소의 소장을 찾아갔어요. 다만 누가 호송대장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 그건 미리 알 수도 없어요. 어쩌면 내일, 이반 표도로비치가 재판 전날 만일을 위해 나한테 남겨 둔 계획 전체를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바로 그때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날 저녁 당신이 우리가 다투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나는 당신을 보고 그 사람을 되돌아오게 했지요.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알료샤가 말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때 당신에게 숨겼지요. 바로 이 탈주 계획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보다 사흘 전에 벌써 나한테 중요한 것을 다 털어놓았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다투기 시작해서 그 뒤로 사흘 내내 다퉜어요. 다툰 건 이래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유죄 판결이 나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 계집과 함께 외국으로 달아날 거라고 밝히자, 나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나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오, 물론 나는 그때 그 계집 때문에, 그 계집 때문에 화가 났어요. 바로 그 여자도 드미트리와 함께 외국으로 달아난다는 것 때문에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분노로 떨리는 입술로 갑자기 외쳤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내가 그 계집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자마자, 내가 그 여자를 두고 드미트리를 질투한다고, 그러니 내가 아직도 드미트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순식간에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첫 다툼이 일어났어요. 나는 해명하고 싶지 않았고, 용서를 빌 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두고 그 사람에 대한 예전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게 괴로웠어요…… 그것도 나 자신이 그보다 훨씬 전에 벌써, 드미트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 하나만 사랑한다고 그 사람에게 똑바로 말했는데도요! 나는 그 계집에게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낸 것뿐이에요! 사흘 뒤, 바로 당신이 들어오신 그날 저녁, 그 사람은 봉한 봉투를 나한테 가져와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뜯어 보라고 했어요. 오, 그 사람은 자기 병을 내다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봉투에 탈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 자기가 죽거나 위험하게 앓아눕게 되면 나 혼자서라도 미탸를 구하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한테 돈을, 거의 1만 루블을 맡겼어요. 바로 검사가 누구한테선가 그 사람이 그 돈을 바꾸러 보냈다는 걸 알고 연설에서 언급한 그 돈이에요. 나는 갑자기 무섭게 놀랐어요. 이반 표도로비치가 여전히 나를 질투하고 여전히 내가 미탸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면서도, 동생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바로 나한테, 나 자신한테 이 구출을 맡긴다는 게요! 오, 그건 희생이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그런 자기희생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는 우러르는 마음으로 그 사람 발치에 엎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그저 미탸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걸로만 여길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자(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 쪽에서 그런 부당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신경이 곤두섰던지 다시 짜증이 나서, 그 사람 발에 입을 맞추기는커녕 또 한바탕 소동을 벌였어요! 오, 나는 불행해요! 내 성격이 그래요. 끔찍하고 불행한 성격이에요! 오, 당신도 보시게 될 거예요. 나는 결국 그 사람도 드미트리처럼 나를 버리고 함께 살기 더 편한 다른 여자에게 가게 만들고 말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니요, 그때는 나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이 들어오시고 내가 당신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들어오면서 갑자기 나를 바라본 그 증오에 찬 경멸의 눈길 때문에 분노가 어찌나 치밀었던지, 기억나세요, 나는 갑자기 당신에게 그의 형 드미트리가 살인자라고 나를 설득한 게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라고 소리쳤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헐뜯은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결코 형이 살인자라고 나를 설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설득한 건 나, 바로 나였어요! 오, 모든 게, 모든 게 내 광기 탓이에요! 그 저주받을 법정 장면을 마련한 것도 나,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고결하다는 걸, 내가 자기 형을 사랑한다 해도 복수와 질투 때문에 형을 파멸시키지는 않겠다는 걸 나한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나선 거예요…… 모든 게 내 탓이에요, 나 혼자만 죄가 있어요!"

카탸가 알료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 여자가 지금 바로, 가장 오만한 마음도 아파하며 제 오만을 부수고 슬픔에 꺾여 쓰러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 지경에 와 있다고 느꼈다. 오, 미탸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요 며칠 내내 카탸가 아무리 그에게 숨겼어도, 알료샤는 그 여자가 지금 겪는 괴로움의 또 다른

끔찍한 까닭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엎드리기로 마음먹고 지금, 바로 지금 그 까닭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그에게 말을 꺼낸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그에게 너무 아플 것 같았다. 카탸는 법정에서 저지른 자기의 "배신"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알료샤는 그 여자의 양심이 바로 그 앞에서, 알료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바닥에 몸을 내던지며 죄를 털어놓도록 그 여자를 잡아끌고 있다고 예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이 두려웠고, 괴로워하는 여자를 감싸 주고 싶었다. 그럴수록 그가 들고 온 부탁은 더 어려워졌다. 그는 다시 미탸 이야기를 꺼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 때문이라면 걱정 마세요!" 카탸는 고집스럽고 날카롭게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게 다 한순간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달아나기로 동의할 거라고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지금 당장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정할 시간은 아직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반 표도로비치가 나아서 몸소 모든 일을 이끌 테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달아나기로 동의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벌써 동의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계집을 두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유형지에 들여보내 주지 않을 테니, 그 사람이 어떻게 달아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은 당신을 두려워해요. 당신이 도덕적인 면에서 탈주를 좋게 여기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에 꼭 당신의 재가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너그럽게 그 사람에게 그걸 *허락해* 주셔야 해요." 카탸는 독을 담아 덧붙였다. 그 여자는 잠깐 말이 없다가 피식 웃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늘어놓고 있어요." 카탸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무슨 찬가니,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니, 무슨 의무니 하는 것들을요. 기억나요, 그때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전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당신이 아신다면!" 카탸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북받쳐 갑자기 외쳤다. "그 불행한 사람 이야기를 나한테 전해 줄 때, 그 순간 그 사람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순간 그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당신이 아신다면! 그런데 나는, 오, 나는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눈물을 오만한 비웃음으로 들었어요! 오, 계집이에요! 계집은 나예요, 바로 나예요! 그 사람한테 열병을 안겨 준 건 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 고통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기나 한가요." 카탸는 짜증스럽게 말을 맺었다. "그런 사람이 고통을 받기나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고통받지 않아요!"

이 말에서는 무언가 이미 증오와 혐오에 찬 경멸 같은 감정이 울렸다.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그를 배신했다. '글쎄, 어쩌면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니까 이따금 그를 증오하는 건지도 몰라.' 알료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이따금"뿐이기를 바랐다. 카탸의 마지막 말에서 그는 도전을 들었지만 그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부른 거예요.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주시라고요. 아니면 당신 생각에도 달아나는 건 정직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아니면 뭐라더라…… 그리스도교답지 못한 건가요?" 카탸는 한층 더 도전하듯 덧붙였다.

"아니요, 괜찮아요. 형에게 모두 말할게요……" 알료샤가 중얼거렸다. "형이 오늘 당신더러 와 달래요." 그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갑자기 불쑥 말해 버렸다. 카탸는 온몸을 흠칫 떨더니 소파 위에서 그에게서 살짝 몸을 뒤로 뺐다.

"나를…… 그게 될 법한 일인가요?" 그 여자는 창백해지며 더듬거렸다.

"될 법한 일이고, 또 그래야 해요!" 알료샤는 끈질기게, 온몸에 생기가 돌며 말하기 시작했다. "형에게는 당신이 몹시 필요해요, 바로 지금요.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이야기를 꺼내서 당신을 미리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형은 앓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줄곧 당신을 찾아요. 화해하자고 당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와서 문지방에 모습만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형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형은 자기가 당신 앞에 헤아릴 수 없이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당신의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형 스스로 말해요. 그저 당신이 문지방에 모습을 보여 주기만을……"

"당신이 나를 갑자기……" 카탸가 더듬거렸다. "요 며칠 내내 당신이 그 일로 오실 거라고 예감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부를 줄 알았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된다 해도 해 주세요. 떠올려 보세요, 형은 자기가 당신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처음으로, 난생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전에는 결코 이토록 온전히 깨달은 적이 없었어요! 형은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오기를 거절하면 나는 '이제 평생 불행할 거야.' 들리세요, 스무 해 징역살이를 할 사람이 그래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엾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죄 없이 파멸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료샤에게서 도전하듯 말이 터져 나왔다. "형의 손은 깨끗해요,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형이 겪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위해서라도 지금 형을 찾아가 주세요! 와서 어둠 속으로 배웅해 주세요…… 문지방에 서 주세요, 그것뿐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알료샤는 "해야만"이라는 말에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을 주어 말을 맺었다.

"해야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카탸는 신음하듯 말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거예요…… 나는 못 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쳐야 해요. 지금 마음먹지 못하면 평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평생 괴로워하는 게 나아요."

"당신은 와야 해요, 당신은 *와야만* 해요." 알료샤는 다시 사정없이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왜 오늘이에요, 왜 지금이에요?…… 나는 환자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잖아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형은 밤이 되기 전에 열병에 걸리고 말 거예요.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가엾게 여겨 주세요!"

"나를 가엾게 여겨 주세요." 카탸는 쓰라리게 나무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오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눈물을 보고 알료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서 당신이 곧 오신다고 형에게 말할게요."

"아니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카탸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갈게요. 하지만 미리 말하지는 마세요. 가기는 가겠지만 어쩌면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 여자는 숨을 힘겹게 쉬었다. 알료샤는 가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혹시 누구와 마주치면요?" 그 여자가 다시 온통 창백해지며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지금 가셔야 해요. 거기서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도록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는 끈질기게 말을 맺고 방을 나갔다.

제2장 한순간 거짓이 진실이 되다

그는 지금 미탸가 누워 있는 병원으로 서둘러 갔다. 법정의 판결이 있은 지 이틀째 되는 날 미탸는 신경열에 걸려 우리 읍립 병원의 죄수 병동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의사 바르빈스키는 알료샤와 다른 많은 사람들(호흘라코바 부인, 리자 등)의 부탁을 받고 미탸를 죄수들과 함께 두지 않고 따로, 전에 스메르댜코프가 누워 있던 바로 그 작은 방에 두었다. 사실 복도 끝에는 보초가 서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으니, 바르빈스키는 완전히 합법적이지는 않은 자기의 너그러운 처사를 두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만, 그는 착하고 인정 많은 젊은이였다. 그는 미탸 같은 사람이 갑자기 곧바로 살인자들과 사기꾼들의 무리 속으로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는 먼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과 아는 사람들의 면회는 의사도, 감독관도, 군 경찰서장까지도 모두 남몰래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요 며칠 동안 미탸를 찾아온 사람은 알료샤와 그루셴카뿐이었다. 라키틴이 벌써 두 번이나 그를 만나려고 들이댔지만, 미탸는 그를 들이지 말라고 바르빈스키에게 끈질기게 부탁했다.

알료샤가 갔을 때 미탸는 환자복을 입고 침상에 앉아 있었다. 열이 조금 있었고, 머리에는 식초 탄 물에 적신 수건을 감고 있었다. 그는 들어온 알료샤를 멍한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그 눈길에는 그래도 무언가 겁 같은 것이 언뜻 스쳤다.

대체로 재판 뒤로 그는 무섭게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이따금 그는 무언가를 힘겹고 괴롭게 곱씹는 듯 곁에 있는 사람을 잊은 채 반 시간씩 말이 없었다. 생각에서 깨어나 말을 시작할 때면 늘 어쩐지 갑작스럽게, 그리고 꼭 정말로 해야 할 말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이따금 괴로운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료샤와 있을 때보다 그루셴카와 있을 때 더 편한 듯했다. 사실 그는 그루셴카와 거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들어서기만 하면 온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다. 알료샤는 말없이 그 곁 침상에 앉았다. 이번에 미탸는 불안하게 알료샤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감히 묻지 못했다. 그는 카탸가 오기로 동의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고, 그와 동시에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무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리라고 느꼈다. 알료샤는 형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다.

"트리폰 말이야." 미탸가 부산스럽게 말을 꺼냈다. "보리시치 말이야, 그 사람이 자기 여관을 몽땅 망가뜨렸대, 마룻널을 들어 올리고 판자를 뜯어내고 '회량'을 통째로 산산조각 냈대, 검사가 내가 거기 숨겼다고 한 그 돈, 1천 5백 루블을 찾느라고 줄곧 보물을 찾는 거야.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대. 사기꾼한테는 꼴좋지! 어제 여기 간수가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이거든."

"들어 봐." 알료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올 거야.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몰라. 어쩌면 오늘, 어쩌면 며칠 안에. 그건 모르지만 올 거야, 올 거야, 이건 틀림없어."

미탸는 흠칫 떨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 소식은 그에게 무섭게 작용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싶어 괴로울 지경이었지만, 지금 또 묻기가 두려운 것이 눈에 보였다. 카탸에게서 나온 무언가 잔인하고 경멸에 찬 말은 이 순간 그에게 칼에 찔리는 것과 같았을 테니까.

"그 사람이 무엇보다 이렇게 말했어. 탈주에 대해서는 내가 꼭 형의 양심을 안심시켜 주라고. 그때까지 이반 형이 낫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그 일을 맡겠대."

"그 얘기는 벌써 나한테 했잖아." 미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리고 형은 벌써 그루샤에게 그 얘기를 전했지." 알료샤가 말했다.

"그래." 미탸는 털어놓았다. "그 여자는 오늘 아침에는 안 올 거야." 그는 쭈뼛쭈뼛 동생을 바라보았다. "저녁에나 올 거야. 어제 카탸가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여자는 입을 다물더라. 입술만 비틀렸어. 그저 '하라지 뭐!' 하고 속삭였을 뿐이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챈 거지. 나는 더 캐묻지 못했어. 이제는 그 여자도 아는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반을 사랑한다는 걸."

"그럴까?" 알료샤에게서 말이 튀어나왔다.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 다만 그 여자는 이제 아침에는 오지 않을 거야." 미탸는 서둘러 다시 한 번 짚었다. "그 여자한테 부탁을 하나 했거든…… 들어 봐, 이반 형은 모두를 넘어설 거야. 살아갈 사람은 그 사람이지 우리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나을 거야."

"생각해 봐, 카탸는 이반 형 때문에 떨면서도 형이 나으리라는 걸 거의 의심하지 않아." 알료샤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무서워서 나을 거라고 믿는 거지."

"이반 형은 체질이 튼튼해. 나도 형이 나으리라고 아주 크게 기대하고 있어." 알료샤가 불안하게 말했다.

"그래, 그 사람은 나을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확신해. 그 여자한테는 슬픔이 많아……"

침묵이 흘렀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미탸를 괴롭히고 있었다.

"알료샤, 나는 그루샤를 끔찍이 사랑해." 그는 떨리는,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로 갑자기 말했다.

"*거기*에는 그루샤를 들여보내 주지 않을 거야." 알료샤가 곧바로 받았다.

"그리고 너한테 또 하려던 말이 있어." 미탸는 갑자기 쨍하고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는 길에나 *거기서* 나를 때리기 시작하면 나는 가만있지 않을 거야. 죽여 버릴 거고, 그러면 나는 총살당하겠지. 그런데 스무 해야! 여기서도 벌써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 간수들이 나한테 *반말*을 해. 나는 누워서 오늘 밤새 나 자신을 심판했어. 각오가 안 됐어! 받아들일 힘이 없어! '찬가'를 부르려 했는데 간수들의 반말 하나를 이겨 내지 못해! 그루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디겠어, 무엇이든…… 하기야 매질만 빼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 여자를 들여보내 주지 않을 거야."

알료샤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들어 봐, 형, 이번에 아주 말해 둘게." 그가 말했다. "이 일에 대해 내 생각은 이래. 내가 형한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 들어 봐. 형은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십자가는 형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뿐이 아니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형에게는 그런 위대한 순교자의 십자가가 필요하지도 않아.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면, 형이 형의 십자가를 마다하는 것을 나는 안타깝게 여겼을 거야. 하지만 형은 죄가 없고, 그런 십자가는 형에게 너무 무거워. 형은 고통으로 형 안에 다른 사람을 되살리고 싶어 했지만, 내 생각에는 평생 동안, 형이 어디로 달아나든 그 다른 사람을 늘 기억하기만 하면 되고, 형에게는 그것으로 넉넉해. 형이 십자가의 큰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형이 형 안에 더 큰 빚을 느끼게 할 뿐이고, 앞으로 평생 쉬지 않는 이 느낌으로 형은 형의 부활을 돕게 될 거야, 어쩌면 *거기*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이. 거기서는 형이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게 될 테고, 어쩌면 정말로 마침내 '나는 셈을 치렀다' 하고 말하게 될 테니까. 그 점에서는 변호사가 옳은 말을 했어.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을 지울 수는 없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형에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게 내 생각이야. 형이 달아난 일로 다른 사람들이, 장교들이나 병사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나는 형이 달아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알료샤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솜씨 있게만 하면 큰 문책은 없을 수도 있고 하찮은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들 말하고 장담해(그 호송 중계소 사람이 직접 이반 형한테 그렇게 말했대). 물론 이 경우에도 뇌물을 주는 건 정직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나는 결코 심판하려 들지 않을 거야, 사실 이를테면 이반 형과 카탸가 이 일에서 형을 위해 나더러 손을 쓰라고 맡긴다면, 나도 가서 뇌물을 주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이건 형한테 진실을 다 말해야겠어. 그러니 형이 어떻게 하든 나는 형의 심판자가 아니야. 하지만 알아 둬, 나는 결코 형을 나무라지 않을 거야. 게다가 이 일에서 내가 어떻게 형의 심판자가 될 수 있겠어, 이상하잖아? 자, 이제 다 짚어 본 것 같아."

"그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심판할 거야!" 미탸가 외쳤다. "나는 달아날 거야. 그건 네가 없어도 정해져 있었어. 미치카 카라마조프가 달아나지 않을 수 있겠어? 하지만 그 대신 나 자신을 심판하고 거기서 영원히 죄를 빌 거야! 예수회 신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너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응?"

"그래." 알료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네가 늘 온전한 진실을 다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서 너를 사랑해!" 미탸는 기쁘게 웃으며 외쳤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알료시카를 예수회 신부로 붙잡은 거야! 그 일로 너를 온통 입 맞춰 줘야겠어, 정말이야! 자, 이제 나머지도 들어 봐. 내 영혼의 나머지 절반도 너한테

펼쳐 보일게. 내가 생각해 내고 정한 건 이래. 내가 달아난다 해도, 돈과 여권을 가지고, 아메리카로까지 달아난다 해도, 나는 기쁨을 누리러, 행복을 누리러 달아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또 다른 유형지로, 어쩌면 이것 못지않은 유형지로 달아나는 거라는 생각에 아직 힘을 얻어! 못하지 않아, 알렉세이, 참으로 말하는데 못하지 않아! 나는 그 아메리카가, 빌어먹을, 벌써부터 싫어. 그루샤가 나와 함께 있다 치자, 하지만 그 여자를 봐, 그래, 그 여자가 아메리카 여자야? 그 여자는 러시아 여자야, 뼛속까지 러시아 여자야. 그 여자는 어머니 같은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애태울 거고, 나는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애태우고 나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졌다는 걸 시간마다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 상놈들을 견딜 수 있겠어? 어쩌면 그놈들이 하나같이 나보다 낫다 해도 말이야? 나는 그 아메리카가 벌써부터 싫어! 거기 놈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기계공이든 뭐든 간에, 그놈들이야 알 게 뭐야, 내 사람들이 아니야, 내 영혼의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러시아를 사랑해, 알렉세이, 러시아의 하느님을 사랑해, 내가 비열한 놈이긴 해도! 거기 가면 나는 뒈지고 말 거야!" 그는 눈을 번득이며 갑자기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눈물로 떨렸다.

"그러니 이렇게 정했어, 알렉세이, 들어 봐!" 그는 흥분을 누르며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루샤와 함께 거기 가서는 곧바로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거야, 사나운 곰들과 함께, 외딴 데서, 어디 아주 먼 데서 말이야. 거기에도 어디 먼 데가 있을 거야! 거기엔 아직 붉은 피부의 사람들이 있다던데, 어디 지평선 끝에 말이야, 그러니 그 끝으로, 마지막 모히칸족한테로 가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문법에 매달리는 거야, 나하고 그루샤하고. 일과 문법, 그렇게 한 3년쯤. 그 3년 동안 영국 말을 영국 사람 중에서도 진짜배기 영국 사람처럼 배우는 거야. 그리고 배우자마자 아메리카는 끝이야! 아메리카 시민이 되어 여기로, 러시아로

달아나는 거야. 걱정 마, 여기 이 읍에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어디 먼 데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숨을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바뀌고 그 여자도 바뀔 거야, 거기 아메리카에서 의사가 나한테 무슨 혹이라도 하나 만들어 붙여 줄 거야, 괜히 거기 놈들이 기계공이겠어. 안 되면 나는 한쪽 눈을 찔러 버리고 수염을 1아르신이나 기를 거야, 하얗게(러시아가 그리워서 하얗게 셀 테니까), 그러면 아마 못 알아볼 거야. 알아보면 유형을 보내라지, 다 마찬가지야, 팔자가 아닌 거지! 여기서도 어디 외진 데서 땅을 갈며 살 거고, 나는 평생 아메리카 사람 행세를 할 거야. 그 대신 고향 땅에서 죽을 수 있잖아. 이게 내 계획이고, 이것은 움직일 수 없어. 찬성하니?"

"찬성해." 알료샤는 형의 말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말했다.

미탸는 잠깐 입을 다물더니 갑자기 말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그르쳐 놨는지 봐! 얼마나 그르쳐 놨는지!"

"그르치지 않았다 해도 어차피 형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거야." 알료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이곳 사람들이 나한테 질렸던 거지! 그 사람들이야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괴로워!" 미탸가 괴로워하며 신음하듯 말했다.

다시 잠깐 말이 끊겼다.

"알료샤, 지금 당장 나를 찔러 죽여 줘!" 그가 갑자기 외쳤다. "그 사람이 지금 올 거야, 안 올 거야, 말해 봐! 뭐라고 했어? 어떻게 말했어?"

"온다고 했어. 하지만 오늘인지는 몰라. 그 사람도 힘들잖아!" 알료샤는 쭈뼛쭈뼛 형을 바라보았다.

"그야 그렇지, 힘들지 않을 리가 없지! 알료샤, 나는 이 일로 미쳐 버릴 거야. 그루샤가 줄곧 나를 바라봐. 다 알아. 하느님, 주님, 저를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바라는 거지? 카탸를 바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나 알기는 하는 걸까? 카라마조프의 고삐 풀림, 불경한 고삐 풀림이야! 아니야, 나는 고통을 견딜 위인이 못 돼! 비열한 놈, 그 말이면 다야!"

"저기 왔어!" 알료샤가 외쳤다.

그 순간 문지방에 갑자기 카탸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한순간 멈추어 서서 어딘지 넋 나간 눈길로 미탸를 둘러보았다. 미탸는 쏜살같이 벌떡 일어섰고, 그의 얼굴에 겁이 드러났고 그는 창백해졌지만, 곧바로 그의 입술에 쭈뼛거리며 애원하는 미소가 어른거렸고, 그는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카탸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그것을 보자 카탸는 쏜살같이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 여자는 그의 두 손을 잡고 거의 억지로 그를 침대에 앉히고, 자기도 곁에 앉아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꼭, 경련하듯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몇 번이나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었고, 다시 말없이, 뚫어지게, 서로에게 붙박인 듯 이상한 미소를 띠고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2분쯤 지났다.

"용서했어, 안 했어?" 마침내 미탸가 더듬거렸고, 그와 동시에 알료샤 쪽으로 몸을 돌려 기쁨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에게 소리쳤다.

"내가 뭘 묻는지 들려, 들리지!"

"당신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랑했던 거야!" 카탸에게서 갑자기 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당신한테는 내 용서가 필요 없고, 나한테도 당신 용서가 필요 없어, 다 마찬가지야, 당신이 용서하든 안 하든 당신은 평생 내 영혼에 상처로 남을 거고, 나도 당신 영혼에 그렇게 남을 거야, 그래야 해……" 그 여자는 숨을 고르려고 말을 멈추었다.

"내가 무엇 하러 왔는데?"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서둘러 다시 말을 시작했다. "당신 발을 껴안고 당신 손을 꼭 쥐려고, 이렇게 아프도록, 기억나, 모스크바에서 당신 손을 이렇게 쥐었잖아, 당신은 내

하느님이고 내 기쁨이라고 다시 말하려고,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왔어." 그 여자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듯 말하고는 갑자기 그의 손에 입술을 탐하듯 갖다 댔다.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알료샤는 말없이 당황하여 서 있었다. 그는 자기가 본 것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은 지나갔어, 미탸!" 카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나간 그것이 나한테는 아프도록 소중해. 이것만은 영원히 알아 둬. 하지만 지금, 한순간만은, 있을 수도 있었던 그것이 있게 하자." 그 여자는 일그러진 미소를 띠고 다시 기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고 당신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걸 알고 있었어? 들려, 나를 사랑해, 평생 사랑해!" 그 여자는 거의 위협하는 듯한 떨림이 서린 목소리로 외쳤다.

"사랑할게, 그리고…… 있잖아, 카탸." 미탸도 한 마디마다 숨을 고르며 말하기 시작했다. "있잖아, 나는 닷새 전 그날 저녁에 너를 사랑했어…… 네가 쓰러지고 사람들이 너를 들어 옮길 때…… 평생! 그렇게 될 거야, 영원히 그렇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이렇게 거의 뜻 없고 미친 듯한, 어쩌면 진실하지조차 않은 말을 서로에게 더듬거렸지만, 바로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진실이었고, 두 사람 자신도 스스로를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다.

"카탸." 미탸가 갑자기 외쳤다. "내가 죽였다고 믿어?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때…… 네가 진술할 때…… 정말, 정말 믿었어?"

"그때도 믿지 않았어! 한 번도 믿은 적 없어! 당신을 증오해서 갑자기 나 자신을 믿게 만든 거야, 바로 그 순간만…… 진술할 때…… 믿게 만들었고 믿었어…… 그리고 진술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시 믿지 않게

됐어. 이걸 다 알아 둬. 내가 나 자신을 처형하러 왔다는 걸 잊고 있었어!" 그 여자는 방금 전의, 바로 조금 전의 사랑의 속삭임과는 전혀 닮지 않은, 어딘지 갑자기 아주 새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괴롭겠구나, 여자여!" 미탸에게서 갑자기 어쩐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말이 튀어나왔다.

"놓아줘." 그 여자가 속삭였다. "또 올게, 지금은 괴로워!……"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방에 갑자기, 그러나 아주 조용히 그루셴카가 들어왔다. 아무도 그 여자를 기다리지 않았다. 카탸는 쏜살같이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그루셴카와 나란히 서게 되자 갑자기 멈추어 서서 온통 분필처럼 하얘지더니,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신음하며 그루셴카에게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루셴카는 그 여자를 똑바로 쏘아보더니, 한순간 기다렸다가 독살스러운, 악의로 독이 오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봐, 우린 악해, 너나 나나! 둘 다 악해!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하겠어, 너나 나나? 저 사람이나 구해 줘. 그러면 평생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런데 용서는 하기 싫다는 거야!" 미탸가 미친 듯이 나무라며 그루셴카에게 소리쳤다.

"걱정 마, 그 사람을 너한테 구해 줄게!" 카탸는 재빨리 속삭이고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 여자가 직접 너한테 '용서해 줘' 하고 말했는데, 그러고도 너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어?" 미탸가 다시 쓰라리게 외쳤다.

"미탸 형, 그 사람을 나무라지 마, 형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어!" 알료샤가 형에게 뜨겁게 소리쳤다.

"그 여자는 입술로 오만하게 말한 거지,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루센카가 어쩐지 역겨워하며 말했다. "그 여자가 당신을 구해 내면 다 용서할게……"

그 여자는 무언가를 영혼 속에서 짓눌러 버리듯 입을 다물었다. 그 여자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들어온 것은 아주 우연이었고,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했으며 맞닥뜨린 것을 맞닥뜨리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알료샤, 그 사람을 쫓아가!" 미탸가 동생에게 다급히 몸을 돌렸다. "그 사람한테 말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게 두지 마!"

"저녁 전에 다시 올게!" 알료샤는 소리치고 카탸를 쫓아 달려갔다. 그는 이미 병원 울타리 밖에서 그 여자를 따라잡았다. 그 여자는 빨리, 서둘러 걷고 있었지만, 알료샤가 따라잡자마자 재빨리 그에게 말했다.

"아니요, 그 여자 앞에서는 나 자신을 처형할 수 없어요!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을 처형하고 싶어서 그 여자에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그 여자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좋아요!" 카탸는 일그러진 목소리로 덧붙였고, 그 여자의 눈이 사나운 악의로 번득였다.

"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알료샤가 중얼거리려 했다. "형은 그 사람이 오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어요……"

"의심할 것 없지요. 그 얘기는 그만둬요." 카탸가 딱 잘랐다.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거기 장례식에 갈 수 없어요. 작은 관에 놓으라고 그 집에 꽃을 보냈어요. 그 집에는 아직 돈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결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해 주세요…… 자, 이제 나를 두고 가세요, 두고 가세요, 제발요. 당신은 벌써 거기 늦었어요. 늦은 성찬 예배 종이 울리고 있어요…… 나를 두고 가세요, 제발!"

제3장 일류셰치카의 장례식. 돌 곁의 연설

정말로 그는 늦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다가 그가 없더라도 꽃으로 꾸민 예쁜 작은 관을 성당으로 옮기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었다. 그것은 가엾은 소년 일류셰치카의 관이었다. 일류셰치카는 미탸가 판결을 받고 이틀 뒤에 숨을 거두었다. 알료샤는 아직 집 대문 앞에 있을 때부터 일류샤의 친구들인 소년들의 외침에 맞이되었다. 소년들은 모두 조바심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마침내 오자 기뻐했다. 모두 열두 명쯤 모였는데, 다들 작은 책가방과 어깨에 메는 가방을 메고 왔다. "아빠가 울 거야, 아빠 곁에 있어 줘." 일류샤가 죽어 가며 소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고, 소년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 맨 앞에는 콜랴 크라솟킨이 있었다.

"와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카라마조프!" 그는 알료샤에게 손을 내밀며 외쳤다. "여기는 끔찍해요. 정말이지 보기가 괴로워요. 스네기료프 씨는 취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꼭 취한 사람 같아요…… 나는 늘 꿋꿋하지만 이건 끔찍해요. 카라마조프,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면,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뭔데요, 콜랴?" 알료샤가 걸음을 멈추었다.

"형님은 죄가 없어요, 있어요? 형님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하인이 죽였어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믿을게요. 이 생각 때문에 나흘 밤을 못 잤어요."

"하인이 죽였고, 형은 죄가 없어요." 알료샤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말해!" 소년 스무로프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리를 위해 죄 없는 희생자로 파멸하는 거군요!" 콜랴가 외쳤다. "그분은 파멸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나는 그분이 부러울 정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왜요?" 알료샤가 놀라서 외쳤다.

"오, 나도 언젠가 진리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만 있다면." 콜랴가 열광하여 말했다.

"하지만 그런 일로, 그런 치욕을 쓰고, 그런 끔찍한 꼴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료샤가 말했다.

"물론이죠…… 나는 온 인류를 위해 죽고 싶어요. 치욕으로 말하자면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우리 이름이야 사라져도 좋아요. 나는 당신 형님을 존경해요!"

"나도 그래!" 언젠가 트로이를 누가 세웠는지 안다고 밝혔던 바로 그 소년이 무리 속에서 갑자기, 이번에도 아주 뜻밖에 소리치더니, 소리치고 나서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작약처럼 귀까지 온통 빨개졌다.

알료샤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얀 주름 장식을 두른 하늘색 관 속에 일류샤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여윈 얼굴의 생김새는 거의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시체에서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얼굴 표정은 진지하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특히 십자로 모은 두 손이 아름다웠는데, 꼭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것 같았다. 손에는 꽃을 쥐여 주었고, 관도 이미 안팎이 온통 꽃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리자 호흘라코바가 날이 밝자마자 보낸 꽃이었다. 그러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도 꽃이 왔고, 알료샤가 문을 열었을 때 2등 대위는 떨리는 두 손에 꽃 한 묶음을 쥐고 그 꽃을 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소년 위에 뿌리고 있었다. 그는 들어온 알료샤를 겨우 쳐다보았을 뿐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고, 아픈 다리로 줄곧 몸을 일으켜 죽은 아들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고 애쓰는, 울고 있는 정신 나간 아내, 자기의 "어머니"조차 보려 하지 않았다. 니노치카는 아이들이 의자째 들어 올려 관 바로 곁으로 옮겨 주었다. 니노치카는 관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고, 아마 역시 조용히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스네기료프의 얼굴은 생기가 돌았지만 넋이 나간 듯했고, 그와 함께 모질어 보이기도 했다. 그의 몸짓에도, 그에게서 튀어나오는 말에도 무언가 반쯤 정신이 나간 것이 있었다. "아가야, 귀여운 내 아가야!" 그는 일류샤를 바라보며 쉴 새 없이 외쳤다. 일류샤가 살아 있을 때부터 그에게는 아들을 귀여워하며 "아가야, 귀여운 내 아가야!" 하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여보, 나한테도 꽃을 줘요, 그 애 손에서 꺼내서, 이 하얀 거, 그걸 줘요!" 정신 나간 "어머니"가 흐느끼며 부탁했다. 일류샤 손에 들려 있던 작고 하얀 장미가 그토록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기념으로 그 애 손에서 꽃을 갖고 싶었는지, 어머니는 꽃을 향해 두 손을 내밀며 온몸으로 허둥댔다.

"아무한테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스네기료프가 매정하게 외쳤다. "그 애 꽃이지 당신 꽃이 아니야. 다 그 애 거지, 당신 건 하나도 없어!"

"아빠, 엄마한테 꽃을 주세요!" 니노치카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갑자기 들었다.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저 사람한테는 더더구나 안 줄 거야! 저 사람은 그 애를 사랑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그때 그 애한테서 작은 대포를 빼앗았고, 그 애는 그걸 저 사람한테 서-언-물했지." 일류샤가 그때 자기 작은 대포를 엄마에게 양보한 일을 떠올리며 2등 대위는 갑자기 소리 내어 흐느꼈다. 가엾은 정신 나간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온통 조용한 울음에 잠겼다. 소년들은 아버지가 관을 놓아주지 않는데 이제

옮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침내 보고는, 갑자기 관을 빽빽이 에워싸고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울타리 안에 묻기는 싫어!" 스네기료프가 갑자기 부르짖었다. "돌 곁에 묻을 거야, 우리 돌 곁에! 일류샤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옮기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전에도 사흘 내내 돌 곁에 묻겠다고 말했지만, 알료샤와 크라솟킨, 집주인 노파와 그 동생, 그리고 소년들이 모두 말렸다.

"원, 별생각을 다 하네, 그 더러운 돌 곁에 묻겠다니, 목매단 사람도 아니고." 늙은 집주인이 엄하게 말했다. "저기 울타리 안에는 십자가가 선 땅이 있어. 거기서 그 애를 위해 기도들을 해 줄 거야. 성당에서 성가 소리가 들리고, 보제님이 또랑또랑 말씀을 잘 읽으시니 그 소리가 번번이 다 그 애한테 닿을 거야. 꼭 그 애 무덤 위에서 읽어 주는 것처럼."

2등 대위는 마침내 두 손을 내저었다. "마음대로 옮기라지!" 하는 뜻이었다. 아이들은 관을 들어 올렸지만, 어머니 곁을 지나갈 때 잠깐 어머니 앞에 멈추어 어머니가 일류샤와 작별할 수 있도록 관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사흘 내내 조금 떨어진 곳에서만 바라보던 그 사랑하는 작은 얼굴을 갑자기 가까이에서 보자, 어머니는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관 위에서 히스테릭하게 하얗게 센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엄마, 그 애한테 성호를 그어 줘요, 축복해 줘요, 입 맞춰 줘요." 니노치카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동인형처럼 줄곧 머리를 흔들다가, 타는 듯한 슬픔에 일그러진 얼굴로 말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 관은 더 멀리 옮겨졌다. 관이 곁을 지나갈 때 니노치카는 마지막으로 죽은 동생의 입술에 입술을 댔다.

알료샤는 집을 나서면서 남은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고 집주인 노파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노파는 말을 끝까지 하게 두지도 않았다.

"알다마다요, 저 사람들 곁에 있을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요." 노파는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성당까지는 멀지 않아서 3백 걸음쯤, 그 이상은 아니었다. 날은 맑고 고요해졌고, 얼어붙었지만 조금이었다.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었다. 스네기료프는 낡고 짤막한, 거의 여름 것이나 다름없는 외투를 입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낡고 챙이 넓은 부드러운 모자를 손에 들고서 부산스럽게, 넋이 나간 채 관을 쫓아 달려갔다. 그는 무언가 풀 수 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관 머리 쪽을 받치려고 갑자기 손을 내밀어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만 하다가, 옆으로 달려가 어디 끼어들 데가 없나 찾기도 했다. 꽃 한 송이가 눈 위에 떨어지자 그는 그것을 주우려고 그대로 몸을 던졌는데, 마치 이 꽃 한 송이를 잃는 데 하느님이나 아실 무엇이 달려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빵 껍질, 빵 껍질을 잊었어." 그는 갑자기 무섭게 놀라 외쳤다. 그러나 소년들은 그가 이미 아까 빵 껍질을 챙겼고 그것이 그의 주머니에 있다고 곧바로 일깨워 주었다. 그는 순식간에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보고,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다.

"일류셰치카가 시켰어요, 일류셰치카가요." 그는 곧바로 알료샤에게 풀이했다. "밤에 그 애가 누워 있고 저는 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켰어요. '아빠, 내 무덤을 덮으면 그 위에 빵 껍질을 부스러뜨려 줘, 참새들이 날아오게. 참새들이 날아온 소리를 들으면 혼자 누워 있는 게 아니라서 나는 즐거울 거야.'"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알료샤가 말했다. "자주 가져가야겠어요."

"날마다요, 날마다요!" 2등 대위는 온몸에 생기가 도는 듯 재잘거렸다.

마침내 성당에 닿아 그 한가운데에 관을 놓았다. 소년들은 모두 관을 빙 둘러싸고 예배 내내 얌전하게 그렇게 서 있었다. 성당은 오래되고 꽤 가난해서 덮개 없는 성상이 많았지만, 이런 성당에서는 어쩐지 기도가 더 잘된다. 성찬 예배 동안 스네기료프는 조금 잠잠해진 듯했지만, 그래도 때때로 그에게서 똑같은 무의식적이고 갈피를 잃은 듯한 걱정이 터져 나왔다. 관에 다가가 관포와 이마띠를 바로잡기도 하고, 촛대에서 초 한 자루가 떨어지자 갑자기 그것을 다시 꽂으려고 달려들어 무섭게 오래 그것과 씨름하기도 했다. 그다음에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멍하니 걱정스러우면서도 어리둥절한 듯한 얼굴로 관 머리맡에 얌전히 섰다. 사도서 봉독이 끝나자 그는 갑자기 곁에 서 있던 알료샤에게 사도서를 *잘못* 읽었다고 속삭였지만, 무엇이 그렇다는 것인지 생각을 풀어 말하지는 않았다. 케루빔 찬가 때 그는 따라 부르려다가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성당의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꽤 오래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마침내 장례 예식이 시작되어 초를 나누어 주었다. 넋이 나간 아버지는 다시 허둥대려 했지만, 가슴을 저미고 뒤흔드는 장례 성가가 그의 영혼을 깨우고 뒤흔들었다. 그는 어쩐지 갑자기 온몸을 움츠리더니 처음에는 소리를 죽이며, 나중에는 크게 흐느끼며 잦고 짧게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고 관을 덮기 시작하자, 그는 일류셰치카를 덮지 못하게 하려는 듯 두 팔로 관을 끌어안고 죽은 아들의 입술에 자꾸, 탐하듯, 떨어지지 않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람들이 그를 달래어 계단에서 데리고 내려오려 했는데, 그는 갑자기 재빨리 손을 뻗어 작은 관에서 꽃 몇 송이를 집어 들었다. 그는 그 꽃을 바라보았고, 무언가 새로운 생각이 그에게 떠오른 듯 한순간 가장 중요한 일을 잊은 것 같았다. 그는 조금씩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사람들이 관을 들어 무덤으로 옮길 때는 이미 맞서지 않았다. 무덤은 멀지 않아서 울타리 안, 성당 바로 곁에 있었고 비싼 자리였는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값을 치렀다. 여느 의식이 끝나자 무덤 파는 사람들이 관을 내렸다. 스네기료프는 꽃을 손에 든 채 열린 무덤 위로 어찌나 몸을 숙였던지 소년들이 겁에 질려 그의 외투를 붙잡고 뒤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했다. 무덤을 흙으로 덮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걱정스럽게 쏟아지는 흙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기까지 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 자신도 갑자기 잠잠해졌다. 그때 사람들이 빵 껍질을 부스러뜨려야 한다고 일깨워 주자, 그는 무섭게 허둥대며 빵 껍질을 꺼내 뜯어서 무덤 위에 조각들을 뿌리기 시작했다. "자, 날아오너라, 새들아, 자, 날아오너라, 참새들아!" 그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소년들 가운데 누군가가 꽃을 손에 들고는 뜯기 불편하니 잠깐 누구에게 들고 있으라고 맡기라고 그에게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맡기지 않았고, 누가 그 꽃을 아주 빼앗으려 하기라도 하는 듯 갑자기 꽃 걱정에 겁을 먹기까지 하더니, 무덤을 둘러보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났고 빵 조각도 뿌렸다는 것을 확인한 듯하더니, 갑자기 뜻밖에, 그것도 아주 차분하게 돌아서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점점 잦아지고 다급해져서, 그는 서둘렀고 거의 달려갔다. 소년들과 알료샤는 그에게서 뒤처지지 않았다.

"어머니한테 꽃을, 어머니한테 꽃을! 어머니가 서운했어." 그가 갑자기 외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지금 날이 추우니 모자를 쓰라고 그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그 말을 듣자 화가 난 듯 모자를 눈 위에 내동댕이치고 "모자는 싫어, 모자는 싫어!" 하고 되뇌기 시작했다. 소년 스무로프가 모자를 주워 들고 그를 따라갔다. 소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울었는데, 누구보다 콜랴와 트로이를 밝혀낸 소년이 많이 울었으며, 스무로프는 대위의 모자를 손에 든 채 무섭게 울면서도, 거의 달려가면서 길 위의 눈 속에 빨갛게 드러난 벽돌 조각 하나를 쏜살같이 날아가는 참새 떼에

던지려고 기어이 집어 들었다. 물론 맞히지 못했고, 그는 울면서 계속 달려갔다. 길을 반쯤 가다가 스네기료프는 갑자기 멈추어 서서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반 분쯤 서 있더니, 갑자기 성당 쪽으로 돌아서서 두고 온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년들이 순식간에 그를 따라잡아 사방에서 그에게 매달렸다. 그러자 그는 힘이 빠진 듯, 쓰러진 사람처럼 눈 위에 쓰러져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흐느끼며 외치기 시작했다. "아가야, 일류셰치카, 귀여운 내 아가야!" 알료샤와 콜랴가 그를 일으키며 애원하고 달래기 시작했다.

"대위님, 그만하세요, 용감한 사람은 견뎌야 해요." 콜랴가 중얼거렸다.

"꽃이 상하겠어요." 알료샤도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일류셰치카의 꽃을 주지 않으셨다고 앉아서 울고 계세요. 저기 아직 일류샤의 침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한테!" 스네기료프가 갑자기 다시 생각해 냈다. "침대를 치울 거야, 치울 거야!" 그는 정말로 치워 버릴까 봐 겁이 난 듯 덧붙이더니 벌떡 일어나 다시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았고, 모두 함께 달려 닿았다. 스네기료프는 문을 확 열어젖히고, 아까 그토록 매정하게 다투었던 아내에게 부르짖었다.

"어머니, 여보, 일류셰치카가 당신한테 꽃을 보냈어, 당신의 아픈 다리한테!" 그는 방금 눈 위에서 몸부림칠 때 얼고 꺾인 꽃 한 다발을 아내에게 내밀며 소리쳤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일류샤의 침대 앞 구석에 두 짝이 나란히 서 있는, 집주인이 방금 치워 놓은 일류샤의 작은 장화를, 낡고 누렇게 바래고 뻣뻣하게 굳은, 기운 자리가 있는 작은 장화를 보았다. 그것을 보자 그는 두 손을 쳐들고 그대로 장화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한 짝을 움켜쥐더니, 거기에 입술을 대고 탐하듯

입을 맞추기 시작하며 외쳤다. "아가야, 일류셰치카, 귀여운 내 아가야, 네 작은 발은 어디 있니?"

"그 애를 어디로 데려갔어? 그 애를 어디로 데려갔어?" 정신 나간 여자가 가슴을 찢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니노치카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콜랴가 방에서 뛰어나갔고, 그 뒤를 따라 소년들도 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을 따라 알료샤도 나갔다. "실컷 울게 둬요." 그는 콜랴에게 말했다. "지금은 물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잠깐 기다렸다가 돌아가요."

"그래요, 위로할 수 없어요, 끔찍해요." 콜랴가 맞장구쳤다. "있잖아요, 카라마조프."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는 몹시 슬퍼요. 그 애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내주겠어요!"

"아, 나도 그래요." 알료샤가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카라마조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기 와야 할까요? 그분은 술에 취할 텐데요."

"어쩌면 취하겠지요. 당신하고 나 둘만 와요. 그거면 돼요. 어머니와 니노치카 곁에 한 시간쯤 앉아 있으려면요.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오면 저분들에게 다시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할 테니까요." 알료샤가 일러 주었다.

"저 집에서는 지금 집주인이 상을 차리고 있어요. 추도 식사라나 뭐라나 하는 걸 할 거고, 신부님도 올 거예요. 우리 지금 거기로 돌아가야 할까요, 카라마조프, 말아야 할까요?"

"꼭 가야지요." 알료샤가 말했다.

"이 모든 게 이상해요, 카라마조프. 이런 슬픔에, 그런데 갑자기 블린이라니, 우리 종교에서는 이 모든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거기에는 연어도 있을 거예요." 트로이를 밝혀낸 소년이 갑자기 크게 말했다.

"진지하게 부탁하는데요, 카르타쇼프, 더는 당신의 어리석은 소리로 끼어들지 말아요. 특히 아무도 당신한테 말을 걸지 않고, 당신이 세상에 있는지조차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요." 콜랴가 짜증스럽게 그쪽에 대고 딱 잘랐다. 소년은 그대로 확 달아올랐지만 감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모두 오솔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무로프가 외쳤다.

"저기 일류샤의 돌이야, 그 애를 그 밑에 묻으려고 했던!"

모두 말없이 커다란 돌 곁에 멈추어 섰다. 알료샤가 그 돌을 바라보자, 언젠가 스네기료프가 일류셰치카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 그 애가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고 "아빠, 아빠, 그 사람이 아빠를 얼마나 욕보였는데!" 하고 외쳤다는 이야기의 장면 전체가 단번에 그의 기억에 떠올랐다. 무언가 그의 영혼 속에서 뒤흔들린 듯했다. 그는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로 일류샤의 친구들인 학생들의 이 모든 사랑스럽고 밝은 얼굴들을 둘러보고는 갑자기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소년들은 그를 둘러싸고 곧바로 그에게 뚫어지게 기다리는 눈길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는 곧 헤어질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 동안은 두 형 곁에 있는데, 한 형은 유형을 떠날 거고 다른 한 형은 죽음의 문턱에 누워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곧 이 읍을 떠날 거예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요. 그러니 우리는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일류샤의 돌 곁에서 결코 잊지 않기로 약속해요, 첫째로 일류셰치카를, 그리고 둘째로 서로서로를요. 그리고 나중에 살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설령 그 뒤로 스무 해 동안 만나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그 가엾은 소년을 어떻게 묻었는지 기억해요, 전에는 우리가 그 애에게 돌을 던졌던, 기억하지요, 저기 작은 다리 곁에서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모두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그 소년을요. 그 애는 훌륭한 소년이었어요, 착하고 용감한 소년이었고, 명예를 알았고 아버지가 당한 쓰라린 모욕을 느꼈고, 그 때문에 들고일어났어요. 그러니 첫째로 우리 평생 그 애를 기억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에 매달리게 되든, 영예를 얻든, 무슨 큰 불행에 빠지든, 그래도 결코 잊지 말아요, 한번은 여기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토록 좋고 착한 감정으로 하나가 되어 얼마나 좋았는지를요, 그 감정은 우리가 그 가엾은 소년을 사랑한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어쩌면 실제의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내 비둘기들, 이렇게 부르게 해 줘요, 비둘기들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착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 예쁜 잿빛 새들을 꼭 닮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얘들아, 어쩌면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나는 자주 아주 알아듣기 어렵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면 나중에 언젠가는 내 말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알아 둬요, 무언가 좋은 추억, 특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집에서부터 간직해 온 추억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쓸모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육에 대해 많은 말을 듣지만,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무언가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추억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좋은 교육일 거예요. 그런 추억을 많이 모아 삶으로 가지고 가면 사람은 평생 구원받아요. 그리고 좋은 추억이 단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중에 악해지기까지 하고, 나쁜 짓 앞에서 버틸 힘도 없게 되고, 사람의 눈물을 비웃고, 아까 콜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고통받고 싶어요' 하고 외쳤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악의에 차서 놀려 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악해진다 해도, 하느님이 그런 일은 없게 해 주시길 빌지만, 우리가 일류샤를 어떻게 묻었는지,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돌 곁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정하게, 얼마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떠올리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웃기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 해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얼마나 착하고 좋았는지를 속으로 감히 비웃지는 못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로 이 추억 하나가 그를 큰 악에서 붙잡아 줄 거고,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나는 그때 착하고, 용감하고, 정직했어.' 속으로 피식 웃는다 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착하고 좋은 것을 자주 비웃지요, 그건 경솔해서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장담하는데, 피식 웃자마자 곧바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웃은 건 잘못이야, 이건 비웃을 일이 아니니까!'"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카라마조프, 나는 당신 말을 알아요, 카라마조프!" 콜랴가 눈을 번득이며 외쳤다. 소년들은 술렁이며 그들도 무언가 외치고 싶었지만, 감동하여 연설하는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참았다.

"이건 우리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알료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나빠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착해지고, 그다음에 정직해지고, 그다음에는 서로를 결코 잊지 말아요. 이 말을 다시 되풀이할게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약속할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나를 바라보는 얼굴 하나하나를 서른 해가 지나도 떠올릴 거예요. 아까 콜랴가 카르타쇼프에게, 우리가 '카르타쇼프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요. 하지만

카르타쇼프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가 트로이를 밝혀냈을 때처럼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 훌륭하고 착하고 명랑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일류셰치카처럼 너그럽고 용감해져요, 콜랴처럼 똑똑하고 용감하고 너그러워져요(하지만 콜랴는 자라면 훨씬 더 똑똑해질 거예요), 그리고 카르타쇼프처럼 부끄럼을 타지만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그 두 사람 얘기만 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나에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모두를 내 마음에 담을 테니, 여러분도 나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제나, 평생 떠올릴 것이고 또 떠올리려 하는 이 착하고 좋은 감정으로 우리를 하나로 맺어 준 사람이 누구지요, 일류셰치카 말고 누구겠어요, 착한 소년, 사랑스러운 소년,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소년이지요! 그러니 그 애를 결코 잊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애를 영원히, 좋게 기억해요,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그래요, 그래요, 영원히, 영원히." 소년들이 모두 감동한 얼굴로 낭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애 얼굴도, 그 애 옷도, 그 애의 가엾은 작은 장화도, 그 애의 작은 관도, 그 애의 불행하고 죄 많은 아버지도, 그 애가 아버지를 위해 혼자 용감하게 반 아이들 모두와 맞서 들고일어난 일도 기억해요!"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소년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 애는 용감했어요, 그 애는 착했어요!"

"아, 나는 그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콜랴가 외쳤다.

"아, 얘들아, 아, 사랑하는 친구들,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언가 착하고 참된 일을 하고 나면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요." 소년들이 감격하여 되풀이했다.

"카라마조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아마 카르타쇼프인 듯한 목소리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외쳤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모두가 따라 외쳤다. 많은 아이들의 눈에 눈물방울이 반짝였다.

"카라마조프 만세!" 콜랴가 감격하여 외쳤다.

"그리고 죽은 소년에게 영원한 기억을!" 알료샤가 다시 감정을 담아 덧붙였다.

"영원한 기억을!" 소년들이 다시 따라 외쳤다.

"카라마조프!" 콜랴가 소리쳤다. "정말로 종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되살아나고, 다시 서로를, 그리고 모두를, 일류셰치카도 보게 된다고 말하나요?"

"꼭 일어날 거예요, 꼭 다시 볼 거고, 있었던 일을 모두 즐겁게, 기쁘게 서로 이야기할 거예요." 알료샤가 반은 웃으며, 반은 감격하여 대답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콜랴에게서 말이 터져 나왔다.

"자, 이제 연설은 그만하고 그 애의 추도 식사에 가요. 블린을 먹는다고 당황하지 말아요. 그건 오래된, 영원한 일이고, 거기에는 좋은 것이 있어요." 알료샤가 웃었다. "자, 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평생 손에 손을 잡고! 카라마조프 만세!" 콜랴가 다시 한 번 열광하여 외쳤고, 다시 한 번 소년들이 모두 그 외침을 따라 외쳤다.

판권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원제 ·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Роман в четырех частях с эпилогом (네 부와 에필로그로 된 장편소설)

지은이 ·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 1821~1881)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879~1880년 모스크바의 잡지 『러시아 통보(Русский вестник)』 연재, 1880년 단행본(전 2권).

저본 · 러시아어 위키문헌(ru.wikisource.org)의 현대 철자본. 러시아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다. 콘스탄스 가넷의 1912년 영역본을 제12권 제4장까지 대조용으로만 참고했다.

분량 · 원문 292,785단어 · 헌사, 작가로부터, 4부 12권 93장, 에필로그 3장 · 5,063문단(원문과 같음) · 옮긴이 주 30개

저작권 · 지은이가 1881년에 사망해 원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1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27